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00.txt

제목: 간암 일으키는 유전자 작용 기전 규명, 표적 치료 기대  
날짜: 20151110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0356538  
본문: 특정 유전자가 간암을 일으키는 과정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내 간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br/> <br/>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로 알려진 히포(HIPPO)가 간암 세포의 대사 및 신호전달 통로를 조절해 간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규명돼, 간암 환자의 예후 예측과 새 표적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융합의학과 박윤용 교수와 미국 MD앤더슨병원 이주석 교수 공동 연구팀은 히포(HIPPO) 유전자의 기능 저하로 활성화되는 YAP/TAZ 유전자가 간암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는 글루타민 이동체 SLC7A5/SLC38A1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br/> <br/>또한 글루타민 이동체가 증가되면 mTOR라는 암 신호전달 통로가 활성화되는 기전도 함께 발견해, 히포 유전자로 인해 활성화된 YAP/TAZ 유전자가 궁극적으로 간암의 생성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br/> <br/>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수행한 이 연구 결과는 국제저명학술지인 미국 간학회지 헤파톨로지(Hepatology)와 암학회지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Clinical Cancer Research) 최신호에 각각 발표 되었다. <br/> <br/> 간암 일으키는 히포 유전자 작용 기전. <br/>5년 생존율이 20∼30% 수준에 불과한 간암은 효과적인 약물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암 생성과 관련된 유전자 마커는 밝혀진 바 없어 뚜렷한 표적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br/> <br/>또한 2003년 세포의 증식을 막고 죽음을 촉진하는 '히포(HIPPO)'라는 유전자가 암 세포의 생성도 억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나, 발암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특히 암 세포 증식이 잘 이뤄지는 간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br/> <br/>연구팀은 먼저 초파리에서 발견된 히포 유전자의 작용 원리를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 포유류가 가지는 유전자 중 히포에 상응하는 MST1/2를 쥐에 적용해 조절했다. 히포의 포유류 유전자인 MST1/2를 쥐에서 인위적으로 결여시켜 간암이 자연적으로 생성되게 만든 다음, 쥐의 유전자를 분석해 MST1/2의 활성화 관련 유전자 프로화일을 구축했다. <br/> <br/>이러한 쥐의 유전자 프로화일를 바탕으로 미국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GEO)에 등록돼 있는 한국, 중국, 미국 간암환자 455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해 MST1/2의 활성이 높은 362명의 간암 환자와 그렇지 않은 93명의 환자로 구분했고 환자의 예후를 관찰했다. <br/> <br/>MST1/2의 활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 보다 통계학적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MST1/2 즉 히포 유전자가 인간에게도 종양 억제 효과가 있으며 간암 생성도 줄일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 <br/>이를 토대로 MST1/2에 의한 간암 생성 기전을 규명하기 위하여 MST1/2의 하위 유전자인 YAP/TAZ를 이용해 간암 세포에서 유전자 프로화일을 구축했다. YAP/TAZ는  MST1/2가 억제될 때 활성화되는 패밀리 유전자로서 유전체 분석에 용이하게 사용된다. <br/> <br/>분석 결과 YAP/TAZ 유전자의 활성화에 따라 암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 대사를 활발히 하는 SLC7A5, SLC38A1과 같은 글루타민 이동체의 발현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글루타민은 글루코스와 더불어 암세포 생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대사 물질로 특히 간암에서 에너지원으로 많이 이용돼 활성화 될수록 간암 생성을 촉진한다. <br/> <br/>특정 단백질과 특정 유전자의 결합을 파악하는 분석법(ChiP, Reporter assay 등)으로  YAP/TAZ를 세포에서 억제 시켰을 때 SLC7A5, SLC38A1의 발현이 감소함을 확인해, 이 유전자가 글루타민 이동체를 직접적으로 조절하고 결국 간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다. <br/> <br/>더불어 YAP/TAZ 유전자의 또다른 간암 생성 기전도 찾았다. YAP/TAZ가 SLC7A5, SLC38A1의 조절을 통해 mTOR라는 세포내 암 신호전달 통로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br/> <br/>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융합의학과 박윤용 교수. <br/>YAP/TAZ를 세포에서 억제했을 때 mTOR의 발현이 감소함을 확인했고 간암 환자의 유전체 분석에서도 YAP/TAZ의 발현과 mTOR의 촉진 연관성이 통계적 방법으로 확인됐다. <br/> <br/>그리고 mTOR의 억제제로 알려진 라파마이신(Rapamycin)이 실제 간암 생성 억제에도 효과가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히포 유전자의 기능 저하로 mTOR가 활성화된 쥐에 라파마이신을 투여하자 간암 생성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br/> <br/>이는 mTOR를 억제해 간암 생성을 막는 것으로, 쥐를 대상으로 얻은 연구 결과지만 결국 (HIPPO)와 같은 MST1/2 유전자로 YAP/TAZ과 mTOR에 영향을 받는 인체에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다. 즉 이러한 특정 유전자 발현 정도를 표적으로 삼아 라파마이신을 선택적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br/> <br/>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융합의학과 박윤용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간암 생성에 영향을 주는 히포 유전자와 암세포 대사와의 조절 기전을 최초로 규명한 연구로서, 간암 환자의 예후를 MST1/2 유전자 군에 따라 예측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는데 큰 성과가 있다"고 전했다. <br/> <br/>이어 "특히 YAP1/TAZ 유전자와 mTOR가 동시에 증가한 경우 선별적으로 라파마이신을 사용한다면 간암 생성이 억제될 것으로 확인돼, 표적 치료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01.txt

제목: 미얀마 아웅산 수치, 과거 수치 의장 이야기 영화로 제작…내용은?  
날짜: 20151110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0327160  
본문: 미얀마 아웅산 수치미얀마 아웅산 수치, 과거 수치 의장 이야기 영화로 제작…내용은? <br/> <br/> 민주화 운동의 가시밭길을 걸어온 아웅산 수치(70) 의장의 이야기가 과거 영화로 만들어진 사실이 새삼 화제다. <br/> <br/> 영화 '더 레이디'는 아웅산 수치 의장의 이야기를 남은 내용으로, 뤽 베송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양자경, 데이빗 듈리스, 조나단 우드하우스가 출연했다. <br/> <br/> 아웅산 수치 의장은 영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던 중 위독한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미얀마로 돌아갔다. 이후 아웅산 수치 의장은 자유를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조국의 민주화를 이룩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아웅산 수치 여사는 독재정권 탄압으로 가택연금을 당하고 설상가상 남편이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br/> <br/> 영화 속에서는 아웅산 수치가 자신을 믿는 국민들과 사랑하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br/> <br/> 한편 미얀마 총선에서 전체 의석의 약 3분의 1이 개표를 마친 가운데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이 90% 이상의 의석을 얻으며 압승을 예고했다. <br/> <br/> AP통신 등 외신들은 민주주의민족동맹이 미얀마 전체 14개 주 가운데 4개 주의 상하원 의석 164석 가운데 94%인 154석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br/> <br/> 민주주의민족동맹은 최대 도시 양곤에서 하원 45석 중 44석과 상원 12석 전부를 획득했고 에야와디에서도 하원 26석과 상원 12석을 모두 가져갔다. <br/> <br/> 개표 중인 나머지 10개 주에서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주의민족동맹은 단독 집권이 가능한 67% 이상의 선출직 의석을 확보해 53년 만에 군부독재를 끝낼 가능성이 커졌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02.txt

제목: 세계 최대 규모? 최고 권위의 미국생식의학회(ASRM)‘차광렬 줄기세포 상’2015년 수상자 선정  
날짜: 20151109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5914427  
본문: 제 71차 미국생식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 ASRM)에서 세 번째 ‘차광렬 줄기세포 상` 을 수상한 쟈틴 패텔(Jatin Patel)박사 <br/>차병원그룹은 볼티모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71차 미국생식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 ASRM)에서  ‘차광렬 줄기세포 상' 세 번째 수상자로 호주 퀸슬랜드 대학 의학연구원 쟈틴 패텔(Jatin Patel)박사를 선정해 수상했다고 밝혔다.  <br/> <br/> 이번에 선정된 쟈틴 패텔 박사는 ‘태반유래 혈관내피 전구세포와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혈관질환의 치료 및 조직재생’이라는 연구과제로 주목을 받은 젊은 의과학자다. 혈관내피 전구세포란 혈관형성을 촉진하는 세포로 주로 혈관 형성에 관여한다. 허혈성 질환이나 암, 망막병증 등 여러가지 질환의 혈관형성에 관여하며 특히 중간엽 줄기세포는 죽어버린 간세포, 혈관내피세포, 심장세포, 뼈세포, 신경세포 등을 재생시킬 수 있어 장기이식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br/> <br/> 쟈틴 패텔 박사는 연구과제를 통해 태반 중에서도 태아 쪽으로부터 유래한 태반유래 혈관내피 전구세포와 중간엽 줄기세포를 순수하게 분리해내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 허혈성 질환의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2015년 차광렬 줄기세포 상의 수상자로 쟈틴 패텔 박사를 선정했다.        <br/> <br/> 이번 상을 수상한 쟈틴 패텔 박사는 “<span class='quot0'>줄기세포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인 ‘차광렬 줄기세포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span>”라며 “<span class='quot0'>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난치병 치료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라고 소감을 밝혔다. <br/> <br/>  올 해 세 번째 수상자를 배출한 '차광렬 줄기세포 상'은 지난 2011년 미국생식의학회(ASRM)가 유능한 의사이자 과학자인 차병원그룹 차광렬 총괄회장의 줄기세포 연구와 불임 연구에 관련된 세계적인 공헌도를 인정해 제정한 상으로 줄기세포 기술의 혁신적인 연구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엄선해 수여하고 있다. <br/> <br/> 미국생식의학회는 회원만 1만여 명 이상인 세계 최대규모의 학회로 생식불임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Fertility and Sterility’ 등을 보유한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이다. ‘차광렬 줄기세포 상’은 2011년 미생식의학회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개인 이름으로 제정한 상이다. 이번 행사는 10월17일에서 21일까지 개최됐으며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불임생식 의학자 및 과학자 800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br/> <br/> 차병원그룹 차광렬 총괄 회장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은 불임생식의학(Reproductive endocrinology and infertility)의 전세계 최고 권위자 중의 한 명으로, 7차례에 걸쳐 미국생식의학회에서 최우수,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것은 물론 환태평양불임학회를 창립해 불임과 생식의학 분야에 지대한 공을 세운바 있다. 또 200편 이상의 저널 연구논문 발표와 더불어 230회 이상 주요 학회 특강을 하기도 했다. <br/> <br/> 강남차병원을 비롯한 차병원그룹 산하의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소, 차바이오텍, 미국 차병원인 헐리우드장로병원, 차병원불임센터와 차움, 판교 종합 연구원인 차바이오콤플렉스를 설립했으며 1999년에는 콜롬비아 대학의 요청으로 CC불임센터를 설립 대한민국 의료 수출 1호의 새 역사를 쓰기도 했다. 현재는 직접 설립한 학교와 연구소, 기업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연구와 임상, 비즈니스 간의 소통 융합을 통해 바이오입국에 앞장서고 있다. <br/> <br/> 한편,‘차광렬 줄기세포 상’은 차병원그룹의 차광렬회장 이름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생식의학회에서 제정한 상으로 차광렬 회장의 줄기세포와 불임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성과와 권위, 공로를 인정해 만든 상이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03.txt

제목: 일교차 큰 환절기 이유없는 ‘심쿵’ 주의하세요  
날짜: 20151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0144664  
본문: 사람들은 보통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쉬며 산다. 마찬가지로 심장이 뛰는 것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심장이 보통 때와 달리 비정상적으로 뛸 때는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빨리, 느리게,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부정맥이라 한다. 심장은 자발적으로 전기를 발생시켜 생성된 전기 신호로 근육을 수축·이완하는데, 부정맥은 이 전기 전달 체계에 변화 및 이상이 생겨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것이다. <br/> <br/>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를 훌쩍 넘기는 환절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부정맥이다. 부정맥은 계절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심혈관 질환의 최초 증상이며 ‘돌연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br/> <br/>◆증가하는 부정맥, 종류와 증상 <br/> <br/>맥박은 분당 60~100회를 정상으로 본다. 이보다 지나치게 느리거나 빠른 경우, 또는 불규칙적인 상태일 때 부정맥으로 진단한다. 맥박이 100회를 넘으면 ‘빈맥’, 60회 미만인 경우엔 ‘서맥’,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아주 빠르게 뛰면 ‘심방세동’으로 구분한다. <br/> <br/>부정맥 환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부정맥 환자는 2011년 14만7159명에서 2013년 18만7085명으로 약 27% 증가했다. 암에 이어 국내 주요 사망원인 2위인 심혈관 질환(협심증·심근경색)의 환자가 동일한 기간 내에 5%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해 5배가량 높은 것이다. <br/> <br/>부정맥은 단순한 심장의 리듬 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방치하면 심장 내 혈전을 생성해 뇌졸중이나 심부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 자신의 맥박이나 심장 박동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br/> <br/>부정맥의 대표적인 증상은 긴장도 하지 않았는데 심장이 자주 쿵쾅거리거나 참기 어려운 가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힘이 빠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호흡 곤란, 무력감, 피로감 등을 느끼기도 한다. 다만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방세동 환자의 15~35%는 증상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부정맥 원인과 예방 <br/> <br/>부정맥의 원인에는 선천적인 심장기능 이상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비만도 부정맥의 원인이 된다. 호주 한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가 정상에서 5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심방세동 위험이 29%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혈압이 높아지면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이 때문에 심장의 이완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맥을 예방하려면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단 심장에 무리를 줄 정도의 격한 운동은 역효과를 나타내므로 피한다. <br/> <br/>술과 담배, 커피(카페인) 역시 심장의 전기시스템을 고장낼 수 있다. 부정맥이 생겼다면 술은 하루에 1~2잔 이하로 줄이고 금연한다. 커피의 경우 부정맥과의 관련성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1∼2잔 이하가 적당하다. 만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도 혈압을 상승시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평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극심한 감정 변화를 피하는 것이 좋다. <br/> <br/>‘줄여야 한다’고 알려진 소금(나트륨) 섭취는 부족하면 오히려 부정맥을 유발한다. 나트륨은 체내에서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심장 수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정맥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금 섭취를 무조건 제한하지 말고 하루 3∼5g 적정량을 섭취하도록 한다. 폐경기 여성의 경우에는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지닌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면서 부정맥을 포함해 각종 심혈관 질환에 쉽게 노출된다. 단순한 폐경기 증상으로 여기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br/> <br/>심방세동 환자들은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와파린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비타민K가 많이 포함된 음식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와파린은 혈액이 응고되지 않게 하는데, 비타민K는 와파린의 효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비타민K는 주로 된장이나 두부 등 콩류 식품과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등에 많이 함유돼 있다. <br/> <br/>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 박준범 교수는 “<span class='quot0'>부정맥 예방은 특별한 비법보다 평소 건강관리 및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부정맥은 심장질환의 첫 번째 증상이자 심장으로 인한 사망 때 나타나는 마지막 증상일 수 있으므로, 부정맥 증상을 느꼈다면 전문의를 찾아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04.txt

제목: 가공육ㆍ적색육 먹을 때 곁들이면 좋은 식품 그효능은?  
날짜: 20151109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0004934  
본문:   <br/> <br/> <br/>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가공육과 붉은색 고기(적색육)의 과다 섭취가 암 유발(특히 대장암) 가능성을 높인다고 최근 발표하자 이들 육류의 발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다.  <br/> <br/>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와 한국식품건강소통학회(회장 권대영)는 ‘육류와 함께 먹으면 발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식품 10가지’를 선정해 9일 발표했다. <br/> <br/> 이에 따르면 육류의 발암 가능성을 낮춰주는 식품 ‘베스트 10’엔 채소 5종(깻잎ㆍ부추ㆍ마늘ㆍ고추ㆍ양파), 과일 1종(귤), 해조류 1종(다시마), 발효식품 1종(김치), 유제품 1종(우유), 음료 1종(녹차)이 포함됐다. <br/> <br/>대한영양사협회 임경숙 회장(수원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span class='quot0'>관련 연구논문 등 과학적 근거, 구입의 용이성, 육류와의 맛 궁합(어울림) 등을 기준으로 10가지 식품을 선정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런 식품들을 육류와 곁들여 먹으면 고기 과다 섭취로 인한 대장암 등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깻잎의 항암 성분은 베타카로틴과 리모넨. 고기를 태우면 PAH 등 발암성 물질이 생길 수 있는데 깻잎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는 항산화 비타민)이 이를 상쇄해준다. 깻잎의 베타카로틴 함량(100g당 9.1㎎)은 당근(7.6㎎)ㆍ단 호박(4㎎)을 능가한다.  <br/> <br/>깻잎의 향기 성분인 리모넨은 고기 특유의 냄새까지 잡아준다. 중국의 고의서인 ‘본초강목’엔 “깻잎은 고기의 온갖 독을 해독한다”고 쓰여 있다. 깻잎 추출물이 실험동물인 쥐의 대장암의 발생률을 53% 가량 낮췄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br/> <br/> 양파에 풍부한 황화 알릴ㆍ식이섬유ㆍ쿼세틴(항산화 성분) 등도 암 예방을 돕는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의대 연구팀은 지난 2006년  ‘임상위장병학-간장학’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양파에 든 쿼세틴이 대장폴립(용종)의 수를 줄이고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br/> <br/> 마늘의 암 예방 성분은 매운 맛 성분인 알리신. 미국에서 4만1000명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아이오와 여성건강연구’(Iowa Women’s Health Study)에선 규칙적으로 마늘과 과일ㆍ채소를 먹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35%나 더 낮았다. <br/> <br/> 부추엔 황화알릴(마늘ㆍ양파 함유)ㆍ베타카로틴(깻잎 함유) 외에 클로로필(엽록소)ㆍ식이섬유가 들어 있다. <br/> <br/>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암의 발생 가능성을 낮춰준다. 부추 등 채소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有益菌)이 가장 선호하는 먹이다. 특히 부추엔 든,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不溶性) 식이섬유는 노폐물ㆍ발암 물질 등 유해 물질을 빨아들여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장내 진공청소기’다. <br/> <br/> 고추의 암 예방 성분은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와 매운 맛 성분인 캡사이신이다.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동물실험 결과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대장암 치료 효과가 있다고 국제학술지인 ‘임상조사저널’(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에 발표했다.  <br/> <br/>실험용 쥐에 캡사이신이 함유된 고추를 먹게 했더니 대장암 위험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이를 섭취하지 않은 쥐에 비해 수명이 30% 가량 길어졌다는 것이다. <br/> <br/> 귤의 암 예방 성분으론 비타민 C(항산화 비타민)ㆍ베타카로틴ㆍ리모넨(깻잎 함유)이 꼽힌다. 귤 100g당 비타민 C 함량은 44∼48㎎. 게다가 귤은 대부분 생과로 먹으므로 비타민 C가 조리 도중 소실ㆍ파괴될 일도 거의 없다. <br/> <br/> 다시마의 암 예방 성분은 식이섬유ㆍ칼슘ㆍ셀레늄 등이다. 특히 식물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이 풍부하다. 음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하루에 섭취하는 총 칼로리가 높을수록 대장암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긴산은 포만감을 금세 느끼게 해 열량 섭취를 줄여준다. <br/> <br/> 알긴산의 일종인 후코이단(fucoidan, 다시마ㆍ미역 등 해조류 표면의 미끈거리는 성분)도 암 억제에 유용하다. 4년 전 일본 홋카이도대학 연구팀은 후코이단이 대장암 세포의 자살을 촉진해 암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발표했다. <br/> <br/> 고기 먹을 때 우유를 곁들이면 대장암 예방에 유익한 것은 우유가 ‘칼슘의 왕’이기 때문이다. 칼슘 섭취는 대장암과 대장 선종의 발생 위험을 낮춰준다. IARC는 칼슘을 섭취하면 가공육이나 적색육에 의한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우유 등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즐겨 먹으면 암ㆍ노화 등을 일으키는 니트로스아민이나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론 우유 외에 유제품ㆍ멸치ㆍ다시마ㆍ미역ㆍ새우ㆍ브로콜리 등이 있다. <br/> <br/> 발효 식품인 김치의 암 예방 성분은 유산균ㆍ식이섬유ㆍ비타민 Cㆍ폴리페놀 등이다. 김치 유산균은 장내(腸內) 염증은 물론 암의 발전ㆍ전이 과정을 억제시킨다. 김치의 양념 재료인 마늘ㆍ생강에 풍부한 염증 억제 성분들은 가공육ㆍ적색육의 발암 성분의 독성을 완화한다. 가공육의 ‘아킬레스건’인 아질산나트륨(아질산염)을 줄이는 데도 김치 유산균이 효과적이란 국내 연구결과도 있다. <br/> <br/>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자 떫은 맛 성분인 카테킨이 암 예방을 돕는다. 미국에선 녹차에서 EGCG(카테킨의 일종)란 성분을 추출해 암 치료ㆍ예방에 사용한다. 녹차가 암 예방을 돕는다는 것은 여러 동물실험과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카테킨은 암의 성장을 늦추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 미국에선 마늘의 SAMC와 함께 녹차의 EGCG를 천연물 항암제로 개발 중이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05.txt

제목: 현대약품, 아슬란과 ASLAN001 개발 및 상용화 계약 체결  
날짜: 20151109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5921798  
본문:   <br/> <br/> <br/>현대약품(대표이사 김영학)은 아슬란(ASLAN)과 ASLAN001(varlitinib) 담도암 치료제의 국내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br/> <br/>현대약품과 계약을 맺은 아슬란은 아시아에 널리 퍼진 종양 유형과 관련된 표적치료제와 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회사다. 글로벌 의약품 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타이완과 중국에서 임상개발을 수행 및 지원하고 있다. <br/> <br/>아슬란은 현재 위암과 유방암, 그리고 염증성 질환 등 4개의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현대약품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ASLAN001은 pan-HER 억제제로 담도암, 유방암, 위암을 적응증으로 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현대약품은 아슬란과 ASLAN001의 담도암 치료제의 국내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br/> <br/>ASLAN001은 티로신 키나아제 저해제로 항암 표적 치료제이며, 유방암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로 임상2상 시험을 시작했다. 올해 8월에는 미국 FDA로부터 담도암에 대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은 바 있다. <br/> <br/>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담도암 및 위암 발병률을 가지고 있어 매해 4000~3만명의 새로운 환자들이 진단을 받는 나라다. 특히 현재까지 담도암은 치료제가 없고 예후가 매우 나쁜 암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이 담도암 등으로 고통 받는 많은 국내 암 환자들에게 치료의 희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r/> <br/>이번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현대약품과 아슬란은 ASLAN001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담도암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올해 안에 국내 담도암 임상시험을 착수진행 한다는 목표다. <br/> <br/>또한 현대약품은 ASLAN001의 국내 위암과 유방암 개발 및 상용화에 있어서도 우선협상 권한을 가지게 되며, 추후 아슬란과 함께 국내 ASLAN001의 협업 마케팅을 진행할 권리 역시 얻게 되었다. <br/> <br/>아슬란 칼 퍼스(Carl Firth) 대표이사는 "위암과 담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ASLAN001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은 제약업계를 비롯해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라며 "한국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제약기업인 현대약품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수년간 축적해온 현대약품의 환자와 의료인에 대한 전문성 및 혁신적 전략이 이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해 충분히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현대약품 김영학 사장은 "이전 임상시험을 통해 우수함이 증명된 담도암 치료제 개발을 아슬란과 함께하게 되어 기대가 매우 크다"며 "이번 개발이 국내 암환자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지난 50년 동안 국민 건강을 위해 힘써온 현대약품의 연구·개발 전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r/> <br/>한편 현대약품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기업 경영방침 아래 고혈압치료제와 호흡기질환치료제를 시작으로 중추신경계질환치료제, 여성질환치료제, 항암치료제 등 200여 개의 전문의약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약 기업이다. 전문의약품 이외에도 일반의약품인 탈모치료제 '마이녹실', 벌레물림치료제 '버물리' 등을 비롯해 국내 최초 식이섬유 음료 '미에로화이바' 등의 대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06.txt

제목: [리뷰] ‘내부자들’ 짐승들이 사는 역겨운 세상  
날짜: 20151108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5649053  
본문: 러닝타임 130분의 방대한 스토리임에도 결코 지루하지 않다. 많은 이들이 배우들의 연기가 긴 영화를 살렸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만듦새가 별로라는 얘긴 아니다. 웹툰인 원작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캐릭터와 구성, 스토리를 창조해낸 감독의 노고는 빛을 발했다. <br/> <br/>오는 19일 개봉하는 영화 ‘내부자들’(감독 우민호, 제작 (유)내부자들문화전문회사, 제공/배급 쇼박스)은 2010년부터 한 언론사 사이트에 연재되다가 3년 만에 중단된 윤태호 작가의 ‘미완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정치 범죄액션 영화다. <br/> <br/>정치, 경제, 언론, 그리고 조폭까지 얽히고설킨 권력세계, 그 내부의 시커먼 암 덩어리가 스크린 위에 거대한 실체를 드러낸다. 기업의 비자금 비밀장부를 입수한 정치깡패 안상구(이병헌 분)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진짜 배후와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렸다. 웹툰은 무거운 정치드라마지만 스크린에서는 범죄액션에 복수스릴러가 덧씌워져 보다 역동적으로 표현됐다. <br/> <br/>피비린내, 수컷 냄새 진동하는 '짐승'들의 이야기지만 성별을 뛰어넘어 누구나 즐길 만한 스토리적인 매력이 다분한 영화다. 언론인 이강희(백윤식 분), 재벌 오회장(김홍파 분), 국회의원 장필우(이경영 분)가 벌이는 난교파티, 하드고어 액션물을 방불케 하는 신체절단 장면 등은 ‘19금’ 등급임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온다. 긴 러닝타임에도 군더더기는 별로 없다. 여러 캐릭터가 먹이그물처럼 얽혀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안상구의 복수스토리로 수렴되기 때문에 복잡한 내러티브도 아니다. 전반부에 ‘센’ 장면들이 왜 등장해야 했는지는 후반부에 가서 충분히 설명된다. <br/> <br/>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가늠키 어려운 입체적인 캐릭터는 끝까지 결말을 예단할 수 없게 만든다. 안상구는 주인공인데도 인상이나 행동이 험악한 데다 별로 착하지 않다. 그가 권력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서다. 겉으로는 온건한 지식인처럼 보이지만 시커먼 발톱을 숨기고 있는 이강희는 정적인 캐릭터에서 오는 소름 돋는 공포를 선사한다. 그는 대중을 ‘개, 돼지’로 칭하며 “얼마간 짖다가 잠잠해지는 존재”라고 말한다. 배우 조승우가 분한 우장훈 검사는 정의를 부르짖는 동시에 출세에 대한 야욕도 드러낸다. 원작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기에 관객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감독의 선택은 현명했다. <br/> <br/>사생활 논란을 겪었지만 배우로서 이병헌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 그는 연기를 하는 동시에 미장센을 책임지는 배우다. 대사가 없는 장면에서도 분장, 의상, 눈빛, 표정, 걸음걸이 등 종합적인 이미지로 캐릭터를 관객들의 뇌리에 각인시킨다. 철저히 계산된 듯 보이지만, 연기경력 25년 내공에서 나오는 아우라는 무시할 수 없다. 배우가 스크린에서 아우라를 내뿜는다는 건 연기력과는 또 다른 얘기다.   <br/> <br/>백윤식, 조승우, 이경영, 김홍파, 김대명, 배성우 등 연기파 배우들은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살아있는 캐릭터들의 향연을 일궈냈다. 조상무 역의 조우진은 이번 작품으로 대중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관람불가. 130분. 11월19일 개봉.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07.txt

제목: 스팸이 세계적으로 유행한 원인은 군대 때문?  
날짜: 20151107  
기자: 박수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5429311  
본문: 스팸. <br/> <br/>최근 소시지와 햄 등 가공육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가 국내·외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br/> <br/>육류 가공업체들은 물론 연구기관, 정부, 전문가까지 나서서 암 유발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햄을 비롯한 가공육이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br/> <br/>가공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스팸’이다. 푸른색과 노란색 캔에 들어있는 햄고기인 스팸은 원산지인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반찬거리와 간식용으로 인기다. <br/> <br/>스팸은 1937년 미국 호멜(Hormel)식품에서 처음 출시했다. 햄과 다진 돼지고기를 섞어 캔에 담은 스팸은 대공황의 여파가 남아있던 1930년대 후반 미국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br/> <br/>1939년에 발발한 2차 세계대전은 스팸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폭제가 됐다. 당시 미군은 전투식량을 만들어 장병들에게 지급했다. ‘C-레이션’으로 불린 전투식량은 빵과 고기, 야채와 커피, 설탕, 소금 등이 들어있었고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도 함께 있었다. <br/> <br/>하지만 C-레이션은 장기간 섭취할 때 영양 불균형이 발생했고, 같은 메뉴에 질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br/> <br/>이 때 미군 장병들의 배를 채워준 것이 바로 스팸이었다.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배고프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고기였기 때문이다. <br/> <br/>미군 장병들이 스팸을 즐겨먹으면서 미군이 가는 모든 나라에 스팸이 전파됐다. 유럽은 물론 태평양의 작은 섬에 이르기까지 스팸은 조리와 보관이 쉬운 음식으로 각광받았다. <br/> <br/>우리나라에 스팸이 들어온 시기는 1950년대 6.25 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한미군 PX에서 암시장으로 밀반출된 스팸은 한국인들이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고기였다. 때문에 부유층만이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았다. <br/> <br/>스팸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미군부대 쓰레기통을 뒤져 스팸이나 소시지, 반쯤 먹다 버린 햄버거 고기, 베이컨 등을 모아서 식당에 팔기도 했다. 여기에 김치를 섞어 만든 찌개가 바로 ‘부대찌개’다. 햄이 주로 들어간 ‘존슨찌개’도 있는데 이는 1966년 방한해 미국의 경제원조를 약속한 린든 존슨 대통령을 기념해 붙인 이름이다. <br/> <br/>우리가 오늘날 흔히 보는 스팸의 모습은 1980년대 완성됐다. CJ(옛 제일제당)가 1986년 호멜사와 제휴해 현재의 스팸을 출시한 것. 비록 웰빙 열풍이 불면서 스팸의 인기가 주춤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의 밥상에는 스팸이 계란프라이와 함께 인기 메뉴로 자리잡고 있고, 명절에는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스팸 선물세트가 여전히 오간다. <br/> <br/>몇 년전 군대 음식 중 하나로 ‘스팸 뽀글이’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봉지라면을 컵라면처럼 조리한 것에 스팸을 넣은 것이다. 과거에는 뽀글이가 널리 쓰였지만, 현재는 PX에서 뽀글이용 라면이나 누룽지 등을 판매하고 있어 봉지라면을 이용한 뽀글이는 예전보다는 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08.txt

제목: 日 NEC, 팔을 자유롭게 하는 '가상 키패드' 개발  
날짜: 20151106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5150401  
본문: 일본 NEC가 팔을 가상 키보드화한  ‘암 키패드(ARmKeypad)’를 개발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br/> <br/>암 키패드는 웨어러블 글라스와 워치와 연동하는 새로운 컨트롤 기술로 팔에 가상 키보드를 표시해 정밀한 터치와 입력을 가능케 해 핸즈프리 시스템을 구현했다. <br/> <br/>사용은 가상 키보드가 팔에 표시되는 형태로 입력·선택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다른 컨트롤러 장비를 꺼내거나 손에 들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br/> <br/>업체 측은 “이 키패드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NEC 홈페이지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09.txt

제목: 세계최초 '유전자 편집' 치료로 1살 여아 암 잡았다  
날짜: 20151106  
기자: 이지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5136337  
본문: (왼쪽부터)리사 폴리(엄마), 라일라, 라일라의 언니, 애슐리 리처드(아빠)영국에서 1세 여아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genetic editing)을 통해 암치료에 성공했다. <br/> <br/>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생후 17개월된 여아 라일라 리처드가 인간에게는 처음 적용한 ‘유전자 편집’치료법으로 암을 이겨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r/> <br/>라일라는 태어난지 14주만에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수차례의 항암치료를 거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의사들은 라일라의 부모에게 더 이상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라일라의 부모는 딸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엄마 폴리는 의사들에게 병원에서 막 개발된 최신 치료법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유전자 편집’이라고 불리는 이 치료법은 분자가위를 이용해 유전자를 편집하고 체내에 면역세포를 만들어내게 한다. 지금까지 실험쥐에만 적용됐으며 사람에게 쓰인 적은 없다. <br/> <br/>라일라의 아빠 애슐리 리처드는 “<span class='quot0'>이 치료법이 사람한테는 한번도 쓰인 적이 없는 기술이라는 점이 가장 무서웠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span>”고 말했다. <br/> <br/>극약처방을 쓴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엄마 폴리는 “<span class='quot1'>결과가 성공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눈물을 쏟아냈다</span>”며 “<span class='quot1'>나는 우리가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며 다른 아이들이 이 새 치료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라일라가 앞으로도 건강하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의사들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라며 라일라의 치료 성공에 놀란 반응을 보였다. <br/> <br/>이지수 기자 v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10.txt

제목: 성추문 육군소장 전역 지원서 조작, 육사동기 봐준 前인사참모 징계위 회부  
날짜: 20151106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5143068  
본문: 성추문 의혹에 휩싸여 지난해 조기전역한 육군 정보작전지원부장 A 전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확인돼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 <br/> <br/>공문서 양식은 대통령 훈련에 의해 임의로 수정 및 변경할 수 없다. <br/> <br/>전역 지원서 양식 변경은 A소장의 육사 39기 동기인 당시 류성식 인사참모부장(현재 육군부사관학교장)이 실무자들에게 지시해 이뤄졌다. <br/> <br/>실무자들은 군 검찰, 헌병 등 감찰기관의 비위사실 확인란을 없앤 전역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만들었다. <br/> <br/>이에 대해 류 소장은 "A소장을 전역 조치 하라"고 명령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빨리 이행키 위해 비위사실 확인란 등을 없앤 양식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에 군은 대통령령을 어긴 엄중사항이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 기소유예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br/> <br/>6일 육군본부 검찰부 관계자는 "지난 9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A소장 전역지원서 양식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한 결과 양식이 일부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br/> <br/>군 검찰은 류 소장의 지시를 받아 양식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양식을 발견하지 못했던 실무자 2~4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br/> <br/>군 검찰은 "양식 변경과 관련하여 당시 국방부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의 어떠한 지시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br/> <br/>A소장은 2010년 여단장 시절 부하 장교의 부인에게 1년여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이 사실을 안 남편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암에 걸렸다며 조기 전역을 신청했다. <br/> <br/>그러자 전역으로 성추문 사실을 덮으려 한다, 온전히 군인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전역처리해 준 것 아닌가라는 논란이 일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11.txt

제목: "기생충, 사람에게 '암' 퍼트린다고?"  
날짜: 20151106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5126156  
본문:   <br/> <br/> 인체 내 기생충이 암에 걸린 다음 이를 사람의 몸에 퍼뜨리고, 종양을 유발하는 현상이 발견돼 의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고 AFP통신과 BBC 방송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r/> <br/>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지만, 기생충에 의한 암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었다. <br/> <br/>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질병을 찾아냈다"며 "사람의 몸에서 성장한 촌충(tapeworm)이 암을 얻어 이를 사람에게 퍼뜨려서 종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br/>이어 "이 촌충은 세계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것이고 에이즈(HIV) 등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도 많다"며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훨씬 많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br/> <br/>CDC의 연구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한 40대 남성은 에이즈 양성 반응을 띠고 있었는데 2013년 1월 기침·고열·피로·체중감량 등 증세로 병원을 찾아 폐암과 간암 등 암 진단을 받았다. <br/> <br/>조직 검사에서 인간의 암과 유사하나 실제로는 인간의 것이 아닌 특이한 병변이 나왔고, CDC는 수차례 실험 끝에 이 남성의 종양에서 일종의 매우 작은 촌충인 소형조충(Hymenolepis nana)의 유전자(DNA)를 발견했다. 남성은 곧 사망했다. <br/> <br/>CDC는 "분명히 암처럼 보이는 것이었지만 통상적인 인간 암세포보다 10배는 작은 크기였다"고 설명했다. <br/> <br/>세계적으로 약 7500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조충은 인체 내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촌충으로 쥐의 배설물이 묻은 음식을 먹거나 감염자의 분비물을 흡입함으로써 감염된다. <br/> <br/>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CDC는 "에이즈 보균자나 스테로이드 복용자 등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의 몸에서는 소형조충이 잘 자란다"고 밝혔다. <br/> <br/>CDC는 "에이즈와 소형조충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후진국에서는 소형조충의 악성 변이가 단순한 인간의 암으로 오진됐을 수도 있다"며 이런 증상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br/> <br/>CDC는 화학 요법 등 기존 암 치료가 촌충에 의한 암의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br/> <br/>소형조충 감염을 예방하려면 손을 비누와 따뜻한 물로 씻고, 채소나 과일은 씻어서 껍질을 깎거나 조리한 다음 먹어야 한다. <br/> <br/>이 연구 결과는 미국 의학 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실렸다. <br/> <br/>김현주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12.txt

제목: 순천향대 서울병원,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 진행  
날짜: 20151106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5121787  
본문:   <br/> <br/> <br/>순천향대 서울병원 유방센터는 지난 5일 오후 3시부터 암 수술 2년 이내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 여성 20여명과 함께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Make up your life)'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br/> <br/>'아름다운 손길 희망을 메이크업하다'를 주제로 아모레퍼시픽이 주최한 이번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부손상과 탈모 등 갑작스런 외모 변화로 고통 받는 여성 환우들을 위한 외모 가꾸기 교육 프로그램이다. <br/> <br/>아모레퍼시픽 카운슬러가 피부 관리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17명의 전문 아티스트들이 메이크업을 직접 시연하며 환우들에게 1대1로 노하우를 전수했다. 또 환우들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포토존과 사진 소품들을 준비했다. <br/> <br/>메이크업을 맡은 김성순 아모레퍼시픽 수석마스터는 "나도 7년 전 갑상선암 투병을 하면서 자신감을 상실했던 기억이 난다"며 "직장을 다니면서 환우들과 더 깊이 교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힘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13.txt

제목: [여행] 오매~ 내 마음도 물들것네!  
날짜: 20151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5014308  
본문: 지리산 주능선의 삼도봉과 노고단 사이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모여드는 골짜기 피아골은 가을 단풍으로 유명하다. 피아골 단풍은 흔히 ‘삼홍’으로 불린다. 단풍에 온산이 붉어 ‘산홍’, 그 붉은빛이 물에 비치어 ‘수홍’, 그 물 속 붉은 빛이 사람 얼굴을 붉게 해 ‘인홍’이다.최근 전남 구례를 다녀왔다. 지리산을 품고 섬진강을 벗하고 있는 남도의 조용한 고장이다. 이곳이 고향인 경제신문의 한 부장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해 평소 한 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4시간을 달려 구례에 진입하자 들판 곳곳에서는 누런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리산 주변 둘레길 숲들은 남도의 깊어가는 가을을 붉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br/> <br/>화엄나들목을 빠져나와 국도를 따라 달려 도착한 곳이 마산면 화엄사로 539번지 화엄사다. 지리산 사찰 중 가장 큰 화엄사는 544년(백제 성왕 22)에 연기조사가 창건했다. 화엄경(華嚴經)의 화엄 두 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 <br/> <br/>이곳 서오층석탑에서 최근 부처의 진신사리가 발견됐다. 각황전을 비롯해 국보 4점, 보물 8점, 사적 1점, 명승 1점, 천연기념물 2점 등 많은 문화재가 있다. 화엄계곡을 비롯한 빼어난 자연 환경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져 천년의 고요함이 느껴지는 곳이다. 평일인데도 전세버스를 이용해 구경온 방문객으로 사찰 내 곳곳이 북적인다. 경내를 둘러본 뒤 입구에서 문화관광해설사 곽영숙씨를 만났다. 곽씨는 절 입구에 새롭게 조성된 산책길이 있다고 했다. 이른바 ‘지리산 치유탐방로’다. 곽씨의 안내로 화엄사 입구에서 연기암까지 2km 구간인 제1탐방로를 걸었다. 저질 체력이라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코끝은 상쾌한 게 금세 기분은 좋아졌다. 이 코스 말고도 화암사 입구에서 금정암∼내원암∼미타암∼청계암∼연기암에 이르는 3.9km 구간도 있다.  <br/> <br/>구례에서 단풍하면 단연 피아골이다. 지리산의 관문인 노고단의 등 넘어 섬진강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동남쪽으로 깊이 빠져나간 계곡을 말한다. 많은 이들이 6·25전쟁 직후 ‘피아골’이라는 영화가 나온 탓에 흔히 전쟁 때 이곳에서 동족끼리 피를 많이 흘려 피아골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옛날에 속세를 버리고 한적한 이곳 선경을 찾은 선객들이 고대 오곡 중의 하나인 피를 많이 가꾸었던 연고로 피밭골로 부르게 됐는데, 발음이 피아골로 전화된 것이라고 한다. 사계절 절경이지만 가을철 단풍은 전국에서도 알아준다. 매년 단풍축제도 열린다.  <br/> <br/>오산과 사성암은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오산은 문척면 죽마리에 있는 해발 531m의 호젓한 산으로 자라 모양을 하고 있다. 높지도 험하지도 않은데 비경이 많아 가족이나 단체 소풍지로 인기가 있다. 정상에 오르니 굽이치는 섬진강과 구례읍, 지리산 연봉들이 보인다.  <br/> <br/>사성암은 백제 성왕 때 연기조사가 처음으로 건립했다고 전해진다. 암벽에 서 있는 부처의 모습이 조각돼 있어 이를 마애여래입상이 한다. 원래는 오산암으로 불렸으나 이곳에서 원효, 도선, 진각, 의상 4명의 성인이 수도했다고 해서 사성암이라 부른다.  <br/> 오산 정상에 있는 암자로, 백제 성왕 때 연기조사가 건립한 사성암. <br/>이곳에 가려면 사성암 진입로 입구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승용차가 올라갈 수 없어서다. 번거롭다는 생각도 있지만 일행과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정담을 나누며 오르는 과정도 여행의 재미일 수 있다. 등산을 좋아하면 버스를 타지 않고 등산로를 따라 40분가량 걸어서 오를 수 있다.  <br/> <br/>저녁 무렵 곽씨가 안내한 곳이 토지면에 있는 운조루다. ‘구름 속에 새처럼 숨어 사는 집’이라는 뜻을 지닌 운조루는 1776년(영조 52)에 당시 삼수 부사를 지낸 유이주가 세운 집으로 조선 후기 귀족주택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건축물이다. ‘-’자형 행랑채, ’ㅗ’자형 사랑채, ’ㄷ’자형 안채가 잘 보존돼 있다.  타인능해(他人能解)의 뒤주가 있는 운조루.운조루는 도연명의 시 '귀거래혜사(歸去來兮辭)'의 “구름은 산골짜기를 돌아 나오고 지친 새는 둥지로 돌아온다(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라는 구절의 머리글자를 따온 것이라고 한다. 운조루 입구에 도착한 곽씨가 직접 담근 간장과 무농약 우리밀로 만든 밀가루를 파는 할머니를 보고 “어머님!’이라 불러 놀랐다. 알고 보니 곽씨는 류씨 종가의 10대 며느리였고, 할머니는 운조루 주인인 9대 며느리 이길순 여사였다. 곽씨에 따르면 2002년 봄에 연애로 이씨의 셋째아들 류정수씨를 만나 1996년 결혼해 진주에서 살던 중 남편이 큰 집을 혼자 힘겹게 돌보는 어머니를 놔둘 수 없다고 해서 본가에 들어와 살게 됐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종가를 지키며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는 ‘슈퍼우먼’이었다. 얼마전까지 운조루에 같이 살다가 지금은 바로 옆 한옥으로 이사해 한옥스테이를 하고 있다. <br/> <br/>운조루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요즘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집안의 나눔철학이 깃들어 있어서다. 쌀 3가마가 들어가는 200여년 된 원통형 뒤주가 그 증거물이다. 뒤주에는 ‘타인능해’(他人能解)라고 씌어있는데 누구나 쌀 뒤주를 열 수 있다는 뜻이다. 배고픈 사람은 쌀을 퍼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 <br/> <br/>기자는 구례군청 근처에 숙소를 정했지만 마음을 바꿔 이곳에 묵기로 했다. ‘한옥스테이’다. 그날 밤 오랜만에 지리산에 걸린 달 구경도 했다. <br/> <br/>구례=글·사진 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14.txt

제목: 간건강 체크 자가진단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더 많이 발생…왜?  
날짜: 20151105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4950177  
본문: 간건강 체크 자가진단표 (사진= MBN)간건강 체크 자가진단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더 많이 발생…왜? <br/> <br/> '간건강 체크 자가진단표'와 함께 덩달아 간 건강에 관한 상식이 관심을 끌고 있다. <br/> <br/> 지난달 20일은 간의 날이었다. 간암이나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간은 흔히 술을 많이 마시는 남성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br/> <br/> 그런데 최근에는 술도 마시지 않는 50대 여성에게 지방간이 많이 발생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 50대 여성은 폐경기에 들어서면서 여성호르몬이 감소해 콜레스테롤이 쉽게 쌓이기 때문에, 40대보다 지방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아진다. <br/> <br/> 이윤경 차움 가정의학과 교수는 "약하게는 피로부터 시작해서 지방간이라든지 이런 경한 것부터, 간성혼수라든지 심하면 암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 최근에는 이같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술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br/> <br/> 전문가들은 간의 재생능력이 뛰어난 만큼, 탄수화물 대신 콩이나 두부, 글루타치온과 같은 단백질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15.txt

제목: [전상일의건강解] 햄·소시지 파동이 남긴 경고  
날짜: 20151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4927555  
본문: 최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가공육과 적색육을 각각 1군, 2A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후 논쟁이 뜨겁다. <br/> <br/>IARC 발표에 따르면 가공육(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매일 50g 먹는 만큼 암 발생률이 18%, 적색육(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은 매일 100g 먹는 만큼 암 발생률이 17% 증가한다는 것이다. 어떤 집단 1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있었는데, 이 집단 사람들이 매일 가공육을 50g씩 먹는다면 1.18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가공육·적색육과 가장 관련 있는 암은 대장암이다. 1군의 의미는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고 확실하다는 것이고, 2A군은 동물실험 자료는 있으나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제한적일 때 내리는 판정이다. 이번 IARC 발표는 먹느냐 마느냐를 이분법적으로 판정하기보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양적(확률적)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게 맞다. 모르고 많이 먹었을 경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구 결과가 이러니 참고하세요’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그 자체로 약과 독인 것은 거의 없고, 식품도 먹는 양이 중요하다. <br/> <br/> 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소장·둘다북스 대표우리나라는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하루에 가공육 6.0g, 적색육 61.5g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합한 67.5g은 일부 선진국이 제시한 가공육과 적색육을 합한 하루 총섭취 권고량 70g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균치만 보고 IARC 발표를 간과해서도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라면 30만달러인 사람도 있고 3000달러인 사람도 있다. 평균 섭취량만으로 위해성을 평가하면 통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은 평균보다 더 많은 가공육을 먹고 있고, 10~49세 남성은 외국의 권장량보다 더 많은 적색육을 먹고 있다. 청소년의 식습관은 평생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대중과 평균적인 위험을 놓고 얘기하면 남의 일이라는 ‘낙관적 편견’에 빠질수 있음을 기억하자. <br/> <br/>먹는 양만 가지고 위해성을 논하는 것도 문제다. 가공육에는 유통기한을 늘리고 맛을 높이기 위해 각종 첨가제가 들어간다. 훈제는 소금에 절인 고기를 연기에 익혀 말리면서 연기 성분이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연기는 발암물질 백화점이고, 과도한 소금 섭취는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다. 소시지나 햄 등에는 식중독을 예방하고 붉은색을 내기 위해 아질산염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다. 적색육은 조리방법이 중요하다. 직화구이로 먹으면 가장 위험하다. 불에 굽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불에 직접 굽거나 튀기기보다 삶거나 쪄먹는 게 훨씬 안전하다. 고기를 먹을 때 채소를 곁들이면 체내에서 발암물질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br/> <br/>IARC 발표에 대해 위해성 논쟁만 벌이다 그친다면 별로 얻을 게 없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한 맞춤형 소통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계는 가공육을 만들면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성찰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은 건강에 해가 적은 고기를 선택하고 어떻게 먹을 것인지 등 식습관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br/> <br/>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소장·둘다북스 대표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16.txt

제목: 한국인 적색육·가공육 과다 섭취, 남성 암 발생 위험 높였다  
날짜: 20151105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4823130  
본문: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 등 붉은 색 고기(적색육)의 과다 섭취가 우리나라 남성의 전체 암 발생 위험을 41%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지난해 외국 유명 학술지에 발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br/> <br/>하지만 이 연구에서 한국 여성의 경우 적색육 과다 섭취와 암 발생 위험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색육의 과다 섭취와 대장암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br/> <br/>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위경애 임상영양실장팀이 2004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암 검진 참여자(2만6815명)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하고 자신의 3일 식사기록을 제출한 8024명을 대상으로 암 역학(疫學)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br/> <br/>연구결과(한국에서 전향적 코호트 연구 적색육 소비가 전반적인 암 위험 증가와 관련 있음)는 지난해 영국영양저널(BJN)에 소개됐다. <br/> <br/>위경애 실장팀은 국가 암 등록사업 자료·암센터 전자진료기록 등을 검토해 최종 연구 대상자 8024명 중 387명이 2013년 9월24일 현재 암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암 환자와 암에 걸리지 않은 나머지 사람의 적색육·나트륨 섭취량, 비만 여부 등을 비교했다. <br/> <br/>위 실장팀은 전체 연구 대상(8024명)을 하루 적색육 섭취량 43g 이상인 그룹과 43g 미만인 그룹으로 나눴다. 연구 기관 중 하루 적색육 섭취 43g 이상인 그룹(3128명)에선 165명, 43g 미만인 그룹(4896명)에선 222명이 암에 걸렸다. <br/> <br/>남성(4402명)의 경우 1일 적색육 섭취 43g 이상인 남성의 전체 암 발생률이 43g 미만인 남성보다 41% 높았다. 하지만 여성(3622명)에선 하루 적색육 섭취 43g 이상인 여성과 43g 미만인 여성 사이에서 전체 암 발생률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br/> <br/>위경애 실장은 "1일 적색육 섭취 43g 이상 그룹에 속한 남성의 하루 평균 적색육 섭취량은 85.3g으로, 43g 이상 그룹에 속한 여성의 하루 평균 섭취량(59.5g)보다 훨씬 많은 것이 남녀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 원인으로 여겨진다"며 "남성의 잦은 회식·고기 선호 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br/> <br/>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0~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량은 1일 평균 6g, 적색육은 61.5g이었다. 영국과 호주의 가공육·적색육 하루 섭취 권장량은 각각 70g, 65∼100g이다. <br/> <br/>위 실장은 "이번 연구에서 적색육 섭취가 많은 남성은 채소, 과일은 적게 먹고 음주와 흡연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며 "남성이 적색육 과다 섭취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을 낮추려면 담배부터 끊고 채소, 과일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또한 위 실장팀은 가공육과 암의 관계도 살폈다. 가공육 섭취가 많은 남성이 적은 남성보다 암 발생 위험이 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위 실장은 "적색육과 가공육을 과다 섭취하는 남성은 암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br/> <br/>한편 연구에선 나트륨을 매일 4g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위암 발생 위험이 4g 미만 먹는 사람에 비해 2.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체중(㎏)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비만자는 BMI 25 미만인 사람보다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1.56배 높았다. <br/> <br/>한국인을 대상으로 고기와 암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2003년 이후 모두 11편이 발표됐다. 이중 9편은 닭고기와 생선 등을 포함한 모든 고기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적색육을 따로 떼어 연구한 논문은 2편뿐이다. 이중 1편이 위 실장팀의 코호트(cohort, 추적 조사)연구 논문이다. <br/> <br/>다른 1편은 지난 4월 한국임상영양학회의 영문 학술지인 '클리니컬 뉴트리션 리서치(CNR)'에 발표된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이승민 교수팀의 암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대조한 논문이다.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을 지켜봐야 하는 코호트 연구 결과가 환자·대조군 연구 결과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17.txt

제목: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신임 회장 삼성서울병원 최두호 교수 선출  
날짜: 20151105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4641490  
본문: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최두호 신임 회장. <br/>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최두호 교수가 최근 개최된 제 33차 대한방사선종양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 18대 회장으로 선출돼 2015년 11월부터 2년간 대한방사선종양학회를 이끌게 됐다. <br/> <br/>대한방사선종양학회는 1982년에 발족 돼 전문의를 배출하는 26개 학회 중 하나다.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암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방사선치료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방사선치료 전문가 양성 및 실무 교육, 학술활동을 통해 진료, 교육, 연구를 지원하는 학술단체다. <br/> <br/>최두호 회장은 "최근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고난도 방사선치료 기술이 많이 적용되는데 방사선치료의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인 성장도 같이 동반되도록 힘쓰고, 연구 활동 강화와 국제 교류를 통해 암환자들의 행복추구와 학회의 위상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18.txt

제목: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신임 회장에 최두호 교수  
날짜: 20151105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4631412  
본문: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은 방사선종양학과 최두호 교수가 최근 개최된 제 33차 대한방사선종양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 <br/> <br/>최 신임회장은 이달부터 2년간 대한방사선종양학회를 이끌게 된다. <br/> <br/>대한방사선종양학회는 1982년에 발족 돼 전문의를 배출하는 26개 학회 중 하나다. 암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방사선치료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방사선치료 전문가 양성 및 실무 교육, 학술활동을 통해 진료, 교육, 연구를 지원하는 학술단체다. <br/> <br/>최 신임회장은 “<span class='quot0'>최근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고난도 방사선치료 기술이 많이 적용되는데, 방사선치료의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도록 힘쓰고, 연구 활동 강화와 국제 교류를 통해 암환자들의 행복추구와 학회의 위상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19.txt

제목: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날짜: 20151104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4244869  
본문: 송용상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장. <br/>'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인간의 근원적인 숙제를 풀기위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br/> <br/>그 주인공은 NAPA(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on Aging, Obesity and Cancer). NAPA는 영양과 운동을 통해 비만, 고혈압, 당뇨, 암과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여, 치료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족한 국제 학술 연구모임이다. <br/> <br/>서울대학교 암연구소장인 송용상 교수(서울의대 산부인과)가 주축이 되어 2009년에 발족한 NAPA는 의학 뿐 아니라 약학, 농업생명과학, 식품영양학, 운동생리학 분야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간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다학제간 융합 연구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려는 세계 최초의 모임이다. <br/> <br/>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1970년에는 남(58세), 여(65세), 1980년에는 남(61세), 여(70세)였으나, 2000년에는 남(72세), 여(79세), 2013년에는 남(78세), 여(85세)로 급격히 증가했다. <br/> <br/>그러나 2013년 기준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남성(68세), 여성(72세)로 나타났다. 건강수명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다. 즉 남성은 10년, 여성은 13년 동안 각종 질환 등으로 아프거나 치료를 받다가 생을 마감한다. <br/> <br/>말년이 건강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만성질환이다. 특히 비만, 대사증후군, 암이 발생하면 개인, 가족, 사회, 국가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온다.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한 동서양 최고의 명의의 말을 인용할 것 없이, 최근의 발전된 과학적 발견은 이미 "각종 질환은 개인의 식이습관, 생활 습관, 운동의 교정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br/> <br/>기존의 헬스케어 산업이 특정 환자에 대한 '치료' 중심으로 이루어져 원격진료에 대한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개개인에 맞춰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u-헬스케어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각 개인의 건강관리도 각 개인이나 가정에서 u-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해당 진료 의사의 연결을 도와 조기 예방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 <br/> <br/>신약 개발, 고난도 수술법, 개인 맞춤형 유전자 치료 등 최신 치료법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건강수명 연장에 중요한 영양섭취와 운동을 통한 개별 맞춤형 예방법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br/> <br/>예컨대 운동할 때 생기는 유해활성산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각 개인의 필요정도와 해로운 정도를 정확히 개인별 맞춤형 운동법을 u-헬스케어를 통해 최적의 효과를 얻게 하고, 식사하는 음식 종류와 양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가장 최적의 효과를 판단하고 권고함으로서 개인 맞춤형 예방을 u-헬스케어를 통해 할 수 있는 거는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br/> <br/>NAPA에서는 이를 위해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거 참석하는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며, 노화, 비만, 암 예방을 위한 융합연구, 영양학적, 신체 활동적 연구들을 토대로 한 바이오모듈레이션의 최신 업적 및 미래 동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br/> <br/>올해 6회째를 맞이한 NAPA는 총 24개국 340명의 과학자 들이 대만 타이뻬이에 모여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발표했다. <br/> <br/>주요 성과를 보면,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 존 디지오반니 교수팀은 음식 및 음식에 있는 성분의 황금 조합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했다. <br/> <br/>존 디지오반니 교수팀은 소식(小食) 역시 노화를 늦추며, 비만에 이르는 만성적 에너지 과잉이 다양한 종류의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칼로리 제한을 통한 에너지 균형의 마이너스 유지가 암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들도 제시했다. <br/> <br/>컨퍼런스에 참가한 석학들은 노화를 늦추고 만성질환 및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운동'을 꼽았다. 운동을 통한 신체활동은 퇴행성 뇌신경 질환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유전자를 갖고 있어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큰 사람들에게는 신체활동이 그 위험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br/> <br/>송용상 교수는 식생활, 운동이 최고의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각 개인별 맞춤형 처방과 예방법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한 NAPA 모임을 국가적 지원을 통해 활용하고 선도해 나가야 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대사증후군으로 유발된 암이 국내에 1년 동안 끼치는 부담 금액이 약 2300억원에 달한다.(고려대 연구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 20세 이상 암 환자 통계 분석 자료) 이 비용은 개인의 식이습관, 생활 습관, 운동의 조절로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 <br/> <br/>송용상 교수는 "오래 사는 것은 물론 임종 직전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류의 목표다. NAPA는 이를 위한 국내 최초의 융합학회로 관련 연구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의료비절감, 식품 의약품 진단기기 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한 NAPA의 성과가 단순히 연구 발표로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하고도 강력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20.txt

제목: 가공육·적색육 발암 가능성 낮춰주는 음식 '김치'  
날짜: 20151104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4251931  
본문:   <br/> <br/> <br/>가공육과 적색육으로 인한 발암 가능성을 낮춰주는 최고의 식품은 무엇일까. 한국인의 대표 반찬거리인 김치가 첫 번째 후보라는 평가가 국내 유명 소화기내과 의사와 식품영양 전문 학자에 의해 내려졌다. <br/> <br/>지난 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주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치 유산균과 면역력' 기자 간담회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이동호 교수는 "암은 염증에서 출발하며, 누적된 염증 물질이 유전자(DNA) 손상을 일으켜 암으로 진행된다"며 "식물성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를 즐겨 먹으면 장내(腸內) 염증은 물론 암의 발전·전이 과정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br/>김치에 든 유산균이 대장암 예방은 물론 초기 대장암부터 진행 암까지 억제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건강 증진 효과를 가진 미생물)란 것이다. <br/> <br/>이 교수는 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대장암 유발 가능성을 지적한 가공육, 적색육을 섭취할 때 김치를 곁들이면 발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김치엔 유산균 외에 역시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비타민 C, 폴리페놀, 칼슘 등 최근 IARC가 가공육·적색육의 발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제시한 물질들도 모두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br/> <br/>특히 김치의 양념으로 사용되는 마늘·생강 등에 염증 억제 성분들이 다량 포함돼, 가공육과 적색육의 PAH·HCA 등 일부 발암 성분의 독성을 상쇄해준다는 것이다. <br/> <br/>이 교수는 또 "20∼30대 젊은 세대에서 크론병, 만성 궤양성 대장염이 최근 크게 늘었다"며 "이들 세대에서 김치 섭취량이 과거보다 크게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br/> <br/>부산대 식품영양학과 박건영 교수는 "김치 유산균은 면역 세포인 T 세포를 활성화시켜 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을 유도하는 효소의 생성을 차단하며, 발암물질에 달라붙어 함께 분해되거나 체외로 배설된다"고 말했다. <br/> <br/>또한 소시지 등 가공육의 '아킬레스건'인 아질산나트륨(아질산염)을 줄이는 데도 김치 유산균이 효과적이란 연구결과도 소개했다. <br/> <br/>박 교수는 "연구를 통해 김치 유산균이 배추에 든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질산염의 1/500 가량만 아질산염으로 변환), 아질산염 자체를 파괴시키는 것을 확인했다"며 "채소·가공육 등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식품 중 아민이 결합하면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스아민이 생기는 데 김치엔 니트로스아민이 거의 없는 것도 김치 유산균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br/> <br/>김치 유산균이 면역을 조절해 스트레스우울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식품연구원 산하 세계김치연구소 최학종 박사는 "김치 유산균은 뇌와 장에서 '행복 물질'이자 '숙면 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량을 증가시킨다"며 "세로토닌은 우울증을 덜어주고 배변활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조언했다. <br/> <br/>이밖에 김치가 살을 빼는 데 유익한 이유도 언급됐다. 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 백현동 교수는 "김치의 다이어트 효과는 저열량 식품(100g당 18㎉)인데다 식이섬유, 유산균, 유기산 덕분"이라며 "김치 유산균을 쥐에게 먹였더니 다이어트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br/> <br/>독일의 양배추 발효 음식인 '자우어크라우트'(신맛이 나는 양배추란 뜻)보다 김치가 건강에 더 이롭다는 의견도 나왔다. <br/> <br/>30여 년간 유산균을 연구한 한동대 생명과학부 윌헬름 홀자펠 교수는 "자우어크라우트는 익혀 먹어 유익균이 대부분 파괴되지만 김치는 대개 생으로 먹으므로 유익균이 그대로 장내로 들어온다는 것이 강점"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에 대해 '다이어트에 좋다', '면역 증진을 돕는다'는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21.txt

제목: 고려대 구로병원,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센터' 오픈  
날짜: 20151104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4236686  
본문:   <br/> <br/> <br/>고려대학교 구로병원(원장 백세현)은 지난 2일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센터'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br/> <br/>'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센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건강진단이 가능하며, 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표를 수령한 사람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검진이 가능하다. <br/> <br/>센터 위치는 별관(치과센터) 1층이며,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화(02-2626-2351~3) 또는 방문 예약이 필수다. 검진 시에는 신분증 및 공단검진 대상자 검진확인표를 지참해야한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22.txt

제목: [세계식문화 연구가 양향자의 간편 레시피] 눈과 입 모두 즐거운 간식 '블루베리 파르페'  
날짜: 20151104  
기자: 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4228543  
본문: 블루베리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 푸드' 중 하나로 회복 및 정진, 노화방지 및 치매예방, 항산화작용, 해독 등의 효과가 있다. 블루베리의 파란색 색소 안토시아닌은 대표적인 항산화물질로 체내의 산화작용을 막고, 암 예방과 노화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또 면역력 증진에도 좋다. 이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에 포도보다 30배 이상 많이 함유돼 있다. <br/> <br/> 사진=세계음식문화연구원 제공재료 ▲플레인 요구르트 4개 ▲블루베리 200g ▲아몬드 콘푸레이크 300g <br/> <br/>만드는 법 <br/> <br/>1. 컵에 아몬드 콘푸레이크, 플레인 요구르트, 블루베리 순으로 채워준다. <br/>2. 1과 같이 여러 개를 만든다. <br/> <br/>< (사)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23.txt

제목: 이대목동병원 배하석 교수팀,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우수구연상  
날짜: 20151104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4214493  
본문: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배하석 교수. <br/>이대목동병원은 재활의학과 배하석 교수팀(정혜원, 서지현 전공의)이 최근 개최된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에서 '탄성초음파 영상에 의하여 측정된 탄력지수와 림프부종의 단계간의 관계'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br/> <br/>'탄성초음파'란 물체가 외부 힘을 받으면 모양이 변했다가 다시 본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탄성(彈性)의 원리를 이용해 정상 조직과 병변 조직을 구분하는 영상검사법이다. <br/> <br/>배하석 교수팀은 이러한 탄성초음파를 이용해 림프부종 환자에서 림프 부종 단계가 증가할수록 탄력지수가 유의하게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br/> <br/>배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탄성초음파를 이용한 림프부종의 수치화된 단계 구분과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해 암 환자 개인별 맞춤형 치료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한편 EBS 명의에 출연하기도 한 배하석 교수는 근골격계 통증 및 암 재활 치료의 명의로 현재 대한림프부종학회 및 대한스포츠의학회, 대한암재활의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환자 진료와 연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24.txt

제목: 차의과학대, 암 유발 시키는 단백질(14-3-3 감마) 분해 조절 기전 규명  
날짜: 20151103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3932361  
본문: 차의과학대학교 세포 및 유전자치료연구소 백광현 교수팀 <br/>차의과학대학교 세포 및 유전자치료연구소 백광현 교수팀은 최근 암 유발 관련 단백질의 분해조절 기전을 규명해 암 연구 분야 학술지인옹코타겟(Oncotarget) 온라인판에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br/> <br/> 이번 논문은 암유발단백질 중의 하나인 ‘14-3-3 감마 단백질’의 분해조절 기전을 분자학적 수준에서 밝힌 것으로 지난 6월에 열린 ‘2015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에서 해당 논문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우수연제상을 수상한 바 있다. <br/> <br/> ‘14-3-3 감마 단백질’은 세포주기를 조절함으로써 세포의 증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상보다 많은 양이 만들어지면 암이 유발된다.이번 연구내용은 암유발단백질인 14-3-3 감마를 조절할 수 있는 단백질분해조절 효소(USP37)를 발굴하여 이들의 조절을 규명한 것이다. 또한 14-3-3 감마 단백질은 혈액암과도 관련 있는 연구결과가 있어 토대로 이번 연구는 향후 혈액암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br/> <br/> 한편 백광현 교수팀은 지난 2002년부터 14년 연속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국내/국외에서 수상함으로써 탁월한 연구 업적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25.txt

제목: ‘거미형 체형’ 벗어나려면 생활습관 바꿔야  
날짜: 2015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4033434  
본문: 팔다리는 가늘고 배가 나온 일명 ‘거미형 체형’. 한국의 중노년층은 태아기와 성장기에 영양부족을 겪다가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과잉 영양상태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체형이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문제는 이러한 체형을 가진 사람들은 대사증후군, 심혈관질환, 뇌졸중, 통풍 등 생활습관병에 걸리기 쉽고, 암에도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br/> <br/>4일 오후 10시 KBS1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거미형 체형에서 벗어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관을 공개한다. <br/> <br/> 팔다리는 가늘고 복부만 비만인 ‘거미형 체형’은 고혈압, 당뇨 등 대사증후군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 <br/>KBS 제공우리나라의 성인 비만율은 2008년 21.6%에서 2014년 25.3%로 높아졌다. 비만인구 증가로 고혈압, 당뇨 등의 대사질환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특히 복부 내장비만은 몸속의 시한폭탄이라 할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이다. ‘거미형 체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병하는 대사증후군 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뇌출혈로 편마비 후유증을 앓게 된 윤재출씨,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송임순씨, 대장암 환자 김학영씨의 사례를 통해 복부 내장비만의 위험성을 알아본다. <br/> <br/>제작진은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임수 교수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50~60대 남녀 참가자 4명의 ‘3주 변화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다리 근력, 악력, 체성분, 골밀도를 측정한 후,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개별 식단과 근력 운동 처방을 받았다. 이후 고른 영양소 섭취를 위해 밥상 메뉴를 바꾸고, 자전거 타기와 계단 오르기 등 생활운동을 시작했다. 3주 후, 참가자들의 생활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다. 실험을 통해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으로 ‘거미형 체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알아본다. <br/> <br/>‘명의 클리닉’ 코너에서는 늦가을 산행 중 이슬을 머금은 낙엽을 밟아 실족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하며 안전하게 산행하기 위한 준비부터 하산까지의 과정을 알려준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26.txt

제목: [제테크 브리핑] 중대질병 진단시 가입액 80% 치료비로 외  
날짜: 2015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4027661  
본문: 중대질병 진단시 가입액 80% 치료비로 <br/> <br/>교보생명은 해지환급금 적립 방식을 바꿔 보험료 부담을 낮춘 ‘내 마음 같은 교보CI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중대질병을 진단받거나 중증치매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병에 걸리면 가입 금액의 80%를 치료비로 지급한다. 아울러 해지환급금을 미리 확정된 예정이율로 쌓아 보증하는 기존의 종신보험이나 CI보험과 달리 해지환급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하는 방식을 도입, 보험료를 7∼19% 낮췄다.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 해지환급금이 기존 상품보다 적어질 수 있지만 같은 보장이라도 더 저렴한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br/> <br/>해피포인트 추가적립 모바일카드 출시 <br/> <br/>하나카드는 식품기업 SPC그룹과 제휴하여 해피포인트를 추가 적립해주는 모바일카드 ‘해피 모비(Happy mobi·사진)’를 출시했다. 해피 모비로 전국 해피포인트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기존 하나포인트 멤버십에서 제공하는 5% 적립과 함께 추가 15%를 더해 최대 20% 적립(월 4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직구 시 사용하면 해외 이용금액의 5%를 해피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전월 실적과 상관없이 배송대행업체 ‘한진 이하넥스(www.ehanex.com)’ 이용 요금을 20% 깎아준다. 하나카드는 해피 모비 출시 기념으로 이번달 말까지 해피포인트 가맹점 혹은 해피포인트 앱(APP)에서 하나 해피 모비(Happy mobi)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해피포인트 1만점을 추가 적립해준다. <br/> <br/>특약 없앤 인터넷 전용 종신보험 <br/> <br/>KB생명보험은 인터넷 전용보험인 ‘무배당 KB 착한 종신보험’과 ‘KB 착한 어린이보험(사진)’을 출시했다. KB 착한 종신보험은 불필요한 특약을 없애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종신보험 본연의 기능인 사망 보장에 집중한 상품이다. KB 착한 어린이보험은 암, 5대 장기이식, 조혈모세포이식, 각종 수술, 질병 입원 등으로 병원 갈 일 많은 아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개발된 상품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27.txt

제목: 한국인 치밀유방 인식 수준 1년 전과 비교해 여전히 낮아  
날짜: 20151103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3848652  
본문:   <br/> <br/> <br/>GE헬스케어는 10월 세계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올 해 두 번째로 '건강 증진을 위한 인식의 중요성(The value of knowing)'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br/> <br/>그 결과 한국인의 유방암 인식 수준이 1년 전과 비교해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방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치밀유방에 대해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0%에 그쳐, 동일 설문이 진행된 9개국 중 7위에 머물렀다. <br/> <br/>한국인 500명을 포함해 전 세계 9개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 조사는 치밀유방 및 맘모그래피(유방촬영술)에 대한 전세계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치밀유방은 유방을 구성하는 지방과 유선조직 중 유선조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로 유방암에 걸릴 위험을 최대 5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뿐만 아니라 맘모그래피 촬영 시 유선 조직과 암 세포는 둘 다 흰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발견 자체가 어려워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치밀유방은 서양인보다는 동양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한국은 치밀유방을 지닌 여성이 40대 여성의 경우 90%에 달해 약 70%에 이르는 서양 여성보다 20% 이상 많다. <br/> <br/>이렇듯 치밀유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야 할 한국인의 경우 30%만 치밀유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6개월 동안 치밀유방에 대해 보거나, 듣거나, 읽었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작년보다 1%p 늘어난 22% 에 그쳐 국내의 치밀유방 인식 증진 노력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한편 유방암의 1차 진단법인 맘모그래피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자들의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비용적인 부담'을 1순위(34%)로 꼽았으며, '양성 판정이 나올 것에 대한 두려움'(21%), '맘모그래피 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 몰라서'(16%) 등이 뒤를 이었다. <br/> <br/>설문을 실시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GE헬스케어는 50년 전 맘모그래피를 처음 선보이며 다양한 유방암 검진 솔루션을 개발해 여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각 여성의 유방의 특징에 따라 맞춤형 진단이 가능한 유방암 검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br/> <br/> <br/>특히 GE헬스케어의 3D 디지털 유방 단층 촬영장치인 '세노클레어(SenoClaire)'는 유방을 25° 각도로 촬영하여 가려져 있거나 겹쳐있는 조직을 분리시키고 세밀하게 유방의 단층을 보여줌으로써 검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며, 치밀유방을 가진 여성에게 특히 유용하다. <br/> <br/>세노클레어 개발연구에 참여한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김학희교수는 "기존에 유방을 겹쳐 2차원으로 촬영하는 맘모그라피 중심의 검진에서 같은 선량으로 0.5~1mm 간격으로 볼 수 있는 단층유방술 (토모신세시스, Tomo Synthesis)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검진이 가능해지고 유방의 해부학적 구조를 3차원으로 파악하게 되어 보다 정확한 유방암 조기 검진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br/> <br/>김 교수는 아시아 최초로 GE헬스케어가 개발한 디지털 3차원 유방촬영 임상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br/> <br/>시아 무사비(Sia Moussavi) GE헬스케어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모든 질환에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지만, 특히 유방암은 완치의 가능성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질병이다. 이는 진단영상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GE헬스케어 높은 기술력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다. <br/> <br/>이어 "유방암 진단 분야에서 5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치밀유방과 같이 고도의 영상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방 영상을 연구하는 의료진들을 도와 여성들이 편리하고 고통 없이 정확한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한편 GE코리아는 매년 10월 유방암 인식 향상의 달을 맞아 한국유방건강재단(이사장 노동영)이 주최하는 '2015 핑크리본 사랑마라톤대회'에 함께 참여해 유방암 예방 및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진행하는 '핑크투어-유방건강강좌'를 통해 유방암 자가검진을 배워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 직원 및 가족의 건강을 응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28.txt

제목: 세계적 생명공학 제약기업 암젠, 암젠 코리아 공식 출범  
날짜: 2015110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3838050  
본문:   <br/> <br/> <br/>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생명공학 제약기업 암젠은 3일 암젠 코리아를 공식 출범하고 국내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의약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 <br/>암젠은 생명과학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혁신적인 의약품으로 구현해 온 생명공학 제약기업으로서, 심각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신약을 개발, 생산, 공급함으로써 인류에 헌신하고 있다. 더불어 광범위하고 강력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전 세계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앞장서왔다. <br/> <br/>암젠은 2015년 11월 암젠 코리아를 설립,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임상 시험을 유치하고 중증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내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의약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을 글로벌 사업 확장의 중요한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br/> <br/>암젠 코리아는 국내 시장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 크게 세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 추진한다. 4암젠은 국내 임상 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총 29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했으며, 18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br/> <br/>4골질환, 심혈관계 질환, 혈액·종양 및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를 포함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4국내 생명공학업계의 일원으로서  긍정적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할 것이다. <br/> <br/>현재 암젠은 한국에서 두 가지 치료제의 등록을 신청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암젠은 빠른 시일 안에, 이 치료제들을 국내 환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br/> <br/>지난 5월 암젠 코리아의 신임 대표로 선임된 노상경 대표는 1987년 제약 업계에 첫 발을 내딛은 이래,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의약품 개발 및 마케팅과 세일즈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암젠 코리아에 합류하기 전, 바이엘 코리아의 전문의약품 사업부 한국 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br/> <br/>암젠 코리아 노상경 대표는 "한국은 생명공학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한국에 암젠 코리아를 출범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생명공학 분야의 선구자로서 향후 암젠 코리아는 우수한 의약품을 통해 환자의 삶과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의료진에게 치료 대안을 제공하여 '환자를 위한다(To Serve Patients)'는 기업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암젠은 지난 5년간 국내 임상시험에 250억 원을 투자했으며, 전국 171개 임상센터와 1200여 명의 환자가 암젠의 임상 시험에 참여해 왔다. 암젠은 생물학적 제제 개발 분야의 세계적 선도기업으로서 환자들이 필요로하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해왔다. <br/> <br/>암젠의 본사는 캘리포니아 주 사운전드 오크스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 일본 및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75개 국가에 진출해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29.txt

제목: 부정맥이 환절기 돌연사 부른다? 일교차 심한 환절기 심쿵 주의보  
날짜: 2015110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3746637  
본문:   <br/> <br/> <br/>일교차가 10도를 훌쩍 넘는 환절기다. 요즘처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심할 때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부정맥'이다. 찬바람이 불면 흔히 호흡기 질환만을 신경 쓰기 쉽지만, 부정맥은 계절 변화의 영향을 받는 심혈관 질환의 최초의 증상이자 급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br/> <br/>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장은 자발적으로 전기를 발생시켜 생성된 전기 신호로 근육을 수축·이완한다. 부정맥은 전기 전달 체계에 변화 및 이상이 생겨 심장 박동과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을 말한다. <br/> <br/>정상인의 맥박이 분당 약 60~100회인데, 이보다 지나치게 느리거나 빠른 경우 또는 불규칙적인 상태일 때 부정맥으로 진단한다. 맥박이 100회를 넘으면 '빈맥', 60회 미만인 경우엔 '서맥',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아주 빠르게 뛰면 '심방세동'으로 구분한다. <br/> <br/>최근 부정맥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부정맥 환자는 2011년에 14만7159명에서 2013년 18만7085명으로 약 27% 증가했다. 이는 암에 이어 국내 주요 사망원인 2위인 심혈관 질환(협심증?심근경색)의 환자가 동일한 기간 내에 5%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해, 약 5배나 많은 수치다. <br/> <br/>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 박준범 교수는 "가장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인 협심증 및 심근경색 환자 수는 지난 몇 년간 정체되어 있는 반면 부정맥 환자 수는 급증해 최근 심장질환의 발생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며 "부정맥은 단순한 심장의 리듬 이상일 수 있지만 방치하면 심장 내 피떡(혈전)이 생겨 뇌졸중이나 심부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 자신의 맥박이나 심장 박동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br/> <br/>부정맥의 대표적인 증상은 긴장하지 않았는데 심장이 자주 쿵쾅거리거나 참기 어려운 가슴 통증 발생, 반대로 힘이 빠지면서 어지럼증, 호흡 곤란, 무력감, 피로감 등을 느끼는 것이다. 다만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15~35%의 심방세동 환자는 증상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 비만이 부정맥 부른다? 규칙적인 운동 통해 적정 체중 유지 <br/> <br/>호주의 한 대학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가 정상에서 5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심방세동 위험은 29%씩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혈압이 높아지면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이로 인해 심장의 이완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맥 유발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br/> <br/>부정맥을 예방하려면 가능한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해, 적정 체중 및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걷기나 달리기, 자전거, 수영 등 유산소 운동과 온몸의 근육을 풀 수 있는 체조나 요가 등을 권장한다. 다만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과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br/> <br/>◆ 부정맥 악화시키는 3요소, 커피?술?담배를 피하라 <br/> <br/>건강한 사람도 술이나 담배, 카페인 등이 원인이 되어 심장의 전기 시스템이 고장 날 수 있다. 이에 술은 하루에 1~2잔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고, 반드시 금연한다. 담배를 끊을 때는 흡연량을 점차 줄이는 것보다 한 번에 끊는 것이 성공률이 높으므로, 되도록 한 번에 금연할 것을 권한다. <br/> <br/>흡연을 대체할 습관을 만드는 것도 금연에 도움이 된다. 최근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이 커피가 심방세동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현재 커피와 부정맥 발생 위험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나, 하루에 1~2잔 정도가 적당하다. <br/> <br/>◆ 스트레스는 부정맥에도 악영향 <br/> <br/>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면서 극심한 감정 변화를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스트레스는 흡연이나 음주, 폭식 등 다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원인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취미생활을 갖거나 운동 등 본인의 성향이나 관심사에 맞춰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좋다. <br/> <br/>◆ 소금 적게 먹어도 부정맥 유발? 소금은 하루에 3~5g 정도 섭취 <br/> <br/>나트륨 섭취를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건강 상식이나, 나트륨을 매우 적게 섭취해도 부정맥에 안 좋을 수 있다. 실제 캐나다 맥마스터대 연구팀이 심장병 환자 약 3만여 명의 7년간 기록을 분석한 결과, 나트륨 섭취가 많을 때뿐만 아니라 너무 적을 때도 심장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나트륨은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는데 양이 부족하면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아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1일 소금 섭취량을 5g, 미국심장학회는 3.75g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br/> <br/>◆ 부정맥은 중년 남성 질환? 폐경기 여성도 관심 갖고 검진해야 <br/> <br/>부정맥과 같은 심혈관 질환은 술과 담배, 기름진 음식을 자주 즐기는 남성들만의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폐경기 여성들도 예외일 수 없다. 심장 보호 효과를 가진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면, 심혈관 질환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br/> <br/>문제는 폐경기 여성에게는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단순한 폐경기 증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중년 여성들은 자신의 몸 변화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검진해 볼 것을 권장한다. <br/> <br/>◆ 부정맥 환자라면 꾸준한 약물치료와 함께 음식 섭취에도 신경 써야 <br/> <br/>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 환자들이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다면, 비타민 K가 많이 포함된 음식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와파린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액 응고 인자의 생산을 방해해 혈액이 응고되지 않게 하는데,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 K가 와파린의 효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br/> <br/>비타민 K는 주로 된장이나 두부, 두유, 콩기름, 콩가루 등 콩 음식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또 클로렐라나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등에도 비타민 K가 많으므로, 채소나 녹즙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br/> <br/>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 박준범 교수는 "노화 질환인 부정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비법을 찾기보다는 평소 건강관리 및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하다"며 "또한 부정맥은 심장질환의 첫 번째 증상이자 심장으로 인한 사망 시 나타나는 마지막 증상일 수 있으므로, 유사한 증상을 느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 센터에 방문해 상태를 점검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30.txt

제목: 피임약 오래 먹으면 임신이 잘 안된다고?  
날짜: 2015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3612375  
본문: “<span class='quot0'>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임신이 잘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span>” <br/> <br/>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가임기 여성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다. 피임약을 복용하다가 끊으면 복용 기간 만큼 임신을 할 수 없다는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br/> <br/>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산부인과 전성운 교수에 따르면 실제 진행된 연구에서 경구피임제 복용자가 약을 끊고 1년 후 가임률은 79.4%, 2년 후 가임률은 88.3%로 보고된다. 비복용자의 일반적인 가임률과 비교할 때 차이가 없는 결과다. 즉 피임약을 먹었다고 해서 안 먹은 사람보다 가임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br/> <br/>경구피임제에 대한 오해는 또 있다. 경구피임제를 복용하면 암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자궁내막암 및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 초기 피임제 복용 중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메스꺼운 증상이 피임제 복용 기간 내내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이야기다. 일부 피임제에서 관찰되는 부작용인 체중 증가가 마치 전체 피임제에 해당되는 부작용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br/> <br/>한번 퍼진 잘못된 상식은 바로잡기가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구피임제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생각보다 깊다. 경구피임제는 세계적으로 값싸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표적 피임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각종 편견과 오해 때문에 여성들은 경구피임제 복용을 꺼린다. <br/> <br/>2006년 기준으로 각 나라의 먹는 피임약 사용률을 조사해본 결과 벨기에 42%, 뉴질랜드 40%, 프랑스 36%, 독일 29%, 영국 26% 등으로 높은 데 비하여 한국의 피임약 복용률은 약 2%로 가장 낮았다. <br/> <br/>전 교수는 “경구피임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법일 뿐 아니라, 월경통 감소, 월경량 감소, 월경 전 증후군 치료 및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골다공증 예방, 자궁내막증 치료 및 갱년기 여성에서 갱년기 증상을 부가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유망한 치료 방법”이라며 “많은 분들이 경구 피임제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 올바른 치료를 받는 데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br/> <br/>김희원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31.txt

제목: 하루 칼슘 섭취량, 거주 지역ㆍ소득 등에 따라 최고 2.7배 차이  
날짜: 20151102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3454101  
본문: 하루 평균 칼슘 섭취량이 남녀 모두에서 전국 최고인 곳은 수도권이고, 최저인 곳은 제주(남성)와 호남(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여성은 남성보다 칼슘을 매일 100㎎ 가까이 덜 먹으며, 거주 지역ㆍ소득에 따라 하루 평균 칼슘 섭취량이 최고 2.7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 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순천향대 식품영양학과 김순경 교수팀이 보건복지부가 낸 국민건강영양조사(2011∼2013년)의 원시 자료 등을 토대로 모두 1만9249명(남 8350명, 여 1만899명)의 칼슘 섭취량을 각자의 거주 지역ㆍ연령ㆍ소득에 따라 분류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br/> <br/>이 연구결과는 대한골대사학회의 영문 저널인 ‘JBM’(Journal of bone metabolism) 최신호에 소개됐다. 김 교수팀은 대상자의 거주 지역을 수도권(서울ㆍ경기도ㆍ인천), 충청(대전ㆍ충북ㆍ충남), 호남(광주ㆍ전북ㆍ전남), 영남(부산ㆍ대구ㆍ울산ㆍ경북ㆍ경남), 강원, 제주 등 6개 지역으로 나눴다. <br/> 지역 6곳 중 칼슘 섭취량이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이었다. <br/> <br/> 남성의 경우 지역별 하루 칼슘 섭취량은 수도권(570㎎)ㆍ영남(565㎎)ㆍ호남(540㎎)ㆍ충청(528㎎)ㆍ강원(515㎎)ㆍ제주(504㎎) 순이었다. 여성은 수도권(463㎎)ㆍ영남(461㎎)ㆍ강원(438㎎)ㆍ충청(431㎎)ㆍ제주(429㎎)ㆍ호남(426㎎) 순서로 칼슘을 섭취했다. 하지만 수도권 거주 남녀의 하루 평균 칼슘 섭취량도 현재 한국인의 일일 칼슘 섭취 권장량인 650∼1000㎎엔 한참 미달했다.  <br/> <br/>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span class='quot0'>칼슘을 가장 많이 먹는 수도권 남성 거주자도 권장량 대비 칼슘 섭취량이 76%(수도권 여성 67%)에 불과했다</span>”고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 남성의 하루 칼슘섭취량은 평균 558㎎으로, 여성(454㎎)보다 약 100㎎ 가량 높았다.  <br/> <br/> 칼슘 섭취는 개인의 소득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이 낮을수록 칼슘의 섭취량은 적고, 소득이 높을수록 칼슘을 많이 먹는 것이 통계 수치로 확인됐다. <br/> <br/>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span class='quot0'>제주에서 살면서 소득이 낮아 국가의 식품 보조를 받는 사람의 하루 평균 슘 섭취량은 210㎎으로 권장량 대비 섭취량이 31%에 불과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영남에서 거주하면서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의 하루 평균 칼슘 섭취량은 575㎎으로 제주도 거주 저소득층의 2.7배에 달하지만 이들의 칼슘 섭취량 역시 권장량의 80% 수준</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 연령대에 따른 칼슘 섭취량의 차이도 상당했다. 30∼64세 연령대에서만 하루 섭취 권장량 대비 칼슘 섭취량이 70%를 넘겼을 뿐 어린이ㆍ청소년ㆍ20대ㆍ노인에선 권장량 대비 섭취량이 50∼60%대였다. <br/> <br/> 특히 충청의 청소년, 제주의 청소년과 20대, 강원의 65세 이상 노인은 칼슘을 하루에 권장량의 절반 정도를 섭취, 칼슘 섭취 부족이 가장 심각했다.  <br/> <br/>  한편 칼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풍부한 미네랄로 체중의 약 1.5∼2%를 차지한다. 뼈 건강ㆍ근육 수축ㆍ신경 전달ㆍ혈액 응고 등에 관여하며 섭취가 부족하면 골다공증ㆍ골절ㆍ고혈압ㆍ뇌졸중ㆍ생리전 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로 꼽히는데 특히 65세 이상 노인ㆍ청소년ㆍ여성에서 섭취량이 적다. 칼슘이 풍부한 12개 식품으론 우유ㆍ멸치ㆍ김치ㆍ두부ㆍ무청ㆍ요구르트ㆍ달걀ㆍ파ㆍ미역ㆍ빵ㆍ콩ㆍ참깨이고 이들을 통해 한국인은 칼슘의 절반을 섭취한다는 국내 연구결과도 있다(2014년). <br/> <br/> KOFRUM 주최로 2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호서대 임상병리학과 정상희 교수는 “<span class='quot1'>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보고서에서 칼슘을 섭취하면 가공육이나 적색육에 의한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span>”며 “<span class='quot1'>가공육이나 적색육의 발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우유 등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것</span>”을 주문했다. <br/> <br/> 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32.txt

제목: 아베종양내과, 수지상세포 암백신 임상...'표준치료 한계' 극복  
날짜: 2015110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3527225  
본문:   <br/> <br/> <br/>제4의 암치료법이라 불리며 면역요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수지상세포를 활용한 아베종양내과의 '다가(多?)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ABeVax)' 치료는 수술, 방사선, 항암제 등 표준치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기존 수지상세포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수지상세포는 암을 공격하는 세포에 지시를 내리는 총사령관과 같은 역할을 하며, 2011년 캐나다 랄프 슈타인만 교수가 발견한 이래 발전을 거듭하여 지난해 7월 아베종양내과의 아베 히로유키 원장이 '다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이라는 한 차원 진화된 치료제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특허제5577472호). <br/> <br/>아베종양내과와 공동연구 중인 한국기업 선진바이오텍 양동근 대표에 따르면 이 암치료제는 1~2종류의 펩타이드만을 적용하는 기존의 수지상세포치료와 달리, 유전자 검사와 항원검사를 한 후 개인에 맞는 암항원인 펩타이드를 4~6종류 추가함으로써 암치료율을 높였다. <br/> <br/>또한 기존 치료의 경우 9~1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짧은 펩타이드로 킬러T세포만을 활성화시켰다면, 다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는 암질환에 따라 여러 종류의 펩타이드를 자체기술로 장쇄 펩타이드로 만들어 모든 암과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다. <br/> <br/>이 장쇄 펩타이드는 킬러T세포뿐 아니라 헬퍼T세포와 메모리T세포까지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백신치료제라고 양동근 대표는 설명한다. <br/> <br/>이뿐만 아니다. 다가 신 수지상세포는 성분채혈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환자가 느끼는 부담감을 줄였다고 한다. 즉 수지상세포 치료의 기본인 단구(單球)를 채집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성분채혈과정이 필요한데, 아베종양내과는 약 25ml의 소량채혈로 1회 백신치료를 가능케 함으로써 환자의 심적 고통을 줄인 것이다. <br/> <br/>아베종양내과는 "단구를 대량으로 증식시켜 수지상세포로 분화시키는 특허 기술력이 있어, 미성숙한 수지상세포에 암 항원으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펩타이드를 입력시켜 암을 치료한다"면서 "이 치료제를 통해 말기암 환자가 관해 되고, 진행성 암의 커다란 종양이 작아지는 등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br/> <br/>실제 이 병원은 전이·재발암 환자에게 하이브리드 치료(다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와 New NK면역세포)를 한 결과, 74.4%의 성과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br/> <br/>다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의 항암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도 공개했다. 지난 21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아베 원장은 수지상세포 치료에 암항원으로 펩타이드를 사용할 경우, 항원제시세포가 정확히 항원을 표시하여 항원특이적인 CTL(세포상해성T림프구)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br/> <br/>항원특이적 CTL의 활성화를 분석하는 수단으로는 CTL이 활성화될 때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을 검출하는 ELISPOT법(항체생산 또는 각종 사이토카인 생산 세포수를 측정하는법)이 적용됐는데, 이는 사이토카인과 항원특이항체를 분비하는 단일세포레벨로 고감도검출이 가능하기에 면역반응실험 또는 면역세포의 기능실험 등에 사용된다. <br/> <br/>이날 아베 원장은 각종 암항원을 추가한 수지상세포치료에 펩타이드의 특이적 활성화 CTL의 검출을 ELISPOT법으로 검사했으며, 암항원은 New WT1과 NY-ESO1, MUC1, Survivin 등을 사용했다. <br/> <br/>적용결과 암항원을 추가한 거의 모든 수지상세포 치료제에서 반응하는 특이적 CTL의 활성화를 검출할 수 있었다고 당시 아베 원장은 설명했다. <br/> <br/>이 같은 결과를 놓고 선진바이오텍 양동근 대표는 "다가 신 수지상세포 치료제가 특이적 CTL을 유도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MHC 클래스1이 활성화되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T세포에서 분비된 인터페론감마 뿐만 아니라 MHC 클래스2가 활성화됐을 때 헬퍼T세포에서 분비되는 IL-4도 다수 검출되었으며, MHC 클래스1뿐만 아니라 MHC클레스2도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br/> <br/>이어 그는 "아베종양내과의 암백신 치료는 환자 본인의 수지상세포에 평균 4~6종류의 암항원을 추가적로 사용하며, 킬러T세포와 헬퍼T세포, 메모리T세포, 인터페론감마, IL-4가 증가하여 암의 진행도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 <br/>헬스팀 유소라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33.txt

제목: 햄 소시지 공포에 식약처 "우리국민, 가공육 섭취 수준 우려할 정도 아냐"  
날짜: 2015110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3343572  
본문: 햄·소시지 등 가공육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뒤 <br/> <br/>기피현상이 퍼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국민들의 가공육과 적색육(붉은 고기) 섭취량이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br/> <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의 가공육과 적색육 섭취 실태, 외국의 관련 권장 기준, WHO 발표 내용, 육류의 영양학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br/> <br/>식약처는 "2010~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량은 1일평균 6.0ｇ 수준"이라며 "매일 가공육 50ｇ 섭취시 암 발생률이 18% 증가한다는 WHO 발표 내용을 참고하면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 수준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br/> <br/>또 식약처는 가공육의 색을 내거나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의 섭취량도 "2009~2010년 기준 우리국민의 1일 아질산나트륨 섭취량은 WHO 1일 섭취허용량(0~0.06㎎/체중 1㎏)의 11.5% 수준이었다"고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br/> <br/>적색융에 대해 식약처는 "한국인의 1일 섭취량은 61.5ｇ 수준"이라며 "WHO는 매일 100ｇ 섭취시 암 발생률이 17% 증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한국인의 적색육 섭취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br/> <br/>한국인의 가공육과 적색육 1일 섭취량 67.5g은 영국의 섭취권장량(70ｇ),  호주의 섭취권장량(65~100ｇ)보다 낮다. <br/> <br/>식약처는 "적색육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성인 남성과 가공육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채소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과 균형있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br/> <br/>더불어 식약처는 국민들의 가공육·적색육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가공육과 적색육의 섭취 가이드라인을 내년 하반기께 제정할 계획이다 <br/> <br/>한편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을 담배나 석면처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br/> <br/>WHO는 이와 함께 쇠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양고기 등 붉은색을 띠는 적색육에 대해서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과 함께 2A군의 발암 위험물질에 포함시켰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34.txt

제목: 황치열, 눈물어린 고백 "아버지 날 한번도 인정해주신 적 없어..."  
날짜: 2015103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2948787  
본문: 황치열, 눈물어린 고백 "아버지 날 한번도 인정해주신 적 없어..."황치열, 눈물어린 고백 "아버지 날 한번도 인정해주신 적 없어..." <br/> <br/>황치열이 화제인 가운데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br/> <br/>황치열은 지난 5월 방송된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 인순이의 '아버지'를 선곡해 열창한 바 있다. <br/> <br/>당시 방송에서 황치열은 “암 판정을 받았던 아버지가 투병 중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인정해주신 적이 없다”며 “이번 무대를 통해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다”며 심경을 밝혔다. <br/> <br/>황치열의 무대를 본 설운도는 “아버지는 가슴으로 듣는다. 눈물도 가슴으로 우실 거다”며 “아버지가 무표정으로 들으셨다하더라도 가슴으로 많이 우셨을 것”이라며 그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건넸다.  <br/> <br/>한편 황치열은 2007년 ‘치열’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싱글 ‘한 번만’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이후 그룹 015B의 객원보컬과 웬즈데이의 멤버로 활동했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35.txt

제목: 햄·소시지 가공육, 의사들도 판단 엇갈려  
날짜: 20151031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2859683  
본문: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가공육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br/> <br/>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지정한 것을 두고 논란 중이다. <br/> <br/>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일부 교수들은 IARC 발표는 과도하게 먹는 행위에 경고를 보낸 것일 뿐 미국인 섭취량의 10분의 1 수준인 한국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br/> <br/>국민들 식습관을 고려하면 가공육을 매일 50그램(g)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br/> <br/>IARC는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18%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가공육 섭취로 발생하는 암은 대부분 직장암이나 대장암이다. <br/> <br/>논란이 커지자 WHO는 IARC 보고서는 가공육 섭취를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먹는 양을 줄이면 대장·직장암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br/> <br/>이 같은 해명에도 당분간 가공육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국내 유명 의사들도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br/> <br/>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정책학과 교수(가정의학과 전문의)는 현재 한국인들의 가공육 섭취량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많이 먹을수록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br/> <br/>명 교수는 "가공육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보다 먹는 사람, 특히 많이 먹을수록 암 발생은 증가한다"며 "대장암 등이 해당하고 위험군은 섭취량을 줄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br/> <br/>이어 "가공육이 어느 정도 안전하느냐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IARC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r/> <br/>명 교수는 "IARC 발표는 가공육을 매일 50그램 먹으면 암이 18%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인들이 그 기준에서 섭취량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많이 먹고 있다면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br/> <br/>한국육가공협회는 지난 27일 가공육은 5대 필수영양소 중 하나인 단백질의 보고이며, 국민 1명당 연간 소비량이 4.4kg으로 IARC가 위험 수준으로 제시한 18kg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br/> <br/>반면 건국대병원 외과 황대용 교수는 가공육 사태에 대해 "지금껏 잘 먹어온 것을 기분 나쁘게 먹게 만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br/> <br/>황 교수는 "암 발생이 18% 증가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1.2배로 높다는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다만 공공의료 개념에서는 큰 숫자가 되므로 국가적인 관점에서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br/> <br/>또 "결국 가공육을 많이 먹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각심을 준 것이고, 이번 발표는 전문가들이 고민할 영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br/> <br/>한편 일선에서 급식 관리와 영양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가인 영양사들은 연령에 맞는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br/> <br/>국민들 전체 섭취량에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아동들이 즐겨 먹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36.txt

제목: "종식선언이요?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날짜: 2015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2701192  
본문: “<span class='quot0'>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종식선언 이야기가 나와도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span>” <br/> <br/>29일 오전 11시50분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발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을 낀 검역관 6명이 122번 게이트에 모였다. 이윽고 긴 비행을 마친 입국자 250명이 쏟아져 나오자 검역관들이 노란색 문진표를 번쩍 들어보였다. 검역관 4명이 게이트로 나오는 승객들을 4개의 줄로 세워 일일이 체온을 측정하면서 문진표를 수집했다. 나머지 2명은 미처 기내에서 문진표를 작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데스크로 데려가 작성법을 알려줬다. <br/> <br/> 30일 인천공항검역소 검역관들이 입국자를 대상으로 체온 측정, 문진표 작성 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br/>인천공항검역소 제공인천공항검역소 검역관들은 국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난 5월21일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중동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탑승객에 대해 전원 온도체크를 하고 문진표를 받는 게 주임무다. 8월27일까지 3개월여 동안 중동지역에서 413대의 비행기가 들어왔고 14만2913명이 입국했다. 이 기간 발열증상이 나타난 승객은 219명이었다. 이렇게 많은 승객이 쏟아져 오지만 이들을 맡는 검역관은 42명뿐이다. 14명씩 3개조로 나뉘어 교대근무를 하는데 중동에서 비행기 2대가 동시에 들어오면 다시 6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게이트를 하나씩 맡는다. 다른 검역관 2명은 입국수속장에 인접한 열감지카메라에 배치돼 한 번 더 발열증상자를 체크한다.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13만명이 80개에 달하는 여객동·탑승동을 통해 입국한다. 이들도 모두 검역관의 몫이다 보니 검역관들은 공항 내에서 수시로 전력질주를 해야 한다. <br/> <br/>이곳에서 검역관으로 일한 지 25년차인 김대원 검역 2팀장은 “<span class='quot1'>주 100시간을 넘기는 근무와 수시로 찾아오는 철야·24시간 근무, 입출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 홍보, 생물테러 출동 등으로 검역관들의 피로도가 가중돼 사기도 저하된 상태</span>”라고 토로했다. 이어 “에볼라나 메르스 등이 불거졌을 때만 잠깐 인력충원 얘기가 나왔다가 제대로 된 충원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매우 힘들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역시스템은 사실상 감염병 환자가 입국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발열 체크를 하지만 실제로 발열자가 나올 경우 출동할 수 있는 상비 인원이 없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span class='quot2'>동료 중에 과로에 시달리다가 뇌졸중과 암에 걸린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꼭 충분한 인력충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 <br/> <br/>30일 인천공항검역소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검역소 직원은 총 66명이다. 세관 직원(842명)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다. 출입국관리사무소(609명)는 물론이고 농림축산검역본부(147명) 인원보다도 적다. 인천공항 검역관이 해외 감염병을 방어하는 최전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다. <br/> <br/> 복잡한 검역현장현행 시스템으로는 입국장에서 발열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를 격리하고 밀접접촉자 등 의심환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데 4시간이 걸린다. 출입국관리소와 검역소 사이에 통합된 정보체계가 없어 입국자의 정보를 받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br/> <br/>당국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항 검역관 수를 2배로 증원하고, 접촉자에게 연락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발열체크를 하고 접촉자에게 연락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br/> <br/>인천공항=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37.txt

제목: 서울대학교암병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개최  
날짜: 20151030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2603606  
본문:   <br/> <br/> <br/>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는 지난 29일 낮 12시 암병원 2층 서성환홀에서 제4회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br/> <br/>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원활한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환우 및 강사 자원봉사자 25명과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r/> <br/>암정보교육센터는 암 정보 콘텐츠, 교육프로그램, 정서적지지 등 암환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암 치료 중', '장기 생존', '말기' 등 각 암 여정 별로 필요한 내용을 참여형·강의형·암환우 주도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시행 중이다. <br/> <br/>이 중 각종 신체활동·예술치료 등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인 강사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1:1 상담·선배 암환우와의 대화와 같은 암환우 주도형 교육 프로그램은 환우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br/> <br/>이에 암정보교육센터는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관리와 지원을 통해, 암환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봉사자들의 성취감을 제고시키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br/> <br/>'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역시 이 같은 지원의 하나로 2012년부터 열리고 있다. 특히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활동과 암정보교육센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암환자 대응 시 주의사항,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과 암 경험자인 환우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재발암 및 2차암 예방, 암 경험자 건강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br/> <br/>김태유 서울대학교암병원장은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뜻깊고 아름다운 활동"이라며 "재능과 경험을 암환자들을 위해 나누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활동 덕분에 암병원이 더욱 빛난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38.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하늘나라 친구 위해 10년만에 함께 학교왔어요  
날짜: 20151030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2531018  
본문: 아일랜드의 한 여성이 결혼식 당일 드레스 차림으로 졸업한 고등학교를 찾았던 사연이 뒤늦게 공개됐다. <br/> <br/>아일랜드 더블린에 사는 제이드 화이트(26)는 지난 9월18일(현지시간) 결혼했다. 그는 식을 마친 뒤, 고등학교 친구들과 모교를 찾았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드레스를 입은 채로 말이다. <br/> <br/>화이트는 친구 네 명과 어느 나무 앞에 섰다. 앞에 두 명, 뒤에 세 명. 이렇게 선 다섯 사람은 카메라를 보며 환히 웃었다. 그러나 그들의 웃음 속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났다. <br/> <br/> <br/> <br/>화이트가 친구들을 데리고 학교에 온 것은 같은 반이었던 데이비드를 위해서다. <br/> <br/>데이비드는 16세던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활발한 성격으로 교우관계가 좋았던 데이비드의 사망은 화이트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데이비드의 암 투병과 사망은 함께 어울리던 다섯 친구에게 큰 슬픔을 안겼다. <br/> <br/>학교는 데이비드를 위해 작은 나무를 화단에 심었다. 그리고 화이트를 포함한 다섯 친구는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언제까지나 데이비드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br/> <br/> <br/> <br/>10년 후, 화이트가 친구들을 데리고 학교에 온 것은 그때를 재연하기 위해서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사진에 친구가 없는 것을 화이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br/> <br/>화이트는 “<span class='quot0'>데이비드는 항상 재밌고, 활기찬 아이였다</span>”며 “<span class='quot0'>조금 정신이 없기는 했지만 누구나 그와 지내보면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 이어 “데이비드는 암을 이겨내려 끝까지 노력했다”며 “우리도 그가 완쾌하리라 믿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금 과장하면 데이비드가 죽었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br/> <br/>화이트는 “<span class='quot0'>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데이비드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span>”며 “<span class='quot0'>초대손님 명단에 데이비드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가슴을 저리게 했다</span>”고 말했다. 그는 명단에 친구가 없다면 자신이 직접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br/> <br/> <br/> <br/>화이트는 단체사진 촬영이 남들에게는 보잘것없어도, 자신들에게는 뜻깊은 일이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사진을 찍게 해준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br/> <br/>“많은 분들 덕분에 저와 친구들은 감동적인 순간을 만끽할 수 있었어요.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이들과 결혼식 사진을 장식할 수 있었죠. 저와 제 친구들은 하나의 끈으로 묶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끈은 데이비드고요.”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미러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39.txt

제목: 가공육식품이 인체에 유해한 이유는?  
날짜: 20151029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2131756  
본문:   <br/> <br/> 가공육식품이란 제품의 맛과 보존 기간을 개선하기 위해 소금에 절이거나 말리거나 발효시키거나 훈제 처리된 고기를 가공육이라 총칭한다. 또한, 대부분 가공육은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 및 닭고기에 동물의 내장과 피 같은 부산물이 포함되어있다. 예로 들자면 가공육식품으로 프랑크프루트 햄, 쏘세지, 육포, 캔에 든 스팸, 핫도그 및 콘도그가 있다. <br/> <br/> 이러한 가공육식품은 집에서 직접 만들지 않은 것으로 제조사는 제품을 만들 때 천연 또는 화학적 첨가물을 추가한다. <br/> <br/> 지난 28일 영국 데일리메일 매체에 따르면 가공육식품에 포함된 질산염(Nitrates) 과 아질산염 (Nitrites) 그리고 헴철(Haem iron) 및 고온조리법이 암을 유발시켜 문제라고 지적했다. <br/> <br/> ◆질산염(Nitrates) 과 아질산염(Nitrites) <br/> <br/> 가공육식품은 보존기관을 연장하기 위해 첨가된 소금의 주요 성분인 아질산나트륨(sodium nitrite )과 질산나트륨 (sodium nitrate )이 포함되어 있다. 인체가 가공육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발암물질의 하나인 니트로사민(nitrosamines) 성분에서 유래한 아질산염이 인체의 DNA을 손상시킨다. 또한, 이 물질은 급성백혈병의 발병률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헴 철(Haem iron) <br/> <br/> 붉은 고기는 헤모글로빈 일종인 헴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 헤모글로빈은 심장에서 신체의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분자로 성장과 정상세포가 동작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세계암연구재단(World Cancer Research Fund )은 헴이 대장의 내벽을 손상시킬수 있다고 경고했다. <br/> <br/> 지난 2011년 암예방치료저널(Journal Cancer Prevention Treatment)은 붉은 고기가 대장에서 생기는 암을 일으키는 병변(lesions), 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생체의 변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br/> <br/>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붉은 고기의 헴 철분이 발암물질인 엔트로소 화합물(N-nitroso compounds) 형성을 유발해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고온 조리법(High temperatures) <br/> <br/> 사람들이 고기를 요리할 때 주로 고온에서 튀기거나, 굽거나, 볶는다. 이러한 요리법은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 또 다른 문제는 고기를 구워 먹는 경우 새로운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고기가 탈 때 HCA(heterocyclic amines)와 다륜성 방향족 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HAs)등의 발암물질이 만들어 진다. <br/> <br/> 직화구이 시 생성되는 벤조피렌은 1군 발암물질이다. 후추를 쳐 구우면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증가한다. 가공육은 물론 적색육류나 백색육류을 불에 구울 때도 마찬가지다. 만약 바비큐로 고기를 요리해 먹는다면 태우지 말고 까맣게 탄 부분은 제거한 후 먹어야한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40.txt

제목: 소화기 암 합병증, 악성위출구폐쇄 치료 성적 크게 높인 새 스텐트 개발  
날짜: 20151029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2025849  
본문: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이상협 교수 <br/>소화기관 암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악성위출구폐쇄의 치료 성적을 크게 높인 스텐트가 새롭게 개발됐다. <br/> <br/>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상협 교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원자력병원 연구팀과 함께 이 같은 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인 미국소화기학회 공식저널(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온라인판, Imfact factor=10.755)) 최신호에 발표했다. <br/> <br/> 악성위출구폐쇄는 암이 위 출구를 침범해 위의 협착과 폐쇄를 일으키고, 영양공급과 소화기능을 약화시키는 질환이다. 소화기관 암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br/>  <br/>현재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내시경이나 투시영상을 이용한 스텐트(혈관이나 신체기관이 막히지 않게 해주는 지지대) 삽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스텐트를 위에 삽입해 막히거나 좁아진 부위를 넓혀주는 시술이다. <br/> <br/> 연구팀은 이 시술의 치료 성적을 크게 높인 새로운 스텐트 ‘WAVE(new covered SEMS with anti-migration properties)’ 를 개발했다. <br/> <br/> WAVE는 자가팽창형 금속스텐트(SEMS, self-expandable metallic stent)의 일종으로, 피막형이다. <br/> <br/> SEMS는 피막형(covered)과 비피막형(uncovered)이 있다. 피막형은 겉을 싸는 막이 있어 암이 스텐트를 침범하기 어렵다. 하지만 스텐트의 고정이 쉽지 않다. 반대로 비피막형은 스텐트의 고정은 쉽지만 막이 없어 암의 침범에 취약하다. <br/> <br/> <br/> <br/> WAVE는 기존 피막형의 장점은 물론 비피막형의 장점까지 모두 살렸다. 우선 막이 있어 암의 침범이 어렵다. 스텐트의 고정이 쉽도록, WAVE의 양 끝은 피막이 없는 나팔형태이며, 중앙 부분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갔다. <br/> <br/> 중앙 부분을 위의 막히거나 좁아진 부위에 위치시키면, 스텐트가 막힌 부위에 ‘딱’ 걸리면서 고정된다. WAVE의 끝에는 고리를 부착해 시술 후에도 스텐트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보충설명] <br/> <br/> 연구팀은 환자 102명을 51명씩 무작위 배정한 후 실험군에는 WAVE를, 대조군에는 비피막형 SEMS를 시술한 후 16주간 관찰했다. <br/> <br/> 그 결과, 실험군(68.6%)이 대조군(41.2%)보다 위의 막힘 해소를 나타내는 스텐트 개통률(patency)이 유의하게 높았다. <br/> <br/> 스텐트의 재협착(막힘)은 실험군(7.1%)이 대조군(37.7%)보다 크게 낮았다. 재시술의 빈도도 실험군(14.3%)이 대조군(37.8%)보다 낮았다. 시술 후 심각한 합병증은 양 군 모두 없었다. <br/> <br/> 특히 스텐트의 위치이동에서 실험군(9.5%)과 대조군(5.4%)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WAVE가 피막형 SEMS의 단점인 스텐트의 고정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br/> <br/> 이상협 교수는 “<span class='quot0'>WAVE를 바탕으로 악성위출구폐쇄 환자에게서 피막형 SEMS가 비피막형 SEMS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인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span>” 며 “<span class='quot0'>WAVE가 악성위출구폐쇄 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기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span>” 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41.txt

제목: 임신성 빈혈, 천연 철분제로 한 방에 탈출하자  
날짜: 20151029  
기자: 양재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2226167  
본문:   <br/> <br/> 임신 후 여성의 몸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다. 이 과정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바로 ‘임신성 빈혈’이다. 임신 후 발생하는 빈혈을 뜻하는 임신성 빈혈은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러움, 알 수 없는 두근거림, 소화불량, 피로감 등이 주요 증상이다. <br/> <br/>산모에게 빈혈이 생기는 이유는 체내에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임신한 여성은 태아에게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다량의 철분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몸속의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발생하는 것이다. <br/> <br/>따라서 임신 중 빈혈을 예방하려면 철분제 복용 시기인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4개월까지 꾸준하게 철분보충제를 섭취해야 한다. 일부에선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식품에 포함된 철분의 장관 흡수율은 5~10%에 지나지 않아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br/> <br/>하지만 임산부 철분제를 무턱대고 집어 들었다간 산모 자신은 물론 태아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시판되는 철분제 대부분이 합성철분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br/> <br/>제대로 된 임산부 철분제를 파악하기 위해선 철분의 종류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br/> <br/>시중에 나와 있는 철분제는 동물성 철분으로 만든 ‘헴철’과 비동물성 철분으로 만든 ‘비헴철’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헴철의 체내 흡수율은 20~35%, 비헴철은 5~10%로, 사람들은 헴철을 먹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알고 있다. <br/> <br/>그러나 2003년 한국영양학회가 발간한 <영양학 최신정보>에 따르면, 철분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비헴철의 체내 흡수율이 5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철분 결핍을 겪고 있는 임산부는 비헴철을 먹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br/> <br/>또한 비헴철은 아직까지 특별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이 높다. 반면 헴철은 각종 연구논문을 통해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대장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혀졌다. <br/> <br/>하지만 비헴철의 철분 보충제라도 합성 철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br/> <br/>허현회 의학전문작가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span class='quot0'>시판되는 철분제는 무수린산이나 질산에 철을 반응시킨 질산 제1철, 석유폐기물에서 추출하는 피로린산 제2철 등으로 만든 합성 철분제가 대부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합성 철분은 작게는 변비에서부터 크게는 심장질환, 각종 암을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span>”고 경고했다. <br/> <br/>결국 임산부 철분제는 100% 천연원료로 만들어진 비헴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는 제품 뒷면의 원재료명 및 함량만으로도 알 수 있다. 합성 철분은 ‘푸마르산제일철’처럼 영양성분만 적혀있다. 그러나 천연 철분일 경우엔 ‘유산균배양분말(철 10%)’처럼 천연원료명과 영양성분이 함께 표기돼 있다. <br/> <br/>이와 함께 철분 분말을 알약 형태로 만들 때, 화학 부형제를 사용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대표적인 화학 부형제로는 원료가 기계에 붙는 것을 방지하는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알약의 코팅제나 캡슐 재료로 사용되는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HPMC), 방습제인 이산화규소(실리카) 등이 있다. <br/> <br/>이러한 화학 성분들은 체내에 들어올 경우, 영양분 흡수 방해, 독소 수치 상승, 적혈구 수 감소,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br/> <br/>100% 천연원료만을 사용한 것은 물론, 화학부형제와 같은 합성첨가물이 배제된 철분보충제로는 뉴트리코어 비타민 철분제를 비롯한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구입 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수다. <br/> <br/>많은 임산부들이 아마존이나 아이허브 등 해외직구 사이트의 추천을 믿고 철분제를 구입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철분제를 구입하려면 선택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원료는 무엇인지, 어떤 성분으로 만들었는지 이제부터라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42.txt

제목: [여행] 활기찬 ‘물 위의 삶’ 이국적 정취 가득  
날짜: 201510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2212412  
본문: 왓프라깨우사원. 에메랄드 불상 ‘프라깨우’가 보존돼 있어 에메랄드 사원으로도 불린다.태국 사람들은 태국을 쁘라텟 타이(Prathet Thai)로 부른다. ‘자유의 나라’란 뜻이다. 화려한 사원과 궁전, 수상시장과 화려한 쇼, 수많은 쇼핑센터는 적어도 여행객에게는 몸과 마음의 자유를 선사하는 듯했다. 태국 여행 중 방문한 방콕의 사원과 왕실 휴양지 후아힌, 때묻지 않는 원시의 섬 꼬딸루는 태국의 역사와 전통, 자연을 그대로 보여줬다. <br/> <br/>방콕 체류 중 방문한 왓프라깨우(Wat Phra Kaew)사원은 여행객의 필수 코스라 할 만하다. 불교국가 태국의 왕실사원으로 왕궁 주변에 위치해 화려하고 웅장한 외관을 자랑한다. 태국에서 가장 신비하고 신성한 에메랄드 불상 ‘프라깨우’가 보존돼 있어 에메랄드 사원으로 불린다. 왕궁과 직접 연결된 통로가 있는 왕실 전용사원이다. 에메랄드 불상은 높이 65cm, 폭 48.3cm 크기로 ‘붓사복’이라는 태국 전통양식의 목각 옥좌에 가부좌를 한 상태로 안치돼 있다.  <br/>하기, 우기, 건기 등 계절이 바뀔 때마다 태국 국왕이 손수 불상의 승복을 갈아 입히는 의식을 하고 있다. 태국의 전통 불교사원으로, 일반사원과 달리 승방이 없어 경내에 머무는 승려가 없다. 사원에는 짙은 남색과 오렌지색의 3층 지붕과 벽면의 화려한 모자이크, 번쩍거리는 황금빛 불탑이 있다. 본당의 돌담과 회랑에는 힌두교 신화와 라마끼엔 설화를 묘사해 놓은 벽화가 그려져 있다. 신성시되는 곳이기 때문에 노출이 심한 옷과 반바지, 뒤가 트인 슬리퍼 등의 차림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br/> <br/>암파와 수상시장도 인상적인 곳이다. 방콕에서 서남쪽으로 80km가량 떨어진 사뭇송크람 지역 암파와에 위치해 있다. 태국의 독특한 수상시장 문화를 느낄 수 있다. 운하 주변에는 아기자기한 상점과 먹을거리가 끝없이 늘어서 있다. 밤에는 물을 따라 야경과 함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br/> 방콕에서 서남쪽으로 80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암파와 수상시장. 아기자기한 상점과 값싼 먹을거리가 많은 데다 현지인의 수상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현지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암파와 수로를 따라 과일이나 먹을 것 등을 가득 실은 나룻배들이 돌아다닌다. 투어용 보트를 이용해 수로로 다녀도, 수로를 걸으며 시장 풍경을 구경해도 된다. 구경하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지나가는 배에 신호를 보내 세운다. 음식은 수로 주변에 마련된 노천 테이블이나 길에 앉아 먹는다. 가격은 저렴하다. 수로를 떠다니며 반딧불이를 감상하는 반딧불투어가 유명하다.  <br/> 그랜드 하이엇 에라완 호텔. <br/>방콕 체류 중 일행이 머문 그랜드 하이엇 에라완 호텔은 웅장한 외관과 로비에서의 첫 느낌부터 호화로움이 느껴지는 곳이다. 객실은 태국적 요소가 가미된 현대적 디자인으로 아늑했다. 387개 객실을 보유한 호텔로 쇼핑센터가 많은 시암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BATS 칫롬역까지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호텔 주변에 시아파라곤, 중부월드 광장이 있어서 쇼핑에 편리하다. 휴양지 스타일의 시설로 도심에서 휴식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br/> 꼬딸루섬. <br/>하룻밤을 머문 태국 중부의 작은 섬 꼬딸루섬도 잊을 수 없다. 후아힌에서 자동차로 2시간을 간 뒤 다시 보트로 20분가량 달려 도착한 이곳은 원시성을 느끼게 하는 색다른 섬이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보트 바깥으로 눈길을 돌리면 푸른 바다가 손짓한다. 원시적인 풍경을 간직한 섬의 한쪽에는 해식 동굴이 있다.  <br/> <br/>이곳에서는 스노클링을 하며 동굴을 지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동굴에서 물속을 들여다보며 열대어들과 헤엄치면 바닷속을 유영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br/> <br/>여행객이 기후변화와 남획으로 사라져 가는 산호초 양식 체험을 하고 바다거북이 양식장을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해질녘 현지인과 함께 한 선상 오징어낚시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다. <br/> <br/>방콕·후아힌=글·사진 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43.txt

제목: 가공육·적색육 발암 위험성 낮추려면, '칼슘' 충분히 섭취해야  
날짜: 2015102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2133944  
본문: 가공육이나 붉은색 고기(적색육)의 발암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선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br/> <br/>호서대 임상병리학과 정상희 교수는 2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주최로 서울 라마다 호텔&스위트 남대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보고서에서 칼슘을 섭취하면 가공육이나 적색육에 의한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직접 밝혔다"고 소개했다. <br/> <br/>그는 또 "IARC가 평가에 참고한 문헌엔 클로로필(엽록소)ㆍ폴리페놀ㆍ비타민 Cㆍ비타민 E 등이 암 발생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br/> <br/>가공육이나 적색육을 먹을 때 엽록소와 폴리페놀,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한 채소를 곁들여 먹는 것이 건강한 육류 섭취법이라는 것이다. <br/> <br/>이날 간담회에선 또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철분, 칼슘 등이 풍부한 고기를 즐기되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br/> <br/>IARC는 가공육의 경우 하루에 50g 이상 섭취하면 발암 위험이 18%, 적색육을 하루 100g 이상 먹으면 발암 위험이 17% 높아진다고 밝혔다. <br/> <br/>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권훈정 교수는 "가공육 50g은 핫도그형 소시지 한 개와 비엔나소시지를 5개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라며 "적색육 100g은 작은 안심 스테이크 한개 정도의 양"이라고 설명했다. <br/> <br/>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1일 가공육 섭취량은 6g 정도에 불과하다. 가공육을 많이 먹는 순서로 상위 5% 이내에 든 사람은 하루 14g, 1% 이내인 사람은 151g을 섭취한다. <br/> <br/>또 소고기와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 적색육의 1일 평균 섭취량은 56g으로 IARC가 문제 삼은 하루 100g 이상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적색육 섭취량이 많은 순서로 상위 5%는 하루 302g, 상위 1%는 886g을 섭취한다. 이처럼 과도한 양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적색육과 가공육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다. <br/> <br/>서울대 농생명공학부 최윤재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의 90% 이상이 현재 적색육 등 육류 섭취가 부족한 상태"라며 "정부가 각 연령대별·성별 적정 육류 섭취량을 하루 속히 마련해 국민에게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br/> <br/>IARC가 이번에 문제 삼은 가공육 내 발암가능 성분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이환방향족아민(HCA), 니트로스아민, 헴(heme) 철이다. <br/> <br/>성균관대 약대 김형식 교수는 "PAH와 HCA를 최대한 적게 섭취하려면 고기를 직접 불에 직화해서 구워먹지 말고 삶거나 익히는 등 고기에 열은 가급적 낮게, 짧게 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br/> <br/>현재 수준의 가공육과 적색육 섭취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r/> <br/>단국대 식품공학과 백형희 교수는 "지나친 육류 섭취는 심장병ㆍ당뇨병 등 다른 질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1군 발암물질 분류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br/> <br/>그는 "가공육이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가공육 섭취가 흡연이나 석면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WHO의 분류는 가공육이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의미이지,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44.txt

제목: 가수 오승근, '김자옥 재단' 설립 추진  
날짜: 20151029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2124034  
본문: 내달 16일 고(故) 김자옥의 1주기를 맞아 '김자옥 재단'(가칭)과 기념관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br/> <br/>고 김자옥의 남편이자 가수 오승근은 29일 "생전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그는 "아내가 생전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고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했기에 그 뜻을 이어가고 싶다"라며 김자옥 재단의 설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br/> <br/>하지만 추모관 및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나 계획이 잡힌 건 아니다. 오씨는 "아내와 가까웠던 지인들도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 <br/>고 김자옥은 1951년 부산에서 시인 고 김상화씨의 2남5녀 중 3녀로 태어났다. 1970년 MBC 공채 2기 탤런트로 연기생활을 시작해 40여 년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40대 중반이었던 1996년에는 음반 '공주는 외로워'를 발매하고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br/> <br/>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지만 전이된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16일 향년 63세 나이로 타계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br/>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45.txt

제목: 나사렛국제병원, 중부해경본부 관현악단과 '나사렛 음악회' 개최  
날짜: 2015102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2125912  
본문:   <br/> <br/> <br/>나사렛국제병원은 지난 28일 중부해경본부 관현악단과 함께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을 위한 '나사렛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br/> <br/>나사렛 음악회는 힘든 병동 생활로 지쳐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다. 2009년 개원시부터 노래교실, 색소폰, 오카리나 연주 등 매달 정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 나사렛국제병원의 대표 문화지원 활동으로 자리잡았다. <br/> <br/>이번 공연은 중부해경본부 관현악단과 함께한 4번째 연주회로, 오후 1시부터 병원 로비에서 진행됐다. 이기완 일경의 마술공연을 시작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10월의 어느 멋진 날', '거위의 꿈' 등 우리에게 친숙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병원 로비를 가득 채웠다. <br/> <br/>중부해경본부 배지원 관현악단장은 "몸이 아파 예민해진 환자들에게 음악이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음악회가 벌써 4회를 맞았다. 환자분들이 응원해주시고, 반겨주시는 덕분에 우리 단원들이 오히려 큰 힘을 얻어간다"고 말했다. <br/> <br/>나사렛국제병원 이강일 이사장은 "이번 음악회에서는 환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술공연이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반응이 좋았다. 매 공연마다 다양한 연주로 환자와 방문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해주신 중부해경본부 관현악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r/> <br/>나사렛국제병원은 현대의학과 한의학·통합기능의학을 기반으로 24개 진료과, 8개 전문센터로 구성, 44명의 전문의가 진료하는 인천시에 위치한 종합병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주관하는 응급의료기관평가와 암 검진평가에서 각각 최상위 등급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결과 고관절치환술 1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46.txt

제목: 여성보다 위험한 남성 갑상선암, 정기검진 중요  
날짜: 20151029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945354  
본문:   <br/> <br/> <br/>국내 갑상선암 환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갑상선암 환자 30만3,006명 중 여성이 25만2,489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남성들도 예외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남성 갑상선암 환자는 2010년 20만8천여명에서 2014년 약 50만 명으로 크게 늘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br/> <br/> 갑상선 암은 다른 암과 달리 45세 전후로 나누어 병기가 판정 되기에 ▲45세 이상 ▲암의 크기가  4cm 이상 ▲다른 부위로 전이 시 고위험군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남성 갑상선암도 고위험군에 속한다. 만약 암의 크기가 1cm 미만이라면 성별과 무관하나 그 이상이라면 같은 상태여도 남성 환자가 여성 갑상선암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이 및 재발 위험이 큰 것. <br/> <br/> 보건복지부지정 외과전문병원 민병원 갑상선센터 김종민 대표원장은 "갑상선암은 주로 여성들에게만 발병한다고 생각하기에 남성들은 갑상선 정기검진을 잘 받지 않는다. 이에 암이 상당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갑상선암은 진행이 느리고 생존율이 매우 높아 흔히 착한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갑상선암이 그런 것은 아니기에 정기적인 검사나 치료를 장기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br/> <br/>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당장 치료하지 않아도 생명에 큰 지장을 주지 않지만 식도나 기도 부근 갑상선에 암이 생겼거나 미분화암이라면 매우 치명적이다. 이에 정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r/> <br/> 만약 목 주변이 육안으로 눈에 띄게 부었거나 뭔가 만져지고,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하다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피곤하거나 이유 없이 목이 쉰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br/> <br/> 갑상선암 진단은 초음파 검사로 가능하며 초음파 결과에 따라 갑상선 결절이 암으로 의심되면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목 주변에 만져지는 것이 있으면 암으로 여기기 쉬운데 결절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암은 아니다. <br/> <br/> 하지만 만약 갑상선암으로 확진되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선 갑상선암 주위 조직을 살펴 전의 여부를 파악하고 절개법 혹은 내시경 수술법을 시행하게 된다. 절개법은 말 그대로 목 앞쪽 피부를 5~6cm 정도 절개해 수술하는 방법이며, 갑상선 내시경 수술은 겨드랑이 혹은 가슴 부근을 0.5~1cm 절개 후 복강경 기계를 이용하는 수술법이다. <br/> <br/> 이처럼 목 주위에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 내시경을 통해 수술하는 갑상선 내시경 BABA (Bilateral Axillo-Breast Approach) 시술은 신경 자극과 흉터가 적은 것이 장점으로 더욱 섬세하고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다. <br/> <br/> 김 원장은 "환자들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질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인에 맞는 치료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남성 환자들은 더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며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넥타이나 면도 시에 목 주변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30대 이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갑상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47.txt

제목: 설탕 등 첨가당 과다 섭취, 남성에게 더 위험. 비만율 1.3배 높다.  
날짜: 20151028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640024  
본문: 설탕ㆍ시럽ㆍ꿀 등 첨가당(添加糖)이 비만ㆍ혈관 지표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보다 남성에서 훨씬 두드러진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br/> <br/>첨가당을 과다 섭취한 남성은 적게 먹은 남성에 비해 비만율이 1.3배 높았지만 여성에선 비만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br/> <br/>  2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연세대 역학건강증진학과 지선하 교수팀이 성인 남녀 1만8713명을 15년간(1998∼2013년) 추적해 이들의 첨가당 섭취량과 이상지질혈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첨가당과 혈청지질 농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코호트 연구)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 최신호에 발표됐다. <br/> <br/> 지 교수팀은 연구 대상자들에게 ‘주식으로 빵을 먹는 경우 쨈과 꿀을 얼마나 바르는지?, ‘조리할 때 설탕과 꿀을 얼마나 넣는지?’, ‘커피나 홍차에 설탕을 얼마나 넣는지?’등을 물어 이들이 매일 섭취한 첨가당의 양을 산출했다. <br/> <br/> 첨가당(added sugar)은 식품의 제조과정ㆍ조리 중 첨가되는 설탕ㆍ시럽ㆍ꿀ㆍ물엿 등을 가리키며 유당(우유)ㆍ과당(과당) 등 천연 식품에 존재하는 당(천연당)과 감미료는 제외된다.  <br/> <br/>지 교수팀은 또 1일 첨가당 섭취량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다. 첨가당을 8g 미만 먹은 남성(여성 6g 미만)은 저(低) 섭취군(群), 8∼22g 미만 먹은 남성은 중(中) 섭취군(여성 6∼15g 미만), 22g 이상 먹은 남성(여성 15g 이상)은 고(高) 섭취군으로 분류한 뒤 이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등 혈관 건강 지표들을 검사했다.   <br/> <br/> 최장 15년의 추적 결과 첨가당 고섭취군 남성의 비만, 고(高)콜레스테롤혈증, 고(高)LDL콜레스테롤혈증, 저(低)HDL콜레스테롤혈증 발생위험은 저 섭취군 남성에 비해 각각  1.3배, 1.22배,1.29배.1.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여성의 경우 첨가당 고섭취군의 고콜레스테롤혈증 발생위험이 저섭취군에 비해 1.26배 높았다. 하지만 여성에선 첨가당 섭취량과 비만, 고(高)LDL콜레스테롤혈증, 저(低)HDL콜레스테롤혈증 발생률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br/> <br/>  혈관 건강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는 높을수록,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는 낮을수록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혈중 총콜레스테롤ㆍLDL콜레스테롤ㆍ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한 상태를 이상(異常)지질혈증이라 한다.  <br/> <br/> 지 교수팀은 논문에서 “<span class='quot0'>남녀 모두에서 첨가당 섭취량이 많을수록 총 칼로리 섭취량도 늘어났고 남성의 경우 비만 판정의 잣대인 체질량지수(BMI)가 높았다</span>”며 “<span class='quot0'>과도한 첨가당 섭취가 비만을 유발하고 혈중 중성지방과 LDL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HDL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 결과</span>”라고 풀이했다. <br/> <br/>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당(糖)을 과잉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 비만ㆍ당뇨병ㆍ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첨가당의 섭취가 증가할수록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이상지질혈증을 증가시키고 심지어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과 신장(콩팥)질환의 발생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br/> <br/>  WHO는 또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 기준량을 하루 총 섭취 칼로리의 10%(하루 약 50g)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췄다. 미국 심장학회는 첨가당을 통한 열량 섭취가 남성의 경우 하루 150㎉(여성 100㎉)은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br/> <br/> 가공식품을 통한 우리 국민의 1일 평균 당 섭취량은 2008년 19.3g에서 2009년 20.5g, 2010년 27.3g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지 교수팀의 연구에선 연구 대상 남성의 하루 첨가당 섭취량은 1998년 16.1g에서 2008년 20.7g으로, 같은 기간 여성은 11.3g에서 14.8g으로 증가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48.txt

제목: ‘표적 항암제 부작용 원인’ 세포 상호작용 규명  
날짜: 2015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819539  
본문: 국내 연구진이 표적 항암제를 써도 암이 퍼지는 내성문제가 일어나는 원리를 규명했다. 이번 연구로 암의 내성을 해결하는 데 한발 다가서 차세대 암 치료제로 주목받는 표적 항암제의 효과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br/> <br/>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호영(사진) 서울대 약대 교수팀은 종양과 이 종양 주변에 모인 정상세포(미세환경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이 표적 항암제의 암 전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br/> <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로 문제의 상호작용을 억제해 내성으로 인한 암 재발을 억제할 새로운 치료전략을 제시하게 됐다</span>”고 자평했다. 이번 연구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49.txt

제목: 요오드 기능의학 연구소, 요오드 섭취의 중요성은?  
날짜: 20151028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709720  
본문:   <br/> <br/> 요오드는 바다에서 온 아주 고마운 미네랄 영양소다. 미네랄 성분은 우리 인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인체 스스로는 단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만 보충이 가능하다.  <br/> <br/>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는 브롬 불소 중독을 가지고 있고, 그 것으로 인한 사고능력 저하, 감정기복, 갑상선, 유방, 자궁, 난소, 전립선 질환, 만성피로, 불임, 저체온증 등을 앓게 된다. 현대의학에서는 종양이나 암으로만 발전을 해야 질병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요오드 결핍 전초 현상을 진단하지 못한다.  <br/> <br/>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몸은 매우 피곤하고 여기저기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이유 중에 요오드 결핍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br/> <br/> 대한 만성피로학회에서 시행한 4000여건의 24시간 소변 요오드 부하 검사상 대한민국의 73%가 요오드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10명중 7명이 요오드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br/> <br/> 요오드는 갑상선, 부신을 힘차게 움직여 우리 몸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영양소들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체내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합성하는 원료이며, 기초대사율을 조절하고 다른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분비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br/> <br/>요오드는 모든 호르몬 분비 기관에 작용하여 분비를 조절하기 때문에, 요오드가 우리 몸에 없다면 어떠한 호르몬도 우리 몸에서 분비될 수 없다. <br/> <br/> 요오드는 모든 분비샘에 관여한다. 분비샘이라 함은 인체에서 나오는 모든 액체 눈물, 콧물, 침, 위액, 땀, 피부, 정액, 머리카락, 손톱, 발톱, 혈액 등이다. 요오드가 결핍되어 있으면 분비샘 관련 질환들이 증가한다.  <br/> <br/>안구건조증에 시달릴 수 있으며, 비염이나 천식이 될 수 있으며, 입이 마르고, 혀가 두꺼워지며, 자주 체하며 소화가 잘 안되며, 손발톱이 잘 부서진다.  <br/> <br/> 요오드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여 결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요오드의 일일 권장량(RDA)은 0.15mg(150ug)이다. 상한 용량은 3mg(3,000ug)이다.  <br/> <br/>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인 요오드 0.15mg(150ug)은 갑상선호르몬을 생성하기 위한 최소의 용량이다. 이 것은 갑상선 외의 요오드 장기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갑상선에서만 쓰이는 요오드 용량을 추정하여 설정된 것 이다. 이 수치는 최적의 건강을 위한 기준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br/> <br/>21세기에 들어서 선구적으로 요오드를 연구하고 여러 논문을 낸 가이 아브라함(Dr. Guy Abraham), 데이비드 브라운스테인(Dr. David brownstein) 등에 의하면 체내에 모든 장기를 고려했을 때 하루 12~50mg의 요오드 섭취가 이상적이라고 한다. 체내의 모든 장기란 갑상선, 유방, 전립선, 자궁, 난소, 고환. 피부, 침샘, 위장. 뇌, 백혈구, 적혈구 등을 다 포함한다. <br/> <br/> 요오드 기능의학 연구소는 요오드를 연구하면서 2년 전부터 매일 오전에 한 번 50mg(50,000ug)를 빠지지 않고 복용해왔기에, 요오드의 효과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50mg라면 일본사람들의 평균 하루 섭취량의 4배, 세계보건기구 RDA의 400배 이상 되는 용량이다. <br/>  <br/>이렇게 오랫동안 고용량의 요오드를 먹고 있는데도 전혀 합병증을 경험한 적이 없다. 물론 어디가 아프거나 몸이 아픈 환자가 아니라서 딱히 좋아질 것이 없긴 하지만, 요오드를 먹고 나서 달라진 점은 분명히 있다. 아무리 일정이 많아도 피로감이 훨씬 덜해진 점이다. 진료실에서 쉴 틈이 없이 환자를 봐야 했기 때문에 요오드를 먹기 전에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약간 피곤한 것이 사실이었다. <br/> <br/> 2년이 지난 지금은 2년 전보다 훨씬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환자는 더 많아졌고 더 많은 미팅과 세미나, 술자리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일정이 많아도 요오드를 복용한 이후로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피로감이 많이 개선되고 집중력 등이 많이 좋아졌음을 느끼고 있다. <br/> <br/> 요오드가 발견되고 나서 불과 8년 뒤에, 스위스 내과의사인 J.F. ?데는 갑상선종 환자들을 해초를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하였으며, 그는 요오드가 해초의 중요한 성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br/> <br/>그는 요오드팅크를 하루에 250mg를 사용하여 150명의 갑상선종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다. 아주 큰 갑상선종을 1주일도 안되어 사라지게 하였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 결과를 1820년에 발표하였다. <br/> <br/> 데이비드 마린의 놀라운 발표는 의료당국에 의해 당시 사장되었지만, 사실 이 병리학자는 동시대에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다. 1917년에서 1922년까지 오하이오에 거주하는 수많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오드를 주었더니 갑상선종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대규모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결국 식탁의 소금에 요오드를 넣을 수 있게 한 장본인이다. <br/> <br/> 2000년 경 중국 북서부에 위치해 있는 신장은 바다와는 거리가 멀고 빈민촌이고. 땅도 물도 척박하다.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영양상태가 부족했지만, 우선 정부는 이 지역에 요오드를 공급했다.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마을 개천(배수로)에 요오드를 쏟아 붓는 방식이었다.  <br/> <br/>2,600만 명의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개천에 13.5톤이라는 요오드를 주입한 후 이 마을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단지 요오드를 공급했다는 것만으로 신생아 사망률은 50% 감소했고, 5세 아이들의 평균키가 10cm 이상 상승했다. 요오드 주입 사업 이후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 지능 지수(IQ)는 16포인트 가량 향상되었다. <br/> <br/> 주업인 양의 생산량은 40% 상승했으며, 사산동물과 유산동물의 50% 감소되었다. 이 또한 척박한 환경에서 유목을 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이다.(내용출처 : 슈퍼미네랄 요오드 - 느낌이 있는 책) <br/> <br/>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 몸에서 독성 할로겐 화합물을 배출하기 위한 요오드량은 일반 성인 기준으로 하루 12.5~25mg 정도가 효과적이다. 호르몬 장기에 질환이 있거나 암 같은 질병이 있을 때는 당연히 더 고용량의 요오드가 필요하다. <br/> <br/>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 전이되지 않은 초기 갑상선암 등의 심한 요오드 관련 병증의 경우에는 50mg에서 그 이상의 용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질환 없는 일반 성인 기준으로 하루 12.5~50mg의 요오드 섭취가 필요하다. <br/> <br/>간혹 요오드에 관하여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방사능 요오드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겨났다고 예상되는데 방사능 요오드는 원자량 131번에 해당하는 원소이고, 먹을 수 있는 요오드는 원자량 127번에 해당하는 전혀 다른 물질이다.  <br/> <br/>원소기호 I, 원자번호 53, 원자량 126.9045의 요오드는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이니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요오드 기능의학 연구소는 요오드에 관한 오해를 풀고, 세계 논문자료과 해외 뉴스기사를 번역하여 요오드 섭취를 권장하여, 한국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각도로 연구하고 있다. <br/> <br/> 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50.txt

제목: 서울대암병원, 암맞춤치료센터 개소기념 국제 심포지엄 성료  
날짜: 20151028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657364  
본문:   <br/> <br/> <br/>서울대학교암병원은 지난 23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암맞춤치료센터 개소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국내외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br/>  <br/>이번 심포지엄은 '암 맞춤치료 실용화 : 현안과 해결책'을 주제로 정밀의료와 중개연구 분야에서의 최신 정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br/> <br/> 첫번째 세션에서는 맞춤치료를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인 차세대 유전체 염기서열 해독 기법을 임상에서 어떻게 향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br/> <br/> 두번째 세션에서는 다양한 맞춤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맞춤항암치료제의 치료확률을 높이고,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바이오마커를 어떻게 발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br/> <br/> 세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PD-1 억제제를 위시한 면역항암치료제의 임상적용 최적화를 위한 토론이 있었다. <br/> <br/> 마지막 세션에서는 최근 유전체연구를 통하여 발굴되고 있는 많은 암유전변이들을 어떻게 그 의미를 검증하고, 새로운 표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br/> <br/> 김태유 암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정밀의료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암 정밀의료 구현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r/> <br/> 서울대학교암병원은 정밀의료를 실용화하고자 지난 4월 암맞춤치료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보다 높은 수준의 암맞춤치료를 위해 국내 호발암의 유전자 변화를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바이오마커 진단법 개발과 새로운 표적치료제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51.txt

제목: 가공육·붉은고기 얼마나 드십니까?  
날짜: 20151028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612051  
본문: 햄과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과 소·돼지 등 붉은고기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세계보건기구(WHO) 결정 후폭풍이 거세다. 육류 소비가 많은 나라에서는 식품 당국에 유해성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빗발쳤고 해당 식품 판매량은 급감했다. 전 세계 농축산업계와 일부 과학계는 “WHO가 일부 연구결과를 과잉해석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br/> <br/>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지시간) 가공육과 붉은고기 다량섭취가 직장암·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연구결과 5건을 소개했다. WHO가 가공육과 붉은돼지를 담배나 석면과 같은 급의 발암물질로 분류하게 된 800여건의 의학논문 가운데 핵심 근거가 된 연구자료들이다. <br/> <br/>모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과다섭취(매일 평균 160g 이상)한 사람의 경우 직장·대장암 뿐만 아니라 췌장암, 위암, 전립선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WP는 “<span class='quot0'>대부분 조사에서 닭고기나 생선을 많이 섭취한 경우에는 붉은고기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 흥미롭다</span>”고 덧붙였다. 건강을 위해서는 소·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나 생선을 많이 먹는 게 좋다는 얘기다. <br/> <br/>WP에 소개된 첫 번째 논문은 2005년 6월 ‘미 국립암연구소저널’에 게재된 조사결과다. ‘고기와 생선의 직장암 발병과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유럽 10개국 47만8040명을 1992∼1998년 6년 동안 추적조사한 결과다. 평균 50세 정도의 대상자들은 조사 전 암에 걸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붉은고기를 하루 160g 이상 섭취한 이들의 직장암 발병률은 1.71%였고 20g 미만 섭취한 이들의 발병률은 1.28%에 그쳤다. <br/> <br/>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을 경우 직장암에 걸릴 확률이 18% 높아진다는 WHO의 경고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논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생선 섭취의 경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생선을 하루 10g 미만 섭취한 이들의 직장암 발병률은 1.86%였지만 하루 80g 이상 먹은 이들은 오히려 1.28%에 불과했다. <br/> <br/>일본인 3만211명의 1992∼2000년 육류·지방·커피 섭취와 대장암 발병률을 역학조사한 2006년 12월 ‘캔서 레터스’ 게재 연구결과도 비슷한 결론을 얻었다. 연구진은 붉은고기 섭취가 대장암 발병률과 정관계를 보였다며 다만 대장암과 커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전했다. <br/> <br/>2004년 9월 유명 의학저널에 실린 ‘붉은고기, 닭고기, 생선 소비와 직장암의 위험도 조사’는 1990∼1994년 호주 멜버른 시민 3만711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이다. 세 종류의 고기 섭취를 조사한 결과 육류를 많이 섭취한 피실험자 중 283명이 9년 이내에 대장암에, 169명은 직장암에 걸렸다고 밝혔다. <br/> <br/>네 번째로 소개된 논문은 유명 과학저널 ‘플로스 원’에 지난 8월 게재된 ‘가공육과 붉은고기 그리고 직장암 발병률’이란 제목의 미국 연구진 논문이다. 미국인 13만4497명(남성 8만7108명, 여성 4만7389명)의 직장암 발병 여부를 추적했는데 붉은고기를 평균 보다 많이 섭취한 2731명이 직장암에 걸렸다. 미국인 30만948명을 7년 동안 추적한 2010년 3월 ‘캔서 리서치’ 연구논문도 2718명이 직장암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다. <br/> <br/>특히 이 논문은 고기 유형과 조리법까지 조사했는데 가공육이나 붉은고기에 들어있는 철분의 일종인 헴철(Heme iron·헤모글로빈을 효소처리하고 분리해서 얻어지는 흑갈색의 분말 또는 과립으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는 천연 강화제)이나 헤테로사이클릭아민(Heterocyclic amines헤테로 고리 화합물의 일종으로, 질소가 고리의 일부로 되어 있는 아민) 등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발암률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br/> <br/>WP는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가입국의 암을 유발하는 붉은고기 섭취 순위도 공개했다.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돼지고기를 연간 24.4㎏, 소고기는 11.6㎏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가운데 각각 상위 4위, 하위 5위에 해당하는 섭취량이다. 영국의 이언 존슨 음식연구소(IFR) 선임연구원은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WHO가 붉은고기를 담배와 같은 발암물질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흡연의 폐암 유발 확률은 붉은고기가 직장암을 유발하는 것의 20배가 넘는다</span>”고 말했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52.txt

제목: [독자 기고]“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임신이 잘 안되나요?”  
날짜: 20151028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610309  
본문:   <br/> <br/> “선생님, 정말 피임약 먹다 끊으면 임신이 잘 안되나요? 1년 동안 피임약 복용하던 사람들은 끊어도 최소 1년은 임신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br/> <br/>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생각보다 많은 분께서 실제로 이렇게 믿고 계신다고 듣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br/> <br/> 실제 진행된 연구에서 피임약 복용자가 약을 끊고 난 이후 1년간 가임률은 79.4%, 2년 후 가임률은 88.3%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복용자의 일반적인 가임률과 비교할 때 차이가 없는 결과였습니다. 즉 피임약을 먹었다고 해서 안 먹은 사람보다 가임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r/>  <br/>한번 퍼진 잘못된 상식만큼 무서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구 피임제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생각보다 매우 넓고 또 깊은 듯합니다. <br/> <br/>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산부인과 전성욱 교수대표적으로 경구피임제를 복용할 경우 난소암, 자궁내막암 및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경구피임제를 복용하면 전체적인 암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 초기 피임제 복용 중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메스꺼운 증상을 마치 피임제 복용 기간 내내 지속된다고 알려진 것, 일부 피임제에서 관찰되는 부작용인 체중 증가가 마치 전체 피임제 모두 해당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다.  <br/> <br/>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이 쌓여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값싸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표적인 피임법으로 인정받는 경구피임제 복용을 꺼리게 되는 요인일 것이다. <br/> <br/> 실제로 2006년 기준으로 각 나라의 먹는 피임약 사용률을 조사해본 결과 벨기에 42%, 뉴질랜드 40%, 프랑스 36%, 독일 29%, 영국 26% 등으로 높은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피임약 복용률은 약 2%로 가장 낮은 나라다. 이는 일반인들이 피임약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피임약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br/>  <br/>경구 피임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법일 뿐 아니라, 월경통 감소, 월경량 감소, 월경 전 증후군 치료 및 예방에 효과적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골다공증 예방, 자궁내막증 치료 및 갱년기 여성에서 갱년기 증상을 부가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유망한 치료 방법이다. <br/> <br/> 많은 분들이 경구 피임제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 올바른 치료를 받으시는 데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  <br/> <br/>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산부인과 전성욱 교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53.txt

제목: 뇌의 기능이 졸지에 중지되다 '뇌졸중'이란?  
날짜: 2015102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520109  
본문: 10월 29일은 세계 뇌졸중학회에서 정한 '세계 뇌졸중의 날'이다. 매년 한국에서만 10만 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사망하거나, 거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환자나 가족,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br/> <br/>뇌졸중은 단 한 번의 치료로 완치될 수도 예방할 수도 없다. 꾸준한 자기 관리와 치료만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한호성 유성선병원 뇌졸중센터장으로부터 뇌졸중에 대해 알아본다. <br/> <br/>◆ 단일 장기 질환 중 사망률 1위 <br/> <br/>뇌졸중이란 뇌의 기능이 졸지에 중지 된다는 뜻이다. 즉 뇌혈관의 문제로 갑자기 뇌가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다. 국내에서만 5분마다 1명씩 발생하고, 20분마다 1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한다. <br/> <br/>실제로 2013년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는 5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단일 장기 질환으로는 암을 제치고 사망률 1위를 차지했다. <br/> <br/>뇌졸중의 증상으로는 한쪽 팔다리의 마비감 또는 감각이상, 발음 장애, 언어 장애, 안면 마비,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을 받으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무척 중요하다. <br/> <br/>따라서 앞서 말한 증상들이 발생되면 급성기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뇌졸중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초기 치료가 별로 없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응급약을 복용하거나 손을 따는 등의 민간요법은 오히려 질병을 악화 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아무것도 하지 말고 119 등을 통해 빠른 시간에 병원을 찾아야 한다.  <br/> <br/>◆ 뇌졸중 골든타임, 최소 6시간 이내 <br/> <br/>뇌졸중의 급성기 치료에는 골든타임 이라는 것이 있다. 그만큼 시간에 민감한 질병이다. 뇌경색인 경우 4시간 30분 이내에는 혈전을 녹여주는 정맥 내 혈전 용해제가 투여 되어야 하므로 그 전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야 한다. <br/> <br/>또한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6시간 이내에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이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뇌졸중 증상이 발생되면 무조건 급성기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가야 한다. 예전에는 뇌졸중을 중풍이라 하여 온갖 비책과 비방이 난무하여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br/> <br/>그러나 이제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게 질병의 진단과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뇌졸중의 치료와 예후 향상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뇌졸중 환자만을 위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진료체계를 갖춘 뇌졸중 전문 센터 및 치료실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뇌졸중학회와 대한뇌졸중학회의 표준 진료지침에 입각하여 뇌졸중 초기에 보다 집중적인 관찰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뇌졸중의 진행과 재발을 막아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br/> <br/>◆ 검진 통해 미리 관리하고 예방해야 <br/> <br/>뇌졸중은 무엇보다 예방이 무척 중요한 질병이다. 증상은 갑자기 발생하지만, 그 질병의 근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뇌졸중의 유발 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흡연, 비만 등이 있다. <br/> <br/>한 연구에 의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 뇌졸중 위험률을 각각 32%, 21% 감소시킨다고 한다. 흡연은 주로 뇌경색의 위험을 증가 시키는데 비흡연자에 비해 뇌졸중 위험도가 약 2.6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 반드시 금연이 필요하며, 금연 후 3년이 지나면 뇌졸중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신체 비만 지수가 1kg/m2 증가하면 뇌경색의 위험도가 약 11% 증가한다. 따라서 비만하지 않도록 체중 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아울러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갖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미리 뇌혈관 검진을 통하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검사를 통해 뇌혈관 협착이나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적절한 치료로 뇌졸중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혈관이 좁아지는 뇌혈관 협착의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위험 인자 조절과 더불어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재를 복용해야 한다. <br/> <br/>또 협착이 70% 이상 진행된 경우는 뇌혈관 스텐트 삽입술이나 동맥 내막 절제술 등으로 혈관 협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의 경우에는 혈관 조영술을 통해 정확히 진단하여, 수술이 아닌 코일링 같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평소 가까운 병원에서 위험 질병 등을 꾸준히 관리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급성기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미리 숙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54.txt

제목: 고대구로병원 김한겸 교수, 대한적십자 박애장 수상  
날짜: 2015102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512245  
본문: 고대구로병원 병리과 김한겸 교수(오른쪽)가 적십자박애장 은장을 수상했다. <br/>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병리과 김한겸 교수가 지난 27일 오후 4시 대한적십자사 창립 110주년 기념식에서 적십자박애장 은장(銀章)을 수상했다. <br/> <br/>이번 포상은 올해 창립 110주년을 맞이한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주의 이념 구현과 인간의 고통경감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br/> <br/>김한겸 교수는 '한국대학생 해외봉사단장'으로 파견되어 해외 각지에서 의료, 건축, 환경개선, 치과진료 등 전문 봉사활동을 펼쳤다. <br/> <br/>특히 10년 동안 몽골병리의사들이 자력으로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도록 자궁경부암조기진단법을 교육하는 등 지구촌 불우 이웃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 영광의 적십자박애장 은장을 수상하게 됐다. <br/> <br/>김한겸 교수는 "몽골 자궁경부암검진기법 전수 프로젝트처럼 앞으로도 해당지역에 필요한 맞춤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뿐만 아니라 "전문의료봉사 시스템 구축, 대학생 중장기 봉사 운영 등 봉사활동의 전문화 및 활성화 운영을 위해서도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55.txt

제목: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위해 박물관 이전추진  
날짜: 2015102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459271  
본문: 울산시 울주군은 '대곡천 암각화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반구대 암각화 진입로에 있는 암각화박물관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br/> <br/>울주군은 이전 신축할 암각화박물관에 암각화군의 통합 관리와 보전 역할을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br/> <br/>박물관을 옮기면 현 박물관 부지를 관광객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br/> <br/>암각화 박물관은 2008년 5월 30일 암각화 전시관으로 개관했다. <br/> <br/>반구대 암각화(국보 285호)와 천전리 각석(국보 147호)을 소개하고 국내 암각화 연구를 하는 곳으로 부지 8960㎡, 건물 연면적 2025㎡ 규모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56.txt

제목: 암환자 위한 메이크업… 참가자 1만명 돌파  
날짜: 2015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418879  
본문: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암환자 대상 ‘뷰티 컨설팅’ 캠페인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AMOREPACIFIC Makeup Your Life)’ 참가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캠페인에 참여한 암환자가 지난해 말까지 9221명에 달한 데 이어 최근 1만명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br/> <br/>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들이 한데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r/>아모레퍼시픽 제공서경배 회장 지시로 20008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암 치료과정에서 겪는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환자를 위해 피부관리, 머리연출법 등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이다. 암환자가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간직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br/> <br/>캠페인은 참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와 아모레 카운셀러 봉사단이 화장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직접 꾸며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표정 컨설팅과 피부 자가 확인법, 자신에게 잘 맞는 색상 선택법 등 일상에 적용할 만한 미용팁도 알려준다. 암을 경험한 연사가 투병 경험과 질병 극복을 위한 희망도 전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57.txt

제목: [사설] ‘햄·소시지 발암물질’ 규정, 후속 대책 필요하다  
날짜: 2015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335616  
본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소시지, 햄, 핫도그와 같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담배, 석면과 똑같은 위험성을 지닌 물질이라는 것이다. 10개국 22명의 전문가가 육류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여건의 연구조사를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한다. 붉은 고기도 직장암과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IARC는 ‘글로벌 암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매년 고기 섭취로 3만4000명, 담배로 100만명, 알코올로 60만명, 대기오염으로 20만명이 암에 걸려 숨진다고도 했다. <br/> <br/>매일 먹는 식품에 발암물질 낙인을 찍었으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자칫 망하게 생긴 식품업체들은 거세게 반발한다. 북미육류협회는 “<span class='quot0'>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발암물질로 규정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span>”고 성토했다. 미국의 호멜푸드는 “단백질과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한 고기의 이로운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국내 육가공협회도 한국인의 가공육 섭취량이 많지 않아 이번 연구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span class='quot1'>오히려 이번 발표로 육류 소비 전체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호도될까 걱정스럽다</span>”고 했다. 그러나 가공육 소비가 많은 우리로서는 흘려 들을 일이 아니다. 가공육 소비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한다. <br/> <br/>WHO는 상당한 파장을 낳을 이번 발표를 앞두고 적잖은 고심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발표를 강행한 것은 가공육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위험성을 발표 후폭풍 때문에 덮어둔다면 피해는 선량한 수많은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WHO의 용기와 결단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우리 식품안전 당국은 WHO와 많이 다르다. 가짜 백수오 사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가짜 백수오의 위해성 논란은 아직도 이어지지만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유해성 판단을 놓고 오락가락한다.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음직하지만 공적 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조치다. <br/> <br/>박근혜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민건강은 넘쳐나는 불량식품, 양심불량에 위협받고 있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불량식품에는 관용이 없다’는 원칙이 확립될 때 국민건강은 지킬 수 있다. 관련 당국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철저한 먹거리 안전 관리에 힘써야 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58.txt

제목: 햄이 발암물질, "직장암 위험 18% ↑, 붉은 고기도 가능성 있어"..."국내 식품업계 긴장"  
날짜: 20151027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349174  
본문: WHO 소시지 햄햄이 발암물질, "직장암 위험 18% ↑, 붉은 고기도 가능성 있어"..."국내 식품업계 긴장" <br/> <br/> 세계보건기구(WHO)가 소시지, 햄, 베이컨 등 육가공식품을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br/> <br/> 소시지, 햄과 같은 육가공식품 섭취가 대장암을 유발하고, 붉은 고기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고 AFP 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br/> <br/>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날 육류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건 이상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종합한 ‘육류 섭취 제한 권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10개국 2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br/> <br/> 소시지 햄이 발암물질이라고 평가한 WHO 보고서는 전문가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가공육의 섭취가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매일 50ｇ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br/> <br/> 가공육은 소금에 절이거나 발효·훈제하는 등 조리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핫도그, 소시지, 쇠고기 통조림, 말린 고기 등이 있다. 이들 가공육을 섭취하면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위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br/> <br/> IARC는 1천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국제 컨소시엄인 ‘글로벌 버드 오브 디지즈 프로젝트(GBD: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Project)’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고기 섭취를 통해 매년 3만 4천 명이 사망하지만, 담배는 100만 명, 알코올 60만 명, 대기오염으로 20만 명이 숨진다는 비교를 제시했다. <br/> <br/> 이 보고서는 또 붉은 고기의 섭취가 ‘발암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일부 제한적 증거에 근거해 발암 위험물질 2A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붉은 고기의 섭취가 대장암, 직장암은 물론 췌장과 전립선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붉은 고기에는 소·돼지·양·말·염소 고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br/> <br/> 붉은 고기를 안전하게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비큐나 프라이팬에서 요리할 때처럼 높은 온도나 직접 뜨거운 불판이나 불꽃에 접촉하면서 조리하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나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등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생성된다. 그러나 요리방법과 암 유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만큼의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br/> <br/> IARC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은 가공육이 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같은 1군 물질인 담배나 석면과 같은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강도가 그 정도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br/> <br/> 한편 국내 식품업계도 이번 보고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인의 육류 섭취량이 선진국보다 적은데다 오히려 육류 전체가 건강에 해로운 제품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육가공업체인 CJ제일제당, 롯데푸드, 동원F&B 등은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br/> <br/> 한국육가공협회 관계자는 "한국인의 연간 가공육 소비량은 WHO의 위험 섭취량인 18㎏보다 훨씬 적은 4.4㎏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기관을 통해 신뢰성있는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59.txt

제목: [가공육 발암물질 파문] 햄·소시지 듬뿍 들어간 부대찌개 어떡하죠?  
날짜: 20151027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126479  
본문: 국내 가공육 업계는 소시지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인의 가공육 섭취량이 많지 않아 이번 연구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발표로 가공육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br/> <br/>WHO는 매일 50ｇ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간 18㎏를 먹는 셈인데, 한국인의 가공육 소비량은 이보다 훨씬 적은 연간 4.4㎏ 수준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사안이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만큼 육가공협회 등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br/> <br/>육가공협회는 "현재 국내 가공육 소비 수준을 고려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오히려 이번 발표로 육류 소비 전체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호도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육가공협회는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명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는 가공육을 담배나 석면과 같은 발암물질로 규정한 이번 연구 결과에 당혹감과 불만을 드러냈다. <br/> <br/>업계 한 관계자는 "가공육 소비량이 많은 서구권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국내 섭취량은 유럽이나 미국에 크게 못 미친다"며 "어떤 식품이든 적절한 양을 먹는 게 중요한데 단순히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br/> <br/>또 다른 관계자는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발암물질이라니 당황스럽다"며 "공신력 있는 기구의 발표여서 판매 등에 영향이 있을 텐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br/> <br/>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br/> <br/>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6일(현지시간) 소시지·햄·핫도그 등 가공육을 담배나 석면처럼 발암 위험성이 큰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붉은 고기의 섭취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br/> <br/>IARC는 소시지나 햄 등 일정한 공정을 거친 육류나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직장암이나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br/> <br/>가공육은 소금에 절이거나 발효·훈제하는 등 조리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핫도그 ▲소시지 ▲쇠고기 통조림 ▲말린 고기 등이 있다. 이 보고서는 붉은 고기의 섭취가 대장암과 직장암은 물론, 췌장과 전립선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br/> <br/>그렇다면 가공육은 정말 먹어선 안되는 것일까. <br/> <br/>먼저 WHO가 규정하는 가공육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BBC 등 외신에 따르면, 가공육은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훈제, 염장, 큐어링(curing·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 소금 혹은 화학물질 추가해 맛을 변형시킨 육류제품이다. 따라서 단순히 분쇄기로 얇게 소고기 등을 썰었다고 해서 가공육인 것은 아니다. <br/> <br/>가공육은 피와 근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혈색소)와 미오글로빈(색소단백)이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흰 고기보다 어두운 색을 띤다. <br/> <br/>왜 가공육은 암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일까. <br/> <br/>발암의심 화학물질은 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 물질은 N-니트로소와 미세먼지의 주성분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라고 불리는 독소를 포함한다. 굽거나 튀기는 등 높은 온도에서 고기를 익힐 때, 특히 바비큐 방식으로 요리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이 생길 수 있다. <br/> <br/>그러나 WHO 전문가는 가공육 조리시 암 발생 위험에 대해 “<span class='quot3'>현재 충분히 연구된 단계는 아니다</span>”고 말한다. <br/> <br/>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br/> <br/>이 같은 소식은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먹을 게 없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br/> <br/>누리꾼 A씨는 "소가 돼야겠다. 고기도 안돼, 방사능 찝찝한 생선도 안돼. 아 먹을거리 정말 고민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br/> <br/>B씨는 "몸에 나쁜 건 아는데 저렴하고 맛있어서 포기가 힘들다"면서 "성인이야 그렇다 치고 다 애들 반찬으로 자주 올라가는 건데 주의해야겠다"고 전했다. <br/> <br/>C씨는 "이런 기사 보고 부대찌개 먹는 사람들 어쩌지? 이번에 타격받는 업체들 많겠다. 햄 소시지 베이컨 안 들어간 요리가 별로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br/> <br/>D씨는 "소시지를 밥 먹듯이 많이 먹는 독일인들은 뭐 죄다 암 걸려 죽었겠네.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 없니"라고 반문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60.txt

제목: WHO 소시지 햄, 발암물질로 규정? "WHO 보고서에 국내 식품업계 긴장"  
날짜: 20151027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207764  
본문: WHO 소시지 햄 (사진= YTN)WHO 소시지 햄, 발암물질로 규정? "WHO 보고서에 국내 식품업계 긴장" <br/> <br/> 세계보건기구(WHO)가 소시지, 햄, 베이컨 등 육가공식품을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br/> <br/> 소시지, 햄과 같은 육가공식품 섭취가 대장암을 유발하고, 붉은 고기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고 AFP 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br/> <br/>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날 육류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건 이상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종합한 ‘육류 섭취 제한 권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10개국 2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br/> <br/> 소시지 햄이 발암물질이라고 평가한 WHO 보고서는 전문가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가공육의 섭취가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매일 50ｇ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br/> <br/> 가공육은 소금에 절이거나 발효·훈제하는 등 조리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핫도그, 소시지, 쇠고기 통조림, 말린 고기 등이 있다. 이들 가공육을 섭취하면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위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br/> <br/> IARC는 1천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국제 컨소시엄인 ‘글로벌 버드 오브 디지즈 프로젝트(GBD: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Project)’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고기 섭취를 통해 매년 3만 4천 명이 사망하지만, 담배는 100만 명, 알코올 60만 명, 대기오염으로 20만 명이 숨진다는 비교를 제시했다. <br/> <br/> 이 보고서는 또 붉은 고기의 섭취가 ‘발암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일부 제한적 증거에 근거해 발암 위험물질 2A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붉은 고기의 섭취가 대장암, 직장암은 물론 췌장과 전립선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붉은 고기에는 소·돼지·양·말·염소 고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br/> <br/> 붉은 고기를 안전하게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비큐나 프라이팬에서 요리할 때처럼 높은 온도나 직접 뜨거운 불판이나 불꽃에 접촉하면서 조리하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나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등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생성된다. 그러나 요리방법과 암 유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만큼의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br/> <br/> IARC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은 가공육이 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같은 1군 물질인 담배나 석면과 같은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강도가 그 정도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br/> <br/> 한편 국내 식품업계도 이번 보고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인의 육류 섭취량이 선진국보다 적은데다 오히려 육류 전체가 건강에 해로운 제품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육가공업체인 CJ제일제당, 롯데푸드, 동원F&B 등은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br/> <br/> 한국육가공협회 관계자는 "한국인의 연간 가공육 소비량은 WHO의 위험 섭취량인 18㎏보다 훨씬 적은 4.4㎏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기관을 통해 신뢰성있는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61.txt

제목: 암, 이제 열로 잡는다 ‘고주파 온열 암치료’ 효과는?  
날짜: 20151027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135328  
본문:   <br/> <br/> 암 진단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초기에 암을 진단해 완치할 수 있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완치 암 환자가 증가하며 더 이상 암은 불치의 병이 아니라 적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증으로 자리잡고 있다. <br/> <br/> 암 진단 기술 뿐 아니라 암 치료 분야의 발전도 비약적이다. 특히 현대의학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암 치료가 이제는 의학계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됐다. <br/> <br/> 특히 제 4의 암치료라고 불리는 고주파 온열 암 치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고주파 온열 암 치료는 암 병변에 국소적으로 온열치료를 치료하는 방식으로 혈액암이 아닌 모든 고형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치료법이다. <br/> <br/> 고주파 온열 암 치료는 열에 약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하는 방법으로 기존 항암 치료와 병행해도 부작용이나 몸에 무리가 가해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항암치료의 일반적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새로운 암 치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br/> <br/> 고주파 온열 암 치료의 안전성 입증과 탁월한 치료 효과로 현재 국내 양·한방 병원에서도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암 치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반돼야 고주파를 통한 온열 암 치료도 충분한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br/> <br/> 간절곶 자연 요양병원 김성덕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자연 통합 의학적 암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고주파 온열 암 치료에 관심을 가지는 암 환자가 늘고 있다</span>”고 말하며 “<span class='quot0'>암 치료에 대한 전문의의 충분한 선험 뿐 아니라 치료 후 건강관리 등의 사후 관리가 수반돼야 부작용 및 재발이 방지될 수 있다</span>”고 조언했다. <br/> <br/> 한편 차별화된 ‘암 면역 힐링 병원’을 지향하고 있는 ‘간절곶 자연요양병원’은 부산, 울산 등 경남지역 암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병원으로 현대의학적 치료프로그램과 한의학적치료프로그램, 그리고 특수치료그램을 결합한 통합의학적 암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br/> <br/> 특히 고주파온열암치료기 뿐 아니라 셀레늄, 미슬토, 비타민C, D 등 면역증진주사요법, 도수치료와 수지상세포치료 등 현대의학적 치료와 좌훈, 쑥뜸, 항암단 등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해 암 치료에 보다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r/> <br/>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의 완화</span>”라고 말하며 “<span class='quot0'>고주파 온열 암 치료 및 다양한 치료를 통해 암 환자의 일상생활 영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62.txt

제목: WHO 소시지 햄, “육가공식품 섭취 대장암 유발"…위험성 어느 정도?  
날짜: 20151027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130910  
본문: WHO 소시지 햄 (사진= MBN)WHO 소시지 햄, “육가공식품 섭취 대장암 유발"…위험성 어느 정도? <br/> <br/> WHO 소시지 햄이 발암물질이라는 발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 소시지, 햄과 같은 육가공식품 섭취가 대장암을 유발하고, 붉은 고기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고 AFP 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br/> <br/>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날 육류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건 이상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종합한 ‘육류 섭취 제한 권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10개국 2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br/> <br/> 소시지 햄이 발암물질이라고 평가한 WHO 보고서는 전문가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가공육의 섭취가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매일 50ｇ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br/> <br/> 가공육은 소금에 절이거나 발효·훈제하는 등 조리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핫도그, 소시지, 쇠고기 통조림, 말린 고기 등이 있다. 이들 가공육을 섭취하면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위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br/> <br/> IARC는 1천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국제 컨소시엄인 ‘글로벌 버드 오브 디지즈 프로젝트(GBD: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Project)’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고기 섭취를 통해 매년 3만 4천 명이 사망하지만, 담배는 100만 명, 알코올 60만 명, 대기오염으로 20만 명이 숨진다는 비교를 제시했다. <br/> <br/> 이 보고서는 또 붉은 고기의 섭취가 ‘발암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일부 제한적 증거에 근거해 발암 위험물질 2A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붉은 고기의 섭취가 대장암, 직장암은 물론 췌장과 전립선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붉은 고기에는 소·돼지·양·말·염소 고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br/> <br/> 붉은 고기를 안전하게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비큐나 프라이팬에서 요리할 때처럼 높은 온도나 직접 뜨거운 불판이나 불꽃에 접촉하면서 조리하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나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등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생성된다. 그러나 요리방법과 암 유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만큼의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br/> <br/> IARC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은 가공육이 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같은 1군 물질인 담배나 석면과 같은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강도가 그 정도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63.txt

제목: 서울대암병원, '암 경험자의 활력 회복하기' 건강강좌  
날짜: 2015102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114462  
본문: 서울대학교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는 오는 11월13일 오후 3시 어린이병원 1층 임상 제1강의실에서 '암 경험자의 활력 회복하기(운동과 신체활동)'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br/> <br/>이번 강좌에서는 가정의학과 최호천 교수가 ▲운동이 암 경험자의 장기 생존율을 높인다 ▲암 경험자가 해야 하는 3가지 운동 ▲암 치료 기간 중 운동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강의한다. <br/> <br/>강좌는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주차는 지원되지 않는다. 문의는 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02-2072-0077)으로 하면 된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64.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 '개인 맞춤 암 치료 클리닉' 오픈  
날짜: 2015102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110772  
본문:   <br/> <br/> <br/>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는 전이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 맞춤 암치료 클리닉'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br/> <br/>기존의 암 치료 방식이 같은 암이면 동일한 치료방법을 택하는 것이었다면, 삼성서울병원의 개인 맞춤 암 치료 클리닉은 환자마다 유전체를 분석해 달리 치료하는 방식을 택했다. <br/> <br/>암환자 내원 시 환자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꼭 맞는 표적항암제를 찾아내는 한편, 그에 따른 혁신 신약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br/> <br/>실제로 지난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62세 남성 안모씨는 소화불량 탓에 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위암 4기 판정을 받아 손쓰기 힘든 상태였다. <br/> <br/>통상적 항암치료로 1년을 넘기기 힘들 것이란 진단을 받았지만 삼성서울병 유전체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릭토 유전자 증폭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환자에게 맞는 치료제를 찾아 투여한 결과 현재 뱃속에 자리 잡았던 암이 서서히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br/> <br/>병원측에 따르면 안 씨 같은 암 환자의 경우 삼성유전체연구소의 '캔서스캔(CancerSCAN)'이란 암유전체진단키트를 이용해 암 속성부터 파악하게 된다. <br/> <br/>한번에 381개에 달하는 유전자를 대상으로 맞춤항암제의 표적으로 알려진 돌연변이 500여종이 있는지 찾는 작업이다. 2~3주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br/> <br/>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본격적으로 표적치료제가 투여된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쓰이는 표적치료제는 10여 개에 불과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글로벌제약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표적치료제를 20개 이상 확보,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범위를 넓혔다. <br/> <br/>특히 혈액종양내과 이지연·김승태 교수팀이 주도하고 있는 '전이성 위암 환자의 유전체 기반 임상시험'이 한창이어서 향후 2년간 200명의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유전체 기반의 신약이 투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br/> <br/>손태성 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장(소화기외과)은 "위암분야에서 유전체에 기반을 둔 포괄적 임상시험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개인 맞춤 치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65.txt

제목: WHO 소시지 햄, 발암물질 경고..매일 50ｇ 가공육 먹으면 직장암 위험 18%↑  
날짜: 20151027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108912  
본문: WHO 소시지 햄 (사진= MBN)WHO 소시지 햄, 발암물질 경고..매일 50ｇ 가공육 먹으면 직장암 위험 18%↑ <br/> <br/> WHO 소시지 햄이 발암물질이라는 발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 소시지, 햄과 같은 육가공식품 섭취가 대장암을 유발하고, 붉은 고기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고 AFP 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br/> <br/>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날 육류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건 이상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종합한 ‘육류 섭취 제한 권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10개국 2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br/> <br/> 소시지 햄이 발암물질이라고 평가한 WHO 보고서는 전문가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가공육의 섭취가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매일 50ｇ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br/> <br/> 가공육은 소금에 절이거나 발효·훈제하는 등 조리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핫도그, 소시지, 쇠고기 통조림, 말린 고기 등이 있다. 이들 가공육을 섭취하면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위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br/> <br/> IARC는 1천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국제 컨소시엄인 ‘글로벌 버드 오브 디지즈 프로젝트(GBD: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Project)’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고기 섭취를 통해 매년 3만 4천 명이 사망하지만, 담배는 100만 명, 알코올 60만 명, 대기오염으로 20만 명이 숨진다는 비교를 제시했다. <br/> <br/> 이 보고서는 또 붉은 고기의 섭취가 ‘발암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일부 제한적 증거에 근거해 발암 위험물질 2A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붉은 고기의 섭취가 대장암, 직장암은 물론 췌장과 전립선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붉은 고기에는 소·돼지·양·말·염소 고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br/> <br/> 붉은 고기를 안전하게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비큐나 프라이팬에서 요리할 때처럼 높은 온도나 직접 뜨거운 불판이나 불꽃에 접촉하면서 조리하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나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등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생성된다. 그러나 요리방법과 암 유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만큼의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br/> <br/> IARC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은 가공육이 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같은 1군 물질인 담배나 석면과 같은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강도가 그 정도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br/> <br/> 한편 영국 식품연구소 이안 존슨 박사는 “<span class='quot0'>가공육 섭취와 장암 발병의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발병 메커니즘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span>”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베이컨과 소시지를 담배 연기에 필적하는 위험 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66.txt

제목: WHO, 소시지 햄 섭취하면 직장암 대장암 발병 위험 높아 '육류 섭취 제한해야 하나?'  
날짜: 2015102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040339  
본문: WHO, 소시지 햄 섭취하면 직장암 대장암 발병 위험 높아 '육류 섭취 제한해야 하나?' <br/>WHO, 소시지 햄 섭취하면 직장암 대장암 발병 위험 높아 '육류 섭취 제한해야 하나?' <br/> <br/>소시지 햄 등 가공육이 암을 일으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육식과 암의 상관 관계에 대한 800여건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가공육이 암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발표했다. <br/> <br/>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가공육을 섭취하면 직장암이나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대장암 등이 발병할 확률이 18% 높아진다. <br/> <br/>또한 IARC는 또 소·양·돼지 등 붉은 고기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2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br/> <br/>이 연구소는 가급적 육류 섭취를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가공육이 담배나 석면 만큼 위험한 것은 아니며, 붉은 고기가 건강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br/> <br/>한편 가공육은 소금에 절이거나 발효·훈제한 고기 등을 의미하며 핫도그, 소시지, 햄 등이 대표적이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67.txt

제목: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2015 암 바로알기 행사' 개최  
날짜: 2015102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036531  
본문:   <br/> <br/> <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암병원은 오는 29일,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병원 내원객 및 환우를 위한 2015 암 바로알기 행사 '서울성모병원 암병원과 함께하는 힐링여행'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br/> <br/>올해로 네 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암병원을 구성하고 있는 12개 협진센터(팀)의 특수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환우 및 가족들이 공감하고 희망과 암극복의 의지를 돕는 힐링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br/> <br/>프로그램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암 진단 후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환우 수기나눔, 환우·가족 재능기부공연, 꽃동네 신상현수사의 힐링특강, 아카펠라공연이 있다. <br/> <br/>또한 행사장 밖에는 12개 협진센터 부스, 언론보도 부스 및 캐리커쳐, 희망우체통,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 등이 준비돼있다. <br/> <br/>특히 명의와 함께하는 암 강좌는 간암(소화기내과 윤승규 교수), 부인암(산부인과 이근호 교수), 갑상선암(유방갑상선외과 이소희 교수), 유방암(채병주 교수), 비뇨기암(비뇨기과 이지열 교수), 백혈병(혈액내과 김희제 교수)의 강연이 펼쳐지며 많은 환우들이 질의 및 응답(Q&A) 시간을 통해 암 종별 정보와 궁금증을 해소하고 명의와 소통하면서 암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br/> <br/>김준기 암병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암병원 소속 전 교직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병원을 찾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암으로부터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최상의 질로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68.txt

제목: 가을철 제철 맞은 만능 과일, 효능 알면 건강이 보인다  
날짜: 2015102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024314  
본문: 사진=MBC <br/>최근 가을이 깊어지면서 제철을 맞이하고 있는 다양한 과일들의 효능과 다양한 활용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r/> <br/>지난 22일 방영된 MBC 생방송 오늘아침 내 '별별! 생활 랭킹' 코너에서는 '버릴 게 없다! 만능 과일 Top3'라는 주제로 과일들의 효능과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소개 했다. <br/> <br/>이날 소개된 과일 중 감은 성숙도에 따라 단감, 홍시, 곶감으로 나뉘는데 제철에 맞게 먹으면 그 영양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다. <br/> <br/>감에는 포도당과 과당의 함유량이 많으며, 비타민 C와 A, 탄닌, 칼륨과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고혈압 예방에 좋고 혈중 알코올의 상승률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 특히 감에 들어 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다. <br/> <br/>이러한 감의 효능은 과육만이 아니라 감꼭지에도 좋은 효능이 있는데 한의사 정인호 원장(관악 단아안 정인호한의원)은 "감꼭지는 한방에서 시체라는 한약제로 쓰이며, 무독하고 약간 쓴맛이 난다. 말린 감꼭지를 생강과 함께 차로 다려 먹으면, 위장이 차가워져서 생기는 잘 멈추지 않는 딸꾹질에 효과가 좋고, 기관지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br/> <br/>또한 9월에서 12월이 제철인 석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성에게 좋은 과일이다. 석류를 대표하는 성분인 에스트로겐을 비롯해 비타민, 안토시아닌, 리코펜 등의 성분이 들어있으며, 청이나 즙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가 가능하다. <br/> <br/>정인호 원장은 "석류에는 있는 천연 에스트로겐이 갱년기의 여성에 갱년기 장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탄력을 유지해 준다"고 설명했다. <br/> <br/>여기에 석류의 껍질을 이용하여 팩을 하면 석류껍질에 있는 엘라직산 성분의 효능으로 인해 피부 보호와 미백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br/> <br/>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과일의 효능뿐만 아니라 떫은 감을 와인을 이용해 먹는 방법이나 사과를 이용해 설탕 만드는 법 등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69.txt

제목: 비만의 역설, 적당히 비만해야 더 오래 산다  
날짜: 2015102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020352  
본문: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일수록 저체중 보다 높은 근육량과 지방이 있는 적당히 비만이 사망위험률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27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팀(고려대학교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팀, 의학통계학교실 이준영 교수팀)은 마른 사람보다 적당히 비만한 사람들의 사망위험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br/> <br/>특히 50대 이상 고령일수록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당뇨 등 각종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비만이 저체중보다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br/> <br/>연구팀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중 30세 이상 100만명을 추출해 표본코호트를 만들어 질병과 건강행태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br/> <br/>비만에 의해 유발되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사망위험률(hazard ratio: HR)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br/> <br/> <br/>◆ 중등도비만, 사망위험률 제일 낮다 <br/> <br/>분석 결과, BMI(23-24.9)인 과체중을 기준으로 하여 사망위험률(Hazard Ratio)을 1로 보았을 때, 중등도비만의 사망위험률이 과체중에 비해 0.86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비해 BMI(<18.5)에 해당하는 저체중의 경우는 과체중보다 위험률이 2.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만성질환 발생의 원인인 비만이 오히려 사망위험률을 낮춘다는 역설적인 결과를 보인 것이다. <br/> <br/>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는 "비만하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뇌졸중 등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것은 맞다. 이러한 만성질환 때문에 더 빨리 사망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본인의 질병과 건강상태에 대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조기에 치료하고 좋은 약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위험률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br/> <br/>또한 한국인의 비만율과 사망원인의 변화로도 분석할 수 있다. 현재 비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연히 비만 관련 질병 또한 증가하고 있다. <br/> <br/>하지만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계질환 사망률, 암에 의한 사망률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암에 의한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전체 사망률의 패턴과 일치하는 반면,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비만 관련 질환 및 심혈관계질환의 치료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반면, 암의 경우 많은 치료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적당한 비만함은 5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보호막 <br/> <br/> <br/>체질량지수에 따른 사망률은 특히 연령에 따라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30-49세, 50-69세, 70세 이상, 총 세 그룹으로 연령대를 나누어 조사한 결과, 30-49세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체질량지수에 따른 사망위험률이 저체중(BMI<18.5)은 1.38, 고도비만(BMI 30-32.4)은 1.39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br/> <br/>대조적으로 50세 이상의 경우는 BMI(23-24.9)인 과체중을 기준으로 하여 사망위험률(Hazard Ratio)을 1로 보았을 때, 중등도비만 구간(BMI 25-26.4)을 기점으로 U자 곡선을 띄고 있으며, 저체중인 경우 과체중에 비해 3배(사망위험률 2.9) 가까운 사망위험률을 보였다. <br/> <br/>고도비만(BMI 30-32.4)범주에서 과체중에 비해 50세 이상은 1.2배, 70세 이상은 0.81배로 낮은 사망위험률을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매우 극명한 차이다. <br/> <br/>김신곤 교수는 "이같이 노인층에게 더욱 비만의 역설이 두드러진 것은 높은 근육의 양과 지방이 노인에게 치명적인 질환들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노인에게 건강은 곧 체력이다. 적정한 정도의 체중은 좋은 영양 상태와 근육량을 반영한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경우 어느 정도의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br/> <br/>◆ 저체중의 위험성 점점 증가해 <br/> <br/>저체중은 영양섭취가 고르지 못할 확률이 크므로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 결핵, 대상포진 등 각종 면역질환에 노출되었을 때 회복력이 더디다. 특히 체지방과 근력이 부족하면 뼈에 체중이 실리지 않아 골밀도가 떨어져 골다공증 위험성도 매우 높아진다. <br/> <br/>또한 체중이 급격하게 준다면 당뇨병,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을 의심할 수 있다. 당뇨병의 경우 초기에는 먹는 양이 많아 체중이 늘지만 소변의 양과 횟수가 점차 늘면서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고,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체내에 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 땀이 많이 나고 체중이 감소한다. <br/> <br/> 고려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왼쪽),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 <br/>김신곤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고도비만과 저체중 모두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데 특히 체질량 지수 18.5미만의 저체중 그룹은 심혈관계질환, 암 등 모든 분석에서 가장 높은 사망 위험을 보였다"며 "지방이 적당량 정도 있어야 좋은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며 외부에 저항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br/>이어 "적절한 영양섭취 뿐 아니라 유연성 운동, 근력을 키우는 근력강화운동을 매일 10-15분 내외로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살을 찌우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 public library of science에서 발간하는 PLOS one 국제의학잡지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70.txt

제목: 햄이 발암물질, 담배 석면 같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 '섭취시 직장암-대장암 발명 위험 높아져'  
날짜: 2015102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005113  
본문: 햄이 발암물질, 담배 석면 같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 '섭취시 직장암-대장암 발명 위험 높아져' <br/>햄이 발암물질, 담배 석면 같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 '섭취시 직장암-대장암 발명 위험 높아져' <br/> <br/>햄이 발암물질로 선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육식과 암의 상관 관계에 대한 800여건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가공육이 암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발표했다. <br/> <br/>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가공육을 섭취하면 직장암이나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대장암 등이 발병할 확률이 18% 높아진다. <br/> <br/>또한 IARC는 또 소·양·돼지 등 붉은 고기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2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br/> <br/>이 연구소는 가급적 육류 섭취를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가공육이 담배나 석면 만큼 위험한 것은 아니며, 붉은 고기가 건강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br/> <br/>한편 가공육은 소금에 절이거나 발효·훈제한 고기 등을 의미하며 핫도그, 소시지, 햄 등이 대표적이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71.txt

제목: 암웨이, 중국 우시(Wuxi)에 암웨이식물연구센터(ABRC)개관  
날짜: 20151026  
기자: 지차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0703699  
본문: 글로벌 웰니스 전문기업 암웨이는 지난 23일 중국 우시(Wuxi, 無錫(무석))지역에 총 10만평 (333,000㎡) 규모의 암웨이 식물연구센터(Amway Botanical Research Center, ABRC)1와 연구 농장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br/> <br/>암웨이 식물연구센터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 최초의 중국 약재 재배 기술 및 약재 추출물 연구 기관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뷰티 제품 개발을 위해 아시아 식물에 관한 다각도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br/> <br/>식물연구센터와 함께 조성된 연구농장은 암웨이 뉴트리라이트가 미국, 브라질, 멕시코에서 운영중인 800만 평 이상 규모의 농장들과 함께 암웨이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며 중국 전통 약재 등 연구 목적의 아시아 식물을 재배하게 된다. <br/> <br/>중국 전통 약재 비롯 아시아 식물의 우수한 영양학적 약리학적 효능 연구 위해 3년의 지질학생물학적 탐색 통한 부지선정, 이후 3년간의 개간 끝에 2015년 10월 개관했다. <br/> <br/>암웨이는 아시아의 식물을 재배하고 연구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식물연구센터 부지를 탐색하기 시작했으며, GPS 기술을 이용해 300개 이상의 후보 부지 중 환경, 교통, 역사 및 인문학적 배경과 토지의 잔류농약, 중금속 오염도, 물길의 근원, 공기의 질 등 각종 요소에 관해 철저한 선별검사를 거쳐 2012년도에 우시 지역을 암웨이 식물연구센터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br/> <br/>암웨이 글로벌 본사 R&D 및 품질보증부서 캐서린 에렌버거 부사장은 “<span class='quot0'>암웨이식물연구센터는 암웨이 뉴트리라이트가 식물영양소 연구를 시작했던 80여년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아시아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80년 이상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의미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자연 속에서 최고의 원료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탐색해온 암웨이 뉴트리라이트만의 뚝심과 철학을 바탕으로,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고령화와 노화에 대비한 ‘웰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겠다</span>”는 포부를 밝혔다.  <br/> <br/>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br/>사진=암웨이 제공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72.txt

제목: 맥주 벌컥벌컥 마셨다간… 통풍 습격에 “악”  
날짜: 201510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0903013  
본문: 이탈리아의 천재 건축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 저술가인 벤저민 프랭클린. 이 역사적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통풍’을 앓았다는 것이다. <br/> <br/>통풍이란 관절 조직에 요산 결정이 축적돼 생기는 병이다. 바람만 스쳐도 아파 통풍(痛風)으로 불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영어로 통풍(gout)은 라틴어의 침(gutta)에서 유래된 말로 13세기 악마의 침이 관절에 침투해 생긴 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통풍은 극심한 관절 통증을 동반한다. 문제는 이 통풍 환자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풍의 원인과 예방·치료법을 알아본다. <br/> <br/>◆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통풍 증가 <br/> <br/>한국의 통풍 진료 인원은 2007년 16만3000명에서 2011년 24만명으로 5년간 약 47%가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가파르다. 이 같은 현상은 식습관의 변화와 수명 연장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 증가와도 관련돼 있다. <br/> <br/>요산은 퓨린이라는 물질의 최종 대사물질이다. 퓨린은 음식물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거나 우리 몸의 세포가 수명을 다한 뒤 만들어진다. 사람의 몸에는 요산 분해 효소가 없으므로 신장과 위장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퓨린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거나, 선천적으로 퓨린 대사에 이상이 있거나, 암치료 등으로 세포가 한꺼번에 많이 죽을 때는 체내 요산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때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각종 관절과 주변 인대 또는 피부에 요산 결정체가 쌓이는 것이다.  <br/> <br/>혈액 내 요산이 정상보다 높은 고요산혈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급성 통풍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다. 주로 하지 관절에 나타나며 같은 농도여도 남성이 여성보다 통풍이 발생하기 쉽다. 보통 혈중 요산 농도가 7㎎/㎗을 넘으면 고요산혈증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고요산혈증 환자에서 통풍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도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증가한다. <br/> <br/>통풍 발병률은 혈중 요산 농도가 6.9㎎/㎗ 이하일 때 0.1%에 불과하지만, 농도가 9.0∼9.9㎎/㎗일 때 4.3%, 9.9㎎/㎗ 이상일 때 7%로 높아진다. <br/> <br/>증상이 사라졌다가도 요산 수치가 높으면 재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한류마티스학회에 따르면 국내 고요산혈증은 남성 15% 여성 4%이며, 무증상 고요산혈증 환자의 5% 정도가 급성 통풍관절염으로 진행된다. <br/> <br/>◆식습관·생활습관 관리로 통풍 예방 <br/> <br/>요산 수치의 관리는 통풍관절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핵심이다. 비만, 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만성신장병, 탈수 등은 모두 통풍 위험인자다. 대부분 잘못된 식습관과 관련 있기 때문에 식습관 변화로 퓨린의 과다 섭취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br/> <br/>퓨린은 주류 중에서도 맥주, 조개, 고등어, 정어리, 멸치 등 등푸른 생선, 새우, 육류, 육류의 내장 등에 많이 들어 있다. 몇년 째 야식으로 열풍인 ‘치맥’(치킨+맥주)이 통풍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힌 이유도 퓨린을 과다 섭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산 수치를 낮추고 통풍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퓨린이 과도한 식품을 멀리해야 한다. <br/> <br/>특히 맥주는 요산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다시 혈액 속으로 끌어들여 요산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br/> <br/>반면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이로운 음식도 있다. 곡류와 감자, 고구마, 유제품, 과일, 채소, 달걀, 해조류 등 지방이 적은 식품들이다. 적당한 운동을 통해 체중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셔 요산 배출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br/> <br/>식이요법과 함께 병원치료를 동반해야 통풍을 다스릴 수 있다. 급성 통풍의 경우 진통소염제 등 약물로 치료하며 만성 통풍으로 발전하면 통풍 예방 약제나 요산저하제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br/> <br/>경희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는 “<span class='quot0'>통풍 발작이 시작될 경우에는 다리를 높은 곳으로 올리고 얼음찜질을 한 뒤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철저한 식습관·생활습관 관리와 병원치료를 병행한다면 통풍은 나을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73.txt

제목: '이소룡 전 연인' 샤론 패럴,"한국 오기 전 암 진단 받았다"충격고백  
날짜: 20151026  
기자: 이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0811634  
본문:   <br/> <br/> <br/>이소룡의 전 연인 할리우드 배우 샤론 패럴(75)이 암투병 사실을 고백했다. <br/> <br/> 최근 세계적 한복 디자이너인 목은정 씨의 초청을 받아 입국한 샤론 패럴은 패션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br/> <br/> 25일 샤론 패럴은 서울문화홍보원 주최로 남산 팔각정에서 열린 목은정 한복패션쇼에 참석하여 직접 태권도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워킹과 함께 간단한 태권도 시범까지 보였다. <br/> <br/> 샤론 패럴은 "한국에 오기 전 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 한국까지 오기 어려울 수 있었지만 목 디자이너의 초청을 받았고 한국과 한복·태권도에 대한 애정 덕분에 자리하게 됐다. 아마도 이번이 한국에 오는 마지막이 될 것같다. 이젠 나이가 있어 공식적인 활동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밝혀 충격을 전해주었다.  <br/> <br/>임수연 기자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74.txt

제목: 대전선병원, '갑상선 이야기' 무료 시민건강강좌 실시  
날짜: 20151026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0651101  
본문:   <br/> <br/> <br/>대전선병원(원장 박노경)은 오는 30일 오후 3시 병원 대강당에서 '갑상선 외과 전문의들과 함께하는 갑상선 이야기'라는 주제로 무료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br/> <br/>대전충청 갑상선연구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이승구 선병원 국제의료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지만 대전선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과장이 '갑상선 암의 진단 및 치료', 민준원 단국대병원 외과 교수가 '갑상선 양성 질환', 전기원 건양대병원 외과 교수가 '갑상선 암 수술 후 관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br/> <br/>강의 후에는 질의 및 응답시간이 주어지며, 이어 레크리에이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즐거운 시간을 갖고 행운권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br/> <br/>유지만 대전선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과장은 "이번 시민강좌에서는 전문의들이 갑상선암을 포함한 갑상선 질환의 원인 및 진단, 치료, 예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하시어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알아가는 뜻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r/> <br/>이번 강좌는 갑상선 질환에 대한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강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대전선병원 유방갑상선외과(042-220-8859)로 하면 된다. <br/> <br/>한편 이번 강좌는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에서 후원하는 '제9회 일반인을 위한 갑상선 이야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75.txt

제목: 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와의 애틋한 러브스토리 '림프암-갑상선암에도 곁 지켜'  
날짜: 2015102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0250735  
본문: 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와의 애틋한 러브스토리 `림프암-갑상선암에도 곁 지켜`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와의 애틋한 러브스토리 '림프암-갑상선암에도 곁 지켜' <br/> <br/>故 신해철의 사망 1주기가 돌아오는 가운데 과거 부인 윤원희와의 러브스토리가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신해철과 그의 부인 윤원희는 지난 2002년 9월 벡년가약을 맺었다.  <br/> <br/>2년 동안 신해철과 연애를 한 윤원희는 미스코리아 출신 회사원으로 매사추세츠 주 스미스대학교를 졸업한 인재이다. 이후 금융회사 골드만삭스 일본지사에서 일한 바 있다. <br/> <br/>결혼 전 신해철은 윤원희가 림프암에 이어 갑상선암에 걸렸을 때도 곁을 지켰다. 또 9년 만에 다시 암이 재발했고 극복했을 때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br/> <br/>한편 신해철의 소속사였던 KCA엔터테인먼트는 "고인의 사망 1주기인 27일 '웰컴 투 리얼월드' LP판을 3000장의 한정판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br/> <br/>한정판 앨범에는 '웰컴 투 리얼 월드'를 비롯해 3곡의 유작이 수록돼있다. 또 '더 늦기 전에' '그저 걷고 있는 거지' '길 위에서' '힘을 내' 등의 곡을 포함해 총 40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76.txt

제목: 한국야쿠르트 “바이오리브 프로바이오틱스로 성장기 아이 장 건강 챙기자”  
날짜: 20151024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0111725  
본문:   <br/> <br/> 한국야쿠르트가 성장기 아이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바이오리브 프로바이오틱스를 강조했다. <br/> <br/> 업계에 따르면 장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형성하는 면역 세포가 70% 이상 분포하는 곳이다. 그만큼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br/> <br/>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은 장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갑자기 배변 횟수가 줄어들고 변이 굵고 딱딱해지면 소아 변비는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를 장기간 방치하면 복통과 치질, 대장염 등 각종 대장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br/> <br/> 장에는 100종 이상의 장내세균이 살고 있는데 그 중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을 총칭하는 말이 프로바이오틱스다. 그리스어로 ‘생명을 위한(for life)’이란 의미로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막고 장을 튼튼하게 하며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br/> <br/> 소화 기능 개선, 암 예방, 노화 방지, 피부 건강, 비만 예방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br/> <br/> 한국야쿠르트에서 출시한 바이오리브 장건강 프로바이오틱스는 야쿠르트의 특허유산균과 임상으로 증명된 8종의 100억 프로바이오틱스 조합으로 서양인에 비해 1m가 더 긴 한국인의 장 체질에 맞춰 설계되었다. <br/> <br/> 특히, 한국야쿠르트는 생균의 생존력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집중했다. 상온에서 유통•보관되면서 생균이 사멸되는 점을 고려해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타사제품 대비 훨씬 짧은 6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br/> <br/> 이와 함께 제품생산부터 보관, 유통, 고객 배송까지 철저한 냉장유통 시스템을 선택했다. 그 결과 식약처에서 정한 최대 보증균수인 100억 마리의 프로바이오틱스를 마지막 한포까지 보증한다. <br/> <br/>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77.txt

제목: 한 소년에게 다가온 '10월의 크리스마스'  
날짜: 20151024  
기자: 황현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0005813  
본문: 반려견과 함께한 에반.가족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 하는 소년을 위해 마을주민이 하나가 돼 소년의 꿈을 이뤄줬다. <br/> <br/>그래서 캐나다 온타리오주 세인트조지의 크리스마스는 2달 앞당겨졌다. <br/> <br/>22일(현지시간) 캐나다 CBC뉴스는 세인트조지의 ‘10월의 크리스마스’ 소식을 전했다. <br/> <br/>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암으로 항상 아팠던 에반 레버세이지(7). 에반은 2살 때 뇌종양 진단을 받고 5년째 투병 중이다. <br/> <br/>뇌종양은 두개(頭蓋) 안에 생기는 종양으로 뇌, 뇌막, 뇌혈관 또는 신경 등에 일어나는 모든 종양의 총칭이다. (체육학대사전 인용) <br/> <br/>7살 에반에게 암은 이기기 힘든 고통이 됐다.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은 점점 악화됐고, 결국 암세포가 뇌 대부분을 덮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br/> 아픈 치료를 받고 있지만 미소 짓는 에반.에반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까. 소년은 “<span class='quot0'>엄마랑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낼 수 있겠죠</span>”라고 말했다. <br/> <br/>이 말을 들은 엄마 니콜 웰 우드는 눈물을 감추며 “<span class='quot1'>그럼, 창밖을 보면 마을이 크리스마스로 변해 있을 거야</span>”란 거짓말을 하고 ‘기적을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갔다. <br/> <br/>에반가족은 아이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노력했다. 사연을 적어 지나는 사람들에게 동참을 호소했고, 소셜 미디어에도 글과 사진을 올려 응원을 부탁했다. <br/> <br/>그 후. 기적은 거짓말처럼 이뤄졌다.  <br/> 주택 수백 채에 크리스마스 장식과 ‘메리 크리스마스 에반’이란 글이 장식됐다. 10월의 크리스마스를 만든 마을주민들. 모두가 함께했다. 현지 언론은 가슴 따듯한 10월의 크리스마스 소식을 전했다.소년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모인 수천명의 사람들은 하나가 됐다.  세인트조지 내 상가는 물론 주택 수백 채엔 크리스마스 장식과  ‘메리 크리스마스 에반’이란 글이 장식됐고, 에반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br/> <br/>니콜은 “<span class='quot2'>에반이 아름다운 장식과 ‘메리 크리스마스 에반’이란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span>”며 “<span class='quot2'>마을 주민들이 에반을 위해 ‘10월의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줬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힘든 치료를 이겨낸 ‘내 영웅(아들)’과 동참해준 마을 주민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br/> 엄마 니콜과 에반.세인트조지의 10월의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행복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CBC뉴스, 페이스북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78.txt

제목: 한 소년에게 다가온 '10월의 크리스마스'  
날짜: 20151023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5744643  
본문: 반려견과 함께한 에반.가족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 하는 소년을 위해 마을주민이 하나가 돼 소년의 꿈을 이뤄줬다. <br/> <br/>그래서 캐나다 온타리오주 세인트조지의 크리스마스는 2달 앞당겨졌다. <br/> <br/>22일(현지시간) 캐나다 CBC뉴스는 세인트조지의 ‘10월의 크리스마스’ 소식을 전했다. <br/> <br/>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암으로 항상 아팠던 에반 레버세이지(7). 에반은 2살 때 뇌종양 진단을 받고 5년째 투병 중이다. <br/> <br/>뇌종양은 두개(頭蓋) 안에 생기는 종양으로 뇌, 뇌막, 뇌혈관 또는 신경 등에 일어나는 모든 종양의 총칭이다. (체육학대사전 인용) <br/> <br/>7살 에반에게 암은 이기기 힘든 고통이 됐다.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은 점점 악화됐고, 결국 암세포가 뇌 대부분을 덮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br/> 아픈 치료를 받고 있지만 미소 짓는 에반.에반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까. 소년은 “<span class='quot0'>엄마랑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낼 수 있겠죠</span>”라고 말했다. <br/> <br/>이 말을 들은 엄마 니콜 웰 우드는 눈물을 감추며 “<span class='quot1'>그럼, 창밖을 보면 마을이 크리스마스로 변해 있을 거야</span>”란 거짓말을 하고 ‘기적을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갔다. <br/> <br/>에반가족은 아이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노력했다. 사연을 적어 지나는 사람들에게 동참을 호소했고, 소셜 미디어에도 글과 사진을 올려 응원을 부탁했다. <br/> <br/>그 후. 기적은 거짓말처럼 이뤄졌다.  <br/> 주택 수백 채에 크리스마스 장식과 ‘메리 크리스마스 에반’이란 글이 장식됐다. 10월의 크리스마스를 만든 마을주민들. 모두가 함께했다. 현지 언론은 가슴 따듯한 10월의 크리스마스 소식을 전했다.소년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모인 수천명의 사람들은 하나가 됐다.  세인트조지 내 상가는 물론 주택 수백 채엔 크리스마스 장식과  ‘메리 크리스마스 에반’이란 글이 장식됐고, 에반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br/> <br/>니콜은 “<span class='quot2'>에반이 아름다운 장식과 ‘메리 크리스마스 에반’이란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span>”며 “<span class='quot2'>마을 주민들이 에반을 위해 ‘10월의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줬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힘든 치료를 이겨낸 ‘내 영웅(아들)’과 동참해준 마을 주민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br/> 엄마 니콜과 에반.세인트조지의 10월의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행복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CBC뉴스, 페이스북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79.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박계현 교수, EBS 명의 '대동맥류' 편 출연  
날짜: 2015102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5715449  
본문: 아무런 증상이 없이 침묵하는 병. 그러다 터지면 95%가 사망하는 병.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혈관이 결국 시한폭탄이 되어 버리고 마는 이 병의 이름은 대동맥류다. 대동맥류는 우리 몸속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늘어나며 시작된다. <br/> <br/>그렇게 늘어난 대동맥은 어떤 증상도 없다. 언제 찢어질지, 언제 파열될지 알 수 없다. 혈관이 터지거나 찢어지면 환자들은 극한의 고통과 함께 죽음과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대동맥류를 침묵의 암살자라 일컫는다. <br/> <br/>대동맥류를 치료하는 의료진은 늘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과 마주한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명의들. 오랜 연구와 축적된 노하우로 인조혈관과 스텐트 시술 등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켜온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박계현 교수, 밤낮없이 대동맥류로 인한 응급 환자들의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이 분야의 차세대 명의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 송석원 교수, 이 두 명의와 함께 침묵의 암살자, 대동맥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br/> <br/>◆ 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고 터진다? 부풀어 오른 대동맥의 침묵 <br/> <br/>보통 혈관질환 하면 혈관이 좁아져 막히는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반대로 혈관이 부풀어 올라 터진다면, 그때는 그 어떤 질환보다 위협적인 병이 된다. 보통 2~3cm 굵기인 대동맥이 노화나 유전적 요인 등으로 5cm 이상으로 커질 때, 이러한 상태를 대동맥류라고 한다. <br/> <br/>이 병이 두려운 이유는 한 번 터지면 생명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도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70세의 윤기봉 환자는 갑상선암 진단과정에서 대동맥류를 발견했다. <br/> <br/>암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병이라 했지만, 정작 환자 자신을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대동맥류라는 병을 처음 들어봤을 뿐더러 그에게는 그 어떤 통증이나 증상도 없었기 때문이다. 터지기 직전까지 침묵하는 병, 대동맥류. 이 병의 실체는 무엇일까? <br/> <br/>◆ 터지면 죽는다? 죽음과 가장 가까운 병, 대동맥류 <br/> <br/>대동맥 질환에는 대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대동맥류, 혈관 내벽이 찢어져 피가 새는 대동맥 박리, 혈관이 터지는 대동맥 파열이 있다. 대동맥 파열의 경우 95%의 엄청난 사망률을 말해주듯 초응급질환이다. 때문에 보통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절반의 환자들이 생명을 잃고, 수술을 받은 후에도 40~50%의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br/> <br/>76세의 강태선 환자는 5년 전, 대동맥류가 파열되며 생사의 갈림길을 경험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꼈다는 강태선씨.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동맥류가 파열되어 복부에 피가 가득 차있는 상태였다. <br/> <br/>차오른 피로 배는 부풀고, 피부마저 검붉게 변한 쇼크 상태. 오늘을 넘기기 힘들거라는 말에 온 가족이 마지막 가는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 병원을 찾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까? 대동맥류의 응급상황과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모습을 담았다. <br/> <br/>◆ 대동맥에 새 혈관을 이식하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두 명의 사투 <br/> <br/>대동맥류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방법으로는 인조혈관 치환술과 스텐트 삽입술이다. 인조혈관 치환술은 늘어난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바꿔주는 치료법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지만 절개 부위가 넓어 고령의 환자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br/> <br/>한 편 스텐트 삽입술은 금속 골격과 섬유로 만든 스텐트를 혈관에 삽입해 대동맥류의 확장을 막는 치료법으로, 절개 범위를 줄일 수 있고, 심정지가 필요 없어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기성적이 없는데다가, 시술 후 스텐트가 빠지면서 혈액이 누출되는 부작용도 종종 발생한다. <br/> <br/>때문에 대동맥류 환자들에게는 어떤 수술법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가장 어려운 선택이자 치료에 있어 중요한 관건이다. <br/> <br/>이처럼 위급한 환자들을 살리기 위한 연구와 치료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도, 새벽의 단잠도 반납하고 고군분투하는 두 명의가 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온 환자들이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남편과 아내로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는 박계현 교수와 송석원 교수. 두 명의와 함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투의 현장을 함께한다. <br/> <br/>EBS '명의' 침묵의 암살자 '대동맥류' 편은 23일 저녁 9시50분 EBS에서 방송된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80.txt

제목: 서울성모병원, 다학제 심근증 클리닉 개설  
날짜: 2015102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5719563  
본문: (왼쪽부터) 송병주 교수(유방갑상선외과), 민창기 교수(혈액내과), 윤호중 교수(순환기내과). <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종양학과 순환기학을 접목시킨 새로운 개념의 다학제 심근증 클리닉을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br/> <br/>최근 암환자의 증가와 함께 항암제 유발 심근증이 환자들의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꼽히면서 병원은 3년 전부터 심뇌혈관센터는 유방암센터와의 협진을 통해 항암제 유발 심근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해왔다. <br/> <br/>또한 최근부터 BMT센터와의 협진을 통해 다발성 골수종과 아밀로이드증에서 발생하는 심장 손상의 진단 및 치료에 힘써 왔다. <br/> <br/>특히 유방암 환자에서 발생하는 항암제 유발 심근증은 다학제 협진을 통한 조기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여 이전에 비해서 그 발생 빈도가 1/2이하로 감소되었다. <br/> <br/>항암제 유발 심근증의 진단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심장초음파 검사가 매우 중요하며, 추가적으로 심장 MRI, 심장 CT 검사, 심장조직 검사 등이 임상에서 이용되고 있다. <br/> <br/>유방암센터 송병주 교수(유방갑상선외과)는 "유방암에 효과적인 항암제 중에는 심장에서 독성을 일으키는 약제들이 있으며, 환자들의 예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미리 심독성의 유발 요인을 판정하여 심장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br/> <br/>송 교수는 또한 "심독성증상에 대한 감시와 정기적으로 심장 기능을 평가하는 다학제 심근증 클리닉은 유방암 환자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BMT센터 민창기 교수(혈액내과)는 "다발성 골수종과 아밀로이드증 등 형질세포질환은 비정상 종양단백질이 생산되어 심각한 심장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혈액질환"이라며"항암치료 중에 심장 기능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학제 진료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br/> <br/>심뇌혈관센터 윤호중 교수(순환기내과)는 "다학제 심근증 클리닉은 국내에서 종양-순환기학(Onco-Cardiology)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도로서, 항암제 유발 심근증의 조기 진단, 치료 및 추적검사를 통하여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물론이고, 심장 손상이 동반되는 혈액질환 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윤 교수는 또한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br/> <br/>한편 다학제 심근증 클리닉은 매주 수요일 오전 오후 심뇌혈관센터 외래(4번방)에서 진료를 실시한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81.txt

제목: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대동맥류  
날짜: 201510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5545369  
본문: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터지면 95%가 사망하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혈관이 결국 시한폭탄이 되는 이 병의 이름은 대동맥류다. 대동맥류는 우리 몸 속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늘어나며 시작된다. 그렇게 늘어난 대동맥은 어떤 증상도 없다. 언제 찢어질지, 언제 파열될지 알 수 없다. 혈관이 터지거나 찢어지면 환자들은 극한의 고통과 함께 죽음과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대동맥류를 침묵의 암살자라 일컫는다. 대동맥류를 치료하는 의료진은 늘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과 마주한다. <br/> <br/>EBS1 ‘명의’는 23일 오후 9시50분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박계현 교수와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 송석원 교수 두 명의와 함께 대동맥류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br/> <br/> 23일 EBS1에서 방송하는 ‘명의’에서는 전혀 증상이 없다가 터지면 대부분이 생명을 잃게 되는 무서운 병 대동맥류에 대해 알아본다. <br/>EBS보통 혈관질환 하면 혈관이 좁아져 막히는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반대로 혈관이 부풀어 올라 터진다면 생명을 지키기 어려워 그 어떤 질환보다 위협적인 병이 된다. 보통 2~3㎝ 굵기인 대동맥이 노화나 유전적 요인 등으로 5㎝ 이상으로 커지면 대동맥류라고 한다. <br/> <br/>70세 윤기봉 환자는 갑상선암 진단과정에서 대동맥류를 발견했다. 암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병이라고 했지만 정작 환자 자신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대동맥류라는 병을 처음 들어봤을뿐더러 그에게는 그 어떤 통증이나 증상도 없었기 때문이다. <br/> <br/>대동맥류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방법은 인조혈관 치환술과 스텐트 삽입술이다. 인조혈관 치환술은 늘어난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바꿔주는 치료법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지만 절개 부위가 넓어 고령의 환자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스텐트 삽입술은 금속 골격과 섬유로 만든 스텐트를 혈관에 삽입해 대동맥류의 확장을 막는 치료법으로 절개 범위를 줄일 수 있고 심정지가 필요 없어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82.txt

제목: 아주대병원, 완화의료병동 개소식 열어  
날짜: 2015102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5423725  
본문: 탁승제 아주대병원장(오른쪽 여섯번째)과 전미선 지역암센터장(오른쪽 일곱번째) 등 관련 의료진이 시루떡 커팅을 하며 축하하고 있다. <br/>아주대병원은 22일 오후 1시30분 본관 지하1층 아주홀에서 완화의료병동(Palliative Care Ward)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br/> <br/>완화의료병동은 말기 암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병동으로, 본관 10층에 독립병동 시스템을 갖추고 지난 7월15일 운영에 들어갔으며 업무 안정화 기간을 거쳐 오늘 정식으로 개소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br/> <br/>완화의료병동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이 중심이 되어 암 투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우울·무기력감·두려움·섬망 등의 정서적 측면, 통증·보행 장애·식생활의 어려움 등의 신체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을 평가하고 이에 맞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r/> <br/>탁승제 병원장은 격려사에서 "췌장암 말기로 1년 간 치료를 받던 환자를 기억한다. 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아픔을 지켜보며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새삼 깨달았다"며 "아주대병원은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83.txt

제목: 제주조릿대, 만성대장염·대장암 등에 효과  
날짜: 20151022  
기자: 박찬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5420736  
본문: 제주조릿대가 만성대장염과 대장암 등의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조릿대는 제주도 한라산에서 광범위하게 자생하는 벼과의 토종식물로 다당류와 아미노산, 폴리페놀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br/> <br/>농촌진흥청은 22일 이화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제주조릿대의 대장 건강 개선 기능성 규명 및 효능 평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제주조릿대가 장내 염증을 완화하고 대장암 줄기세포를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br/> <br/>연구진이 제주조릿대의 잎 추출물을 염증 부위에 처리한 결과 염증성 물질인 산화질소, 프로스타글란딘 E2, 인터루킨-6의 발생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정상 쥐와 만성염증성 장염 쥐, 만성염증성 장염 유도 후 제주조릿대 추출물을 먹인 쥐로 나눠 대장염 발생을 확인해보니 제주조릿대 추출물을 먹인 쥐가 먹이지 않은 쥐에 비해 대장염 발생이 억제됐고, 대장 조직의 손상이 약 40% 감소했다. <br/> <br/>제주조릿대 추출물을 먹인 쥐는 만성염증성 장염 쥐에 비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줄고, 항산화 효소인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아제와 카탈라아제 활성이 각각 28.1%, 44.7% 증가했다. 대장암 줄기세포에 제주조릿대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줄기세포의 자기재생능력과 줄기세포 마커들이 감소하고 세포분화는 증가해 암 줄기세포 억제 효과가 있었다. <br/> <br/>황경아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연구사는 “제주조릿대 연구결과는 앞으로 염증 및 암 예방이나 치료법 개발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84.txt

제목: 국립암센터발전기금, '국제소롭티미스트 한남클럽 후원금 전달식' 가져  
날짜: 2015102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5339263  
본문:   <br/> <br/> <br/>국립암센터발전기금은 22일 오전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소롭티미스트 한남클럽 바자회 수익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br/> <br/>지난 9월17일 국제소롭티미스트 한남클럽 주관으로 진행된 바자회 수익금 1600만원이 국립암센터 소아암 여자 환아 3명과 여성암 환자 1명에게 후원금으로 전달되었으며, 이날 전달식에는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 이혜림 국제소롭티미스트 한남클럽 회장, 환자 보호자 등이 참석하였다. <br/> <br/>소롭티미스트는 여성들로만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자원봉사 단체로서 라틴어의 Soros(여성)와 Optima(최고)가 합쳐진 최상의 여성이란 뜻으로 1921년 미국에서 설립되었다. <br/> <br/>국제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의 27번째 클럽인 한남클럽은 2011년 4월에 출범하였으며, 현재 2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br/> <br/>국제소롭티미스트 한남클럽은 출범 이후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및 연례바자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연례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국립암센터에서 치료 중인 소아암 환자를 위해 매년 기부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85.txt

제목: 한·미 공동 연구팀, 전이성 뇌종양 표적치료 새 길 열다  
날짜: 2015102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5324964  
본문:   <br/> <br/> <br/>전이성 뇌종양과 원발암은 유전자 변이 과정에서 각각 다른 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서울대학교병원은 신경외과 백선하, 병리과 박성혜 교수, 미국 하버드의대 부속병원(MGH) 종양내과 프리실러 브라스티아노스 교수(Dr. Priscilla Brastianos), 미국 다나파버 암연구소 종양내과 윌리엄 한 교수(Dr. William Hahn) 공동 연구팀은 전이성 뇌종양의 맞춤치료에 새 길을 여는 유전적 특징을 밝혔다고 22일 밝혔다. <br/> <br/>이 연구 결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인 '캔서 디스커버리(Cancer Discovery)' 온라인판 9월호에 발표됐다. <br/> <br/>연구팀은 전이성 뇌종양 환자 86명(원발암은 폐암 38명, 유방암 21명, 신장암 10명, 기타암 17명)을 대상으로 전이성 뇌종양과 원발암의 유전자 변이 양상을 분석했다. <br/> <br/>원발암은 암세포가 처음으로 발생한 부위의 암이다. 이 암세포가 뇌로 전이되면 전이성 뇌종양이다. 예컨대 암세포가 폐에 처음 생겼으면 원발암은 폐암이며 이 암세포가 뇌에 전이되면 전이성 뇌종양이다. <br/> <br/>그 결과 전체 대상자 중 53%(46명)에서 전이성 뇌종양이 원발암과 다른 유전자 변이를 나타냈다. 즉 같은 암세포라도 원발 부위와 전이된 뇌 부위의 암세포 유전자 변이가 서로 다른 것이다. <br/> <br/>이는 전이성 뇌종양의 표적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발견으로 전이성 뇌종양만이 가지는 변이의 특성에 맞게 표적치료 계획을 세워야 함을 의미한다. <br/> <br/>연구팀은 또한 전이성 뇌종양끼리는 동일한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 변이는 원발암은 물론 머리 외 부위 및 림프절로 전이된 종양에서도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전이성 뇌종양만의 특징이었다. <br/> <br/>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는 "기존의 전이성 뇌종양 환자의 표적치료는 원발성 종양의 결과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전이성 뇌종양에서 원발성 종양에는 없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큰 유전자 변이들을 발견했다"며 "이는 향후 전이성 뇌종양 연구와 치료법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r/> <br/>전이성 뇌종양은 악성종양으로 최근 환자가 늘고 있지만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해 치료는 제한적이었다. <br/> <br/>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과 MGH병원 간의 2013년부터 시작된 협력의 결실이다. 양 기관은 2013년부터 6차례의 화상회의를 통해 환자의 증례와 치료법을 교환해왔다. <br/> <br/>최근에는 연구협력을 강화했으며 현재 다수의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는 첫 구체적인 성과로 앞으로 뇌종양 치료에 도움이 되는 많은 연구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86.txt

제목: 연세암병원, 환자와 가족 위한 간암 공개강좌 개최  
날짜: 2015102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5239256  
본문: 연세암병원 간암센터(센터장 최진섭)은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부터 병원 지하3층 서암강당에서 '환자와 가족을 위한 간암 공개강좌'를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br/> <br/>'간암 베스트팀'이 간암의 예방과 치료, 수술과 간이식, 방사선치료, 식이요법 등 간암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망라해 제공할 예정이다. <br/> <br/>강좌에서는 ▲간암의 예방과 조기진단(소화기내과 김범경 교수) ▲간 절제수술 및 이식수술의 이해(간담췌외과 한대훈 교수) ▲간암 인터벤션 치료(영상의학과 원종윤 교수) ▲암지식정보센터 즐기기(방사선종양학과 금웅섭 교수) ▲웃음치료(정은경 웃음치료사) ▲방사선치료는 언제 필요할까요?(방사선종양학과 성진실 교수) ▲건강한 식사로 암을 이기자!(영양팀 오금례 영양사) ▲항암약물치료로 간암을 치료할 수 있나요?(종양내과 최혜진 교수)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간암 이겨내기(암예방센터 박지수 교수) 강의가 시행된다. <br/> <br/>무료강좌이며 간암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87.txt

제목: 충북대병원 ‘방사선 암 치료기’ 입찰 잡음  
날짜: 20151021  
기자: 김을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5111215  
본문: 충북대병원의 초정밀 선형가속기(방사선 암 치료기) 도입 과정에서 불공정 입찰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br/> <br/>21일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 7월 9일 초정밀 선형가속기 시스템 1세트 구매를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br/> <br/>충북대병원이 최저가 경쟁 입찰로 선형가속기 도입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br/> <br/>국내에서 암 치료용 선형가속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미국 V사의 독점 대리점인 H사와 스웨덴 의료기기 업체인 L사 두 곳뿐이다.두 업체 중 한 곳이 입찰 조건에서 밀리면 곧바로 다른 업체와 계약이 성사되는 구조인 셈이다. <br/> <br/>이런 상황에서 충북대병원의 입찰은 3개월이 넘도록 낙찰자를 찾지 못했다. 그 사이 입찰 공고만 6차례나 이뤄졌고, 결과는 매번 유찰이었다. 공고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납품 업체 2곳 중 한 업체가 입찰에 불참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던 것이다. 4차 공고 때는 두 업체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br/> <br/>그러자 H사는 ‘이번 입찰의 위법·부당함을 시정해달라’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H사는 민원 청구서에서 “<span class='quot0'>충북대병원은 입찰 공고문에는 없었던 요구를 하는가 하면 1∼4차 공고에서는 병원 소속 의료인 5명의 2주간 해외 교육을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는 리베이트 요구로 명백한 불법</span>”이라고 주장했다. <br/> <br/>H사는 또 “<span class='quot0'>입찰이 연속으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입찰에 성실히 참여한 업체와 수의계약 협의를 하거나, 재공고 혹은 입찰 요건을 완화해 새 공고를 내야 하는데 충북대병원은 오히려 입찰 자격을 더 까다롭게 변경했다</span>”며 의문을 제기했다. <br/> <br/>그러면서 “충북대병원이 의도적으로 L사를 밀어주기 위해 우리의 입찰 참여를 방해하하면서 위법·부당한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며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이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r/> <br/>충북대병원 측은 “<span class='quot1'>공고 규격서 작성 때 기본적으로 제안장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해외 교육 지원 역시 장비 특성상 필요하면 추가교육을 받기 위한 항목</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비용은 참석자 부담이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될 수 없다</span>”고 반박했다. <br/> <br/>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88.txt

제목: 건강검진 후 '결과지' 주의 깊게 봐야 할 항목은?  
날짜: 2015102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4940233  
본문:   <br/> <br/> <br/>직장인 황모(39)씨는 최근 급격히 피곤하고 가라지는 듯한 증상이 계속돼 건강검진을 받았다. 특별히 어느 부위가 아픈 건 아니어서 어느 진료과를 갈지도 모른 채 진료를 미루다 큰맘 먹고 병원을 찾은 것이다. <br/> <br/>그러나 건강검진 후 결과지를 받은 황 씨는 각종 수치로 표시된 결과를 보고 해석에 어려움을 느꼈다. 복잡한 건강검진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건강검진센터 김어진 소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br/> <br/>◆ 종합소견 정상B, 식생활습관 등 적극적 관리 필요 <br/> <br/>제일 앞장에 있는 '나의 건강검진 종합소견은?' 부분에는 종합적인 소견이 표시돼 있다. '정상A',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 '유질환자'로 분류가 돼 있고 본인의 소견에 V표시로 체크된다. <br/> <br/>정상A는 건강이 양호한 사람, 정상B는 경계수치로 식생활습관, 환경 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사람, 일반 질환 의심은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의사를 통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 2차 검진 대상은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유질환자는 이미 진단된 질환으로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br/> <br/>판정란 밑으로는 '바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검진자가 가지고 있는 이상소견과 그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다. <br/> <br/>바로 조치 부분에는 일반질환 의심 소견들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소견, 유질환 소견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견들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고 의사와 상의하거나, 적혀 있는 권고들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 관리 부분에는 정상B에 해당하는 것들이 주로 기록돼 있으므로 권고들에 따라 식생활 습관 및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br/> <br/>◆ 당뇨수치 100미만, 혈압수치 120/80 미만이 정상 <br/> <br/>두 번째 장에는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각 검사 항목들이 막대그래프로 표시돼 있다. 각 항목들의 정상A와 정상B, 질환의심 사이 기준이 되는 수치가 숫자로 그래프에 표시돼 있고, 네모 상자 안의 수치가 본인의 검사 결과다. 네모 상자가 그래프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을수록 정상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br/> <br/>고혈압 검사인 혈압의 정상수치는 수축기혈압(윗혈압)이 120mmHg 미만, 이완기혈압(아랫혈압)이 80mmHg 미만이며 수축기혈압 또는 이완기혈압이 둘 중 하나라도 120 또는 80이면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된다. <br/> <br/>고혈압 기준은 수축기혈압 140 이상 이완기혈압 90 이상으로 고혈압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2차 검진(혈압 측정)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2차 검진 항목인 공복혈당(당뇨병 검사)은 100mg 미만이 정상수치이며, 100부터는 당뇨병 전단계인 공복혈당 장애에 속한다. 126부터는 당뇨병이 의심되는 수준이다. <br/> <br/>비만에 대한 검사로는 체중을 키(m, 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와 허리둘레를 시행한다. 체질량 지수는 남녀 모두 18.5부터 25 미만까지 정상이며, 25부터는 비만, 30부터는 고도비만으로 판정한다. 허리둘레는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을 복부비만으로 본다. <br/> <br/>이상지혈증(고지혈증) 검사는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로 이뤄져 있다. 정상 기준은 총콜레스테롤이 200mg/dL, 중성지방이 150mg/dL, LDL콜레스테롤이 130mg/dL을 넘지 않아야 한다. <br/> <br/>총콜레스테롤 230, 중성지방이 200, LDL콜레스테롤이 150이상부터는 '질환의심' 소견으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은 60 이상이 정상 소견이며 40 미만은 이상 소견으로 본다.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것만으로는 대체로 약물 치료는 하지 않으나, 꾸준한 운동 및 건강한 식습관 관리를 해야 한다. <br/> <br/>신장질환 검사는 요단백과 혈청크레아티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혈청크레아티닌 수치를 가지고 '신사구체여과율(e-GFR)'을 계산한다. 요단백은 음성이 정상이며 약양성은 경계수치로 다시 한 번 소변 검사를 권하고, 양성(+1)부터는 신장질환이 의심된다. <br/> <br/>혈청 크레아티닌은 신장의 기능을 나타내는 주요 검사 항목으로 질환 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검사를 해야 한다. <br/> <br/>특히 주의해서 봐야할 항목은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요인들이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허리둘레 남자는 90cm 이상/여자는 85 cm 이상), 높은 혈압(130/85mmHg 이상), 높은 혈당(100mg 이상), 높은 중성지방(150mg/dL 이상), 낮은 HDL 콜레스테롤(남자는 40mg/dL 미만/여자는 50mg/dL 미만) 중 세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br/> <br/>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김어진 건강검진센터 소장은 "대사증후군인 사람은 당뇨병, 심혈관계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암 등의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 절주하고, 폭식하지 않으며,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89.txt

제목: 노바티스 '아피니토', 치료군 생존기간 유의하게 개선  
날짜: 2015102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4840570  
본문: 한국노바티스는 위장관 또는 폐에서 발생한 신경내분비종양(NET) 환자들을 대상으로 노바티스의 표적항암제 아피니토(Afinitor 성분명: 에베로리무스, everolimus)의 효능을 입증한 제3상 임상인 RADIANT-4 연구결과가 공개됐다고 21일 밝혔다. <br/> <br/>RADIANT-4는 위장관 또는 폐에서 발생한 진행성,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302명을 대상으로 위약군 대비 아피니토의 효능 및 안전성을 입증한 연구다. <br/> <br/>이에 따르면 아피니토는 위장관 또는 폐에서 발생한 신경내분비종양((NET; neuroendocrine tumors) 환자들에게서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의 무진행 생존기간(PFS: Progression-free survival) 중앙값은 11개월을 기록해, 위약군이 기록한 3.9개월 대비 유의미하게 높았다. <br/> <br/>또한 아피니토는 위장관 또는 폐에서 발생한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의 질병진행위험(HR: Hazard Ratio)을 위약군 대비 52%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아피니토를 투여한 환자들의 64%에서 종양이 감소했으며, 위약군이 기록한 26% 대비 높았다. <br/> <br/>이번 임상연구에서 이상반응(AE: Adverse Events)은 아피니토의 기존 안전성 프로파일과 일치했다. 아피니토 및 위약 투여 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3-4급 이상반응(>5%)은 구내염, 설사, 감염이었다. <br/> <br/>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2015 유럽암학회(ECC: European Cancer Congress)에서 발표되었다. <br/> <br/>미국 텍사스대학교 부설 엠디 앤더슨 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의 제임스 야오(James Yao) 의과대학 교수는 "위장관 또는 폐에서 발생한 신경내분비종양은 희귀하고 공격적인 암으로써 치료방법이 제한적"이라며 "이번 연구결과는 치료가 까다로운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 대한 아피니토의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이번 RADIANT-4 임상에 참여한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영석 교수는 "아피니토가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연장한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며 "위장관 또는 폐에서 발생한 신경내분비종양을 앓는 환자들의 생존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신경내분비종양(NET)은 신체기능을 조절하는 다양한 호르몬을 생성·분비하는 신경 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희귀암으로 위장관, 폐 또는 췌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된다. <br/> <br/>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functional NET)과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nonfunctional NET)으로 분류되며,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의 경우 종양의 증식으로 인해 장 폐색, 통증 및 출혈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진단 시, 위장관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의 5%-44%, 폐 신경내분비종양환자의 28%가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된다. <br/> <br/>RADIANT-4 임상시험은 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상 최대 규모 임상프로그램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장관 또는 폐에서 발생한 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의 치료에 아피니토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적응증 추가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br/> <br/>아피니토는 췌장에서 기원한 국소진행성, 전이성 또는 진행성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로 세계 95개국에서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br/> <br/>국내에서 아피니토는 진행성 신장암 치료제, 결절성경화증과 관련된 뇌실막밑 거대세포성상세포종 치료제, 췌장에서 기원한 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 1차 치료제로 식약처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2013년 1월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되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90.txt

제목: [메트로 통신] 구로, 국제어린이영화제 개최 외  
날짜: 20151021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4749445  
본문: 구로, 국제어린이영화제 개최 <br/> <br/>서울 구로구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제3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네 꿈을 펼쳐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개막식이 열리는 고척스카이돔을 비롯한 구로아트밸리, 구민회관 등에서 다양하게 열린다.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이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이번 영화제에는 개막작 ‘강아지삼총사(미국)’와 폐막작 ‘폴라로이드(주호성 감독)’ 등 경쟁작 39편, 초청작 62편 등 약 40개국의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선보인다. <br/> <br/>중랑, 서울 최대 인공암벽장 개장 <br/> <br/>서울 중랑구는 22일 용마폭포공원 내에 인공암벽장 ‘중랑스포츠클라이밍’을 개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제 공인 규격에 맞춰 시공돼 국제대회도 치를 수 있는 이 암벽장은 서울 최대 규모로 높이 17m, 폭 30m에 달한다. 실내 암벽도 갖춰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암벽등반을 즐길 수 있다. 암벽장은 초·중·고급으로 구분돼 청소년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암벽장은 올해 말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된다. 22일 준공식에는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송한내래 선수가 시범 등반자로 나선다. <br/> <br/>영등포,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도입 <br/> <br/>서울 영등포구는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생활임금조례를 제정·공포한 데 이어 12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종 결정된 생활임금 액수는 시급 7145원(월급 약 149만3000원)이다.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1115원이 많은 액수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구청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직접채용 근로자로 약 420명이 될 전망이다. 구는 22일 생활임금안 결정 고시를 거쳐 생활임금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91.txt

제목: [현장메모] 젊은이·노인 없었던 '저출산·고령사회 공청회'  
날짜: 20151019  
기자: 이재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4312743  
본문: “몇 개의 정책과 정부의 고민만으로는 어렵다. 우리 사회 모두가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나갈 때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br/> <br/>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 환영사를 통해서다. 하지만 울림이 약한 호소였다. 오히려 정부가 과연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에 드리운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을 걷어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심지어 고민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br/> <br/>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이날 공청회장(국제회의실)에는 150석이 마련됐지만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다. 이름이 적힌 지정석 자리도 태반이 비었고, 그나마 참석자도 대부분 지정토론자와 취재진이었다. 토론 준비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지정토론자 30명 중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과 정책본부장,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을 빼곤 모두 공무원과 연구원, 교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공청회’라면서 정작 젊은이나 노인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공청회 내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정부의 고민에 대한 칭찬이나 이론적인 비판에 그치는 토론이 주를 이뤘다. ‘왜 일반 시민이나 다양한 청년·노인 단체 쪽 인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주최 측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span>”고 해명했다. 지정토론자 15명의 토론문을 담아 엮기로 했던 보고서도 8명이 빠졌다. 한 지정토론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자료를 주고 토론문을 발제하라고 해서 평소 대학 강의에서 쓰던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넣었다”며 양해를 구할 정도였다.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에게 암 진단을 요구한 꼴이다. <br/> <br/> 이재호 사회부 기자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여론이 냉담한 이유는 국민의 절박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혼 장려를 위해 신혼·예비 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높이고 대출 가능자를 늘리겠다는 방안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는 반발을 샀다. 지자체가 나서서 미혼남녀 간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고, 임신·출산에 드는 의료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비웃음만 샀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를 넘어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세대’가 왜 생겨나는지, 정부의 진단과 처방은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다. 최악의 취업난과 치솟는 전세·월세난에 치이는 데다 적은 비용으로 안심하게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드물고 엄청난 사교육비에 시달리는 게 우리 현실이다. <br/> <br/>상황이 이런 데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본계획 시안에서 “<span class='quot1'>3차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오는 2020년에는 출산율 1.50명, 2030년에는 1.70명, 2040년에는 2.1명에 도달한 뒤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pan>”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br/> <br/>박근혜정부가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과 ‘자살률 1위 국가 탈출’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마련했어야 하는 ‘제3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은 아직까지 수립조차 하지 못했고, 지난해 이미 열렸어야 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회의도 지난 2월에야 뒤늦게 개최됐다. 정부가 매번 한 박자씩 늦은 자세로 일관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키우게 될 것이다. <br/> <br/>이재호 사회부 기자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92.txt

제목: 암 환자 母 위해 '병원 결혼식'…딸 효심에 네티즌 감동  
날짜: 20151019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4233505  
본문:   <br/> <br/> <br/>췌장암 말기 엄마를 위해 병원 결혼식을 올린 부부 사연이 뒤늦게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다. <br/> <br/>지난 여름, 스코틀랜드에 사는 사라 도슨(22·여)은 내년 여름 남자친구 마크와 결혼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엄마 로잔(51)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로잔은 즉시 램버트에 있는 포트 밸리 왕립병원에 입원했다. 두 사람은 고심 끝에 결혼 시기를 오는 10월31일로 앞당겼다. <br/> <br/>그러나 날이 갈수록 로잔의 상태는 나빠졌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병원은 사라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전했다. 사라는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됐다. <br/> <br/>생각 끝에 사라는 마크에게 “결혼식을 더 앞당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크는 엄마를 생각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엄마를 위해 결혼식을 앞당기자는 여자친구의 말을 마크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 <br/> <br/>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간호사들이 병실과 복도를 꾸미고, 곳곳에는 화분이 놓였다. 사라와 마크의 사랑을 맹세할 자리는 로잔이 누운 침대 옆으로 정해졌다. <br/> <br/>문제가 있었다. 사라가 입기로 한 웨딩드레스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라는 지난 6월, 엄마와 드레스를 직접 골랐다. 그래서 반드시 입을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드레스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에 사라는 절망했다. <br/> <br/>사라의 사연을 접한 웨딩샵은 최대한 빨리 드레스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뤄졌다. 사라에게 힘을 주기 위해 웨딩샵은 요청하지도 않았던 구두와 부케까지 선물로 건넸다. <br/> <br/> <br/> <br/>사라와 마크의 결혼식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거행됐다. 이날 간호사들은 서로 손을 잡고 위로 들어 사라가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해줬다. 각종 장신구로 꾸미지는 않아도 소박한 신부 입장통로였다. <br/> <br/>사라와 마크는 로잔이 누운 침대 옆에서 사랑을 맹세했다. 이들을 지켜보던 로잔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고통을 참느라 로잔은 힘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엄마를 쳐다본 사라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br/> <br/>사라는 “<span class='quot0'>엄마와 우리가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엄마가 우리의 결혼식을 놓치지 않고 본 것은 정말 큰 힘이 됐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사라와 마크의 결혼식을 지켜본 로잔은 며칠 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게는 현재 두 자녀가 있다. <br/> <br/>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메트로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93.txt

제목: 면역력 떨어뜨리면, 방광암 재발 예방·치료 가능하다고?  
날짜: 2015101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4101401  
본문: 중앙대병원 비뇨기과 김진욱, 장인호 교수. <br/>방광암은 전체 남성 암 중에서 9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3000건 이상의 방광암 환자들이 새로 발생하는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4배가량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대부분의 방광암 환자들은 종양세포가 근육까지 침투하지 않은 '비근침윤성 방광암'으로 근침윤성 방광암에 비해 치료 및 예후가 좋지만, 이들 비근침윤성 방광암 환자의 무려 70%가 방광 내 암 재발을 경험한다. <br/> <br/>이에 따라 비근침윤성 방광암 환자들은 한번의 방광암 수술로 완치되는 경우가 적으며, 주기적으로 재발이 발생하는지 면밀한 관찰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재발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결핵 예방 백신인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방광 내 주입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br/> <br/>BCG는 결핵균을 자연감염 효과를 모방해 만든 약독화(弱毒化)한 생백신으로, 방광암 재발률을 70%에서 20%로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그런데 이런 BCG 백신의 방광 내 주입으로 인해 결핵균에 대한 자연적인 인체의 면역 기전이 작용해 방광염, 혈뇨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BCG 백신을 거부해 방광암 재발을 낮추기 위한 효과 또한 경감시키는 것으로 최근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br/> <br/>중앙대학교병원 비뇨기과 김진욱·장인호 교수팀은 우리 몸의 자연 면역 물질 중 하나인 'HBD(Human Beta Defensin)'가 방광암 치료와 예방 효과를 높이는 BCG 백신에 대해 방어기제로 작용해 방광암의 치료 및 예방 효과를 경감시킨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 논문을 최근 발표했다. <br/> <br/>'HBD(Human Beta Defensin)'는 인체의 자연 면역 반응 중 최선두에서 작용하는 자연 면역 기전으로, 이중 HBD-1은 상시적으로 다양한 조직에서 발현되고 있으며, HBD-2, HBD-3, HBD-4 형은 염증 반응에 따라 방어적으로 기용되어 발현된다. <br/> <br/>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방광암 세포에 BCG 백신을 노출한 결과, 인체의 자연 면역 기전인 'HBD(Human Beta Defensin)' 중 HBD-2가 방광 내 BCG 주입을 통한 치료에 대한 방어기제로 작용해 방광암 세포가 BCG를 수용하는 비율이 40.97%에서 27.97%로 감소해 방광암 치료 효과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확인했다. <br/> <br/>특히 HBD-2에 대한 항체를 통해 HBD-2의 자연 면역 효과를 막을 경우, BCG를 수용하는 비율이 오히려 56.7%로 증가하여 방광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또한 이와 유사하게 몸의 자연적인 방어기전이 방광암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가지는 BCG에 대해 HBD-3로 인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안정적인 방광 세포 안으로의 수용 과정을 차단하게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br/> <br/>연구팀은 실험 결과, HBD-3가 방광암 세포의 BCG 수용 효율을 27.31%에서 12.12%로 저하시켰으며, 다시 이를 항체로 막을 경우 49.57%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다. <br/> <br/>김진욱 교수팀은 특히, HBD-2는 소변에서와 같은 고장성(高張性) 용액에 그 효과가 저하되는데 비해, HBD-3는 용액의 염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용하므로, 실제 방광 내의 환경에서는 오히려 HBD-3가 BCG의 수용을 저해하는 더 유의한 인자일 것으로 예상했다. <br/> <br/>중앙대병원 비뇨기과 김진욱 교수는 "HBD-3은 몸에 해로운 발현이 아님에도 방광암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인 BCG 백신 사용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 오히려 약물의 수용을 저해하는 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치료 효과를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이어 김 교수는 "본 연구진에 의해 이러한 면역 조절 기전이K 확인됨에 따라 면역 기전을 제어함으로써 향후 BCG 수용이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이나, BCG가 방광암 재발을 낮추게 하는 기전 등 방광암의 재발을 낮출 수 있는 연구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r/> <br/>한편 김진욱 교수는 이번 연구 논문을 발표해 지난 8월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94.txt

제목: 세월호 참사 희생자 故정다혜 양 아버지, 대장암 투병 중 사망  
날짜: 20151018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3905407  
본문: 세월호 참사로 숨진 고(故) 정다혜 양의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투병하다 끝내 사망했다. <br/> <br/>정씨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 대장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다. 하지만 참사 이후 재발돼 항암치료를 받아왔고, 최근 폐까지 암 세포가 전이돼 지난 17일 숨을 거뒀다. <br/> <br/>정다혜 양의 시신은 참사 발생 18일 만인 지난해 5월4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br/> <br/>정씨 부부는 지난해 8월부터 고향인 강원도 영월로 내려가 생활해왔다. 살던 집에서는 다혜 양의 빈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br/> <br/>정씨의 빈소는 안산 고대병원 111호실에 마련됐으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발인은 19일이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95.txt

제목: '애인있어요' 김현주,뽀얀 살결 드러낸 역대급 노출 화보'화들짝'  
날짜: 20151018  
기자: 이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3756412  
본문:   <br/> <br/> <br/>배우 김현주가 출연한 드라마 '애인있어요'가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김현주의 과거 화보가 새삼 화제다. <br/> <br/> '애인있어요' 김현주는 2010년 '싱글즈' 10월호에서 상반신 누드를 찍었다. '유방암 의식 향상 캠페인'을 위해 의미 있는 '누드 촬영에 임했다. <br/> <br/> 김현주는 당시 암을 이긴 여성들과 함께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사진에서 김현주는 가슴을 손으로 감싸고 밝은 미소를 보이고 있다. <br/>  <br/>한편 김현주는 SBS 주말드라마 '애인있어요'에서 1인 2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애인있어요’는 기억을 잃은 여자가 죽도록 증오했던 남편과 다시 사랑에 빠지는 동화 같은 사랑과 절망의 끝에서 운명적으로 재회한 극과 극 쌍둥이 자매의 파란만장 인생 리셋 스토리를 담은 드라마이다. <br/> <br/> 임수연 기자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96.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건강할 때 난자 얼려 보관한다고?  
날짜: 20151017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3624209  
본문: 최근 만혼(晩婚)이 증가하면서 고령 출산에 대비해 좀 더 건강한 아이를 낳고자 난자 동결에 관심을 보이는 미혼 여성들이 늘고 있다. 난자 동결은 난자를 채취해 얼려서 보관했다 훗날 임신하고 싶을 때 녹여서 사용하는 기술이다. 실제 2~3년 사이 난자 동결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30대 중후반 여성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노산 부작용에 대한 걱정과 출산을 잠깐 미루고 경력을 잇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br/> <br/> 난자은행은 본인의 난자를 동결 보관했다 훗날 임신하고 싶을 때 해동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기능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만혼 증가로 좀 더 젊을 때 건강한 난자를 보관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와 맞물려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br/> <br/>17일 업계에 따르면 여성의 가임력은 20대 때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35세 이후부터 급감하고, 40세가 넘게 되면 자연임신의 가능성이 5% 정도로 떨어진다. 또 여성의 난자는 노화에 민감해 나이가 들수록 염색체 이상이 증가하고 유산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br/> <br/>결혼과 출산 연령이 갈수록 늦춰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춰 난자동결과 같은 가임력 보존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조언한다. <br/> <br/>난자동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난자를 얻기 위해 약 2주간의 과배란 유도와 난자 채취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시험관 아기 시술 시 이뤄지는 과정과 유사하며, 난자의 채취는 수면마취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통증은 거의 없다. <br/> <br/>이후 난자의 동결이 이뤄지며 동결된 난자는 생물학적으로 안정적인 초저온 상태에서 보존돼 여성들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br/> <br/>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난자는 35세 이후 급격히 그 수와 질이 떨어지므로 양질의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보다 젊은 나이에 난자 채취와 동결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br/> <br/> 이처럼 난자 동결을 고민하는 미혼 여성 대부분은 전문직에 종사하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30대 중후반 골드미스들이다. 이들은 당장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 일종의 보험처럼 난자 동결을 고민한다. <br/> <br/>또 이들 중에는 직장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난자를 동결하려는 이도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국내 한 로펌에서 근무하는 김모(36·여)씨는 "직장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 육아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큰 족쇄이기도 하다"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여유를 갖고 아이를 낳고 싶다"고 밝혔다. <br/> <br/>여성들이 난자 동결에 나선 데는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달한 배경도 있다. 원래 난자 동결은 암 환자나 조기 폐경을 앞둔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시술인데, 전에는 얼리는 과정에서 난자 손상이 심했다. 요즘 이용되는 '유리화동결법'(Vitrification)은 액체 질소를 이용, 난자를 아주 빠른 속도로 얼려 손상이 그리 크지 않다. <br/> <br/>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난자를 채취해 동결하는 데 약 300만원이 든다. 보관 비용은 1년에 10만원 정도다. <br/> <br/> 미국 등 해외에서 난자 동결은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미국 페이스북과 애플은 임신을 미루는 여직원들에게 사내 복지로 난자 동결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국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br/> <br/>국내의 경우 문의는 늘고 있지만 실제로 난자 동결에 나서는 여성들은 그리 많지 않다. 난자 동결 기술을 가진 국내 유명 병원인 서울 차병원의 경우에도 난자를 동결 보관 중인 미혼여성은 36명(2012년 기준) 정도다. <br/> <br/>무엇보다 비용과 시간이 부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난자 채취를 위해 열흘 가까이 배란을 유도하는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이 많아 상담은 해도 정작 시술에 나서는 미혼 여성은 10명 중 1명 꼴"이라고 말했다. <br/> <br/>주위에서 보는 시선도 그리 고운 편은 아니다. 실제 시술에 나서는 여성이 적더라도 시술을 이용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려는 여성들이 나타난 현상 자체를 두고 흥미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br/> <br/> 이웃나라 일본의 지자체가 여성의 난자를 동결 보관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는 저출산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br/> <br/>일본 지바(千葉)현 우라야스(浦安)시가 나이가 든 뒤의 불임을 피하기 위해 건강한 여성이 자신의 난자를 동결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린세스 뱅크’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br/> <br/>우라야스시는 난자를 동결 보관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라야스시는 관내에 있는 준텐도(順天堂)대 우라야스병원과 연계해 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대학병원과 연대해 난자 동결 보관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br/> <br/>우라야스시는 지금 당장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지만, 장래에 출산을 하고자 하는 20~35세 여성의 난자를 동결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암이 발견돼 항암치료를 받게 된 여성이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불임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동결 보존도 염두에 두고 있다. <br/> <br/>우라야스시의 이런 정책은 만혼과 만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자의 노화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출산을 뒤로 미루는 풍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97.txt

제목: 현직의사‘암환자 돈내는 마루타?’발언에 환자와 가족은 슬픔 넘어 분노  
날짜: 20151016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3440399  
본문:   [사진설명: 충북의대 한정호 교수의 블로그에 올라 온‘환자가 돈내는 마루타? 넥시아 등 한방신학의 진실’ 글 전문 캡처] <br/>지난 8월 26일 청주지방법원에서 항암말기 한방치료제 넥시아의 최원철 박사를 비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피소된 충북의대 한정호 교수가 암환우를 마루타로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br/> <br/> 현직 내과의사인 한 교수의 블로그에 따르면 ‘환자가 돈내는 마루타? 넥시아 등 한방신학의 진실’이라는 글에서 넥시아 등 한방 신약을 비난하며 암환자를 마루타로 비유했다. <br/> <br/> 한의사 출신도 아니고 암에 대한 연구 논문을 집필한 적이 없는 한 모 교수는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을 통해 넥시아와 최원철 교수를 비방 글을 게재한 것은 물론 한의학을 주술이나 미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비난해왔다. <br/> <br/> 한 교수가 이러한 행위로 분란을 일으킨 목적이 무엇이고 이유야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현재 청주지방법원에서 최원철 박사에 대한 인터넷 비방 명예훼손 혐의로 11월 13일 최종 결심을 앞두고 있다. <br/> [사진 설명 : 넥시아 논란 유발하는 한정호 교수와 의사협회는 각성하라’는 이슈청원 서명운동 사이트] <br/> <br/> 그러한 가운데 한 교수는 최 박사와 넥시아의 비방에 대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세상의 이목을 끌고 자신의 글을 합리화하고자 암환자를‘돈 내는 마루타’라고 비유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받고 있다. <br/> <br/> 실제적으로 넥시아를 복용해 암을 완치한 57명의 암환자가 15년째 생존해 있는데도 넥시아를 복용하거나 복용했던 암환자를 한 교수는 ‘돈 내는 마루타’라고 서술한 셈이다. 양방의료계는 이들의 장기생존 성공을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하는 분위기이다. 한 교수는 소화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다며 아예 조롱을 해버린바 있다. 실제 2015년 1월 KBS는 양방이 이제 1년 생존벽을 넘었다고 아예 대못을 박을 정도이다.[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115179&sid1=001 ] <br/> <br/> 부인이 뇌암으로 투병중인 암혼자 가족인 설 모씨는 " 암환자와 암환자 가족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수 없을정도로 엄청나다. 비싼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고 말했다. <br/> <br/> 그러므로 암환자나 암 환자 가족들은 주변의 말 한마디와 자극에 예민하며 심한 경우 큰 분노와 좌절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행위의 주체가 일반인이 아닌 현직 의료관계자라면 더 큰 상처와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에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br/> <br/> 이에 대해 대한암환자완치협회 회원인 이한식 씨는 “<span class='quot0'> 자신의 아들이 말기 소아백혈병으로 고생하다 넥시아 복용 후 완치되어 15년째 생존해 있다</span>” 며 “<span class='quot0'> 항암투병 시 어려웠던 자신의 아픔과 아들의 고통은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현직 내과인 한 모 교수가 ‘돈 내는 마루타’라고 발언한 것은 슬픔을 넘어서 분노를 느낀다</span>”고 말했다. <br/> <br/> 또한 대한암환우협회 이정호 회장은“처음에 “넥시아의 진실 밝힐 수 있다면 검찰조사 백 번이라도 받겠다”라고 말하던 한정호 교수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돌아가자 도리어 자신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는 부분들은 교묘히 감추고, 넥시아에 대한 표현이 과격했다는 점만 부각시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본인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br/> <br/> 한편 암환자 아들을 둔 이한식 씨는“<span class='quot0'>저희 암환자들을 ‘돈 내는 마루타’, ‘황당한 한방의 주장과 그걸 믿는 불쌍한 환자들’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는데, 저희 암환자들과 가족들은 10년 가까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에 시달려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span>”고 울분을 쏟아냈다. <br/> <br/>한 교수는  '환자가 돈내는 마루타? 넥시아 등 한방신학의 진실’ 글에 대해 기자의 3번의 걸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서면상의 질문에 수신이 확인되었지만   해명이나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br/> <br/> 한편 문제의 ‘환자가 돈 내는 마루타? 넥시아 등 한방신학의 진실’의글을 올린 한 교수는 11월 13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br/> <br/>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98.txt

제목: 말기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내용 시간 지나니 ‘처음과 달라’  
날짜: 20151016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3439540  
본문: 서울대학교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교수와 혈액종양내과 김범석 교수 <br/>말기암 환자 10명 중 3명의 연명의료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과 다르게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서울대학교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혈액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는 가천대학교길병원 가정의학과 황인철 교수, 국립암센터 연구팀과 함께 이 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 ‘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 10월호에 발표했다. <br/> <br/> 연구팀은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의 말기암 환자 141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2개월 후 이 결정을 유지할 것인지 다시 물었다. <br/> <br/> 연구팀은 인공호흡기 등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료행위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 하겠다’ 와 ‘중환자실 입원을 결정하지 못했다’를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가 있다”로 정의했다. 동일한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겠다’는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가 없다”로 봤다. <br/> <br/> 그 결과, 71명(50.4%)이 연명의료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반대로 70명은(49.6%) 연명의료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br/> <br/> 2개월 후에도 71명 중 48명은 연명의료 수용을, 70명 중 46명은 반대를 각각 동일하게 밝혔다.  <br/> <br/> 즉 전체 말기암 환자 141명 중 94명(66.7%)은 연명의료 수용에 대한 처음의 결정을 유지했지만 나머지 47명(33.3%, 10명 중 3명은)은 이 결정을 바꿨다. <br/> <br/> 수용 의사의 변화는 배우자가 있는 환자가(수용은 12.4배, 거부는 7.9배) 많아 연명의료의 결정에 가족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또 신체기능이 좋은 환자는 연명의료로(5배), 신체기능이 좋지 않거나(10.6배) 삶의 질이 악화된 환자는(8.3배)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바꿨다. <br/> <br/> 윤영호 교수는 “말기암 환자는 임종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다수의 조사결과가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연명의료가 시행되고 있다. 의료진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결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br/> <br/> 윤 교수는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의료진은 사전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와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를  함께 논의하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기에 완화의료를 시행할 경우 말기암 환자의 생존기간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한다는 최근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 한다” 고 강조했다. <br/> <br/> 이 연구결과와 관련해 10월 20일(화) 오전 10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제도화’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099.txt

제목: 80년 가톨릭의료의 노하우와 은총과 평화로 은평성모병원 건립  
날짜: 20151016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3437188  
본문: 사진설명: 은평성모병원 건립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손희송 주교는16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성모병원 건립 현장을 찾았다. <br/>2018년 더 나은 미래의 선진 의료를 구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 온 은평성모병원의 건립 속도가 빨라진다. 가톨릭 의료의 오랜 역사와 노하우, 역량이 결집되고 앞선 병원의 본보기가 될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의 탄생이 멀지 않았다. <br/> <br/>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손희송 주교가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짓고 있는 은평성모병원에 80년 가톨릭 의료의 노하우를 집중해 최고의 병원을 건립할 것을 천명했다. <br/> <br/> 은평성모병원 건립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손 주교는 16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성모병원 건립 현장을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 이재오, 이미경 의원, 김우영 은평구청장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span class='quot0'>새 병원의 큰 그림인 설계와 허가를 마치는 등 건립 상황을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건축에 속도를 높일 시기라며, 짧지 않은 공사 기간 동안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span>”고 말했다. <br/> <br/> 특히 손 주교는“<span class='quot0'>우리나라 가톨릭 의료는 지난 1935년 명동에 성모병원이 세워진 이래로 국내 최대의 의료 네트워크로 성장하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 80년 동안 축적된 가톨릭 의료의 모든 역량을 은평성모병원에 이식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을 건립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손 주교는 또 “<span class='quot0'>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은평성모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하고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인술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span>”고 말했다. <br/> <br/>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이날 행사에서 고객을 위해‘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설계부터 시스템적으로 안전한 병원’,‘친환경적인 치유 환경’,‘은총과 평화가 함께하는 병원’등 4가지 분야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건립한다는‘For you(4有)’콘셉트를 발표했다. <br/> <br/> ◆‘80년 역사의 가톨릭 의료 역량을 집대성한 병원’건립 박차 <br/>은평성모병원은 겉모습부터 가톨릭 의료 역사를 계승해 건립된다. 가톨릭학원은 서울성모병원에 적용된 디자인 양식인 테라코타를 은평성모병원에도 적용해 최초로 병원 건축 분야에 패밀리 룩을 구축하고 성모 브랜드를 강화해 나간다. 겉모습뿐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인 8개 산하 병원에서 선발된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은평성모병원에 포진시킨다는 계획이다. <br/> <br/> 서울성모병원 BMT센터와 안센터 등 국내외에서 최고 수준의 센터로 평가받고 있는 센터를 은평성모병원에도 이식해 경쟁력을 확보한다. 급성기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이 부족한 지역사회의 특징을 고려해 심뇌혈관센터를 구성하고 암센터, 척추통증, 당뇨갑상선, 소화기, 폐, 뇌신경, 여성 등 14개 센터가 들어선다. <br/> <br/>이 밖에도 기존의 센터제와 다르게 임상과를 폐지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의가 협업해 동시에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장기?질환별 센터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br/> <br/> 병원 수익보다 고객 편의를 우선시하는 병실 구성도 특징이다. 기존 대형 병원 입원 시 울며 겨자 먹기로 진료비가 비싼 상급 병실에 먼저 입원해야 했던 고객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은평성모병원은 4인실 이상의 다인실 병실 비율을 약 84%로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br/> <br/> 또한 환자 간병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동인 포괄 간호 병동을 50병상 규모로 구성하고 간호사들이 모든 병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병동 곳곳에 서브스테이션을 마련했다. <br/> <br/> ◆‘설계부터 시스템적으로 안전한 병원’국내 최초 감염 제로음압 응급 센터 및 격리 외래 설계 <br/>은평성모병원의 설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계에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됐던 병원 내 감염을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응급의료센터 격리실에 이중 전실을 설치하고 응급의료센터와 감염내과에 격리 외래 개념을 설계에 도입했다. <br/> <br/> 감염 위험 환자와 일반 환자를 철저하게 분리해 병원 내 감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했다. 독립 공간으로 조성되는 격리 외래는 외래 전체에 음압 시설이 갖춰지며 방풍실을 통한 차단 구조로 구성됐다.  <br/> <br/>뿐만 아니라 진단 및 검사 장비까지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인 감염병 발생을 미리 가정해 병원 내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했다. <br/> <br/> 또한 일부 표준 병동에 음압 시설을 설치해 일반 병상 대비 음압 격리 병상 비율을 갖춰야 하는 법적 기준인 1%를 훨씬 상회하는 4.7%로 음압 격리 병상 비율을 높여 구성했다. <br/> <br/> 이 밖에도 병원 전체에 자동 수전 설비와 손 씻기 전용 세면대마다 타이머 설치, 격리 병실 출입문 손잡이에 자동 손 세척 스프레이 장착, 바닥형 화장실 물 내림 스위치 등 감염 예방을 다양한 설비가 병원 곳곳에 설치된다. <br/> <br/> ◆‘친환경적인 치유 환경’위해 기준 병실 84%, 포괄 간호 50병상 운영으로 의료비 부담 <br/>은평성모병원은 북한산이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치유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가톨릭학원은 최근 건축 부지와 연계된 6,743m2(약 2,040평)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치유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br/> <br/>또한 주변 지형을 그대로 살리는 건축 기법으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고 지열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적용해 병원이 인간뿐 아니라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까지 치유한다는 개념을 도입했다. <br/> <br/>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는 병원’으로 지역 주민, 병의원 공존 상생의 공동체 시행 <br/>은평성모병원은 최고의 의료진과 최신 시설 외에도 가톨릭 영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영성적이고 정서적인 전인 치료를 통해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는 병원을 추구한다. <br/> <br/> 가톨릭 영성을 담은 호스피스 병동을 은평성모병원에서도 운영해 고통 받는 말기 암 환자들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주 진료권 내의 가톨릭 본당과 연계된 가정간호도 실시해 환자들이 퇴원 후 집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r/> <br/> 또한 ‘함께 소중한 우리’라는 상임이사 손희송 주교의 경영 방침에 따라 지역 개원의들과 협력 관계를 맺는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병원 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형 공간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상생하는 병원으로 건립한다. <br/> <br/> 은평성모병원 진료기획단장 최종영 교수(가톨릭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는 “<span class='quot1'>가톨릭 의료기관의 역량을 집대성한 최고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설계에만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됐다.</span>”며“<span class='quot1'>설계가 완료됐고 패스트 트랙 공법(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건립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한편, 은평성모병원은 지하 6층 지상 16층의 814병상 규모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00.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손을 잡아요"…암 환자 母에 노래 부르는 네 살 소녀  
날짜: 20151015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2953245  
본문: 암 투병 중인 엄마를 위해 노래 부르는 네 살 여자아기 영상이 네티즌들을 눈물짓게 하고 있다. <br/> <br/>미국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 월킬에 사는 다이애나 스탄차크(23)는 지난 2013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다. 그가 ‘호지킨림프종(Hodgkin's lymphoma)’ 진단을 받은 것이다. <br/> <br/>악성종양인 호지킨림프종은 가슴의 통증, 기침, 호흡곤란, 복부팽만 그리고 황달 등의 증세를 동반한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경과에 따라 호지킨림프종은 1기부터 4기까지 나눈다. <br/> <br/>다이애나는 현재 4기로 알려졌다. <br/> <br/>이런 가운데 다이애나의 딸 맥켄나(4)가 최근 파티에서 엄마를 위해 노래해 주위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br/> <br/>맥켄나가 다이애나에게 불러준 노래는 지난 2011년 발매돼 인기를 끈 미국 가수 마티나 맥브라이드(Martina McBride)의 ‘아임 고너 러브 유 스로우 잇(I'm Gonna Love You Through It)’이다. 이 곡은 유방암 판정을 받은 여성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올 7월에도 암 환자 선생님을 위해 미국 뉴욕의 한 학교 학생들이 단체 불러 화제가 됐다. <br/> <br/> <br/> <br/>영상에서 분홍색 드레스 차림으로 등장한 맥켄나는 한 손에 작은 마이크를 들더니 엄마를 가만히 쳐다봤다. <br/> <br/>“When you feel lost and scared to death(당신이 어찌할 줄 모르고 무서워 죽을 것 같을 때) / Like you can’t take one more step(도저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을 때) / Just take my hand, together we can do it (내 손을 잡아요,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br/> <br/>조용히 울려 퍼지는 맥켄나의 노래에 다이애나는 결국 눈물을 훔쳤다. 아이의 노래와 그 앞에서 감동하는 엄마의 영상은 미국 유명 방송인 엘렌 드제너러스(Ellen DeGeneres)의 페이스북에서도 소개됐다. <br/> <br/>지난 13일(현지시간) 영상을 게재한 드제너러스는 “<span class='quot1'>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다</span>”며 “<span class='quot1'>네 살 여자아이가 암 투병 중인 엄마를 위해 노래를 불렀다</span>”고 말했 다. 그의 영상은 ‘좋아요’ 51만여개, ‘공유’ 44만여회를 통해 널리 퍼지고 있다. 앞선 9일 'TheEllenTube'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개된 같은 영상은 현재까지 조회수 13만건을 돌파했다. <br/> <br/>자신을 맥켄나의 할머니라고 소개한 디 실버네일은 드제너러스의 게시물에 “지난 2년간 우리 딸(다이애나)은 웃은 적이 없었다”며 “손녀는 엄마에게 매일 노래를 불러 준다”고 댓글을 달았다. 그는 “맥켄나는 다이애나에게 가장 큰 삶의 이유”라며 “영상을 공유하고 널리 퍼뜨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br/> <br/>“<span class='quot0'>난 영상을 본지 30초도 안 돼서 눈물이 흘렀어요.</span>” <br/> <br/>“<span class='quot0'>아일랜드가 나의 눈물로 넘실대고 있어요.</span>” <br/> <br/>“<span class='quot0'>어떻게 이 영상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span>” <br/> <br/>페이스북에서 맥켄나의 영상을 본 뒤, 여러 네티즌들이 남긴 반응들이다. <br/> <br/>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TheEllenTube 유튜브 채널 영상화면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01.txt

제목: 애보트, 심혈관 환자 위한 흡수성 스텐트 '업소브' 국내 출시  
날짜: 2015101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2957089  
본문:   <br/> <br/> <br/>한국 애보트는 세계 최초의 약물 방출 흡수성 스텐트인 업소브(Absorb)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br/> <br/>업소브(Absorb)는 심장의 막힌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정상화시켜 관상동맥질환을 치료하는 스텐트의 기능을 가지며, 녹아서 완전히 흡수되어 혈관내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됨으로써 혈관이 가진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br/> <br/>혈관이 본래의 기능을 찾게 되면 심장박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다. 기존의 금속 스텐트는 영구적으로 혈관 속에 남아 혈관의 움직임을 제약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br/> <br/>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박승정 교수는 "업소브(Absorb)는 혈관에 영구적으로 남는 그물망 모양의 금속 스텐트와는 달리, 막힌 심장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시킨 후에 혈관에서 완전히 흡수되면서 병변이 있는 혈관의 기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며 "업소브(Absorb)로 치료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에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혈관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혈관의 내경이 증가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br/> <br/>이어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업소브(Absorb)로 치료 후에는 혈관이 원래 상태로 보존되어, 향후 치료에서 다양한 시술 방법이나 수술이 가능해지도록 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br/> <br/>이번주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된 '제 27회 미국관상동맥중재학회 (Transcatheter Cardiovascular Therapeutics: TCT)' 연례 회의에서 발표한ABSORB III 임상 시험 결과에 따르면, 흡수성 스텐트 업소브(Absorb)는 가장 우수하다고 확인된 자사의 약물 방출 금속 스텐트 자이언스(XIENCE)와 유사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 <br/> <br/>약 2000명의 관상동맥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ABSORB III 임상 결과는 저명한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동시에 게재되었으며, 미국에서 업소브(Absorb)의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br/> <br/>애보트 본사의 최고 메디컬 책임자인 척 사이몬톤 (Charles Simonton, 심장전문의, 중재시술전문의)는 "ABSORB III 임상시험 결과는 업소브(Absorb)가 가장 우수한 금속 스텐트와 비교 시 그 효과와 안전성이 동등함을 입증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업소브(Absorb)는 체내에서 녹아 흡수되면서 몸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결과 업소브(Absorb)로 치료 받은 환자의 혈관 본래의 기능을  찾게 해주는 괄목할만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br/>또한 "향후 애보트는 영구적으로 몸 속에 남는 금속스텐트와 차별화되는 업소브(Absorb)만의 장기적인 이점을 증명할 임상 시험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r/> <br/>국내 출시를 맞아 박동택 한국애보트 바스큘러 사업부 대표는 "업소브(Absorb)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스텐트 삽입 시술)에 있어 차세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애보트가 선도기업으로써 세계 최초의 약물 방출 흡수성 스텐트를 국내 시장에 출시 하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br/> <br/>또한 그는 "애보트는 전세계적으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 시키는데 기여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학 기술을 개발하는데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br/>심혈관 질환은 전세계 사망 원인의 1위에 해당 하는 질환으로, 2012년 기준 전체 사망자 수의 약31%인 약 1750만명이 심혈환 질환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740만명에 달한다.  <br/> <br/>국내에서 심장질환은 암, 뇌혈관 질환에 이은 3대 사망원인으로, 매해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국내의 관상동맥질환 환자 수는 79만명으로 2003년 50만명에 비해 58.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업소브(Absorb)는 전세계 100여개 국에서 시술되고 있다. 업소브(Absorb)는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며, 미국 내 사용 승인을 위해 현재 FDA가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02.txt

제목: 분당차병원, 23일 '뇌종양 무료 건강강좌' 개최  
날짜: 2015101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2928558  
본문:   <br/> <br/> <br/>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분당차병원 지하2층 대강당에서 '뇌종양 건강강좌'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br/> <br/>이번 강좌는 ▲뇌종양수술, 무엇이 달라졌나(분당차병원 신경외과 조경기 교수) ▲면역치료의 실체와 향후 전망(엔케이바이오 홍기웅 소장) ▲뇌종양 환자에서의 면역치료(분당차병원 신경외과 임재준 교수) ▲암환자치료에서 통합의학의 역할(차의과학대학교 최중언 교수) ▲악성 뇌종양의 대사치료(서울성모신경외과의원 최세환 원장) ▲암 생존자의 통합지지 서비스(아주대학교 전미선 교수)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br/> <br/>분당차병원 신경외과장 조경기 교수는 "최근 암 환자의 면역력을 키워 암과 싸우는 힘을 키워주는 면역치료가 뇌종양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등 뇌종양의 치료에서도 다양한 연구와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뇌종양의 수술치료 외에 면역치료, 통합의학 등 다양하게 다룰 예정으로 뇌종양 환자 및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br/> <br/>이번 건강강좌는 뇌종양의 치료에 관심 있는 환우 및 가족, 일반인 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며, 문의는 분당차병원 신경외과(031-780-5688)로 하면 된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03.txt

제목: [세계식문화 연구가 양향자의 간편 레시피] 특유의 향이 물씬 나는 맛있는 '더덕무침'  
날짜: 20151014  
기자: 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2545139  
본문: 더덕에 함유된 사포닌과 티아민, 리보플래빈 등의 각종 유용한 성분들은 성인병 및 암 예방에 도움이 되며 강한 체력과 정력 증진에도 좋다고 한다. 또한 손상된 간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도 좋다. 더덕은 인삼, 단삼, 현삼, 고삼과 함께 '오삼'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실제로 더덕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감기, 몸살 약의 성분으로 활용되기에 한방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재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의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고혈압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오늘은 더덕을 이용해 맛있는 더덕무침을 만들어보자. <br/> 사진=세계음식문화연구원 제공재료 ▲더덕 5개 ▲고춧가루 1/2TS <br/> <br/>양념장 ▲고추장 3TS ▲식초 3TS ▲설탕 1과 1/2TS ▲참기름 1TS ▲다진 마늘 1TS ▲통깨 1ts <br/> <br/>만드는 법 <br/> <br/>1. 더덕을 깨끗이 씻고 필러로 껍질을 벗긴다. <br/>2. 1의 더덕은 방망이로 밀어 부드럽게 만든 후 적당한 두께로 찢는다. <br/>3. 2에 고춧가루를 넣어 먼저 버무린 후 분량의 양념장 재료를 섞어 완성한다. <br/> <br/>< (사)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04.txt

제목: 감귤 껍질 항암효과 규명  
날짜: 20151014  
기자: 임정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2545400  
본문: 감귤 껍질에 풍부한 아우랍텐이 뛰어난 항암 효능을 갖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충남대 의학전문대학원 생화학교실 권기량·허준영 교수 연구팀은 아우랍텐이 종양 대사를 조절해 신장암의 진행을 막는다는 사실을 규명, 국제학술지 ‘암표적’(Oncotarget) 이달 13일자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br/> <br/>아우랍텐은 감귤류 껍질에 있는 휘발성 성분으로 미토콘드리아 저해제로 알려져 있다. <br/> <br/>연구팀은 아우랍텐이 신장암 세포의 산소 소비율을 감소시키고, 해당과정 관련 유전자들의 억제를 통해 신장암 세포의 이동성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br/> <br/>실제 신장암 세포를 피하에 주입한 동물 모델에서 아우랍텐이 혈관의 생성과 성숙을 억제시켜 종양의 크기를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입증했다. <br/> <br/>이와함께 암세포 대사, 이동, 혈관 신생을 조절하는 저산소유도인자(HIF-1α)의 발현이 높은 신장암 세포에서 HIF-1α를 강력하게 억제시켜 신장암의 진행을 막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기존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세포독성으로 인한 백혈구 감소증 등의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있다. <br/> <br/>권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독성 없이 신장암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적 접근법을 제시해 암 예방과 치료 연구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span>”고 말했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05.txt

제목: 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유방암 건강공개강좌 성료  
날짜: 20151014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2501864  
본문:   <br/> <br/> <br/>인하대병원은 지난 13일 병원 3층 강당에서 암환자와 가족 및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유방암 건강공개강좌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br/> <br/>이날 강좌에는 유방갑상선외과센터 한미숙 간호사가 유방암 자가검진, 성형외과김연수 교수가 유방 성형수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br/> <br/>김세중 교수(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소장)는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 여성암 환자들의 보다 편안하고 전문적인 암 치료를 위해 2005년에 유방갑상선외과센터를 개소하여 다양한 암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여성암 극복을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06.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정밀의학 선도 통한 개인별 맞춤의학 구현  
날짜: 20151014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2452644  
본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독자적으로 구축한 세계적 수준의 병원의료정보시스템을 환자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유전체 정보, 생물학적 정보 등의 방대한 데이터와 접목하여 정밀 의학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 이철희 병원장은 "정밀의학 실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의료정보와 유전체 정보의 통합이 필수적이며, 의료정보분야에서 세계적 선두그룹인 분당서울대병원은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개인별 정밀의학 실현을 한층 앞당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융·복합 연구를 선도하고 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r/> <br/>올해 초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정밀의학을 2016년 우선 정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밀의학 '이니셔티브 프로그램(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Program)'에 총 2억1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br/> <br/>이에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은 '정밀의학 이니셔티브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고 추진 업무를 가동했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백만명 이상이 포함된 자발적 국가 연구그룹을 세우고, 암의 종류 및 새로운 치료 타깃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며, DNA 서열분석에 기반한 진단검사의 규제적 틀을 현대화하고 있다. <br/> <br/>뿐만 아니라 개인건강 및 인구 수준의 경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전자건강기록과 환자 데이터의 인터페이스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br/> <br/>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방미 일정 중 미국 국립보건원을 방문하여 한미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으로, 특히 정밀의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br/> <br/>정밀의학은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의학으로 의료와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진단부터 치료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환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유전, 환경, 생물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축적된 빅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 정밀하고 정확한 치료법을 도출해내는 미래 의학의 핵심 개념이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은 정밀의학을 선도하고자 '헬스케어 혁신 파크'를 설립하고, 이어서 정밀의학 공동연구를 위한 병원차원의 협력TFT를 구성했다. 각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유전체 정보, 의학 및 의료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연구를 위한 코호트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br/> <br/>또한 빅데이터 및 원격진료 기술 등 분당서울대병원의 강점을 활용한 정밀의학 서비스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임상 적용 및 사업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br/> <br/>특히 최근에는 의료정보를 비롯한 개인의 건강 정보가 한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만 저장되지 않고 다양한 IT기기와 헬스 서비스를 통해 각각 보관되는 만큼, 이러한 정보들을 의료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은 앞으로 병원의료정보시스템의 세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산재해 있는 보건 의료 데이터들을 정밀 의학 구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07.txt

제목: 건협 강남지부, 주중 진단 어려운 주민위해 10월 일요검진 실시  
날짜: 20151013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2240363  
본문:   <br/> <br/>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원장 임대종)은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 10월 18일 일요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br/> <br/> 일요일 검진은 종합검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5대암 검진, 생애전환기, 일반건강진단), 채용신체검사, 예방접종 등을 실시한다. 검진은 오전 7시30분부터 12시까지이며,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br/> <br/> 강남지부 임대종 원장은 “건강검진을 통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건강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중증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적고 의료비도 덜 쓴다는 통계가 있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바쁘더라도 올해 말까지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08.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전월 실적 따라 ‘11번가’ 할인쿠폰 제공 외  
날짜: 20151013  
기자: 오현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2347053  
본문: 전월 실적 따라 ‘11번가’ 할인쿠폰 제공 <br/> <br/>우리카드는 SK플래닛과 함께 온라인 쇼핑 전용 카드인 ‘Syrup n 11ST’카드(사진)를 출시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할인쿠폰을 최대 3만원까지 준다. 또 4만8000여개의 OK캐시백 포인트 가맹점에서 포인트 적립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전월에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전국 영화관에서 1만2000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청구할인,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20% 청구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 <br/> <br/>추가인증 없이 ‘편한 이체 서비스’ 출시 <br/> <br/>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추가인증 없이도 이체할 수 있는 ‘편한(便安)이체 서비스’를 출시했다. NH안심보안카드를 발급받은 NH농협 전자금융 이용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이체 시 NH안심보안카드를 휴대전화에 한 번 갖다 대는 것만으로 본인 인증이 된다. 문자메시지 인증이나 자동응답전화(ARS) 인증 등 별도의 추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현행 이체 서비스보다 간편한 것이 장점이다. <br/> <br/>암·뇌졸중·심근경색증 등 보장 강화 <br/> <br/>동부화재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내인생행복플러스종합보험’을 출시했다. 기존 상품은 3대 질병 진단, 사망 보장을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했지만 이 상품은 한 담보로 3대 질병 진단과 사망을 모두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3대 질병 진단을 받으면 3000만원 한도에서 가입금액의 100%를 선지급하고 이후 3대 질병으로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100%를 최고 30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수술·입원, 암 통원치료 등도 보장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09.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말기암 농부 위해 옥수수밭 땀방울…"이것이 동지애"  
날짜: 20151013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2231303  
본문: 암에 걸린 미국의 한 50대 농부를 위해 마을 전역에서 모인 농사꾼들이 하루 만에 옥수수 수확을 끝내 감동을 주고 있다. 이들이 해낸 분량은 보통 농부 1명이 일주일은 걸려야 해치울 수 있는 양이었다. <br/> <br/>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ABC 뉴스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헨리 카운티(Henry County) 갈바(Galva)에 사는 칼 베이츠(55)는 현재 호스피스 도움을 받고 있다. 정확한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말기 암환자다. 신장과 척추 등 온몸 구석구석 암세포가 퍼졌지만, 칼은 병원 치료 대신 호스피스를 선택했다. <br/> <br/> <br/> <br/>이런 가운데 마을 농부들이 모여 칼의 옥수수밭 450에이커(약 182만㎡) 수확을 단 10시간 만에 끝낸 사연이 공개됐다. 이들은 칼의 사촌 댄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돕기 위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농사꾼들의 거사는 지난달 25일에 치러졌다. <br/> <br/>“당연히 내가 나서야지.” <br/> <br/>“<span class='quot0'>하루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span>” <br/> <br/>댄에게 이야기를 들은 이들에게서 한결같이 나온 반응이다. 이후 칼을 돕기 위해 모인 농부들은 40명에 달했으며, 동원한 트럭과 장비 등으로 옥수수 수확을 10시간 만에 마칠 수 있었다. <br/> <br/> <br/> <br/>칼의 또 다른 친척 메리사는 집안을 도우려 모인 농부들을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짐짓 뿌듯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br/> <br/>“이건 새로운 일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농부들은 서로 도우며 평생을 살아갈 거니까요. 누군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그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거에요. 그분들이 모이는 데 큰 힘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br/> <br/>심지어 칼을 돕기 위해 나선 농부 중에는 그와 가까운 사이도 아니면서 사연을 듣고는 기꺼이 하루를 할애한 이도 있었다. 한 곡물 중개인은 자신이 가진 트럭 16대 중 12대를 옥수수 운반에 내놓기도 했다. <br/> <br/>칼의 사촌 어니는 미국 ABC 뉴스에 “<span class='quot1'>작은 마을이 하나가 되어 큰 것을 이뤄냈다</span>”며 “<span class='quot1'>우리는 ‘동지애’가 무엇인지 느꼈다</span>”고 자랑스레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모두가 어려운 일을 해낸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span>”며 “칼도 무척 기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미국 ABC 뉴스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10.txt

제목: 유방암, 수술 뒤에도 만성질환처럼 관리해야  
날짜: 20151012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1938916  
본문: 유방암은 치료 후 5년 생존율(1998∼2012년)이 평균 91.3%에 이르러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은 암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재발률이 높아 완치 판정 시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투병 기간이 다른 암에 비해 길다. 유방암 환자들은 치료 후 여성성을 상실했다는 고통과 더불어 전이·재발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정과 직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40대 환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7%를 차지하고 있어, 유방암 수술만큼이나 수술 후 성공적인 사회 복귀도 과제다.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유방암 치료 후 재발방지와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br/>◆정기적 추적 검사·생활습관 개선으로 재발 막아야 <br/> <br/>유방암은 암이 다른 기관으로 거의 전이되지 않은 0∼2기에 조기 발견하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아 제거할 수 있다. 이 시기 발병 환자의 5년 내 생존율은 92∼98%에 이른다. 하지만 항상 재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1,2기의 경우 재발률이 15∼30%이며 3기 이상에서는 60% 이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수술 후 2∼3년 동안 재발 위험성이 제일 높다. 실제 환자의 70.9%가 수술 후 3년 내 재발하며, 92%는 수술 후 5년 내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유방암은 수술 후에도 고혈압, 당뇨와 같이 만성질환처럼 여기고 평생 관리하는 것이 좋다. <br/> <br/> 이대목동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 문병인 교수(왼쪽 두 번째)와 유방암 환자들이 원예치료를 위해 병원 인근에 마련된 희망텃밭을 가꾸고 있다. <br/>이대목동병원 제공유방암 재발 위험도는 1년에 1% 정도 증가해, 조기에 재발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수술 후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br/> <br/>특히 수술 전 병기가 높았거나, 치밀 유방, 젊은 유방일수록 철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한국유방암학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수술 후 첫 3년간은 3개월마다, 이후 2년간은 6개월마다, 이후에는 1년에 1회 정기 추적 검사를 권고한다. <br/> <br/>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학적 검증이 안 된 방법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좋다. 일주일에 4시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유방암 재발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br/> <br/>◆원예·미술치료 등으로 우울증 개선 <br/> <br/>유방암은 치료 후 다른 암보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젊은 여성에서 발병률이 높은 데다 재발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가 여성호르몬 억제 치료를 하기 때문이다. <br/> <br/>유방 절제뿐 아니라 재발 및 전이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또 유방암 환자의 52%는 폐경 전 여성인데, 이들에게 여성호르몬 억제 치료를 하면 조기 폐경 증상이 생기는 등 다른 암 치료에서 생기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도 있다.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로 겪는 우울감이 커 실제 유방암 생존자들은 약 25%가 중증도 이상의 우울 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따라서 유방암 환자들은 치료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외부 활동을 적극 시도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에 복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br/> <br/>각 병원의 유방암센터는 자체적으로 미술치료, 연극치료, 노래교실, 원예교실 등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환우들의 정서적 치유를 돕고 있다. <br/> <br/>특히 암 치료와 폐경기를 동시에 겪는 40∼50대 유방암 환자는 신체 기능 약화와 함께 심각한 불안·초조·불면증·우울증에 시달린다. 이들은 원예 활동으로 작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키우고, 삶의 열정을 되찾는 데 도움을 받는다. 원예 활동은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며 약해진 체력을 자연스럽게 증진시킬 수 있다. 환자들끼리 주기적으로 만나 질환 정보를 교환하고 고충을 토로하는 등 심리적 위안 역시 얻을 수 있어 환자의 정서 안정에도 좋다.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암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예 요법에 참여한 유방암 환자의 우울 점수는 약 10%나 감소해 그렇지 않은 그룹(2%)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대목동병원 문병인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0'>항암 치료와 수술만으로는 암을 완벽히 이겨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유방암의 완치는 환자 스스로의 긍정적인 생각과 심리적 안정이 있어야 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원예 활동이나 미술치료, 노래교실과 같은 정서 함양 프로그램은 우울감을 개선해, 환자의 긍정적인 정서 형성을 도와 자연스럽게 면역 기능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11.txt

제목: 한국에자이, 새 갑상선암 치료제 '렌비마' 국내 승인  
날짜: 2015101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1751968  
본문: 한국에자이는 12일 글로벌 제약사 에자이가 개발한 신규 항암제 '렌비마캡슐(성분 렌바티닙메실산염, 이하 렌비마)'이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 치료제 용도로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br/> <br/>이에 따라 미국, 유럽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본사인 일본 다음으로 한국에서 렌비마의 시판이 승인되었다. <br/> <br/>렌비마의 이번 시판 허가는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한 분화 갑상선암에 대한 3상 다기관,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과정에서 렌비마는 위약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무진행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객관적 반응률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br/> <br/>임상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고혈압, 설사, 피로, 무기력증, 식욕 감퇴, 체중 감소, 구토 등이었다. <br/> <br/>에자이의 츠쿠바 연구소에서 발견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렌비마'는 경구 투여 분자 표적화 약물로, 혈관내피세포 증식인자 수용체(VEGFR), 섬유모세포 성장인자 수용체(FGFR), 종양 유전자 KIT, 혈소판 유도 성장인자 수용체(PDGFR)와 같은 일부 분자의 활성을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br/> <br/>특히 렌비마는 종양 신생 혈관 생성 및 갑상선암 확산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VEGFR)와 더불어 섬유모세포 성장인자 수용체(FGFR)를 동시에 억제한다. <br/> <br/>아울러 렌비마는 엑스선(X-ray) 공동결정 구조 분석을 통해 VEGFR2에 대한 새로운 결합 형태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표적 분자와 빠르게 결합하고, 키나아제 활성을 강력히 억제하는 것으로 반응속도 분석 결과 나타났다. <br/> <br/>렌비마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에서 시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싱가폴, 대만, 홍콩, 마카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에서 시판 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에자이는 렌비마에 대한 간세포암 3상 임상시험을 비롯해, 신장암, 비소세포 폐암 등 다른 암종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br/> <br/>갑상선암은 국내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으로, 2012년 신규 진단을 받은 환자 수만 4만4000여명에 이른다. 아시아 전체로는 14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r/> <br/>이번 렌비마 승인을 통해 에자이는 한국의 갑상선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함은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로도 시판 승인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12.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3년 간격 '유방암' 판정 부부…위험성 경고 전도사로  
날짜: 20151012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1721957  
본문: “일반 남성 10명 중 8명이 ‘남성 유방암’의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유방암으로 아버지나 남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큰 보람을 느낄 겁니다.” <br/> <br/>미국 코네티컷주 출신 메그 캄피온은 남편 게라드(64)와 이곳저곳을 돌며 남성 유방암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이들 부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br/> <br/>미국 ABC 뉴스에 따르면 게라드는 지난 2006년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가슴에 덩어리 같은 게 만져져 병원에 갔더니, 의료진이 그에게 “유방암에 걸렸다”는 날벼락 같은 진단을 내린 것이다. <br/> <br/>게라드의 아내 메그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난 여자니까 그렇다 쳐도, 남편은 남자</span>”라며 “<span class='quot0'>‘남자가 유방암에 걸릴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제일 처음 들었다</span>”고 당시를 회상했다. <br/> <br/>메그는 “<span class='quot1'>지인의 남편이 유방암에 걸린 적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다행히 그분이 알려준 덕에 남성 유방암의 전초 증상을 알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 몇 차례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은 게라드는 완치됐다. 이들 가족은 ‘이제 같은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했다. <br/>  지난 2014년 10월,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소개됐을 당시의 게라드, 메그 부부 모습 <br/> <br/>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br/> <br/>3년 뒤, 이번에는 메그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전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는 방사선 치료와 수술을 병행한 끝에 병을 깨끗이 털어냈다. 아내가 유방암 치료를 받는 동안 게라드는 그의 옆에서 힘이 되어주려 노력했다. <br/> <br/>메그는 “<span class='quot1'>남편과 나는 상대방을 당황시키지 않으려 노력했다</span>”며 “<span class='quot1'>남편이 나를 걱정하지 않기를 바랐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상대를 배려하고 응원을 보낸 건 내가 암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span>”고 덧붙였다. <br/> <br/>끝난 줄 알았던 유방암 비극은 2011년 다시 게라드를 덮쳤다. 이번에는 이야기가 달랐다. 암이 재발한 그의 몸 이곳저곳에 암세포가 전이됐다. 다행히 방사선 치료와 호르몬 치료 등으로 호전됐지만, 완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그래도 게라드는 힘을 잃지 않았다. 그는 2013년에는 62홀 골프 라운딩으로 자신의 62번째 생일도 자축했다. <br/> <br/>그때부터 부부는 남성 유방암의 위험성을 알리는 전도사가 됐다. 이들은 10월 셋째주를 남성 유방암 위험성을 깨닫는 주로 지정하자고 지역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br/> <br/>메그는 “<span class='quot1'>많은 사람들이 남성 유방암의 위험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span>”며 “<span class='quot1'>의사들도 여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자료나 매뉴얼 없이 곧바로 남성들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1'>남성 유방암 환자들도 존중받아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질 건조증’과 같은 여성 유방암 치료의 부작용이 적힌 책자를 남편이 들고 있다는 걸 본다면 웃지만은 못할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 <br/> <br/>한편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암학회는 올해에만 유방암 진단을 받은 남성 환자가 250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여성 환자 수(23만1840명)의 1% 정도다. <br/> <br/>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남성 유방암을 대수롭지 않게 보지 말라고 강조했다. <br/> <br/>미국 유방암 관련 최대 연구 조사기관 수전 G 코멘 재단의 린다 위크스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2'>남성 유방암은 여성보다 일반적이지 않다</span>”며 “발병 방식도 특이하다”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2'>남성 유방암 환자가 1000명당 1명으로 여성보다 적지만, 증상이 암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의료계는 노화, 가족력, 유전자 변이, 방사선 노출 그리고 과음과 비만 등을 남성 유방암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br/> <br/>자넬 시거 노턴 암 재단 종양학자는 “남성 유방암은 흔치 않으나, 지난 25년 사이에 발병률이 26%나 증가했다”며 “급증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13.txt

제목: '위암 투병' 소설가 이외수 "체중 48kg서 줄진 않아"  
날짜: 20151012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1615678  
본문: 소설가 이외수가 방송에 출연해 위암 투병으로 체중이 48kg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br/> <br/>이외수는 12일 오전 방송된 KBS1 '아침마당' 월요초대석에 출연해 위암 투병으로 고생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br/> <br/>이날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현 상태를 밝힌 그는 혈색도 좋아 보였다. 이외수는 "위를 잘라내고 그날부터 1kg씩 줄어 지금 체중은 48kg이다. 더 이상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br/> <br/>이어 "병원에서 현상 유지가 된다는 게 좋다고 하더라"며 "병원을 제대로 만났다"고 밝혔다. <br/> <br/>이외수는 지난해 10월 위암에 걸린 사실을 밝히며 투병생활에 들었다. 이후 그는 투병 중에도 SNS에 자신의 '항암일기'를 올리는 등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br/>사진=KBS1 방송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14.txt

제목: [공부가술술] 초등학생 사회 과목 올바른 지도법  
날짜: 20151011  
기자: 이정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1459959  
본문: 초등학생 중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에는 흥미를 느끼고 성적도 잘 받지만 의외로 사회 과목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때 학부모가 자녀에게 사회는 암기과목이라고 단정 짓고 학습지와 문제집을 이용해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있다. 사회는 암기과목이라 할 수 있지만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를 강요하면 사회를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는 방법론을 익힐 수 없게 된다. 초등학생들이 딱딱한 사회 용어를 어렵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므로 사회적 현상을 직접 대입해 이해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넓어지는 범위를 공부해도 쉽게 암기할 수 있게 된다. <br/> <br/>좋은책신사고 김희전 부서장은 “<span class='quot0'>초등학교 저학년의 사회는 도덕 중심으로 규범과 사회화, 윤리성에 대한 내용이 많지만, 4학년부터는 지리와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범위를 다뤄 무작정 암기만으로 학습하는 데 한계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자녀들과 함께 사회적 현상에 대해 대화하면서 과목과 연관된 용어와 개념을 하나씩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 사회 과목을 어려워하는 초등학생이라면 단순히 암기를 강요하기보다는 사회 용어에 대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한편 체험학습을 통해 실생활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br/>좋은책신사고 제공◆용어 이해부터 시작 <br/> <br/>암기의 대표 과목이 사회이고, 암기의 방법론을 익히기 가장 좋은 과목도 사회다. 하지만 용어의 기본개념이 잡히지 않은 초등학생이 암기만 하게 되면 흥미를 잃고 점차 암기과목에 부담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자녀에게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줘야 한다. 예를 들어 4학년 경제에 대한 설명이다. <br/> <br/>이때 표와 같이 복잡한 용어를 글자 하나 안 틀리게 외우게 하지 말고, ‘1차 산업은 할아버지가 쌀을 수확하는 것, 2차 산업은 아버지가 다니는 A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 3차 산업은 우리가 자주 가는 슈퍼마켓’이라는 방식으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해 개연성을 추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사회 용어 중에는 한자로 된 단어들도 많다. 이럴 때는 한자 개념을 통해 용어를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학습 주제라면 먼저 한자어로 된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한다. 백성(民), 주인(主), 즉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치적 사상이나 생각이 민주주의의 개념임을 알게 한다. 반대 개념도 함께 알려주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br/> <br/>개념을 이해했다면 대화를 통해 배경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정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대화라든가, 뉴스 속 정치 이야기라든가, 링컨과 같은 위인전을 읽고 민주주의와 연관지어 보는 대화라든가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국회의사당에 견학을 가는 등의 체험학습도 자녀가 사회적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 과목에 흥미를 갖는 데 도움이 된다. <br/> <br/>◆체험학습 통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키워 <br/> <br/>국어와 영어, 수학은 꾸준히 반복해야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누적과목이지만, 사회와 과학은 철저 체험과목이다.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예시에 설명되는 내용 모두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는 실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br/> <br/>평소 자녀와 함께 시장이나 마트 등에 함께 방문해서 통화수단과 상거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일상생활 속 사회활동 체험은 각 기관들이 하는 일이나 사회의 다양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다. 이때 함께 체험해본 내용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같이 대화해보고 간단하게나마 느낀 점 등을 적은 보고서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br/> <br/>교과서에 나오는 장소들을 한 번 확인해본 후 방학 때 자녀와 함께 답사장소를 선택해 계획에서 보고서 작성까지 해보는 것도 좋다. 이런 체험학습은 기억에 오래 남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처음에는 엄마의 손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br/> <br/>◆뉴스, 신문 등 사회적 이슈로 배경지식 넓혀 <br/> <br/>비교적 여가시간이 많은 4학년 때까지 다양한 직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 이후에는 폭넓은 독서를 통한 간접경험의 기회도 제공해줘야 한다. 교과와 연계된 책에만 머무르지 말고 신문과 잡지, 뉴스 등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자녀가 쉽게 호기심을 가지고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는 효과가 있다. <br/> <br/>예를 들어 자녀가 TV를 보고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이 질문이 발단이 돼 6학년 경제에 나오는 ‘세금’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때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쉬운 개념부터 설명하고 이어 관련 책을 읽도록 하면 된다. 이 과정은 ‘자녀가 TV/신문에서 흥미 있는 이슈 발견 → 이슈의 핵심이 되는 기본 개념을 다루는 책 → 백과사전에서 용어 정리’ 순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다. <br/> <br/>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15.txt

제목: 복면가왕 태권브이, 유력후보 황치열 "아버지 날 한번도 인정해주신 적 없어..."  
날짜: 2015101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1357268  
본문: 복면가왕 태권브이, 유력후보 황치열 "아버지 날 한번도 인정해주신 적 없어..."복면가왕 태권브이, 유력후보 황치열 "아버지 날 한번도 인정해주신 적 없어..." <br/> <br/>복면가왕 '태권브이'가 화제인 가운데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황치열이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br/> <br/>황치열은 지난 5월 방송된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 인순이의 '아버지'를 선곡해 열창했다. <br/> <br/>당시 황치열은 “암 판정을 받았던 아버지가 투병 중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인정해주신 적이 없다”며 “이번 무대를 통해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br/> <br/>황치열의 무대를 본 설운도는 “아버지는 가슴으로 듣는다. 눈물도 가슴으로 우실 거다”며 “아버지가 무표정으로 들으셨다하더라도 가슴으로 많이 우셨을 것”이라며 그를 위로했다.  <br/> <br/>한편 황치열은 2007년 ‘치열’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싱글 ‘한 번만’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이후 그룹 015B의 객원보컬과 웬즈데이의 멤버로 활동했다. <br/> <br/>복면가왕 태권브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복면가왕 태권브이, 황치열 일까?" "복면가왕 태권브이, 오늘도 본방사수" "복면가왕 태권브이, 황치열 화이팅"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16.txt

제목: 자연에겐 원전 사고보다 인간이 더 해로울까  
날짜: 20151011  
기자: 황현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1353207  
본문:   <br/> <br/>  ‘죽음의 땅’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 늑대와 멧돼지, 엘크 등 야생동물들이 다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서북부 체르노빌은 옛소련 때인 1986년 4월 원전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폭발과 화재, 방사능 피폭으로 8200여명이 사망하고, 170만명가량이 직간접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20세기 최악의 원전 사고로 꼽힌다. 그런데 이들 생명이 다시 체르노빌로 돌아온 계기가 슬프다. 방사능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br/> <br/>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대학과 영국 포츠머스대학 공동 연구진은 체르노빌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 종류와 개체 수가 원전 사고 직후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20여년 동안 헬기를 이용해 4200㎢에 이르는 일대 포유동물 수를 조사했다. <br/> <br/> 조사 결과 엘크와 노루, 붉은사슴, 멧돼지 등의 개체 수는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연구진은 사고 1~10년 후 사슴과 맷돼지 수가 꾸준히 증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체르노빌 일대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부 종은 오히려 다른 일반 자연서식지보다 개체 수가 증가했는데, 늑대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7배 더 많았다. <br/> <br/> 짐 스미스 포츠머스대 교수는 PA통신에 “<span class='quot0'>야생동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왕성한 회복력을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0'>다시 말하자면 생태계에겐 원전 사고보다 사냥, 개발 등 인간이 더 해롭다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셀’의 자매지 ‘커런트 바이올로지’ 최신호(5일자)에 발표됐다.  <br/> <br/>체르노빌 원전 참사는 1986년 4월26일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 인접 지역에 있던 체르노빌 발전소 4호기에서 발생했다. 이 4호기는 1983년 12월에 운전을 시작한 최신 원자로였다. 사고는 정기 검사를 위해 가동을 멈추기에 앞서 실험하던 근무자가 출력을 높이려다 원자로 온도가 급증해 폭발했다. 폭발과 함께 원자로는 산산조각이 났으며 방사능 가스와 물질은 4.5㎞ 높이의 공중으로 날아갔다. <br/> <br/> 방사능 오염 구름은 2개로 나눠져 한쪽은 벨라루스 폴란드 스칸디나비아반도를 거쳐 유럽을 강타했으며, 다른 한쪽은 동쪽으로 이동해 러시아 한국 일본 등을 지나 북미까지 흘러갔다. 당시 소련 정부는 사고 발생 3일 뒤인 29일 이를 공식 발표해 피해는 극심했다. 초기 사망자는 31명이었지만 6년 후엔 8200여명으로 늘어났다. <br/> <br/> 당국은 폭발 후 3일 이내에 체르노빌 인근 거주 주민 3만명, 이후 추가로 13만명을 이주시켰다. 체르노빌 방사능 영향지역에서 갑상선 질환, 암, 백혈병 등의 발생률이 50% 이상 증가해 43만명가량이 방사능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산, 사산, 유전적 기형아 발생률도 크게 늘었다. 체르노빌 발전소에 있던 원자로들은 1991년과 96년에 폐기됐고 마지막 3호기도 2000년 12월15일 완전 가동을 중단하고 봉쇄작업에 들어갔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17.txt

제목: 황치열, 안타까운 가족사 "암 투병 중인 아버지께 인정받고파.."  
날짜: 2015101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1220638  
본문: 황치열, 안타까운 가족사 "암 투병 중인 아버지께 인정받고파.."황치열, 안타까운 가족사 "암 투병 중인 아버지께 인정받고파.." <br/> <br/>황치열이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화제인 가운데 그의 과거 방송출연이 다시금 이목을 끌고 있다. <br/> <br/>황치열은 지난 5월 방송된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 인순이의 '아버지'를 선곡해 열창했다. <br/> <br/>당시 방송에서 황치열은 “암 판정을 받았던 아버지가 투병 중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인정해주신 적이 없다”며 “이번 무대를 통해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다”고 밝혀 시청자들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br/> <br/>황치열의 무대를 본 설운도는 “아버지는 가슴으로 듣는다. 눈물도 가슴으로 우실 거다”며 “아버지가 무표정으로 들으셨다하더라도 가슴으로 많이 우셨을 것”이라며 그를 위로했다. <br/> <br/>한편 황치열은 2007년 ‘치열’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싱글 ‘한 번만’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이후 그룹 015B의 객원보컬과 웬즈데이의 멤버로 활동했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18.txt

제목: 황치열, 눈물의 고백 "아버지는 날 한 번도 인정해주신 적 없어..."  
날짜: 2015101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1103122  
본문: 황치열, 눈물의 고백 "아버지는 날 한 번도 인정해주신 적 없어..."황치열, 눈물의 고백 "아버지는 날 한 번도 인정해주신 적 없어..." <br/> <br/>황치열이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화제인 가운데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br/> <br/>황치열은 지난 5월 방송된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 인순이의 '아버지'를 선곡해 열창한 바 있다. <br/> <br/>당시 방송에서 황치열은 “암 판정을 받았던 아버지가 투병 중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인정해주신 적이 없다”며 “이번 무대를 통해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다”며 선곡 이유를 고백했다. <br/> <br/>황치열의 무대를 본 설운도는 “아버지는 가슴으로 듣는다. 눈물도 가슴으로 우실 거다”며 “아버지가 무표정으로 들으셨다하더라도 가슴으로 많이 우셨을 것”이라고 말해 시청자들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br/> <br/>한편 황치열은 2007년 ‘치열’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싱글 ‘한 번만’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이후 그룹 015B의 객원보컬과 웬즈데이의 멤버로 활동했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19.txt

제목: 전통 장례행사 ‘바위절 호상놀이’ 시연  
날짜: 20151009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1015708  
본문: 서울시 무형문화재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공개 행사가 10일과 13일 열린다. <br/> <br/>서울시는 10일 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 시 무형문화재 제10호인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br/> <br/>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상여놀이의 일종으로 장례식의 전체 과정이 담겨 있다. 출상 전날 상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슬픔에 잠긴 상주들을 위로하기 위해 빈 상여를 메고 선소리에 맞춰 노래하는 것으로 전국에 분포돼 있다. <br/> <br/>바위절마을의 호상놀이는 특히 부부(夫婦)를 운구하는 두 대의 상여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쌍상여는 바위절마을의 주된 성씨인 문씨 집안의 장례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매우 드문 사례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br/> <br/>암사동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1960년대 이래 중단됐다가 1990년대 복원됐다. 1996년 9월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는 무형문화재 제7호 장안편사놀이도 볼 수 있다. 10일 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 공개되는 장안편사놀이는 편을 나눈 뒤 각 편의 선수가 쏘아 맞힌 화살의 총수를 합해 승부를 결정하는 활쏘기 놀이다. 활 쏘는 사람 뒤에서는 흥취를 돋우는 풍악이 연주된다. 장안편사놀이는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구습 타파로 맥이 끊어졌다가 1994년 한양천도 600주년 기념행사 때 부활했다. 2000년 4월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br/> <br/>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는 13일 오후 시 무형문화재 제45호인 한량무 공개발표회가 열린다. 한량과 승려가 색시를 사이에 두고 벌이는 무용극 형식의 춤이다. 조흥동 보유자(한량), 고선아 보유자(색시)가 전승하고 있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20.txt

제목: 삶에 짓눌린 가장들… 가족들과 짐 나눠라  
날짜: 20151008  
기자: 권구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758617  
본문: 지난 7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일가족 사망 사건은 가장인 이모(58)씨가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집안 가장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일가족 사망 참극’이 잇따르면서 ‘죽음도 가족과 함께 하겠다’는 가장들의 왜곡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br/> <br/>8일 서울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딸 이모(16)양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공부를 잘해 특목고에 진학했다. 지난 1월 이씨 가족이 강서구로 이사온 것도 딸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주민들은 이씨가 평소 잘 웃는 성격이고, 아내(49·여) 역시 몸은 불편했지만 집안을 잘 정돈하는 등 겉보기에 평범했던 가정으로 기억했다. 하지만 경찰조사와 유서에서 보듯, 이씨는 아내가 말기 암 환자로 장애판정을 받은 데다 빚을 많이 져 심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씨는 이사를 오면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며, 집도 정부의 전세 지원을 받아 구했다. 도저히 삶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겠다고 판단했는지 그는 끝내 아내와 딸을 먼저 살해하고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씨의 유언장에는 동반자살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혹시 딸이 깨어나면 병원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이씨의 가족이 모두 자살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span>”고 말했다. <br/> <br/>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br/> <br/>지난 1월 서울 서초구에서도 흡사한 사건이 있었다. 40대 가장인 강모(48)씨는 “<span class='quot1'>조금 더 있으면 정말 추한 꼴을 보일 것 같고 혼자 가면 남은 처자식이 불쌍한 삶을 살 것 같아 함께 가려 한다</span>”며 아내와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온 나라에 경종을 울린 ‘송파 세 모녀’사건도 집안의 생계를 책임졌던 어머니 박모(60·여)씨가 다친 후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다 두 딸과 함께 죽음을 택한 것이다. <br/> <br/>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가장들이 가족들을 살해하거나 설득한 뒤 동반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2'>삐뚤어진 책임 의식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span>”이라고 비판하며, 어린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등 왜곡된 가장 중심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br/> <br/>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정성국 박사의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발생한 자녀 살해는 230건에 달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 교수도 “<span class='quot3'>우리 사회에는 가장이 가족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본인이 목숨을 끊을 때 가족까지 살인하는 결과로 치닫는다</span>”면서 “<span class='quot3'>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가장의 책임감</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권구성 기자 kusu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21.txt

제목: [전상일의건강解] 클린 디젤은 없다  
날짜: 20151008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832821  
본문: 독일 폴크스바겐 자동차 회사의 디젤게이트 사건이 터졌다. 배출가스 검사를 받는 동안에만 질소산화물이 기준 내로 나오도록 조작한 소프트웨어를 숨겨 놓았다가 들통난 것이다. 디젤게이트는 교통 문제를 연구하는 미국의 한 비정부기구(NGO)가 독일 디젤 엔진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하다 우연히 발각됐다. <br/> <br/>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힘이 좋고 연비가 높으며, 내구성이 우수하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도 덜 배출한다. 에너지 절약과 지구온난화 측면에서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친환경적이다. 하지만 건강 관점에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디젤 엔진의 아킬레스건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대량 배출이다. 미세먼지는 양도 중요하지만 크기가 더 중요하다.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가솔린 엔진에 비해 배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입자의 크기도 훨씬 작다. 인체에 해로운 직경 10 μm 이하보다 훨씬 작은 1 μm 이하의 초미세먼지의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크기가 작을수록 폐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고, 초미세먼지가 혈관을 뚫고 들어가 몸 전체로 퍼질 수도 있다. 설상가상 초미세먼지는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수많은 화학물질을 인체의 곳곳으로 운반하는 배달부 역할까지 한다. <br/> <br/> 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소장·둘다북스 대표질소산화물 배출은 디젤 엔진의 고유 특성과 맞물려 있어서 근본적 해결이 힘들다. 디젤 엔진은 연료(경유)의 연소 온도가 높을수록 연비는 높아지지만 동시에 질소산화물도 많이 배출한다. 즉 연비를 포기하느냐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느냐의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질소산화물은 광화학 스모그 ‘오존’의 전구물질로 오존 농도를 높이는 산파 역할을 한다. 오존농도가 높아지면 천식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자가 증가하고, 노약자와 어린이는 야외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건강한 사람도 오존 농도가 높은 날에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br/> <br/>이에 세계보건기구는 디젤 엔진의 매연을 담배, 석면, 플루토늄 등과 같은 ‘1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1등급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의미이다. 디젤 매연은 폐암과 방광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솔린 엔진의 매연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미의 ‘2B등급’으로 매겨져 있다. 채소를 식초와 소금물에 절인 피클도 2B 등급이다. 1등급과 2B 등급 발암물질의 발암성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br/> <br/>‘클린디젤’이라는 말도 유감이다. 눈에 안 보이는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은 여전히 많이 나오는데도 눈에 보이는 시커먼 매연이 나오지 않는 착시현상을 파고든 마케팅 용어이다. ‘고카페인 음료’를 ‘에너지 음료’로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동안 환경보건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디젤 승용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 ‘이래도 되나’ 하는 걱정을 해 왔다. 디젤 엔진은 트럭이나 버스 등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차에 국한해서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적어도 건강 측면에선 절대불변의 원칙이다. 디젤 택시 도입은 크게 잘못된 발상이다. 디젤 엔진을 승용차에 쓰는 것은 공업용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br/> <br/>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소장·둘다북스 대표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22.txt

제목: [WT논평] Going to pot  
날짜: 20151008  
기자: 오성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830471  
본문: At one time marijuana was widely (and correctly) perceived as detrimental, and acceptance was low. Today, however, polls show some 60 percent of Americans think it should be legalized. Four states (Colorado, Washington, Oregon and Alaska) have done just that, legalizing it entirely, while 23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approve it for medical use. Why this sea change? <br/> <br/>It’s not because we’ve learned that the health risks were overstated. Advocates have insisted for decades that pot is no more harmful than tobacco and alcohol. Indeed, many go so far as to claim it’s safer. Unfortunately for them, the medical research does not back them up. <br/> <br/>An article by the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published last year in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documents many negative effects of marijuana use. And the research continues to pile up, showing how it can harm the developing teenage brain, increase the risk of heart attack, and diminish IQ. <br/> <br/>“More than smoking tobacco and drinking alcohol, smoking marijuana can damage the heart, lungs and brain,” write William J. Bennett and Robert A. White in the new book “Going to Pot.” “Moreover, it immediately impairs cognitive abilities and motor coordination, interfering with the smoker’s judgment, driving skills, and other basic abilities.” It delivers more tar to the lungs than tobacco does, along with cancer-causing chemicals. Many long-term or heavy users develop symptoms of chronic bronchitis. In high doses, paranoia and psychosis result. <br/> <br/>Many older adults who remember “smoking a little grass” back in school may scoff. What many of them don’t realize is that today’s marijuana is very different from the allegedly harmless joint passed around a party back in the ‘70s or ‘80s. Today’s pot is much more potent. Years ago, the amount of tetrahydrocannabinol (THC, the stuff that gets you high) in marijuana was much lower - around 3 to 5 percent. But today’s “turbo pot” tends to be around 13 percent, and up to 20 or even 30 percent in some cases. <br/> <br/>The main reason for the shift is the advent of “medical marijuana.” That put a halo of safety around the substance, making those who oppose it seem insensitive to the needs of people in chronic pain. <br/> <br/>Our nation’s leaders are no longer sounding the alarm on drugs as they once did. When hardly anyone hears a word about the many health problems associated with pot, and everything they do hear is about how medically beneficial it is, should we be surprised public opinion has changed so much? <br/> <br/> 마리화나의 해독을 외면하는 세상 <br/> <br/>에드 퓰너(美 헤리티지재단 창설자) <br/> <br/>한때 마리화나는 해로운 것으로 널리 인식되었고 인정도는 낮았으며 그런 인식이 옳았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여론조사는 미국인의 대략 60%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4개 주는 바로 그렇게 하여 마리화나를 완전히 합법화하는 한편 23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승인했다. 이런 상전벽해의 이유는 무엇인가. <br/> <br/>건강상의 위험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옹호자들은 마리화나는 담배와 알코올보다 해롭지 않다고 수십년 동안 주장해 왔다. 실제로 많은 옹호자들은 마리화나가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의학 연구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br/> <br/>국립약물남용연구소가 지난해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매디슨’에 발표한 논문은 마리화나 사용의 부정적 영향 다수를 열거한다. 또한 마리화나가 십대들의 뇌 발달에 해로우며 심장발작 위험을 증가시키고 IQ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연구가 계속 쌓이고 있다. <br/> <br/>윌리엄 J 베넷와 로버트 A 화이트는 새로운 저서 ‘파멸’에 이렇게 쓴다.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흡연 및 알코올 섭취보다 심장, 폐, 뇌에 더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흡연은 인식 능력과 운동 조절 능력을 즉각적으로 손상시키고 흡연자의 판단력, 운전기술, 여타 각종 기본적인 능력을 방해한다.” 마리화나는 담배보다 더 많은 타르를 폐로 보내는데, 타르에는 암 유발 화학물질들이 포함된다. 장기 혹은 다량 사용자의 다수는 기관지염 증상을 일으킨다. 다량 흡연할 경우 편집증과 정신병을 초래한다. <br/> <br/>학창 시절에 “소량의 마리화나를 피운” 기억을 가진 나이 많은 성인들은 이런 주장을 비웃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다수가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은 오늘의 마리화나가 1970년대와 80년대에 파티에서 돌려가며 피웠던, 소위 무해한 마리화나와 아주 다르다는 점이다. 오늘의 마리화나는 약효가 훨씬 강하다. 여러 해 전의 마리화나에 함유된 흥분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의 분량은 훨씬 적어서 대략 3∼5%였다. 그러나 오늘의 ‘터보 마리화나’는 대략 13%에 이르는 경향을 보이며 일부 경우에는 최고 20% 혹은 30%다. <br/> <br/>이런 변화의 주된 이유는 ‘의료용 마리화나’의 등장 때문이다. 의료용이 이 물질 둘레에 안전하다는 후광을 비추어 반대자들이 만성통증 환자들의 필요에 냉담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br/> <br/>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각종 마약에 경종을 더 이상 울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마리화나와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에 관한 말을 거의 듣지 못하고 마리화나의 의료용 이점에 관한 말만 듣는 상황에서 여론이 그렇게 많이 변한 사실에 우리가 놀라야 마땅할까. <br/> <br/>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23.txt

제목: 한림대의료원, 20일 '제7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5100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625559  
본문:   <br/> <br/> <br/>한림대학교의료원은 오는 20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종양면역치료의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제7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br/> <br/>이번 심포지엄에는 기초 및 임상의학을 중심으로 중개연구가 활발한 세계적 명문 스웨덴의 웁살라대학교(Uppsala University) 교수들과 종양면역치료 전략과 전망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br/> <br/>종양면역치료는 질병에 대한 인체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기전을 이용한 치료법이다. 정상세포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주면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해 장기간의 항종양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종양학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는 악성흑생종에서의 면역치료법을 필두로 여러 악성종양에 대한 다양한 면역치료법이 연구되고 있다. <br/> <br/>'제7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특별강연에서는 전(前) 웁살라의대 학장이면서 유럽 신경내분비종양네트워크 설립자인 웁살라대학 내분비종양학과 쉘 오베리(Kjell Öberg) 교수가 '신경내분비종양의 진단 및 치료의 최신 개념'에 대해서 발표한다. <br/> <br/>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림대학교의과대학 미생물학과 권형주 교수가 '펩타이드 기반 항체생산을 통한 면역치료'에 대해서, 웁살라대학 면역유전병리학과 마그너스 에산드(Magnus Essand) 교수가 '바이러스 및 T-세포 조작을 통한 종양면역치료'에 대해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혈액종양내과 장대영 교수가 '소화기 암에서의 면역치료를 포함한 최신 치료 전략'에 대해서 주제 발표한다. <br/> <br/>다음으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웁살라대학 면역유전병리학과 안나 딤베리(Anna Dimberg) 교수가 '혈관 표적화를 통한 종양면역치료 결과의 향상'에 대해,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김용성 교수가 '고형암 조직 침투능을 갖는 고효율 항체 기술'에 대해서, 웁살라대학 면역유전병리학과 알렉스 칼손-파라(Alex Karlsson-Parra) 교수가 '면역증진제로서 활성화된 동종이형 가지세포를 이용한 종양치료백신'에 대해서 발표한다. <br/> <br/>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혈액종양내과 정주영 교수가 '혈액암 및 고형암에서의 면역치료'에 대해서, 웁살라대학 종양학과 구스타브 울렌학(Gustav Ullenhag) 교수가 '악성흑생종의 면역치료'에 대해서,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호 교수가 '종양면역학에서의 생체표지자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발표한다. <br/> <br/>김용선 한림대학교의료원 국제화 및 연구강화위원장은 "종양면역치료는 악성흑생종에 대한 면역치료법을 필두로 다양한 악성종양에 대한 면역치료법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종양면역치료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지식과 경험의 공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br/> <br/>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제7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스웨덴 의학연구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한림대학교의료원 교수들이 참석해 종양면역치료 분야와 관련한 최근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펼치는 등 학술교류를 통해 의학부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br/> <br/>스웨덴의 명문 웁살라대학은 5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으로 기초연구에서부터 최근 임상연구까지 미래지향적인 연구가 활발한 대학이다. 웁살라대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연구실적을 자랑하고 있으며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특히 기초와 임상의학 연구를 연계하는 중개의학연구 분야에서는 단연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br/> <br/>부속병원인 웁살라대학병원은 웁살라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1100병상 규모이며, 진단의학·마취과학 및 의료기술학부, 응급의학 및 재활의학부, 종양학·흉부 및 내과부, 신경의학부, 정신의학부, 외과부, 부인건강 및 소아과부 등 총 7개 진료부로 나눠져 있다. 각 진료부 안에는 임상과 기초의학이 함께 공존하며 기초와 임상을 바로 연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br/> <br/>한림대학교의료원과 웁살라대학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그 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교환방문, 학술교류, 연수 등 다양한 국제학술협력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24.txt

제목: [독자투고] "중약은 되고, 한약은 왜?"  
날짜: 20151008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545148  
본문:   <br/> <br/> <br/>지금 중국은 특히 중의계는 온통 축제분위기에 싸여 있다. <br/> <br/>지난 5일 발표된 2015년 노벨생리의학상에 청호(개똥쑥)라는 한약으로부터 말라리아치료제를 개발한 투유유 박사가 선정되었다. <br/> <br/>전통의학분야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의 한의계로서는 착잡한 심정이다. 동일한 계통의 전통의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으니 국적을 초월해서 축하할 만 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아쉬움도 떨칠 수는 없다. <br/> <br/>한의계뿐만 아니라 국내 의학계에서도 투박사의 노벨상수상을 놓고서 자조감이 엿보인다. 특히 올해에는 중국과 일본이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고 우리만 중간에서 쏙 빠진 듯한 씁쓸함이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기초의학이 임상의학에 비해 심각하리만치 취약하다는 자기비판도 나온다. <br/> <br/>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투유유 박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가 속한 소속기관을 제대로 표기한 국내 신문이나 전문지가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국내에서는 중의학과 관련해서 무지하다. 투 박사가 속한 기구의 정식명칭은 중국중의과학원(中國中醫科學院)이며, 1950년대 중반 모택동주석의 의지에 따라 설립된 중국의 대표적인 중의학연구기관이다. <br/> <br/>이와 비교되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상호 교차 방문하면서 연례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알러지성 비염에 대한 침의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 적도 있다. <br/> <br/>앞으로 중국중의과학원의 위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이고, 중의학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도 동반 상승할 것이다. <br/> <br/>그런데 우리 한약은 왜 안되는 것일까? 한의계 일각에서는 투유유박사로 대표되는 청호소(靑蒿素)(artemisinin, 아르테미시닌)보다 더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한약이 있다고 본다. 단국대의 최원철교수가 개발한 이성환(二聖丸)(넥시아로 알려짐)이다.  <br/> <br/>청호소는 개똥쑥으로부터 나왔고, 기원을 1700년 전 갈홍(葛洪)의 주후비급방(?後備急方)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성환은 동의보감에 기원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항암치료제이다.  <br/> <br/>아르테미시닌이말라리아로부터 수백만명의 인명을 구했다고 하지만, 넥시아로 알려진 이성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암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약이라고 관련 의료진과 그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그간 국내외 암 전문병원에서 말기전이암 진단을 받고 절망 상태에 빠져 있던다수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br/> <br/>그러나 지금 이 약은 국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중이다. 수년에 걸쳐 의사들로부터 신랄한 비난과 방해를 받아왔으며, 현재 그와 관련하여 재판도진행 중이다. 또올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이 넥시아는 불법이라 증언하였고 그에 대해그 약을 복용한 환자와 가족들이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청하고 있다. <br/> <br/>얼마 전 의사협회에서는 넥시아에 대해 본격적인 검증을 한다고 하면서 연구자를 공모하였는데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아 재공모를 하였다고 하며 그 뒤로는 소식이 없다. 당시 단국대 융합의료센터에 속한넥시아 의료진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오히려 공정한 검증을 요구한 바 있다. <br/> <br/>이제는 우리 의료가 더 이상 양한방의 갈등으로만 치닫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하고, 두 의학의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들도 우리의 한약으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br/> <br/>단국대학교 최승훈  특임부총장 [ 前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학자문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25.txt

제목: 폐지줍던 40대 실업자, 폐지분실 막으려 CCTV 훔쳐 달아나…부인은 암투병  
날짜: 2015100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528044  
본문: 직장을 잃은 뒤 폐지를 주워 암투병 중인 부인 등 가족을 간신히 부양하면 살던 40대 가장이 그나마 모은 폐지를 누군가 가져가자 이를 막겠다며 CCTV를 훔쳐 달았다가 경찰 신세를 지는 안타까운 일이 알려졌다.  <br/> <br/>그마저 고장난 CCTV를 훔쳐 다는 바람에 이 40대 가장은 단 1초도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br/> <br/>8일 서대문경찰서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철거를 앞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CCTV를 훔친 혐의(절도)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 지난달 3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알렸다. <br/> <br/>A씨는 지난 2012년 직장을 잃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교사였던 부인마저 암으로 몸져 누었다. <br/> <br/>A씨는 부인에게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다고 한 뒤 폐지 수집에 나섰다. <br/> <br/>A씨는 어르신들이 신문지 등을 모아오면 그것을 정리해 폐지 수집 업체에 넘기는 중간 단계 일을 통해 한 달에 50만~60만원 정도 벌었다. <br/> <br/>이 돈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던 A씨는 조금씩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알아 차렸다. <br/> <br/>모아둔 폐지를 밤 사이 누군가 훔쳐가는 바람에 업체에 넘기는 양이 줄었기 때문이다. <br/> <br/>이에 A씨는 폐지 절도를 막기 위해 CCTV 설치를 생각했지만 비용 때문에 포기하려다  문득 인근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 장면을 떠올렸다. <br/> <br/>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쯤 건설현장에 들어가 CCTV를 하나 뜯어왔다. <br/> <br/>경찰에 5일 만에 붙잡힌 A씨는 범행 사실이 투병 중인 아내에게 알려질까 노심초사, 조사 경찰관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만들었다. <br/> <br/>한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8월28일 오후 7시쯤 같은 건설현장에 들어가 CCTV를 절도한 혐의로 무직인 B씨(57)를 A씨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26.txt

제목: “3개월간 3㎏ 감량후 3개월 유지”  
날짜: 20151008  
기자: 서필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454072  
본문: 서울시가 시민들의 고질적 만성질환 줄이기에 나선다. <br/> <br/>서울시는 시민 5대 사망 원인 중 암, 뇌혈관 질환 등 예방 가능한 만성질환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민 건강약속 3.3.3’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br/> <br/>3개월 동안 1만명의 참여자가 3kg씩을 감량한 후 3개월 동안 유지해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을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다. 지난달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사망원인은 암 30.8%, 뇌혈관질환 8.5%, 심장질환 8.1%, 자살 5.9%, 당뇨 및 고혈압성질환 4.3% 순으로 식습관, 운동습관, 흡연, 음주 등의 생활 습관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주요 만성질환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br/> <br/>프로젝트를 위해 ‘서울시민 건강약속 3.3.3’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총 9개 약속을 만들었다. 지켜야 할 건강 생활습관 3가지(걷기, 닦기, 싱겁게 먹기), 삼가야 할 건강 위험요인 3가지(흡연, 과음, 단 음식), 이웃과 함께하는 건강공동체 3가지(자살예방, 심폐소생술, 응급차량 길 터주기) 등이다. <br/> <br/>오는 10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2015 서울시민 건강한마당’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 10명이 참여하는 건강약속 선포식을 갖는다. 프로젝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주제별 부스와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놀이터 ‘서울 선데이 파크’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br/> <br/>서울시 김창보 시민건강국장은 “<span class='quot0'>생활습관성 질병은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과 이를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건강정책 추진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예방적 건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실천을 유도할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를 통해 수명은 늘리고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27.txt

제목: DNA 복구 규명 린달 등 3명 노벨화학상  
날짜: 20151008  
기자: 권이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446271  
본문: 올해 노벨 화학상은 손상된 유전자(DNA)를 복구하는 원리를 밝혀낸 스웨덴, 미국, 터키 출신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토마스 린달(77·스웨덴) 영국 프랜시스크릭연구소 명예교수, 폴 모드리치(69·미국) 미국 듀크대 의과대학 교수 겸 하워드 휴스 연구소 연구원, 터키·미국 이중국적자인 아지즈 산자르(69)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터키인이 노벨상 과학분야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r/> <br/> 토마스 린달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는 세포가 손상된 DNA를 어떻게 복구하고 유전자 정보를 보호하는지를 분자 수준에서 밝혀냈다”며 “특히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br/> <br/> 아지즈 산자르린달은 ‘염기 절제 복구’ 연구를 통해 DNA가 일정한 정도로 붕괴되며 그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DNA가 극도로 안정적인 분자라고 여겨지던 과학계의 통념을 깨뜨린 연구 성과였다.  <br/> <br/> 폴 모드리치산자르는 세포가 자외선으로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복구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린다는 점, 세포가 돌연변이 유발 물질로 생긴 결함을 ‘뉴클리오타이드 절제복구’를 통해 고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br/> <br/>모드리치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DNA가 복제될 때 일어나는 손상을 세포가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 입증해냈다. ‘부정합 복구’로 불리는 이 메커니즘이 DNA복제 과정상의 결함 발생빈도를 낮추며 이 메커니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는 점도 규명했다. 수상자들은 상금 800만크로나(약 11억2000만원)를 나눠가지게 되며 시상식은 12월10일 스웨덴 스톡홀름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다. <br/> <br/>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28.txt

제목: "삶이 고단해"… 서울 다세대주택서 일가족 3명 사망  
날짜: 20151007  
기자: 권구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440988  
본문: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br/> <br/>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15분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모(58)씨와 아내 김모(49)씨, 고등학생 딸 이모(16)양이 숨져 있는 것을 이씨의 처조카인 김모(28)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br/> <br/>김씨는 앞서 처조카 김씨에게 등기우편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r/> <br/>김씨는 A4 용지 6장 분량의 편지에서 아내가 돈을 많이 쓰고 자신을 속이는 등 경제관념이 없어 빚이 많아졌다는 취지로 아내를 비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리고 딸이 혹시 죽지 않고 깨어나면 병원에 보내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를 받아 본 처조카 김씨는 이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br/> <br/>경찰은 안방에서 발견된 김씨·이양과 거실에서 발견된 이씨의 시신 부패 정도에 차이가 나는 점과 유서 내용 등으로 미루어 생활고를 비관한 이씨가 수면제를 이용해 아내와 딸을 죽인 후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씨는 거실에서 얼굴에 검은 비닐봉지를 쓴 채 양 손목과 발목, 무릎이 흰색 천으로 묶인 상태로 숨져 있었다. <br/> <br/>경찰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비닐 봉지가 테이프로 묶여 있고 손목을 결박한 천이 느슨한 점으로 미뤄 이씨가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테이프로 묶어 숨을 쉬기 어렵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해 둔) 매듭에 양 손을 넣은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0'>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자살을 주저하지 않도록 스스로 결박한 채 숨진 사례가 종종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이씨는 이날 시험 기간인데도 이양이 등교하지 않았다면서 전화를 걸어온 담임 교사에게 “<span class='quot1'>아내가 숨져 딸이 경황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했다</span>”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이씨의 딸이 발견된 안방 벽에는 ‘삶이 고단해 먼저 가니 부검을 원치 않는다. 깔끔하게 정리해달라’는 내용의 메모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가족이 쓰던 카드와 임대차 관련 서류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이씨는 평소 건설 현장에서 기계 운전 일을 했으며, 김씨는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씨와 같은 건물에 사는 한 주민은 “<span class='quot2'>이 집 아주머니가 몸이 안 좋아 걷기도 힘들어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2'>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지나가며 볼 때 항상 누워 있던 걸로 기억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우중·권구성 기자 kusu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29.txt

제목: 빛 산란前 모습 되살리는 ‘시간 역행거울’ 개발  
날짜: 20151007  
기자: 임정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417513  
본문: 국내 연구진이 매개체를 통과하면서 산란한 빛을 다시 집약시켜 산란 전 모습으로 되살리는 ‘시간 역행거울’(위상 공액거울)을 개발했다. <br/> <br/>카이스트(KAIST) 물리학과 박용근(사진) 교수 연구팀은 7일 움직이는 1000여개의 미세거울로 만든 장치로 거울에 입사된 빛이 거쳐온 과거의 모습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br/> <br/>연구팀에 따르면 얇은 닭 가슴살 아래에 빛을 내는 물체가 놓여 있을 경우 닭 가슴살을 통과한 빛을 일반 거울로 보면 물체 형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연구진이 개발한 시간 역행거울을 이용하면 물체가 내는 빛이 닭 가슴살을 통과하기 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br/> <br/>‘빛의 시간 역행성’은 녹화된 비디오를 되감기 하듯 빛의 진행을 되돌리는 것을 뜻한다. 쏟아진 물을 주워담듯 산란으로 흩뿌려진 빛을 다시 집약시켜 원래 영상을 복구하는 원리다. <br/> <br/>많은 학자들이 비선형 레이저 광학 지식을 이용해 이를 구현하려 했지만 실패해 지금까지는 이론으로만 가능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종전의 복잡한 물리현상을 배제하고 ‘파면제어기’라는 움직이는 미세거울 1014개를 이용해 장치를 만들었다. <br/> <br/>연구팀은 이 같은 원리를 활용해 모의 생체조직 샘플, 생닭 가슴살 등을 투과하면서 다중으로 산란한 빛을 집약시켜 산란 전의 모양을 재현해내는 데 성공했다. <br/> <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0'>심한 산란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생체조직 내부의 빛 집약이 가능해져 암세포 등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무절개 암 수술기술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됐다</span>”고 말했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30.txt

제목: 내발산동 일가족 3명 죽은채 발견돼, 손발 ?이고 얼굴에 비닐봉지  
날짜: 20151007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324051  
본문: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일가족 3명이 죽은 채 발견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br/> <br/>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다세대주택에서 이 모(58)씨와 아내 김모(49)씨, 고등학생 딸(16)이 숨져 있는 것을 이씨의 조카 김모(28)씨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br/> <br/>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 부부는 거실에서 딸은 자기 방 침대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br/> <br/>이들 3명의 시신에는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으나 남편 이씨는 얼굴에 비닐이 씌워져 있었고 손이 뒤로 묶인채였으며 무릎과 발도 묶여 있었다.    <br/> <br/>앞서 이 씨는 자신의 조카 김씨에게 등기우편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br/> <br/>A4용지 6장 분량의 편지에는  "아내의 빚이 너무 많아 힘들다. 일가친척들이 빚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편지를 본 조카는 이씨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br/> <br/>감식 결과 이들이 전날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  <br/> <br/>남편 손이 묶인 이유를 경찰은 "손목이 느슨하게 묶인 점 등으로 미뤄 자살하는 사람이 주저하지 않으려고 이 같은 수단을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br/> <br/>경찰은 딸과 아내에게서는 저항 흔적이나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남편이 아내와 딸을 먼저 죽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고 추정했다.  <br/> <br/>딸과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안방 벽에는 깔끔하게 정리해달라는 내용의 메모가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자신들이 쓰던 카드와 임대차 관련 서류를 올려 정리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이씨의 부인은 암 환자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br/> <br/>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키로 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31.txt

제목: 자연에겐 원전 사고보다 인간이 더 해로울까  
날짜: 20151007  
기자: 송민섭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242864  
본문:   <br/> <br/> ‘죽음의 땅’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 늑대와 멧돼지, 엘크 등 야생동물들이 다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서북부 체르노빌은 옛소련 때인 1986년 4월 원전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폭발과 화재, 방사능 피폭으로 8200여명이 사망하고, 170만명가량이 직간접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20세기 최악의 원전 사고로 꼽힌다. 그런데 이들 생명이 다시 체르노빌로 돌아온 계기가 슬프다. 방사능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br/> <br/>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대학과 영국 포츠머스대학 공동 연구진은 체르노빌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 종류와 개체 수가 원전 사고 직후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20여년 동안 헬기를 이용해 4200㎢에 이르는 일대 포유동물 수를 조사했다. <br/> <br/>   <br/> <br/> 조사 결과 엘크와 노루, 붉은사슴, 멧돼지 등의 개체 수는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연구진은 사고 1~10년 후 사슴과 맷돼지 수가 꾸준히 증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체르노빌 일대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부 종은 오히려 다른 일반 자연서식지보다 개체 수가 증가했는데, 늑대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7배 더 많았다. <br/> <br/>짐 스미스 포츠머스대 교수는 PA통신에 “<span class='quot0'>야생동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왕성한 회복력을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0'>다시 말하자면 생태계에겐 원전 사고보다 사냥, 개발 등 인간이 더 해롭다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셀’의 자매지 ‘커런트 바이올로지’ 최신호(5일자)에 발표됐다. <br/> <br/>체르노빌 원전 참사는 1986년 4월26일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 인접 지역에 있던 체르노빌 발전소 4호기에서 발생했다. 이 4호기는 1983년 12월에 운전을 시작한 최신 원자로였다. 사고는 정기 검사를 위해 가동을 멈추기에 앞서 실험하던 근무자가 출력을 높이려다 원자로 온도가 급증해 폭발했다. 폭발과 함께 원자로는 산산조각이 났으며 방사능 가스와 물질은 4.5㎞ 높이의 공중으로 날아갔다. <br/> <br/>   <br/> <br/> 방사능 오염 구름은 2개로 나눠져 한쪽은 벨라루스 폴란드 스칸디나비아반도를 거쳐 유럽을 강타했으며, 다른 한쪽은 동쪽으로 이동해 러시아 한국 일본 등을 지나 북미까지 흘러갔다. 당시 소련 정부는 사고 발생 3일 뒤인 29일 이를 공식 발표해 피해는 극심했다. 초기 사망자는 31명이었지만 6년 후엔 8200여명으로 늘어났다. <br/> <br/>당국은 폭발 후 3일 이내에 체르노빌 인근 거주 주민 3만명, 이후 추가로 13만명을 이주시켰다. 체르노빌 방사능 영향지역에서 갑상선 질환, 암, 백혈병 등의 발생률이 50% 이상 증가해 43만명가량이 방사능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산, 사산, 유전적 기형아 발생률도 크게 늘었다. 체르노빌 발전소에 있던 원자로들은 1991년과 96년에 폐기됐고 마지막 3호기도 2000년 12월15일 완전 가동을 중단하고 봉쇄작업에 들어갔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32.txt

제목: 국내 위암 환자 3명 중 2명은 건강검진 통해 위암 발견  
날짜: 20151007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240949  
본문:   <br/> <br/> <br/> <br/>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위암을 일찍 발견할 가능성은 위암 증상이 나타난 뒤에 병원을 찾는 사람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br/> <br/> 충남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이태용 교수팀이 2008년8월∼2013년3월 충남대병원에 첫 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 375명(남 263명, 여 112명)의 의무기록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br/> <br/>이 연구결과(위암 환자의 진단 경로에 따른 병기 및 관련요인의 차이)는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br/> <br/> 조사 대상 위암 환자 중 243명(64.8%)은 종합건강진단ㆍ직장건강진단 등 건강검진을 통해, 나머지 132명(35.2%)은 환자 본인이 증상을 느껴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가 위암 진단을 받았다. <br/> <br/> 건강검진을 통해 첫 위암 판정을 받은 환자의 74%(180명)는 위암 초기인 1기(一期) 환자였다. 반면 증상을 경험한 뒤 첫 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55.3%(73명)만이 위암 1기 상태였다. <br/> <br/> 최초 진단에서 위암 말기(4기) 판정을 받은 환자의 비율은 증상이 나타났던 환자에서 훨씬 높았다. 첫 진단에서 위암 4기 판정 비율은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서 11.4%(15명), 이렇다 할 증상 없이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에선 5.3%(13명)였다. <br/> <br/>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span class='quot0'>1기 등 초기 위암의 대부분은 증상이 없으며, 설령 증상이 있더라도 윗배ㆍ명치 통증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증상과 구분되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0'>초기 위암 진단에서 건강검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span>”고 밝혔다. <br/> <br/> 일본 학자의 연구결과(일본의 위암 스크리닝, 2000년)에 따르면 증상이 있는 사람에서 초기 위암이 발견되는 경우는 42∼58%로, 증상 없이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의 초기 위암 발견율(15∼30%)보다 두 배가량 높다. 건강검진을 통해 위암을 찾아낸 환자는 완치율(5년 생존율)도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던 환자보다 15∼3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이 교수팀은 “<span class='quot0'>국내에선 1999년부터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가정의학회는 40세 이상에서 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위 내시경이나 위 조영술을 1∼2년에 한 번 하도록 권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 국민의 암 검진 수검률이 해마다 증가 추세이지만(2008년의 경우, 공공검진ㆍ민간검진 포함 50.7%) 서구 선진국의 70∼80%에 비하면 아직 저조한 실정</span>”이라고 지적했다. <br/> <br/> 이번 연구에선 또 위암 가족력(家族歷)이 있으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위 내시경 등을 함께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암 등 소화기계 암을 가진 가족이 있는 사람, 즉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가족력이 없는 사람보다 위암에 걸릴 위험이 1.6배 높았다. <br/> <br/> 한편 위암은 ‘소리 없는 불청객’이란 별명처럼 뚜렷한 초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생 채소나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과일 등이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33.txt

제목: 요양 및 후속 치료프로그램의 선두 “무등산 생태 요양병원” 자연 속 힐링치료로 암환자들 만족도 높아…  
날짜: 20151007  
기자: 최종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232685  
본문: ▲ 자연속에서 힐링치료를 돕는 무등산 생태 요양병원광주지역의 요양병원 대부분이 야외휴식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야외 휴게시설을 설치한 광주지역 요양병원의 수는 절반이 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요양병원에서 병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요양병원은 4년 사이 두 배로 증가했지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원에 의료서비스를 접목한 기관을 찾기란 쉽지 않다. <br/> <br/>하지만 수려한 자연경관과 뛰어난 의료진들, 그리고 환자의 휴식을 최우선으로 하는 암 요양병원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담양군 남면 구산리 202-1 에 위치한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은 체력 단련실, 반신욕실, 좌욕실, 족욕실, 영화관, 일라이트 찜질방, 탁구장, 노래방, 도서관, 예배실, 골프연습장, 수영장, 요가실 등의 휴게시설로 병으로 지친 환자들의 심신을 달래주고 있다. 병원 뒤편에 마련된 편백나무 숲길을 산책하며 가족들과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다. <br/> <br/>또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에는 일체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식재료로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항암작용이 뛰어난 자연식위주의 뷔페식단과 샐러드바가 운영되어 환자들과 환자가족들의 만족이 매우 높다. <br/> <br/>환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첨단 의료장비 파동 치료기와 저주파 치료기, 고압 산소 치료기, 카본 치료기 등을 갖추고 있고, 고주파 온열 암치료, 압노바(미술토), 헤리주(자닥신), 스포츠 마사지 운동치료, 효소전신 온열 뜸, 한방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권위자 5명의 전문의와 의료적 비상 사태에 대비해 야간 당직 의사를 배치해 24시간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br/> <br/>병원이라는 딱딱한 흰 벽면의 차가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지만, 힐링 메디컬 리조트인 무등산 생태요양병원은 병실 전체를 편백나무와 황토로 만들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환자들의 힐링을 돕고 있다. 무등산 생태요양병원에서 휴식 치료 중인 최영순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휴양지에서 부족함 없이 가족들과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만족한다.”라고 전했다. <br/> <br/>요양 및 후속 치료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마련된 무등산 생태요양병원은 지리적인 접근성이 용이해, 교통이 편리하고 시내버스가 인근에 있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전남지역 암 센터로 매일 수 차례 운행하고 있고, 최근 서울에서 광주 ktx 개통으로 타 지역환자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돕고 있다. <br/> ▲환자를 가족처럼대하는 전문 의료진들 <br/>무등산생태요양병원은 전남 담양군 남면 구산리 202-1 위치해 있으며 061-380-8000 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br/> <br/>환자들의 휴식과 전문적인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무등산생태요양병원 장호직 이사장은 “효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정서상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맡기는데 꺼려하는 가족들이 많다.  <br/> <br/>하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의료진의 의료서비스,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가족처럼 환자를 생각하고, 전문 의료진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해주는 요양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고 전하며, 무등산 생태요양병원에 방문하는 환자와 가족들은 처음 요양병원을 떠올리며 망설였지만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편의시설 및 휴식을 위한 자연 경관을 보며 환자와 가족 모두 만족하는 모습을 보며 환자들의 완쾌되는 모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34.txt

제목: 음주를 즐기는 당신, 간 기능을 회복하려면?  
날짜: 20151007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231676  
본문:   <br/> <br/> 지난해 대한민국의 주류 시장규모는 세계 16위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인구를 4,300만명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약 8만cc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셈인 것.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암, 당뇨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잦은 회식으로 술자리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br/> <br/> 자의든 타의든 생활에서 음주를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이라면 주목하자. 음주 과다로 인한 간 기능 손상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간을 되찾을 방법을 제안한다. <br/> <br/>◆ 생활 속 습관 개선 <br/> <br/>운동으로 챙기는 건강: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한 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조깅, 수영, 등산, 줄넘기 등의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 간 기능 회복에 좋다. 또한 알코올 섭취로 쌓인 노폐물을 없애는 효과와 해독력도 높일 수 있어 술자리가 잦다면 운동을 병행하도록 하자.  <br/> <br/>지나치게 짜고 단 음식 피하기: 간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중요한 신체 기관 중 하나다. 간 건강을 생각한다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채소나 과일 등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 ◆ 피할 수 없다면? 알코올 흡수를 최소화 <br/> <br/>음식과 수분 섭취: 술자리를 피하기 힘들다면 최대한 속을 채운 후 술자리에 참여하도록 한다. 빈속에 마시는 술은 간에 무리를 주므로 음주 전 음식을 섭취해 알코올 흡수를 최소화고 음주 시에는 충분한 수분섭취로 알코올 분해 효과를 높이자. <br/> <br/>주 2회로 술자리 분배: 개개인의 주량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간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소주 3잔이 적절하다. 소주 한 병의 알코올이 분해되기 위해서는 10시간 이상이 필요하고 본래의 간 기능을 회복하려면 72시간이 소요되므로 술자리는 주 2회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br/> <br/> ◆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는 영양분 <br/> <br/>단백질과 비타민 섭취: 단백질 섭취는 간 세포 재생과 지방간 개선을 도와 건강한 간을 건강하게 한다. 유제품, 두부, 생선, 달걀 등을 챙겨 먹으면 적정량의 단백질과 함께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를 섭취할 수 있다. <br/> <br/>간 보호에 좋은 보약 섭취: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약을 섭취는 약해진 간을 회복을 돕는다. 탕약처럼 달여 먹는 형태가 번거롭다면 공진단처럼 약재를 분말시켜 만든 형태의 한약을 추천한다. 특히 피를 맑게 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웅담’이 함유된 보약은 간 기능을 높이는 데 좋다. <br/> <br/> 한의원 이윤대 원장(미드니)은 “<span class='quot0'>공진단의 간 보호 효과는 대한한방내과학회지 논문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간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공진단을 섭취할 경우 제조 과정과 한약재의 품질 및 청정성을 꼼꼼히 따져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조언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35.txt

제목: 동안미녀 박소현이 선택한 안티에이징 푸드 '마키베리'눈길  
날짜: 20151007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145247  
본문: 사진출처: SBS ‘해피투데이-알고먹읍시다’ 방송 캡처 <br/> <br/>젊음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계속되면서 연예계 대표 동안미녀인 박소현이 젊음의 비결로 마키베리를 꼽아 화제다. <br/> <br/> 최근 방영된 SBS ‘해피투데이-알고먹읍시다’ 코너 에서는 박소현은 “<span class='quot0'>동안외모를 위해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한다</span>”고 젊음의 비결을 말했다. 특히 “노화 방지와 면역력에 좋아 마키베리를 수시로 섭취한다”고 덧붙였다. <br/> <br/> 박소현이 꼽은 마키베리는 이미 다수의 연예인들이 즐겨먹는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푸드 중 하나다. 노화 예방에 탁월해 ‘회춘열매’라 불리는 마키베리는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없애준다. <br/>  <br/>특히 기존의 슈퍼푸드인 아사이베리나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성분을 4배 많아 새로운 안티에이징 푸드로 각광받고 있다. <br/> <br/> 이외에도 식이섬유, 철분, 비타민, 칼슘, 칼륨 등 필수 영양소를 두루 갖춰 암과 당료 등의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다. 또 변비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큰 인기를 누리는 중이다. <br/> <br/> 마키베리를 섭취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파우더 형태의 마키베리를 물에 섞어 수시로 섭취해 주거나 요거트, 샐러드 드레싱으로 이용해도 훌륭하다.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고기를 굽거나 베이킹을 할 때도 함께 조리하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br/> <br/> 이러한 마키베리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삼성제약이 출시한 ‘넘버원 마키베리’가 GS홈쇼핑에서 완판을 기록하는 등 마키베리 열풍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36.txt

제목: 임재범, "'나가수' 출연 계기? 아내 암선고 때문"  
날짜: 20151006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5901110  
본문: 임재범임재범, "'나가수' 출연 계기? 아내 암선고 때문" <br/>  <br/>임재범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과거 임재범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br/>  <br/>임재범은 과거 KBS 예능프로그램 ‘승승장구’에 출연한 바 있다. <br/> <br/> 당시 임재범은 자신의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았을 당시를 떠올리며 아내를 언급했다. <br/>  <br/>임재범은 “<span class='quot0'>한 후배로부터 ‘나는 가수다’ 출연 제의를 받았을 당시 아내가 암선고를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아내가 갑상선암을 선고 받고 많이 놀라 펑펑 울었다</span>”고 말했다. 이어 “암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4개나 발견됐다”며 “갑상선암·위암·간암·자궁암이었다. 눈물도 안나고 멍했다”라고 전했다. <br/>  <br/>또한 “암 학회에서도 처음 발견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의사는 ‘간의 60%를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라며 “위험성이 높아 고민하던 중 아내가 순리대로 따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br/>  <br/>그는 “뮤지컬 배우 출신인 아내가 아이를 키우느라 무대에 서지 못하는 스트레스로 암 선고를 받은 것은 아닌가 싶어 죄책감이 들었다”며 “그래서 집을 나왔다. 아내에겐 ‘이유가 있어서 떠나니 그동안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라’고 말해줬다”고 전했다. <br/>  <br/>한편 임재범은 이달 중 데뷔 30주년 기념 앨범 ‘애프터 더 선셋: 화이트 나잇(After The Sunset: White Night)’을 발매하고, 30~31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벌인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37.txt

제목: 노벨의학상 받은 개똥쑥, 오해와 진실?  
날짜: 20151006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5853181  
본문: 올해 노벨 의학상은 중국 전통 약초 서적을 연구하여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으로 불리는 풀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을 찾아낸 투유유(屠??·85) 중국전통의학연구원 교수. 투유유 교수는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에서 뽑아낸 말라리아 특효약 '아르테미시닌'을 개발해 1990년대 이후 말라리아 퇴치에 크게 기여했다. <br/> <br/> 투 교수는 "1600년 전 고대 의학서가 영감을 줬다"며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에서 추출한 아르테미시닌은 현대 과학과 전통 의학이 결합한 성과물"이라고 말했다. <br/> <br/> ◆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이란? <br/> <br/><span class='quot0'>개똥쑥</span>은 국화과 쑥속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이다. 이 식물체를 손으로 뜯어서 비벼 보면 “개똥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서양에서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의 학명“Artemisia Linne"은 “Artemisia”가 부인병에 유효하다는 뜻으로 그리스 신화의 "Artemis"여신을 기념하여 “Linne"가 명명되었다고 한다. 투 교수가 말라리아 치료제로 추출한 성분인 아르테미신도 학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r/> <br/>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의 효과 <br/> <br/>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은 항산화 및 항균 효과(유해 미생물 증식 억제 효과)가 보고되었고 다양한 종류의 암에 대한 증식억제 활성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에 함유된 아르테미신은 피부 과민 반응에 대한 억제작용이 있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산화,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임상 시험 결과로서 구강 점막염, 신경성 피부염, 여름의 입마름, 다한증, 체력저하에도 유효함이 알려져 있다. <br/> <br/> 한의학적으로는 음이 허하여 열이 나는 증상을 완화하는 약으로 발열, 학질에 쓰이고 소화불량이나 이질에도 효과가 있다. 간과 담의 경락에 배속되어 황달이나 급성 간염에도 응용할 수 있다. 고서에는 독충에 물렸을 때나 뱀에 물린 상처, 각종 피부병에도 외용제로 쓰인 기록이 있다.  <br/> <br/>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의 오해와 진실 <br/> <br/> 우리나라에도 한때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이 만병 통치약처럼 알려져 무분별한 재배와 상품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br/> <br/>(1) 흔히들 알려진 기존의 항암약보다 1200배 가까이 되는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암세포만을 공격하도록 처리한 성분을 이용한 연구이고 생약을 그대로 쓴 연구는 아니다.  <br/> <br/>(2) 상기 연구는 세포 실험적 연구로서 임상실험을 거쳐 상용화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 투 교수가 연구한 아르테미신 역시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에서 추출한 성분으로서 추출하지 않은 <span class='quot0'>개똥쑥</span> 자체에는 아르테미신 함량이 매우 낮아 직접적인 항말라리아 효과를 내기 어렵다. <br/> <br/>(3)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의 대중성으로 말미암아 유사한 약초의 범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쑥의 종류 및 변종에 해당하는 식물은 60여 종인 넘고 <span class='quot0'>개똥쑥</span>과 유사한 쑥속에 해당하는 식물도 더위지기, 사철쑥, 일반쑥, 황해쑥 등 여러 가지다. 약초의 효능에 대해서도 엄청난 편차가 존재하고 약초의 기원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에 순도와 표준화된 품질 보증이 중요하다. 신뢰할 만한 공급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복용하기 전 한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한다. <br/> <br/>(4) 한의학적으로는 청호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냉한사람은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다. 비위 허약자는 복용을 금해야 하며 허증이나 한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r/> <br/> ◆<span class='quot0'>개똥쑥</span> 복용법 <br/> <br/> 한의학적으로는 보통 여름철 미열, 식욕부진, 기력 감퇴, 감기 등에 다른 약재와 같이 전탕하여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처럼 끓여서 복용하거나 티백에 넣어 우려먹을 수 있다. ?속이 찬 사람이나 변이 묽은 사람들은 전문가의 상담 후 복용 하도록 한다. <br/> <br/>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38.txt

제목: 골 때리는 암에서 더 고약해지는 암..정녕‘넘사벽’인가?  
날짜: 20151005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5346046  
본문: 우리나라 암환자 발병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시도•연령별 중증(암)등록환자의 암 유형별 등록 및 진료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가 2009년 76만3983명에서 2013년 143만7310명으로 5년 만에 약 두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br/> <br/> 이는 국내 암 환자는 2013년 말 기준으로 20세 이상 성인인구 4028만 여명의 3.5%에 달한다. 따라서 암환자 수 증가로 인해 암이 재발하거나 늦게 발견해 공식적인 치료법이 없는 4기 말기암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br/> <br/> 1976년 노벨 생리학-의학상 수상자 마이클 비?(미국)은 “암은 못 고치는 병”이라 했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찾았던 암치료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MD 앤더슨 암센터(M.D.Anderson Cancer Center)의 종신교수 김의신 교수는 “ 암은 초기에도 전신병 일 수 있다. 4기암 치료법은 없다” 고 말했으며, 미국 암의사회는“진행암(Advanced Cancer)은 못 고치는 병이고 현재 치료법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 <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영웅들에 의해 진보와 발전을 해왔듯이 ‘넘을 수 없는 사람의 한계(이하 넘사벽) 말기 4기암에 대해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하기 위해 도전하는 의학 영웅들이 있어 소개한다. <br/> <br/> ◆ 넘사벽 ‘4기암’에 도전하는 의학 영웅- 대체요법인 거슨요법의 창시자인 막스거슨박사 <br/>  <br/>최초의 시도는 1900년대 노벨상 수상자 슈바이처 박사의 주치의로 알려진 독일태생의 의사인 막스 거슨 박사(Dr.Max Gerson)에 의해 이루어졌다. 슈바이쳐 박사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의학자이자 명의라고 격찬했던 거슨 박사는 대체의학인‘거슨요법’을 창안했다. <br/> <br/> 거슨요법은 거슨 박사 자신의 편두통치료에서 시작되었는데 기존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자 이에 대한 특별한 치료방법을 연구하던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식사요법을 개발했다. <br/> <br/> 거슨요법은 유기농 야채즙과 곡식으로 구성된 무염 식이요법과 제독을 위한 커피 관장을 커다란 특징으로 한다. 철저한 관장으로 장벽에 붙어있는 독소들을 제거하고, 각종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흡수가 빠른 수분형태로 공급해 혈액의 성질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면 암은 물론 모든 질병이 저절로 소멸하거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br/> <br/> 이 후 1928년 기존 의료계에서 포기했던 말기 암 환자에게 이 치료법을 적용하여 놀라운 효과를 보임으로써 거슨 박사는 암 치료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1935년 히틀러의 등장으로 미국으로 이민해 1938년 미국의학협회 회원이 되었고,1942년부터 비정규적 치료로 암환자를 치료하여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br/> <br/> 그러나 거슨 박사도 텍사스 의대 검증에서 초-중기 암을 거슨요법의 자연치료로 고쳤을 뿐 4기암에 대한 약리적 효능의 검증은 실패했다. <br/> <br/> ◆ 넘사벽 ‘4기암’에 도전하는 의학 영웅- 말기암환자 치료에 성공한 스티브 로젠버그 박사 <br/>  <br/>두번째 말기 암 정복에 도전한 이는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면역학적 치료법의 선구자로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NCI)의 스티브 로젠버그 박사(Dr.Steve Rosenburg) 를 들 수 있다. <br/> <br/> 2006년 CNN과 월스트리트 저널에 대서특필된 레이건 대통령 주치의였던 로젠버그 박사는 수술 불가 판정을 받은 말기 위암 환자가 저절로 완치된 사례를 경험한 뒤 면역학적 치료법이 암 정복을 위한 가장 유망한 방법이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의 연구의 시발이다. <br/> <br/> 현재 개발된 암 치료법은 외과적 수술로 암을 제거한 후 잔존하는 암세포를 방사선 요법과 화학요법으로 파괴하거나 면역증강제를 투여하는 면역 요법을 병용함으로써 암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항암제에 노출된 잔존 암세포들이 내성을 획득하고는 성장을 계속하고 급기야 다른 장기로 전이돼 치료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 환자가 사망하게 된다 <br/> <br/> 이에 반해 로젠버그 박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전자 치료법을 연구하는 정통 의학에 의한 암 정복의 선구자이다. <br/> <br/> 로젠버그 박사는 암세포가 전이된 진행성 흑색종(피부암, Melanoma) 환자 2명의 혈액에서 채취한 백혈구를 유전적으로 조작해 다시 환자에게 투입하는 면역요법으로 완치시켰다. <br/> <br/> 로젠버그 박사의 면역요법으로 치료했던 환자 2명 중 한 사람인 52세 남자의 경우는 19개월이 지났어도 암이 재발하지 않았고, 또 다른 30세의 남자 환자는 종양이 사라져 18개월 생존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br/> <br/> 그러나 함께 치료한 나머지 15명의 암환자에게는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면역요법이 여러 종류의 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아직은 더 필요하다 <br/>. <br/>그럼에도 로젠버그 박사는 유전자 치료법인 면역요법으로 암 증식이나 재발 없이 4기암 환자 2명을 13개월 이상 생존하게 해 말기 4기암 치료에 최초로 성공했다. <br/> <br/> ◆ 넘사벽 ‘4기암’에 도전하는 의학 영웅-’4기 암환자 1년 생존’의 벽을 깬 방영주 교수 <br/> <br/> `4기 암 1년 생존의 벽`을 한국 최초로 깬 넘사벽 피플 서울의대 방영주 교수‘넘사벽’ 말기 암 정복에 도전하는 외국사례처럼 우리나라에도 4기암 환자 1년 생존의 한계를 깨뜨려 넘사벽피플의 반열에 선 서울의대 방영주 교수가 있다. <br/>(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2185  참조) <br/> <br/> 방 교수는 경기고 졸업 후 서울의대에 차석으로 입학하여 32살의 젊은 나이로 서울의대 내과 교수로 임명되어 국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전문의로 출발했다. <br/> <br/> 이에 2010년 방 교수는 유명 제약사의 중증 4기 폐암 환자 단일항암제 임상시험에서 13개월 이상 생존에 성공했다. 방 교수는 이 사실을 다국적 임상 교수들과 함께 논문으로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최초로 발표 해 ‘중증 폐암과 위암 환자의 생명을 1년 이상 연장시킨 임상의학의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았다. <br/> <br/> 방 교수의 연구 업적이전에 기존 항암제로 치료할 수 없는 중증 4기암 환자에게 임상 시험은 마지막 희망이었고,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한 항암 신약에 대한 초기 임상 시험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했다. <br/> <br/> 이에 반해 국내 임상분야는 초보 단계였지만 오로지 어떻게든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방 교수는 임상 연구에 몰두했고 그 결과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거두었다. <br/> <br/> 방 교수의 임상시험 결과 신약은 국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트라스투주맙’의 표적 치료제였고, 2010년 6월 방 교수의 논문은 아시안인 최초로 미국임상종양학회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br/> <br/> 방 교수의 임상 시험결과 이전에 단일항암제로 치료한 4기 중증 암환자들의 생존기간은 3~4달에 불과했지만, 방 교수의 트라스투주맙을 병행한 암 환자 그룹은 평균 13.8개월로 기존 환자들보다 더 살수 있었다. 방 교수는 단일 항암제를 사용해 사상 최초로 ‘중증 4기암’ 환자들의 생존을 1년 이상 연장시켜 ‘ 4기 암 1년 생존’의 벽을 한국 최초로 깬 넘사벽 피플이다. <br/>(https://drive.google.com/file/d/0B4YExLnpp\_OwWFB1THNmajdjY2c/view?pli=1  참조) <br/> <br/> ◆넘사벽‘ 4기암”완전관해의 경우 13개월이 최고 기록 <br/> <br/> 보통 4기암 환자는 6~8개월 생존하며 중증 암은 3개월 이내에도 사망할 수 있다. 그래서 진행암(Advanced Cancer) 소위 4기암은 환자에게는 사형신고라고도 한다. <br/> <br/> 이에 환자와 가족들은 육체적?경제적 손실을 희생하며 치료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다. 항암 단일치료에도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지만 아주 극소수 환자에게 수 십종의 항암 치료약이 번갈아 투여 되어 5년 생존자가 기록상으로는 존재한다. 그러나 치료의 재현성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br/> <br/> 또한, 암환자의 진단 당시 동반했던 임상증세에 따라 완전관해와 부분관해의 상태로 나뉜다. 완전관해는 항암치료나 이식 후에 암 세포가 관찰되지 않은 것이고, 부분관해같은 경우는 항암치료나 이식 후에도 암 세포가 관찰될 정도로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br/> <br/> 결론적으로 진행암인 말기암의 경우 13개월의 마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 과학적 최소 재현성을 통과한 것은 로젠버그의 정규 임상이 아닌 예비 시험 임상에서13~18개월 내외 완전관해 예로 두 명의 성공과 정규 임상시험에서 우리나라 방영주 교수가 성공한 1년 남짓 폐암 4기 생존성공이 사실상 처음이라는 것이 암 학계의 전설이다. 그러나 4기암 완치라는 60개월생존을 성공한 단일치료 성공은 아직 단 1건도 없다. <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처럼 넘사벽에 도전하는 인류의 몇몇 의학 영웅들에 의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39.txt

제목: “쌀쌀한 환절기, 따뜻한 차 음료로 건강 챙기세요”  
날짜: 20151005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5331785  
본문: 10월의 첫날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전날 대비 10도 가량 기온이 떨어졌고, 설악산 지역에서는 첫 얼음이 관측되었다. 이런 날씨에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와 각종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평소에 따뜻한 차 음료를 마시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즘같이 쌀쌀한 환절기 감기 예방에 그만이다. 이런 시기에 발맞추어 커피전문점들이 소비자들의 쌀쌀한 기운을 달래줄 따뜻한 차 음료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br/> <br/> 커피전문점 드롭탑(DROPTOP)은 최근 우리 차 3종 메뉴를 새롭게 출시했다. 종류는 ▲고흥 유자차 ▲문경 오미자차 ▲광양 매실차 3종으로 국내 대표 산지 재료로 만든 우리 음료에 신선한 과일이 믹스된 제품이다. <br/> <br/> 고흥 유자차는 청정지역 고흥의 대표 농산물인 유자로 만든 유자청에 신선한 자몽, 레몬, 오렌지가 더해져 상큼함이 가득하다. 특히 유자는 비타민C의 함량 레몬보다 3배나 높아 감기, 신경통, 중풍의 치료와 예방에 유효하며 암 예방 효과도 있다. 혈액의 흐름을 도와주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 류머티스에도 도움을 준다. <br/> <br/> 문경 오미자차는 청정지역 문경의 오미자로 만든 오미자청에 신선한 자몽, 레몬, 오렌지가 더해져 새콤함이 가득하다. 오미자는 유기산이 많아 세포의 산성화를 막아주어 노화방지에 좋고 혈당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에도 좋다. 이와 더불어 소화불량에 효과가 좋은 광양에서 자란 매실로 만든 광양 매실차도 함께 선보여 건강함과 풍부한 맛을 가득 담았다. <br/> <br/> 이외에도 아모레퍼시픽의 차(茶) 브랜드 오설록, 커피전문점 이디야커피도 각각 가을 시즌을 맞아 신메뉴 ‘호지차 라떼’, 과일차 음료인 '레몬뷰티' 등을 출시했다. <br/> <br/> 드롭탑 마케팅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환절기에는 쌀쌀해진 기온 탓에 따뜻한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국내산 원재료만을 사용한 차 음료를 통해 피로를 떨쳐버리고 건강을 챙기면 좋겠다</span>”고 전했다. <br/> <br/>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40.txt

제목: ‘만병통치약’ 건강식품 과장광고…일당검거  
날짜: 20151005  
기자: 한승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5318583  
본문: 암과 치매가 낫는 약인 것처럼 과장 광고로 노인들에게 수억원대의 건강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br/> <br/>5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단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허위·과장광고 하는 방법으로 수억원대의 식품을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51)씨와 최모(51)씨를 구속했다. 또 영업에 가담한 송모(46)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br/> <br/>이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나주시내의 한 건물을 빌려 소위 ‘떳다방’을 열고 매일 50∼300여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span class='quot0'>흑삼과 녹용이 암과 치매가 낫는 만병통치약</span>”이라고 과장광고? 했다. 이로 인해 2억3000만원 상당의 식품과 의료기기를 판 혐의를 받고있다. 같은 수법으로 여행상품 등 총 8억9000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고 있다. <br/> <br/>이들은 암에 걸린 노부부에게 “흑삼을 먹으면 암이 완치된다”며 식품을 팔았다. 게다가 경운기 사고로 장애를 입어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할머니에게 “속옷을 입으면 허리가 펴진다””며 보정속옷을 비싼 값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br/> <br/>또한 노인 고객들을 각 영업팀장과 한 팀으로 묶어 팀별 실적 경쟁을 유도하며 실적이 저조한 팀장은 해고한다고 속여 노인들의 동정심을 유발해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수법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br/> <br/>이에 경찰은 전국에 떳다방 물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망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br/> <br/>나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41.txt

제목: `복면가왕` 태권브이 후보 황치열,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인정해주신 적 없다"  
날짜: 20151005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5225946  
본문: `복면가왕` 태권브이 후보 황치열`복면가왕` 태권브이 후보 황치열,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인정해주신 적 없다" <br/> <br/> ‘복면가왕’ 태권브이의 정체로 가수 황치열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황치열 가족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br/> <br/> 황치열은 지난 5월 KBS ‘불후의 명곡’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노래, 가족 특집’에 출연해 인순이의 ‘아버지’를 선곡했다. <br/> <br/> 당시 방송에서 황치열은 “암 판정을 받았던 아버지가 투병 중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인정해주신 적이 없다”며 “이번 무대를 통해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다”고 선곡 이유를 밝혔다. <br/> <br/> 황치열의 무대를 본 설운도는 “아버지는 가슴으로 듣는다. 눈물도 가슴으로 우실 거다”며 “아버지가 무표정으로 들으셨다하더라도 가슴으로 많이 우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 복면가왕 태권브이 황치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복면가왕 태권브이 황치열, 안타깝네요” “복면가왕 태권브이 황치열, 인정하셨을거에요” “복면가왕 태권브이 황치열, 진짜 황치열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한편 황치열은 2007년 ‘치열’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싱글 ‘한 번만’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이후 그룹 015B의 객원보컬과 웬즈데이의 멤버로 활동했다. <br/> <br/> 약 9년간 무명 가수였던 황치열은 지난 4월 '불후의명곡' 서유석 편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으며 최근 MBC '복면가왕'의 '태권브이'의 정체가 황치열이 아니냐는 추측으로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42.txt

제목: 새누리 고문들 "공천 룰 절충안 찾아라"  
날짜: 20151004  
기자: 황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5053803  
본문: 국회의장을 지낸 원로인 새누리당 상임고문들은 4일 공천룰을 둘러싼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 간 힘겨루기는 ‘패권·권력다툼’이라고 지적하며 타협을 통한 절충안 마련을 촉구했다. <br/> <br/>비박 측은 계파정치 청산을 위한 전략공천 폐지를, 친박 측은 문제 있는 현역 의원 물갈이를 위한 전략공천 유지를 주장하며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게 원로들의 인식이다. 이들은 “패권싸움은 끝이 없고 맞붙으면 공멸한다”며 양측에 양보를 주문하며 전략공천을 부분적, 기술적으로 용인할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br/> <br/> 김수한 前 의장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정당정치에서 최악의 근원이며 악폐인 전략공천을 없애야 하고, 그것을 이상(理想)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전략공천이 전혀 없을 수 없다. 사람 사는 세상에 절대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br/> <br/> 박관용 前 의장박관용 전 의장은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치고 국회의원 안 된 사람 없다. 자기 사람을 공천하는 양김식 정치를 탈피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우리 정치의 암적인 존재이며 폐단인 계파·계보정치를 종식하려면 조금 문제 있는 룰이더라도 결정적 흠이 아니면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법이 없다. 자기주장을 조금씩 굽히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를 욕할 이유가 없다”고 충고했다. 그는 전략공천과 관련해 “새피를 수혈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하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며 “전략공천이 순엉터리라고 할 수 없지만 더 큰 병폐가 그 속에 있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br/> 박희태 前 의장박희태 전 의장은 “어떻게 (전략공천을) 하나도 하지 말라며 문을 닫을 수 있나. 타협점이 나와야 한다”며 “대도무문의 통큰 정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r/> <br/>원로들은 5일 출범하는 공천방식을 논의할 특별기구에서 정치적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전 의장은 “<span class='quot0'>계파 간 나눠먹기하면 붕당정치, 패거리정치가 될 것</span>”이라고, 박 전 의장은 “<span class='quot0'>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전투구가 될 것이 뻔하다</span>”고 우려했다. 박 전 의장은 “<span class='quot1'>양측이 오더(지시)대로 움직이면 당은 망한다</span>”고 고언했다. <br/> <br/>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43.txt

제목: 마이크 아빌레스, 암 투병 딸 위한 감동의 그라운드 "네가 가면 나도 간다"  
날짜: 20151004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4934319  
본문:   <br/> <br/> 암 투병으로 머리가 빠져가는 딸을 위해 삭발을 하고 야구장에 나선 아버지와 그의 동료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전하고 있다. <br/> <br/> 4일 방송된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는‘감동의 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마이크 아빌레스의 이야기를 다뤘다. <br/> <br/> 마이크 아빌레스는 백혈병 판정을 받은 딸 아드리아나가 항암치료로 인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자 아드리아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삭발을 하고 딸의 앞에 나타났다. <br/> <br/> 그리고 얼마 후 클리블랜드의 모든 선수들과 구단주, 코치진, 감독까지 삭발을 하고 경기장에 등장해 관중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br/> <br/> 그 뒤 클리블랜드 구단은 마이크 아빌레스를 트레이드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딸 아드리아나가 계속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44.txt

제목: 나혼자산다 김인석, 사랑꾼 아내 한마디에 결혼 결심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낸 특별한 사람..."  
날짜: 2015100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4740587  
본문: 나혼자산다 김인석, 사랑꾼 아내 한마디에 결혼 결심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낸 특별한 사람..."나혼자산다 김인석, 사랑꾼 아내 한마디에 결혼 결심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낸 특별한 사람..." <br/> <br/>'나혼자산다' 김인석이 방송인 안젤라 박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사연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지난 2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는 개그맨 김인석, 안젤라박 부부의 신혼집을 찾아갔다. <br/> <br/>이날 전현무는 “결혼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물었고, 이에 김인석은 “사실 제가 아팠다. 암이었다. 갑상선암이었다”며 운을 뗐다.  <br/> <br/>김인석은 이어 “5년 됐다. 완치가 돼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며 “아내에게 감사한 게 싫어할 줄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오빠가 특별해 보인다’고 하더라.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서 특별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하더라. 그 얘기가 너무 고마웠다”라며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br/> <br/>특히 김인석은 “내가 너무 고맙더라. 결혼할 생각을 했다. 안젤라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병원에서 수술한다고 사인을 하라는데 사인할 사람이 없었다. 내가 사인한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더라”라며 두 사람의 연애시절을 공개했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45.txt

제목: 살인마가 묻어둔 비밀은… 에드거상 수상 추리물  
날짜: 20151003  
기자: 정승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4713131  
본문: 앨런 에스킨스 지음/강동혁 옮김/들녘/1만4000원우리가 묻어버린 것들/앨런 에스킨스 지음/강동혁 옮김/들녘/1만4000원 <br/> <br/>신간 소설 ‘우리가 묻어버린 것들’은 로즈버드 어워드의 최우수 미스터리 데뷔작을 수상한 작품이다. <br/> <br/>20년 경력 변호사인 저자 앨런 에스킨스는 형사사건 전문으로, 온갖 사건을 처리한 베테랑이다. 이 작품은 에드거 어워드, 미네소타 북 어워드, 앤서니 어워드, 배리 어워드, ITW 스릴러 어워드에서 각각 최고 데뷔작으로 선정됐다. <br/> <br/>주인공 조 탤버트는 알코올 중독에 조울증 환자인 어머니와 자폐증 동생을 버리고 대학으로 도망쳤다는 죄책감을 안고 사는 가난한 대학생이다. 한 인물을 인터뷰해 전기문을 쓰는 과제를 위해 요양원을 찾아간 조는 마치 운명에 이끌리듯 30년 전 이웃집 소녀를 살해하고 창고에서 시신을 불태운 잔인한 살인마, 칼 아이버슨을 만난다. 그는 암 말기로, 세 달 정도 남았을 임종을 앞두고 조에게 ‘마지막 증언’을 하고 싶다고 한다. 조는 칼이 털어놓는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웃집의 매력적인 여대생 라일라와 함께 이들이 묻어두고 살았던 것들을 파헤치러 나선다. <br/> <br/>김신성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46.txt

제목: 상속 다툼에… '황혼 재혼' 막는 자식들  
날짜: 20151002  
기자: 김민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4601292  
본문: “<span class='quot0'>지금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주세요.</span>” <br/> <br/>60대 여성 A씨는 어느 날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 B씨의 자녀들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20년 전 자신보다 스무 살이나 많은 B씨와 만나 함께 살던 A씨는 B씨의 식당에서 조리를 도맡아 하고, B씨가 사망하기 5년 전 치매를 앓자 간병도 했다. ‘새어머니’ 역할을 성실히 했다고 여겼던 A씨는 자식들로부터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서 나가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 분노했지만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망연자실했다. <br/> <br/>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령화로 황혼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면서 나이 든 부모의 재혼에 반대해 자식들과 재산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br/> <br/>2년 전 세상을 떠난 김모(사망 당시 68세)씨는 본처와 협의이혼하고 나서 만난 C씨와 동거를 시작, 11년간 사실혼관계로 지냈다. 김씨는 숨지기 1년 전 암 판정을 받고, C씨는 김씨의 간호를 하다 김씨가 숨지기 3달 전에 관할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김씨가 세상을 뜨자 김씨와 전처 사이의 딸은 “<span class='quot1'>아버지와 C씨의 혼인을 무효로 해 달라</span>”며 소송을 냈다. 딸은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틈을 타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혼인신고서에 김씨의 서명이 있고, 당시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다는 병원기록이 존재하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배인구)는 마침내 원심과 같이 “<span class='quot2'>김씨의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span>”며 C씨의 손을 들어줬다. <br/> <br/>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상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별 등으로 새롭게 시작한 노년의 사랑은 현실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 당사자들은 초혼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나 ‘남세스럽다’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관계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br/> <br/>현행법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순 있지만,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는 없다. 이 때문에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던 배우자가 다른 한쪽의 사망을 앞두고 뒤늦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재산 상속에 불리해진 자식들이 소송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 <br/> <br/>법조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3'>늙어서 홀로 된 노인들이 자식에게 부양과 간병의 짐을 지우기 싫어 새로운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는데 막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 때문에 태도를 바꾸는 자식들이 많다</span>”고 말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47.txt

제목: "키 평균보다 10㎝ 클수록 암 위험 최고 30% 상승"  
날짜: 20151002  
기자: 박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4614079  
본문: 키가 평균치에 비해 10㎝ 클수록 암 발병 위험이 최고 30%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은 2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 카롤린스카연구소와 스톡홀름대 연구진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소아내분비학회(ESPE) 연례 회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br/> <br/>연구진은 1938∼1991년에 태어난 신장 100∼225㎝의 스웨덴 성인 남녀 550만명의 병역과 암 등록 자료, 여권 등을 분석한 결과, 키가 평균치보다 10㎝ 클수록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흑색종 발병 위험이 30% 커졌다고 밝혔다. <br/> <br/>키가 평균보다 10㎝ 큰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위험이 20% 증가했다. 또 암의 종류를 불문하고 키 10㎝당 암 발병 위험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18%, 11%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신장과 암의 관계에 대한 최대 규모의 연구</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이전 연구들처럼 신장과 암의 인과관계(cause-and-effect relationship)가 아닌 연관성(association)을 입증한 것</span>”이라고 평가했다. <br/> <br/>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48.txt

제목: 공판장 포도 60상자 받아 도망친 뒤 팔아치운 60대  
날짜: 2015100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4519713  
본문: 포도를 사달라고 농산물공판장 중개인에게 부탁해 받은 포도상자를 들고 도망친 뒤 이를 팔아 돈을 챙긴 60대가 붙잡혔다. <br/> <br/>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문모(6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br/> <br/>문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9시 50분쯤 광주 북구 각화동 농수산물공판장에서 포도 120상자(도매가 80만원)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문씨는 중개인에게 포도를 싼값에 낙찰받아 달라고 부탁, 포도를 건네 받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 <br/> <br/>문씨는 포도를 트럭에 싣고 전주시내를 돌며 헐값에 팔아 넘겼다. <br/> <br/>문씨는 "6년 전 암 수술을 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어렵게 살다가 명절을 앞두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49.txt

제목: "키가 평균보다 10㎝ 클수록 암 위험 최고 30% 증가"  
날짜: 20151002  
기자: 박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4518667  
본문: 키가 평균치에 비해 10㎝ 클수록 암 발병 위험이 최고 30%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은 2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 카롤린스카연구소와 스톡홀름대 연구진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소아내분비학회(ESPE) 연례 회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br/> <br/>연구진은 1938∼1991년에 태어난 신장 100∼225㎝의 스웨덴 성인 남녀 550만명의 병역과 암 등록 자료, 여권 등을 분석한 결과, 키가 평균치보다 10㎝ 클수록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흑색종 발병 위험이 30% 커졌다고 밝혔다. 키가 평균보다 10㎝ 큰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위험이 20% 증가했다. 또 암의 종류를 불문하고 키 10㎝당 암 발병 위험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18%, 11%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연구 대상에 포함된 스웨덴 남성과 여성의 평균 신장은 각각 180㎝, 170㎝였다. <br/> <br/>다만 연구진은 큰 키가 개인 차원에서 암을 일으키는 유일한 요인도, 흡연이나 비만, 부실한 식단보다 더 위험한 발암 요인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br/> <br/>키와 암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이유는 불분명하다. 이번 연구를 이끈 카롤린스카연구소의 에멜리에 베니 박사는 “<span class='quot0'>키가 큰 사람들이 암 발병을 촉진시키는 성장 호르몬이나 암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세포를 몸에 더 많이 갖고 있거나 암과 연관이 있는 칼로리 섭취량이 더 많기 때문일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pan class='quot1'>이번 연구는 신장과 암의 관계에 대한 최대 규모의 연구</span>”라면서 “<span class='quot1'>이전 연구들처럼 신장과 암의 인과관계(cause-and-effect relationship)가 아닌 연관성(association)을 입증한 것</span>”이라고 평가했다. <br/> <br/>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50.txt

제목: 노바티스 폐암치료제 자이카디아, 환자 삶의 질 개선 효과 입증  
날짜: 2015100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4513941  
본문: 최근 미국에서 열린 제16회 세계폐암학회(WCLC)에서 ALK+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자이카디아(Zykadia 성분명: 세리티닙)에 대한 환자성과보고(PROs) 결과가 발표되었다. <br/> <br/>환자성과보고(PROs)는 자이카디아가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증상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로, 폐암증상지표(Lung Cancer Symptom Scale: LCSS)와 유럽암연구치료기구(EORTC: European Organis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의 QoL(Quality of Life) 질문지(QLQ-C30, QLQ-LC13)를 통한 환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br/> <br/>연구분석 결과,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기존 ALK 억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가 자이카디아를 복용 했을 때 폐암증상지표 상에 삶의 질과 관련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폐와 관련된 증상완화(Symptom burden), 기침, 숨가쁨 등의 전반적인 증상이 평균 -3.4에서 -11.4로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br/> <br/>특히 기침과 흉통이 가장 크게 완화되었다. 폐암증상지표는 증상이 없는 상태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갈수록 증상이 개선됨을 의미하며, '-10' 부터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환자의 82.1%가 폐암증상지표와 유럽암연구치료기구 QoL질문지를 통해 폐암과 관련된 주요 증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br/> <br/>이러한 결과는 암이 뇌에 전이된 상태에서 연구에 참여한 환자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1이는 자이카디아 치료가 뇌전이 유무에 관계없이 환자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QoL)을 개선함과 동시에 ALK+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지속적인 효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br/> <br/>이번 연구는 노바티스 자이카디아 제2상 임상연구인 ASCEND-3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ASCEND-3임상연구는 기존에 최대 세 차례 화학 요법 치료를 받았거나 ALK 억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 총 12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추적 관찰 기간 중앙값은 8.3개월이었다. <br/> <br/>전체 환자의 질병조절률(DCR : Disease Control Rate )은 89.5%, 반응지속기간(DOR : Duration of Response)은 9.3개월이었다. 암이 뇌에 전이된 환자의 경우 질병조절률(DCR)은 86.0%, 반응지속기간(DOR)은 9.1개월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자이카디아의 환자성과보고(PROs) 연구를 주도한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박근칠 교수는 "암환자 치료에 있어 삶의 질은 생존만큼 중요하다"며 "특히 암이 뇌에 전이된 것과 상관 없이 기침과 흉통 등 폐 관련 증상이 크게 개선된 것은 고무적인 결과이며 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나은 일상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한국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곽훈희 대표는 "자이카디아가 기존 ALK 억제제인 크리조티닙 치료에 내성을 보이거나 치료 후에도 암이 진행된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위한 새롭고 획기적인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바티스는 환자들의 지속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ALK 유전자 재배열로 인한 ALK+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약 2-7% 에서 발생하며, 이 환자군은 ALK 억제제를 통한 표적 치료의 대상이 된다.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은 평균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연령대보다 젊으며, 대부분 흡연 경험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51.txt

제목: 차병원그룹 차바이오텍 ‘제 4회 암 정복 국제 세미나’ 성료  
날짜: 20151002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4422999  
본문: 강연 중인 차움병원 조성훈 교수차병원그룹 (주)차바이오텍은 지난 1일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항암면역세포 치료법인 AKC면역세포 요법’ 등을 중심으로 '제4회 암 정복 국제 세미나'를 열고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br/> <br/> 차병원그룹의 계열사인 ㈜차바이오텍과 일본 차병원, 그리고 ㈜중입자치료지원센터코리아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국제 세미나는 암 치료 최신기술이라 일컫는 항암면역세포 치료법인 AKC면역세포 요법 등 암 치료 방법 등에 대해 각 분야 국내외 명사들을 초빙하여 강연했다. <br/> <br/>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일본 면역세포전문 의료기관인 차바이오텍 계열 도쿄셀클리닉(일본 차병원)의 이태흥 원장과 국내 면역 치료의 대가 차움 면역증강센터 조성훈 교수 등이 참여해 NK세포를 이용한 항암 면역세포 요법인 ‘AKC면역요법’과 면역세포 요법의 우수성, 면역치료의 역할과 면역세포요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강연해 큰 화제를 모았다. <br/> <br/> 또 일본 중입자선 치료 관련 최고 권위자인 일본국립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NIRS) 중입자의과학센터 카마다 다다시 센터장, 노다 코지 박사와 야마다 시게루 박사 등이 중입자선 치료의 현 상황과 미래 그리고 소화기 암에 대한 중입자선 최신 치료법 등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br/> <br/> 중입자선 암 치료 기술은 일본의 국책연구소인 국립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NIRS)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여 1994년 가동한 치료방법이다. <br/> <br/> 한편 차병원그룹은 세미나에 앞서 지난 9월 암 치료 권위자 김주항 교수를 비롯 문용화 교수, 전홍재 교수, 김찬 교수, 임선민 교수, 최경주 교수 등 종양내과 의료진 6명을 동시에 대거 영입한 바 있다. <br/> <br/> 차병원그룹은 이번 암 치료 국제 세미나와 암 치료 명의 영입 등을 통해 암 진료 및 암 유전자 치료 연구에 있어 임상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국내 최고 수준의 선진 암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향후 분당차병원이 암 치료의 중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r/> <br/>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52.txt

제목: ‘용팔이’ 마지막회, 김태희 주원 진한 키스로 사랑 확인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야”  
날짜: 20151002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4326863  
본문: ‘용팔이’ 마지막회, 김태희 주원 진한 키스로 사랑 확인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야</span></span>” <br/> ‘용팔이’ 마지막회, 김태희 주원 진한 키스로 사랑 확인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야</span></span>” <br/> <br/> ‘용팔이’ 마지막회에서 김태희와 주원이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br/> <br/> 지난 1일 방송된 SBS '용팔이' 마지막 회에서는 간암 2기를 판정 받은 한여진(김태희 분)이 암을 이겨내고 김태현(주원 분)과 사랑을 맹세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br/> <br/> 이날 한여진은 김태현에게 "바람의 언덕 가고 싶어. 나중에 말고 지금 가자"라고 말했지만 김태현이 거절하자 "내 마지막 소원이야"라고 말해 결국 바람의 언덕을 향했다. <br/> <br/> 특히 바람에 언덕에 도착한 김태현은 한여진에게 "퇴원하면 주겠다"고 말했던 반지를 건네면서 "여기서 두 번째 키스를 하면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야</span></span>"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틋한 키스를 했다. <br/> <br/> 한편 ‘용팔이’ 마지막회 소식에 누리꾼들은 “‘용팔이’ 마지막회, 저 둘 진짜 잘어울려” “‘용팔이’ 마지막회, 완전 빨랐어” “‘용팔이’ 마지막회, 은근 재밌었는데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br/> <b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53.txt

제목: ‘용팔이’ 마지막회, 김태희 간암 이겨내고 주원과 사랑 확인 ‘해피엔딩’  
날짜: 20151002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4313107  
본문: ‘용팔이’ 마지막회, 김태희 간암 이겨내고 주원과 사랑 확인 ‘해피엔딩’ <br/> ‘용팔이’ 마지막회, 김태희 간암 이겨내고 주원과 사랑 확인 ‘해피엔딩’ <br/> <br/> ‘용팔이’ 마지막회에서 김태희와 주원이 해피엔딩을 맞았다. <br/> <br/> 지난 1일 방송된 SBS '용팔이' 마지막 회에서는 간암 2기를 판정 받은 한여진(김태희 분)이 암을 이겨내고 김태현(주원 분)과 사랑을 맹세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br/> <br/> 이날 한여진은 김태현에게 "바람의 언덕 가고 싶어. 나중에 말고 지금 가자"라고 말했지만 김태현이 거절하자 "내 마지막 소원이야"라며 바람의 언덕으로 향했다. <br/> <br/> 이어 김태현은 한여진에게 "퇴원하면 주겠다"고 말했던 반지를 건네면서 "여기서 두 번째 키스를 하면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눈물의 고백과 함께 애틋한 키스를 나누며 사랑을 맹세했다. <br/> <br/> 한편 ‘용팔이’ 마지막회 소식에 누리꾼들은 “‘용팔이’ 마지막회, 전개 완전 빨라” “‘용팔이’ 마지막회, 진행 대박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54.txt

제목: 한국형 '의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심장마비 예측  
날짜: 2015100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4004153  
본문:   <br/> <br/> <br/>고혈압을 앓고 있는 50대 직장인 김모씨.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 센서를 통해 맥박과 혈압을 측정한다. 측정 결과가 기존 건강 데이터 등이 연동된 헬스케어 빅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분석된다. <br/> <br/>스마트폰에 경고 메시지가 뜬다.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김씨는 바로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고 혈관조영술을 시행해 이미 심장 혈관이 반쯤 막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심장 마비의 가능성을 찾게 되었다. <br/> <br/>거대 정보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이른바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이처럼 심장 마비를 예측하는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수많은 사람들의 임상, 유전체, 일상생활 등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 및 연계해 개인의 미래 건강에 대해서도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br/> <br/>서울아산병원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김흥남)과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른바 한국형 '왓슨 컴퓨터'인 의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해 수백만 의료 데이터를 개개인에게 적용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통합 의료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br/> <br/>공동 연구팀은 한국형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개인 건강의 지속적 관리는 물론 암, 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예측 및 최적의 진단·치료 가이드를 제시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보건의료 시스템을 마련한다. <br/> <br/>특히 이번 공동 연구는 기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을 분석,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미국 '왓슨 컴퓨터'의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과는 또 다른 서비스를 제시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고 밝혔다. <br/> <br/>수백만 건강정보를 통합 분석한 의료 빅데이터에 특정 대상자에 대한 임상 기록과 함께 유전체 데이터, 기후 및 환경 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해진 일상생활 데이터를 결합해, 만성질환 관리부터 암 치료까지 한 개인의 질환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br/> <br/>더불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기반한 질환 연관성, 약물 부작용, 유전자 연구 등을 통해 질환의 예측 및 진행, 예후를 밝혀 궁극적으로 질환 극복에도 도전한다. <br/> <br/>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은 "빅데이터의 진정한 활용 가치는 단순히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에 그 핵심이 있는 것으로, 일일 외래환자 1만2000여 명, 연간 수술 환자 6만여 명에 달하는 서울아산병원의 의료 빅데이터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새로운 건강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의료 빅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 적용의 4단계를 거쳐 구축되며, 향후 5년 내 본격 상용화를 목표로 공공기관, 외부 의료기관, 통신사업자, 디바이스 업체 등 산·학·연·병의  유기적 협력 체계 속에 운영될 예정이다. <br/> <br/>이를 위해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9월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센터'란 전문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인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br/> <br/>먼저 첫 단계에서는 400여만 명의 환자, 6억7700여만 건의 처방, 2억6800만 건의 진료 기록, 2200만 건의 영상 기록 등 방대한 서울아산병원의 임상 정보를 익명화해 연구용 빅데이터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br/> <br/>물론 데이터 수집과 처리 과정에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개인정보 익명화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3월부터 본격 가동한 ABLE(Asan BiomedicaL Research Environment)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대상자의 이름, 상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삭제된 채 익명화된 임상 정보만이 연구에 활용된다. <br/> <br/>또한 개인의 건강정보를 통합 분석하기 위해 쉽고 편리하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감도 생체정보 측정 디바이스와 함께 정보 처리를 위한 표준화 및 데이터 전송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br/> <br/>다음으로 다양한 의료 빅데이터의 수집과 저장을 위한 플랫폼 개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힐링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진행한다. 클라우드 기반 분석 플랫폼과 함께 국제 표준 다기관 데이터 통합 기법 및 의료 데이터 전송 기술도 개발한다. <br/> <br/>이렇게 모은 데이터는 분석 과정을 거친다. 현재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심혈관 질환에 관한 의료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심혈관 질환 데이터는 표준화된 진단법과 치료법으로 정형·비정형 자료의 취합이 용이하며 환자 변이가 크지 않아 분석 기술 개발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br/> <br/>심장마비 및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사전 예측, 심질환 진단 정확도 증가, 급성 부정맥 사전예측, 약제 순응도 및 부작용 모니터링 예측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 중으로, 개발된 분석 기술은 향후 다른 질환 영역에 표준화돼 적용될 예정이다. <br/> <br/>실제 심혈관계중환자실 환자의 생체신호를 이용해 치명적인 심실부정맥을 그 발생 한 시간 이전에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최근 개발한 바 있다. 2500여 명의 환자로부터 획득한 생체신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심실부정맥 예측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예측 성능은 9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br/> <br/>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최근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율의 증가로 의료비 증가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차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r/> <br/>공동 연구팀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김영학 교수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에 현재 법·제도 등의 주변 환경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지만,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환자 진료, 의료 관련 개발 및 연구, 공익적 목적으로의 이용 등 우리의 상상력이 닿는 모든 부문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의료 산업 및 병원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br/> <br/>한편 서울아산병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오는 2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해 각계 빅데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헬스케어 빅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의료 빅데이터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진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55.txt

제목: 고령 암환자, 수술해도 될까? '노쇠 건강평가' 받아보세요  
날짜: 2015100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4113585  
본문: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 모 할머니(76)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청천벽력같은 결과를 받았다. 대장 용종에서 떼어낸 세포조직이 암으로 판정됐다는 것이다. <br/> <br/>여러 진료실을 돌며 수술 전 평가를 받은 김 할머니는 '저 위험군'으로 판정되어 결국 수술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수술 후 합병증은 생기지 않을지, 오래 입원하게 되지는 않을지, 수술 후에 일상생활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br/> <br/>고령 암환자의 경우 수술을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젊은 층에 비해 합병증이나 후유증 발생 확률이 높고 입원기간이 긴데다, 집으로 퇴원하지 못하고 요양 병원에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체적으로는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수술을 지레 포기하는 바람에 완치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경우도 있다. <br/> <br/>고령 환자의 경우 수술 후 합병증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 위험군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전 기능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고령 환자의 수술 후 예후를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br/> <br/>1일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와 일반외과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노인 암환자들을 위해 2014년 노인 수술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효과를 입증했고, 현재 진료에 적용해 김 할머니와 같은 고령 암환자의 수술 여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최정연 전공의·김광일 교수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저 위험군으로 분류된 여성 노인 수술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노쇠 건강평가를 시행하고 예후를 분석했는데, 노쇠 점수가 높을수록 수술 후 합병증이 빈번했으며, 재원일수가 길어지고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률 역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 노인 포괄평가 점수에 따른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과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률. <br/>수술 전 노쇠 건강평가는 동반 질환, 일상생활 능력, 정신기능, 영양상태 등 노인의 건강 상태를 다면적·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돼있는데, 이 평가 항목에 따라 '노쇠 노인(7점 이상)'으로 분류된 환자는 '건강 노인(0~6점)'에 속한 환자에 비해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1.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또한 '노쇠 노인'은 수술 후 집이 아닌 요양시설로 다시 입원할 가능성이 1.5배 이상 증가 했으며, 수술 후 병원 입원기간 역시 '건강 노인'은 8일 이었으나 '노쇠 노인'은 14일로 1.75배 긴 것으로 조사됐다. <br/> <br/> 노인 포괄평가 점수에 따른 총 재원일과 수술 후 재원일수. <br/>이번 연구에 참여한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김선욱 임상강사는 "연구를 통해 수술 전 노쇠 건강평가 도구가 합병증 발생 예측이 어려웠던 유방암 등 저위험 수술환자에서도 수술 후 예후를 예측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br/> <br/>이어 "완치 가능한 수술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낮추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은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건강 주권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r/> <br/>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저명한 외과 학술지인 '저널 오브 더 아메리칸 콜리그 오브 서전스(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IF 5.1)' 9월호 게재 되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56.txt

제목: 포스텍 연구팀, 몸 속에 숨어있는 림프절 ‘광음향’으로 샅샅이 들여다본다  
날짜: 20151001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4030922  
본문: 왼쪽부터 김철홍·이창호 교수포스텍(포항공대) 연구팀이 몸 속에 숨어있는 림프절을 ‘광음향’으로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br/> <br/>1일 포스텍에 따르면 창의IT융합공학과 김철홍 교수·이창호 교수 연구팀이 기존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조영법 보다 훨씬 더 깊고 선명하게 촬영 가능한 광음향 림프절 조영술을 개발했다. 이 연구 성과는 생체소재분야 국제 권위지 ‘바이오머티리얼즈’를 통해 발표했다. <br/> <br/>크기가 1~2㎝ 정도에 불과하면서도 우리 몸 속 전체에 퍼져 있는 면역기관 ‘림프절’은 건강의 바로미터다. <br/> <br/>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림프절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몸에 이상이 생겼다 하더라도 기존 림프절 조영법으로는 정밀한 탐지가 쉽지 않았다. <br/> <br/>김철홍 교수팀은 광음향 촬영 장치와 유기 나노제조된 두 가지 물질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가지 림프절들을 광음향으로 동시에 뚜렷하게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두 나노 물질의 근적외선 흡수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착안했다. <br/> <br/>특히 이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 조영술보다 훨씬 고해상도로 촬영이 가능하고 깊이 숨어 있는 림프절을 탐지해 낼 수 있다. 또 복합 림프절의 연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해 환자에게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림프절 절제 시술이 가능하고 암 진단 시 목, 유방 등 다양한 부위의 동시 촬영도 가능하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기존 상용 초음파 장비와 결합해 응용하면 우리 몸의 하수구와 같은 림프절 생체조직을 기존 조영술보다 훨씬 더 깊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광음향 영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다른 색상으로 구분되어 표시되는 두 가지 림프절 영상은 유방암 진단과 같은 최소 침습 절제술에 크게 기여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57.txt

제목: 방광암 환자의 생존율은 수술 전 당뇨 여부에 따라 다르다  
날짜: 20151001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3944941  
본문: 분당서울대병원 비뇨기과 홍성규 교수(좌측)와 오종진 교수(우측) <br/>방광암이란 방광 점막에 생기는 암으로 비뇨기과 암 중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한다.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흡연경력이 오래된 남성에서 주로 발병하는데 암세포가 방광에 침범한 정도에 따라 근육층까지 침범한 근육침윤성 방광암과, 방광 점막에만 나타나는 비근육침윤성 방광암으로 분류된다. <br/> <br/> 근육침윤성 방광암인 경우나 재발이 잦은 비근육침윤성 방광암인 경우, 또 악성도가 높은 방광암은 원칙적으로 방광을 모두 들어내는 근치적 방광전절제술 시행하게 된다. 남성은 방광, 정낭, 전립선, 하부요관 및 골반내 림프절을 절제하고 여성은 방광, 자궁 및 자궁경부, 난소, 하부요관, 질 전벽의 1/3, 요도 및 골반내 림프절을 제거한다. <br/> <br/> 근육침윤성 방광암은 5년 생존율이 2기인 경우 63%, 3기 46%, 4기 20%로 보고되고 있으며 다른 장기로 전이된 전이성 방광암은 5년 생존율이 10% 정도로, 방광암은 비교적 생존율이 좋지 않은 암이다. 때문에 방광암 생존율을 예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자들에 대한 분석이 시행되고 있다. <br/> <br/>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비뇨기과 홍성규, 오종진 교수팀은 진행성 방광암에서 근치적 방광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와 생존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수술 전 당뇨가 없었던 환자의 생존율이 당뇨가 있었던 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br/> <br/> 연구팀은 200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근치적 방광전절제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술 전 당뇨가 없었던 환자는 방광암 특이 5년 생존율이 92.3%로, 당뇨가 있었던 환자의 방광암 특이 5년 생존율 62.1%에 비해 높았다. 방광암이 원인이 아닌 모든 사망요인을 고려한 생존율도 92.1%와 59.4%로 당뇨가 없었던 환자의 생존율이 매우 높게 확인되었다. <br/> <br/> 분당서울대병원 비뇨기과 홍성규 교수는 “<span class='quot0'>나이, 수술 전 병기, 수술 후 결과 등을 보정해도 당뇨가 방광암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30%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혈당조절이 원활하지 못한 환자의 경우 고혈당, 고인슐린으로 인해 종양이 증가된다는 가설이 인정을 받게 된 셈</span>”이라고 전했다. <br/> <br/> 방광암은 주변 조직에 침식한 정도에 따라 치료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요검사나 요세포검사 등 방광암에 대한 조기 검진과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br/> <br/> 분당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오종진 교수는 “<span class='quot1'>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종양의 증가와 수술 후 예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span>”며 당부했다. <br/> <br/>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2015년 8월 비뇨기과 국제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Urology에 게재되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58.txt

제목: 스무살 된 부산국제영화제, 항도의 가을밤 달군다  
날짜: 20150930  
기자: 김신성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3834632  
본문: 스무살 성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1∼10일 부산 영화의전당과 센텀시티, 해운대 일대, 남포동 상영관 등에서 열린다. ‘아시아영화의 현재와 미래가 만나다’라는 주제를 내건 올해 BIFF는 75개국에서 출품한 총 304편의 영화를 6개 극장 41개 스크린에서 상영한다. 국내외에서 처음 선보이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이 94편, 자국을 제외하고 첫선을 보이는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는 27편이다. <br/> <br/>◆개·폐막작 <br/> <br/>개막작은 인도 독립영화 작가 모제즈 싱의 첫 장편 연출작 ‘주바안’. 성공의 문턱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돌아보는 젊은이의 여정을 펼쳐보인다. 펀자브지방의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난 딜셰르는 성공을 꿈꾸며 대도시로 올라와 어린 시절 잠깐 만난 적이 있는 대기업 총수 굴차란 시칸드의 휘하로 들어간다. 여러 가지 견제와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을 눈앞에 둔 딜셰르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음악을 계기로 성공만을 위한 삶에 회의를 느끼고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서로 닮았으나 궁극적으로 삶에 다른 지향점을 지닌 청년 딜셰르와 총수 굴차란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인간의 두 모습을 상징한다.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감독의 연출력, 그리고 딜셰르와 아버지가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주요 관람 포인트다. <br/> <br/>10일 폐막작은 중국 래리 양 감독의 ‘산이 울다’다. 멜로드라마에 사실주의 스타일, 빼어난 촬영과 배우들의 연기가 잘 버무려졌다. 중국 산골마을에서 청년 한총이 오소리를 잡으려 설치한 폭약을 갓 이주한 라홍이 밟아 숨지는 사고가 난다. 마을 어른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한총에게 라홍의 청각장애인 아내 홍샤를 돌봐주도록 한다. 라홍은 점점 그녀에게 끌리기 시작한다. 비밀을 중요한 모티프로 삼아 폐쇄적인 사회구조, 사랑과 질투라는 인간 본연의 심리를 짚어본다. <br/> <br/>◆프로그래머 추천작 <br/> <br/>택시=노란 영업용 택시가 이란 테헤란 거리를 종횡무진 누비며 여러 승객을 태운다. 승객들의 말문을 트이게 하는 운전기사는 다름아닌 파니히 감독 자신. 감독은 테헤란을 떠날 수 없지만 그의 영화와 정신은 여전히 자유롭고 유쾌하다.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수상작. <br/> <br/>안나의 눈물=한 여기자가 자신이 잠입 취재하던 인신매매단에게 납치돼 평생 씻지 못할 고통을 겪는다는 내용이다. 주인공을 연기한 안나 무글라리스는 캐나다와 프랑스 작품에 출연한 인지도 높은 배우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여성에서 나약한 희생양으로 전락했다가 복수의 화신으로 변하는 그의 연기는 관객들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든다. <br/> <br/>프리헬드=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한 레즈비언 형사가 동성연인과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 관료들을 상대로 고군분투한다는 내용. 줄리언 무어와 엘런 페이지가 주연을 맡았다. 특히 암으로 죽어가는 형사 역을 맡은 줄리언 무어의 연기는 보는 것만으로도 같이 아프다. 왜 그녀가 오스카를 비롯해 칸, 베를린 등 전 세계 유수 영화제들에서 수상을 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br/> <br/>영혼의 순례길=1년여에 걸쳐 2000km를 삼보일배하며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장정을 담은 작품. 삼보일배 순례자들의 고행 과정을 담아낸다. 압도적인 풍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간의 수행과 의지, 그리고 치유의 과정이 눈물겹게 아름답다. <br/> <br/>찬란함의 무덤=자원봉사 간병인 젠지라는 수면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젊은 병사를 간호한다. 마법, 치유 그리고 로맨스와 기억이 어우러져 젠지라는 자신과 주변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아피찻뽕 위라세타쿤 감독 특유의 서정적이고 관능적인 분위기가 잘 드러난 영화. 아피찻뽕 감독이 선사하는 놀라운 마법의 순간들은 여전하고, 예의 정글미학도 그대로다. <br/> <br/>3688=우상이자 대만 최고 인기가수인 퐁 페이페이 같은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시아의 이야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영화세계를 이어가는 로이스톤 탄 감독이 뮤지컬 형식으로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를 이야기한다. 특유의 경쾌함과 잘 구성된 음악은 덤이다. <br/> <br/>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59.txt

제목: 급성골수성백혈병 내성 억제 新 치료제 효과입증  
날짜: 20150930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3600276  
본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조병식 교수 <br/> 악성 혈액암인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 시 발생하는 내성을 억제하는 새로운 치료제의 효과를 한국 교수와 세계적인 암 전문 기관인 미국 엠디앤더슨 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의료진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가 나왔다. <br/> <br/>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조병식 교수(제1저자)는 기존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현상인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표적치료제 LY2510924을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유발한 동물모델에 주입한 결과, 기존의 치료제  AMD3100 (성분명: Plexiafor, 상품명:Mozobile)에 비해 더 빠르고 강하게 지속적으로 항암제 내성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치료효과를 향상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br/> <br/>  연구결과는 미국 혈액학회에서 발간하는 혈액학 분야의 최고 저널인 Blood(Impact factor : 10.452) 7월호에 게재되었다.  <br/> <br/>  또한 기존의 항암화학요법과 병합하여 사용했을 경우 단독치료에 비해 현저히 향상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br/> <br/>  백혈병은 조혈모세포의 분화 초기의 세포들이 미성숙 상태에서 필요이상으로 과다 증식하여 정상적인 조혈기능을 억제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혈액질환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한다. <br/> <br/>  혈액암 중 림프종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최근 항암화학요법과 조혈모세포이식으로 치료율이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다양한 표적항암제가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관리하면 장기생존이나 완치까지 가능한 만성골수성백혈병과 달리 아직까지도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적치료제가 없으며 기존의 항암화학요법에 내성이 생긴 백혈병 세포로 인한 재발 때문에 여전히 생존율이 낮은 편이다. <br/> <br/>  조 교수팀은 백혈병 세포가 존재하는 골수안의 미세환경(microenvironment)과 백혈병 세포와의 상호작용 결과, 백혈병 세포가 항암치료제가 도달할 수 없는 공간으로 숨게 되는 기전에 주목하였다. <br/> <br/> 골수 미세환경에서 분비하는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인 SDF-1α가 백혈병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인 CXCR4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CXCR4 억제제를 이용한 것이다.   <br/>  <br/>이미 CXCR4 억제제로 AMD3100가 임상연구 중 이었으나, 인체 내 반감기가 짧고 치료 효과가 약해 효과적인 새로운 약물 개발이 절실히 필요했다.    <br/>   <br/>조병식 교수는 “<span class='quot0'>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의 가장 문제점은 항암 치료제 내성으로 질환이 재발하는 것인데, 재발환자 대부분이 사망할 정도로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기존에 백혈병 자체를 공격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치료제들과 병합해 내성 발생을 줄여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전략의 가능성을 규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  이어 “본 연구의 고무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대상으로 LY2510924의 2상 임상연구가 미국 엠디앤더슨 암센터에서 진행되기로 결정되었고 곧 첫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대상으로 다양한 CXCR4 억제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성모병원에서도 임상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60.txt

제목: '스무 번째 생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 포인트는?  
날짜: 20150930  
기자: 김신성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3553554  
본문: 스무살 성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1∼10일 부산 영화의전당과 센텀시티, 해운대 일대, 남포동 상영관 등에서 열린다. ‘아시아영화의 현재와 미래가 만나다’라는 주제를 내건 올해 BIFF는 75개국에서 출품한 총 304편의 영화를 6개 극장 41개 스크린에서 상영한다. 국내외에서 처음 선보이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이 94편, 자국을 제외하고 첫 선을 보이는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는 27편이다. <br/> 주바안. <br/>◆개·폐막작 <br/> <br/>개막작은 인도 독립영화 작가 모제즈 싱의 첫 장편 연출작 ‘주바안’. 성공의 문턱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돌아보는 젊은이의 여정을 펼쳐보인다. 펀잡지방의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난 딜셰르는 성공을 꿈꾸며 대도시로 올라와 어린 시절 잠깐 만난 적이 있는 대기업 총수 굴차란 시칸드의 휘하로 들어간다. 여러가지 견제와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을 눈앞에 둔 딜셰르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음악을 계기로 성공만을 위한 삶에 회의를 느끼고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서로 닮았으나 궁극적으로 삶에 다른 지향점을 지닌 청년 딜셰르와 총수 굴차란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인간의 두 모습을 상징한다.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감독의 연출력, 그리고 딜셰르와 아버지가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주요 관람 포인트다.  <br/> 산이 울다. <br/>10일 폐막작은 중국 래리 양 감독의 ‘산이 울다’다. 멜로드라마에 사실주의 스타일, 빼어난 촬영과 배우들의 연기가 잘 버무려졌다. 중국 산골마을에서 청년 한총이 오소리를 잡으려 설치한 폭약을 갓 이주한 라홍이 밟아 숨지는 사고가 난다. 마을 어른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한총에게 라홍의 청각장애인 아내 홍샤를 돌봐주도록 한다. 라홍은 점점 그녀에게 끌리기 시작한다. 비밀을 중요한 모티프로 삼아 폐쇄적인 사회구조, 사랑과 질투라는 인간 본연의 심리를 짚어본다. <br/> <br/>◆프로그래머 추천작 <br/> 택시. <br/>택시= 노란 영업용 택시가 이란 테헤란 거리를 종횡무진 누비며 여러 승객을 태운다. 승객들의 말문을 트이게 하는 운전기사는 다름 아닌 파니히 감독 자신. 감독은 테헤란을 떠날 수 없지만 그의 영화와 정신은 여전히 자유롭고 유쾌하다.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수상작.  <br/> <br/>안나의 눈물= 한 여기자가 자신이 잠입 취재하던 인신매매단에게 납치돼 평생 씻지 못할 고통을 겪는다는 내용이다. 주인공을 연기한 안나 무글라리스는 캐나다와 프랑스 작품에 출연한 인지도 높은 배우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여성에서 나약한 희생양으로 전락했다가 복수의 화신으로 변하는 그의 연기는 관객들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든다. <br/> <br/>프리헬드=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한 레즈비언 형사가 동성연인과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 관료들을 상대로 고군분투 한다는 내용. 줄리언 무어와 엘렌 페이지가 주연을 맡았다. 특히 암으로 죽어가는 형사 역을 맡은 줄리언 무어의 연기는 보는 것만으로도 같이 아프다. 왜 그녀가 오스카를 비롯해 칸, 베를린 등 전세계 유수 영화제들에서 수상을 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br/> <br/>영혼의 순례길= 1년여에 걸쳐 2000km를 삼보일배하며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장정을 담은 작품. 삼보일배 순례자들의 고행 과정을 담아낸다. 압도적인 풍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간의 수행과 의지, 그리고 치유의 과정이 눈물겹게 아름답다. <br/> <br/>찬란함의 무덤= 자원봉사 간병인 젠지라는 수면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젊은 병사를 간호한다. 마법, 치유 그리고 로맨스와 기억이 어우러져 젠지라는 자신과 주변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감독 특유의 서정적이고 관능적인 분위기가 잘 드러난 영화. 아피찻퐁 감독이 선사하는 놀라운 마법의 순간들은 여전하고, 예의 정글미학도 그대로다.  <br/> <br/>3688= 우상이자 대만 최고 인기가수인 퐁 페이페이 같은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시아의 이야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영화세계를 이어가는 로이스톤 탄 감독이 뮤지컬 형식으로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를 이야기한다. 특유의 경쾌함과 잘 구성된 음악은 덤이다. <br/> <br/>더 아이돌= 오디션프로그램 ‘아랍 아이돌’에서 우승하며 팔레스타인의 희망이 된 한 청년의 기적 같은 이야기. ‘오마르’로 잘 알려진 거장 하니 아부 아사드의 신작이다. 중동 지역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아랍 아이돌’에서 최초의 팔레스타인 우승자가 되며 큰 화제를 모았던 모하메드 아사프의 실화를 영화화했다. <br/> <br/>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61.txt

제목: [기고] 학폭 추방 ‘역지사지 운동’ 펴자  
날짜: 20150929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3447652  
본문: ‘학교폭력’에 대한 최근 모 국회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특수·각종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모두 1만9521건으로 2013년보다 10% 증가했다고 한다. <br/> <br/>폭력은 모든 공동체를 해치는 암적 요인이다. 학교폭력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폭력은 성인이 되기 전 피해자들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준다. 학교폭력이 군대폭력, 사회폭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학교폭력은 가정폭력과 사회폭력의 확장고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학교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범사회적 노력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학교와 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법을 제안한다. 칭하여 ‘역지사지’ 학교폭력 예방수칙이다. <br/> <br/> 한병선 교육평론가첫째, ‘역할과 입장’을 바꾸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의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라. 가해자는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 없이 내뱉는 폭력적 언어, 물리력으로 괴롭히는 신체폭력 등 모든 폭력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해자 자신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시켜야 한다. 폭력예방 교육에서 서로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상호 간에 역할을 바꾸어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을 깨닫도록 하자는 것이다. <br/> <br/>둘째,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문제다. 모든 분야에서 폭력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훈습(薰習)될 수 있도록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훈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에너지로 작용하게 된다.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적 관심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br/> <br/>셋째, 학교폭력도 ‘사회악’이라는 인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사회악은 조직범죄나 흉악범죄만이 아니다. 학교폭력도 사회악이다.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일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란다’는 왜곡된 인식도 학교폭력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민주질서의 기본이다. 공동체 속에서 폭력이 전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br/> <br/>끝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에서 겉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심리적·내면적 문제까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우에 따라 가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지속적인 심리치료는 물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예컨대 피해 당사자가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가해자를 이 학교 저 학교로 보내는 ‘폭탄 돌리기식’의 대처로는 안 된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학교폭력의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br/> <br/>한병선 교육평론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62.txt

제목: [세계식문화 연구가 양향자의 간편 레시피] 가을에 가장 맛 좋은 '고등어 무조림'  
날짜: 20150927  
기자: 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3032627  
본문: 고등어는 대표적인 등 푸른 생선이다. '가을 고등어와 가을 배는 며느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가을엔 고등어의 맛이 가장 좋다. 함유돼 있는 지방에는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와 지방산의 일종인 DHA, EPA가 풍부하다. 치매,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동맥경화,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특히 EPA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에서 피가 엉기는 것을 막아 혈관질환을 예방한다. 맛있는 고등어로 건강 챙길 수 있는 고등어 무조림을 만들어보자.  사진=세계음식문화연구원 제공재료▲고등어 2마리 ▲무 1/3개 ▲대파 1/3대 ▲홍고추 1개 ▲청양고추 2개 ▲양파 1개 ▲물 1컵 <br/> <br/>양념장 ▲고춧가루 2큰술 ▲간장 2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1/2작은술 ▲후춧가루 1/2작은술 ▲청주 1큰술 <br/> <br/>만드는 법 <br/> <br/>1. 고등어는 머리와 꼬리, 내장을 제거한 후 어슷하게 2등분한다. <br/>2. 무는 납작하게 잘라 준비하고 양파는 굵직하게 채 썰어 준비한다. <br/>3. 대파와 고추는 어슷썰기 한다. <br/>4. 분량의 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br/>5. 냄비에 2의 무와 양파를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올린다. <br/>6. 5에 대파, 고추, 양파를 골고루 올린 다음 양념장을 넉넉히 뿌리고 물을 부어 끓인다. 고등어가 어느 정도 익으면 중약불로 낮춰 조리고 무가 무르게 푹 익으면 접시에 담아낸다. <br/> <br/>< (사)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63.txt

제목: 반려견의 8가지 능력  
날짜: 20150926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2657205  
본문: 미국 뉴욕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 커뮤니티 ‘Little Things'은 최근 '반려견의 8가지 능력’이란 제목으로 삽화와 이유를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br/> <br/> <br/>▲ 질병 여부를 알려준다. <br/>개는 인간보다 최대 10만배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br/>뛰어난 후각으로 개는 VOC(암 환자의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냄새를 맡는다. <br/>미국 비뇨기과 학회에 따르면 개는 호흡과 땀 냄새로 질병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 <br/>▲ 임신을 감지할 수 있다. <br/>개는 임신한 여성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br/>냄새를 통해 여성의 임신 사실을 눈치채고 평소보다 온순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br/>개의 이런 행동은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된다. <br/>▲ 지진을 예측한다. <br/>개는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개는 고양이와 달리 지진의 전조를 느껴도 도망치지 않고 짖는 횟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br/>예로 1975년 중국에서 지진 발생 전 개들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보고가 있다. <br/>개는 인간보다 감각이 뛰어나고 소리에도 민감해 공기압의 변화와 중력의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br/>▲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다. <br/>밀라노 대학에서 개의 친밀도 조사 실험을 했다. 그들은 두 그룹으로 배우를 나눠 한쪽은 노숙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착한 사람 역할을 다른 배우들에게는 노숙자에 매정하게 구는 역할을 주문했다.  <br/>결과 개는 착한 사람 역할을 한 배우에게 관심을 보였다.  <br/>대학 측은 실험이 보여주듯이 개는 인간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r/>▲ 사람에게 ‘적의’를 느낄 수 있다. <br/>당신이 만약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개도 그 사실을 알게 된다.   <br/>미묘한 태도와 목소리의 차이를 눈치채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br/>한편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이를 알 수 있다. 행복한 순간에 몸에서 나오는 도파민을 감지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br/>▲ 당뇨병에 걸릴 것 같은 사람을 구별한다. <br/>개는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1형 당뇨병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br/>영국 자선단체 'Medical Detection Dogs‘는 당뇨병을 감지 할 수 있도록 개를 훈련시키고 있다. 개는 저혈당 시 몸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고 의심되는 사람 앞에서 짓거나 특정 행동을 한다. <br/>▲ 슬퍼하는 때 부드럽게 위로해준다. <br/>주인이 슬퍼할 때 주인을 위로하려고 한다. <br/>런던 대학의 연구팀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보다 울고 있는 사람으로 개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br/>이 연구 결과에서 개는 소리에 의해 인간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밝혀졌다. 단 개가 인간에 공감하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br/>▲ 출산일을 알려준다. <br/>출산 전 많은 여성이 개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했다는 보고 있다.  <br/>개는 여성의 냄새를 맡고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삽화= Little Things 이미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64.txt

제목: 방콕 수산시장 보트충돌 한국인 관광객 18명 부상  
날짜: 20150926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2625110  
본문: 태국 방콕을 찾는 한국인이라며 한번쯤 가보는 암파와 수상시장에서 보트충돌사고가 일어나 한국 관광객 18명이 다쳤다. <br/> <br/>그 중 한명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다. <br/> <br/>26일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30분(현지시간)쯤 암파와 수상시장에서 한국인 관광객 31명이 탄 보트가 다른 배와 정면 충돌해 정모(여·26)씨가 중상을 입고, 17명이 경상을 입었다. <br/> <br/>이들은 방콕 시내 병원 3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r/> <br/>한국인들이 탄 배는 40~45명이 탈 수 있는 흔히 보는 수상시장 관광용 선박이다. <br/> <br/>사고가 난 배에는 다른 외국인들도 타고 있었다. <br/> <br/>태국 경찰은 한국 관광객들이 탄 배를 다른 배가 덮치는 바람에 부상자가 많았다고 밝혔다. <br/> <br/>한국 관광객들은 방콕에 있는 한국계 여행사인 A사를 통해 암파와 수상시장 관광상품을 알선받아 1일 관광을 하던 중이었다. <br/> <br/>암파와 수상시장은 방콕 시내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관광 명소로 새벽장이 특히 유명하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65.txt

제목: 김승희 식약처장 ‘넥시아는 약사법 위반?’ 착각 아니면 편들기?  
날짜: 20150925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2330897  
본문: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의 김승희 식약처장(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실) <br/>지난 14일 국정감사 중 문정림의원의 한방 항암제 넥시아 품목허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김승희 식약처장이“<span class='quot0'>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준 적은 없지만 2상과 3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한 사실은 있다</span>”며“<span class='quot0'>무허가 제품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다</span>”라는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다. <br/> <br/>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성명서에 따르면 약사법 무지로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 답변한 식약처장은 즉각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br/> <br/> 문제의 발단은 문 의원이 질의한 넥시아라 불리는 약품(이하 넥시아)이 한약이기 때문에 김승희식약처장은 약사법에 대한 잘못된 사실로 대답한 것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국가가 품목 허가한 칠피라고 질의 했어야 했다 <br/> <br/> 또한, 넥시아는 칠피를 연구하기 위한 프로젝트 명이었고 이를 연구 한 연구참여 교수들은 웹사이트와 저서 등에 오래 전부터 Next Intervention Agent 의 약어 라고 밝힌 바 있다. 세인들이 이를 넥시아라고 부른 것을 질의 한 것이다. 김승희 식약처장의 ‘넥시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답은 ‘유명 디자이너인 앙드레 김의 이름이 주민등록증과 일치 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라고 대답한 셈이다. <br/> <br/> ◆약대출신 김승희 식약처장의 답변은 넥시아와 모든 한약제를 무허가, 한의사를 범법자로 몬 셈? <br/> <br/> 발표된 성명서에서 현행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하면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조제에 대하여 약사관련 법령에서는 제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탕액, 환제, 산제, 캡슐제 등의 제형으로 조제가 가능하다. 또한 한의사가 이에 의거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서 약사법 제44조제1항에서의 약국개설자 등의 ‘의약품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r/> <br/> 또한,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김승희 식약처장의 답변이 허위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br/> <br/> 다시 말해 성명서에서“넥시아라 불리는 칠피는 역시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한약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진찰하고 그에 맞추어 포제, 조제하는 한약이다”며“더욱이 넥시아는 지난 2011년 무허가의약품제조판매에 대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최근 2013년, 2014년에 약사법에 의한 조제실제제 범위 확인을 식약처에서 한 바 있으며, 이 당시 안전성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여부 등에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반론했다. <br/> <br/> 한의협은“<span class='quot1'>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넥시아에 대한 식약처장의 무허가 의약품 발언이 모두 허위인 셈이다</span>”고 확고히 밝히고 있다. <br/> <br/>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의학박사인 문정림 의원의 질의와 약대출신인 김승희 식약처장의 답변의 저의가 착각인지 아니면 양방을 전공한 두 사람이 한방에 대한 의도적인 디스나 `폄훼인지가 논란이 가중 되고 있다. 한방병원 처방은 국내법상 이름을 자의로 한방 병?의원 내에서 붙일 수 있다.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서도 다양한 이름이 붙여져 있다. <br/> <br/> 한의협은 “만약 식약처의 답변처럼 넥시아가 불법이고 무허가라면 전국의 모든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의 한약 조제 행위가 모두 위법이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br/> <br/> 한의협의 발표처럼 김승희 식약처장은 넥시아 하나 때문에 모든 한방약제를 무허가로 규정한 셈이고 한약을 제조하는 전국의 한의사를 범법자로 몬 셈이다. 더구나 칠피는 국가가 지정한 한약재 품목허가가 되어있고, 넥시아라 불리는 칠피는 식약처에서 원내제재 허가 확인까지 공문으로 확인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 ◆라이언 일병 아닌 ‘한정호 교수 지키기 운동’과 관련설 대두? <br/> <br/> 이번 국감에서 언급된 넥시아라고 명시된 약품을 제시 하지 못하는 한 문정림 의원과 김승희 처장은 넥시아와 관련해서 재판중인 충북의대 한정호교수 구명로비라는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br/> <br/> 한의협에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김승희 식약처장이 발언한 “<span class='quot0'>넥시아를 임상 시험 허가를 내주었다</span>”고 발언 한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br/> <br/> 한정호씨와 마찬가지로 의협 이사를 역임한 문정림의원도 넥시아라는 제품을 제시해야 할 상황에 몰렸다. 있지도 않은 제품을 어떤 경로로 확인하고 어떤 경위에서 서면질의 와 구두 질의를 했는지 암 환자 단체 들이 문제를 삼기 시작해서 일파 만파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br/> <br/> 기자가 직접 참석한 공판의 확인 결과에 따르면 한 교수는 오는 10월 중순 청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 교수 역시 자신 혐의를 여러 지면 인터뷰를 통해 공시적으로 혐의를 인정 한 바 있다. <br/> <br/> 충북의대 교수로 알려진 한정호씨는 정교수가 아닌 병원 계약직 의사로 확인되었고, 국립대 규정상 해임이라고 구명을 호소 한 바 있는데 법원 판결에 따라 해임이 아닌 임용 계약해지가 될 수 도 있다. <br/> <br/> 이에 한정호 의사는 메디컬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최소 집행유예와 같은 징역형이 예상된다며 구명을 호소 한 바 있다. <br/> <br/> 한편, 의협은‘양심적인 지식인 정의로운 이웃’이라며 한정호 구명운동을 공개적으로 펼치고 있다. 항간에는 추석전 대대적으로 방송까지 동원 한다는 설이 흘러 나오고 있어 과연 재판부가 의협과 재판중인 피고인의 방송출연을 어떻게 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br/> <br/> 그러므로, 개인의 범죄여부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김승희 식약처장이‘넥시아는 약사법 위반이다”고 국감에서 답변한 것은 개인의 착각이나 한방에 대한 디스에 앞서 한 교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방과 한방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보다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66.txt

제목: 대만 'Betel Nut Girls' 사라진다  
날짜: 20150924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2002902  
본문: 화려한 네온 부스에 아슬아슬한 옷을 입고 ‘빈랑나무 열매(Betel nut)'를 파는 여성들이 대만 정부의 제재를 받아 점차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br/> <br/>2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대만 ‘Betel nut girls(빈랑나무 열매를 파는 여성)’의 하루를 소개했다. <br/> <br/>1990년대 전성기를 맞아 대만 주요 도로를 따라 많게는 약 6만 곳이 운집한 열매 파는 가게. <br/> <br/>딱히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이는 열매 가게가 대만 정부의 제재를 받는 이유는 화려한 네온 부스 안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영업중인 여성과 가게가 마치 집창촌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br/> <br/>보도에 따르면 주 고객층은 남성운전자로 그들은 차 안에서 열매를 주문하고 여성들은 열매와 '미소'를 함께 서비스한다. <br/> <br/>남성들에게 인기인 이유는 여성들의 노출의상도 한몫하지만, 열매는 대만에서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br/>열매를 반으로 쪼개 담뱃잎과 계피, 소석회(Slaked Lime·씹는 담배의 주성분), 향료를 넣은 이 열매는 '관광 가이드에 세계에서 4번째로 인기 있는 향정신성 물질(Psychoactive Substance)로 소개'되고 있다. <br/>열매는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이 판매하고 수입은 대만 대졸 초임을 웃돌아 한 지역에 많게는 약 6만여 곳이 모여 있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br/> <br/>대만 정부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수를 줄이기 위해 엄격한 복장규제'를 실시했다. 가슴과 엉덩이 노출을 금지했고 최근에는 배를 가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br/> <br/>또 수도 타이페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br/> <br/>열매를 판매하는 한 여성은 "분명 노골적인 노출로 손님을 끌어모으는 곳도 있지만 해변이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옷이 대부분이고 이전부터 한 일을 이제서야 제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br/> 미니스커트를 입는 여성도 많다.매년 대만 남성 약 5400명이 구강암과 '전암병변'에 걸리고 있으며 이 중 열매를 씹어 발병하는 경우가 80~90%로 알려졌다. <br/> <br/>이에 대만 정부는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나무와 열매를 없애려고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r/> <br/>\* 빈랑나무는 종려과 식물로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다. 열매는 기생충을 구제하고 기(氣)를 내리며 대소변이 잘 통하게 한다. (한의학대사전 인용) <br/> <br/>\* 전암병변은 정상조직에서 암이 발생하기까지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중간단계의 병변을 말한다 (생명과학대사전 인용)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데일리메일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67.txt

제목: 뱀·발기부전치료제 섞어 만든 무허가제품을 암치료제로 유통  
날짜: 20150924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1925472  
본문: 뱀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섞어 만든 캡슐을 밀수, ‘암 특효약’으로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br/> <br/>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최모(43·중국 옌타이 거주)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r/> <br/>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뱀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을 섞어 만든 캡슐을 ‘혈액을 맑게 해 암·성인병을 예방하는 제품’이라고 홍보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이들은 모두 149명에게 30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r/> <br/>타다라필은 식품에 첨가가 금지된 화학성분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br/> <br/>뱀도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br/> <br/>이 가짜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 중 메스꺼움 등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경찰 조사 결과 중국 옌타이에 거주하는 최씨는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해 우편과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보냈고, 국내에 있던 공범 1명이 이를 받은 뒤 재포장해 전국 구매자에게 전달했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68.txt

제목: 한국인 사망원인 32년째 부동의 1위 '암'  
날짜: 2015092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1459887  
본문: 한국인 사망 1위가 여전히 '암'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암)이었다. <br/> <br/>암은 사망원인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로 32년째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br/> <br/>지난해의 경우 모두 7만6611명이 각종 암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br/> <br/>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150.9명으로 2위인 심장질환(52.4명)의 3배 수준이었다. <br/> <br/>암 종류별 사망률은 폐암(34.4명)이 가장 높았고 간암(22.8명), 위암(17.6명)이 뒤를 이었다. <br/> <br/>30대는 위암 사망률이 1위, 40·50대는 간암, 60세 이상은 폐암이 1위를 차지했다. <br/> <br/>2013년 전체 사망원인 2위였던 뇌혈관 질환은 심장질환에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내려앉았다. 사망률은 48.2명이었다. <br/> <br/>고의적 자해(자살)는 사망률 27.3명으로 4위다. <br/> <br/>사망원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폐렴의 순위 변동이다. <br/> <br/>10년 전인 2004년에는 사망률 7.1명으로 10위에 불과했던 폐렴은 매년 사망률이 높아져 2008년 9위(11.1명)로 한 계단 올라섰다가 2010년에는 6위(14.9명), 지난해는 5위(23.7명)를 기록했다. <br/> <br/>작년 폐렴으로 숨진 사람은 총 1만2021명이다. <br/> <br/>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폐렴은 고령화에 따른 대표적 질병"이라며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사망자도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 <br/>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암의 사망순위가 가장 높았다. <br/> <br/>남자의 암 사망률은 188.7명으로, 113.2명인 여자의 1.67배였다. <br/> <br/>남자가 여자보다 순위가 높은 사망원인은 자살, 간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운수사고, 추락 등이었다. <br/> <br/>이와 달리 여자는 남자보다 폐렴,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알츠하이머병 등에서 사망원인 순위가 높았다. <br/> <br/>여자는 심장질환(3→2위), 폐렴(5→4위), 간질환(11→10위)에서 사망원인 순위가 상승했다. <br/> <br/>남자는 작년과 비교해 순위 변화가 없었다. <br/> <br/>연령별로 보면 1~9세 및 40세 이상에서 사망원인 순위 1위가 모두 암이었다. <br/> <br/>10대는 운수사고가 가장 많았고, 자살과 암이 그 뒤를 이었다. <br/> <br/>20대와 30대는 자살 사망자의 비중이 가장 컸다. <br/> <br/>전년 대비 사망률이 증가한 사망원인은 폐렴(10.8%↑), 고혈압성 질환(6.5%↑), 심장 질환(4.4%↑) 등이다. <br/> <br/>운수사고(5.8%↓), 자살(4.5%↓), 뇌혈관 질환(4.2%↓)은 줄었다. <br/> <br/>10년 전과 비교하면 폐렴(232.7%↑), 심장 질환(42.8↑), 폐암(25.8%↑)의 사망률이 큰 폭으로 뛰었다. <br/> <br/>운수사고(34.5%↓)와 간질환(31.2%↓)은 떨어졌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69.txt

제목: 한국인 남성암 증가율 1위, 전립선암 50세 이후 매년 혈액검사 통해 암 유무 확인해야  
날짜: 20150923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1504605  
본문: 환자 진료하는 강동경희대병원 비뇨기과 이형래 교수 <br/>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립선암은 남성 10대 암 중 5위로, 최근 들어 가장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남성암이다. 나이, 인종, 가족력, 식생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 ◆신속생검시스템 통해 검사당일 결과 알 수 있어 <br/>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전립선암클리닉은 개원 초부터 도입한 신속생검시스템을 통해 조직검사의 병리 결과를 당일에 알 수 있다. 혈액 검사를 통해 PSA가 상승되어 있거나 직장수지 검사에서 전립선 내에 결절이 만져지는 경우, 신속생검시스템을 통해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한다. 항문에 초음파 기계를 넣어 좌우양측의 전립선을 바늘로 찔러 조직을 얻어내 전립선암 여부를 진단한다. <br/> <br/>기존의 개복 수술은 물론 복강경 술기뿐 아니라, 경희의료원과의 협력시스템을 통한 로봇수술법이 가능하여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의 모든 술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신 상태로 인해 수술을 받을 수 없거나 국소진행형 전립선암 또는 수술 후 재발한 전립선암의 경우 방사선종양학과의 협진을 통해 최첨단 방사선암 치료기인 래피드악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법을 시행하여 환자의 치료 성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br/> <br/> ◆남성의 생식과 생존을 담당하는 전립선 <br/>전립선은 생식과 관련하여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기관으로 골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요도와 방광 사이에 존재한다. 모양은 밤처럼 생겼으며, 크기는 호두알 정도 되는 작은 기관으로 소변과 정액이 지나가는 통로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보기가 불편해지거나 정액을 배출하는데 있어 장애가 발생한다.  <br/> <br/>또한 전립선에서 생산되는 전립선액은 사정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전립선액은 남성 생식 기능과 정자의 생존 기능을 도울 뿐 아니라 정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br/> <br/> ◆혈액검사로 전립선암 유무 확인 가능 <br/>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혈액 검사를 통해 전립선특이항원(PSA)을 측정하는 방법과 항문을 통해 전립선을 만져보는 직장수지 검사 등이 있다. PSA는 전립선 이외의 기관에서는 거의 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립선암,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등의 전립선 질환이 있을 때 수치가 올라가게 된다.  <br/> <br/>따라서 비교적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의 유무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50세 이후에는 매년 PSA를 검사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가족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면 40세 이후부터 PSA를 측정하는 것이 추천된다. 아버지나 형제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으면(특히 형제 중) 전립선암의 위험도는 환자가 없는 경우보다 2~3배가 높아지고, 아버지나 형제가 65세 이전에 발병한 경우에는 2.5~6배가량 높아진다. <br/> <br/> ◆전립선암 병기 통해 치료방향 결정 <br/>조직검사를 통해 전립선암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병기를 결정을 하게 된다. 주위의 장기 침범 여부를 알기 위해 전산화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게 되고,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골주사(Bone Scan)를 시행한다.  <br/> <br/>전립선암이 초기에 발견되고 기대 여명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치료를 위하여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며, 림프절이나 인접 장기로의 침범이 의심되거나 뼈로의 전이가 발견된 진행성 암은 호르몬 차단요법을 시행한다.  <br/> <br/>전립선암이 전립선 내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전립선을 모두 들어내는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과 방사선 치료, 전립선 내에 강한 초음파를 쪼여 암세포를 치료하는 고강도집중초음파치료(HIFU), 전립선 내에 바늘을 찔러 얼려서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냉동치료 등을 시행한다. <br/> <br/> 강동경희대병원 비뇨기과 이형래 교수는 “전립선암 치료의 성공률을 좌우하는 것은 병기와 치료 방법이다. 조기에 발견된 초기 암은 약 90% 이상의 완치율을 나타낸다” 며 “아직까지 전립선암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는 50세 이후부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세 이후부터 매년 PSA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br/> <br/>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70.txt

제목: 성추문 장성 "암 걸렸다" 전역지원서 변조  
날짜: 20150923  
기자: 김선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1623605  
본문: 지난해 5월 성추문 의혹을 받은 육군 장성 홍모씨가 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자진 전역하기 위해 작성한 전역지원서가 변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놓고 당시 육군 수뇌부는 물론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홍씨의 성추문 의혹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br/> <br/>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홍씨의 전역지원서가 일반적인 지원서와 형식 자체가 다르다며 홍씨의 전역지원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전역지원서에는 ‘군 검찰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조사 여부’ 항목 자체가 아예 누락된 채 간단한 개인 신상정보와 ‘신병치료 등 개인사유’라는 전역사유만 기재돼 있다. 이는 비위 사실이 있는 현역 장성의 정상적인 처벌을 위해 비위사실 조사 여부를 반드시 기재토록 한 대통령령 규정 위반이다. <br/> <br/>권 의원은 “<span class='quot0'>홍모 전 육군소장이 제출한 전역지원서는 육군 규정서식과 달라 결재권자 누구라도 의심해 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출처불명의 임의로 만든 지원서를 제출하고도 12일 만에 전역 승인을 받았다</span>”고 말했다. 특히 당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김관진 국방장관 등이 이 상황을 알 만한 위치에 있었다며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br/> <br/>군의 한 소식통은 “홍씨의 성추문이 불거진 시점이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직후”라며 “당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높은 시기에 홍씨의 성추문이 알려지면 군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어 군 수뇌부가 이를 덮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span class='quot1'>현재 감찰실에서 1차적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span>”고 밝혔다. <br/> <br/>계룡=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71.txt

제목: 잘못 알려진 전립선 질환 상식, 비대증이 암으로 변한다? ‘완전히 달라’  
날짜: 20150922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1121653  
본문: 잘못 알려진 전립선 질환 상식, 비대증이 암으로 변한다? ‘완전히 달라’ <br/> 잘못 알려진 전립선 질환 상식, 비대증이 암으로 변한다? ‘완전히 달라’ <br/> <br/> 잘못 알려진 전립선 질환 상식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br/> <br/> 잘못 알려진 전립선 질환 상식 중에서 먼저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암으로 변한다는 말이 있다. <br/> <br/> 이에 세브란스병원 건강칼럼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생기는 기전, 생기는 부위, 발생 양상이 완전히 다르므로 별개의 질환으로 이해해야 하며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더라도 전립선암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없다. <br/> <br/> 또한 전립선 비대가 심하면 증상도 심하다는 말이 있지만 전립선 비대위치가 전립선 요도를 직접 압박하는 부위인 선조직이 비대할 경우는 직접 증상악화와 직결되지만 그 외의 근육조직, 섬유조직인 경우는 그렇지 ?다고 전해진다. <br/> <br/> 특히 정관수술을 한 사람은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관수술과 암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알려졌다. <br/> <br/> 한편 잘못 알려진 전립선 질환 상식 소식에 누리꾼들은 “잘못 알려진 전립선 질환 상식, 아 그렇구나” “잘못 알려진 전립선 질환 상식, 몰랐네” “잘못 알려진 전립선 질환 상식, 이런 것도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72.txt

제목: 대장암은 술과 고기 좋아하는 남성만의 암 아니다. 65세 이상 여성 대장암 발생률 1위 주의  
날짜: 20150922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0945419  
본문: 대장암은 국내 남성암 발생 2위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대장암 발병 추이를 보면 한국 여성도 대장암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br/> <br/>국내 통계청(2015년)의 보고에 따르면 대장암은 65세 이상 노령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의 1999~2012년 사이 암 발생 통계에 의하면 여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해마다 4.3%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br/> <br/> 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 협진센터장 김광호 교수는 “<span class='quot0'>국내 여성의 대장암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들에게 발병하는 암 중에서는 3위, 65세 이상 노령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집계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여성들의 경우 남성에 비해 대장암의 조기 발견이 늦고 상대 생존율이 낮아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대장암의 예방과 조기 검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 대장암은 남성암? 성별에 따라 ‘남녀유별’한 암 <br/>9월은 ‘대장앎의 달’이지만 대장암이 성별에 따라 발생률에 차이가 있는 ‘남녀유별’한 암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br/> <br/>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10만 명당 대장암 발병률은 58.7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대장암은 흔히 남성에게서 발병이 쉬운 암으로 인식되어 왔다. <br/> <br/>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장암이 적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령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실제 2012년 암등록통계의 65세 이상 고령군에서 암 발생 순위를 살펴보면 남성은 대장암이 3위인데 반해 여성은 대장암이 1위이다. <br/> <br/> 특히 우리나라 대장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의 경우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의 1993~2012년의 대장암의 성별 상대생존율 자료를 살펴보면, 5년 생존율의 경우 여성은 65.9%, 남성은 70.5%로 4.6%나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장암은 ‘남성암’이라는 인식 때문에 대장암 검진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여 병이 진전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br/> <br/> ◆ 폐경기 접어든 중년 여성, 대장암 주의해야 <br/>여성의 대장암 발생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많은 역학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낮은 이유로 에스트로겐의 효과, 혹은 호르몬 대체요법과의 관련성을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Women’s Health Initiative 코호트 연구에서 호르몬 대체요법(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병합)은 결장암 위험을 약 30%, 직장암 위험을 약 43%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여성이 폐경기에 접어들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대장암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br/> <br/> 또한, 여성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해 허리둘레가 늘어나기 때문에 60세 이상에선 대장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복부비만은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데 특히 여성의 비만은 남성에 비해 대장암 발병에 더욱 위험하다. 실제 세계소화기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10cm 증가하면 여성의 대장암 발병 위험이 16%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폐경을 맞은 여성의 복부비만 유병률은 폐경 전 32.1%, 폐경 후 44.5%로, 폐경 후 여성이 12.4% 더 높은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br/> <br/> ◆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가장 좋은 대장암 예방법은 대장 내시경 <br/>대부분의 대장암은 양성 종양인 선종이 5~15년에 걸쳐 서서히 악성으로 변하여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 제거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정기 건강검진을 충실히 받으면 대장암 발생률을 90%나 줄일 수 있는 만큼,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대장암 조기 검진 권고안에서도 50세부터 매 5~10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조금 더 일찍 검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br/> <br/> 대장 내시경은 대장 건강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 중 하나지만, 검사 과정이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검사받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대장 내시경은 장을 비운 후 항문으로 내시경 기기를 삽입, 대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장 세정제 복용과 오랜 시간 설사를 해야 하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br/> <br/> 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 협진센터장 김광호 교수는 “대장 내시경은 대장 내부를 관찰하고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이 있으면 용종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조직 검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뿐 아니라 치료까지 가능한 검사 방법이다.”며, “만 50세 이상 대장암 위험군이라면 다소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대장 내시경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br/> <br/> 또한 김광호 교수는 “대장암은 식생활의 영향이 큰 만큼 평소 육류 대신 섬유질 위주의 식단으로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 또 여성의 경우 흡연 여성이 비흡연 여성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약 20% 높은 만큼 금연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73.txt

제목: 소득격차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 편차 해소해야  
날짜: 20150922  
기자: 황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0823311  
본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pan class='quot0'>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검진 등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사업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이 낮다</span>”며 “<span class='quot0'>질병의 조기 발견, 진단, 치료라는 건강검진의 취지를 살려 저소득층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밝혔다. <br/> <br/>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2014년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은 74.75%인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45.30%에 그쳐 수검률 차이는 29.45%를 보였다. <br/> <br/>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에 해당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평가(뇌졸증, 심근경색, 혈관성치매) 등을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의 경우 소득격차에 따른 수검률 차이를 나타냈다. 2014년 건강보험가입자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률은 약 75.23%였고, 같은 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약 57.30%에 그쳐, 약 18% 차이를 보였다. <br/> <br/>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국민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을 토대로 선정된 5개 암에 실시하는 암검진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았다. 2014년 건강보험가입자의 45.80%가 암검진을 받았으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같은 기간 31.25%만이 암검진을 받아 14.55%의 차이를 보였다. <br/> <br/>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를 월 1만 원이하로 납부하는 저소득층 역시 고소득층에 비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았고, 최근 들어 격차가 벌어졌다. <br/> <br/>이같은 현상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암검진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건강보험료 10만원 이상 납부하는 고소득층의 경우 평균 수검률보다 낮았는데, 이는 민간 건강검진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br/> <br/>문 의원은 “<span class='quot0'>건강검진기본법에는 국가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건보공단은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나 외국인 번역 서비스 확대, 도서벽지 거주자를 위한 이동검진 서비스, 유관기관 및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저소득층 수검 독려 등 소득 격차에 따른 수검률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74.txt

제목: 소득격차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 편차 해소해야  
날짜: 20150922  
기자: 황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0823532  
본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pan class='quot0'>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검진 등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사업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이 낮다</span>”며 “<span class='quot0'>질병의 조기 발견, 진단, 치료라는 건강검진의 취지를 살려 저소득층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밝혔다. <br/> <br/>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2014년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은 74.75%인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45.30%에 그쳐 수검률 차이는 29.45%를 보였다. <br/> <br/>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에 해당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평가(뇌졸증, 심근경색, 혈관성치매) 등을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의 경우 소득격차에 따른 수검률 차이를 나타냈다. 2014년 건강보험가입자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률은 약 75.23%였고, 같은 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약 57.30%에 그쳐, 약 18% 차이를 보였다. <br/> <br/>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국민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을 토대로 선정된 5개 암에 실시하는 암검진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았다. 2014년 건강보험가입자의 45.80%가 암검진을 받았으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같은 기간 31.25%만이 암검진을 받아 14.55%의 차이를 보였다. <br/> <br/>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를 월 1만 원이하로 납부하는 저소득층 역시 고소득층에 비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았고, 최근 들어 격차가 벌어졌다. <br/> <br/>이같은 현상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암검진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건강보험료 10만원 이상 납부하는 고소득층의 경우 평균 수검률보다 낮았는데, 이는 민간 건강검진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br/> <br/>문 의원은 “<span class='quot0'>건강검진기본법에는 국가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건보공단은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나 외국인 번역 서비스 확대, 도서벽지 거주자를 위한 이동검진 서비스, 유관기관 및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저소득층 수검 독려 등 소득 격차에 따른 수검률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75.txt

제목: 佛, 시험관서 인간 정자 배양 첫 성공  
날짜: 20150921  
기자: 이지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0631051  
본문: 프랑스 연구팀이 시험관에서 인간의 성숙한 정자를 만드는 데 최초로 성공했다고 영국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r/> <br/>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생명공학 기업 칼리스템의 연구실장 필립 뒤랑 박사는 불임 남성의 고환에서 채취한 미성숙 세포를 세포배양기 안에서 자연정자와 똑같은 정자로 키워내는 데 성공했다. <br/> <br/>뒤랑 박사는 “<span class='quot0'>앞으로 2∼4년 안에 시험관 수정이 불가능한 불임 남성과 암 치료로 생식능력을 잃은 환자가 자녀를 갖는 것이 가능해질 것</span>”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쥐, 원숭이, 인간의 정자를 시험관에서 만들어 냈다”며 “앞으로 시험관에서 만든 쥐의 정자를 난자와 수정시킨 후 성공하면 사람의 배양 정자를 사용한 실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뒤랑 박사는 연구 논문이 아직 전문지에 게재되기 전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r/> <br/>이에 대해 영국 셰필드 대학의 앨런 페이시 남성학 교수는 자세한 내용이 과학전문지에 발표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험관에서 만든 정자의 사진을 보면 길게 보일 뿐 성숙한 정자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br/> <br/>이지수 기자 v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76.txt

제목: 세계 최초로 시험관에서 인간 정자 만들어내  
날짜: 20150921  
기자: 이지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0425855  
본문: 프랑스 연구팀이 시험관에서 인간의 성숙한 정자를 만드는 데 최초로 성공했다고 영국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다. <br/> <br/>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생명공학 기업 칼리스템(Kallistem)의 연구실장 필립 뒤랑 박사는 불임 남성의 고환에서 채취한 미성숙 세포를 ‘세포배양기’(bioreactor) 안에서 자연정자와 똑같은 정자로 키워내는 데 성공했다. <br/> <br/>뒤랑 박사는 앞으로 2~4년 안에 시험관 수정(IVF)이 불가능한 불임 남성과 암 치료로 생식능력을 잃은 환자가 자녀를 갖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쥐, 원숭이, 인간의 정자를 시험관에서 만들어 냈다”며 “앞으로 시험관에서 만든 쥐의 정자를 난자와 수정시킨 후 성공하면 사람의 배양 정자를 사용한 실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뒤랑 박사는 연구 논문이 아직 전문지에 게재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r/> <br/>이에 대해 영국 셰필드 대학의 앨런 페이시 남성학교수는 자세한 내용이 과학전문지에 발표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험관에서 만든 정자의 사진을 보면 길게 보일 뿐 성숙한 정자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br/> <br/>이지수 기자 v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77.txt

제목: ‘디데이’ 김영광, 열혈 의사의 패기에 반전 카리스마까지...‘호평세례’  
날짜: 20150921  
기자: 이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0315119  
본문:   ‘디데이’ 김영광이 열혈 의사의 패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br/> JTBC 새 금토 드라마 ‘디데이’에서 투철한 신념을 지닌 일반외과 전문의 이해성 역을 맡은 김영광이 사람 위한 열혈 의사의 패기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br/> 지난주 방송된 ‘디데이’에서는 암 전문 병원 미래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이해성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미래병원은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리스크가 큰 응급환자보다는 외래와 정해진 수술 위주로 실적을 우선시하는 병원이었다. 응급실도 간신히 운영하는 상황. 이 때문에 전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생존율 10%의 환자의 응급 수술까지 나서는 해성이 좋아 보일 리 없었다. <br/> 결국, 해성은 검진 전문 병원인 한강 미래병원으로 좌천되기에 이르렀다. 병원장 박건(이경영 분)이 직접 나서 해성에게서 메스를 뺏은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해성의 열정까지 꺾을 수는 없었다. 해성은 함께 근무하던 간호사 박지나(윤주희 분)과 함께 고기집에서 식사하던 중 큰 사고를 겪는다. 근처 공사장에 싱크홀이 발생, 대형 크레인이 사람들을 덮친 것이다. <br/> 가까스로 피해 목숨을 구한 해성은 곧바로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고, 응급실도 없는 한강 미래병원으로 경상 환자들을 보내 직접 진료에 나섰다. 그러던 중 싱크홀 아래로 차와 탄 채 추락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 미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비장파열이 확인되자 비뇨기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해성은 급기야 사용한 지 오래된 수술실을 열기에 이른다. <br/> 응원차 병원에 들렀던 친구 정신과 전문의와 정형외과 레지던트 3년 차를 어시스트 삼아 긴급 수술에 나선 해성은 간신히 환자의 목숨을 살리고, 이 장면은 뉴스에 방영된다. 한숨 돌렸다 생각한 것도 잠시, 긴 밤을 보낸 해성에게 닥친 것은 더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었다. 간밤의 싱크홀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지진 발생의 전조였다. 하늘을 가득 메운 무지개와 동물들의 이상 행동에 어리둥절하던 사람들은 곧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며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지진을 맞게 됐다. 아비규환의 한복판, 자연 앞에 힘없이 스러져가는 생명을 두고 해성이 어떤 시련과 성장통을 겪게 될지 앞으로 이야기에 궁금증이 더해졌다. <br/> 김영광은 큰 규모의 극을 무리 없이 이끌며 주연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간 tvN ‘아홉 수 소년’, SBS ‘피노키오’ 등 굵직한 작품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안방을 찾았지만, 극 전체를 아우르는 건 사실상 ‘디데이’가 처음이다. 이 때문에 방송 전 일각에서 김영광의 주연 발탁을 두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br/> 그러나 김영광은 작은 역할부터 차근차근히 쌓아올린 필모그라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김영광은 사람의 생사 앞에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강한 신념과 뛰어난 실력을 날카로운 카리스마로, 환자들 앞에서 누구보다 선한 미소를 짓는 다정함을 따뜻한 눈빛으로 연기하며‘디데이’의 높은 완성도에 큰 축을 담당했다. <br/>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재난 메디컬 장르를 향한 호기심부터 한 시도 흐트러짐 없는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압도적인 스케일까지 연일 화제를 모은 가운데 명실공히 ‘김영광의 재발견’이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br/> 한편 '디데이'는 서울 대지진, 처절한 절망 속에서 신념과 생명을 위해 목숨 건 사투를 벌이는 재난 의료팀 DMAT의 대활약과 가슴 저릿한 인간애를 그린 휴먼 드라마이로 매주 금, 토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br/> <br/>이슈팀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78.txt

제목: 애인있어요 김현주, "어서 보거라. 나의 가슴을".. 무슨 사연이길래? 뷸륜과 볼륨 사이  
날짜: 20150920  
기자: 이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0058841  
본문:   <br/> <br/> 애인있어요 김현주가 화제인 가운데 과거 김현주의 누드 화보가 시선을 끌고 있다. <br/> <br/> 패션 잡지 싱글즈는 2010년 화장품 브랜드 에스티로더가 주관한 '유방암 의식 향상 캠페인' 화보 사진을 공개했다. <br/> <br/> 공개된 사진 속에는 김현가는 상반신을 고스란히 드러낸 채 수줍은 듯한 미소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br/> <br/> 사연인 즉, 당시 김현주는 화보 촬영과 관련해 "암을 이긴 여성들과 함께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며 "많은 사람이 유방암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한 것. <br/> <br/>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애인있어요 김현주, 개념있네. 그냥 벗은게 아니구나" "애인있어요 김현주, 불륜과 볼륨 사이.. 가슴 속에 감춰진 슬픔이란 건 유방암을 의미한다. 김현주가 좋은 일 했네요 파이팅" "애인있어요 김현주, 매력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공익적인 일까지? 최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사진 = 방송화면 캡쳐, 싱글즈) <br/> <br/>이슈팀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79.txt

제목: '애인있어요' 김현주, 과감한 상반신 누드'그녀는 왜 벗었나'  
날짜: 20150919  
기자: 이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5906126  
본문:   <br/> <br/> SBS 주말드라마 '애인있어요'의 배우 김현주가 화제인 가운데 과거 그의 화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br/> <br/> 지난 2010년 김현주는 싱글즈 표지 모델 화보 촬영에서 상반신 누드를 감행했다. <br/> <br/> 이는유방암을 이겨낸 여성들과 함께 여성의 가슴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캠페인 화보 촬영에 동참한 것. <br/> <br/> 당시 김현주는 화보 촬영 인터뷰에서 "이번 화보 촬영은 암을 이긴 여성들과 함께 진행돼 개인적으로 무척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유방암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 <br/> 한편 김현주는 SBS드라마 '애인있어요'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br/> <br/> 임수연 기자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80.txt

제목: [현화영의 리플레이] 나훈아는 왜 이혼을 거부하며 '두문불출'할까  
날짜: 20150919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5743122  
본문:   <br/> <br/> <br/> <br/>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8) 부부가 두 번째 이혼조정에 실패,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나훈아의 아내 정모(54)씨는 "남편이 암에 걸린 아들에게 연락 한 번 안했다"며 이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br/> <br/>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두 번째 조정절차가 진행됐다.  <br/> <br/>이날 조정에는 나훈아 측 변호인과 정씨만이 참석했고, 양측이 여전한 입장 차를 보이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나훈아가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br/> <br/>앞서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은 채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는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며 정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br/> <br/>정씨가 이혼소송을 낸 건 2011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2011년 소송 당시 정씨는 "가정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혼인 유지를 원하는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br/> <br/>정씨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의 투병사실'을 고백해 충격을 안기기도. 그는 "사실 우리 아들이 많이 아프다. 아이가 아픈데도 아빠(나훈아)한테 연락을 할 수 없는 현실이 비참했다"고 털어놨다. 나훈아의 아들은 지난 3월 암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투병 중이다. 나훈아는 이혼조정 절차 중에 이런 사실을 전해 들었다. 정씨는 나훈아가 아들 투병 소식을 알고도 연락 한 번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r/> <br/>1973년 첫 결혼 후 2년 만에 이혼한 나훈아는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6년 만에 '남남'으로 갈라섰다. 정씨와는 1983년 결혼했고,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br/> <br/>나훈아와 정씨 간 이혼소송 첫 재판은 오는 11월6일 열린다. 나훈아는 2008년 자신을 둘러싼 악성루머를 해명하는 '역대급' 기자회견을 연 이후 8년째 두문불출하고 있다. 그런 그가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br/>사진=SBS 방송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81.txt

제목: 대한당뇨발학회 주관 “2015년 제1회 당뇨발의 날” 제정  
날짜: 20150918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5317091  
본문: 2015년 제1회 당뇨발의 날 포스터 <br/>“제1회 당뇨발의날” 행사를 2015년10월19일 삼성서울병원을 시작으로 10월 23일 까지 1주일간 "당뇨발 관심으로 당당한 걸음" 이라는 슬로건 하에 전국 여러 병원에서 건강강좌와 상담 및 무료 당뇨발 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다. <br/> <br/> 당뇨병은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30세 이상의 성인 10명 중 1명에 당뇨병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당뇨병 환자의 1/4은 당뇨발로 인한 족부궤양을 겪게 된다고 한다. <br/> <br/> 당뇨발은 당뇨에 의해 생기는 발의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질환으로 당뇨병성궤양, 당뇨병성 허혈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골관절증, 당뇨병성 염증 등을 지칭한다. 당뇨병환자는 비당뇨환자에 비해 약 15배 높은 족부절단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당뇨발 환자 전체의 약 20 %가 절단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br/> <br/> 또한, 당뇨발로 인해 발에 궤양이 발생한 경우 5년 사망률은 43%에서 55%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전립선암, 유방암, 혹은 대장암 등의 대표적인 암 질환의 사망률보다 더 높은 사망률이다. <br/> <br/> 당뇨발에 의한 후유증은 다른 질환보다 훨씬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당뇨로 인한 심장질환, 신장질환 및 눈의 망막질환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기에 상대적으로 당뇨로 인한 발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br/> <br/> 당뇨발의 치료는 한개의 진료과 보다는 다학제간의 협진이 필요한 질환이다.대한당뇨발학회는 혈관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내분비내과등의 전문의료진들과 전문간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들이 정회원으로 참여하여 당뇨발에 대한 지식과 치료 방침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다학제학회이다. <br/> <br/> 이에 대한당뇨발학회에서는 당뇨에 의한 발 문제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하여 당뇨병환자와 가족들이 적절한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당뇨발의 날을 제정하고자 한 것이다. <br/> <br/> 대한당뇨발학회 회장 김동익은 “<span class='quot1'>이번 행사를 통해 당뇨인들이 발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어 건강한 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대한당뇨발학회가 당뇨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공헌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span>”고 말했다. <br/>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82.txt

제목: 결혼미끼로 수천만원 뜯어낸 뒤 결혼식 직전 '간암' 핑계로 사라진 40대  
날짜: 2015091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5238226  
본문: 직업과 나이를 속인 채 30대 여성간호사에게 접근, 결혼을 미끼로 4년간 수천만원을 뜯어낸 뒤 결혼식 직전 "간암에 걸렸다"고 또 다시 거짓말, 치료비까지 받아낸 후 도망쳤던 파렴치한 40대 전과 10범이 붙잡혔다. <br/> <br/>'간암 순애보'를 사기극으로 끝낸 이 남성은 같은 기간 동안 또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능력(?)까지 있었다. <br/> <br/>1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안모(44)씨를 구속했다. <br/> <br/>사기 등 전과 10범인 안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혼녀 김모(32·여)씨에게 82차례에 걸쳐 66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또 김씨의 양아버지 김모(60)씨에게도 사업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br/> <br/>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1년 6월 서울 구로구의 한 헬스장에서 만난 김씨에게 "IT 기업 대표"라며 자신을 소개한 뒤 운동을 가르쳐주겠다며 접근했다.  <br/> <br/>김씨보다 6살 연상이라며 나이까지 속인 안씨는 교제가 무르익자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계를 구매해야 한다"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며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00만원을 수시로 빌려 갔다. <br/> <br/>간호사로 일하는 김씨는 "결혼하자"는 안씨 말을 믿고 양아버지를 소개해 1200만원을 더 빌려줬다. <br/> <br/>지난 4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식장을 예약한 안씨는 결혼식 2주전 "간암에 걸렸으니 결혼을 조금 미루자"고 했다. <br/> <br/>미래의 동반자의 암 소식에 어쩔줄 몰라하던 김씨는 안씨에게 용기를 심어줬다. <br/> <br/>이를 김씨에게 안씨는 지난 5월 31일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80만원을 더 받아낸 후 그날 저녁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br/> <br/>이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은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br/> <br/>경찰은 안씨의 통신 내역을 추적해 그가 지난 5년간 김씨 몰래 교제해온 홍모(여·39)씨를 찾아냈다. <br/> <br/>경찰은 홍씨를 일주일간 미행한 끝에 지난 15일 밤 홍씨를 만나러 나온 안씨를 검거했다. <br/> <br/>안씨는 2009년 출소한 뒤로 카드빚에 시달리며 고시텔과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김씨를 만나게 됐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83.txt

제목: 만성질환자도 질병보장보험 가입 가능  
날짜: 20150917  
기자: 이귀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5106074  
본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br/> <br/>금융감독원은 유병자 전용보험의 보장 범위를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계약 전에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유병자 전용보험상품 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민이 1183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보장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br/> <br/>보험사가 유병자 보험상품을 어려움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보험개발원이 과거 13년간의 유병자 질병통계를 모아 가공한 자료를 이달부터 보험업계에 제공한다. <br/> <br/>금감원은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병자에게 보험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대폭 완화한다.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수술 이력 고지기간은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통원·투약 고지의무는 면제한다. 최근 5년간 중대질병 발생 여부를 알려야 하는 대상도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에이즈)에서 암 하나로 대폭 축소한다. 음주 횟수와 음주량, 현재 흡연 여부 등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다. <br/> <br/>한편, 금감원은 지난 1∼6월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3105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2% 늘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4만960명으로 0.6% 증가했다. 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1466억원으로 47.2%를 점유했다. <br/> <br/>이귀전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84.txt

제목: ‘무빙’ 강풀, 역대 가장 힘들었던 작품?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날짜: 2015091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5121950  
본문: ‘무빙’ 강풀, 역대 가장 힘들었던 작품?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span></span>” <br/>‘무빙’ 강풀, 역대 가장 힘들었던 작품?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span></span>” <br/> <br/> ‘무빙’ 강풀이 역대 가장 힘들었던 작품이라고 꼽았다. <br/> <br/> 1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웹툰 '무빙' 연재를 마친 만화가 강풀이 출연했다. <br/> <br/> 이날 강풀은 "내가 늘 작품을 할 때면 30회를 고집했는데 이번에는 45회로 그렸다. 그런데 다시는 안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얼마나 고됐는지 표현했다. <br/> <br/> 이어 손석희 앵커는 "웹툰 마지막 회에 '이 만화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바칩니다'는 글을 적었더라. 이유가 있나?"라고 하자 강풀은 "'무빙' 연재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br/> <br/> 또한 "아버지가 암이셨는데, 난 연재가 끝나고 내년까지는 계실 거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중간에 돌아가셔서 장기 휴재를 하기도 했고…. 그리면 그릴 수록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 이번처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작품은 처음이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r/> <br/> 한편 ‘무빙’ 강풀 소식에 누리꾼들은 “‘무빙’ 강풀, 정말 힘드셨겠다” “‘무빙’ 강풀, 힘내세요”“‘무빙’ 강풀, 진짜 재밌게 봤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85.txt

제목: 강풀, '뉴스룸' 전격 출연...역대 가장 힘들었던 웹툰 작품은?  
날짜: 20150917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5120710  
본문: 만화가 강풀이 '뉴스룸'에 출연 해 손석희와 만났다. <br/> <br/>웹툰 '무빙' 연재를 마친  강풀은 17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출연,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나눴다. <br/> <br/>이날 강풀은 "내가 늘 작품을 할 때면 30회를 고집했는데 이번에는 45회로 그렸다. 그런데 다시는 안하려고 한다"며 '무빙' 연재 과정을 돌이켰다. <br/> <br/>이어 손석희 앵커는 "웹툰 마지막 회에 '이 만화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바칩니다'는 글을 적었더라.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을 건내자, 강풀은 "'무빙' 연재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br/> <br/>그는 "아버지가 암이셨는데, 난 연재가 끝나고 내년까지는 계실 거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중간에 돌아가셔서 장기 휴재를 하기도 했고…. 그리면 그릴 수록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 이번처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작품은 처음이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86.txt

제목: 서울대학교암병원, 가을맞이 335 암 예방 걷기대회 개최  
날짜: 20150916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4419658  
본문:   <br/> <br/> <br/>서울대학교암병원은 지난 15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제9회 '암예방 335 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br/> <br/>서울대학교암병원은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암경험자의 재발 및 2차암 예방을 돕기 위해 매년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고궁, 공원, 생태숲, 서울 내 트레킹 코스 등에서 열리는 '335 암예방 걷기대회'를 통해 적절한 신체활동과 의료진 및 암환우 간의 교류, 자신감 고양 등의 효과를 얻고 있다. <br/> <br/>정현훈 암정보교육센터장(부인암센터 교수)과 간호사 등 의료인 및 암정보교육센터에서 활동 중인 암환우 자원봉사자와 서울대학교병원 암환자 및 보호자 등 35명은 2시간 동안 서울대공원 산림욕장과 동물원 코스를 걸었다. <br/> <br/>유방암, 위암 경험자인 자원봉사자들은 1:1 안내와 상담, 선배 암환우와의 대화, 웃음봉사단 등의 활동을 통해 치료 중인 암환우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br/> <br/>환우자원봉사자 김애희씨는 "암 환우를 위한 봉사활동을 계속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걷기대회는 암 재발과 2차암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 준다"고 말했다. <br/> <br/>한편 서울대학교암병원은 암 발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방이 그 어떤 치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암예방 335'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의 내용은 금연, 절주와 함께 영양 3?5(하루 3끼 균형 잡힌 식사에 5가지 이상 채소 섭취하기), 운동 3?5(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번 운동하기), 체중 3?5(체질량지수 23이하로 유지하고 25 절대 넘지 않기)의 3가지 3?5를 실천하는 것이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87.txt

제목: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2015년 하반기 캠페인 전개  
날짜: 20150916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4415006  
본문: ㈜아모레퍼시픽과 방문판매원 ‘아모레 카운셀러’가 함께 전개하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AMOREPACIFIC Makeup Your Life)’ 캠페인의 2015년 하반기 일정이 16일 서울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두 달간 진행된다. <br/> <br/>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치료 과정에서 피부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 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피부관리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br/> <br/> 이를 통해 환우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br/> <br/> 유방암 전문의인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이 지난 2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에 참여한 환우들의 경우 스트레스 지수가 약 17% 감소하고 암에 대한 회피적 대응 정도도 12%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심리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9~11월에 걸쳐 진행되는 하반기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서울 및 전국 주요 지역 총 20개 병원 810명 환우를 대상으로 전개되며, 324명의 아모레 카운셀러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암 수술 후 2년 이내로 현재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 중인 여성 환우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브로셔, 헤라(HERA) 메이크업 제품과 프리메라(Primera) 스킨케어 제품으로 특별 구성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키트’가 제공된다. <br/> <br/> ㈜아모레퍼시픽 Luxury BU 류제천 부사장은 “<span class='quot0'>아모레 카운셀러는 1964년 방문판매가 처음 도입된 이래, 우리 사회에 ‘아름다움’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 카운셀러가 함께 전개하는 이번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을 통해 환우 여러분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span>”고 전했다. <br/> <br/>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88.txt

제목: 녹십자제대혈, 항암면역세포치료제 분야 선두주자로 도약  
날짜: 20150916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4307392  
본문:   <br/> <br/> <br/>한국인 사망률 1위인 암은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암 치료의 경우 주로 절제 수술, 방사선 치료 및 항암제 투여 등으로 진행된다. 기존 치료법의 한계로는 많은 부작용과 함께 면역력 저하에 의한 암의 재발, 전이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에는 기존 항암치료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치료법 중의 하나로 면역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 특히 차세대 항암요법 중 하나로 최근 들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인 키메라 항원 수용체 치료 (CAR-T, Chimeric Antigen Receptor-Therapy)는 최근 혈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뛰어난 임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T 세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항암면역세포인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NK cell)을 이용하는 기술에 주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글로벌 제약사들과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은 CAR-T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이고, 국내제약사들 역시 항암면역세포치료제를 차세대 바이오 핵심 사업으로 본격 개발하고 있다. <br/> <br/> 차세대 바이오 핵심 사업, 항암면역세포치료제 <br/> <br/> 항암면역세포치료는 혈액 속 림프구의 면역세포를 배양해 세포 수를 증폭시키거나 기능을 강화시켜 이를 다시 그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법이다. 체내에 들어간 면역세포는 암세포에 특이적 면역반응을 유도하여 암세포만을 공격하게 된다. 이 치료법은 기존 치료방법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고 면역반응 조절 치료에 효과를 보이고 있어 전이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항암제와의 병용 치료로 더 뛰어난 치료 성적을 보고하고 있으며 환자의 면역력 상승으로 삶의 질 향상 효과까지 있어 차세대 항암치료제로서 가치가 높다. <br/> <br/> 또한 항암면역세포 중 하나인 자연살해세포(NK cell)는 면역화 과정 없이 종양 세포나 바이러스 감염 세포에 대해 용해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암의 발생과 증식, 전이 및 재발을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각광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NK 세포는 조직특이적으로 작용하는 T 세포나 DC 세포와는 달리 타인 유래의 세포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r/> <br/> 녹십자랩셀 박복수대표는 "면역세포치료제 연구 및 개발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므로 좀 더 연구하고 상용화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의 분야다"며 "무엇보다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연구 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의 관심과 노력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br/> <br/> 녹십자랩셀, NK세포치료제 개발 박차 <br/> <br/> 이러한 NK세포치료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국내 기업으로 녹십자랩셀이 있다. 녹십자랩셀은 NK세포치료제 'MG4101' 면역세포치료제를 핵심전략사업으로 2018년 출시를 목표로 임상시험 중에 있다. NK 세포치료제 (MG4101)는 말초 혈액으로부터 NK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확장배양하고 동결한 뒤 해동하여 투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품질검사 비용을 대폭 줄여 단가를 낮추고 환자가 원하는 때에 투여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졌다. <br/> <br/> 또한 공여자 1명으로부터 얻은 NK 세포를 여러 명의 환자에게 투여, 의약품으로써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NK 세포의 종양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여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녹십자랩셀 세포치료연구소는 올해 6월 목암연구소와 함께 '제대혈 단핵세포 또는 이로부터 유래된 세포로부터 자연살해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공동 출원하였다. <br/> <br/> 이와 관련하여 녹십자랩셀 황유경 소장은 "NK 세포치료제의 원료 물질을 말초혈액에서 제대혈로 확장하고, 이 기술을 통해 제대혈을 조혈모세포이식 및 NK 세포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NK세포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제대혈 산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89.txt

제목: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2015년 하반기 캠페인 전개  
날짜: 20150916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4308476  
본문:   <br/> <br/> <br/>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은 방문판매원 '아모레 카운셀러'와 함께 전개하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AMOREPACIFIC Makeup Your Life)' 캠페인의 2015년 하반기 일정이 오늘(16일) 서울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두 달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br/> <br/>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치료 과정에서 피부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 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과 피부관리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환우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br/> <br/> 유방암 전문의인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이 지난 2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에 참여한 환우들의 경우 스트레스 지수가 약 17% 감소하고 암에 대한 회피적 대응 정도도 12%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심리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이번달부터 11월에 걸쳐 진행되는 하반기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서울 및 전국 주요 지역 총 20개 병원 810명 환우를 대상으로 전개되며, 324 명의 아모레 카운셀러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암 수술 후 2년 이내로, 현재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 중인 여성 환우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브로셔, 헤라(HERA) 메이크업 제품과 프리메라(Primera) 스킨케어 제품으로 특별 구성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키트'가 제공된다. <br/> <br/> 캠페인 현장에서는 참여 환우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와 아모레 카운셀러 봉사단이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노하우를 전수하며, 표정 컨설팅/자가 피부 체크법 등 생활 속 뷰티 노하우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br/> <br/> 일부 캠페인에서는 암을 경험했던 유명 연사 및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직접 연단에 서 자신의 투병 경험과 질병 극복에의 희망을 전하는 섹션 또한 진행된다. 한편, 거동의 불편함 및 시간적 여유 부족 등 부득이한 이유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환우를 대상으로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단이 직접 환우의 자택 및 병실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또한 함께 운영한다. <br/> <br/> 올해 하반기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병원 캠페인 외에도 아모레퍼시픽의 프리미엄 녹차 브랜드 '오설록', 플라워 서브스크립션 브랜드 '꾸까(Kukka)', 퍼스널컬러 커뮤니티 '컬러즈(Coloz)' 등 외부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도 체험, 꽃을 활용한 공예, 나에게 잘 맞는 색상 선택법 등의 교육을 통해 환우들이 심신을 안정시키고 내외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br/> <br/> 아모레퍼시픽 Luxury BU 류제천 부사장은 "아모레 카운셀러는 1964년 방문판매가 처음 도입된 이래, 우리 사회에 '아름다움'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 카운셀러가 함께 전개하는 이번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을 통해 환우 여러분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br/> <br/> 한편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아모레퍼시픽이 주최하고 한국유방건강재단, 대한종양간호학회, 한국유방암학회,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한다. 캠페인의 자세한 정보 및 참가 방법은 2015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운영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90.txt

제목: 서울의료원, 암환자 식단전시회 개최  
날짜: 20150916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4301945  
본문:   <br/> <br/> <br/>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본관 1층 로비에서 '암환자 식단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br/> <br/>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수술 후나 항암치료 과정에서 오심과 구토로 인한 영향결핍이 발생해 합병증이나 우울증 등 암 이외에 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져 치료과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번 전시회는 암환자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항암치료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유도해 치료에 도움을 주고 식사개선을 통한 암 발생을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br/> <br/> 이를 위해 서울의료원 영양팀은 암환자의 소화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영양과 맛을 고려한 암환자 맞춤 식단을 선보이고 전시회 참여객을 대상으로 무료시식 코너를 운영할 계획이다. <br/> <br/> 또한 암환자 및 보호자들이 집에서도 직접 음식을 조리하여 투병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암환자 맞춤식단의 조리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br/> <br/> 이외에도 간암, 유방암 등 질환별 식단과 암으로 인한 증상에 도움을 주는 음식, 암을 예방하는 슈퍼푸드 등을 전시하여 전시회에 참석한 환자 및 보호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br/> <br/> 서울의료원 진혜원 영양팀장은 "보고 즐기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암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식단 전시회를 마련했다"며 "암환자는 힘든 치료과정으로 인해 영양 결핍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집에서도 암환자 식단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91.txt

제목: NCCK, '팔-이스라엘 평화 위한 기도' 요청  
날짜: 20150915  
기자: 정성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3828243  
본문:   <br/> <br/>  “우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자신들의 존엄과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투쟁은 세계의 많은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생겨난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하게 노력하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미사일, 폭탄, 상대를 향한 신랄한 비난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군사적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총대주교, 사진)  <br/> <br/>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요청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세계기도주간’으로 지키며, 회원교회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고립장벽의 부당함에 대해 논의할 것,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평화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 널리 알려줄 것,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문’을 예배와 성서 공부 때 공동 낭독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br/> <br/> 앞서 WCC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에큐메니칼 포럼은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의 종식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주민-들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셋째 주(올해는 20-26)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세계기도주간’으로 지킬 것을 회원 교회에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올해는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신다.’는 주제로 드려지며, 특별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고립 장벽’이 주요 기도제목이다. ‘팔레스타인 고립장벽’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등 관련 자료는 NCCK 홈페이지(www.kn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 <br/> 한편, 영국국교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투투(83) 명예대주교는 과거 전립샘암 치료로 인한 염증이 계속돼 가벼운 수술을 받고 최근 퇴원했으며, 암은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정성수 종교전문기자 tols@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92.txt

제목: 미술전부터 유기동물 후원까지…의료기관의 다양한 후원행사 주목  
날짜: 20150915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3738920  
본문:   <br/> <br/> <br/> <br/>“자넨 장사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 물건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게 장사야? 장사라는 것은 말이야.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버는 거야.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돼. 사람을 벌고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장사야.” <br/> <br/> 위의 말은 과거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상도 속 대사다. 조선의 최고의 거부였던 임상옥의 멘토라 할 수 있는 홍득주의 가치관이었고, 임상옥은 이 정신을 이어 받아 상지인(商之人, 장사란 사람이다.)을 평생 걸쳐 실천해 부는 물론 뭇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다. <br/> <br/> 이는 요즘에도 통용되는 말이다. 각종 기업체들은 단순히 이윤추구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주로 자신의 사업 영역과 연관된 곳 혹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역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br/> <br/> 종합 미디어그룹인 CJ E&M은 오는 17일부터 3일간 ‘제2회 한중 청년 꿈키움 단편영화제’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다. <br/> <br/> 또, 신세계 그룹은 오늘(15일) 고용난 해소를 위한 ‘상생채용박람회’를 개최, 125개 기업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br/>  <br/>그리고 지난 12일 한화그룹은 ‘'한화 워킹포어스(Walking for Earth)’ 행사를 개최, 그룹 임직원 및 일반시민 300여명과 함께한 기부행사를 가지기도 했으며,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아산 배방고에 대해 스트레스 클리닉 프로그램 지원 및 학업을 위한 도서를 기증하기도 했다. <br/> <br/> 그런데 비단 이런 후원 행사는 대기업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 중소기업에서도 여러 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와 사회공헌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력을 하며, 이를 통해 나아가 사람(고객)의 마음을 잡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br/> <br/> 이런 활동은 의료·제약 분야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업들인 만큼, 이런 행사에 더 집중하는 편. <br/> <br/> <br/>제약 쪽을 살펴보면 동국제약은 최근 구강암 환자의 치료 기금 마련을 위한 마라톤 대회인  ‘2015 스마일 런(Run) 페스티벌’을 후원했으며, 오는 10월에는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행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br/> <br/>삼진제약도 지난 13일 서울 광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약 복용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동성제약 역시 지난 12일 도봉구청 2층 대강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염색봉사 활동을 개최했다. <br/> <br/> 이런 활동은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저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검진 및 건강 교실들을 열고 있는 상태. 여기에 나아가 환자, 더 나아가 사람들의 감성 힐링을 위한 무대를 갖고 있다.  <br/> <br/>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 11일 암환자를 위한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환우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하는 국내 유일의 행사로 출연진 모두 재능기부 형태로 동참했다. <br/> <br/>유디치과 역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유디치과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동서양 콜라보레이션 미술전시회인 ‘기억의 정원’을 유디갤러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 <br/> <br/>그런가하면 최근에는 유기동물을 위한 후원 버스킹 콘서트를 개최하는 곳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구안와사 집중치료 의료기관으로 알려진 단아안 한의원. <br/> <br/>서울 청계천 오간수교 수변무대에서 열릴 이번 유기동물 후원 버스킹 콘서트 ‘길냥아 찬데서 자지마’는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최근 디지털 싱글 'Military boyfriend'를 발매하며, 주목받고 있는 여성 싱어송라이터 민열이 무대를 장식한다. <br/> <br/>단아안 한의원에 따르면 이번 버스킹 콘서트는 유기동물을 위한 후원 성금 기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공연을 관람한 시민들이 공연장 한쪽에 마련된 사랑의 체온계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기부행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단아안 한의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기부 방식은) 체온계에 시민들의 온정이 가득해지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며, 새로운 반려가족을 찾아주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금일봉을 전달할 예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빈자일등(貧子一燈)이란 말처럼, 우리의 작지만 뜻 깊은 행사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온정의 등불을 켜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span>”고 전했다. <br/> <br/>한편, 지난 1998년 설립된 동물구조관리협회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및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방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곳이다. 또, 국내 최대의 보호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평균 1만 마리 이상의 동물을 구조 및 치료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93.txt

제목: 뇌종양, 개인별 유전체 분석으로 맞춤형 치료의 장을 열다  
날짜: 20150915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3646233  
본문: 국제학술지 Cancer Cell 표지 (그림 설명 :같은 환자라 하더라도 원발암(붉은색)과 재발암(초록색)의 발생 위치에 따라 종양의 유전체 특성이 서로 다름을 표현함) <br/>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내 연구진이 “<span class='quot0'>뇌종양 환자의 장기간 원발암/재발암 유전체 분석을 통해, 재발한 뇌종양 환자의 맞춤치료를 위한 새로운 치료 방향을 제시하였다</span>”고 밝혔다. <br/> <br/> 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 남도현 교수 연구팀과 삼성유전체 연구소 박웅양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및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으며, 국제 저명 학술지 Cancer Cell(SCI 23.893) 최신호(9월 14일자)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br/> <br/> 연구팀은 교모세포종(악성뇌종양의 일종) 환자 38명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관찰을 통해 최초 진단받은 암과 이 암이 재발했을 때 나타나는 유전체 돌연변이 프로파일을 비교 분석한 결과, 뇌종양 재발시 재발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 유전체 돌연변이가 변화하는 특징적인 패턴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였다. <br/> <br/> 최초의 암 발생 위치와 비슷한 곳에서 암이 재발하면, 최초의 암과 비슷한 유전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br/> <br/> 최초의 암 발생 위치와 떨어진 곳에 암이 재발하면, 최초의 암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다수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br/> <br/> 이런 결과는 재발한 뇌종양 환자에게 표적항암제 치료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재발암이 원발암과 위치가 다를 경우 반드시 재발암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만 정확한 표적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br/> <br/> 또한 뇌종양 발생과 관련이 있는 IDH1 유전자의 돌연변이 여부에 따라 「표준 항암제인 테모달(Temozolomide)」의 부작용 빈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는 유전자 돌연변이 여부에 따라 항암제 처방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br/> <br/>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뇌종양에 대한 개인별 유전체 기반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br/> 참고로, 최근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전체의 돌연변이에 의해 암이 발병하고 진화하는 것이 밝혀졌지만 암의 재발과정에서 어떠한 유전체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94.txt

제목: 국내 첫 양·한방 통합진료병원 문열어  
날짜: 20150915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3532295  
본문: 국내 최초로 양·한방이 각각 독립적인  위치에서 통합진료하는 병원이 대구에 문을 열었다. <br/> <br/>지난 10일 남구 두류공원로에 문을 연 (재)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은 만성·난치성 질환에 양의학과 한의학을 통합 적용해 치료하고 연구하는 병원이다. <br/> <br/>양방의료, 한방의료, 재생의료, 보완대체의료 등을 융합한 의료서비스로 난치성환자 치료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했다. <br/> <br/>대구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한쪽이 주가 되고 다른 쪽이 보조하는 형태의 기존 양·한방 협진과 달리 양쪽이 각각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환자를 통합진료하는 병원은 국내에서 처음이다</span>”고 설명했다.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대구한의대의료원 등 교수진이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후원으로 2009년부터 수행한 통합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방과 한방 장점을 융합한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한다. <br/> <br/>갑상선 암환자가 치료 후 식욕부진 증상을 호소하거나, 위암환자가 수술 후 장 마비로 고생할 때 침 치료로 증세를 호전시키는 방식이다. <br/> <br/>전인병원은 통합검사센터, 통합진료센터, 통합치유센터 등 센터마다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br/> <br/>특히 노인클리닉과 재활클리닉, 종양클리닉, 통증클리닉 4개 분야로 구성한  통합진료센터에는 양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한다. <br/> <br/>이달까지는 외래환자만 진료하고, 다음 달부터 130병상 규모의 입원동을 운영한다. <br/> <br/>손기철 전인병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양·한방 통합의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span class='quot1'>만성·난치성 질환자와 암환자 치료율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대구=문종규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95.txt

제목: [설왕설래] 치료견  
날짜: 20150914  
기자: 배연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3431347  
본문: 사월의 따스한 봄날, 일본 도쿄에서 특별한 추모제가 열렸다. 300여명의 추모객들은 고개를 숙인 채 ‘고인’이 베푼 사랑에 경의를 표했다. 가끔 눈시울을 적시는 이도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이날 추모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다. 한 달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치료견 ‘치로리’였다. <br/> <br/>치로리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적을 선물했다. 방에 갇혀 지내던 외톨이 소년을 세상으로 내보내고, 침대에만 누워 지내던 아흔의 할아버지를 걷게 만들었다. 전신마비 환자가 치로리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꼼지락거리는 일까지 일어났다. 일본 열도를 감동으로 적신 치로리의 비밀병기는 미소와 공감이었다. 치로리는 깊은 눈으로 상대와 눈을 맞춘다. 그러고는 실눈을 뜬 채 입꼬리를 추켜올리는 미소 작전을 편다. <br/> <br/>치로리의 삶은 훗날 책과 영화로 만들어졌지만 그의 과거는 고통과 학대로 얼룩졌다. 1992년 비 오는 날, 그는 새끼 강아지들과 함께 쓰레기장에 버려졌다. 어미 잡종견인 그의 몰골은 애완견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쪽 귀는 서고 한쪽 귀는 접히는 짝귀에다 볼품없는 ‘숏 다리’ 신세였다. 사람에게 학대를 받아 한쪽 다리를 절고 몽둥이만 보면 덜덜 떨었다. 안락사 직전에 구조된 그는 새 주인의 극진한 보살핌 덕택에 치료견으로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br/> <br/>치와와 ‘윌리’는 미국판 치로리로 통한다. 하반신이 마비된 채로 뉴욕 거리에 버려졌다. 그를 사지에서 구출한 새 주인은 작은 휠체어를 만들어주고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해맑은 웃음을 되찾은 윌리는 요즘 재활원과 요양원 등지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br/> <br/>서울시가 어제 반려견을 활용한 자원봉사자 모집에 나섰다고 한다. 반려견을 가진 시민들에게 간단한 치료교육을 한 뒤 치로리와 윌리처럼 환자의 치료를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치유 활동은 국내에선 아직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상태다. 미국에선 9·11 테러 이후 동물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희생자 유가족들을 치유하는 봉사활동이 펼쳐졌다고 한다. <br/> <br/>인간에게 학대받은 개가 인간에게 희망을 돌려주는 모습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미국의 방송작가 앤드루 루니는 “<span class='quot0'>평균적인 개는 평균적인 사람보다 훨씬 품성이 좋다</span>”고 했다. 인간의 품성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br/> <br/>배연국 논설위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96.txt

제목: 中 암으로 매년 200만명 사망, 고령화·환경오염 탓  
날짜: 20150914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3316763  
본문: 14일 중국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암 검진과 환자등록·예방 확대, 금연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암 억제 3개년 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br/> <br/>계획에는 5년 내 생존율을 늘리기 위한 조기검진 확대와 환자 등록 시스템 표준화 등이 포함돼 있다. <br/> <br/>또 암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지식습득을 전체 인구의 60%까지 확대하고 환자 등록을 인구의 30%까지 늘리기로 하며 성인인구의 흡연율을 3%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br/> <br/>중국 정부는 암 치료를 위한 비용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주요 암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보조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br/> <br/>암은 중국인들의 주요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다. 매년 200만 명이 암으로 숨지고 있고 새로운 암환자 발생은 300만 명을 넘고 있다. <br/> <br/>중국 종양등록센터의 한 관계자는 암 발병 억제는 단기간에 불가능하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이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서 주로 발병하는 암은 간암, 위암, 식도암, 경부암 등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암 외에 폐암, 유방암, 결장암 등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암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밝혔다. <br/> <br/>중국에서 암 발생은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환경오염, 불건전한 생활방식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97.txt

제목: 성큼 다가온 가을…맛·영양 고루 갖춘 제철 메뉴 인기 ↑  
날짜: 20150914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3305579  
본문: 언제 무더위가 있었냐는 듯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수확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가을은 유독 맛있는 제철 음식이 많은 계절 중에 하나다. 양식이나 하우스 재배 등으로 다양한 식재료가 1년 내내 보급되지만 특정 계절에만 얻을 수 있는 제철 재료는 맛이나 영향, 신선도 면에서 훨씬 높은 편이다. <br/> <br/> 전국 각지에서는 가을 제철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축제가 시작되는가 하면, 맛과 영향을 고루 갖춘 가을 제철 음식들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는 가을 제철 재료를 활용한 메뉴들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 ‘버섯의 으뜸’이라고 불리는 자연송이는 살아있는 소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며 그윽한 향은 물론 담백한 맛을 자랑해 가을에 꼭 먹어야 하는 제철 재료 중에 하나다. 특히 가을은 송이의 수확 시기인 만큼 자연송이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br/> <br/> 웰빙 죽 전문점 본죽에서는 자연송이를 듬뿍 넣어 원기 회복 효과가 뛰어난 가을 메뉴 ‘자연송이쇠고기죽’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자연송이는 콜레스테롤 감소, 암 세포 억제를 비롯해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은은하게 솔향이 퍼지는 자연송이와 담백한 쇠고기의 조화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 받는 메뉴다. <br/> <br/>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고구마, 5대 영양소와 비타민C가 풍부한 밤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가을 제철 재료다. 특히 달콤하고 포만감이 있어 가을철 간식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br/> <br/> 지난달 31일 파리바게뜨는 가을을 맞이해 밤·고구마·호박 등 가을 제철 재료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빵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가을 신제품은 ▲호두 스폰지와 초코 스폰지 사이에 밤 생크림과 마스카포네 생크림·밤다이스가 더해진 몽블랑 호두케이크 ▲부드러운 케익 시트와 국산 사과 과육이 상큼함을 더하는 우리 사과롤 ▲가을 단호박과 찰떡의 조합으로 달콤하고 쫀득한 단호박브레드 등 총 9종이다. <br/> <br/> 항산화 성분이 꽉 찬 가을철 석류는 풍부한 영양소가 포함된 제철음식으로 몸 속 독소배출은 물론 지방 분해 효과까지 있어 다이어트와 피부에 매우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br/> <br/> 코리안 블렌딩 티 카페 오가다에서는 9월을 맞아 제철 재료를 함유한 메뉴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중에서도 향긋한 유자와 새콤달콤한 석류가 만난 ‘석류 유자 블렌딩 티’는 붉은 노을빛을 띄며 식욕을 자극시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 메뉴다. <br/> <br/> 본죽 경영지원실 이진영 실장은 “<span class='quot0'>먹거리가 특히 많은 가을에는 신선한 제철 재료로 영양을 섭취하는 소비자들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송이, 석류 등 가을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여러 제철 재료로 건강하고 맛있는 가을 메뉴를 즐기길 바란다</span>”고 전했다. <br/> <br/>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98.txt

제목: 자생한방병원, '어혈' 임상연구 참여자 모집  
날짜: 20150914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3056228  
본문:   <br/> <br/> <br/>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만성통증과 난치성 질환의 한의학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어혈(멍)'의 객관적 진단지표와 진단기술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br/> <br/>'어혈'이란 외부의 충격 등으로 인해 혈액이나 인체 조직의 체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않고, 신체 한 부분에 정체되는 현상을 말하는 한의학 용어다. '어혈'이 발생하면 생리기능이 저하되고 조직의 회복을 억제해 치료효과를 감소시키고 후유증을 발생시킨다. <br/> <br/>또 특정부위에 '어혈'이 생기면 통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전신통증, 불임, 암 등의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 <br/> <br/>자생한방병원은 이번 임상연구를 통해 '어혈'의 진단지표와 진단방법을 마련하고, 나아가 더 나은 치료방법을 모색한다. <br/> <br/>임상연구 참여자는 외상 후 어혈이 있는 만 20세 이상~만 70세 이하의 남·여를 대상으로 한다. 총 모집인원은 70명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선착순으로 결정된다. <br/> <br/>참여자는 2주간 총 6회 이상의 방문을 통해 외상 후 어혈 및 통증에 대한 한의학 치료(한약, 침치료, 부항치료) 등을 받게 된다. <br/> <br/>이와 함께 2주간의 치료비 지원과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임상연구의 세부내용과 참여신청은 자생한방병원 대표번호로 평일(월~금)중 문의할 수 있다. <br/> <br/>한편 지난 2014년 4월 자생한방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실험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함께 '한의학, 생명공학 및 IT 융합, 어혈 진단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199.txt

제목: 암센터, '암예방 검진' 원치않을 경우 갑상선 초음파 제외  
날짜: 2015091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3040629  
본문: 국립암센터는 암예방 검진을 받는 일반인이 원치 않으면 갑상선암 초음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알렸다. <br/> <br/>14일 국립암센터는 암예방 검진을 받으러 방문한 일반인에게 이런 내용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br/>국립암센터는 암예방검진센터 명의의 안내문에서 "특별한 증상이 없고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원하지 않으면 검진 당일 안내 간호사에게 요청해 갑상선 초음파 검사와 해당 비용을 (검진비용에서) 빼준다"고 소개했다. <br/> <br/>암센터측은 목 앞쪽에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불편감이 있으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br/> <br/>이러한 국립암센터의 안내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갑상선암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과잉진단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 <br/> <br/>관련학회와 전문가들로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 제정위원회'를 구성, 작년 8월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초안)을 만들었다. <br/> <br/>관련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갑상선암을 포함해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7대 암에 대한 국가 암검진 권고안(가이드라인)을 지난 9일 내놓았다. <br/> <br/>이 권고안에서 국립암센터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성인에게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을 일상적 선별검사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br/> <br/>초음파 검사를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의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br/> <br/>다만 무증상 일반인이 갑상선암 검진을 받길 원하면 검진의 이득과 위해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나서 검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br/> <br/>갑상선암은 과다 진단의 가능성이 있고, 갑상선암으로 수술하면 드물지만 목소리 변화를 겪을 수 있으며, 부갑상선 기능저하로 칼슘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거나 수술범위에 따라 갑상선호르몬을 영구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일도 있다는 점을 검진에 따른 잠재적 위해로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br/> <br/>이와 관련해 국립암센터는 나아가 내부 논의를 거쳐 자체 시행하는 암예방검진 프로그램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항목을 아예 빼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br/> <br/>지난 2011년 우리나라에선 약 4만명의 갑상선암 환자가 생겼다. <br/> <br/>인구 10만명당 81명꼴로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이다. <br/> <br/>지난 30년간 발생률은 30배 이상 증가했다. 인구당 발생률과 연간 증가율(23.7%)은 세계 의료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현상이다. <br/> <br/>갑상선암은 한국에서 진단받는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9.9% 이상으로 거의 100%에 가깝다. 환자 중 겨우 0.1% 미만만이 갑상선암으로 숨질 뿐이다. <br/> <br/>의료계는 갑상선암에 대해 '거북이 암'으로 부른다. <br/> <br/>심지어 목에 멍울이 생긴 뒤에 진단해 치료해도, 5년 생존율이 아니라 '10년 생존율'이 95% 이상일 정도로 암치고는 대단히 천천히 진행하는 순한 암이다 . <br/> <br/>이런 결과를 낳자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이하 의사연대)는 지난해 3월 갑상선암 과다진단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긴급대책을 촉구하면서 의학적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검진 갑상선 초음파 검사 중단을 제안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00.txt

제목: “반려견과 함께 치유 봉사 활동해요”  
날짜: 20150913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2957970  
본문: 서울시가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 반려동물을 통한 치유 장려 등을 위해 동물매개 자원활동 참여자를 모집한다. <br/> <br/>서울시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반려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매개 자원활동 참여자를 100명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br/> <br/>동물매개 활동은 동물과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를 안정시키고 신체발달을 촉진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전문적인 심리·신체 치료와 달리 오락·교육·예방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교육을 받으면 활동할 수 있다. <br/> <br/>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동물매개 활동 장면. <br/>서울시 제공해외에서도 반려동물과 자원봉사에 나서는 사례가 많다.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동물 교감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히 펼쳐졌다. 현재에도 미국에서만 2000개가 넘는 팀이 활동 중이다. <br/> <br/>일본에서는 ‘치로리’의 일화가 책·영화로 널리 퍼진 뒤 동물매개 활동이 활발해지고 관련 협회들까지 생겼다. 1992년 치로리는 새끼 5마리와 함께 쓰레기장에 버려졌다. 안락사 당할 위기까지 넘긴 치로리는 이후 13년간 치료견으로 활동하며 전신마비 환자를 움직이게 하고 말을 잃은 노인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했다. 잡종이 치료견이 됐다는 비아냥도 있었지만 2006년 치로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이 모여 추모회를 열기도 했다. <br/> <br/>이번 자원활동 프로그램은 전화(715-2445)나 서울시동물매개활동 인터넷 카페(cafe.naver.com/seoulwithaaa)를 통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교육은 ▲반려견에 대한 이해 ▲동물매개활동 ▲아동 및 청소년 발달심리 등의 과정으로 총 40시간으로 구성된다. 수의사와 동물매개 활동가, 심리전문가 등이 이론·실습 교육을 맡는다. <br/> <br/>교육을 이수한 시민은 활동 가능 여부를 평가받아 올해 말까지 동물매개 자원활동을 할 수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반려견은 위생·건강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을 받게 된다. <br/> <br/>김창보 시민건강국장은 “<span class='quot0'>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반려견이 활동 중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제공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01.txt

제목: 한국야쿠르트‘특허기술’로 위까지 케어하는 국민발효유 ‘윌’  
날짜: 20150912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2723350  
본문: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위암’이다. 노년층으로 갈수록 남녀 모두에게서 발생률이 높아진다.  <br/> <br/>고령화시대를 넘어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위암’ 예방에 특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암 발생 10위권 내에 위암이 없는 서양과는 달리 동양권 특히 한국인에게서 위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도 특이할만한 부분이다. <br/> <br/> 한국야쿠르트의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은 바로 위암의 주원인이라고 주목되고 있는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이하 펠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주는 특허 유산균이 들어있는 고기능성 발효유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 기능성 발효유의 저변을 넓힌 대표적인 제품으로도 손꼽히고 있다. <br/> <br/>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은 독보적인 유산균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야쿠르트의 중앙연구소의 기술력을 집약해 선보인 기능성 발효유 대표 브랜드답게 자체 획득한 특허만 5개에 달한다. 특히 윌은 헬리코박터균에 취약한 한국인의 위를 위한 맞춤형 제품이다. <br/> <br/> 한국야쿠르트‘윌’에는 헬리코박터파일로리의 감염에 의한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의 예방과 치료의 효과가 있는 특허 유산균이 들어있다. 특허소재로 ‘면역난황’과 ‘차조기 농축액’이 첨가되었다. 윌은 임상시험 결과 위염 등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br/> <br/> 또, 윌에는 장 기능 개선, 비피더스 생장 촉진, 혈청 콜레스테롤 저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커리 식이섬유와 일반적인 식품을 통해 섭취하기 어려운 단백질, 탄수화물, 나트륨, 칼슘 등의 필수영양소가 들어 있다. 이 외에도 매실엑기스와 배과즙을 첨가해 기존 드링크발효유의 텁텁함을 해소하고 상큼한 맛을 보강했으며 단백질과 탄수화물, 나트륨, 칼슘 등 필수 영양소가 들어 있다. <br/> <br/> 한국야쿠르트윌은 2000년 당시 출시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30만 병 이상이 팔려 업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듬해 언론매체에서 선정하는 히트상품에 다수 선정되기도 하였다. <br/> <br/> 이정렬 한국야쿠르트 마케팅이사는 “<span class='quot0'>지난 15년간 윌에 보여준 소비자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한다</span>” 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한국야쿠르트는 세계 수준의 프로바이오틱스유산군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사랑 받는 보다 건강한 제품을 선보이겠다</span>”고 말했다. <br/>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02.txt

제목: 軍 기밀문건 인터넷 유출, 유포 경위 파악 안돼  
날짜: 20150912  
기자: 박수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2643650  
본문:   <br/> <br/> <br/>암호화된 군 내부문서가 인터넷에 공개됐지만 군은 유출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지난달 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원전반대그룹 '후엠아이'(Who Am I)가 군 관련 문서 3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br/> <br/>그는 "제한된 승인권자만 볼 수 있는 국방부 정보본부 문서가 포함돼 해킹 혹은 내부 유출의혹이 제기되지만 군은 유출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r/> <br/>안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국방부 해외정보부 소속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무관부에서 작성한 문서다. 문서를 암호화하여 외교통신망을 통해 국방부로 전달된다. 이를 다시 국방부 암호실에서 해독해 통합해외정보관리체계에 올리면 제한된 승인권자들에 한해 자료가 공개된다. <br/> <br/>안 의원은 "정보본부 암호실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출되었거나, 제한된 승인권자들에게 보고되는 과정에서 유출됐거나, 해킹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br/> <br/>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03.txt

제목: 아일랜드서 '등에 가슴 달린 여자' 발견  
날짜: 20150912  
기자: 박수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2626698  
본문:   <br/> <br/> <br/>아일랜드 더블린에 사는 한 40대 여성 환자를 맞은 병원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등 오른쪽에 큰 가슴 한쪽이 달려있었기 때문이다. <br/> <br/>그것은 길이 19㎝에 지름 6.7㎝에 달하는 크기였으며 단단했다. <br/> <br/>1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46세의 이 여성은 등에서 가슴이 자란지 10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br/> <br/>정밀 진단에 나선 의료진은 “가슴이 아니라 종양”이라며  “<span class='quot0'>‘지방종’이라고 알려진 양성 종양으로 지방세포로 구성돼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툰드 압둘살람 박사는 “<span class='quot1'>내가 본 지방종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span>”라며 “<span class='quot1'>대부분의 환자들은 지방종이 자라나면 제거 수술을 받는데, 이 여성은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뒀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1'>지방종은 대체로 크기가 작으며 신체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환자들도 있다</span>”고 덧붙였다. <br/> <br/>그러나 이 여성의 경우 크기가 커 암이 의심돼 의료진들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과 조직검사를 실시했다. 다행히 암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 여성은 수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할 예정이다.  <br/> <br/>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04.txt

제목: 서울성모병원, 만성콩팥병 공개강좌 개최  
날짜: 2015091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2421371  
본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성콩팥병 공개강좌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br/> <br/>이번 강좌는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와 영양팀이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br/> <br/>강좌는 '만성콩팥병에는 어떤 합병증이 동반되나요? 고혈압, 빈혈, 골질환'(신장내과 최범순 교수)과 '저인, 저칼륨, 저콜레스테롤 식이'(김희영 영양사)로 구성되며, 해당 강좌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br/> <br/>한편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말기 만성콩팥병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암환자 평균 생존율보다 낮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05.txt

제목: '20cm 크기' 종양을 등에…英 여성의 끔찍했던 10년  
날짜: 20150911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2249043  
본문:   <br/> <br/> <br/>약 20cm 크기 종양을 등에 달고 10년이나 산 영국인 여성이 화제다. 이 여성은 제거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br/> <br/>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메트로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잉글랜드 더블린에 사는 46세 여성이 최근 병원을 찾아왔다. <br/> <br/>여성은 등에 난 종양이 커져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등을 본 의료진은 깜짝 놀랐다. 종양이 예상외로 컸기 때문이다. 여성의 등에 난 종양은 길이 19cm, 폭 6.7cm로 측정됐다. <br/> <br/>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여성은 “지난 10년간 종양이 등에 달려 있었다”며 “최근 3년 사이에 갑자기 커졌다”고 말했다. <br/> <br/>촉감, 크기 그리고 급격히 커진 시점 등을 토대로 '육종(sarcoma)'이라 생각한 의료진은 급히 MRI 촬영을 진행했다. 그런데 사진 속 종양에는 지방질이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끝에 의료진은 이를 '지방종(lipoma)'으로 판단했다. <br/> <br/>더블린에서 종양을 연구하는 툰디 압둘살람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렇게 큰 지방종은 처음 본다</span>”며 “<span class='quot0'>대부분 지방종 환자들은 미용을 이유로 초기에 다 제거한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경험상 지방종은 대체로 작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아프지 않은 탓에 환자들이 내버려두는 것도 사실이다</span>”라고 덧붙였다. <br/> <br/>그러면서 “BMI(신체질량지수)가 커질수록 지방종이 자라는 경우가 있다”며 “급격히 커졌다는 말에 암을 의심, MRI 촬영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br/>여성은 현재 지방종 제거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사례는 지난주 영국 의학 저널(British Medical Journal)에도 실렸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메트로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06.txt

제목: 문정림,국민 4명 중 1명 심뇌혈관으로 삶 마감  
날짜: 20150911  
기자: 황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2249630  
본문: 심뇌혈관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25%로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암보다 각각 3.5배, 1.4배 높은 것으로 드러나 심뇌혈관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근거법 마련 등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br/> <br/>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통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등)으로 사망한 인원은 약 66만 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약 250만 명의 약 1/4에 이르고, 2013년의 경우 암에 이어 사망률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사망자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심뇌혈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2004년 약 6만 8천 명에서 2013년 약 6만 6천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심장질환의 경우, 2004년 1만 7천여 명에서 2013년 2만 5천여 명으로 약 42.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r/> <br/>또 2013년 질병별 사망률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약 2.1배 높았으며, 뇌혈관질환의 경우 여자가, 심장질환의 경우 남자가 각각 약 1.1배 정도 높았다. 당뇨병 사망률의 경우 남녀가 비슷하다. <br/> <br/>같은 해 질병별 사망률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개 질환(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모두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4개 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r/> <br/>지난 10년간 국민건강보험 진료인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사망률 1위인 암보다 많았다. <br/> <br/>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644만 7천명에서 2013년 1천23만명으로 58.7%가 증가하여 건강보험 전체 진료실인원의 2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진료실 인원보다 3.5배 많은 수치다. <br/> <br/>진료비의 경우 2004년 1조 4천930억원에서 2013년 6조 9천150억원이 지출(363.2% 증가) 돼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으로 인한 진료비보다 1.4배 많은 수이다. <br/> <br/>이러한 심뇌혈관질환의 증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치료 비와 관리에 따른 간병비, 교통비, 시간비용 등 간접비용 발생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br/> <br/>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심뇌혈관질환의 경제적 질병부담 측정 연구’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3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 보호는 물론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br/> <br/>문 의원은 “<span class='quot0'>심뇌혈관질환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25년까지 사망률을 25%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흡연, 음주, 불건강한 식이, 운동 부족 등 9가지 주요 주제를 선정하고, 만성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회원국을 지원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노령화 및 평균수명의 증가, 식습관 서구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심뇌혈관질환 문제를 더욱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br/> <br/>문 의원은 “<span class='quot0'>심뇌혈관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식품의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식품위생법’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 <br/> <br/>이어 “정확한 근거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과 예방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과 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확립해야 한다”며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r/> <br/>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07.txt

제목: 우리나라 감염률 높은 위암의 1등급 발암 요인 헬리코박터균  
날짜: 20150910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1949201  
본문: 위벽에 파고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이미지 인용) <br/>한 조사에 따르면 헬리코박터균은 우리나라에 비교적 높은 빈도로 분포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20%, 중년층의 70%, 노년층의 90%가 감염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는 위 점막에 기생하는 나선균으로 환자에서 분리된 균주마다 서로 다른 유전체 구조를 가진 특이한 세균집단이다. <br/> <br/> 1994년 2월 미국의 한 회의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이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과 같은 소화성 궤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제균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후 헬리코박터균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br/> <br/> 헬리코박터균은 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된다. 헬리코박터균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감염되는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변이나 타액, 구토물 등을 통한 분변-경구 감염, 경구-경구 감염, 위-경구 감염이 주된 경로로 알려져 있다. 성적접촉에 의한 감염은 없으며 주로 많은 사람이 집단생활을 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집단일수록 감염률이 높다. <br/> <br/> 또한 헬리코박터균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감염이 많으며 특히 어린이의 감염은 주로 이미 감염된 어른에게서 전염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에는 술잔을 돌리는 습관을 비롯하여 여러 명이 수저를 이용하여 한 그릇의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고 어른이 음식을 씹어서 아기의 입에 넣어주는 일도 있어 헬리코박터균의 감염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br/> <br/> 헬리코박터균의 감염률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저개발국에서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균에 감염되고 나면 균주의 다양성과 감염된 사람들의 감수성에 따라 다양한 상부 위장관 병변이 발생한다. <br/> <br/> 헬리코박터균이 일으키는 위장관 질병에는 급성 위염, 만성 활동성 위염, 만성 위축성 위염, 비궤양성 소화 불량증,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위선암, 임파종이 대표적이다. 특히 십이지장궤양 환자의 90%이상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으며, 이 세균을 제거하면 궤양의 재발률은 감소한다. <br/> <br/> 또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을 인간에 대한 1등급 발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균과 위암과의 연관성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며, 특정한 헬리코박터균만이 질병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br/> <br/>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박재현 과장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으면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이 있는 경우나 변연부 B세포 림프종을 앓는 경우라면 헬리코박터균을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또한 위염이 심하거나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 특히 궤양이 동반된 경우에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고 위장약을 복용하면서 궤양을 치료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헬리코박터균에 대해 제균 치료를 하지 않은 십이지장궤양은 그 재발률이 60~100%에 달하며, 헬리코박터균이 성공적으로 제균 된 경우에는 5% 이내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r/> <br/>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의 발병 인자로 인식되면서 위암 치료전후로 위암 재발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헬리코박터균 치료가 법정 비급여 치료로 인정되었다. 또한 조기 위암을 진단 받은 환자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다면 암에 대한 치료 전, 또는 후에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다. <br/> <br/>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08.txt

제목: 소화기 정기 검진 나중으로 미루다가 낭패 본다  
날짜: 20150910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1944705  
본문: 46세의 회사원 김씨는 구토 증상이 있어 도통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며 내원하였다. 구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암 중에서도 분화가 잘 되지 않은 미만형 위암으로 진단되었다. 김씨는 슬하에 13살 난 아들과 10살 난 딸을 둔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br/> <br/> ◆건강검진을 미루다 <br/>김씨는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지만 차일피일미루기만 하고 받지 않았다. 별 증상이 없기도 하고 업무가 바쁘기도 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시간 날 때 맞춰 건강검진을 받는 방법도 있었지만 아이들 교육비가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자 건강검진은 더욱 나중일이 되었다.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려니 하고 참기만 할 뿐이었다.  <br/> <br/>그러다 더는 참을 수 없는 ‘때’라는 것이 찾아오고야 말았다.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쓰리고, 간헐적으로 배가 아픈 증상이 반복되다가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구토증상까지 보인 것이다. <br/> <br/> <br/>◆뒤늦은 검사에서 드러난 ‘위암’ <br/>구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먼저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보니,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통하는 부위를 종괴가 거의 막고 있었다. 그래서 음식물이 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구토를 거듭하게 했던 것이다.  <br/> <br/>다음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조직검사에서 위암 중에서도 분화가 잘 되지 않은 ‘미만형 위암’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병기 설정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였다.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과 양성자 방출 단층촬영은 왜 배가 나오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해주었다. <br/> <br/> 위암이 배안의 장기와 복벽 사이의 공간에 이미 전이되었던 것이다. 위암세포는 복벽과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막인 복막에서 자라나고 있었고, 그곳에서 암세포들은 액체성 물질들을 분비했다. 그렇게 복수가 형성된 것이다. <br/> <br/> ◆항암치료 4개월, 그 후 <br/>복수가 복강 안에 가득했던 김씨의 병명은 진행성 위암4기, 다시 말해 ‘복막으로 전이가 된 위암’으로 진단되었다. 위암 4기에서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의 생존기간은 5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위암은 항암치료에 덕을 볼 수 있는 암이 아니었다.  <br/> <br/>김씨 부부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내용을 전했고, 김씨 부부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span class='quot0'>제 몸이 그렇게 안 좋은지도 모르고, 소화제만 먹었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아요.</span>” 김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br/> <br/> ◆위암 완치의 길은 ‘조기 발견’ <br/>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남미의 여러 국가와 더불어 위암 호발국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히 치료될 수 있도록 2년마다 40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장조영촬영술 또는 위내시경을 시행하고 있다. 위장조영촬영술이란 X-선을 이용한 검사이다.  <br/> <br/>환자에게 X-선에 투과되지 않는 조영제를 먹게 한 후, 위를 여러 각도에서 X-선 촬영을 하면 위벽 내부의 굴곡을 알 수 있다. 이때 정상 굴곡과 상이한 경우 위암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엔 위내시경을 해서 병변을 확인해야 한다. <br/> <br/> 위내시경은 내시경기계의 선단에 소형 카메라가 달려있어, 육안으로 위점막을 관찰가능하게 한다. 그런 만큼 위내시경 검사는 위장조영촬영술보다 정확도가 높다. 또한, 위점막의 굴곡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조기위암, 위선종의 진단도 가능하게 한다. <br/> <br/>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박재현 과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40세 이후부터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나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위암을 초기에 발견했을 때의 장점은 단순히 생존율이 증가된다는 것뿐 아니라, 내시경적인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어서, 위를 잘라낸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br/> <br/>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09.txt

제목: GE헬스케어,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혁신 장비 및 솔루션 소개  
날짜: 20150910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1939169  
본문: GE헬스케어의 MR 시그나 파이오GE헬스케어는 9월 9일(수)부터 12일(토)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 71회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orean Congress of Radiology, KCR 2015)’에 참여해 진단영상분야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의료 솔루션 및 의료기기를 대거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br/> <br/> 먼저, KCR 2015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시그나 파이오니어(Signa Pioneer)’ (사진) (국내 허가 취득 전 제품)는 70 cm의 와이드보어 3.0 테슬라 및 97 채널의 RF 리시버를 제공할 수 있는 MRI로 현대 영상의학의 발전을 구현하고 있다.  <br/> <br/>특히, ‘매직(MAGiC, Magnetic Resonance Image Compilation’)이라는 생산성 향상 기능을 탑재해 한번의 검사로 6가지 이상의 영상 획득이 가능해지고, MRI의 소음을 일상대화 의 소음수준으로 낮춘 GE만의 독보적 기술 ‘사일런트 스캔’ 기술이 포함되는 등 MRI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시그나 파이오니어는 이번 KCR에서 실물모형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br/> <br/> ◆임상연구향상에 도움이 되는 ‘매직’ 기술 탑재, MR 시그나 파이 <br/>매직 기술 탑재로 의료진들은 한번의 MRI 검사로 6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게 되었다. 또한 스캔이 끝난 후에도 매직 인터페이스 상에서 커서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검사자가 원하는 다양한 대조도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매직 기술은 한번의 스캔으로 많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여러 방식으로 프로세싱이 가능한 업계 최초의 기술이다. <br/> <br/> 검사 시간 역시 기존 검사 대비 3분의 1로 줄어들어 의료진들이 보다 많은 환자들을 검사하게 되어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동시에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도 검사 기회가 늘어나 정확한 검진을 통한 질환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건강검진센터와 같이 워크플로우 개선이 중요한 의료환경에서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br/> <br/>또한 제로(Zero) TE 이미징 기술로 예전 기능으로는 MR로 보기 어려웠던 피질골, 인대, 힘줄 등도 고해상도 이미지 획득이 가능해 졌으며, 두부 혈관 내 시술 후 MR에서 추적 검사가 가능해졌다. <br/> <br/>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최승홍 교수는 “<span class='quot0'>매직을 이용하면 해부학적 이미징을 얻는 시간 내에 정량적인 정보를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span>”고 밝히고, “<span class='quot0'>스캔 시간이 줄어드는 강점은 소아 환자들에게도 확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 및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br/> <br/> ◆현존하는 모든 CT 기술이 집약된 레볼루션 CT 및 레볼루션 에보 솔루션 <br/>MR의 신기술 소개와 함께 ‘레볼루션 CT(Revolution CT)’는 고해상의 영상 이미지 제공, 빠른 촬영 속도, 넓은 촬영 범위 등 하나의 장비에 현존하는 모든 혁신 CT기술이 집약되었다. 빠른 회전 속도의 스캐너를 통해 심장과 같이 빨리 움직이는 장기에도 정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며, 촬영 범위가 16cm로 기존 CT 대비 4배 가량 확대되어 여러 차례 촬영이 필요했던 넓은 부위도 한번에 전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와 같이 신속한 촬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방사선 피폭도 줄일 수 있다. 레볼루션 CT는 올해 안에 국내 도입 예정이다. <br/> <br/> 레볼루션 시리즈의 하나인 ‘레볼루션 에보(Revolution EVO)’ 도 이번 KCR에서 새롭게 선보인다. 레볼루션 에보는 레볼루션 CT의 기술력(Clarity Detector)을 적용해 0.28mm의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br/> <br/>또한, GE의 차세대 모델기반 반복적 재구성(Model-Based Iterative Reconstruction) 기술인 에이서-브이(ASiR-V)를 탑재해 빠른 속도와 낮은 선량, 높은 해상도를 모두 충족한다. 에이서-브이는 선량을 최대 82%까지 감소시켜 소아환자 검사, 종양학 연구, 만성질환의 추적검사 등에 특히 이상적인 저선량 솔루션이다. <br/> <br/> 한편, GE헬스케어가 선보이는 초음파기기 ‘로직 E9(Logiq E9)’은 초음파 탐촉자(Probe) 기술 ‘XD 클리어’를 탑재해 영상의 퀄리티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초음파 발생시 생성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있고, 기존보다 넓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XD클리어는 전반적인 영상의 해상도 및 투과도를 크게 향상시켜 진단이 어려운 과체중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가능케 한다. <br/> <br/> ◆ 유방전문 초음파 중 치밀유방 검사용으로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은 ‘인비니아 ABUS’ <br/>유방 전문 초음파기기 중 유일하게 진단과 검진 두 가지 항목에 대한 FDA 승인을 받은 자동유방초음파 ‘인비니아 ABUS(Invenia ABUS)’도 의료진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 유방형태에 맞게 고안된 오목한 형태의 탐촉자 디자인으로 영상의 퀄리티 향상과 피검자의 고통을 감소 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검사의 정확도와 편리성을 증대시킨다. 최근 전세계 영상의학 분야의 최고 학술지인 'Radiology'지에서는 유방촬영술과 더불어 ABUS를 통한 검사를 병행 할 시 치밀유방을 지닌 여성에게서 이상조직(암 조직 등)을 발견할 확률을 평균 27%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현재 GE는 3D 맘모 촬영 장비 및 ABUS 제품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치밀유방 등 다양한 유방조직을 지닌 여성 모두에게 최적화 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br/> <br/> GE헬스케어 코리아의 시아 무사비(Sia Moussavi) 대표이사 사장은, “<span class='quot1'>10여년전부터 전세계 의료인들에게 개방되어 국제적 행사로 자리매김한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span>”고 소감을 밝히고, “<span class='quot1'>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영상의학은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GE헬스케어는 의료진들의 연구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의료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span>”고 말했다. <br/> <br/> GE헬스케어의 전시부스는 삼성동 코엑스 Hall B2, G-02에 마련되어 있다. <br/> <br/> 이 밖에도 GE헬스케어는 이번 KCR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11일 개최되는 ‘GE 런천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최승홍 교수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MAGiC 시퀀스의 임상경험’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다. <br/>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10.txt

제목: 양배추로 속을 편하고.. 위장병에 탁월한 효과  
날짜: 20150909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1648504  
본문: 맵고 짜게 먹는 한국인들 중에는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강렬한 맛의 유혹에 이끌려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이 위장 건강을 해친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입안이 즐거울 때 우리의 위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br/> <br/>이제 위장건강을 해치는 자극적인 음식을 내려놓고 양배추를 가지고 우리의 불편한 속을 편안하게 해보도록 하자. <br/> <br/>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 양배추 <br/>공 같이 동글동글한 생김새와 연한 녹색을 띄는 양배추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즐겨먹었던 역사가 오래된 식품이다. 흔하지만 다양한 효능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으며 요거트, 올리브와 함께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 식품’ 중 하나이다.  <br/> <br/>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양배추는 인간을 밝고 원기 있게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채소’라고 칭송했다. <br/> <br/> 양배추를 익히지 않고 섭취하면 특유의 비릿한 맛이 느껴진다. 이는 양배추의 강한 알칼리성 때문인데 신 맛이 나는 레몬, 오렌지, 사과 등과 같이 먹으면 냄새를 잡을 수 있다. 또한 양배추 중심의 딱딱한 심 부분은 먹기 불편하고 식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심 부분은 섬유질의 보고이다. 다른 채소와 함께 갈거나 쪄서 섭취하면 손쉽게 먹을 수 있다. <br/> <br/> ◆다양한 영양소의 보고 <br/>양배추의 성분은 수분이 90%이상이다. 수분을 제외하면 탄수화물, 칼슘, 인, 비타민 C, D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밖에도 양배추에는 필수아미노산인 라이신과 우유에 버금가는 칼슘이 풍부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발육에도 도움이 된다. <br/> <br/>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김지연 과장은 “양배추는 항산화, 항노화 효과를 가져다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 양배추를 매일 섭취할 경우 암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방암, 위암, 대장암, 직장암, 폐암 등을 예방하는데 탁월하며 위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균 억제 효능이 뛰어나 위암 저하에 효과를 발휘한다. 성인병의 주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며 여드름 억제 등의 효과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칼로리도 낮아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들에게도 각광받고 있는 채소이다.”고 말했다. <br/> <br/> ◆위장병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양배추 <br/>1940년 미국 스탄호트 대학 의학부의 가네트 체니 박사는 ‘신선한 양배추는 자연적인 항궤양 식품’이라는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그의 실험에서 위궤양이 생긴 실험동물에게 양배추 즙을 한 방울씩 주었더니 병이 완치되었다. 이 실험으로 인해 양배추의 위장병 치료 효과는 널리 알려졌으며 지금도 쓰린 속을 달래기 위해 양배추 즙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br/> <br/> 양배추에는 항궤양성 비타민인 비타민 U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비타민 K, 단백질이 비타민 U와 결합해 위 점막의 재생력을 증가시킨다. 속쓰림과 위장병이 많은 한국 사람에게 양배추만한 재료가 없다는 것이다. <br/> <br/>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11.txt

제목: 물건처럼 팔렸던 중국 여성, "친엄마 보고 싶어요"  
날짜: 20150909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1635151  
본문: 5살 때부터 무려 8번이나 인신매매를 당한 중국 여성이 친엄마를 만나고 싶다며 현지 언론과 인터뷰했다. <br/> <br/>최근 중국 인민일보와 차이나데일리는 ‘퉁양시(童??·민며느리)제도’를 시작으로 무려 8번이나 인신매매를 당한 중국 산둥성에 사는 진 핑(金 萍·25)의 기구한 사연과 함께 그녀는 생모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br/> <br/>진 핑은 "여름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고 어머니는 나를 목욕시킨 후 새로 산 핑크색 스커트와 샌들을 신키고는 시집가는 거라고 말했다"며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다. <br/> <br/>진 핑은 5살 어린 나이에 민며느리가 됐지만 "새 부모님은 자신을 소중히 대했고 그에 마음을 열어 갔다"고 말했다. <br/> <br/>진 핑의 기구한 운명은 새엄마가 암으로 사망한 후에도 계속된다. 계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매일 나무를 주우러 산에 올랐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밥을 많이 먹는다고 계모는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기 일쑤였다. 그때 생긴 상처로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 정도다.  <br/> <br/>계모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민며느리로 들어간 지 약 1년 만에 "곡예단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친엄마를 찾아준다"고 속여 그녀를 단돈 500위안(약 9만 3000원)에 그녀를 팔아넘겼다. <br/> <br/>곡예단에 팔렸을 때도 진 핑에겐 시련이 끊이지 않았다. 곡예단 안주인 그녀를 미워해 적은 음식을 주며 "밥을 많이 먹는다"고 그녀를 학대했고 그녀는 또 다른 사람에게 팔리길 반복하며 학대와 멸시를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br/> <br/>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낸 진 핑은 지난 2009년 19살이 되던 해 중국 신장으로 넘어가 일자리를 찾았고 2013년에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 두 딸을 낳았다. <br/> <br/>그녀는 "자신을 낳은 어머니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며 "분명 어머니도 나를 팔았을 때(민며느리로 보냈을 때) 힘들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br/> <br/>이어 "어머니가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라며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br/>현재 진 핑은 현지 자원봉사단체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찾고 있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와 비슷한 얼굴형으로 큰 키에 얼굴에 흉터가 많다'고 한다. <br/> <br/>그녀의 친어머니는 진 핑이 민며느리가 된 당시 두 번 찾아왔지만 그 후론 소식이 끊겼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차이나데일리, 인민일보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12.txt

제목: 순천향대서울병원, 제1회 학제간 협업진료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5090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1236536  
본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원장 서유성)은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신관1층 청원홀에서 제1회 학제간 협업진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br/> <br/>학제간 협업진료 위원회(위원장 소화기내과 조영덕)가 주축으로 마련한 이번 심포지엄은 병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학제 진료의 방법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br/> <br/>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유방외과와 신경외과 등 내·외과 진료부서가 다학제 진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br/> <br/>1부에서는 암에 대한 학제간 협업진료를 다루고 2부에서는 암 이외에 학제간 협업진료를 발표한다. <br/> <br/>암에 대한 학제간 협업진료를 다루게 될 1부에서는 ▲간암에서 다학제 진료의 효과(소화기내과 정승원) ▲대장직작암 환자의 협업진료 초기경험(외과 조성우) ▲악성뇌종양의 다학제 진료의 필요성(신경외과 조성진) ▲유방센터의 다학제 진료현황과 전망(외과 유방센터 이지현) 등을 발표한다. <br/> <br/>암 이외에 학제간 협업진료를 다루게 될 2부에서는 ▲척추감염 다학제 진료 경험(감염내과 김태형) ▲당뇨발 다학제 진료현황 및 개선방안(정형외과 천동일) ▲양성질환에서의 다학제, 필요한가?(호흡기알레르기내과 혈전클리닉 김양기) ▲류마티스 질환-전신경화증 폐섬유화 클리닉(류마티스내과 김현숙) 등의 연제가 이어진다. <br/> <br/>끝으로 국립암센터 소화기내과 이우진 교수가 국립암센터의 다학제 진료 경험 및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br/> <br/>조영덕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학제간 협업진료 추진위원장은 "오늘날의 치료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내시경, 항암치료 등 어느 한 분야가 중심이 아니라 모든 의료진의 노력을 통합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며 "다학제 진료료의 정착을 위한 첫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성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13.txt

제목: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 '여성건강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개최  
날짜: 2015090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1208765  
본문:   <br/> <br/> <br/>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가 '우리나라 여성건강 현황과 과제(CURRENT ISSUES AND FUTURE PERSPECTIVES IN WOMEN’S HEALTH)'를 주제로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아산병원 서관 3층 강당에서 제 4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br/> <br/>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여자의사들의 모임으로 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협조로 학술적 역량을 강화하며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br/> <br/>특히 2012년부터 매년 함춘여자의사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연구 업적과 지식을 교류하고, 사회의학적인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왔다. 아울러 여성과 남성의 의학적 차이를 연구하는 성차의학(Gender Medicine)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함춘여자의사회 동문들의 업적과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br/> <br/>올해로 네 번째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주제를 '우리나라 여성건강 현황과 과제'로 정하고 성차의학의 각 분야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심혈관 질환과 암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질병 발생 차이, 보건 의료의 입장에서 본 여성건강의 현황과 과제, 여성성과 리더십을 연제로 주제발표가 마련되었다. <br/> <br/>또한 초대강의 시간을 마련하여 '선순환적 연구 전략과 사례'에 관한 특강을 통해 동문들의 연구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동문들의 활약상을 공유하는 함춘 Scholar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br/> <br/>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분당제생병원)은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 학술대회는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의 업적을 알리는 기회와 함께, 선·후배간의 교제 속에서 학문적 영감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분야와 전공을 넘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여성건강과 성차의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견지하고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14.txt

제목: 쥬얼리성형외과, 사랑의 헌혈 프로젝트 실천  
날짜: 2015090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0903964  
본문:   <br/> <br/> <br/>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쥬얼리성형외과가 지난달 26일 병원 앞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의료진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참여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br/> <br/>쥬얼리성형외과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사랑의 헌혈 프로젝트는 메르스 확산으로 헌혈인구가 급감해 혈액부족에 따른 국민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br/> <br/>'헌혈'은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염검사 외 5종의 혈액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br/> <br/>또한 헌혈 후에는 조혈작용이 활발해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줄어들고 암 등의 발병 원인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하지만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여파로 나타난 헌혈 기피 현상으로 혈액수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 <br/> <br/>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메르스 여파로 대한적십자는 물론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도 혈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헌혈이 절실한 시기다. <br/> <br/>쥬얼리성형외과 관계자는 "각종 문제로 인해 혈액수급의 어려운 요즘, 혈액이 필요한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참여하게 됐다"며 "쥬얼리의 경영 이념인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추구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br/> <br/>한편 쥬얼리성형외과는 대한적십자와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후원은 물론 국내외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한 '쥬얼리 행복Plus+'를 진행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15.txt

제목: 이대의료원, 여성건강백서 '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 발간  
날짜: 20150907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0826053  
본문:   <br/> <br/> <br/>여성 건강을 선도해 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김승철)은 여성건강백서 '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br/> <br/> 이번에 발간한 '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는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의 삶의 질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춰 중년 이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가꿔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자랑하는 각 분야 전문의 21명이 공동 집필에 참여,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조언을 담았다. <br/> <br/>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지만, 임신과 출산, 육아 등 생애 주기에 걸쳐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우울감, 화병 등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 받는 등 노년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 이 책에서는 이러한 여성 건강의 특성을 고려해 여성 4대 암부터 골반장기 탈출증이나 폐경, 화병 같은 여성들만의 질환,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와 섹스에 관한 실생활에 밀접한 문제와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노안과 백내장, 관절염, 치매, 수면건강, 임플란트 등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br/> <br/>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는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담았다"며 "이 책이 믿을 수 있는 여성 전문 건강 도서로, 여성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든든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16.txt

제목: [사설] 노동개혁 절박성 확인해준 금호타이어 파업  
날짜: 201509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0614090  
본문: 금호타이어 사태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파업에 맞서 어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매출 손실이 급증하고 회사의 신용도가 추락해 직장폐쇄가 불가피했다”면서 “노조가 파업 철회 의사를 표명하면 폐쇄조치를 당연히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빌미로 임금 8.3% 인상, 지난해 경영성과금 배분 등을 요구하며 22일째 전면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br/> <br/>회사의 경영사정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 감소해 비상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 매출은 작년보다 12.3% 줄고 영업이익은 50%나 급감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역시 6.4%로 뚝 떨어졌다. 경영 성적은 타이어 3사 중에서 꼴찌이지만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가장 많다. 경쟁 업체인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노조는 온갖 이유를 내세워 반대한다. 귀족노조의 ‘제 배 불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br/> <br/>노조는 그동안 파업을 밥 먹듯 했다. 지난해 12월23일 회사가 5년 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하자 그 다음 날부터 머리띠를 둘렀던 노조다. 노조는 당시 “워크아웃 기간 중에 감소한 임금을 보전해 달라”며 파업을 시작해 25.6%의 인금 인상을 챙겼다. 심지어 워크아웃 기간 중에도 9번이나 파업을 벌인 노조이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노조의 파업병은 갈수록 중증이다. 올 들어 벌인 파업만도 벌써 세 번이나 된다. 이번 최장기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매출 손실은 벌써 1000억원을 넘어섰다. 협력사와 지역경제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제 잇속 챙기기라지만 이럴 수는 없다. 이러고도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다. <br/> <br/>귀족노조의 이기주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절박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후진적 노동문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암적 존재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여실히 입증된 사실이다. 한국은 전체 평가에서 61개국 중 25위를 차지했지만 유독 노사관계 부문에서만 57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요원하다. 그 확실한 증거를 금호타이어 노조가 생생히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17.txt

제목: '식사하셨어요' 홍진경, 암투병으로 빠진 머리 고백 '재조명'..힐링프로그램 등극  
날짜: 20150906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0424600  
본문: '식사하셨어요'에서 홍진영과 김규리가 출연,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과거 '식사하셨어요'의 게스트 홍진경이 암투병을 고백해 재조명되고 있다. <br/> <br/>과거 ‘잘먹고 잘사는법-식사하셨어요’에 이영자와 절친인 홍진경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홍진경은 최근 암 치료에 따른 삭발로 가발은 쓰지 않고 검은색 비니모자를 썼다. <br/> <br/>홍진경은 이영자가 “총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끄럽거나 그렇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죄지은 게 아니라 치료받으며 빠진 건데 어쩔 수 없지 않나. 예전에는 눈썹도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났다”고 말했다. 홍진경은 또 “패션 쪽 일 하느라 삭발한 적도 많다. 그래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br/> <br/>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식사하셨어요, 멋지다 홍진경", "식사하셨어요, 완전 힐링프로그램인데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난 왜 모르고 있었지?", "식사하셨어요, 역대급 힐링 프로그램"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18.txt

제목: 풍성한 야채와 해산물… 피자도 이젠 건강식  
날짜: 20150904  
기자: 김기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5817187  
본문: 피자(Pizza)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다. 지중해와 중동의 주식이었던 피타(Pitta)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피타는 ‘동그랗고 납작한 빵’을 이른다. 피자는 20세기 초 미국을 거쳐 세계로 퍼져나갔다. 미국 최초의 피자 전문점 ‘룸바르디’가 1905년 뉴욕에서 문을 열었고, 1958년 피자헛이 선을 보였다. <br/> <br/>우리나라에 피자 전문점이 생긴 때는 1970년대 초반이다. 당시 비싼 가격 때문에 ‘금테 두른’ 고급음식으로 여겨져 대중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다. 자장면 1그릇이 500원인 시절 피자 1판은 1만원까지 갔다고 한다. 그러다 서울 압구정동에 ‘피자인’, 이태원에 ‘피자헛’이 1985년 동시에 체인점을 열면서 본격 보급됐다.  <br/> <br/>◆항산화 물질 풍부한 피자 만들기 <br/> <br/>몇해 전 미국 메릴랜드대학의 연구진은 통밀 반죽으로 만든 피자를 고온에서 오랜 시간 구워낸 결과 건강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항산화 물질은 세포 변이를 줄이고, 암과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연구팀이 공개한 건강식 ‘항산화 피자’ 조리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제되지 않은 통밀로 빚은 피자 반죽을 이틀간 발효시킨다.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통상 하루 동안 발효하는 피자를 이틀로 늘리자 항산화 물질은 2배 이상 늘었다. 반죽을 굽는 시간도 늘리고, 온도도 높이자 항산화 물질은 각각 60%, 82% 이상 증가했다. 연구진은 204∼287도의 고온에서 7∼14분 조심스럽게 구우면 타지 않으면서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피자를 완성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br/> <br/>연구팀은 “아무리 몸에 좋은 통밀 피자라도 치즈, 페페로니, 햄과 같은 고지방 토핑을 잔뜩 얹어 먹으면 건강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콜라와 함께 먹는 게 비만의 주범”이라고 경고했다. <br/> <br/>◆피자 건강식으로 거듭난다 <br/> <br/>피자가 정크푸드라는 주장에 대해 업계는 억울해한다. 도우 위에 몸에 좋은 각종 토핑을 풍성하게 올려 건강도 고려했다고 하소연한다. <br/> <br/>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야채와 해산물 등 몸에 좋은 성분을 고루 토핑으로 올려 칼로리가 높은 콜라나 기름에 튀긴 메뉴를 같이 먹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없다</span>”고 주장했다. <br/> <br/>피자 매장에 준비된 샐러드바를 함께 이용하면 건강식이 배가 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br/> <br/>최근 업계는 ‘건강식 피자’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br/> <br/>피자헛은 피자 1판에 2가지 도우를 결합하고, 여러 토핑을 올린 ‘4(사)가지 있는 피자’를 출시했다. ‘리치골드’와 ‘크라운 포켓’의 2가지 고급 도우 위에 ‘치즈킹’, 통베이컨 스테이크, 베이컨 포테이토, 페퍼로니 등 4가지 인기 토핑을 얹은 상품이다. <br/> <br/>조윤상 한국 피자헛 마케팅팀 이사는 “<span class='quot1'>4가지 다양한 맛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제품 특징에 착안해 사가지 있는 피자라는 재미있는 이름으로 선보이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1'>피자헛에서 가장 사랑받는 도우와 토핑을 엄선한 만큼 고객 호응을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 <br/>미스터피자는 건강을 고려한 샐러드 형태의 ‘프레쉬가든 피자’를 선보였다. 달콤한 허니 버터와 감자 토핑이 가득 올려진 ‘허니 포테이토’와 모차렐라 치즈, 토마토 소스의 풍미가 가득한 딤디시 스타일의 ‘시카고딥’, 그리고 내점 전용으로는 달콤한 소스로 맛을 낸 스테이크와 신선한 야채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프레쉬가든’을 더해 3종을 내놨다. <br/> <br/>도미노 피자는 에지를 좋아하지 않는 소비자 의견을 들어 이를 없앤 ‘씨푸드 퐁듀 피자’를 신메뉴로 내놨다. 새우와 홍게살, 통관자 등 해산물 토핑에 퐁듀 치즈 소스를 더한 피자다. 고급식당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주로 맛볼 수 있던 고급 해산물 통관자를 업계 최초로 사용해 격을 높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출시 한달 만에 100만판 이상 팔렸다고 한다. 더불어 도미노피자는 15가지 국내산 곡물을 함유한 ‘곡물 도우’를 모든 피자로 확대·적용했다. <br/> <br/>피자에땅은 신메뉴 ‘반반한 피자’를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2가지 메뉴를 한판에 담은 고급 피자다. 반반한 피자는 ‘포테이토 베이컨+미트 소시지’와 ‘핫 바비큐+씨푸드’ 등 2가지로 출시됐다. ‘포테이토 베이컨+미트 소시지’는 감자, 베이컨 토핑과 각종 소시지, 햄 등을 한판에 담았다. ‘핫 바비큐+씨푸드’는 매콤한 핫 치킨, 바비큐 토핑, 알새우와 신선한 생선살이 토핑으로 올려졌다. <br/> <br/>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19.txt

제목: ‘비타민’ 대상포진은 출상하는 것과 맞먹는 고통…수두를 앓았던 모든 사람은 대상포진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  
날짜: 20150903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5746441  
본문: ‘비타민’에서 대상포진을 파헤쳐 화제다. <br/> <br/> 3일 오후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비타민’은 암 뿐만 아니라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독소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 ‘면역력’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br/> <br/> 면역력 저하와 깊이 연결되어있는 질병인 대상포진은 출상하는 것과 맞먹는 고통으로 알려졌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성 질환으로만 알려졌으나 나날이 그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 <br/> <br/> 이날 전문의 이기호는 “보통 바이러스 질환은 감염됐을 때 표시가 난다. 하지만 대상포진은 내 몸 안에 잠복 되어 있다가 활성화되어 터지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말했다. <br/> <br/> 이어 “대상포진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다. 수두를 앓았던 사람이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이다. 수두를 앓았던 모든 사람은 대상포진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 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두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존재 한다”고 설명했다. <br/> <br/>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상포진, 무섭다” “<span class='quot0'>대상포진, 자세한 정보 도움이 된다</span>” “대상포진, 조심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사진 = KBS2 ‘비타민’ 방송 캡처 <br/> <br/> 이슈팀 ent@segye.com <br/> <b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20.txt

제목: 이화의료원, 한국의료의 새 기준을 제시‘국내 최초 기준병실 3인실 시대 연다  
날짜: 20150903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5632135  
본문:   이화의료원의 마곡 새 병원 조감도(2018년 하반기 1,036병상 개원 예정) <br/> <br/> 국내 최초로 상급 병실료를 받지 않는 3인실을 기준병실로 하고 중환자실을 모두 1인실로 운영하는 환자중심의 미래 지향적 스마트 병원이 탄생한다. <br/> <br/> 이화의료원(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김승철)은 3일 이화의료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이화의료원 마곡 병원'(가칭)의 구체적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개원 예정인 새 병원은 한국 병원의 기존 진료 시스템과 의료 문화를 바꿀 새로운 형태의 진정한 환자중심 병원을 표방하고 있다. <br/> <br/> ◆ 국내 최초 기준병실 3인실, 국내 최초 전 중환자실 1인실 운영 <br/>이화의료원 마곡 병원은 진료 환경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내 최초로 기준병실을 3인실로, 모든 중환자실을 1인실로 설계했다. 이화의료원은 진정한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환자의 생활 및 숙식이 이루어지고 치료와 간호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인 병실 환경부터 혁신하겠다는 의지로 기준병실을 3인실로, 모든 중환자실을 1인실로 운영한다. 새 병원의 기준병실인 3인실의 병상당 면적은 10.29㎡로 의료법상 기준인 6.5㎡보다 1.5배 이상 넓을 뿐 아니라, 국내 9개 대형병원의 기준병실의 병상당 면적(7.72~10.07㎡)과 비교해도 가장 넓어, 감염 위험을 줄이고 환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보다 엄격한 감염관리와 환자의 안정 유지가 필요한 중환자실의 경우에도 국내 최초로 전 병실을 1인실로 운영, 최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한다. <br/> <br/>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승철 교수 <br/> <br/> ◆ 1인실로 전환 가능한 가변형 3인실 설계 <br/>김승철 이화의료원장은 "새 병원은 원래 전 병실 1인실로 계획하였으나, 현재의 저수가와 향후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도입 등 의료정책 변화를 고려했을 때 전 병실 1인실안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새 병원 기준병실을 3인실로 하고, 중환자실을 1인실로 운영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먼저 해야만 할 일"이라며 "이화의료원은 1인실 전환이 가능한 가변적 구조로 3인실을 설계해 향후 의료 제도 변화 시, 1인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br/> <br/> ◆ 감염관리의 완벽을 추구하는 병원 <br/>또 새 병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 우려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병원으로 설계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 관리에 대비하여 경증에서 중증까지 모든 환자의 내원 순간부터 입원,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감염관리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적용한다.  <br/> <br/>이를 위해 ▶공조 시스템이 분리된 호흡기내과 병동 설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음압 격리 병동 설치 ▶응급의료센터 내 음압 격리실 설치 ▶병동 내 별도 면회실 설치 ▶ 간호 1등급 실현에 의한 간병 부담 최소화 등의 전략으로 감염관리에 취약한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은 물론, 의료 문화 자체를 바꾸는 국제적 수준의 감염관리 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br/> <br/> ◆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고난이도 중증질환 전문센터 및 국제화 <br/>새 병원은 ▶암 ▶심뇌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고난이도 중증질환을 특화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부 인력의 집중 육성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우수 의료진 영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첨단 국제진료센터 운영 ▶외국인 환자를 위한 프리미엄 건강증진센터 개설 ▶당일 진료와 검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외국인 전용 원무창구 개설 등 국제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br/> <br/>이외에도 새 병원은 병원 안내, 예약, 입원 및 퇴원, 진료결과 확인 및 상담 등 모든 과정이 아이패드,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의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중심의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는 ‘유비쿼터스 스마트 병원’으로 구축된다. <br/> <br/> ◆ 동북아 국제의료 허브 병원 - 의학 교류의 메카로 발돋움 <br/>강서구 마곡지구에 개원할 새 병원은 기존 이대목동병원과 함께 김포공항, 인천공항, 송도국제도시 등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동북아 국제의료 허브 병원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중국, 몽골 등 동북아시아 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강점을 바탕으로 전 세계 대상 의학 교류를 활성화해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수준의 병원으로 발전하겠다는 복안이다. <br/> <br/>또한 국내 유일의 여자 의과대학 부속 의료원으로서 여성 의료인 육성을 선도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국제 교류 확대 및 아시아 지역 저개발 국가의 여성 의료 인력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128년 전 척박한 한국 땅에 이화의료원의 전신인 '보구여관(保救女館)을 통해 여성 의료의 씨를 뿌렸듯이 발전한 한국 여성 의료를 세계에 보급하는 선순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br/> <br/> ◆ 보구여관의 건립 이념을 담은 이화 힐링 스퀘어 <br/>아울러 이화의료원의 새 병원과 의과대학 설계에는 ‘이화 힐링 스퀘어(Ewha Healing Square)’를 모티브로 ‘도전과 개척’, ‘나눔과 섬김’이라는 이화의 정신을 담았으며 환자를 위한 섬세함과 따뜻함을 품은 형태와 공간은 물론,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광장의 개념이 함께 구현될 것이다. <br/> <br/> ◆ 이대목동병원, 중장기적으로 여성?소아 질환 및 연구 중심병원으로 차별화된 특화 <br/>새 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은 이화의료원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특성화 전략에 따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동반 성장하게 된다. 새 병원은 암센터, 심뇌혈관센터, 장기이식센터 등 고난이도 중증질환에 특화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하고, 이대목동병원은 여성암병원, 여성질환 전문센터, 어린이병원, 척추관절센터 등 여성과 소아 진료 분야에서 쌓아온 강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나간다는 전략이다. 국내에서 특성화 성공 모델로 꼽히고 있는 여성암병원을 필두로 고위험 산모를 위한 모자센터, 극소저체중출생아 전문센터 등 여성과 소아의 중증질환을 치료, 연구하는 종합병원으로 차별화할 것이다. <br/> <br/> 또한 이대목동병원은 새 병원의 모태로서 이대목동병원의 특성화 영역과 함께 새 병원의 특성화 영역인 암, 심뇌혈관, 장기이식 등 중증질환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 병원의 순조로운 출발과 조기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br/> <br/> 아울러 의과대학이 새 병원 개원과 함께 마곡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 이대목동병원 의과대학 부지에는 이화임상의학연구소(가칭)를 건립해 기초의학과 임상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의료 역량을 높여 이화의료원의 연구 및 산업화를 선도한다. <br/> <br/> 한편, 새 병원은 강서구 마곡지역에 지하 5층, 지상 10층의 1,036병상 규모로 신축되며, 2018년 상반기 준공,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br/> <br/> 김승철 의료원장은 "새 병원은 진정한 환자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 국제적 기준의 감염관리 구현, 고난이도 중증질환 치료 센터를 기반으로 하여 국제적 수준의 첨단 병원이 될 것"이라며 "새 병원의 성공적 개원과 더불어 이대목동병원을 여성과 소아질환에 특화된 종합병원으로 차별화하여 양 병원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임상-기초의학의 중개연구와 산업을 연계하는 이화융합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함으로써 이화의료원 도약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21.txt

제목: 3인용 일반병실, 1인용 중환자실로만 구성된 병원 등장 …이대 마곡병원  
날짜: 2015090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5540649  
본문: 중환자실을 모두 1인실로 하고 기준병실(일반병실)을 3인실로 운영하는 병원이 국내에서 처음 등장했다. <br/> <br/>3일 이화의료원(의료원장 김승철)은 2018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서울 마곡에 새로 짓는 '이화의료원 마곡 병원'의 기준병실과 중환자실을 각각 3인실, 1인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br/> <br/>기준병실이 3인실이라는 것은 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존의 4∼6인실과 비슷한 입원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br/> <br/>병원 측은 새 병원 3인실의 병상당 면적이 10.29㎡로 의료법상 기준인 6.5㎡의 1.5배 이상일 뿐 아니라 국내 9개 대형병원 기준병실의 병상당 면적(7.72∼10.07㎡)과 비교해도 가장 넓다고 설명했다. <br/> <br/>또 중환자실의 경우도 더욱 엄격한 감염관리와 환자의 안정 유지를 위해 전 병실을 1인실로 운영할 방침이다. <br/> <br/>이화의료원 마곡 병원은 1036병상 규모로 암, 심뇌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고난이도 중증질환 중심으로 특화 육성된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22.txt

제목: 분당차병원, 암 치료 권위자 김주항 교수 영입해 암 유전자 치료 경쟁력 강화  
날짜: 20150903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5450545  
본문: 암 치료 권위자 김주항 교수 <br/> <br/> 차병원그룹은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지훈상)이 암 유전자 치료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양내과 김주항 교수를 영입하고 진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br/> <br/> 김주항 교수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암병원에서 종양내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폐암센터장과 암연구소 소장을 지냈으며, 대한폐암학회 회장, 한국임상암학회 회장,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br/> <br/> 치료법이 없는 말기 암환자 들을 위해 해외에서 개발된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 등의 새로운 신약을 이용한 많은 임상시험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종양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를 개발하는 등 다년간 암 유전자 치료법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종양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는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 파괴하는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이다. <br/> <br/> 김주항 교수는 그 동안 다양한 신약 관련 임상 연구를 통해 국가 암 관리 사업과 암 유전자 치료 분야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13년 3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수여 받기도 하였다. <br/> <br/> 최근 대부분의 스타급 교수들이 정년퇴임 후 자리를 옮기는 추세에서 김주항 교수는 정년을 남기고 분당차병원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이례적인 선택으로 주목 받고 있다. <br/>  <br/>분당차병원은 김주항 교수와 함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문용화 교수를 비롯하여 전홍재 교수, 김찬 교수, 임선민 교수, 최경주 교수 등 종양내과 의료진 6명을 동시에 영입함으로써 암 진료 및 암 유전자 치료 연구에 있어 임상 수준을 한층 높이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 분당차병원 종양내과장 김주항 교수는 “<span class='quot0'>차병원그룹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생식의학 및 재생의학 그리고 NK세포, T세포 등을 이용한 면역세포치료에 많은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여러 연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동안 진행해 온 암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와 차병원그룹의 세포치료 연구와의 접점을 찾는다면 암에 관한 세포/유전자 치료 연구에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br/> <br/>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23.txt

제목: 위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날짜: 20150903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5447419  
본문: 위암 예방의 핵심은 위암의 발병 위험을 낮추고, 선별검사를 통해 위암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암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은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활습관의 교정에 의한 암 예방 효과를 의학적으로 규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식이요법을 포함한 활발한 신체활동, 규칙적인 운동, 금연 및 간접흡연 회피 등의 생활습관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br/> <br/> ◆금연, 그리고 간접흡연 피하기 <br/>흡연은 담배 연기가 직접 닿는 입안, 후두, 기관지, 폐에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을 것 같아 보이는 부위인 위에도 암 발생을 촉진하는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자들이 위암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흡연을 지목하고 있는데, 흡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위암에 걸릴 위험이 1.6배 높다고 조사된 바 있다. 반대로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흡연한 사람들보다 위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따라서 금연은 가장 확실한 위암예방법이며, 간접흡연도 피하는 것이 위암 예방에 좋다. <br/> <br/> ◆과도한 염분 섭취 자제,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 <br/>과도한 염분 섭취는 위 점막을 손상시켜 발암 물질에 취약하게 하고, 지속적인 자극으로 위축성 위염을 일으켜 위암의 발생을 촉진할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는 자극을 중화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염분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br/> <br/> ◆음식물 냉장보관 <br/>고농도의 질산염이 들어 있는 건조, 훈제, 염장 음식, 조미료, 방부제, 색소 등을 장기간 섭취하면 위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는 음식 속의 질산염이 부분적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각종 세균에 의해 발암물질인 아질산염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음식물을 냉장 보관하면 변질 속도가 늦춰지므로 결과적으로 위암의 발생빈도를 낮출 수 있다. <br/> <br/>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치료 <br/>위암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는 헬리코박터균은 전체 위암 환자의 반수 정도에서 관찰되고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만성 위염을 일으키고, 위 내 세균증식 기회를 높이는 등의 과정을 통해 위암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몇몇 연구에서는 항생제로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였을 때 위암의 위험이 1.7%에서 1.1%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r/> <br/>그러나 위암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정상인에서 헬리코박터균의 치료가 위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위내시경 소견에서 장상피화생(위의 점막이 장의 점막처럼 변한 것)을 보인 경우 등 위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헬리코박터균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br/> <br/> ◆위내시경 검사 <br/>한국건강관리협회 윤지영 과장은 “우리나라에서 위암 발생률은 4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한다. 위암의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복부팽만, 가스, 소화불량, 속 쓰림 등 가벼운 증상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r/> <br/> 위내시경은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수 mm의 조기위암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검사방법으로 30~40대부터 매 2년 간격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검사 시기와 간격이 달라질 수 있다. 가족 중에 위암환자가 있거나, 이전 검사에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등의 소견이 관찰되었다면 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더 이른 나이부터 좀 자주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24.txt

제목: 10대도 안심할 수 없는 위염  
날짜: 20150903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5448322  
본문:   <br/> <br/> 학업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10대 위염환자가 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2008~2012) 자료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10대 위염환자 증가율이 전체 평균 3%의 두 배가 넘는 7.3%에 이르고 있다. 위염을 방치할 경우 위궤양 등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위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br/> <br/> 최근 젊은 연령층에서 위염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불규칙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 다이어트, 과도한 학업에 따른 스트레스, 대학진학 및 입시에 대한 고민 등과 더불어 줄지 않고 있는 10, 20대의 음주와 흡연율, 진통제 등의 약물 남용이 원인이 될 수 있다. <br/> <br/> 내시경 검사상 관찰되는 위장 점막의 염증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부터 심한 복통, 체중감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띤다. 일반적으로 위장 점막에는 감각신경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심한 염증이 생겨도 이로 인한 직접적인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고, 소화불량, 위장 부근의 불편감, 명치 통증, 복부 팽만감, 식욕부진, 트림, 구토, 오심, 열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br/> <br/> 위염의 치료는 원인과 염증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증상이 없는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은 대개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산 억제제, 위장 점막 보호제가 주로 투여되며, 흡연, 음주, 카페인, 자극적인 음식 등은 위염의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금하는 것이 좋다. <br/> <br/>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박재현 과장은 “급성 위염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극이 적은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음주와 흡연, 카페인 섭취는 위염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해야 한다. 만성 위염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증상에 대한 치료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선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며 “금연, 절주, 신선한 채소 위주의 식사 등 일반적인 암 예방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검사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br/> <br/> 약 몇 봉지로 위염증상을 뿌리 뽑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때에 일정한 양의 식사를 하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가지는 것이 위염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취침 직전에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되어 여러 증상들이 호전되지 않는다. 또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일하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증상이 더해질 수 있으니 가능한 매일 30분가량 몸에 약간 땀이 날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br/> <br/> 식이 요법으로 지나치게 맵거나 짠 음식보다는 자극성이 덜한 음식이 추천되나 이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특정 음식을 섭취해 봐서 스스로가 별다른 불편함이 없다면 그 음식을 금지할 이유는 없다. 정신적인 불안정도 소화불량, 속 쓰림, 구토 증세와 같은 증상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br/> <br/> 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25.txt

제목: '비타민' 이지현 "남편 덕분에 면역력 더 떨어졌다"  
날짜: 20150903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5414386  
본문: KBS 제공 <br/>걸그룹 주얼리 출신 이지현이 남편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았다. <br/> <br/>KBS 2TV '비타민'에서는 모든 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을 주제로, 대상포진 폐렴, 암 등 면역력과 관련된 질병들을 다루고, 전문의들과 함께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br/> <br/>이날 출연한 이지현은 "아기를 둘이나 낳고, 연년생을 키우다보니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남편이 워낙 바빠 육아를 도와주지 않아 최근 면역력이 더 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해 출연자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br/> <br/>이에 전문의는 이지현을 위해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면역력 강화 마사지를 소개 , 맨손으로 손쉽게 부부 금실까지 좋아지는 특별 비법을 전수했다. 하지만 이지현은 "마사지를 하고 싶어도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와 얼굴도 잘 보지 못 한다"고 말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br/> <br/>이지현의 웃픈 가정사는 3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되는 KBS 2TV '비타민'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26.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국정감사 앞두고 메르스 후속 대책 발표  
날짜: 20150902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5157765  
본문: 3일 오전 11시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총체적인 메르스 후속대책 기자 간담회 현장 <br/> <br/> 메르스 사태의 최대 피해자이자 전파자인 삼성서울병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3일 오전 11시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총체적인 메르스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br/> <br/> 삼성서울병원의 송재훈 병원장은 메르스 백신 개발지원, 응급 진료 시스템의 전면 혁신, 환자 안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 병원 운영 쇄신 등 총 4개의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br/> <br/> ◆ 메르스백신 개발 지원에 5년간 410억 원 자금 지원 <br/> <br/> 첫 번째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백신 개발에 대해서 국제백신연구소(IVI :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에 5년간 410억 원의 개발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백신 개발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에 백신 개발 기관의 선정과 관리 등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국제백신연구소에 위임한 것이다. <br/> <br/> 두 번째 응급진료 시스템의 전면 혁신과 세 번째 환자 안전을 위한 인프라개선 방안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에서 경험했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과 의지를 담고 있다. <br/> <br/> ◆ 선진형 응급실 확충, 1인실 구조 및 예진실 설치, 전문의 진료 등 응급실 시스템의 전면 혁신 <br/> <br/> 예를 들어 지난번 메르스 사태에서처럼 외래에서 환자가 응급실로 운송되었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메르스 전염에 병원 의료진과 응급실 등 병원 환자들이 노출되었던 것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미이다. <br/> <br/>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선진형 응급실 확충을 목표로 현재의 응급실을 감염/외상/소아/암 환자 등 6개의 전문진료 영역별로 구역을 나누고, 발열호흡기 진료소의 11개의 음압격리실을 설치하여 일반환자와 감염환자의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br/> <br/>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메르스 사태를 경험으로 병원내부에서 메르스 등 급성 호흡기 전염병에 대비하는 것과 함께 외부에서 이송된 환자에 대한 전염 경로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계대책을 세웠다. <br/> <br/>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 입구에 예진실을 두고 발열 및 호흡기 감염환자를 사전에 격리하고 있으며, 개방형/다인실 구조로 운영되던 기존의 응급실 병상을 모두 1인 구역으로 바꾸었다. 기존 응급실 외부에 감염격리진료소를 신축하고 11개의 음압격리실(성인 6실, 소아 5실)을 설치하였다. <br/> <br/> 송재훈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응급실 병상의 1인 구역화와 1.6배 규모로 확장된 응급실로 인한 환자 부담 의료비 인상은 별도로 없다</span>”고 말했다. <br/> <br/>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인 장시간 환자가 응급실에 머물러야 했던 것과 전공의의 응급실 진료를 응급진료 프로세스 개선 및 전문의의 응급실 진료로 전면 개선했다. <br/> <br/>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삼성서울병원은 환자들이 30분내에 최초 진료를 마치고 6시간 내에 입/퇴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의 모든 환자는 전공의가 아닌 각 분야의전문의가 진료를 시행하도록 하며 이와 동시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보호자 등록 관리제를 실시하여 보호자를 1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br/> <br/> ◆음압격리병동 설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간병문화 개선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인프라개선 <br/> <br/>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번 메르스 사태에서 병원 방문객에 대한 전염 경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가 커져 국민의 비난과 의심을 동시에 받았다. <br/>  <br/>따라서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의 11개 음압 격리실과는 별도로 호흡기 감염병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 병동을 설치하고 2016년 3월까지 同 병동 내에 전실(前室)을 갖춘 음압격리 병실을 최소 10개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br/> <br/> 또한, 병원의 감염관리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r/> <br/>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상 징후가 있는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간병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된 방문객만 병실 출입이 가능하도록 모든 병동 입구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고 하루 면회객을 환자당 2인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이상과 같은 응급실 및 환자안전인프라개선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br/> <br/> 끝으로 삼성서울병원은 병원운영쇄신 방안으로 감염 질병 관리를 총괄하고 신종 감염병 연구를 주관해 나갈‘감염병대응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위기 대응 교육•훈련 강화해 나가겠다며 메르스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했다. <br/> <br/>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27.txt

제목: 건강검진결과도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  
날짜: 20150902  
기자: 김정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5103271  
본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이 9월부터 ‘검진결과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시작했다. <br/> <br/>2일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따르면 ‘검진결과 인터넷 조회서비스’는 수검자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검진결과를 확인하는 간편 서비스다. <br/> <br/>이용방법은 간단하다. 병원의 검진결과 확인요청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PC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병원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된다. <br/> <br/>PC의 경우 인터넷 검색기능을 사용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을 검색한 다음,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건강증진센터 페이지로 들어가 ‘검진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br/> <br/>스마트폰의 경우도 역시 병원명을 검색하면 모바일 버전의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첫 화면의 검진결과 조회 아이콘을 누르면 된다. <br/> <br/>별도의 가입절차나 앱을 다운받을 필요가 없으며 결과 내용 인쇄는 물론 누적된 모든 검진결과 비교가 가능해 건강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br/> <br/>단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인증 방법은 휴대전화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br/> <br/>서비스는 종합검진을 비롯해 특수검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등 병원이 실시한 모든 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br/> <br/>이문수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조만간 여러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 편의성을 보완할 예정</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지역주민들의 병원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계속 연구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br/> <br/> 사진설명: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사람은 9월부터 검진결과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28.txt

제목: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의료서비스, 대학병원 수준으로 높인다  
날짜: 20150902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5113148  
본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전경 <br/> <br/>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병원장 조영주)이 각 분야별 전문 의료진을 영입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br/> <br/> 이번에 초빙한 의료진은 인공관절센터 김영후, 비뇨기과 박영요, 소아청소년과 이승주, 알레르기내과 조영주, 가정의학과 이상화 교수다. <br/> <br/> 인공관절센터 김영후 교수는 무릎과 고관절 치환술의 대가로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시술과 연구로 명성을 쌓았으며, 이대목동병원 인공관절센터 센터장을 역임하며 연구 활동은 물론 탁월한 임상 실적으로 이름나 있다. <br/> <br/> 특히 김영후 교수는 무(無)시멘트 고관절 인공관절을 직접 개발해 시술함으로써 기존에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던 인공관절 사용 기간을 연장시키는 등 인공관절 분야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이로서 서울 시민 누구나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관절 시술을 시립병원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br/> <br/> ◆인공관절 김영후, 인공방광조성 박영요 등 명의 영입 <br/> 인공관절센터 김영후 교수와 비뇨기과 박영요 교수비뇨기과에 영입한 박영요 교수는 자연배뇨형 인공방광조성수술을 국내 최초로 시술한 방광암 분야의 권위자다. 박영요 교수는 방광암, 전립선암, 신장암 등 비뇨기계 암 수술례수가 총 3,000례가 넘으며 EBS 명의 프로그램에 두 번이나 선정된 바 있는 방광암 분야 명의이자 스타 교수로 정평이 나있다. <br/> <br/> 또한, 방광암은 재발률이 70%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박영요 교수 시술 환자는 재발 및 합병증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유명하다. 앞으로 고난이도 방광암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영요 교수는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이대목동병원 병원장을 역임한바 있다. <br/> <br/> 소아청소년과 이승주 교수는 35년 경력의 소아과 전문의로 미국미네소타의대, 미국알버트아인슈타인의대 소아신장학 연수하고 대한 소아신장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br/> <br/> 소아청소년진료는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요구되었던 진료 분야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아청소년과를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계획이다. <br/> <br/> 서남병원장 알레르기내과 조영주 교수는 천식명의로 알려졌으며 천식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료와 관리에 집중할 것이다. 조영주 교수는 이화여대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서울대학병원 알레르기내과 전임의, 서울아산병원 생명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 아이오와대학, 미국 뉴욕 업스테이트 병원 방문교수를 지냈다. <br/> <br/> 가정의학과 이상화 교수는 노인의학의 권위자로 노화방지, 평생건강관리, 노인병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의료진이다. 진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단장을 역임하며 공공의료사업, 백세건강증진 활동을 활발하게 지휘하여 공공의료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꾀할 것이다. <br/> <br/> ◆전문 의료 서비스로 지역 대표 거점 병원 역할 충실 할 터 <br/> <br/> 조영주 병원장은 “우수한 의료진 영입으로 중증질환 치료와 고난이도 수술까지 가능해지면서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한층 강화된 진료체계로 지역 대표 거점병원으로서 지역의 의료수요를 만족시키며 진정한 시민의 병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br/> <br/>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현재 내과(소화기, 순환기, 호흡기알레르기, 내분비, 신장),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11개 진료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3개 진료지원과, 응급실, 백세건강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을 포함한 350병상을 갖추고 있다. 이로서 복합상병질환 등 노인성 질환 치료 및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br/> <br/> 또한, 2년 연속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br/>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29.txt

제목: ‘더부룩 답답’ 소화불량… 방치땐 큰 병  
날짜: 20150901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4554711  
본문: 최근 먹방, 쿡방의 인기가 지속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먹는 즐거움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음식을 먹고 난 뒤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는 ‘소화불량’으로 먹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소화불량으로 치료받는 사람은 60만명이 넘고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화불량 자체는 큰 병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증상이 지속되면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된다. 누구나 겪는 가벼운 증상으로 생각해 방치했다가 궤양, 암 등 큰 병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다. 소화불량은 왜 발생하는 것이며 예방책은 무엇일까. <br/> <br/>소화불량은 조기 포만감(식후 식사량에 비해 빠르게 위가 찬 느낌), 만복감(식사와 상관없이 음식물이 위에 차 있는 느낌, 더부룩하고 답답함), 상복부 팽만감(팽팽하게 팽창한 느낌), 식후 구역감, 잦은 트림, 가슴쓰림, 상복부 통증, 상복부 이물감 등 여러 가지 증상을 포함한다. 한 가지 원인이나 병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질환이다. <br/> <br/>소화불량은 기질적 질환과 기능적 질환으로 나뉜다. 기질적 질환은 위염, 위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각종 암, 당뇨 등 구조적으로 명확한 이상이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원인을 치료하면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 있다. <br/> <br/>골치아픈 것은 기능적 질환이다. 환자는 고통을 호소하는데 정작 내시경을 통해 소화기관을 살펴보면 이상이 없다. 소화기가 깨끗할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기능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소화기의 운동성과 기능상 문제는 내시경 등으로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능적 소화불량은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 소화불량에는 자주 ‘신경성’이라는 단어가 붙고는 하는데 스트레스 등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소화기 기능이 약해져 생긴다는 것이다. 과식, 야식, 기름진 음식 등 불규칙한 식습관이 소화기능을 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br/> <br/>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 이상이 감염된다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위에 살면서 위염, 소화성 궤양 등 위장질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상당수에서 이 균이 발견되며 2주일 정도 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증상이 호전된다. <br/> <br/>기능적 소화불량이 1년에 3개월 이상 나타날 경우 만성적 소화불량으로 진단한다. 만성적 질환이 되기 전에 잘못된 식습관을 고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br/> <br/>전훈재 고려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소화불량은 우리 조상에게는 거의 없었고 서양에 많았던 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인스턴트 음식, 기름진 음식, 커피 등 본인의 서구화된 식습관의 10∼20%만 줄여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span>”고 말한다. <br/> <br/>음식물은 2∼3시간 위에서 머무르다 내려가야 하는데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식도로 역류해 소화불량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기름진 음식은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좋지 않고, 과식·야식 등도 마찬가지다. 또 먹고 바로 눕지 말고 짠 음식과 탄 음식을 피하며 위산분비를 촉진하는 커피를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br/> <br/>하지만 자가진단은 금물이다. 소화불량 증세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질적 소화불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방치해 큰 병을 만들 수 있다. 소화불량 증세가 지속되면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아야 한다.  <br/> <br/>건강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화불량증으로 치료 받은 사람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았다. 최근 동화약품이 20∼40대 여성 9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616명)가 6개월 내에 소화불량을 겪었다고 답했다. <br/> <br/>이 중 42%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3회 이상 증상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도 14%나 됐다. 소화불량을 자주 느끼는 상황(복수응답)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때(439명) ▲과식이나 음주를 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408명) ▲폭식을 했을 때(216명) 순으로 꼽혔다. <br/> <br/>특히 10명 중 9명이 소화불량과 하복부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이 중 62.5%는 별 치료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동화약품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설문 결과 여성이 다양한 소화불량 증상과 동반 증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span>”고 밝혔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30.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사이버나이프 1000례 달성  
날짜: 2015090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4528590  
본문:   <br/> <br/> <br/>서울아산병원이 전신마취와 절개 없이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 1000례를 달성하고 치료성공률 98%를 기록했다. <br/> <br/>서울아산병원 사이버나이프센터는 최근 악성뇌종양을 앓고 있던 박 모(여·47)씨에게 초정밀 방사선수술인 사이버나이프를 시행하고, 2011년 사이버나이프센터 개소 이후 4년 만에 1000례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br/> <br/>사이버나이프란 인체의 병변만을 선택적으로 표적화 한 후 고용량의 방사선을 정밀 조사하는 수술 장비로서, 전신마취와 절개 없이 종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다. <br/> <br/>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은 환자의 호흡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종양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종양에만 방사선을 조사하기 때문에 두경부 외에도 흉부, 복부, 척추 등 전신에 적용할 수 있으며, 무혈(無血)수술이기 때문에 감염, 출혈 등 합병증 우려가 적다. <br/> <br/>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한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 1000례를 분석해보면 뇌종양 치료가 538건(54%), 척추종양 치료가 320건(32%), 폐와 전립선 등의 종양치료가 142건(14%)이었다. 뇌종양 치료 538건은 센터 운영기간 내 국내 최다 기록이다. <br/> <br/>종양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성장억제를 의미하는 수술 성공률도 98%에 이른다. 이는 종양이 위험한 곳에 위치해있거나 전신마취 위험성이 높은 환자 등 기존의 수술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 포함된 통계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br/> <br/>노성우 서울아산병원 사이버나이프센터 소장(신경외과 교수)은 "사이버나이프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한 치료기술을 갖춘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아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또한 "사이버나이프 수술 성공률 98%에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 축적된 방사선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중증 암환자와 뇌종양 환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31.txt

제목: 유난히 땀나고 지친다면 갑상선항진증 의심  
날짜: 20150901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4520026  
본문:   <br/> <br/> <br/>낮 평균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분다. 날이 서늘해졌는데도 한여름처럼 기운이 없고 땀이 많이 난다면 단순 계절적 요인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br/> <br/> 주부 박모씨(42세)는 올 여름 유난히 더위를 타서 고생이 심했다. 여름 내내 무기력하고 피곤했지만 여름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음식을 잘 챙겨먹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최근 기온이 조금 내려갔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덥고 땀이 쉽게 나서 이상한 박 씨는 병원을 찾았고 갑상선 기능항진증 진단을 받았다. <br/> <br/> 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결과에 따르면 호르몬 이상과 암 등 갑상선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2008년 60만여명에서 2012년 87만명으로 급증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갑상선 질환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호르몬과 임신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br/> <br/> 외과전문병원 민병원 갑상선센터 김종민 대표원장은 "갑상선 호르몬은 목 앞부분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데,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이다"며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을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라고 하는데 과잉 상태가 되면 신체 전반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br/> <br/>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호르몬 과잉으로 신진대사가 지나치게 활발해져 가만히 있어도 신체 내 에너지 사용이 많아진다. 따라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심한 피로감, 안구 돌출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개인에 따라 위장 활동이 빨라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고 배변 활동이 잦아지기도 한다. <br/> <br/>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스트레스 혹은 갑상선염 등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나 주요 발병 원인은 그레이브스병 혹은 바제도우씨병이라 불리는 질환이다. 이 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갑상선 일부 구조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된다. 이때 갑상선 호르몬 양이 많아지면서 에너지 과잉 상태가 되는 것. <br/> <br/> 김 원장은 "갑상선 기능항진 상태가 되면 몸에 열이 많아져 더위를 쉽게 타고 땀이 많이 나기에 기온이 높은 여름철 유난히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이러한 증상과 함께 쉽게 지치고 피곤한 증상 등이 심하거나 장기간 계속된다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 <br/>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서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된다. 환자 상태나 연령대에 따라 약물 처방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치료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용 후에는 2개월 정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호르몬 검사를 받아 상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32.txt

제목: 말기암 아내와 한달간 마지막 캠핑떠난 70대 남편, 아내 숨지자 자신도  
날짜: 20150831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4051534  
본문: 말기암 판정을 받은 아내와 마지막 추억을 만들겠다며 캠핑카를 마련해 한달간 여행을 떠났던 70대 남편이 아내가 숨지자 "장례를 치러달라"며 약간의 돈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br/> <br/>31일 전남 장수경찰서와 119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6시쯤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119가 전북 장수군 산서면의 영대산 주차장에서 죽은 아내 옆에 의식을 잃은 채 쓰려져 있는 박모(74)씨를 발견, 병원으로 옮겼다. <br/> <br/>박씨는 "암환자 보호자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현금 500만원을 준비했으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장례를 치러주십시오"라는 유서를 자신과 아내의 영정사진과 함께 둔 채 아내 지모(73)씨 옆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br/> <br/>이날 박씨는 사위에게 자신의 위치와 함께 "뒷일을 부탁한다"며 작별 전화를 걸었다. <br/> <br/>박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아내 지씨는 지난달 병원에서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br/> <br/>박씨는 "길어야 한달 정도 (부인이)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치료를 포기하고 아내를 위해 여행을 결심했다. <br/> <br/>중고 캠핑카를 마련한 박씨는 차에 부부의 영정사진을 실었다. <br/> <br/>또 "아내가 숨질 경우 따라가겠다"며 농약과 함께 장례비로 현금 500만원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들 부부는 이달 초 여행에 나섰으며 아내 지씨는 지난 30일 오전 0시쯤 전북 장수군 산서면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33.txt

제목: [조용호의 나마스테!] ‘밤의 선생’ 문학평론가 황현산  
날짜: 20150831  
기자: 조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4347473  
본문: 평론가의 문장이 아름답기는 쉽지 않다. 한글로 흘러가는 문장인데도 주어 서술어 따져가며 밑줄을 긋고 사전까지 들춰야 겨우 감을 잡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소화도 잘 되지 않은 서구 이론을 앞세워 번역투 문장으로 문학의 권위만을 강변하는 문장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황현산(70·고려대 명예교수)의 문장과 사유는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일까. 연전에 나온 그의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난다)는 출간 2년 만에 18쇄를 찍었고 4만 부 가까이 팔려 나갔다. 통상 이런저런 매체에 기고한 칼럼들을 묶어 체면치레에 그치는 책들은 많아도 독자에게 이처럼 순수하게 각광받은 칼럼집은 드물다. 영화판에 비유하자면 가위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책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br/> <br/>“6·25가 나던 해 신안군 비금도로 피난 들어가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7년 만에 목포로 나왔습니다. 내 생애 10분의 1을 그곳에서 보냈지만 그때 배운 것들이 기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조선 중기의 말까지 살아 있었지요. 후일 내가 배운 프랑스어는 라틴어의 뿌리가 순수하게 살아 있는 세계 표준어에 해당합니다. 나는 이 두 언어 사이를 오가면서 정확하게 쓰는 훈련을 한 셈입니다. 내 글은 미문이라기보다 까칠한 편입니다.” <br/> <br/> 불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 황현산은 암 투병 중에도 오래 공들여 번역한 ‘보들레르 산문시집’을 최근 펴냈다. 그는 “한국 문인들은 시는 잘 쓰는데 서사 능력은 부족한 것 같다”며 “끝까지 강인하게 밀어붙이는 소설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br/>남제현 기자불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인 황현산은 노년에도 트위터를 누리는 디지털 마인드가 남다르다. 트위터의 세계에서 젊은이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서울 정릉동 자택에서 만난 그는 ‘까칠한 언어’야말로 여러 생각 거리를 던져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어로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그가 젊은이들과 트위터에서 어울리는 힘이 까칠한 문장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어느 순간 그가 읽는 책들은 저자가 죽었건 살아 있건 자신보다 젊은 필자들인 경우가 더 많았다고 했다. 20대에 열정적으로 썼던 요절 시인 랭보(1854∼1891)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자신보다 어린 나이에 쓴 글이라도 책으로 나오면 보편적 사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 나이 들어가면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젊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물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건 많건 간에 책에 담겼다고 모두 보편타당한 건 아닐 터이다. 신경숙 표절 파문으로 여름 내내 시끄러웠고 최근에서 그 진앙인 ‘창비’에서 “의도적인 베껴쓰기로 볼 수 없다”고 신경숙을 두둔하면서 다시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이즈음이다. <br/> <br/>“신경숙은 시장성이 큰 대중작가인데 문학이 원래 지니고 있는 아우라나 카리스마를 대중성과 굉장히 잘 연결시킨 거지요. 신경숙뿐 아니라 몇몇 작가들의 작품은 대중성과 시장에서의 성공을 비평가들이 바꿔치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학권력을 통해서만 그리된 게 아니라 신경숙을 좋아한 일반 대중도 신경숙을 열심히 따라 읽었기 때문에 신경숙이 특별히 문학적 가치가 있기를 바란 겁니다. 그 점에서 문학판과 공모한 독자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br/> <br/>황현산은 “<span class='quot0'>글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같은 것인지 아니면 베껴 쓴 것인지는 금방 알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의도적이냐 아니냐는 참 묘한 말인데 아무튼 그것을 읽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나왔다면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span>”고 분명하게 말했다. 신경숙 파문과는 다른 맥락이지만 인터뷰 말미에 그는 “<span class='quot0'>한국 사회가 좀 더 합리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험난한 현대사를 통과해온 탓인지 한쪽으로 기울어 시기, 질투, 의심 이런 것들 때문에 과학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span>”고 안타까워했다. 여기에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뿌리 뽑힌 삶의 원형, 그 상실감이 주는 상처도 굉장히 크다”고 언급했다. <br/> <br/>그는 올봄 두 달 가까이 트위터를 쉰 적이 있다. 담도암이 발견돼 수술을 받고 한 달 반 가까이 입원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를 팔로어하는 트위터리안들에게는 그냥 “일이 있어서 쉰다”고만 공지했다. 10월까지 항암치료를 계속해야 한다는 그는 목소리에 힘이 없고 피로한 낯빛이었지만 차분하게 정감 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br/> <br/>“고민하고 있을 때 한숨 자고 나면 좋은 생각이 떠오를 거라고들 말하지요. 밤이 좋은 생각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의 프랑스 속담이 있는데 ‘밤이 선생’이라고 웃자고 말했다가 책 제목으로 쓰게 됐습니다. 밤에 작업을 하면 무의식이 작동해서 낮에 생각한 것과 많이 다릅니다. 밤을 새워 읽고 쓰다가 새벽 5시쯤 잠이 드는 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수술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패턴이 무너져서 이것저것도 아닙니다.” <br/> <br/>황현산의 적확한 문장과 깊은 사유가 일차적인 공신이겠지만, ‘밤이 선생이다’라는 제목이야말로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데 만만치 않은 기여를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낮이 이성의 시간이라면 밤은 상상력의 시간”이고 “낮이 사회적 자아의 세계라면 밤은 창조적 자아의 시간”이라고 썼다. 젊은 시절부터 황현산과 밤의 인연은 깊었다. 그는 유학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 처음 불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이다. 고려대 불문과를 나와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니와 문학평론가 김현(1942∼1990)이 박사논문 심사교수였다. 김현의 주선으로 박사학위논문이 문학과지성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황현산은 진도 출신 김현의 다도해 정서와 1950∼60년대 목포 분위기를 공유했다. 그의 문체와 작품에 대한 감식안이 김현과 닮았다는 평을 듣는 배경이다. <br/> <br/>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대학시절부터 집안을 책임져야 했던 생계의 무게 때문에 대학원조차 출판사에서 일을 하며 다녀야 했다. 낮의 노동에서 복귀해 아무리 피로해도 밤에는 책을 붙들고 씨름했던 패턴이 밤을 선생으로 삼게 된 내력이다. 45세에 문화예술진흥위에서 청탁한 200자 원고지 100장 분량이 호평을 받으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 자연스레 문학평론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추천이나 등단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비록 늦깎이이지만 순수하게 그의 글이 지니는 힘만으로 세상에 드러난 셈이다. 이후의 과정도 마찬가지다. 해외유학파들은 일찍이 화려한 문단 앞자리를 장식했지만 그는 정작 70세 가까이 되어 어떤 문학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독자들로부터 월계관을 받은 셈이다. 오랜 세월 더불어 지낸 밤의 선물이다. <br/> <br/>황현산은 최근 트위터에 유머 시리즈와 무협지 이야기를 올렸다. 그가 ‘난다 긴다’ 하는 여성 트위터리안들이 모두 소녀시절 ‘빨강머리 앤’을 읽었다는 사실을 놀라워하면서 자신은 고교시절 무협지를 쌓아 놓고 읽었노라고 썼다. 일찍이 한국 문단의 특정 ‘문파’에 편입되지 않았던 그는 “강호에 나가 활약하지는 않지만 은거한 곳에 인재가 찾아오면 한마디 충고할 수 있는 처지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암 투병의 곤고함을 스스로 이기기 위한 농담들이냐고 물었다. <br/> <br/>“원래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낙천주의자입니다. 여기가 끝이라면, 여기까지 왔다는 비석 하나는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br/> <br/>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34.txt

제목: 고령화로 … 2016년 건보 진료비 29조 육박  
날짜: 20150831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4328214  
본문: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2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br/> <br/>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건강보험 적용 인구 5045만명의 전체 진료비는 28조6999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7.6%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 6개월간 1인당 외래 진료와 입원에 평균 57만원씩을 쓴 셈이다. 외래 진료비는 전년 대비 6.8% 늘어 11조9678억원, 입원 진료비는 10.5% 늘어 1조1435억원을 기록했다. <br/> <br/>심평원은 진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를 꼽았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0조42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늘어 전체 진료비의 36.3%를 차지했다.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진료비도 각각 전년보다 13.9%, 17.8% 늘었다. 노인 진료비는 2010년 13조7847억원에서 지난해 19조3551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br/> <br/>가장 많은 진료비가 들어간 질병은 폐렴이었다. 지난 6개월간 15만8000여명이 폐렴 진료를 받아 2475억원이 소요됐다. 1인당 진료비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78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뇌경색(667만원)이 뒤를 이었다. 전체 암 진료비도 2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2조553억원이 암 치료에 쓰였는데, 폐암(1517억원·2만3280명), 간암(1439억원·2만1808명), 위암(1321억원·2만3784명) 등의 순으로 많이 지출됐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35.txt

제목: [인사]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날짜: 2015083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4231219  
본문: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주요 보직자 임명 2015년 9월 1일 <br/> <br/>◆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br/>의료원장    강무일 (겸 의무부총장) <br/>영성구현실장    김평만   <br/>기획조정실장    최종영 <br/>병원경영실장    지상술 (겸 사무처장) <br/> <br/>◆가톨릭대학교 <br/>대학원장    조용현 <br/> <br/>◆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br/>의생명산업연구원장   전신수 (겸 연구처장) <br/>연구지원부원장    이석형 <br/>연구진흥부원장    양철우 <br/> <br/>◆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br/>의무부총장    강무일 <br/>교목실장    김우진 <br/>교학처장    주천기 (겸 의과대학장, 의학전문대학원장) <br/>연구처장    전신수 <br/>사무처장    지상술 <br/>입학관리실장    정연준 <br/>의과대학장    주천기 <br/>간호대학장    양  수 <br/>생명대학원장 서리   정재우 <br/>보건대학원장    이강숙 <br/>의료경영대학원장   송석환 <br/>임상치과학대학원장   박재억 <br/>임상간호대학원장   박호란 <br/>의학전문대학원장   주천기 <br/>도서관장    조양혁 <br/> <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br/>병원장     승기배 (겸 여의도성모병원장) <br/>영성부원장    장광재 <br/>진료부원장    송  현 <br/>행정부원장    이  남 <br/>연구부원장    양철우 <br/>암병원장    김준기 <br/>대외협력부원장    전후근 <br/>간호부원장    홍현자 <br/> <br/>◆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br/>병원장     승기배 <br/>영성부원장    안종배 <br/>진료부원장    권순용 <br/>행정부원장    유태종 <br/>연구부원장    김진일 <br/> <br/>◆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br/>병원장     전해명 <br/>영성부원장    장순관 <br/>진료부원장    박태철 <br/>행정부원장    이재열 <br/>연구부원장    채현석 <br/> <br/>◆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br/>병원장     권순석 <br/>영성부원장    이윤헌 <br/>진료부원장    김희열 <br/>행정부원장    최대식 <br/>연구부원장    박일영 <br/> <br/>◆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br/>병원장     김병수 <br/>영성부원장    원영훈 <br/>진료부원장    박종경 <br/>행정부원장    김재화 <br/>연구부원장    이상학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36.txt

제목: 애인있어요, 김현주 '과감한 상반신 누드' 청순함과 섹시함에 '아찔'  
날짜: 2015083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4159294  
본문: 애인있어요, 김현주 `과감한 상반신 누드` 청순함과 섹시함에 `아찔`애인있어요, 김현주 '과감한 상반신 누드' 청순함과 섹시함에 '아찔' <br/> <br/>드라마 애인있어요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배우 김현주가 과거 상반신 누드 화보를 촬영했던 배경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김현주는 지난 2010년 '싱글스' 10월호에서 과감한 상반신 누드 사진을 공개해 시선을 끌었던 바 있다.  <br/> <br/>당시 김현주는 에스티로더 컴퍼니가 주관한 ‘유방암 의식 향상 캠페인’ 차원에서 과감한 누드 화보 촬영에 도전했다.  <br/> <br/>사진 속에서 김현주는 풍성한 가슴을 손으로 감싼 채 긴 생머리를 휘말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br/> <br/>당시 화보 촬영을 마친 김현주는 “<span class='quot0'>암을 이긴 여성들과 함께 촬영해 무척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span>”며 향후 유방암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혀 훈훈한 감동을 자아냈다.   <br/> <br/>한편, 김현주는 최근 종영한 주말극 ‘가족끼리 왜이래’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았다. <br/>  <br/>김현주는 예능 프로그램 ‘레이디 액션’을 통해 색다른 도전에 나설 것을 예고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37.txt

제목: 말기암 아내와 한달간 마지막 캠핑떠난 70대 남편, 아내 숨지자 자신도~  
날짜: 201508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31100001025  
본문: 말기암 판정을 받은 아내와 마지막 추억을 만들겠다며 캠핑카를 마련해 한달간 여행을 떠났던 70대 남편이 아내가 숨지자 "장례를 치러달라"며 약간의 돈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31일 전남 장수경찰서와 119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6시쯤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119가 전북 장수군 산서면의 영대산 주차장에서 죽은 아내 옆에 의식을 잃은 채 쓰려져 있는 박모(74)씨를 발견, 병원으로 옮겼다. 박씨는 "암환자 보호자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현금 500만원을 준비했으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장례를 치러주십시오"라는 유서를 자신과 아내의 영정사진과 함께 둔 채 아내 지모(73)씨 옆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이날 박씨는 사위에게 자신의 위치와 함께 "뒷일을 부탁한다"며 작별 전화를 걸었다. 박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 지씨는 지난달 병원에서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박씨는 "길어야 한달 정도 (부인이)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치료를 포기하고 아내를 위해 여행을 결심했다.중고 캠핑카를 마련한 박씨는 차에 부부의 영정사진을 실었다. 또 "아내가 숨질 경우 따라가겠다"며 농약과 함께 장례비로 현금 500만원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이달 초 여행에 나섰으며 아내 지씨는 지난 30일 오전 0시쯤 전북 장수군 산서면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38.txt

제목: 애인있어요, 김현주 '과감한 상반신 누드' 청순함과 섹시함에 '아찔'  
날짜: 20150831  
기자: 박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31100000998  
본문: 애인있어요, 김현주 `과감한 상반신 누드` 청순함과 섹시함에 `아찔`애인있어요, 김현주 '과감한 상반신 누드' 청순함과 섹시함에 '아찔'드라마 애인있어요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배우 김현주가 과거 상반신 누드 화보를 촬영했던 배경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김현주는 지난 2010년 '싱글스' 10월호에서 과감한 상반신 누드 사진을 공개해 시선을 끌었던 바 있다. 당시 김현주는 에스티로더 컴퍼니가 주관한 ‘유방암 의식 향상 캠페인’ 차원에서 과감한 누드 화보 촬영에 도전했다. 사진 속에서 김현주는 풍성한 가슴을 손으로 감싼 채 긴 생머리를 휘말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당시 화보 촬영을 마친 김현주는 “<span class='quot0'>암을 이긴 여성들과 함께 촬영해 무척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span>”며 향후 유방암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혀 훈훈한 감동을 자아냈다.  한편, 김현주는 최근 종영한 주말극 ‘가족끼리 왜이래’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았다. 김현주는 예능 프로그램 ‘레이디 액션’을 통해 색다른 도전에 나설 것을 예고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39.txt

제목: 암살교실, 금발머리 여교사로 변신한 강지영 '영화 속 노출신 보니, 배우 못지 않아'  
날짜: 2015082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3649812  
본문: 암살교실, 금발머리 여교사로 변신한 강지영 `영화 속 노출신 보니, 배우 못지 않아`암살교실, 금발머리 여교사로 변신한 강지영 '영화 속 노출신 보니, 배우 못지 않아' <br/> <br/>암살교실이 개봉한 가운데 출연배우 강지영의 영화 속 노출신이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앞서 3월 공개된 영화 ‘암살교실’ 예고 영상 속에는 금발의 여교사로 고용된 암살자 이리나 옐라비치 역의 강지영이 담겨있다. 특히 강지영의 노출신이 잠깐 등장해 네티즌의 눈길을 끈 다. <br/> <br/>한편 강지영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열린 영화 ‘암살교실’ 언론 시사회에서 “너무 많이 와주셔서 놀랐다”며 “<span class='quot0'>배우로서 찾아와 처음 인사드리는건데 너무 기쁘다</span>”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br/> <br/>한편‘암살교실’은 현상금 1000억 원이 걸린 정체불명의 괴물 선생인 살선생의 암살을 두고 벌어지는 문제아 3-E반 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27일 개봉한다.  <br/> <br/>암살교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암살교실, 강지영 대박이다" "암살교실, 강지영 배우에 소질있어" "암살교실, 강지영 금발도 잘 어울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40.txt

제목: 비프리, '대마초 다른나라에서는 암 치료에 환자들 처방약인데 우리나라 법 무식하다' 충격  
날짜: 20150829  
기자: 강주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9100000160  
본문: 비프리, '대마초 다른나라에서는 암 치료에 환자들 처방약인데 우리나라 법 무식하다' 충격사진=비프리 인스타그램 제공비프리, '대마초 다른나라에서는 암 치료에 환자들 처방약인데 우리나라 법 무식하다' 충격비프리가 Mnet ‘쇼미더머니4’를 통해 이름을 알리며 과거 SNS글이 재조명되고 있다.비프리는 과거 마약 투약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이센스를 옹호하는 태도로 논란을 일으켰다.비프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마초가 미국에서는 점점 합법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환자들에게 처방해주며 암을 치료하는데 좋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센스에게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내리다니. 진짜 너무 하다"라고 말했다.비프리는 이어 "여긴 한국이다 거긴 미국이고 이러는 애들은 그럼 한국인데 왜 갓 안쓰고 다니고 왜 미국 브랜드 입고 미국 음식 먹냐 우리 나라 법이 특별히 무식하고 전세계의 흐름에 뒤따라질 필요가 있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비프리는 마지막으로 "흡연으로 1년 6개월이라니, 살인자가 징역 2년을 받는걸 내 눈으로 봤는데"라며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했다.앞서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자택 및 주차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한편 비프리는 힙합레이블 하이라이트 레코즈에 소속된 래퍼다. 2009년 EP 앨범 ‘자유의 뮤직’으로 데뷔한 뒤 2010년 1집 ‘프리덤(Freedumb)’, 2012년 2집 ‘희망’을 발표했다.인터넷팀 강주혁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41.txt

제목: 비프리, '대마초는 이스라엘에서 환자들에게 처방해주고 암까지 치료하는데...' 충격 발언  
날짜: 20150829  
기자: 강주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9100000165  
본문: 비프리, '대마초는 이스라엘에서 환자들에게 처방해주고 암까지 치료하는데...' 충격 발언사진=비프리 인스타그램 제공비프리, '대마초는 이스라엘에서 환자들에게 처방해주고 암까지 치료하는데...' 충격 발언 비프리가 Mnet ‘쇼미더머니4’를 통해 이름을 알리며 과거 SNS글이 재조명되고 있다.비프리는 과거 마약 투약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이센스를 옹호하는 태도로 논란을 일으켰다.비프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마초가 미국에서는 점점 합법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환자들에게 처방해주며 암을 치료하는데 좋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센스에게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내리다니. 진짜 너무 하다"라고 말했다.비프리는 이어 "여긴 한국이다 거긴 미국이고 이러는 애들은 그럼 한국인데 왜 갓 안쓰고 다니고 왜 미국 브랜드 입고 미국 음식 먹냐 우리 나라 법이 특별히 무식하고 전세계의 흐름에 뒤따라질 필요가 있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비프리는 마지막으로 "흡연으로 1년 6개월이라니, 살인자가 징역 2년을 받는걸 내 눈으로 봤는데"라며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했다.앞서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자택 및 주차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한편 비프리는 힙합레이블 하이라이트 레코즈에 소속된 래퍼다. 2009년 EP 앨범 ‘자유의 뮤직’으로 데뷔한 뒤 2010년 1집 ‘프리덤(Freedumb)’, 2012년 2집 ‘희망’을 발표했다.인터넷팀 강주혁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42.txt

제목: 비프리, "마약? 암치료에도 좋은거 우리나라 법만 특별히 무식하고 뒤떨어진것" 충격 디스  
날짜: 20150829  
기자: 강주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9100000036  
본문: 비프리, "마약? 암치료에도 좋은거 우리나라 법만 특별히 무식하고 뒤떨어진것" 충격 디스 사진=비프리 인스타그램 제공비프리, "마약? 암치료에도 좋은거 우리나라 법만 특별히 무식하고 뒤떨어진것" 충격 디스비프리가 Mnet ‘쇼미더머니4’를 통해 이름을 알리며 과거 SNS글이 재조명되고 있다.비프리는 과거 마약 투약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이센스를 옹호하는 태도로 논란을 일으켰다.비프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마초가 미국에서는 점점 합법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환자들에게 처방해주며 암을 치료하는데 좋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센스에게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내리다니. 진짜 너무 하다"라고 말했다.비프리는 이어 "여긴 한국이다 거긴 미국이고 이러는 애들은 그럼 한국인데 왜 갓 안쓰고 다니고 왜 미국 브랜드 입고 미국 음식 먹냐 우리 나라 법이 특별히 무식하고 전세계의 흐름에 뒤따라질 필요가 있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비프리는 마지막으로 "흡연으로 1년 6개월이라니, 살인자가 징역 2년을 받는걸 내 눈으로 봤는데"라며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했다.앞서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자택 및 주차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한편 비프리는 힙합레이블 하이라이트 레코즈에 소속된 래퍼다. 2009년 EP 앨범 ‘자유의 뮤직’으로 데뷔한 뒤 2010년 1집 ‘프리덤(Freedumb)’, 2012년 2집 ‘희망’을 발표했다.인터넷팀 강주혁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43.txt

제목: 감기 예방하는 음식 마늘, 감기 걸려도 70% 이상 증상 감소  
날짜: 2015082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3453653  
본문: 감기 예방하는 음식 마늘, 감기 걸려도 70% 이상 증상 감소감기 예방하는 음식 마늘, 감기 걸려도 70% 이상 증상 감소 <br/> <br/> <br/>감기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 필요하다. <br/> <br/> 면역력에 좋은 식재료는 사과식초, 마늘, 생강, 고추냉이, 양파, 강황 등이 있다. <br/> <br/> 감기 예방하는 음식 첫번째 식재료는 사과식초다. 사과식초에는 아세트산과 사과산 뿐만 아니라 비타민을 비롯해 미네랄 소금, 아미노산 등이 많이 함유돼 있다. <br/> <br/> <br/>감기 예방하는 음식 두번째 식재료는 마늘이다.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물질은 항균, 항바이러스 효능이 탁월하며 14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12주 동안 고농도의 알리신을 섭취한 결과 감기에 걸릴 확률이 64% 감소했고 감기에 걸렸더라도 증상이 7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br/>감기 예방하는 음식 세번째 식재료는 생강이다. 생강의 진저롤은 위장관의 운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또 진통제, 진정제, 항 염증 및 항 박테리아 기능도 있다. 이 밖에도 항암효과와 해열과 진통 및 강력한 항염증효과가 있다. <br/> <br/> <br/>감기 예방하는 음식 네번째 식재료는 고추냉이다. 고추냉이는 여러 박테리아에 효과적이며 항생제 효능이 있다. 또한 기생충을 박멸하는데 효과적인 구충제 역할도 한다. 특히 혈류에 백혈구 수를 증가시켜 면역력 증가에 효과적이다. 더불어 고추냉이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와 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다. <br/> <br/> <br/>감기 예방하는 음식 다섯번째 식재료는 양파로 양파의 케르세틴이라는 화합물은 암을 예방하고 위궤양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양파의 생리활성물질은 비타민 C의 흡수를 도와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br/> <br/> <br/>마지막 면역력을 높이는 식재료는 강황이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항산화제로서 염증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며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면역체계의 단백질 수치를 증가시켜 우리 몸이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효과적이다. <br/>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44.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 본격 출범  
날짜: 2015082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3423593  
본문:   <br/> <br/> <br/>국내 최대의 종양 임상데이터를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이 '항암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센터'를 개소해, 암 진단기술 및 항암제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보건의료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전망이다. <br/> <br/>'T2B 기반구축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신약개발 R&D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기초연구성과의 제품화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산업제품의 해외진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최은경 교수가 이끄는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를 항암분야 특화 센터로 지정했다. <br/> <br/>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7일 교육연구관 대강당에서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 개소식을 열어 본격출범을 알리고, 항암후보물질과 암 진단 및 치료기술 등의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전문가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br/> <br/>서울아산병원은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 70억, 주관기관 지원금 35억 등 총 105억원의 투자를 활용해 국내외 신규 암치료기술과 신약후보물질 개발 가속화를 위한 유효성평가 서비스 제공 등 암 연구기반 강화에 집중 지원하게 된다. <br/> <br/>최근 항암제 개발의 흐름이 면역체계 변화를 유발하는 새로운 개념의 면역종양치료제에 주목하고 있고, 현재 이뤄지는 항암치료의 저항성 극복 방안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델 확충 및 임상에 기반한 종합 서비스 제공을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br/> <br/>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암 전문 임상의사 30명을 핵심인력으로 꾸리고 국내외 임상자문 25명을 확보해 ▲초기 비임상 유효성평가 기반구축 ▲임상시료와 정보를 연계한 암 질환특화 평가모델 활용 ▲자문을 통한 임상적 유용성 판단 ▲병원 내 연구역량을 활용한 과학적 종합 R&D 서비스 ▲국내외 항암기술의 현지화(glocalization)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글로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br/> <br/>또한 선진국 규제기관의 인허가 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해 아시아에서 빈발하는 간암과 위암, 췌담도암 등의 항암제 전임상 단계부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이를 글로벌제약사의 연구 수주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br/> <br/>이날 개소식에는 다나파버 암 연구소의 폴 커쉬마이어 박사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하킴 자바라 소장이 연자로 참석했으며, 해당 기관의 항암 유효성평가 인프라를 소개하고 서울아산병원의 글로벌제약사 연구 수주 및 보건의료제품의 국외진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해 의미를 더했다. <br/> <br/>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암 환자의 약 10%가 서울아산병원을 찾는 만큼, 국내 최대의 임상데이터를 보유한 장점을 활용해 이제는 임상뿐만 아니라 기초연구부터 탄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최은경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장(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은 "앞으로 글로벌 선도 수준의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항암 후보물질, 암 진단법, 암 치료기술 등의 개발에 크게 기여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br/> <br/>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T2B 기반구축센터의 전신으로 복지부가 시범 시행한 '질환중심 유형성평가기반 구축사업'에서 '국가지정 항암 선도기술 개발지원 센터'를 운영하며 제품화 1건, 기술이전 및 임상진입 2건, 후속정부과제 22건 등 여러 성과를 도출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45.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 본격 출범  
날짜: 20150828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8100000886  
본문:  국내 최대의 종양 임상데이터를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이 '항암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센터'를 개소해, 암 진단기술 및 항암제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보건의료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전망이다.'T2B 기반구축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신약개발 R&D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기초연구성과의 제품화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산업제품의 해외진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최은경 교수가 이끄는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를 항암분야 특화 센터로 지정했다.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7일 교육연구관 대강당에서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 개소식을 열어 본격출범을 알리고, 항암후보물질과 암 진단 및 치료기술 등의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전문가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아산병원은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 70억, 주관기관 지원금 35억 등 총 105억원의 투자를 활용해 국내외 신규 암치료기술과 신약후보물질 개발 가속화를 위한 유효성평가 서비스 제공 등 암 연구기반 강화에 집중 지원하게 된다.최근 항암제 개발의 흐름이 면역체계 변화를 유발하는 새로운 개념의 면역종양치료제에 주목하고 있고, 현재 이뤄지는 항암치료의 저항성 극복 방안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델 확충 및 임상에 기반한 종합 서비스 제공을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의 강점으로 내세웠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암 전문 임상의사 30명을 핵심인력으로 꾸리고 국내외 임상자문 25명을 확보해 ▲초기 비임상 유효성평가 기반구축 ▲임상시료와 정보를 연계한 암 질환특화 평가모델 활용 ▲자문을 통한 임상적 유용성 판단 ▲병원 내 연구역량을 활용한 과학적 종합 R&D 서비스 ▲국내외 항암기술의 현지화(glocalization)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글로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또한 선진국 규제기관의 인허가 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해 아시아에서 빈발하는 간암과 위암, 췌담도암 등의 항암제 전임상 단계부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이를 글로벌제약사의 연구 수주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다나파버 암 연구소의 폴 커쉬마이어 박사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하킴 자바라 소장이 연자로 참석했으며, 해당 기관의 항암 유효성평가 인프라를 소개하고 서울아산병원의 글로벌제약사 연구 수주 및 보건의료제품의 국외진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해 의미를 더했다.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암 환자의 약 10%가 서울아산병원을 찾는 만큼, 국내 최대의 임상데이터를 보유한 장점을 활용해 이제는 임상뿐만 아니라 기초연구부터 탄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은경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장(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은 "앞으로 글로벌 선도 수준의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항암 후보물질, 암 진단법, 암 치료기술 등의 개발에 크게 기여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T2B 기반구축센터의 전신으로 복지부가 시범 시행한 '질환중심 유형성평가기반 구축사업'에서 '국가지정 항암 선도기술 개발지원 센터'를 운영하며 제품화 1건, 기술이전 및 임상진입 2건, 후속정부과제 22건 등 여러 성과를 도출했다. 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46.txt

제목: 감기 예방하는 음식 마늘, 감기 걸려도 70% 이상 증상 감소  
날짜: 20150828  
기자: 박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8100000654  
본문: 감기 예방하는 음식 마늘, 감기 걸려도 70% 이상 증상 감소감기 예방하는 음식 마늘, 감기 걸려도 70% 이상 증상 감소감기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 필요하다.면역력에 좋은 식재료는 사과식초, 마늘, 생강, 고추냉이, 양파, 강황 등이 있다.감기 예방하는 음식 첫번째 식재료는 사과식초다. 사과식초에는 아세트산과 사과산 뿐만 아니라 비타민을 비롯해 미네랄 소금, 아미노산 등이 많이 함유돼 있다.감기 예방하는 음식 두번째 식재료는 마늘이다.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물질은 항균, 항바이러스 효능이 탁월하며 14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12주 동안 고농도의 알리신을 섭취한 결과 감기에 걸릴 확률이 64% 감소했고 감기에 걸렸더라도 증상이 7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감기 예방하는 음식 세번째 식재료는 생강이다. 생강의 진저롤은 위장관의 운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또 진통제, 진정제, 항 염증 및 항 박테리아 기능도 있다. 이 밖에도 항암효과와 해열과 진통 및 강력한 항염증효과가 있다.감기 예방하는 음식 네번째 식재료는 고추냉이다. 고추냉이는 여러 박테리아에 효과적이며 항생제 효능이 있다. 또한 기생충을 박멸하는데 효과적인 구충제 역할도 한다. 특히 혈류에 백혈구 수를 증가시켜 면역력 증가에 효과적이다. 더불어 고추냉이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와 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다.감기 예방하는 음식 다섯번째 식재료는 양파로 양파의 케르세틴이라는 화합물은 암을 예방하고 위궤양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양파의 생리활성물질은 비타민 C의 흡수를 도와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마지막 면역력을 높이는 식재료는 강황이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항산화제로서 염증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며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면역체계의 단백질 수치를 증가시켜 우리 몸이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효과적이다.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47.txt

제목: 분당차병원, 암세포까지 진단하는 첨단 현미경 내시경 도입  
날짜: 2015082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2926924  
본문: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 도입식. 왼쪽부터 정혜철 호흡기내과 교수, 송말순 간호국장, 조주영 내시경센터장, 지훈상 분당차병원장, 홍성표 소화기내과장, 안희정 연구부원장, 김태웅 행정부원장. <br/>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지훈상) 내시경센터는 1000배까지 확대가 가능한 최첨단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Confocal Laser Endomicroscopy: CLE)을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br/> <br/>공초점 현미경 내시경은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특정 파장의 형광만을 감지함으로써 생체조직 구조와 생물학적 현상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공초점 현미경'에 '특수 레이저 내시경'을 결합한 것이다. <br/> <br/>1000배까지 확대할 수 있어 점막 표면과 점막하층의 세포, 조직구조를 실시간으로 관찰함으로써 광학적 조직진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미경 내시경을 통해 실시간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검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br/> <br/>공초점 현미경 내시경은 국내에 연구소와 대학병원 등 총 4대가 들어와 있으며, 일본은 10대, 미국과 유럽은 더 많은 상태로 현재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 업적이 발표되고 있다. <br/> <br/>한편 조주영 분당차병원 내시경센터장(소화기내과 교수)은 위암의 조기 진단과 관련하여 이미 미국 유명저널에 논문 두 편을 게재한 바 있다.  <br/> <br/>이 논문에 의하면 현미경 내시경은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전암단계인 위선종과 위암에 대한 진단 정확도가 94%에 달할 만큼 매우 높고 암세포의 분화도까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내시경 검사를 하는 동안 병을 진단하고 동시에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해준다. <br/> <br/>조주영 교수는 "첨단 현미경 내시경의 본격 도입으로 위암, 식도암, 대장암, 췌장암 등의 소화기암뿐만 아니라 비뇨기계, 신경계, 호흡기계 등의 암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 유용성이 기대되고 있다"며 "향후 창조의료, 혁신의료에 알맞은 의료로 외국산 내시경에 의존하지 말고 국산 내시경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국내 의료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실제로 조주영 교수는 각종 내시경 치료도구와 3D프린터를 이용한 내시경캡을 개발하는 등 국산 의료장비 개발과 실용화에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선두두자로 알려져 있다. <br/> <br/>분당차병원은 향후 공초첨 현미경 내시경을 전립선암, 신장암 등의 비뇨기암 수술과 종양의 경계가 불투명한 악성 뇌종양 수술, 폐암의 진단 및 수술 등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48.txt

제목: 말기 암환자 등친 자칭 '외솔선생', 항문에 약초 집어넣고 월 350만원씩 받아  
날짜: 20150827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3021778  
본문: 말기 암환자를 등친 세종청사 인근의 자칭 '외솔선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br/> <br/>외솔선생은 자신이 만든 약초가루를 환자 항문에 집어넣고는 월 350만원씩 받아내는 등 엉터리 진료를 해와 환자를 회복불능상태까지 빠뜨렸다. <br/> <br/>27일 세종경찰서는 세종정부청사 인근 A오피스텔에서 피해자 K씨를 상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며 고액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무면허의료업자 S씨(49)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br/> <br/>S씨는 오피스텔 6개실을 빌려 사무실, 치료실, 입원실 등으로 구분한 뒤 각 호실에 의료기기 및 한방용품을 갖춰놓고 ‘외솔선생’이라는 가명으로 인터넷을 통해 “암을 자연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해 환자를 모집했다. <br/> <br/>S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암 환자에게 약초가루를 섞어 직접 만든 약(액체)을 1m 길이의 튜브를 이용해 항문에 투입하고 월 350만원 고액 치료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또 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씨가 핏덩이를 토하고 입안이 헐고 턱에 구멍이 뚫리는 것에 대해 S씨는 '암세포가 죽어서 나온 것으로 좋은 현상이다'며 병원에도 가지 못하게 했다. <br/> <br/>이로인해 K씨는 혀 및 피부조직이 광범위하게 괴사하고 암이 전이돼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49.txt

제목: 말기암환자 우롱한 유사의료행위 적발  
날짜: 20150827  
기자: 임정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3032016  
본문: 세종경찰서는 말기암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신모(49)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br/> <br/>신씨는 세종시 한 오피스텔 6개를 빌려 치료실, 입원실 등을 차려놓고서 멋대로 만든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사이비 의료 행위를 해 말기 암환자 10여 명에게 치료비 70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그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자신을 암 치료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효소 요법 등을통해 암을 자연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해 환자를 끌어모았다. <br/> <br/>절박한 심정의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은 신씨의 말을 믿고 한 달에 350만원이라는 거액의 치료비를 건넸다. <br/> <br/>신씨는 멋대로 만든 약초 가루 등을 섞어 환부에 뿌리고, 베이킹소다 등을 섞어 만든 액체를 치료약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br/> <br/>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암세포가 죽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속이며 안심시켰다. <br/> <br/>경찰은 “<span class='quot0'>치료를 받은 환자는 상처가 덧나고 암이 전이되는 등 병세가 악화된 경우가 많았다</span>”면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br/> <br/>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50.txt

제목: '말기 암 환자 절박함 이용' 사이비 의료행위 적발  
날짜: 201508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7100000611  
본문: 말기 암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사이비 의료행위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세종경찰서는 암환자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신모(49)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신씨는 세종시 한 오피스텔 6개를 빌려 치료실, 입원실 등을 차려놓고서 멋대로 만든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사이비 의료 행위를 해 말기 암환자 10여 명에게 치료비 7천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자신을 암 치료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효소 요법 등을 통해 암을 자연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해 환자를 끌어모았다.절박한 심정의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은 신씨의 말을 믿고 한 달에 350만원이라는 거액의 치료비를 건넸다.신씨는 약초 가루 등을 섞어 환부에 뿌리고, 베이킹소다 등을 섞어 만든 액체를 치료약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이렇게 멋대로 만든 약품을 주사기를 이용해 신체에 주입하는 등 의학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은 시술을 했다.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암세포가 죽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속이며 안심시켰다.그의 치료를 받은 환자는 상처가 덧나고 암이 전이되는 등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신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51.txt

제목: 말기암환자 우롱한 유사의료행위 적발  
날짜: 20150827  
기자: 임정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7100000172  
본문: 세종경찰서는 말기암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신모(49)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신씨는 세종시 한 오피스텔 6개를 빌려 치료실, 입원실 등을 차려놓고서 멋대로 만든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사이비 의료 행위를 해 말기 암환자 10여 명에게 치료비 70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자신을 암 치료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span class='quot0'>효소 요법 등을통해 암을 자연 치료할 수 있다</span>”고 광고해 환자를 끌어모았다.절박한 심정의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은 신씨의 말을 믿고 한 달에 350만원이라는 거액의 치료비를 건넸다.신씨는 멋대로 만든 약초 가루 등을 섞어 환부에 뿌리고, 베이킹소다 등을 섞어 만든 액체를 치료약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암세포가 죽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속이며 안심시켰다.경찰은 “<span class='quot0'>치료를 받은 환자는 상처가 덧나고 암이 전이되는 등 병세가 악화된 경우가 많았다</span>”면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52.txt

제목: 말기 암환자 등친 자칭 '외솔선생', 항문에 약초 집어넣고 월 350만원씩 받아  
날짜: 20150827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7100000215  
본문: 말기 암환자를 등친 세종청사 인근의 자칭 '외솔선생'이 경찰에 검거됐다.외솔선생은 자신이 만든 약초가루를 환자 항문에 집어넣고는 월 350만원씩 받아내는 등 엉터리 진료를 해와 환자를 회복불능상태까지 빠뜨렸다. 27일 세종경찰서는 세종정부청사 인근 A오피스텔에서 피해자 K씨를 상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며 고액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무면허의료업자 S씨(49)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S씨는 오피스텔 6개실을 빌려 사무실, 치료실, 입원실 등으로 구분한 뒤 각 호실에 의료기기 및 한방용품을 갖춰놓고 ‘외솔선생’이라는 가명으로 인터넷을 통해 “암을 자연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해 환자를 모집했다.S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암 환자에게 약초가루를 섞어 직접 만든 약(액체)을 1m 길이의 튜브를 이용해 항문에 투입하고 월 350만원 고액 치료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씨가 핏덩이를 토하고 입안이 헐고 턱에 구멍이 뚫리는 것에 대해 S씨는 '암세포가 죽어서 나온 것으로 좋은 현상이다'며 병원에도 가지 못하게 했다. 이로인해 K씨는 혀 및 피부조직이 광범위하게 괴사하고 암이 전이돼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53.txt

제목: 분당차병원, 암세포까지 진단하는 첨단 현미경 내시경 도입  
날짜: 20150827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7100000360  
본문: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 도입식. 왼쪽부터 정혜철 호흡기내과 교수, 송말순 간호국장, 조주영 내시경센터장, 지훈상 분당차병원장, 홍성표 소화기내과장, 안희정 연구부원장, 김태웅 행정관리실장.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지훈상) 내시경센터는 1000배까지 확대가 가능한 최첨단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Confocal Laser Endomicroscopy: CLE)을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공초점 현미경 내시경은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특정 파장의 형광만을 감지함으로써 생체조직 구조와 생물학적 현상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공초점 현미경'에 '특수 레이저 내시경'을 결합한 것이다.1000배까지 확대할 수 있어 점막 표면과 점막하층의 세포, 조직구조를 실시간으로 관찰함으로써 광학적 조직진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미경 내시경을 통해 실시간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검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공초점 현미경 내시경은 국내에 연구소와 대학병원 등 총 4대가 들어와 있으며, 일본은 10대, 미국과 유럽은 더 많은 상태로 현재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 업적이 발표되고 있다.한편 조주영 분당차병원 내시경센터장(소화기내과 교수)은 위암의 조기 진단과 관련하여 이미 미국 유명저널에 논문 두 편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논문에 의하면 현미경 내시경은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전암단계인 위선종과 위암에 대한 진단 정확도가 94%에 달할 만큼 매우 높고 암세포의 분화도까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내시경 검사를 하는 동안 병을 진단하고 동시에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해준다.조주영 교수는 "첨단 현미경 내시경의 본격 도입으로 위암, 식도암, 대장암, 췌장암 등의 소화기암뿐만 아니라 비뇨기계, 신경계, 호흡기계 등의 암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 유용성이 기대되고 있다"며 "향후 창조의료, 혁신의료에 알맞은 의료로 외국산 내시경에 의존하지 말고 국산 내시경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국내 의료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조주영 교수는 각종 내시경 치료도구와 3D프린터를 이용한 내시경캡을 개발하는 등 국산 의료장비 개발과 실용화에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선두두자로 알려져 있다.분당차병원은 향후 공초첨 현미경 내시경을 전립선암, 신장암 등의 비뇨기암 수술과 종양의 경계가 불투명한 악성 뇌종양 수술, 폐암의 진단 및 수술 등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54.txt

제목: 현직 의사가 밝히는 의료 사용 설명서 '약 권하는 사회'  
날짜: 20150826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2557566  
본문:   <br/> <br/> <br/>우리는 몸이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든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그런데 몸이 단번에 낫지 않으면 뭔가 개운치 않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또한 암이나 낫기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에는 심한 불안을 느끼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br/> <br/>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이 책의 저자는 일반인들이 병원과 의료 행위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불안을 떨쳐내고 올바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소비자, 즉 일반인도 의료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br/> <br/> 그런 이유에서 저자는 언제든지 환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의료와 건강의 기본에 대해 의료사용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br/> <br/> 건강식품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의사의 약 처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병원은 왜 과잉치료를 하는지, 임상시험에 참가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궁금했던 것들의 실체를 잘 알려준다. <br/> <br/> 지금 서점에는 병원에 가지 말라느니 약을 먹지 말라느니 하는 식의 의료 불신과 관련된 책들이 붐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들의 내용을 궁금해 한다. 하지만 우리는 몸이 아프면 결국에는 가장 먼저 병원과 의사를 찾게 된다. 병원과 의사를 불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병원의 의료 시스템과 의사의 역할을 똑바로 알고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내용으로 가득하다. <br/> <br/> 책 전반부는 주로 약물 및 건강기능식품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환자들에게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위주로 정리하였고 후반부에서는 진료를 하면서 느끼고 생각되는 내용 위주로 정리되어있다. <br/> <br/>저자인 박창범 교수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및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의학과 함께 의료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경영학학사 및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법학학사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br/> <br/> 박창범 교수는 "현직 내과의사로서 환자들에게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나 인터넷, 신문 및 방송 등에서 보거나 들었던 내용, 그리고 의사로서 겪은 일이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솔직하면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출판의 의의를 말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55.txt

제목: 국립암센터-서울아산병원, 상호교류 협약 체결  
날짜: 20150826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2528416  
본문:   <br/> <br/> <br/>국립암센터와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5일 서울아산병원 대회의실에서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br/> <br/>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환자 진료와 임상교육을 위한 기술적 협력, 임상 및 기초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 협력, 진료 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의학정보 교환 그리고 각종 학술행사 및 교육 참여 기회 제공 등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br/> <br/>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은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연구 및 치료 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선도 암 의료기관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br/> <br/>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이번 상호교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양 기관의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연구 및 치료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글로벌 선도 암 의료기관으로 상호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서울아산병원 박성욱 병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암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양 기관이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임상 및 연구 분야의 역량을 키워나감으로써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유소라 인턴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56.txt

제목: 국립암센터-서울아산병원, 상호교류 협약 체결  
날짜: 20150826  
기자: 유소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6100000826  
본문:  국립암센터와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5일 서울아산병원 대회의실에서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환자 진료와 임상교육을 위한 기술적 협력, 임상 및 기초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 협력, 진료 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의학정보 교환 그리고 각종 학술행사 및 교육 참여 기회 제공 등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은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연구 및 치료 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선도 암 의료기관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이번 상호교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양 기관의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연구 및 치료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글로벌 선도 암 의료기관으로 상호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 박성욱 병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암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양 기관이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임상 및 연구 분야의 역량을 키워나감으로써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헬스팀 유소라 인턴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57.txt

제목: 현직 의사가 밝히는 의료 사용 설명서 '약 권하는 사회'  
날짜: 20150826  
기자: 헬스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6100000560  
본문:  우리는 몸이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든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그런데 몸이 단번에 낫지 않으면 뭔가 개운치 않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또한 암이나 낫기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에는 심한 불안을 느끼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왜 그럴까? 그 이유를 이 책의 저자는 일반인들이 병원과 의료 행위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불안을 떨쳐내고 올바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소비자, 즉 일반인도 의료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런 이유에서 저자는 언제든지 환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의료와 건강의 기본에 대해 의료사용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한다.건강식품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의사의 약 처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병원은 왜 과잉치료를 하는지, 임상시험에 참가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궁금했던 것들의 실체를 잘 알려준다.지금 서점에는 병원에 가지 말라느니 약을 먹지 말라느니 하는 식의 의료 불신과 관련된 책들이 붐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들의 내용을 궁금해 한다. 하지만 우리는 몸이 아프면 결국에는 가장 먼저 병원과 의사를 찾게 된다. 병원과 의사를 불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병원의 의료 시스템과 의사의 역할을 똑바로 알고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내용으로 가득하다.책 전반부는 주로 약물 및 건강기능식품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환자들에게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위주로 정리하였고 후반부에서는 진료를 하면서 느끼고 생각되는 내용 위주로 정리되어있다.저자인 박창범 교수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및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의학과 함께 의료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경영학학사 및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법학학사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박창범 교수는 "현직 내과의사로서 환자들에게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나 인터넷, 신문 및 방송 등에서 보거나 들었던 내용, 그리고 의사로서 겪은 일이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솔직하면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출판의 의의를 말했다. 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58.txt

제목: 드라마는 몰아봐야 제 맛…‘마성의 드라마’ 리스트  
날짜: 201508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6100000651  
본문: [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한 번 손대면 멈출 수 없다'는 광고 카피처럼 한번 보면 멈출 수 없는 드라마들이 있다. 앉은 자리에서 시간을 잊게 하는 드라마,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의 '마성의 드라마'의 몰아보기 한 판이면 늦더위마저 잊게 될 것이다.▲아직도 안 봤어? 시청자 혼 빼놓는 마성의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드라마 한번에 몰아보기를 즐기는 드라마 매니아라면, 이 드라마를 놓쳐선 안 된다. 시청자들의 혼을 빼 놓는 몰입도의 드라마로 처음 추천하는 작품은 일명 '마약드라마', ‘브레이킹 배드’다. 줄거리는 이렇다. 평범하게 살던 화학 교사 월터 화이트 (Walter White, 브라이언 크랜스톤)가 갑작스레 암 선고를 받은 후 가족을 위해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자 한다. 막대한 유산을 만들기 위해 택한 일은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 그로 인해 마약을 만드는 상세한 과정과 월터가 마약상 하이젠버그로 살아가는 또 다른 삶까지 눈 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전개가 펼쳐진다.특히 주목할만 한 점은 이 드라마를 본 시청자가 드라마 속 마약 제조과정을 따라해 실제 마약을 제조하기도 했다는 것, 드라마의 디테일이 어느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게하는 에피소드이다. 극은 마약상으로 쫓고 쫓기는 추격전에 자신의 가족까지 가세해 가슴 뛰는 스릴을 더함은 물론, '가족을 위함'이라는 한 가장의 드라마까지. 한 순간도 놓칠 수 없는 스토리는 퇴근 후 한편으로 시작해 아침이 오게 만들지도 모른다. 어쩌면 다섯 시리즈를 한 자리에서 보게 될지도.▲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마성의 드라마 ‘왕좌의 게임’허구의 세계인줄 알면서도 그 세계에 빠져든다. 내용인 즉 제목 그대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다. 허구의 세계인 웨스테로스 대륙의 7개의 국가와 하위 몇 개의 국가들로 구성된 연맹 국가인 칠 왕국의 통치권, 철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피 튀기는 전쟁의 이야기로 그 권력을 위한 암투에는 죽음은 물론 배신도 난무하다. ‘왕좌의 게임’에서 눈 뗄 수 없는 포인트는 바로 '예측불가'한 전개. 누군가 왕좌에 앉을 거라 예측하는 순간, 그의 목이 잘리는 것을 1분만에 보게 될 수 도 있다. 걷잡을 수 없는 전개로 시청자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함은 물론 피비린내 나는 권력 전쟁 속에도 사랑은 뜨겁게 이어지고 중세시대라도 있을리 만무한 용과 마녀의 등장마저도 판타지가 아닌 실제로 여겨지며 시청자들을 빨아들인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왕좌의 쟁취 싸움에 시청자마저 그 왕좌를 눈독들이게 만드는 몰입도로 중독성까지 겸한 이 마성의 드라마는 시즌마다 화제를 모으며 여섯 번째 시즌에도 기다림을 넘어 매니아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초조함까지 더하고 있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회만 본 사람은 없다는 이 드라마, 시즌 다시보기부터 시작하자.▲싸움은 늘 지금부터야! 죽지 않는 남자 장태호의 리얼 액션기 ‘라스트’지난 이야기 보다 지금의 이야기가 보고 싶다면, 새로운 시즌을 기다리지 않고 매주 다음화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면 매주 살기 위해 살아남는 남자 장태호(윤계상)를 몰아보자. 주식 작전을 펼치다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의 끝에서 서울역 지하세계 100억 규모의 서열 구조를 알게 된 남자 장태호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스펙타클하다. 의외의 주먹으로 단숨에 넘버 세븐의 자리를 차지하고 서열 싸움에 뛰어들게 된 장태호가 매 단계별로 상대를 쓰러뜨려가는 액션의 재미는 드라마에서 볼 수 없던 스케일까지 자랑한다. 특히 주인공 장태호 역을 맡은 윤계상의 맨주먹 액션은 여름날 열대야를 잊게 만드는 통쾌함과 시원함을 선사하기도. 눈 뗄 수 없는 포인트는 액션만이 아니다. 몸 싸움은 물론 두뇌싸움까지 가능한 남자 장태호의 인생 역전기에는 수십억이 오가는 사기극은 물론 포커페이스의 눈치싸움도 팽팽하다. 단, 서울역 바닥에서 한 순간의 실수는 목숨을 담보로 하기에 매회가 삶과 죽음의 문턱이고, 장태호는 극중 뜨거운 야망으로 '죽지 않는 남자'라는 타이틀을 얻고 있다. 때문에 매회 스릴 넘치는 전개와 박진감 넘치는 액션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이 마성의 드라마가 10회까지 가열차게 달려온 지금. 밤샘은 기본, 앞의 전개를 매주 마주하기 위해 몰아보기가 시급하다.드라마 매니아들을 TV 앞, 모니터 앞에 발 묶이게 할 극강 몰입도의 이 드라마들. 한 회 한 회가 소중하고 한 번 보면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드라마들, 지금 다시 보고 몰아 볼 필요가 있다.cccjjjaaa@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59.txt

제목: 선병원, 세계 석학 마사시 사이토 초청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5082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2046992  
본문:   <br/> <br/> <br/>선병원재단 유성선병원 암센터는 25일 개원 3주년을 맞아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의 저자이자 할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주치의였던 마사시 사이토 박사를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br/> <br/>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병원을 찾은 마사시 사이토 박사는 종양내과 전문의이자 안티에이징(항노화) 관련 미국 전문의로 미국, 유럽 등을 오가며 안티에이징과 면역력을 이용한 암 치료 전문가로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는 석학이다. <br/> <br/>특히 마사시 사이토 박사는 면역체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 원칙을 발견한 업적으로 2011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랄프 스타인만 박사의 수제자다. <br/> <br/>이번 심포지엄에서 마사시 사이토 박사는 수술·항암제·방사선 치료에 이어 ‘제 4의 암 치료법’으로 불리는 광역동 치료(Photodynamic therapy, PDT)와 ALA-PDT에 대해 소개했으며, 선병원 암 전문의들이 대거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임은 물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br/> <br/>광역동 치료(PDT)는 빛을 조사하면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종양 조직을 파괴하는 광감각제를 정맥주사로 암조직에 축적시킨 후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br/> <br/>광역동 치료법은 정상세포는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후유증 및 부작용이 적고 약제 내성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령이나 전신 쇠약 등으로 일반적인 암 치료를 체력적으로 견디기 힘든 환자에서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광감각제인 ALA와 함께 항암치료나 온열치료와 병행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선두훈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선병원 암센터는 세계 석학들의 수준 높은 암치료 연구 사례를 공유해 암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최신 기술과 임상연구 동향을 반영하고자 매년 이같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하고 선진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암 치료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선병원은 2012년 암센터 개원 이후 암 등록환자가 5600여명을 넘어섰으며, 골종양·소아정형 분야 명의 이승구 박사, 부인암수술 분야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최석철 박사를 비롯해 각 장기별로 복강경 암수술이 가능한 외과 및 혈액종양내과팀 명의를 지속적으로 영입하며 암 치료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60.txt

제목: 제일약품, 대장암 치료제 공동연구개발 협약 체결  
날짜: 20150825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2159365  
본문:   <br/> <br/> <br/>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과 항암신약개발사업단(단장 김인철)이 공동으로 환자 맞춤형 신규 대장암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br/> <br/> 제일약품은 최근 '국립 암 센터'가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항암신약개발사업단'과 신규 대장암 치료제 'JPI-547'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br/> <br/> 'JPI-547'은 암세포의 DNA 손상을 복구하는 효소들을 표적으로 하는 신규 경구용 항암제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NRF-2013M3A9A9051530)에 선정되어 2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도출 되었으며, 서울아산병원 선도형 암 연구사업단(단장 이정신)의 김태원(종양내과), 진동훈(융합의학과)교수팀이 중개연구를 통해 대장암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신규 동반  진단 바이오마커를 발굴, 특허출원과 함께 제일약품으로 기술 이전하는 성과를 거둔 신약 후보물질이다. <br/> <br/> 김인철 항암신약개발사업단장은 "제일약품에서 개발한 'JPI-547'은 신규 동반 진단 바이오마커를 보유하여 크게 기대되는 항암 신약 후보물질로 전임상, 임상1상 및 초기 효력 임상시험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예상되며 'JPI-547'이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br/> <br/> 이에 제일약품 성석제 대표이사는 "대장암은 재발률이 가장 높은 암 종으로 재발 시에 치료가 매우 어렵다. 'JPI-547'은 신규 바이오마커를 적용한 국내 최초의 대장암 치료제로서 항암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환자 맞춤형 표적 항암 치료제이다. 앞으로  신속한 임상 2A시험을 통한 글로벌 기술이전과 동시에 국내 임상 3상을 Fast tract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br/> <br/> 한편 국립 암 센터의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의 질환이며, 이중 대장암은 해마다 매우 높은 사망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장암은 남성에게서 위암 다음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국내 대장암 발병률이 인구 10만명당 45명에 달해 육식을 즐기는 서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61.txt

제목: 초기 폐암, 폐 20~25% 절제와 5~10% 절제에 폐암 환자의 생존율은 차이 없다  
날짜: 20150825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2059587  
본문: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강창현 교수의 흉강경 수술 <br/>초기 폐암에 있어서는 폐를 작게 절제(폐의 5~10%)해도 생존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지금까지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은 조기에 발견해도 재발 방지를 위해 폐를 크게 절제(폐의 20~25%)했었다. <br/> <br/>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강창현 교수 연구팀은 05년부터 13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흉강경 수술을 받은 초기 폐암 환자 중 폐엽절제술(폐의 20~25% 절제)을 받은 환자 94명과 구역절제술(폐의 5~10% 절제)을 받은 환자 94명을 비교 분석했다. <br/> <br/> 폐는 5개의 폐엽으로 구성되는데, 오른쪽 폐는 3개(우상엽, 우중엽, 우하엽), 왼쪽 폐는 2개(좌상엽, 좌하엽)로 나뉜다. 각 엽들은 해부학적으로 각각 2~6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br/> <br/> 암이 존재하는 폐엽 전체를 떼어내면 폐엽절제술, 폐엽 내에서 암이 존재하는 한 구역만 떼어내면 구역절제술이라 한다. <br/> <br/> 그 결과, 흉강경 폐엽절제술 환자의 3년 생존율은 96%로 흉강경 구역절제술 환자의 94%와 차이가 없었다. 폐암 수술 환자의 3년 생존율이 90%를 넘는 것은 세계적인 결과다. <br/> <br/> 연구팀은 폐 절제 후 폐 기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흉강경 폐엽절제술 환자의 폐 기능은 11% 감소한 반면, 흉강경 구역절제술은 8.9%에 그쳤다. 폐를 적게 절제할수록, 폐 기능은 최대한 보존되었다. <br/> <br/> 최근 흉강경 수술의 발전으로 흉강경 폐엽절제술이 폐암의 기본 수술법으로 정립됐다. 그러나 폐의 20~25%를 제거해야 해, 폐 기능이 안 좋은 고령이나 폐질환 환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웠다. <br/> <br/> 흉강경 구역절제술은 폐의 5~10%만 제거하므로 폐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작게 절제하면 폐암 재발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높은 수술 난이도로 많이 시행되지 않았다. <br/> <br/> 강창현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초기 폐암 환자에서 흉강경 구역절제술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고, 흉강경 폐엽절제술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으며, 우수한 폐암 완치율을 확인했다</span>” 며 “<span class='quot0'>이 결과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흉강경 구역절제술 결과로,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선도적인 결과다</span>” 라고 말했다. <br/> <br/> 이번 연구는 ‘Comparison of thoracoscopic segmentectomy and thoracoscopic lobectomy on the patients with non-small cell lung cancer: a propensity score matching study’ 라는 제목으로 국제 저명 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Cardiothoracic Surgery에 게재됐다. <br/> <br/> 현재 흉강경 구역절제술은 폐암 중 비교적 예후가 양호한 최소 침습 폐선암의 환자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일부 조기 폐암환자 중 고령이거나 폐 기능이 나쁜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br/> <br/>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62.txt

제목: 일본 성마리아병원 임직원, 대전성모병원 방문  
날짜: 2015082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2046363  
본문: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박재만 병원장(왼쪽 세번째)과 일본 성마리아병원 이데요시오 이사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양 병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r/>일본 사회의료법인 눈의성모회 성마리아 병원(이사장 이데 요시오) 일행이 25일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병원장 박재만 신부)을 방문했다. <br/> <br/>이데 요시오 이사장과 직원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병동을 둘러봤다. <br/> <br/>또한 말기 암환자들의 통증관리와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br/> <br/>한편 일본 후쿠오카에 위치한 성마리아 병원은 41개 진료과 1097병상을 운영하는 대형 병원으로 지난 1988년 한국가톨릭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교류의 일환으로 매년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을 비롯한 회원병원과 의료진 및 직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63.txt

제목: 선병원, 세계 석학 마사시 사이토 초청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50825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5100000522  
본문:  선병원재단 유성선병원 암센터는 25일 개원 3주년을 맞아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의 저자이자 할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주치의였던 마사시 사이토 박사를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병원을 찾은 마사시 사이토 박사는 종양내과 전문의이자 안티에이징(항노화) 관련 미국 전문의로 미국, 유럽 등을 오가며 안티에이징과 면역력을 이용한 암 치료 전문가로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는 석학이다.특히 마사시 사이토 박사는 면역체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 원칙을 발견한 업적으로 2011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랄프 스타인만 박사의 수제자다.이번 심포지엄에서 마사시 사이토 박사는 수술·항암제·방사선 치료에 이어 ‘제 4의 암 치료법’으로 불리는 광역동 치료(Photodynamic therapy, PDT)와 ALA-PDT에 대해 소개했으며, 선병원 암 전문의들이 대거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임은 물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광역동 치료(PDT)는 빛을 조사하면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종양 조직을 파괴하는 광감각제를 정맥주사로 암조직에 축적시킨 후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치료법이다.광역동 치료법은 정상세포는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후유증 및 부작용이 적고 약제 내성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령이나 전신 쇠약 등으로 일반적인 암 치료를 체력적으로 견디기 힘든 환자에서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광감각제인 ALA와 함께 항암치료나 온열치료와 병행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선두훈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선병원 암센터는 세계 석학들의 수준 높은 암치료 연구 사례를 공유해 암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최신 기술과 임상연구 동향을 반영하고자 매년 이같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하고 선진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암 치료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span>”고 말했다.한편 선병원은 2012년 암센터 개원 이후 암 등록환자가 5600여명을 넘어섰으며, 골종양·소아정형 분야 명의 이승구 박사, 부인암수술 분야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최석철 박사를 비롯해 각 장기별로 복강경 암수술이 가능한 외과 및 혈액종양내과팀 명의를 지속적으로 영입하며 암 치료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64.txt

제목: 제일약품, 대장암 치료제 공동연구개발 협약 체결  
날짜: 20150825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5100000856  
본문:  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과 항암신약개발사업단(단장 김인철)이 공동으로 환자 맞춤형 신규 대장암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제일약품은 최근 '국립 암 센터'가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항암신약개발사업단'과 신규 대장암 치료제 'JPI-547'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JPI-547'은 암세포의 DNA 손상을 복구하는 효소들을 표적으로 하는 신규 경구용 항암제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NRF-2013M3A9A9051530)에 선정되어 2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도출 되었으며, 서울아산병원 선도형 암 연구사업단(단장 이정신)의 김태원(종양내과), 진동훈(융합의학과)교수팀이 중개연구를 통해 대장암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신규 동반  진단 바이오마커를 발굴, 특허출원과 함께 제일약품으로 기술 이전하는 성과를 거둔 신약 후보물질이다.김인철 항암신약개발사업단장은 "제일약품에서 개발한 'JPI-547'은 신규 동반 진단 바이오마커를 보유하여 크게 기대되는 항암 신약 후보물질로 전임상, 임상1상 및 초기 효력 임상시험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예상되며 'JPI-547'이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이에 제일약품 성석제 대표이사는 "대장암은 재발률이 가장 높은 암 종으로 재발 시에 치료가 매우 어렵다. 'JPI-547'은 신규 바이오마커를 적용한 국내 최초의 대장암 치료제로서 항암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환자 맞춤형 표적 항암 치료제이다. 앞으로  신속한 임상 2A시험을 통한 글로벌 기술이전과 동시에 국내 임상 3상을 Fast tract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한편 국립 암 센터의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의 질환이며, 이중 대장암은 해마다 매우 높은 사망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장암은 남성에게서 위암 다음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국내 대장암 발병률이 인구 10만명당 45명에 달해 육식을 즐기는 서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65.txt

제목: “두경부암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 90%”  
날짜: 2015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5100000007  
본문: 두경부암(頭頸部癌, Head and neck cancer)은 머리와 목에 생기는 암으로, 연간 4400명 정도 발병하는 비교적 드문 암이다. 크게 후두암, 구강암, 구인두암, 하인두암, 비인두암, 비강 및 부비동암, 침샘암, 원발부위미상 경부전이암 등으로 나뉜다. 치료가 매우 어렵지만 조기에 진단하면 완치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학교암병원 갑상선·구강·두경부암센터 하정훈 교수(이비인후과)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접 치료한 두경부암 환자 516명의 예후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하정훈 교수 수술 모습.조기 두경부암일수록 암 생존율은 높게 나타났다. 조기 두경부암은 주변조직의 침범이 거의 없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4㎝ 미만의 종괴로 기수로는 1, 2기 암이다.후두암 중 가장 많은 성문암(성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기(100%), 2기(100%), 3기(66.7%), 4기(44.2%)로 나타났다. 구강암 중 가장 많은 설암(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기(100%), 2기(88.9%), 3기(88.9%), 4기(58.3%)로 나타났다. 구인두암 중 가장 많은 편도암 환자의 5년 생존율도 1기(100%), 2기(100%), 3기(87.5%), 4기(82.5%)로 나타났다.두경부암은 전 세계에서 증가 추세다. 구인두암을 제외한 4기의 진행성 두경부암은 절반 정도 환자에서 재발했고, 재치료에도 30∼40%는 사망했다. 이 환자들은 식도암, 폐암, 간암 등 다른 이차암을 가진 경우도 많아 5년 생존율은 약 50%에 불과했다.두경부암은 생기는 부위에 따라 성질이 다르고 치료방법도 차이가 있다.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을 잘 선택에서 치료해야 하는데 워낙 다양하고 드물어 치료가 매우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 후에도 미용에서 후유증이 크고, 말하고 숨 쉬고 음식을 삼키는 기능에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흔하다.하 교수는 “<span class='quot0'>두경부암의 조기진단은 매우 중요한데, 구강암이나 후두암은 조기 진단이 비교적 쉽고, 치료가 간단하고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완치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목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으면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고 금연, 금주, 구강 위생 관리, 건강한 성생활이 두경부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span>”고 밝혔다.김희원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66.txt

제목: 초기 폐암, 폐 20~25% 절제와 5~10% 절제에 폐암 환자의 생존율은 차이 없다  
날짜: 20150825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5100000800  
본문: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강창현 교수의 흉강경 수술초기 폐암에 있어서는 폐를 작게 절제(폐의 5~10%)해도 생존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금까지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은 조기에 발견해도 재발 방지를 위해 폐를 크게 절제(폐의 20~25%)했었다.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강창현 교수 연구팀은 05년부터 13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흉강경 수술을 받은 초기 폐암 환자 중 폐엽절제술(폐의 20~25% 절제)을 받은 환자 94명과 구역절제술(폐의 5~10% 절제)을 받은 환자 94명을 비교 분석했다.폐는 5개의 폐엽으로 구성되는데, 오른쪽 폐는 3개(우상엽, 우중엽, 우하엽), 왼쪽 폐는 2개(좌상엽, 좌하엽)로 나뉜다. 각 엽들은 해부학적으로 각각 2~6개의 구역으로 나뉜다.암이 존재하는 폐엽 전체를 떼어내면 폐엽절제술, 폐엽 내에서 암이 존재하는 한 구역만 떼어내면 구역절제술이라 한다.그 결과, 흉강경 폐엽절제술 환자의 3년 생존율은 96%로 흉강경 구역절제술 환자의 94%와 차이가 없었다. 폐암 수술 환자의 3년 생존율이 90%를 넘는 것은 세계적인 결과다.연구팀은 폐 절제 후 폐 기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흉강경 폐엽절제술 환자의 폐 기능은 11% 감소한 반면, 흉강경 구역절제술은 8.9%에 그쳤다. 폐를 적게 절제할수록, 폐 기능은 최대한 보존되었다.최근 흉강경 수술의 발전으로 흉강경 폐엽절제술이 폐암의 기본 수술법으로 정립됐다. 그러나 폐의 20~25%를 제거해야 해, 폐 기능이 안 좋은 고령이나 폐질환 환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웠다.흉강경 구역절제술은 폐의 5~10%만 제거하므로 폐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작게 절제하면 폐암 재발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높은 수술 난이도로 많이 시행되지 않았다.강창현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초기 폐암 환자에서 흉강경 구역절제술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고, 흉강경 폐엽절제술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으며, 우수한 폐암 완치율을 확인했다</span>” 며 “<span class='quot0'>이 결과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흉강경 구역절제술 결과로,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선도적인 결과다</span>” 라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Comparison of thoracoscopic segmentectomy and thoracoscopic lobectomy on the patients with non-small cell lung cancer: a propensity score matching study’ 라는 제목으로 국제 저명 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Cardiothoracic Surgery에 게재됐다.현재 흉강경 구역절제술은 폐암 중 비교적 예후가 양호한 최소 침습 폐선암의 환자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일부 조기 폐암환자 중 고령이거나 폐 기능이 나쁜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67.txt

제목: 일본 성마리아병원 임직원, 대전성모병원 방문  
날짜: 20150825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5100000738  
본문: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박재만 병원장(왼쪽 세번째)과 일본 성마리아병원 이데요시오 이사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양 병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일본 사회의료법인 눈의성모회 성마리아 병원(이사장 이데 요시오) 일행이 25일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병원장 박재만 신부)을 방문했다.이데 요시오 이사장과 직원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병동을 둘러봤다.또한 말기 암환자들의 통증관리와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한편 일본 후쿠오카에 위치한 성마리아 병원은 41개 진료과 1097병상을 운영하는 대형 병원으로 지난 1988년 한국가톨릭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교류의 일환으로 매년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을 비롯한 회원병원과 의료진 및 직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68.txt

제목: 완치가 없다? 끈질긴 염증성 장질환  
날짜: 20150825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5100000433  
본문:  염증성 장질환은 아직까지 특별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서구적 식습관, 특히 인스턴트를 위주로 한 자극적인 식생활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인에게 만연한 스트레스나 과음도 일정 부분 관련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발율이 높고 통증의 강도가 세며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불편을 초래하는 염증성 장질환은 평생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는 ‘염증성 장질환’우리나라 사람에게 새롭게 부각되는 소화기 질환의 하나가 염증성 장질환이다.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란 대장과 소장에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기전이 있어서 장에 염증성 병변이 발생하는 질환을 총칭한다. 특정 세균에 의한 장염이나 식중독이 발생하였다면 원인균만 제거되면 증상은 호전되고 환자는 큰 어려움 없이 회복될 수 있다.그러나 만성 염증성 장질환은 결핵성 장염을 제외하면 병의 원인을 아직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였고,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게 되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다. 또한 장기화하게 되면 악성 종양으로의 이행율이 비교적 높아 한번 발병하면 거의 평생을 병과 싸워야 하는 고질병으로 알려져 왔다.◆염증성 장질환의 종류는?크게 네 가지 질환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결핵성 장염, 그리고 베체트병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결핵성장염은 한국동란을 전후하여 결핵이 만연하면서 폐결핵에 이어 결핵성 장염 환자도 많이 발생하였으나 예방접종과 화학요법을 비롯한 국가의 결핵 퇴치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실제 임상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질환이 되었다.이와 반대로 채식 위주의 우리나라 식생활이 지난 20년간 서구화되면서 육류를 위시한 지방단백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아울러 패스트푸드와 같은 먹을거리가 주변에 많아짐에 따라 장질환도 서구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결과 서양인, 특히 백인에게 호발한다고 알려져 왔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우리나라에서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이와는 달리 베체트병은 서구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지만 일본, 중국, 중동, 지중해 연안국가 등과 우리나라에서 호발하고 있다. 1937년 터키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어 명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첫 환자를 보고하였다. 구강과 성기부에 궤양이 생기고 안질환을 동반하는 등 피부, 관절,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 전신적으로 다양한 장기를 함께 침범하는 매우 복잡한 질환으로 소화기 중에서도 말단 회장과 맹장을 자주 침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염증성 장질환이 있으면 대장암 가능성이 커진다?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윤지영 과장은 “일반적으로 염증성 장질환은 대장암 발생의 위험인자로 구분한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은 일반인에 비하여 10~20배 정도의 대장암 발생위험도가 있고 유병기간이 길수록, 병변부위가 넓을수록 위험도가 증가한다.”며 “전암병변(다른 상태보다도 고빈도로 암이 되기 쉬운 병변)이나 조기 대장암의 발견을 위한 감시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크론병도 대장암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하여 높고 특히 복잡치루나 항문협착 등의 난치성 항문질환이 심한 환자들이 고위험군이지만 궤양성 대장염 환자처럼 대장암의 감시검사가 모든 환자에게 다 필요한 건 아니다.◆염증성 장질환에 필요한 식이요법은?도움이 되는 특별한 음식은 없으며, 충분한 영양 공급과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 증상을 악화시키는 음식으로는 콩, 절인 채소, 오렌지, 레몬, 과일 주스, 시거나 맵고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마가린, 설탕,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우유 등을 들 수 있지만, 이러한 음식들이 항상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 식사 일지를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서 식사와 증상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69.txt

제목: 중·장년층 환절기 대표 질환 대상포진·독감 주의보  
날짜: 20150825  
기자: azahoit@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5100000139  
본문: 한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아침 저녁 공기는 차가워졌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는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다.환절기에 주의해야 할 키워드는 중·장년층, 만성질환, 바이러스질환이다. 평생 삶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대상포진, 독감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이나 만성 질환자는 발병 위험이 더 높다. 따라서 본격적인 환절기를 앞두고 미리 주요 바이러스 질환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계절 사이 파고드는 대상포진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질환은 외부로부터 감염되지만 이미 몸 안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병하는 질환이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어렸을 적 수두를 일으킨 뒤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될 때 몸 안에서 발병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이 높아져 65세 이상의 발생률은 젊은 층의 8∼10배에 달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질환인 셈이다.대상포진은 몸 안에서 신경절을 따라 발병하기 때문에 수십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신경 통증을 동반한다. 통증을 겪어본 환자들은 산통이나 만성 암환자의 통증보다 심하다고 증언한다. 통증은 수주에서 수년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더욱이 대상포진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발병 부위에 따라 각막염, 안면마비, 시력·청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고 뇌졸중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대상포진은 심각한 통증뿐 아니라 합병증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우울증, 진료비 부담 등의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하기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각종 변종으로 진화하는 독감독감은 가장 흔한 환절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외부로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인후통, 콧물 등 호흡기 증상과 함께 두통, 발열, 근육통 같은 전신 증상을 동반한다. 고령자, 만성질환자가 걸리면 기저질환의 악화나 폐렴 등의 중증 합병증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유행을 일으키며, 유행 시작 후 2∼3주 내에 인구의 10∼20%가 감염될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높기에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은 대비하는 것이 좋다.최근 세계에서 독감이 우려되는 이유는 각종 변형된 형태로 등장해 기존 백신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2009년 세계를 강타한 신종플루로 한국에서만 25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또 매년 새로운 형태의 조류독감에 이어 올해는 홍콩독감까지 세계에 각종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으로 변형 바이러스의 출현이 더 빨리, 더 자주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백신 접종으로 대상포진·독감 예방대상포진과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다. 현재까지 대상포진 백신은 MSD의 조스타박스가 유일하다. 대상포진은 50세 이상에서 평생 1회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연령에 따라 70∼51%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덜 아프게 지나가는 효과가 있다. 대상포진 고위험군인 50세 이상 중·장년층, 만성질환자, 폐경기 여성 등은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좋다.독감은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달라지기에 1년에 한 번씩 접종이 필요하며,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인 9월부터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 최근 신종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SK케미칼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한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가 주목받고 있다. 세포배양식 독감백신은 기존 6개월이던 백신 생산 기간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여 기존 예방 백신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변종 독감 바이러스에도 빠르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백신은 20일부터 전국에서 접종을 시작했다.대상포진과 독감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하기에 병원을 방문해서 한 번에 접종하면 접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황환식 교수는 “<span class='quot0'>면역력이 저하된 중·장년층의 경우 바이러스 질환 및 합병증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특히 환절기를 앞두고 주요 바이러스 질환인 대상포진과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50세 이상은 병원 방문 때 두 백신을 같이 접종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span>”고 말했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70.txt

제목: 이화의료원, 김승철 의료원장·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취임  
날짜: 2015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5100000173  
본문: 〔스포츠월드=윤정한 기자〕 김승철 신임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병원의 희망찬 재도약을 천명했다.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24일 이대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윤후정 이화여자대학교 명예총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과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새누리당 길정우 국회의원과 김용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국회의원 등 내외귀빈이 참여한 가운데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김 의료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래 성장 동력 구축과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제2부속병원(마곡 지구)의 성공적인 개원을 이끌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제2의 도약을 이룰 것임을 밝혔다.그는 취임사를 통해 “<span class='quot0'>이대목동병원과 이대여성암병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제2부속병원의 성공적 개원을 철저히 준비하겠다</span>”고 전제하고, ‘미래 성장 동력 구축’,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문화 개선’, ‘윤리경영을 통한 대학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 실천’ 등 3가지 경영 방침을 제시했다.김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1'>미래 성장 동력 구축을 위해 ‘병원별 차별화된 특성화로 의료 서비스 역량 제고 및 대외 경쟁력 확보’, ‘연구 역량 강화와 연구 중심 병원 추진으로 미래 수익 기반 확보’를 중점 추진하겠다</span>”고 밝히고 “<span class='quot1'>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비효율적 제도나 규정, 비생산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span>”고 말했다.한편, 김 의료원장은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UIHC 부인암 연구소 연구 교수를 지낸 바 있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 의무부장, 이대목동병원장과 함께 이대여성암병원장,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장, 이화융합의학연구원장을 역임하며 병원의 성장과 함께해왔다.yun0086@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71.txt

제목: 중·장년층 환절기 대표 질환 대상포진·독감 주의보  
날짜: 20150824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1818798  
본문: 한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아침 저녁 공기는 차가워졌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는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다. <br/> <br/>환절기에 주의해야 할 키워드는 중·장년층, 만성질환, 바이러스질환이다. 평생 삶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대상포진, 독감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이나 만성 질환자는 발병 위험이 더 높다. 따라서 본격적인 환절기를 앞두고 미리 주요 바이러스 질환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br/> <br/>◆계절 사이 파고드는 대상포진 <br/> <br/>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질환은 외부로부터 감염되지만 이미 몸 안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병하는 질환이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어렸을 적 수두를 일으킨 뒤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될 때 몸 안에서 발병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이 높아져 65세 이상의 발생률은 젊은 층의 8∼10배에 달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질환인 셈이다. <br/> <br/>대상포진은 몸 안에서 신경절을 따라 발병하기 때문에 수십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신경 통증을 동반한다. 통증을 겪어본 환자들은 산통이나 만성 암환자의 통증보다 심하다고 증언한다. 통증은 수주에서 수년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더욱이 대상포진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발병 부위에 따라 각막염, 안면마비, 시력·청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고 뇌졸중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대상포진은 심각한 통증뿐 아니라 합병증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우울증, 진료비 부담 등의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하기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r/> <br/>◆각종 변종으로 진화하는 독감 <br/> <br/>독감은 가장 흔한 환절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외부로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인후통, 콧물 등 호흡기 증상과 함께 두통, 발열, 근육통 같은 전신 증상을 동반한다. 고령자, 만성질환자가 걸리면 기저질환의 악화나 폐렴 등의 중증 합병증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유행을 일으키며, 유행 시작 후 2∼3주 내에 인구의 10∼20%가 감염될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높기에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은 대비하는 것이 좋다. <br/> <br/>최근 세계에서 독감이 우려되는 이유는 각종 변형된 형태로 등장해 기존 백신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2009년 세계를 강타한 신종플루로 한국에서만 25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또 매년 새로운 형태의 조류독감에 이어 올해는 홍콩독감까지 세계에 각종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으로 변형 바이러스의 출현이 더 빨리, 더 자주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r/> <br/>◆백신 접종으로 대상포진·독감 예방 <br/> <br/>대상포진과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다. 현재까지 대상포진 백신은 MSD의 조스타박스가 유일하다. 대상포진은 50세 이상에서 평생 1회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연령에 따라 70∼51%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덜 아프게 지나가는 효과가 있다. 대상포진 고위험군인 50세 이상 중·장년층, 만성질환자, 폐경기 여성 등은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좋다. <br/> <br/>독감은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달라지기에 1년에 한 번씩 접종이 필요하며,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인 9월부터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 최근 신종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SK케미칼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한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가 주목받고 있다. 세포배양식 독감백신은 기존 6개월이던 백신 생산 기간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여 기존 예방 백신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변종 독감 바이러스에도 빠르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백신은 20일부터 전국에서 접종을 시작했다. <br/> <br/>대상포진과 독감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하기에 병원을 방문해서 한 번에 접종하면 접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황환식 교수는 “<span class='quot0'>면역력이 저하된 중·장년층의 경우 바이러스 질환 및 합병증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특히 환절기를 앞두고 주요 바이러스 질환인 대상포진과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50세 이상은 병원 방문 때 두 백신을 같이 접종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72.txt

제목: “두경부암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 90%”  
날짜: 20150824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1819408  
본문: 두경부암(頭頸部癌, Head and neck cancer)은 머리와 목에 생기는 암으로, 연간 4400명 정도 발병하는 비교적 드문 암이다. 크게 후두암, 구강암, 구인두암, 하인두암, 비인두암, 비강 및 부비동암, 침샘암, 원발부위미상 경부전이암 등으로 나뉜다. 치료가 매우 어렵지만 조기에 진단하면 완치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서울대학교암병원 갑상선·구강·두경부암센터 하정훈 교수(이비인후과)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접 치료한 두경부암 환자 516명의 예후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br/> <br/> 하정훈 교수 수술 모습.조기 두경부암일수록 암 생존율은 높게 나타났다. 조기 두경부암은 주변조직의 침범이 거의 없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4㎝ 미만의 종괴로 기수로는 1, 2기 암이다. <br/> <br/>후두암 중 가장 많은 성문암(성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기(100%), 2기(100%), 3기(66.7%), 4기(44.2%)로 나타났다. 구강암 중 가장 많은 설암(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기(100%), 2기(88.9%), 3기(88.9%), 4기(58.3%)로 나타났다. 구인두암 중 가장 많은 편도암 환자의 5년 생존율도 1기(100%), 2기(100%), 3기(87.5%), 4기(82.5%)로 나타났다. <br/> <br/>두경부암은 전 세계에서 증가 추세다. 구인두암을 제외한 4기의 진행성 두경부암은 절반 정도 환자에서 재발했고, 재치료에도 30∼40%는 사망했다. 이 환자들은 식도암, 폐암, 간암 등 다른 이차암을 가진 경우도 많아 5년 생존율은 약 50%에 불과했다. <br/> <br/>두경부암은 생기는 부위에 따라 성질이 다르고 치료방법도 차이가 있다.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을 잘 선택에서 치료해야 하는데 워낙 다양하고 드물어 치료가 매우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 후에도 미용에서 후유증이 크고, 말하고 숨 쉬고 음식을 삼키는 기능에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흔하다. <br/> <br/>하 교수는 “<span class='quot0'>두경부암의 조기진단은 매우 중요한데, 구강암이나 후두암은 조기 진단이 비교적 쉽고, 치료가 간단하고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완치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목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으면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고 금연, 금주, 구강 위생 관리, 건강한 성생활이 두경부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span>”고 밝혔다. <br/> <br/>김희원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73.txt

제목: [인터뷰]“자연통합의학은 가장 앞선 암 치료 방법입니다”  
날짜: 20150824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1641409  
본문:   <br/> <br/> <br/>암 치료에 있어서 현대의학을 유일한 치료 방법으로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던 미국에서도 최근 암과의 전쟁에 실패하였음을 공표하고 통합의학적 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br/> <br/> 자연통합의학암학회 문창식 회장은 “<span class='quot0'>통합의학의 정확한 정의는 현대의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과학적 근거를 가진 다양한 의료체계를 현대의학과 접목한 것 </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통합의학적 암 치료에 더 많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통합의학에 대한 관심을 반증하듯, 학회가 지난 3월 개최한 전국단위 세미나에는 약 300여명의 의료인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많은 기업이 참여해 언론의 눈길을 끈바 있다. <br/> <br/> 문 회장은 “암 치료에 있어 통합의학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학문이다. 특히 현대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에서 통합의학은 양한방의 갈등을 넘어 암 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 <br/> 이어 문 회장은 “<span class='quot0'>현재 우리 의료계의 현실은 이런 통합의학을 통한 암 환자를 치료할 의사나 한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통합의학 암 치료 전문병원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할 의사가 많이 필요한 상태</span>”라고 말했다. <br/> <br/> 이에 자연통합의학 암 학회에서는 2014년부터 이를 담당할 통합의학 암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현재 2기 과정을 마치고 오는 9월 6일부터 제 3기 자연통합의학암아카데미가 개최될 예정으로 의료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기에는 1기보다 많은 수강자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참여 열기가 더욱 뜨거워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 아카데미는 총 12주 과정으로 암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암 환자의 심리적인 문제에서부터 부작용 관리, 최신 암 치료법과 병원 관리 등 암과 관련해 의사가 알아야할 모든 것들을 집중 교육하는 장으로서, 지금껏 약 70여명의 의사가 교육을 받고 일선에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전념을 다하고 있다. <br/> <br/> 특히 마지막 수업은 1박 2일 일정으로 직접 암 치료 프로그램을 실습하고 회원들간 깊은 정보교류의 장을 가짐으로서 수강생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br/> <br/> 문 회장은 “<span class='quot0'>화학요법, 수술, 방사선 치료 등 소위 3대 요법을 마친 환자들이 재발방지와 완치를 위해 케어 받을 의료서비스가 크게 부족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통합의학적 암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려야할 사명감이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74.txt

제목: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 '청소년 다빈치 교실' 진행  
날짜: 20150824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1539384  
본문:   <br/> <br/> <br/>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제공하는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는 지난 20일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 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의공학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다빈치 교실’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br/> <br/>‘청소년 다빈치 교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직접 작동하며 로봇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공학 분야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br/> <br/>올해 하반기부터는 ‘청소년 다빈치 교실’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교육기부 활동으로 등록되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br/> <br/>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빈치 로봇수술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제 의사를 훈련하는데 사용되는 가상 시뮬레이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접 로봇 팔을 움직여 작성한 본인의 이름과 미래의 꿈이 포함된 수료증을 발급 받았다. <br/> <br/>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 손승완 부사장은 “<span class='quot0'>다빈치 로봇수술기 국내 도입 1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과학문화 및 창의인재 육성의 중심에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청소년 다빈치 교실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의학과 공학의 융합으로 탄생한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한편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는 교육부 주최,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다음달 17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행복박람회’에 참여해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br/> <br/>‘다빈치 로봇수술기’는 540도까지 회전 가능한 인공손목, 3차원 입체 화면 및 10배까지 수술 부위를 확대해 볼 수 있는 기능을 바탕으로 주요 암 수술과 양성 질환 수술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2015년 8월 4일 기준으로 국내 41개 병원에 53대의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75.txt

제목: 두경부암, 조기 진단하면 완치율 90%  
날짜: 20150824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1517547  
본문: 두경부암(頭頸部癌, Head and neck cancer)은 머리와 목에 생기는 암으로, 연간 4400명 정도 발병하는 비교적 드문 암이다. 크게 후두암, 구강암, 구인두암, 하인두암, 비인두암, 비강 및 부비동암, 침샘암, 원발부위미상 경부전이암 등으로 나뉜다. 치료가 매우 어렵지만 조기에 진단하면 완치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서울대학교암병원 갑상선·구강·두경부암센터 하정훈 교수(이비인후과)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접 치료한 두경부암 환자 516명의 예후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br/> <br/>조기 두경부암 일수록 암 생존율은 높게 나타났다. 두경부암은 조기 두경부암은 주변조직의 침범이 거의 없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4㎝ 미만의 종괴로 기수로는 1,2기 암이다. <br/> <br/>후두암 중 가장 많은 성문암(성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기(100%), 2기(100%), 3기(66.7%), 4기(44.2%)로 나타났다. 구강암 중 가장 많은 설암(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기(100%), 2기(88.9%), 3기(88.9%), 4기(58.3%)로 나타났다. 구인두암 중 가장 많은 편도암 환자의 5년 생존율도 1기(100%), 2기(100%), 3기(87.5%), 4기(82.5%)로 나타났다. <br/> <br/>두경부암은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구인두암을 제외한 4기의 진행성 두경부암은 절반 정도 환자에서 재발했고, 재치료에도 불구하고 30-40%는 사망했다. 이 환자들은 식도암, 폐암, 간암 등 다른 이차암을 가진 경우도 많아 5년 생존율은 약 50%에 불과했다. <br/> <br/>두경부암은 생기는 부위에 따라 성질이 다르고 치료방법도 차이가 있다.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을 잘 선택에서 치료해야 하는데, 워낙 다양하고 드물어, 치료가 매우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 후에도 미용적으로 후유증이 크고, 말하고 숨 쉬고 음식을 삼키는 기능에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흔하다. <br/> <br/>하 교수는 “<span class='quot0'>두경부암의 조기진단은 매우 중요한데, 구강암이나 후두암은 조기 진단이 비교적 쉽고, 치료가 간단하고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완치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목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으면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고 금연, 금주, 구강 위생 관리, 건강한 성생활이 두경부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span>”고 밝혔다. <br/> <br/>김희원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76.txt

제목: 환절기 대표 질환 ‘대상포진·독감’ 주의  
날짜: 20150824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1518370  
본문: 한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아침 저녁 공기는 차가워졌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는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다. <br/> <br/>환절기에 주의해야 할 키워드는 중·장년층, 만성질환, 바이러스질환이다. 평생 삶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대상포진, 독감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이나 만성 질환자는 발병 위험이 더 높다. 따라서 본격적인 환절기를 앞두고 미리 주요 바이러스 질환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br/> <br/>◆계절 사이 파고드는 대상포진 <br/> <br/>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질환은 외부로부터 감염되지만 이미 몸 안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병하는 질환이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어렸을 적 수두를 일으킨 뒤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될 때 몸 안에서 발병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이 높아져 65세 이상의 발생률은 젊은 층의 8∼10배에 달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질환인 셈이다. <br/> <br/>대상포진은 몸 안에서 신경절을 따라 발병하기 때문에 수십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신경 통증을 동반한다. 통증을 겪어본 환자들은 산통이나 만성 암환자의 통증보다 심하다고 증언한다. 통증은 수주에서 수년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더욱이 대상포진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발병 부위에 따라 각막염, 안면마비, 시력·청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고 뇌졸중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대상포진은 심각한 통증 뿐만 아니라 합병증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우울증, 진료비 부담 등의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r/> <br/>◆각종 변종으로 진화하는 독감 <br/> <br/>독감은 가장 흔한 환절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외부로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인후통, 콧물 등 호흡기 증상과 함께 두통, 발열, 근육통 같은 전신 증상을 동반한다. 고령자, 만성질환자가 걸리면 기저질환의 악화나 폐렴 등의 중증 합병증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유행을 일으키며, 유행 시작 후 2~3주 내에 인구의 10~20%가 감염될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은 대비하는 것이 좋다. <br/> <br/>최근 세계적으로 독감이 우려되는 이유는 각종 변형된 형태로 등장해 기존 백신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2009년 세계를 강타한 신종플루로 인해 한국에서만 25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또 매년 새로운 형태의 조류독감에 이어 올해는 홍콩독감까지 세계적으로 각종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으로 변형 바이러스의 출현이 더 빨리, 더 자주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r/> <br/>◆백신 접종으로 대상포진·독감 예방 <br/> <br/>대상포진과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다. 대상포진은 50세 이상에서 평생 1회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연령에 따라 70~51%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덜 아프게 지나가는 효과가 있다. 대상포진 고위험군인 50세 이상 중·장년층, 만성질환자, 폐경기 여성 등은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좋다. <br/> <br/>독감은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접종이 필요하며,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인 9월부터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 최근 신종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SK케미칼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한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가 주목받고 있다. 세포배양식 독감백신은 기존 6개월이던 백신 생산 기간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여 기존 예방 백신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변종 독감 바이러스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백신은 20일부터 전국에서 접종을 시작했다. <br/> <br/>대상포진과 독감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서 한 번에 접종하면 접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황환식 교수는 “<span class='quot0'>면역력이 저하된 중·장년층의 경우 바이러스 질환 및 합병증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특히 환절기를 앞두고 주요 바이러스 질환인 대상포진과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50세 이상은 병원 방문 때 두 백신을 같이 접종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77.txt

제목: 두경부암, 조기 진단하면 완치율 90%  
날짜: 2015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4100000444  
본문: 두경부암(頭頸部癌, Head and neck cancer)은 머리와 목에 생기는 암으로, 연간 4400명 정도 발병하는 비교적 드문 암이다. 크게 후두암, 구강암, 구인두암, 하인두암, 비인두암, 비강 및 부비동암, 침샘암, 원발부위미상 경부전이암 등으로 나뉜다. 치료가 매우 어렵지만 조기에 진단하면 완치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학교암병원 갑상선·구강·두경부암센터 하정훈 교수(이비인후과)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접 치료한 두경부암 환자 516명의 예후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조기 두경부암 일수록 암 생존율은 높게 나타났다. 두경부암은 조기 두경부암은 주변조직의 침범이 거의 없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4㎝ 미만의 종괴로 기수로는 1,2기 암이다.후두암 중 가장 많은 성문암(성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기(100%), 2기(100%), 3기(66.7%), 4기(44.2%)로 나타났다. 구강암 중 가장 많은 설암(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기(100%), 2기(88.9%), 3기(88.9%), 4기(58.3%)로 나타났다. 구인두암 중 가장 많은 편도암 환자의 5년 생존율도 1기(100%), 2기(100%), 3기(87.5%), 4기(82.5%)로 나타났다.두경부암은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구인두암을 제외한 4기의 진행성 두경부암은 절반 정도 환자에서 재발했고, 재치료에도 불구하고 30-40%는 사망했다. 이 환자들은 식도암, 폐암, 간암 등 다른 이차암을 가진 경우도 많아 5년 생존율은 약 50%에 불과했다.두경부암은 생기는 부위에 따라 성질이 다르고 치료방법도 차이가 있다.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을 잘 선택에서 치료해야 하는데, 워낙 다양하고 드물어, 치료가 매우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 후에도 미용적으로 후유증이 크고, 말하고 숨 쉬고 음식을 삼키는 기능에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흔하다.하 교수는 “<span class='quot0'>두경부암의 조기진단은 매우 중요한데, 구강암이나 후두암은 조기 진단이 비교적 쉽고, 치료가 간단하고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완치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목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으면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고 금연, 금주, 구강 위생 관리, 건강한 성생활이 두경부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span>”고 밝혔다.김희원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78.txt

제목: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 '청소년 다빈치 교실' 진행  
날짜: 20150824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4100000707  
본문: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제공하는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는 지난 20일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 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의공학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다빈치 교실’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소년 다빈치 교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직접 작동하며 로봇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공학 분야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올해 하반기부터는 ‘청소년 다빈치 교실’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교육기부 활동으로 등록되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빈치 로봇수술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제 의사를 훈련하는데 사용되는 가상 시뮬레이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접 로봇 팔을 움직여 작성한 본인의 이름과 미래의 꿈이 포함된 수료증을 발급 받았다.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 손승완 부사장은 “<span class='quot0'>다빈치 로봇수술기 국내 도입 1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과학문화 및 창의인재 육성의 중심에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청소년 다빈치 교실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의학과 공학의 융합으로 탄생한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한편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는 교육부 주최,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다음달 17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행복박람회’에 참여해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다빈치 로봇수술기’는 540도까지 회전 가능한 인공손목, 3차원 입체 화면 및 10배까지 수술 부위를 확대해 볼 수 있는 기능을 바탕으로 주요 암 수술과 양성 질환 수술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2015년 8월 4일 기준으로 국내 41개 병원에 53대의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79.txt

제목: 암환자 건보적용, 남용방지 위해 '진단과정 1회당 한 번'만 적용  
날짜: 20150824  
기자: 박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4100000452  
본문: 암환자 건보적용, 남용방지 위해 `진단과정 1회당 한 번`만 적용암환자 건보적용, 남용방지 위해 '진단과정 1회당 한 번'만 적용다음 달부터는 암환자 등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부 초음파를 기준으로 현재 21만 원인 초음파 검사 환자 부담금이 최대 4만 4천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다만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가 초음파 검사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단과정 1회당 1번만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이와 함께 만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양성자 치료'를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80.txt

제목: 韓 남자들, 상대적으로 일찍 죽는 이유는…"흡연·스트레스 탓"  
날짜: 2015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4100000118  
본문: 여성 대비 한국 남성들의 기대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흡연율과 사회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이 한국 남성의 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24일 OECD '건강 통계 2015'(Health Data 2015)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기대수명(2013년 기준)은 여자(83.1년)가 남자(77.8년) 보다 높았다. 34개 회원국 가운데 남성의 기대수명이 여성보다 높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한데, 그중에서 특히 남성의 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으로는 여성보다 높은 흡연율이 꼽힌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흡연 남성이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기대수명도 대체로 낮았다.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2013년 또는 최근 기준)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한 터키(37.3%)와 에스토니아(36.2%)의 기대수명 순위는 각각 28위(73.7년), 31위(72.8년)로 최하위권이었다. 흡연율 5위와 7위에 오른 칠레(76.2년·26위), 헝가리(72.2년·32위) 남성들도 다른 나라 남자들과 비교해 오래 살지 못했다. 한국 남성 흡연율도 36.2%로 OECD 34개국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반면, 한국 여자의 흡연율은 4.3%로 34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국 남녀의 흡연율 차이 역시 기대수명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2013년 태어난 한국 남자 아이의 기대수명(78.6년)의 순위는 16위로 중간 정도였다.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85.1년)이 5위로 상위권을 기록한 것과는 대비된다. 한국 남자의 기대수명은 여성보다 6.6년 낮았다. 남성의 건강관리 등으로 한국 남녀의 기대수명 격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OECD 회원국 평균(5.3년)보다는 여전히 높다. 한국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 격차는 OECD 34개국 가운데 5번째로 컸는데 극과 극인 남녀의 흡연율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연구 결과도 흡연이 남녀 간 수명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스코틀랜드의 MRC·CSO 사회공중보건학연구소는 유럽 30개국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 여성과 남성의 수명 격차의 40~60%가 흡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담배를 피우면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도도 커지는데 남자의 경우 후두암(6.5배), 폐암(4.6배), 심장병(1.7배), 뇌졸중(1.6배), 췌장암·전립선암(각 1.5배), 간암(1.4) 등의 순으로 위험도가 높아진다. 2013년 기준 암에 따른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폐암(34.0명), 간암(22.6명), 위암(18.2명), 대장암(16.4명) 순으로 높았다. 물론 흡연만이 전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아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마리안 J. 레가토 교수는 '왜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죽는가'라는 책을 통해 남자가 여자보다 오래 살지 못하는 신체·사회적인 원인을 설명했다. 레가토 교수에 따르면 여자보다 면역체계가 덜 잡힌 남자 태아가 유산 확률이 훨씬 높다. 임신 16~17주에 유산되는 비율은 여자 태아 100명당 남자는 248명에 이르고 영아기 생존율도 여아가 훨씬 높다. 어릴 때부터 '남자다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점과 호르몬 체계상 심장질환 등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되는 점도 남성의 기대수명을 줄이는 요인이다. 레가토 교수는 "음주와 흡연이 잦은 남성들이 많아 직장암, 폐암 등 치명적인 질환에 취약한 편"이라고 강조했다.흡연 외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해 사망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영식 연구위원은 "흡연, 음주는 물론 암, 자살률 등도 기대수명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며 "사회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고 위험도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81.txt

제목: 환절기 대표 질환 ‘대상포진·독감’ 주의  
날짜: 20150824  
기자: azahoit@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4100000104  
본문: 한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아침 저녁 공기는 차가워졌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는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다.환절기에 주의해야 할 키워드는 중·장년층, 만성질환, 바이러스질환이다. 평생 삶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대상포진, 독감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이나 만성 질환자는 발병 위험이 더 높다. 따라서 본격적인 환절기를 앞두고 미리 주요 바이러스 질환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계절 사이 파고드는 대상포진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질환은 외부로부터 감염되지만 이미 몸 안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병하는 질환이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어렸을 적 수두를 일으킨 뒤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될 때 몸 안에서 발병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이 높아져 65세 이상의 발생률은 젊은 층의 8∼10배에 달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질환인 셈이다.대상포진은 몸 안에서 신경절을 따라 발병하기 때문에 수십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신경 통증을 동반한다. 통증을 겪어본 환자들은 산통이나 만성 암환자의 통증보다 심하다고 증언한다. 통증은 수주에서 수년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더욱이 대상포진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발병 부위에 따라 각막염, 안면마비, 시력·청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고 뇌졸중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대상포진은 심각한 통증 뿐만 아니라 합병증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우울증, 진료비 부담 등의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각종 변종으로 진화하는 독감독감은 가장 흔한 환절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외부로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인후통, 콧물 등 호흡기 증상과 함께 두통, 발열, 근육통 같은 전신 증상을 동반한다. 고령자, 만성질환자가 걸리면 기저질환의 악화나 폐렴 등의 중증 합병증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유행을 일으키며, 유행 시작 후 2~3주 내에 인구의 10~20%가 감염될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은 대비하는 것이 좋다.최근 세계적으로 독감이 우려되는 이유는 각종 변형된 형태로 등장해 기존 백신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2009년 세계를 강타한 신종플루로 인해 한국에서만 25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또 매년 새로운 형태의 조류독감에 이어 올해는 홍콩독감까지 세계적으로 각종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으로 변형 바이러스의 출현이 더 빨리, 더 자주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백신 접종으로 대상포진·독감 예방대상포진과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다. 대상포진은 50세 이상에서 평생 1회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연령에 따라 70~51%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덜 아프게 지나가는 효과가 있다. 대상포진 고위험군인 50세 이상 중·장년층, 만성질환자, 폐경기 여성 등은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좋다.독감은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접종이 필요하며,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인 9월부터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 최근 신종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SK케미칼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한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가 주목받고 있다. 세포배양식 독감백신은 기존 6개월이던 백신 생산 기간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여 기존 예방 백신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변종 독감 바이러스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백신은 20일부터 전국에서 접종을 시작했다.대상포진과 독감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서 한 번에 접종하면 접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황환식 교수는 “<span class='quot0'>면역력이 저하된 중·장년층의 경우 바이러스 질환 및 합병증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특히 환절기를 앞두고 주요 바이러스 질환인 대상포진과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50세 이상은 병원 방문 때 두 백신을 같이 접종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span>”고 말했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82.txt

제목: 초음파 검사·양성자 치료 건보 확대  
날짜: 20150824  
기자: brightw@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4100000264  
본문: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양성자 치료와 관련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복부 초음파 기준으로 최대 21만원인 본인부담금이 1만4000∼4만4000원 수준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은 확진을 받은 이후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그동안 만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 양성자 치료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 동시에 치료 효과를 높인 최신 의료기술이지만 비싼 치료비 탓에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1800만∼3100만원에 달했던 양성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금이 100만∼150만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 밖에 식도암과 간담도암 치료 등에 사용된 금속스텐트는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개수 제한이 없어진다. 연간 3만명이 진료를 받고 있는 갑상샘암 진단용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로 연간 123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고, 해마다 건강보험 재정 1034억∼1852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83.txt

제목: [교과서 중심 논술 필승 전략] 문제점 해법 다양한 대안 제시… 적절한 사례 들면 금상첨화  
날짜: 20150823  
기자: 김예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1330970  
본문: 대안논증 유형에서 본인의 견해를 적을 때 수험생들은 너무 감상적이거나 수필식의 문장을 쓰기 쉬운데 이에 주의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논술고사 중 수험생들이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 <br/>세계일보 자료사진◆2011학년도 성균관대 기출문제 <br/> <br/>〈보기〉에서 드러난 세계화의 명암을 밝히고, 세계화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시오.(30점) <br/> <br/>〈보기〉 <br/> <br/>1999년 어느 날,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리볼리 교수는 교정에서 열린 반세계화 집회에서 한 여학생이 “<span class='quot0'>여러분이 입고 있는 티셔츠가 아시아의 어린 소녀들이 억압적이고 불결한 작업 환경에서 고통과 착취에 시달리며 만든 것임을 아느냐</span>”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리볼리 교수는 티셔츠의 탄생에서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추적해 보기로 했다. 티셔츠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세계화의 명암을 밝혀보자는 생각에서였다. <br/> <br/>그가 플로리다의 관광지에서 산 티셔츠 한 장의 원재료는 텍사스에서 생산된 면화였다. 면화는 컨테이너에 실린 채 태평양을 건너 중국 상하이 근교의 직조공장으로 간 뒤 직조기에서 가느다란 실로 변신한다. 실 뭉치는 근처의 직물공장에서 흰색 천으로 바뀌고, 이어 농촌 출신 여공들이 줄지어 일하는 봉제공장에서 무지 티셔츠로 태어난다. <br/> <br/>중국에서 대량생산된 티셔츠는 다시 태평양을 건너고 파나마 운하를 지나 플로리다의 날염공장에서 화려한 무늬의 티셔츠로 변신한다. 티셔츠의 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티셔츠는 대부분 얼마 쓰이지 않은 채 자선단체의 재활용 수거함으로 보내지게 된다. 미국 각지에서 수거된 헌 티셔츠는 뉴욕의 재활용 전문회사의 창고에 집결돼 아프리카행 배를 탄다. 그리고 탄자니아와 콩고의 헌 옷 시장에 내걸리고,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가 너덜너덜해 지고서야 생을 마감한다. <br/> <br/>◆2011학년도 성균관대 합격 학생의 답안 <br/> <br/>〈예시 답안 1〉 <br/> <br/>세계화는 21세기 이래 가장 큰 화두가 된 현상으로, 우리 주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화의 현상 중 하나인 국가 간 자유무역 증대로 우리는 집 앞에서 케냐의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일제 샤프를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 빈부격차는 심화되었으며, 환경문제 역시 무시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화는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주나 역설적이게도 누군가의 삶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br/> <br/>〈보기〉의 사례 역시 그러한 세계화의 어두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티셔츠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저소득층의 노동착취 현상이다. 티셔츠 한 장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많은 저소득 국가의 인력이 적은 임금을 받고 온종일 노동이 착취되는 것이다. 정작 그 티셔츠로 높은 이윤을 내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닌 고소득층 상인들이다.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간 자유무역을 증대시킨 행위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또 다른 세계화의 암적 측면은 경제 발전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다. 국가들은 경제적 발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면서 에너지와 지하자원을 남용하게 되었고, 이는 대기와 토지, 수질 오염과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켰다. <br/> <br/>이는 [제시문 5]에도 언급되었듯이 선진국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같은 저소득 국가들 역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경제 발전을 중시하므로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br/> <br/>세계화는 양날의 칼처럼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현 시대에서 부정할 수 없는 필연적 현상이므로 긍정적 영향은 유지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화로 인해 무역이 증대되고 소비자들의 자유가 확장되었으며, 문화 및 예술의 면에서도 많은 진보를 이룬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앞서 다루었던 심각한 빈부격차 및 저소득층의 노동 착취, 모호한 경계로 인한 국가의 역할 상실, 환경오염 등은 꼭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국가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회의, 협약, 조약과 같은 형태로 문제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과정에서도 양국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동시에 협정이 초래할 국내 빈부격차나 일자리 상실도 충분히 협상해야 한다. 또한 환경문제 해결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 세금 정책처럼 범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국민 개개인도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국가의 정책 결정이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세계화는 긍정적 현상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br/> <br/>〈예시답안 2〉 <br/> <br/>세계화는 분업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 내에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는 있지만 그들이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데 반해 기업들은 많은 수입을 창출해서 경제적인 격차가 더욱 벌어짐을 알게 한다. 결국 세계화의 수혜자는 결과적으로 볼 때 개발도상국들이 아니라 선진국들인 것이다. <br/> <br/>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이다. 세계화를 통해 국가 간의 교류를 증대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나라들은 자국의 경제를 보다 튼튼히 세울 필요가 있다. 이 방책으로 그 국가만의 특색을 잘 살려서 개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다음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외부의 문화를 접해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기도 하지만 고유의 문화 그 자체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이를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의 문화로 종속시키기보다는 서로 상생해나가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고등교육인구의 이전은 국가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만큼 교육이 나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더욱 나서서 세계를 보는 눈을 밝힐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br/> <br/>지금까진 배워 본 기본적인 대안 논증 유형의 대응 방식을 실제 기출문제에 대입해 보자. 이번시간에는 ‘2011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 인문 2’ 기출문제와 두 답안을 살펴보자. <br/> <br/>세계화의 명암을 밝히라고 했는데, 〈예시 답안 1〉은 어두운 면에 집중했다. 왜 그랬을까? 이어지는 세계화의 방향제시를 고려한 듯하다. 세계화의 밝은 면을 강조하고 나면, 방향제시에서 할 말이 없다. 이미 좋은데, 무얼 제시하겠는가? 이러한 점에서, 앞부분에 문제점을 논하고, 이후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안논증의 고전적인 구조를 취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br/> <br/>한편 세계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의 앞부분에서 “세계화는 양날의 칼처럼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간략히 언급하여, 세계화에 밝은 면도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였다. 답안의 균형상 탁월한 부분이다. <br/> <br/>대안제시 부분에서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이산화탄소 배출 세금 정책 등의 예를 들었는데, 이는 칭찬할 만한 부분이다. 대안제시에서 비로소 본인의 견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는 예로 드러난다. 전체적 방향을 지지할 수 있는 좋은 예를 생각해 낸다면 매우 내용이 풍부한 답안이 될 것이다. <br/> <br/>〈예시 답안 2〉 역시 세계화의 어두운 면에 집중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조를 사용했다. 이 답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안제시 부분에서 분류화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한 가지 대안을 자세하게 쓰는 것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대안별로 적절한 예를 든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예시 답안 2〉는 이런 면에서 칭찬할 만하다. 분량이 다소 적어 보이지만 합격점수를 받기에는 충분한 답안이다. <br/> <br/> 또 제시된 문제의 요구를 다 하는 것이 좋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면, 즉 교육, 경제, 문화 등 방면으로 상세히 접근 하는 것이 필요하다. <br/> <br/>김윤환 스카이에듀×논단기 강사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84.txt

제목: 초음파 검사·양성자 치료 건보 확대  
날짜: 20150823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1305678  
본문: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양성자 치료와 관련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br/> <br/>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복부 초음파 기준으로 최대 21만원인 본인부담금이 1만4000∼4만4000원 수준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은 확진을 받은 이후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br/> <br/>그동안 만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 양성자 치료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 동시에 치료 효과를 높인 최신 의료기술이지만 비싼 치료비 탓에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1800만∼3100만원에 달했던 양성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금이 100만∼150만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 밖에 식도암과 간담도암 치료 등에 사용된 금속스텐트는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개수 제한이 없어진다. 연간 3만명이 진료를 받고 있는 갑상샘암 진단용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br/> <br/>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로 연간 123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고, 해마다 건강보험 재정 1034억∼1852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85.txt

제목: 에이트 주희,과거 생방송에서 눈물 펑펑...암으로 떠난 오빠 생각  
날짜: 20150823  
기자: 이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1251232  
본문: 에이트 출신 가수 주희가 '복면가왕'에 출연 해 화제를 모은 가운게 과거 생방송 도중 가슴 아픈 사연을 공개하며 눈물을 흘린 사연이 재조명 되고 있따. <br/> <br/>주희는 과거 Mnet ‘엠넷 라디오’에 출연해 ‘내 인생의 뮤직 폴더’ 코너에서 노래에 담긴 개인적인 사연을 이야기하던 중 영국 가수 코린 베일리 래(Corinne Bailey Rae)의 노래 ‘라이크 어 스타’(Like a Star)가 나오자 갑자기 울먹이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해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 당황한 MC 김진표가 “왜 우냐”고 묻자 주희는 “개인적으로 슬픈 추억이 있는 노래”라며 사연을 얘기했다. <br/> <br/>주희는 “오래 알고 지낸 오빠가 있었다. 서로의 존재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며 “노래 ‘심장이 없어’를 준비하고 무척 바빴고 그래서 한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다가 에이트 첫 번째 콘서트에 오빠를 초대했다. 하지만 잠시 어디로 여행을 가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됐다며 문자 메시지로 ‘우리 주희 2번째 콘서트 땐 꼭 갈게’라는 약속만 남겼다.”고 털어놨다. <br/> <br/>하지만 나중에 오빠의 형으로부터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위암이라 콘서트 때 오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주희는 “장례식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이 노래를 들었다.”며 “노래를 듣다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오빠가 나타나 이 노래를 같이 듣더니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지마. 나중에 꼭 보자. 고마웠어’라는 말을 했다.”고 힘들게 말을 이어 나갔다. <br/> <br/>이어 주희는 “이게 지난해 일인데 이 일로 당시 활동 준비 중이던 노래 ‘잘가요 내 사랑’ 연습을 많이 하지 못했다. 이 노래 가사가 오빠가 생각나 도저히 부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br/> <br/>이슈팀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86.txt

제목: 에이트 주희,과거 생방송에서 눈물 펑펑...암으로 떠난 오빠 생각  
날짜: 201508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3100000225  
본문: 에이트 출신 가수 주희가 '복면가왕'에 출연 해 화제를 모은 가운게 과거 생방송 도중 가슴 아픈 사연을 공개하며 눈물을 흘린 사연이 재조명 되고 있다.주희는 과거 Mnet ‘엠넷 라디오’에 출연해 ‘내 인생의 뮤직 폴더’ 코너에서 노래에 담긴 개인적인 사연을 이야기하던 중 영국 가수 코린 베일리 래(Corinne Bailey Rae)의 노래 ‘라이크 어 스타’(Like a Star)가 나오자 갑자기 울먹이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해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 당황한 MC 김진표가 “왜 우냐”고 묻자 주희는 “개인적으로 슬픈 추억이 있는 노래”라며 사연을 얘기했다.주희는 “오래 알고 지낸 오빠가 있었다. 서로의 존재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며 “노래 ‘심장이 없어’를 준비하고 무척 바빴고 그래서 한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다가 에이트 첫 번째 콘서트에 오빠를 초대했다. 하지만 잠시 어디로 여행을 가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됐다며 문자 메시지로 ‘우리 주희 2번째 콘서트 땐 꼭 갈게’라는 약속만 남겼다.”고 털어놨다.하지만 나중에 오빠의 형으로부터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위암이라 콘서트 때 오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주희는 “장례식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이 노래를 들었다.”며 “노래를 듣다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오빠가 나타나 이 노래를 같이 듣더니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지마. 나중에 꼭 보자. 고마웠어’라는 말을 했다.”고 힘들게 말을 이어 나갔다.이어 주희는 “이게 지난해 일인데 이 일로 당시 활동 준비 중이던 노래 ‘잘가요 내 사랑’ 연습을 많이 하지 못했다. 이 노래 가사가 오빠가 생각나 도저히 부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이슈팀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87.txt

제목: 초음파 검사·양성자 치료 건보 확대  
날짜: 20150823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310018325405  
본문: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양성자 치료와 관련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br/> <br/>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복부 초음파 기준으로 최대 21만원인 본인부담금이 1만4000∼4만4000원 수준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은 확진을 받은 이후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br/> <br/>그동안 만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 양성자 치료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 동시에 치료 효과를 높인 최신 의료기술이지만 비싼 치료비 탓에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1800만∼3100만원에 달했던 양성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금이 100만∼150만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 밖에 식도암과 간담도암 치료 등에 사용된 금속스텐트는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개수 제한이 없어진다. 연간 3만명이 진료를 받고 있는 갑상샘암 진단용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br/> <br/>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로 연간 123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고, 해마다 건강보험 재정 1034억∼1852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88.txt

제목: [교과서 중심 논술 필승 전략] 문제점 해법 다양한 대안 제시… 적절한 사례 들면 금상첨화  
날짜: 20150823  
기자: 김예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310018326363  
본문: 대안논증 유형에서 본인의 견해를 적을 때 수험생들은 너무 감상적이거나 수필식의 문장을 쓰기 쉬운데 이에 주의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논술고사 중 수험생들이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 <br/>세계일보 자료사진◆2011학년도 성균관대 기출문제 <br/> <br/>〈보기〉에서 드러난 세계화의 명암을 밝히고, 세계화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시오.(30점) <br/> <br/>〈보기〉 <br/> <br/>1999년 어느 날,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리볼리 교수는 교정에서 열린 반세계화 집회에서 한 여학생이 “<span class='quot0'>여러분이 입고 있는 티셔츠가 아시아의 어린 소녀들이 억압적이고 불결한 작업 환경에서 고통과 착취에 시달리며 만든 것임을 아느냐</span>”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리볼리 교수는 티셔츠의 탄생에서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추적해 보기로 했다. 티셔츠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세계화의 명암을 밝혀보자는 생각에서였다. <br/> <br/>그가 플로리다의 관광지에서 산 티셔츠 한 장의 원재료는 텍사스에서 생산된 면화였다. 면화는 컨테이너에 실린 채 태평양을 건너 중국 상하이 근교의 직조공장으로 간 뒤 직조기에서 가느다란 실로 변신한다. 실 뭉치는 근처의 직물공장에서 흰색 천으로 바뀌고, 이어 농촌 출신 여공들이 줄지어 일하는 봉제공장에서 무지 티셔츠로 태어난다. <br/> <br/>중국에서 대량생산된 티셔츠는 다시 태평양을 건너고 파나마 운하를 지나 플로리다의 날염공장에서 화려한 무늬의 티셔츠로 변신한다. 티셔츠의 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티셔츠는 대부분 얼마 쓰이지 않은 채 자선단체의 재활용 수거함으로 보내지게 된다. 미국 각지에서 수거된 헌 티셔츠는 뉴욕의 재활용 전문회사의 창고에 집결돼 아프리카행 배를 탄다. 그리고 탄자니아와 콩고의 헌 옷 시장에 내걸리고,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가 너덜너덜해 지고서야 생을 마감한다. <br/> <br/>◆2011학년도 성균관대 합격 학생의 답안 <br/> <br/>〈예시 답안 1〉 <br/> <br/>세계화는 21세기 이래 가장 큰 화두가 된 현상으로, 우리 주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화의 현상 중 하나인 국가 간 자유무역 증대로 우리는 집 앞에서 케냐의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일제 샤프를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 빈부격차는 심화되었으며, 환경문제 역시 무시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화는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주나 역설적이게도 누군가의 삶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br/> <br/>〈보기〉의 사례 역시 그러한 세계화의 어두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티셔츠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저소득층의 노동착취 현상이다. 티셔츠 한 장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많은 저소득 국가의 인력이 적은 임금을 받고 온종일 노동이 착취되는 것이다. 정작 그 티셔츠로 높은 이윤을 내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닌 고소득층 상인들이다.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간 자유무역을 증대시킨 행위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또 다른 세계화의 암적 측면은 경제 발전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다. 국가들은 경제적 발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면서 에너지와 지하자원을 남용하게 되었고, 이는 대기와 토지, 수질 오염과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켰다. <br/> <br/>이는 [제시문 5]에도 언급되었듯이 선진국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같은 저소득 국가들 역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경제 발전을 중시하므로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br/> <br/>세계화는 양날의 칼처럼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현 시대에서 부정할 수 없는 필연적 현상이므로 긍정적 영향은 유지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화로 인해 무역이 증대되고 소비자들의 자유가 확장되었으며, 문화 및 예술의 면에서도 많은 진보를 이룬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앞서 다루었던 심각한 빈부격차 및 저소득층의 노동 착취, 모호한 경계로 인한 국가의 역할 상실, 환경오염 등은 꼭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국가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회의, 협약, 조약과 같은 형태로 문제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과정에서도 양국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동시에 협정이 초래할 국내 빈부격차나 일자리 상실도 충분히 협상해야 한다. 또한 환경문제 해결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 세금 정책처럼 범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국민 개개인도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국가의 정책 결정이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세계화는 긍정적 현상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br/> <br/>〈예시답안 2〉 <br/> <br/>세계화는 분업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 내에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는 있지만 그들이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데 반해 기업들은 많은 수입을 창출해서 경제적인 격차가 더욱 벌어짐을 알게 한다. 결국 세계화의 수혜자는 결과적으로 볼 때 개발도상국들이 아니라 선진국들인 것이다. <br/> <br/>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이다. 세계화를 통해 국가 간의 교류를 증대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나라들은 자국의 경제를 보다 튼튼히 세울 필요가 있다. 이 방책으로 그 국가만의 특색을 잘 살려서 개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다음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외부의 문화를 접해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기도 하지만 고유의 문화 그 자체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이를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의 문화로 종속시키기보다는 서로 상생해나가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고등교육인구의 이전은 국가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만큼 교육이 나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더욱 나서서 세계를 보는 눈을 밝힐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br/> <br/>지금까진 배워 본 기본적인 대안 논증 유형의 대응 방식을 실제 기출문제에 대입해 보자. 이번시간에는 ‘2011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 인문 2’ 기출문제와 두 답안을 살펴보자. <br/> <br/>세계화의 명암을 밝히라고 했는데, 〈예시 답안 1〉은 어두운 면에 집중했다. 왜 그랬을까? 이어지는 세계화의 방향제시를 고려한 듯하다. 세계화의 밝은 면을 강조하고 나면, 방향제시에서 할 말이 없다. 이미 좋은데, 무얼 제시하겠는가? 이러한 점에서, 앞부분에 문제점을 논하고, 이후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안논증의 고전적인 구조를 취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br/> <br/>한편 세계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의 앞부분에서 “세계화는 양날의 칼처럼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간략히 언급하여, 세계화에 밝은 면도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였다. 답안의 균형상 탁월한 부분이다. <br/> <br/>대안제시 부분에서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이산화탄소 배출 세금 정책 등의 예를 들었는데, 이는 칭찬할 만한 부분이다. 대안제시에서 비로소 본인의 견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는 예로 드러난다. 전체적 방향을 지지할 수 있는 좋은 예를 생각해 낸다면 매우 내용이 풍부한 답안이 될 것이다. <br/> <br/>〈예시 답안 2〉 역시 세계화의 어두운 면에 집중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조를 사용했다. 이 답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안제시 부분에서 분류화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한 가지 대안을 자세하게 쓰는 것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대안별로 적절한 예를 든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예시 답안 2〉는 이런 면에서 칭찬할 만하다. 분량이 다소 적어 보이지만 합격점수를 받기에는 충분한 답안이다. <br/> <br/>또 제시된 문제의 요구를 다 하는 것이 좋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면, 즉 교육, 경제, 문화 등 방면으로 상세히 접근 하는 것이 필요하다. <br/> <br/>김윤환 스카이에듀×논단기 강사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89.txt

제목: 수혈이 안전하다고?… 맹신은 금물  
날짜: 20150822  
기자: 선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2100000215  
본문: 후나세 ?스케, 우츠미 사토루 지음/김영진 옮김/성안당/1만4000원수혈의 배신/후나세 ?스케, 우츠미 사토루 지음/김영진 옮김/성안당/1만4000원중환자를 수술할 때 수혈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수혈 없이 암 환자 수술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혈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크다면 수혈을 마냥 고집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일본인 의료전문 저널리스트와 현직 의사인 저자들은 ‘수혈의 배신’에서 인류는 수혈의 효과와 부작용을 공론화한 적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의료계도 피를 흘리니 피를 보충한다는 통념에서 그저 관행대로 수혈해왔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런 수혈 맹신주의에 경종을 울리면서 수혈 없이도 중환자 수술이 가능한 의료 기술을 소개한다.“수혈의 가장 큰 약점은 면역력 저하에 있으며 암환자에게 수혈은 거의 치명적일 수 있다. 다른 혈액이 몸에 들어오면 면역체계가 손상돼 암 증식이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혈의 42%는 암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 수혈은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의료행위다.”저자들은 “수혈과 혈액제제에 교묘하게 감춰진 ‘목적’은 부작용에 의한 새로운 환자의 대량생산”이라고 폭로한다. 예컨대 수혈받은 지 수십년이 지난 환자들의 혈액에서 본인의 DNA가 아닌 타인의 DNA가 발견되며, 수혈로 인한 감염이 새로운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수혈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점이다.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서평을 통해 “<span class='quot0'>암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결론은 인류는 절대로 한 방울의 피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사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그런 피를 단 몇 가지의 테스트만 거쳐 별 생각 없이 수혈이라는 방식을 통해 인간에서 인간으로 교환해 온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엽기적</span>”이라고 지적한다.저자는 책에서 “<span class='quot0'>쇼와 일왕도 수혈로 죽었고 수혈은 할수록 출혈이 더 일어나며, 가족이나 친족의 혈액은 오히려 더 위험하고 수혈받은 사람은 600건에 1건 비율로 발병한다</span>”고 주장한다.특히 혈액 유통 과정에는 돈벌이에 매몰된 의료계의 흑막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혈로 질병을 악화시켜 돈벌이를 하는 의료 비즈니스 시스템과, 오로지 돈벌이에만 집착하는 국제적십자사의 현실도 비판한다. 적십자 활동 이면에는 거대한 혈액 관련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거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모두 조직적으로 얽혀있다는 것이다.저자들은 “<span class='quot1'>혈액은 혈액제제라는 새로운 이권을 창출하고 동시에 형성된 이권체제는 ‘사랑의 헌혈’이라는 미명 하에 적십자사라는 세계적 조직을 거대한 괴물로 둔갑시켰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자애로운 미소를 띤 천사의 얼굴이지만 숨겨진 모습은 피에 굶주린 악마의 얼굴</span>”이라고 통렬히 비판한다. 그러면서 국제적십자사와 관련된 각국 적십자사의 흑막, 금융 명가로 소문난 유태계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게 수혈 비즈니스에 개입되었는지 등을 파헤친다. 저자들은 수혈 없이 수술에 도전하는 의사들의 노력과 실천도 소개한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2'>정형외과 분야의 암환자를 치료하는 본인도 최근에는 대부분의 환자를 수혈하지 않고 대체요법들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정승욱 선임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90.txt

제목: ‘미식가 천국’ 통영서 찾은 최고의 보양식은?  
날짜: 2015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2100000092  
본문: [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KBS N Life ‘콧바람여행’ 7회에서 개그우먼 팽현숙과 KBS N 신승준 스포츠 아나운서가 미식의 도시 통영을 찾아 간다.이날 촬영에서는 현지인들만 알고 있다는 통영의 필수 여행 코스와 함께 숨은 맛집, 보양 음식을 소개했다. 특히 7월부터 8월까지만 맛볼 수 있다는 ‘하모’는 통영 사람들이 손꼽는 최고의 보양식이다. 하모는 통영과 고성일대에서 잡히는 갯장어로 여름철에 회나 탕으로 즐겨 먹는다. 통영 사람들은 복날 삼계탕보다 하모탕을 챙겨 먹을 정도로 여름 보양식으로 하모를 최고로 치는데 여름철 하모를 3번 먹으면 겨울에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실제로 이곳에서 만난 하모 전문 음식점 사장님은 자궁암 말기로 힘든 투병 생활을 했을 때 하모탕으로 기력 보충을 하며 암을 이기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통영에 오면 꼭 들려야한다는 욕지도로 떠난 두 사람, 이곳에서 과일보다 더 달고 몸에 좋은 ‘욕지도 타박 고구마’와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펄떡거리는 고등어회를 맛보며 여름철 사라졌던 입맛과 활력을 충전시키는 등 최고의 보양 여행을 즐겼다. 불볕 더위와 열대야에 지친 이들에게 몸에는 보양을 마음에는 힐링을 줄 수 있는 통영 여행은 오는 8월 23일 일요일 오후 4시 50분 KBS N Life를 통해 만날 수 있다.giba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91.txt

제목: 수혈이 안전하다고?… 맹신은 금물  
날짜: 20150821  
기자: 정승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0827403  
본문: 후나세 ?스케, 우츠미 사토루 지음/김영진 옮김/성안당/1만4000원수혈의 배신/후나세 ?스케, 우츠미 사토루 지음/김영진 옮김/성안당/1만4000원 <br/> <br/>중환자를 수술할 때 수혈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수혈 없이 암 환자 수술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혈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크다면 수혈을 마냥 고집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일본인 의료전문 저널리스트와 현직 의사인 저자들은 ‘수혈의 배신’에서 인류는 수혈의 효과와 부작용을 공론화한 적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의료계도 피를 흘리니 피를 보충한다는 통념에서 그저 관행대로 수혈해왔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런 수혈 맹신주의에 경종을 울리면서 수혈 없이도 중환자 수술이 가능한 의료 기술을 소개한다. <br/> <br/>“수혈의 가장 큰 약점은 면역력 저하에 있으며 암환자에게 수혈은 거의 치명적일 수 있다. 다른 혈액이 몸에 들어오면 면역체계가 손상돼 암 증식이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혈의 42%는 암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 수혈은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의료행위다.” <br/> <br/>저자들은 “<span class='quot0'>수혈과 혈액제제에 교묘하게 감춰진 ‘목적’은 부작용에 의한 새로운 환자의 대량생산</span>”이라고 폭로한다. 예컨대 수혈받은 지 수십년이 지난 환자들의 혈액에서 본인의 DNA가 아닌 타인의 DNA가 발견되며, 수혈로 인한 감염이 새로운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수혈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br/> <br/>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서평을 통해 “<span class='quot1'>암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결론은 인류는 절대로 한 방울의 피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사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그런 피를 단 몇 가지의 테스트만 거쳐 별 생각 없이 수혈이라는 방식을 통해 인간에서 인간으로 교환해 온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엽기적</span>”이라고 지적한다. <br/> <br/>저자는 책에서 “<span class='quot0'>쇼와 일왕도 수혈로 죽었고 수혈은 할수록 출혈이 더 일어나며, 가족이나 친족의 혈액은 오히려 더 위험하고 수혈받은 사람은 600건에 1건 비율로 발병한다</span>”고 주장한다. <br/> <br/>특히 혈액 유통 과정에는 돈벌이에 매몰된 의료계의 흑막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혈로 질병을 악화시켜 돈벌이를 하는 의료 비즈니스 시스템과, 오로지 돈벌이에만 집착하는 국제적십자사의 현실도 비판한다. 적십자 활동 이면에는 거대한 혈액 관련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거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모두 조직적으로 얽혀있다는 것이다. <br/> <br/>저자들은 “<span class='quot0'>혈액은 혈액제제라는 새로운 이권을 창출하고 동시에 형성된 이권체제는 ‘사랑의 헌혈’이라는 미명 하에 적십자사라는 세계적 조직을 거대한 괴물로 둔갑시켰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자애로운 미소를 띤 천사의 얼굴이지만 숨겨진 모습은 피에 굶주린 악마의 얼굴</span>”이라고 통렬히 비판한다. 그러면서 국제적십자사와 관련된 각국 적십자사의 흑막, 금융 명가로 소문난 유태계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게 수혈 비즈니스에 개입되었는지 등을 파헤친다. <br/> <br/>저자들은 수혈 없이 수술에 도전하는 의사들의 노력과 실천도 소개한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2'>정형외과 분야의 암환자를 치료하는 본인도 최근에는 대부분의 환자를 수혈하지 않고 대체요법들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정승욱 선임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92.txt

제목: 수혈이 안전하다고?… 맹신은 금물  
날짜: 20150821  
기자: 정승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110018317349  
본문: 후나세 ?스케, 우츠미 사토루 지음/김영진 옮김/성안당/1만4000원수혈의 배신/후나세 ?스케, 우츠미 사토루 지음/김영진 옮김/성안당/1만4000원 <br/> <br/>중환자를 수술할 때 수혈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수혈 없이 암 환자 수술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혈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크다면 수혈을 마냥 고집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일본인 의료전문 저널리스트와 현직 의사인 저자들은 ‘수혈의 배신’에서 인류는 수혈의 효과와 부작용을 공론화한 적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의료계도 피를 흘리니 피를 보충한다는 통념에서 그저 관행대로 수혈해왔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런 수혈 맹신주의에 경종을 울리면서 수혈 없이도 중환자 수술이 가능한 의료 기술을 소개한다. <br/> <br/>“수혈의 가장 큰 약점은 면역력 저하에 있으며 암환자에게 수혈은 거의 치명적일 수 있다. 다른 혈액이 몸에 들어오면 면역체계가 손상돼 암 증식이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혈의 42%는 암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 수혈은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의료행위다.” <br/> <br/>저자들은 “<span class='quot0'>수혈과 혈액제제에 교묘하게 감춰진 ‘목적’은 부작용에 의한 새로운 환자의 대량생산</span>”이라고 폭로한다. 예컨대 수혈받은 지 수십년이 지난 환자들의 혈액에서 본인의 DNA가 아닌 타인의 DNA가 발견되며, 수혈로 인한 감염이 새로운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수혈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br/> <br/>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서평을 통해 “<span class='quot1'>암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결론은 인류는 절대로 한 방울의 피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사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그런 피를 단 몇 가지의 테스트만 거쳐 별 생각 없이 수혈이라는 방식을 통해 인간에서 인간으로 교환해 온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엽기적</span>”이라고 지적한다. <br/> <br/>저자는 책에서 “<span class='quot0'>쇼와 일왕도 수혈로 죽었고 수혈은 할수록 출혈이 더 일어나며, 가족이나 친족의 혈액은 오히려 더 위험하고 수혈받은 사람은 600건에 1건 비율로 발병한다</span>”고 주장한다. <br/> <br/>특히 혈액 유통 과정에는 돈벌이에 매몰된 의료계의 흑막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혈로 질병을 악화시켜 돈벌이를 하는 의료 비즈니스 시스템과, 오로지 돈벌이에만 집착하는 국제적십자사의 현실도 비판한다. 적십자 활동 이면에는 거대한 혈액 관련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거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모두 조직적으로 얽혀있다는 것이다. <br/> <br/>저자들은 “<span class='quot0'>혈액은 혈액제제라는 새로운 이권을 창출하고 동시에 형성된 이권체제는 ‘사랑의 헌혈’이라는 미명 하에 적십자사라는 세계적 조직을 거대한 괴물로 둔갑시켰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자애로운 미소를 띤 천사의 얼굴이지만 숨겨진 모습은 피에 굶주린 악마의 얼굴</span>”이라고 통렬히 비판한다. 그러면서 국제적십자사와 관련된 각국 적십자사의 흑막, 금융 명가로 소문난 유태계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게 수혈 비즈니스에 개입되었는지 등을 파헤친다. <br/> <br/>저자들은 수혈 없이 수술에 도전하는 의사들의 노력과 실천도 소개한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2'>정형외과 분야의 암환자를 치료하는 본인도 최근에는 대부분의 환자를 수혈하지 않고 대체요법들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정승욱 선임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93.txt

제목: 카터 전 대통령 "간암 뇌로 전이…신의 손에 달렸다"  
날짜: 2015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1100000459  
본문: 지미 카터(91) 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암이 뇌까지 전이됐다고 밝혔다.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애틀랜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초 수술로 간에 있던 흑색종을 모두 제거했으나 MRI 촬영을 통해 뇌에서 4개의 새로운 흑색종이 발견됐다"며 암이 내 몸의 다른 장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에모리대 병원에서 치료 중인 카터 전 대통령은 뇌로 전이된 종양 치료를 위해 이날부터 방사선 치료와 함께 지난해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흑색종 치료약 키트루다(Keytruda) 1회분을 투여받았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카터 전 대통령이 90이 넘은 고령임에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완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치료를 담당하는 월터 쿠란 주니어 에모리대 병원 교수는 "다른 장기로 전이된 흑색종과 같은 병을 앓은 환자에 대해선 완치를 기대하지 않는다."며 "질병을 억제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잘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카터 전 대통령이 투여받은 키트루다는 절제수술이 어려운 전이성 흑색종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면역체계를 자극,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찾아내 파괴하게 해준다. 암 전문가들은 그가 완치되지 않더라도 약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텍사스대 MD 앤더슨 대 흑색종 전문가인 패트릭 화 박사는 키트루다가 기존 항암화학제보다 부작용이 없는 놀라운 약이라고 평가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키트루다를 투여받은 뒤 "어깨가 조금 아프지만 심각한 통증은 없다"며 "주사를 처음 맞은 날 14시간 동안 잤다. 여러 해 동안 가장 잘 잔 것 같다"라고 전했다.카터 전 대통령은 이어 "이제 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결과가 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청바지에 재킷 차림으로 45분가량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환자답지 않게 환한 웃음과 쾌활한 태도로 유머를 섞어가며 담담하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은 보도했다.지난 3일 MRI 검사 후 뇌로 종양이 전이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카터 전 대통령은 "그날 밤 '이제 살 날이 몇 주밖에 안 남았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아주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전했다.이어 "나는 멋진 삶을 살았고,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고, 즐겁고 기쁜 생활을 누렸다. 놀랍게도 난 아내보다 훨씬 더 편안하다"라고 덧붙였다.살면서 가장 후회된 일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대통령 재임 시절 이란의 미국 인질 구출작전에 실패한 것을 꼽으면서 "헬리콥터 한 대를 더 보내고 싶었다. 그랬다면 우리는 인질을 구하고 나도 재선에 성공했을 것"이라고 농담했다.그는 "4년의 임기를 더 맡는 것과 카터센터 중 하나를 고르라면 난 카터센터를 골랐을 것"이라며 퇴임 후 인도주의 활동에 자부심을 보였다.그럼에도 치료를 위해 "후원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편지에 서명하는 일 외에 카터센터 활동도 크게 줄이겠다"고 전했다. 오는 11월 '해비타트' 운동을 위한 네팔 방문 일정도 가족을 대신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생존해 있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 연장자인 카터 전 대통령은 "암 진단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존 바이든 부통령,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격려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했다.뉴욕대학(NYU) 로라 앤드 아이작 펄뮤터 암센터의 안나 패블릭 박사는 "흑색종은 95% 정도가 피부에서 발병한다"며 카터 전 대통령의 경우도 지금은 흔적이 없어도 피부에서 발생, 전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암 전문가들은 피부에서 발생한 종양이 간이나 뇌로 전이하는 경우가 드문 경우가 아니라고 말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94.txt

제목: 영남알프스서 즐기는 세계의 명산 이야기  
날짜: 20150821  
기자: 이보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1100000028  
본문: 울산에는 해발 1000m 이상의 산 7개가 병풍처럼 길게 늘어선 곳이 있다. 유럽 알프스산맥에 견줄 만큼 풍광이 아름답다고 해서 ‘영남알프스’란 이름이 붙었다. 산 정상부에는 은빛 억새평원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힘있게 치솟은 기암절벽과 원시림 같은 숲, 계곡이 어우러져 있어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영남알프스에서 영상을 통해 세계 명산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영화제가 열린다. 전 세계 유명산을 주제로 한 ‘2015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UMFP·Ulju Mountain Film Pre-Festival)’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5일간 열린다. ‘산’을 주제로 한 국제영화제는 국내에서 처음이다.프레페스티벌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사전영화제이다. 프레페스티벌은 비경쟁 초청영화제로 개최하고, 내년 제1회 산악영화제부터 부분경쟁을 도입할 계획이다.‘2015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이 열리는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야외상영장 뒷편 풍경. 영남알프스 중 하나인 신불산과 간월재가 보인다.‘울주는 산이다! 산을 만난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프레페스티벌에서는 13개국에서 출품한 43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장편(60분 이상) 9편, 중편(40∼60분) 5편, 단편(40분 미만) 29편 등이다.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는 무료로 볼 수 있으며 상영관은 선착순 입장이다.개막식과 야외상영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열린다. 일반 상영과 부대행사는 울주문화예술회관과 울주군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진행된다. 각 상영관은 하루 16차례 운영하는 셔틀버스로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셔틀버스는 상영관과 울산시청, KTX울산역, 언양파출소, 작천정삼거리 등도 오간다. 영화제 홍보대사는 등반가 엄홍길씨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제작지원 프로젝트 선정작인 ‘오월’의 주연배우 이다희씨가 맡았다.개막작은 스페인 세바스티앙 몽타스로제 감독의 ‘하늘을 달리는 사람들’이 선정됐다. 해발 2000m 이상, 경사도 30도 이상의 산에서 달리기를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스카이러닝’ 월드 챔피언인 킬리언 조넷의 마테호른 왕복기를 담았다. 어릴 적부터 자신의 우상이었던 전설적인 스카이러너 브루노 브루노드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4000m가 넘는 몽블랑, 체르비노, 마테호른의 왕복기록에 도전하는 내용이다.영화는 성격별로 ‘산+끌림’,‘산+누림’, ‘산+울림’ 섹션으로 나누어 상영된다. 우선 ‘산+끌림’은 등반과 스키, 패러글라이딩, 바이킹, 카약 등 전통적이고 전문적인 산악스포츠 영화를 상영한다. 요세미티산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미국 등반역사를 다룬 ‘반란의 계곡’, 새로운 동굴 발굴에 나선 뉴질랜드의 동굴탐험대의 모험 ‘케이브 커넥션’, 노장 등반가와 스키어의 삶과 자연에 대한 겸허한 철학이 그대로 전해지는 ‘루키’, ‘88청춘’ 등이다. 놀라운 속도로 녹아 내리고 있는 북극 빙하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드러낸 ‘빙하를 따라서’까지 다양한 산악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다.‘2015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에서는 숲 속에서 로프를 이용해 나무등반을 하는 ‘트리 클라이밍 나무노리’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된다.‘산+누림’에서는 모험과 탐험, 여행을 통해 산과 자연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도시의 루저였던 청년이 진정한 ‘산사나이’로 변해 가는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낸 ‘우드잡’, 아마추어 스포츠정신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투르드 프랑스: 기적의 레이스’, 한국의 자연을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해낸 8편의 한국 독립애니메이션 등이다. 푸른빛의 바다가 화면 전체로 가득 차오르는 듯한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뤼크 베송 감독의 ‘그랑블루’ 리마스터링 확장판은 필수 관람작이다.영화제 체험 프로그램 중 ‘하늘억새길 힐링 트레킹’. 전문 스토리텔러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불산 하늘억새길을 걷는 내용이다.‘산+울림’에서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산악문화와 그곳에 둥지를 틀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철학을 통해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따뜻한 영화들로 채워졌다. 나무의 인생을 한 편의 시처럼 우아하게 풀어낸 ‘걷는 나무’, 도심 한가운데로 양떼를 몰고 나타난 양치기의 꿈을 동화같이 그려낸 ‘마지막 양치기’ 등 6편이다.‘네팔특별전: 네팔의 희망’도 마련된다. 지난 4월 대지진이 발생한 네팔을 응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열렸던 네팔 카트만두국제산악영화제 수상작 3편이 상영된다. 보즈라즈 밧 감독의 ‘수나칼리’, ‘락싸 반타와 감독의 포완’, 사친 기미르 감독의 ‘푼테의 바퀴’로, 개인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영화만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도 다양하다. 야간 야외영화 상영에 앞서 대중음악과 인디뮤지션, 프로 묘기자전거팀 등의 공연을 선보인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전문산악인들의 베이스캠프와 다양한 등산장비도 구경할 수 있다. 영남알프스 산자락에서 캠핑과 야영,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백패킹 야영존’이 운영되고, 숲 속에서 로프를 이용해 나무등반을 하는 ‘트리 클라이밍 나무노리’, 인공암벽장을 오르는 ‘스포츠 클라이밍 도전! 스파이더맨’을 체험할 수 있다. 전문 스토리텔러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불산 하늘억새길을 걷는 ‘하늘억새길 힐링 트레킹’, 별 사진 촬영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 간월재 일원을 등반하는 ‘영남알프스 별 사진 촬영’ 등의 이색 체험프로그램은 즐길 만하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95.txt

제목: [WT논평] 인공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사람들  
날짜: 2015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1100000039  
본문: Environmentalists have opened a new front in their long-running war against man-made chemicals. The latest battle is over antibacterial hand soaps, which have long been used to fight germs and stop the spread of bacteria in hospitals, in schools and in the home.The campaign to get government to regulate these soaps is working. After th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filed a lawsuit,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cently proposed a rule that would implement a stricter burden of proof on the safety and efficacy of antibacterial hand and body soaps that are used in health care settings. This followed a similar 2013 rule targeting consumer antibacterial soaps.As usual in battles over man-made chemicals, environmentalists have been skillful in getting their message out through the media. But the reality is that much of the coverage on such chemicals has little in common with what the scientific experts really think. Not only are many journalists predisposed to mistrust industry, but the scientists who are most willing to spend the time and effort to educate reporters are often those seeking a wide audience for their own social concerns. In fact, one study concluded that media coverage of environmental health issues far more closely resembled the attitudes of environmental activists than those of scientific researchers.The same study found that, over 20 years of news coverage, man-made chemicals were cited as a cause of cancer nearly twice as many times as tobacco and far more than any other substance. For example, a recent Newsweek article carries the provocative headline: “Is Cancer Lurking in Your Toothpaste (and Your Soap and Your Lipstick?)” After reading this article, it would be hard to come to any other conclusion. The lead quote comes from a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lawyer, followed by comments from several scientists who echo her concerns. But how does the public know whether the scientists and studies that are cited in such news articles accurately represent expert opinion?When it comes to antibacterial soaps, the expert thinking is clear on a chemical that environmentalists have zeroed in on - triclosan. In 2009, the polling firm Harris Interactive surveyed 937 members of the Society of Toxicology, the professional association of scientists who study the adverse health effects of chemicals. When asked to rate the health risks attributable to a variety of chemicals, only 4 percent rated triclosan as a major health risk. That placed it below corn syrup.인공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사람들S 로버트 S 릭터(美 조지메이슨大 커뮤니케이션학 교수)환경보호주의자들이 그들의 장기 전쟁에서 인공 화학물질에 반대하는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 가장 최근의 전투는 항균비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데 이 항균비누는 오랜 기간 세균과의 싸움에서 병원, 학교, 가정 내 박테리아의 확산을 중지시키는 데 사용되어 왔다. 정부가 이런 비누를 규제하도록 만드는 운동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천연자원보호협의회가 법률소송을 제기한 뒤 식품의약국은 의료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 및 신체 세척용 항균비누의 안전성과 효능 입증의 보다 강력한 부담을 지우는 법령을 얼마 전에 제안했다. 이 조치는, 소비자용 항균비누를 겨냥한 2013년의 유사한 법령의 뒤를 이은 것이다.각종 인공 화학물질을 둘러싼 전투에서 늘 그러듯이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자기네 메시지를 전달하는 솜씨를 발휘한다. 그러나 그런 화학물질에 관한 언론보도의 대부분은 과학계 전문가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별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언론인들이 산업계를 불신하는 성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진을 교육하는 데 매우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 과학자들은 자기네 자신의 사회적 관심사에 폭넓은 청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들인 경우가 흔하다. 사실 한 연구는, 환경보건 현안들에 관한 언론매체의 보도가 과학적인 연구자들의 태도보다는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태도와 훨씬 더 닮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같은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의 뉴스보도에서 여러 가지 인공 화학물질이 발암 원인으로 담배보다 거의 2배, 다른 모든 물질보다 훨씬 많이 인용된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최근 뉴스위크 기사는 다음과 같은 도발적인 제목을 게재하고 있다. “<span class='quot0'>암은 당신의 치약(과 비누 및 립스틱) 속에 숨어 있는가.</span>” 이 기사를 읽은 다음 어떤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사의 도입 부분은 천연자원보호협의회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하고 뒤이어 이 여자 변호사의 우려에 동조하는 몇몇 과학자들의 견해가 나온다. 그러나 그런 뉴스기사에서 인용되는 과학자들과 연구결과가 전문가의 견해를 정확하게 대변하는지 여부를 일반대중이 어떻게 알겠는가.항균비누의 경우,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정조준하고 있는 화학물질인 트리클로산에 대한 전문가 생각은 분명하다. 2009년에 여론조사 회사인 해리스 인터액티브 사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화학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전문협회인 독성학회 회원 9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 부담 비율을 질문받았을 때 트리클로산을 주요 건강 위협 요인으로 평가한 회원은 4%에 불과했다. 그런 비율은 옥수수 시럽 아래 놓인다.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antibacterial soap:항균비누 ▲predisposed to:성향이 있는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96.txt

제목: 영남알프스서 즐기는 세계의 명산 이야기  
날짜: 20150820  
기자: 울산=이보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0238035  
본문: 울산에는 해발 1000m 이상의 산 7개가 병풍처럼 길게 늘어선 곳이 있다. 유럽 알프스산맥에 견줄 만큼 풍광이 아름답다고 해서 ‘영남알프스’란 <br/> <br/>이름이 붙었다. 산 정상부에는 은빛 억새평원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힘있게 치솟은 기암절벽과 원시림 같은 숲, 계곡이 어우러져 있어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영남알프스에서 영상을 통해 세계 명산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영화제가 열린다. 전 세계 유명산을 주제로 한 <br/> <br/>‘2015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UMFP·Ulju Mountain Film Pre-Festival)’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5일간 열린다. <br/> <br/>‘산’을 주제로 한 국제영화제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br/> <br/>프레페스티벌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사전영화제이다. 프레페스티벌은 비경쟁 초청영화제로 개최하고, 내년 제1회 산악영화제부터 부분경쟁을 도입할 계획이다. <br/> <br/> ‘2015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이 열리는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야외상영장 뒷편 풍경. 영남알프스 중 하나인 신불산과 간월재가 보인다.‘울주는 산이다! 산을 만난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프레페스티벌에서는 13개국에서 출품한 43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장편(60분 이상) 9편, 중편(40∼60분) 5편, 단편(40분 미만) 29편 등이다.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는 무료로 볼 수 있으며 상영관은 선착순 입장이다. <br/> <br/>개막식과 야외상영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열린다. <br/> <br/>일반 상영과 부대행사는 울주문화예술회관과 울주군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진행된다. 각 상영관은 하루 16차례 운영하는 셔틀버스로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셔틀버스는 상영관과 울산시청, KTX울산역, 언양파출소, 작천정삼거리 등도 오간다. 영화제 홍보대사는 등반가 엄홍길씨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제작지원 프로젝트 선정작인 ‘오월’의 주연배우 이다희씨가 맡았다. <br/> <br/>개막작은 스페인 세바스티앙 몽타스로제 감독의 ‘하늘을 달리는 사람들’이 선정됐다. 해발 2000m 이상, 경사도 30도 이상의 산에서 달리기를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스카이러닝’ 월드 챔피언인 킬리언 조넷의 마테호른 왕복기를 담았다. 어릴 적부터 자신의 우상이었던 전설적인 스카이러너 브루노 브루노드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4000m가 넘는 몽블랑, 체르비노, 마테호른의 왕복기록에 도전하는 내용이다. <br/> <br/>영화는 성격별로 ‘산+끌림’,‘산+누림’, ‘산+울림’ 섹션으로 나누어 상영된다. 우선 ‘산+끌림’은 등반과 스키, 패러글라이딩, 바이킹, 카약 등 전통적이고 전문적인 산악스포츠 영화를 상영한다. 요세미티산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미국 등반역사를 다룬 ‘반란의 계곡’, 새로운 동굴 발굴에 나선 뉴질랜드의 동굴탐험대의 모험 ‘케이브 커넥션’, 노장 등반가와 스키어의 삶과 자연에 대한 겸허한 철학이 그대로 전해지는 ‘루키’, ‘88청춘’ 등이다. 놀라운 속도로 녹아 내리고 있는 북극 빙하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드러낸 ‘빙하를 따라서’까지 다양한 산악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다. <br/> <br/> ‘2015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에서는 숲 속에서 로프를 이용해 나무등반을 하는 ‘트리 클라이밍 나무노리’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된다.‘산+누림’에서는 모험과 탐험, 여행을 통해 산과 자연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도시의 루저였던 청년이 진정한 ‘산사나이’로 변해 가는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낸 ‘우드잡’, 아마추어 스포츠정신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투르드 프랑스: 기적의 레이스’, 한국의 자연을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해낸 8편의 한국 독립애니메이션 등이다. <br/> <br/>푸른빛의 바다가 화면 전체로 가득 차오르는 듯한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뤼크 베송 감독의 ‘그랑블루’ 리마스터링 확장판은 필수 관람작이다. <br/> <br/> 영화제 체험 프로그램 중 ‘하늘억새길 힐링 트레킹’. 전문 스토리텔러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불산 하늘억새길을 걷는 내용이다.‘산+울림’에서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산악문화와 그곳에 둥지를 틀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철학을 통해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따뜻한 영화들로 채워졌다. 나무의 인생을 한 편의 시처럼 우아하게 풀어낸 ‘걷는 나무’, 도심 한가운데로 양떼를 몰고 나타난 양치기의 꿈을 동화같이 그려낸 ‘마지막 양치기’ 등 6편이다. <br/> <br/>‘네팔특별전: 네팔의 희망’도 마련된다. 지난 4월 대지진이 발생한 네팔을 응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열렸던 네팔 카트만두국제산악영화제 수상작 3편이 상영된다. 보즈라즈 밧 감독의 ‘수나칼리’, ‘락싸 반타와 감독의 포완’, 사친 기미르 감독의 ‘푼테의 바퀴’로, 개인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br/> <br/> 영화만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도 다양하다. 야간 야외영화 상영에 앞서 대중음악과 인디뮤지션, 프로 묘기자전거팀 등의 공연을 선보인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전문산악인들의 베이스캠프와 다양한 등산장비도 구경할 수 있다. 영남알프스 산자락에서 캠핑과 야영,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백패킹 야영존’이 운영되고, 숲 속에서 로프를 이용해 나무등반을 하는 ‘트리 클라이밍 나무노리’, 인공암벽장을 오르는 ‘스포츠 클라이밍 도전! 스파이더맨’을 체험할 수 있다. <br/> <br/>전문 스토리텔러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불산 하늘억새길을 걷는 ‘하늘억새길 힐링 트레킹’, 별 사진 촬영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 간월재 일원을 등반하는 ‘영남알프스 별 사진 촬영’ 등의 이색 체험프로그램은 즐길 만하다. <br/> <br/>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97.txt

제목: [WT논평] 인공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사람들  
날짜: 20150820  
기자: 오성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0226277  
본문: Environmentalists have opened a new front in their long-running war against man-made chemicals. The latest battle is over antibacterial hand soaps, which have long been used to fight germs and stop the spread of bacteria in hospitals, in schools and in the home. <br/> <br/>The campaign to get government to regulate these soaps is working. After th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filed a lawsuit,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cently proposed a rule that would implement a stricter burden of proof on the safety and efficacy of antibacterial hand and body soaps that are used in health care settings. This followed a similar 2013 rule targeting consumer antibacterial soaps. <br/> <br/>As usual in battles over man-made chemicals, environmentalists have been skillful in getting their message out through the media. But the reality is that much of the coverage on such chemicals has little in common with what the scientific experts really think. Not only are many journalists predisposed to mistrust industry, but the scientists who are most willing to spend the time and effort to educate reporters are often those seeking a wide audience for their own social concerns. In fact, one study concluded that media coverage of environmental health issues far more closely resembled the attitudes of environmental activists than those of scientific researchers. <br/> <br/>The same study found that, over 20 years of news coverage, man-made chemicals were cited as a cause of cancer nearly twice as many times as tobacco and far more than any other substance. For example, a recent Newsweek article carries the provocative headline: “Is Cancer Lurking in Your Toothpaste (and Your Soap and Your Lipstick?)” After reading this article, it would be hard to come to any other conclusion. The lead quote comes from a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lawyer, followed by comments from several scientists who echo her concerns. But how does the public know whether the scientists and studies that are cited in such news articles accurately represent expert opinion? <br/> <br/>When it comes to antibacterial soaps, the expert thinking is clear on a chemical that environmentalists have zeroed in on - triclosan. In 2009, the polling firm Harris Interactive surveyed 937 members of the Society of Toxicology, the professional association of scientists who study the adverse health effects of chemicals. When asked to rate the health risks attributable to a variety of chemicals, only 4 percent rated triclosan as a major health risk. That placed it below corn syrup. <br/> <br/> 인공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사람들 <br/> <br/>S 로버트 S 릭터(美 조지메이슨大 커뮤니케이션학 교수) <br/> <br/>환경보호주의자들이 그들의 장기 전쟁에서 인공 화학물질에 반대하는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 가장 최근의 전투는 항균비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데 이 항균비누는 오랜 기간 세균과의 싸움에서 병원, 학교, 가정 내 박테리아의 확산을 중지시키는 데 사용되어 왔다. <br/> <br/>정부가 이런 비누를 규제하도록 만드는 운동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천연자원보호협의회가 법률소송을 제기한 뒤 식품의약국은 의료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 및 신체 세척용 항균비누의 안전성과 효능 입증의 보다 강력한 부담을 지우는 법령을 얼마 전에 제안했다. 이 조치는, 소비자용 항균비누를 겨냥한 2013년의 유사한 법령의 뒤를 이은 것이다. <br/> <br/>각종 인공 화학물질을 둘러싼 전투에서 늘 그러듯이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자기네 메시지를 전달하는 솜씨를 발휘한다. 그러나 그런 화학물질에 관한 언론보도의 대부분은 과학계 전문가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별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언론인들이 산업계를 불신하는 성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진을 교육하는 데 매우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 과학자들은 자기네 자신의 사회적 관심사에 폭넓은 청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들인 경우가 흔하다. 사실 한 연구는, 환경보건 현안들에 관한 언론매체의 보도가 과학적인 연구자들의 태도보다는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태도와 훨씬 더 닮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br/> <br/>같은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의 뉴스보도에서 여러 가지 인공 화학물질이 발암 원인으로 담배보다 거의 2배, 다른 모든 물질보다 훨씬 많이 인용된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최근 뉴스위크 기사는 다음과 같은 도발적인 제목을 게재하고 있다. “<span class='quot0'>암은 당신의 치약(과 비누 및 립스틱) 속에 숨어 있는가.</span>” 이 기사를 읽은 다음 어떤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사의 도입 부분은 천연자원보호협의회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하고 뒤이어 이 여자 변호사의 우려에 동조하는 몇몇 과학자들의 견해가 나온다. 그러나 그런 뉴스기사에서 인용되는 과학자들과 연구결과가 전문가의 견해를 정확하게 대변하는지 여부를 일반대중이 어떻게 알겠는가. <br/> <br/>항균비누의 경우,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정조준하고 있는 화학물질인 트리클로산에 대한 전문가 생각은 분명하다. 2009년에 여론조사 회사인 해리스 인터액티브 사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화학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전문협회인 독성학회 회원 9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 부담 비율을 질문받았을 때 트리클로산을 주요 건강 위협 요인으로 평가한 회원은 4%에 불과했다. 그런 비율은 옥수수 시럽 아래 놓인다. <br/> <br/>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br/> <br/>▲antibacterial soap:항균비누 ▲predisposed to:성향이 있는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98.txt

제목: 애인있어요 김현주, 가슴 손으로 가리며… 뽀얀 속살 드러내 "눈호강"  
날짜: 20150820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0048818  
본문: 애인있어요 김현주, 가슴 손으로 가리며… 뽀얀 속살 드러내 "눈호강"애인있어요 김현주, 가슴 손으로 가리며… 뽀얀 속살 드러내 "눈호강" <br/> <br/> 애인있어요 김현주가 화제인 가운데 김현주의 과거 누드 화보가 눈길을 끈다. <br/> <br/> 패션 잡지 싱글즈는 2010년 화장품 브랜드 에스티로더가 주관한 '유방암 의식 향상 캠페인' 화보 사진을 공개했다. <br/> <br/> 공개된 사진 속에는 김현주는 상반신을 고스란히 드러낸 채 수줍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 당시 김현주는 화보 촬영과 관련해 "암을 이긴 여성들과 함께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며 "많은 사람이 유방암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 <br/> 한편, 김현주가 '애인있어요'의 출연을 어렵게 결정한 사실을 고백했다. <br/> <br/> 2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목동 SBS사옥에서 주말드라마 '애인있어요'(극본 배유미, 연출 최문석)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배우 김현주, 지진희, 이규한, 박한별이 참석했다. <br/> <br/> 이날 김현주는 "이 작품을 선택하기 까지 고민 많이 했다"라며 "1인2역이라는 것도 그랬고, 어쨌든 불륜성 내용도 사실은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른들의 진짜 사랑을 담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299.txt

제목: 속 시원한 치료법은 없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진단과 치료법  
날짜: 20150820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0015133  
본문:   <br/> <br/>대장 질환 환자가 의사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은 “신경성 입니다”이다. 신경성이라는 말이 병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답한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경성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 없는 병이 있다. 이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두고 하는 말이다. <br/> <br/>◆‘과민성 대장 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이란? <br/>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 발생기전, 진단법 등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진단의 목적과 진단명의 의미이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복통과 설사 혹은 변비로 고생해왔다. 어떤 사람은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수개월 후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 고생은 하지만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수일 후 자연적으로 증상이 없어져 불편함이 사라지는 걸 경험했다.  <br/> <br/>의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차이를 알아내기 위하여 연구를 거듭한 결과 복통의 원인이 심한 염증, 암, 감염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치료를 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후자의 경우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이름 붙였다. <br/> <br/>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박재현 과장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가장 흔한 질환의 하나로서 전체 인구의 15~30%에서 발생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많으며 젊은 나이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으로는 배변습관의 변화, 복통, 복부 팽만감, 트림, 오심, 구토 등이 있고, 식사 후나 스트레스, 긴장, 우울증, 불안 등에 의해 악화되며, 대장증상 외에 가슴 쓰림, 부인과, 비뇨기과 증상 및 기관지 과민반응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br/> <br/>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항진된 장운동기능, 내장의 과감각, 통증에 대한 예민도 증가, 감각기능의 이상, 중추신경계와 장관신경계의 상호작용 이상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br/> <br/>◆‘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하는 경우 <br/>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 스트레스 등에 의해 장 근육의 이상 수축과 경련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복통이 생기고 변의 통과시간의 변화를 일으켜 설사를 하거나 변비나 복부팽만감을 호소하게 된다. 이 병을 진단하는 특별한 검사법은 없다.  <br/> <br/>진단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최소한 3개월 동안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복통이나 복부 불쾌감이 배변에 의해 완화되거나 배변횟수, 배변주기, 대변 굳기의 변화, 힘든 배변, 불완전 배출감, 점액의 배출,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 나타나야 한다. 진단은 증상만으로 가능하지만 다른 질환과의 감별진단은 필수적이다. 감별진단을 위해 기본적인 혈액검사, 대변검사, 굴절성S자결장경검사를 시행한다. <br/> <br/> <br/>간혹 과거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 받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증상이나 심해지는 복통을 가볍게 여겨 병을 키우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노년층에서 지속적으로 증상이 악화될 때, 복통으로 잠을 깰 때, 발열, 우울증과 연관이 있을 때, 체중감소, 치열이나 치열이 없는 직장출혈, 지방변 혹은 탈수가 동반될 때에는 악성 종양, 염증성 질환, 흡수장애 등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br/> <br/>◆‘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법 <br/>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므로 단기간에 집중적인 치료를 하여 완치하는 질환이 아니고 의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음식, 약물 등을 찾아 증상을 조절해 나가는 질환이다. 심리적인 치료로는 스트레스, 우울증 관리 및 치료의 한계성 설명, 정신요법, 신경안정제, 항우울증제 등이 있다.  <br/> <br/>식사요법으로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가능하면 고섬유소, 저지방식을 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증상을 일으키는 특정한 음식은 따로 없고 다만 가스를 많이 형성하는 콩, 캐비지 같은 음식이나 캔디, 카페인, 술 등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br/> <br/>약물치료는 복통이나 설사 혹은 변비 등에 의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경우 시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약은 증상에 따라 증상을 호전시키는 약을 사용한다. 하지만 어떤 약도 지속적 효과를 약속하지 못하고 모든 약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을 사용한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00.txt

제목: [인터뷰]“자연통합의학은 가장 앞선 암 치료 방법입니다”  
날짜: 20150820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0100000632  
본문:  암 치료에 있어서 현대의학을 유일한 치료 방법으로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던 미국에서도 최근 암과의 전쟁에 실패하였음을 공표하고 통합의학적 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자연통합의학암학회 문창식 회장은 “통합의학의 정확한 정의는 현대의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과학적 근거를 가진 다양한 의료체계를 현대의학과 접목한 것 ”이라면서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통합의학적 암 치료에 더 많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통합의학에 대한 관심을 반증하듯, 학회가 지난 3월 개최한 전국단위 세미나에는 약 300여명의 의료인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많은 기업이 참여해 언론의 눈길을 끈바 있다.문 회장은 “암 치료에 있어 통합의학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학문이다. 특히 현대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에서 통합의학은 양한방의 갈등을 넘어 암 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 회장은 “현재 우리 의료계의 현실은 이런 통합의학을 통한 암 환자를 치료할 의사나 한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라며 “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통합의학 암 치료 전문병원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할 의사가 많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이에 자연통합의학 암 학회에서는 2014년부터 이를 담당할 통합의학 암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현재 2기 과정을 마치고 오는 9월 6일부터 제 3기 자연통합의학암아카데미가 개최될 예정으로 의료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기에는 1기보다 많은 수강자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참여 열기가 더욱 뜨거워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카데미는 총 12주 과정으로 암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암 환자의 심리적인 문제에서부터 부작용 관리, 최신 암 치료법과 병원 관리 등 암과 관련해 의사가 알아야할 모든 것들을 집중 교육하는 장으로서, 지금껏 약 70여명의 의사가 교육을 받고 일선에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전념을 다하고 있다.특히 마지막 수업은 1박 2일 일정으로 직접 암 치료 프로그램을 실습하고 회원들간 깊은 정보교류의 장을 가짐으로서 수강생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문 회장은 “<span class='quot0'>화학요법, 수술, 방사선 치료 등 소위 3대 요법을 마친 환자들이 재발방지와 완치를 위해 케어 받을 의료서비스가 크게 부족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통합의학적 암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려야할 사명감이 있다</span>”고 강조했다.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01.txt

제목: "81%는 만성질환으로 죽는데…예방·관리는 미흡"  
날짜: 2015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0100000644  
본문: 암, 순환기계 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률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질병관리본부가 '제5차 만성질환 예방관리 포럼'을 앞두고 발간한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보면, 사망원인 상위 10개 중 7개가 만성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의 81%인 것으로 분석됐다.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손상 12%, 감염성 질환 7%)는 일부에 그쳤다. 만성질환 중에서는 암(3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순환기계질환(27%), 당뇨병(5%), 만성하기도질환(3%) 등의 순이었다.특히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 4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만성질환 사망의 70%(총 사망자의 5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그러나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식습관 등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거나 갈수록 악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꾸준하게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신체활동 실천율은 2007년 54.7%에서 2013년 47.2%로 감소했다. 반면 에너지 과잉섭취자는 2007년 12.5%에서 21.6%로 증가했다.2013년 흡연율은 24.1%로 2007년(25.3%)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여전히 40%를 넘는다.고위험 음주율 역시 12.5%에 달했다.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비만 등 적절한 관리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만성질환도 치료율, 합병증 관리율 등이 여전히 낮았다.질병관리본부는 주요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성질환 종합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포럼'이 21일 서울 가톨릭의대에서 열린다.질병관리본부는 만성질환 현안과 올바른 예방·관리법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만성질환 예방관리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질병관리본부는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픽과 책자 등을 발간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02.txt

제목: 비타민C 밥만 잘 먹어도 충분할까…논란 재점화  
날짜: 2015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0100000240  
본문: 질병관리본부가 "굳이 비싼 비용을 치러가면서 각종 비타민 C 제품을 사서 보충할 필요는 없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자 비타민C 보충제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일 한국인이 식사 등 매일 먹는 음식만으로 하루 비타민C 권장량(100㎎)의 98.7%를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타민C가 가볍게는 피로 해소나 감기 예방 효과부터 심지어는 치매나 암 예방,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주장이 의학계에서 계속 나오면서, 비타민C 제품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다.비타민C는 인체 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동물·식물에서 합성한 것을 섭취해야 한다.체내에 필수적인 물질인 만큼 섭취 자체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으나 권장량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보통 100㎎을 섭취하라고 권장한다. 미국 의학협회,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는 성인에게 90㎎을, 영국 음식표준국(FSA)과 영국국가보건서비스(NHS)는 성인에게 40㎎을 권장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인에게 45㎎, 임신한 여성에게는 55㎎, 수유 여성에게는 70㎎을 권한다.서울대 의대 이왕재(해부학) 교수는 비타민의 효능을 주창하는 '비타민C 전도사'로 통한다.이 교수는 하루 6천㎎ 이상을 복용하는 고용량 용법으로 비타민C의 질병 예방 효과는 물론 치료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또 비타민C는 수용성으로 다량 복용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이에 반해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 교수는 최근 저서에서 비타민C를 과량 복용하면 설사 복통 등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신장결석의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하루 1천㎎ 이상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감기 예방 효과 등을 위해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도 효용성이 있는지 논란이다.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200㎎이상 비타민C를 복용한 사람 중 마라톤 선수 등 운동량이 특별히 많은 사람은 감기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에게는 감기 예방 효과가 거의 없었다.감기에 걸렸을 때 아픈 기간을 줄여주는 약간의 효과도 일부 증명됐다. 그러나 1년 동안 감기로 아픈 기간을 12일에서 11일로 줄이는 정도로 효과가 미미한 편으로 나타났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정도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비타민C를 권장량을 넘겨 꾸준히 복용하라고 권장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장항석 연세대 의대 교수는 최근 펴낸 저서에서 "비타민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명백하지만, 영양보충제의 어떤 치료 효능이 아직 입증된 바가 없다"며 "아까운 돈을 영양보충제에 헛되이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장 교수는 "비타민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필요 이상의 양을 섭취하면 바로 배설되며, 이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어떤 획기적인 역할을 할 만큼 특별한 혈중 농도에 도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03.txt

제목: 애인있어요 김현주, 가슴 손으로 가리며… 뽀얀 속살 드러내 "눈호강"  
날짜: 20150820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010018302024  
본문: 애인있어요 김현주, 가슴 손으로 가리며… 뽀얀 속살 드러내 "눈호강"애인있어요 김현주, 가슴 손으로 가리며… 뽀얀 속살 드러내 "눈호강" <br/> <br/>애인있어요 김현주가 화제인 가운데 김현주의 과거 누드 화보가 눈길을 끈다. <br/> <br/>패션 잡지 싱글즈는 2010년 화장품 브랜드 에스티로더가 주관한 '유방암 의식 향상 캠페인' 화보 사진을 공개했다. <br/> <br/>공개된 사진 속에는 김현주는 상반신을 고스란히 드러낸 채 수줍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다. <br/> <br/>당시 김현주는 화보 촬영과 관련해 "암을 이긴 여성들과 함께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며 "많은 사람이 유방암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 <br/>한편, 김현주가 '애인있어요'의 출연을 어렵게 결정한 사실을 고백했다. <br/> <br/>2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목동 SBS사옥에서 주말드라마 '애인있어요'(극본 배유미, 연출 최문석)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배우 김현주, 지진희, 이규한, 박한별이 참석했다. <br/> <br/>이날 김현주는 "이 작품을 선택하기 까지 고민 많이 했다"라며 "1인2역이라는 것도 그랬고, 어쨌든 불륜성 내용도 사실은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른들의 진짜 사랑을 담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04.txt

제목: 속 시원한 치료법은 없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진단과 치료법  
날짜: 20150820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0100000425  
본문:  대장 질환 환자가 의사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은 “신경성 입니다”이다. 신경성이라는 말이 병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답한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경성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 없는 병이 있다. 이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두고 하는 말이다.◆‘과민성 대장 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이란?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 발생기전, 진단법 등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진단의 목적과 진단명의 의미이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복통과 설사 혹은 변비로 고생해왔다. 어떤 사람은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수개월 후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 고생은 하지만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수일 후 자연적으로 증상이 없어져 불편함이 사라지는 걸 경험했다. 의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차이를 알아내기 위하여 연구를 거듭한 결과 복통의 원인이 심한 염증, 암, 감염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치료를 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후자의 경우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이름 붙였다.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박재현 과장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가장 흔한 질환의 하나로서 전체 인구의 15~30%에서 발생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많으며 젊은 나이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으로는 배변습관의 변화, 복통, 복부 팽만감, 트림, 오심, 구토 등이 있고, 식사 후나 스트레스, 긴장, 우울증, 불안 등에 의해 악화되며, 대장증상 외에 가슴 쓰림, 부인과, 비뇨기과 증상 및 기관지 과민반응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고 말했다.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항진된 장운동기능, 내장의 과감각, 통증에 대한 예민도 증가, 감각기능의 이상, 중추신경계와 장관신경계의 상호작용 이상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하는 경우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 스트레스 등에 의해 장 근육의 이상 수축과 경련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복통이 생기고 변의 통과시간의 변화를 일으켜 설사를 하거나 변비나 복부팽만감을 호소하게 된다. 이 병을 진단하는 특별한 검사법은 없다. 진단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최소한 3개월 동안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복통이나 복부 불쾌감이 배변에 의해 완화되거나 배변횟수, 배변주기, 대변 굳기의 변화, 힘든 배변, 불완전 배출감, 점액의 배출,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 나타나야 한다. 진단은 증상만으로 가능하지만 다른 질환과의 감별진단은 필수적이다. 감별진단을 위해 기본적인 혈액검사, 대변검사, 굴절성S자결장경검사를 시행한다.간혹 과거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 받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증상이나 심해지는 복통을 가볍게 여겨 병을 키우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노년층에서 지속적으로 증상이 악화될 때, 복통으로 잠을 깰 때, 발열, 우울증과 연관이 있을 때, 체중감소, 치열이나 치열이 없는 직장출혈, 지방변 혹은 탈수가 동반될 때에는 악성 종양, 염증성 질환, 흡수장애 등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법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므로 단기간에 집중적인 치료를 하여 완치하는 질환이 아니고 의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음식, 약물 등을 찾아 증상을 조절해 나가는 질환이다. 심리적인 치료로는 스트레스, 우울증 관리 및 치료의 한계성 설명, 정신요법, 신경안정제, 항우울증제 등이 있다. 식사요법으로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가능하면 고섬유소, 저지방식을 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증상을 일으키는 특정한 음식은 따로 없고 다만 가스를 많이 형성하는 콩, 캐비지 같은 음식이나 캔디, 카페인, 술 등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약물치료는 복통이나 설사 혹은 변비 등에 의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경우 시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약은 증상에 따라 증상을 호전시키는 약을 사용한다. 하지만 어떤 약도 지속적 효과를 약속하지 못하고 모든 약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을 사용한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05.txt

제목: 이주향의 인문학 콘서트, 방송의 날 특집 공개 방송  
날짜: 2015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0100000074  
본문: [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선비의 고장 예산에서 우리 안의 인문정신을 찾는다.KBS 1라디오 ‘이주향의 인문학 산책’은 방송의 날 52주년을 맞아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이 가득한 선비의 고장 충남 예산군 추사 김정희 고택에서 ‘이주향의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한다.충청남도는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이자, 충절의 고장으로 유명한 곳. 일찍이 우리 DNA속에 흐르고 있는 정신 가운데 하나인, 이미 기반이 형성된 터전 위에 파격적 창조정신을 발휘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법고창신’의 정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곳에서 나고 자란, 추사 김정희이다. 게다가 조선 후기 노론의 영수 송시열과 소론의 영수 윤증의 생가와 후학을 길러낸 서원이 포진했던 곳 역시 이 곳 충남이다.충남 예산에서 펼치는 각 분야 전문가의 공개강연과 지역문화인과의 좌담 및 문화공연은 듣는 사람들을 과거로 안내하여,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 인문정신을 되새겨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19세기 중국의 한류스타, 추사 김정희기존 추사 관련 저서들의 오류를 조목조목 밝혀내 파란을 일으켰던 추사 전문가이자 고문헌학지인 박철상 박사. 이날 방송에서는 박철상 박사의 밀도높은 강연을 통해, 19세기 중국에서 인기가 높았던 추사의 모습을 만나본다.금석학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19세기 중국 청나라. 북한산 진흥왕순수비, 문무왕비, 무장사비 등 조선 역사상 최고의 비문들이 김정희에 의해 발견되고 탁본으로 청에 건너가면서 김정희는 일약 중국의 ‘만나고 싶은 인사’ 1순위에 오른다.그리고 붕당정치의 파고에 휩쓸렸던 추사 말년, 중국에서 들어온 漢字 서체를 한반도에서 동양문화의 정수를 융합해 새로운 예술 세계를 완성하며 독창적인 추사만의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그의 파격적 창조의 모습을 이야기해본다. 이 내용은 9월 3일 목요일 밤 11시 5분 KBS 1라디오를 통해 들을 수 있다.▲붕당정치의 명과 암… 정치발전의 원동력인가, 망국의 원인인가조선시대의 붕당정치의 역사를 아는 것은 조선의 역사 전반을 꿰뚫는 것일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정치의 심연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조선의 붕당정치에 관심을 갖는다. 어떤 이들은 조선이 당쟁 때문에 망했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는 일제 식민사관의 잔재이며, 이와는 반대로 붕당으로 인해 조선의 정치가 군신 간의 균형을 이루며 발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평가를 살펴본다.이날 마련된 2부 공개방송에서는 조선 후기 사료들을 발굴, 오늘날의 언어로 대중에게 소개하는 인기작가이자, 인문고전계의 파워라이터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안대회 교수의 설명으로 노론의 영수 송시열과 소론의 리더 윤증이 공존했던 이 곳, 충청도에서 조선의 붕당정치가 갖는 두 가지 얼굴을 조명한다. 이 내용은 9월 4일 금요일 밤 11시 5분 KBS 1라디오를 통해 들을 수 있다.한편, 최예림의 가야금 병창으로 듣는 추사 김정희의 시 ‘황산과 함께 짓다’와 한충은의 소금연주와 기타 그리고 퍼커션이라는 서양악기의 앙상블 무대로 마련한 ‘새야’와 ‘신 여민락’ 등의 연주는 저물어가는 여름밤의 정취를 한껏 살려 줄 것으로 기대된다.giba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06.txt

제목: 살찌는 원리 유전자서 찾았다…"비만치료의 신기원"  
날짜: 2015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0100000127  
본문: 살이 찌도록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확인돼 혁신적 비만 치료법이 등장할지 기대가 부풀고 있다.19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대·매사추세츠공과대(MIT) 연구진은 FTO라고 불리는 유전자에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부위와 작동 원리를 확인했다. 그간 FTO 유전자가 뇌를 움직여 식욕이나 음식 선택을 조절한다는 가설은 나온 적이 있으나 지방을 쌓거나 태우는 신진대사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는 처음이다. 마놀리스 켈리스 MIT 교수는 "비만이 음식 섭취와 운동의 불균형 탓에 생긴다는 전통적 견해를 떠나 유전자가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떨어져 있는 IRX3, IRX5 등 두 유전자가 발현하면 지방세포에 영향을 미쳐 체내에 쌓이는 지방의 양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이는 이들 유전자의 기능을 누그러뜨려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방안이 곧 획기적 비만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쥐의 유전자를 변형해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를 이미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진대사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50％나 날씬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멜리나 클로스니처 MIT 객원교수는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고지방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찌지 않았다"고 밝혔다. 클로스니처 교수는 "실험대상인 쥐는 자는 동안에도 계속 에너지를 소모했다"며 "신진대사와 관련한 획기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인체와 관련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전례 없이 효과적인 비만 치료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는 5억 명 이상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 비만은 심혈관계 질환, 당뇨, 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보건의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다. 미국 메인메디컬센터연구소의 클리프 로전 박사는 "이번 연구는 큰 발견"이라며 "약물로 지방세포의 작동 방식을 바꿔 비만을 치료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07.txt

제목: 영남알프스서 즐기는 세계의 명산 이야기  
날짜: 20150820  
기자: 울산=이보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010018305643  
본문: 울산에는 해발 1000m 이상의 산 7개가 병풍처럼 길게 늘어선 곳이 있다. 유럽 알프스산맥에 견줄 만큼 풍광이 아름답다고 해서 ‘영남알프스’란 <br/> <br/>이름이 붙었다. 산 정상부에는 은빛 억새평원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힘있게 치솟은 기암절벽과 원시림 같은 숲, 계곡이 어우러져 있어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영남알프스에서 영상을 통해 세계 명산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영화제가 열린다. 전 세계 유명산을 주제로 한 <br/> <br/>‘2015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UMFP·Ulju Mountain Film Pre-Festival)’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5일간 열린다. <br/> <br/>‘산’을 주제로 한 국제영화제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br/> <br/>프레페스티벌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사전영화제이다. 프레페스티벌은 비경쟁 초청영화제로 개최하고, 내년 제1회 산악영화제부터 부분경쟁을 도입할 계획이다. <br/> <br/>‘2015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이 열리는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야외상영장 뒷편 풍경. 영남알프스 중 하나인 신불산과 간월재가 보인다.‘울주는 산이다! 산을 만난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프레페스티벌에서는 13개국에서 출품한 43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장편(60분 이상) 9편, 중편(40∼60분) 5편, 단편(40분 미만) 29편 등이다.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는 무료로 볼 수 있으며 상영관은 선착순 입장이다. <br/> <br/>개막식과 야외상영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열린다. <br/> <br/>일반 상영과 부대행사는 울주문화예술회관과 울주군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진행된다. 각 상영관은 하루 16차례 운영하는 셔틀버스로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셔틀버스는 상영관과 울산시청, KTX울산역, 언양파출소, 작천정삼거리 등도 오간다. 영화제 홍보대사는 등반가 엄홍길씨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제작지원 프로젝트 선정작인 ‘오월’의 주연배우 이다희씨가 맡았다. <br/> <br/>개막작은 스페인 세바스티앙 몽타스로제 감독의 ‘하늘을 달리는 사람들’이 선정됐다. 해발 2000m 이상, 경사도 30도 이상의 산에서 달리기를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스카이러닝’ 월드 챔피언인 킬리언 조넷의 마테호른 왕복기를 담았다. 어릴 적부터 자신의 우상이었던 전설적인 스카이러너 브루노 브루노드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4000m가 넘는 몽블랑, 체르비노, 마테호른의 왕복기록에 도전하는 내용이다. <br/> <br/>영화는 성격별로 ‘산+끌림’,‘산+누림’, ‘산+울림’ 섹션으로 나누어 상영된다. 우선 ‘산+끌림’은 등반과 스키, 패러글라이딩, 바이킹, 카약 등 전통적이고 전문적인 산악스포츠 영화를 상영한다. 요세미티산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미국 등반역사를 다룬 ‘반란의 계곡’, 새로운 동굴 발굴에 나선 뉴질랜드의 동굴탐험대의 모험 ‘케이브 커넥션’, 노장 등반가와 스키어의 삶과 자연에 대한 겸허한 철학이 그대로 전해지는 ‘루키’, ‘88청춘’ 등이다. 놀라운 속도로 녹아 내리고 있는 북극 빙하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드러낸 ‘빙하를 따라서’까지 다양한 산악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다. <br/> <br/>‘2015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에서는 숲 속에서 로프를 이용해 나무등반을 하는 ‘트리 클라이밍 나무노리’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된다.‘산+누림’에서는 모험과 탐험, 여행을 통해 산과 자연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도시의 루저였던 청년이 진정한 ‘산사나이’로 변해 가는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낸 ‘우드잡’, 아마추어 스포츠정신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투르드 프랑스: 기적의 레이스’, 한국의 자연을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해낸 8편의 한국 독립애니메이션 등이다. <br/> <br/>푸른빛의 바다가 화면 전체로 가득 차오르는 듯한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뤼크 베송 감독의 ‘그랑블루’ 리마스터링 확장판은 필수 관람작이다. <br/> <br/>영화제 체험 프로그램 중 ‘하늘억새길 힐링 트레킹’. 전문 스토리텔러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불산 하늘억새길을 걷는 내용이다.‘산+울림’에서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산악문화와 그곳에 둥지를 틀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철학을 통해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따뜻한 영화들로 채워졌다. 나무의 인생을 한 편의 시처럼 우아하게 풀어낸 ‘걷는 나무’, 도심 한가운데로 양떼를 몰고 나타난 양치기의 꿈을 동화같이 그려낸 ‘마지막 양치기’ 등 6편이다. <br/> <br/>‘네팔특별전: 네팔의 희망’도 마련된다. 지난 4월 대지진이 발생한 네팔을 응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열렸던 네팔 카트만두국제산악영화제 수상작 3편이 상영된다. 보즈라즈 밧 감독의 ‘수나칼리’, ‘락싸 반타와 감독의 포완’, 사친 기미르 감독의 ‘푼테의 바퀴’로, 개인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br/> <br/>영화만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도 다양하다. 야간 야외영화 상영에 앞서 대중음악과 인디뮤지션, 프로 묘기자전거팀 등의 공연을 선보인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전문산악인들의 베이스캠프와 다양한 등산장비도 구경할 수 있다. 영남알프스 산자락에서 캠핑과 야영,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백패킹 야영존’이 운영되고, 숲 속에서 로프를 이용해 나무등반을 하는 ‘트리 클라이밍 나무노리’, 인공암벽장을 오르는 ‘스포츠 클라이밍 도전! 스파이더맨’을 체험할 수 있다. <br/> <br/>전문 스토리텔러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불산 하늘억새길을 걷는 ‘하늘억새길 힐링 트레킹’, 별 사진 촬영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 간월재 일원을 등반하는 ‘영남알프스 별 사진 촬영’ 등의 이색 체험프로그램은 즐길 만하다. <br/> <br/>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08.txt

제목: [미즈] 보석·거울로 치장한 화려한 궁전… 천년 세월에도 위풍당당  
날짜: 20150820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010018304198  
본문: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이른 새벽에 일정을 시작했다. 이 도시 관광을 끝내고 인도 수도인 델리로 들어가야 하는데 관문도로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오전에 서둘러 자이푸르 관광을 마쳐야 했다. 여행코스 중 유일하게 하나의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 관광지다. 자이푸르의 화려함으로 유명한 성(城)인 ‘암베르궁’을 올라갈 때 코끼리를 타거나 편한 지프를 이용할 수 있다. 코끼리를 타고 오르는 것은 왕복요금이 900루피(약 1만6000원)로 인도에서 꽤 비싼 옵션이라 할 수 있다. 지프는 400루피로 반값밖엔 되지 않는다. <br/> <br/>일행 대부분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며 아무 생각 없이 코끼리를 선택했다. 코끼리 등에 올라타기 쉬운 낮은 높이의 탑에서 죽 늘어선 코끼리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코끼리들의 얼굴과 몸에는 아문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분홍빛 생채기 흔적이 가득했다.  <br/> <br/>암베르궁까지 실어다주는 코끼리 무리가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본래 코끼리는 등에 무언가를 태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것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였다. 여기 코끼리들은 관광객을 태우고 하루에 몇십 번을 등반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받은 모양이다. 등반을 하는 길에 코끼리가 계속해서 큰 대변을 보는데, 이는 코끼리가 힘들 때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물론 개인적인 입장에서야 흥미도 있었고 쿨렁대는 코끼리 등이 재미있었지만 이를 즐기기에는 왠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br/> <br/>코끼리 등이 워낙 높다 보니 성채를 오르면서 성벽 외부의 전경을 시원하게 구경할 수 있었다. 호수도 보이고 높이 오를수록 성벽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코끼리 등반 코스가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는가보다 생각했다. <br/> <br/>자이푸르의 암베르궁은 높은 산에 둘러싸여 걸어서 오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성벽 바깥으로는 무굴양식의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데다 힌두와 이슬람 양식의 조화로 건축 예술을 아는 사람들에게 큰 흥밋거리를 제공해 준다. 예술 양식을 구분하는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암베르궁에 들어가면 감탄하는 곳이 딱 한 곳 있는데 그게 바로 거울궁전이다. <br/> <br/>온 방을 거울로 장식해 촛불 하나만 밝혀도 방이 환해지는 구조다. 구석구석 비싼 보석과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했는데 지금도 광채가 남아있어 멀리서도 번쩍거린다. 거울을 잘게 조각 내 모든 벽을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해 놓았다. 인도 여행기간에 매일 보던 성채임에도 과거 인도의 부유함이 한몸에 느껴져 쉽사리 자리를 옮길 수 없었다. <br/> <br/>비록 거울의 방은 내부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고 겉모습만 구경이 가능했다는 점이 아쉬웠다. 자이푸르 지역이 여름에는 매우 덥기 때문에 더위를 식히는 방이 따로 있다. 벽에 창문을 내고 구멍을 자잘하게 뚫어 바람이 통하게 하고 커튼에도 관을 설치해 작은 물방울이 흐르도록 해 실내 온도를 낮추려고 애를 썼다. <br/> <br/>지어진 지 천년이 지났어도 관광객을 계속 유치하고 좋은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엄청난 관리인이 고용돼 있다. 종종 일부러 사진에 찍히고 팁을 요구하는 관리인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역시 인도답다며 웃었던 기억이 난다. <br/> <br/>인도에는 3대 성이 있는데 델리의 레드포트, 아그라의 아그라포트, 그리고 자이푸르의 암베르궁이다. 암베르궁은 규모 면에서 다른 성에 비해 조금 작은 거 같지만 그 화려함은 전혀 뒤지지 않는다. 북인도 여행의 대부분은 각 도시의 유명한 성채를 관광하는 것으로 이뤄져 있다. 각각의 성채가 어찌나 화려하고 특색이 있는 데다 거대한지 질릴 틈도 없이 바쁘게 관광했다. 수수하고 조용한 우리나라의 궁궐과는 다르게 다양한 색을 사용해 어찌 보면 번잡하게까지 느껴지는 여기 성들을 보면서 색다른 느낌을 받는 것도 북인도 성채 관광의 묘미가 아닐까 싶다. <br/> <br/>자이푸르=안재희 리포터  chss072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09.txt

제목: [WT논평] 인공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사람들  
날짜: 20150820  
기자: 오성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010018305116  
본문: Environmentalists have opened a new front in their long-running war against man-made chemicals. The latest battle is over antibacterial hand soaps, which have long been used to fight germs and stop the spread of bacteria in hospitals, in schools and in the home. <br/> <br/>The campaign to get government to regulate these soaps is working. After th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filed a lawsuit,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cently proposed a rule that would implement a stricter burden of proof on the safety and efficacy of antibacterial hand and body soaps that are used in health care settings. This followed a similar 2013 rule targeting consumer antibacterial soaps. <br/> <br/>As usual in battles over man-made chemicals, environmentalists have been skillful in getting their message out through the media. But the reality is that much of the coverage on such chemicals has little in common with what the scientific experts really think. Not only are many journalists predisposed to mistrust industry, but the scientists who are most willing to spend the time and effort to educate reporters are often those seeking a wide audience for their own social concerns. In fact, one study concluded that media coverage of environmental health issues far more closely resembled the attitudes of environmental activists than those of scientific researchers. <br/> <br/>The same study found that, over 20 years of news coverage, man-made chemicals were cited as a cause of cancer nearly twice as many times as tobacco and far more than any other substance. For example, a recent Newsweek article carries the provocative headline: “Is Cancer Lurking in Your Toothpaste (and Your Soap and Your Lipstick?)” After reading this article, it would be hard to come to any other conclusion. The lead quote comes from a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lawyer, followed by comments from several scientists who echo her concerns. But how does the public know whether the scientists and studies that are cited in such news articles accurately represent expert opinion? <br/> <br/>When it comes to antibacterial soaps, the expert thinking is clear on a chemical that environmentalists have zeroed in on - triclosan. In 2009, the polling firm Harris Interactive surveyed 937 members of the Society of Toxicology, the professional association of scientists who study the adverse health effects of chemicals. When asked to rate the health risks attributable to a variety of chemicals, only 4 percent rated triclosan as a major health risk. That placed it below corn syrup. <br/> <br/>인공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사람들 <br/> <br/>S 로버트 S 릭터(美 조지메이슨大 커뮤니케이션학 교수) <br/> <br/>환경보호주의자들이 그들의 장기 전쟁에서 인공 화학물질에 반대하는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 가장 최근의 전투는 항균비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데 이 항균비누는 오랜 기간 세균과의 싸움에서 병원, 학교, 가정 내 박테리아의 확산을 중지시키는 데 사용되어 왔다. <br/> <br/>정부가 이런 비누를 규제하도록 만드는 운동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천연자원보호협의회가 법률소송을 제기한 뒤 식품의약국은 의료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 및 신체 세척용 항균비누의 안전성과 효능 입증의 보다 강력한 부담을 지우는 법령을 얼마 전에 제안했다. 이 조치는, 소비자용 항균비누를 겨냥한 2013년의 유사한 법령의 뒤를 이은 것이다. <br/> <br/>각종 인공 화학물질을 둘러싼 전투에서 늘 그러듯이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자기네 메시지를 전달하는 솜씨를 발휘한다. 그러나 그런 화학물질에 관한 언론보도의 대부분은 과학계 전문가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별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언론인들이 산업계를 불신하는 성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진을 교육하는 데 매우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 과학자들은 자기네 자신의 사회적 관심사에 폭넓은 청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들인 경우가 흔하다. 사실 한 연구는, 환경보건 현안들에 관한 언론매체의 보도가 과학적인 연구자들의 태도보다는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태도와 훨씬 더 닮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br/> <br/>같은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의 뉴스보도에서 여러 가지 인공 화학물질이 발암 원인으로 담배보다 거의 2배, 다른 모든 물질보다 훨씬 많이 인용된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최근 뉴스위크 기사는 다음과 같은 도발적인 제목을 게재하고 있다. “<span class='quot0'>암은 당신의 치약(과 비누 및 립스틱) 속에 숨어 있는가.</span>” 이 기사를 읽은 다음 어떤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사의 도입 부분은 천연자원보호협의회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하고 뒤이어 이 여자 변호사의 우려에 동조하는 몇몇 과학자들의 견해가 나온다. 그러나 그런 뉴스기사에서 인용되는 과학자들과 연구결과가 전문가의 견해를 정확하게 대변하는지 여부를 일반대중이 어떻게 알겠는가. <br/> <br/>항균비누의 경우,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정조준하고 있는 화학물질인 트리클로산에 대한 전문가 생각은 분명하다. 2009년에 여론조사 회사인 해리스 인터액티브 사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화학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전문협회인 독성학회 회원 9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 부담 비율을 질문받았을 때 트리클로산을 주요 건강 위협 요인으로 평가한 회원은 4%에 불과했다. 그런 비율은 옥수수 시럽 아래 놓인다. <br/> <br/>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br/> <br/>▲antibacterial soap:항균비누 ▲predisposed to:성향이 있는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10.txt

제목: 두경부암 완치, 조기 진단이 답이다  
날짜: 2015081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5504606  
본문:   <br/> <br/> <br/>두경부암(頭頸部癌, Head and neck cancer)은 치료가 매우 어렵지만 조기에 진단하면 완치율이 90%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서울대학교암병원 갑상선·구강·두경부암센터 하정훈 교수(이비인후과)는 지난 16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 서울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br/> <br/>하정훈 교수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직접 치료한 두경부암 환자 516명의 예후를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조기 두경부암 일수록 암 생존율은 높게 나타났다. 두경부암은 머리와 목에 생기는 암으로, 연간 4만명 이상 발생하는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연간 4400명 정도 발생하는 비교적 드문 암이다. <br/> <br/>두경부암은 후두암, 구강암, 구인두암, 하인두암, 비인두암, 비강 및 부비동암, 침샘암, 원발부위미상 경부전이암 등으로 크게 나뉜다. 조기 두경부암은 주변조직의 침범이 거의 없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4cm 미만의 종괴를 말한다. 기수로는 1기, 2기 암이다. <br/> <br/>분석 내용을 보면, 후두암 중 가장 많은 성문암(성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기(100%), 2기(100%), 3기(66.7%), 4기(44.2%)로 나타났다. <br/> <br/>구강암 중 가장 많은 설암(혀) 환자의 5년 생존율도 1기(100%), 2기(88.9%), 3기(88.9%), 4기(58.3%)로 나타났다. <br/> <br/>구인두암 중 가장 많은 편도암 환자의 5년 생존율도 1기(100%), 2기(100%), 3기(87.5%), 4기(82.5%)로 나타났다. 구인두암은 진행성이라도 치료가 잘 되는 편인데,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와 관련이 많았다.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두경부암이다. <br/> <br/>구인두암을 제외한 4기의 진행성 두경부암은 절반 정도(부위에 따라 30-60%)의 환자에서 재발했고, 재치료에도 불구하고 30-40%는 사망했다. 이 환자들은 식도암, 폐암, 간암 등 다른 이차암을 가진 경우도 많아 5년 생존율은 약 50%에 불과했다. <br/> <br/>두경부암은 생기는 부위에 따라 성질이 다르고 치료방법도 차이가 있다.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을 잘 선택에서 치료해야 하는데, 워낙 다양하고 드물어, 치료가 매우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 후에도 미용적으로 후유증이 크고, 말하고 숨 쉬고 음식을 삼키는 기능에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흔하다. <br/> <br/>하정훈 교수는 "두경부암의 조기진단은 매우 중요한데, 구강암이나 후두암은 조기 진단이 비교적 쉽고, 치료가 간단하고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완치될 수 있다"며 "진행성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의 세 가지 치료를 잘 조합하는 다학제 치료가 중요한데, 완치가 되어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br/> <br/>구강암 의심 증상으로는 3주 이상 된 구강 내 궤양, 부종, 적색 혹은 백색 반점이 있으며, 나이나 흡연 여부와 관련 없이 생긴다. <br/> <br/>후두암 의심의 주요 증상으로는 6주 이상 지속되는 목소리 변화인데, 후두암 환자는 대부분 흡연자이다. 다른 두경부암은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데, 목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으면 의심할 수 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두경부암을 전문으로 하는 이비인후과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을 권하고 있다. <br/> <br/>두경부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이 가장 중요하고, 금주, 구강 위생 관리, 건강한 성생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다. <br/> <br/>한편 하정훈 교수는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 대외공보이사로 일하고 있다. 오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한두경부종양학회와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두경부암 알리기 캠페인'이 진행된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11.txt

제목: 생리 소식 없어 불안하다면? 조기 폐경 의심  
날짜: 2015081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5414822  
본문:   <br/> <br/> <br/>100세 시대. 국민들의 의식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질병에 대한 예방 수준이 높아져 더 이상 불가능한 나이가 아니다. <br/> <br/>2013년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85세로 78세인 남성보다 높아 신체 ‘노화’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br/> <br/>특히 여성성의 노화 현상인 ‘폐경’은 여성의 삶에 큰 격동기가 되는데, 기대 수명의 증가로 폐경 이후가 인생의 약 40%를 차지하게 된다. 더욱이 환경의 변화로 폐경의 시기가 앞당겨져 50세에 찾아오던 폐경은 이제 젊은 여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br/> <br/>19일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폐경에 대해 을지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양윤석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보고 나의 자궁 건강도 확인해보자. <br/> <br/>◆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스트레스 증가와 생활습관 변화로 조기폐경 증가해 <br/> <br/>여성의 난소 기능이 노화 등의 이유로 쇠퇴하면 배란 및 여성호르몬의 생산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로 인해 월경이 중지되는 현상 또는 시점이 폐경이다. <br/> <br/>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을 폐경으로 진단하며, 이러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은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평균 폐경 연령인 49.4±5.1세(50대 전후)에 나타나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br/> <br/>이때부터 생리가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전후기간을 폐경이행기, 흔히 갱년기라고 하며 그 기간은 평균 4~5년 정도다. 이러한 폐경이 최근 20대와 30대 여성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br/> <br/>을지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양윤석 교수는 “<span class='quot0'>젊은 세대에 폐경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자가면역질환, 내분비질환, 암치료 후유증, 환경 및 심리적 요인, 심한 스트레스와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분석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일반적인 연령과 비교하여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불임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span>”고 당부했다. <br/> <br/>폐경에 동반되는 증상들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무월경과 안면홍조, 야간발한, 요실금, 피부 위축, 관절통을 포함하여 불안, 우울, 인지기능 변화, 수면장애, 기억력 감퇴 등이 있다. <br/> <br/>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갱년기 여성들이 겪는 폐경기 증상들 중 가장 빈번하고 심한 증상들은 ‘기억력이 떨어진다’, ‘자주 피곤하고 쉽게 지친다’, ‘피부가 건조하다’로 나타났다. <br/> <br/>이처럼 폐경은 노화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조기에 나타나거나 동반되는 증상들이 심한 경우 일상생활의 유지를 방해, 합병증 유발 등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br/> <br/>따라서 앞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여성 호르몬 검사, 골다공증 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무월경 등의 월경 이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시기에 혈중 난포자극호르몬(FSH)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폐경 초기증상인지 분별할 수 있다. <br/> <br/>호르몬 수치가 정상수치 보다 높은 경우 조기폐경 증상의 하나로 보지만 혈액 검사상 호르몬 수치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1회 검사로는 진단하기 어렵다. 또한 자궁이나 난소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어 무월경이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br/> <br/>◆ 건너들은 이야기, 폐경 치료의 부작용? 전문의와 상담필요 <br/> <br/>폐경의 치료에서는 생리적인 원인에 대해 충분히 의논하고 걱정과 두려움, 스트레스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충분한 대화가 중요하다. 심리적 증상이 주로 나타날 때는 심리 치료가 필요하고 항우울제나 적당한 진정제도 필요할 수 있다. <br/> <br/>조기 폐경의 경우, 불임 등 신체적 영향과 정신적 타격의 가능성이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며 가장 흔한 치료는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치료를 시행한다. 여성호르몬 치료는 안면 홍조 등의 증상 완화 및 해소와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낮춘다. <br/> <br/>이러한 여성호르몬 치료 부작용으로는 자궁출혈, 월경전증후군, 자궁내막암과 유방암 위험성 증가된다는 정보가 있다. 그러나 출혈이나 월경전증후군 등은 계속 치료 시 호전되며, 자궁내막암에 대해서는 에스트로겐만 사용하면 자궁내막암 위험성이 증가하지만 프로게스테론(황체호르몬)을 함께 사용하면 오히려 더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유방암에 대해서는 호르몬 치료를 5~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시행한 경우 유방암 발병률이 경미한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확실한 연구결과가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여성호르몬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유방암은 대개 조기이며 악성의 등급이 낮아 치료를 했을 때 결과가 좋은 편이며, 자연적으로 발생된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또한 일반적으로 여성호르몬이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감소시키지만 소수의 여성에게서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심혈관 질환 역시 초기에 위험인자가 있는 여성에게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지만, 폐경기 초기 호르몬 치료는 장기적으로 볼 경우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br/> <br/>때문에 관련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여성은 호르몬제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치료를 시작하거나 지속할 것인지, 치료의 장단점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br/> <br/>치료가 아닌 관리 및 예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예로는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 등이 있다. 스트레스, 비만, 과도한 다이어트 등에 의해 호르몬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평소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차가운 바닥에 앉는 것을 피하고, 반신욕과 좌훈 등으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다. <br/> <br/>양윤석 교수는 “<span class='quot0'>폐경으로 인한 정서적 충격은 젊은 여성 뿐 아니라 중년의 여성 역시 매우 크기 때문에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며, 스스로도 감추기보다는 평소 적극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span>”고 당부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12.txt

제목: 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현장 근처에 있었다? “큰 폭발음에 천둥소리인 줄…”  
날짜: 201508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5136648  
본문: 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현장 근처에 있었다?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큰 폭발음에 천둥소리인 줄…</span></span>” <br/>  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현장 근처에 있었다?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큰 폭발음에 천둥소리인 줄…</span></span>”   방콕 폭탄 테러가 안타까움을 자아낸 가운데 홍석천의 증언이 눈길을 모았다.   지난 17일 홍석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뭔 일이 생긴 걸 알았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홍석천은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단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태국 방콕 도심의 관광명소인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강력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해 최소 19명이 숨졌고 12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13.txt

제목: 두경부암 완치, 조기 진단이 답이다  
날짜: 2015081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910018288903  
본문:   <br/> <br/> <br/>두경부암(頭頸部癌, Head and neck cancer)은 치료가 매우 어렵지만 조기에 진단하면 완치율이 90%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서울대학교암병원 갑상선·구강·두경부암센터 하정훈 교수(이비인후과)는 지난 16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 서울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br/> <br/>하정훈 교수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직접 치료한 두경부암 환자 516명의 예후를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조기 두경부암 일수록 암 생존율은 높게 나타났다. 두경부암은 머리와 목에 생기는 암으로, 연간 4만명 이상 발생하는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연간 4400명 정도 발생하는 비교적 드문 암이다. <br/> <br/>두경부암은 후두암, 구강암, 구인두암, 하인두암, 비인두암, 비강 및 부비동암, 침샘암, 원발부위미상 경부전이암 등으로 크게 나뉜다. 조기 두경부암은 주변조직의 침범이 거의 없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4cm 미만의 종괴를 말한다. 기수로는 1기, 2기 암이다. <br/> <br/>분석 내용을 보면, 후두암 중 가장 많은 성문암(성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기(100%), 2기(100%), 3기(66.7%), 4기(44.2%)로 나타났다. <br/> <br/>구강암 중 가장 많은 설암(혀) 환자의 5년 생존율도 1기(100%), 2기(88.9%), 3기(88.9%), 4기(58.3%)로 나타났다. <br/> <br/>구인두암 중 가장 많은 편도암 환자의 5년 생존율도 1기(100%), 2기(100%), 3기(87.5%), 4기(82.5%)로 나타났다. 구인두암은 진행성이라도 치료가 잘 되는 편인데,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와 관련이 많았다.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두경부암이다. <br/> <br/>구인두암을 제외한 4기의 진행성 두경부암은 절반 정도(부위에 따라 30-60%)의 환자에서 재발했고, 재치료에도 불구하고 30-40%는 사망했다. 이 환자들은 식도암, 폐암, 간암 등 다른 이차암을 가진 경우도 많아 5년 생존율은 약 50%에 불과했다. <br/> <br/>두경부암은 생기는 부위에 따라 성질이 다르고 치료방법도 차이가 있다.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을 잘 선택에서 치료해야 하는데, 워낙 다양하고 드물어, 치료가 매우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 후에도 미용적으로 후유증이 크고, 말하고 숨 쉬고 음식을 삼키는 기능에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흔하다. <br/> <br/>하정훈 교수는 "두경부암의 조기진단은 매우 중요한데, 구강암이나 후두암은 조기 진단이 비교적 쉽고, 치료가 간단하고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완치될 수 있다"며 "진행성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의 세 가지 치료를 잘 조합하는 다학제 치료가 중요한데, 완치가 되어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br/> <br/>구강암 의심 증상으로는 3주 이상 된 구강 내 궤양, 부종, 적색 혹은 백색 반점이 있으며, 나이나 흡연 여부와 관련 없이 생긴다. <br/> <br/>후두암 의심의 주요 증상으로는 6주 이상 지속되는 목소리 변화인데, 후두암 환자는 대부분 흡연자이다. 다른 두경부암은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데, 목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으면 의심할 수 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두경부암을 전문으로 하는 이비인후과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을 권하고 있다. <br/> <br/>두경부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이 가장 중요하고, 금주, 구강 위생 관리, 건강한 성생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다. <br/> <br/>한편 하정훈 교수는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 대외공보이사로 일하고 있다. 오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한두경부종양학회와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두경부암 알리기 캠페인'이 진행된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14.txt

제목: 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현장 근처에 있었다? “큰 폭발음에 천둥소리인 줄…”  
날짜: 2015081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910018280468  
본문: 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현장 근처에 있었다?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큰 폭발음에 천둥소리인 줄…</span></span>” <br/> 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현장 근처에 있었다?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큰 폭발음에 천둥소리인 줄…</span></span>” 방콕 폭탄 테러가 안타까움을 자아낸 가운데 홍석천의 증언이 눈길을 모았다. 지난 17일 홍석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뭔 일이 생긴 걸 알았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홍석천은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단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태국 방콕 도심의 관광명소인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강력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해 최소 19명이 숨졌고 12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15.txt

제목: 생리 소식 없어 불안하다면? 조기 폐경 의심  
날짜: 2015081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910018287077  
본문:   <br/> <br/> <br/>100세 시대. 국민들의 의식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질병에 대한 예방 수준이 높아져 더 이상 불가능한 나이가 아니다. <br/> <br/>2013년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85세로 78세인 남성보다 높아 신체 ‘노화’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br/> <br/>특히 여성성의 노화 현상인 ‘폐경’은 여성의 삶에 큰 격동기가 되는데, 기대 수명의 증가로 폐경 이후가 인생의 약 40%를 차지하게 된다. 더욱이 환경의 변화로 폐경의 시기가 앞당겨져 50세에 찾아오던 폐경은 이제 젊은 여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br/> <br/>19일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폐경에 대해 을지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양윤석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보고 나의 자궁 건강도 확인해보자. <br/> <br/>◆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스트레스 증가와 생활습관 변화로 조기폐경 증가해 <br/> <br/>여성의 난소 기능이 노화 등의 이유로 쇠퇴하면 배란 및 여성호르몬의 생산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로 인해 월경이 중지되는 현상 또는 시점이 폐경이다. <br/> <br/>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을 폐경으로 진단하며, 이러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은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평균 폐경 연령인 49.4±5.1세(50대 전후)에 나타나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br/> <br/>이때부터 생리가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전후기간을 폐경이행기, 흔히 갱년기라고 하며 그 기간은 평균 4~5년 정도다. 이러한 폐경이 최근 20대와 30대 여성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br/> <br/>을지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양윤석 교수는 “<span class='quot0'>젊은 세대에 폐경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자가면역질환, 내분비질환, 암치료 후유증, 환경 및 심리적 요인, 심한 스트레스와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분석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일반적인 연령과 비교하여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불임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span>”고 당부했다. <br/> <br/>폐경에 동반되는 증상들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무월경과 안면홍조, 야간발한, 요실금, 피부 위축, 관절통을 포함하여 불안, 우울, 인지기능 변화, 수면장애, 기억력 감퇴 등이 있다. <br/> <br/>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갱년기 여성들이 겪는 폐경기 증상들 중 가장 빈번하고 심한 증상들은 ‘기억력이 떨어진다’, ‘자주 피곤하고 쉽게 지친다’, ‘피부가 건조하다’로 나타났다. <br/> <br/>이처럼 폐경은 노화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조기에 나타나거나 동반되는 증상들이 심한 경우 일상생활의 유지를 방해, 합병증 유발 등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br/> <br/>따라서 앞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여성 호르몬 검사, 골다공증 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무월경 등의 월경 이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시기에 혈중 난포자극호르몬(FSH)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폐경 초기증상인지 분별할 수 있다. <br/> <br/>호르몬 수치가 정상수치 보다 높은 경우 조기폐경 증상의 하나로 보지만 혈액 검사상 호르몬 수치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1회 검사로는 진단하기 어렵다. 또한 자궁이나 난소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어 무월경이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br/> <br/>◆ 건너들은 이야기, 폐경 치료의 부작용? 전문의와 상담필요 <br/> <br/>폐경의 치료에서는 생리적인 원인에 대해 충분히 의논하고 걱정과 두려움, 스트레스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충분한 대화가 중요하다. 심리적 증상이 주로 나타날 때는 심리 치료가 필요하고 항우울제나 적당한 진정제도 필요할 수 있다. <br/> <br/>조기 폐경의 경우, 불임 등 신체적 영향과 정신적 타격의 가능성이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며 가장 흔한 치료는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치료를 시행한다. 여성호르몬 치료는 안면 홍조 등의 증상 완화 및 해소와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낮춘다. <br/> <br/>이러한 여성호르몬 치료 부작용으로는 자궁출혈, 월경전증후군, 자궁내막암과 유방암 위험성 증가된다는 정보가 있다. 그러나 출혈이나 월경전증후군 등은 계속 치료 시 호전되며, 자궁내막암에 대해서는 에스트로겐만 사용하면 자궁내막암 위험성이 증가하지만 프로게스테론(황체호르몬)을 함께 사용하면 오히려 더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유방암에 대해서는 호르몬 치료를 5~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시행한 경우 유방암 발병률이 경미한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확실한 연구결과가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여성호르몬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유방암은 대개 조기이며 악성의 등급이 낮아 치료를 했을 때 결과가 좋은 편이며, 자연적으로 발생된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또한 일반적으로 여성호르몬이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감소시키지만 소수의 여성에게서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심혈관 질환 역시 초기에 위험인자가 있는 여성에게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지만, 폐경기 초기 호르몬 치료는 장기적으로 볼 경우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br/> <br/>때문에 관련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여성은 호르몬제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치료를 시작하거나 지속할 것인지, 치료의 장단점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br/> <br/>치료가 아닌 관리 및 예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예로는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 등이 있다. 스트레스, 비만, 과도한 다이어트 등에 의해 호르몬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평소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차가운 바닥에 앉는 것을 피하고, 반신욕과 좌훈 등으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다. <br/> <br/>양윤석 교수는 “<span class='quot0'>폐경으로 인한 정서적 충격은 젊은 여성 뿐 아니라 중년의 여성 역시 매우 크기 때문에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며, 스스로도 감추기보다는 평소 적극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span>”고 당부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16.txt

제목: MG손보 '건강명의수술비보험' 4만건 돌파 눈앞  
날짜: 20150818  
기자: 유은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4912988  
본문:   <br/> <br/>MG손해보험의 수술비보험이 인기를 끌면서 출시 6개월 만에 가입 4만건, 초회보험료 2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br/> <br/>MG손해보험의 건강명의수술비보험은 보험업계 최초의 수술비 전문 상품으로 중복 가입을 통해 집중 보장이 가능하며, 만기까지 보험료 인상없이 보장되는 등의 강점 덕분에 고객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br/> <br/>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시된 MG손해보험의 건강명의수술비보험은 7월까지 총 3만4000여건, 초회보험료 17억7560만원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 <br/> <br/>5월에는 6600여건, 6월과 7월에는 각각 5000여건이 판매됐으며, 이달에도 5000건 이상 판매될 경우 출시 6개월 만에 총 4만건가량의 실적을 올리는 것이다. <br/> <br/>초회보험료 수입 역시 2월 1억8000만원에서 6월과 7월 각각 2억4700만원, 2억5300만원을 달성했다. <br/> <br/>MG손해보험의 수술비 보험은 목돈이 드는 수술비에 부담을 느낀 고객을 타깃으로 틈새시장을 노렸다. 일반적인 실손의료비보험이 진단비 보장에 집중하고 수술비 보장을 특약으로 둔다면 건강명의수술비보험은 수술비를 중복으로 집중 보장한 특징이 있다. <br/> <br/>충분한 수술비 지급을 위해 질병수술비, 7·14·21대질병수술비를 추가로 가입 가능한 점도 강점이다. 예를 들어 당뇨병으로 진단이 확정돼 수술받는다면 질병수술비 30만원과 7·14·21대질병수술비(100만원, 100만원, 50만원) 각각 수술비를 지급받아 총 2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br/> <br/>또한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수술 사유 발생 시 50%만 보장하던 기존 상품들과는 달리 이 보험은 별도 조건 없이 주요 수술비를 100% 지급한다. 보험료 인상 없이 처음 가입한 보험료 그대로 최대 110세까지 보장해 경제적 비활동기의 수술비 부담을 줄여준다. <br/> <br/>상해 혹은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br/> <br/>여성을 위한 여성만성질병수술비, 남성을 위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비 등 성별에 따른 특별보장도 마련했다. 노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녹내장, 관절수술 등도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법률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다. <br/> <br/>MG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도 수술비 보장이 중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추천할 만하다"며 "암·뇌·심장 3대 성인병은 수술비 외에도 진단금과 입원비를 함께 보장한다"고 밝혔다. <br/> <br/>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17.txt

제목: 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사고지역 '불과 1시간 전' 지나가 '깜짝'  
날짜: 2015081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4751110  
본문: 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사고지역 `불과 1시간 전` 지나가 `깜짝`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사고지역 '불과 1시간 전' 지나가 '깜짝' <br/> <br/>방송인 홍석천이 방콕 도심 폭탄테러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br/> <br/>지난 17일 홍석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br/> <br/>이어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뭔 일이 생긴 걸 알았다.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br/> <br/>또한 홍석천은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고 한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br/> <br/>앞서 홍석천은 지난 16일 오후 휴가차 태국 방콕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태국 방콕 도심의 한 유명 관광 명소인 에라완 사원 부근에서 폭탄이 터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br/>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18.txt

제목: 부인과 사별한 80대, 그리움에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날짜: 2015081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4738801  
본문: 부인을 먼저 보낸 80대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r/> <br/>18일 오전 5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 위로 A(80)씨가 떨어진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br/> <br/>경찰은 승강기 CCTV 등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 14층으로 올라가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자녀들과 떨어져 아파트 7층에서 살던 A씨는 지난 2월 암으로 부인을 여읜 뒤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19.txt

제목: 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한시간 전에 지났던 곳, 갑자기 큰 폭발음 들려..."  
날짜: 2015081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4743259  
본문: 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한시간 전에 지났던 곳, 갑자기 큰 폭발음 들려..."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한시간 전에 지났던 곳, 갑자기 큰 폭발음 들려..." <br/> <br/> 방콕 폭탄 테러 현장 홍석천의 증언 “한시간 전에 지났던 곳, 천둥소리인 줄 았았다” <br/> <br/> 홍석천이 방콕 폭탄 테러를 간발의 차로 피했다고 전했다. <br/> <br/> 지난 17일 홍석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br/> <br/> 이어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뭔 일이 생긴 걸 알았다.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br/> <br/> 또한 홍석천은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고 한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며 가슴 아파했다. <br/> <br/> 앞서 홍석천은 지난 16일 오후 휴가차 태국 방콕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한국인이 많이 찾는 태국 방콕 도심의 관광명소인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이날 오후 6시30분(현지시간) 강력한 폭탄이 터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20.txt

제목: 암 정보에 만족도 증가하면 의사결정 갈등 감소로 이어진다  
날짜: 20150818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4721195  
본문: 서울대암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교수 <br/> <br/>병원에서 제공하는 암 정보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개인 및 임상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 정보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을수록, 암 치료 의사결정 시 갈등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서울대학교암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교수팀은 이 같은 결과를 국제 저명 암학술지인 ‘Annals of Oncology’ 최신호 (Impact factor: 7.04)에 게재했다. <br/> <br/>연구팀은 국내 병원의 암환자 625명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제공받는 암 정보에 대한 환자 만족도와 암 치료 의사결정 시 갈등 정도를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제공받는 암 정보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질환 정보에서는 56%, 치료 정보에서는 73%, 기타 의료 서비스 정보에서는 83%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약 80%의 응답자가 ‘불만족스럽다’ 로 응답했다. <br/> <br/>‘제공받는 암 정보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 여성이 남성보다 1.6배 ▲ 학력수준이 낮을 때(고졸 미만) 1.5배 ▲ 소득이 낮을 때(연소득 2천만원 미만) 1.4배 ▲ 미혼일 때 1.5배 높았다. 또한 ▲ 예후가 좋은 암일 때 2.16배 ▲ 치료 초기 시점일 때 1.5배 높았다. <br/> <br/>‘제공받는 암 정보가 불만족스럽다’고 느낄수록, 암 치료 의사결정 시 갈등의 정도가 높았다. <br/> <br/>‘암 치료 의사결정 시 갈등’이란 환자 및 보호자가 정신적, 육체적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줄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후회를 피하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할지 불확실한 상태를 말한다. <br/> <br/>질환 정보, 검사 정보, 치료 정보, 병원 밖 기타 지원 정보, 문서로 제공 받는 정보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느낄수록, 암 치료 의사결정 시 갈등의 정도가 각각 1.7배, 1.9배, 2.9배, 2.8배, 1.8배 높았다. <br/> <br/>윤영호 교수는 “최근 병원 내 정보교육센터들이 생기고 있으나 여전히 암환자들은 정보 제공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 책자, 동영상, 인터넷 프로그램 등 환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개발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br/> <br/>윤 교수는 “이러한 정보제공이 암환자를 둘러싼 의사결정 갈등을 줄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정보제공과 환자 교육의 임상시험, 이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21.txt

제목: 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날짜: 2015081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4718427  
본문: 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br/> <br/> 태국 방콕 폭탄 테러로 인해 19명의 사망자와 120여명의 부상자가 나온 가운데 홍석천이 폭발현장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렸다. <br/> <br/> 17일 홍석천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br/> <br/> 이어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뭔 일이 생긴 걸 알았다.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고 사고 소식을 전했다. <br/> <br/> 또한 홍석천은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고 한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br/> <br/> 한편, 태국 방콕의 언론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경 방콕 에라완 사원 부근에서 폭탄이 터졌다. 18일 태국 언론은 사망자는 19명, 부상자는 12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br/> <br/> 사망자 중에는 중국인 2명, 필리핀인 1명 등 외국인 3명이 포함됐으나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 솜욧 품품무엉 경찰청장은 힌두 사원인 에라완 사원 근처 의자에 설치된 TNT 3㎏의 사제 폭발물이 터졌으며, 이 폭탄의 파괴력이 반경 100ｍ에 미쳤다고 발표했다. <br/> <br/> 사고가 발생한 에라완 사원은 힌두 사원으로 아시아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다. 주변의 라차프라송 교차로에는 고층 건물과 쇼핑센터가 밀집해 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22.txt

제목: 방콕 도심서 폭탄 폭발, 홍석천 '태국 사고현장' 인근에 있어 '깜짝'  
날짜: 2015081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4707080  
본문: 방콕 도심서 폭탄 폭발, 홍석천 `태국 사고현장` 인근에 있어 `깜짝`방콕 도심서 폭탄 폭발, 홍석천 '태국 사고현장' 인근에 있어 '깜짝' <br/> <br/>방송인 홍석천이 방콕 도심 폭탄테러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br/> <br/>지난 17일 홍석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br/> <br/>이어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뭔 일이 생긴 걸 알았다.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br/> <br/>또한 홍석천은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고 한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br/> <br/>앞서 홍석천은 지난 16일 오후 휴가차 태국 방콕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태국 방콕 도심의 한 유명 관광 명소인 에라완 사원 부근에서 폭탄이 터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23.txt

제목: 홍석천, 1시간 차 방콕 폭탄테러 피했다  
날짜: 20150818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4626160  
본문: 배우 겸 요식업체 대표 홍석천이 지난 17일 발생한 폭탄 테러 현장 소식을 SNS로 전했다. <br/> <br/>홍석천은 17일 자정쯤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뭔 일이 생긴 걸 알았다"는 글을 올렸다. <br/> <br/>그는 여행 차 방콕을 찾았다가 해당 사건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홍석천은 이어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단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고 덧붙였다. <br/> <br/>이날 오후 6시30분(현지시간) 태국 방콕 도심 관광명소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강력한 폭탄이 터져 19명이 사망하고 12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br/>사진=세계닷컴 DB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24.txt

제목: 고 이맹희 CJ명예회장 조문 시작…이재용 부회장 조문  
날짜: 2015081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4536773  
본문: 고 이맹희 CJ명예회장 조문 시작…이재용 부회장 조문 (사진= YTN)고 이맹희 CJ명예회장 조문 시작…이재용 부회장 조문 <br/> <br/> 지난 14일 중국에서 별세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조문이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다. <br/> <br/> CJ그룹은 어제 이 명예회장의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중국에서부터 시신을 운구했으며,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다고 밝혔다. <br/> <br/> 조문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br/> <br/> 장례는 CJ그룹장으로 7일장으로 치러지며 영결식은 오는 20일 오전 서울 CJ 인재원에서 열린다. <br/> <br/> 이맹희 CJ명예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형으로 암으로 투병해오다 지난 14일 중국에서 별세했다. <br/> <br/> 한편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이재용 부회장이 조문했다. 지난 17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방문해 약 13분간 머물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25.txt

제목: 암 정보에 만족도 증가하면 의사결정 갈등 감소로 이어진다  
날짜: 20150818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8100000788  
본문: 서울대암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교수병원에서 제공하는 암 정보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개인 및 임상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 정보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을수록, 암 치료 의사결정 시 갈등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학교암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교수팀은 이 같은 결과를 국제 저명 암학술지인 ‘Annals of Oncology’ 최신호 (Impact factor: 7.04)에 게재했다.연구팀은 국내 병원의 암환자 625명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제공받는 암 정보에 대한 환자 만족도와 암 치료 의사결정 시 갈등 정도를 분석했다.그 결과, ‘제공받는 암 정보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질환 정보에서는 56%, 치료 정보에서는 73%, 기타 의료 서비스 정보에서는 83%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약 80%의 응답자가 ‘불만족스럽다’ 로 응답했다.‘제공받는 암 정보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 여성이 남성보다 1.6배 ▲ 학력수준이 낮을 때(고졸 미만) 1.5배 ▲ 소득이 낮을 때(연소득 2천만원 미만) 1.4배 ▲ 미혼일 때 1.5배 높았다. 또한 ▲ 예후가 좋은 암일 때 2.16배 ▲ 치료 초기 시점일 때 1.5배 높았다.‘제공받는 암 정보가 불만족스럽다’고 느낄수록, 암 치료 의사결정 시 갈등의 정도가 높았다.‘암 치료 의사결정 시 갈등’이란 환자 및 보호자가 정신적, 육체적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줄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후회를 피하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할지 불확실한 상태를 말한다.질환 정보, 검사 정보, 치료 정보, 병원 밖 기타 지원 정보, 문서로 제공 받는 정보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느낄수록, 암 치료 의사결정 시 갈등의 정도가 각각 1.7배, 1.9배, 2.9배, 2.8배, 1.8배 높았다.윤영호 교수는 “최근 병원 내 정보교육센터들이 생기고 있으나 여전히 암환자들은 정보 제공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 책자, 동영상, 인터넷 프로그램 등 환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개발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윤 교수는 “이러한 정보제공이 암환자를 둘러싼 의사결정 갈등을 줄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정보제공과 환자 교육의 임상시험, 이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26.txt

제목: MG손보 '건강명의수술비보험' 4만건 돌파 눈앞  
날짜: 20150818  
기자: viayou@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8100000723  
본문:  MG손해보험의 수술비보험이 인기를 끌면서 출시 6개월 만에 가입 4만건, 초회보험료 2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MG손해보험의 건강명의수술비보험은 보험업계 최초의 수술비 전문 상품으로 중복 가입을 통해 집중 보장이 가능하며, 만기까지 보험료 인상없이 보장되는 등의 강점 덕분에 고객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된다.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시된 MG손해보험의 건강명의수술비보험은 7월까지 총 3만4000여건, 초회보험료 17억7560만원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5월에는 6600여건, 6월과 7월에는 각각 5000여건이 판매됐으며, 이달에도 5000건 이상 판매될 경우 출시 6개월 만에 총 4만건가량의 실적을 올리는 것이다.초회보험료 수입 역시 2월 1억8000만원에서 6월과 7월 각각 2억4700만원, 2억5300만원을 달성했다.MG손해보험의 수술비 보험은 목돈이 드는 수술비에 부담을 느낀 고객을 타깃으로 틈새시장을 노렸다. 일반적인 실손의료비보험이 진단비 보장에 집중하고 수술비 보장을 특약으로 둔다면 건강명의수술비보험은 수술비를 중복으로 집중 보장한 특징이 있다.충분한 수술비 지급을 위해 질병수술비, 7·14·21대질병수술비를 추가로 가입 가능한 점도 강점이다. 예를 들어 당뇨병으로 진단이 확정돼 수술받는다면 질병수술비 30만원과 7·14·21대질병수술비(100만원, 100만원, 50만원) 각각 수술비를 지급받아 총 2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또한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수술 사유 발생 시 50%만 보장하던 기존 상품들과는 달리 이 보험은 별도 조건 없이 주요 수술비를 100% 지급한다. 보험료 인상 없이 처음 가입한 보험료 그대로 최대 110세까지 보장해 경제적 비활동기의 수술비 부담을 줄여준다.상해 혹은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여성을 위한 여성만성질병수술비, 남성을 위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비 등 성별에 따른 특별보장도 마련했다. 노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녹내장, 관절수술 등도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법률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다.MG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도 수술비 보장이 중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추천할 만하다"며 "암·뇌·심장 3대 성인병은 수술비 외에도 진단금과 입원비를 함께 보장한다"고 밝혔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27.txt

제목: 미네랄 없는 물은 ‘죽은 물’… 건강하려면 식수 신경써야  
날짜: 20150818  
기자: azahoit@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8100000411  
본문: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물이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미네랄이 없는 물은 어떨까. 수년 전부터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 물은 미네랄까지 정수한 ‘죽은 물’이며 이 물을 장기간 마실 경우 건강을 해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먹는 물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최근 발간된 저서 ‘역삼투압 정수기를 고발합니다’(서영)에는 MBC다큐멘터리 ‘워터 시크릿’을 제작한 환경탐사보도 박치현 전문기자가 방송에 미처 담지 못한 자세한 탐사 과정과 우리가 좋은 물을 골라 마셔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다.◆몸속 미네랄 빼앗는 ‘죽은 물’자연에서 나오는 물은 원래 각종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 미네랄은 인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소로 우리 몸에서 4%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몸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고 물과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그 자체로 뼈나 치아 등 신체의 구성성분이 된다는 점에서 비타민과 다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천수들은 미네랄이 풍부하며, 마트에서 사먹는 생수에도 각각 미네랄 함량이 표시돼 있다.문제는 국내 가정의 40%가 식수로 사용하는 정수기 물, 그중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상위 3개 회사의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는 미네랄까지 걸러낸다는 것이다.정수기는 크게 역삼투압 방식과, 중공사막 방식으로 나뉘는데 역삼투압 방식은 초미세구멍에 물을 통과시켜 여과하는 방식으로 물 속 불순물은 물론 방사능까지 전부 제거해 깨끗한 물을 얻어낸다. 하지만 미네랄까지 제거해 죽은 물이 된다.죽은 물을 마시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수기 회사들은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미네랄은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물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미네랄은 물에 완벽하게 이온화돼 있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되는 비율이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미네랄이 함유된 물을 충분히 마시기만 해도 우리가 매일 섭취해야 하는 최소 필요 미네랄의 10∼30%를 충족할 수 있다.미네랄은 인체 내에서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된 물은 인체의 pH값인 7.3∼7.4보다 낮은 pH6.5 이하의 산성수가 된다. 이 같은 물을 지속적으로 마실 경우 몸이 산성화된다. 암 등 중병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의 체액이 산성화돼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또 몸속 세포 밖이 미네랄이 없는 물로 채워지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세포 속 미네랄이 빠져나간다. 때문에 죽은 물을 먹는 것은 미네랄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다. 세계물협회 미네랄 연구팀의 잉그리드 로스버그 박사는 “<span class='quot0'>특히 임산부는 절대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span>”고 말한다. 그는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몸속 미네랄을 씻어내며 부모가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마시면 태아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경고한다. 운동 중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마시는 것도 위험하다. 베이징 IDM 기술연구소는 물질대사 실험을 통해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마시면 칼슘과 아미노산이 쉽게 유실되며 탈수 증세가 더욱 심해진다는 사실을 밝혔다.◆미네랄 풍부한 좋은 물 찾아 마셔야세계보건기구(WHO)는 마시는 물의 pH값을 6.5∼8.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한다. 역삼투압 정수기 물의 pH 농도는 일반적으로 5.5∼6.5다. 식수로서 기준 미달인 셈이다. 깨끗한 물인 줄 알고 마셨던 정수기 물이 우리의 몸을 해친다면 대체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 우리가 ‘약수’라 부르는 자연에서 나는 물이 가장 좋지만 공기와 토양이 오염되면서 도시에서 좋은 약수를 얻기는 쉽지 않다. 박치현 전문기자는 녹슨 하수도관 등으로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수돗물에는 생수와 비슷하게 미네랄이 함유돼 있으며 끓여 먹거나 받아서 잠시 두면 소독을 위해 첨가한 염소가 날아간다. 물을 끓이면 죽은 물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물은 끓이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산소가 증발하지만 식으면 대기압 때문에 원래 상태의 용존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 미네랄이 보존된다.제대로된 정수기를 골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역삼투압 정수기는 피하고 유해한 세균과 오염물질을 충분히 걸러내면서 미네랄을 풍부하게 유지하는지, 물 낭비는 심하지 않은지, 약알칼리수인지 등을 따져 좋은 정수기를 선택하면 된다. 현대인의 병 중 상당수는 미네랄 결핍에서 온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잔병이 많았다면 이제라도 마시는 물을 깐깐하게 골라보는 게 어떨까.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28.txt

제목: 부인과 사별한 80대, 그리움에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날짜: 2015081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810018272376  
본문: 부인을 먼저 보낸 80대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r/> <br/>18일 오전 5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 위로 A(80)씨가 떨어진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br/> <br/>경찰은 승강기 CCTV 등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 14층으로 올라가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자녀들과 떨어져 아파트 7층에서 살던 A씨는 지난 2월 암으로 부인을 여읜 뒤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29.txt

제목: 6개월전 부인 여읜 80대 노인 아파트서 투신자살  
날짜: 2015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8100000132  
본문: 18일 오전 5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 위로 김모(80)씨가 떨어진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경찰은 승강기 CCTV 등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김씨가 아파트 14층으로 올라가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자녀들과 떨어져 이 아파트 7층에서 살던 김씨는 지난 2월 암으로 부인을 여읜 뒤 홀로 지내면서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30.txt

제목: 홍석천, 1시간 차 방콕 폭탄테러 피했다  
날짜: 2015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8100000345  
본문: 배우 겸 요식업체 대표 홍석천이 지난 17일 발생한 폭탄 테러 현장 소식을 SNS로 전했다.홍석천은 17일 자정쯤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뭔 일이 생긴 걸 알았다"는 글을 올렸다.그는 여행 차 방콕을 찾았다가 해당 사건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석천은 이어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단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고 덧붙였다.이날 오후 6시30분(현지시간) 태국 방콕 도심 관광명소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강력한 폭탄이 터져 19명이 사망하고 12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현화영 기자 hhy@segye.com사진=세계닷컴 DB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31.txt

제목: 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한시간 전에 지났던 곳, 갑자기 큰 폭발음 들려..."  
날짜: 2015081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810018272457  
본문: 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한시간 전에 지났던 곳, 갑자기 큰 폭발음 들려..."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한시간 전에 지났던 곳, 갑자기 큰 폭발음 들려..." <br/> <br/>방콕 폭탄 테러 현장 홍석천의 증언 “한시간 전에 지났던 곳, 천둥소리인 줄 았았다” <br/> <br/>홍석천이 방콕 폭탄 테러를 간발의 차로 피했다고 전했다. <br/> <br/>지난 17일 홍석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br/> <br/>이어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뭔 일이 생긴 걸 알았다.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br/> <br/>또한 홍석천은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고 한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며 가슴 아파했다. <br/> <br/>앞서 홍석천은 지난 16일 오후 휴가차 태국 방콕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한국인이 많이 찾는 태국 방콕 도심의 관광명소인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이날 오후 6시30분(현지시간) 강력한 폭탄이 터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32.txt

제목: 고 이맹희 CJ명예회장 조문 시작…이재용 부회장 조문  
날짜: 2015081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810018266936  
본문: 고 이맹희 CJ명예회장 조문 시작…이재용 부회장 조문 (사진= YTN)고 이맹희 CJ명예회장 조문 시작…이재용 부회장 조문 <br/> <br/>지난 14일 중국에서 별세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조문이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다. <br/> <br/>CJ그룹은 어제 이 명예회장의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중국에서부터 시신을 운구했으며,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다고 밝혔다. <br/> <br/>조문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br/> <br/>장례는 CJ그룹장으로 7일장으로 치러지며 영결식은 오는 20일 오전 서울 CJ 인재원에서 열린다. <br/> <br/>이맹희 CJ명예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형으로 암으로 투병해오다 지난 14일 중국에서 별세했다. <br/> <br/>한편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이재용 부회장이 조문했다. 지난 17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방문해 약 13분간 머물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33.txt

제목: 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사고지역 '불과 1시간 전' 지나가 '깜짝'  
날짜: 2015081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810018272635  
본문: 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사고지역 `불과 1시간 전` 지나가 `깜짝`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사고지역 '불과 1시간 전' 지나가 '깜짝' <br/> <br/>방송인 홍석천이 방콕 도심 폭탄테러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br/> <br/>지난 17일 홍석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br/> <br/>이어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뭔 일이 생긴 걸 알았다.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br/> <br/>또한 홍석천은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고 한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br/> <br/>앞서 홍석천은 지난 16일 오후 휴가차 태국 방콕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태국 방콕 도심의 한 유명 관광 명소인 에라완 사원 부근에서 폭탄이 터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br/>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34.txt

제목: 방콕 도심서 폭탄 폭발, 홍석천 '태국 사고현장' 인근에 있어 '깜짝'  
날짜: 2015081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810018271099  
본문: 방콕 도심서 폭탄 폭발, 홍석천 `태국 사고현장` 인근에 있어 `깜짝`방콕 도심서 폭탄 폭발, 홍석천 '태국 사고현장' 인근에 있어 '깜짝' <br/> <br/>방송인 홍석천이 방콕 도심 폭탄테러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br/> <br/>지난 17일 홍석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br/> <br/>이어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뭔 일이 생긴 걸 알았다.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br/> <br/>또한 홍석천은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고 한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br/> <br/>앞서 홍석천은 지난 16일 오후 휴가차 태국 방콕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태국 방콕 도심의 한 유명 관광 명소인 에라완 사원 부근에서 폭탄이 터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35.txt

제목: 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날짜: 2015081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810018271263  
본문: 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br/> <br/>태국 방콕 폭탄 테러로 인해 19명의 사망자와 120여명의 부상자가 나온 가운데 홍석천이 폭발현장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렸다. <br/> <br/>17일 홍석천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br/> <br/>이어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뭔 일이 생긴 걸 알았다.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고 사고 소식을 전했다. <br/> <br/>또한 홍석천은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고 한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br/> <br/>한편, 태국 방콕의 언론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경 방콕 에라완 사원 부근에서 폭탄이 터졌다. 18일 태국 언론은 사망자는 19명, 부상자는 12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br/> <br/>사망자 중에는 중국인 2명, 필리핀인 1명 등 외국인 3명이 포함됐으나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솜욧 품품무엉 경찰청장은 힌두 사원인 에라완 사원 근처 의자에 설치된 TNT 3㎏의 사제 폭발물이 터졌으며, 이 폭탄의 파괴력이 반경 100ｍ에 미쳤다고 발표했다. <br/> <br/>사고가 발생한 에라완 사원은 힌두 사원으로 아시아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다. 주변의 라차프라송 교차로에는 고층 건물과 쇼핑센터가 밀집해 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36.txt

제목: 故 이맹희 명예회장 20일 영결식  
날짜: 20150818  
기자: 유통전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8100000291  
본문: 지난 14일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한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오는 20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린다.서울 온 운구행렬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시신이 17일 서울 김포국제공항 화물청사를 빠져 나와 운구차량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들인 이선호(왼쪽 두번째)씨가 영정사진을 들고 운구 행령을 이끌었다.연합뉴스CJ그룹은 이 명예회장의 빈소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했고, 장례는 7일장으로 치러진다고 17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큰아버지인 이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앞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빈소를 찾았다.이재용 조문 17일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 할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장례는 이채욱 CJ주식회사 대표를 장례위원장으로 하는 CJ그룹장으로 치러진다. 일반인 조문은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이 명예회장의 시신은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서울에 도착했다.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가족 대표로서 중국에서부터 운구를 진행했다.CJ그룹 측이 이 명예회장의 빈소를 서울대병원으로 정한 것은 장남인 이재현 회장의 현재 거주지가 서울대병원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뒤 신장이식 수술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현재 서울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상주 자격으로 일부 장례 절차에 참여할 이 회장은 대법원에 주거제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비록 서울대병원에 머무르고 있지만 서울대병원 본관 건물과 장례식장 건물의 주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두 건물은 걸어서 2∼3분 거리이지만, 본관은 ‘대학로 101(연건동 28-21)’, 장례식장은 ‘대학로 103(연건동 28)’으로 주소가 다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이 회장이 신청한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했다.이 명예회장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형이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그는 2012년 12월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이듬해 암이 전이돼 일본과 중국에서 투병생활을 해왔다.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37.txt

제목: 미네랄 없는 물은 ‘죽은 물’… 건강하려면 식수 신경써야  
날짜: 20150817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4434578  
본문: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물이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미네랄이 없는 물은 어떨까. 수년 전부터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 물은 미네랄까지 정수한 ‘죽은 물’이며 이 물을 장기간 마실 경우 건강을 해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먹는 물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최근 발간된 저서 ‘역삼투압 정수기를 고발합니다’(서영)에는 MBC다큐멘터리 ‘워터 시크릿’을 제작한 환경탐사보도 박치현 전문기자가 방송에 미처 담지 못한 자세한 탐사 과정과 우리가 좋은 물을 골라 마셔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다. <br/>◆몸속 미네랄 빼앗는 ‘죽은 물’ <br/> <br/>자연에서 나오는 물은 원래 각종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 미네랄은 인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소로 우리 몸에서 4%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몸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고 물과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그 자체로 뼈나 치아 등 신체의 구성성분이 된다는 점에서 비타민과 다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천수들은 미네랄이 풍부하며, 마트에서 사먹는 생수에도 각각 미네랄 함량이 표시돼 있다. <br/> <br/>문제는 국내 가정의 40%가 식수로 사용하는 정수기 물, 그중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상위 3개 회사의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는 미네랄까지 걸러낸다는 것이다. <br/> <br/>정수기는 크게 역삼투압 방식과, 중공사막 방식으로 나뉘는데 역삼투압 방식은 초미세구멍에 물을 통과시켜 여과하는 방식으로 물 속 불순물은 물론 방사능까지 전부 제거해 깨끗한 물을 얻어낸다. 하지만 미네랄까지 제거해 죽은 물이 된다. <br/> <br/>죽은 물을 마시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수기 회사들은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미네랄은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물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br/> <br/>미네랄은 물에 완벽하게 이온화돼 있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되는 비율이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미네랄이 함유된 물을 충분히 마시기만 해도 우리가 매일 섭취해야 하는 최소 필요 미네랄의 10∼30%를 충족할 수 있다. <br/> <br/>미네랄은 인체 내에서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된 물은 인체의 pH값인 7.3∼7.4보다 낮은 pH6.5 이하의 산성수가 된다. 이 같은 물을 지속적으로 마실 경우 몸이 산성화된다. 암 등 중병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의 체액이 산성화돼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br/> <br/>또 몸속 세포 밖이 미네랄이 없는 물로 채워지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세포 속 미네랄이 빠져나간다. 때문에 죽은 물을 먹는 것은 미네랄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다. <br/> <br/>세계물협회 미네랄 연구팀의 잉그리드 로스버그 박사는 “<span class='quot0'>특히 임산부는 절대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span>”고 말한다. 그는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몸속 미네랄을 씻어내며 부모가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마시면 태아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경고한다. 운동 중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마시는 것도 위험하다. 베이징 IDM 기술연구소는 물질대사 실험을 통해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마시면 칼슘과 아미노산이 쉽게 유실되며 탈수 증세가 더욱 심해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br/> <br/>◆미네랄 풍부한 좋은 물 찾아 마셔야 <br/> <br/>세계보건기구(WHO)는 마시는 물의 pH값을 6.5∼8.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한다. 역삼투압 정수기 물의 pH 농도는 일반적으로 5.5∼6.5다. 식수로서 기준 미달인 셈이다. 깨끗한 물인 줄 알고 마셨던 정수기 물이 우리의 몸을 해친다면 대체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 우리가 ‘약수’라 부르는 자연에서 나는 물이 가장 좋지만 공기와 토양이 오염되면서 도시에서 좋은 약수를 얻기는 쉽지 않다. 박치현 전문기자는 녹슨 하수도관 등으로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수돗물에는 생수와 비슷하게 미네랄이 함유돼 있으며 끓여 먹거나 받아서 잠시 두면 소독을 위해 첨가한 염소가 날아간다. 물을 끓이면 죽은 물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물은 끓이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산소가 증발하지만 식으면 대기압 때문에 원래 상태의 용존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 미네랄이 보존된다. <br/> <br/>제대로된 정수기를 골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역삼투압 정수기는 피하고 유해한 세균과 오염물질을 충분히 걸러내면서 미네랄을 풍부하게 유지하는지, 물 낭비는 심하지 않은지, 약알칼리수인지 등을 따져 좋은 정수기를 선택하면 된다. <br/> <br/>현대인의 병 중 상당수는 미네랄 결핍에서 온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잔병이 많았다면 이제라도 마시는 물을 깐깐하게 골라보는 게 어떨까.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38.txt

제목: 한국유방암학회, 유전성유방암 발생위험 규명  
날짜: 2015081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4104855  
본문:   <br/> <br/> <br/>한국유방암학회가 17일 유전성유방암 유전자를 보유한 국내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br/> <br/>BRCA1과 BRCA2 유전자 돌연변이에 기인한 한국인 유방암 위험도(Breast cancer risk for Korean women with germline mutations in BRCA1 and BRCA2)로 명명된 이번 연구에서는 유전성유방암 보인자가 70세까지 생존 시의 유방암 발생률을 최초로 규명했다. <br/> <br/>연구 결과 BRCA1 보인자는 70세까지 누적되는 유방암 발생률은 49%였다. BRCA2 보인자의 경우 35%인 것으로 밝혀졌다. <br/> <br/>50세까지는 BRCA1 보인자는 27%, BRCA2 보인자 18%으로 누적 발생률을 보여 서구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BRCA1 보인자 중 가장 높은 누적 발생률이 있는 사람은 98%에 달하기도 했다. <br/> <br/>이번 연구에서는 BRCA 보인자의 연령대별 향후 10년간 유방암 발생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BRCA1 보인자의 경우 40세가 19.5%, 50세가 18.4%로 높은 유방암 발생률을 기록했다. <br/> <br/>BRCA2 보인자 역시 40세(12.8%)와 50세(12.0%)가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해 BRCA1·BRCA2 보인자 모두 4-50대에 유방암 발생률이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로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br/> <br/>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연구(KOHBRA, Korean Hereditary Breast Cancer Study)의 책임연구자이자 한국유방암학회 김성원 홍보이사(대림성모병원 유방센터장)는 "이번 연구는 유전성유방암 보인자의 평균적인 누적 유방암 발생률을 예측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누적 위험이 최소 11%에서 최대 98%까지 편차가 큰 만큼 환자 별 맞춤 치료를 위한 노력이 필수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br/> <br/>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연구의 또 다른 참여자인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수경 교수는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맞춤 예방 치료 및 수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유방암학회는 국내 여성의 유방암 예방과 수준 높은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연구를 펼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br/> <br/>이번 연구는 국립암센터 박보영 박사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Korean Hereditary Breast Cancer) 연구에 참여한 151명의 BRCA1 돌연변이 보인자와 225명의 BRCA2 돌연변이 보인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br/> <br/>연구진은 유전형질 확인법을 조건으로 암 가족력에 대한 수정된 분리모형 분석을 사용하여 인구 대비 여성 보인자의 평균 연령별 누적 위험도를 추산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39.txt

제목: 전립선암에 좋은 음식, 과일 채소 많이 섭취하고 육류를 적게 섭취해야..  
날짜: 20150817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3935689  
본문: 전립선암에 좋은 음식, 과일 채소 많이 섭취하고 육류를 적게 섭취해야.. (사진= MBN)전립선암에 좋은 음식, 과일 채소 많이 섭취하고 육류를 적게 섭취해야.. <br/> <br/> 전립선암에 좋은 음식이 주목받고 있다 <br/> <br/> 전립선암은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br/> <br/> 서양의 경우 전립선암은 남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인다. <br/> <br/>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전립선암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립선암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연령, 인종, 가족력이다. 유전적 소인 외에도 호르몬, 식이습관, 제초제와 같은 화학약품 등도 발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br/> <br/> 특히 전염성 질환, 성생활 정도, 사회경제적 상태, 정관수술, 흡연 등이 전립선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전립선암과 무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br/> <br/> 국소암인 경우 무증상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국소암의 진단을 위해서 증상이 없더라도 50세 이상이면 전립선 특이항원(PSA)과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전립선을 촉진(환자의 몸을 손으로 만져서 진단하는 것)하는 직장수지검사를 매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전립선암이 진행되면 방광 출구가 막혀 소변을 배설하지 못하게 되는 급성요폐, 혈뇨, 요실금이 발생하게 되며, 전이암으로 진행되면 골 전이에 의한 뼈의 통증, 척수압박에 의한 신경증상 및 골절 등이 발생한다. <br/> <br/> 또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육류를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br/> <br/>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고 규칙적을 운동을 통해 적정 범위의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립선암 사망률과 지방섭취량은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지방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지방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 예를 들어 탄수화물, 단백질, 칼슘, 나트륨, 철 등의 섭취량은 이와 무관하다. <br/> <br/> 전립선암에 좋은 음식 소식에 누리꾼들은 “전립선암에 좋은 음식, 육류 적게 섭취해야지”, “전립선암에 좋은 음식, 예방이 중요해”, “전립선암에 좋은 음식, 야채가 좋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40.txt

제목: 서울대병원, UAE 왕립병원 ‘의료한류 성공모델로 현지 정착’  
날짜: 20150817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84800132  
본문: 서울대병원 UAE 왕립병원 위탁운영 1주년 기념식 <br/>서울대병원(원장 오병희)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이 진료를 시작한지 반년 만에 UAE 전역에서 의뢰된 7,0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등 현지 정착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지난해 8월 서울대병원이 UAE 대통령실과 5년간 1조원 규모의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공식 개원하며 진료를 시작한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 이하 UAE 왕립병원)이 위탁운영 1주년을 맞았다. <br/> <br/>16일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오후 3시30분) UAE 왕립병원 로비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성낙인 서울대 총장,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성명훈 현지병원장 및 UAE측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br/> <br/>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에 위치한 UAE 왕립병원은 암, 심장질환, 신경계질환 등에 중점을 둔 3차 전문병원으로, 지상 5층 지하 1층에 대지면적 200,000m2, 연면적 72,248m2 규모다. <br/> <br/>7월 말 현재 이 병원은 외래와 병동,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246개 병상 가운데 중환자실 20개를 포함해 133개 병상을 가동 중 이다. <br/> <br/>7월 한달 간 외래환자 1,200명, 입원환자 100명을 진료했으며, 개원 후 진료한 환자 수는 외래 7,000여명, 입원 570여명에 이른다. 또한 각종 암 수술을 비롯해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140건의 수술을 시행했다. <br/> <br/>특히 UAE 왕립병원은 UAE에서 처음 시도되는 의뢰환자 전문병원(우리나라 3차병원 개념)으로, 의뢰 환자의 85%는 이 병원이 위치한 라스알카이마 지역 뿐만 아니라 UAE 전역의 1, 2차 의료기관으로 부터 전원됐고, 15%는 UAE 외 타 국가에서 전원된 환자일 만큼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br/> <br/>병원 운영은 서울대병원에서 파견한 의사 40여명 등 250여명을 포함해 의사 70여명, 간호사 260여명 등 720명이 맡고 있다. <br/> <br/>성명훈 UAE 왕립병원장은 “병원이 위치한 라스알카이마 지역에 비해 의료여건이 좋은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도 환자 의뢰가 늘고 있다. 의료인 개인의 뛰어난 역량과 더불어 유기적인 협진 등 팀워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며 “이처럼 단기간에 병원이 정착한 것에 대해 현지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병원 운영이 성공적이라 자부한다. 한국 의료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환자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br/> <br/>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span class='quot0'>UAE 왕립병원에는 UAE 이외의 지역에서도 환자가 의뢰되고 있어, 이 병원이 의료한류의 상징적 성공모델이자 중동 지역의 메디칼 허브로 자리하게될 것으로 예측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서울대병원은 대한민국 대표 의료 브랜드로서 국익 창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UAE 왕립병원은 진료 뿐만 아니라 현지 의료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총 6회의 학술행사를 개최했으며, 특히 지난 6월 개최한 ‘신종 감염병 관리’ 컨퍼런스에는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현지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41.txt

제목: 한국유방암학회, 유전성유방암 발생위험 규명  
날짜: 20150817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7100000828  
본문:  한국유방암학회가 17일 유전성유방암 유전자를 보유한 국내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BRCA1과 BRCA2 유전자 돌연변이에 기인한 한국인 유방암 위험도(Breast cancer risk for Korean women with germline mutations in BRCA1 and BRCA2)로 명명된 이번 연구에서는 유전성유방암 보인자가 70세까지 생존 시의 유방암 발생률을 최초로 규명했다.연구 결과 BRCA1 보인자는 70세까지 누적되는 유방암 발생률은 49%였다. BRCA2 보인자의 경우 35%인 것으로 밝혀졌다.50세까지는 BRCA1 보인자는 27%, BRCA2 보인자 18%으로 누적 발생률을 보여 서구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BRCA1 보인자 중 가장 높은 누적 발생률이 있는 사람은 98%에 달하기도 했다.이번 연구에서는 BRCA 보인자의 연령대별 향후 10년간 유방암 발생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BRCA1 보인자의 경우 40세가 19.5%, 50세가 18.4%로 높은 유방암 발생률을 기록했다.BRCA2 보인자 역시 40세(12.8%)와 50세(12.0%)가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해 BRCA1·BRCA2 보인자 모두 4-50대에 유방암 발생률이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로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연구(KOHBRA, Korean Hereditary Breast Cancer Study)의 책임연구자이자 한국유방암학회 김성원 홍보이사(대림성모병원 유방센터장)는 "이번 연구는 유전성유방암 보인자의 평균적인 누적 유방암 발생률을 예측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누적 위험이 최소 11%에서 최대 98%까지 편차가 큰 만큼 환자 별 맞춤 치료를 위한 노력이 필수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연구의 또 다른 참여자인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수경 교수는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맞춤 예방 치료 및 수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유방암학회는 국내 여성의 유방암 예방과 수준 높은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연구를 펼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는 국립암센터 박보영 박사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Korean Hereditary Breast Cancer) 연구에 참여한 151명의 BRCA1 돌연변이 보인자와 225명의 BRCA2 돌연변이 보인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연구진은 유전형질 확인법을 조건으로 암 가족력에 대한 수정된 분리모형 분석을 사용하여 인구 대비 여성 보인자의 평균 연령별 누적 위험도를 추산했다.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42.txt

제목: 미네랄 없는 물은 ‘죽은 물’… 건강하려면 식수 신경써야  
날짜: 20150817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710018260843  
본문: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물이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미네랄이 없는 물은 어떨까. 수년 전부터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 물은 미네랄까지 정수한 ‘죽은 물’이며 이 물을 장기간 마실 경우 건강을 해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먹는 물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최근 발간된 저서 ‘역삼투압 정수기를 고발합니다’(서영)에는 MBC다큐멘터리 ‘워터 시크릿’을 제작한 환경탐사보도 박치현 전문기자가 방송에 미처 담지 못한 자세한 탐사 과정과 우리가 좋은 물을 골라 마셔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다. <br/>◆몸속 미네랄 빼앗는 ‘죽은 물’ <br/> <br/>자연에서 나오는 물은 원래 각종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 미네랄은 인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소로 우리 몸에서 4%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몸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고 물과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그 자체로 뼈나 치아 등 신체의 구성성분이 된다는 점에서 비타민과 다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천수들은 미네랄이 풍부하며, 마트에서 사먹는 생수에도 각각 미네랄 함량이 표시돼 있다. <br/> <br/>문제는 국내 가정의 40%가 식수로 사용하는 정수기 물, 그중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상위 3개 회사의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는 미네랄까지 걸러낸다는 것이다. <br/> <br/>정수기는 크게 역삼투압 방식과, 중공사막 방식으로 나뉘는데 역삼투압 방식은 초미세구멍에 물을 통과시켜 여과하는 방식으로 물 속 불순물은 물론 방사능까지 전부 제거해 깨끗한 물을 얻어낸다. 하지만 미네랄까지 제거해 죽은 물이 된다. <br/> <br/>죽은 물을 마시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수기 회사들은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미네랄은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물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br/> <br/>미네랄은 물에 완벽하게 이온화돼 있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되는 비율이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미네랄이 함유된 물을 충분히 마시기만 해도 우리가 매일 섭취해야 하는 최소 필요 미네랄의 10∼30%를 충족할 수 있다. <br/> <br/>미네랄은 인체 내에서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된 물은 인체의 pH값인 7.3∼7.4보다 낮은 pH6.5 이하의 산성수가 된다. 이 같은 물을 지속적으로 마실 경우 몸이 산성화된다. 암 등 중병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의 체액이 산성화돼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br/> <br/>또 몸속 세포 밖이 미네랄이 없는 물로 채워지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세포 속 미네랄이 빠져나간다. 때문에 죽은 물을 먹는 것은 미네랄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다. <br/> <br/>세계물협회 미네랄 연구팀의 잉그리드 로스버그 박사는 “<span class='quot0'>특히 임산부는 절대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span>”고 말한다. 그는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몸속 미네랄을 씻어내며 부모가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마시면 태아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경고한다. 운동 중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마시는 것도 위험하다. 베이징 IDM 기술연구소는 물질대사 실험을 통해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마시면 칼슘과 아미노산이 쉽게 유실되며 탈수 증세가 더욱 심해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br/> <br/>◆미네랄 풍부한 좋은 물 찾아 마셔야 <br/> <br/>세계보건기구(WHO)는 마시는 물의 pH값을 6.5∼8.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한다. 역삼투압 정수기 물의 pH 농도는 일반적으로 5.5∼6.5다. 식수로서 기준 미달인 셈이다. 깨끗한 물인 줄 알고 마셨던 정수기 물이 우리의 몸을 해친다면 대체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 우리가 ‘약수’라 부르는 자연에서 나는 물이 가장 좋지만 공기와 토양이 오염되면서 도시에서 좋은 약수를 얻기는 쉽지 않다. 박치현 전문기자는 녹슨 하수도관 등으로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수돗물에는 생수와 비슷하게 미네랄이 함유돼 있으며 끓여 먹거나 받아서 잠시 두면 소독을 위해 첨가한 염소가 날아간다. 물을 끓이면 죽은 물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물은 끓이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산소가 증발하지만 식으면 대기압 때문에 원래 상태의 용존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 미네랄이 보존된다. <br/> <br/>제대로된 정수기를 골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역삼투압 정수기는 피하고 유해한 세균과 오염물질을 충분히 걸러내면서 미네랄을 풍부하게 유지하는지, 물 낭비는 심하지 않은지, 약알칼리수인지 등을 따져 좋은 정수기를 선택하면 된다. <br/> <br/>현대인의 병 중 상당수는 미네랄 결핍에서 온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잔병이 많았다면 이제라도 마시는 물을 깐깐하게 골라보는 게 어떨까.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43.txt

제목: 서울대병원, UAE 왕립병원 ‘의료한류 성공모델로 현지 정착’  
날짜: 20150817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7100000825  
본문: 서울대병원 UAE 왕립병원 위탁운영 1주년 기념식서울대병원(원장 오병희)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이 진료를 시작한지 반년 만에 UAE 전역에서 의뢰된 7,0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등 현지 정착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8월 서울대병원이 UAE 대통령실과 5년간 1조원 규모의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공식 개원하며 진료를 시작한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 이하 UAE 왕립병원)이 위탁운영 1주년을 맞았다.16일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오후 3시30분) UAE 왕립병원 로비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성낙인 서울대 총장,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성명훈 현지병원장 및 UAE측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에 위치한 UAE 왕립병원은 암, 심장질환, 신경계질환 등에 중점을 둔 3차 전문병원으로, 지상 5층 지하 1층에 대지면적 200,000m2, 연면적 72,248m2 규모다.7월 말 현재 이 병원은 외래와 병동,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246개 병상 가운데 중환자실 20개를 포함해 133개 병상을 가동 중 이다.7월 한달 간 외래환자 1,200명, 입원환자 100명을 진료했으며, 개원 후 진료한 환자 수는 외래 7,000여명, 입원 570여명에 이른다. 또한 각종 암 수술을 비롯해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140건의 수술을 시행했다.특히 UAE 왕립병원은 UAE에서 처음 시도되는 의뢰환자 전문병원(우리나라 3차병원 개념)으로, 의뢰 환자의 85%는 이 병원이 위치한 라스알카이마 지역 뿐만 아니라 UAE 전역의 1, 2차 의료기관으로 부터 전원됐고, 15%는 UAE 외 타 국가에서 전원된 환자일 만큼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병원 운영은 서울대병원에서 파견한 의사 40여명 등 250여명을 포함해 의사 70여명, 간호사 260여명 등 720명이 맡고 있다.성명훈 UAE 왕립병원장은 “병원이 위치한 라스알카이마 지역에 비해 의료여건이 좋은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도 환자 의뢰가 늘고 있다. 의료인 개인의 뛰어난 역량과 더불어 유기적인 협진 등 팀워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며 “이처럼 단기간에 병원이 정착한 것에 대해 현지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병원 운영이 성공적이라 자부한다. 한국 의료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환자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UAE 왕립병원에는 UAE 이외의 지역에서도 환자가 의뢰되고 있어, 이 병원이 의료한류의 상징적 성공모델이자 중동 지역의 메디칼 허브로 자리하게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서울대병원은 대한민국 대표 의료 브랜드로서 국익 창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UAE 왕립병원은 진료 뿐만 아니라 현지 의료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총 6회의 학술행사를 개최했으며, 특히 지난 6월 개최한 ‘신종 감염병 관리’ 컨퍼런스에는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현지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44.txt

제목: 전립선암에 좋은 음식, 과일 채소 많이 섭취하고 육류를 적게 섭취해야..  
날짜: 20150817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710018248296  
본문: 전립선암에 좋은 음식, 과일 채소 많이 섭취하고 육류를 적게 섭취해야.. (사진= MBN)전립선암에 좋은 음식, 과일 채소 많이 섭취하고 육류를 적게 섭취해야.. <br/> <br/>전립선암에 좋은 음식이 주목받고 있다 <br/> <br/>전립선암은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br/> <br/>서양의 경우 전립선암은 남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인다. <br/> <br/>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전립선암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립선암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연령, 인종, 가족력이다. 유전적 소인 외에도 호르몬, 식이습관, 제초제와 같은 화학약품 등도 발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br/> <br/>특히 전염성 질환, 성생활 정도, 사회경제적 상태, 정관수술, 흡연 등이 전립선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전립선암과 무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br/> <br/>국소암인 경우 무증상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국소암의 진단을 위해서 증상이 없더라도 50세 이상이면 전립선 특이항원(PSA)과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전립선을 촉진(환자의 몸을 손으로 만져서 진단하는 것)하는 직장수지검사를 매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전립선암이 진행되면 방광 출구가 막혀 소변을 배설하지 못하게 되는 급성요폐, 혈뇨, 요실금이 발생하게 되며, 전이암으로 진행되면 골 전이에 의한 뼈의 통증, 척수압박에 의한 신경증상 및 골절 등이 발생한다. <br/> <br/>또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육류를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br/> <br/>칼로리를 적게 섭취하고 규칙적을 운동을 통해 적정 범위의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립선암 사망률과 지방섭취량은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지방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지방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 예를 들어 탄수화물, 단백질, 칼슘, 나트륨, 철 등의 섭취량은 이와 무관하다. <br/> <br/>전립선암에 좋은 음식 소식에 누리꾼들은 “전립선암에 좋은 음식, 육류 적게 섭취해야지”, “전립선암에 좋은 음식, 예방이 중요해”, “전립선암에 좋은 음식, 야채가 좋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45.txt

제목: 중견 창작자 방전된 영감 채워드려요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7100000222  
본문: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프로듀서, 감독, 작가 등 중견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콘텐츠 소재 발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5 창작소재 발굴 워크숍’을 25일부터 5주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의사, 프로파일러, 스포츠 전문가,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한국의 콜드케이스 ▲스포츠의 빛과 어둠 ▲왕을 만든 고대의 여인들 ▲의료계를 둘러싼 핫이슈를 주제로 매주 화·목요일 주제별로 모두 5회에 걸쳐 특강을 할 예정이다. 한국 1기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는 ‘한국의 콜드케이스’를 주제로 실제 장기 미제사건을 공개한다. 다양한 범죄 사례와 과학수사기법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를 통해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다. ‘스포츠의 빛과 어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는 조태룡 넥센히어로즈 단장, 최준서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등이 참가해 프로스포츠의 검은손, 스포츠 마케팅 해부학 등 스포츠 전반에 걸친 명과 암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왕을 만든 고대의 여인들’ 과정에서는 중원대 한국학과 서영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고구려 왕비 우씨, 신라 경덕왕비 만월부인, 백제사에 유일하게 이름을 남긴 왕비 고은 등 여성을 둘러싼 역사적 비화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분당차병원 김민영 교수와 단국대 대학원 생명융합학과 김세현 교수 등은 ‘의료계를 둘러싼 핫이슈’를 주제로 줄기세포, 양·한방, 의료권력, 신약 개발 등에 대한 이슈를 소개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현재 활동 중인 창작자 중 1편 이상의 시나리오 창작, 연출, 프로듀싱, 제작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과정에 20명씩 총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창작자들은 18일 오전 11시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culture@cultureinsight.org)로 제출하면 된다.강구열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46.txt

제목: 고 이맹희 CJ명예회장 서울 도착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7100000121  
본문: 지난 14일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한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시신이 17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운구됐다.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가족 대표로서 중국에서부터 운구했으며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이 동행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한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시신이 17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 화물청사를 통해 운구되고 있다.장례는 이채욱 CJ주식회사 대표를 장례위원장으로 하는 CJ그룹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현재 빈소는 이맹희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CJ그룹 고문 등 직계가족이 지키고 있다.조문은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고 발인은 20일 오전 7시에 이뤄진다. 영결식은 한 시간 뒤인 오전 8시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지는 경기도 여주나 남양주 등 이 명예회장 일가의 사유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CJ그룹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유족 측에서 공개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부친 빈소를 찾아 입관식 등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천78억원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뒤 신장 이식 수술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1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빈소.고 이맹희 이 명예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그는 2012년 12월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이듬해 암이 부신(콩팥 위에 있는 내분비 기관)으로 전이돼 일본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암세포가 혈액을 통해 림프절로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중국에서 투병생활을 해왔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47.txt

제목: 고 이맹희 CJ명예회장 시신, 오늘 오후 서울로  
날짜: 20150817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7100000762  
본문: 지난 14일 중국에서 지병인 폐암으로 별세한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시신이 17일 오후 서울에 도착한다. 17일 CJ그룹 관계자는 "이날 오후 늦게 국내로 운구가 이뤄질 것"이라며 유족들의 뜻에 따라 도착시간을 밝히지 않았다.  시신 운구는 이 명예회장의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가족 대표로서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은 주말까지 CJ그룹장(장례위원장 이채욱 CJ주식회사 대표)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빈소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마련되며, 조문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부친 빈소를 찾아 입관식 등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78억원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4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지만 상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장 이식 수술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2012년 12월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이듬해 암이 부신(콩팥 위에 있는 내분비 기관)으로 전이돼 일본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았다.지난해 암세포가 혈액을 통해 림프절로 전이돼 중국에서 투병생활을 해왔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48.txt

제목: 중견 창작자 방전된 영감 채워드려요  
날짜: 20150816  
기자: 강구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3816505  
본문: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프로듀서, 감독, 작가 등 중견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콘텐츠 소재 발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5 창작소재 발굴 워크숍’을 25일부터 5주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br/> <br/>이번 워크숍에는 의사, 프로파일러, 스포츠 전문가,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한국의 콜드케이스 ▲스포츠의 빛과 어둠 ▲왕을 만든 고대의 여인들 ▲의료계를 둘러싼 핫이슈를 주제로 매주 화·목요일 주제별로 모두 5회에 걸쳐 특강을 할 예정이다. <br/> <br/>한국 1기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는 ‘한국의 콜드케이스’를 주제로 실제 장기 미제사건을 공개한다. 다양한 범죄 사례와 과학수사기법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를 통해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다. ‘스포츠의 빛과 어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는 조태룡 넥센히어로즈 단장, 최준서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등이 참가해 프로스포츠의 검은손, 스포츠 마케팅 해부학 등 스포츠 전반에 걸친 명과 암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br/> <br/>‘왕을 만든 고대의 여인들’ 과정에서는 중원대 한국학과 서영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고구려 왕비 우씨, 신라 경덕왕비 만월부인, 백제사에 유일하게 이름을 남긴 왕비 고은 등 여성을 둘러싼 역사적 비화를 공개할 예정이다. <br/> <br/>이밖에도 분당차병원 김민영 교수와 단국대 대학원 생명융합학과 김세현 교수 등은 ‘의료계를 둘러싼 핫이슈’를 주제로 줄기세포, 양·한방, 의료권력, 신약 개발 등에 대한 이슈를 소개할 예정이다. <br/> <br/>워크숍은 현재 활동 중인 창작자 중 1편 이상의 시나리오 창작, 연출, 프로듀싱, 제작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과정에 20명씩 총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창작자들은 18일 오전 11시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culture@cultureinsight.org)로 제출하면 된다. <br/> <br/>강구열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49.txt

제목: 대사증후군이 유발한 암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연간 2300억원  
날짜: 20150816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3716344  
본문: 대사증후군 영향으로 발생한 암이 연간 2300억원 가량의 부담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16일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김동우 교수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 20세 이상 암환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사증후군이 원인이 돼 암에 걸린 환자 수는 총 1만8070명이었으며, 이들의 경제적 부담액은 총 2251억7669만원으로 분석됐다. <br/> <br/>암 환자의 치료비, 교통비, 간병비 등 직접적인 경제 부담(1400억원)과, 입원·사망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등 간접적인 손실(850억원)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br/> <br/>대사증후군은 당뇨, 고혈압, 비만,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특정 부위의 암 발생 위험도 높인다. <br/> <br/>남성의 경우 결장·직장암, 간암, 방광암 등이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높았다. <br/> <br/>여성은 결장·직장암, 췌장암, 유방암(폐경후), 자궁체부암, 난소암 등이 대사증후군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된다. <br/> <br/>특히 자궁체부암은 대사증후군의 기여위험도가 14.54%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기여위험도란 특정 요인이 작용해 발생했다고 간주되는 비율을 뜻한다. 대사증후군이 없었다면 자궁체부암의 14.54%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br/> <br/>결장암은 대사증후군의 기여위험도가 남, 녀 각각 6.88%, 10.26%로 나타났다. <br/> <br/>여성의 경우 췌장암(13.93%), 폐경 후 유방암(13.51%), 난소암(6.76%) 순으로 대사증후군의 암 기여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폐경 전 유방암, 신장암, 자궁경부암, 피부암, 전립선암, 갑상샘암, 방광암(여성) 등은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없었다. <br/> <br/>국내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998년 24.9%에서 2009년 32.4%로 급증하고 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50.txt

제목: 대사증후군이 유발한 암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연간 2300억원  
날짜: 20150816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6100000450  
본문: 대사증후군 영향으로 발생한 암이 연간 2300억원 가량의 부담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김동우 교수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 20세 이상 암환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사증후군이 원인이 돼 암에 걸린 환자 수는 총 1만8070명이었으며, 이들의 경제적 부담액은 총 2251억7669만원으로 분석됐다.암 환자의 치료비, 교통비, 간병비 등 직접적인 경제 부담(1400억원)과, 입원·사망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등 간접적인 손실(850억원)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대사증후군은 당뇨, 고혈압, 비만,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특정 부위의 암 발생 위험도 높인다.남성의 경우 결장·직장암, 간암, 방광암 등이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높았다.여성은 결장·직장암, 췌장암, 유방암(폐경후), 자궁체부암, 난소암 등이 대사증후군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된다.특히 자궁체부암은 대사증후군의 기여위험도가 14.54%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위험도란 특정 요인이 작용해 발생했다고 간주되는 비율을 뜻한다. 대사증후군이 없었다면 자궁체부암의 14.54%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결장암은 대사증후군의 기여위험도가 남, 녀 각각 6.88%, 10.26%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췌장암(13.93%), 폐경 후 유방암(13.51%), 난소암(6.76%) 순으로 대사증후군의 암 기여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폐경 전 유방암, 신장암, 자궁경부암, 피부암, 전립선암, 갑상샘암, 방광암(여성) 등은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없었다.국내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998년 24.9%에서 2009년 32.4%로 급증하고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51.txt

제목: 중견 창작자 방전된 영감 채워드려요  
날짜: 20150816  
기자: 강구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610018248078  
본문: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프로듀서, 감독, 작가 등 중견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콘텐츠 소재 발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5 창작소재 발굴 워크숍’을 25일부터 5주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br/> <br/>이번 워크숍에는 의사, 프로파일러, 스포츠 전문가,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한국의 콜드케이스 ▲스포츠의 빛과 어둠 ▲왕을 만든 고대의 여인들 ▲의료계를 둘러싼 핫이슈를 주제로 매주 화·목요일 주제별로 모두 5회에 걸쳐 특강을 할 예정이다. <br/> <br/>한국 1기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는 ‘한국의 콜드케이스’를 주제로 실제 장기 미제사건을 공개한다. 다양한 범죄 사례와 과학수사기법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를 통해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다. ‘스포츠의 빛과 어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는 조태룡 넥센히어로즈 단장, 최준서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등이 참가해 프로스포츠의 검은손, 스포츠 마케팅 해부학 등 스포츠 전반에 걸친 명과 암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br/> <br/>‘왕을 만든 고대의 여인들’ 과정에서는 중원대 한국학과 서영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고구려 왕비 우씨, 신라 경덕왕비 만월부인, 백제사에 유일하게 이름을 남긴 왕비 고은 등 여성을 둘러싼 역사적 비화를 공개할 예정이다. <br/> <br/>이밖에도 분당차병원 김민영 교수와 단국대 대학원 생명융합학과 김세현 교수 등은 ‘의료계를 둘러싼 핫이슈’를 주제로 줄기세포, 양·한방, 의료권력, 신약 개발 등에 대한 이슈를 소개할 예정이다. <br/> <br/>워크숍은 현재 활동 중인 창작자 중 1편 이상의 시나리오 창작, 연출, 프로듀싱, 제작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과정에 20명씩 총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창작자들은 18일 오전 11시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culture@cultureinsight.org)로 제출하면 된다. <br/> <br/>강구열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52.txt

제목: 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전지현 인증샷 공개 "너무 행복해요"  
날짜: 201508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3434565  
본문: 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전지현 인증샷 공개 "너무 행복해요" <br/>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전지현 인증샷 공개 "너무 행복해요" <br/> <br/>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전지현이 천만 관객 돌파 기념 인증샷을 공개했다. <br/> <br/>영화 '암살'이 15일 오전 8시 누적 관객수 1,009만 4,957명을 기록했다. <br/> <br/>이에 전지현은 배급사를 통해 인증샷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전지현은 민낯으로 직접 쓴 글을 들고 있다. 글에는  "'암살' 천만!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파이팅)"이라고 담겨 있다. <br/> <br/>한편,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독립군과 변절자, 그리고 살인청부업자의 엇갈린 운명을 그린 액션 영화다. <br/> <br/>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멋지다", "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축하드려요", "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전지현, 이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53.txt

제목: 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전지현 천만 돌파에 손글씨로 소감 밝혀 '뭐라고 썼나 봤더니...'  
날짜: 201508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3506148  
본문: 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전지현 천만 돌파에 손글씨로 소감 밝혀 '뭐라고 썼나 봤더니...' <br/>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전지현 천만 돌파에 손글씨로 소감 밝혀 '뭐라고 썼나 봤더니...' <br/> <br/>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전지현의 인증샷이 공개됐다. . <br/> <br/>영화 '암살'이 15일 오전 8시 누적 관객수 1,009만 4,957명을 기록했다. <br/> <br/>이에 전지현은 배급사를 통해 인증샷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전지현은 민낯으로 직접 쓴 글을 들고 있다. 글에는  "'암살' 천만!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파이팅)"이라고 담겨 있다. <br/> <br/>한편,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독립군과 변절자, 그리고 살인청부업자의 엇갈린 운명을 그린 액션 영화다. <br/> <br/>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결국 넘었군", "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기념적이네", "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대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54.txt

제목: 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전지현 민낯에 손글씨까지 공개 '이제 시작이야'  
날짜: 201508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84228122  
본문: 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전지현 민낯에 손글씨까지 공개 '이제 시작이야' <br/>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전지현 민낯에 손글씨까지 공개 '이제 시작이야' <br/> <br/>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전지현이 사진 한 장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영화 '암살'이 15일 오전 8시 누적 관객수 1,009만 4,957명을 기록했다. <br/> <br/>이에 전지현은 배급사를 통해 인증샷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전지현은 민낯으로 직접 쓴 글을 들고 있다. 글에는  "'암살' 천만!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파이팅)"이라고 담겨 있다. <br/> <br/>한편,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독립군과 변절자, 그리고 살인청부업자의 엇갈린 운명을 그린 액션 영화다. <br/> <br/>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축하해요", "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좋겠네요", "암살 광복절에 천만 돌파, 대박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55.txt

제목: 인공암벽장·번지점프대·캠핑시설까지…  
날짜: 20150815  
기자: 김영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5100000005  
본문: 동네 어르신들의 소일 장소였던 동네공원이 문화와 운동, 레저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말이면 직장일로 지친 사람들이 암벽등반과 배드민턴 등 생활 스포츠나 아기자기한 각종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을 갖췄다. 일부 공원에는 캠핑시설까지 마련돼 아예 가족들이 텐트를 치고 일상을 벗어나는 힐링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동백호수공원14일 경기도 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들어선 광교호수공원은 신도시 개발 전 도심 속 저수지인 ‘원천저수지’를 개발구역에 포함시켜 자연을 최대한 보존한 공원으로 아름다운 수변공간인 어반레비 등 6개의 테마 공간으로 꾸며졌다. 호수 주변 1.6㎞의 길이로 설치된 어반레비는 호수를 가까이 조망하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이곳의 야경은 사진작가들이 앞다퉈 찍어 작품으로 전시할 정도로 아름답다. ‘신비한 물너미’는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으로 원형광장에서 바닥분수가 솟아 오르고 거울처럼 맑은 물을 담은 거울못과 물보석분수 등 9개의 분수시설로 어우러져 있다. 조용한 물 숲, 향긋한 꽃 섬과 같은 인공 식물섬과 국제 규격의 인공암벽장, 공연 전문가 혹은 아마추어 동호회가 무료 공연을 열 수 있도록 한 마당극장, 캠핑장 등의 테마는 조화를 이뤄 국토교통부 선정 2012년 조경대상, 2014년 경관대상을 수상했다.광교호수공원안양시청 맞은편의 평촌중앙공원은 한여름 더위를 날려주는 대형 분수대가 시민들에게 인기다. 시민들이 자녀들과 함께 나와 물놀이도 즐기고, 돗자리와 먹을거리를 준비해 가족 힐링공간으로 활용된다. 성남 분당에 위치한 율동공원은 자연의 멋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번지점프와 분수대, 수변산책로와 책 테마파크 등 현대적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부천 상동호수공원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스케이트 보드 등을 즐기는 X-게임장이 설치돼 있다. 또 상동호수공원 옆 고가 밑의 해그늘체육공원에는 X-게임장도 마련돼 익스트림 애호가들로 북적인다. 2008년에 조성돼 물레방아를 비롯해 생태연못, 논과 채소밭, 우물, 초가집 등을 갖춘 농업공원도 조성해 어린이들의 교육장으로도 활용된다. 용인 동백호수공원은 생태 개념이 도입된 호수공원이다. 인공호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호수 주변부에 정화력이 높은 갈대·부들 등 정수식물과 소나무 등을 심어 녹지 공간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클래식 음악과 함께 물기둥이 솟아오르는 분수대가 특히 사랑을 받는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56.txt

제목: 인공암벽장·번지점프대·캠핑시설까지…  
날짜: 20150814  
기자: 지원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3107580  
본문: 동네 어르신들의 소일 장소였던 동네공원이 문화와 운동, 레저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말이면 직장일로 지친 사람들이 암벽등반과 배드민턴 등 생활 스포츠나 아기자기한 각종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을 갖췄다. 일부 공원에는 캠핑시설까지 마련돼 아예 가족들이 텐트를 치고 일상을 벗어나는 힐링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br/> <br/> 동백호수공원14일 경기도 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들어선 광교호수공원은 신도시 개발 전 도심 속 저수지인 ‘원천저수지’를 개발구역에 포함시켜 자연을 최대한 보존한 공원으로 아름다운 수변공간인 어반레비 등 6개의 테마 공간으로 꾸며졌다. 호수 주변 1.6㎞의 길이로 설치된 어반레비는 호수를 가까이 조망하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이곳의 야경은 사진작가들이 앞다퉈 찍어 작품으로 전시할 정도로 아름답다. ‘신비한 물너미’는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으로 원형광장에서 바닥분수가 솟아 오르고 거울처럼 맑은 물을 담은 거울못과 물보석분수 등 9개의 분수시설로 어우러져 있다. 조용한 물 숲, 향긋한 꽃 섬과 같은 인공 식물섬과 국제 규격의 인공암벽장, 공연 전문가 혹은 아마추어 동호회가 무료 공연을 열 수 있도록 한 마당극장, 캠핑장 등의 테마는 조화를 이뤄 국토교통부 선정 2012년 조경대상, 2014년 경관대상을 수상했다. <br/> <br/> 광교호수공원안양시청 맞은편의 평촌중앙공원은 한여름 더위를 날려주는 대형 분수대가 시민들에게 인기다. 시민들이 자녀들과 함께 나와 물놀이도 즐기고, 돗자리와 먹을거리를 준비해 가족 힐링공간으로 활용된다. 성남 분당에 위치한 율동공원은 자연의 멋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번지점프와 분수대, 수변산책로와 책 테마파크 등 현대적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br/> <br/>부천 상동호수공원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스케이트 보드 등을 즐기는 X-게임장이 설치돼 있다. 또 상동호수공원 옆 고가 밑의 해그늘체육공원에는 X-게임장도 마련돼 익스트림 애호가들로 북적인다. 2008년에 조성돼 물레방아를 비롯해 생태연못, 논과 채소밭, 우물, 초가집 등을 갖춘 농업공원도 조성해 어린이들의 교육장으로도 활용된다. 용인 동백호수공원은 생태 개념이 도입된 호수공원이다. 인공호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호수 주변부에 정화력이 높은 갈대·부들 등 정수식물과 소나무 등을 심어 녹지 공간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클래식 음악과 함께 물기둥이 솟아오르는 분수대가 특히 사랑을 받는다. <br/> <br/>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57.txt

제목: 이맹희, 향년 84세로 세상 떠나…수식어는 화려했으나 외로운 인생 살았다  
날짜: 20150814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3017233  
본문: 이맹희, 향년 84세로 세상 떠나…수식어는 화려했으나 외로운 인생 살았다 (사진= MBN)이맹희, 향년 84세로 세상 떠나…수식어는 화려했으나 외로운 인생 살았다 <br/> <br/>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前) 제일비료 회장(사진)이 14일 중국에서 별세했다. 향년 84세. <br/> <br/> 이맹희 전 회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br/> <br/> 14일 CJ그룹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맹희 전 회장이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현지시간 오전 9시 39분 별세했다</span>”고 밝혔다. <br/> <br/> 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12월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이듬해 암이 부신 등으로 전이됐다. 이후 이맹희 전 회장은 일본과 중국 등을 오가며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최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머물며 투병생활을 해왔다. <br/> <br/> 이맹희 전 회장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3남4녀 중 장남이다. 형제자매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외에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이 있다. <br/> <br/> 이맹희 전 회장은 장남이었지만 경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친인 이병철 삼성 창업주에 의해 경영 일선에서 배제됐으며 동생인 3남 이건희 회장에게 그룹을 넘기는 파라만장한 삶을 살다갔다. <br/> <br/> 2012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유산 관련 소송을 제기한 뒤 이병철 회장 선영 출입문 사용 문제 등을 놓고도 삼성가와 갈등을 빚어 왔다. 삼성가와의 집안싸움은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이 승소하고 이맹희 전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일단락됐다.  <br/> <br/> 이맹희 전 회장은 최종 상고를 포기하며 “<span class='quot1'>소송을 이어가는 것보다 가족간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span>”고 밝혀 소송이 재벌가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br/> <br/>이맹희 회장 별세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맹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맹희, 인생이란 헛되고 헛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58.txt

제목: ‘삼성 창업주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14일 별세…“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형"  
날짜: 20150814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3007668  
본문: ‘삼성 창업주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14일 별세…“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형"‘삼성 창업주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14일 별세…“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형" <br/> <br/>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장남 이맹희 전(前) 제일비료 회장이 14일 중국에서 별세했다.  <br/> <br/> 14일 CJ그룹 측은 “이맹희 전 회장이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현지시각 9시 39분 별세했다”고 밝혔다. <br/> <br/> 이맹희 전 회장은 고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형,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br/> <br/> 앞서 이명희 전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면서도 부친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경영에서 배제돼 이건희 회장에게 그룹 경영권을 넘기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br/> <br/> 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일본에서 폐암수술을 받았지만, 암이 전이돼 그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투병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59.txt

제목: 인공암벽장·번지점프대·캠핑시설까지…  
날짜: 20150814  
기자: 지원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410018243578  
본문: 동네 어르신들의 소일 장소였던 동네공원이 문화와 운동, 레저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말이면 직장일로 지친 사람들이 암벽등반과 배드민턴 등 생활 스포츠나 아기자기한 각종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을 갖췄다. 일부 공원에는 캠핑시설까지 마련돼 아예 가족들이 텐트를 치고 일상을 벗어나는 힐링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br/> <br/>동백호수공원14일 경기도 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들어선 광교호수공원은 신도시 개발 전 도심 속 저수지인 ‘원천저수지’를 개발구역에 포함시켜 자연을 최대한 보존한 공원으로 아름다운 수변공간인 어반레비 등 6개의 테마 공간으로 꾸며졌다. 호수 주변 1.6㎞의 길이로 설치된 어반레비는 호수를 가까이 조망하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이곳의 야경은 사진작가들이 앞다퉈 찍어 작품으로 전시할 정도로 아름답다. ‘신비한 물너미’는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으로 원형광장에서 바닥분수가 솟아 오르고 거울처럼 맑은 물을 담은 거울못과 물보석분수 등 9개의 분수시설로 어우러져 있다. 조용한 물 숲, 향긋한 꽃 섬과 같은 인공 식물섬과 국제 규격의 인공암벽장, 공연 전문가 혹은 아마추어 동호회가 무료 공연을 열 수 있도록 한 마당극장, 캠핑장 등의 테마는 조화를 이뤄 국토교통부 선정 2012년 조경대상, 2014년 경관대상을 수상했다. <br/> <br/>광교호수공원안양시청 맞은편의 평촌중앙공원은 한여름 더위를 날려주는 대형 분수대가 시민들에게 인기다. 시민들이 자녀들과 함께 나와 물놀이도 즐기고, 돗자리와 먹을거리를 준비해 가족 힐링공간으로 활용된다. 성남 분당에 위치한 율동공원은 자연의 멋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번지점프와 분수대, 수변산책로와 책 테마파크 등 현대적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br/> <br/>부천 상동호수공원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스케이트 보드 등을 즐기는 X-게임장이 설치돼 있다. 또 상동호수공원 옆 고가 밑의 해그늘체육공원에는 X-게임장도 마련돼 익스트림 애호가들로 북적인다. 2008년에 조성돼 물레방아를 비롯해 생태연못, 논과 채소밭, 우물, 초가집 등을 갖춘 농업공원도 조성해 어린이들의 교육장으로도 활용된다. 용인 동백호수공원은 생태 개념이 도입된 호수공원이다. 인공호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호수 주변부에 정화력이 높은 갈대·부들 등 정수식물과 소나무 등을 심어 녹지 공간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클래식 음악과 함께 물기둥이 솟아오르는 분수대가 특히 사랑을 받는다. <br/> <br/>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60.txt

제목: ‘삼성 창업주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14일 별세…“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형"  
날짜: 20150814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410018239148  
본문: ‘삼성 창업주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14일 별세…“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형"‘삼성 창업주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14일 별세…“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형" <br/> <br/>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장남 이맹희 전(前) 제일비료 회장이 14일 중국에서 별세했다.  <br/> <br/>14일 CJ그룹 측은 “이맹희 전 회장이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현지시각 9시 39분 별세했다”고 밝혔다. <br/> <br/>이맹희 전 회장은 고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형,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br/> <br/>앞서 이명희 전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면서도 부친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경영에서 배제돼 이건희 회장에게 그룹 경영권을 넘기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br/> <br/>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일본에서 폐암수술을 받았지만, 암이 전이돼 그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투병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61.txt

제목: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동생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애증의 반세기  
날짜: 2015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4100000512  
본문: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4,사진) 전 제일비료 회장이 14일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이맹희 전 회장은 이건희(73)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CJ그룹 관계자는 14일 “<span class='quot0'>이맹희 전 회장이 지병으로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현지시간 오전 9시 39분 별세했다</span>”고 밝혔다.이맹희 전 회장은 2012년 12월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하지만 이듬해 말 암이 부신(콩팥 위에 있는 내분비 기관)으로 전이돼 일본으로건너가 치료를 받았고, 2014년에는 암세포가 혈액을 통해 림프절로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중국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등 투병생활을 해왔다.이맹희 전 회장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3남 5녀 가운데 장남이었지만 후계구도 싸움에서 밀리며 동생인 3남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을 넘기고 제일제당을 물려받아 독립했다.CJ로 이름을 바꾼 제일제당은 현재 이맹희 전 회장의 장남인 이재현 회장이  이끌고 있다.이맹희 전 부회장은 2012년 2월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몰래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7천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이후 양측의 소송은 삼성그룹과 CJ그룹의 갈등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이맹희 전 회장은 이후 이병철 회장 선영 출입문 사용문제 등을 놓고도 삼성가와 갈등을 빚어 왔다.하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한 이맹희 전 회장이 2014년 2월 상고를 포기하고, 그해 8월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자 양측이  ’해빙무드’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이맹희 전 회장의 아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원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뒤 신장 이식 수술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받고 있다.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고지혈증과 함께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를 앓고 있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62.txt

제목: 이맹희, 84세에 세상 떠났다…그는 누구?  
날짜: 20150814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410018243533  
본문: 이맹희, 84세에 세상 떠났다…그는 누구?이맹희, 84세에 세상 떠났다…그는 누구? <br/> <br/>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前) 제일비료 회장(사진)이 14일 중국에서 별세했다. 향년 84세. <br/> <br/>이맹희 전 회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br/> <br/>14일 CJ그룹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맹희 전 회장이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현지시간 오전 9시 39분 별세했다</span>”고 밝혔다. <br/> <br/>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12월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이듬해 암이 부신 등으로 전이됐다. 이후 이맹희 전 회장은 일본과 중국 등을 오가며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최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머물며 투병생활을 해왔다. <br/> <br/>이맹희 전 회장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3남4녀 중 장남이다. 형제자매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외에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이 있다. <br/> <br/>이맹희 전 회장은 장남이었지만 경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친인 이병철 삼성 창업주에 의해 경영 일선에서 배제됐으며 동생인 3남 이건희 회장에게 그룹을 넘기는 파라만장한 삶을 살다갔다. <br/> <br/>2012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유산 관련 소송을 제기한 뒤 이병철 회장 선영 출입문 사용 문제 등을 놓고도 삼성가와 갈등을 빚어 왔다. 삼성가와의 집안싸움은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이 승소하고 이맹희 전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일단락됐다. <br/> <br/>이맹희 전 회장은 최종 상고를 포기하며 “<span class='quot1'>소송을 이어가는 것보다 가족간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span>”고 밝혀 소송이 재벌가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br/> <br/>이맹희 회장 별세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맹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맹희, 인생이란 헛되고 헛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63.txt

제목: 이맹희, 향년 84세로 세상 떠나…수식어는 화려했으나 외로운 인생 살았다  
날짜: 20150814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410018243456  
본문: 이맹희, 향년 84세로 세상 떠나…수식어는 화려했으나 외로운 인생 살았다 (사진= MBN)이맹희, 향년 84세로 세상 떠나…수식어는 화려했으나 외로운 인생 살았다 <br/> <br/>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前) 제일비료 회장(사진)이 14일 중국에서 별세했다. 향년 84세. <br/> <br/>이맹희 전 회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br/> <br/>14일 CJ그룹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맹희 전 회장이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현지시간 오전 9시 39분 별세했다</span>”고 밝혔다. <br/> <br/>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12월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이듬해 암이 부신 등으로 전이됐다. 이후 이맹희 전 회장은 일본과 중국 등을 오가며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최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머물며 투병생활을 해왔다. <br/> <br/>이맹희 전 회장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3남4녀 중 장남이다. 형제자매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외에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이 있다. <br/> <br/>이맹희 전 회장은 장남이었지만 경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친인 이병철 삼성 창업주에 의해 경영 일선에서 배제됐으며 동생인 3남 이건희 회장에게 그룹을 넘기는 파라만장한 삶을 살다갔다. <br/> <br/>2012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유산 관련 소송을 제기한 뒤 이병철 회장 선영 출입문 사용 문제 등을 놓고도 삼성가와 갈등을 빚어 왔다. 삼성가와의 집안싸움은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이 승소하고 이맹희 전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일단락됐다.  <br/> <br/>이맹희 전 회장은 최종 상고를 포기하며 “<span class='quot1'>소송을 이어가는 것보다 가족간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span>”고 밝혀 소송이 재벌가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br/> <br/>이맹희 회장 별세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맹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맹희, 인생이란 헛되고 헛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64.txt

제목: 암살 표절 논란, 100억 손해배상 청구에 상영금지가처분신청까지 '얼마나 똑같길래'  
날짜: 2015081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2310883  
본문: 암살 표절 논란, 100억 손해배상 청구에 상영금지가처분신청까지 '얼마나 똑같길래' <br/>암살 표절 논란, 100억 손해배상 청구에 상영금지가처분신청까지 '얼마나 똑같길래' <br/> <br/>암살 표절 논란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12일 소설가 최종림이 영화'암살'에 대한 표절 의혹에 대해 제기했다. <br/> <br/>최종림은 영화 '암살'이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최동훈 감독, 제작사 케이퍼필름 안수현 대표, 배급을 맡은 쇼박스 유정훈 대표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도 냈다. <br/> <br/>최종림은 한 매체를 통해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저격조를 만들어 엄선된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내는 구성이 내 소설 설정과 같다. 여주인공을 내세워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암살해 가는 내용도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 이름이 안옥윤(전지현)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br/> <br/>최종림은 "소설을 토대로 몇 해 전 시나리오를 만들어 영화 제작사를 찾아다녔는데 그때 유출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br/> <br/>이에 '암살' 케이퍼필름의 안수현 대표는 "김구 선생과 김원봉 선생이 암살 작전을 모의하고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낸다는 영화 줄거리는 역사적 사실이며 영화는 여기에 허구를 가미해 재구성했다"며 표절에 대해 부인했다. <br/> <br/>암살 표절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암살 표절 논란, 진실은?", "암살 표절 논란, 어떻게 된거야?", "암살 표절 논란, 정말 비슷한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65.txt

제목: 암살 표절 논란, 소설가 최종림 '100억 소송 제기' 소설과 다른 점은 여주인공 이름?  
날짜: 2015081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2427444  
본문: 암살 표절 논란, 소설가 최종림 '100억 소송 제기' 소설과 다른 점은 여주인공 이름? <br/>암살 표절 논란, 소설가 최종림 '100억 소송 제기' 소설과 다른 점은 여주인공 이름? <br/> <br/>암살 표절 논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최종림이 100억 대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12일 소설가 최종림이 영화 '암살'에 대한 표절 의혹에 대해 제기했다. <br/> <br/>최종림은 영화 '암살'이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최동훈 감독, 제작사 케이퍼필름 안수현 대표, 배급을 맡은 쇼박스 유정훈 대표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도 냈다. <br/> <br/>최종림은 한 매체를 통해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저격조를 만들어 엄선된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내는 구성이 내 소설 설정과 같다. 여주인공을 내세워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암살해 가는 내용도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 이름이 안옥윤(전지현)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br/> <br/>최종림은 "소설을 토대로 몇 해 전 시나리오를 만들어 영화 제작사를 찾아다녔는데 그때 유출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br/> <br/>이에 '암살' 케이퍼필름의 안수현 대표는 "김구 선생과 김원봉 선생이 암살 작전을 모의하고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낸다는 영화 줄거리는 역사적 사실이며 영화는 여기에 허구를 가미해 재구성했다"며 표절에 대해 부인했다. <br/> <br/>암살 표절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암살 표절 논란, 어떤 판결이 날까?", "암살 표절 논란, 충격이네", "암살 표절 논란, 누구 잘못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66.txt

제목: 91세 카터 전 美대통령, 암 발병 및 전이사실 공식발표  
날짜: 2015081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2324111  
본문: 39대 미국 대통령(1977년~1981년)을 지낸 지미 카터(91) 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암 발병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br/> <br/>이날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카터 센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받은 간 수술 후 내 몸에 암이 발병했고, 다른 장기에도 전이됐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에모리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br/> <br/>카터 전 대통령은 "추가 내용이 나오는 대로 다음 주께 더 완벽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br/> <br/>카터는 지난 3일 에모리대학 병원에서 간에 생긴 작은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곧 회복할 예정이었다. <br/> <br/>AP 통신은 암이 카터 전 대통령의 몸에 넓게 퍼진 것은 확실사지만 암이 어느 장기에서 발병했는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br/> <br/>퇴임후 평화운동에 헌신해 온 카터 전 대통령은 그 공로로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67.txt

제목: 암살 표절 논란, 최종림 소설 표절했나? 얼마나 비슷한가 봤더니...  
날짜: 2015081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2410483  
본문: 암살 표절 논란, 최종림 소설 표절했나? 얼마나 비슷한가 봤더니... <br/>암살 표절 논란, 최종림 소설 표절했나? 얼마나 비슷한가 봤더니... <br/> <br/>암살 표절 논란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12일 소설가 최종림이 영화 '암살'에 대한 표절 의혹에 대해 제기했다. <br/> <br/>최종림은 영화 '암살'이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최동훈 감독, 제작사 케이퍼필름 안수현 대표, 배급을 맡은 쇼박스 유정훈 대표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도 냈다. <br/> <br/>최종림은 한 매체를 통해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저격조를 만들어 엄선된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내는 구성이 내 소설 설정과 같다. 여주인공을 내세워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암살해 가는 내용도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 이름이 안옥윤(전지현)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br/> <br/>최종림은 "소설을 토대로 몇 해 전 시나리오를 만들어 영화 제작사를 찾아다녔는데 그때 유출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br/> <br/>이에 '암살' 케이퍼필름의 안수현 대표는 "김구 선생과 김원봉 선생이 암살 작전을 모의하고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낸다는 영화 줄거리는 역사적 사실이며 영화는 여기에 허구를 가미해 재구성했다"며 표절에 대해 부인했다. <br/> <br/>암살 표절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암살 표절 논란, 표절 아닌 것 같은데?", "암살 표절 논란, 말도 안돼", "암살 표절 논란, 우기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68.txt

제목: 암살 표절 논란, 최종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비교해 보니...  
날짜: 2015081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2322769  
본문: 암살 표절 논란, 최종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비교해 보니... <br/>암살 표절 논란, 최종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비교해 보니... <br/> <br/>암살 표절 논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설자 최종림의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12일 소설가 최종림이 영화'암살'에 대한 표절 의혹에 대해 제기했다. <br/> <br/>최종림은 영화 '암살'이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최동훈 감독, 제작사 케이퍼필름 안수현 대표, 배급을 맡은 쇼박스 유정훈 대표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도 냈다. <br/> <br/>최종림은 한 매체를 통해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저격조를 만들어 엄선된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내는 구성이 내 소설 설정과 같다. 여주인공을 내세워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암살해 가는 내용도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 이름이 안옥윤(전지현)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br/> <br/>최종림은 "소설을 토대로 몇 해 전 시나리오를 만들어 영화 제작사를 찾아다녔는데 그때 유출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br/> <br/>이에 '암살' 케이퍼필름의 안수현 대표는 "김구 선생과 김원봉 선생이 암살 작전을 모의하고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낸다는 영화 줄거리는 역사적 사실이며 영화는 여기에 허구를 가미해 재구성했다"며 표절에 대해 부인했다. <br/> <br/>암살 표절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암살 표절 논란, 이름만 바꾼거야?", "암살 표절 논란, 어떻게 된거야?", "암살 표절 논란, 아니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69.txt

제목: 암살 표절 논란, 소설가 최종림 주장 들어보니... '정말 표절?'  
날짜: 2015081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2340427  
본문: 암살 표절 논란, 소설가 최종림 주장 들어보니... '정말 표절?' <br/>암살 표절 논란, 소설가 최종림 주장 들어보니... '정말 표절?' <br/> <br/>암살 표절 논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최종림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가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12일 소설가 최종림이 영화 '암살'에 대한 표절 의혹에 대해 제기했다. <br/> <br/>최종림은 영화 '암살'이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최동훈 감독, 제작사 케이퍼필름 안수현 대표, 배급을 맡은 쇼박스 유정훈 대표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도 냈다. <br/> <br/>최종림은 한 매체를 통해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저격조를 만들어 엄선된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내는 구성이 내 소설 설정과 같다. 여주인공을 내세워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암살해 가는 내용도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 이름이 안옥윤(전지현)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br/> <br/>최종림은 "소설을 토대로 몇 해 전 시나리오를 만들어 영화 제작사를 찾아다녔는데 그때 유출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br/> <br/>이에 '암살' 케이퍼필름의 안수현 대표는 "김구 선생과 김원봉 선생이 암살 작전을 모의하고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낸다는 영화 줄거리는 역사적 사실이며 영화는 여기에 허구를 가미해 재구성했다"며 표절에 대해 부인했다. <br/> <br/>암살 표절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암살 표절 논란, 진실이 밝혀지길", "암살 표절 논란, 곧 천 만이던데", "암살 표절 논란, 왜 이런 일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70.txt

제목: 암살 표절 논란, 여주인공 이름만 바뀌었다? '암살' 측 입장 들어보니...  
날짜: 2015081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2350311  
본문: 암살 표절 논란, 여주인공 이름만 바뀌었다? '암살' 측 입장 들어보니... <br/>암살 표절 논란, 여주인공 이름만 바뀌었다? '암살' 측 입장 들어보니... <br/> <br/>암살 표절 논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암살' 측이 표절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br/> <br/>12일 소설가 최종림이 영화 '암살'에 대한 표절 의혹에 대해 제기했다. <br/> <br/>최종림은 영화 '암살'이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최동훈 감독, 제작사 케이퍼필름 안수현 대표, 배급을 맡은 쇼박스 유정훈 대표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도 냈다. <br/> <br/>최종림은 한 매체를 통해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저격조를 만들어 엄선된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내는 구성이 내 소설 설정과 같다. 여주인공을 내세워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암살해 가는 내용도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 이름이 안옥윤(전지현)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br/> <br/>최종림은 "소설을 토대로 몇 해 전 시나리오를 만들어 영화 제작사를 찾아다녔는데 그때 유출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br/> <br/>이에 '암살' 케이퍼필름의 안수현 대표는 "김구 선생과 김원봉 선생이 암살 작전을 모의하고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낸다는 영화 줄거리는 역사적 사실이며 영화는 여기에 허구를 가미해 재구성했다"며 표절에 대해 부인했다. <br/> <br/>암살 표절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암살 표절 논란, 암살 화이팅", "암살 표절 논란, 표절아니길", "암살 표절 논란, 이럴수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71.txt

제목: 91세 카터 전 美대통령, 암 발병 및 전이사실 공식발표  
날짜: 20150813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3100000355  
본문: 39대 미국 대통령(1977년~1981년)을 지낸 지미 카터(91) 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암 발병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날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카터 센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받은 간 수술 후 내 몸에 암이 발병했고, 다른 장기에도 전이됐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에모리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추가 내용이 나오는 대로 다음 주께 더 완벽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카터는 지난 3일 에모리대학 병원에서 간에 생긴 작은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곧 회복할 예정이었다.AP 통신은 암이 카터 전 대통령의 몸에 넓게 퍼진 것은 확실사지만 암이 어느 장기에서 발병했는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퇴임후 평화운동에 헌신해 온 카터 전 대통령은 그 공로로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72.txt

제목: 미국 쌍둥이의 情…불임 동생 위해 대리모 자청한 언니  
날짜: 2015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3100000151  
본문: 임신을 할 수 없는 동생을 위해 언니가 대리모를 자청해 조카를 낳은, 미국 일란성 쌍둥이의 우애가 소셜 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다.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좀처럼 보기 드문 혈육의 정을 뽐낸 돈 아돌리노(39)-앨리슨 아돌리노(39) 쌍둥이 자매의 사연을 12일(현지시간) 소개했다.한눈에 딱 봐도 쌍둥이임을 알 수 있는 자매는 각각의 가정을 꾸리고 뉴욕 주 롱 아일랜드의 미네올라에서 가까이에 살 정도로 친분이 깊다.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앨리슨은 임신 30주차에 접어든 2009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곧바로 항암 화학 치료에 들어갔다.뱃속의 아이는 응급 제왕 절개를 통해 31주 만에 세상의 빛을 봤다. 치료를 받고 앨리슨은 암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됐지만, 화학 요법에 따른 호르몬 이상으로 더는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했다.비록 조산이었으나 건강하게 성장한 아들 딜런과 아이 한 명을 더 낳아 완벽한 4인 가족을 이루려던 앨리슨의 꿈은 좌절 위기에 놓였다.그때 쌍둥이 피붙이인 돈이 해결사로 등장했다.딜런보다 한 살 많은 아들 제이크를 둔 돈은 앨리슨과 함께 임신 문제를 상의하러 종양학자를 찾아갔다가 역시나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동생을 위해 내가 대리모가 되겠다"며 그 자리에서 실의에 빠진 동생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다.인공수정을 거쳐 돈은 지난 5일 오후 몸무게 4㎏짜리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 이렇게 태어난 돈의 조카이자 앨리슨 아들의 이름은 허드슨이다.보통 일란성 쌍둥이는 생김새와 품성 등이 비슷하다고 하나 이 자매의 성격은 판이했다.돈은 이 소식을 최초로 보도한 패치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외향적인데 반해 앨리슨은 수줍어하는 편"이라면서 "내가 동생의 대변인 노릇도 하고 대화도 주도했다"고 말했다.앨리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넓은 마음과 희생정신으로 몇 달간의 고통을 참고 기꺼이 대리모를 자청한 언니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전하겠느냐"면서 "언니는 우리 가족이 지난 6년간 간직해 온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 것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했다"고 감격했다.앨리슨과 마찬가지로 돈도 제이크와 애슈턴 두 아들을 키우는 4인 가족의 엄마다. 쌍둥이 자매는 돈의 출산에 앞서 어릴 때부터 인연을 맺은 전문 사진작가 앨리슨 로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영원히 기억에 남을 사진을 남겼다.12일 오후 현재 약 7만7천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가 로즈가 올린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1만4천 명 이상이 이 글을 공유하면서 쌍둥이 자매의 남다른 우애를 축복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73.txt

제목: 조치훈 9단, 지난 7일 부인상(喪) 조용히 가족장 지낸 뒤에야 알려  
날짜: 2015081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1840118  
본문: 일본 바둑계를 제패한 조치훈(59) 9단이 부인상을 조용히 치른 뒤에야 소식을 알렸다. <br/> <br/>12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조치훈 9단의 부인 고(故) 교코 여사가 지난 7일 오후 10시 췌장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65세. <br/> <br/>교코 여사는 지바현 자택에서 암 투병하다 영면했으며 조치훈 9단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br/> <br/>조치훈 9단은 부인의 사망 소식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지난 10일 가까운 친척끼리 가족장을 치렀으며 부의금 등도 일절 받지 않았다. <br/> <br/>조 9단은 장례를 마친 다음 날인 11일 일본기원에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으며 한국기원은 일본기원을 통해 이 소식을 전달받았다. <br/> <br/>조치훈 9단은 지난달 26일 한국에서 조훈현 9단과 12년 만의 '세기의 맞대결' 펼친 바 있다. <br/> <br/>당시 조훈현 9단에게 시간 패한 조치훈 9단은 저녁 자리에서 부인이 투병 중인 사실을 간단히 언급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br/> <br/>조치훈 9단은 다음 달 2일 일본에서 '일본 내 라이벌' 고바야시 고이치(62) 9단과 명인전 40기 기념 대국에도 나설 예정이다. <br/> <br/>조치훈 9단은 1968년 11세 9개월의 나이로 일본기원에 입단해 기성, 명인, 본인방을 동시에 석권하는 '대삼관' 타이틀을 4번이나 획득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br/> <br/>조 9단이 지금까지 획득한 타이틀은 총 74개로 일본 통산 1위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74.txt

제목: 영화 '암살' 표절논란으로 법정행…100억 손배소 당해  
날짜: 20150812  
기자: 방현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1653309  
본문: 1천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다. <br/> <br/>12일 법원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64)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r/> <br/>또 '암살' 상영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심문은 13일 오후 열린다. <br/> <br/>최씨는 '암살'이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에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br/> <br/>반면에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암살 작전은 널리 알려진 항일투쟁 방식이며 소설 여주인공은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저격수와는 먼 캐릭터라 유사점이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br/> <br/>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씨가 2003년 낸 장편소설로 이달 4일 재출간됐다. <br/> <br/>암살은 지난달 22일 개봉해 이달 11일까지 932만9천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75.txt

제목: 조치훈 9단, 지난 7일 부인상(喪) 조용히 가족장 지낸 뒤에야 알려  
날짜: 2015081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210018217834  
본문: 일본 바둑계를 제패한 조치훈(59) 9단이 부인상을 조용히 치른 뒤에야 소식을 알렸다. <br/> <br/>12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조치훈 9단의 부인 고(故) 교코 여사가 지난 7일 오후 10시 췌장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65세. <br/> <br/>교코 여사는 지바현 자택에서 암 투병하다 영면했으며 조치훈 9단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br/> <br/>조치훈 9단은 부인의 사망 소식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지난 10일 가까운 친척끼리 가족장을 치렀으며 부의금 등도 일절 받지 않았다. <br/> <br/>조 9단은 장례를 마친 다음 날인 11일 일본기원에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으며 한국기원은 일본기원을 통해 이 소식을 전달받았다. <br/> <br/>조치훈 9단은 지난달 26일 한국에서 조훈현 9단과 12년 만의 '세기의 맞대결' 펼친 바 있다. <br/> <br/>당시 조훈현 9단에게 시간 패한 조치훈 9단은 저녁 자리에서 부인이 투병 중인 사실을 간단히 언급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br/> <br/>조치훈 9단은 다음 달 2일 일본에서 '일본 내 라이벌' 고바야시 고이치(62) 9단과 명인전 40기 기념 대국에도 나설 예정이다. <br/> <br/>조치훈 9단은 1968년 11세 9개월의 나이로 일본기원에 입단해 기성, 명인, 본인방을 동시에 석권하는 '대삼관' 타이틀을 4번이나 획득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br/> <br/>조 9단이 지금까지 획득한 타이틀은 총 74개로 일본 통산 1위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76.txt

제목: 영화 '암살' 표절논란으로 법정행…100억 손배소 당해  
날짜: 20150812  
기자: 방현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210018214555  
본문: 1천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다. <br/> <br/>12일 법원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64)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r/> <br/>또 '암살' 상영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심문은 13일 오후 열린다. <br/> <br/>최씨는 '암살'이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에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br/> <br/>반면에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암살 작전은 널리 알려진 항일투쟁 방식이며 소설 여주인공은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저격수와는 먼 캐릭터라 유사점이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br/> <br/>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씨가 2003년 낸 장편소설로 이달 4일 재출간됐다. <br/> <br/>암살은 지난달 22일 개봉해 이달 11일까지 932만9천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77.txt

제목: 노홍철 MBC 복귀, 과거 암 병동에 입원한 노홍철 '대체 무슨 일?'  
날짜: 2015081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1117604  
본문: 노홍철 MBC 복귀, 과거 암 병동에 입원한 노홍철 '대체 무슨 일?' <br/>노홍철 MBC 복귀, 과거 암 병동에 입원한 노홍철 '대체 무슨 일?' <br/> <br/>노홍철 MBC 복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노홍철의 과거 발언이 새삼 화제다. <br/> <br/>노홍철은 과거 '나혼자 산다'에 출연해 "최근 항문질환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내게 암 2기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br/> <br/>이어 노홍철은 "'담낭에 용종이 있었는데 그 사이즈가 너무 크다. 항문 수술보다 중요하다'고 하고 말하더라. 그렇게 난 암 병동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br/> <br/>이어 "수술 해보니까 결과는 암세포가 아니라 콜레스테롤 덩어리였다. 음식 조절을 권유받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br/> <br/>한편 노홍철은 MBC 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다. <br/> <br/>노홍철 MBC 복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노홍철 MBC 복귀, 화이팅", "노홍철 MBC 복귀, 단 것 너무 좋아해", "노홍철 MBC 복귀, 방송은 언제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78.txt

제목: 비만의 역설, 과체중이 치명적인 뇌경색 발생을 줄이고 예후로 빨라  
날짜: 20150811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1102633  
본문: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 <br/> <br/> <br/>뇌경색 환자 중 비만 환자는 정상 체중의 환자에 비해 중증 뇌경색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이승훈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예림 전임의(부천성모병원 신경과) 연구팀은 이 결과를 세계적 권위의 영국의학저널 그룹(British Medical Journal Group)이 출판하는 국제 학술지 '신경학, 신경외과학, 정신의학 저널(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 Psychiatry)'(Impact Factor = 6.807) 최신호에 게재했다. <br/> <br/> 연구팀은 02년 10월부터 13년 5월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급성 뇌경색 환자 2,670명을 비만도(body mass index, BMI)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눈 후, 입원 시 초기 뇌경색 강도(NIHSS 점수)를 분석했다. NIHSS는 뇌경색 환자의 의식, 신경학적 기능, 운동, 후유증 등을 평가하는 척도로, 연구진은 0~7점은 경증, 8점 이상은 중증 뇌경색으로 판단하여 분석하였다. <br/> <br/> 그 결과, 비만도가 21.2kg/m2 이하 그룹의 중증 뇌경색 발생률이 100%라고 했을 때, 21.2~23.0 kg/m2 그룹은 65%, 23.1~24.5 kg/m2 그룹은 48%, 24.6~26.2 kg/m2 그룹은 39%, 26.3 kg/m2 이상 그룹은 31%로 나타났다. <br/> <br/> 즉 비만도가 높을수록 중증 뇌경색 발생률은 낮았다. 이는 환자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쳐, 비만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치료 3개월째 예후가 좋았다. <br/> <br/> 그러나 이는 단순히 비만도가 높아서 라기보다는 비만도가 높을수록 중증 뇌경색 발생률이 낮아서 예후가 좋다고 연구팀은 주장한다. <br/> <br/> 최근 ‘비만의 역설 (obesity paradox)’ 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면서,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비만 환자가 정상 체중의 환자보다 오래 산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제기되고 있다. 비만 환자가 정상 체중의 환자보다 뇌졸중 발생 후 생존기간이 더 길다는 ‘비만의 역설’도 보고되고 있다.  <br/> <br/>기존의 의학적 상식과 ‘비만의 역설’은 아직도 다양한 질환에서 보고되며 검증 과정에 있지만, 발생기전은 뚜렷하지 않다. 단순히 뚱뚱할수록 오래 산다고 치부하기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맹점이나 숨겨진 의학적 현상이 있을 수 있다. <br/> <br/> 이 연구는 비만이 직접적으로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뇌졸중의 중증도에 영향을 미쳐, 생존율이 결정됨을 주장하는 첫 연구 결과다. <br/> <br/> 이승훈 교수(교신저자)는 “<span class='quot0'>대혈관의 동맥경화나 심장질환에 의한 색전일 경우 뇌경색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으나 비만 환자들은 경미하게 발생하는 소혈관 폐색에 의한 뇌경색이 많다</span>” 라며 “<span class='quot0'>이는 지방세포 (adipocyte)와 염증성 사이토카인 (inflammatory cytokines)과의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과 비만한 환자가 더 적극적으로 뇌혈관 위험인자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다</span>” 고 말했다.  <br/> <br/>뇌졸중은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나뉘는데, 뇌경색은 허혈성 뇌졸중을 일컫는다. <br/> <br/> 뇌졸중으로 입원한 국내 환자를 분석한 결과, 00년 전체 뇌졸중 중 허혈성 뇌졸중이 64.7%, 출혈성 뇌졸중 35.3%인 반면, 09년에는 각각 76.1%, 23.9%로 나타나, 허혈성 뇌졸중의 비율이 늘고 있다.(출처: 심평원 자료). 뇌졸중 관련 사망률은 줄고 있지만,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는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이며, 단일 장기 질환으로는 사망 원인 1위다 <br/>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79.txt

제목: 노홍철 MBC 복귀, 과거 암 병동에 입원한 노홍철 '대체 무슨 일?'  
날짜: 2015081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110018202441  
본문: 노홍철 MBC 복귀, 과거 암 병동에 입원한 노홍철 '대체 무슨 일?' <br/>노홍철 MBC 복귀, 과거 암 병동에 입원한 노홍철 '대체 무슨 일?' <br/> <br/>노홍철 MBC 복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노홍철의 과거 발언이 새삼 화제다. <br/> <br/>노홍철은 과거 '나혼자 산다'에 출연해 "최근 항문질환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내게 암 2기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br/> <br/>이어 노홍철은 "'담낭에 용종이 있었는데 그 사이즈가 너무 크다. 항문 수술보다 중요하다'고 하고 말하더라. 그렇게 난 암 병동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br/> <br/>이어 "수술 해보니까 결과는 암세포가 아니라 콜레스테롤 덩어리였다. 음식 조절을 권유받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br/> <br/>한편 노홍철은 MBC 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다. <br/> <br/>노홍철 MBC 복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노홍철 MBC 복귀, 화이팅", "노홍철 MBC 복귀, 단 것 너무 좋아해", "노홍철 MBC 복귀, 방송은 언제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80.txt

제목: 암살 900만 돌파, 전지현 효과 톡톡히 봤나? ‘천만 앞두고 무서운 흥행 중’  
날짜: 2015081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110018199076  
본문: 암살 900만 돌파, 전지현 효과 톡톡히 봤나? ‘천만 앞두고 무서운 흥행 중’ <br/>암살 900만 돌파, 전지현 효과 톡톡히 봤나? ‘천만 앞두고 무서운 흥행 중’ 암살 900만 돌파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오전을 기준으로 900만 관객을 돌파(영진위 통합전산망 배급사 집계기준)해 화제를 모았다. 앞서 전지현의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암살'은 개봉 3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를 시작으로 매일 1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모았으며 개봉 17일 만에 8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기록을 세웠다. 특히 이 기세로 흥행이 계속된다면 조만간 올해 첫 천만 영화가 될 수도 있다고 예측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한편 암살 900만 돌파 소식에 누리꾼들은 “<span class='quot0'>암살 900만 돌파, 대박났네</span>” “<span class='quot0'>암살 900만 돌파, 전지현 효과 맞는 듯</span>” “<span class='quot0'>암살 900만 돌파, 나도 보고 왔던 암살</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81.txt

제목: 비만의 역설, 과체중이 치명적인 뇌경색 발생을 줄이고 예후로 빨라  
날짜: 20150811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110018202136  
본문: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 <br/> <br/> <br/>뇌경색 환자 중 비만 환자는 정상 체중의 환자에 비해 중증 뇌경색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승훈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예림 전임의(부천성모병원 신경과) 연구팀은 이 결과를 세계적 권위의 영국의학저널 그룹(British Medical Journal Group)이 출판하는 국제 학술지 '신경학, 신경외과학, 정신의학 저널(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 Psychiatry)'(Impact Factor = 6.807) 최신호에 게재했다. <br/> <br/>연구팀은 02년 10월부터 13년 5월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급성 뇌경색 환자 2,670명을 비만도(body mass index, BMI)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눈 후, 입원 시 초기 뇌경색 강도(NIHSS 점수)를 분석했다. NIHSS는 뇌경색 환자의 의식, 신경학적 기능, 운동, 후유증 등을 평가하는 척도로, 연구진은 0~7점은 경증, 8점 이상은 중증 뇌경색으로 판단하여 분석하였다. <br/> <br/>그 결과, 비만도가 21.2kg/m2 이하 그룹의 중증 뇌경색 발생률이 100%라고 했을 때, 21.2~23.0 kg/m2 그룹은 65%, 23.1~24.5 kg/m2 그룹은 48%, 24.6~26.2 kg/m2 그룹은 39%, 26.3 kg/m2 이상 그룹은 31%로 나타났다. <br/> <br/>즉 비만도가 높을수록 중증 뇌경색 발생률은 낮았다. 이는 환자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쳐, 비만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치료 3개월째 예후가 좋았다. <br/> <br/>그러나 이는 단순히 비만도가 높아서 라기보다는 비만도가 높을수록 중증 뇌경색 발생률이 낮아서 예후가 좋다고 연구팀은 주장한다. <br/> <br/>최근 ‘비만의 역설 (obesity paradox)’ 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면서,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비만 환자가 정상 체중의 환자보다 오래 산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제기되고 있다. 비만 환자가 정상 체중의 환자보다 뇌졸중 발생 후 생존기간이 더 길다는 ‘비만의 역설’도 보고되고 있다.  <br/> <br/>기존의 의학적 상식과 ‘비만의 역설’은 아직도 다양한 질환에서 보고되며 검증 과정에 있지만, 발생기전은 뚜렷하지 않다. 단순히 뚱뚱할수록 오래 산다고 치부하기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맹점이나 숨겨진 의학적 현상이 있을 수 있다. <br/> <br/>이 연구는 비만이 직접적으로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뇌졸중의 중증도에 영향을 미쳐, 생존율이 결정됨을 주장하는 첫 연구 결과다. <br/> <br/>이승훈 교수(교신저자)는 “<span class='quot0'>대혈관의 동맥경화나 심장질환에 의한 색전일 경우 뇌경색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으나 비만 환자들은 경미하게 발생하는 소혈관 폐색에 의한 뇌경색이 많다</span>” 라며 “<span class='quot0'>이는 지방세포 (adipocyte)와 염증성 사이토카인 (inflammatory cytokines)과의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과 비만한 환자가 더 적극적으로 뇌혈관 위험인자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다</span>” 고 말했다.  <br/> <br/>뇌졸중은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나뉘는데, 뇌경색은 허혈성 뇌졸중을 일컫는다. <br/> <br/>뇌졸중으로 입원한 국내 환자를 분석한 결과, 00년 전체 뇌졸중 중 허혈성 뇌졸중이 64.7%, 출혈성 뇌졸중 35.3%인 반면, 09년에는 각각 76.1%, 23.9%로 나타나, 허혈성 뇌졸중의 비율이 늘고 있다.(출처: 심평원 자료). 뇌졸중 관련 사망률은 줄고 있지만,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는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이며, 단일 장기 질환으로는 사망 원인 1위다 <br/>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82.txt

제목: 생활 습관 속 대장 건강 지키는 7가지 노하우  
날짜: 20150810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0714448  
본문:   <br/> <br/> 회식, 음주, 흡연,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에 노출된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대장암에 노출돼있다. 대장암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발병될 수도 있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하게 지킬 수도 있다. 대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에 대해 알아보자. <br/> <br/>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잔을 챙겨라 <br/>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변에 섞인 독성물질이 장기간 대장을 자극하고, 대장암 위험이 높아진다. 배변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식사 직후다.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결장에 쌓여 있던 대변 재료가 직장으로 이동하면서 그 자극이 대뇌피질로 전달되어 배변욕구가 일어난다. 이것을 ‘위대장반사운동’이라고 하는데, 아침식사 후가 가장 강하다. 배변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데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물 한잔을 마시는 것도 좋다. <br/> <br/> ◆불규칙한 식습관을 바꿔라 <br/>아침?점심식사는 부실하게 하면서 저녁식사?야식은 거하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은 대장 건강에 최악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박재현 과장은 “아침과 점심은 부실하게 먹고 저녁은 보상심리 때문에 거하게 먹는 사람은 섭취 칼로리가 늘어난다. 이러한 식습관은 장 안에 부패물질을 한꺼번에 많이 발생시켜 장염이나 궤양 등 대장 관련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아침을 부실하게 먹었다고 해서 이후 식사 때 과식이나 폭식을 해서는 안 되며, 식사 직후 칼로리가 높은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고 조언했다. <br/> <br/> ◆반찬은 채소, 후식은 과일을 먹어라 <br/>하루 2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먹자. 야구공 크기의 과일 2개, 채소 2접시, 나물 한 접시 분량이 각각 200g 정도 된다. 과채류의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물질이 풍부해 발암물질을 막아준다. 색마다 비타민C?베타카로틴?안토시아닌?엽산 등 암 억제 물질이 다르므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으면 좋다.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대장암과 대장용종 위험이 40~60%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다. <br/> <br/> ◆식후에는 야외에서 움직여라 <br/>스트레스는 그 자체가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 더욱이 한국 남성은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풀기 때문에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직장인이라면 점심식사 뒤에 회사건물 밖으로 나가 최소 20분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자. 스트레스 해소 효과와 함께, 햇볕을 받으면 몸 안에서 저절로 생성되는 비타민D로 인해 대장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 <br/> <br/> ◆회식 메뉴를 닭고기와 생선으로 대체하자 <br/>적색육(붉은 고기)은 소화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소화합물을 생성한다. 적색육에 함유된 철은 소화되면서 역시 발암물질인 철이온으로 바뀐다. 이것만 보더라도 소주와 삼겹살을 배부르게 먹는 회식 문화가 한국을 대장암 최고 위험 국가로 만들었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1주일에 한 번 이상 적색육을 먹으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30~40% 올라간다. 회식메뉴에 닭고기 등 백색육이나 생선을 포함시키는 것이 나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br/> <br/> ◆2차로 이어진 회식자리에선 술안주로 멸치?노가리가 좋다 <br/>부득이 2차를 가야한다면 순한 술을 고르고, 안주는 멸치?노가리 등 뼈째 먹는 생선을 주문하자. 칼슘이 대장암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소주, 양주 등 독주에 소시지 등 적색육 가공식품을 곁들이는 건 최악의 조합이다. <br/> <br/> ◆퇴근 후엔 땀 날 정도로 운동하자 <br/>귀가하면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자. 집 주변을 뛰는 조깅이나 산책, 줄넘기 등이 좋다. 운동은 장의 움직임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해서 대장암을 예방한다. 미국 연구 결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대장암 위험이 3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83.txt

제목: 미루던 건강검진, 여름 휴가철이 적기인 이유 ?  
날짜: 20150810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0704677  
본문:   <br/> <br/> 여름 휴가철이 한창이다. 극성수기는 지났지만 8월 말까지 휴가 일정은 계속 이어질 전망. 국내외 여행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나 잠을 자거나 병원을 찾는 등 휴가 기간 동안 그간 미뤄왔던 일들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br/> <br/> 회사원 김모씨(34세)는 휴가 마지막 날 병원을 찾았다. 평소 속 쓰림이 잦고 조금만 맵거나 짠 음식을 먹으면 복통이 심해 잠 못 이룬 적도 많았기 때문이다. 연초 회사 건강검진 결과는 아무 문제 없었으나 이후 지속되는 통증에 불안했던 것. 평소 병원 갈 시간이 없어 내원을 미뤄왔다는 김 씨는 아직 검사 결과는 받지 못했지만 휴가 기간에 건강 검진을 받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했다. <br/> <br/>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놓치지 마세요 <br/> <br/>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질환별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br/> <br/>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 민병원 건강검진센터 복진현원장은 “<span class='quot0'>몸에 이상 징후가 있어도 검사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바쁜 일정으로 병원을 찾지 않고 비루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과도한 검사도 문제지만 증상이 있어도 내원을 미루는 것은 적기 치료를 놓치게 되는 더 큰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0'>통증이나 신체 내 변화가 있다면 전문의의 검사 및 진단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다.</span>”라고 조언했다. <br/> <br/> 일반적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지나치게 피로감이 심하다면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소화기 계통은 잦은 증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운데 단순 염증이 만성 질환이나 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에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 변비 등의 증상이 장기간 계속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br/> <br/> ◆생활 습관 및 가족력에 따라 정기검사 잘 챙겨야 <br/> <br/> 아플 때 바로 병원을 가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기 건강검진이다. 국가에서는 연령에 따라 무료 암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무직은 2년에 한번, 현장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br/> <br/> 나이와 상관없이 정기 건강검진은 필요한데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이나 과음 등이 잦다면 정기검사는 더욱 중요해진다. <br/> <br/> 특히 20~30대 젊은층은 건강에 자신하기에 정기 건강검진에 소홀하기 쉽다. 20대부터 혈액검사나 흉부 엑스레이 등 기본 검사를 챙기고 가족 중 특정 암 환자가 있다면 필요에 따라 유방초음파나 간염 검사 등 추가검진도 받는 것이 좋다. <br/> <br/> 복진현 원장은 “<span class='quot0'>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가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연령대가 평소 정기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에 힘써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건강검진을 받는 시기는 개인마다 다르나 주로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름이나 가을철에 미리 받으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span>”라고 덧붙였다. <br/>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84.txt

제목: [칼럼] 자외선차단제 얼마나 알고 있니?  
날짜: 20150810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0631196  
본문:   <br/> <br/> 여름철 필수품 ‘자외선 차단제’. 우리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자외선 차단제는 얼마나, 어떻게, 왜 발라야 하는지 등 신사역 부근 피부과에서는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문의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br/>  <br/>▲자외선차단제, 왜 발라야 하나? <br/> <br/>자외선은 UVA과 UVB로 나눠볼 수 있는데 UVA는 자외선의 90~95%를 차지하는 것으로 피부에 깊게 침투하여 기미, 주근깨를 악화시키고 피부 노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UVB는 피부에서 비타민D를 합성하는데 기여해 골격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과다한 UVB는 피부에 일광화상이나 피부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을 유발하는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r/> <br/> ▲자외선차단제 지수 그 의미는? <br/> <br/>자외선 차단제에 표기되어 있는 지수는 크게 두 가지이다. SPF와 PA로이다. SPF는 UVB를 차단하는 효능을 표기하는 단위로써 바닷가나 야외에서 일광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을 때 중요한 지수로 사용된다. 그에 반해 PA는 UVA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로 무조건 높을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피부트러블을 유발 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일상 생활 속에서는 SPF30/PA++ 면 적당하고 직사광선을 받는 여름 휴가철에는 SPF50/PA+++ 정도로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br/> <br/> ▲어느 정도 양을 발라야 하나? <br/> <br/>권장되는 자외선차단제 양은 1회 0.8g으로 500원짜리 동전 크기에 해당하는 정도(차단제를 짰을 때 집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보다 훨씬 적은 양을 사용하고 있는데 충분한 양을 발라야지만 적절한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권장량만큼 발라야 하며 햇빛이 뜨거운 한 낮에는 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함께 사용하여 기미가 잘 생기는 광대 주변이나 잔주름이 잘 생기는 눈가 주변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 <br/> <br/> ▲자외선차단제, 무조건 SPF지수가 높으면 좋은건가? <br/> <br/>외국에서는 SPF 100 혹은 그 이상도 출시가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식약처 기준 자외선 차단 지수 SPF 50 으로 한정되어 있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50이상이 되면 차단 가능 시간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SPF는 말 그대로 Sun Protector Factor로써 UVB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시간 즉, SPF 지수가 높을수록 더 오랜 시간 동안 자외선 차단을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한 번 바른 SPF 100 자외선 차단제가 2~3시간 마다 덧바른 SPF 30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자외선 차단제는 그 지수 자체 말고도 바르는 양이라던가 덧바르는 시간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충분한 SPF30으로 자주 발라서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br/> <br/> ▲SPF지수가 다른 두가지 종류의 자외선차단제를 함께 바르면 레이어가 되나요? <br/> <br/>레이어 되지 않는다. SPF는 UVB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지수로써 SPF 1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햇볕에 노출되었을 때 홍반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으로 약 10~15분, SPF30인 경우 30x15=450분, SPF 50인 경우 50x15=750분 동안 UVB 차단이 가능하단 의미이다. 따라서 SPF 지수가 15인 것과 30인 것은 차단 가능한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함께 사용한다고 해서 시간이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다. <br/> <br/> ▲자외선 차단제, 하루 종일 바르고 있어도 괜찮은가?  <br/> <br/>하루 종일 바르고 있어도 상관은 없다. 실내 형광등 불빛에서도 자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지수가 낮은 제품을 사용해서 자극 없이 사용 가능하다. 만약 피부에 자극 증상이 있거나 트러블이 유발된다면 오일프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자신이 쓰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에 자극성이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전 성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외선 차단제에는 여러 가지 화학성분이 첨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저자극성 차단제라 할 지라도 피부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잘 때는 꼭 클렌징을 하고 자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긴 파장을 가진 UVA 자외선이 새벽녘이나 아침에 창문과 커튼을 통과하여 피부로 침투될 수 있으므로 창문과 떨어진 곳에 침대를 배치하는 법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br/> <br/> ▲자외선차단제 올바른 사용법은? <br/> <br/>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30분에서 한 시간 전에 미리 발라야 효과가 있으며 한 번에 두텁게 많은 양을 바르는 것보다 두 세 번에 걸쳐 나눠 발라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보통 두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가장 뛰어나며 이를 지키지 힘들 시에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12시~2시 직전에라도 한 번 더 발라주도록 한다. 자외선 차단제만 발랐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폼 클렌징을 사용하여 세안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메이크업까지 했을 경우에는 클렌징 로션으로 부드럽게 지운 후 클렌징 폼으로 거품을 내어 꼼꼼히 이중 세안 하는 것을 권장한다. <br/> <br/>아이템피부과 김윤정 원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85.txt

제목: 미루던 건강검진, 여름 휴가철이 적기인 이유 ?  
날짜: 20150810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010018193072  
본문:   <br/> <br/>여름 휴가철이 한창이다. 극성수기는 지났지만 8월 말까지 휴가 일정은 계속 이어질 전망. 국내외 여행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나 잠을 자거나 병원을 찾는 등 휴가 기간 동안 그간 미뤄왔던 일들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br/> <br/>회사원 김모씨(34세)는 휴가 마지막 날 병원을 찾았다. 평소 속 쓰림이 잦고 조금만 맵거나 짠 음식을 먹으면 복통이 심해 잠 못 이룬 적도 많았기 때문이다. 연초 회사 건강검진 결과는 아무 문제 없었으나 이후 지속되는 통증에 불안했던 것. 평소 병원 갈 시간이 없어 내원을 미뤄왔다는 김 씨는 아직 검사 결과는 받지 못했지만 휴가 기간에 건강 검진을 받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했다. <br/> <br/>◆내 몸이 보내는 신호 놓치지 마세요 <br/> <br/>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질환별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br/> <br/>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 민병원 건강검진센터 복진현원장은 “<span class='quot0'>몸에 이상 징후가 있어도 검사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바쁜 일정으로 병원을 찾지 않고 비루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과도한 검사도 문제지만 증상이 있어도 내원을 미루는 것은 적기 치료를 놓치게 되는 더 큰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0'>통증이나 신체 내 변화가 있다면 전문의의 검사 및 진단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다.</span>”라고 조언했다. <br/> <br/>일반적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지나치게 피로감이 심하다면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소화기 계통은 잦은 증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운데 단순 염증이 만성 질환이나 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에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 변비 등의 증상이 장기간 계속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br/> <br/>◆생활 습관 및 가족력에 따라 정기검사 잘 챙겨야 <br/> <br/>아플 때 바로 병원을 가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기 건강검진이다. 국가에서는 연령에 따라 무료 암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무직은 2년에 한번, 현장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br/> <br/>나이와 상관없이 정기 건강검진은 필요한데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이나 과음 등이 잦다면 정기검사는 더욱 중요해진다. <br/> <br/>특히 20~30대 젊은층은 건강에 자신하기에 정기 건강검진에 소홀하기 쉽다. 20대부터 혈액검사나 흉부 엑스레이 등 기본 검사를 챙기고 가족 중 특정 암 환자가 있다면 필요에 따라 유방초음파나 간염 검사 등 추가검진도 받는 것이 좋다. <br/> <br/>복진현 원장은 “<span class='quot0'>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가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연령대가 평소 정기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에 힘써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건강검진을 받는 시기는 개인마다 다르나 주로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름이나 가을철에 미리 받으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span>”라고 덧붙였다. <br/>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86.txt

제목: 생활 습관 속 대장 건강 지키는 7가지 노하우  
날짜: 20150810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010018193521  
본문:   <br/> <br/>회식, 음주, 흡연,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에 노출된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대장암에 노출돼있다. 대장암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발병될 수도 있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하게 지킬 수도 있다. 대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에 대해 알아보자. <br/> <br/>◆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잔을 챙겨라 <br/>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변에 섞인 독성물질이 장기간 대장을 자극하고, 대장암 위험이 높아진다. 배변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식사 직후다.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결장에 쌓여 있던 대변 재료가 직장으로 이동하면서 그 자극이 대뇌피질로 전달되어 배변욕구가 일어난다. 이것을 ‘위대장반사운동’이라고 하는데, 아침식사 후가 가장 강하다. 배변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데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물 한잔을 마시는 것도 좋다. <br/> <br/>◆불규칙한 식습관을 바꿔라 <br/>아침?점심식사는 부실하게 하면서 저녁식사?야식은 거하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은 대장 건강에 최악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박재현 과장은 “아침과 점심은 부실하게 먹고 저녁은 보상심리 때문에 거하게 먹는 사람은 섭취 칼로리가 늘어난다. 이러한 식습관은 장 안에 부패물질을 한꺼번에 많이 발생시켜 장염이나 궤양 등 대장 관련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아침을 부실하게 먹었다고 해서 이후 식사 때 과식이나 폭식을 해서는 안 되며, 식사 직후 칼로리가 높은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고 조언했다. <br/> <br/>◆반찬은 채소, 후식은 과일을 먹어라 <br/>하루 2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먹자. 야구공 크기의 과일 2개, 채소 2접시, 나물 한 접시 분량이 각각 200g 정도 된다. 과채류의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물질이 풍부해 발암물질을 막아준다. 색마다 비타민C?베타카로틴?안토시아닌?엽산 등 암 억제 물질이 다르므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으면 좋다.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대장암과 대장용종 위험이 40~60%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다. <br/> <br/>◆식후에는 야외에서 움직여라 <br/>스트레스는 그 자체가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 더욱이 한국 남성은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풀기 때문에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직장인이라면 점심식사 뒤에 회사건물 밖으로 나가 최소 20분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자. 스트레스 해소 효과와 함께, 햇볕을 받으면 몸 안에서 저절로 생성되는 비타민D로 인해 대장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 <br/> <br/>◆회식 메뉴를 닭고기와 생선으로 대체하자 <br/>적색육(붉은 고기)은 소화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소화합물을 생성한다. 적색육에 함유된 철은 소화되면서 역시 발암물질인 철이온으로 바뀐다. 이것만 보더라도 소주와 삼겹살을 배부르게 먹는 회식 문화가 한국을 대장암 최고 위험 국가로 만들었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1주일에 한 번 이상 적색육을 먹으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30~40% 올라간다. 회식메뉴에 닭고기 등 백색육이나 생선을 포함시키는 것이 나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br/> <br/>◆2차로 이어진 회식자리에선 술안주로 멸치?노가리가 좋다 <br/>부득이 2차를 가야한다면 순한 술을 고르고, 안주는 멸치?노가리 등 뼈째 먹는 생선을 주문하자. 칼슘이 대장암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소주, 양주 등 독주에 소시지 등 적색육 가공식품을 곁들이는 건 최악의 조합이다. <br/> <br/>◆퇴근 후엔 땀 날 정도로 운동하자 <br/>귀가하면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자. 집 주변을 뛰는 조깅이나 산책, 줄넘기 등이 좋다. 운동은 장의 움직임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해서 대장암을 예방한다. 미국 연구 결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대장암 위험이 3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87.txt

제목: 암살 900만 돌파, 올해 첫 천만 영화될까? ‘최단기간 기록도 경신’  
날짜: 2015081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010018197418  
본문: 암살 900만 돌파, 올해 첫 천만 영화될까? ‘최단기간 기록도 경신’ <br/>암살 900만 돌파, 올해 첫 천만 영화될까? ‘최단기간 기록도 경신’  암살 900만 돌파 소식이 전해져 놀라움을 안겼다. 10일 오전 기준으로 영화 ‘암살이’ 900만 관객을 돌파(영진위 통합전산망 배급사 집계기준)했다. 영화 ‘암살’은 개봉 전부터 2015년 한국영화 최고 예매율 기록을 세웠으며 올해 한국영화 최단기간 기록도 단숨에 엎는 등 압도적인 흥행을 기록하고 있어 올해 첫 천만 영화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영화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이야기로 배우 이정재, 전지현, 하정우 등이 출연했다. 암살 900만 돌파 소식에 누리꾼들은 “<span class='quot0'>암살 900만 돌파, 완전 대박</span>” “<span class='quot0'>암살 900만 돌파, 멋지다</span>” “<span class='quot0'>암살 900만 돌파, 전지현 효과</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88.txt

제목: 가슴성형 수술 한 여성이 사망률 3배 이상 높은 이유?  
날짜: 20150807  
기자: realwide1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7144105018  
본문: 가슴성형을 받은 여성이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과 알코올 및 마약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거의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새로운 연구 결과 밝혀졌다. <br/> <br/>지난 6일 영국 데일리메일 매체에 따르면 이번 연구결과는 이전에 유방확대수술을 한 여성이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구체적 증거로 수술을 받기 전 이미 신체에 대해 심한 열등감을 느끼는 등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여성들이 수술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br/> <br/>이러한 결과는 연구원들이 1965년부터 1993년까지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3천 527명의 스웨덴 여성들을 조사해 그들의 사망원인을 조회한 끝에 얻어졌다. 유방 확대 수술을 받은 3천 527명 중 평균 19년 이후 24명의 여성들이 자살했는데 이러한 수치는 일반 사람들의 자살 수치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br/>  <br/>유방 확대 수술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자살률 증가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번 연구를 수행한 밴덜빌트 대학 의과 센터의 로렌 리프워드 박사는 “<span class='quot0'>유방확대 성형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자신의 환자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해 자살을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에 리프워드 박사는 “<span class='quot0'>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여성이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후 신체에 대해 계속된 열등감과 불만족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 같다</span>”고 언급했다. <br/> <br/>그녀는 외신과의 대화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여성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심한지 정확히 파악을 못해 우리는 유방확대 성형수술 환자의 자살률 증가의 심각성조차 알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br/> <br/>또한,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알코올 및 마약으로 사망하는 비율도 3배 이상인 것도 주목 받았다. <br/> <br/>그러나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받은 여성이 유방암을 포함해 암으로 사망한 비율은 거의 일반여성과 비슷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슴성형수술은 받은 여성이 암으로 사망하는 이유는 흡연으로 인한 폐암 또는 폐기종과 같은 폐질환이 주된 원인이었다 <br/> <br/>작년 캐나다 과학자가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여성들이 암을 포함해 다른 질환의 발병률이 낮은데도 자살률이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br/> <br/>이번 연구 결과는 성형수술 연간저널(Journal Annals of Plastic Surgery)에 게재되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89.txt

제목: [김승동의 보험 X-ray]9월 인상… 손보 실손보험료 살펴보니  
날짜: 20150807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5626752  
본문: 오는 9월 1일부터 일명 민영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상향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상품을 주력해 판매한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또 한번 절판마케팅이 예상된다. <br/> <br/>2003년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치료비를 대비하기 위해 나온 실손보험은 현재 3500만명 가량이 가입, 제2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보험사는 높은 손해율로,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남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br/> <br/>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실손보험이 개정, 비급여항목의 자기부담금을 20%로 높아진다는 이슈에 따라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절판마케팅이 이슈다. 실손보험이 개정되면 보험료는 소폭 인하될 수 있지만 의료비 부담은 대폭 높아질 수 있게 된다. <br/> <br/> 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고령일수록 발병확률이 높은 성인병 합병증은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몇 만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이라도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span>”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모든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비중의 약 70%가 손해보험사에 치중되어 있다”며 “9월 개정 전 절판마케팅도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br/>세계파이낸스가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손해보험사들의 단독형 실손보험을 20세, 30세, 40세, 50세 등 10살 단위로 비교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자기부담금 10%형을 선택하고 있고, 상해입원·상해통원·질병입원·질병통원 등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담보를 넣었다. <br/> <br/> 보험료 비교 결과 20대는 한화손보, 30대는 동부화재, 40대와 50대는 롯데손보가 가장 저렴했다. <br/> <br/>다만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보험은 단독형이 아닌 경우가 많다. 단독형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너무 낮아 보험설계사의 판매 유인이 거의 없다. 암보험, 건강보험, 간병보험, 자녀보험, 통합보험 등 다른 담보 보장을 넣은 종합형 실손보험을 판매한다. <br/> <br/>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특약 형태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단독형 실손보험 단 하나만 살펴보고 실손보험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span>”고 조언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대형사보다는 소형사가 동일한 보장을 받을 때 보험료가 저렴하다”며 “다른 상품과 비교해 실효성을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90.txt

제목: 희생·헌신 속에 발전해온 의학의 역사 한눈에  
날짜: 20150807  
기자: 김신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5749089  
본문: 우리누리 지음/윤유리 그림/길벗스쿨/1만1000원그래서 이런 의학이 생겼대요/우리누리 지음/윤유리 그림/길벗스쿨/1만1000원 <br/> <br/>사람들은 대부분 태어나는 순간 의사를 만난다.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 예방 접종이나 건강 검진 등 평생에 걸쳐 의사와 마주한다. ‘그래서 생겼대요’ 시리즈가 이번에는 ‘의학’을 다룬다. 의학이 어떤 과정을 밟으며 발전해 왔는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이 따랐는지, 네 칸 만화와 재미난 이야기로 의학 상식을 키워준다. 옛날 사람들은 질병이란 신이 노해서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면 신에게 기도를 했다. <br/> <br/>그러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등장하면서 사람의 힘으로도 질병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약물 요법을 도입한 페라켈수스, 외과 수술을 처음으로 성공시킨 맥도웰, 손 씻기로 산모의 사망률을 크게 낮춘 제멜바이스, 유전의 법칙을 발견한 멘델, 간호사의 대모 나이팅게일 등 수많은 의료인이 나타나 의학의 역사를 이끌었다. 시대순에 따라 의학이 발전해 온 과정을 읽다 보면 과학과 세계사의 흐름까지 익힐 수 있다. <br/> <br/>책은 서양의 의학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아랍의 의학까지 두루 다룬다. 페루의 의학도였던 카리온은 ‘페루사마귀 병’의 치료법을 밝히기 위해 자기 몸에 실험을 했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베살리우스는 불법이지만 시체를 훔쳐 해부학을 연구해 외과 의학을 크게 발전시켰다. 체온의 기능에 대해을 알아보려고 펄펄 끓는 방안에서 뜨거움을 무릅썼던 포다이스도 기억해야 할 사람이다. 엉터리 연구로 노벨상을 탄 사람도 있다. 피비게르는 기생충 때문에 암이 생긴다고 주장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훗날 잘못된 연구였음이 드러났다.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플레밍이 연구실을 너저분하게 쓴 덕분이다. 19세기 유럽 사람들은 결핵을 ‘천재성의 상징’이라 여기고 동경하기까지 했다. 의대생들은 졸업식 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며 의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다짐한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므로 윤리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몇 년 전 줄기세포 연구가 비윤리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밝혀져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일이 있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약물과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것도 윤리 문제로 비판을 받는다. 책은 부록에 어린이가 흔히 걸리는 계절별 질병의 원인과 증상, 대처법 등을 정리해 놓았다. <br/> <br/>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91.txt

제목: 가슴성형 수술 한 여성이 사망률 3배 이상 높은 이유?  
날짜: 20150807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5620379  
본문: 가슴성형을 받은 여성이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과 알코올 및 마약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거의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새로운 연구 결과 밝혀졌다. <br/> <br/> 지난 6일 영국 데일리메일 매체에 따르면 이번 연구결과는 이전에 유방확대수술을 한 여성이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구체적 증거로 수술을 받기 전 이미 신체에 대해 심한 열등감을 느끼는 등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여성들이 수술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br/> <br/> 이러한 결과는 연구원들이 1965년부터 1993년까지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3천 527명의 스웨덴 여성들을 조사해 그들의 사망원인을 조회한 끝에 얻어졌다. 유방 확대 수술을 받은 3천 527명 중 평균 19년 이후 24명의 여성들이 자살했는데 이러한 수치는 일반 사람들의 자살 수치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br/>  <br/>유방 확대 수술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자살률 증가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이번 연구를 수행한 밴덜빌트 대학 의과 센터의 로렌 리프워드 박사는 “<span class='quot0'>유방확대 성형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자신의 환자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해 자살을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span>”고 말했다. <br/> <br/> 이에 리프워드 박사는 “<span class='quot0'>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여성이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후 신체에 대해 계속된 열등감과 불만족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 같다</span>”고 언급했다. <br/> <br/> 그녀는 로이터통신과의 대화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여성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심한지 정확히 파악을 못해 우리는 유방확대 성형수술 환자의 자살률 증가의 심각성조차 알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br/> <br/> 또한,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알코올 및 마약으로 사망하는 비율도 3배 이상인 것도 주목 받았다. <br/> <br/> 그러나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받은 여성이 유방암을 포함해 암으로 사망한 비율은 거의 일반여성과 비슷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슴성형수술은 받은 여성이 암으로 사망하는 이유는 흡연으로 인한 폐암 또는 폐기종과 같은 폐질환이 주된 원인이었다 <br/> <br/> 작년 캐나다 과학자가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여성들이 암을 포함해 다른 질환의 발병률이 낮은데도 자살률이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br/> <br/> 이번 연구 결과는 성형수술 연간저널(Journal Annals of Plastic Surgery)에 게재되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92.txt

제목: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작가, 솔직 고백 "어릴 때 집이 화목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버지와 주먹 싸움까지"  
날짜: 20150807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5350138  
본문: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작가, 솔직 고백 "어릴 때 집이 화목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버지와 주먹 싸움까지"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작가, 솔직 고백 "어릴 때 집이 화목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버지와 주먹 싸움까지" <br/> <br/> 네이버 금요 웹툰 '외모지상주의'에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의 유년시절이 새삼 화제다. <br/> <br/>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작가는 지난 3월 방송된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 출연한 바 있다. <br/> <br/> 당시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작가는 "어린 시절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졌다"며 "어릴 때부터 집이 화목과는 거리가 멀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난 아버지와 주먹 싸움까지 했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br/> <br/> 박태준은 또 "과거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가장으로서의 노력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했다. 고3 때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서 나왔다"며 "그런데도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버지가 밤늦게 귀가해 할머니에게 밥을 차리라며 화를 내시더라. 그때 10년 동안 쌓인 게 폭발했다. 아버지께 대들며 패륜을 저질렀다"고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93.txt

제목: 가슴성형 수술 한 여성이 사망률 3배 이상 높은 이유?  
날짜: 20150807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710018172727  
본문: 가슴성형을 받은 여성이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과 알코올 및 마약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거의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새로운 연구 결과 밝혀졌다. <br/> <br/>지난 6일 영국 데일리메일 매체에 따르면 이번 연구결과는 이전에 유방확대수술을 한 여성이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구체적 증거로 수술을 받기 전 이미 신체에 대해 심한 열등감을 느끼는 등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여성들이 수술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br/> <br/>이러한 결과는 연구원들이 1965년부터 1993년까지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3천 527명의 스웨덴 여성들을 조사해 그들의 사망원인을 조회한 끝에 얻어졌다. 유방 확대 수술을 받은 3천 527명 중 평균 19년 이후 24명의 여성들이 자살했는데 이러한 수치는 일반 사람들의 자살 수치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br/>  <br/>유방 확대 수술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자살률 증가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번 연구를 수행한 밴덜빌트 대학 의과 센터의 로렌 리프워드 박사는 “<span class='quot0'>유방확대 성형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자신의 환자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해 자살을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에 리프워드 박사는 “<span class='quot0'>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여성이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후 신체에 대해 계속된 열등감과 불만족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 같다</span>”고 언급했다. <br/> <br/>그녀는 로이터통신과의 대화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여성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심한지 정확히 파악을 못해 우리는 유방확대 성형수술 환자의 자살률 증가의 심각성조차 알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br/> <br/>또한,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알코올 및 마약으로 사망하는 비율도 3배 이상인 것도 주목 받았다. <br/> <br/>그러나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받은 여성이 유방암을 포함해 암으로 사망한 비율은 거의 일반여성과 비슷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슴성형수술은 받은 여성이 암으로 사망하는 이유는 흡연으로 인한 폐암 또는 폐기종과 같은 폐질환이 주된 원인이었다 <br/> <br/>작년 캐나다 과학자가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여성들이 암을 포함해 다른 질환의 발병률이 낮은데도 자살률이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br/> <br/>이번 연구 결과는 성형수술 연간저널(Journal Annals of Plastic Surgery)에 게재되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94.txt

제목: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작가, 솔직 고백 "어릴 때 집이 화목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버지와 주먹 싸움까지"  
날짜: 20150807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710018167270  
본문: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작가, 솔직 고백 "어릴 때 집이 화목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버지와 주먹 싸움까지"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작가, 솔직 고백 "어릴 때 집이 화목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버지와 주먹 싸움까지" <br/> <br/>네이버 금요 웹툰 '외모지상주의'에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의 유년시절이 새삼 화제다. <br/> <br/>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작가는 지난 3월 방송된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 출연한 바 있다. <br/> <br/>당시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작가는 "어린 시절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졌다"며 "어릴 때부터 집이 화목과는 거리가 멀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난 아버지와 주먹 싸움까지 했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br/> <br/>박태준은 또 "과거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가장으로서의 노력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했다. 고3 때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서 나왔다"며 "그런데도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버지가 밤늦게 귀가해 할머니에게 밥을 차리라며 화를 내시더라. 그때 10년 동안 쌓인 게 폭발했다. 아버지께 대들며 패륜을 저질렀다"고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95.txt

제목: 희생·헌신 속에 발전해온 의학의 역사 한눈에  
날짜: 20150807  
기자: 김신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710018175048  
본문: 우리누리 지음/윤유리 그림/길벗스쿨/1만1000원그래서 이런 의학이 생겼대요/우리누리 지음/윤유리 그림/길벗스쿨/1만1000원 <br/> <br/>사람들은 대부분 태어나는 순간 의사를 만난다.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 예방 접종이나 건강 검진 등 평생에 걸쳐 의사와 마주한다. ‘그래서 생겼대요’ 시리즈가 이번에는 ‘의학’을 다룬다. 의학이 어떤 과정을 밟으며 발전해 왔는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이 따랐는지, 네 칸 만화와 재미난 이야기로 의학 상식을 키워준다. 옛날 사람들은 질병이란 신이 노해서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면 신에게 기도를 했다. <br/> <br/>그러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등장하면서 사람의 힘으로도 질병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약물 요법을 도입한 페라켈수스, 외과 수술을 처음으로 성공시킨 맥도웰, 손 씻기로 산모의 사망률을 크게 낮춘 제멜바이스, 유전의 법칙을 발견한 멘델, 간호사의 대모 나이팅게일 등 수많은 의료인이 나타나 의학의 역사를 이끌었다. 시대순에 따라 의학이 발전해 온 과정을 읽다 보면 과학과 세계사의 흐름까지 익힐 수 있다. <br/> <br/>책은 서양의 의학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아랍의 의학까지 두루 다룬다. 페루의 의학도였던 카리온은 ‘페루사마귀 병’의 치료법을 밝히기 위해 자기 몸에 실험을 했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베살리우스는 불법이지만 시체를 훔쳐 해부학을 연구해 외과 의학을 크게 발전시켰다. 체온의 기능에 대해을 알아보려고 펄펄 끓는 방안에서 뜨거움을 무릅썼던 포다이스도 기억해야 할 사람이다. 엉터리 연구로 노벨상을 탄 사람도 있다. 피비게르는 기생충 때문에 암이 생긴다고 주장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훗날 잘못된 연구였음이 드러났다.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플레밍이 연구실을 너저분하게 쓴 덕분이다. 19세기 유럽 사람들은 결핵을 ‘천재성의 상징’이라 여기고 동경하기까지 했다. 의대생들은 졸업식 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며 의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다짐한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므로 윤리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몇 년 전 줄기세포 연구가 비윤리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밝혀져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일이 있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약물과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것도 윤리 문제로 비판을 받는다. 책은 부록에 어린이가 흔히 걸리는 계절별 질병의 원인과 증상, 대처법 등을 정리해 놓았다. <br/> <br/>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96.txt

제목: 군인아빠는 헌혈왕, 딸은 소아암 환자에 모발 기증  
날짜: 20150807  
기자: 박연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710018167293  
본문: 지도민 중사의 가족이 헌혈을 하고 받은 감사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군인 아빠는 헌혈왕,딸은 소아암 환자에 자연모발 기증’ <br/> <br/>육군 27사단에 근무하는 한 군인가족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br/> <br/>화제의 주인공은 이기자회관 관리관으로 복무중인 지도민 중사와 가족. 지 중사는 2005년 27사단에서 조교로 근무를 시작해 분대장교육대 교관을 거쳐 현재는 장병복지를 위한 회관 관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br/> <br/>지 중사는 고등학생 시절 우연히 TV에서 백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소아암환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봉사활동과 헌혈을 시작했다. 현재 지 중사가 헌혈한 횟수는 총 55회로써 지난해 6월 헌혈유공자에게 부여되는 금장을 받았다. <br/> <br/>지 중사는 헌혈증을 대한적십자사에 기증하고 혈액이 필요한 주변의 전우들을 돕고 있다. 헌혈할 때 받는 사은품도 기부권으로 교환해 대한적십자사에 기증, 어려운 아동을 돕고 있다. 지 중사는 또 정기적으로 소아암협회에 기부를 하고 있어 감사장을 받을 정도로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br/> <br/>특히 지 중사의 딸 지원(7)양은 지난 3월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또래 환자를 돕기위해 7년 동안 길러 온 자연모발 25cm를 잘라 소아암협회에 기증했다. <br/> <br/>아들 범준(9)군도 용돈을 초록우산 아동복지 어린이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지 중사의 아내 심정희(32)씨도 남편을 따라 동반헌혈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온 가족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br/> <br/>지 중사는 “군 생활을 통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도 헌혈 100회는 물론 200회를 달성하고 온 가족이 불우한 이웃을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br/> <br/>춘천=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97.txt

제목: [김승동의 보험 X-ray]9월 인상… 손보 실손보험료 살펴보니  
날짜: 20150807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710018173167  
본문: 오는 9월 1일부터 일명 민영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상향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상품을 주력해 판매한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또 한번 절판마케팅이 예상된다. <br/> <br/>2003년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치료비를 대비하기 위해 나온 실손보험은 현재 3500만명 가량이 가입, 제2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보험사는 높은 손해율로,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남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br/> <br/>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실손보험이 개정, 비급여항목의 자기부담금을 20%로 높아진다는 이슈에 따라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절판마케팅이 이슈다. 실손보험이 개정되면 보험료는 소폭 인하될 수 있지만 의료비 부담은 대폭 높아질 수 있게 된다. <br/> <br/>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고령일수록 발병확률이 높은 성인병 합병증은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몇 만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이라도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span>”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모든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비중의 약 70%가 손해보험사에 치중되어 있다”며 “9월 개정 전 절판마케팅도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br/>세계파이낸스가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손해보험사들의 단독형 실손보험을 20세, 30세, 40세, 50세 등 10살 단위로 비교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자기부담금 10%형을 선택하고 있고, 상해입원·상해통원·질병입원·질병통원 등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담보를 넣었다. <br/> <br/>보험료 비교 결과 20대는 한화손보, 30대는 동부화재, 40대와 50대는 롯데손보가 가장 저렴했다. <br/> <br/>다만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보험은 단독형이 아닌 경우가 많다. 단독형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너무 낮아 보험설계사의 판매 유인이 거의 없다. 암보험, 건강보험, 간병보험, 자녀보험, 통합보험 등 다른 담보 보장을 넣은 종합형 실손보험을 판매한다. <br/> <br/>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특약 형태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단독형 실손보험 단 하나만 살펴보고 실손보험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span>”고 조언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대형사보다는 소형사가 동일한 보장을 받을 때 보험료가 저렴하다”며 “다른 상품과 비교해 실효성을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98.txt

제목: 농협·(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 “2015 포도데이”행사 개최  
날짜: 20150806  
기자: 지차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4839138  
본문: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와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회장 김후진 상주중화농협 조합장)가 6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2015 포도데이”행사를 개최했다.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오른쪽에서 다섯번째)와 김후진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 회장(오른쪽에서 네번째)등 참석자들이 ‘포도넝쿨 정원’에서 포도를 따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와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회장 김후진 상주중화농협 조합장)가 6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2015 포도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br/> <br/>올해로 8회를 맞이한 『포도데이』는“한여름 대표과일인 포도를 먹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자”는 의미로 농협과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포도 주산지농협 34개소)가 2008년부터 포도송이를 닮은 8월 8일을 전후로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이다. <br/> <br/>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와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회장 김후진 상주중화농협 조합장)가 6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2015 포도데이”행사를 개최했다. 김후진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 회장(오른쪽부터)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이 포도로 만든 요리를 살펴보고 있다.이번 포도데이 행사는 포도 홍보관을 설치해 지역을 대표하는 포도 브랜드 및 품종을 둘러보고, 포도넝쿨 정원을 거닐며 도심 속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대표적인 포도요리 10선을 전시하고 현장에서 배부하는 포도 요리 레시피를 활용해 가정에서도 손쉽게 영양 만점 포도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br/> <br/>농협은 포도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농협의 주요 하나로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인‘농협a마켓’에서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포도 특별판촉 행사를 실시한다. <br/> <br/>동의보감에서는 ‘포도는 허기를 달래고 기운이 나게 하며 이뇨 작용을 도와주고, 기혈과 근골을 보강하고 비위와 폐와 신장을 보하여 몸을 든든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포도에는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 및 안토시아닌 등이 풍부해 여름철 피로회복, 면역력 증강, 시력 강화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은 암세포 발생을 차단시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으며, 플라노이드는 혈전 생성을 억제해 심장병과 동맥경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포도를 원료를 하는 발사믹 식초는 노벨상을 3번이나 받을 정도로 탁월한 건강식품임을 인정받았다. <br/> <br/>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와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회장 김후진 상주중화농협 조합장)가 6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2015 포도데이”행사를 개최했다김후진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장은“계속된 소비위축과 수입과일  확산으로 여름철 대표 과일인 우리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전하며“<span class='quot0'>이번 행사를 통해 국산포도의 건강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입에도 달고 몸에도 좋은 여름보약인 우리 포도가 더 많이 사랑받기를 바란다 </span>”고 말했다.  <br/> <br/>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399.txt

제목: 국내 폐경 여성 70%, 폐경 증상 치료 위해 병원 안가  
날짜: 20150806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4752626  
본문:   <br/> <br/> <br/>우리나라 40~60대 여성의 상당 수가 안면홍조, 야간발한 등의 폐경 증상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인식하면서도, 10명 중 7명은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를 찾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병원을 방문하는 대신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도 폐경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이는 대한폐경학회가 폐경 증상 및 호르몬 치료에 대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식 변화를 추적하고자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대규모 조사의 결과로, 전국 45세부터 65세까지의 여성 2,3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br/> <br/> 폐경 증상,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는 개선 어려워 <br/> <br/> 폐경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폐경 여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치료 방법은 식이요법과 운동(36.5%)이었으며, 호르몬 치료(19.7%), 건강기능식품(1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br/> <br/> 응답자의 65% 이상이 폐경 증상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70%가 폐경 증상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에 가볼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나, 실제로 폐경 증상에 대한 상담 혹은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한 사람은 30%에 불과해, 폐경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실제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산부인과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로는 운동 등 생활습관을 먼저 개선하겠다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았다. 이는 평소 폐경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42.8%가 식이요법 및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라고 답한 것과 일맥상통했다.                                                                                            <br/>그러나 실제 식이요법 및 운동을 한 여성들 중 폐경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8%이었던 반면, 병원 내원 및 상담 후 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아 개선 효과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은 76.0%에 달했다. 즉, 폐경 증상 개선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식이요법 및 운동을 한 여성군보다 호르몬요법군이 1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호르몬 치료 여전히 두려워해 <br/> <br/> 폐경 여성들이 호르몬 치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폐경 여성의 29.9%만이 호르몬 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병원에 내원해 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는 것이 폐경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29.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실제 폐경 증상 개선을 위해 병원에 내원해 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은 경우 역시 19.7%에 불과했다. <br/> <br/> 2010년 10월 폐경 여성 5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20.6%만이 의사와 상담 후 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았다고 답해, 5년 사이 호르몬치료제 처방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고 인식 역시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호르몬 치료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질 출혈, 체중 증가, 유방 압통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암 발생에 대한 두려움이 전체의 77%(2010년), 88%(2015년)를 차지해 5년 사이 호르몬치료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원인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br/> <br/> 이에 대해 대한폐경학회 이병석 회장은 "호르몬 치료에 대해 폐경 여성들이 인식하는 위험도는 실제 위험도에 비해 과대평가 되어 있다"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호르몬 치료제 외에도 최근 안전성을 높인 호르몬 치료제가 새롭게 출시되어 폐경 증상 치료의 옵션이 한층 넓어진 만큼, 많은 여성들이 병원을 방문해 적극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00.txt

제목: 목에 멍울 만져지고 몸살증상 있다면 '급성림프절염' 의심해야  
날짜: 20150806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4713623  
본문: 자료=한림대강남성심병원 <br/>김모 씨(36·여)는 최근 몸살이 난 것처럼 온몸이 아프고 열이 났다. 최근 집안일로 잠도 못 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며칠 쉬었다. <br/> <br/>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목에 멍울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일단 급성 림프절염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혈액검사, CT촬영, 조직검사 등 추가검사를 진행했다. 그녀는 혹시 갑상선암이 아닐까 걱정스러웠지만, '기쿠치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br/> <br/>6일 의료계에 따르면 림프절염은 ‘임파선이 커졌다’는 의미인데 다양한 질병의 증상 중 하나로 임파선이 커지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림프절이 붓는 가장 큰 원인은 기쿠치병이 생겼거나 결핵균이 림프절에서 염증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br/> <br/>◆ 급성림프절염 환자의 22%가 20~30대 여성 <br/> <br/>림프절염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연간 60만명 이상 진단을 받고 있다. 특히 20~30대 가임기 동양 여성에서 더 흔한 경향이 있다. <br/> <br/>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급성림프절염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남성이 26만5000여명, 여성이 40만2000여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배가량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br/> <br/>또 다른 연령대 대비 20~39세의 가임기 여성은 2014년 66만8663명 중 14만5492명으로 전체 환자의 22%에 육박한다. 림프절염이 여성에게 더 자주 발병하는 원인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br/> <br/>◆ 30세 이하 젊은 동양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기쿠치병 <br/> <br/>기쿠치병은 지난 1972년 일본인 의사 기쿠치가 의학계에 최초로 보고해 붙은 병명이다. 흔히 조직구 괴사성 림프절염으로 불린다. <br/> <br/>기쿠치병은 30세 이하 젊은 동양인에게 많이 생기는 병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성과 비교하면 여성이 약 4배 정도 많다. 아직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헤르페스바이러스, 엡스타인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감염 후 발생한다. <br/> <br/>증상은 발열·피로감·관절통이 주로 나타나며 발진·야간 발한·오심·구토·설사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조직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으며 치료는 증세를 억제하거나 경감시키는 대증치료를 하게 된다. 보통 1개월 이내에 호전되지만 몇 달씩 지속하기도 한다. <br/> <br/>◆ 결핵균이 림프절에 침입해 생기는 결핵성림프절염 <br/> <br/>림프절염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결핵균이 림프절에 침입하면서 나타나는 결핵성림프절염이다. 통증이 없는 멍울이 천천히 커지면서 미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확진하려면 조직검사가 필수다. 폐결핵을 동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다. <br/> <br/>결핵성림프절염으로 확진되면 항결핵제를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한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내버려두면 염증이 심해져 피부에서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장기로 퍼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br/> <br/>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결핵균은 우리 몸 어디든 침범할 수 있어서 결핵성뇌수막염, 골수염, 심낭염 등으로 진행하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결핵균이 중요 장기들을 침범하기 전에 조기에 치료할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br/> <br/>◆ 림프절 비대 부위에 암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 <br/> <br/>림프절 비대가 생겼을 때 반드시 감별해야 할 것은 악성 종양이다. 암세포가 림프계를 통해 전이되기 때문에 림프절 비대 부위와 암이 위치한 곳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br/> <br/>목에 림프절염이 생기면 두경부 암, 쇄골 부분의 림프절이 부었으면 폐암이나 식도암, 복강내암(위, 담낭, 췌장, 신장, 전립선 등)을 의심할 수 있다. <br/> <br/>그 밖에 겨드랑이 림프절 비대가 있으면 유방암, 서혜부 림프절 비대가 있으면 자궁경부암, 대장암, 난소암 등을 확인해야 한다. 림프계 자체의 악성 종양인 림프종일 가능성도 있다. <br/> <br/>악성 종양에 의한 림프절 비대 증상은 2cm 이상의 단단한 멍울이 한 달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다. 피부괴사가 동반된 경우, 압통이나 발열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노인이나 흡연자는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더 크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검사가 필수다. <br/> <br/>이재갑 교수는 "단일 림프절 내에 기쿠치병과 갑상선유두암이 공존하는 환자도 진료한 적이 있었다"며 "두 가지 이상 질환이 공존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림프절염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01.txt

제목: 목에 멍울 만져지고 몸살증상 있다면 '급성림프절염' 의심해야  
날짜: 20150806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610018158605  
본문: 자료=한림대강남성심병원 <br/>김모 씨(36·여)는 최근 몸살이 난 것처럼 온몸이 아프고 열이 났다. 최근 집안일로 잠도 못 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며칠 쉬었다. <br/> <br/>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목에 멍울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일단 급성 림프절염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혈액검사, CT촬영, 조직검사 등 추가검사를 진행했다. 그녀는 혹시 갑상선암이 아닐까 걱정스러웠지만, '기쿠치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br/> <br/>6일 의료계에 따르면 림프절염은 ‘임파선이 커졌다’는 의미인데 다양한 질병의 증상 중 하나로 임파선이 커지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림프절이 붓는 가장 큰 원인은 기쿠치병이 생겼거나 결핵균이 림프절에서 염증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br/> <br/>◆ 급성림프절염 환자의 22%가 20~30대 여성 <br/> <br/>림프절염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연간 60만명 이상 진단을 받고 있다. 특히 20~30대 가임기 동양 여성에서 더 흔한 경향이 있다. <br/> <br/>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급성림프절염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남성이 26만5000여명, 여성이 40만2000여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배가량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br/> <br/>또 다른 연령대 대비 20~39세의 가임기 여성은 2014년 66만8663명 중 14만5492명으로 전체 환자의 22%에 육박한다. 림프절염이 여성에게 더 자주 발병하는 원인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br/> <br/>◆ 30세 이하 젊은 동양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기쿠치병 <br/> <br/>기쿠치병은 지난 1972년 일본인 의사 기쿠치가 의학계에 최초로 보고해 붙은 병명이다. 흔히 조직구 괴사성 림프절염으로 불린다. <br/> <br/>기쿠치병은 30세 이하 젊은 동양인에게 많이 생기는 병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성과 비교하면 여성이 약 4배 정도 많다. 아직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헤르페스바이러스, 엡스타인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감염 후 발생한다. <br/> <br/>증상은 발열·피로감·관절통이 주로 나타나며 발진·야간 발한·오심·구토·설사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조직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으며 치료는 증세를 억제하거나 경감시키는 대증치료를 하게 된다. 보통 1개월 이내에 호전되지만 몇 달씩 지속하기도 한다. <br/> <br/>◆ 결핵균이 림프절에 침입해 생기는 결핵성림프절염 <br/> <br/>림프절염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결핵균이 림프절에 침입하면서 나타나는 결핵성림프절염이다. 통증이 없는 멍울이 천천히 커지면서 미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확진하려면 조직검사가 필수다. 폐결핵을 동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다. <br/> <br/>결핵성림프절염으로 확진되면 항결핵제를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한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내버려두면 염증이 심해져 피부에서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장기로 퍼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br/> <br/>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결핵균은 우리 몸 어디든 침범할 수 있어서 결핵성뇌수막염, 골수염, 심낭염 등으로 진행하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결핵균이 중요 장기들을 침범하기 전에 조기에 치료할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br/> <br/>◆ 림프절 비대 부위에 암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 <br/> <br/>림프절 비대가 생겼을 때 반드시 감별해야 할 것은 악성 종양이다. 암세포가 림프계를 통해 전이되기 때문에 림프절 비대 부위와 암이 위치한 곳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br/> <br/>목에 림프절염이 생기면 두경부 암, 쇄골 부분의 림프절이 부었으면 폐암이나 식도암, 복강내암(위, 담낭, 췌장, 신장, 전립선 등)을 의심할 수 있다. <br/> <br/>그 밖에 겨드랑이 림프절 비대가 있으면 유방암, 서혜부 림프절 비대가 있으면 자궁경부암, 대장암, 난소암 등을 확인해야 한다. 림프계 자체의 악성 종양인 림프종일 가능성도 있다. <br/> <br/>악성 종양에 의한 림프절 비대 증상은 2cm 이상의 단단한 멍울이 한 달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다. 피부괴사가 동반된 경우, 압통이나 발열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노인이나 흡연자는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더 크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검사가 필수다. <br/> <br/>이재갑 교수는 "단일 림프절 내에 기쿠치병과 갑상선유두암이 공존하는 환자도 진료한 적이 있었다"며 "두 가지 이상 질환이 공존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림프절염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02.txt

제목: 국내 폐경 여성 70%, 폐경 증상 치료 위해 병원 안가  
날짜: 20150806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610018159287  
본문:   <br/> <br/> <br/>우리나라 40~60대 여성의 상당 수가 안면홍조, 야간발한 등의 폐경 증상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인식하면서도, 10명 중 7명은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를 찾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병원을 방문하는 대신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도 폐경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는 대한폐경학회가 폐경 증상 및 호르몬 치료에 대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식 변화를 추적하고자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대규모 조사의 결과로, 전국 45세부터 65세까지의 여성 2,3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br/> <br/>폐경 증상,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는 개선 어려워 <br/> <br/>폐경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폐경 여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치료 방법은 식이요법과 운동(36.5%)이었으며, 호르몬 치료(19.7%), 건강기능식품(1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br/> <br/>응답자의 65% 이상이 폐경 증상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70%가 폐경 증상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에 가볼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나, 실제로 폐경 증상에 대한 상담 혹은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한 사람은 30%에 불과해, 폐경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실제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산부인과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로는 운동 등 생활습관을 먼저 개선하겠다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았다. 이는 평소 폐경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42.8%가 식이요법 및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라고 답한 것과 일맥상통했다.                                                                                            <br/>그러나 실제 식이요법 및 운동을 한 여성들 중 폐경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8%이었던 반면, 병원 내원 및 상담 후 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아 개선 효과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은 76.0%에 달했다. 즉, 폐경 증상 개선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식이요법 및 운동을 한 여성군보다 호르몬요법군이 1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호르몬 치료 여전히 두려워해 <br/> <br/>폐경 여성들이 호르몬 치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폐경 여성의 29.9%만이 호르몬 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병원에 내원해 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는 것이 폐경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29.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실제 폐경 증상 개선을 위해 병원에 내원해 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은 경우 역시 19.7%에 불과했다. <br/> <br/>2010년 10월 폐경 여성 5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20.6%만이 의사와 상담 후 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았다고 답해, 5년 사이 호르몬치료제 처방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고 인식 역시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호르몬 치료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질 출혈, 체중 증가, 유방 압통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암 발생에 대한 두려움이 전체의 77%(2010년), 88%(2015년)를 차지해 5년 사이 호르몬치료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원인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br/> <br/>이에 대해 대한폐경학회 이병석 회장은 "호르몬 치료에 대해 폐경 여성들이 인식하는 위험도는 실제 위험도에 비해 과대평가 되어 있다"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호르몬 치료제 외에도 최근 안전성을 높인 호르몬 치료제가 새롭게 출시되어 폐경 증상 치료의 옵션이 한층 넓어진 만큼, 많은 여성들이 병원을 방문해 적극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03.txt

제목: 농협·(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 “2015 포도데이”행사 개최  
날짜: 20150806  
기자: 지차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610018160543  
본문: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와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회장 김후진 상주중화농협 조합장)가 6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2015 포도데이”행사를 개최했다.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오른쪽에서 다섯번째)와 김후진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 회장(오른쪽에서 네번째)등 참석자들이 ‘포도넝쿨 정원’에서 포도를 따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와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회장 김후진 상주중화농협 조합장)가 6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2015 포도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br/> <br/>올해로 8회를 맞이한 『포도데이』는“한여름 대표과일인 포도를 먹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자”는 의미로 농협과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포도 주산지농협 34개소)가 2008년부터 포도송이를 닮은 8월 8일을 전후로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이다. <br/> <br/>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와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회장 김후진 상주중화농협 조합장)가 6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2015 포도데이”행사를 개최했다. 김후진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 회장(오른쪽부터)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이 포도로 만든 요리를 살펴보고 있다.이번 포도데이 행사는 포도 홍보관을 설치해 지역을 대표하는 포도 브랜드 및 품종을 둘러보고, 포도넝쿨 정원을 거닐며 도심 속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대표적인 포도요리 10선을 전시하고 현장에서 배부하는 포도 요리 레시피를 활용해 가정에서도 손쉽게 영양 만점 포도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br/> <br/>농협은 포도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농협의 주요 하나로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인‘농협a마켓’에서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포도 특별판촉 행사를 실시한다. <br/> <br/>동의보감에서는 ‘포도는 허기를 달래고 기운이 나게 하며 이뇨 작용을 도와주고, 기혈과 근골을 보강하고 비위와 폐와 신장을 보하여 몸을 든든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포도에는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 및 안토시아닌 등이 풍부해 여름철 피로회복, 면역력 증강, 시력 강화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은 암세포 발생을 차단시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으며, 플라노이드는 혈전 생성을 억제해 심장병과 동맥경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포도를 원료를 하는 발사믹 식초는 노벨상을 3번이나 받을 정도로 탁월한 건강식품임을 인정받았다. <br/> <br/>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와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회장 김후진 상주중화농협 조합장)가 6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2015 포도데이”행사를 개최했다김후진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장은“계속된 소비위축과 수입과일  확산으로 여름철 대표 과일인 우리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전하며“<span class='quot0'>이번 행사를 통해 국산포도의 건강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입에도 달고 몸에도 좋은 여름보약인 우리 포도가 더 많이 사랑받기를 바란다 </span>”고 말했다.  <br/> <br/>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04.txt

제목: 모유 먹는 신생아의 8%, 하루 섭취 제한량 이상 DEHP(환경호르몬) 섭취  
날짜: 20150805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3839887  
본문:   <br/> <br/>  모유를 먹는 우리나라 신생아의 8%가 환경호르몬(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의 일종인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하루 섭취제한량 이상 먹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  DOP라고도 불리는 DEHP는 장난감 등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는 가소제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다. DEHP는 또 세계야생보호기금(WWF)이 환경호르몬 67개 물질 중 하나로 분류했으며 사람에게 암,생식기능 장애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  5일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팀이 지난 2012년 4∼8월 서울 등 전국 4개 도시 5개 대학병원에서 분만한지 1개월 된 산모 62명의 모유에서 DEHP, DnBP 등 환경호르몬 물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br/> <br/> 이 연구결과(한국에서 모유의 프탈레이트 유도체 농도: 프탈레이트 노출 정도와 모유를 먹은 신생아의 잠재적 위험 평가)는 국제 학술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근호에 발표됐다.  <br/> <br/>  최 교수팀의 연구 결과 신생아가 모유를 통해 매일 섭취하는 DEHP의 양은 아이의 체중 ㎏당 0.91∼6.52㎍ 수준이었다. 신생아는 또 모유를 통해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DnBP(디니트로부틸프탈레이트)를 하루에 자신의 체중 ㎏당 평균 0.38∼1.43㎍씩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  최 교수는 이를 근거로 “<span class='quot0'>모유를 먹은 62명의 신생아 중 5명(8%)은 하루 섭취제한량을 초과하는 DEHP를 섭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pan>”며 “<span class='quot0'>4명(6%)은 DnBP를 1일 섭취제한량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추산됐다</span>”고 지적했다. <br/> <br/>  DEHP는 국내에서 약 20년 전에 대형 식품 파동을 일으켰던 물질로도 유명하다. 당시 유아용 분유에 DEHP가 들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국을 뒤흔들었다. <br/> <br/>  또 미국에선 DnBPㆍ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에 임산부가 과다 노출되면 태어난 아이의 지능지수(IQ)가 또래보다 6∼7점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의 온라인 학술지인 ‘플로스원’(PLOS ONE)에 지난해 10월 발표됐다. <br/>  <br/>최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결과를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그는 “<span class='quot0'>산모가 PC 소재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 사용을 가급적 삼가고 랩 등 1회용 식품포장과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조리를 줄이면 모유 내 DEHPㆍDnBP 등 프탈레이트 함량을 대폭 낮출 수 있다</span>”고 조언했다. <br/> <br/>  게다가 프탈레이트는 인체 내에서 생물학적 반감기(10∼12시간)가 짧아 산모가 약간만 주의해도 아이에 미치는 악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br/> <br/>  그는 “<span class='quot0'>2007년 금산사 템플 스테이(사찰 체험)에 참가한 성인 2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박5일간의 사찰음식 섭취 후 체내 프탈레이트가 급감했다는 사실도 참고할 만하다</span>”고 덧붙였다.  <br/> <br/>  프탈레이트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는 장난감에서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금지했다. EU(유럽연합)는 프탈레이트가 사용된 완구와 어린이용 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불허했다. 우리 정부는 식품 용기에서 프탈레이트 사용 금지와 함께, 플라스틱 완구ㆍ어린이용 제품에서 DEHPㆍ디부틸프탈레이트(DBP)ㆍ벤질부틸프탈레이트(BzBP) 등 프탈레이트 3종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br/> <br/>  프탈레이트를 비롯해 비스페놀Aㆍ노닐페놀 등 환경호르몬 의심물질들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자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환경호르몬 대체물질 개발에 나섰다.  <br/> <br/>  미래부의 3년 과제(총 연구비 65억원)인 ‘환경호르몬 대체물질 개발 사업단’ 단장인 한양대 생명과학부 계명찬 교수는 “<span class='quot1'>프탈레이트가 든 장난감이나 용품 등을 아이가 입으로 빨 때 침과 접촉돼 아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프탈레이트를 대체할 안전한 물질을 개발해 상품화하는 것이 우리 사업단의 최종 목표</span>”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05.txt

제목: ‘택시’ 송호범 아내 백승혜, 눈물 흘리며 “친엄마 보다 시어머니가 더 편해...딸처럼 대해주신다"  
날짜: 20150805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3630961  
본문: ‘택시’ 송호범 아내 백승혜, 눈물 흘리며 “친엄마 보다 시어머니가 더 편해...딸처럼 대해주신다"‘택시’ 송호범 아내 백승혜, 눈물 흘리며 “친엄마 보다 시어머니가 더 편해...딸처럼 대해주신다" <br/> <br/> <택시> 송호범 아내 백승혜가 화제다. <br/> <br/> 백승혜 송호범 부부는 지난 4일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택시>에 출연했다. <br/> <br/> 이날 방송에서 송호범은 “어느 날 이모에게 전화가 왔다. ‘너희 엄마 암 걸리셨다’고 말하시는데 나 때문에 재혼도 못하시고…엄마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br/> <br/> 백승혜 역시 “엄마가 방송을 보면 서운해 하실 수도 있다”며 “근데 우리 엄마보다 어머니가 더 편하다. 날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해주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br/> <br/> 한편 이날 백승혜와 송호범 부부는 결혼생활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06.txt

제목: ‘택시’ 송호범 아내 백승혜, 눈물 흘리며 “친엄마 보다 시어머니가 더 편해...딸처럼 대해주신다"  
날짜: 20150805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510018142578  
본문: ‘택시’ 송호범 아내 백승혜, 눈물 흘리며 “친엄마 보다 시어머니가 더 편해...딸처럼 대해주신다"‘택시’ 송호범 아내 백승혜, 눈물 흘리며 “친엄마 보다 시어머니가 더 편해...딸처럼 대해주신다" <br/> <br/> 송호범 아내 백승혜가 화제다. <br/> <br/>백승혜 송호범 부부는 지난 4일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에 출연했다. <br/> <br/>이날 방송에서 송호범은 “어느 날 이모에게 전화가 왔다. ‘너희 엄마 암 걸리셨다’고 말하시는데 나 때문에 재혼도 못하시고…엄마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br/> <br/>백승혜 역시 “엄마가 방송을 보면 서운해 하실 수도 있다”며 “근데 우리 엄마보다 어머니가 더 편하다. 날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해주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br/> <br/>한편 이날 백승혜와 송호범 부부는 결혼생활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07.txt

제목: 모유 먹는 신생아의 8%, 하루 섭취 제한량 이상 DEHP(환경호르몬) 섭취  
날짜: 20150805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510018145192  
본문:   <br/> <br/> 모유를 먹는 우리나라 신생아의 8%가 환경호르몬(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의 일종인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하루 섭취제한량 이상 먹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 DOP라고도 불리는 DEHP는 장난감 등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는 가소제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다. DEHP는 또 세계야생보호기금(WWF)이 환경호르몬 67개 물질 중 하나로 분류했으며 사람에게 암,생식기능 장애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 5일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팀이 지난 2012년 4∼8월 서울 등 전국 4개 도시 5개 대학병원에서 분만한지 1개월 된 산모 62명의 모유에서 DEHP, DnBP 등 환경호르몬 물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br/> <br/>이 연구결과(한국에서 모유의 프탈레이트 유도체 농도: 프탈레이트 노출 정도와 모유를 먹은 신생아의 잠재적 위험 평가)는 국제 학술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근호에 발표됐다.  <br/> <br/> 최 교수팀의 연구 결과 신생아가 모유를 통해 매일 섭취하는 DEHP의 양은 아이의 체중 ㎏당 0.91∼6.52㎍ 수준이었다. 신생아는 또 모유를 통해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DnBP(디니트로부틸프탈레이트)를 하루에 자신의 체중 ㎏당 평균 0.38∼1.43㎍씩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 최 교수는 이를 근거로 “<span class='quot0'>모유를 먹은 62명의 신생아 중 5명(8%)은 하루 섭취제한량을 초과하는 DEHP를 섭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pan>”며 “<span class='quot0'>4명(6%)은 DnBP를 1일 섭취제한량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추산됐다</span>”고 지적했다. <br/> <br/> DEHP는 국내에서 약 20년 전에 대형 식품 파동을 일으켰던 물질로도 유명하다. 당시 유아용 분유에 DEHP가 들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국을 뒤흔들었다. <br/> <br/> 또 미국에선 DnBPㆍ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에 임산부가 과다 노출되면 태어난 아이의 지능지수(IQ)가 또래보다 6∼7점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의 온라인 학술지인 ‘플로스원’(PLOS ONE)에 지난해 10월 발표됐다. <br/>  <br/>최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결과를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그는 “<span class='quot0'>산모가 PC 소재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 사용을 가급적 삼가고 랩 등 1회용 식품포장과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조리를 줄이면 모유 내 DEHPㆍDnBP 등 프탈레이트 함량을 대폭 낮출 수 있다</span>”고 조언했다. <br/> <br/> 게다가 프탈레이트는 인체 내에서 생물학적 반감기(10∼12시간)가 짧아 산모가 약간만 주의해도 아이에 미치는 악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br/> <br/> 그는 “<span class='quot0'>2007년 금산사 템플 스테이(사찰 체험)에 참가한 성인 2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박5일간의 사찰음식 섭취 후 체내 프탈레이트가 급감했다는 사실도 참고할 만하다</span>”고 덧붙였다.  <br/> <br/> 프탈레이트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는 장난감에서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금지했다. EU(유럽연합)는 프탈레이트가 사용된 완구와 어린이용 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불허했다. 우리 정부는 식품 용기에서 프탈레이트 사용 금지와 함께, 플라스틱 완구ㆍ어린이용 제품에서 DEHPㆍ디부틸프탈레이트(DBP)ㆍ벤질부틸프탈레이트(BzBP) 등 프탈레이트 3종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br/> <br/> 프탈레이트를 비롯해 비스페놀Aㆍ노닐페놀 등 환경호르몬 의심물질들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자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환경호르몬 대체물질 개발에 나섰다.  <br/> <br/> 미래부의 3년 과제(총 연구비 65억원)인 ‘환경호르몬 대체물질 개발 사업단’ 단장인 한양대 생명과학부 계명찬 교수는 “<span class='quot1'>프탈레이트가 든 장난감이나 용품 등을 아이가 입으로 빨 때 침과 접촉돼 아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프탈레이트를 대체할 안전한 물질을 개발해 상품화하는 것이 우리 사업단의 최종 목표</span>”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08.txt

제목: 휴대폰 전자파가 뇌암 발생률 및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발병률 높인다  
날짜: 20150804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3225806  
본문:   <br/> <br/>휴대폰 사용이 잠재적으로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3일 영국 메일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휴대폰 등 와이파이용 전자 장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 병과 같은 뇌 질환과 암을 포함한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연구에 따르면 전자파 노출이 인체 내 유해산소를 증가시키는 산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가 각종 질병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휴대폰 사용이 근본적으로 인체의 DNA을 어떻게 손상시길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으로 생체 세포를 전자파에 노출시켰을 때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br/> <br/>우크라이나 국립과학학술원의 이고르 야키멘코 박사는 전자파 노출로 인한 산화스트레스 증가가 와이파이용 장치와 암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br/> <br/>아키멘코 박사는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면 두통, 피곤 및 피부 손상 등의 가벼운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고 말했다. <br/> <br/>아키멘코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반응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은 화학적으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반응분자로 산소의 정상적인 신진대사의 자연 부산물로 형성되면 세포 신호전달과 체온 조절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br/> <br/>이러한 활성산소인 반응산소종(ROS)가 갑자기 증가하면 인체 세포의 구조가 주요한 손상을 입는 산화스트레스가 일어난다. <br/> <br/>◆전자파 노출로 활성산소(유해산소)가 증가하는 산화스트레스가 노화 및 암 유발 <br/> <br/>다시 말해, 우리 몸은 체내의 활성산소(유해산소) 양을 자체적으로 조절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그러나 무리한 운동 등으로 인해 유해산소의 생성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이들을 제거하는 기능이 저하될 경우 유해산소에 의한 각종 질병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이에 따른 유해산소의 부작용을 산화스트레스라 하며 활성산소가 과잉 생성되어 산화스트레스가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세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거나 손상을 줘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며 노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br/> <br/>아키멘코 박사는 발표된 논문에서 “반응산소종(ROS)은 일반적인 전자파노출로 인한 주위 환경이 안 좋게 바뀔 때 세포 내에 생성된다”며 “이번의 실험 데이타는 인체 건강에 전자파 노출이 실제로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다”고 밝혔다. <br/> <br/>그는 “20분씩 매일 휴대폰을 5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양성 뇌종양 발생률이 3배 이상 증가하고 하루 1시간씩 휴대폰을 4년 이상 이용하면 양성뇌종양 발생률이 5배까지 증가 할 수 있다”고 뉴욕데일리 뉴스에서 언급했다. <br/> <br/>◆20분씩 매일 휴대폰을 5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양성 뇌종양 발생률이 3배 이상 증가 <br/> <br/>그는 “이번 실험 데이터는 주로10년 이상 휴대폰을 쓴 성인을 대상으로 얻어진 것이다”며 “. 이러한 상황이 어릴 적부터 휴대폰을 사용하는 어린아이에게 적용하는 경우 평생에 걸쳐 훨씬 더 인체생물학적으로 더 위험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그는 “현재 악성 뇌종양인 뇌암 발생률이 높지 않더라도 항상 건강과 관련해 일어나는 재앙은 몇 십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주의와 계몽이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r/> <br/>아키멘코 박사 연구팀은 “결론적으로 핸드프리와 같은 장치를 이용해 휴대폰 전자파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제안했다 <br/> <br/>이번 연구 결과는 인디아나대학과 동부핀란드대학 그리고 브라질 콤피나스대학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져 전자기파 바이오로지 및 의학 학술지(journal Electromagnetic Biology & Medicine )의 휴대폰 안전에 대한 장기적 탐사 최신판에 게재되었다. <br/> <br/>한편 휴대폰을 장기간 집중적으로 사용할 경우와 뇌종양의 일종인 신경교종의 발생률의 연관성에 대해 지난 15년 걸쳐 수많은 논문 발표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둘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br/>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09.txt

제목: 서울시동부병원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 시민건강강좌 개최  
날짜: 20150804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3025938  
본문: 서울특별시 동부병원(병원장 김현정)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지하 1층 강당에서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br/> <br/>이번 강좌는 한국 여성들의 암 발병률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br/> <br/>동부병원 외과 전문의 조익행 과장이 강연을 펼칠 예정이며 ▲유방암의 올바른 이해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 ▲검진을 통한 유방암의 예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br/> <br/>한편 이번 강좌는 유방암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10.txt

제목: 분당차병원 주원덕 교수팀, 국내 최초 난소암 면역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날짜: 20150804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2934777  
본문: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주원덕 교수 <br/> <br/>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주원덕 교수팀은 국내 최초로 재발된 난소암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과 동시에 자가 면역세포치료요법을 치료를 병행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테스트하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br/> <br/>상피성 난소암은 가장 치사율이 높은 여성암으로 조기 발견이 어려워 대부분 3기 이상의 진행성 암으로 진단되고, 수술과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하더라도 대부분 재발한다. <br/> <br/>특히, 재발을 반복하게 되면 항암제 저항성이 생겨 결국 복강내 종양과 복수가 장폐색을 일으키고 면역저하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현대의학으로 극복하지 못한 난치병 중의 하나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자가 면역세포치료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요 사안이다. <br/> <br/>이 치료법의 핵심인 면역세포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 자신의 말초혈액에서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를 분리한 후 특이 항원과 면역 자극 싸이토카인인 인터루킨 2(IL-2)를 첨가해 배양한다. 이를 암세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림프구 세포인 자연살해세포(NK 세포), 자연살해T세포(NK-T 세포) 등으로 분화?증식시킨 후 환자에게 투여하게 된다. <br/> <br/>3주 간격의 항암화학요법과 병행하며, 항암제 투여 후 1주째와 2주째에 면역세포치료제를 투여한다. 임상시험 참가자는 3주기의 항암화학요법과 더불어 최대 6회의 면역세포치료제를 투여 받는다. <br/> <br/>대부분의 재발성 난소암 환자는 장기간의 항암화학요법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인데, 면역세포치료제는 면역력을 증강시킬 뿐 아니라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합병증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br/> <br/>자기 혈액에서 추출된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 억제 치료가 필요 없어 부작용이 적고, 정맥주사로 간편하게 투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r/> <br/>분당차병원 부인암센터 주원덕 교수는 “최근 면역세포가 종양을 공격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암 치료에서 T림프구, 수지상세포, 자연살해세포 등을 이용한 면역치료법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br/> <br/>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항암화학요법과 자가살해세포 병합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r/> <br/>이번 임상시험은 1단계에서 3명에 대해 면역세포치료제 투여 후 안전성 평가를 통해 2단계에서 추가 3명에 대해 진행하게 된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조직학적 검사에서 상피성 난소암으로 확진 되었으며, 표준치료 종료 후 6개월 이후에 재발한 환자 등 진료 및 검사를 통해 연구에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br/> <br/>이번 임상에 필요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자연살해세포(Autologus Killer Cell)”는 국내 최대의 줄기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11.txt

제목: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결과, 오는 10월 추가 발표돼  
날짜: 2015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4100000528  
본문:  일본 국제개별화의료학회의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제21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가 오는 10월 17일 오사카에서 ‘개별화의료의 신시대’라는 주제로 개최될 전망이다.암이란 비정상 세포들이 과다 증식하며 조직과 장기에 침입하여 종괴를 형성하고 기존의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경시키는 상태다. 이 암 치료에 수지상세포의 역할을 강조되고 있다.유전자 분석을 통해 개인별 증상에 따라 별도의 적절한 치료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 구조를 지닌 인체는 2만 개 넘는 유전자를 지니고 있으며 약 60조의 세포가 존재한다. 개별화의료는 암에 관여하는 유전자 역시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다.국제개별화의료학회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에 따르면, 기존에는 개인마다 다른 유전자와 천차만별인 암의 성질을 무시한 채 대규모 집단조사의 평균결과에 기반을 둔 표준치료에만 의존해 왔다.인체 면역계의 사령관 역할을 하는 수지상세포를 잘 활용하면 암 치료도 개별화의료 즉, 개인별 맞춤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아베 이사장의 아베종양내과 연구팀은, 인체에 약 8%만이 존재하는 단구(수지상세포의 원료)를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수지상세포를 분리한 후 개인 맞춤형 항원을 추가해 암백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신 수시장세포 암백신’ 치료다. 개인 맞춤형 암 항원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4~5종이 추가된다.아베 이사장은 지난 제20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아베종양내과 연구팀의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결과를 발표했다.89세, 고령의 여성 환자에게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한 결과, 종양과 종양수치가 확연하게 축소됐음이 발견됐다. 치료에 사용된 암항원은 GV1001, NEWWT1, CA125, MAGEA3 등이다.또한, 전이·재발 암 환자에서는 70%,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와 NEW NK 세포치료를 병행한 하이브리드 치료에서는 74.4%의 유효한 치료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베 이사장의 설명이다.아베종양내과는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수지상세포치료 전문병원을 선정된 바 있으며, 약 10여종의 암항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GV1001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췌장암치료제로 허가받은 항원으로, 국내서도 잘 알려져 있다.국내 기업으로는 선진바이오텍(대표 양동근)이 아베종양내과와 공동 연구 중이며, 아베 이사장은 제21회 학술발표에서 추가 임상치료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12.txt

제목: 휴대폰 전자파가 뇌암 발생률 및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발병률 높인다  
날짜: 2015080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4100000976  
본문:  휴대폰 사용이 잠재적으로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3일 영국 메일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휴대폰 등 와이파이용 전자 장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 병과 같은 뇌 질환과 암을 포함한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연구에 따르면 전자파 노출이 인체 내 유해산소를 증가시키는 산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가 각종 질병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휴대폰 사용이 근본적으로 인체의 DNA을 어떻게 손상시길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으로 생체 세포를 전자파에 노출시켰을 때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우크라이나 국립과학학술원의 이고르 야키멘코 박사는 전자파 노출로 인한 산화스트레스 증가가 와이파이용 장치와 암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증거라고 주장했다.아키멘코 박사는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면 두통, 피곤 및 피부 손상 등의 가벼운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고 말했다.아키멘코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반응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은 화학적으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반응분자로 산소의 정상적인 신진대사의 자연 부산물로 형성되면 세포 신호전달과 체온 조절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러한 활성산소인 반응산소종(ROS)가 갑자기 증가하면 인체 세포의 구조가 주요한 손상을 입는 산화스트레스가 일어난다.◆전자파 노출로 활성산소(유해산소)가 증가하는 산화스트레스가 노화 및 암 유발다시 말해, 우리 몸은 체내의 활성산소(유해산소) 양을 자체적으로 조절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그러나 무리한 운동 등으로 인해 유해산소의 생성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이들을 제거하는 기능이 저하될 경우 유해산소에 의한 각종 질병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따른 유해산소의 부작용을 산화스트레스라 하며 활성산소가 과잉 생성되어 산화스트레스가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세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거나 손상을 줘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며 노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아키멘코 박사는 발표된 논문에서 “반응산소종(ROS)은 일반적인 전자파노출로 인한 주위 환경이 안 좋게 바뀔 때 세포 내에 생성된다”며 “이번의 실험 데이타는 인체 건강에 전자파 노출이 실제로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다”고 밝혔다.그는 “20분씩 매일 휴대폰을 5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양성 뇌종양 발생률이 3배 이상 증가하고 하루 1시간씩 휴대폰을 4년 이상 이용하면 양성뇌종양 발생률이 5배까지 증가 할 수 있다”고 뉴욕데일리 뉴스에서 언급했다.◆20분씩 매일 휴대폰을 5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양성 뇌종양 발생률이 3배 이상 증가그는 “이번 실험 데이터는 주로10년 이상 휴대폰을 쓴 성인을 대상으로 얻어진 것이다”며 “. 이러한 상황이 어릴 적부터 휴대폰을 사용하는 어린아이에게 적용하는 경우 평생에 걸쳐 훨씬 더 인체생물학적으로 더 위험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악성 뇌종양인 뇌암 발생률이 높지 않더라도 항상 건강과 관련해 일어나는 재앙은 몇 십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주의와 계몽이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키멘코 박사 연구팀은 “결론적으로 핸드프리와 같은 장치를 이용해 휴대폰 전자파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제안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인디아나대학과 동부핀란드대학 그리고 브라질 콤피나스대학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져 전자기파 바이오로지 및 의학 학술지(journal Electromagnetic Biology & Medicine )의 휴대폰 안전에 대한 장기적 탐사 최신판에 게재되었다.한편 휴대폰을 장기간 집중적으로 사용할 경우와 뇌종양의 일종인 신경교종의 발생률의 연관성에 대해 지난 15년 걸쳐 수많은 논문 발표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둘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13.txt

제목: 분당차병원 주원덕 교수팀, 국내 최초 난소암 면역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날짜: 2015080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4100001008  
본문: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주원덕 교수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주원덕 교수팀은 국내 최초로 재발된 난소암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과 동시에 자가 면역세포치료요법을 치료를 병행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테스트하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상피성 난소암은 가장 치사율이 높은 여성암으로 조기 발견이 어려워 대부분 3기 이상의 진행성 암으로 진단되고, 수술과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하더라도 대부분 재발한다.특히, 재발을 반복하게 되면 항암제 저항성이 생겨 결국 복강내 종양과 복수가 장폐색을 일으키고 면역저하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현대의학으로 극복하지 못한 난치병 중의 하나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자가 면역세포치료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요 사안이다.이 치료법의 핵심인 면역세포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 자신의 말초혈액에서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를 분리한 후 특이 항원과 면역 자극 싸이토카인인 인터루킨 2(IL-2)를 첨가해 배양한다. 이를 암세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림프구 세포인 자연살해세포(NK 세포), 자연살해T세포(NK-T 세포) 등으로 분화?증식시킨 후 환자에게 투여하게 된다.3주 간격의 항암화학요법과 병행하며, 항암제 투여 후 1주째와 2주째에 면역세포치료제를 투여한다. 임상시험 참가자는 3주기의 항암화학요법과 더불어 최대 6회의 면역세포치료제를 투여 받는다.대부분의 재발성 난소암 환자는 장기간의 항암화학요법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인데, 면역세포치료제는 면역력을 증강시킬 뿐 아니라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합병증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자기 혈액에서 추출된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 억제 치료가 필요 없어 부작용이 적고, 정맥주사로 간편하게 투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분당차병원 부인암센터 주원덕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면역세포가 종양을 공격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암 치료에서 T림프구, 수지상세포, 자연살해세포 등을 이용한 면역치료법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항암화학요법과 자가살해세포 병합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전했다.이번 임상시험은 1단계에서 3명에 대해 면역세포치료제 투여 후 안전성 평가를 통해 2단계에서 추가 3명에 대해 진행하게 된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조직학적 검사에서 상피성 난소암으로 확진 되었으며, 표준치료 종료 후 6개월 이후에 재발한 환자 등 진료 및 검사를 통해 연구에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이번 임상에 필요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span class='quot1'>자연살해세포(Autologus Killer Cell)</span>”는 국내 최대의 줄기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14.txt

제목: 서울시동부병원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 시민건강강좌 개최  
날짜: 20150804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4100000520  
본문: 서울특별시 동부병원(병원장 김현정)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지하 1층 강당에서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강좌는 한국 여성들의 암 발병률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게 되었다.동부병원 외과 전문의 조익행 과장이 강연을 펼칠 예정이며 ▲유방암의 올바른 이해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 ▲검진을 통한 유방암의 예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강좌는 유방암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15.txt

제목: 라이언 레이놀즈, 영화 '데드풀' 의상 보자 눈물 흘려 "마블 캐릭터로 연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해"  
날짜: 20150804  
기자: 강주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4100000529  
본문: 라이언 레이놀즈, 영화 `데드풀` 의상 보자 눈물 흘려 `마블 캐릭터로 출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해`라이언 레이놀즈, 영화 '데드풀' 의상 보자 눈물 흘려 '마블 캐릭터로 출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해'할리우드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가 마블 히어로 데뷔작 '데드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배우 라이언 레이놀즈는 한 연예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마블의 캐릭터를 맡게  된 소감을 전해 팬들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라이언 레이놀즈는 " '데드풀' 의상을 봤을 때 눈물이 흘렸다"는 말로 그의 작품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냈다. 영화 '데드풀'은 마블의 대표적인 슈퍼 히어로 중 하나로 암에 걸린 웨이드 윌슨(라이언 레이놀즈)이 실험에 참가했다가 슈퍼히어로가 되는 내용으로 스파이더맨과 비슷한 류의 영웅영화다.마블의 슈퍼히어로 데드풀은 잔혹한 성격, 무서운 재생 능력, 스파이더맨보다 수다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인터넷팀 강주혁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16.txt

제목: 광복 이후 달라진 한국인의 체형·건강  
날짜: 20150804  
기자: azahoit@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4100000136  
본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극적인 정치·사회·경제·문화적 격변을 경험했다. 한국인의 ‘몸’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평균수명은 1965년 54.9세에서 2013년 81.9세로 27세가 늘어났으며, 영양상태가 좋아지면서 2000년 남성 평균신장은 173.4㎝, 체중은 66.5㎏이 되었다. 1953년과 비교하면 각각 약 7㎝, 8㎏이 커지고 늘었다. 위생 보건환경이 개선되면서 전염성 질환은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암과 신종 감염병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를 기록하는 등 한국인은 피곤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기도 하다.1953년부터 2000년까지 남성 평균 신장이 7㎝가 커지는 등 광복 이후 70년 동안 한국인 체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KBS 제공광복 이후 70년 동안 한국인의 몸과 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KBS1은 4∼7일 오후 10시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변해왔나’에서 체형, 암, 전염병,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국인의 건강 변화를 살펴본다.4일 첫 방송에서는 한국인 체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본다. 보릿고개를 체험한 세대와 경제적 풍요를 누린 세대 간에 체형 차이는 어떻게 다른지 영양학적·유전학적 요인으로 살펴본다.한국인 체형이 서구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실제로 다리 길이와 신체 비율에 생긴 변화를 확인해 본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얼굴형 선호도는 바뀌어 왔고 우리 얼굴도 실제로 갸름해졌다. 그 원인을 근전도(근육의 전기적 활성도)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본다. 1980년대부터 한국인에게 갑자기 찾아온 급격한 변화인 비만까지 70년 동안의 한국인 체형에 대해 짚어본다.이밖에 70년간 일어난 한국인 건강의 내외적 변화를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진정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본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17.txt

제목: 광복 이후 달라진 한국인의 체형·건강  
날짜: 20150803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2623181  
본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극적인 정치·사회·경제·문화적 격변을 경험했다. 한국인의 ‘몸’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br/> <br/>평균수명은 1965년 54.9세에서 2013년 81.9세로 27세가 늘어났으며, 영양상태가 좋아지면서 2000년 남성 평균신장은 173.4㎝, 체중은 66.5㎏이 되었다. 1953년과 비교하면 각각 약 7㎝, 8㎏이 커지고 늘었다. 위생 보건환경이 개선되면서 전염성 질환은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암과 신종 감염병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를 기록하는 등 한국인은 피곤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기도 하다. <br/> <br/> 1953년부터 2000년까지 남성 평균 신장이 7㎝가 커지는 등 광복 이후 70년 동안 한국인 체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br/>KBS 제공광복 이후 70년 동안 한국인의 몸과 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KBS1은 4∼7일 오후 10시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변해왔나’에서 체형, 암, 전염병,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국인의 건강 변화를 살펴본다. <br/> <br/>4일 첫 방송에서는 한국인 체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본다. 보릿고개를 체험한 세대와 경제적 풍요를 누린 세대 간에 체형 차이는 어떻게 다른지 영양학적·유전학적 요인으로 살펴본다. <br/> <br/>한국인 체형이 서구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실제로 다리 길이와 신체 비율에 생긴 변화를 확인해 본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얼굴형 선호도는 바뀌어 왔고 우리 얼굴도 실제로 갸름해졌다. 그 원인을 근전도(근육의 전기적 활성도)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본다. 1980년대부터 한국인에게 갑자기 찾아온 급격한 변화인 비만까지 70년 동안의 한국인 체형에 대해 짚어본다. <br/> <br/>이밖에 70년간 일어난 한국인 건강의 내외적 변화를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진정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18.txt

제목: 원더걸스 i feel you, ‘Back’ 가사 눈길 "고인됐다 말해 절이라도 해"  
날짜: 20150803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2457698  
본문: 원더걸스 i feel you, ‘Back’ 가사 눈길 "고인됐다 말해 절이라도 해"원더걸스 i feel you, ‘Back’ 가사 눈길 "고인됐다 말해 절이라도 해" <br/> <br/> 밴드로 돌아온 원더걸스 수록곡 가사가 화제다. <br/> <br/> 원더걸스는 오늘(3일) 정오 3집 앨범 ‘REBOOT’ 타이틀곡 ‘I Feel You’의 뮤직비디오, ‘REBOOT’의 전곡 음원을 공개했다. <br/> <br/> 이와 함께 수록곡 ‘Back’ 가사가 눈길을 끈다. 해당 곡은 혜림, 유빈, 이토요가 함께 작업한 곡이다. <br/> <br/> ‘Back’에는 “누가 뭐래도 나는 나/ 내가 나를 지켜 누가 나를 지켜//3년 동안 이어진 끝없는 암 흑같은 공백/ 다들 물어봐 하긴 하는 거냐 컴백/ 고인됐다 말해 절이라도 해/ 우린 거인됐지 너 밟힘 어쩔래/ 지겹다 지겨워 귀 딱지 앉겠어” 등 자신들의 솔직한 심경을 닮았다. <br/> <br/> 원더걸스는 오는 7일 KBS ‘뮤직뱅크’, 8일 ‘MBC ‘쇼! 음악중심’, 9일 SBS’인기가요’ 등 각종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곡 ‘I Feel You’ 무대를 첫 공개한다. <br/> <br/> 한편 원더걸스는 3일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REBOOT’ 타이틀곡 'i feel you'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영상을 통해 수영복 패션(?)을 선보이며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19.txt

제목: 국내 위암 치료의 선구자, 故 김진복 교수 10주기 기념 국제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50803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2347989  
본문: 故 김진복 교수 10주기 기념 국제 심포지엄 <br/> <br/>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주임교수 서경석)은 7월 31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대한암연구재단(이사장 안윤옥)과 함께 ‘故 김진복 교수 10주기 국제 위암 심포지엄’ 을 개최했다. <br/> <br/>이번 심포지엄은 위암을 포함한 우리나라 종양외과학의 선구자인 고인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br/> <br/>심포지엄은 고인을 기리는 서경석 교수의 인사말로 시작해 3개의 학술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각 세션에는 위암 등 종양학 분야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br/> <br/>첫 번째 세션에는 종양학의 기초연구를 주제로 암 발생에 있어 후성유전자의 돌연변이 분석(연세대 김영준 교수), 히스톤 변환 등 단백 전환 후 수정(서울대 백성희 교수), 마이크로 RNA를 포함해 위암 발생에 관여하는 각종 단백 표지자의 의의와 임상적용 가능성(일본 히로시마대 야스이 교수) 등이 발표됐다. <br/> <br/>두 번째 세션에는 중국 상하이 렌지병원 카오 교수, 싱가포르 국립대병원 지미 소 교수, 서울의대 양한광 교수가 최근 위암 치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복강경 ? 기능보존 ? 로봇 수술과 위암 치료의 임상시험 현황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세션의 마지막에는 카톨릭대 박조현 교수가 고인을 기리는 특강을 진행했다. <br/> <br/>마지막 세션에는 세계위암학회 차기회장인 중국 베이징대 지아푸 지 교수와 일본위암학회장인 일본 암연구병원 사노 박사가 위암 연구와 치료의 국제 협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서울의대 방영주 교수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면역 치료의 위암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br/> <br/>심포지엄 후에는 고인의 옛 모습과 업적을 영상, 추모사 등을 통해 돌아보는 행사가 열렸다. <br/> <br/>故 김진복 교수는 위암 수술의 세계적 권위자로 우리나라 위암 치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위암학회를 창립했으며 대한암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암협회 등의 회장을 역임했다. 국제소화기외과학회, 국제위암학회, 아시아임상종양학회 등 다양한 국제 학술대회의 국내 개최를 주도해 우리나라 위암치료의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20.txt

제목: 서울男, 지난 50년간 키 10cm· 체중 15kg 늘어나  
날짜: 2015080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2344434  
본문: 지난 50년 사이 서울시 남성의 키가 평균 10cm, 몸무게는 15kg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3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광복 70년, 서울은 어떻게 변했을까? 보건·의료' 편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지난 1965년 서울 남성(17세 기준)의 평균키는 163.7cm, 몸무게는 54.3kg이었다. <br/> <br/>그러나 2013년 평균키는 173.9cm로 10.2cm나 커졌으며 몸무게는 69.6kg로 15.3kg이 늘었다. <br/> <br/>여성들도 같은 기간 평균키가 156.9cm에서 161.3cm로 4.4cm, 몸무게는 51kg에서 56.7kg으로 5.7kg 증가했다. <br/> <br/>주요 사망원인도 60여 년 사이 큰 변화를 겪었다. <br/> <br/>1947년 주요 사망원인으로는 폐렴(12.6%)과 유아병(1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br/> <br/>그러나 2013년에는 각종 암(31%)과 뇌혈관질환(8.7%), 심장질환(7.9%) 순으로 나타났다. <br/> <br/>1983년과 대비해 서울시민의 사망원인으로 암, 자살, 당뇨병은 최대 16%포인트까지 증가했다. <br/> <br/>반면 뇌혈관질환과 간질환, 운수사고 등은 조금씩 감소했다. <br/> <br/>기대수명은 1942년에는 남자가 42.8세, 여자가 47.1세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각각 78.5세, 85세로 크게 늘었다. <br/> <br/>서울의 출생아 수는 1947년 인구 1000명당 37.3명에서 2013년 8.4명으로 4분의 1가량 줄었다. <br/> <br/>1947년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83.4명으로 출생아 12명 중 1명꼴로 1세 이전에 사망했다. <br/> <br/>지금은 영아 1000명당 3명만이 1세 이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출생장소는 1947년에는 99.3%가 집이었으나, 2013년에는 98.8%가 병원으로 변화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21.txt

제목: 걸밴드 원더걸스 ‘I Feel You’, 가사 내용 눈길 "3년 동안 이어진 끝없는 암 흑같은 공백..."  
날짜: 20150803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2318943  
본문: 걸밴드 원더걸스 ‘I Feel You’, 가사 내용 눈길 "3년 동안 이어진 끝없는 암 흑같은 공백..."걸밴드 원더걸스 ‘I Feel You’, 가사 내용 눈길 "3년 동안 이어진 끝없는 암 흑같은 공백..." <br/> <br/> 원더걸스 ‘I Feel You’, 가사 내용보니 " <br/> <br/> 밴드로 돌아온 원더걸스 수록곡 가사가 화제다. <br/> <br/> 원더걸스 수록곡 'Back'의 가사에는 수년동안의 공백기간동안 가진 마음 고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br/> <br/> 원더걸스는 오늘(3일) 정오 3집 앨범 ‘REBOOT’ 타이틀곡 ‘I Feel You’의 뮤직비디오, ‘REBOOT’의 전곡 음원을 공개했다. <br/> <br/> 이와 함께 수록곡 ‘Back’ 가사가 눈길을 끈다. 해당 곡은 혜림, 유빈, 이토요가 함께 작업한 곡이다. <br/> <br/> ‘Back’에는 “누가 뭐래도 나는 나/ 내가 나를 지켜 누가 나를 지켜//3년 동안 이어진 끝없는 암 흑같은 공백/ 다들 물어봐 하긴 하는 거냐 컴백/ 고인됐다 말해 절이라도 해/ 우린 거인됐지 너 밟힘 어쩔래/ 지겹다 지겨워 귀 딱지 앉겠어” 등 자신들의 솔직한 심경을 닮았다. <br/> <br/> 원더걸스는 오는 7일 KBS ‘뮤직뱅크’, 8일 ‘MBC ‘쇼! 음악중심’, 9일 SBS’인기가요’ 등 각종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곡 ‘I Feel You’ 무대를 첫 공개한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22.txt

제목: 내시경 일회용 의료기기, 이달부터 보험 지원 가능  
날짜: 2015080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2226053  
본문:   <br/> <br/> <br/>이달부터 건강보험에서 내시경 일회용 포셉에 대해 상한금액 2만2000원 보험 지원이 가능하게 되자 이와 관련해 병원에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br/> <br/>메르스로 원내 감염에 더욱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내시경 검사 시 일회용 기구 사용에 대한 요청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병원 관계들의 설명이다.  <br/> <br/>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체 내부에 직접 기구를 삽입하는 내시경 검사에서 종양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나오면 해당 병변 부위의 조직을 떼어낸다. 그때 사용하는 작은 가위처럼 생긴 도구가 바로 ‘포셉(Forceps)’ 이다. <br/> <br/>포셉은 사용 후 소독을 해도 생체조직 찌꺼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질병이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아 고위험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br/>  <br/> <br/>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과 달리, 고위험 재사용 기구의 엄격한 소독 지침이나 재사용 금지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br/> <br/>또한 이전까지는 건강보험이 일회용 포셉 구입 비용을 병원에 지원하지 않았고, 재사용 포셉 소독에 대한 철저한 감염 관리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br/> <br/>지난 2013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재사용 포셉을 250회에서 최대 375회까지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br/>  <br/>◆ 한해 1200만명이 받는 내시경 검사 <br/> <br/>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를 받는 사람 수는 1200만명으로 그 중 369만명인 약 30%가 조직 검사를 받는다. 그런데 내시경 조직검사를 받는 사람 중 자신이 검사를 받는 의료기기가 얼마나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고 이를 명시한 의료기관들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br/> <br/>고위험 의료기기는 무균의 조직 혹은 혈관내에 주로 사용돼 2차 감염 또는 B형·C형 감염, 에이즈, 대장균 등의 집단 감염 위험뿐만 아니라 최근엔 슈퍼박테리아, 광우병 위험성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br/> <br/>지난 2월엔 미국 로널드 레이건 의료센터에서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된 7명 중 2명이 사망하고, 현재 179명의 감염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br/> <br/>또한 최근 영국 국무조정실이 낸 ‘민간 차원 긴급상황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전염병이 발병하면 1회 발병에 20만명이 감염되고 최대 8만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돼 그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br/>  <br/>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진단 및 치료재료의 재사용 원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생검용 포셉의 경우 재처리 후에도 세척과 멸균이 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해외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재사용 기구를 사용할 때 고압증기 멸균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대다수 병원들이 ‘EO(에틸렌옥사이드) 가스’나 고준위 소독만하고 고압증기 멸균을 하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br/> <br/>이로 인해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현재의 소독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국내 연구결과 보고가 있어 슈퍼박테리아와 같은 다양한 원내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다.  <br/> <br/>◆ 8월부터 내시경 일회용 포셉에 건강보험 지원, 환자가 사전에 요구해야 <br/> <br/>대한의사협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위장내시경학회장 등이 적정 수가 산정을 하지 않으면 위장 내시경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카드까지 내놓으며 보건복지부와 오랜 논의 끝에 8월부터 일회용 포셉의 2만2000원 정액수가 품목 신설이 책정됐다. 단, 내시경으로 암 검진을 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 포셉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수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br/> <br/>이와 관련해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는 우리나라 위암 및 대장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검사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한 감염 전파 예방 대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밝히며 일회용 포셉 수가 신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br/> <br/>만약 환자가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때 1회용 겸자를 쓰고 싶으면 의료진에게 사전에 요구해야 한다. 의료 기록에 1회용 겸자 포장지의 제품 고유번호를 붙여 달라고 병원에 요청하면 1회용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br/> <br/>한편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일회용 기기를 재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이익은 환수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 규제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23.txt

제목: 암살, ‘1000만 관객’ 고지가 코앞… 누적 관객수 ‘657만2118명’  
날짜: 2015080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1821416  
본문: 암살, ‘1000만 관객’ 고지가 코앞… 누적 관객수 ‘657만2118명’ <br/>암살,  ‘1000만 관객’ 고지가 코앞… 누적 관객수 ‘657만2118명’ <br/> <br/>영화 '암살'이 1000만 관객 고지를 코앞에 두고 있다. <br/> <br/>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암살'은 개봉 2주차 주말인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154만7105명 관객을 동원하며 주말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암살'의 누적 관객수는 657만2118명으로 집계돼며 저력을 과시했다. <br/> <br/>지난 2일에는 '연평해전'을 꺾고 누적 관객수 619만 명을 돌파하며 올해 한국영화 최고 기록을 세웠다. <br/> <br/>한편 같은 기간 '미션 임파서블'은 198만8685명(누적 246만1760명)으로 1위에, '미니언즈'는 64만7573명(누적 102만4127명)으로 3위에, '인사이드 아웃'은 33만1137명(누적 406만3781명)으로 4위에, '극장판 요괴워치:탄생의 비밀이다냥!'은 6만985명(누적 46만4977명)으로 5위를 기록했다. <br/> <br/>인터넷팀 김현주 기자 k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24.txt

제목: 걸밴드 원더걸스 ‘I Feel You’, 가사 내용 눈길 "3년 동안 이어진 끝없는 암 흑같은 공백..."  
날짜: 20150803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310018120181  
본문: 걸밴드 원더걸스 ‘I Feel You’, 가사 내용 눈길 "3년 동안 이어진 끝없는 암 흑같은 공백..."걸밴드 원더걸스 ‘I Feel You’, 가사 내용 눈길 "3년 동안 이어진 끝없는 암 흑같은 공백..." <br/> <br/>원더걸스 ‘I Feel You’, 가사 내용보니 " <br/> <br/>밴드로 돌아온 원더걸스 수록곡 가사가 화제다. <br/> <br/>원더걸스 수록곡 'Back'의 가사에는 수년동안의 공백기간동안 가진 마음 고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br/> <br/>원더걸스는 오늘(3일) 정오 3집 앨범 ‘REBOOT’ 타이틀곡 ‘I Feel You’의 뮤직비디오, ‘REBOOT’의 전곡 음원을 공개했다. <br/> <br/>이와 함께 수록곡 ‘Back’ 가사가 눈길을 끈다. 해당 곡은 혜림, 유빈, 이토요가 함께 작업한 곡이다. <br/> <br/>‘Back’에는 “누가 뭐래도 나는 나/ 내가 나를 지켜 누가 나를 지켜//3년 동안 이어진 끝없는 암 흑같은 공백/ 다들 물어봐 하긴 하는 거냐 컴백/ 고인됐다 말해 절이라도 해/ 우린 거인됐지 너 밟힘 어쩔래/ 지겹다 지겨워 귀 딱지 앉겠어” 등 자신들의 솔직한 심경을 닮았다. <br/> <br/>원더걸스는 오는 7일 KBS ‘뮤직뱅크’, 8일 ‘MBC ‘쇼! 음악중심’, 9일 SBS’인기가요’ 등 각종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곡 ‘I Feel You’ 무대를 첫 공개한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25.txt

제목: 원더걸스 i feel you, ‘Back’ 가사 눈길 "고인됐다 말해 절이라도 해"  
날짜: 20150803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310018123313  
본문: 원더걸스 i feel you, ‘Back’ 가사 눈길 "고인됐다 말해 절이라도 해"원더걸스 i feel you, ‘Back’ 가사 눈길 "고인됐다 말해 절이라도 해" <br/> <br/>밴드로 돌아온 원더걸스 수록곡 가사가 화제다. <br/> <br/>원더걸스는 오늘(3일) 정오 3집 앨범 ‘REBOOT’ 타이틀곡 ‘I Feel You’의 뮤직비디오, ‘REBOOT’의 전곡 음원을 공개했다. <br/> <br/>이와 함께 수록곡 ‘Back’ 가사가 눈길을 끈다. 해당 곡은 혜림, 유빈, 이토요가 함께 작업한 곡이다. <br/> <br/>‘Back’에는 “누가 뭐래도 나는 나/ 내가 나를 지켜 누가 나를 지켜//3년 동안 이어진 끝없는 암 흑같은 공백/ 다들 물어봐 하긴 하는 거냐 컴백/ 고인됐다 말해 절이라도 해/ 우린 거인됐지 너 밟힘 어쩔래/ 지겹다 지겨워 귀 딱지 앉겠어” 등 자신들의 솔직한 심경을 닮았다. <br/> <br/>원더걸스는 오는 7일 KBS ‘뮤직뱅크’, 8일 ‘MBC ‘쇼! 음악중심’, 9일 SBS’인기가요’ 등 각종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곡 ‘I Feel You’ 무대를 첫 공개한다. <br/> <br/>한편 원더걸스는 3일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REBOOT’ 타이틀곡 'i feel you'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영상을 통해 수영복 패션(?)을 선보이며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26.txt

제목: 건강한 영국 70대 여성, "늙는 건 끔찍해" 스위스서 안락사...안락사 논쟁  
날짜: 20150803  
기자: 우미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3100000805  
본문: 스위스서 안락사건강한 영국 70대 여성, "늙는 건 끔찍해" 스위스서 안락사로 스스로 生 마감 건강한 영국 70대 여성이 "늙는 것이 끔찍하다"며 안락사를 택한 것을 전해졌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에 따르면 건강한 상태이던 런던 북부의 질 패러우(75)가 지난달 21일 스위스의 한 안락사 지원병원에서 스스로 안락사를 택해 생을 마감했다. 그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 간호사 출신으로, 노인 돌보는 법에 대한 2권의 책을 집필하기도 했던 것을 알려졌다. 패러우는 일터에서 수많은 노인들을 보면서 이 같은 말년을 계획한 것으로 죽기 직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생 나이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항상 '난 늙지 않겠다. 늙는 것은 재미없다'고 생각해왔다"며 "(늙는다는 것은) 암울하고 슬프다. 대체로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두 달 전 자신의 블로그에서도 죽음을 결심한 이유를 털어놓은 바 있다. 그녀는 "70살이 될 때까지 난 매우 건강하다고 느꼈고 원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여전히 바쁘고 쓸모 있다고 느꼈다"며 "그러나 대상포진을 심하게 앓고 난 후에 모든 게 바뀌었다. 비록 지금 건강하지만 내 삶이 다했고 죽을 준비가 됐다고 느낀다"고 적었다. 패러우는 스위스로 가기 전에 두 자녀에게 자신의 결심을 알렸으며, 스위스에는 남편과 동행해 라인강변에서 조용히 마지막 만찬을 함께 즐겼다. 장례식 준비도 스스로 모두 마친 것을 전해진다. 지난 5월에는 죽음이 임박하지 않은 영국의 50대 암 환자가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택해 영국내 안락사 논쟁이 가열되기도 했다. 스위스서 안락사를 택한 70대 여성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스위스서 안락사, 논란은 계속될 듯</span>” “<span class='quot0'>스위스서 안락사, 스스로 죽을 권리</span>” “<span class='quot0'>스위스서 안락사, 생명은 고귀한 건데</span>” “<span class='quot0'>스위스서 안락사, 품위있게 죽을 권리도 있어</span>” “<span class='quot0'>스위스서 안락사, 신중해야해</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바이라인 우미선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27.txt

제목: 광복 이후 달라진 한국인의 체형·건강  
날짜: 20150803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310018125109  
본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극적인 정치·사회·경제·문화적 격변을 경험했다. 한국인의 ‘몸’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br/> <br/>평균수명은 1965년 54.9세에서 2013년 81.9세로 27세가 늘어났으며, 영양상태가 좋아지면서 2000년 남성 평균신장은 173.4㎝, 체중은 66.5㎏이 되었다. 1953년과 비교하면 각각 약 7㎝, 8㎏이 커지고 늘었다. 위생 보건환경이 개선되면서 전염성 질환은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암과 신종 감염병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를 기록하는 등 한국인은 피곤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기도 하다. <br/> <br/>1953년부터 2000년까지 남성 평균 신장이 7㎝가 커지는 등 광복 이후 70년 동안 한국인 체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br/>KBS 제공광복 이후 70년 동안 한국인의 몸과 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KBS1은 4∼7일 오후 10시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변해왔나’에서 체형, 암, 전염병,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국인의 건강 변화를 살펴본다. <br/> <br/>4일 첫 방송에서는 한국인 체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본다. 보릿고개를 체험한 세대와 경제적 풍요를 누린 세대 간에 체형 차이는 어떻게 다른지 영양학적·유전학적 요인으로 살펴본다. <br/> <br/>한국인 체형이 서구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실제로 다리 길이와 신체 비율에 생긴 변화를 확인해 본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얼굴형 선호도는 바뀌어 왔고 우리 얼굴도 실제로 갸름해졌다. 그 원인을 근전도(근육의 전기적 활성도)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본다. 1980년대부터 한국인에게 갑자기 찾아온 급격한 변화인 비만까지 70년 동안의 한국인 체형에 대해 짚어본다. <br/> <br/>이밖에 70년간 일어난 한국인 건강의 내외적 변화를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진정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28.txt

제목: 국내 위암 치료의 선구자, 故 김진복 교수 10주기 기념 국제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50803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3100000759  
본문: 故 김진복 교수 10주기 기념 국제 심포지엄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주임교수 서경석)은 7월 31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대한암연구재단(이사장 안윤옥)과 함께 ‘故 김진복 교수 10주기 국제 위암 심포지엄’ 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위암을 포함한 우리나라 종양외과학의 선구자인 고인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심포지엄은 고인을 기리는 서경석 교수의 인사말로 시작해 3개의 학술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각 세션에는 위암 등 종양학 분야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첫 번째 세션에는 종양학의 기초연구를 주제로 암 발생에 있어 후성유전자의 돌연변이 분석(연세대 김영준 교수), 히스톤 변환 등 단백 전환 후 수정(서울대 백성희 교수), 마이크로 RNA를 포함해 위암 발생에 관여하는 각종 단백 표지자의 의의와 임상적용 가능성(일본 히로시마대 야스이 교수) 등이 발표됐다.두 번째 세션에는 중국 상하이 렌지병원 카오 교수, 싱가포르 국립대병원 지미 소 교수, 서울의대 양한광 교수가 최근 위암 치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복강경 ? 기능보존 ? 로봇 수술과 위암 치료의 임상시험 현황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세션의 마지막에는 카톨릭대 박조현 교수가 고인을 기리는 특강을 진행했다.마지막 세션에는 세계위암학회 차기회장인 중국 베이징대 지아푸 지 교수와 일본위암학회장인 일본 암연구병원 사노 박사가 위암 연구와 치료의 국제 협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서울의대 방영주 교수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면역 치료의 위암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심포지엄 후에는 고인의 옛 모습과 업적을 영상, 추모사 등을 통해 돌아보는 행사가 열렸다.故 김진복 교수는 위암 수술의 세계적 권위자로 우리나라 위암 치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위암학회를 창립했으며 대한암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암협회 등의 회장을 역임했다. 국제소화기외과학회, 국제위암학회, 아시아임상종양학회 등 다양한 국제 학술대회의 국내 개최를 주도해 우리나라 위암치료의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29.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간세포암 절제수술서 복강경 수술 긍정적 영향 밝혀”  
날짜: 2015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3100000693  
본문: 〔스포츠월드=윤정한 기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 한호성 교수팀(윤유석, 조재영, 최영록 교수)이 복강경 간세포암 절제수술이 기존 간암 개복수술보다 환자 삶의 질에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세계 최초로 보고했다. 배에 몇 개의 절개창만을 내어 암세포를 절제하는 방식인 ‘복강경 수술’은 기존 개복수술에 비해 수술 후 재원기간이 더 짧았고 출혈, 상처와 염증, 일시적 간 기능부전 등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어 수술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그간 간세포에 발생한 종양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간절제술은 외과 수술 중에서도 까다롭게 여겨졌다. 갈비뼈가 간을 덮고 있기 때문에 여느 개복술보다 위험했고, 수술 중 과다출혈 위험도도 뒤따랐다.하지만 한호성 교수가 세계 최초로 2006년 복강경 우후구역 간엽 절제술, 2009년 복강경 중앙 이구역 간엽 절제술을 성공하면서 간암 치료에 복강경 수술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더불어 2006년 세계 최초로 소아환자에게도 복강경 간절제술을 적용해 세계적인 학회지에 소개됐다. 또한 연구팀은 최근 정부 주관 프로젝트에서 지난 10년 간 시행한 간세포암 절제수술에 대해 복강경 수술로 절제한 경우와 개복수술로 절제한 경우를 각각 88례씩 일대 일로 매칭,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및 장기생존율을 비교했다.간세포암의 절제는 주요혈관에 인접한 경우를 포함해 간의 모든 부위에서 이뤄졌다. 복강경 수술을 했을 때 수술 후 재원기간이 8일로 개복수술 후 재원기간인 10일보다 2일이나 짧았다. 합병증 발생률도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군에서는 12.5%였으나,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군은 20.4%에 달했다. 복강경 수술은 합병증의 위험과 통증이 적고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므로 개복수술에 비해 재원기간이 짧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아울러 암 수술 환자를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6.4%였다. 개복 수술을 환자는 73.2%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무병생존율 역시 복강경 수술 환자(44.2%)에서 개복수술 환자(41.2%)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한호성 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복강경 간절제 수술의 안전성과 치료효과가 개복수술과 같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복강경 간절제술이 더욱 널리 보급됨으로써 많은 환자에게서 수술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수술 결과를 선사해 삶의 질 향상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전했다.한편, 분당서울대병원 간암센터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외과 포럼을 개최해 일본 도쿄대학, 중국 베이징 대학, 대만 국립대학,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병원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외과 교수들과 복강경 수술법을 공유하고, 간암의 진단 및 수술에서 앞선 기술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강경 간절제술에 대한 기준 확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복강경을 이용한 간암 및 이식수술에서 여러 건의 세계 최초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연구 결과는 간질환 분야 유수의 학술지인 Journal of Hepatology (영향지수 IF : 11.336)에 게재됐다.yun0086@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30.txt

제목: 내시경 일회용 의료기기, 이달부터 보험 지원 가능  
날짜: 20150803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3100000819  
본문:  이달부터 건강보험에서 내시경 일회용 포셉에 대해 상한금액 2만2000원 보험 지원이 가능하게 되자 이와 관련해 병원에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메르스로 원내 감염에 더욱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내시경 검사 시 일회용 기구 사용에 대한 요청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병원 관계들의 설명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체 내부에 직접 기구를 삽입하는 내시경 검사에서 종양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나오면 해당 병변 부위의 조직을 떼어낸다. 그때 사용하는 작은 가위처럼 생긴 도구가 바로 ‘포셉(Forceps)’ 이다.포셉은 사용 후 소독을 해도 생체조직 찌꺼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질병이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아 고위험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과 달리, 고위험 재사용 기구의 엄격한 소독 지침이나 재사용 금지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또한 이전까지는 건강보험이 일회용 포셉 구입 비용을 병원에 지원하지 않았고, 재사용 포셉 소독에 대한 철저한 감염 관리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지난 2013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재사용 포셉을 250회에서 최대 375회까지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 한해 1200만명이 받는 내시경 검사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를 받는 사람 수는 1200만명으로 그 중 369만명인 약 30%가 조직 검사를 받는다. 그런데 내시경 조직검사를 받는 사람 중 자신이 검사를 받는 의료기기가 얼마나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고 이를 명시한 의료기관들도 극소수에 불과하다.고위험 의료기기는 무균의 조직 혹은 혈관내에 주로 사용돼 2차 감염 또는 B형·C형 감염, 에이즈, 대장균 등의 집단 감염 위험뿐만 아니라 최근엔 슈퍼박테리아, 광우병 위험성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지난 2월엔 미국 로널드 레이건 의료센터에서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된 7명 중 2명이 사망하고, 현재 179명의 감염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또한 최근 영국 국무조정실이 낸 ‘민간 차원 긴급상황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전염병이 발병하면 1회 발병에 20만명이 감염되고 최대 8만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돼 그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진단 및 치료재료의 재사용 원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생검용 포셉의 경우 재처리 후에도 세척과 멸균이 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해외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재사용 기구를 사용할 때 고압증기 멸균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대다수 병원들이 ‘EO(에틸렌옥사이드) 가스’나 고준위 소독만하고 고압증기 멸균을 하지 않는다고 밝혀졌다.이로 인해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현재의 소독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국내 연구결과 보고가 있어 슈퍼박테리아와 같은 다양한 원내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다. ◆ 8월부터 내시경 일회용 포셉에 건강보험 지원, 환자가 사전에 요구해야대한의사협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위장내시경학회장 등이 적정 수가 산정을 하지 않으면 위장 내시경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카드까지 내놓으며 보건복지부와 오랜 논의 끝에 8월부터 일회용 포셉의 2만2000원 정액수가 품목 신설이 책정됐다. 단, 내시경으로 암 검진을 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 포셉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수가가 책정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는 우리나라 위암 및 대장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검사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한 감염 전파 예방 대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밝히며 일회용 포셉 수가 신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만약 환자가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때 1회용 겸자를 쓰고 싶으면 의료진에게 사전에 요구해야 한다. 의료 기록에 1회용 겸자 포장지의 제품 고유번호를 붙여 달라고 병원에 요청하면 1회용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일회용 기기를 재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이익은 환수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 규제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31.txt

제목: 서울시민 평균키 50년 새 男 10.2㎝·女 4.4㎝ 커졌다  
날짜: 2015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3100000684  
본문: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을 혼내려다 자신보다 훨씬 큰 키와 덩치를 보고 그냥 지나친 경우가 있는 시민이라면 다음 통계를 보면 공감할 것이다.3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광복 70년, 서울은 어떻게 변했을까? 보건·의료' 편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1965년 서울 남성(17세 기준)의 평균키는 163.7cm, 몸무게는 54.3kg이었다.그러나 약 50년 후인 2013년에 평균키는 173.9cm로 10.2cm나 커졌으며, 몸무게는 69.6kg로 15.3kg이 늘었다.여성 역시 같은 기간 평균키는 156.9cm에서 161.3cm로 4.4cm, 몸무게는 51kg에서 56.7kg으로 5.7kg 증가했다.주요 사망원인도 60여 년 새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1947년 주요 사망원인으로는 폐렴(12.6%)과 유아병(1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각종 암(31%)과 뇌혈관질환(8.7%), 심장질환(7.9%) 순으로 나타났다.또 1983년과 대비해 서울시민의 사망원인으로 암, 자살, 당뇨병은 최대 16%포인트까지 증가했다. 반면 뇌혈관질환과 간질환, 운수사고 등은 조금씩 감소했다.기대수명은 1942년에는 남자가 42.8세, 여자가 47.1세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각각 78.5세, 85세로 크게 늘었다.한편 서울의 출생아 수는 1947년 인구 1천명당 37.3명에서 2013년 8.4명으로 약 4분의 1로 줄었다.1947년 영아 사망률은 1천명당 83.4명으로 출생아 12명 중 1명꼴로 1세 이전에 사망했지만,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영아 1천명당 3명만이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생장소는 1947년에는 99.3%가 집이었으나, 2013년에는 98.8%가 병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32.txt

제목: 서울男, 지난 50년간 키 10cm· 체중 15kg 늘어나  
날짜: 20150803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3100000760  
본문: 지난 50년 사이 서울시 남성의 키가 평균 10cm, 몸무게는 15kg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광복 70년, 서울은 어떻게 변했을까? 보건·의료' 편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지난 1965년 서울 남성(17세 기준)의 평균키는 163.7cm, 몸무게는 54.3kg이었다.그러나 2013년 평균키는 173.9cm로 10.2cm나 커졌으며 몸무게는 69.6kg로 15.3kg이 늘었다.여성들도 같은 기간 평균키가 156.9cm에서 161.3cm로 4.4cm, 몸무게는 51kg에서 56.7kg으로 5.7kg 증가했다.주요 사망원인도 60여 년 사이 큰 변화를 겪었다. 1947년 주요 사망원인으로는 폐렴(12.6%)과 유아병(1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각종 암(31%)과 뇌혈관질환(8.7%), 심장질환(7.9%) 순으로 나타났다.1983년과 대비해 서울시민의 사망원인으로 암, 자살, 당뇨병은 최대 16%포인트까지 증가했다. 반면 뇌혈관질환과 간질환, 운수사고 등은 조금씩 감소했다.기대수명은 1942년에는 남자가 42.8세, 여자가 47.1세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각각 78.5세, 85세로 크게 늘었다.서울의 출생아 수는 1947년 인구 1000명당 37.3명에서 2013년 8.4명으로 4분의 1가량 줄었다.1947년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83.4명으로 출생아 12명 중 1명꼴로 1세 이전에 사망했다.지금은 영아 1000명당 3명만이 1세 이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생장소는 1947년에는 99.3%가 집이었으나, 2013년에는 98.8%가 병원으로 변화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33.txt

제목: 암 투병 친구위해 소녀는 "머리를 올리고 싶다"고 거짓말했다  
날짜: 20150801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195156462  
본문: 리비와 에이든.리비의 꿈은 라푼젤이었다. 소녀는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길렀지만 친구를 위해 그 꿈을 포기하고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리고 “머리를 올리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br/> <br/>최근 일본 허핑턴포스트와 ABC방송은 암 투병 중인 친구 에이든 셀렉(7)을 위해 애지중지 길렀던 머리를 선뜻 내어준 리비 터커 스피어스(9)의 따뜻한 마음을 소개해 어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줬다. <br/> <br/>지난 4월 28일. 배가 아파 병원을 찾은 에이든은 뜻밖에 “<span class='quot0'>오는 12월까지 치료를 받아 한다</span>”는 의사의 말과 함께 신장암 진단을 받았다. <br/> <br/>항암치료는 어린 에이든에게 큰 시련이었다. 치료 시작 후 단 2주 만에 머리카락은 다 빠져버렸고 몸은 삐쩍 말라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됐다. <br/> <br/>얼마나 아팠을까. 에이든은 그렇게 병과 힘든 싸움을 해야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리비도 마음 아팠다. <br/> <br/>병문안을 다녀온 리비는 엄마 셜리에게 “<span class='quot1'>에이든에게 머리카락을 주고싶다</span>”고 말했다. <br/> <br/>처음 셜리는 “<span class='quot2'>에이든에게 머리카락을 줄 수 없다</span>”며 리비를 설득했지만 리비는 “머리를 올리고 싶다”며 “<span class='quot2'>에이든은 사랑스러운 머리카락이 없어져 외로울 거라 말했다</span>” <br/> <br/>그런 아이의 따뜻한 마음을 듣자 엄마는 가슴이 메어와 자선단체 ‘리틀 프린세스 트러스트’에 연락해 리비의 뜻을 돕기로 했다. <br/> <br/>그렇게 리비는 아끼던 금발 머리카락 28cm 잘라 단체에 보냈고 에이든의 사연을 담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치료비를 모으고 있다. (기부페이지 crowdfunding.justgiving ‘libbylocks4aiden’) <br/> 병문안을 다녀온 리비는 엄마를 설득해 아끼던 금발 머리카락 28cm 잘라다.에이든의 어머니는“리비가 병원에 찾아와 머리카락이 없어진 에이든을 보고 몹시 화가 나 어떤 일이라도 돕고 싶다고 말했다"며“리비는 사랑이 가득한 우정을 보여줬다” 말하곤 이내 감정이 벅차올랐다.  <br/>리비의 꿈은 라푼젤이었다. 하지만 친구를 위해 그 꿈을 포기하고 머리카락을 잘랐다. 소녀는 머리를 자르며 “머리를 올리고 싶다”고 하얀 거짓말을 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허핑턴포스트, ABC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34.txt

제목: 암 투병 친구위해 소녀는 "머리를 올리고 싶다"고 거짓말했다  
날짜: 20150801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110018106322  
본문: 리비와 에이든.리비의 꿈은 라푼젤이었다. 소녀는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길렀지만 친구를 위해 그 꿈을 포기하고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리고 “머리를 올리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br/> <br/>최근 일본 허핑턴포스트와 ABC방송은 암 투병 중인 친구 에이든 셀렉(7)을 위해 애지중지 길렀던 머리를 선뜻 내어준 리비 터커 스피어스(9)의 따뜻한 마음을 소개해 어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줬다. <br/> <br/>지난 4월 28일. 배가 아파 병원을 찾은 에이든은 뜻밖에 “<span class='quot0'>오는 12월까지 치료를 받아 한다</span>”는 의사의 말과 함께 신장암 진단을 받았다. <br/> <br/>항암치료는 어린 에이든에게 큰 시련이었다. 치료 시작 후 단 2주 만에 머리카락은 다 빠져버렸고 몸은 삐쩍 말라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됐다. <br/> <br/>얼마나 아팠을까. 에이든은 그렇게 병과 힘든 싸움을 해야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리비도 마음 아팠다. <br/> <br/>병문안을 다녀온 리비는 엄마 셜리에게 “<span class='quot1'>에이든에게 머리카락을 주고싶다</span>”고 말했다. <br/> <br/>처음 셜리는 “<span class='quot2'>에이든에게 머리카락을 줄 수 없다</span>”며 리비를 설득했지만 리비는 “머리를 올리고 싶다”며 “<span class='quot2'>에이든은 사랑스러운 머리카락이 없어져 외로울 거라 말했다</span>” <br/> <br/>그런 아이의 따뜻한 마음을 듣자 엄마는 가슴이 메어와 자선단체 ‘리틀 프린세스 트러스트’에 연락해 리비의 뜻을 돕기로 했다. <br/> <br/>그렇게 리비는 아끼던 금발 머리카락 28cm 잘라 단체에 보냈고 에이든의 사연을 담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치료비를 모으고 있다. (기부페이지 crowdfunding.justgiving ‘libbylocks4aiden’) <br/>병문안을 다녀온 리비는 엄마를 설득해 아끼던 금발 머리카락 28cm 잘라다.에이든의 어머니는“리비가 병원에 찾아와 머리카락이 없어진 에이든을 보고 몹시 화가 나 어떤 일이라도 돕고 싶다고 말했다"며“리비는 사랑이 가득한 우정을 보여줬다” 말하곤 이내 감정이 벅차올랐다.  <br/>리비의 꿈은 라푼젤이었다. 하지만 친구를 위해 그 꿈을 포기하고 머리카락을 잘랐다. 소녀는 머리를 자르며 “머리를 올리고 싶다”고 하얀 거짓말을 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허핑턴포스트, ABC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35.txt

제목: 복강경 간암수술 안전성·치료효과 개복수술과 같아  
날짜: 2015073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73820690  
본문: 사진=분당서울대병원 <br/>복강경 간세포암 절제수술의 안전성과 치료효과가 기존에 개복수술로 간암수술을 진행하는 것과 같고 환자 삶의 질에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국내 의료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보고됐다. <br/> <br/>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 한호성 교수팀(윤유석, 조재영, 최영록 교수)은 지난 10년 간 시행한 간세포암 절제수술에 대해 복강경 수술과 개복수술을 일대 일로 매칭 해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및 장기생존율을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31일 밝혔다. <br/> <br/>'복강경 수술'은 배를 크게 열지 않고 몇 개의 절개창만을 내어 암세포를 절제하는 방식으로, 기존 개복수술에 비해 수술 후 재원기간이 더 짧았음은 물론 출혈, 상처와 염증, 일시적 간 기능부전 등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어 수술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그동안 간세포에 발생한 종양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간절제술은 외과 수술 중에서 까다로운 수술로 여겨졌다. 갈비뼈가 간을 덮고 있어 다른 개복술 보다 훨씬 더 큰 절개가 필요 하고, 수술 중 과다출혈 위험도 높기 때문에 과거에 간암 절제술은 대부분 개복수술을 통해 시행했다. <br/> <br/>하지만 한호성 교수가 세계 최초로 지난 2006년 복강경 우후구역 간엽 절제술, 2009년 복강경 중앙 이구역 간엽 절제술을 성공하면서 간암 치료에 복강경 수술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br/> <br/>더불어 지난 2006년 세계 최초로 소아환자에서도 복강경 간절제술 시행 사례를 세계적인 학회지에 소개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받았고 세계적으로 복강경 수술을 리드하고 있다. <br/> <br/>그리고 최근 정부 주관 프로젝트로 선정돼 진행한 간암 환자에서의 복강경 수술과 개복수술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 10년 간 시행한 간세포암 절제수술에 대해 복강경 수술로 절제한 경우와 개복수술로 절제한 경우를 각각 88례씩 일대 일로 매칭 해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및 장기생존율을 비교했다. <br/> <br/>간세포암의 절제는 주요혈관에 인접한 경우를 포함해서 간의 모든 부위에서 이뤄졌으며 복강경 수술을 했을 때 수술 후 재원기간이 8일로 개복수술 후 재원기간인 10일에 비해 더 짧았다. <br/> <br/>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도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군에서는 12.5%로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군의 20.4%에 비해 훨씬 낮았다. 복강경 수술은 합병증의 위험과 통증이 적고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므로 개복수술에 비해 재원기간이 짧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br/> <br/>아울러 암 수술 환자를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5년 생존율이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는 76.4%였으며, 개복 수술을 환자에서는 73.2%의 생존율을 보였다. 무병생존율 역시 복강경 수술 환자(44.2%)에서 개복수술 환자(41.2%)로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 한호성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복강경 간절제 수술의 안전성과 치료효과가 개복수술과 같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복강경 간절제술이 더욱 널리 보급됨으로써 많은 환자에게서 수술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수술 결과를 선사해 삶의 질 향상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r/> <br/>이번 연구 결과는 간질환 분야 유수의 학술지인 Journal of Hepatology (영향지수 IF : 11.336)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36.txt

제목: 암살 500만 돌파, 전지현 도시락 500개 기부 공약 지킨다 '역시 전지현'  
날짜: 2015073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73626995  
본문: 암살 500만 돌파, 전지현 도시락 500개 기부 공약 지킨다 '역시 전지현' <br/>암살 500만 돌파, 전지현 도시락 500개 기부 공약 지킨다 '역시 전지현' <br/> <br/>암살이 관객 500만을 돌파했다. <br/> <br/>영화 '암살'이 개봉 9일째인 30일 33만5008명의 관객을 동원, 500만을 돌파했다. <br/> <br/>이에 전지현이 '도시락 500개를 불우이웃에게 전하겠다'는 500만 흥행 공약을 실천할 예정이다. <br/> <br/>앞서 전지현은 지난 7월 7일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암살의 밤' 레드카펫 쇼케이스에서 "500만 관객 돌파 시 자선단체에 도시락을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br/>  <br/>한편 '암살' 측은 오는 8월 3일 2015년 여름 희망나눔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500개의 도시락을 전달할 예정이다. <br/> <br/>암살 500만 돌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암살 500만 돌파, 멋지다", "암살 500만 돌파, 대단해", "암살 500만 돌파, 나도 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37.txt

제목: 암살 500만 돌파, 전지현 어떤 공약 내세웠나 봤더니... '통 크네'  
날짜: 2015073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73637086  
본문: 암살 500만 돌파, 전지현 어떤 공약 내세웠나 봤더니... '통 크네' <br/>암살 500만 돌파, 전지현 어떤 공약 내세웠나 봤더니... '통 크네' <br/> <br/>암살이 관객 500만을 돌파한 가운데 전지현의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영화 '암살'이 개봉 9일째인 30일 33만5008명의 관객을 동원, 500만을 돌파했다. <br/> <br/>이에 전지현이 '도시락 500개를 불우이웃에게 전하겠다'는 500만 흥행 공약을 실천할 예정이다. <br/> <br/>앞서 전지현은 지난 7월 7일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암살의 밤' 레드카펫 쇼케이스에서 "500만 관객 돌파 시 자선단체에 도시락을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br/>  <br/>한편 '암살' 측은 오는 8월 3일 2015년 여름 희망나눔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500개의 도시락을 전달할 예정이다. <br/> <br/>암살 500만 돌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암살 500만 돌파, 재밌어", "암살 500만 돌파, 역시 전지현", "암살 500만 돌파, 마음도 이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38.txt

제목: 암 투병 친구위해 소녀는 "머리를 올리고 싶다"고 거짓말했다  
날짜: 2015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31100000621  
본문: 리비와 에이든.리비의 꿈은 라푼젤이었다. 소녀는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길렀지만 친구를 위해 그 꿈을 포기하고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리고 “머리를 올리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최근 일본 허핑턴포스트와 ABC방송은 암 투병 중인 에이든 셀렉(7)을 위해 애지중지 길렀던 머리를 선뜻 내어준 리비 터커 스피어스(9)의 따뜻한 마음을 소개해 어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줬다.지난 4월 28일. 배가 아파 병원을 찾은 에이든은 뜻밖에 “<span class='quot0'>오는 12월까지 치료를 받아 한다</span>”는 의사의 말과 함께 신장암 진단을 받았다.항암치료는 어린 에이든에겐 성인의 배 이상으로 힘들었다. 항암치료 시작 후 단 2주 만에 머리카락은 다 빠져버렸고 몸은 삐쩍 말라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됐다.얼마나 아팠을까. 에이든은 그렇게 병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리비도 마음 아팠다.병문안을 다녀온 리비는 엄마 셜리에게 “<span class='quot0'>에이든에게 머리카락을 주고싶다</span>”고 말했다. 처음 셜리는 “<span class='quot1'>에이든에게 머리카락을 줄 수 없다</span>”며 리비를 설득했지만 리비는 “머리를 올리고 싶다”며 “<span class='quot1'>에이든의 사랑스러운 머리카락이 없어져 외로울 거라 말했다</span>”그런 아이의 따뜻한 마음을 듣자 엄마는 가슴이 메어와 에이든에게 머리카락을 줄 수 있는 단체 ‘리틀 프린세스 트러스트’에 연락을 취해 리비의 뜻을 돕기로 했다.그렇게 리비는 아끼던 금발 머리카락 28cm 잘라 단체에 보냈고, 에이든의 사연을 담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가발과 치료비를 모으고 있다. (기부페이지 crowdfunding.justgiving ‘libbylocks4aiden’) 병문안을 다녀온 리비는 엄마를 설득해 아끼던 금발 머리카락 28cm 잘라다.에이든의 어머니는“리비가 병원에 찾아와 머리카락이 없어진 에이든을 보고 몹시 화가 나 어떤 일이라도 돕고 싶다고 말했다"며“리비는 사랑이 가득한 우정을 보여줬다” 말하곤 이내 감정이 벅차올랐다. 리비의 꿈은 라푼젤이었다. 하지만 친구를 위해 그 꿈을 포기하고 머리카락을 잘랐다. 소녀는 머리를 자르며 “머리를 올리고 싶다”고 하얀 거짓말을 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사진= 허핑턴포스트, ABC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39.txt

제목: 오바마,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개발 명령에 서명  
날짜: 2015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31100000420  
본문: 오바마 대통령이 202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개발 명령을 내렸다고 영국 BBC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오바마가 개발 명령을 내린 슈퍼컴퓨터는 현존하는 슈퍼 컴퓨터보다 20배는 빠를 것이다. 현재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중국에 있다.미국 국립전략컴퓨팅구상(NCSI)은 현 슈퍼컴퓨터보다 현저히 빠른 속도인 초당 퀸틸리언(10의 18제곱)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개발을 위한 연구 조사에 착수했다.새로운 슈퍼컴퓨터는 복합 시뮬레이션 모델, 과학 연구, 국가 안보 프로젝트, 핵물리학, 핵융합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더욱 정확한 날씨 정보와 엑스레이 이미지를 통한 정확한 암 진단을 하는데 유용히 활용될 수 있다.이러한 기능을 가진 슈퍼컴퓨터는 엑사스케일(exascale)급 기계라 불리기도 한다.리차드 켄웨이 에딘버러 대학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슈퍼컴퓨터 계획은 "딱 맞는" 전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문한 슈퍼컴퓨터는 새로운 하드웨어와 향상된 빅데이터 분석을 개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켄웨이는 또한 새 슈퍼컴퓨터는 개인화된 약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켄웨이 교수는 "오늘날 약품은 보통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특정 몇몇에게는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말하며 슈퍼컴퓨터는 "개개인의 생활방식과 게놈에 맞춘 약품을 디자인하며" 앞서 말한 결점을 보안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마크 파슨 에딘버러 병렬 컴퓨팅 센터(EPCC) 관계자는 슈퍼컴퓨터는 장기적 기후 모델링에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기후학자들은 현재 지구의 기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한편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타이엔헤-2 이며 중국 광저우의 국립컴퓨터센터(NCC)에 있다. 33.86 페타플롭(PFLOPS, 초당 10의 15 제곱. 즉 1초당 1000조 번의 연산처리)으로 실행되며 미국에 있는 것보다 거의 2배는 빠르다.파슨은 "미국이 중국과의 슈퍼컴퓨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켄웨이와 파슨은 엑사스케일급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며 수년 간의 연구 개발이 필요로 할 것이라 말했다.파슨에 따르면 그 중 가장 큰 장애물은 컴퓨터 구성요소를 더욱 전력효율적(power efficeient)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더라도 필요한 전기량은 막대할 것이다.파슨은 "약 60㎽의 전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연간 9360만 달러(약 1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측정된다"고 덧붙였다.최근 엑사스케일급 슈퍼컴퓨터 개발을 착수한 것은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다. IBM과 네덜란드 라디오천문학연구소(ASTRON), 흐로닝겐 대학교도 각각 엑사스케일급 슈퍼컴퓨터를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40.txt

제목: “꽃과 나무와 물이 있었기에… 이렇게나마 겨우 늙었다”  
날짜: 20150731  
기자: 조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31100000051  
본문: 경남 하동군 악양면 동매길 지리산 자락에 홀로 사는 박남준(58) 시인이 등단 30년을 넘기면서 이를 기념하는 신작 시집 ‘중독자’(펄북스)를 펴냈다. 자연 속에서 시를 ‘살아내는’ 시인으로도 호가 높은 그이의 일곱 번째 시집에서는 꽃과 새와 물 같은 대상을 관찰하는 시선에서 더 나아가 그것들과 일체가 되는 경지를 자주 보여준다. 그것은 시인이 바라는 ‘관음(觀音)’의 상태이기도 하다. “<span class='quot0'>하루해가 뉘엿거린다/ 깜박깜박 별빛만이 아니다/ 어딘가 아주 멀리 두고 온 정신머리가 있을 것인데/ 그래 바람이 왔구나 처마 끝 풍경소리/ 이쯤 되면 나는 관음으로 고요해져야 하는데/ 귀뚫어라 귀뚜라미 뜰 앞에 개울물 소리/ 가만있자 마음은 어디까지 흘러갔나</span>”(‘마루에 앉아 하루를 관음하네’)악양 토담집 마루에 앉아 하루 내내 구름과 꽃과 개울물을 보며 매미와 나비와 별빛까지 아우르는 일상이 담긴 시편이다. 자연이 보여주는 위로의 풍경 속에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해탈의 경지까지 갈 법도 하지만, 마음은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어디쯤 가 있는지 종잡기 쉽지 않을 때가 더 많다. 그리하여 봄날의 아지랑이를 보면서도 “어쩌면 치미는 슬픔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나마 겨우 늙었다”는 한숨 같은 안도도 한다. 시인은 “<span class='quot1'>가슴에 병을 얻은 쯤이야/ 인생은 이미 덤이었다며 애써 무심</span>”하려고 하고 “<span class='quot1'>생의 지도에 점을 찍을 점정의 아침이/ 그의 숨 끝에 일어나고 흘러간다</span>”고 짐짓 초연하고자 한다. 이 같은 다짐은 그의 주변을 둘러싼 생명들의 싱싱하고 질긴 힘에 힘입은 바 크다.“똥거름을 내고 호박씨 심었다/ 호박과 함께 토마토 올라왔다/ 그러니까 작년에 먹은 토마토가/ 으르릉 그르릉 이빨 사이를 요리저리/ 위장과 창자를 거쳐/ 한마디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거시기를 통해 빠져나왔다는 것인데/ 호박을 키우기 위해 뽑아내던 토마토 어린 것들/ 두어 개 남겨놓는다”(‘강력한 토마토’)똥거름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이라니. 이처럼 강력한 토마토의 의지 앞에서 인간의 근심 따위야 한갓 초라한 사치로 전락할 지경이다. 시인의 세상에서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도 예사롭지 않다. 도라지꽃이 출렁거리고 구절초꽃이 휘청거릴 때 시인은 “<span class='quot1'>꽃 체중계들 바늘 끝이 간지럽다고 몸살을 친다</span>”고 썼다. 가볍다고 무겁지 않은 건 아니다. ‘물레나물꽃등’에서는 “햇살을 담아 꽃잎물레에 돌리는” 바람개비와 “곁을 떠난 사랑 돌아오는 길/ 허방을 짚을까 봐/ 까치발을 들고 켜 든 산비탈/ 샛노랗게 불 밝힌 꽃다발 전등”도 본다. 이런 노래는 어떤가.경남 하동군 악양면 지리산 자락 토담집에 홀로 사는 박남준 시인. 박 시인은 “<span class='quot2'>이 참혹한 시대에 30년이나 시를 쓰면서 살아왔다니 진땀이 난다</span>”면서 “<span class='quot2'>나이가 들어가면서 언어를 마음 가는 대로 부려도 크게 부끄럽지는 않겠다는 믿음이 생겨 다행</span>”이라고 말했다.“<span class='quot2'>저/ 함박눈/ 산/ 너머로부터 달려온/ 당신이 띄운 편지라는/ 걸/ 안다 맑고 따뜻한 눈물로/ 쓴/ 곱은 손가락 호∼ 불며 써내려/ 간/ 흰 겨울편지</span>”(‘내 손등에 떨어지는 그대의’)손등에 떨어지는 함박눈, 그대의 흰 겨울편지, 산 너머로부터 달려온 맑고 따뜻한, 눈물로 쓴 편지, 당신이 띄운 편지. 단순 소박하지만 함박눈의 포근한 느낌으로 가슴을 쓸어주는 유행가 같은 절창이다. 아무나 절절한 유행가를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시인의 시선은 주로 자연에 머물지만 사람살이의 풍경도 떠나지 않는다.트럭 행상이 외치는 “홀애비 사세요 홀애비” 소리에 홀린 이야기는 익살스럽고, 가난한 시인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한사코 콩나물국밥값을 받지 않겠다던 전주 남부시장 장뻘국밥집 아주머니 이야기는 애잔하다. 그 아주머니, 암으로 먼저 떠났으니 시인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는 “이건 살인사건이다”고 결연히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림 시인은 이번 시집을 두고 “<span class='quot3'>어쩐지 이미 이 시인은 자연 속에서 자연에 순응해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자연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3'>그래서 이 시집 속의 시들은 봄날 산길을 가다가 만나는 향기 진한 꽃처럼 아름답고, 숲속 깊은 데서 마주치는 오래된 신목(神木)처럼 섬뜩하다</span>”고 상찬했다. 등단 30년을 기념하는 이 신작 시집은 진주문고의 인문출판 브랜드 ‘펄북스’ 첫 책으로 나왔다. 박남준은 “<span class='quot4'>지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몫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시집을 내는 이들에게 왜 지역에 있는 출판사에서 책을 냈느냐고 책망을 했던 낯 뜨거운 말빚을 갚기 위해, 이 참혹한 시대에 지역에서 인문학 출판사를 하겠다는 청맹과니 같은 소리를 하는 서점 주인에게 원고를 넘겼다</span>”고 ‘시인의 말’에 썼다.글·사진=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41.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복강경 간암수술 장기추적결과 세계 최초로 입증  
날짜: 20150731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31100000633  
본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암센터 한호성 교수팀(윤유석, 조재영, 최영록 교수)이 복강경 간세포암 절제수술이 기존에 개복수술로 간암수술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환자 삶의 질에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세계 최초로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복강경 수술'은 배를 크게 열지 않고 몇 개의 절개창만을 내어 암세포를 절제하는 방식으로, 기존 개복수술에 비해 수술 후 재원기간이 더 짧았음은 물론, 출혈, 상처와 염증, 일시적 간 기능부전 등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어 수술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동안 간세포에 발생한 종양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간절제술은 외과 수술 중에서 까다로운 수술로 여겨졌다. 갈비뼈가 간을 덮고 있어 다른 개복술 보다 훨씬 더 큰 절개가 필요 하고, 수술 중 과다출혈 위험도 높기 때문에 과거에 간암 절제술은 대부분 개복수술을 통해 시행했다.하지만 한호성 교수가 세계 최초로 2006년 복강경 우후구역 간엽 절제술, 2009년 복강경 중앙 이구역 간엽 절제술을 성공하면서 간암 치료에 복강경 수술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더불어 2006년 세계 최초로 소아환자에서도 복강경 간절제술 시행 사례를 세계적인 학회지에 소개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받았고 세계적으로 복강경 수술을 리드하고 있다.그리고 최근 정부 주관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진행한 간암 환자에서의 복강경 수술과 개복수술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 10년 간 시행한 간세포암 절제수술에 대하여 복강경 수술로 절제한 경우와 개복수술로 절제한 경우를 각각 88례씩 일대 일로 매칭 하여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및 장기생존율을 비교했다.간세포암의 절제는 주요혈관에 인접한 경우를 포함해서 간의 모든 부위에서 이루어졌으며 복강경 수술을 했을 때 수술 후 재원기간이 8일로 개복수술 후 재원기간인 10일에 비해 더 짧았다.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도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군에서는 12.5%로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군의 20.4%에 비해 훨씬 낮았다. 복강경 수술은 합병증의 위험과 통증이 적고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므로 개복수술에 비해 재원기간이 짧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아울러 암 수술 환자를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5년 생존율이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는 76.4%였으며, 개복 수술을 환자에서는 73.2%의 생존율을 보였다. 무병생존율 역시 복강경 수술 환자(44.2%)에서 개복수술 환자(41.2%)로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 한호성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복강경 간절제 수술의 안전성과 치료효과가 개복수술과 같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복강경 간절제술이 더욱 널리 보급됨으로써 많은 환자에게서 수술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수술 결과를 선사해 삶의 질 향상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분당서울대병원 간암센터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외과 포럼을 개최하여 일본 도쿄대학, 중국 베이징 대학, 대만 국립대학,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병원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외과 교수들과 복강경 수술법을 공유하고, 간암의 진단 및 수술에서 앞선 기술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복강경 간절제술에 대한 기준 확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복강경을 이용한 간암 및 이식수술에서 여러 건의 세계 최초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연구 결과는 간질환 분야 유수의 학술지인 Journal of Hepatology (영향지수 IF : 11.336)에 게재되었다.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42.txt

제목: 복강경 간암수술 안전성·치료효과 개복수술과 같아  
날짜: 20150731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31100000747  
본문: 사진=분당서울대병원복강경 간세포암 절제수술의 안전성과 치료효과가 기존에 개복수술로 간암수술을 진행하는 것과 같고 환자 삶의 질에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국내 의료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보고됐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 한호성 교수팀(윤유석, 조재영, 최영록 교수)은 지난 10년 간 시행한 간세포암 절제수술에 대해 복강경 수술과 개복수술을 일대 일로 매칭 해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및 장기생존율을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31일 밝혔다.'복강경 수술'은 배를 크게 열지 않고 몇 개의 절개창만을 내어 암세포를 절제하는 방식으로, 기존 개복수술에 비해 수술 후 재원기간이 더 짧았음은 물론 출혈, 상처와 염증, 일시적 간 기능부전 등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어 수술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동안 간세포에 발생한 종양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간절제술은 외과 수술 중에서 까다로운 수술로 여겨졌다. 갈비뼈가 간을 덮고 있어 다른 개복술 보다 훨씬 더 큰 절개가 필요 하고, 수술 중 과다출혈 위험도 높기 때문에 과거에 간암 절제술은 대부분 개복수술을 통해 시행했다.하지만 한호성 교수가 세계 최초로 지난 2006년 복강경 우후구역 간엽 절제술, 2009년 복강경 중앙 이구역 간엽 절제술을 성공하면서 간암 치료에 복강경 수술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더불어 지난 2006년 세계 최초로 소아환자에서도 복강경 간절제술 시행 사례를 세계적인 학회지에 소개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받았고 세계적으로 복강경 수술을 리드하고 있다.그리고 최근 정부 주관 프로젝트로 선정돼 진행한 간암 환자에서의 복강경 수술과 개복수술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 10년 간 시행한 간세포암 절제수술에 대해 복강경 수술로 절제한 경우와 개복수술로 절제한 경우를 각각 88례씩 일대 일로 매칭 해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및 장기생존율을 비교했다.간세포암의 절제는 주요혈관에 인접한 경우를 포함해서 간의 모든 부위에서 이뤄졌으며 복강경 수술을 했을 때 수술 후 재원기간이 8일로 개복수술 후 재원기간인 10일에 비해 더 짧았다.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도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군에서는 12.5%로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군의 20.4%에 비해 훨씬 낮았다. 복강경 수술은 합병증의 위험과 통증이 적고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므로 개복수술에 비해 재원기간이 짧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아울러 암 수술 환자를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5년 생존율이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는 76.4%였으며, 개복 수술을 환자에서는 73.2%의 생존율을 보였다. 무병생존율 역시 복강경 수술 환자(44.2%)에서 개복수술 환자(41.2%)로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 한호성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복강경 간절제 수술의 안전성과 치료효과가 개복수술과 같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복강경 간절제술이 더욱 널리 보급됨으로써 많은 환자에게서 수술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수술 결과를 선사해 삶의 질 향상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간질환 분야 유수의 학술지인 Journal of Hepatology (영향지수 IF : 11.336)에 게재됐다.  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43.txt

제목: 대학병원 前 교수와 전공의들, 몰래 마약성 진통제 주고 받다 들켜  
날짜: 2015073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73133808  
본문: 처방전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주고 받은 대학병원 의사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r/> <br/>30일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모 대학병원 전 임상교수 A(38) 씨와 전공의 B(34)·C(2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r/> <br/>A씨는 2013년 11월 전공의 두 명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40알을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전공의들은 A씨의 부탁을 받고 간호사를 통해 이 진통제를 구해준 혐의다.  <br/> <br/>마약성 진통제는 주로 말기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으로 마약류 취급자도 업무 외 목적이나 처방전 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br/> <br/>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위해 사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44.txt

제목: 대학병원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 불법사용하다 적발  
날짜: 20150730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73126577  
본문: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0일 처방전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주고받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대학병원 전 임상교수 A(38) 씨와 전공의 B(34), C(29·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r/> <b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전공의 두 명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40알을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 전공의들은 A씨의 부탁을 받고 간호사를 통해 이 진통제를 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 이 진통제는 주로 말기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으로 마약류 취급자도 업무 외 목적이나 처방전 없이 사용하는 게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br/> <br/> A씨는 경찰에서 본인이 직접 복용한 게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위해 사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 경찰은 이 병원의 마약류 기록대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45.txt

제목: 대학병원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 불법사용 하다 적발  
날짜: 20150730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73129252  
본문: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0일 처방전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주고받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대학병원 전 임상교수 A(38) 씨와 전공의 B(34), C(29·여)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r/> <br/>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11월 전공의 두 명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40알을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공의들은 A 씨의 부탁을 받고 간호사를 통해 이 진통제를 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이 진통제는 주로 말기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으로, 마약류 취급자도 업무 외 목적이나 처방전 없이 사용하는 게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br/> <br/>A 씨는 경찰에서 본인이 직접 복용한 게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위해 사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경찰은 이 병원의 마약류 기록대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46.txt

제목: ‘정통 인도 커리의 진수’ 더 마샬라, 명동 눈스퀘어에 오픈  
날짜: 20150730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3010018087635  
본문: 명동의 글로벌 복합쇼핑몰 눈스퀘어에 인도 정통 커리 레스토랑 ‘더 마샬라(the masala)’가 30일 정식 오픈한다. <br/> <br/>타임지에서 세계 7대 웰빙 음식으로 선정한 바 있는 커리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슈퍼 푸드다. 수십가지 향신료를 배합하여 끓인 커리는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매력적인 향으로 식욕을 자극할 뿐 아니라 암 예방, 항산화 효과, 비만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br/> <br/>특히 커리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최근 메르스, 홍콩 독감 등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 면역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커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r/> <br/>눈스퀘어 6층에 새로 오픈한 ‘더 마샬라’는 ‘향신료’라는 뜻의 인도 커리 매장. 커리의 본고장인 인도에서 직접 요리사를 초빙하여 본연의 맛에 충실한 다양한 인도 커리의 진수를 보여준다. 인도풍의 이국적인 소품과 모던한 가구들이 조화롭게 디스플레이 된 매장의 독특한 분위기도 색다르면서도 편안한 식사를 돕는다. <br/> <br/>조용현 눈스퀘어 차장은 “<span class='quot0'>계속되고 있는 웰빙 트렌드에 맞게 슈퍼 푸드로 주목 받고 있는 커리 매장을 눈스퀘어 F&B 코너에 오픈하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다양한 풍미를 가진 7종류의 난과 건강한 인도식 샐러드, 카레 등의 메뉴로 지난 주 목요일에 임시 오픈을 하자마자 소비자들의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47.txt

제목: 한국 간암 생존율 30%로 의료선진국 앞질러  
날짜: 20150730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3010018085648  
본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다학제협진회의 <br/> <br/>우리나라 간암 치료성적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의료선진국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4,177명의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5년 상대생존율을 조사 발표했다. 상대생존율이란 한 질병을 가진 환자의 관찰생존율을 동일한 성별, 연령군을 가지는 일반인구의 기대생존율로 나누어 구한 값이다. <br/> <br/>간암 1기 370명, 2기 1,227명, 3기 830명, 4기 1,240명으로 중증도 높은 간암 4기 환자의 구성(29.7%)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서울성모병원의 5년 암환자 상대생존율은 30%로 미국 16.6%, 캐나다 20.0%, 일본 27.9% 보다도 높았다. <br/> <br/> <br/> <br/>간담췌암센터장 윤승규 교수는“<span class='quot0'>서울성모병원 간담췌암센터는 수술•비수술 신치료법을 적용해 다양한 치료 방식을 조합하는데, 젊고 암 세포가 3㎝ 이하로 하나만 있으면 외과적인 절제수술을, 간경변이 동반된 환자는 간이식수술을, 다발성 간암이거나 종양이 큰 간암의 경우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사용하는 등 간암의 진행 정도, 간 기능, 환자의 몸 상태를 보고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해온 것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결과를 얻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간암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여러 임상과 전문의가 대면진료로 환자에게 의견을 동시에 제공하는 다학제 통합진료로,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병기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높은 생존율을 거둔 이유로 꼽았다. <br/> <br/>간암 전체환자(비 수술환자 포함)를 연도별로 따지면 97년부터 99년까지 환자 500명의 상대생존율은 21%, 00년부터 04년까지 환자 1,185명의 상대생존율은 27%, 03년부터 07년까지 환자 1,378명의 상대생존율은 30%로, 최근으로 올수록 환자수도 증가하고 상대생존율도 향상되었다.  <br/> <br/> <br/> <br/> <br/>또한 간암수술을 병변 주변을 광범위하게 잘라내는 간절제술과 공여자로부터 건강한 간을 받는 이식수술로 나누어 5년 상대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간절제 수술은 60%, 간이식 수술은 77%로, 수술환자의 상대생존률이 전체환자보다 높았고, 이식수술의 생존률이 간절제술보다 높았다. <br/> <br/>간절제술을 연도별로 보면 97년부터 99년까지 환자 33명의 상대생존율은 49%, 00년부터 04년까지 환자 101명의 상대생존율은 59%, 03년부터 07년까지 환자 96명의 상대생존율은 60%을 기록했다. <br/> <br/>간이식 수술은 00년부터 04년까지 환자 87명의 상대생존율은 67%, 03년부터 07년까지 환자 116명의 상대생존율은 71% 였다. <br/> <br/>◆진행성 간암, 간동맥내 항암주입요법 생존기간 연장 <br/> <br/>서울성모병원 간담췌암센터는 주도적으로 새로운 치료법 연구를 선도하며 간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r/> <br/>최근 배시현 교수팀(소화기내과)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성모병원 외 6개 대학병원에서 간 주변 혈관인 간문맥에 암 세포가 침범하여 치료가 어려운 진행성 간암환자 110명를 2그룹으로 나누어 먹는 항암제 소라페닙(넥사바)와 포트를 이용한 간동맥내 항암주입(hepatic arterial infusion chemotherapy, HAIC)으로 치료한 결과, 항암주입치료로 간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했다는 연구결과를 ‘위장병학 저널'(Journal of Gastroenterology)’ 4월호에 발표하였다. <br/> <br/>항암주입치료의 치료 시작후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인 전체생존기간(OS:overall survival) 중간값은 7.1개월로 소라페닙 항암치료인 5.5개월 보다 길었으며, 종양으로 진행하는 기간도 3.3개월로 소라페닙 사용 시 2.1개월 보다 더 늦게 진행해 결과적으로 간암의 진행을 막는 효과를 보였다. <br/> <br/>이는 진행성 간암의 표준치료법인 먹는 항암제 소라페닙보다 효과적임을 증명한 것이다. <br/> <br/>간암의 간문맥침범은 전체 간암환자의 약 30%로 흔한데, 종양으로 인한 간문맥 침범은 종양을 주변으로 확산시키거나 간기능을 떨어뜨려 황달, 복수 등 치명적인 합병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간문맥침범을 한 간암 환자는 간기능이 저하되어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해 사망률이 높다. <br/> <br/>간동맥내 항암 주입요법은 대퇴동맥에 항암 주입 포트를 삽입하고 세포독성 항암제를 포트를 통해 간동맥에 직접 주입하여 간세포암종에 고용량의 항암제를 전달하면서도 전신의 부작용이 적게 발생하는 장점이 있다. <br/> <br/>배시현 교수는 “<span class='quot1'>현재 간문맥침범한 간암에 대한 1차 치료법은 전신 항암치료로 먹는 항암제인 소라페닙 투여가 추천되지만 치료반응이 낮아 이를 대체할 치료법이 절실한 상황으로, 포트를 이용한 간동맥내 항암 주입요법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인 만큼 먹는 항암제를 대체할 수 있는 신 치료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간암은 자각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방법도 제한적이라 모든 간암 환자들에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한 새로운 간암 치료법 연구를 통해 간암 환자의 생존율을 세계 최고로 유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48.txt

제목: “꽃과 나무와 물이 있었기에… 이렇게나마 겨우 늙었다”  
날짜: 20150730  
기자: 조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3010018092598  
본문: 경남 하동군 악양면 동매길 지리산 자락에 홀로 사는 박남준(58) 시인이 등단 30년을 넘기면서 이를 기념하는 신작 시집 ‘중독자’(펄북스)를 펴냈다. 자연 속에서 시를 ‘살아내는’ 시인으로도 호가 높은 그이의 일곱 번째 시집에서는 꽃과 새와 물 같은 대상을 관찰하는 시선에서 더 나아가 그것들과 일체가 되는 경지를 자주 보여준다. 그것은 시인이 바라는 ‘관음(觀音)’의 상태이기도 하다. <br/> <br/>“<span class='quot0'>하루해가 뉘엿거린다/ 깜박깜박 별빛만이 아니다/ 어딘가 아주 멀리 두고 온 정신머리가 있을 것인데/ 그래 바람이 왔구나 처마 끝 풍경소리/ 이쯤 되면 나는 관음으로 고요해져야 하는데/ 귀뚫어라 귀뚜라미 뜰 앞에 개울물 소리/ 가만있자 마음은 어디까지 흘러갔나</span>”(‘마루에 앉아 하루를 관음하네’) <br/> <br/>악양 토담집 마루에 앉아 하루 내내 구름과 꽃과 개울물을 보며 매미와 나비와 별빛까지 아우르는 일상이 담긴 시편이다. <br/> <br/>자연이 보여주는 위로의 풍경 속에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해탈의 경지까지 갈 법도 하지만, 마음은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어디쯤 가 있는지 종잡기 쉽지 않을 때가 더 많다. 그리하여 봄날의 아지랑이를 보면서도 “어쩌면 치미는 슬픔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나마 겨우 늙었다”는 한숨 같은 안도도 한다. 시인은 “<span class='quot1'>가슴에 병을 얻은 쯤이야/ 인생은 이미 덤이었다며 애써 무심</span>”하려고 하고 “<span class='quot1'>생의 지도에 점을 찍을 점정의 아침이/ 그의 숨 끝에 일어나고 흘러간다</span>”고 짐짓 초연하고자 한다. 이 같은 다짐은 그의 주변을 둘러싼 생명들의 싱싱하고 질긴 힘에 힘입은 바 크다. <br/> <br/>“<span class='quot0'>똥거름을 내고 호박씨 심었다/ 호박과 함께 토마토 올라왔다/ 그러니까 작년에 먹은 토마토가/ 으르릉 그르릉 이빨 사이를 요리저리/ 위장과 창자를 거쳐/ 한마디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거시기를 통해 빠져나왔다는 것인데/ 호박을 키우기 위해 뽑아내던 토마토 어린 것들/ 두어 개 남겨놓는다</span>”(‘강력한 토마토’) <br/> <br/>똥거름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이라니. 이처럼 강력한 토마토의 의지 앞에서 인간의 근심 따위야 한갓 초라한 사치로 전락할 지경이다. 시인의 세상에서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도 예사롭지 않다. 도라지꽃이 출렁거리고 구절초꽃이 휘청거릴 때 시인은 “<span class='quot1'>꽃 체중계들 바늘 끝이 간지럽다고 몸살을 친다</span>”고 썼다. 가볍다고 무겁지 않은 건 아니다. ‘물레나물꽃등’에서는 “햇살을 담아 꽃잎물레에 돌리는” 바람개비와 “곁을 떠난 사랑 돌아오는 길/ 허방을 짚을까 봐/ 까치발을 들고 켜 든 산비탈/ 샛노랗게 불 밝힌 꽃다발 전등”도 본다. 이런 노래는 어떤가. <br/>경남 하동군 악양면 지리산 자락 토담집에 홀로 사는 박남준 시인. 박 시인은 “<span class='quot2'>이 참혹한 시대에 30년이나 시를 쓰면서 살아왔다니 진땀이 난다</span>”면서 “<span class='quot2'>나이가 들어가면서 언어를 마음 가는 대로 부려도 크게 부끄럽지는 않겠다는 믿음이 생겨 다행</span>”이라고 말했다. <br/>“<span class='quot0'>저/ 함박눈/ 산/ 너머로부터 달려온/ 당신이 띄운 편지라는/ 걸/ 안다 맑고 따뜻한 눈물로/ 쓴/ 곱은 손가락 호∼ 불며 써내려/ 간/ 흰 겨울편지</span>”(‘내 손등에 떨어지는 그대의’) <br/> <br/>손등에 떨어지는 함박눈, 그대의 흰 겨울편지, 산 너머로부터 달려온 맑고 따뜻한, 눈물로 쓴 편지, 당신이 띄운 편지. 단순 소박하지만 함박눈의 포근한 느낌으로 가슴을 쓸어주는 유행가 같은 절창이다. 아무나 절절한 유행가를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시인의 시선은 주로 자연에 머물지만 사람살이의 풍경도 떠나지 않는다. <br/> <br/>트럭 행상이 외치는 “홀애비 사세요 홀애비” 소리에 홀린 이야기는 익살스럽고, 가난한 시인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한사코 콩나물국밥값을 받지 않겠다던 전주 남부시장 장뻘국밥집 아주머니 이야기는 애잔하다. 그 아주머니, 암으로 먼저 떠났으니 시인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는 “이건 살인사건이다”고 결연히 목소리를 높였다. <br/> <br/>신경림 시인은 이번 시집을 두고 “<span class='quot3'>어쩐지 이미 이 시인은 자연 속에서 자연에 순응해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자연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3'>그래서 이 시집 속의 시들은 봄날 산길을 가다가 만나는 향기 진한 꽃처럼 아름답고, 숲속 깊은 데서 마주치는 오래된 신목(神木)처럼 섬뜩하다</span>”고 상찬했다. <br/> <br/>등단 30년을 기념하는 이 신작 시집은 진주문고의 인문출판 브랜드 ‘펄북스’ 첫 책으로 나왔다. 박남준은 “<span class='quot4'>지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몫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시집을 내는 이들에게 왜 지역에 있는 출판사에서 책을 냈느냐고 책망을 했던 낯 뜨거운 말빚을 갚기 위해, 이 참혹한 시대에 지역에서 인문학 출판사를 하겠다는 청맹과니 같은 소리를 하는 서점 주인에게 원고를 넘겼다</span>”고 ‘시인의 말’에 썼다. <br/> <br/>글·사진=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49.txt

제목: 한국화이자제약 리리카, 다음달 1일부터 요양급여 확대·적용  
날짜: 20150730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3010018086479  
본문:   <br/> <br/> <br/>한국화이자제약은 자사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척추수술 후 발생한 신경병성 통증 등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 치료에 요양급여가 확대·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br/> <br/>이로써 리리카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통증(Diabetic Peripheral Neuropathic Pain)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암성 신경병성 통증(Cancer-related Neuropathic Pain)에 이어,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PSSS: Post Spinal Surgery Syndrome)에 이르기까지 총 여섯 가지 신경병증 통증 분야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br/> <br/>이번 급여 확대는 국내외 치료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검토 결과, 리리카가 척추수술 후 발생한 신경병성 통증에 유의한 통증 감소 효과를 보이며, 가바펜틴에 비해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br/> <br/>요양급여 개정안의 관련 근거로 제시된 임상연구에 따르면,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의 통증 치료에서 리리카가 가바펜틴보다 뛰어난 통증 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또한 유럽신경과협회(EFNS)와 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의 신경병성 통증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리리카를 신경병증성 통증의 1차 치료약물로 추천하고 있다. <br/> <br/>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요양급여 확대가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아픔을 경감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span>”며 “<span class='quot0'>신경병증 통증 치료제로서 가치를 인정 받아온 리리카가 척추수술 환자들의 신경병성 통증에 있어서 좋은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span>”고 말했다. <br/> <br/>리리카는 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제, 성인 환자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제 및 섬유근육통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1년 미국신경학회(AAN)가 발표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치료약물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Level A)’을 받은 바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50.txt

제목: 대학병원 前 교수와 전공의들, 몰래 마약성 진통제 주고 받다 들켜  
날짜: 2015073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30100000260  
본문: 처방전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주고 받은 대학병원 의사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30일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모 대학병원 전 임상교수 A(38) 씨와 전공의 B(34)·C(2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2013년 11월 전공의 두 명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40알을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공의들은 A씨의 부탁을 받고 간호사를 통해 이 진통제를 구해준 혐의다.  마약성 진통제는 주로 말기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으로 마약류 취급자도 업무 외 목적이나 처방전 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위해 사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51.txt

제목: 대학병원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 불법사용 하다 적발  
날짜: 201507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30100000296  
본문: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0일 처방전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주고받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대학병원 전 임상교수 A(38) 씨와 전공의 B(34)·C(2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3년 11월 전공의 두 명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40알을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공의들은 A씨의 부탁을 받고 간호사를 통해 이 진통제를 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진통제는 주로 말기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으로 마약류 취급자도 업무 외 목적이나 처방전 없이 사용하는 게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본인이 직접 복용한 게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위해 사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병원의 마약류 기록대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52.txt

제목: 대학병원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 불법사용하다 적발  
날짜: 20150730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30100000307  
본문: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0일 처방전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주고받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대학병원 전 임상교수 A(38) 씨와 전공의 B(34), C(29·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전공의 두 명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40알을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공의들은 A씨의 부탁을 받고 간호사를 통해 이 진통제를 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진통제는 주로 말기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으로 마약류 취급자도 업무 외 목적이나 처방전 없이 사용하는 게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본인이 직접 복용한 게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위해 사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병원의 마약류 기록대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53.txt

제목: 대학병원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 불법사용 하다 적발  
날짜: 20150730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30100000166  
본문: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0일 처방전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주고받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대학병원 전 임상교수 A(38) 씨와 전공의 B(34), C(29·여)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11월 전공의 두 명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40알을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공의들은 A 씨의 부탁을 받고 간호사를 통해 이 진통제를 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진통제는 주로 말기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으로, 마약류 취급자도 업무 외 목적이나 처방전 없이 사용하는 게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A 씨는 경찰에서 본인이 직접 복용한 게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위해 사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병원의 마약류 기록대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54.txt

제목: '1조원 상속녀· 국세청 직원·알바 여대생' 1인 3역 사기꾼  
날짜: 20150729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72424720  
본문: 악성 뇌 질환을 앓는 가련한 1조원대 재산 상속녀, 국세청 직원, 아르바이트 여대생 등 1인 3역을 하며 남성으로부터 4400만원을 갈취한 뒤 비방 협박까지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br/> <br/>2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사기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br/> <br/>양 판사는 "피고인은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고 역할 대행자까지 동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며 "그 과정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br/> <br/>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과거 정신병력에 비추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심리의 일환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24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밝혔다. <br/> <br/>이 씨는 대학생이던 지난 2013년 모 통신회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아르바이트했다. <br/> <br/>같은 해 7월 이 씨는 30대 초반의 같은 회사 영업직 사원인 A 씨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외모나 주변 환경 등에 열등감을 가졌던 탓에 쉽사리 A 씨에게 접근하지 못했다. <br/> <br/>한동안 고민하던 이 씨는 자신의 이름과 외모 등 신분을 통째로 속여 A 씨의 마음을 훔치기로 했다. <br/> <br/>이 씨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미모의 여성 사진을 찾아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후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했다. <br/> <br/>A 씨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던 이 씨는 전화로 A 씨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br/> <br/>A 씨에겐 자신을 박00으로 소개했다. <br/> <br/>잦은 연락으로 A 씨와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이 씨는 "1조원대 거액을 상속받았는데 친척 등 주위에 내 돈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 지금 악성 뇌 질환으로 투병 중인데 1~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짓 고민을 전화로 털어놨다. <br/> <br/>이어 "힘든 시간을 함께 해주고 지켜줘 고맙다. 당신이 거절해도 나의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증여할 것이며, 만약 당신이 나를 떠난다면 자살하겠다"고 마음을 흔들었다. <br/> <br/>이 과정에서 이 씨는 실제 돈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1000억원이 입금된 계좌잔고 명세서와 고가의 외제차량 구매 계약서 등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A 씨에게 보냈다. <br/> <br/>가짜 인생에 깊이 발을 들여놓은 이 씨는 A씨가 실제 만남을 요구할 것을 대비한 또 다른 가상의 인물 임○○을 만들어냈다. <br/> <br/>이 씨는 A 씨에게 "상속재산 처리 및 암 투병 등의 이유로 만날 수 없으니 국세청에 다니는 친구 임○○을 만나 나와 함께 살 집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br/> <br/>같은 해 12월 임○○ 신분으로 A 씨를 만난 이 씨는 "친구가 거액을 상속받았지만, 친척들과 소송으로 모든 계좌가 동결돼 힘들어한다"는 등의 말로 A 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냈다. <br/> <br/>이 씨는 A 씨의 체크카드로 명품 쇼핑 등 불과 3달도 안 돼 44차례에 걸쳐 4700여만원을 사용했다. <br/> <br/>이를 수상히 여긴 A 씨는 확인 끝에 이 씨의 정체를 알게 돼 연락을 끊었다. <br/> <br/>이 씨는 그런 A 씨를 상대로 협박까지 했다. <br/> <br/>지난해 5월 이 씨는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에 강간상해 치사로 고소했다", "지인들에게 성폭행 사실과 욕설 파일을 다 돌리겠다.", "인터넷에 사진과 음성 파일 올리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남겼다. <br/> <br/>또 A 씨의 친구들이 참여한 SNS 단체대화방에서 임○○가 글을 올리는 것처럼 가장해 "A씨가 내 친구에게 욕설, 폭행하고 유산을 갈취해 친구가 수원의 한 모텔에서 자살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A 씨를 비방하고 모욕했다. <br/> <br/>이 씨는 A 씨의 신고로 1인 3역 노릇을 끝내게 됐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55.txt

제목: '1조원 상속녀· 국세청 직원·알바 여대생' 1인 3역 사기꾼  
날짜: 20150729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9100000514  
본문: 악성 뇌 질환을 앓는 가련한 1조원대 재산 상속녀, 국세청 직원, 아르바이트 여대생 등 1인 3역을 하며 남성으로부터 4400만원을 갈취한 뒤 비방 협박까지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2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사기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양 판사는 "피고인은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고 역할 대행자까지 동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며 "그 과정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과거 정신병력에 비추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심리의 일환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24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밝혔다.이 씨는 대학생이던 지난 2013년 모 통신회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아르바이트했다.같은 해 7월 이 씨는 30대 초반의 같은 회사 영업직 사원인 A 씨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외모나 주변 환경 등에 열등감을 가졌던 탓에 쉽사리 A 씨에게 접근하지 못했다.한동안 고민하던 이 씨는 자신의 이름과 외모 등 신분을 통째로 속여 A 씨의 마음을 훔치기로 했다.이 씨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미모의 여성 사진을 찾아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후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했다.A 씨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던 이 씨는 전화로 A 씨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A 씨에겐 자신을 박00으로 소개했다.잦은 연락으로 A 씨와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이 씨는 "1조원대 거액을 상속받았는데 친척 등 주위에 내 돈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 지금 악성 뇌 질환으로 투병 중인데 1~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짓 고민을 전화로 털어놨다.이어 "힘든 시간을 함께 해주고 지켜줘 고맙다. 당신이 거절해도 나의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증여할 것이며, 만약 당신이 나를 떠난다면 자살하겠다"고 마음을 흔들었다.이 과정에서 이 씨는 실제 돈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1000억원이 입금된 계좌잔고 명세서와 고가의 외제차량 구매 계약서 등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A 씨에게 보냈다.가짜 인생에 깊이 발을 들여놓은 이 씨는 A씨가 실제 만남을 요구할 것을 대비한 또 다른 가상의 인물 임○○을 만들어냈다.이 씨는 A 씨에게 "상속재산 처리 및 암 투병 등의 이유로 만날 수 없으니 국세청에 다니는 친구 임○○을 만나 나와 함께 살 집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같은 해 12월 임○○ 신분으로 A 씨를 만난 이 씨는 "친구가 거액을 상속받았지만, 친척들과 소송으로 모든 계좌가 동결돼 힘들어한다"는 등의 말로 A 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냈다.이 씨는 A 씨의 체크카드로 명품 쇼핑 등 불과 3달도 안 돼 44차례에 걸쳐 4700여만원을 사용했다.이를 수상히 여긴 A 씨는 확인 끝에 이 씨의 정체를 알게 돼 연락을 끊었다.이 씨는 그런 A 씨를 상대로 협박까지 했다.지난해 5월 이 씨는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에 강간상해 치사로 고소했다", "지인들에게 성폭행 사실과 욕설 파일을 다 돌리겠다.", "인터넷에 사진과 음성 파일 올리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남겼다.또 A 씨의 친구들이 참여한 SNS 단체대화방에서 임○○가 글을 올리는 것처럼 가장해 "A씨가 내 친구에게 욕설, 폭행하고 유산을 갈취해 친구가 수원의 한 모텔에서 자살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A 씨를 비방하고 모욕했다.이 씨는 A 씨의 신고로 1인 3역 노릇을 끝내게 됐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56.txt

제목: 휴가 앞둔 여성들의 고민 '그 날', 조절하면 문제없어  
날짜: 20150729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910018073531  
본문:   <br/> <br/> <br/>더위와 지친 일상을 벗어나 재충전을 위한 여름휴가는 계획부터 설레게 마련이다. 몸과 마음에 휴식을 줄 수 있는 휴가지를 찾고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것이 여름휴가다. <br/> <br/>특히 여성들은 쇼핑에서 다이어트까지 보다 완벽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위해 일찍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다. <br/> <br/>하지만 여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걱정은 휴가와 '그 날'이 겹치게 되는 것이다. 물놀이를 계획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생리통이 심해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사정이 다르다. <br/> <br/>일 년 동안 기다려온 황금 같은 여름휴가를 아쉬움 없이 보내기 위해서는 생리주기를 미리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br/> <br/>일단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생리주기 조절방법으로 경구 피임약 복용을 꼽을 수 있다. 피임약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함유해 배란을 억제하여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막아주는 약으로, 용법에 맞게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생리 주기 조절이 가능하다. <br/> <br/>생리예정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는 피임약 복용을 시작해, 원하는 날까지 하루에 한 알을 휴약기 없이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생리 일정을 미룰 수 있다. 기존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조절을 원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복용 후 중단하면 된다. <br/> <br/>또한 경구(사전) 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휴가철 미리 챙기지 못하더라도 약국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게스토덴 성분의 피임약은 다른 합성 프로게스테론에 비해 높은 생체이용률로 다른 성분의 피임약에 비해 적은 용량으로도 생리주기 조절 효과가 우수할 뿐 아니라 호르몬 복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br/> <br/>이 외에도, 복용 중 부정출혈 또는 기타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타 성분 대비 낮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br/> <br/>마이보라와 멜리안은 게스토덴 성분의 대표적인 피임약으로 두 제품 모두 용량과 용법에 맞게 복용 시 피임 및 생리주기 조절에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 이 밖에도, 경구 피임약은 생리 불순, 생리기간 외에 나타나는 부정출혈에 대한 예방, 생리 전 증후군, 생리통 등 다양한 여성 건강 치료효과 및 여드름 등 피부질환 치료의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br/> <br/>하지만 생리주기 조절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용법을 숙지하고 복용하는 것이다. 호르몬 복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나, 처음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이라면, 복용 전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피임약에 대한 복약 지도를 받는 것이 좋다. <br/> <br/>서울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 한보령 과장은 "피임약은 단순히 피임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약이 아니다"며 "생리과다, 생리통, 생리 전 증후군, 생리연관성 편두통, 여드름, 다모증,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암, 난소암, 대장암 등의 암 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전했다. <br/> <br/>이어 "일반적인 피임약의 부작용은 구토나 체중증가 같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과 혈전의 발생과 심근경색 등의 가능성이 1.1~4.8배 정도 증가한다"며 "피임약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생리를 늦추기 위해서는 피임약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덜한 재제가 짧은 기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br/> <br/>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피임약의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분류한 바 있다. <br/> <br/>이처럼 피임약의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득이 위험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시도해볼 수 있으며, 생리 기간을 늦추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도 있다. <br/> <br/>하지만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잦은 빈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위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br/> <br/>일각에선 피임약은 피임을 목적으로만 복용해야 하며 그 외 부수적인 효과는 다른 약들로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맞는 올바른 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57.txt

제목: '비극에서 지혜를'…원폭 70년 日나가사키인들의 분투  
날짜: 201507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9100000284  
본문: 나가사키대학 의학부(옛 나가사키 의대)의 다카무라 노보루(47·高村昇) 교수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의 피폭 의료 관련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모습.섬나라 일본이 외부와 교류하는 '현관'이었다가 한순간 세계사 최대의 비극을 떠안은 항구도시 나가사키(長崎). 27∼28일 일본 포린프레스센터(FPCJ)가 주관한 나가사키 프레스투어에서는 70년전 원폭의 비극에서 건져올린 '지혜'를 세계에 전하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이 소개됐다. 일본 나가사키(長崎) 원폭 피해의 산 증인인 후카호리 요시토시(86·深堀好敏) 옹이 27일 오후 나가사키 시내 원폭자료관에서 일본 포린프레스센터(FPCJ) 주최 취재 투어에 참가한 외신 기자들에게 1945년 8월 9일 당시의 참상을 소개하고 있다.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의 충격으로 기울어진 교문 기둥이 그대로 보존된 나가사키대학 의학부(옛 나가사키 의대)의 다카무라 노보루(47·高村昇) 교수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피폭 의료 관련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학교가 원자폭탄 폭발 지점(폭심)에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았던 탓에 당시 850명 이상의 학생과 교수 등이 목숨을 잃은 나가사키 의대는 1950년부터 방사능 피폭과 질병의 연관성 연구를 축적했다. 그 과정에서 나가사키내 13만 명의 생존 피폭자 중 약 7만 명의 도움을 받았다.피폭이 각종 암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상식'은 나가사키 의대 사람들과, 그들의 연구에 협조한 시민들에 의해 이론의 여지없이 입증됐다.  나가사키 시내 원폭 자료관에 전시된 원폭 당시 시계. 시간은 폭발 시간인 오전 11시2분에 멈춰섰다.나가사키대 원폭후장해의료연구소를 이끄는 다카무라 교수는 "원폭이 터진 지 70년이 지나 살아있는 피폭자 수가 줄어드는 와중에 피폭자가 암에 걸리는 리스크는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방사선 피폭은 한순간이지만 그 리스크는 평생 계속됨을 연구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나가사키에서 축적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카무라 교수와 동료들은 후쿠시마(福島), 체르노빌 등 원자력 재해 지역을 지원하고, 원자력 재해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내년 4월 후쿠시마현립의대와 공동으로 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다카무라 교수는 "우리의 경험을 살려서 해외와 국내 피폭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같은 날 만난 나가사키 평화추진협회 사진자료조사부의 후카호리 요시토시(86·深堀好敏) 회장은 원폭 피해 사진을 수집하고 캡션을 붙이는 일을 37년간 해왔다고 소개했다. 원폭으로 누나를 잃은 그에게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전쟁의 참상과 교훈을 후세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후카호리 옹은 "살아남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진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며 "피폭자가 고령화해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면 아무도 남지 않겠지만, 사진은 남는다"고 말했다. 나가사키 시와 학생들도 국제 사회에서 핵무기 철폐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나가사키대학 등에 소속된 학생 12명으로 구성된 '나가사키 유스'는 지난 5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 회의 등에 참석, 세계 각국 대학생들과 토론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장했다. 당시 다우에 도미히사(田上富久) 나가사키 시장도 NPT 회의장을 무대로 핵무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폭 투하 70주년인 내달 9일 발표할 평화선언에도 메시지를 담는다.하지만 2차대전 종전 및 원폭투하 70주년을 앞둔 지금 이들의 목소리는 현재 일본을 이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행보에 의해 퇴색되고 있다.역사 수정주의 논란 속에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아베 정권이 일본을 이끌어 가는 방향과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2011년 사상 최악의 원전사고 중 하나로 기록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까지 더해졌음에도 다수인 반대 여론을 뿌리 친 채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향해 착착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27일 다우에 시장 회견에서 외신 기자들로부터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논란, 미국 핵우산에 의지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 원전 재가동 추진 등은 나가사키인들이 외치는 '핵무기 철폐'와 '평화'의 메시지와 모순되지 않느냐는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다우에 시장은 명쾌한 답을 내 놓지 못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58.txt

제목: 이화의료원,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김승철 교수  
날짜: 20150729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910018072209  
본문: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승철 교수(좌) 신임 이대목동병원장 유경하 교수(우) <br/> <br/>제15대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김승철 교수(1957년생, 산부인과)가 임명됐고, 제11대 이대목동병원장에는 유경하 교수(1960년생, 소아청소년과)가 선임됐다. <br/> <br/>이대목동병원 홍보팀에 따르면 김승철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유경하 신님 이대목동병원장은 8월 1일부터 각각 2년 임기로 업무를 시작한다.. <br/> <br/>김승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 부인암 분야 국내 최고의 명의로 손꼽히며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와 대한산부인과학회 감사,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왔다. <br/> <br/>경기고와 서울대 의대(1982년)를 졸업한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미국 UIHC 부인암 연구소 연구 교수를 지낸 바 있으며 이대목동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 의무부장, 이대목동병원장과 함께 초대 이대여성암병원장,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장, 이화융합의학연구원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치며 임상 및 수술 능력과 경영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br/> <br/>이와 함께 새롭게 이대목동병원장에 임명된 유경하 교수는 혜원여고와 이화의대(1984년)를 졸업, 1996년부터 이화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br/> <br/>소아종양, 혈액종양 분야의 명의로 손꼽히는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이사,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이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대목동병원 초대 진료협력센터장과 교육연구부장,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며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br/>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59.txt

제목: "붉은 고기 속 색소가 대장암 유발"  
날짜: 20150728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71752770  
본문: 한국인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쇠고기, 돼지고기의 붉은 색을 내는 색소가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지난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연구팀이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인 PNAS에 발표한 논문에서 “붉은 고기에 포함된 환원 헤마틴을 투여한 쥐에서 장 내벽 손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br/> <br/>헤모글로빈 색소 성분을 뜻하는 환원 헤마틴은 장 속 박테리아에 의해 독성이 강한 황화수소로 바뀐다. 이에 우리 몸은 치유를 위해 빠르게 세포를 재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악성 종양 생성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장 속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제를 복용하면, 붉은 고기에 따른 암 유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대장암은 육식이 주를 이루는 서구권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발병률이 늘어나는 추세다. <br/> <br/>지난 4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은 10만명당 45명이다. 이는 조사대상 18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세계 평균(17.2명)과 아시아 평균(13.7명)을 크게 웃돈다. 2위는 슬로바키아(42.7명), 3위는 헝가리(42.3명)였다. <br/> <br/>붉은 고기는 대장암 외에 심장마비,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 등과도 연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건강보험(NHS)은 하루 적정 붉은 고기 섭취량으로 70g을 권장하고 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60.txt

제목: 암투병 아내 병원비 마련한다며 전선 1억원어치 훔친 30대  
날짜: 2015072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71655201  
본문: 암투병 중인 아내의 병원 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공사장에서 전선 1억원 어치를 훔친 30대 가 붙잡혔다. <br/> <br/>28일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A(36)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고물상 업주 B(64)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r/> <br/>무직인 A씨는 "훔친 전선을 팔아 암 투병중인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했다. <br/> <br/>통신설비업체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소사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며 19차례에 걸쳐 계량기함에 연결된 구리 전선 1만8000여m(1억원 상당)를 절단기로 끊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B씨는 A씨가 가져 온 장물을 달랑 400여 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A씨는 "인터넷 설치 작업을 하러 왔다"며 경비원을 속이고 들어가 범행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61.txt

제목: 많이 웃는 암 환자, 기분상태 개선되고 자존감 높아져  
날짜: 20150728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71621003  
본문:   <br/> <br/> <br/>최근 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웃음요법이 암 환자들의 기분상태와 자존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입증됐다. <br/> <br/>암 환자들의 기분상태가 악화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암 투병 포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 웃음요법을 통해 환자들의 기분상태와 자존감을 높여 환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암 치료 과정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서울아산병원 암병원 연구팀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에게 웃음요법을 시행하고 심리적 효과를 측정한 결과, 우울?분노 등 부정적 기분상태가 88% 줄어들고 자아존중감이 12%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br/> <br/>연구팀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 62명을 두 그룹으로 분류해 비교연구를 진행했다. 대상군 33명에게는 정기적인 웃음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함께 실시하고 나머지 29명에게는 방사선 치료만 시행했다. <br/> <br/>한 달에 걸쳐 3회의 웃음요법을 진행하고 기분상태척도(K-POMS-Breif)와 로젠버그 자존감 지수(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활용해 변화 정도를 측정한 결과, 두 그룹 간 심리적 효과 정도에서 큰 변화가 확인됐다. <br/> <br/>웃음요법을 받은 그룹에서는 기분상태 측정에서 긴장, 우울, 분노, 혼돈, 활기 등의 점수가 약 8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웃음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그룹은 약 1% 개선에 그쳤다. <br/> <br/>아울러 자존감 지수에서도 웃음요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웃음요법 시행 전 두 그룹간의 자존감 지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웃음요법을 받은 그룹은 약 12% 증가한 반면 웃음요법을 받지 않은 그룹의 경우 자존감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br/> <br/>연구팀이 진행한 웃음요법은 3일간 매일 60분씩 진행됐으며, 약 10분 동안 웃음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교육한 후 40분 동안 다양한 신체활동과 함께 크게 소리를 내어 매 웃음당 15초 이상 웃을 수 있도록 했다. <br/> <br/>그리고 마지막 10분간은 서로 느낀 감정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주어 웃음요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했다. <br/> <br/>이번 연구의 책임저자인 김연희 서울아산병원 간호부원장은 "웃음요법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앞으로 암 치료 과정에서 웃음요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br/> <br/>안승도 서울아산병원 암교육정보센터 책임교수(방사선종양학과)는 "암 투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암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다"며 "암 환자들이 투병 과정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웃음요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r/> <br/>이번 연구성과는 웃음요법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보완의학 분야 대표적 국제학술지인 '보완대체의학지(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62.txt

제목: 많이 웃는 암 환자, 기분상태 개선되고 자존감 높아져  
날짜: 20150728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8100000787  
본문:  최근 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웃음요법이 암 환자들의 기분상태와 자존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입증됐다.암 환자들의 기분상태가 악화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암 투병 포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 웃음요법을 통해 환자들의 기분상태와 자존감을 높여 환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암 치료 과정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아산병원 암병원 연구팀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에게 웃음요법을 시행하고 심리적 효과를 측정한 결과, 우울?분노 등 부정적 기분상태가 88% 줄어들고 자아존중감이 12%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연구팀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 62명을 두 그룹으로 분류해 비교연구를 진행했다. 대상군 33명에게는 정기적인 웃음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함께 실시하고 나머지 29명에게는 방사선 치료만 시행했다.한 달에 걸쳐 3회의 웃음요법을 진행하고 기분상태척도(K-POMS-Breif)와 로젠버그 자존감 지수(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활용해 변화 정도를 측정한 결과, 두 그룹 간 심리적 효과 정도에서 큰 변화가 확인됐다.웃음요법을 받은 그룹에서는 기분상태 측정에서 긴장, 우울, 분노, 혼돈, 활기 등의 점수가 약 8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웃음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그룹은 약 1% 개선에 그쳤다.아울러 자존감 지수에서도 웃음요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웃음요법 시행 전 두 그룹간의 자존감 지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웃음요법을 받은 그룹은 약 12% 증가한 반면 웃음요법을 받지 않은 그룹의 경우 자존감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연구팀이 진행한 웃음요법은 3일간 매일 60분씩 진행됐으며, 약 10분 동안 웃음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교육한 후 40분 동안 다양한 신체활동과 함께 크게 소리를 내어 매 웃음당 15초 이상 웃을 수 있도록 했다.그리고 마지막 10분간은 서로 느낀 감정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주어 웃음요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연구의 책임저자인 김연희 서울아산병원 간호부원장은 "웃음요법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앞으로 암 치료 과정에서 웃음요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안승도 서울아산병원 암교육정보센터 책임교수(방사선종양학과)는 "암 투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암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다"며 "암 환자들이 투병 과정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웃음요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이번 연구성과는 웃음요법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보완의학 분야 대표적 국제학술지인 '보완대체의학지(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최근호에 게재됐다.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63.txt

제목: "아내 암치료비 없어서…" 전선 1억원어치 훔친 30대  
날짜: 2015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8100000611  
본문: 암투병 중인 아내의 병원 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돌며 전선 1억원 어치를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A(36)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고물상 업주 B(64)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소사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며 19차례에 걸쳐 계량기함에 연결된 구리 전선 1만8천여m(1억원 상당)를 절단기로 끊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가져 온 장물을 400여 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무직인 A씨는 경찰에서 "훔친 전선을 팔아 암 투병중인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A씨는 실제 통신 설비 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인터넷 설치 작업을 하러 왔다"며 경비원을 속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신축 공사현장은 넓은데다 배선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아 손쉬운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64.txt

제목: 암투병 아내 병원비 마련한다며 전선 1억원어치 훔친 30대  
날짜: 20150728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8100001025  
본문: 암투병 중인 아내의 병원 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공사장에서 전선 1억원 어치를 훔친 30대 가 붙잡혔다.28일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A(36)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고물상 업주 B(64)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무직인 A씨는 "훔친 전선을 팔아 암 투병중인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했다.통신설비업체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소사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며 19차례에 걸쳐 계량기함에 연결된 구리 전선 1만8000여m(1억원 상당)를 절단기로 끊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가져 온 장물을 달랑 400여 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인터넷 설치 작업을 하러 왔다"며 경비원을 속이고 들어가 범행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65.txt

제목: "붉은 고기 속 색소가 대장암 유발"  
날짜: 20150728  
기자: kimcharr@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8100001072  
본문: 한국인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쇠고기, 돼지고기의 붉은 색을 내는 색소가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지난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연구팀이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인 PNAS에 발표한 논문에서 “붉은 고기에 포함된 환원 헤마틴을 투여한 쥐에서 장 내벽 손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헤모글로빈 색소 성분을 뜻하는 환원 헤마틴은 장 속 박테리아에 의해 독성이 강한 황화수소로 바뀐다. 이에 우리 몸은 치유를 위해 빠르게 세포를 재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악성 종양 생성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장 속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제를 복용하면, 붉은 고기에 따른 암 유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대장암은 육식이 주를 이루는 서구권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발병률이 늘어나는 추세다.지난 4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은 10만명당 45명이다. 이는 조사대상 18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세계 평균(17.2명)과 아시아 평균(13.7명)을 크게 웃돈다. 2위는 슬로바키아(42.7명), 3위는 헝가리(42.3명)였다.붉은 고기는 대장암 외에 심장마비,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 등과도 연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건강보험(NHS)은 하루 적정 붉은 고기 섭취량으로 70g을 권장하고 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66.txt

제목: "붉은 고기가 대장암 유발하는 건 색소 때문"  
날짜: 2015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8100000346  
본문: 쇠고기,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가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것은 고기에 붉은 색을 내는 색소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 연구팀은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인 PNAS에 발표한 논문에서 붉은 고기에 많은 환원 헤마틴(헤모글로빈의 색소 성분)을 투여한 쥐에서 장 내벽 손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장 속 박테리아가 환원 헤마틴을 독성이 강한 황화수소로 바꾸었기 때문이다.이 손상을 치유하기 위해 몸은 빠르게 세포를 재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빠른 세포 재생이 악성 종양의 생성도 유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진들은 장 속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제를 복용하면 이러한 붉은 고기의 암 유발 효과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대장암은 고기를 많이 먹는 서구 국가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국내에서도 식습관이 점점 서구화되면서 발병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최근의 다른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붉은 고기는 대장암 외에도 심장마비, 유방암, 2형 당뇨병, 전립선암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영국 국민건강보험(NHS)은 붉은 고기를 하루에 70ｇ 이하로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67.txt

제목: 쌀눈, 도대체 효과가 어느정도길래?  
날짜: 2015072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8100000699  
본문: 쌀눈쌀눈, 도대체 효과가 어느정도길래? 쌀눈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쌀눈에 쌀의 영양소 66%가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쌀눈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대인들이 주식으로 하는 백미는 탄수화물 덩어리로 고혈압, 당뇨, 혈관질환, 암, 변비, 아토피, 비만 등 각종 현대병을 일으키는 단초로 알려져 있었다.이 때문에 영양분이 높은 쌀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쌀눈은 백미보다 식이섬유질이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효능이 있으며, 이 밖에 두뇌 발달, 변비 예방, 성인병 예방, 피로 회복,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또한 쌀눈 쌀을 씻은 물로 세안하면 피부미용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특히 쌀눈이 붙은 현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미는 벼의 껍질인 왕겨만 벗겨 낸 상태의 쌀로 겨와 눈이 그대로 붙어 있다. 반면 백미는 현미에서 겨와 눈을 떼 낸 것을 말한다.현미의 겨층에는 식이섬유소가 풍부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또한 쌀의 영양분포는 쌀눈(배아) 66%, 쌀겨(미강) 29%, 백미(배유) 5%로, 영양소의 대부분이 쌀눈에 있다.현미의 효능에는 변비 예방, 동맥경화 예방, 노화 방지 등으로 알려졌다. 인터넷팀 강주혁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68.txt

제목: "수면부족, 흡연만큼 건강에 나쁘다"  
날짜: 2015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8100000342  
본문: 수면부족은 노화를 촉진하고 암이나 심장병, 당뇨병 등에 쉽게 걸리게 하기 때문에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옥스퍼드대 신경과학 부문의 러셀 포스터 교수는 수면부족이 의료나 운송부문 종사자에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결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5시간밖에 안 잤다고 뻐기는 사람을 흡연자 피하듯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옥스퍼드대 '수면과 생체리듬 신경과학원' 원장이기도 한 포스터 교수는 수면 부족 때문에 감정 이입이나 정보 가공, 대인관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아가 충동적이고도 불완전한 사고를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예컨대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뇌의 정보 가공 능력은 마치 위스키 몇 잔이나 맥주를 마신 것처럼 좋지 않다고 그는 설명했다.또 야간 근무로 생체 시계가 적응하지 못해 많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포스터 교수는 강조했다.특히 지난해 프랑스의 한 연구 결과 야근을 10년간 하면 뇌는 6년반 더 노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0년 연구에서는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이면 6∼8시간 잔 이들보다 6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12%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충분한 수면은 뇌 속에 저장된 정보 덩어리를 쉽게 찾아내도록 돕는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 확인됐다.하지만 유명인들의 수면 시간과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종종 낮잠을 자긴 했어도 주중 하루 수면시간을 4시간으로 유지했고, 나폴레옹은 적당한 수면시간을 두고 "남성은 6시간, 여성은 7시간, 바보는 8시간"이라고 답한 바 있다.처칠은 2차대전 중 밤잠은 4시간, 낮잠은 2시간씩 잤고, 아인슈타인은 밤에 10시간 넘게 자면서도 수시로 낮잠을 잤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민첩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최소 7시간은 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69.txt

제목: [이코노 브리핑] 한화생명 '변액유니버셜CI보험' 시판 外  
날짜: 20150728  
기자: 이귀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810018064136  
본문: 한화생명 '변액유니버셜CI보험' 시판 <br/>한화생명은 암과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13가지 치명적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가입금액의 8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스마트플러스 변액유니버셜CI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주식·채권 등에 간접 투자해 기본 보장에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과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유방암과 특정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 여성에게 발병하기 쉬운 질병에 대한 특약도 적용했다. 암 보장도 강화해 특약 하나로 전이암, 재발암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약 가입 시 중증 치매나 일상생활 장해 상태로 진단받을 경우 가입 금액만큼의 간병자금을 최대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br/> <br/>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폴더' 출시 <br/>삼성전자가 폴더와 스마트폰의 강점을 모두 갖춘 스마트폰 ‘갤럭시 폴더(사진)’를 28일 출시했다. 갤럭시 폴더는 피처폰의 쉬운 사용성과 스마트폰의 편리한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은 소비자들도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키패드와 터치스크린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후면 카메라는 800만화소다. LTE와 3G 모델 2종이며, 출고가는 29만7000원이다. <br/> <br/>쏘나타 출시 30돌 맞아 모터쇼 개최 <br/>현대자동차는 쏘나타 출시 30주년을 맞아 8월12일부터 9월6일까지 서울·부산·대구·충남 보령 등 4개 지역에서 ‘쏘나타 모터쇼’를 순회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30년 전 첫선을 보인 1세대 모델에서 현재의 7세대까지 쏘나타의 역사와 현재를 선보일 예정이다. 모터쇼 개최 일정은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8월12∼16일)▲부산 해운대해수욕장(20∼24일)▲서울 제2롯데월드몰(28일∼9월1일)▲대구 달서구 이월드(5∼6일) 순이다. <br/> <br/>LG, 국내 첫 인버터 광파오븐 내놔 <br/>LG전자가 전기료를 절감하고 소음을 줄인 고급 ‘디오스’(DIOS) 인버터 광파 오븐을 이번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인버터(변환장치) 기술을 적용한 이 제품은 마이크로파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 음식이 덜 익거나 더 익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아울러 조리에 꼭 필요한 화력만 써 에너지 효율을 약 4% 높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가격은 출하가 기준 87만9000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70.txt

제목: FNC 노홍철, 사건 직전 유럽 여행 언급 "10년을 계획하려 한다"  
날짜: 2015072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810018054435  
본문: FNC 노홍철, 사건 직전 유럽 여행 언급 "10년을 계획하려 한다"FNC 노홍철, 사건 직전 유럽 여행 언급 "10년을 계획하려 한다" <br/> <br/>방송인 노홍철이 FNC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음주 운전 논란이 불거지기 직전 방송에서 유럽여행을 언급한 것이 새삼 눈길을 끈다. <br/>  <br/>노홍철은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다. <br/> <br/>당시 그는 "최근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며 운을 뗐다. <br/>  <br/>이어 노홍철은 "암 2기일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고 싶은 걸 실컷 하고 살길 잘했다 싶었다"며 "10년 전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고 10년 후에 꼭 방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에 가면 미래 10년을 계획하려 한다"며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br/> <br/>한편 FNC 노홍철 소식에 네티즌들은 "FNC 노홍철, 복귀하네요", "FNC 노홍철, 화이팅", "FNC 노홍철, 드디어 나오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71.txt

제목: 암살 400만 돌파, 김구라 돌직구 "전지현표 연기 이제 지겹다" 발언  
날짜: 2015072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810018065863  
본문: 암살 400만 돌파, 김구라 돌직구 "전지현표 연기 이제 지겹다" 발언암살 400만 돌파, 김구라 돌직구 "전지현표 연기 이제 지겹다" 발언 <br/> <br/>영화 '암살' 400만 관객을 돌파해 화제인 가운데 과거 '썰전' 김구라의 돌직구 발언 새삼 눈길을 끈다. <br/> <br/>지난해 1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전지현과 이연희의 연기 비교 분석이 화두에 올랐다. <br/> <br/>이날 김구라는 "이연희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전지현은 아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br/> <br/>이어 김구라는 "전지현은 지금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다. 60세가 되어서도 잘 할 것이다. 이제는 그 이미지가 지겹기도 하다. 연기변신을 꾀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해 눈길을 모았다. <br/> <br/>한편 '도둑들'의 최동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암살'이 개봉 7일만에 누적 관객 400만을 돌파하며 맹속도로 돌진하고 있다. <br/> <br/>배급사인 쇼박스는 28일 오후 3시30분 현재 4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br/> <br/>개봉 3일째 100만명, 4일째 200만명, 5일째 300만명 등을 돌파한데 이어, 개봉 1주일 만에 거둔 성과다. <br/> <br/>올해 최고의 흥행작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같은 속도로 역대 여름철 천만 영화인 '도둑들', '괴물'에는 하루 앞선 기록이다. <br/> <br/>암살 400만 돌파 소식에 누리꾼들은 "암살 400만 돌파, 진짜 최고", "암살 400만 돌파, 나도 얼른 봐야지", "암살 400만 돌파, 너무 궁금한걸"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72.txt

제목: 비오듯 쏟아지는 땀, 뇌질환이 원인일 수도  
날짜: 20150727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71038743  
본문:   <br/> <br/> <br/>중학교 때 뇌수막염 치료를 받은 적 있는 대학생 장수목 씨(23세, 남)는 시도 때도 없이 땀이 흐르고, 땀의 양도 무척 많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  <br/> <br/>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흐른 땀 때문에 원하지 않은 작동키가 눌러지고, 물건을 집어올리다 미끄러트려 털어뜨리기도 일쑤다. 장 씨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톡스나 약물 등으로 손쉽게 다한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다.  <br/> <br/>하지만 장 씨의 주치의인 흉부외과 김정태 과장은 “<span class='quot0'>다한증은 원인이 다양하고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진다</span>”며 “<span class='quot0'>장 씨와 같이 뇌질환에 대한 치료가 선행된 바가 있다면 치료가 마무리 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유증으로 다한증이 발생된 것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기저질환이 원인인 이차성 다한증 <br/> <br/>다한증은 체온조절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땀이 흐르는 증상이다.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증세가 드러나는 양상이나 심각도가 제각각 다르나, 환자 본인이 불편감을 느낀다면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 주먹을 꼭 쥐고 30초에서 1분 사이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흐른다면 다한증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br/> <br/>한정된 부위에 집중적으로 땀이 나는 국소다한증은 물론 음식을 먹을 때 땀을 흘리는 미각형 다한증이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 땀을 흘리는 후각성 다한증도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 지난 2014년 1만 2542명이 병원을 찾아 다한증 치료를 받았다.  <br/> <br/>대부분은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으로 분류됐으나 일부의 경우 기저질환이 원인인 이차성 다한증으로 나타났다. 사례자 역시 질환 발병 이후 땀이 많이 나기 시작했으므로 이차성 다한증을 짐작해볼 수 있다. <br/> <br/>다한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으로는 ▷ 결핵, 브루셀라 등의 감염성 질환 ▷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 뇌하수체항진증, 폐경 등 내분비질환 ▷ 갈색세포종, 유암종 등 신경내분비암 ▷ 백혈병, 림프종, 신장암 등 암 ▷ 파킨슨병, 척수손상, 뇌혈관질환 등 신경계질환 ▷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등 독성질환 등이 있다.  <br/> <br/>김정태 과장은 “<span class='quot0'>이차성 다한증은 원인질환의 종류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진다</span>”며 “<span class='quot0'>잘못된 접근으로 인해 보상성 다한증이 나타나면 손 쓰기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다한증 치료 ••• 정확한 접근이 선행해야 <br/>  <br/>다한증 치료는 일시적 효과가 있는 치료와 영구적 효과가 있는 치료로 나뉜다. 땀이 나는 부위에 연고를 바르거나 먹는 양을 처방 받는 치료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전류를 흘려 보내 땀이 나지 않도록 하는 이온영동법도 널리 알려져 있다.  <br/> <br/>하지만 이들 치료법은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 흉부외과에서 행해지는 다한증 치료는 땀이 나는 원인 부위를 직접 치료해 기대효과가 영구적이다. 하지만 땀샘을 직접 제거하거나 교감신경을 제거하는 수술법은 부위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수술 후 보상성 다한증이 생길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br/> <br/>김정태 과장은 “<span class='quot0'>여러 가지 다한증 치료법이 보급돼 있어 예전보다 쉽고 간편한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원인 질환이 따로 있거나, 치료법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에는 추적 관찰을 통해 효과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나이가 어릴 때는 보상성 다한증을 감안해 약물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단계별 치료가 필요하고, 이후 단계에서 시술을 적용할 때도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좋다</span>”고 설명했다. <br/> <br/>한방에서는 오미자를 다한증에 좋은 음식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자율신경계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직 식품 섭취만으로 다한증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각에 알려진 다한증에 좋은 음식들 역시 다한증으로 인해 땀 배출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체내 수분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고수분 음식들일 뿐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갖지는 않는다.  <br/> <br/>반면, 다한증에 좋지 않은 음식은 있다. 카페인은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 다한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염분이 많은 음식 역시 땀에서 악취가 나게 할 수 있으므로 다한증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다한증으로 발전할 수 있거나 이미 원인질환이 된 기저질환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선행해야 한다. /도움말: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정태 과장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73.txt

제목: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노인 암환자 위한 다학제’ 진료  
날짜: 20150727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710018045012  
본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임 암환자 다학제진료팀 <br/> <br/>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중위) 나이는 2014년 40세를 넘어섰고,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은 2040년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노년사회의 건강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br/> <br/>그렇지만 대한민국 노년층 건강의 현실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데, 이는 수명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강 수명’의 영향이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여명과 건강 수명은 약 10년 정도의 차이로, 평균적으로 사망 전 10년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노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br/> <br/>이렇게 ‘잃어버릴 10년’의 기간 동안 한국인의 노년을 괴롭힐 수 있는 질환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노인층의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은 ‘암’이다. 암치료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항암제의 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 등은 다른 만성 질환과 달리 치료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br/> <br/>2013년 보건복지부 암정복 과제로 분당서울대병원 김지현 교수팀이 수행한 “<span class='quot0'>국내 노인 암 환자 현황 및 실태</span>”에 따르면 암 환자의 상당수가 65세 이상이고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식도암에서는 이미 노인 암환자의 비율이 각 46%, 50%, 58%, 64%에 이르러 노인암 치료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지만, 청?장년층의 암과 구분되는 노인암만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한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br/> <br/>혈액종양내과 (김지현, 김진원), 노인병내과 (김광일), 외과 (오흥권), 방사선종양학과 (송창훈)와 영상의학과 (김영훈, 이경호, 박지훈, 이윤진)로 구성된 분당서울대병원 다학제 노인암 팀은 고령화시대 노년층 암환자만을 위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노인암 다학제’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암 치료와 적정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r/> <br/>다학제 진료란 서로 다른 전문 진료 과목의 전문의들이 동시에 한 진료실에 모여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상의 진단 및 치료계획이 도출될 수 있고, 환자의 병기에 맞는 적절한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단축되며, 환자의 입장에서는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모두 해소할 수 있는데다 진료비가 절약된다는 장점도 있다. <br/> <br/>얼마 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은 김순자 씨(가명/여, 79세)는 사실 수술을 받기 전 고민이 많았다. 수술 결과에 대한 걱정은 물론 머리가 모두 빠질 정도로 독하다는 항암 치료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수술 후 일상생활의 가능여부 등이 고민의 원인이었다. <br/> <br/>진료 상담을 진행하던 노인병내과 김광일 교수는 불안해하는 김순자 씨에게 ‘노인암 다학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료를 권했다. 예약된 날 다학제 진료실에 들어가는 김순자씨를 일곱 명의 전문의가 반갑게 맞이했다. <br/> <br/>복강경 수술에 대한 질문은 외과 의사가, 수술 후 항암 치료는 혈액종양내과 의사가, 방사선치료의 적용에 대한 내용은 방사선종양학과 의사가 자세히 설명했고, 영상검사 소견에 대해서는 영상의학과 의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가장 궁금했던 수술 후 일상생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포괄평가’ 점수를 통해 합병증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받았다. <br/> <br/>결국 용기를 내 수술을 받은 김순자 씨는 씩씩하게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이미 치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항암 치료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두 알고 있는 상태라서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진 상태. 김 씨는 이제 일상에 복귀할 준비와 함께 혹시 찾아올지 모를 다른 질환까지 대비하고 있다. <br/> <br/>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진원 교수는 “다학제 노인암 진료는 노인의 특성과 암 진행 상태를 고려한 개인형 맞춤치료를 실현하고 노인 암 환자의 삶의 질 및 생존을 증가 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암 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며,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덜 받거나 혹은 과잉 진료를 받으시는 많은 노인 암 환자분들이 다학제 노인암 진료를 통해 적정 진료와 최선의 치료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74.txt

제목: 비오듯 쏟아지는 땀, 뇌질환이 원인일 수도  
날짜: 20150727  
기자: 양지병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7100000822  
본문:  중학교 때 뇌수막염 치료를 받은 적 있는 대학생 장수목 씨(23세, 남)는 시도 때도 없이 땀이 흐르고, 땀의 양도 무척 많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흐른 땀 때문에 원하지 않은 작동키가 눌러지고, 물건을 집어올리다 미끄러트려 털어뜨리기도 일쑤다. 장 씨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톡스나 약물 등으로 손쉽게 다한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다. 하지만 장 씨의 주치의인 흉부외과 김정태 과장은 “<span class='quot0'>다한증은 원인이 다양하고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진다</span>”며 “<span class='quot0'>장 씨와 같이 뇌질환에 대한 치료가 선행된 바가 있다면 치료가 마무리 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유증으로 다한증이 발생된 것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 기저질환이 원인인 이차성 다한증다한증은 체온조절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땀이 흐르는 증상이다.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증세가 드러나는 양상이나 심각도가 제각각 다르나, 환자 본인이 불편감을 느낀다면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 주먹을 꼭 쥐고 30초에서 1분 사이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흐른다면 다한증을 의심해보아야 한다.한정된 부위에 집중적으로 땀이 나는 국소다한증은 물론 음식을 먹을 때 땀을 흘리는 미각형 다한증이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 땀을 흘리는 후각성 다한증도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 지난 2014년 1만 2542명이 병원을 찾아 다한증 치료를 받았다.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으로 분류됐으나 일부의 경우 기저질환이 원인인 이차성 다한증으로 나타났다. 사례자 역시 질환 발병 이후 땀이 많이 나기 시작했으므로 이차성 다한증을 짐작해볼 수 있다.다한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으로는 ▷ 결핵, 브루셀라 등의 감염성 질환 ▷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 뇌하수체항진증, 폐경 등 내분비질환 ▷ 갈색세포종, 유암종 등 신경내분비암 ▷ 백혈병, 림프종, 신장암 등 암 ▷ 파킨슨병, 척수손상, 뇌혈관질환 등 신경계질환 ▷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등 독성질환 등이 있다. 김정태 과장은 “<span class='quot0'>이차성 다한증은 원인질환의 종류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진다</span>”며 “<span class='quot0'>잘못된 접근으로 인해 보상성 다한증이 나타나면 손 쓰기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다한증 치료 ••• 정확한 접근이 선행해야 다한증 치료는 일시적 효과가 있는 치료와 영구적 효과가 있는 치료로 나뉜다. 땀이 나는 부위에 연고를 바르거나 먹는 양을 처방 받는 치료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전류를 흘려 보내 땀이 나지 않도록 하는 이온영동법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 치료법은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 흉부외과에서 행해지는 다한증 치료는 땀이 나는 원인 부위를 직접 치료해 기대효과가 영구적이다. 하지만 땀샘을 직접 제거하거나 교감신경을 제거하는 수술법은 부위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수술 후 보상성 다한증이 생길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김정태 과장은 “<span class='quot0'>여러 가지 다한증 치료법이 보급돼 있어 예전보다 쉽고 간편한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원인 질환이 따로 있거나, 치료법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에는 추적 관찰을 통해 효과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나이가 어릴 때는 보상성 다한증을 감안해 약물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단계별 치료가 필요하고, 이후 단계에서 시술을 적용할 때도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좋다</span>”고 설명했다.한방에서는 오미자를 다한증에 좋은 음식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자율신경계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직 식품 섭취만으로 다한증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각에 알려진 다한증에 좋은 음식들 역시 다한증으로 인해 땀 배출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체내 수분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고수분 음식들일 뿐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갖지는 않는다. 반면, 다한증에 좋지 않은 음식은 있다. 카페인은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 다한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염분이 많은 음식 역시 땀에서 악취가 나게 할 수 있으므로 다한증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다한증으로 발전할 수 있거나 이미 원인질환이 된 기저질환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선행해야 한다. /도움말: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정태 과장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75.txt

제목: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노인 암환자 위한 다학제’ 진료  
날짜: 20150727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7100000330  
본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임 암환자 다학제진료팀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중위) 나이는 2014년 40세를 넘어섰고,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은 2040년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노년사회의 건강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렇지만 대한민국 노년층 건강의 현실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데, 이는 수명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강 수명’의 영향이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여명과 건강 수명은 약 10년 정도의 차이로, 평균적으로 사망 전 10년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노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렇게 ‘잃어버릴 10년’의 기간 동안 한국인의 노년을 괴롭힐 수 있는 질환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노인층의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은 ‘암’이다. 암치료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항암제의 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 등은 다른 만성 질환과 달리 치료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식도암에서는 이미 노인 암환자의 비율이 각 46%, 50%, 58%, 64%에 이르러 노인암 치료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지만, 청 • 장년층의 암과 구분되는 노인암만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한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고령화시대 노년층 암환자만을 위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노인암 다학제’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암 치료와 적정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다학제 진료란 서로 다른 전문 진료 과목의 전문의들이 동시에 한 진료실에 모여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상의 진단 및 치료계획이 도출될 수 있고, 환자의 병기에 맞는 적절한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단축되며, 환자의 입장에서는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모두 해소할 수 있는데다 진료비가 절약된다는 장점도 있다.얼마 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김순자 씨(가명/여 • 69세)는 사실 수술을 받기 전 고민이 많았다. 수술 결과에 대한 걱정은 물론 머리가 모두 빠질 정도로 독하다는 항암 치료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수술 후 일상생활의 가능여부 등이 고민의 원인이었다.진료 상담을 진행하던 노인병내과 김광일 교수는 불안해하는 김순자 씨에게 ‘노인암 다학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료를 권했다. 예약된 날 다학제 진료실에 들어가는 김순자씨를 여덟 명의 전문의가 반갑게 맞이했다.복강경 수술에 대한 질문은 외과 의사가, 수술 후 항암 치료는 혈액종양내과 의사가 자세히 설명했고, 암의 형태와 진행 상태에 대해서는 영상의학과 의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가장 궁금했던 수술 후 일상생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개발한 ‘노인포괄평가’ 점수를 통해 합병증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받았다.결국 용기를 내 수술을 받은 김순자 씨는 씩씩하게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이미 치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항암 치료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두 알고 있는 상태라서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진 상태. 김 씨는 이제 일상에 복귀할 준비와 함께 혹시 찾아올지 모를 다른 질환까지 대비하고 있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진원 교수는 “<span class='quot0'>다학제 진료는 환자가 중심이 되는 치료를 목표로 진단하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암 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막연한 두려움으로 과잉 진료를 받으시는 많은 노인암 환자분들이 다학제 진료를 선택하셔서 적정한 진료와 최선의 치료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span>”고 전했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76.txt

제목: 제임스본드 제트기 만들어 타고다닌 영국 열혈팬 사망  
날짜: 201507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7100000554  
본문: 영화 007시리즈에 등장해 유명해진 소형 제트기를 직접 제작해 타고 다닌 영국의 열혈팬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인 하워드 콕스(67)가 25일 소형 제트기 BD5를 몰고 가다 아일랜드 워터포드 지역의 밭에 떨어져 사망했다.BD5는 1983년 007시리즈 '옥토퍼시'가 개봉했을 때 첫 장면에 등장해 명성을 얻은 소형 제트기다. 콕스는 대학 시절 BD5 제작을 시작해 30여 년을 쏟아부었고 약 10년 전부터 몇 차례 에어쇼에 등장해 '애마'를 선보였다. 이날도 콕스는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포인스 에어쇼에 참가하러 비행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수준급 비행실력을 지닌 콕스는 BD5 조립세트를 구해 제작했다. 이 조립세트는 수천 개가 팔려나갔으나 부품공장 파산으로 실제 비행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콕스는 몇 달 전 암을 극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인스 에어쇼 감독인 제리 험프리는 "최근 암을 넘어서서 매일을 보너스처럼 살던 인물"이라며 안타까워했다.그는 "콕스가 비행을 매우 즐기고 사랑했고 하늘에서 보는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게 들려줬다"면서 "열정적이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고 매우 슬프다"라고 말했다.포인스 에이쇼에서는 콕스를 기리기 위해 1분간 묵념을 했다. 아일랜드 항공당국은 추락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77.txt

제목: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강정생명평화대행진 첫발  
날짜: 201507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7100000566  
본문: 제주해군기지 건설중단을 촉구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를 주제로 27일 첫발을 내디뎠다.행진단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전초기지로 만들 수 없다"며 "제주를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내고,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행진에 나섰다"고 행진의 의미를 설명했다.이들은 "제주해군기지는 민군 복합항으로 사용되지 않고 군사기지로 전용될 것이 뻔하다"며 "즉각적인 건설중단만이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또 "3천일의 투쟁 과정에서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들이 700여명, 그 중 기소돼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 사람들이 600여명, 그리고 부당하게 구속됐던 이들이 38명이다. 확정된 벌금만 4억여원에 달한다"며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필리핀에서 온 메르세데스 메르시 리아리나스-앙헬레스 평화여성파트너(Peace Women Partners)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필리핀 수비크만 지역 미군기지 철거운동 경험을 공유했다. 그녀는 "기나긴 투쟁으로 미국 해군·공군 기지가 철수한 뒤에도 기지 주변의 많은 이들이 미군이 버린 유독성 폐기물로 인해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빈곤과 성매매와 같은 사회 문제들이 계속돼 주민들이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며 "강정마을과 제주도가 그런 필리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돕기 위해 행진에 동참하게 됐다"고 했다. 행진에는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평화활동가, 용산참사 유가족, 밀양 송전탑 지역주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해외 평화운동가 등이 함께했다.행진단은 동진단과 서진단으로 나뉘어 5박6일간 제주 전역을 누비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알린 뒤 다음 달 1일 강정마을에 모인다.도착 당일 오후 12시 30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부근에서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위한 평화 인간띠 잇기 행사가 열린다. 이어 5시에는 강정마을 축구장에서 강정 해군기지건설 반대투쟁 3천일 범국민문화제가 진행된다. 이번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강정마을회, 강정친구들,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이 공동주관하고, 민주노총 등 95개 단체가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78.txt

제목: '나이는 숫자일 뿐'…10년 만에 체대 졸업한 中 노인  
날짜: 20150726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610018033724  
본문:   <br/> <br/> <br/>중국의 80대 노인이 10년 만에 체육대학을 졸업해 화제다. 전직 기술자였던 노인은 석사학위까지 취득했으며, 대학 조교로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br/> <br/>중국 우한(武漢) 체육대학에서 테니스를 전공한 장 런펑(84) 할아버지가 최근 진행된 졸업식에서 학위를 수여했다. 2006년 처음 대학에 다닌 지 10년 만이다. 졸업식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수들은 학사모를 쓴 장씨 할아버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br/> <br/>우한 시 한양(漢陽) 구에 사는 장씨는 집과 학교의 거리가 멀었지만 지각한 적이 없다. 그는 제일 먼저 강의실에 들어와 가장 늦게 귀가했다. 교수들도 장씨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br/> <br/>장씨는 테니스 외에 사진, 프랑스어 그리고 일본어도 배웠다. 그를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실감 난다. <br/> <br/>장씨에게도 어려운 시절은 있었다. 지난 2012년, 병원에서 전립선암 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암도 장씨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지도교수 덕분에 4년에 걸친 석사 과정도 무사히 마쳤다. <br/> <br/> <br/>장씨와 함께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모두 그를 좋아했다. 많은 이들은 “할아버지의 열정에 감동했다”며 “그의 성실함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장씨도 학생들에게 인생경험을 나눠줘 기뻐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장씨는 “<span class='quot0'>눈과 귀가 좋지 않은 나를 위해 앞자리를 양보해준 학생들에게 고맙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span>”고 고마워했다. 앞으로 장씨는 테니스 강의 조교로 나서 다른 이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중국 텅쉰망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79.txt

제목: [새로 나온 책]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외  
날짜: 20150725  
기자: 김신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70250251  
본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클레이본 카슨 엮음 지음·이순희 옮김·바다출판사·1만5000원)=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틴 루서 킹 목사 자서전. 스탠퍼드대학 교수인 저자가 편찬한 ‘마틴 루서 킹 목사 전집’ 가운데 자전적 이야기만 골라 1인칭 시점의 전기로 만들었다. 킹 목사가 몽고메리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해 펼친 버스 보이콧 운동, 흑인 투표권 쟁취를 위해 시작한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의 행진, 시카고 할렘으로 이주해 벌인 빈민 구제 운동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그가 대중 앞에서 한 연설과 설교, 감옥에서 보낸 메시지, 신문에 기고한 칼럼도 확인할 수 있다. <br/> <br/>벤야민과 브레히트(에르트무트 비치슬라 지음·윤미애 옮김·문학동네·3만원)= 20세기 가장 중요한 비평가로 꼽히는 발터 벤야민과 가장 위대한 독일 극작가로 불리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1920년대 말∼1930년대 말 역사적 교류를 쓴 평전이자 두 사람의 저술 등을 분석한 연구서다. 두 사람이 10여년간 맺었던 긴밀한 교류는 양측 모두의 사유에 큰 영향을 미친 ‘예술정치적 사건’이었다. 책은 벤야민과 브레히트가 남긴 방대한 서신과 대화록을 바탕으로 이들의 우정에 담긴 인간적·정치적 의미를 재조명한다. <br/> <br/>한국인은 미쳤다(에리크 쉬르데주 지음·권지현 옮김·북하우스·1만2000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LG전자에서 프랑스 법인장을 지낸 외국인 최고경영자(CEO)의 시각으로, 위계적이고 군사적인 한국의 기업문화를 짚어본 책이다. 저자는 2006년 LG그룹에서 외국인 최초로 고위 임원진(상무)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LG에서 보낸 10년은 직업적인 도전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경험이었다고 털어놓는다. 책에는 하루 10∼14시간 근무, 상사의 냉혹한 감시, 온종일 컴퓨터와 전화기 앞에 매달린 직원들, 냉정하고 가차없는 평가와 징계, 종교집회 같은 기업연수 등 지나친 성과주의와 효율성에 파묻힌 한국의 기업문화가 프랑스인의 시선을 따라 고스란히 담겨 있다. <br/> <br/>닥터 로제타 홀(박정희 지음·다산초당·1만9800원)= 1890년 25세의 나이에 조선을 찾아 43년 동안 의료와 교육 선교를 펼친 로제타 셔우드 홀의 인생과 사랑 이야기. 그가 동대문에 세운 볼드윈 진료소는 오늘날 이화여대 부속병원으로 발전했고, 남편 윌리엄 홀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기홀병원은 평양연합기독병원으로 확장됐으며, 여성 의료인을 배출하기 위해 만든 경성여자의학강습소는 고려대 의과대학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에서 사범학교를 다니며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로제타는 맹아학교와 농아학교를 설립해 장애 소녀들을 교육하기도 했다. <br/> <br/>엔딩 크레딧(원재훈 지음·라꽁떼·1만6000원)= 시인의 감성을 통해 분노·사랑·행복 세 가지 시선으로 영화적 메시지를 잡아낸다. ‘쇼생크 탈출’, ‘사랑과 영혼’, ‘죽은 시인의 사회’, ‘서편제’, ‘행복을 찾아서’ 등 희망을 이어나가며 우리 삶에 힘을 주는 영화 30편을 선정해 소개한다. 지은이는 중세의 건축, 19세기의 문학·음악·미술의 시대에 이어 21세기는 영화의 시대라고 강조한다. 요즘은 영화관의 스크린을 통해 과거 책에서 얻었던 인생의 자양분을 섭취하고, 위안과 치유의 기운을 받는다는 것이다. 책 제목인 엔딩 크레디트는 제작에 참여한 감독과 배우를 비롯한 모든 스태프의 이름을 뜻한다. <br/> <br/>사는 게 뭐라고(사노 요코 지음·이지수 옮김·마음산책·1만2000원)= 일본 아동문학가 사노 요코(1938∼2010)가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쓴 생활 기록이다. 그는 “죽는 날까지 좋아하는 물건을 쓰고 싶다”며 충동구매에 나서고 DVD를 사모으다 재산을 탕진한다. ‘겨울연가’의 ‘욘사마’에게 푹 빠져서 정신을 차려보니 남이섬 가로수길을 걷고 있다. 산다는 것의 생생함과 추함을 바라보다 울적해지는 것에 질려서 ‘치매 예방’ 마작을 즐긴다. 60대 독거 작가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던 그의 ‘까칠한’ 내면이 간결한 문장에 솔직하게 담겼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80.txt

제목: "내 아이들 잘 부탁해..", 두 엄마의 특별한 '약속'  
날짜: 20150725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510018031861  
본문: 로라 가족.“<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내가 죽으면 내 아이들을 잘 부탁해</span></span>” <br/> <br/>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남겨질 아이들 걱정된 엄마는 친구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다. <br/> <br/>그녀의 친구는 유언과도 같았던 그 말을 잊지 않고 지켰다. <br/> <br/>미국 WKBW TV는 엘리자베스 다이아몬드(40)와 로라 루피노(40)의 ‘약속’을 소개했다. 두 엄마의 특별한 약속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이 함께 공감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br/> <br/>1980년 미국 뉴욕주 버팔로. 5살 때부터 소꿉친구였던 엘리자베스와 로라는 유년시절을 함께하며 서로를 친자매처럼 여겨왔고 어른이 되어서도 소녀 시절만큼 가깝게 지냈다. <br/> <br/>그러던 지난 2014년 8월. 각별했던 두 사람에게 믿기 힘든 비극이 찾아왔다. 심한 두통을 느껴 병원을 찾은 엘리자베스가 뇌암 4기 판정을 받은 것이다. <br/> <br/>둘의 우정을 하늘이 질투라도 한 것일까. 아빠도 없이 4명의 딸을 키우며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엘리자베스였기에 시한부 선고는 더 슬펐다. <br/> <br/>하지만 그녀는 어린 딸들이 걱정돼 울지도 못했다. “<span class='quot0'>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span>”라고 걱정하며 자신에게 닥친 시련에는 슬퍼하지 못했다. <br/> <br/>“<span class='quot0'>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span>”며 자기 일처럼 슬퍼하던 로라. 그녀는 근심에 가득한 엘리자베스를 달래며 유언과도 같은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내가 죽으면 내 아이들을 잘 부탁해</span></span>”란 말을 듣게 된다. <br/> <br/>로라는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엘리자베스를 이해할 수 있었기에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br/> <br/>그렇게 마음의 짐을 던 엘리자베스는 지난 4월 세상을 떠났다. <br/> <br/>남겨진 아이들은 약속처럼 로라의 딸이 됐다. 아직 모든 게 어색하고 쉽지 않지만 로라는 “<span class='quot1'>나는 엄마이기에 그 어떤 상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 <br/>이제 8명 대가족이 된 로라 가족은 “집이 작아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다"고 웃으며 말한다.  <br/> <br/> 엘리자베스의 딸들은 미소를 잃지 않고 로라를 엄마라 부르고 있다. <br/> <br/>“<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내가 죽으면 내 아이들을 잘 부탁해</span></span>”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WKBW TV, 페이스북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81.txt

제목: [새로 나온 책]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외  
날짜: 2015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5100000504  
본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클레이본 카슨 엮음 지음·이순희 옮김·바다출판사·1만5000원)=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틴 루서 킹 목사 자서전. 스탠퍼드대학 교수인 저자가 편찬한 ‘마틴 루서 킹 목사 전집’ 가운데 자전적 이야기만 골라 1인칭 시점의 전기로 만들었다. 킹 목사가 몽고메리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해 펼친 버스 보이콧 운동, 흑인 투표권 쟁취를 위해 시작한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의 행진, 시카고 할렘으로 이주해 벌인 빈민 구제 운동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그가 대중 앞에서 한 연설과 설교, 감옥에서 보낸 메시지, 신문에 기고한 칼럼도 확인할 수 있다.벤야민과 브레히트(에르트무트 비치슬라 지음·윤미애 옮김·문학동네·3만원)= 20세기 가장 중요한 비평가로 꼽히는 발터 벤야민과 가장 위대한 독일 극작가로 불리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1920년대 말∼1930년대 말 역사적 교류를 쓴 평전이자 두 사람의 저술 등을 분석한 연구서다. 두 사람이 10여년간 맺었던 긴밀한 교류는 양측 모두의 사유에 큰 영향을 미친 ‘예술정치적 사건’이었다. 책은 벤야민과 브레히트가 남긴 방대한 서신과 대화록을 바탕으로 이들의 우정에 담긴 인간적·정치적 의미를 재조명한다. 한국인은 미쳤다(에리크 쉬르데주 지음·권지현 옮김·북하우스·1만2000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LG전자에서 프랑스 법인장을 지낸 외국인 최고경영자(CEO)의 시각으로, 위계적이고 군사적인 한국의 기업문화를 짚어본 책이다. 저자는 2006년 LG그룹에서 외국인 최초로 고위 임원진(상무)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LG에서 보낸 10년은 직업적인 도전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경험이었다고 털어놓는다. 책에는 하루 10∼14시간 근무, 상사의 냉혹한 감시, 온종일 컴퓨터와 전화기 앞에 매달린 직원들, 냉정하고 가차없는 평가와 징계, 종교집회 같은 기업연수 등 지나친 성과주의와 효율성에 파묻힌 한국의 기업문화가 프랑스인의 시선을 따라 고스란히 담겨 있다.닥터 로제타 홀(박정희 지음·다산초당·1만9800원)= 1890년 25세의 나이에 조선을 찾아 43년 동안 의료와 교육 선교를 펼친 로제타 셔우드 홀의 인생과 사랑 이야기. 그가 동대문에 세운 볼드윈 진료소는 오늘날 이화여대 부속병원으로 발전했고, 남편 윌리엄 홀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기홀병원은 평양연합기독병원으로 확장됐으며, 여성 의료인을 배출하기 위해 만든 경성여자의학강습소는 고려대 의과대학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에서 사범학교를 다니며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로제타는 맹아학교와 농아학교를 설립해 장애 소녀들을 교육하기도 했다. 엔딩 크레딧(원재훈 지음·라꽁떼·1만6000원)= 시인의 감성을 통해 분노·사랑·행복 세 가지 시선으로 영화적 메시지를 잡아낸다. ‘쇼생크 탈출’, ‘사랑과 영혼’, ‘죽은 시인의 사회’, ‘서편제’, ‘행복을 찾아서’ 등 희망을 이어나가며 우리 삶에 힘을 주는 영화 30편을 선정해 소개한다. 지은이는 중세의 건축, 19세기의 문학·음악·미술의 시대에 이어 21세기는 영화의 시대라고 강조한다. 요즘은 영화관의 스크린을 통해 과거 책에서 얻었던 인생의 자양분을 섭취하고, 위안과 치유의 기운을 받는다는 것이다. 책 제목인 엔딩 크레디트는 제작에 참여한 감독과 배우를 비롯한 모든 스태프의 이름을 뜻한다. 사는 게 뭐라고(사노 요코 지음·이지수 옮김·마음산책·1만2000원)= 일본 아동문학가 사노 요코(1938∼2010)가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쓴 생활 기록이다. 그는 “죽는 날까지 좋아하는 물건을 쓰고 싶다”며 충동구매에 나서고 DVD를 사모으다 재산을 탕진한다. ‘겨울연가’의 ‘욘사마’에게 푹 빠져서 정신을 차려보니 남이섬 가로수길을 걷고 있다. 산다는 것의 생생함과 추함을 바라보다 울적해지는 것에 질려서 ‘치매 예방’ 마작을 즐긴다. 60대 독거 작가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던 그의 ‘까칠한’ 내면이 간결한 문장에 솔직하게 담겼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82.txt

제목: 말기암 환자 등에 소금물 관장 등 불법의료행위한 목사부부, 실형 선고받아  
날짜: 2015072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5927927  
본문: 난치병을 치료해 준다며 소금물 관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목사 부부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br/> <br/>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동구 명일동 모 교회 조모(56) 목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내 강모(63)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br/> <br/>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공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증인들이 자연치유로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받은 돈의 상당액을 캠프 운영에 다시 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r/> <br/>재판부는 캠프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조 목사보다는 아내 강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조 목사를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br/> <br/>조 목사 부부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말기암과 같은 난치병 환자나 아토피 질환자 등 571명을 상대로 캠프를 열어, 소금물 관장과 된장 찜질, 생식, 단식 등 무허가 의료행위를 벌여 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r/> <br/>2011년 9월 대장암으로 숨진 최동원 선수도 사망 9개월 전쯤 이 캠프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캠프 참가자들은 "조씨 부부가 고혈압이나 심장, 위염 등에 소금물로 관장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현혹했으며, 최동원 선수가 캠프에 있었다는 사실을 들먹이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83.txt

제목: '암살' 개봉 3일 만에 100만 돌파 '올해 최단 기록'  
날짜: 20150724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5613404  
본문: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주연의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이 개봉 3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br/> <br/>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암살의 관객수는 24일 오전 8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 <br/> <br/>앞서 암살은 지난 22일 개봉 첫날에만 47만7586명을 동원하며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한 바 있다. '100만 돌파' 역시 올해 최단기록이다. <br/> <br/>암살은 '도둑들' '전우치' '타짜' 등을 연출한 충무로 흥행메이커 최동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조진웅 등 톱스타 캐스팅으로 많은 기대와 화제를 모았다.  <br/> <br/>1933년 상하이와 서울을 배경으로 암살 작전을 위해 모인 독립군과 임시정부 대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의 서로 다른 선택과 운명을 그린 작품이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84.txt

제목: 뼈암 환자에 3D프린팅 골반뼈 이식  
날짜: 201507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4100000096  
본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신동아 교수팀이 3D프린팅 기술로 환자 맞춤형 골반뼈(천추)를 만들어 10대 여학생의 골반뼈를 교체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첫 사례다. 여학생은 골반뼈에 생긴 암으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지만 수술 후 일주일 만에 보행이 가능해지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의 동그라미 안이 천추다. 세브란스병원 제공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85.txt

제목: 이제는 넥시아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 심사 받나?  
날짜: 2015072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4100000864  
본문:  지난 20일부터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홈페이지 (www.kma.org) 공지사항에 ‘NEXIA ORIGIN(최원철 저)에 게재된 암치료 사례의 비과학적 임상효과 주장에 대한 현대의학적 검증’ 연구자 공모」 제하의 글을 게시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24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에 따르면 근거중심 의학발전을 위해 정책?학문적 자료 구축을 통한 대한방 정책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이번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제안했다.그 후 한특위는 이번 대한방 의료정책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라포르시안, 청년의사 신문, 의협신문, 데일리메디 등 인터넷 의료전문지에 관련 기사을 게재해 연구자를 공모했다.이에 넥시아라 칭하는 한약을 처방하고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융합의료센터(센터장 정현식)소속 의료진들은 암치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과학중심의학연구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같은 비전문 기관이 아닌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나선 것을 환영했다.단국대학교병원 융합의료센터(이하 단융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오랜 기간 동안 표적이 되어왔던 이른바 넥시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span>”고 밝혔다.그러나, 제안한 과제가 학술연구과제가 아닌 정책연구과제라는 점과 과제명, 연구 배경 및 목적이 이례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적정 연구비 예상금액이 일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신청자격이 암치료 비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제출기간이 3일간으로 매우 짧다는 점 등 공정한 연구과제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이와 관련 해 한특위 정책팀 관계자는“<span class='quot0'>넥시아의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해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했고, 긴급사항으로 판단해 제출기간을 3일로 한정했고, 수행연구자로 혈액종암 내과전문의 등이 포함 되었는지 입찰 심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span>”고 말했다.따라서 단융의 소속 의료진들은 공정하고 권위 있는 과제 수행을 위해 정책연구자로 의료법 상 의료인들 중 정교수 급 암치료 전문가로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단융의는 연구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과제명, 연구배경, 연구목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NEXIA ORIGIN에 실린 환자들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항암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과 비교하는 등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단융의는 연구자 선정 이유 및 검증자 서명이 날인된 연구과제 수행 결과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고 납득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하여 언론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당부했다단융의 관계자는“<span class='quot1'>마지막으로 환자를 위한 마음은 한ㆍ양방 의사가 모두 같겠지만 그 접근방법은 의사마다 다를 수 있는바, 자기식이 아니면 비난하는 자세가 아닌 상호 영역이 존중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span>”고 밝혔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86.txt

제목: 말기암 환자 등에 소금물 관장 등 불법의료행위한 목사부부, 실형 선고받아  
날짜: 20150724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4100000544  
본문: 난치병을 치료해 준다며 소금물 관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목사 부부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동구 명일동 모 교회 조모(56) 목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내 강모(63)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공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증인들이 자연치유로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받은 돈의 상당액을 캠프 운영에 다시 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캠프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조 목사보다는 아내 강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조 목사를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조 목사 부부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말기암과 같은 난치병 환자나 아토피 질환자 등 571명을 상대로 캠프를 열어, 소금물 관장과 된장 찜질, 생식, 단식 등 무허가 의료행위를 벌여 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2011년 9월 대장암으로 숨진 최동원 선수도 사망 9개월 전쯤 이 캠프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캠프 참가자들은 "조씨 부부가 고혈압이나 심장, 위염 등에 소금물로 관장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현혹했으며, 최동원 선수가 캠프에 있었다는 사실을 들먹이기도 했다"고 증언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87.txt

제목: '나이는 숫자일 뿐'…10년 만에 체대 졸업한 中 노인  
날짜: 201507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4100000604  
본문:  중국의 80대 노인이 10년 만에 체육대학을 졸업해 화제다. 전직 기술자였던 노인은 석사학위까지 취득했으며, 대학 조교로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중국 우한(武漢) 체육대학에서 테니스를 전공한 장 런펑(84) 할아버지가 최근 진행된 졸업식에서 학위를 수여했다. 2006년 처음 대학에 다닌 지 10년 만이다. 졸업식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수들은 학사모를 쓴 장씨 할아버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우한 시 한양(漢陽) 구에 사는 장씨는 집과 학교의 거리가 멀었지만 지각한 적이 없다. 그는 제일 먼저 강의실에 들어와 가장 늦게 귀가했다. 교수들도 장씨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장씨는 테니스 외에 사진, 프랑스어 그리고 일본어도 배웠다. 그를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실감 난다.장씨에게도 어려운 시절은 있었다. 지난 2012년, 병원에서 전립선암 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암도 장씨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지도교수 덕분에 4년에 걸친 석사 과정도 무사히 마쳤다.장씨와 함께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모두 그를 좋아했다. 많은 이들은 “할아버지의 열정에 감동했다”며 “그의 성실함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장씨도 학생들에게 인생경험을 나눠줘 기뻐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씨는 “<span class='quot0'>눈과 귀가 좋지 않은 나를 위해 앞자리를 양보해준 학생들에게 고맙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span>”고 고마워했다. 앞으로 장씨는 테니스 강의 조교로 나서 다른 이들과 함께할 예정이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사진=중국 텅쉰망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88.txt

제목: 약속  
날짜: 20150724  
기자: blondie@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4100000287  
본문: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내가 죽으면 내 아이들을 잘 부탁해</span></span>”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남겨질 아이들 걱정된 엄마는 친구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친구는 유언과도 같았던 그 말을 잊지 않고 지켰다.WKBW TV는 엘리자베스 다이아몬드(40)와 로라 루피노(40)의 ‘약속’을 소개했다.두 엄마의 특별한 약속이 전해지자 25일 현재까지 소셜 미디어에 추모와 격려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미국 뉴욕주 버팔로.  엘리자베스와 로라는 5살 때부터 소꿉친구였다.그렇게 유년시절을 함께하며 서로를 친자매처럼 여겼던 둘은 어른이 되어서도 소녀 시절만큼 가깝게 지냈다.그러던 지난 2014년 8월. 각별했던 두 사람에 믿기 힘든 비극이 찾아왔다. 심한 두통을 느껴 병원을 찾은 엘리자베스가 뇌암 4기 판정을 받은 것이다.둘의 우정을 하늘이 질투라도 한 것일까. 아빠도 없이 4명의 딸을 키우며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엘리자베스였기에 시한부 선고는 더 슬펐다.하지만 그녀는 어린 딸들이 걱정돼 울지도 못했다. “<span class='quot0'>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span>”라고 걱정하며 자신의 미래는 슬퍼하지 못했다.“<span class='quot0'>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span>”며 자기 일처럼 슬퍼하던 로라. 그녀는 근심에 가득한 엘리자베스를 달래며 엘리자베스의 걱정을 알게 됐고 유언과도 같은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내가 죽으면 내 아이들을 잘 부탁해</span></span>”란 말을 듣자 조용히 엘리자베스를 안아주었다. 지난 4월. 엘리자베스가 세상을 떠나자 로라는 친구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엘리자베스의 딸을 입양했다.이제 8명 대가족이 된 리코 가족은 “집이 작아 조금 불편하지만 서로가 잘 지낼 수 있게 노력 중”이다.로라는 “어떤 상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친구와의 약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리코 가족은 미국 뉴욕주 이리카운티 오차드 파크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위해 모금을 하고 있다. 현재 5000달러(약 585만원)의 기금이 모였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89.txt

제목: [뉴스 브리핑] 서울 강남역 사거리 좌회전 허용  
날짜: 201507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4100000075  
본문: 농수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농·수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연 3∼4%에서 1.8∼3.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농·수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시장 금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농·어업인은 1.8%, 고정금리 대출을 신청한 농·어업인은 2.5%를 적용받는다. 고정금리 인하는 내달부터 즉시 적용되고 변동금리 인하는 약 3개월이 걸리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적용된다. 당·정은 또 가뭄 피해 농가에 대해 헥타르(ha)당 220만원의 대파비(자연재해로 파손된 건축물에 대한 지원비)와 88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최홍만 ‘억대 사기 혐의’로 檢 송치서울 광진경찰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사진)씨를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문모(36)씨에게 자신과 여자친구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1억여원)를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 강남역 사거리 좌회전 허용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부터 강남역사거리에서 모든 차량의 좌회전을 전면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노선 버스가 역삼역에서 양재역 방면, 교대역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것만 허용됐었다.뼈암 환자에 3D프린팅 골반뼈 이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신동아 교수팀이 3D프린팅 기술로 환자 맞춤형 골반뼈(천추)를 만들어 10대 여학생의 골반뼈를 교체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첫 사례다. 여학생은 골반뼈에 생긴 암으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지만 수술 후 일주일 만에 보행이 가능해지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의 동그라미 안이 천추다. 세브란스병원 제공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90.txt

제목: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하얀 보약, '우리 흰 우유'  
날짜: 2015072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5240202  
본문:   <br/> <br/> <br/>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흰 우유는 ‘하얀 보약’이라고 불리며 체중 관리에 없어서는 안 될 식품으로 자리매김했다. <br/> <br/>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우유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되고 있다. 스웨덴의 한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우유를 많이 마실수록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여성의 경우보다 사망 위험률이 2배라는 결과가 나와 소비자들은 불안이 확산됐다. <br/> <br/>23일 업계에 따르면 하지만 최근 이 같은 결과는 실험대상자의 흡연, 음주여부, 체중이나 신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br/> <br/>이처럼 우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빠르게 확산돼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우유 속 IGF-1에 의해서 암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도 근거 없는 오해일 뿐이다. <br/> <br/>순천향대 윤병욱 교수는 “<span class='quot0'>100g당 105mg의 칼슘이 들어 있는 우유는 현존하는 식품 중 칼슘 체내 흡수가 가장 잘되는 식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성장기 어린이와 갱년기 여성은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 우유를 먹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 <br/> <br/>더불어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7173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유와 요구르트를 하루에 2회 섭취하는 사람들의 비만위험도가 37%나 낮으며, 하루 1회 섭취하는 사람들은 21%나 비만위험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br/> <br/>을지대학교 이해정 교수는 “<span class='quot1'>우유와 요구르트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비만위험도가 낮아진다</span>”고 말했다. <br/> <br/>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젖소의 건강관리를 시작으로 제조 과정까지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매일 전국 목장에서 생산되는 우유에 대해 항생제 검사를 실시하고 착유한 원유는 즉시 냉각해 저온 보관한다. <br/> <br/>목장별로 채취한 우유 샘플에 대한 체세포 수와 세균 수 검사를 매일 실시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br/> <br/>300여 가지의 품질 평가 항목을 통과한 원유를 엄선해서 만든 우유는 건강기능식품을 따로 챙겨 먹지 않더라도 하루에 우유 한 잔만 챙겨 마시면 손쉽게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91.txt

제목: 한국먼디파마, 메디폼 모델 이승기 '희망 꽃바구니 행사' 참여  
날짜: 2015072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5236698  
본문:   <br/> <br/> <br/>한국먼디파마는 23일 자사 습윤드레싱재 메디폼®의 홍보 모델로 활동하며 국민훈남으로 등극한 배우 이승기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된 ‘한국먼디파마 창립 17주년 기념 제 3회 희망꽃바구니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br/> <br/>소아암 환자 가족, 한국먼디파마 임직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이승기는 일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소아암 환자 가족에게 전달할 꽃바구니 제작 및 선물 세트 포장과 소아암 환자 가족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컬러링 단체 작품 제작 등의 활동을 펼쳤다. <br/> <br/>또한 1:1 팬미팅 형식의 미니 싸인회를 통해 행사에 참석한 소아암 환자들에게 직접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br/> <br/>한국먼디파마는 암으로 고통 받는 소아암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했으며, 2013년부터 매년 창립기념행사로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꽃바구니와 선물 세트를 소아암 환자 가족에게 전달하는 희망꽃바구니 행사를 실시해왔다. <br/> <br/>특히 올해 행사를 통해서는 소아암 환자가 피부와 마음에 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꽃바구니와 함께 피부에 상처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메디폼® 제품 세트와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 교육에 도움이 되는 컬러링 북 세트가 소아암 환자 가족에게 선물로 전달될 예정이다. <br/> <br/>이승기는 “<span class='quot0'>홍보 모델로 활동 중인 메디폼® 브랜드와 한국먼디파마에서 소아암 환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뜻 깊은 행사에 두 해 연속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기회를 계기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암 투병으로 고통 받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응원하게 되기를 바란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 <br/> <br/>한편 한국먼디파마는 통증 치료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암 투병으로 고통 받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서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br/> <br/>특히 2014년에는 한국소아암재단과 함께 소아암 환자 가족들을 초청해 공연 등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먼디파마 힐링피크닉’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승기 역시 해당 행사에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소아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미니 싸인회를 진행한 바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92.txt

제목: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일요검진 실시,  
날짜: 20150723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5209048  
본문: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br/> <br/>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원장 임대종)은 직장인과 지역주민이 휴가철을 통해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8월 2일에 일요검진을 실시한다. <br/> <br/>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홍보팀에 따르면 일요일 건강검진은 바쁜 일상과 직장 업무로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종합검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5대암 검진, 생애전환기, 일반건강진단), 채용신체검사, 예방접종 등을 실시한다. <br/> <br/>강남지부 임대종 원장은 “<span class='quot0'>휴가기간이야 말로 그동안의 바쁜 일상 속에서 뒤로 미뤄두었던 건강을 챙겨볼 수 있는 황금기</span>”라며, “<span class='quot0'>연말로 갈수록 건강검진 받지 못한 분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만족도 높은 검진을 위해 연말을 피해 미리 검진 받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 <br/> <br/>일요검진은 오전 7시30분부터 12시까지이며, 8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해야 검진이 가능하다. 일요일 검진을 받으려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93.txt

제목: [세계식문화 연구가 양향자의 간편 레시피] 달콤하고 시원해 더운 여름에 딱, '수박 화채'  
날짜: 20150723  
기자: 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5100838  
본문: 수박은 여름철 대표 과일이다. 열을 식혀주고 가래를 멈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수분이 많아 이뇨작용에 탁월해 몸이 잘 붓는 사람들에게 좋다. 또 콜라겐과 리코펜 성분이 들어 있어 피부 탄력에도 좋고 암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오늘은 간식으로 간단하고 시원한 수박화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br/>사진=세계음식문화연구원 제공재료 ▲수박 1/2통 ▲후르츠 칵테일 1캔 ▲냉동 블루베리 1/2컵 ▲우유 1/2컵 ▲꿀 약간 ▲사이다 1/4컵 <br/> <br/>만드는 법 <br/> <br/>1. 수박은 껍질을 제거하고 과육만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br/>2. 1에 후르츠칵테일, 우유, 꿀, 사이다, 블루베리를 넣어 잘 섞어서 완성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94.txt

제목: 한국먼디파마, 메디폼 모델 이승기 '희망 꽃바구니 행사' 참여  
날짜: 20150723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3100000555  
본문:  한국먼디파마는 23일 자사 습윤드레싱재 메디폼®의 홍보 모델로 활동하며 국민훈남으로 등극한 배우 이승기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된 ‘한국먼디파마 창립 17주년 기념 제 3회 희망꽃바구니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소아암 환자 가족, 한국먼디파마 임직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이승기는 일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소아암 환자 가족에게 전달할 꽃바구니 제작 및 선물 세트 포장과 소아암 환자 가족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컬러링 단체 작품 제작 등의 활동을 펼쳤다.또한 1:1 팬미팅 형식의 미니 싸인회를 통해 행사에 참석한 소아암 환자들에게 직접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한국먼디파마는 암으로 고통 받는 소아암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했으며, 2013년부터 매년 창립기념행사로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꽃바구니와 선물 세트를 소아암 환자 가족에게 전달하는 희망꽃바구니 행사를 실시해왔다.특히 올해 행사를 통해서는 소아암 환자가 피부와 마음에 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꽃바구니와 함께 피부에 상처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메디폼® 제품 세트와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 교육에 도움이 되는 컬러링 북 세트가 소아암 환자 가족에게 선물로 전달될 예정이다.이승기는 “<span class='quot0'>홍보 모델로 활동 중인 메디폼® 브랜드와 한국먼디파마에서 소아암 환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뜻 깊은 행사에 두 해 연속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기회를 계기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암 투병으로 고통 받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응원하게 되기를 바란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한국먼디파마는 통증 치료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암 투병으로 고통 받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서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해왔다.특히 2014년에는 한국소아암재단과 함께 소아암 환자 가족들을 초청해 공연 등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먼디파마 힐링피크닉’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승기 역시 해당 행사에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소아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미니 싸인회를 진행한 바 있다.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95.txt

제목: "나 말기 암 환자야"…법망 피해 온 40대 구속  
날짜: 2015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3100000080  
본문: 강릉경찰서는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고도 말기 암 환자라고 속여 법망을 피해 온 김모(47)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께 강릉 율곡로의 한 공원에서 이모(46)씨가 말을 어눌하게 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지난 4월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공원 일대에서 시민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난 전직 권투선수로 격투기 운동을 했다'라고 위협하는가 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도 말기 췌장암 환자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는 일이 없다'라는 등의 말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1년 6개월 전부터 자신이 췌장암에 걸렸다고 말을 하면서도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다녔다고 전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96.txt

제목: 전이성 유방암 유발 후성유전자 발견  
날짜: 20150723  
기자: futurnalist@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3100000192  
본문: 전이성 유방암을 유발하는 후성유전자가 발견됨에 따라 치료제 개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22일 한양대에 따르면 의과대학 병리과 공구(51·사진) 교수 연구팀이 후성유전자 ‘DOT1L’이 전이성 유방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쥐의 정상 유방 세포에 DOT1L 유전자를 더하자 정상 세포가 유방암 세포로 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유방암 환자를 상대로 한 연구에서도 이 유전자가 많이 나타난 환자들은 그러지 않은 환자에 비해 암의 전이 빈도가 약 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연구 결과는 과학 온라인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될 예정이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97.txt

제목: [세계식문화 연구가 양향자의 간편 레시피] 달콤하고 시원해 더운 여름에 딱, '수박 화채'  
날짜: 2015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3100000439  
본문: 수박은 여름철 대표 과일이다. 열을 식혀주고 가래를 멈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수분이 많아 이뇨작용에 탁월해 몸이 잘 붓는 사람들에게 좋다. 또 콜라겐과 리코펜 성분이 들어 있어 피부 탄력에도 좋고 암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오늘은 간식으로 간단하고 시원한 수박화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사진=세계음식문화연구원 제공재료 ▲수박 1/2통 ▲후르츠 칵테일 1캔 ▲냉동 블루베리 1/2컵 ▲우유 1/2컵 ▲꿀 약간 ▲사이다 1/4컵만드는 법1. 수박은 껍질을 제거하고 과육만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2. 1에 후르츠칵테일, 우유, 꿀, 사이다, 블루베리를 넣어 잘 섞어서 완성한다.< (사)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98.txt

제목: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하얀 보약, '우리 흰 우유'  
날짜: 20150723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3100000670  
본문: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흰 우유는 ‘하얀 보약’이라고 불리며 체중 관리에 없어서는 안 될 식품으로 자리매김했다.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우유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되고 있다. 스웨덴의 한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우유를 많이 마실수록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여성의 경우보다 사망 위험률이 2배라는 결과가 나와 소비자들은 불안이 확산됐다.23일 업계에 따르면 하지만 최근 이 같은 결과는 실험대상자의 흡연, 음주여부, 체중이나 신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이처럼 우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빠르게 확산돼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우유 속 IGF-1에 의해서 암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도 근거 없는 오해일 뿐이다.순천향대 윤병욱 교수는 “<span class='quot0'>100g당 105mg의 칼슘이 들어 있는 우유는 현존하는 식품 중 칼슘 체내 흡수가 가장 잘되는 식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성장기 어린이와 갱년기 여성은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 우유를 먹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더불어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7173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유와 요구르트를 하루에 2회 섭취하는 사람들의 비만위험도가 37%나 낮으며, 하루 1회 섭취하는 사람들은 21%나 비만위험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을지대학교 이해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우유와 요구르트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비만위험도가 낮아진다</span>”고 말했다.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젖소의 건강관리를 시작으로 제조 과정까지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매일 전국 목장에서 생산되는 우유에 대해 항생제 검사를 실시하고 착유한 원유는 즉시 냉각해 저온 보관한다.목장별로 채취한 우유 샘플에 대한 체세포 수와 세균 수 검사를 매일 실시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300여 가지의 품질 평가 항목을 통과한 원유를 엄선해서 만든 우유는 건강기능식품을 따로 챙겨 먹지 않더라도 하루에 우유 한 잔만 챙겨 마시면 손쉽게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499.txt

제목: 조울증 약물 중단 위험성, 증상 없다고 끊으면 재발 가능성 높아...우울증에 도움되는 식품은?  
날짜: 20150723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310018011724  
본문: 조울증 약물 중단 위험성, 증상 없다고 끊으면 재발 가능성 높아...우울증에 도움되는 식품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조울증 약물 중단 위험성, 증상 없다고 끊으면 재발 가능성 높아...우울증에 도움되는 식품은? <br/> <br/>조울증 약물 중단 위험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울증은 정신과에서는 양극성장애라는 병명을 사용한다. 양극성장애는 기분, 에너지, 생각과 행동에 극단적인 변화가 특징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이다. <br/> <br/>조울증은 우울장애(우울증)와 임상적으로 뚜렷하게 구별이 가능한 병이지만, 우울증 상태에 접어들면 일반적인 우울장애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br/> <br/>조울증은 증상이 사라졌다고 약물을 중단할 경우 증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조울증 약물치료는 기분조절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약물 복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진료 중인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의 용량이나 종류를 조정하면 된다. 의사의 판단 없이 약물을 중단하면 안 된다. <br/> <br/>한편 이런 가운데 우울증에 도움되는 식품이 화제다. 최근 미국의 건강 정보 사이트 ‘에브리데이헬스닷컴’은 뇌 염증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 10가지를 공개했다. <br/>  <br/>첫 번째는 녹색 잎채소로 '기적의 밥상(Eat to Live)'의 저자인 조엘 펄먼 박사는 건강에 가장 좋고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식품으로 시금치, 케일, 근대 같은 녹색 잎채소를 첫손에 꼽는다. 이런 잎채소는 강력한 면역력 증강과 항암 효과가 있다. <br/>  <br/>두 번째로 호두는 식물 중에 오메가-3 지방산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 여러 연구결과,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 지원하고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세기 동안 서양 식단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든 식품이 사라지면서 정신질환이 크게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br/> <br/>아보카도에는 뇌가 필요로 하는 건강에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 아보카도 열량의 4분의 3은 단일불포화지방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K를 비롯해 비타민B9, B6, B5와 비타민C, 비타민E12 등이 들어있다. 당분 함량은 낮은 대신 식이섬유는 풍부하다. 블루베리를 비롯해 라즈베리, 블랙베리, 딸기 등의 베리류에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다. <br/> <br/>연구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항산화제를 2년 동안 섭취한 결과, 우울증 증세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항산화제는 몸속 세포를 고치고 암을 비롯한 병에 걸리는 것을 막는 효능도 있다. 버섯도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식품 중 하나다. 버섯이 정신건강에 좋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br/> <br/>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어 기분을 안정시키며, 건강에 좋은 장내 세균을 촉진시키는 프로바이오틱(생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양파를 비롯해 파, 마늘 등의 파속 식물은 몇 가지 암 위험을 줄이는 효능이 있다. 이런 채소들은 또한 항염증 효능이 있는 플라보노이드 항산화제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br/> <br/>소화관과 뇌 사이의 연관성을 안다면 왜 장과 관련된 암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 정신에도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다. 토마토에는 우울증을 퇴치하는 데 좋은 엽산과 알파리포산이 많이 들어있다.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 약 3분의 1에게서 엽산 결핍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류는 당뇨를 방지하고 체중 감소에 좋은 식품이다. 콩류는 천천히 소화가 되면서 혈당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기분에 좋은 작용을 한다. <br/> <br/>씨앗류는 치아씨드와 아마 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끝으로 베리류처럼 사과에는 산화로 인한 손상과 염증을 막거나 고치는 효능이 있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식이 섬유질이 많아 혈당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00.txt

제목: 뼈암 환자에 3D프린팅 골반뼈 이식  
날짜: 20150723  
기자: 김신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310018016091  
본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신동아 교수팀이 3D프린팅 기술로 환자 맞춤형 골반뼈(천추)를 만들어 10대 여학생의 골반뼈를 교체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첫 사례다. 여학생은 골반뼈에 생긴 암으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지만 수술 후 일주일 만에 보행이 가능해지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의 동그라미 안이 천추다. <br/> <br/>세브란스병원 제공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01.txt

제목: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일요검진 실시,  
날짜: 20150723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3100000679  
본문: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원장 임대종)은 직장인과 지역주민이 휴가철을 통해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8월 2일에 일요검진을 실시한다.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홍보팀에 따르면 일요일 건강검진은 바쁜 일상과 직장 업무로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종합검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5대암 검진, 생애전환기, 일반건강진단), 채용신체검사, 예방접종 등을 실시한다.강남지부 임대종 원장은 “<span class='quot0'>휴가기간이야 말로 그동안의 바쁜 일상 속에서 뒤로 미뤄두었던 건강을 챙겨볼 수 있는 황금기</span>”라며, “<span class='quot0'>연말로 갈수록 건강검진 받지 못한 분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만족도 높은 검진을 위해 연말을 피해 미리 검진 받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일요검진은 오전 7시30분부터 12시까지이며, 8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해야 검진이 가능하다. 일요일 검진을 받으려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02.txt

제목: [뉴스 브리핑] 서울 강남역 사거리 좌회전 허용  
날짜: 20150723  
기자: 이재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310018016754  
본문: 농수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br/> <br/>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농·수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연 3∼4%에서 1.8∼3.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농·수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시장 금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농·어업인은 1.8%, 고정금리 대출을 신청한 농·어업인은 2.5%를 적용받는다. 고정금리 인하는 내달부터 즉시 적용되고 변동금리 인하는 약 3개월이 걸리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적용된다. 당·정은 또 가뭄 피해 농가에 대해 헥타르(ha)당 220만원의 대파비(자연재해로 파손된 건축물에 대한 지원비)와 88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br/> <br/>최홍만 ‘억대 사기 혐의’로 檢 송치 <br/> <br/>서울 광진경찰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사진)씨를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문모(36)씨에게 자신과 여자친구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1억여원)를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서울 강남역 사거리 좌회전 허용 <br/> <br/>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부터 강남역사거리에서 모든 차량의 좌회전을 전면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노선 버스가 역삼역에서 양재역 방면, 교대역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것만 허용됐었다. <br/> <br/>뼈암 환자에 3D프린팅 골반뼈 이식  <br/> <br/>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신동아 교수팀이 3D프린팅 기술로 환자 맞춤형 골반뼈(천추)를 만들어 10대 여학생의 골반뼈를 교체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첫 사례다. 여학생은 골반뼈에 생긴 암으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지만 수술 후 일주일 만에 보행이 가능해지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의 동그라미 안이 천추다. <br/> <br/>세브란스병원 제공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03.txt

제목: 전이성 유방암 유발 후성유전자 발견  
날짜: 20150722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210018004163  
본문: 전이성 유방암을 유발하는 후성유전자가 발견됨에 따라 치료제 개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22일 한양대에 따르면 의과대학 병리과 공구(51·사진) 교수 연구팀이 후성유전자 ‘DOT1L’이 전이성 유방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br/> <br/>연구팀은 쥐의 정상 유방 세포에 DOT1L 유전자를 더하자 정상 세포가 유방암 세포로 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유방암 환자를 상대로 한 연구에서도 이 유전자가 많이 나타난 환자들은 그러지 않은 환자에 비해 암의 전이 빈도가 약 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연구 결과는 과학 온라인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될 예정이다. <br/> <br/>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04.txt

제목: 유방암 자가진단법, 예방에 좋은 음식은? '맛-건강 모두 챙기자'  
날짜: 20150722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210017990555  
본문: 유방암 자가진단법, 예방에 좋은 음식은? `맛-건강 모두 챙기자` (사진= YTN)유방암 자가진단법, 예방에 좋은 음식은? '맛-건강 모두 챙기자' <br/> <br/>유방암 자가진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여성은 100명 중 3명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br/> <br/>한국유방암학회는 우리나라 30~40대 성인 여성 천명을 조사한 결과, 2.8%만이 유방암 자가진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br/> <br/>학회는 또 손으로 만져서 멍울 등을 확인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56%에 달했지만, 매월 1회씩 권고 주기를 지켜 진행하는 여성은 13.5%였다고 설명했다. <br/> <br/>이대목동병원은 유방암 예방에 좋은 음식과 간단한 자가진단법을 소개했다. 유방암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다. 유방암 예방에 있어 추천되고 있는 식품들은 콩류 및 콩 제품·과일 및 야채·녹차·비타민 D·저지방 고섬유식 등이다. <br/> <br/>유방암 예방에 좋은 음식 첫 번째 콩류 및 콩 제품= 콩이 유방암 예방에 좋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동양인들이 콩으로 만든 두부와 두유·비지·된장국 등을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인보다 유방암의 발생이 적다는 분석도 있다. <br/> <br/>유방암 예방에 좋은 음식 두 번째 과일 및 야채= 과일 및 야채를 섭취하면 항산화제와 섬유소 등을 통해 유방암을 억제할 수 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 등에 많은 인돌-3-카비놀(Indol-3-Carbinol)은 에스트로겐 농도를 저하시켜 유방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근과 호박, 고구마 등 적황색 채소와 브로콜리, 시금치 등 진한 녹색의 채소는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br/> <br/>유방암 예방에 좋은 음식 세 번째 녹차= 녹차 성분인 폴리페놀, 카테킨은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방암 조직의 혈관 성장을 둔화시킨다. 또한, 에스트로겐 농도를 저하시켜 유방암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방암 예방에 좋은 음식이다. 하지만 녹차를 발효시킨 홍차의 경우에는 녹차에 비해 폴리페놀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게 함유돼 있다. <br/> <br/>유방암 예방에 좋은 음식 네 번째 유제품, 비타민 D, 칼슘= 우유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다. 특히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을 대변하는 지표인 인슐린 성장 인자(Insulin Like Growth Factor II)의 양을 증가시켜 유방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칼슘과 비타민 D의 효과는 폐경 전 여성에 있어서 더욱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성인은 하루에 1컵,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는 하루에 2컵씩 우유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05.txt

제목: 케일의 효능, 열량 낮아 다이어트 효과 톡톡 ‘혈압+동맥경화+암 예방에도 좋아’  
날짜: 2015072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4109498  
본문: 케일의 효능  케일의 효능, 열량 낮아 다이어트 효과 톡톡 ‘혈압+동맥경화+암 예방에도 좋아’ 케일의 효능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케일은 흔히 쌈채소로 알려져 있으며 효능으로는 동맥경화증 예방, 혈압조절에 좋다고 전해진다. 케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 단백질, 효소, 섬유소질 등이 매우 풍부하고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며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섬유소와 엽록소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혈압을 조절하는데 좋다. 특히 케일은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으며 섬유소질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 비만인 사람에게 좋아 주로 디톡스 주스로 활용되는 채소이기도 하다. 한편 케일의 효능 소식에 누리꾼들은 “케일의 효능, 완전 맛없어” “케일의 효능, 디톡스 주스먹다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케일의 효능, 살은 운동해서 뺄래” “케일의 효능, 비만에 좋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06.txt

제목: 국내 유방암 발병률, 갑상샘암 다음으로 최다  
날짜: 2015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1100000049  
본문: 국내 유방암 발생률이 매년 5.9%씩 높아지지만 여성들의 유방암 위험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유방암학회가 최근 우리나라 30∼40대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방암 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23.5%)은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암을 꼽았으며 한국 여성에게서 발병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으로는 46%가 위암을 꼽았다. 유방암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단 5.2%에 불과했다.하지만 실제 유방암은 1999∼2012년 연 평균 5.9%씩 발생률이 올랐다. 갑상샘암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오히려 위암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들은 여성에게 생기는 암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자궁경부암일 것이라 생각했지만(48.7%), 2012년 조사 결과 실제 유방암 발생자가 1만6521명으로 남녀 통틀어 발생률 1위인 갑상샘암을 제외하고 가장 많았다. 대장암(1만1543명), 위암(1만8명)이 뒤를 이었고 자궁경부암은 유방암의 5분의 1 수준인 3548명이었다.유방암은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2001∼2005년 진단자 중 2007년까지 사망자의 진료비를 계산해봤을 때, 총 진료비가 2000만원이 넘는 암은 유방암(2079만원)이 유일했다. 그러나 유방암의 의료비가 가장 높을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3.4%에 불과했다.유방암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만큼 예방을 위한 노력 역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으로 만져서 몽우리 등을 확인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56.3%였으나 매월 1회씩 권고 주기를 지켜 진행하는 30∼40대 여성은 10명 중 1명(13.5%)꼴에 불과했다. 특히 자가 검진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답한 여성은 2.8%뿐이었다.한국유방암학회 한세환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유방암 발생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5년 생존율이 90%가 넘는 등 조기에만 발견하면 경과가 아주 좋은 암</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한국유방암학회에서 권고하는 연령별 검진 단계에 따라 자가검진과 정기검진을 지속해 건강한 삶을 지키기를 바란다</span>”고 강조했다. 한국유방암학회는 30세 이후 매월 유방 자가 진단,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임상 검진,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임상 진찰과 유방 촬영을 권장한다.김희원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07.txt

제목: 케일의 효능, 열량 낮아 다이어트 효과 톡톡 ‘혈압+동맥경화+암 예방에도 좋아’  
날짜: 20150721  
기자: 박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1100000496  
본문: 케일의 효능  케일의 효능, 열량 낮아 다이어트 효과 톡톡 ‘혈압+동맥경화+암 예방에도 좋아’ 케일의 효능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케일은 흔히 쌈채소로 알려져 있으며 효능으로는 동맥경화증 예방, 혈압조절에 좋다고 전해진다. 케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 단백질, 효소, 섬유소질 등이 매우 풍부하고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며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섬유소와 엽록소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혈압을 조절하는데 좋다. 특히 케일은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으며 섬유소질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 비만인 사람에게 좋아 주로 디톡스 주스로 활용되는 채소이기도 하다. 한편 케일의 효능 소식에 누리꾼들은 “케일의 효능, 완전 맛없어” “케일의 효능, 디톡스 주스먹다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케일의 효능, 살은 운동해서 뺄래” “케일의 효능, 비만에 좋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08.txt

제목: 대마초로 자폐아 치료…미시간, 미 최초 합법화 추진  
날짜: 2015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1100000032  
본문: 미국에서 자폐증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허용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시간 주 인허가·규제국(LARA)은 자폐증을 의료용 대마초 사용 가능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31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대마초 추출액이 극심한 정서 불안과 혼란을 겪는 자폐아동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놓고 오랜 시간 찬반 논란이 있어왔다.미국에서 대마초는 암, 녹내장, 에이즈, C형 간염, 크론병, 알츠하이머 등의 증상을 약화·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시간 주는 지난 2013년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다. 그러나 자폐증 치료에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 불법이다. 지난 2012년 자폐증 자녀를 둔 한 여성이 LARA에 자폐증을 의료용 대마초 사용 대상 목록에 추가해달라는 청원을 낸 바 있다. 그러나 LARA는 "자폐증에 대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던 지난 5월 또 다른 자폐아동의 어머니가 새로운 청원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19명에 달하는 자폐아 가족들의 증언과 75건에 달하는 관련 논문, 총 800페이지 분량의 연구 결과가 함께 제출됐다. 이와 관련 미시간 주 오클랜드대학 의대 크리스천 보그너 박사는 "자폐아 부모들이 체포될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녀의 자폐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폐증 자녀를 둔 보그너 박사는 "미국에서 68명의 아동 가운데 1명이 자폐증 진단을 받는다. 그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다"고 지적했다.하버드대학 정신의학과 교수를 지낸 레스터 그린스푼 박사는 "대마초는 사실상 이미 자폐증상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나도 자폐증을 가진 자녀가 있다면 필요 용량을 잘 확인한 후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린스푼 박사는 "뇌는 20대 초반까지 성장하고, 의료진은 어린이들의 뇌가 어디에 노출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면서 "그러나 대마초는 다른 자폐증 치료약물과 비교하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자폐증 환자 가족들은 이번 청원과 아울러 인터넷 청원 사이트 '무브온'(MoveOn.org) 등을 통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09.txt

제목: 국내 유방암 발병률, 갑상샘암 다음으로 최다  
날짜: 20150720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3443490  
본문: 국내 유방암 발생률이 매년 5.9%씩 높아지지만 여성들의 유방암 위험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한국유방암학회가 최근 우리나라 30∼40대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방암 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23.5%)은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암을 꼽았으며 한국 여성에게서 발병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으로는 46%가 위암을 꼽았다. 유방암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단 5.2%에 불과했다. <br/> <br/>하지만 실제 유방암은 1999∼2012년 연 평균 5.9%씩 발생률이 올랐다. 갑상샘암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오히려 위암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응답자들은 여성에게 생기는 암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자궁경부암일 것이라 생각했지만(48.7%), 2012년 조사 결과 실제 유방암 발생자가 1만6521명으로 남녀 통틀어 발생률 1위인 갑상샘암을 제외하고 가장 많았다. 대장암(1만1543명), 위암(1만8명)이 뒤를 이었고 자궁경부암은 유방암의 5분의 1 수준인 3548명이었다. <br/> <br/>유방암은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2001∼2005년 진단자 중 2007년까지 사망자의 진료비를 계산해봤을 때, 총 진료비가 2000만원이 넘는 암은 유방암(2079만원)이 유일했다. 그러나 유방암의 의료비가 가장 높을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3.4%에 불과했다. <br/> <br/>유방암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만큼 예방을 위한 노력 역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으로 만져서 몽우리 등을 확인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56.3%였으나 매월 1회씩 권고 주기를 지켜 진행하는 30∼40대 여성은 10명 중 1명(13.5%)꼴에 불과했다. 특히 자가 검진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답한 여성은 2.8%뿐이었다. <br/> <br/>한국유방암학회 한세환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유방암 발생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5년 생존율이 90%가 넘는 등 조기에만 발견하면 경과가 아주 좋은 암</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한국유방암학회에서 권고하는 연령별 검진 단계에 따라 자가검진과 정기검진을 지속해 건강한 삶을 지키기를 바란다</span>”고 강조했다. <br/> <br/>한국유방암학회는 30세 이후 매월 유방 자가 진단,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임상 검진,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임상 진찰과 유방 촬영을 권장한다. <br/> <br/>김희원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10.txt

제목: 포스텍 연구팀, 민감하고 손쉽게 사용 가능한 ‘현장용 진단 키트’ 만든다  
날짜: 20150720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3345799  
본문:   <br/> <br/>포스텍(포항공대) 연구팀이 임신테스트기와 같은 간단한 키트와 스마트폰 카메라로 빠르고 손쉽게 스스로 질병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br/> <br/>포스텍은 기계공학과·시스템생명공학부 도준상 교수팀과 화학공학과 이진우 교수팀이 신속하고 간편하며 검출감도도 수십배 향상시킨 새로운 진단기기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바이오소재분야 권위지 ‘어드밴스드 헬스케어 머터리얼스’지 표지로 선정된 이 기술은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쓰이는 기기를 이용해 고감도의 검출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를 촬영해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더욱 활용도를 높여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연구팀이 이용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신 테스트기’로 불리는 임신진단키트로, 이 키트는 통상적으로 임신 여부를 선으로 나타내기 위해 금 나노입자를 사용해 왔다. 연구팀은 금 나노입자 대신 효소 모방 나노물질인 백금 나노입자를 이용한 임신진단키트를 만들었다. <br/> <br/>안정성이 뛰어난 백금 나노입자를 이용한 이 새로운 키트는 기존보다 20분의 1 이상 낮은 농도에도 반응, 임신여부를 진단해냈다. 또 발색 정도를 스마트폰 카메라으로 촬영하면 이 사진을 영상 분석해 정량화할 수 있어 특별한 장치가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검체 양을 정량화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이러한 기술은 노로바이러스, 에이즈, 독감, 심근경색, 암 등과 같은 질병뿐 아니라 생화학전용 병원균 진단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도준상 교수는 “<span class='quot0'>효소모방 나노입자를 휴대용 진단칩에서 활용한 것은 처음</span>”이며 “<span class='quot0'>백금나노입자는 외부 환경에 의한 변화가 적고, 이를 통한 스마트폰의 분석도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어 현장 진단을 위한 휴대용 체외진단기기 상용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11.txt

제목: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윤성우 교수, 국제통합암학회에서 한의학의 암치료 효과 초청발표  
날짜: 20150720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0100001071  
본문: 이탈리아 국제통합암학회에 초대된 통합종양학자들. 오른쪽 첫 번째가 윤성우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홀보팀 사진제공)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고창남) 한방내과 윤성우 교수(한방암센터)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통합암치료연구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7회 국제통합암학회에 초청되어 ‘한의학의 암치료에 관한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강동경희대한방병원 홍보팀에 따르면 윤성우 교수는 해암탕(解癌湯)이나 해암단(解癌丹)과 같이 전통적으로 암치료에 사용되어 온 한약재들의 다중표적 항암치료 효과를 발표했는데, 항암치료 및 방사선요법과 한약이 병행 투여되었을 때 생존기간을 늘리고 부작용이 감소되는 메타분석 논문들을 제시했다.또한 암성 통증, 암성 피로, 식욕부진, 악액질에 효과를 보인 한의학 치료법의 임상연구 결과도 공유했다. 특히 뜸 치료, 봉침 및 약침 치료, 전통 한약처방 등 한의학의 독창적 연구결과를 발표해 청중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번 학회에는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바랏 아가왈, 로렌조 코헨 교수,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의 게리덩 교수, 캐나다 멕메스터 대학의 스테판 사가교수 등 통합암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윤성우 교수가 초청되었다.아울러 초청연자로 참석한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바랏 아가왈 교수는 커규민(curcumin)과 같은 천연물질들이 암세포에 대한 다중표적치료(multi-target therapy) 효과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의 게리덩 교수는 통합암치료에 해당되는 침 치료, 명상, 요가, 마사지 등이 암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특히 침 치료는 최근 미국종합암네트워크(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항암제로 인한 오심구토와 암성 통증에 높은 임상적 근거를 가진다고 했다. NCCN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 임상 종양학 가이드라인으로 양방 암치료의 표준지침이 된다.마시모 보누치 교수(이탈리아 통합암치료연구회장)는 “<span class='quot0'>유럽에서는 침 치료, 한약, 동종요법 등이 암 환자에게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span>” 며 “<span class='quot0'>한의학적 암치료의 연구결과를 통해 근거 중심적 통합종양학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span>” 고 말했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12.txt

제목: ======속/기/건강박스/유방암 발생 느는데 위험 인식은 바닥  
날짜: 2015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0100000356  
본문: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국내 유방암 발생률이 매년 5.9%씩 높아지지만 여성들의 유방암 위험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유방암학회가 최근 우리나라 30∼40대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방암 인식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23.5%)은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암을 꼽았으며 한국 여성에게서 발병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으로는 46%가 위암을 꼽았다. 유방암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단 5.2%에 불과했다.하지만 실제 유방암은 1999∼2012년 연 평균 5.9%씩 발생률이 올랐다. 감상샘암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오히려 위암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들은 여성에게 생기는 암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자궁경부암일 것이라 생각했지만(48.7%), 2012년 조사 결과 실제 유방암 발생자가 1만6521명으로 남녀 통틀어 발생률 1위인 갑상샘암을 제외하고 가장 많았다. 대장암(1만1543명), 위암(1만8명)이 뒤를 이었고 자궁경부암은 유방암의 5분의 1 수준인 3548명이었다.유방암은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2001∼2005년 진단자 중 2007년까지 사망자의 진료비를 계산해봤을 때, 총 진료비가 2000만원이 넘는 암은 유방암(2079만원)이 유일했다. 그러나 유방암의 의료비가 가장 높을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3.4%에 불과했다.유방암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만큼 예방을 위한 노력 역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으로 만져서 몽우리 등을 확인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56.3%였으나 매월 1회씩 권고 주기를 지켜 진행하는 30~40대 여성은 10명 중 1명(13.5%)꼴에 불과했다. 특히 자가 검진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답한 여성은 2.8% 뿐이었다.한국유방암학회 한세환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유방암 발생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5년 생존율이 90%가 넘는 등 조기에만 발견하면 경과가 아주 좋은 암</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한국유방암학회에서 권고하는 연령별 검진 단계에 따라 자가검진과 정기검진을 지속해 건강한 삶을 지키시길 바란다</span>”고 강조했다. 한국유방암학회는 30세 이후 매월 유방 자가 진단,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임상 검진,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임상 진찰과 유방 촬영을 권장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13.txt

제목: 포스텍 연구팀, 민감하고 손쉽게 사용 가능한 ‘현장용 진단 키트’ 만든다  
날짜: 20150720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0100000880  
본문:  포스텍(포항공대) 연구팀이 임신테스트기와 같은 간단한 키트와 스마트폰 카메라로 빠르고 손쉽게 스스로 질병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포스텍은 기계공학과·시스템생명공학부 도준상 교수팀과 화학공학과 이진우 교수팀이 신속하고 간편하며 검출감도도 수십배 향상시킨 새로운 진단기기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바이오소재분야 권위지 ‘어드밴스드 헬스케어 머터리얼스’지 표지로 선정된 이 기술은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쓰이는 기기를 이용해 고감도의 검출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를 촬영해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더욱 활용도를 높여 주목을 받고 있다.연구팀이 이용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신 테스트기’로 불리는 임신진단키트로, 이 키트는 통상적으로 임신 여부를 선으로 나타내기 위해 금 나노입자를 사용해 왔다. 연구팀은 금 나노입자 대신 효소 모방 나노물질인 백금 나노입자를 이용한 임신진단키트를 만들었다.안정성이 뛰어난 백금 나노입자를 이용한 이 새로운 키트는 기존보다 20분의 1 이상 낮은 농도에도 반응, 임신여부를 진단해냈다. 또 발색 정도를 스마트폰 카메라으로 촬영하면 이 사진을 영상 분석해 정량화할 수 있어 특별한 장치가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검체 양을 정량화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이러한 기술은 노로바이러스, 에이즈, 독감, 심근경색, 암 등과 같은 질병뿐 아니라 생화학전용 병원균 진단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도준상 교수는 “<span class='quot0'>효소모방 나노입자를 휴대용 진단칩에서 활용한 것은 처음</span>”이며 “<span class='quot0'>백금나노입자는 외부 환경에 의한 변화가 적고, 이를 통한 스마트폰의 분석도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어 현장 진단을 위한 휴대용 체외진단기기 상용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14.txt

제목: "암 수술비 훔쳐가 남편 숨져"…영세상점 금고만 털어  
날짜: 201507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9100000054  
본문: 서울 수서경찰서는 손님인 척 가게에 들어가 주인에게 간이영수증을 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를 털어온 혐의(상습절도)로 오모(57)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식당이나 미용실·꽃집 등 영세상점만을 골라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32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가게 주인에게 간이영수증이 있는지를 묻고, 없다고 하면 "인근 다른 가게에 미리 말을 해뒀으니 영수증을 받아와 달라"고 부탁하는 수법으로 주인을 상점 밖으로 유인했다.오씨는 주인이 나가면 재빨리 금고와 지갑 등을 뒤져 돈을 들고 줄행랑쳤다. 손님이나 종업원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대에 주로 범행했다.경찰은 말쑥한 정장 차림을 한 오씨가 인근 회사나 기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문을 많이 할 것처럼 행세해 가게 주인들이 매상에 대한 기대감에 별 의심 없이 상점 밖으로 나갔다고 경찰은 전했다.피해자 중 부산의 한 꽃집 주인은 올해 3월 남편 후두암 수술비에 보태려고 금고 안에 넣어둔 150만원을 오씨가 훔치는 바람에 수술이 미뤄져 결국 수술을 받기 전 숨진 것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오씨를 추적, 이달 10일 경기도 평택에서 검거했다. 오씨는 절도 등 전과 11범으로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훔친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15.txt

제목: 오래 앉아있는 여성일수록 암 발병위험 높아  
날짜: 201507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8100000018  
본문: 여성이 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유방암, 난소암, 골수암 등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암학회 연구진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14만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이 장시간 앉아서 여가를 보내면 암 발병률이 10% 높아진다고 발표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이 최근 보도했다.연구진은 "전체 신체활동, 체질량 등 다른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여성이 오랜 시간 앉아서 여가활동을 하는 것이 전체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골수암, 유방암, 난소암의 경우 위험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그러나 여성과 달리 남성은 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과 암 발병 위험 사이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 메모리얼케어센터병원의 호마윤 사나티 종양학자는 그 이유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때문이라고 추정했다.그는 야후 헬스와의 인터뷰에서 주로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생활 습관은 여분의 지방세포를 발달시켜 더 많은 에스트로겐을 생성한다고 말했다.과도한 에스트로겐이 유방과 난소의 세포 성장과 활동을 촉진해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앉아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암 발병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는 이전에도 나온 적 있다.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의 다니엘라 슈미트 박사는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늘어나면 대장암과 자궁내막암의 발병위험이 각각 8%, 10% 증가한다고 발표했다.박사는 앉아서 TV를 시청할 때 흔히 건강에 좋지 않은 간식과 음료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햇빛으로부터 생성되는 비타민D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미국암학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능하면 앉아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라고 권고했다.지난 2월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쿡은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암"이라며 자신은 알람을 맞춰놓고 매시간 10분씩 일어나 움직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16.txt

제목: '기억을 걷는 시간' 남자는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다  
날짜: 20150718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810017954594  
본문: 아내와 암 투병 어린이를 위해 1000km를 걸은 케빈 도일과 그의 아내 아일린.“어쩌면 이 여행은 아내를 추모하는 여행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함께한 사람들이 이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br/> <br/>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소개된 케빈 도일(57)의 '뜻깊은 여행'이 많은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br/> <br/>"아내와 전 스타워즈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우린 스타워즈 코스튬 플레이를 하고 팬 그룹에서 같이 활동했었죠" <br/> <br/>그렇게 남편과 함께했던 아내 아일린은 지난 2012년 췌장암으로 더는 좋아하는 스타워즈 코스튬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됐다. <br/> <br/>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정했던 두 사람. 케빈은 먼저 떠난 아내를 추모하고 아내처럼 암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아일린의 작은 천사들’을 기획하게 됐다. <br/> <br/>스타워즈 속 스톰트루퍼 차림을 하고 지난 6월 캘리포니아 펠탈루마에 있는 스타워즈 박물관에서 출발한 그는 지나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캠페인에 동참해줄 것을 권하며 세계인의 영화·만화 축제인 샌디에이고 코믹콘 행사장까지 약 1000km를 걸어 계획했던 코믹콘 행사장에 도착했다. <br/>그는 지나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캠페인에 동참해줄 것을 권하며 세계인의 영화·만화 축제인 샌디에이고 코믹콘 행사장까지 약 1000km를 걸었다.그의 도착을 기다리던 관중들은 케빈이 도착하자 기립 박수를 보내다.그가 현장에 도착자 소식을 듣고 기다리던 관중들은 많은 박수를 케빈에게 보냈다. 그리곤 야외에 준비된 스타워즈 콘서트에서 스톰트루퍼로 변신한 6000여명의 사람들은 그와 함께 행진했다. <br/> <br/>그는 "캠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암 투병 중인 환자·가족과 함께 공감했다"며 “어쩌면 이 여행은 아내를 추모하는 여행이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함께한 사람들이 이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br/> <br/>스타워즈 콘서트에서 스톰트루퍼로 변신한 6000여명의 팬들과 함께.그는 이 여행에서 모은 기금으로 아일린이 생전에 그렸던 아트웍을 인형으로 제작해 암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데일리메일, 허핑턴 홈페이지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17.txt

제목: 계피, 백혈병·피부암에도 효능 있다  
날짜: 20150718  
기자: futurnalist@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8100000077  
본문: ‘동의보감’에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통하게 하며,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된 계피가 백혈병과 피부암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17일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식의약센터 이기원 교수와 김종은 박사 연구팀이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지강동 교수와 공동으로 계피에 많이 함유된 물질인 계피알데히드(HCA)가 백혈병과 피부암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동안 계피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러한 효능을 나타내는 구체적 활성물질과 분자표적이 규명된 것은 처음이다.연구팀은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77개 효소에서 계피에 함유된 2’-HCA의 효능을 검증했다. 그 결과 2’-HCA가 효소 Pim-1과 결합하면 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규명했다. 효소 Pim-1과 가장 연관이 깊은 암은 백혈병이고 피부암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종 동물 간 이식모델 실험을 통해서도 검증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전략연구사업을 통해 이뤄진 이번 연구성과는 미국암학회(AACR)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암 연구(Cancer Research)’ 7월호에 게재됐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18.txt

제목: 法, 남편 숨진 뒤 시험관 시술로 낳은 아기…'친자'로 인정  
날짜: 201507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8100000363  
본문: 암으로 투병하다 숨진 남편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해 아기를 낳은 여성이 친자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아기를 숨진 남편의 친자로 인정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홍모씨가 아들 정모군을 숨진 남편의 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홍씨와 남편 정씨는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홍씨는 2013년 12월 숨진 남편의 냉동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로 아들을 낳았다"며 "유전자 검사에서도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와 친아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2009년 7월 결혼한 홍씨와 정씨 부부는 불임 판정을 받고 2011년 12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첫째를 낳았다. 이 무렵 정씨는 위암에 걸렸고, 둘째를 낳고 싶었던 이들은 1년여 뒤 정씨의 정자를 병원에 냉동 보관했다.정씨는 결국 2013년 12월 숨졌다. 홍씨는 투병 중에도 둘째를 간절히 원하던 남편의 바람을 잊지 못해 냉동한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을 했다. 홍씨는 무사히 둘째를 낳았다.홍씨는 둘째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담당 관청에 갔지만 남편이 숨진 뒤 아기를 가졌으므로 정씨를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홍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하고 소송 절차를 밟았다. 법원은 둘째 아이도 숨진 남편 정씨의 친자라고 인정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19.txt

제목: 메르스 확진 13일째 '0'…격리자 두자릿수로 줄어  
날짜: 201507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8100000214  
본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신규 확진자가 13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추가 사망자도 없다. 메르스가 완치돼 병원 문을 나선 환자는 1명 추가돼 135명이 됐다. 격리자 수는 두자릿 수로 감소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환자 일일현황'을 발표했다.신규 확진자는 발표일 기준으로 지난 6일 이후 13일째 나오지 않았다. 사망자도 지난 12일부터 7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186명이 메르스에 감염됐으며, 이 중 36명이 숨졌다. 치사율은 19.35%다. 전체 확진자의 44.1%(82명)이 병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였다. 환자 가족이나 가족 이외의 문병 등 방문객은 65명(34.9%)이었고, 의료진 등 병원 관련 종사자는 39명(21.0%)이다. 전체 사망자 중에는 남성이 24명(66.7%)으로 여성(12명·33.3%)의 2배 였다. 연령별로는 60·70대가 각 11명(30.6%)씩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80대 7명(19.4%), 50대 6명(16.7%), 40대 1명(2.8%) 순이었다.각종 만성질환자(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나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은 33명(91.7%)이다.현재 치료 중인 환자 15명 중 4명(26.6%)의 상태는 불안정하다. 이 기준은 심폐보조기인 에크모나 인공호흡기를 착용했을 정도로 위중하다는 의미다. 퇴원자 수는 1명 늘어 총 135명(72.6%)이 됐다. 신규 퇴원자는 삼성서울병원 격리병동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인 183번(24·여) 환자다. 이 간호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삼성서울병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루 2차례 이뤄지는 발열·호흡기 증상 검사에서 발열을 호소했고, 병원 자체검사와 국립보건연구원 검사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전체 퇴원자 중 남성은 75명(55.6%)이었다. 나머지 60명(44.4%)은 여성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2명(23.7%)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40대 28명(20.7%), 60대 22명(16.3%), 30대 21명(15.6%), 70대 17명(12.6%), 20대 13명(9.6%), 10대·80대 각 1명(0.7%) 순이었다.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격리 중인 사람은 98명으로 전날(155명)보다 57명(-36.8%) 줄었다. 자가 격리자가 135명에서 82명으로 53명(-39.3%) 감소했다. 시설(병원) 격리자도 4명(-20.0%) 줄어든 16명이 됐다. 메르스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격리됐다가 최대 잠복기(14일)를 지나도록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일상 생활로 복귀한 격리 해제자는 57명이 늘어 모두 1만6538명이 됐다. 메르스로 인해 격리를 경험했거나 경험 중인 누적 격리자는 총 1만6636명으로 집계됐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20.txt

제목: FNC 접촉 노홍철, 유럽 여행에 대한 이유…“이번에 가면 앞으로 10년에 대해 계획하려 한다”  
날짜: 20150717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1919394  
본문:   <br/> <br/> <br/>방송인 노홍철이 FNC와 만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노홍철이 스위스 여행을 했던 이유가 새삼 주목 받고 있다. <br/> <br/>노홍철은 과거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암 2기 의심 진단을 받았다며, 이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br/> <br/>이날 방송에서 노홍철은 “최근 암 병동에 입원한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암 2기일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하길 잘했다 싶었다”고 밝혔다. <br/> <br/>이어 “바로 퇴원하자마자 스위스 여행을 결정했다”며 “다시 한 번 이번 계기로 진짜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싶었다. 20대 때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는데 10년 후 다시 방문 해야겠다 생각했다”고 전했다. 알고 보니 다행히 암은 아니었다. <br/> <br/>또한 “이번에 가면 앞으로 10년에 대해 계획하려 한다”고 유럽 여행에 대한 이유를 전하기도 했다. <br/> <br/>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FNC 접촉, 노홍철 놀랐겠다</span>” “<span class='quot0'>FNC 접촉, 노홍철, 암이 아니어서 다행이다</span>” “<span class='quot0'>FNC 접촉, 노홍철 방송 복귀는 언제쯤 할까?</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사진 : 방송 캡처 <br/> <br/>이슈팀 ent@segye.com <br/> <b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21.txt

제목: 기억을 걷는 시간, 남자는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다  
날짜: 2015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7100000208  
본문: 아내와 암 투병 어린이를 위해 1000km를 걸은 케빈 도일과 그의 아내 아일린.“어쩌면 이 여행은 아내를 추모하는 여행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함께한 사람들이 이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소개된 케빈 도일(57)의 '뜻깊은 여행'이 많은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아내와 전 스타워즈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우린 스타워즈 코스튬 플레이를 하고 팬 그룹에서 같이 활동했었죠" 그렇게 남편과 함께했던 아내 아일린은 지난 2012년 췌장암으로 더는 좋아하는 스타워즈 코스튬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됐다.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정했던 두 사람. 케빈은 먼저 떠난 아내를 추모하고 아내처럼 암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아일린의 작은 천사들’을 기획하게 됐다.스타워즈 속 스톰트루퍼 차림을 하고 지난 6월 캘리포니아 펠탈루마에 있는 스타워즈 박물관에서 출발한 그는 지나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캠페인에 동참해줄 것을 권하며 세계인의 영화·만화 축제인 샌디에이고 코믹콘 행사장까지 약 1000km를 걸어 계획했던 코믹콘 행사장에 도착했다.그는 지나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캠페인에 동참해줄 것을 권하며 세계인의 영화·만화 축제인 샌디에이고 코믹콘 행사장까지 약 1000km를 걸었다.그의 도착을 기다리던 관중들은 케빈이 도착하자 기립 박수를 보내다.그가 현장에 도착자 소식을 듣고 기다리던 관중들은 많은 박수를 케빈에게 보냈다. 그리곤 야외에 준비된 스타워즈 콘서트에서 스톰트루퍼로 변신한 6000여명의 사람들은 그와 함께 행진했다.그는 "캠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암 투병 중인 환자·가족과 함께 공감했다"며 “어쩌면 이 여행은 아내를 추모하는 여행이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함께한 사람들이 이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그는 이 여행에서 모은 기금으로 아일린이 생전에 그렸던 아트웍을 인형으로 제작해 암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스타워즈 콘서트에서 스톰트루퍼로 변신한 6000여명의 팬들과 함께.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사진= 데일리메일, 허핑턴 홈페이지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22.txt

제목: 계피, 백혈병·피부암에도 효능 있다  
날짜: 20150717  
기자: 이재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710017951848  
본문: ‘동의보감’에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통하게 하며,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된 계피가 백혈병과 피부암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br/> <br/>17일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식의약센터 이기원 교수와 김종은 박사 연구팀이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지강동 교수와 공동으로 계피에 많이 함유된 물질인 계피알데히드(HCA)가 백혈병과 피부암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동안 계피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러한 효능을 나타내는 구체적 활성물질과 분자표적이 규명된 것은 처음이다. <br/> <br/>연구팀은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77개 효소에서 계피에 함유된 2’-HCA의 효능을 검증했다. 그 결과 2’-HCA가 효소 Pim-1과 결합하면 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규명했다. 효소 Pim-1과 가장 연관이 깊은 암은 백혈병이고 피부암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종 동물 간 이식모델 실험을 통해서도 검증됐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의 전략연구사업을 통해 이뤄진 이번 연구성과는 미국암학회(AACR)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암 연구(Cancer Research)’ 7월호에 게재됐다. <br/> <br/>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23.txt

제목: 서울대 연구팀 "계피에 백혈병·피부암 항암물질 들었다"  
날짜: 2015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7100000850  
본문: 계피가 백혈병과 피부암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을 가진 것으로 입증됐다.17일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 식의약센터 이기원 교수와 김종은 박사 연구팀은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지강동 교수와 공동으로 계피에 많이 함유된 물질인 2'-cinnamicaldehyde (2'-HCA)가 백혈병과 피부암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음을 규명했다.향신료로 주로 쓰이는 계피는 동의보감에서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통하게 하며,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됐다.지금까지의 연구결과도 계피가 항암·항균 효능을 갖고 당뇨병을 예방하며 관절염 증상을 완화한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이러한 효능을 나타내는 구체적 활성물질과 분자표적이 규명된 적은 없었다.연구팀은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77개 효소에서 계피에 함유된 2'-HCA의 효능을 검증했다. 그 결과 2'-HCA가 효소 Pim-1과 결합하면, 이 효소의 활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규명했다.효소 Pim-1와 가장 연관이 깊은 암은 백혈병(leukemia)이고, 피부암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계피에 함유된 2'-HCA가 백혈병과 피부암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뜻이다.이 결과는 이종 동물간 이식모델실험을 통해서도 검증됐다.이번 연구성과는 미국 암학회(AACR)가 발행하는 암 연구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암 연구 (Cancer Research)' 7월호에 게재됐다.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전략연구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24.txt

제목: FNC 접촉 노홍철, 유럽 여행에 대한 이유…“이번에 가면 앞으로 10년에 대해 계획하려 한다”  
날짜: 2015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7100000432  
본문:  방송인 노홍철이 FNC와 만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노홍철이 스위스 여행을 했던 이유가 새삼 주목 받고 있다.노홍철은 과거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암 2기 의심 진단을 받았다며, 이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이날 방송에서 노홍철은 “최근 암 병동에 입원한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암 2기일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하길 잘했다 싶었다”고 밝혔다.이어 “바로 퇴원하자마자 스위스 여행을 결정했다”며 “다시 한 번 이번 계기로 진짜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싶었다. 20대 때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는데 10년 후 다시 방문 해야겠다 생각했다”고 전했다. 알고 보니 다행히 암은 아니었다.또한 “이번에 가면 앞으로 10년에 대해 계획하려 한다”고 유럽 여행에 대한 이유를 전하기도 했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FNC 접촉, 노홍철 놀랐겠다” “FNC 접촉, 노홍철, 암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FNC 접촉, 노홍철 방송 복귀는 언제쯤 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 : 방송 캡처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25.txt

제목: 사타구니 완선의 증상, 대상포진 진단법은?...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 높이는 것 중요  
날짜: 20150717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710017950423  
본문: 사타구니 완선의 증상, 대상포진 진단법은?...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 높이는 것 중요사타구니 완선의 증상, 대상포진 진단법은?...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 높이는 것 중요 <br/> <br/>사타구니 완선이 화제인 가운데, 대상포진 진단법에 누리꾼의 관심을 끌고 있다. <br/> <br/>대상포진은 면역력에 떨어질 때 나타난다. <br/> <br/>소아기에 수두에 걸려 잠복해있던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난 다음 노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인체 면역이 떨어지면서 다시 활성화돼 발생한다. <br/> <br/>붉은 물집이 옹기종기 군집을 이뤄 전체적으로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물집이 생긴 부위는 타는 듯한 심한 통증이 동반된다. <br/> <br/>대상포진을 예방하려면 평소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br/> <br/>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br/> <br/>만약 피부에 붉은 물집이 생겼다면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br/> <br/>다음은 대한피부과학회가 권고하는 대상포진 자가진단법이다. <br/> <br/>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대상포진을 의심하고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올바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br/> <br/>■물집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br/> <br/>■작은 물집들이 몸의 한 쪽에 모여 전체적으로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br/> <br/>■물집을 중심으로 타는 듯 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 <br/> <br/>■어렸을 때 수두를 경험하거나 과거 대상포진을 앓았던 경험이 있다. <br/> <br/>■평소 허약하거나 노인, 또는 암 등의 질병으로 면역력이 약하다. <br/> <br/>한편 가천의대길병원 건강칼럼에 따르면 완선은 곰팡이(백선균)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한 피부염을 말한다. 주로 젊은 남성에게 자주 나타나고 특히 여름철에 비만한 사람들에게 흔히 발견된다.  <br/> <br/>완선은 보통은 사타구니에 붉게 염증이 생기면서 흰 인설(각질이 벗겨지는 상태)을 동반하며 주위로 번져 나간다. 대부분이 경계가 선명하고 가장 자리가 융기된 원형 또는 반월형으로 발생한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26.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20일 0시 부분폐쇄 해제(종합)  
날짜: 2015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7100000257  
본문: 삼성서울병원 20일 0시 부분폐쇄 해제(종합)병원 측 "당일 즉시 진료 재개는 어려울 듯"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부분 폐쇄됐던 삼성서울병원이 20일 0시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즉각대응팀이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 해제 시점을 검토 중"이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20일 0시 기준으로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이 해제되면 총 15곳이었던 집중관리병원의 해제가 모두 완료된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달 13일 밤 부분폐쇄 이후 암, 심장내혈관 질환자 등을 제외한 신규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지난 3일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고, 5일 메르스 확진자를 모두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메르스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은 모두 자가격리했다. 해당 의료진의 격리 해제일은 19일이다. 이들은 격리 해제 후 48시간 내 두 차례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 받아야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 보건당국은 격리됐던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메르스 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소요일까지 더해 20일을 부분폐쇄 해제 시점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서울병원은 "20일 0시에 부분폐쇄가 해제돼도 즉각대응팀과 서울시에서 재개원 관련 점검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일에 바로 진료를 재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치료 중인 메르스 환자 16명 중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에서 2차례 연속 양성을 나타낸 환자는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차례 음성을 보인 환자 일부는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바이러스를 분비할 수 있어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대책본부는 말했다. 메르스 환자 16명 중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2차례 연속 음성을 나타낸 환자는 12명이다. 이들은 메르스 전파 우려가 없어 음압격리병상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폐렴 등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할 계획이다. 이날 현재 시설·병원에 격리된 사람은 총 155명이다. 이들은 이달 20일을 전후로 모두 격리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27.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20일 0시 부분폐쇄 해제  
날짜: 2015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7100000434  
본문: 지난 12일 마지막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집중관리병원인 서울 일원동 삼성의료원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부분 폐쇄됐던 삼성서울병원이 20일 0시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즉각대응팀이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 해제 시점을 검토 중"이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20일 0시 기준으로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삼성서울병원이 해제되면 총 15곳이었던 집중관리병원의 해제가 모두 완료된다.삼성서울병원은 지난달 13일 밤 부분폐쇄 이후 암, 심장내혈관 질환자 등을 제외한 신규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삼성서울병원에서는 지난 3일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고, 5일 메르스 확진자를 모두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메르스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은 모두 자가격리했다.해당 의료진의 격리 해제일은 19일이다. 이들은 격리 해제 후 48시간 내 두 차례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 받아야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보건당국은 격리됐던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메르스 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소요일까지 더해 20일을 부분폐쇄 해제 시점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서울병원은 "20일 0시에 부분폐쇄가 해제돼도 즉각대응팀과 서울시에서 재개원 관련 점검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일에 바로 진료를 재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현재 치료 중인 메르스 환자 16명 중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에서 2차례 연속 양성을 나타낸 환자는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한 차례 음성을 보인 환자 일부는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바이러스를 분비할 수 있어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대책본부는 말했다.메르스 환자 16명 중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2차례 연속 음성을 나타낸 환자는 12명이다. 이들은 메르스 전파 우려가 없어 음압격리병상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폐렴 등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할 계획이다.이날 현재 시설·병원에 격리된 사람은 총 155명이다. 이들은 이달 20일을 전후로 모두 격리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28.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막말하는 상사가 유능하다고?  
날짜: 20150717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710017944159  
본문: #.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33·여)씨는 걸핏하면 화를 내는 임원 밑에서 일한 뒤부터 자주 정신과 클리닉을 찾는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임원이 화를 낼까 봐 전전긍긍하다 소화가 안 되고 뒷목이 뻣뻣하다면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많은 것으로 안다</span>”고 했다.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자르고 세상만사에 자신의 견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직장 상사. 이처럼 고압적이고 이기적이며 무례한 직장 상사는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깎아버리는 암적인 존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미국 조지타운대학 경영전문대학원의 크리스틴 포라스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에서 직장내 상사의 막말 등 고압적이고 무례한 행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br/> <br/>포라스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17개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내 개인들의 언행과 무례함을 연구한 결과, 1998년에는 25% 정도가 일주일에 최소 1번 정도 무례한 행위를 접했다고 밝혔지만 2011년에는 50% 이상으로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br/> <br/>직장상사들의 대표적인 무례함 또는 고압적 태도로는 ▲사람들의 말을 자르는 행위 ▲개인들의 결함이나 특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놀리는 행위 ▲조직내 위계질서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행위 ▲조직원들의 업적을 가로채는 행위 등이 꼽혔다. <br/> <br/>대체로 이런 경우 부하 직원들은 협업과 아이디어 공유를 중단하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의료인 4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71%가 막말과 폭언, 고압적인 행동이 의료사고로 연결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27%는 상사들의 고압적이고 무례한 행동이 환자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br/> <br/>고압적인 무례함은 생산성도 떨어뜨렸다. 퍼즐 맞추기와 아이디어 내기 등에서 폭언과 무시를 당한 시험군은 폭언을 듣지 않은 대조군보다 30% 이상 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br/> <br/>그럼에도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각 증상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도 부하일 때 그런 대우를 당했던 터라 상사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 <br/> <br/>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말을 하는 사람은 유능하다'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25% 가량은 공손한 사람들은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또 답변자의 40% 정도는 스스로 일터에서 정중하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함부로 다룰 것이라고 믿었다. <br/> <br/>남가주대학 경영전문대학원 모건 맥콜 교수는 "무례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라며 “<span class='quot1'>경영 실패에서 가장 흔히 드러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부하 직원들을 못살게 구는 막말 등 무례한 행동</span>”이라고 지적했다. <br/> <br/>이런 가운데 실제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상사가 권위적인 행동을 할 때 가장 큰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시장조사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지난 3월5일부터 9일까지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제외한 464명의 직장인에게 ‘직장 상사에게 가장 큰 분노를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라고 물었다. <br/> <br/>설문 결과 34.1%가 ‘상사가 권위적인 행동을 할 때’라고 답했다. ‘인신공격성 질책을 할 때’라고 답한 직장인도 25%였고, ‘상사의 무능함을 목격했을 때’라는 답도18.5%로 나왔다.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했을 때’(11.4%), ‘성과를 가로챘을 때’(5.6%)라는 답은 많지 않았다. 즉, 상사를 싫어하는 이유는 일 자체보다는 부적절한 언행 때문이라는 얘기다. <br/> <br/>‘분노를 느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질문엔 ‘직장 동료와 함께 상사에 관해 뒷담화를 한다’는 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음주나 흡연 등을 하면서 혼자서 분을 삭인다’는 응답자가 27.2%로 두 번째로 많았고, ‘월차를 내고 쉰다’(14.9%)거나 ‘상사와 직접 대화로 푼다’(10.6%)는 응답자도 상당수였다. ‘상향식 인사평가 때 낮게 평가한다’(2.8%)거나 ‘상사보다 더 높은 상사에게 고자질한다’(2.2%)는 의견은 소수였다. <br/> <br/>직장에서 느낀 분노를 털어놓는 사람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71.4%였다. 그 대상이 직장동료라고 답한 사람은 45.4%, 배우자나 연인이라고 답한 사람은 25.2%, 친구라는 답은 24.9%였다. <br/> <br/>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가 권위적인 행동은 조직의 역량이나 소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인크루트 조사에서 ‘버럭 상사·동료와 대화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질문에 ‘되도록 짧게 대답한다’가 38.4%로 가장 많았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사와의 회의에서는 논의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br/> <br/>리더의 비합리적 처신이 ‘땅콩 회항’ 사건처럼 SNS를 타고 퍼져 기업 이미지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 각 기업 직원들이 익명으로 사내의 ‘뒷담화’를 공유하는 ‘블라인드 앱’이나 ‘대나무숲 앱’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미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br/> <br/>전문가들은 리더와 기업 인사시스템이 함께 변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2'>문제가 심각한 리더의 소문은 회사 밖에까지 널리 퍼지고, 결국 이 같은 처신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리더는 직원을 수평적인 ‘파트너’로 여기며 일해야 성과를 낼 수 있고, 기업들은 임원을 선발할 때 실적과 함께 인성과 리더십도 비중 있게 평가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29.txt

제목: 암 호스피스 비용, 건강보험적용 된다...가정 호스피스는?  
날짜: 20150716  
기자: 이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1515601  
본문: 호스피스 이용 부담이 낮아진다. <br/> <br/>14일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의료가 15일부터 건강보험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br/> <br/>복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는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 보호사의 전문 간병 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제도 초기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호스피스 기관이 선택해 신청하도록 했다. <br/> <br/>2013년 조사에 따르면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 가운데에도 12.7%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다. 요양 보호사의 전문성과 더불어 행위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무거웠다. <br/> <br/>복건복지부는 그 사례로 건강보험 적용 전 환자가 한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21일 동안 5인실, 2일 동안 임종실에 머물렀을 때 총 681만8596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고 했다. <br/> <br/>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식대와 진료비를 합쳐 총 43만7035원을 부담하면 된다. 단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부담 금액이 195만9035원으로 오른다. <br/> <br/>현재 전국 60개 기관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기관 목록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이트(hospice.canc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 <br/>한편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 호스피스'는 연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br/> <br/>복건복지부는 "가정 호스피스와 관련한 법령 개정이 늦어졌다"며 "시범사업을 거치고 나면 시행은 10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br/> <br/>이슈팀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30.txt

제목: 암 호스피스 비용, 건강보험적용 된다...가정 호스피스는?  
날짜: 201507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6100000376  
본문: 호스피스 이용 부담이 낮아진다.14일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의료가 15일부터 건강보험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복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는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 보호사의 전문 간병 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제도 초기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호스피스 기관이 선택해 신청하도록 했다.2013년 조사에 따르면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 가운데에도 12.7%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다. 요양 보호사의 전문성과 더불어 행위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무거웠다.복건복지부는 그 사례로 건강보험 적용 전 환자가 한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21일 동안 5인실, 2일 동안 임종실에 머물렀을 때 총 681만8596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고 했다.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식대와 진료비를 합쳐 총 43만7035원을 부담하면 된다. 단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부담 금액이 195만9035원으로 오른다.현재 전국 60개 기관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기관 목록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이트(hospice.canc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 호스피스'는 연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복건복지부는 "가정 호스피스와 관련한 법령 개정이 늦어졌다"며 "시범사업을 거치고 나면 시행은 10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슈팀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31.txt

제목: 요로결석 예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수박과 참외 등 칼륨이 많이 든 과일 주의"  
날짜: 20150716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610017934674  
본문: 요로결석 예방법 (사진= KBS1 방송 캡처)요로결석 예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수박과 참외 등 칼륨이 많이 든 과일 주의" <br/> <br/>요로결석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r/> <br/>요로결석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극심한 복부 통증을 수반하며 이러한 통증이 하복부, 고환, 음낭으로 점차 옮겨지며 심해질 경우 구토 및 혈뇨 증상까지 올 수 있다.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br/> <br/>요로결석의 예방법으로는 하루 물 10잔 이상을 마시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여름철에 철저히 수분 섭취를 해야 한다. <br/> <br/>그러나 여름철 제철과일인 수박과 참외는 신장질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br/> <br/>"신장질환자의 칼륨 배설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수박과 참외 등 칼륨이 많이 든 과일이나 과일주스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다. <br/> <br/>칼륨이 많이 든 과일을 섭취할 경우 혈장 속 칼륨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고칼륨혈증에 걸리면 근육의 힘이 약해져 손발이 저리고 다리가 무거워질 뿐 아니라 심장에 부정맥이 발생할 수도 있다. <br/> <br/>특히 만성신장질환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칼륨이 많이 포함된 과일만 섭취해도 심장장애뿐만 아니라 감각 이상과 반사저하, 호흡부전 증세를 호소할 수 있다. <br/> <br/>또 당뇨병 환자가 과일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갑자기 오를 수 있고, 암 환자 역시 항암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일을 익혀 먹는 것이 좋다. <br/> <br/>한편 제산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오렌지를, 고지혈증 환자는 자몽을 피하는 것이 좋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32.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막말하는 상사가 유능하다고?  
날짜: 20150716  
기자: hj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6100001029  
본문: #.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33·여)씨는 걸핏하면 화를 내는 임원 밑에서 일한 뒤부터 자주 정신과 클리닉을 찾는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임원이 화를 낼까 봐 전전긍긍하다 소화가 안 되고 뒷목이 뻣뻣하다면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많은 것으로 안다</span>”고 했다.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자르고 세상만사에 자신의 견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직장 상사. 이처럼 고압적이고 이기적이며 무례한 직장 상사는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깎아버리는 암적인 존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조지타운대학 경영전문대학원의 크리스틴 포라스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에서 직장내 상사의 막말 등 고압적이고 무례한 행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포라스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17개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내 개인들의 언행과 무례함을 연구한 결과, 1998년에는 25% 정도가 일주일에 최소 1번 정도 무례한 행위를 접했다고 밝혔지만 2011년에는 50% 이상으로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직장상사들의 대표적인 무례함 또는 고압적 태도로는 ▲사람들의 말을 자르는 행위 ▲개인들의 결함이나 특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놀리는 행위 ▲조직내 위계질서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행위 ▲조직원들의 업적을 가로채는 행위 등이 꼽혔다.대체로 이런 경우 부하 직원들은 협업과 아이디어 공유를 중단하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의료인 4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71%가 막말과 폭언, 고압적인 행동이 의료사고로 연결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27%는 상사들의 고압적이고 무례한 행동이 환자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고압적인 무례함은 생산성도 떨어뜨렸다. 퍼즐 맞추기와 아이디어 내기 등에서 폭언과 무시를 당한 시험군은 폭언을 듣지 않은 대조군보다 30% 이상 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그럼에도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각 증상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도 부하일 때 그런 대우를 당했던 터라 상사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말을 하는 사람은 유능하다'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25% 가량은 공손한 사람들은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또 답변자의 40% 정도는 스스로 일터에서 정중하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함부로 다룰 것이라고 믿었다.남가주대학 경영전문대학원 모건 맥콜 교수는 "무례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라며 “<span class='quot1'>경영 실패에서 가장 흔히 드러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부하 직원들을 못살게 구는 막말 등 무례한 행동</span>”이라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실제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상사가 권위적인 행동을 할 때 가장 큰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시장조사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지난 3월5일부터 9일까지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제외한 464명의 직장인에게 ‘직장 상사에게 가장 큰 분노를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라고 물었다.설문 결과 34.1%가 ‘상사가 권위적인 행동을 할 때’라고 답했다. ‘인신공격성 질책을 할 때’라고 답한 직장인도 25%였고, ‘상사의 무능함을 목격했을 때’라는 답도18.5%로 나왔다.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했을 때’(11.4%), ‘성과를 가로챘을 때’(5.6%)라는 답은 많지 않았다. 즉, 상사를 싫어하는 이유는 일 자체보다는 부적절한 언행 때문이라는 얘기다.‘분노를 느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질문엔 ‘직장 동료와 함께 상사에 관해 뒷담화를 한다’는 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음주나 흡연 등을 하면서 혼자서 분을 삭인다’는 응답자가 27.2%로 두 번째로 많았고, ‘월차를 내고 쉰다’(14.9%)거나 ‘상사와 직접 대화로 푼다’(10.6%)는 응답자도 상당수였다. ‘상향식 인사평가 때 낮게 평가한다’(2.8%)거나 ‘상사보다 더 높은 상사에게 고자질한다’(2.2%)는 의견은 소수였다.직장에서 느낀 분노를 털어놓는 사람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71.4%였다. 그 대상이 직장동료라고 답한 사람은 45.4%, 배우자나 연인이라고 답한 사람은 25.2%, 친구라는 답은 24.9%였다.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가 권위적인 행동은 조직의 역량이나 소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인크루트 조사에서 ‘버럭 상사·동료와 대화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질문에 ‘되도록 짧게 대답한다’가 38.4%로 가장 많았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사와의 회의에서는 논의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리더의 비합리적 처신이 ‘땅콩 회항’ 사건처럼 SNS를 타고 퍼져 기업 이미지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 각 기업 직원들이 익명으로 사내의 ‘뒷담화’를 공유하는 ‘블라인드 앱’이나 ‘대나무숲 앱’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미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전문가들은 리더와 기업 인사시스템이 함께 변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2'>문제가 심각한 리더의 소문은 회사 밖에까지 널리 퍼지고, 결국 이 같은 처신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리더는 직원을 수평적인 ‘파트너’로 여기며 일해야 성과를 낼 수 있고, 기업들은 임원을 선발할 때 실적과 함께 인성과 리더십도 비중 있게 평가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33.txt

제목: 저녁에 TV 시청하는 여성일수록 암 발생률 높아  
날짜: 20150715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1225808  
본문:   <br/> <br/> <br/>최근 저녁시간에 집안에 앉아 드라마 등 TV 시청으로 시간을 보내는 여성의 경우 유방, 자궁 및 골수에 암 발생률이 1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15일(한국시간 기준) 영국 데일리메일 매체에 따르면 수년 동안 지나친 운동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기존 학설을 뒤집고 실내에 앉아 TV시청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건강에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미국 암연구학회(American Cancer Society)는 69,260명의 남성과 77,46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992년부터 2009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그 중 18,555명의 남성과 12,236명의 여성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br/> <br/>암 환자를 분석한 결과 야외 활동 보다는 앉아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여성의 경우 골수, 유방, 자궁암 발생률이 10%까지 증가했지만, 남성에게서는 앉아 있는 시간과 암 발생률의 증가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이에 암연구학회는 TV 시청으로 앉아서 집에 머무는 시간을 가능한 줄일 것을 권고했다. <br/> <br/>이번 연구가 발표되기 전 독일의 레젠버그 대학에서는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장과 폐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밝혀냈다. <br/> <br/>동일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증가할수록 확률 상 결장암 발생이 8%, 자궁암 발병은 10%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br/> <br/>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수록 유방 및 자궁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것도 밝혀졌다. <br/> <br/>독일의 슈미드 작가와 레츠만 박사는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은 TV를 시청하면서 정크푸드 및 단 음료수를 섭취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br/> <br/>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충분한 햇볕을 쬐지 않아 비타민 D 부족이 신체 면역성 악화로 이어졌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 지난 2월 애플사의 팀 쿡 사장은 '암과의 새로운 전쟁'(Sitting is the new cancer)을 선포하며 스마트워치에 매 1시간마다 10분씩 일어나 움직일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다. <br/> <br/>또한 레세스터 대학 윌모트박사는 작년에 800,000명의 사람에 대한 18건의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가장 긴 사람과 짧은 사람 사이에는 당뇨병과 심장 질환 발병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신장질환 발병률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br/> <br/>일반적으로 중년이 되어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 및 관절이 약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허리 통증이 증가한다. <br/> <br/>윌모트박사는 "사람이 장시간 앉아있게 되면 근육 내 단백질 효소가 변화되어 혈당을 증가시킨다"며 "정기적인 운동과 신체 활동이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34.txt

제목: 상반기 하루평균 불 141건 발생, 구조대 1000회 출동…구조 16%가 동물  
날짜: 20150715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1140323  
본문: 올 상반기에 하루 평균 141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119 구조대는 하루 평균 1000회 가까이 출동, 그 중 16%가 동물구조였다. <br/> <br/>15일 국민안전처는  올해 상반기에 화재 2만 5443건이 발생,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00건(7%) 늘었다고 밝혔다. <br/> <br/>올봄 유난히 건조한 날씨로 지난 3월 한달만해도 산불 660건을 포함해 654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br/> <br/>올 상반기에 화재로 154명이 숨지고 1046명이 다쳤다. <br/> <br/>작년보다 사망자는 18% 감소하고 부상자는 4% 늘었다. <br/> <br/>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5월 김포 제일모직 화재 때 318억원 등 총 2222억원으로 집계됐다. <br/> <br/>상반기 구조활동은 총 17만 4833건, 하루평균 96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했다. <br/> <br/>하루평균 4733명이 119응급천지를 받았고 매일 278명(총 5만 397명)이 구조돼쑈다. <br/> <br/>교통사고(2만 3494건)와 동물(2만 8873건) 구조 실적이 각각 12%와 5% 늘었다. <br/> <br/>동물구조는 상반기 전체 구조활동의 16%를 차지했다. <br/> <br/>119구조대는 작년 상반기보다 7% 늘어난 85만 6686명을 실어 날랐다. <br/> <br/>이송 환자의 질환은 고혈압(12만 270명), 당뇨(7만 3809명), 심장질환(3만 1036명), 암(2만 8053명) 등 순이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35.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고액 암 등 집중 보장 어린이보험 출시 외  
날짜: 20150715  
기자: 이귀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1008607  
본문: 고액 암 등 집중 보장 어린이보험 출시 <br/> <br/>신한생명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암과 4대 질병을 비롯해 중대한 수술과 질병치료를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어린이보험 ‘(무)신한아이사랑보험FirstClass(사진)’를 출시했다. 백혈병 또는 골수암 진단시 1억원, 일반암의 경우 5000만원(소액암 300만원)을 보장하고 4대 질병(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에 대해서도 각각 3000만원의 진단금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만기환급형과 중도급부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도급부형은 15세 영어캠프자금 100만원, 20세 배낭여행자금 300만원, 25세 취업준비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br/> <br/>미리 쓴 사망보험료 복원 기능 더해 <br/> <br/>KDB생명은 보험금을 생활비나 의료비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종신보험에 ‘보험금 복원’ 기능을 더한 ‘무배당 U-Choice 종신보험(사진)’을 판매 중이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점점 줄어들게 되는 사망보험금을 85세 이전에 ‘리본(Re-Born) 서비스’ 신청 시 1회에 한해 복원할 수 있다. KDB생명은 “<span class='quot0'>추가 보험료가 발생하지만, 종신보험 가입이 힘든 고령 시기에 별도 가입심사 없이 종신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셈</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국제체크카드 발급때 환전 수수료 할인 <br/> <br/>한국씨티은행은 인터넷으로 ‘씨티 사전신청 서비스(사진)’를 이용해 국제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고객에게 환전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9월30일까지 진행 중이다. 씨티은행은 사전신청 서비스로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미 달러·엔·유로화를 현금으로 환전할 때 1회에 한해 미화 200달러 상당액까지 환전 수수료를 80% 할인해준다. 씨티은행의 사전신청 서비스는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편리한 시간에 영업점에 방문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br/> <br/>은행서 증권사로 자동이체한도 폐지 <br/> <br/>한국금융투자협회는 15일부터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의 자동이체서비스(CMS)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이체 한도는 온라인 신청 고객은 100만원, 영업점 방문 신청 고객은 1000만원이었다. 금융투자협회는 “<span class='quot1'>이번 한도 규제 폐지로 CMS 이체를 통한 펀드 투자 등의 편의성이 제고돼 적립식 펀드 투자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36.txt

제목: 저녁에 TV 시청하는 여성일수록 암 발생률 높아  
날짜: 20150715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5100001050  
본문:  최근 저녁시간에 집안에 앉아 드라마 등 TV 시청으로 시간을 보내는 여성의 경우 유방, 자궁 및 골수에 암 발생률이 1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5일(한국시간 기준) 영국 데일리메일 매체에 따르면 수년 동안 지나친 운동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기존 학설을 뒤집고 실내에 앉아 TV시청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건강에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암연구학회(American Cancer Society)는 69,260명의 남성과 77,46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992년부터 2009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그 중 18,555명의 남성과 12,236명의 여성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분석했다.암 환자를 분석한 결과 야외 활동 보다는 앉아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여성의 경우 골수, 유방, 자궁암 발생률이 10%까지 증가했지만, 남성에게서는 앉아 있는 시간과 암 발생률의 증가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암연구학회는 TV 시청으로 앉아서 집에 머무는 시간을 가능한 줄일 것을 권고했다.이번 연구가 발표되기 전 독일의 레젠버그 대학에서는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장과 폐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밝혀냈다.동일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증가할수록 확률 상 결장암 발생이 8%, 자궁암 발병은 10%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수록 유방 및 자궁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것도 밝혀졌다.독일의 슈미드 작가와 레츠만 박사는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은 TV를 시청하면서 정크푸드 및 단 음료수를 섭취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충분한 햇볕을 쬐지 않아 비타민 D 부족이 신체 면역성 악화로 이어졌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 지난 2월 애플사의 팀 쿡 사장은 '암과의 새로운 전쟁'(Sitting is the new cancer)을 선포하며 스마트워치에 매 1시간마다 10분씩 일어나 움직일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다.또한 레세스터 대학 윌모트박사는 작년에 800,000명의 사람에 대한 18건의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가장 긴 사람과 짧은 사람 사이에는 당뇨병과 심장 질환 발병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신장질환 발병률도 증가했다고 전했다.일반적으로 중년이 되어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 및 관절이 약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허리 통증이 증가한다.윌모트박사는 "사람이 장시간 앉아있게 되면 근육 내 단백질 효소가 변화되어 혈당을 증가시킨다"며 "정기적인 운동과 신체 활동이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37.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고액 암 등 집중 보장 어린이보험 출시 외  
날짜: 2015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5100000436  
본문: 고액 암 등 집중 보장 어린이보험 출시신한생명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암과 4대 질병을 비롯해 중대한 수술과 질병치료를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어린이보험 ‘(무)신한아이사랑보험FirstClass(사진)’를 출시했다. 백혈병 또는 골수암 진단시 1억원, 일반암의 경우 5000만원(소액암 300만원)을 보장하고 4대 질병(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에 대해서도 각각 3000만원의 진단금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만기환급형과 중도급부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도급부형은 15세 영어캠프자금 100만원, 20세 배낭여행자금 300만원, 25세 취업준비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미리 쓴 사망보험료 복원 기능 더해KDB생명은 보험금을 생활비나 의료비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종신보험에 ‘보험금 복원’ 기능을 더한 ‘무배당 U-Choice 종신보험(사진)’을 판매 중이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점점 줄어들게 되는 사망보험금을 85세 이전에 ‘리본(Re-Born) 서비스’ 신청 시 1회에 한해 복원할 수 있다. KDB생명은 “<span class='quot0'>추가 보험료가 발생하지만, 종신보험 가입이 힘든 고령 시기에 별도 가입심사 없이 종신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셈</span>”이라고 설명했다.국제체크카드 발급때 환전 수수료 할인한국씨티은행은 인터넷으로 ‘씨티 사전신청 서비스(사진)’를 이용해 국제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고객에게 환전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9월30일까지 진행 중이다. 씨티은행은 사전신청 서비스로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미 달러·엔·유로화를 현금으로 환전할 때 1회에 한해 미화 200달러 상당액까지 환전 수수료를 80% 할인해준다. 씨티은행의 사전신청 서비스는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편리한 시간에 영업점에 방문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은행서 증권사로 자동이체한도 폐지한국금융투자협회는 15일부터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의 자동이체서비스(CMS)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이체 한도는 온라인 신청 고객은 100만원, 영업점 방문 신청 고객은 1000만원이었다. 금융투자협회는 “<span class='quot1'>이번 한도 규제 폐지로 CMS 이체를 통한 펀드 투자 등의 편의성이 제고돼 적립식 펀드 투자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38.txt

제목: 상반기 하루평균 불 141건 발생, 구조대 1000회 출동…구조 16%가 동물  
날짜: 20150715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5100000879  
본문: 올 상반기에 하루 평균 141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119 구조대는 하루 평균 1000회 가까이 출동, 그 중 16%가 동물구조였다. 15일 국민안전처는  올해 상반기에 화재 2만 5443건이 발생,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00건(7%) 늘었다고 밝혔다. 올봄 유난히 건조한 날씨로 지난 3월 한달만해도 산불 660건을 포함해 654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올 상반기에 화재로 154명이 숨지고 1046명이 다쳤다. 작년보다 사망자는 18% 감소하고 부상자는 4% 늘었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5월 김포 제일모직 화재 때 318억원 등 총 222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구조활동은 총 17만 4833건, 하루평균 96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했다. 하루평균 4733명이 119응급천지를 받았고 매일 278명(총 5만 397명)이 구조돼쑈다.교통사고(2만 3494건)와 동물(2만 8873건) 구조 실적이 각각 12%와 5% 늘었다. 동물구조는 상반기 전체 구조활동의 16%를 차지했다. 119구조대는 작년 상반기보다 7% 늘어난 85만 6686명을 실어 날랐다.이송 환자의 질환은 고혈압(12만 270명), 당뇨(7만 3809명), 심장질환(3만 1036명), 암(2만 8053명) 등 순이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39.txt

제목: 여름 휴가 출발 전 꼭 해야 할 차량점검 4대 포인트  
날짜: 20150714  
기자: 황현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0813646  
본문: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이다. 가족 또는 친지와 휴가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요 이동수단 중 하나가 자동차이다. 짐을 싣고 구석구석 다니기 편리한데다 여러 사람이 같이 타고 가면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서는 출발 전에 반드시 차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도로에서 차량이 퍼져 무더위에 시간을 낭비하고 여행 기분마저 잡칠 수도 있다. 이에 세계일보는 자동차 종합서비스 체인점인 스피드메이트의 도움을 받아 여름휴가 출발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차량점검 4대 포인트를 소개한다. <br/> <br/> <br/> <br/>  <br/>1. 엔진과열 주의…‘냉각수’ 확인 냉각수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열을 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정량의 냉각수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름철 엔진룸의 온도는 30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냉각수가 부족하면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차량화재로 이어지기도 해 여름철 안전운전을 위해 냉각수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냉각수 보충 방법은 차량의 보닛을 연 후 주황색(혹은 노란색) 스티커가 붙은 라디에이터 압력 캡을 열어 표시된 선까지 냉각수를 보충해주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행으로 엔진이 과열된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캡을 맨손으로 만지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충분히 식힌 후 장갑 등을 라디에이터 압력 캡에 댄 후 누르면서 천천히 왼쪽으로 돌리면서 열어야 한다는 것. 또한 장시간 운전하지 않았어도 냉각계통에 압력이 차 있을 수 있어 라디에이터 캡은 압력이 새어나갈 수 있도록 마개를 누르면서 천천히 열어야 한다. 냉각수는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돗물이나 정수기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단, 우물물이나 하천물은 냉각 계통을 부식시킬 수 있으니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동액이 아닌 물을 사용했을 경우 겨울철 이전에 동파 방지를 위해 정비소에서 부동액으로 교체해야 한다. <br/> <br/>2. 깨끗한 공기를 위해 ‘에어컨 필터’ 확인 <br/> <br/>여름철 차량 이용 시 에어컨은 쾌적한 기분으로 운전을 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이다. 에어컨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차의 에어컨 필터는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쪽에 있는데 글로브 박스 연결고리를 빼 박스를 분리한 뒤 안쪽에 있는 필터를 교체하면 된다. 에어컨 필터가 케이스에 고정되어 있을 경우는 필터를 위아래로 동시에 누르면서 잡아 당기면 필터가 케이스에서 분리된다. 필터를 교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방향에 맞게 장착한다는 것. 필터 측면에 표기되어 있는 화살표가 아래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면 된다. 차종에 따라서 운전자가 직접 교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직접 교환하기 어려운 경우는 정비소를 방문하여 전문정비사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에어컨 필터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적지 도착 2~3분 전부터 에어컨을 끄고 일반 송풍모드를 사용하면 된다. <br/> <br/>3. 수막현상 방지위해 타이어 마모 점검 <br/> <br/>여름철 빗길 운행 시 바퀴가 물에 뜨는 수막현상은 여름철 차량운행 시 위험요소 중 하나다. 수막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정도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이어의 마모 정도는 트레이드라 불리는 타이어의 배수관 사이에 위치한 마모 한계선을 확인하면 된다. 튀어나와 있는 마모 한계선이 바깥면과 비슷해지면 타이어를 교체할 시기가 된 것. 또한 여름철 타이어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 주입하면 수막현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차종별 적정 공기압은 운전석 문틀에 부착되어 있는 표준 공기압 스티커를 확인하면 된다. 주유소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곳도 있으니 공기압이 미달일 경우 공기를 주입한 후 여행지로 떠나는 게 좋다. <br/> <br/>4. 폭우 대비 와이퍼 점검 <br/> <br/>많은 운전자들이 평소 와이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름철 빗길 운행 시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거나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운행 중 갑자기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암 연결부의 볼트가 헐거워졌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럴 때는 사이즈에 맞는 공구를 이용해 단단히 조이면 되지만, 공구가 없을 경우 우선 손으로 볼트를 간단하게 조이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 만일 그래도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와이퍼 퓨즈를 확인하고 같은 용량의 새 퓨즈로 교체하면 되는데 보통 와이퍼 퓨즈는 운전대 아래 퓨즈박스에 있다. 퓨즈를 교체했는데도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와이퍼는 6~1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와이퍼 작동 시 떨리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와이퍼의 추가적인 고장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세차 시 와이퍼를 꼼꼼히 닦지 않으면 와이퍼의 날에 쌓인 그을음이나 미세먼지, 모래 알갱이 등이 남아 유리면에 얼룩을 남기거나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이점도 주의하자. <br/> <br/>김태헌 기자 11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40.txt

제목: "개방ㆍ융합ㆍ혁신을 통한 글로벌 연구중심병원 지향”에서 창조의료의 메카로 도약  
날짜: 20150714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0814983  
본문: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Center for Medical Innovation) 전경 <br/> <br/>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신 개념 의학연구의 플랫폼이 될 ‘의학연구혁신센터’를 16일 개소한다. <br/> <br/>의학연구혁신센터(CMI, Center for Medical Innovation)는 개방과 융합, 혁신을 바탕으로 산업계, 대학, 연구소와 병원이 R&D 전 과정을 초기단계부터 공동으로 진행하는 의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br/> <br/>2012년 5월 착공한 의학연구혁신센터는 지상 4층, 지하 5층에 연면적 31,261 m2 규모로 62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br/> <br/>서울대병원은 지난 2013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후, 임상연구 및 중개연구 중심으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고, 의학연구혁신센터에는 중개의학연구소의 주요 부서가 자리잡고 있다. <br/> <br/>산학연 융•복합 연구 수행을 위해 신설된 중개의학연구소 융합연구협력부 산하에는 중개의학연구의 핵심인 바이오마커(단백질이나 DNA, RNA(리복핵산), 대사물질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 센터가 있으며, 고가 장비인 3D 프린터를 도입, 의료기기의 아이디어 구현 및 디자인/개발을 자문하고 신속한 시제품을 구현 가능케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기계공작실이 있다.  <br/> <br/>또한, 인체자원은행, 암조직은행, 뇌은행(신설 예정)으로 구성된 SNUH 바이오뱅크가 중개의학연구소장 산하 독립기구로 있다. <br/> <br/>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 내 의료정보와 의과학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저장해 연구자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상의과학정보실이 지난해 신설됐다.  <br/> <br/>의학연구혁신센터에는 총 2백명의 교수가 벤치를 분양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5백여 명의 상주 연구원과 연구지원인력이 있다. <br/> <br/>의학연구혁신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산(産)•학(學)•연(硏)•병(病) 간의 혁신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다. 이전까지는 각 기관들의 탐색, 연구, 위탁, 임상, 제품화 등이 단계적이고 개별적이었다.  <br/> <br/>그러나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는 ‘환자치료를 위한 신제품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제약산업계-학교-연구소-병원 등이 개방과 융합을 통해 효율적이고 상호보완적이며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br/> <br/>이를테면, 연구소에서 신약후보 물질을 찾아내 제약 스폰서를 거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기존의 임상연구였다면, 앞으로는 질병을 기반으로 임상의료 기술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해 통합적 연구개발을 하는 중개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br/> <br/>방영주 의생명연구원장은 “<span class='quot0'>의학연구혁신센터는 개방과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서 한국형 연구중심병원과 HT(health technology)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세계 유수 병원 사례와 같이 연구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모델을 실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span>”으로 기대했다. <br/> <br/>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span class='quot1'>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의학연구혁신센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연구중심병원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HT의 세계적인 강자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있어서 그 역할을 다 할 것</span>” 이라고 말했다. <br/> <br/>서울대병원은 식약처 승인 임상시험 누적 승인 건수에서 수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2,400여 편 이상의 SCI 논문 게재 등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41.txt

제목: 15일부터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와 의료, 건보 혜택받아  
날짜: 2015071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0647372  
본문: 오는 15일부터 완치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br/> <br/>2003년 암 관리법이 제정된 지 12년 만의 일이다. <br/> <br/>14일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호스피스의 하루 진료비에 정액 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은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밝혔다. <br/> <br/>과거에는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 가운데에도 12.7%(2013년)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다. 행또 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이 컸다. <br/> <br/>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의 경우 밀접한 간병이 필수라는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전문 간병 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br/> <br/>제도 초기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호스피스 기관이 선택해 신청하도록 했다. <br/> <br/>복지부가 제공한 사례를 보면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23일간 입원하고 임종한 말기암 환자는 21일 동안 5인실, 2일 동안 임종실에 머물러 총 681만8596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br/> <br/>병원에서는 통증·구토 등 증상을 관리하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br/> <br/>이 일과 관련해 환자는 식대와 진료비를 합쳐 43만7035원만 부담하면 된다. <br/> <br/>단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부담 금액이 195만9035원으로 뛴다. <br/> <br/>호스피스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말기 암 환자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br/> <br/>현재 전국 60개 기관(총 1009병상)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br/> <br/>의료진이 가정으로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올해안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br/> <br/>가정 호스피스는 환자가 임종 전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고, 병원 감염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br/> <br/>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이 격주 1회, 최대 주 2회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br/> <br/>복지부는 "가정 호스피스와 관련한 법령 개정이 늦어졌다"며 "8월말∼9월초에 법령이 개정되고, 시범사업 등을 거치면 시행은 10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42.txt

제목: 유방암 자가 검진법 정확히 아는 여성 2.8% 불과  
날짜: 20150714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0624622  
본문: 연도별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 <br/>한국유방암학회(회장 정성후/이사장 한세환)가 14일 우리나라 30~40대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방암 인식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br/> <br/>조사 결과 발생률이 높고, 진료비 부담 역시 큰 유방암에 대한 인식이 다른 암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 실태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유방암, 한국 여성에게 흔한 여성암 의료비 부담도 만만찮아 <br/> <br/>조사에 따르면 30~40대 여성 4명 중 1명(23.5%)은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암을 꼽아, 비교적 젊은 층의 여성 역시 암 발병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여성에게 가장 흔한 여성 암인 유방암의 위험도에 대한 인지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br/>  <br/>한국 여성에서 발병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절반가량(46.0%)이 위암을 꼽았으며 유방암이라 답한 응답자는 5.2%에 불과했다. <br/> <br/>하지만 실제로 유방암은 연평균 5.9%씩 발생률이 증가(1999년~2012)하고 있다. 이는 갑상샘암을 제외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다. 3040 여성이 많이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 위암이 소폭 감소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br/> <br/>응답자들은 여성에게 생기는 암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 자궁경부암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48.7%, 487명), 실제로는 유방암 발생자 수(1만6521명)가 가장 많았다. (갑상샘암 제외) <br/> <br/>이어 대장암 (1만1543명), 위암(1만8명)이 순이었다. 자궁경부암은 유방암의 약 1/5 수준인 3548명에 그쳤다. <br/> <br/>유방암은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진단부터 사망까지 진료비를 계산해봤을 때, 총 진료비가 2000만원이 넘는 암은 유방암(2079만원)이 유일했다. 그러나 유방암의 의료비가 가장 높을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3.4%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50.5%)이 가장 높을 것이라 답한 간암(1032만 원)은 유방암 진료비의 절반 수준이었다. <br/> <br/>한국유방암학회 김성원 홍보이사(대림성모병원 유방센터장)는 "유방암은 한국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여성암"이라며 "아직도 많은 여성이 유방암의 위험성을 낮게 여기는데, 생활 습관 변화 등으로 발병 위험은 오히려 커진 만큼 평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또한 3040 여성 10명 중 1명만 연령에 맞는 자가검진 하고 있어 대부분 검진을 비정기적으로 시행, 유방암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만큼 예방을 위한 노력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손으로 만져서 몽우리 등을 확인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56.3%에 달했으나 매월 1회씩 권고 주기를 지켜 진행하는 30~40대 여성은 10명 중 1명(13.5%)에 불과했다. <br/> <br/>한국유방암학회 한세환 이사장(아주대학교병원 유방센터장)는 "유방암의 발생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5년 생존율이 90%가 넘는 등 조기에만 발견하면 경과가 아주 좋은 암"이라며 "한국유방암학회에서 권고하는 연령별 검진 단계에 따라 자가검진과 정기검진을 지속해 건강한 삶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r/> <br/>한편 한국유방암학회는 유방암 조기 진단을 위해 연령별로 자세한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30세 이후에는 매월 유방 자가 진단을 하는 것을 권하며,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 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임상 진찰과 유방 촬영을 권장한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43.txt

제목: 유방암 자가 검진법 정확히 아는 여성 2.8% 불과  
날짜: 20150714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4100000254  
본문: 연도별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한국유방암학회(회장 정성후/이사장 한세환)가 14일 우리나라 30~40대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방암 인식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발생률이 높고, 진료비 부담 역시 큰 유방암에 대한 인식이 다른 암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 실태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한국 여성에게 흔한 여성암 의료비 부담도 만만찮아조사에 따르면 30~40대 여성 4명 중 1명(23.5%)은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암을 꼽아, 비교적 젊은 층의 여성 역시 암 발병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여성에게 가장 흔한 여성 암인 유방암의 위험도에 대한 인지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국 여성에서 발병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절반가량(46.0%)이 위암을 꼽았으며 유방암이라 답한 응답자는 5.2%에 불과했다.하지만 실제로 유방암은 연평균 5.9%씩 발생률이 증가(1999년~2012)하고 있다. 이는 갑상샘암을 제외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다. 3040 여성이 많이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 위암이 소폭 감소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응답자들은 여성에게 생기는 암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 자궁경부암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48.7%, 487명), 실제로는 유방암 발생자 수(1만6521명)가 가장 많았다. (갑상샘암 제외)이어 대장암 (1만1543명), 위암(1만8명)이 순이었다. 자궁경부암은 유방암의 약 1/5 수준인 3548명에 그쳤다.유방암은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진단부터 사망까지 진료비를 계산해봤을 때, 총 진료비가 2000만원이 넘는 암은 유방암(2079만원)이 유일했다. 그러나 유방암의 의료비가 가장 높을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3.4%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50.5%)이 가장 높을 것이라 답한 간암(1032만 원)은 유방암 진료비의 절반 수준이었다.한국유방암학회 김성원 홍보이사(대림성모병원 유방센터장)는 "유방암은 한국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여성암"이라며 "아직도 많은 여성이 유방암의 위험성을 낮게 여기는데, 생활 습관 변화 등으로 발병 위험은 오히려 커진 만큼 평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3040 여성 10명 중 1명만 연령에 맞는 자가검진 하고 있어 대부분 검진을 비정기적으로 시행, 유방암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만큼 예방을 위한 노력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손으로 만져서 몽우리 등을 확인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56.3%에 달했으나 매월 1회씩 권고 주기를 지켜 진행하는 30~40대 여성은 10명 중 1명(13.5%)에 불과했다.한국유방암학회 한세환 이사장(아주대학교병원 유방센터장)는 "유방암의 발생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5년 생존율이 90%가 넘는 등 조기에만 발견하면 경과가 아주 좋은 암"이라며 "한국유방암학회에서 권고하는 연령별 검진 단계에 따라 자가검진과 정기검진을 지속해 건강한 삶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유방암학회는 유방암 조기 진단을 위해 연령별로 자세한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30세 이후에는 매월 유방 자가 진단을 하는 것을 권하며,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 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임상 진찰과 유방 촬영을 권장한다.  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44.txt

제목: 15일부터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와 의료, 건보 혜택받아  
날짜: 20150714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4100000765  
본문: 오는 15일부터 완치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2003년 암 관리법이 제정된 지 12년 만의 일이다.14일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호스피스의 하루 진료비에 정액 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은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 가운데에도 12.7%(2013년)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다. 행또 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이 컸다.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의 경우 밀접한 간병이 필수라는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전문 간병 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 초기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호스피스 기관이 선택해 신청하도록 했다.복지부가 제공한 사례를 보면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23일간 입원하고 임종한 말기암 환자는 21일 동안 5인실, 2일 동안 임종실에 머물러 총 681만8596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병원에서는 통증·구토 등 증상을 관리하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이 일과 관련해 환자는 식대와 진료비를 합쳐 43만7035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부담 금액이 195만9035원으로 뛴다.호스피스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말기 암 환자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현재 전국 60개 기관(총 1009병상)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의료진이 가정으로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올해안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가정 호스피스는 환자가 임종 전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고, 병원 감염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이 격주 1회, 최대 주 2회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복지부는 "가정 호스피스와 관련한 법령 개정이 늦어졌다"며 "8월말∼9월초에 법령이 개정되고, 시범사업 등을 거치면 시행은 10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45.txt

제목: 국립암센터 암관련 통계, 보험회사가 가장 많이 이용  
날짜: 20150714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4100000150  
본문: 민간보험회사가 국립암센터의 각종 암관련 통계자료를 가장 많이 요청하고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의 국립암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국립암센터는 2004년 12월부터 암 발생 및 치료와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해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유병률 등의 암통계자료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이는 암관리법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받은 데 근거해서다.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건당국이 암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대학 등 외부의 관련 연구기관이 암 연구를 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이렇게 생산된 암통계 자료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민간 보험회사가 영리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암등록 통계자료를 요구한 실적은 미흡하다.복지부는 최근 3년간(2012~2014년) 국립암센터 내외부 기관의 암등록 통계자료 요구실적을 기관별로 분석했다.그 결과, 총 353건 중에서 110건(31.1%)이 보험회사 등 민간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요구건수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국립암센터(중앙암등록본부 포함) 내부 자체적으로 요구한 게 77건(21.8%)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이어 국회 59건(16.7%), 의료기관 44건(12.5%), 대학 37건(10.5%), 정부(연구기관 포함) 19건(5.4%), 언론 6건(1.7%), 개인 1건(0.3%) 등의 순이었다.전문가들은 이처럼 민간 보험회사들이 암정보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를 잘 활용하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즉 보험회사들이 암 등 질병정보를 이용해 질병이 있는 사람의 보험가입을 막고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고 있다는 것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46.txt

제목: 국립암센터 통계 최다 사용처는 엉뚱하게 '민간보험사'  
날짜: 2015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4100000005  
본문: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가 수집, 분석해 보유한 암등록 통계자료를 가장 많이 요구해 사용하는 최다 기관은 영리목적의 민간 보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보건복지부의 국립암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국립암센터는 2004년 12월부터 암 발생 및 치료와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해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유병률 등의 암통계자료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암관리법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받은 데 근거해서다.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건당국이 암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대학 등 외부의 관련 연구기관이 암 연구를 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암통계 자료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민간 보험회사가 영리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암등록 통계자료를 요구한 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복지부는 감사에서 2012~2014년 최근 3년간 국립암센터 내외부 기관의 암등록 통계자료 요구실적을 기관별로 분석했다.그 결과, 총 353건 중에서 110건(31.1%)이 보험회사 등 민간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요구건수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국립암센터(중앙암등록본부 포함) 내부 자체적으로 요구한 게 77건(21.8%)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이어 국회 59건(16.7%), 의료기관 44건(12.5%), 대학 37건(10.5%), 정부(연구기관 포함) 19건(5.4%), 언론 6건(1.7%), 개인 1건(0.3%) 등의 순이었다.이처럼 민간 보험회사들이 암정보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를 잘 활용하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내과전문의인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백재중 대표는 "보험회사들이 암 등 질병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은 질병이 있는 사람의 보험가입을 막고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47.txt

제목: "30~40대 여성들, 유방암 위험 과소평가 경향"  
날짜: 2015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4100000404  
본문: 우리나라 30∼40대 여성들이 유방암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유방암학회(이사장 한세환)는 국내 30∼40대 성인 여성 1천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인식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조사 결과를 보면 30∼40대 여성 4명 중 1명(23.5%)이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암을 꼽았다. 발병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으로는 응답자의 46%가 위암을 지목했으며 유방암을 꼽은 응답자는 5.2%에 그쳤다.2012년 기준으로 국내 연간 유방암 증가율은 5.8%로 갑상선암(22.6%), 전립선암(12.7%)에 이어 세번째에 해당한다.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지목된 위암은 매년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또 응답자의 48.7%는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으로 자궁경부암을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유방암 발생자 수가 연간 1만6천521명에 달해 가장 많고 그 뒤를 대장암(1만1천543명), 위암(1만8명)이 뒤따르고 있다. 자궁경부암 발생자는 유방암의 약 20% 수준인 3천548명이었다.유방암은 의료비 부담도 만만찮다. 진단부터 사망까지 진료비를 계산했을 때 총 진료비가 2천만원이 넘는 암은 유방암(2천79만원)이 유일하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응답자 중 유방암의 의료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3.4%에 그쳤다. 절반 이상(50.5%)이 진료비가 가장 많이 든다고 답한 간암의 진료비는 실제로는 유방암의 절반 수준인 1천32만원이었다.유방암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만큼 예방 노력 역시 부족했다. 가슴을 손으로 만져서 몽우리 등을 확인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56.3%에 달했지만, 매월 1회씩 권고 주기를 지키는 30~40대 여성은 13.5%에 불과했다. 특히 자가 검진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답한 여성은 2.8%에 그쳤다.학회 김성원 홍보이사(대림성모병원 유방센터장)는 "아직도 많은 여성이 유방암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지만, 생활 습관의 변화 등으로 발병 위험이 오히려 커진 만큼 평소 관심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하려면 30세 이후부터 매월 유방 자가 진단을 하고,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게 임상 검진을 받는 게 좋다. 또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임상 진찰과 유방 촬영이 권장된다.학회 한세환 이사장(아주대병원 유방센터장)은 "유방암은 발생률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조기에 발견한다면 5년 생존율이 90%가 넘는다"면서 "학회에서 권고하는 연령별 검진 단계에 따라 자가검진과 정기검진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48.txt

제목: 9일째 메르스 신규 확진자 없어… 진정세 계속  
날짜: 2015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4100000251  
본문: 〔스포츠월드=윤정한 기자〕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신규 확진자가 9일째 발생하지 않아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14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메르스 환자 일일현황’에 따르면 지난 4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이후 추가 인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퇴원자는 1명 늘었고 사망자는 어제와 변동이 없었다. 치료 중인 환자 상태는 15명이 안정적이며, 4명이 호흡과 혈압이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186명이 메르스에 감염됐으며, 이 중 36명이 숨졌다. 치사율은 19.35%를 기록했다. 사망자 36명의 성별은 남성 24명(66.7%), 여성 12명(33.3%)이다. 60대와 70대가 11명(30.6%)으로 가장 많고, 80대 7명(19.4%), 50대 6명(16.7%), 40대 1명(2.8%) 순이다. 사망자 중 각종 만성질환자(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나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은 33명(91.7%)이다.퇴원자 수는 1명 늘어 131명이다. 신규 퇴원자는 175번(74세) 확진자로 평택굿모닝병원에서 노출된 118번(67·여) 환자의 남편이다. 가족 간 감염 사례로 추정된다.한편, 전체 퇴원자 중 남성이 73명(55.7%), 여성이 58명(44.3%)을 기록했다.yun0086@sportsworldi.com 사진=세계일보 제공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49.txt

제목: "개방ㆍ융합ㆍ혁신을 통한 글로벌 연구중심병원 지향”에서 창조의료의 메카로 도약  
날짜: 20150714  
기자: admin369@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4100000290  
본문: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Center for Medical Innovation) 전경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신 개념 의학연구의 플랫폼이 될 ‘의학연구혁신센터’를 16일 개소한다.의학연구혁신센터(CMI, Center for Medical Innovation)는 개방과 융합, 혁신을 바탕으로 산업계, 대학, 연구소와 병원이 R&D 전 과정을 초기단계부터 공동으로 진행하는 의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2012년 5월 착공한 의학연구혁신센터는 지상 4층, 지하 5층에 연면적 31,261 m2 규모로 62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서울대병원은 지난 2013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후, 임상연구 및 중개연구 중심으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고, 의학연구혁신센터에는 중개의학연구소의 주요 부서가 자리잡고 있다.산학연 융•복합 연구 수행을 위해 신설된 중개의학연구소 융합연구협력부 산하에는 중개의학연구의 핵심인 바이오마커(단백질이나 DNA, RNA(리복핵산), 대사물질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 센터가 있으며, 고가 장비인 3D 프린터를 도입, 의료기기의 아이디어 구현 및 디자인/개발을 자문하고 신속한 시제품을 구현 가능케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기계공작실이 있다. 또한, 인체자원은행, 암조직은행, 뇌은행(신설 예정)으로 구성된 SNUH 바이오뱅크가 중개의학연구소장 산하 독립기구로 있다.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 내 의료정보와 의과학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저장해 연구자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상의과학정보실이 지난해 신설됐다. 의학연구혁신센터에는 총 2백명의 교수가 벤치를 분양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5백여 명의 상주 연구원과 연구지원인력이 있다.의학연구혁신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산(産)•학(學)•연(硏)•병(病) 간의 혁신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다. 이전까지는 각 기관들의 탐색, 연구, 위탁, 임상, 제품화 등이 단계적이고 개별적이었다. 그러나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는 ‘환자치료를 위한 신제품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제약산업계-학교-연구소-병원 등이 개방과 융합을 통해 효율적이고 상호보완적이며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이를테면, 연구소에서 신약후보 물질을 찾아내 제약 스폰서를 거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기존의 임상연구였다면, 앞으로는 질병을 기반으로 임상의료 기술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해 통합적 연구개발을 하는 중개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방영주 의생명연구원장은 “<span class='quot0'>의학연구혁신센터는 개방과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서 한국형 연구중심병원과 HT(health technology)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세계 유수 병원 사례와 같이 연구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모델을 실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span>”으로 기대했다.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의학연구혁신센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연구중심병원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HT의 세계적인 강자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있어서 그 역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서울대병원은 식약처 승인 임상시험 누적 승인 건수에서 수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2,400여 편 이상의 SCI 논문 게재 등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있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50.txt

제목: 여름 휴가 출발 전 꼭 해야 할 차량점검 4대 포인트  
날짜: 20150714  
기자: 119@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4100000226  
본문: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이다. 가족 또는 친지와 휴가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요 이동수단 중 하나가 자동차이다. 짐을 싣고 구석구석 다니기 편리한데다 여러 사람이 같이 타고 가면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서는 출발 전에 반드시 차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도로에서 차량이 퍼져 무더위에 시간을 낭비하고 여행 기분마저 잡칠 수도 있다. 이에 세계일보는 자동차 종합서비스 체인점인 스피드메이의 도움을 받아 여름휴가 출발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차량점검 4대 포인트를 소개한다. 1. 엔진과열 주의…‘냉각수’ 확인 냉각수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열을 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정량의 냉각수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름철 엔진룸의 온도는 30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냉각수가 부족하면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차량화재로 이어지기도 해 여름철 안전운전을 위해 냉각수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냉각수 보충 방법은 차량의 보닛을 연 후 주황색(혹은 노란색) 스티커가 붙은 라디에이터 압력 캡을 열어 표시된 선까지 냉각수를 보충해주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행으로 엔진이 과열된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캡을 맨손으로 만지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충분히 식힌 후 장갑 등을 라디에이터 압력 캡에 댄 후 누르면서 천천히 왼쪽으로 돌리면서 열어야 한다는 것. 또한 장시간 운전하지 않았어도 냉각계통에 압력이 차 있을 수 있어 라디에이터 캡은 압력이 새어나갈 수 있도록 마개를 누르면서 천천히 열어야 한다. 냉각수는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돗물이나 정수기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단, 우물물이나 하천물은 냉각 계통을 부식시킬 수 있으니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동액이 아닌 물을 사용했을 경우 겨울철 이전에 동파 방지를 위해 정비소에서 부동액으로 교체해야 한다.2. 깨끗한 공기를 위해 ‘에어컨 필터’ 확인여름철 차량 이용 시 에어컨은 쾌적한 기분으로 운전을 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이다. 에어컨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차의 에어컨 필터는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쪽에 있는데 글로브 박스 연결고리를 빼 박스를 분리한 뒤 안쪽에 있는 필터를 교체하면 된다. 에어컨 필터가 케이스에 고정되어 있을 경우는 필터를 위아래로 동시에 누르면서 잡아 당기면 필터가 케이스에서 분리된다. 필터를 교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방향에 맞게 장착한다는 것. 필터 측면에 표기되어 있는 화살표가 아래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면 된다. 차종에 따라서 운전자가 직접 교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직접 교환하기 어려운 경우는 정비소를 방문하여 전문정비사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에어컨 필터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적지 도착 2~3분 전부터 에어컨을 끄고 일반 송풍모드를 사용하면 된다.3. 수막현상 방지위해 타이어 마모 점검여름철 빗길 운행 시 바퀴가 물에 뜨는 수막현상은 여름철 차량운행 시 위험요소 중 하나다. 수막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정도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이어의 마모 정도는 트레이드라 불리는 타이어의 배수관 사이에 위치한 마모 한계선을 확인하면 된다. 튀어나와 있는 마모 한계선이 바깥면과 비슷해지면 타이어를 교체할 시기가 된 것. 또한 여름철 타이어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 주입하면 수막현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차종별 적정 공기압은 운전석 문틀에 부착되어 있는 표준 공기압 스티커를 확인하면 된다. 주유소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곳도 있으니 공기압이 미달일 경우 공기를 주입한 후 여행지로 떠나는 게 좋다.4. 폭우 대비 와이퍼 점검많은 운전자들이 평소 와이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름철 빗길 운행 시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거나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운행 중 갑자기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암 연결부의 볼트가 헐거워졌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럴 때는 사이즈에 맞는 공구를 이용해 단단히 조이면 되지만, 공구가 없을 경우 우선 손으로 볼트를 간단하게 조이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 만일 그래도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와이퍼 퓨즈를 확인하고 같은 용량의 새 퓨즈로 교체하면 되는데 보통 와이퍼 퓨즈는 운전대 아래 퓨즈박스에 있다. 퓨즈를 교체했는데도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와이퍼는 6~1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와이퍼 작동 시 떨리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와이퍼의 추가적인 고장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세차 시 와이퍼를 꼼꼼히 닦지 않으면 와이퍼의 날에 쌓인 그을음이나 미세먼지, 모래 알갱이 등이 남아 유리면에 얼룩을 남기거나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이점도 주의하자.김태헌 기자 11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51.txt

제목: 거짓 암 진단으로 200억 가로채…美 의사에 징역 45년  
날짜: 20150713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0119621  
본문:   <br/> <br/> <br/>돈에 눈이 멀어 환자 수백명에게 거짓 암 진단을 내린 ‘괴물’ 의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br/> <br/>미국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시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이 거짓 암 진단을 내려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파리드 파타(50)에게 지난 10일(현지시간)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br/> <br/>디트로이트에서 혈액·종양 전문의로 일해온 파타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암 진단을 내리고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환자 553명을 상대로 항체 주사를 수백 회 실시했으며, 보험회사로부터 최소 1760만달러(약 199억원)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br/> <br/>피해자들은 암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파타로 인해 시간과 돈을 모두 날렸다. 한 환자는 3년에 가까운 화학치료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으며, 이 과정에서 멀쩡한 이까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재판부는 “<span class='quot0'>피고의 행위는 매우 거대하고 끔찍한 범죄다</span>”라며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span class='quot1'>파타에게 환자는 사람이 아닌 ‘수익’의 중심, 지독한 사기행위였다</span>”며 징역 175년을 구형했다. <br/> <br/>파타는 “<span class='quot2'>권력과 탐욕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span>”며 “<span class='quot2'>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어기고 환자의 신뢰를 져버려 부끄럽게 생각한다</span>”고 사죄했다. <br/> <br/>이날 법원 앞에서는 파타의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이 처참한 현실에 울부짖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미국 CNN 영상화면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52.txt

제목: 메르스 확진자 8일째 0, 사망 퇴원자도 없어…4명 상태 불안정  
날짜: 2015071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0120823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가 8일째 발생하지 않아 186명을 유지했다. <br/> <br/>추가 사망자와 퇴원자도 나오지 않았다. <br/> <br/>13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신규 환자와 사망자가 모두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r/> <br/>누적 환자수는 186명, 사망자수는 36명으로 전날과 같았다. <br/> <br/>완치자도 전날과 같이 130명이다. <br/> <br/>현재 20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4명은 상태가 불안정하다. <br/> <br/>치명률 19.4%인 가운데 사망자 36명 중 만성질환자(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나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은 33명(91.7%)이다. <br/> <br/>격리자는 전날보다 34명 줄어 451명이다. <br/> <br/>격리자 중 402명이 자가 격리자이며 49명은 시설(병원) 격리자다. <br/> <br/>격리됐다가 해제된 사람은 하루 사이 34명 늘어 모두 1만6231명이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53.txt

제목: 차의과학대학교 백광현 교수팀'2015대한암학회 우수연제상'수상  
날짜: 20150713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0144576  
본문: 차의과학대학교세포 및 유전자치료연구소 백광현 교수팀 <br/> <br/>차의과학대학교세포 및 유전자치료연구소 백광현 교수팀은최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에서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br/> <br/>이번 논문은 암유발단백질 중의 하나인 ‘14-3-3 감마 단백질’의 분해조절 기전을 분자학적 수준에서 밝힌 것으로 백광현 교수팀 소속의 김진옥 석사과정 대학원생이(공동발표 대학원생: 김소라, 임기환)발표함으로써 수상을 하게 되었다. <br/> <br/>‘14-3-3 감마 단백질’은 세포주기를 조절함으로써 세포의 증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상보다 많은 양이 만들어지면 암이 유발된다.이번 연구내용은 암유발단백질인 14-3-3 감마를 조절할 수 있는 단백질분해조절 효소를 발굴하여 이들의 조절을 규명한 것이다. 또한 14-3-3 감마 단백질은 혈액암과도 관련 있는 연구결과가 있어 토대로 이번 연구는 향후 혈액암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br/> <br/>한편 백광현 교수팀은 지난 2002년부터 14년 연속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국내/국외에서 수상함으로써 탁월한 연구 업적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54.txt

제목: 거짓 암 진단으로 200억 가로채…美 의사에 징역 45년  
날짜: 201507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3100000077  
본문:  돈에 눈이 멀어 환자 수백명에게 거짓 암 진단을 내린 ‘괴물’ 의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미국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시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이 거짓 암 진단을 내려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파리드 파타(50)에게 지난 10일(현지시간) 징역 45년을 선고했다.디트로이트에서 혈액·종양 전문의로 일해온 파타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암 진단을 내리고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환자 553명을 상대로 항체 주사를 수백 회 실시했으며, 보험회사로부터 최소 1760만달러(약 199억원)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들은 암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파타로 인해 시간과 돈을 모두 날렸다. 한 환자는 3년에 가까운 화학치료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으며, 이 과정에서 멀쩡한 이까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span class='quot0'>피고의 행위는 매우 거대하고 끔찍한 범죄다</span>”라며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span class='quot1'>파타에게 환자는 사람이 아닌 ‘수익’의 중심, 지독한 사기행위였다</span>”며 징역 175년을 구형했다.파타는 “<span class='quot1'>권력과 탐욕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span>”며 “<span class='quot1'>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어기고 환자의 신뢰를 져버려 부끄럽게 생각한다</span>”고 사죄했다.이날 법원 앞에서는 파타의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이 처참한 현실에 울부짖은 것으로 알려졌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사진=미국 CNN 영상화면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55.txt

제목: 차의과학대학교 백광현 교수팀'2015대한암학회 우수연제상'수상  
날짜: 20150713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3100000320  
본문: 차의과학대학교세포 및 유전자치료연구소 백광현 교수팀차의과학대학교세포 및 유전자치료연구소 백광현 교수팀은최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에서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논문은 암유발단백질 중의 하나인 ‘14-3-3 감마 단백질’의 분해조절 기전을 분자학적 수준에서 밝힌 것으로 백광현 교수팀 소속의 김진옥 석사과정 대학원생이(공동발표 대학원생: 김소라, 임기환)발표함으로써 수상을 하게 되었다.‘14-3-3 감마 단백질’은 세포주기를 조절함으로써 세포의 증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상보다 많은 양이 만들어지면 암이 유발된다.이번 연구내용은 암유발단백질인 14-3-3 감마를 조절할 수 있는 단백질분해조절 효소를 발굴하여 이들의 조절을 규명한 것이다. 또한 14-3-3 감마 단백질은 혈액암과도 관련 있는 연구결과가 있어 토대로 이번 연구는 향후 혈액암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한편 백광현 교수팀은 지난 2002년부터 14년 연속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국내/국외에서 수상함으로써 탁월한 연구 업적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56.txt

제목: '배가 너무 고파' 강남 백화점서 강도가 된 50대 가장  
날짜: 201507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3100001178  
본문: 평온한 일요일이었던 이달 5일 오후 9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백화점 지하 주차장.쇼핑을 마친 A(60·여)씨가 벤츠 승용차에 타고 시동을 거는 순간, 갑자기 조수석에 따라 탄 50대 남성이 공업용 커터 칼을 들이대며 "빨리 출발하라"고 재촉했다."그냥 돈을 다 가져가요!"라며 A씨는 출발하지 않고 이 남성과 승강이를 벌였다.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강도는 힘없이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A씨가 차 밖으로 나가 비명을 지르자 강도는 달아났다.서울 강남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CCTV를 뒤져 범행 5일 만인 10일 오후 경기도 문산의 한 식당에 딸린 컨테이너 집에서 용의자 이모(52)씨를 잡았다.그런데 이씨는 전과도 없고 고등학생 자녀를 둔 너무나 평범한 가장인 것으로 드러나 막상 그를 잡은 형사들을 안타깝게 했다.사연은 이랬다.이씨는 원래 경기도에서 학교에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어엿한 '사장님'이었다. 그런데 작년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학교 공사가 급감하는 바람에 사업이 기울더니 결국 부도를 맞았다.올해 재기를 꿈꿨지만 이번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문에 예정된 공사가 줄줄이 취소돼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쪼들리게 됐다. 설상가상 모친은 암 투병 중이고 형은 백혈병을 앓아 형에게 골수를 이식하려고 수술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이씨가 검거된 컨테이너 집도 지인이 마련해 준 임시거처였다.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래 범행을 작정하고 강남에 간 것은 아니라고 했다."딱 500만원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부자가 많이 산다는 서울 강남에 가서 사정하면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범행 전날 무작정 지하철을 잡아타고 3호선 신사역에서 내린 이씨는 강남 거리를 하염없이 돌아다녔다고 한다.그러면서 거리에 외제차가 너무 많아 놀라던 차에 여성 혼자 운전하는 외제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하룻밤을 길에서 보낸 이씨는 5일 백화점 폐점 시간이 돼서야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전날부터 밥을 못 먹어 힘이 없었다. A씨의 저항에 힘없이 커터 칼을 떨어뜨린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한다.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생각하지 않았고 커터 칼도 백화점 화단에서 주운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애초에 강도질을 하려고 강남에 왔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씨 가족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씨가 갑자기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CCTV를 봐도 이씨가 범행 후 걸어서 도주할 때 매우 힘겹게 걷는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이씨는 검거된 날도 아침 빼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고 경찰서에 와서야 형사들이 시켜준 볶음밥 곱빼기를 허겁지겁 순식간에 먹어 치웠다고 한다.'강남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기대했던 이씨를 도와준 이는 정작 한 택시기사였다.범행 후 지하철 문산역에서 내려 한참을 걷다 지친 이씨가 택시를 잡아 "지금 가진 것이 500원밖에 없는데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사정하자 기사가 컨테이너 집까지 태워줬다는 것이다.이씨는 1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57.txt

제목: 메르스 확진자 8일째 0, 사망 퇴원자도 없어…4명 상태 불안정  
날짜: 2015071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3100000562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가 8일째 발생하지 않아 186명을 유지했다.추가 사망자와 퇴원자도 나오지 않았다.13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신규 환자와 사망자가 모두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누적 환자수는 186명, 사망자수는 36명으로 전날과 같았다.완치자도 전날과 같이 130명이다.현재 20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4명은 상태가 불안정하다. 치명률 19.4%인 가운데 사망자 36명 중 만성질환자(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나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은 33명(91.7%)이다.격리자는 전날보다 34명 줄어 451명이다. 격리자 중 402명이 자가 격리자이며 49명은 시설(병원) 격리자다. 격리됐다가 해제된 사람은 하루 사이 34명 늘어 모두 1만6231명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58.txt

제목: 그라비올라, '항암효과 탁월' 신비의 약초  
날짜: 20150712  
기자: 이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210017879838  
본문: 그라비올라가 항암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최근 한 방송에서는 겨울철 면역력을 높여주는 천연약초 그라비올라, 명월초, 스태비아가 소개됐다. <br/> <br/>인디언들의 천연 약초인 신비의 나무 그라비올라는 남미, 동남아가 주산지이며 원주민들의 만병통치약으로서 주산지의 민간요법으로 널리 사용해 왔다고 알려진다. <br/> <br/>특히 그라비올라 아노나신이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영양공급 통로를 차단, 암세포의 자멸사를 유도해 각종 용종을 비롯해 암 세포를 파괴하는 효능이 현존 항암제보다 1만배 이상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br/> <br/>또 그라비올라는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그라비올라 잎을 빻아 생즙을 만들어 피부질환이 있는 곳에 바르면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 <br/> <br/>하지만 그라비올라를 대량으로 복용할 경우 복통, 설사,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br/> <br/>이슈팀  ent2@segye.com <br/> <b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59.txt

제목: 칼로리 소모량, 여름철 날씬한 몸매 원한다면?…“뱃살 빼는 10가지 습관 기억하자"  
날짜: 20150712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210017878253  
본문: 칼로리 소모량, 여름철 날씬한 몸매 원한다면?…“뱃살 빼는 10가지 습관 기억하자"칼로리 소모량, 여름철 날씬한 몸매 원한다면?…“뱃살 빼는 10가지 습관 기억하자" <br/> <br/>칼로리 소모량이 관심을 끌고 있다 <br/> <br/>칼로리 소모가 되는 운동 자전거 타기를 체중이 50kg인 사람이 10분 동안 했다면 37Kcal가 소모된다. <br/> <br/>한편 이런 가운데 뱃살 빼는 습관 10가지가 주목받고 있다. <br/> <br/>미국 건강포털 웹 MD는 뱃살을 줄여주는 습관 10가지를 소개했다. <br/>  <br/>1. 남긴 밥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야식이나 아이들이 남긴 밥이 아깝다고 이를 먹었다가는 뱃살이 늘어나기 십상이다. 이런 식습관은 뱃살을 빼는 데 좋지 않다. 남긴 밥을 억지로 먹는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br/>  <br/>2. 배고픔은 참지 말고, 간식을 챙겨 먹는게 낫다. 배고픔을 참다가 식사를 하면 평소 먹던 양보다 많이 먹게 된다. 배고픔을 참지 말고 열량이 높은 간식 대신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등 저칼로리 간식을 먹으면 건강에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br/> <br/>3. 공복에 마트에 가지 말아야 한다. 공복에 마트에 가게 되면 필요 이상의 먹을거리를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냉장고 속 먹을거리는 언제든지 뱃살로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 두자. <br/> <br/>4. 식사는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규칙적인 식사는 다이어트에 좋다. 규칙적인 식사는 과식을 예방하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이 쉽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되, 하루 한 끼를 가벼운 쉐이크 등으로 대체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량된다. <br/> <br/>5. 음식은 식탁에서 먹어야 한다. 음식을 서서 먹으면 과식을 피하기 어렵다. 식탁에 제대로 앉아 그릇에 덜어먹어야 양을 조절하면서 먹기 편해진다. <br/> <br/>6. 식사는 20분 동안 해야 한다.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분. 개인 접시를 이용해 식사 할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허겁지겁 먹으면 뱃살 역시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다. <br/> <br/>7. 식사를 하며 물도 함께 마셔야 한다. 식사하면서 적당량의 물을 함께 마셔야 한다. 적당량의 물은 과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너무 다량의 물을 마실 경우 위산이 희석돼 소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br/> <br/>8. 저녁 식사 후 양치질은 바로 해야 한다. 밥을 먹고 양치질을 바로 하는 것이다. 식사 후 양치를 늦게 할수록 남아있는 식욕에 주전부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녁 식사를 하자마자 양치질을 하면 식욕이 사라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뿐더러 치아 건강에도 효과적이다. <br/> <br/>9. 아무 간식이나 먹지 말아야 한다. 간식은 골라 먹어야 한다. 간식 중 가장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지방과 단백질이 적고 복합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이다. <br/> <br/>10. 아침식사는 거르지 말아야 한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는 아침식사다. 아침을 먹어야 뇌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돼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또 든든한 아침 식사를 먹으면 점심과 저녁의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 <br/> <br/>한편, 뱃살 빨리 빼는 비결 3가지는 다음과 같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첫번째,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한다.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20분 정도 매주 3일씩 하면 뱃살이 눈에 띄게 사라진다. 달리기나 자전거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운동을 일관된 속도로만 하고 있다면 중간에 10~60초간 전력 질주를 하는 등의 인터벌 트레이닝을 병행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두번째, 지방을 더 섭취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코코넛이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생선, 견과류, 씨앗류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체질량지수가 낮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다고 알려졌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세번째, 녹차를 마신다. 녹차는 면역계를 강화시키고 암 유발 세포를 퇴치하는 효능과 함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열을 내는 효능이 있어 지방 연소 과정을 촉진시킨다. 하루에 녹차 7잔 이상을 마셔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후나 밤늦게 보다는 아침이나 오전 시간대에 마시는 게 좋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60.txt

제목: 건보료 해마다 올랐건만… 보장률은 되레 4년 연속 줄어  
날짜: 20150711  
기자: brightw@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1100000245  
본문: 매년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도 불어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4년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보장률은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62.0%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후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등으로 매년 낮아졌다.2013년에는 노인 부분틀니, 치아 스케일링, 초음파 촬영 등이 건강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돼 1400억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됐는데도 보장률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보험공단은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67%가 암 관련 질환인데, 암 보장률이 떨어지면서 전체 보장률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77.5%로 전년(77.7%)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암 질환 보장률은 72.7%로 전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반면 건강보험료는 2009년 동결 이후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인상됐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재정 흑자로 돌아선 이후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환자 본인이 부담한 비율 38.0%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률은 20.0%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8.0%로 0.8%포인트 올랐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한 의료비의 비율을 뜻한다.병원 중에서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보장률이 59.2%로 전년대비 1.2%포인트 늘어났지만 일반병원은 전년대비 1.8%포인트 줄어든 49.8%, 의원급 요양기관은 3.1%포인트 줄어든 61.3%를 기록했다. 보장률은 요양병원이 72.7%로 가장 높았고 약국도 69.8%로 전체 보장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보험공단은 “<span class='quot0'>2013년은 3대 비급여(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화되기 전이라서 보장성 확대를 위한 지출이 많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제도개선이 본격화된 2014년도 통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반등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61.txt

제목: [다같이돌자 서울둘레길] 제 3-1코스 '고덕·일자산 코스'(5)  
날짜: 20150710  
기자: 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07150339753  
본문:   <br/>서울 둘레길 제 3코스 고덕·일자산의 첫 번째 구간인 3-1코스는 광나루역에서 고덕역까지 이르는 약 10km의 코스로, 예상 소요시간은 약 3시간10분가량이다. 3코스는 이전 코스에 비해 길이가 길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서울 둘레길 코스 중 난이도 '하', 길이 완만해 누구나 편하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br/>3-1코스는 이전 코스보다 둘레길 안내 표식이 잘돼있다. 광나루역 2번출구 앞 횡단보도를 건너 광진 청소년수련관 앞을 지나 광진교 진입로에 3코스의 첫 번째 스탬프 우체통이 보인다. 3코스에는 스탬프 우체통이 총합 4개가 있다.  <br/>광진교는 자전거 진입 금지 구간이며, 광진교 구간에는 햇볕을 가려줄 그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맑은 날에는 등산용 모자, 선글라스 등의 자외선을 가릴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추는 것이 좋다. <br/> <br/>다리를 걷다보면 음수대, 휴게시설, 뮤직벤치 등이 있으며, 중간 중간 경관조망장소가 있다. 광진교 끝부분에 다다르면 한강공원으로 내려가는 안내팻말이 나온다.  <br/>한강공원으로 내려가면 레일바이크,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드론 비행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는 이들을 볼 수 있다. 한강 너머로 아차산도 보인다. <br/> <br/>한강변 둘레길의 좌측으로 암사동 생태경관 보전지역도 있다. 이곳은 황조롱이, 너구리, 쥐방울덩굴이 서식하고 있다. 다양한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공간인 만큼 동물을 놀라게 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선 안 된다. 또한 반려동물과 동행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br/> <br/>암사동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따라 걷다보면 서울 둘레길 안내 표지판이 나오고 암사나들목을 통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br/> <br/>암사동선사유적지가 나온다. 현재 유적 정비를 위한 발굴 조사 중이다. 발굴 작업은 7월31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선사체험마을 구간에 한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부분 공개를 하고 있다.  <br/>암사동선사유적지를 지나 걷다보면 서원마을, 양지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길들은 집집마다 빨간 우체통이 있고 정원이 가꿔져 있는 등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고덕산 진입로까지는 도보로 약 20분가량이 소요된다. 고덕산은 이전 코스의 불암산, 용마산 등에 비해 언덕길을 걷는 듯 완만하다. 하지만 한 여름 뙤약볕 아래서 트래킹을 하기에는 무리 일 수 있다. 산길에 작은 나무들만 자라고 있어 햇볕을 가려주기 못하기 때문.  <br/>고덕산을 내려와 도심 구간을 지나다 보면 샘터근린공원이 나온다. 이곳 또한 완만한 구간. 샘터공원을 오르는 길에는 운동기구도 있으며, 나무 데크로 조성된 고덕산 자락길, 강동 그린웨이 길과 겹쳐지는 구간이기도 하다. 샘터공원을 내려와 고덕 평생학습관을 지나면 고덕역 부근. 둘레길 3-2코스 시작부분을 알리는 스탬프 우체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br/> <br/>서울둘레길 관련 정보는 서울시청의 열린민원실이나 '서울 두드림길'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br/> <br/>라이프팀 장유진·차주화 기자 jangyj04@segye.com <br/>※ 서울둘레길은 총 8개의 코스, 157km 길이의 길.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이 좋고 스탬프 투어를 하는 재미도 있다. 완성한 스탬프 북을 서울시청에 가져가면 완주인증서도 받을 수 있다. [다같이돌자 서울둘레길] 코너에서는 2014년 11월 조성된 서울둘레길 코스를 수차례에 나눠 소개할 예정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62.txt

제목: [다같이돌자 서울둘레길] 제 3-1코스 '고덕·일자산 코스'(5)  
날짜: 20150710  
기자: 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5302846  
본문:   <br/> <br/>서울 둘레길 제 3코스 고덕·일자산의 첫 번째 구간인 3-1코스는 광나루역에서 고덕역까지 이르는 약 10km의 코스로, 예상 소요시간은 약 3시간10분가량이다. 3코스는 이전 코스에 비해 길이가 길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서울 둘레길 코스 중 난이도 '하', 길이 완만해 누구나 편하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br/> <br/>3-1코스는 이전 코스보다 둘레길 안내 표식이 잘돼있다. 광나루역 2번출구 앞 횡단보도를 건너 광진 청소년수련관 앞을 지나 광진교 진입로에 3코스의 첫 번째 스탬프 우체통이 보인다. 3코스에는 스탬프 우체통이 총합 4개가 있다.  <br/> <br/>광진교는 자전거 진입 금지 구간이며, 광진교 구간에는 햇볕을 가려줄 그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맑은 날에는 등산용 모자, 선글라스 등의 자외선을 가릴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추는 것이 좋다. <br/> <br/>다리를 걷다보면 음수대, 휴게시설, 뮤직벤치 등이 있으며, 중간 중간 경관조망장소가 있다. 광진교 끝부분에 다다르면 한강공원으로 내려가는 안내팻말이 나온다.  <br/> <br/>한강공원으로 내려가면 레일바이크,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드론 비행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는 이들을 볼 수 있다. 한강 너머로 아차산도 보인다. <br/> <br/>한강변 둘레길의 좌측으로 암사동 생태경관 보전지역도 있다. 이곳은 황조롱이, 너구리, 쥐방울덩굴이 서식하고 있다. 다양한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공간인 만큼 동물을 놀라게 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선 안 된다. 또한 반려동물과 동행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br/> <br/>암사동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따라 걷다보면 서울 둘레길 안내 표지판이 나오고 암사나들목을 통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br/> <br/>암사동선사유적지가 나온다. 현재 유적 정비를 위한 발굴 조사 중이다. 발굴 작업은 7월31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선사체험마을 구간에 한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부분 공개를 하고 있다.  <br/> <br/>암사동선사유적지를 지나 걷다보면 서원마을, 양지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길들은 집집마다 빨간 우체통이 있고 정원이 가꿔져 있는 등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고덕산 진입로까지는 도보로 약 20분가량이 소요된다. 고덕산은 이전 코스의 불암산, 용마산 등에 비해 언덕길을 걷는 듯 완만하다. 하지만 한 여름 뙤약볕 아래서 트래킹을 하기에는 무리 일 수 있다. 산길에 작은 나무들만 자라고 있어 햇볕을 가려주기 못하기 때문.  <br/> <br/>고덕산을 내려와 도심 구간을 지나다 보면 샘터근린공원이 나온다. 이곳 또한 완만한 구간. 샘터공원을 오르는 길에는 운동기구도 있으며, 나무 데크로 조성된 고덕산 자락길, 강동 그린웨이 길과 겹쳐지는 구간이기도 하다. 샘터공원을 내려와 고덕 평생학습관을 지나면 고덕역 부근. 둘레길 3-2코스 시작부분을 알리는 스탬프 우체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br/> <br/>서울둘레길 관련 정보는 서울시청의 열린민원실이나 '서울 두드림길'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br/> <br/>라이프팀 장유진·차주화 기자 jangyj04@segye.com <br/> <br/>※ 서울둘레길은 총 8개의 코스, 157km 길이의 길.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이 좋고 스탬프 투어를 하는 재미도 있다. 완성한 스탬프 북을 서울시청에 가져가면 완주인증서도 받을 수 있다. [다같이돌자 서울둘레길] 코너에서는 2014년 11월 조성된 서울둘레길 코스를 수차례에 나눠 소개할 예정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63.txt

제목: 건보료 해마다 올랐건만… 보장률은 되레 4년 연속 줄어  
날짜: 20150710  
기자: 박현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010017873075  
본문: 매년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도 불어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4년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건강보험 보장률은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br/> <br/>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62.0%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후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등으로 매년 낮아졌다. <br/> <br/>2013년에는 노인 부분틀니, 치아 스케일링, 초음파 촬영 등이 건강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돼 1400억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됐는데도 보장률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보험공단은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67%가 암 관련 질환인데, 암 보장률이 떨어지면서 전체 보장률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77.5%로 전년(77.7%)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암 질환 보장률은 72.7%로 전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br/> <br/>반면 건강보험료는 2009년 동결 이후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인상됐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재정 흑자로 돌아선 이후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br/> <br/>환자 본인이 부담한 비율 38.0%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률은 20.0%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8.0%로 0.8%포인트 올랐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한 의료비의 비율을 뜻한다. <br/> <br/>병원 중에서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보장률이 59.2%로 전년대비 1.2%포인트 늘어났지만 일반병원은 전년대비 1.8%포인트 줄어든 49.8%, 의원급 요양기관은 3.1%포인트 줄어든 61.3%를 기록했다. 보장률은 요양병원이 72.7%로 가장 높았고 약국도 69.8%로 전체 보장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br/> <br/>보험공단은 “2013년은 3대 비급여(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화되기 전이라서 보장성 확대를 위한 지출이 많지 않았다”며 “제도개선이 본격화된 2014년도 통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64.txt

제목: 암 이긴 피아니스트 이경미, 희망의 무대 '러브스토리'  
날짜: 201507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9100000492  
본문: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문화교류자로 알려진 피아니스트 이경미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연다.9일 공연주최사 크레디아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경미는 8월11일 오후 8시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피아니스트 이경미의 러브 스토리'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팬들과 만난다. 악기, 국가, 나이, 성별을 초월한 무대로 일본 클래식기타리스트 무라지 카오리와 러시아 돔라(만돌린과 비슷한 러시아 민속 악기로 자루가 길고, 세 개의 금속으로 된 줄이 있다) 연주자 알렉산더 마카로프와 함께한다. 다양한 악기의 조합만큼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피아니스트 이경미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포함한 오페라 곡들을 연주한다. 특히 '피가로의 결혼'은 체르니가 편곡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초연이다. 무라지 카오리는 감미로운 영화 음악, 알렉산더 마카로프의 러시아 음악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비틀스와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 등 대중에게 알려진 명곡이 새롭게 편곡돼 각기 다른 매력의 세 연주자의 세 악기를 감상할 수 있다.앞서 이경미는 지난 4월 자전 에세이 '러브 스토리'를 내놓았다. 2009년 유방암 판정을 받고 2년 후 다시 일본 산토리홀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여정 등 삶과 음악에 관한 이야기다. 책 제목을 내세운 이번 무대를 고된 투병을 견디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무라지 카오리에게도 특별한 무대다. 2년 전 갑작스러운 설암 판정 후 수술과 투병으로 인해 잠시 활동을 쉬고 있던 그녀에게 이경미는 "내 산토리홀 재기 무대와 같이 무라지 카오리도 다시 연주자로 날아오를 수 있는 희망의 무대가 될 것"이라며 손을 내밀었다. 3만~5만원. 크레디아 클럽발코니. 1577-5266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65.txt

제목: 건강 미인 비결, 여름 제철 맞은 웰빙 푸드 체리  
날짜: 2015070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4353915  
본문:   <br/> <br/> <br/>푹푹 찌는 무더위에 잘 익은 여름 과일들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소를 듬뿍 담은 제철 과일은 피로 회복과 면역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분 함유로 피부에도 좋다. <br/> <br/>특히 탐스러운 붉은 빛의 체리에는 피부 미백과 노폐물 배출을 돕는 비타민C와 피부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도움을 준다. <br/> <br/>◆ 과일의 여왕 체리 <br/> <br/>과일 중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체리는 국내에서 7월과 8월 여름철에만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다. 체리에는 케르세틴(qurcetin)과 안토시아닌(anthocyanin), 두 가지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다. <br/> <br/>체리의 항산화 물질은 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폐물의 증가를 억제하여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과산화억제 기능을 하여 노화를 예방한다. <br/> <br/>씨를 뺀 체리 100g에는 최고 300mg의 안토시아닌이 들어 있는데, 이는 시력 저하를 방지하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며 피로 회복과 혈액순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br/> <br/>뿐만 아니라 체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소염, 살균 작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효능은 뛰어나지만 위에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아 관절염 환자가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br/> <br/>오리건 헬스 앤드 사이언스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극도의 지구력을 요하는 경기 전 일주일 동안 타르트 체리 주스를 마셨던 달리기 선수는 경기 후 통증을 덜 느꼈다고 한다. <br/> <br/>근육의 염증과 심한 운동으로 인한 손상을 줄여주는 산화 방지제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을 다량 함유한 체리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br/> <br/>또한 체리에 함유된 케르세틴 성분은 혈액 중 유해 물질인 중금속이나 독·니코틴 등에 흡착해 해독에 도움을 주고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준다. <br/> <br/>체리 한 컵(140g, 20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9%에 달하는 270g의 칼륨이 들어있으며, 칼로리는 90으로 매우 낮고 나트륨과 지방도 전혀 없어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그만이다.  <br/> <br/>세계 체리 생산량의 70% 이상, 국내 수입량의 80% 이상이 미국 북서부의 5개 주(워싱턴, 오리곤, 아이다호, 유타, 몬태나)에서 생산된다. <br/> <br/>일명 '워싱턴 체리'라고 불리는 미국 북서부 체리는 미국 북서부 지역의 적절한 일조량, 시원한 밤 기온, 기름진 토양 등 날씨에 민감한 체리 재배의 최적 조건으로 인해, 현재 생산되는 다른 지역의 체리보다도 월등한 당도와 맛을 자랑한다. <br/> <br/>◆ 체리 맛있게 즐기는 법 <br/> <br/>체리가 진한 붉은색을 띄는 이유는 활성산소 제거를 돕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체리가 검붉을수록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은 것을 뜻한다. <br/> <br/>더 신선하고 맛있는 체리를 고르기 위해서는 체리의 색과 탄력을 관찰하면 되는데, 알이 탱탱하고 광택이 나며 색이 진하고 선명할수록 좋다. 표면에 윤기가 흐르는 것이 건강한 체리이며 꼭지는 선명한 녹색일수록 싱싱하고 맛있다. <br/> <br/>미국 북서부체리는 항공으로 1-2일이면 한국에 직 배송되는 신선한 과일이므로 8월까지는 생으로 깨끗이 씻어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br/> <br/>냉장 보관하면 2주 정도 생으로 즐길 수 있으며, 신선도가 떨어지면 먹기 좋게 자른 후 다른 과일과 섞어 드레싱과 함께 샐러드로 먹거나 탄산음료와 갈아서 에이드 등으로 즐길 수 있다. <br/> <br/>체리를 좀 더 오래도록 맛보고 싶다면 잘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냉동 보관하여 필요한 만큼 꺼내 체리잼, 체리쿠키, 체리에이드, 체리케이크 등으로 활용하면 달콤한 체리의 맛을 연중 즐길 수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66.txt

제목: [이응수의 해외로talk] 캐나다 취업 시 캐나다 칼리지 사용법  
날짜: 20150708  
기자: 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4146167  
본문: 사진=머피컨텐츠 제공"옥도 갈아야 빛이 난다", "방죽을 파야 개구리가 뛰어든다", "솥 속의 콩도 쪄야 익는다" <br/> <br/>이 속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해도 노력을 해야 뜻한 바를 이룰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 미리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이미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에 있을 뿐이다. <br/> <br/>캐나다 칼리지로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들과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취업 잘 되나요?"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칼리지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br/> <br/>캐나다 칼리지를 졸업 한 후 원하는 곳에 취업을 잘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본인이 재학 중인 칼리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다양하고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br/> <br/>◆ 캐나다 칼리지 시스템 적극 활용하기 <br/> <br/>캐나다 칼리지들은 대부분 커리어 센터(Career Center·학교마다 명칭은 다를 수 있음)를 제공하고 있다. 커리어 센터란 그 명칭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구직을 원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동시에 구인을 원하는 고용주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br/> <br/>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로는 ▲커리어 어드바이저(Career Advisor)와의 상담 ▲이력서 작성 ▲구직 지원 ▲워크샵 개최 ▲실전 인터뷰 연습 ▲고용주 미팅 ▲구인정보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좋은 인재를 구인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에게는 ▲학교에 구인 광고 ▲학내 리크루트먼트 ▲구인박람회 ▲회사 설명회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br/> <br/>칼리지 목적 자체가 졸업 후 곧바로 현장에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커리어 센터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각 칼리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인식돼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을 찾아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r/>코네스토가 칼리지의 커리어 센터 / 사진=머피컨텐츠 제공▲커리어 어드바이저(Career Advisor)=칼리지의 커리어 어드바이저들은 그들의 향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커리어 평가 방식들을 통해 학생들의 기술력과 전반적인 능력, 학생 개인의 성향과 관심사,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파악해서 교육이나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언을 한다. <br/> <br/>현재 학생의 가장 취약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무료 영어 회화(Peer Tutoring)을 소개하기도 하고,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며, 자원봉사단체를 소개해 주기도 하는 등 커리어 어드바이저들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br/> <br/>▲이력서 작성=학생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가 캐나다의 또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적합한지 궁금할 때에도 커리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커리어 센터의 어드바이저들은 학생들이 작성한 이력서의 형식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해당 학생의 강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력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단, 충분한 상담을 위해 어드바이저와의 예약은 필수다. <br/> <br/>▲인터뷰 연습=유학생들에게 고용주와의 인터뷰는 늘 긴장이 되는 일이다. 언어, 지식, 그리고 복장과 자세까지 어느 것 하나 새롭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반복되는 연습과 자신감 형성이다. 커리어 어드바이저들은 오랜 경력을 통해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구인 인터뷰에서 주어지는 질문들을 수시로 업데이트 해 학생들이 어떠한 질문에도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터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br/> <br/>▲구직 기회 제공="하늘을 봐야 별을 따고, 고용주를 만나야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력서도 준비가 됐고, 인터뷰 훈련도 마쳤다면 고용주를 만나러 가야하고, 이런 기회를 어떻게 얼마나 자주 만들 수 있는지가 취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일 것이다. 때문에 캐나다 각 칼리지의 커리어 서비스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이 업무다. <br/> <br/>수많은 고용주들에게 각자의 칼리지를 홍보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 고용주들은 그들이 인정하는 칼리지에 직원 채용이 필요할 때마다 구인광고를 올리거나, 잡 페어(job fair-취업박람회)에 참가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회사를 소개하기 위해 칼리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사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br/> <br/>이런 모든 정보는 각 칼리지들마다 칼리지 자체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고, 각종 책자와 잡지, 캠퍼스 곳곳의 벽보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br/> <br/>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풀타임 직업(full-time job)부터, 인턴쉽(internship), 코업(co-op), 써머잡(summer job), 자원봉사활동(volunteering service)까지 수많은 커리어 기회들을 찾아서 자신들의 칼리지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러니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가지, 적극적 참여다.  <br/>캐나다 칼리지에서 제공하는 Job postings / 사진=머피컨텐츠 제공◆ 두 말하면 잔소리, 네트워크 형성에 최선을 다하라 <br/> <br/>비단 캐나다에서만 통하는 논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대규모 채용을 하는 환경이 아닌 캐나다에서는 조금 더 절실하게 필요한 말인 것은 사실이다.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에도 네트워크의 힘은 빛을 발한다. <br/> <br/>한국인 유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다른 문화에서 자라고 생활을 한 까닭인지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캐나다의 칼리지에서 공부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GP라고 하는 그룹 프로젝트다. 임의로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교과 담당 교수가 그룹을 정해주기도 한다. 그룹 프로젝트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부족한 팀원들을 도와주면서 본인의 인맥관리를 해야 한다. <br/> <br/>캐나다인 친구들이나,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고와 문화를 배울 수도 있고, 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다. 또한 학업에 있어서도 한 단계 더 발전된 지식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룹프로젝트다. 프로젝트의 과제만을 수행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인맥을 쌓고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수확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br/> <br/>캐나다인 친구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 공유에 훨씬 개방적이다. 그리고 오래 사귀어 볼수록 친구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본인이 해당되지 않거나 관심이 없어도 이들은 친구를 위해 기꺼이 유용한 구인정보를 찾고 소개하는 수고를 할 준비가 돼있다. <br/> <br/>남들보다 칼리지의 시스템과 인맥을 잘 활용해서 취업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br/> <br/>"2년의 칼리지 과정을 거의 마쳐가고 있었지만 늘 영어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튜던트 카운셀러와 상담을 했는데, Peer tutoring을 연결해 주더라고요. 저희 칼리지에 재학 중인 캐네디언 친구를 연결해 주어서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튜터가 되어주는 캐네디언 학생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전공 공부를 하면서 그룹 프로젝트가 있어서 캐네디언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졌지만 이렇게 저만을 위한 영어개인과외를 무료로 해 보니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부쩍 늘더군요. 이렇게 영어공부를 하면서, 저희 학교 Career Center에서 주최하는 취업 워크샵도 참여하고, 이력서 수정도 받아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함께 공부하던 캐네디언 친구가 제게 잘 맞아 보이는 포지션에 사람을 구하는 곳이 있다고 연락을 해 줘서 결국 취업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br/> <br/>불과 일주일 전, 캐나다 칼리지에 진학했던 사람으로부터 파머시 테크니션(Pharmacy Technician-약사 보조사)으로 토론토 대학 암 센터에 취업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학과 일 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공부도 열심히 했고, 방학 때는 커뮤니티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도 했지만, 목표는 병원에 취업을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커리어센터 어드바이저뿐만 아니라 담당 교수님과도 자주 상담을 하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졸업 후 3차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한 후 어느 날 학교에서 추천인지 단순 권유인지 알 수 없게 토론토 대학 병원 오픈 하우스가 있다고 참가 신청을 해 보라는 말을 듣고, 왠지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장을 입고 이력서를 준비해서 가지고 갔다고 한다. <br/> <br/>그런데 정말로 그 곳이 인터뷰 자리였고 준비가 안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게 돼 즉석에서 인터뷰를 하고 준비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바로 2주 후부터 일할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꾸준히 커리어 센터나 지도교수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얻게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었던 이 사람의 취업소식은,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br/> <br/>가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이고, 공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가'다. 이를 위해 칼리지의 다양한 시스템을 먼저 찾아보고 활용하기를 유학 준비생들에게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해 말하고 싶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67.txt

제목: 건강 미인 비결, 여름 제철 맞은 웰빙 푸드 체리  
날짜: 20150708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8100000951  
본문:  푹푹 찌는 무더위에 잘 익은 여름 과일들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소를 듬뿍 담은 제철 과일은 피로 회복과 면역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분 함유로 피부에도 좋다.특히 탐스러운 붉은 빛의 체리에는 피부 미백과 노폐물 배출을 돕는 비타민C와 피부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도움을 준다.◆ 과일의 여왕 체리과일 중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체리는 국내에서 7월과 8월 여름철에만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다. 체리에는 케르세틴(qurcetin)과 안토시아닌(anthocyanin), 두 가지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다.체리의 항산화 물질은 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폐물의 증가를 억제하여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과산화억제 기능을 하여 노화를 예방한다.씨를 뺀 체리 100g에는 최고 300mg의 안토시아닌이 들어 있는데, 이는 시력 저하를 방지하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며 피로 회복과 혈액순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뿐만 아니라 체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소염, 살균 작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효능은 뛰어나지만 위에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아 관절염 환자가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오리건 헬스 앤드 사이언스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극도의 지구력을 요하는 경기 전 일주일 동안 타르트 체리 주스를 마셨던 달리기 선수는 경기 후 통증을 덜 느꼈다고 한다.근육의 염증과 심한 운동으로 인한 손상을 줄여주는 산화 방지제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을 다량 함유한 체리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또한 체리에 함유된 케르세틴 성분은 혈액 중 유해 물질인 중금속이나 독·니코틴 등에 흡착해 해독에 도움을 주고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준다.체리 한 컵(140g, 20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9%에 달하는 270g의 칼륨이 들어있으며, 칼로리는 90으로 매우 낮고 나트륨과 지방도 전혀 없어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그만이다. 세계 체리 생산량의 70% 이상, 국내 수입량의 80% 이상이 미국 북서부의 5개 주(워싱턴, 오리곤, 아이다호, 유타, 몬태나)에서 생산된다.일명 '워싱턴 체리'라고 불리는 미국 북서부 체리는 미국 북서부 지역의 적절한 일조량, 시원한 밤 기온, 기름진 토양 등 날씨에 민감한 체리 재배의 최적 조건으로 인해, 현재 생산되는 다른 지역의 체리보다도 월등한 당도와 맛을 자랑한다.◆ 체리 맛있게 즐기는 법체리가 진한 붉은색을 띄는 이유는 활성산소 제거를 돕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체리가 검붉을수록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은 것을 뜻한다.더 신선하고 맛있는 체리를 고르기 위해서는 체리의 색과 탄력을 관찰하면 되는데, 알이 탱탱하고 광택이 나며 색이 진하고 선명할수록 좋다. 표면에 윤기가 흐르는 것이 건강한 체리이며 꼭지는 선명한 녹색일수록 싱싱하고 맛있다.미국 북서부체리는 항공으로 1-2일이면 한국에 직 배송되는 신선한 과일이므로 8월까지는 생으로 깨끗이 씻어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냉장 보관하면 2주 정도 생으로 즐길 수 있으며, 신선도가 떨어지면 먹기 좋게 자른 후 다른 과일과 섞어 드레싱과 함께 샐러드로 먹거나 탄산음료와 갈아서 에이드 등으로 즐길 수 있다.체리를 좀 더 오래도록 맛보고 싶다면 잘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냉동 보관하여 필요한 만큼 꺼내 체리잼, 체리쿠키, 체리에이드, 체리케이크 등으로 활용하면 달콤한 체리의 맛을 연중 즐길 수 있다. 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68.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단 음식 즐겨먹으면 불임된다고?  
날짜: 20150708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810017835997  
본문: 직장인 김모(34)씨는 얼마 전 삼겹살로 가족끼리 외식을 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김씨는 술 대신 콜라 한 병을 시켰다. 그리고 단맛을 좋아하는 어린 딸은 사이다 작은병을 주문했다. 이날 김씨는 48g, 딸은 50g의 당류(첨가당)를 청량음료를 통해서만 섭취했다.형형색색의 디저트들이 달콤함을 무기로 여심(女心)을 공략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번화가나 대학가에는 ▲마카롱 ▲수제 초콜릿 ▲컵케이크 ▲빙수 등 다양한 디저트들을 파는 매장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디저트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br/> <br/>최근 기존의 주식(主食)을 밀어내고 메인 코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식사 대신 컵케이크나 마카롱 등 디저트와 함께 커피 등을 즐기는 경우도 늘어났다. <br/> <br/>이처럼 입에 단 디저트는 자꾸만 손이 가지만, 식사 대용으로 자주 먹는다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당분과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저트의 대표주자인 쿠키나 케이크를 만들 땐 밀가루·버터·설탕이 1:1:1의 비율로 들어간다. 초콜릿이나 설탕에 절인 과일·크림 등의 토핑을 얹을 경우 당분과 칼로리가 크게 높아진다. <br/> <br/>이와 함께 농후발효유에 함유된 당류가 제품별로 최대 3.8배나 차이가 발생,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농후발효유 14개 제품을 선정해 영양성분 등을 분석한 결과, 당류 함량이 1회 제공량(150㎖)당 5.79∼21.95ｇ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후발효유는 일반 발효유보다 우유성분과 유산균이 많이 첨가된 제품이다. <br/> <br/>14개 제품의 평균 당류 함량은 14.52ｇ으로,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권고량(50ｇ)의 29.0%를 차지했다. 특히, 당류 함량이 높은 상위 4개 제품 평균은 20.11ｇ으로 1일 섭취권고량의 40.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일부 제품은 1회 제공량에 콜라 한컵(200㎖·당류 22.3ｇ) 수준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품 용량이 300㎖, 310㎖인 제품을 모두 섭취할 경우 많게는 38.04ｇ의 당을 섭취하게 된다. <br/> <br/>이런 가운데 미국 미네소타대학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은 2013년 가당(加糖) 음료를 즐겨 마시는 여성들의 경우, 자궁내막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br/> <br/>연구팀이 2만3039명의 폐경기 이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당음료(탄산음료 등)를 자주 마신 여성들의 경우 거의 마시지 않는 여성들에 비해 에스트로겐 의존성 1형 자궁내막암 발생 비율이 78%나 높게 나타났다. <br/> <br/>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연구팀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이 1987년부터 6만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설탕이 함유된 케이크나 비스킷 등을 1주일에 2~3번 먹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자궁암 발병 가능성이 33%, 네 번 이상 먹을 경우 최대 42%까지 증가한다고 밝혔다.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몸에서 인슐린이나 에스트로겐 분비가 촉진, 자궁 내막 세포가 과대성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br/> <br/>따라서 평소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고, 지나친 당분 섭취는 자궁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과 당뇨 등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당분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br/> <br/>상황이 이렇게 되자 세계 보건 당국도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WHO는 설탕 섭취량을 10% 줄이라고 최근 권고했다. 현재 매일 섭취하는 설탕·포도당·과당 같은 단당류, 자당과 같은 이당류 섭취를 10%만 줄여도 과체중이나 비만·충치 등의 위험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 <br/> <br/>미국 연방정부 영양 관련 최고 자문 기구인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DGAC)도 하루 설탕 섭취량을 200㎉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티스푼 12개 분량이다. 꽤 많아 보이지만 콜라 한 병(473㎖)만 마셔도 단번에 섭취하는 양이다. <br/> <br/>물론 설탕 과다 섭취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인 식생활의 문제는 쌀·떡처럼 탄수화물로 이뤄진 정제된 복합당을 과도하게 섭취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69.txt

제목: 메르스 추가 없고 사망자 7일째 '0', 이 상태라면 8월초 종식  
날짜: 20150707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710017825798  
본문: 메르스 확진자가 이틀째 발생하지 않았고 사망자도 7일째 나오지 않아 이 상태라면 8월초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br/> <br/>메르스 격리자는 674명으로 최저점에 달할 때에 비해 10분1로 줄어 들었다. <br/> <br/>◇이틀째 메르스 추가 0, 7일째 사망자 추가 0명, 퇴원 모두 118명 <br/> <br/>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확진자가 기존과 같이 186명, 사망자 수는 33명 그대로라고 밝혔다. <br/> <br/>퇴원은 1명 늘어 총 118명이다. <br/> <br/>신규 퇴원자는 180번 환자(남, 55)로 6월 8~12일 143번 환자와 부산 좋은강안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했었다. <br/> <br/>6월 24일 확진판정을 받은 뒤 집중 치료를 받아왔다.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2차례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 <br/> <br/>퇴원자 118명은 남성이 63명(53.4%), 여성이 55명(46.6%)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27명(22.9%), 50대 27명(22.9%), 60대 22명(18.6%), 30대 18명(15.3%), 70대 13명(11.0%), 20대 9명(7.6%), 10대 1명(0.8%), 80대 1명(0.8%) 순이다. <br/> <br/>추가 사망자는 없었다. <br/> <br/>사망자 33명의 성별은 남성 22명(66.7%), 여성 11명(33.3%)이며, 연령은 60대·70대가 각각 10명(30.3%)으로 가장 많고, 80대 7명(21.2%), 50대 5명(15.2%), 40대 1명(3%) 순이다. <br/> <br/>사망자들 중 각종 만성질환자(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나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은 30명(90.9%)이다. <br/> <br/>◇이 추세라면 8월초 종식선언 <br/> <br/>지난 5일 확진된 186번째 환자를 마지막 확진자로 가정할 경우 메르스 최장 잠복기 14일의 2배인 4주 동안 환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8월초 메르스 종식 선언이 가능하다. <br/> <br/>이는 잠복기 2배 계산은 앞서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종식선언 때도 활용됐던 방법이다. <br/> <br/>하지만 산발적으로라도 환자가 발생하면 종식일은 계속해서 뒤로 미뤄진다. <br/> <br/>환자와의 접촉자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해야 할 확진자 수도 많아진다. <br/> <br/>◇격리 674명으로 지난달 17일 6729명의 10% <br/> <br/>메르스는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674명으로 전날보다 233명 줄었다. <br/> <br/>이는 유행 초기인 5월 말 수준이다. <br/> <br/>격리자는 지난달 2일 처음으로 1364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고, 같은 달 17일 6729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br/> <br/>이후 감소 또는 증감을 반복하다 1000명 밑으로 떨어져 감소 추세다. <br/> <br/>격리 해제된 사람은 모두 1만5669명으로 하루 동안 250명 증가했다. <br/> <br/>전체 격리자 674명 중 자가는 481명으로 183명 줄었고, 병원은 50명 감소한 193명으로 집계됐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70.txt

제목: 한쪽 신장 없는 아내, 간암 투병 남편에게 간이식  
날짜: 2015070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710017830866  
본문: 왼쪽부터 조재영 교수, 신정아씨, 한호성 교수, 이경훈씨, 최영록 교수. <br/>8년 전에 신장 기능부전을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신장을 기증한 여성이 8년 후 간암으로 투병중인 남편을 위해 본인의 간을 떼어 이식 수술을 감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br/> <br/>경기 포천시에 살고 있는 신정아 씨(43)의 어머니는 10년 동안 고혈압과 갑상선 질환을 앓다가 유행성출혈열의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부전이 생겨 신장이식 수술이 필요하게 됐다. <br/> <br/>이에 신씨는 어머니를 위해 기꺼이 본인의 신장 기증을 결심하고 수술대에 올랐다. 다행이 신장이식 수술 후 어머니와 기증을 한 본인 모두 건강하게 지냈다.  <br/> <br/>하지만 신정아 씨에게 시련은 다시 찾아왔다. 2013년 가을 남편 이경훈 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으로 쓰러지면서 병원신세를 지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된 것이다. <br/> <br/>위궤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안타깝게 평소 B형 간염 증세가 악화되면서 간성혼수가 생겨 응급실을 몇 번씩 찾아야했다. 그리고 정밀검사결과 간암판정을 받고 색전술을 받았으나 간기능의 저하로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임을 알게 됐다. <br/> <br/>간이식 수술을 위해 이 씨와 가족들은 기증자를 찾았지만 간을 이식해줄 적임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이때 부인인 신 씨는 남편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본인의 간 기증 의사를 조심스럽게 밝혔다. <br/> <br/>하지만 과거에 왼쪽 신장을 어머니에게 기증한 경험이 있어 가족들은 물론 의료진도 많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br/> <br/>결국 점점 상태가 악화될 것이 우려스럽고,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의 믿음과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간이식 수술을 위해 정밀 검사를 받았다. <br/> <br/>다행히 간이식 기증자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부인인 신 씨의 간 70%를 남편에게 떼어주는 이식 수술을 진행했다. <br/> <br/>간이식 수술은 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 간이식팀 한호성 교수(암·뇌신경진료부원장)와 조재영, 최영록 교수가 맡았으며, 기증자 수술 4시간과 수혜자 수술 6시간에 걸친 이식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다. <br/> <br/>남편 이경훈씨는 "온전히 건강한 사람도 걱정되는 이식 수술인데, 이미 큰 수술 경험이 있는 아내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게 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br/> <br/>부인 신정아씨는 "짧은 시간 안에 진단과 수술, 회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환자를 돌보고 친절하게 챙겨준 의료진과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크다"며 "두 번의 장기 이식 수술을 받으며 든 생각은 장기이식은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많은 사람이 용기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br/> <br/>현재는 두 부부 모두 퇴원 후 건강관리를 받으며 음식 조절과 가벼운 운동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br/> <br/>수술을 집도한 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 한호성 교수는 "이식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여자의 안전성인데 이미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공여자라 더 세심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했다"며 "다행히 부부 모두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 의료진으로써도 감사한일이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남은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r/> <br/>한편 분당서울대병원은 간이식 공여자에 대한 복강경 간 절제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으며 공여자의 흉터를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도모해 원래 건강했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환자중심의 치료방향을 정립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71.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전상훈 교수팀, 폐암 재발률 예측 앱 개발  
날짜: 20150706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3059550  
본문: 폐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발률을 예측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앱)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 개발됐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은 6일 흉부외과 전상훈(사진) 교수 연구팀이 폐선암 1기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발 가능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앱 ‘Lung CALC’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폐선암은 국내 폐암의 3분의 2에 달하며 병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1기에 수술을 하더라도 10∼20%는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연구팀은 2000∼2009년 국내 유명 대학병원 4곳에서 수술을 받은 1기 폐선암 환자 1700여명의 재발 요인을 분석했다. 이어 유효성 검증을 위해 다른 대학병원 2곳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460여명의 재발 요인을 추가로 분석해 총 2160여명의 폐선암 의료데이터를 수식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재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종양 크기 ▲폐조직내 림프계 침윤 여부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의 ‘SUV값(표준흡수값) 3가지를 가중치에 따라 적용했다. <br/> <br/>폐암 재발률 예측 어플리케이션 'Lung CALC' 구동 화면. 분당서울대병원 제공이렇게 만들어진 앱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 변수의 수치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재발 고위험군’인지 ‘재발 저위험군’인지 표시된다. 또 1년, 3년, 5년 후의 재발 확률이 각각 백분율로 나타난다. <br/> <br/>그동안 1기 폐암은 수술 후 항암약물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만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해 국내 폐암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전망이다. 연구를 주도한 전 교수는 “<span class='quot0'>빅데이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개발하고 앱을 통해 개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 IT에 있어서도 큰 성과</span>”라며 “<span class='quot0'>1기 폐암 수술 후 보조항암약물치료 시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이번 연구는 의미가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산업통상자원부와 암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이뤄진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암 전문 의학지인 ‘외과임상종양학회연보’(Annals of Surgical Oncology)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어플리케이션 ‘Lung CALC’는 현재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절차를 거쳐 한국 앱스토어에 등록될 예정이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72.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폐암 재발가능성 계산 어플리케이션 최초 개발  
날짜: 20150706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3120238  
본문:   <br/> <br/> <br/>폐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발률을 예측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돼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br/> <br/>정확히는 '폐 선암 1기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발 가능성을 자동으로 예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빅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률이 상당히 정확해 폐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br/> <br/>그 동안 1기 폐암은 수술 후 항암약물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br/> <br/>즉 담당 의사의 개인 견해나 경험 차이 등에 따라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했다는 것이다. <br/> <br/>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은 의료진이 상황에 맞게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 데이터를 조합해주기 때문에, 의료진이 보다 객관적인 진료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br/> <br/>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상훈 교수 연구팀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IT 역량을 보유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빅데이터 연구기법을 적용,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국내 유명 대학병원 4곳에서 수술을 받은 1기 폐암 환자 1700여 명의 재발 요인을 분석해 이를 수식으로 도출하는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br/> <br/>또한 유효성 검증을 위해 다른 대학병원 2곳에서 수술 받은 460여 명의 재발 요인 분석을 추가로 시행했기에, 전체 2160명의 1기 폐 선암 의료데이터가 수식 하나로 집약된 것이다. <br/> <br/>다양한 조건 중에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3가지 변수인 '병리학적 종양 크기'와 '폐조직내 림프계 침윤 여부', 그리고 PET 검사의 'SUV값(Standardized Uptake Value : 표준 흡수값)'이 가중치에 따라 수식에 적용됐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폐암 재발확률 계산 어플리케이션이 발표됐다. <br/> <br/>지금까지의 연구가 '특정 지표와 암 재발의 관계'에 대해서만 논의한 '1차 함수'였다면, 이번 연구는 다중 지표와 가중치까지 적용된 'N차 함수'로 관련 연구의 차원을 크게 높였다. <br/> <br/>어플리케이션의 사용법은 매우 단순하다. 각 변수의 수치를 입력하고 '계산(Calculate)' 버튼을 누르면 '재발 고위험군(High Risk Group : YES)'인지 '재발 저위험군(High Risk Group : NO)' 인지를 알려주고, 1년 후와 3년 후, 그리고 5년 후 재발 확률을 각각 백분율로 보여준다. <br/> <br/>또한 기존 암 치료 가이드라인이 서양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한국인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던 데 반해, 이번 연구는 한국인만의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 값을 수식화해 더욱 높은 적합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br/> <br/>이번 연구를 주도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전상훈 교수는 "빅 데이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개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 연구에서만이 아니라 의료 IT에 있어서도 큰 성과"라며 "1기 폐암 수술 후 보조항암약물치료 시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이번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br/> <br/>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기존 데이터를 분석한 '후향적 연구(Retrospective Study)'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이어지는 후속 연구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대폭 향상된 '전향적 연구(Prospective Study)'로 미래의 데이터를 분석하게 된다"며 "일본과 중국 등 외국 병원 다수에서 후속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고위험군에 대한 3상 임상시험 역시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br/> <br/>산업통상자원부와 암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이뤄진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암 수술 전문 의학지인 '외과임상종양학회연보(Annals of Surgical Oncology)'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어플리케이션 'Lung CALC'는 현재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절차를 거쳐 한국 앱스토어에도 등록될 예정이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73.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폐암 재발가능성 계산 어플리케이션 최초 개발  
날짜: 20150706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6100000449  
본문:  폐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발률을 예측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돼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정확히는 '폐 선암 1기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발 가능성을 자동으로 예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빅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률이 상당히 정확해 폐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그 동안 1기 폐암은 수술 후 항암약물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즉 담당 의사의 개인 견해나 경험 차이 등에 따라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했다는 것이다.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은 의료진이 상황에 맞게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 데이터를 조합해주기 때문에, 의료진이 보다 객관적인 진료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상훈 교수 연구팀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IT 역량을 보유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빅데이터 연구기법을 적용,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국내 유명 대학병원 4곳에서 수술을 받은 1기 폐암 환자 1700여 명의 재발 요인을 분석해 이를 수식으로 도출하는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또한 유효성 검증을 위해 다른 대학병원 2곳에서 수술 받은 460여 명의 재발 요인 분석을 추가로 시행했기에, 전체 2160명의 1기 폐 선암 의료데이터가 수식 하나로 집약된 것이다.다양한 조건 중에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3가지 변수인 '병리학적 종양 크기'와 '폐조직내 림프계 침윤 여부', 그리고 PET 검사의 'SUV값(Standardized Uptake Value : 표준 흡수값)'이 가중치에 따라 수식에 적용됐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폐암 재발확률 계산 어플리케이션이 발표됐다.지금까지의 연구가 '특정 지표와 암 재발의 관계'에 대해서만 논의한 '1차 함수'였다면, 이번 연구는 다중 지표와 가중치까지 적용된 'N차 함수'로 관련 연구의 차원을 크게 높였다.어플리케이션의 사용법은 매우 단순하다. 각 변수의 수치를 입력하고 '계산(Calculate)' 버튼을 누르면 '재발 고위험군(High Risk Group : YES)'인지 '재발 저위험군(High Risk Group : NO)' 인지를 알려주고, 1년 후와 3년 후, 그리고 5년 후 재발 확률을 각각 백분율로 보여준다.또한 기존 암 치료 가이드라인이 서양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한국인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던 데 반해, 이번 연구는 한국인만의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 값을 수식화해 더욱 높은 적합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이번 연구를 주도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전상훈 교수는 "빅 데이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개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 연구에서만이 아니라 의료 IT에 있어서도 큰 성과"라며 "1기 폐암 수술 후 보조항암약물치료 시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이번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기존 데이터를 분석한 '후향적 연구(Retrospective Study)'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이어지는 후속 연구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대폭 향상된 '전향적 연구(Prospective Study)'로 미래의 데이터를 분석하게 된다"며 "일본과 중국 등 외국 병원 다수에서 후속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고위험군에 대한 3상 임상시험 역시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와 암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이뤄진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암 수술 전문 의학지인 '외과임상종양학회연보(Annals of Surgical Oncology)'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어플리케이션 'Lung CALC'는 현재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절차를 거쳐 한국 앱스토어에도 등록될 예정이다.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74.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전상훈 교수팀, 폐암 재발률 예측 앱 개발  
날짜: 20150706  
기자: azahoit@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6100000129  
본문: 폐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발률을 예측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앱)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 개발됐다.분당서울대병원은 6일 흉부외과 전상훈(사진) 교수 연구팀이 폐선암 1기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발 가능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앱 ‘Lung CALC’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폐선암은 국내 폐암의 3분의 2에 달하며 병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1기에 수술을 하더라도 10∼20%는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구팀은 2000∼2009년 국내 유명 대학병원 4곳에서 수술을 받은 1기 폐선암 환자 1700여명의 재발 요인을 분석했다. 이어 유효성 검증을 위해 다른 대학병원 2곳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460여명의 재발 요인을 추가로 분석해 총 2160여명의 폐선암 의료데이터를 수식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재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종양 크기 ▲폐조직내 림프계 침윤 여부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의 ‘SUV값(표준흡수값) 3가지를 가중치에 따라 적용했다.폐암 재발률 예측 어플리케이션 'Lung CALC' 구동 화면. 분당서울대병원 제공이렇게 만들어진 앱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 변수의 수치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재발 고위험군’인지 ‘재발 저위험군’인지 표시된다. 또 1년, 3년, 5년 후의 재발 확률이 각각 백분율로 나타난다.그동안 1기 폐암은 수술 후 항암약물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만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해 국내 폐암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전망이다. 연구를 주도한 전 교수는 “<span class='quot0'>빅데이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개발하고 앱을 통해 개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 IT에 있어서도 큰 성과</span>”라며 “<span class='quot0'>1기 폐암 수술 후 보조항암약물치료 시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이번 연구는 의미가 있다</span>”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와 암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이뤄진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암 전문 의학지인 ‘외과임상종양학회연보’(Annals of Surgical Oncology)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어플리케이션 ‘Lung CALC’는 현재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절차를 거쳐 한국 앱스토어에 등록될 예정이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75.txt

제목: 역신 몰아낸 처용의 힘, 메르스 사태에 되새겨 볼만  
날짜: 2015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6100000353  
본문: 1100년 전 처용시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무지와 오만으로 하릴없이 역신에 당하고 만 정부와 정치인, 현대의학의 민낯에 시민들은 허망하기만 하다.세계일보 자료사진허제비나 제용이라고 했다. ‘허제비치기’는 동네 아이들에게 정월대보름의 신나는 놀이였다.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어떤 집 대문 앞에서 “보름거리 좀 주시오” 하면 동전 끼운 지푸라기 인형을 내주었다. 인형은 골목 바깥에 던져버리고, 돈만 챙겨 한판 잘 먹었다. 50년 전쯤까지 농촌에서 흔히 보던 풍경이었다고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윤영국 학예연구관은 설명한다. 액운(厄運) 든 나이를 맞는 사람이 있는 집에서 이 허제비를 만들어 이웃에 귀띔을 했다. 액운은 남자의 경우 10살 때부터 9년마다 든다고 했다. 호박탈 마귀분장으로 이웃을 찾아다니는 서양 아이들의 핼러윈 풍습과 이미지가 비슷하다.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재물을 나눈다는 ‘그림’도 그렇다. 사람 사는 동네의 인정인 것이다. 처용의 설화와 원망(願望)이 그 원본이었을 것으로 해석되는 제웅. 짚 인형을 때리거나 던져서 액운을 쫓는 ‘허제비치기’ 놀이의 재료였다.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제공허제비는 허수아비다. 제용(祭俑)은 ‘제사를 위한 허수아비’다. 초우인(草偶人)이라는 이름도 있다. 제웅치기라고도 했고, 한자말로 타추희(打芻戱)라고도 했던가 보다. 芻는 풀이나 짚이니 액운 담은 허수아비를 때려 액막이를 하는 것이었겠다. 걱정거리 없애는 멋진 방법, 잊혀져가는 민속이다.추령(芻靈)이나 처용(處容)이 ‘제웅’의 본디라는 설(說)이 있다. 추령은 짚 인형에 실린 혼령이다. 뜻도 그렇지만, 추령 처용 제용 초우인 등의 소리도 제웅과 비슷하다. 그중 처용이 제웅이라는 설(說)이 유력하다. 우리 주변 사물들의 이름 형성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처용탈처용이 누구인가? 역신이 제 아내를 덮친 현장을 호방하게 노래와 춤으로 극복하여 인구(人口)에 널리 오래 회자(膾炙)되는 설화의 주인공이다. 싸구려 스캔들이나 멱살잡이 칼부림이 아니었던 뜻을 새겨야 하는 대목이다. 신라 49대 헌강왕(재위 875∼886) 때의 얘기다. ‘서라벌 밝은 달밤에/ 밤늦도록 놀러 다니다가/ 돌아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일세./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이하랴’에로티시즘까지도 슬며시 묻어나는 이 희한한 노래 ‘처용가’의 저자가 처용이다. ‘내 것 아닌 두 다리’의 주인은 실은 역신(疫神)이었다. 처용에게 역신은, 마음과 함께 무릎을 꿇는다. 그의 대범함에 감동한 역신은 자신의 본디 모습을 드러내며 “당신의 모습이 있는 곳이면 절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 후 사람들은 처용의 얼굴 그림을 대문 앞에 붙여 역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역신은 몹쓸 전염병의 화신, 인간을 괴롭히는 병마였다.절묘한 반전, 1100년 전의 큰 상징이다. 역신 병마 전염병의 존재, 그 가공할 위력을 그때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기껏 ‘낙타감기’ 정도로 그리 호들갑 떨면 관광객 줄어들고 경제가 드러눕는다며 ‘박원순의 똥볼’을 비웃고 화내던 당국과 정치가들의 무지와 오만과 비교되지 않는가? 본디 없는 이들 같으니.처용의 영향은 크다. 나라의 사귀(邪鬼)를 몰아내는 궁중무용 처용무도 그중 하나다. 아내를 범한 역신을 향해 춤을 춘 처용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다. 스토리는 힘이 세다. 사진은 처용무. 세계일보 자료사진액막이는 대비하는 것이다. 자연이 왜 화를 내어 세상을 뒤집는지 뜻을 생각하고, 겸허하게 마련하는 비손이다. 두 손을 비비면서 신에게 병이 낫거나 소원을 이루게 해 달라고 비는 것이 비손이다. ‘메르스 따위’에 치명상을 피하지 못한 정부가 부끄럽다. 낙타고기나 젖을 날것으로 먹지 말라고도 했다. 비손이나 처용의 얼굴 그림이 그보다 훨씬 더 미덥지 않은가.처용의 그 상징성은 우리 역사에서 튼실하다. 대문의 처용 얼굴과 같이 풍속의 구석구석에 그 영험함이 똬리를 틀고 앉은 것은 물론 문학, 미술, 무용, 음악 등 예술 여러 부문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릴 적 놀이의 대상물 제웅이 그 처용의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한참 후에 알고 무릎을 친 기억이 생생하다.처용무는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궁중무용이다. 궁중무로는 유일하게 탈(처용탈)을 쓴다. 1인무였으나 세종대왕 때 5인무로 바뀌었다.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방향이나 음양오행의 뜻을 적용한 것이겠다. 수제천(壽齊天)이라는 장중한 음악이 깔린다.역신은 두역(痘疫)이나 마마라고도 하는 천연두(天然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설화에서는 모든 질병을 아우르는 이름이다. 틀을 좀 키우면, 액이나 살(煞)과 같은 모진 기운인 것이다. 비누로 손 잘 씻거나, 특별한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 이를 다 피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이런 주제를 삼라만상(森羅萬象) 즉 우주의 이치로 밝게 보고 설화라는 장르로 빚어 놓은 것이다. 선조들은 이미 스토리텔링의 천재였다. 우리가 잃어버린 통찰력일 터다. 그 스토리는 첨단의 과학이 뽐내는 오늘날에도 힘이 세다. 그 큰 삼성병원 대문 앞에 처용 그림 붙이는 것과 같은, 지극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 이번 메르스 사태의 큰 패착이었던 것은 아닌지?■ 사족(蛇足)역신(疫神)은 질병 귀신이다. 疫은 ‘병들어 기댄다’는 ?(녁)과 ‘힘든 일’ 역(役)의 합성이다. ?은 보통 병원의 병(病)이나 통증의 통(痛)처럼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쓰인다. 큰 뜻 아래 여러 글자를 거느리는 한자의 갈래인 부수(部首)로는 ‘병질 엄’자다. 즉 글자 이름은 ‘녁’인데, 부수자 이름으로는 ‘병질 엄’인 것이다. 책상 위 한자사전 중에서는 비교적 큰 책인 민중서림 간(刊) ‘한한대자전’에서 ?부수에 속한 글자를 세어보니 248자나 됐다. 더 큰 사전에는 더 많을 것이다. 병(病)과 질(疾)에 관계되는 많은 글자들을 만든 바탕 글자인 것이다.이 ?자가 의미요소(형形)가 되고 여기에 합쳐지는 글자가 소리요소(성聲)가 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런 글자를 형성(形聲) 또는 형성문자라 한다. 갑을병(甲乙丙)의 丙자가 ?자 안에 들어가서 이루는 병(病)자가 대표적이다. 한자를 이해하는 힌트 중 하나다. 형성문자가 전체 한자의 85% 이상이니 이 힌트는 퍽 중요하다.증세 증(症), 피로 피(疲), 상처 이(痍), 흉터 흔(痕), 치료 료(療), 버릇 벽(癖), 치매 치(癡), 암 암(癌), 아플 농(?) 등 그 248자 중의 매 글자들이 형성자라는 사실을 그림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림)글자를 볼 때마다 어떤 그림인지 눈여겨보면 도움이 된다. 진짜 공부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76.txt

제목: 방역당국 "메르스 큰 고비 넘겼다"  
날짜: 2015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6100000217  
본문: 방역 당국이 6일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의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추가 확산 우려가 컸던 강동성심병원은 이날 자정에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될 예정이다.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권덕철 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의 큰 고비를 넘었다는 판단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그런 판단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다만 "여전히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이 남아 있어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전제를 달았다.추가 유행지가 될 우려가 컸던 강동성심병원은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된다.대책본부는 "즉각대응팀이 환자·의료진의 메르스 유전자 검사를 음성으로 확인하고, 병원 내 소독 등을 점검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6일 자정에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동성심병원은 지난달 17∼22일에 173번 환자가 머물러 메르스 집단 발병 우려가 있었다. 이 환자로 인한 관리 대상자는 5천명에 육박했다.6일은 이 환자로 인한 메르스 바이러스의 잠복기 마지막날이다. 아직 이 병원에서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다.대책본부는 또 전날 확진 받은 186번 환자가 가족 내 감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대책본부는 132번 환자가 자가 격리기간에 부인인 186번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 환자는 5월27∼28일에 남편과 함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지난달 29일에는 암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암병동을 찾았다.그러나 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 내 환경 검체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며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한편 이날 메르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환자 수는 186명을 유지했다.퇴원자 수는 1명이 늘어난 117명이며, 추가 사망자는 없어 사망자 수는 33명이다.치료중인 환자 36명 가운데 12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77.txt

제목: 방역 당국 "메르스, 큰 고비 넘겨···모니터링 지속"  
날짜: 20150706  
기자: psc@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6100000325  
본문: 방역 당국이 6일 메르스가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추가 확산 우려가 컸던 강동성심병원은 이날 자정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될 예정이다.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권덕철 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의 큰 고비를 넘었다는 판단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판단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다만 "여전히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이 남아 있어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추가 유행지가 될 우려가 컸던 강동성심병원은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된다.대책본부는 "즉각대응팀이 환자·의료진의 메르스 유전자 검사를 음성으로 확인하고, 병원 내 소독 등을 점검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6일 자정에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동성심병원은 지난달 17∼22일에 173번 환자가 머물러 메르스 집단 발병 우려가 있었다. 이 환자로 인한 관리 대상자는 5000명에 달했다.6일은 이 환자로 인한 메르스 바이러스의 잠복기 마지막날이다. 아직 이 병원에서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다.대책본부는 또 전날 확진 받은 186번 환자가 가족 내 감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대책본부는 132번 환자가 자가 격리기간에 부인인 186번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 환자는 5월27∼28일에 남편과 함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지난달 29일에는 암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암병동을 찾았다.하지만 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 내 환경 검체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며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한편 이날 메르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환자 수는 186명을 유지했다.퇴원자 수는 1명이 늘어난 117명이며, 추가 사망자는 없어 사망자 수는 33명이다.치료중인 환자 36명 가운데 12명은 불안정한 상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78.txt

제목: 방역 당국 "메르스, 큰 고비 넘겨···모니터링 지속"  
날짜: 20150706  
기자: 박수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610017817068  
본문: 방역 당국이 6일 메르스가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추가 확산 우려가 컸던 강동성심병원은 이날 자정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br/> <br/>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권덕철 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의 큰 고비를 넘었다는 판단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판단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br/> <br/>다만 "여전히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이 남아 있어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br/>  <br/>추가 유행지가 될 우려가 컸던 강동성심병원은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된다. <br/> <br/>대책본부는 "즉각대응팀이 환자·의료진의 메르스 유전자 검사를 음성으로 확인하고, 병원 내 소독 등을 점검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6일 자정에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 <br/>강동성심병원은 지난달 17∼22일에 173번 환자가 머물러 메르스 집단 발병 우려가 있었다. 이 환자로 인한 관리 대상자는 5000명에 달했다. <br/> <br/>6일은 이 환자로 인한 메르스 바이러스의 잠복기 마지막날이다. 아직 이 병원에서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다. <br/> <br/>대책본부는 또 전날 확진 받은 186번 환자가 가족 내 감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br/> <br/>대책본부는 132번 환자가 자가 격리기간에 부인인 186번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br/> <br/>이 환자는 5월27∼28일에 남편과 함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지난달 29일에는 암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암병동을 찾았다. <br/> <br/>하지만 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 내 환경 검체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며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br/> <br/>한편 이날 메르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환자 수는 186명을 유지했다. <br/> <br/>퇴원자 수는 1명이 늘어난 117명이며, 추가 사망자는 없어 사망자 수는 33명이다. <br/> <br/>치료중인 환자 36명 가운데 12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br/> <br/>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79.txt

제목: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첫 공판, 22·23일 차례로 열려  
날짜: 20150705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2707599  
본문: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왼쪽)와 홍준표 경남지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 등 관련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2, 23일 잇따라 열린다. <br/> <br/>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22일 오전 11시 서관 502호 법정에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출마했을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아 쓴 혐의로 최근 검찰 특별수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br/> <br/> 형사합의21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성완종 리스트’ 같은 사건에 대비해 지정한 부패사건 전담재판부 중 하나다. 최근 회사 돈 210억여원을 횡령한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양형이 엄정하기로 소문난 재판부다. <br/> <br/> 22일 공판준비기일은 변호인 측이 검찰의 향후 공판 전략을 떠보는 ‘탐색전’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전 총리 측 김종필 변호사는 “<span class='quot0'>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이 불분명하다</span>”며 “<span class='quot0'>향후 공판에서 검찰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것에 맞춰 대응해나갈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하루 뒤인 23일 오전 11시 서관 425호 법정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상대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성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아 쓴 혐의로 최근 검찰 특별수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현금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 역시 정자법 위반의 공범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br/> <br/> 협사합의23부도 형사합의21부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사건 전담재판부 중 하나다.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최민호 전 판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엄격한 판결로 유명한 재판부다. <br/> <br/> 23일 공판준비기일은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의 ‘조우’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홍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반면 윤 전 부사장은 4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span class='quot1'>성 전 회장 지시를 받고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홍 지사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건넸다</span>”고 진술했다. 다만, 윤 전 부사장은 얼마 전 암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알려져 법정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80.txt

제목: 마이클 더글라스의 생모 암으로 사망…향년 92세  
날짜: 20150705  
기자: 김슬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2638600  
본문: 할리우드 명배우 커크 더글라스의 첫 번째 부인이자 배우 마이클 더글라스의 생모인 다이내나 더글라스가 향년 92세에 세상과 이별했다. <br/> <br/>마이클 더글라스의 제작사는 그가 4일 우들랜드힐스의 영화인 요양원에서 암으로 별세했다고 발표했다. <br/> <br/>버뮤다 태생인 다이애나는 여배우와 모델로 활동하며 수십 편의 영화와 TV에 등장했으며 1943년 5월에는 월간지 라이프의 표지모델로 나오기도 했다. 연기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커크 더글라스는 그 표지를 보고 그에게 구애해 결혼했다. <br/> <br/>1943년 결혼해 1951년 이혼하기까지 마이클과 조엘 등 두 아들을 낳았다. 이들은 이혼 후에도 원만한 사이를 유지해 몇차례 같은 영화에 출연했으며 다이애나가 마지막 출연한 2003년 영화 "그것은 집안 내력이다(It Runs in the Family)'가 대표이다. <br/> <br/>커크 더글라스와 이별한 뒤 빌 데러드와 36년 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갔으며 도날드 알버트 웹스터와도 결혼한 바 있다. 장례식은 LA에서 치뤄질 예정이다. <br/> <br/>김슬기 기자 ssg14@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81.txt

제목: 마이클 더글라스의 생모 암으로 사망…향년 92세  
날짜: 20150705  
기자: ssg14@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5100000287  
본문: 할리우드 명배우 커크 더글라스의 첫 번째 부인이자 배우 마이클 더글라스의 생모인 다이내나 더글라스가 향년 92세에 세상과 이별했다.마이클 더글라스의 제작사는 그가 4일 우들랜드힐스의 영화인 요양원에서 암으로 별세했다고 발표했다.버뮤다 태생인 다이애나는 여배우와 모델로 활동하며 수십 편의 영화와 TV에 등장했으며 1943년 5월에는 월간지 라이프의 표지모델로 나오기도 했다. 연기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커크 더글라스는 그 표지를 보고 그에게 구애해 결혼했다.1943년 결혼해 1951년 이혼하기까지 마이클과 조엘 등 두 아들을 낳았다. 이들은 이혼 후에도 원만한 사이를 유지해 몇차례 같은 영화에 출연했으며 다이애나가 마지막 출연한 2003년 영화 "그것은 집안 내력이다(It Runs in the Family)'가 대표이다.커크 더글라스와 이별한 뒤 빌 데러드와 36년 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갔으며 도날드 알버트 웹스터와도 결혼한 바 있다. 장례식은 LA에서 치뤄질 예정이다.김슬기 기자 ssg14@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82.txt

제목: 역신 몰아낸 처용의 힘, 메르스 사태에 되새겨 볼만  
날짜: 20150705  
기자: 김신성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510017811255  
본문: 1100년 전 처용시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무지와 오만으로 하릴없이 역신에 당하고 만 정부와 정치인, 현대의학의 민낯에 시민들은 허망하기만 하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허제비나 제용이라고 했다. ‘허제비치기’는 동네 아이들에게 정월대보름의 신나는 놀이였다.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어떤 집 대문 앞에서 “보름거리 좀 주시오” 하면 동전 끼운 지푸라기 인형을 내주었다. 인형은 골목 바깥에 던져버리고, 돈만 챙겨 한판 잘 먹었다. 50년 전쯤까지 농촌에서 흔히 보던 풍경이었다고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윤영국 학예연구관은 설명한다. <br/> <br/>액운(厄運) 든 나이를 맞는 사람이 있는 집에서 이 허제비를 만들어 이웃에 귀띔을 했다. 액운은 남자의 경우 10살 때부터 9년마다 든다고 했다. 호박탈 마귀분장으로 이웃을 찾아다니는 서양 아이들의 핼러윈 풍습과 이미지가 비슷하다.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재물을 나눈다는 ‘그림’도 그렇다. 사람 사는 동네의 인정인 것이다.  <br/>처용의 설화와 원망(願望)이 그 원본이었을 것으로 해석되는 제웅. 짚 인형을 때리거나 던져서 액운을 쫓는 ‘허제비치기’ 놀이의 재료였다. <br/>전라남도농업박물관 제공 <br/>허제비는 허수아비다. 제용(祭俑)은 ‘제사를 위한 허수아비’다. 초우인(草偶人)이라는 이름도 있다. 제웅치기라고도 했고, 한자말로 타추희(打芻戱)라고도 했던가 보다. 芻는 풀이나 짚이니 액운 담은 허수아비를 때려 액막이를 하는 것이었겠다. 걱정거리 없애는 멋진 방법, 잊혀져가는 민속이다. <br/> <br/>추령(芻靈)이나 처용(處容)이 ‘제웅’의 본디라는 설(說)이 있다. 추령은 짚 인형에 실린 혼령이다. 뜻도 그렇지만, 추령 처용 제용 초우인 등의 소리도 제웅과 비슷하다. 그중 처용이 제웅이라는 설(說)이 유력하다. 우리 주변 사물들의 이름 형성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br/>처용탈 <br/>처용이 누구인가? 역신이 제 아내를 덮친 현장을 호방하게 노래와 춤으로 극복하여 인구(人口)에 널리 오래 회자(膾炙)되는 설화의 주인공이다. 싸구려 스캔들이나 멱살잡이 칼부림이 아니었던 뜻을 새겨야 하는 대목이다. 신라 49대 헌강왕(재위 875∼886) 때의 얘기다. <br/> <br/>‘서라벌 밝은 달밤에/ 밤늦도록 놀러 다니다가/ 돌아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일세./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이하랴’ <br/> <br/>에로티시즘까지도 슬며시 묻어나는 이 희한한 노래 ‘처용가’의 저자가 처용이다. ‘내 것 아닌 두 다리’의 주인은 실은 역신(疫神)이었다. 처용에게 역신은, 마음과 함께 무릎을 꿇는다. <br/> <br/>그의 대범함에 감동한 역신은 자신의 본디 모습을 드러내며 “당신의 모습이 있는 곳이면 절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 후 사람들은 처용의 얼굴 그림을 대문 앞에 붙여 역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역신은 몹쓸 전염병의 화신, 인간을 괴롭히는 병마였다. <br/> <br/>절묘한 반전, 1100년 전의 큰 상징이다. 역신 병마 전염병의 존재, 그 가공할 위력을 그때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기껏 ‘낙타감기’ 정도로 그리 호들갑 떨면 관광객 줄어들고 경제가 드러눕는다며 ‘박원순의 똥볼’을 비웃고 화내던 당국과 정치가들의 무지와 오만과 비교되지 않는가? 본디 없는 이들 같으니. <br/>처용의 영향은 크다. 나라의 사귀(邪鬼)를 몰아내는 궁중무용 처용무도 그중 하나다. 아내를 범한 역신을 향해 춤을 춘 처용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다. 스토리는 힘이 세다. 사진은 처용무. <br/>세계일보 자료사진 <br/>액막이는 대비하는 것이다. 자연이 왜 화를 내어 세상을 뒤집는지 뜻을 생각하고, 겸허하게 마련하는 비손이다. 두 손을 비비면서 신에게 병이 낫거나 소원을 이루게 해 달라고 비는 것이 비손이다. ‘메르스 따위’에 치명상을 피하지 못한 정부가 부끄럽다. 낙타고기나 젖을 날것으로 먹지 말라고도 했다. 비손이나 처용의 얼굴 그림이 그보다 훨씬 더 미덥지 않은가. <br/> <br/>처용의 그 상징성은 우리 역사에서 튼실하다. 대문의 처용 얼굴과 같이 풍속의 구석구석에 그 영험함이 똬리를 틀고 앉은 것은 물론 문학, 미술, 무용, 음악 등 예술 여러 부문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릴 적 놀이의 대상물 제웅이 그 처용의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한참 후에 알고 무릎을 친 기억이 생생하다. <br/> <br/>처용무는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궁중무용이다. 궁중무로는 유일하게 탈(처용탈)을 쓴다. 1인무였으나 세종대왕 때 5인무로 바뀌었다.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방향이나 음양오행의 뜻을 적용한 것이겠다. 수제천(壽齊天)이라는 장중한 음악이 깔린다. <br/> <br/>역신은 두역(痘疫)이나 마마라고도 하는 천연두(天然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설화에서는 모든 질병을 아우르는 이름이다. 틀을 좀 키우면, 액이나 살(煞)과 같은 모진 기운인 것이다. 비누로 손 잘 씻거나, 특별한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 이를 다 피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br/> <br/>이런 주제를 삼라만상(森羅萬象) 즉 우주의 이치로 밝게 보고 설화라는 장르로 빚어 놓은 것이다. 선조들은 이미 스토리텔링의 천재였다. 우리가 잃어버린 통찰력일 터다. 그 스토리는 첨단의 과학이 뽐내는 오늘날에도 힘이 세다. 그 큰 삼성병원 대문 앞에 처용 그림 붙이는 것과 같은, 지극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 이번 메르스 사태의 큰 패착이었던 것은 아닌지? <br/> <br/>■ 사족(蛇足) <br/> <br/>역신(疫神)은 질병 귀신이다. 疫은 ‘병들어 기댄다’는 ?(녁)과 ‘힘든 일’ 역(役)의 합성이다. ?은 보통 병원의 병(病)이나 통증의 통(痛)처럼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쓰인다. 큰 뜻 아래 여러 글자를 거느리는 한자의 갈래인 부수(部首)로는 ‘병질 엄’자다. 즉 글자 이름은 ‘녁’인데, 부수자 이름으로는 ‘병질 엄’인 것이다. <br/> <br/>책상 위 한자사전 중에서는 비교적 큰 책인 민중서림 간(刊) ‘한한대자전’에서 ?부수에 속한 글자를 세어보니 248자나 됐다. 더 큰 사전에는 더 많을 것이다. 병(病)과 질(疾)에 관계되는 많은 글자들을 만든 바탕 글자인 것이다. <br/> <br/>이 ?자가 의미요소(형形)가 되고 여기에 합쳐지는 글자가 소리요소(성聲)가 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런 글자를 형성(形聲) 또는 형성문자라 한다. 갑을병(甲乙丙)의 丙자가 ?자 안에 들어가서 이루는 병(病)자가 대표적이다. 한자를 이해하는 힌트 중 하나다. 형성문자가 전체 한자의 85% 이상이니 이 힌트는 퍽 중요하다. <br/> <br/>증세 증(症), 피로 피(疲), 상처 이(痍), 흉터 흔(痕), 치료 료(療), 버릇 벽(癖), 치매 치(癡), 암 암(癌), 아플 농(?) 등 그 248자 중의 매 글자들이 형성자라는 사실을 그림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림)글자를 볼 때마다 어떤 그림인지 눈여겨보면 도움이 된다. 진짜 공부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83.txt

제목: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첫 공판, 22·23일 차례로 열려  
날짜: 20150705  
기자: af103@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5100000263  
본문: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왼쪽)와 홍준표 경남지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 등 관련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2, 23일 잇따라 열린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22일 오전 11시 서관 502호 법정에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출마했을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아 쓴 혐의로 최근 검찰 특별수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형사합의21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성완종 리스트’ 같은 사건에 대비해 지정한 부패사건 전담재판부 중 하나다. 최근 회사 돈 210억여원을 횡령한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양형이 엄정하기로 소문난 재판부다. 22일 공판준비기일은 변호인 측이 검찰의 향후 공판 전략을 떠보는 ‘탐색전’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전 총리 측 김종필 변호사는 “<span class='quot0'>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이 불분명하다</span>”며 “<span class='quot0'>향후 공판에서 검찰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것에 맞춰 대응해나갈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하루 뒤인 23일 오전 11시 서관 425호 법정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상대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성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아 쓴 혐의로 최근 검찰 특별수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현금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 역시 정자법 위반의 공범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협사합의23부도 형사합의21부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사건 전담재판부 중 하나다.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최민호 전 판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엄격한 판결로 유명한 재판부다. 23일 공판준비기일은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의 ‘조우’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홍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반면 윤 전 부사장은 4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span class='quot1'>성 전 회장 지시를 받고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홍 지사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건넸다</span>”고 진술했다. 다만, 윤 전 부사장은 얼마 전 암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알려져 법정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84.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단 음식 즐겨먹으면 불임된다고?  
날짜: 20150704  
기자: hj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4100000220  
본문: 직장인 김모(34)씨는 얼마 전 삼겹살로 가족끼리 외식을 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김씨는 술 대신 콜라 한 병을 시켰다. 그리고 단맛을 좋아하는 어린 딸은 사이다 작은병을 주문했다. 이날 김씨는 48g, 딸은 50g의 당류(첨가당)를 청량음료를 통해서만 섭취했다.형형색색의 디저트들이 달콤함을 무기로 여심(女心)을 공략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번화가나 대학가에는 ▲마카롱 ▲수제 초콜릿 ▲컵케이크 ▲빙수 등 다양한 디저트들을 파는 매장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디저트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최근 기존의 주식(主食)을 밀어내고 메인 코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식사 대신 컵케이크나 마카롱 등 디저트와 함께 커피 등을 즐기는 경우도 늘어났다.이처럼 입에 단 디저트는 자꾸만 손이 가지만, 식사 대용으로 자주 먹는다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당분과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저트의 대표주자인 쿠키나 케이크를 만들 땐 밀가루·버터·설탕이 1:1:1의 비율로 들어간다. 초콜릿이나 설탕에 절인 과일·크림 등의 토핑을 얹을 경우 당분과 칼로리가 크게 높아진다.이와 함께 농후발효유에 함유된 당류가 제품별로 최대 3.8배나 차이가 발생,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농후발효유 14개 제품을 선정해 영양성분 등을 분석한 결과, 당류 함량이 1회 제공량(150㎖)당 5.79∼21.95ｇ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후발효유는 일반 발효유보다 우유성분과 유산균이 많이 첨가된 제품이다.14개 제품의 평균 당류 함량은 14.52ｇ으로,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권고량(50ｇ)의 29.0%를 차지했다. 특히, 당류 함량이 높은 상위 4개 제품 평균은 20.11ｇ으로 1일 섭취권고량의 40.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제품은 1회 제공량에 콜라 한컵(200㎖·당류 22.3ｇ) 수준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품 용량이 300㎖, 310㎖인 제품을 모두 섭취할 경우 많게는 38.04ｇ의 당을 섭취하게 된다.이런 가운데 미국 미네소타대학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은 2013년 가당(加糖) 음료를 즐겨 마시는 여성들의 경우, 자궁내막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연구팀이 2만3039명의 폐경기 이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당음료(탄산음료 등)를 자주 마신 여성들의 경우 거의 마시지 않는 여성들에 비해 에스트로겐 의존성 1형 자궁내막암 발생 비율이 78%나 높게 나타났다.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연구팀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이 1987년부터 6만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설탕이 함유된 케이크나 비스킷 등을 1주일에 2~3번 먹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자궁암 발병 가능성이 33%, 네 번 이상 먹을 경우 최대 42%까지 증가한다고 밝혔다.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몸에서 인슐린이나 에스트로겐 분비가 촉진, 자궁 내막 세포가 과대성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따라서 평소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고, 지나친 당분 섭취는 자궁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과 당뇨 등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당분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세계 보건 당국도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WHO는 설탕 섭취량을 10% 줄이라고 최근 권고했다. 현재 매일 섭취하는 설탕·포도당·과당 같은 단당류, 자당과 같은 이당류 섭취를 10%만 줄여도 과체중이나 비만·충치 등의 위험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미국 연방정부 영양 관련 최고 자문 기구인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DGAC)도 하루 설탕 섭취량을 200㎉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티스푼 12개 분량이다. 꽤 많아 보이지만 콜라 한 병(473㎖)만 마셔도 단번에 섭취하는 양이다.물론 설탕 과다 섭취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인 식생활의 문제는 쌀·떡처럼 탄수화물로 이뤄진 정제된 복합당을 과도하게 섭취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85.txt

제목: [전상일의건강解] 습관과 건강  
날짜: 2015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3100000317  
본문: 인간의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유전자는 약골인지 강골인지를 결정하고 일생 동안 건강의 기본을 이룬다. 하지만 후천적 요인은 유전보다 현대인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정설이다. 암 발생에서 유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이지만 흡연, 음주, 음식, 환경오염, 유해 미생물 등은 70%에 육박한다.후천적 요인 중에서 식습관은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육류를 직화구이로 자주 먹으면 벤조피렌, 헤테로사이클릭아민 등과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된다. 알루미늄 호일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고기에 알루미늄이 스며들 수 있다. 알루미늄은 치매 유발 용의자 중 하나다. 반면 견과류를 즐겨 먹는 습관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고, 특히 호두는 수면장애를 개선하는 도우미다. 식습관은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가족력이 유력한 증거다. 가족력은 비슷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이 특정 질환에 더 많이 걸리는 현상이다. 엄마가 음식을 짜게 만들면 자녀들은 위암이나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일상의 소소한 생활습관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 물 내리기 전에 변기 뚜껑을 닫는 습관이 그 예이다. 식중독은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만 걸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은 화장실이 주요 매개 장소다. 대변을 본 후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면 분변에서 탈출한 노로 바이러스가 공중으로 떠올라 입으로 들어오고 이로 인해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수도꼭지의 첫 물을 30초 정도 흘려버린 후 양칫물로 받아 쓰는 습관은 중금속과 각종 유해 미생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밤새 물탱크에 고여 있다 나온 첫 물에는 다양한 유해물질이 다량 들어 있기 때문이다. 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장음식을 조리할 때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트는 습관은 폐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름 연기는 폐 조직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이고, 생선을 튀길 때 생기는 휘발성 알데하이드 물질은 발암물질이다. 연구 결과 기름에 튀기는 음식을 조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폐암에 더 많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눈을 자주 깜박이면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전기선을 꽂은 채 전기면도기를 사용하면 충전된 배터리를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전자파에 노출된다. 전기면도기는 강력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전자제품이다.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 두세 발짝만 떨어져도 전자파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임신부가 향수를 멀리하면 태아는 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 향수에는 프탈레이트라는 환경호르몬이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대 로마시대의 네로 황제는 납 항아리에 발효시킨 와인을 즐겼는데, 네로가 난폭해진 것도 납 중독으로 인한 신경과민과 정서불안에 기인한다는 설이 있다. 미국으로 이민간 일본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은 일본 본토에서 나고 자란 여성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한다. 습관은 길들이기에 따라 건강의 적이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있다.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86.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커피, 하루 3잔은 되고 4잔은 안된다?  
날짜: 20150703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310017793596  
본문: 커피는 현대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지만, 카페인 성분 때문에 마실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음료이기도 하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 ▲피로 감소 ▲빠른 두뇌 회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과잉섭취 시 ▲메스꺼움 ▲구토 ▲심혈관계 질환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커피 한 잔에는 약 70~150㎎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며, 커피를 하루 3잔 정도 마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정한 카페인 하루 권장량 400㎎을 훌쩍 넘기게 된다.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콜라·초콜릿·홍차에도 함유돼 있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커피를 즐기려면 하루 두 잔 이내가 적당하다. 커피, 그리고 카페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하루에 에스프레소 4잔 함량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최근 밝혔다. <br/> <br/>EFSA는 이번에 발표한 성명에서 특히 미성년자와 임산부는 다량의 카페인 섭취가 해롭다고 밝히고, 성인의 하루 카페인 권장량은 400㎎ 미만이라고 전했다. <br/> <br/>이 성명은 모든 음식물을 통해 카페인을 하루에 400㎎보다 적게 섭취하면, 임산부를 제외한 성인의 경우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br/> <br/>EFSA는 모든 식품에 들어 있는 카페인 섭취의 위해성에 대한 첫 번째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카페인 섭취 권고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br/>이번 조사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은 성인 카페인 권장량의 절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는 자기 몸무게 기준, ㎏당 3㎎ 미만의 카페인을 섭취해야 한다. <br/> <br/>또 EFSA는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 이외에 에너지 음료 등을 통해 섭취한 카페인 양에도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br/> <br/>이와 함께 커피 등의 카페인이 치매 등 인지장애의 예방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국립암센터는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수팀은 1990~2014년 국제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종합해 메타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신경역학(Neuroepidemiology)'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br/> <br/>메타분석은 수십편의 논문에 나타난 실험결과를 통계적 분석 대상의 관찰치로 전환해 실험결과를 일반화하는 분석 방식이다. <br/> <br/>연구진은 의학데이터베이스인 펍메드(PubMed)·엠베이스(EMBASE)를 이용한 문헌검색에서 나온 20편의 관찰 역학 연구결과를 통합해 연구 대상자인 3만1479명을 분석했다. <br/> <br/>이를 통해 커피나 차를 통한 카페인 섭취는 ▲치매 ▲알츠하이머병 ▲인지기능장애 ▲인지력 감소 등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br/> <br/>음료 종류에 따른 세부그룹 메타분석 결과 커피를 통해 카페인 섭취가 17% 인지장애 위험성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보다 근거 수준이 높은 환자-대조군 연구나 코호트(특정인구집단) 연구에서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명 교수는 "카페인 섭취가 전반적으로 인지장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온 만큼 치매를 예방할 목적으로 커피나 차를 많이 섭취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매에는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의 생활습관병과 흡연·음주·운동부족·영양부족 등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 <br/>그렇다면 커피는 어떻게 마셔야 좋을까. 최근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 ‘필립스 세코’에 따르면,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력과 민첩성, 정밀성을 높이고 공격성은 약화한다는 것이다. <br/> <br/>그러나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숙면 방해 ▲신경 과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인 400mg 2~3잔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br/> <br/>커피에는 심장 질환이나 암 예방에 효능이 있는 클로로겐산이 있다. 클로로겐산은 열에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원두를 진하게 볶기보다는 가볍게 로스팅하는 것이 좋다. <br/> <br/>또한 클로로겐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 환자는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커피를 내릴 때는 종이 필터를 사용하면, 원두의 지방 성분을 95% 가까이 걸러낼 수 있다. <br/> <br/>커피의 보관도 로스팅만큼이나 중요하다. 커피는 산소 수분 온도의 변화에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로스팅한 원두는 최대 2주 이내 소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면 된다. 또한 커피에 설탕 등 당 성분을 과도하게 넣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br/> <br/>이밖에 커피의 효능과 관련된 연구로는 지난해 스위스의 커피과학정보연구소의 연구가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커피를 적당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연구팀은 환자의 뇌 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인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형성과 타우 단백질 엉킴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br/> <br/>또한 2013년 스웨덴의 룬드대학 연구팀은 광범하게 사용하는 약품인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유방암 환자들은 커피를 마시면 유방암이 재발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매일 커피를 2잔 이상 마시는 경우, 매일 1잔 이하를 마시는 환자들에 비해 유방암 재발률이 50% 이하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87.txt

제목: 현명한미식가, 현미에 수퍼푸드 더하다  
날짜: 20150702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1521638  
본문:   <br/> <br/> <br/>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다이어트에 따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 무리하게 굶는 다이어트로 인한 요요현상, 탈모, 거식증, 폭식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져 균형 있는 식사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흰쌀밥보다는 다이어트와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현미를 먹는 가정이 늘고 있다. <br/> <br/>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현미는 백미와 달리 쌀의 겉껍질만 벗겨낸 것이다. 쌀은 껍질을 벗겨낼수록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지방질 함량은 감소하고 탄수화물의 함량은 증가한다. 백미는 속껍질과 씨눈을 다 벗겨낸 것인데 속껍질에는 30%, 씨눈에는 65%의 영양분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쌀의 껍질을 벗길수록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성분이 거의 남지 않는 것이다. <br/> <br/>현미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인체에는 흡수되지 않고 과다한 각종 영양소의 장내 흡수를 늦춰줌으로써 칼로리 섭취를 억제한다. 또한 오래 씹어야하기 때문에 빨리 포만감을 느끼게 하며 변의 양을 늘리고 장벽을 자극해 변비를 예방한다. <br/> <br/>또한 현미 안에 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감마 아미노낙산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제거에 효과를 보인다. 뱃살을 없애주고 내장 사이에 있는 지방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현미는 다이어트와 장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br/> <br/>이외에도 현미는 당뇨병 예방에 좋고 고혈압·뇌졸중·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암 진행을 늦춰주고 결석을 예방, 뇌세포 손상 방지, 피부 주름 예방, 탈모 예망 등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br/> <br/>현미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 요즘, 현명한미식가(공동대표 백승욱·최지인)가 현미에 슈퍼푸드를 더한 건강식으로 고객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다. 전세계 건강한 음식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슈퍼푸드와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밥을 조합해 차별성을 갖추고 현미를 활용해 고객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이 현명한 미식가의 목표다. <br/> <br/>현명한미식가는 매일매일 도정작업을 거친 현미가 신선한 상태로 고객의 밥상에 올라가며 7가지 마리메뉴에는 이 같은 신선한 현미가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100% 국내산 친환경 원료 등 건강한 식재료의 슈퍼푸드를 활용해 고객의 건강을 생각했고 토마토, 연어, 카레, 호박, 부추, 버섯 등이 포함된 다양한 컬러의 슈퍼푸드를 골라먹을 수 있도록 맛도 고려했다. <br/> <br/>7가지 마리메뉴는 △ RED MARI △ ORANGE MARI △ YELLOW MARI △ GREEN MARI △ WHITE MARI △ PINK MARI △ PURPLE MARI로 구성됐으며 7가지 색으로 건강과 맛을 고려해 메뉴를 구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br/> <br/>RED MARI는 노화방지에 탁월한 토마토와 부드러운 크림치즈를 조합했으며 ORANGE MARI는 성인병 예방에 좋은 연어와 컬러푸드 적양파를 함께 넣었다. YELLOW MARI는 항암효과에 좋은 카레와 닭가슴살로 이뤄져 있으며 GREEN MARI는 정력 증강에 좋은 부추와 떡갈비로 구성됐다 <br/> <br/>PURPLE MARI는 다이어트에 좋은 단호박과 적채로 배합했으며 WHITE MARI는 고단백질을 함유한 참치와 와사비를 넣었으며 PINK MARI는 칼슘이 풍부한 크래미와 비트를 넣어 만든다. <br/> <br/>이외에도 현미카레 닭강정, 파스타, 쌀국수, 슈퍼7볶음밥 등 서브메뉴가 마련돼 있어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 <br/> <br/>백승욱 공동대표는 “<span class='quot0'>음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바래왔다</span>”며 “<span class='quot0'>고객들이 진정 바라는 먹거리 품격을 현명한미식가에 담고자 노력해왔고 발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span>”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88.txt

제목: 대장직장암 환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자  
날짜: 20150702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1514211  
본문:   <br/> <br/>대장직장암은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흔한 암이다. 매년 약 140만 명이 대장직장암을 진단 받는 만큼 대장직장암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br/> <br/>미국암학회에서는 대장직장암의 일차 예방에 식사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음주를 제하고 △비만을 피하고 △매일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 △하루 총 섭취 칼로리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30% 이하로 줄이고 △하루 섭취 섬유질의 양을 30 gm 이상으로 증량 △저지방 고칼슘 식이를 통해 하루 최소 800 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br/> <br/>일반 가정에서 이런 식단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암 치료 특화 요양병원인 가평산속요양병원 권순관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직장암 생존율은 1기 90%, 2기 70%, 3기 60%로 절제술을 하더라도 생존율을 낮게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대장직장암 환자는 꾸준한 치료와 함께 자극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양식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직장암 환자가 입원했을 때 전문영양사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맞는 식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섬유질 풍부한 채소와 자극 없는 반찬, 과일, 견과류 등을 기본으로 하루 동안 섭취해야 할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유기농텃밭 운영과 암 영양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br/> <br/>미국암연구소 보고서에서는 붉은 고기 섭취를 대장직장암의 1등급 위험요인으로 판정하고 있는 만큼, 고기섭취는 1주일에 300g 미만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짜고, 굽기보다는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택했다. <br/> <br/>병원측에 따르면 실제 대장직장암 3기 판정을 받은 40대 김 모 씨는 암 영양식과 꾸준한 치료를 병행한 결과 현재 완전 관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권 원장은 “<span class='quot0'>김 씨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에는 방사선 치료 부작용으로 체력이 저하된 상태였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를 위한 맞춤형 암영양식과 하복부 어혈을 풀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뜸 치료, 최신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실시한 결과 완전 관해를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span>”고 밝혔다. <br/> <br/>본원이 운용하고 있는 고주파 온열암치료기는 암 치료에 적용되는 장비로서, 암 발생 부위 또는 전이 부위에 고주파를 통과시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자연사 또는 괴사시키는 최신치료법이다. 이 치료법과 함께 한방면역치료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 환자의 몸 전체를 회복시키도록 돕고 있다.  <br/> <br/>권 원장은 “<span class='quot0'>양방, 한방, 대체의학까지 통합적인 암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환자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선구적인 선진 시스템을 도입한 암 요양병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가평산속요양병원은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등 서울로 항암, 방사선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암 환자를 위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치료와 운동, 교육이 하나가 된 암 재활 프로그램 운영,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요가수업, 스트레칭 운동과 발 마사지, 병원장의 암 투병 강의를 통해 올바른 투병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89.txt

제목: 자살 보험금 지급 최근 10년사이 2배 늘어, 사망 사유 중 자살 4위로 상승  
날짜: 2015070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1454244  
본문: 자살로 인한 생명보험 지급건수가 최근 10년사이 두배로 늘어나 사망사유 중 폐암, 위암 등에 이어 4위까지 올라갔다. <br/> <br/>2일 보험개발원은 2003∼2012년 10년간의 생명보험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암 사망 비중이 지속적으로 큰 가운데 자살 사망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br/> <br/>생명보험의 질병·재해사망 계약건수 10만 건당 사망보험금 지급 건수를 보면, 남성의 경우 자살(교수,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로 인한 사망이 2003년 3.0건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11위였다. <br/> <br/>그러나 2012년에는 6.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4위까지 올라갔다. <br/> <br/>여성 자살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br/> <br/>2003년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10만 계약건당 0.8건으로 26위였으나, 2012년에는 3.5건으로 남성과 같은 4위가 됐다. <br/> <br/>자살 외에 남성은 췌장암(16→8위), 폐렴(56→10위) 사망이 10년 사이에 급격히 늘었다. <br/> <br/>여성은 폐암(4→1위), 췌장암(12→7위) 사망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br/> <br/>남녀 모두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역시 암이었다. <br/> <br/>남성의 사망 원인 1∼3위는 간암, 폐암, 위암이었고 여성은 상위 3개가 각각 폐암, 유방암, 위암이었다. <br/> <br/>10년간 사망 건수는 남녀 모두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남성의 사망 건수가 16.5％ 줄어 여성(7.8％)보다 감소세가 컸다. <br/> <br/>연령별로는 고령층에서의 사망 감소세가 뚜렷했다. <br/> <br/>남녀 모두 10∼30대의 사망 건수는 10년간 20∼30％ 감소한 데 비해 60대 이상은 감소율이 50∼60％에 이르렀다. <br/> <br/>고령층의 사망은 줄어들었지만, 입원이나 수술은 늘어났다. <br/> <br/>10년간 입원건수는 남성이 22.8％, 여성이 58.3％ 늘어났다. <br/> <br/>특히 여성 50대와 60대의 입원 건수는 각각 82.8％, 74.9％ 급증했다. <br/> <br/>수술 건수도 남녀 모두 고연령일수록 수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br/> <br/>암진단 보험금 지급건수로 살펴본 10년간의 암 발생은 남성이 149.4％, 여성이 161.2％ 증가했다. <br/> <br/>남녀 모두 20∼40대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br/> <br/>남성 30대의 암 발생이 110.3％, 여성 30대의 암 발생이 136.2％ 늘어 연령대별 증가폭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br/> <br/>종류별로는 남성의 경우 갑상선암(6→2위), 결장암(5→4위), 전립선암(16→7위) 증가폭이 컸다. <br/> <br/>여성은 갑상선암(2→1위), 결장암(7→4위), 폐암(9→5위)이 많이 늘었다. <br/> <br/>갑상선암은 남성 998.7％, 여성 599.1％ 늘어 10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90.txt

제목: 대장직장암 환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자  
날짜: 201507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2100001018  
본문:  대장직장암은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흔한 암이다. 매년 약 140만 명이 대장직장암을 진단 받는 만큼 대장직장암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미국암학회에서는 대장직장암의 일차 예방에 식사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음주를 제하고 △비만을 피하고 △매일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 △하루 총 섭취 칼로리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30% 이하로 줄이고 △하루 섭취 섬유질의 양을 30 gm 이상으로 증량 △저지방 고칼슘 식이를 통해 하루 최소 800 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일반 가정에서 이런 식단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암 치료 특화 요양병원인 가평산속요양병원 권순관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직장암 생존율은 1기 90%, 2기 70%, 3기 60%로 절제술을 하더라도 생존율을 낮게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대장직장암 환자는 꾸준한 치료와 함께 자극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양식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직장암 환자가 입원했을 때 전문영양사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맞는 식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섬유질 풍부한 채소와 자극 없는 반찬, 과일, 견과류 등을 기본으로 하루 동안 섭취해야 할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유기농텃밭 운영과 암 영양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미국암연구소 보고서에서는 붉은 고기 섭취를 대장직장암의 1등급 위험요인으로 판정하고 있는 만큼, 고기섭취는 1주일에 300g 미만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짜고, 굽기보다는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택했다.병원측에 따르면 실제 대장직장암 3기 판정을 받은 40대 김 모 씨는 암 영양식과 꾸준한 치료를 병행한 결과 현재 완전 관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권 원장은 “<span class='quot0'>김 씨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에는 방사선 치료 부작용으로 체력이 저하된 상태였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를 위한 맞춤형 암영양식과 하복부 어혈을 풀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뜸 치료, 최신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실시한 결과 완전 관해를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span>”고 밝혔다.본원이 운용하고 있는 고주파 온열암치료기는 암 치료에 적용되는 장비로서, 암 발생 부위 또는 전이 부위에 고주파를 통과시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자연사 또는 괴사시키는 최신치료법이다. 이 치료법과 함께 한방면역치료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 환자의 몸 전체를 회복시키도록 돕고 있다. 권 원장은 “<span class='quot0'>양방, 한방, 대체의학까지 통합적인 암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환자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선구적인 선진 시스템을 도입한 암 요양병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한편, 가평산속요양병원은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등 서울로 항암, 방사선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암 환자를 위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치료와 운동, 교육이 하나가 된 암 재활 프로그램 운영,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요가수업, 스트레칭 운동과 발 마사지, 병원장의 암 투병 강의를 통해 올바른 투병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91.txt

제목: 자살 보험금 지급 최근 10년사이 2배 늘어, 사망 사유 중 자살 4위로 상승  
날짜: 20150702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2100001075  
본문: 자살로 인한 생명보험 지급건수가 최근 10년사이 두배로 늘어나 사망사유 중 폐암, 위암 등에 이어 4위까지 올라갔다. 2일 보험개발원은 2003∼2012년 10년간의 생명보험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암 사망 비중이 지속적으로 큰 가운데 자살 사망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의 질병·재해사망 계약건수 10만 건당 사망보험금 지급 건수를 보면, 남성의 경우 자살(교수,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로 인한 사망이 2003년 3.0건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11위였다.그러나 2012년에는 6.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4위까지 올라갔다.여성 자살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3년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10만 계약건당 0.8건으로 26위였으나, 2012년에는 3.5건으로 남성과 같은 4위가 됐다.자살 외에 남성은 췌장암(16→8위), 폐렴(56→10위) 사망이 10년 사이에 급격히 늘었다.여성은 폐암(4→1위), 췌장암(12→7위) 사망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남녀 모두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역시 암이었다. 남성의 사망 원인 1∼3위는 간암, 폐암, 위암이었고 여성은 상위 3개가 각각 폐암, 유방암, 위암이었다.10년간 사망 건수는 남녀 모두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남성의 사망 건수가 16.5％ 줄어 여성(7.8％)보다 감소세가 컸다.연령별로는 고령층에서의 사망 감소세가 뚜렷했다.남녀 모두 10∼30대의 사망 건수는 10년간 20∼30％ 감소한 데 비해 60대 이상은 감소율이 50∼60％에 이르렀다.고령층의 사망은 줄어들었지만, 입원이나 수술은 늘어났다.10년간 입원건수는 남성이 22.8％, 여성이 58.3％ 늘어났다.특히 여성 50대와 60대의 입원 건수는 각각 82.8％, 74.9％ 급증했다.수술 건수도 남녀 모두 고연령일수록 수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암진단 보험금 지급건수로 살펴본 10년간의 암 발생은 남성이 149.4％, 여성이 161.2％ 증가했다.남녀 모두 20∼40대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30대의 암 발생이 110.3％, 여성 30대의 암 발생이 136.2％ 늘어 연령대별 증가폭에서 최고를 기록했다.종류별로는 남성의 경우 갑상선암(6→2위), 결장암(5→4위), 전립선암(16→7위) 증가폭이 컸다.여성은 갑상선암(2→1위), 결장암(7→4위), 폐암(9→5위)이 많이 늘었다.갑상선암은 남성 998.7％, 여성 599.1％ 늘어 10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92.txt

제목: “글 안쓰면 죽은 목숨… 암 살살 달래가며 집필”  
날짜: 20150702  
기자: 문학전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2100000096  
본문: “정치가 실종되고 언로가 막혔던 시절에는 문학이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지기도 했습니다. 정치까지 여흥으로 여기는 이 과도기에 제 소설이 독서의 즐거움과 사회적인 역할까지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소설가 복거일(69·사진)씨가 장편소설 ‘역사 속의 나그네’(전6권·문학과지성사) 후반 3권을 집필해 25년 만에 완간하고 1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3년 전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 작품을 끝내기 위해 항암치료를 거부한 채 집필에 몰입해 거둔 결실이다. 암 판정을 받고 병원을 나설 때 가장 먼저 이 소설을 끝내야 한다는 강박이 앞섰다는 그는 즉각 집필에 착수해 1년여 만에 3권을 다 끝냈지만 편집이 늦어져 이제야 책으로 선보이게 됐다고 소개했다.2070년대 인물이 26세기에서 날아온 기구를 타고 백악기 탐험에 나섰다가 16세기 조선에 좌초하면서 펼치는 이야기를 담았다. 해박한 지식을 지닌 이언호라는 인물이 중세사회에서 현대 지식을 도구로 어떻게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하는지 전개하는 이 작품을 두고 복씨는 “낙후된 조선을 근대적 사회로 만드는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 일단 재미있으니 무협소설 못지않고 지적인 쾌락까지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복씨는 최근 신경숙 표절 논란에 대해 “공적인 지식재산을 나름대로 조합해 어떤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내느냐가 관건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남의 것을 빌려왔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엘리어트의 말처럼 위대한 작가는 훔치고 그보다 낮은 단계는 베끼는 것인데 훔친다는 의미는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면서 “작가의 게으름이 미숙한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글을 쓰지 않으면 숨이 붙어 있어도 산 목숨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암을 건드리지 않고 살살 달래가면서 글을 써왔다”면서 “요즘 증상이 별로 좋진 않지만 나이도 있는데 더 좋아지길 바라겠는가”라고 말했다.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93.txt

제목: ======속/인/복거일  
날짜: 201507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2100000221  
본문: 글·사진= 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정치가 실종되고 언로가 막혔던 시절에는 문학이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지기도 했습니다. 정치까지 여흥으로 여기는 이 과도기에 제 소설이 독서의 즐거움과 사회적인 역할까지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소설가 복거일(69·사진)씨가 장편소설 ‘역사 속의 나그네’(전6권·문학과지성사) 후반 3권을 집필해 25년 만에 완간하고 1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3년 전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 작품을 끝내기 위해 항암치료를 거부한 채 집필에 몰입해 거둔 결실이다. 암 판정을 받고 병원을 나설 때 가장 먼저 이 소설을 끝내야 한다는 강박이 앞섰다는 그는 즉각 집필에 착수해 1년여 만에 3권을 다 끝냈지만 편집이 늦어져 이제야 책으로 선보이게 됐다고 소개했다.2070년대 인물이 26세기에서 날아온 기구를 타고 백악기 탐험에 나섰다가 16세기 조선에 좌초하면서 펼치는 이야기를 담았다. 해박한 지식을 지닌 이언호라는 인물이 중세사회에서 현대 지식을 도구로 어떻게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하는지 전개하는 이 작품을 두고 복씨는 “정의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원시적 장르가 무협소설이라면 이 작품은 지적인 무협소설인 셈”이라면서 “낙후된 조선을 근대적 사회로 만드는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 일단 재미있으니 무협소설 못지않고 지적인 쾌락까지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복씨는 이 자리에서 최근 신경숙 표절 논란에 대해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작가는 누구도 표절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공적인 지식재산을 나름대로 조합해 어떤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내느냐가 관건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남의 것을 빌려왔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엘리어트의 말처럼 위대한 작가는 훔치고 그보다 낮은 단계는 베끼는 것인데 훔친다는 의미는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면서 “작가의 게으름이 미숙한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나온 시집에 보태어 1권은 생전에, 나머지 1권은 사후에 펴내 모두 4권의 시집을 완성하고 싶다는 그는 “글을 쓰지 않으면 숨이 붙어 있어도 산 목숨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암을 건드리지 않고 살살 달래가면서 글을 써왔다”면서 “요즘 증상이 별로 좋진 않지만 나이도 있는데 더 좋아지길 바라겠는가”라고 말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94.txt

제목: [전상일의건강解] 습관과 건강  
날짜: 20150702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210017790354  
본문: 인간의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유전자는 약골인지 강골인지를 결정하고 일생 동안 건강의 기본을 이룬다. 하지만 후천적 요인은 유전보다 현대인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정설이다. 암 발생에서 유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이지만 흡연, 음주, 음식, 환경오염, 유해 미생물 등은 70%에 육박한다. <br/> <br/>후천적 요인 중에서 식습관은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육류를 직화구이로 자주 먹으면 벤조피렌, 헤테로사이클릭아민 등과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된다. 알루미늄 호일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고기에 알루미늄이 스며들 수 있다. 알루미늄은 치매 유발 용의자 중 하나다. 반면 견과류를 즐겨 먹는 습관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고, 특히 호두는 수면장애를 개선하는 도우미다. 식습관은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가족력이 유력한 증거다. 가족력은 비슷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이 특정 질환에 더 많이 걸리는 현상이다. 엄마가 음식을 짜게 만들면 자녀들은 위암이나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br/> <br/>일상의 소소한 생활습관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 물 내리기 전에 변기 뚜껑을 닫는 습관이 그 예이다. 식중독은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만 걸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은 화장실이 주요 매개 장소다. 대변을 본 후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면 분변에서 탈출한 노로 바이러스가 공중으로 떠올라 입으로 들어오고 이로 인해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수도꼭지의 첫 물을 30초 정도 흘려버린 후 양칫물로 받아 쓰는 습관은 중금속과 각종 유해 미생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밤새 물탱크에 고여 있다 나온 첫 물에는 다양한 유해물질이 다량 들어 있기 때문이다. <br/> <br/> 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장음식을 조리할 때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트는 습관은 폐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름 연기는 폐 조직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이고, 생선을 튀길 때 생기는 휘발성 알데하이드 물질은 발암물질이다. 연구 결과 기름에 튀기는 음식을 조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폐암에 더 많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눈을 자주 깜박이면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전기선을 꽂은 채 전기면도기를 사용하면 충전된 배터리를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전자파에 노출된다. 전기면도기는 강력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전자제품이다.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 두세 발짝만 떨어져도 전자파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임신부가 향수를 멀리하면 태아는 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 향수에는 프탈레이트라는 환경호르몬이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br/> <br/>고대 로마시대의 네로 황제는 납 항아리에 발효시킨 와인을 즐겼는데, 네로가 난폭해진 것도 납 중독으로 인한 신경과민과 정서불안에 기인한다는 설이 있다. 미국으로 이민간 일본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은 일본 본토에서 나고 자란 여성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한다. 습관은 길들이기에 따라 건강의 적이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있다. <br/> <br/>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95.txt

제목: 현명한미식가, 현미에 수퍼푸드 더하다  
날짜: 20150702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2100000364  
본문: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다이어트에 따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 무리하게 굶는 다이어트로 인한 요요현상, 탈모, 거식증, 폭식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져 균형 있는 식사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흰쌀밥보다는 다이어트와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현미를 먹는 가정이 늘고 있다.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현미는 백미와 달리 쌀의 겉껍질만 벗겨낸 것이다. 쌀은 껍질을 벗겨낼수록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지방질 함량은 감소하고 탄수화물의 함량은 증가한다. 백미는 속껍질과 씨눈을 다 벗겨낸 것인데 속껍질에는 30%, 씨눈에는 65%의 영양분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쌀의 껍질을 벗길수록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성분이 거의 남지 않는 것이다.현미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인체에는 흡수되지 않고 과다한 각종 영양소의 장내 흡수를 늦춰줌으로써 칼로리 섭취를 억제한다. 또한 오래 씹어야하기 때문에 빨리 포만감을 느끼게 하며 변의 양을 늘리고 장벽을 자극해 변비를 예방한다.또한 현미 안에 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감마 아미노낙산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제거에 효과를 보인다. 뱃살을 없애주고 내장 사이에 있는 지방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현미는 다이어트와 장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이외에도 현미는 당뇨병 예방에 좋고 고혈압·뇌졸중·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암 진행을 늦춰주고 결석을 예방, 뇌세포 손상 방지, 피부 주름 예방, 탈모 예망 등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현미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 요즘, 현명한미식가(공동대표 백승욱·최지인)가 현미에 슈퍼푸드를 더한 건강식으로 고객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다. 전세계 건강한 음식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슈퍼푸드와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밥을 조합해 차별성을 갖추고 현미를 활용해 고객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이 현명한 미식가의 목표다.현명한미식가는 매일매일 도정작업을 거친 현미가 신선한 상태로 고객의 밥상에 올라가며 7가지 마리메뉴에는 이 같은 신선한 현미가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100% 국내산 친환경 원료 등 건강한 식재료의 슈퍼푸드를 활용해 고객의 건강을 생각했고 토마토, 연어, 카레, 호박, 부추, 버섯 등이 포함된 다양한 컬러의 슈퍼푸드를 골라먹을 수 있도록 맛도 고려했다.7가지 마리메뉴는 △ RED MARI △ ORANGE MARI △ YELLOW MARI △ GREEN MARI △ WHITE MARI △ PINK MARI △ PURPLE MARI로 구성됐으며 7가지 색으로 건강과 맛을 고려해 메뉴를 구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RED MARI는 노화방지에 탁월한 토마토와 부드러운 크림치즈를 조합했으며 ORANGE MARI는 성인병 예방에 좋은 연어와 컬러푸드 적양파를 함께 넣었다. YELLOW MARI는 항암효과에 좋은 카레와 닭가슴살로 이뤄져 있으며 GREEN MARI는 정력 증강에 좋은 부추와 떡갈비로 구성됐다PURPLE MARI는 다이어트에 좋은 단호박과 적채로 배합했으며 WHITE MARI는 고단백질을 함유한 참치와 와사비를 넣었으며 PINK MARI는 칼슘이 풍부한 크래미와 비트를 넣어 만든다.이외에도 현미카레 닭강정, 파스타, 쌀국수, 슈퍼7볶음밥 등 서브메뉴가 마련돼 있어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백승욱 공동대표는 “<span class='quot0'>음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바래왔다</span>”며 “<span class='quot0'>고객들이 진정 바라는 먹거리 품격을 현명한미식가에 담고자 노력해왔고 발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span>”고 전했다.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96.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커피, 하루 3잔은 되고 4잔은 안된다?  
날짜: 20150702  
기자: hj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2100001028  
본문: 커피는 현대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지만, 카페인 성분 때문에 마실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음료이기도 하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 ▲피로 감소 ▲빠른 두뇌 회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과잉섭취 시 ▲메스꺼움 ▲구토 ▲심혈관계 질환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커피 한 잔에는 약 70~150㎎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며, 커피를 하루 3잔 정도 마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정한 카페인 하루 권장량 400㎎을 훌쩍 넘기게 된다.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콜라·초콜릿·홍차에도 함유돼 있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커피를 즐기려면 하루 두 잔 이내가 적당하다. 커피, 그리고 카페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하루에 에스프레소 4잔 함량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최근 밝혔다.EFSA는 이번에 발표한 성명에서 특히 미성년자와 임산부는 다량의 카페인 섭취가 해롭다고 밝히고, 성인의 하루 카페인 권장량은 400㎎ 미만이라고 전했다.이 성명은 모든 음식물을 통해 카페인을 하루에 400㎎보다 적게 섭취하면, 임산부를 제외한 성인의 경우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EFSA는 모든 식품에 들어 있는 카페인 섭취의 위해성에 대한 첫 번째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카페인 섭취 권고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조사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은 성인 카페인 권장량의 절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는 자기 몸무게 기준, ㎏당 3㎎ 미만의 카페인을 섭취해야 한다.또 EFSA는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 이외에 에너지 음료 등을 통해 섭취한 카페인 양에도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커피 등의 카페인이 치매 등 인지장애의 예방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국립암센터는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수팀은 1990~2014년 국제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종합해 메타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신경역학(Neuroepidemiology)' 온라인판에 게재했다.메타분석은 수십편의 논문에 나타난 실험결과를 통계적 분석 대상의 관찰치로 전환해 실험결과를 일반화하는 분석 방식이다.연구진은 의학데이터베이스인 펍메드(PubMed)·엠베이스(EMBASE)를 이용한 문헌검색에서 나온 20편의 관찰 역학 연구결과를 통합해 연구 대상자인 3만1479명을 분석했다.이를 통해 커피나 차를 통한 카페인 섭취는 ▲치매 ▲알츠하이머병 ▲인지기능장애 ▲인지력 감소 등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음료 종류에 따른 세부그룹 메타분석 결과 커피를 통해 카페인 섭취가 17% 인지장애 위험성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보다 근거 수준이 높은 환자-대조군 연구나 코호트(특정인구집단) 연구에서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명 교수는 "카페인 섭취가 전반적으로 인지장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온 만큼 치매를 예방할 목적으로 커피나 차를 많이 섭취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매에는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의 생활습관병과 흡연·음주·운동부족·영양부족 등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커피는 어떻게 마셔야 좋을까. 최근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 ‘필립스 세코’에 따르면,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력과 민첩성, 정밀성을 높이고 공격성은 약화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숙면 방해 ▲신경 과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인 400mg 2~3잔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커피에는 심장 질환이나 암 예방에 효능이 있는 클로로겐산이 있다. 클로로겐산은 열에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원두를 진하게 볶기보다는 가볍게 로스팅하는 것이 좋다.또한 클로로겐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 환자는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커피를 내릴 때는 종이 필터를 사용하면, 원두의 지방 성분을 95% 가까이 걸러낼 수 있다.커피의 보관도 로스팅만큼이나 중요하다. 커피는 산소 수분 온도의 변화에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로스팅한 원두는 최대 2주 이내 소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면 된다. 또한 커피에 설탕 등 당 성분을 과도하게 넣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이밖에 커피의 효능과 관련된 연구로는 지난해 스위스의 커피과학정보연구소의 연구가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커피를 적당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연구팀은 환자의 뇌 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인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형성과 타우 단백질 엉킴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또한 2013년 스웨덴의 룬드대학 연구팀은 광범하게 사용하는 약품인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유방암 환자들은 커피를 마시면 유방암이 재발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매일 커피를 2잔 이상 마시는 경우, 매일 1잔 이하를 마시는 환자들에 비해 유방암 재발률이 50% 이하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97.txt

제목: “암, 상대 잘못 골랐다”  
날짜: 20150702  
기자: 국기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2100000071  
본문: 림프종암으로 투병 중인 래리 호건(59·사진)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암이 상대를 잘못 골랐다”며 강한 투병 의지를 보였다.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를 부인으로 둬 ‘한국 사위’로 불리는 호건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span class='quot0'>24시간 화학요법 치료에 들어간 지 나흘째가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나 스스로 여전히 아주 강하다고 느낀다</span>”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메릴랜드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사랑과 지지, 기도를 느낄 수 있다. 이는 내게 세상의 전부이자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라고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부인 유미 호건 여사는 전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오리올스 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span class='quot1'>매우 강한 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너무나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하고 있다</span>”고 남편의 투병 소식을 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98.txt

제목: 알코올 의존증 치료제, 악성 뇌종양 치료에 효과  
날짜: 20150701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0911485  
본문: (사진 - 좌측부터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 최승아, 김승기교수) <br/>알코올 의존증 치료제인 다이설피람(disulfiram)이 소아 뇌종양 중 가장 악성인 '비정형 유기형/간상 종양(ATRT, Atypical teratoid/rhabdoid tumor)'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서울대병원은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 김승기, 최승아 교수팀이 이 같은 결과를 국제 저명학술지인 미국신경종양학회지 'Neuro-Oncology' 2015년 6월호에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br/> <br/>비정형 유기형/간상 종양은 소아 뇌종양 중 예후가 가장 나쁜 암으로, 수술 후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해도 평균 생존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br/> <br/>이 종양은 3세 이하의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방사선 치료나 고용량 항암치료에도 치료 효과가 좋지 못하다. <br/> <br/>연구팀은 실험용 생쥐를 대상으로 비교군에는 다이설피람을, 대조군에는 위약을 투약한 후, 비정형 유기형/간상 종양의 크기를 관찰했다. <br/> <br/>그 결과 비교군의 종양이 대조군에 비해 1/4로 감소했고, 비교군의 생존기간(105일)도 대조군(91일)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다. <br/> <br/>연구팀은 다이설피람이 알데히드탈수소효소 (ALDH, aldehyde dehydrogenase)를 선택적으로 억제하고, ALDH 억제가 뇌종양줄기세포의 활동과 대사를 억제하여 항암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br/> <br/>ALDH는 뇌종양줄기세포 (brain tumor initiating cell)의 표지자다. <br/> <br/>뇌종양줄기세포란 뇌종양 내에 소수로 존재하는 미분화 세포로, 뇌종양의 발생, 재발, 전이에 관여한다. 암줄기세포표지자를 이용하면 암세포 내의 줄기세포를 분리해 낼 수 있다. <br/> <br/>특히 비정형 유기형/간상 종양은 다른 뇌종양에 비해 치료에 저항성이 있는 뇌종양줄기세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 다이설피람의 치료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김승기 교수는 "비정형 기형종/간상 종양은 어린 나이에 발생해서 항암 방사선 치료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 이번 연구로 이 약제를 실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환자의 생존율 향상 뿐 아니라, 항암 방사선 치료의 강도와 기간을 조절하여 환자의 삶의 질 증가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br/> <br/>한편 다이설피람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제로 ALDH를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약제는 경구복용이 가능하며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승인된 약물로 부작용을 잘 모니터링하면 임상 적용이 가능하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599.txt

제목: 대한암학회 신임 회장에 국립암센터 이승훈 박사 선출  
날짜: 2015070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0844325  
본문: 대한암학회 이승훈 신임 회장. <br/>국립암센터는 대한암학회 신임 회장에 국립암센터 전 연구소장인 이승훈(李承勳, 60세) 박사가 선출됐다고 1일 밝혔다. <br/>  <br/>이승훈 신임 회장은 지난 1980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br/> <br/>이 회장은 국립암센터 설립 초기 구성원으로 참여해 뇌척수암연구과장, 특수암연구부장, 부속병원장, 대외협력실장,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br/> <br/>대외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기획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장, 대한신경종양학회 회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하면서 암 관련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br/>  <br/>대한암학회는 최근 서울롯데호텔에서 제41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암컨퍼런스와 정기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00.txt

제목: 알리안츠 생명, 핀테크 연계된 인터넷 보험 영업 확대  
날짜: 20150701  
기자: 이귀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0835422  
본문: 알리안츠생명이 핀테크(기술+금융­)와 연계된 인터넷 보험 영업을 확대한다. <br/> <br/>이명재 알리안츠생명 사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span class='quot0'>고객에게 가장 편리한 디지털 시스템을 제공해 국내 외국계 생명보험사 중 고객 중심, 질적인 면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span>”며 이같이 밝혔다. <br/> <br/>알리안츠생명은 지난달 태블릿 PC로 보험 가입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서명 청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보험 조회, 지급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모바일센터를 구축하는 등 핀테크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br/> <br/>또 알리안츠생명은 인터넷 보험 브랜드인 ‘올라잇’(AllRight)도 공개했다. 올라잇은 저렴한 암보험, 정기보험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건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브랜드다. 이를 위해 알리안츠생명은 글로벌 모바일 건강관리 기술회사인 ‘눔’(Noom)과 제휴를 맺고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인 ‘올라잇 코치’를 출시했다. 이 사장은 “<span class='quot0'>앞으로 건강에 관한 지표를 모니터링해 고객이 운동을 자주 하고 금주를 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신뢰받는 기업 시민의 역할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01.txt

제목: 갑상선약 먹으면 살찌나? 갑상선 오해와 진실  
날짜: 2015070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0710064  
본문:   <br/> <br/> <br/>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체중 감소가 있고 기운이 없어 암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종합검진을 받는다. <br/> <br/>또는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려 심장내과에서 검사를 받기도 하고 설사 증세가 있어 소화기내과에서 검사도 받는다.   <br/> <br/>이처럼 갑상선기능항진증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받기 전까지 여러 진료과를 방문하게 된다. <br/> <br/>1일 다른 질환으로 오진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갑상선질환의 오해와 진실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인석 교수로부터 알아본다. <br/> <br/>◆ 심장이 두근거리면 전부 부정맥일까? <br/> <br/>갑상선호르몬은 체내 대사 및 체온을 조절하고 많은 기관의 기능을 적절히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갑상선호르몬이 정상보다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태를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고 하며, 그 중 그레이브스병이 가장 흔한 질환이다. <br/> <br/>그레이브스병은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잘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질환이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증상은 식욕이 증가하지만 체중이 빠지고, 손발이 떨리면서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이 많이 난다. <br/> <br/>또한 탈모, 월경량 감소 및 손톱이 잘 벌어지고, 대변을 묽게 자주 본다. 신경질이 나고 쉽게 피곤하며, 가슴 두근거림과 안구돌출도 있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증상이 있을 때 갑상선기능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br/> <br/>◆ 갑상선약 때문에 살이 찐다? <br/> <br/>그레이브스병의 치료 방법은 약물치료, 방사성요오드치료, 수술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갑상선제 치료가 가장 많이 선호되며, 약물 치료 후 갑상선 기능은 8~12주 후 정상화되면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증상은 호전된다. <br/> <br/>그러나 증상이 호전돼도 항갑상선제는 12~1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으면 밥맛이 좋아져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무게는 오히려 빠진다. <br/> <br/>체중 감소는 과도한 갑상선호르몬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신체 대사율이 증가돼 에너지가 평소보다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단 당시 몸무게는 병 때문에 빠진 것이지 자신의 원래 몸무게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br/> <br/>갑상선약을 복용하면서 갑상선기능이 정상화되면 병에 의해서 빠진 몸무게는 점차 회복된다. 젊은 여자분들은 갑상선약 때문에 살이 찐다고 착각해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br/> <br/>갑상선약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이 아니고 병이 치료되면서 점차 본연의 몸무게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절대 갑상선약을 중단하면 안 되고, 적절한 식사량 조절과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br/> <br/>◆ 갑상선 환자는 해조류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br/> <br/>다시마환을 매일 복용하는 경우와 같이 극단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오드가 풍부한 김이나 미역을 통상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br/> <br/>요오드 과다 섭취로 인한 갑상선항진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조절기전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상선질환이 있다고 요오드 섭취를 줄이거나 과도하게 복용할 필요는 없다. <br/> <br/>안구돌출증이 있는 경우 흡연은 안구돌출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금연이 필요하다. 또한 갑상선기능항진 상태에서 과음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리는 증상 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 과도한 음주나 커피는 피해야 한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02.txt

제목: [부부 건축가 임형남·노은주의 키워드로 읽는 건축과 사회] 수집가  
날짜: 20150701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0657028  
본문: # 일제강점기에 우리 미술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br/> <br/>예전에 서울 동대문(흥인지문) 밖 서울운동장이 있었던 곳, 더 예전에는 이간수문이 있었던 곳에 유적들을 밀쳐내고 거창하게 들어앉아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 갔다. 그곳에 일부러 찾아간 이유는 전시회를 보기 위해서였다. <br/> <br/>그 전시는 번쩍거리는 알루미늄 외피로 둘러싸인 초현대적 혹은 미래적인 모양새와는 사뭇 이질적인 내용이었다. 사실 애초에 그 건물은 의류도매상들과 그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작은 규모의 패션 관련 회사들이 모여 있는 동대문 인근을 패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어 지어진 것이라 들었는데, 막상 엄청난 규모로 지어놓고 나니 그 안에 내용을 채워나가는 게 그리 쉽지 않았다고 한다. 무조건 짓고 보는 우리 식의 개발은 꼭 그렇게 된다. <br/> <br/>아무튼 그런 와중에 DDP의 이미지와는 약간 괴리감이 있는 간송미술관이 비어 있는 한 부분을 채워주게 된다. 마침 소장하고 있는 많은 문화재급 그림과 도자기 등의 미술품을 정기적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전시하는 간송 측도 역시 현재 성북동에 있는 미술관이 좁았던지라 DDP 측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래서 DDP는 훌륭한 내용이 생겨서 좋고, 간송미술관은 넓은 장소에서 쉽게 전시를 할 수 있어서 좋고, 일반 시민들은 귀한 예술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좋은 ‘일거다득’의 상황이 됐다. <br/> <br/>대(大)수장가 간송 전형필이 남긴 우리 문화유산이 전시되고 있는 간송미술관. <br/>세계일보 자료사진내가 본 전시는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군자 그림을 모아서 일반에게 내보이는 것이었다. 이름만으로도 귀가 즐겁고 상상만으로도 황홀한 작가들, 김홍도, 김정희, 심사정, 이하응, 민영익 등의 시대를 망라한 최고의 그림들이었다. 간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의 부호이며 고미술품 수집가 간송 전형필(澗松 全鎣弼, 1906∼1962)의 호를 따서 지은 미술관이다. 간송이 세운 사설 박물관인 보화각을 사후에 그를 기리며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확장해 지은 대단히 소중한 장소이다. 전형필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미술을 지켜낸 사람이다. 그는 종로 일대의 상권을 장악했던 집안의 자손으로,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재산을 ‘요즘 부자들’처럼 끊임없는 부의 확장에 쓰지 않고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데 썼다. 또한 그것이 요즘 부자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그림 투기의 목적도 아니었다. 오로지 외국으로 새나가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키겠다는 일념이었다. <br/> <br/>전형필은 휘문고보에 입학하여 한국 근대미술의 선구자 고희동을 알게 되고, 고희동과의 인연으로 금석학의 대가이며 독립선언 33인 중에 하나였던 선각자 오세창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는 우리 문화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우리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br/> <br/>그는 마치 무너지는 댐을 혼자 힘으로 막았다는 이야기 속의 어떤 소년처럼 고군분투하며 문화재를 모으고 또 모은다. 그런데 그 수고로움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한다. 거액을 들여 사기도 하고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감동시켜 받아내기도 하며 모은 문화재가 이루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귀한 미술품들이 이 땅에 이만큼 남아 있을 수 없다고 모두 이야기한다. 그가 물려받은 재산을 우리 미술을 온전히 지키는 데 썼고, 그가 남긴 유산으로 전 국민이 모두 우리 미술을 누리게 된 것이다. <br/> <br/>#“알게 되면 아끼게 되고, 아끼면 참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김광국의 ‘석농화원’ <br/> <br/>전시장 안에는 다양한 그림들이 전시돼 있었다. 민영익이 그린 개성 있고 멋있는 난초도 보았고 추사의 자신감 넘치는 난도 보았으며, 명불허전 단원 김홍도의 백매(白梅)도 눈물 흘리며 보았다. 그 외에도 조희룡, 신위, 최북, 김수철 등등 도저히 한자리에서 다 만나기 힘든 명작들을 시간을 아쉬워하며 눈에 아로새겼다. <br/> <br/>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심사정과 강세황이 합작으로 만든 사군자 화첩이었다. 펼쳐놓은 화첩의 양쪽에 같은 화제로 두 대가의 그림이 모아져 있었는데 그 연유가 궁금했다. <br/> <br/>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김광국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 바로 검색을 해봤더니 화첩의 의뢰인 석농 김광국(石農 金光國, 1727∼1797)은 숙종 때 사람으로, 그의 신분은 중인이고 직업은 의관이었다. 그리고 그는 조선시대의 아주 대단한 수집가였다고 한다. <br/> <br/>“<span class='quot0'>알게 되면 참으로 아끼게 되고, 아끼면 참으로 볼 수 있게 되며, 보이게 되면 이를 소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저 쌓아두는 것과는 다르다(知則爲眞愛 愛則爲眞看 看則畜之 而非徒畜也).</span>” <br/> <br/>이 말은 1795년 김광국이 가지고 있는 글과 그림을 모아 만든 화첩인 ‘석농화원’(石農畵苑)을 만들 때 유한준이라는 사람이 붙인 발문의 한 구절이다. 이 글이 바로 유홍준 교수의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의 원전이라고 한다. <br/> <br/>들은 바로는 그가 그 글을 잘못 기억하고 인용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잘못된 기억이 원문보다 더 좋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걸 청출어람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유한준의 평을 더 들어보자. <br/> <br/>“김광국의 자는 원빈(元賓)이며, 그림을 알아보는 데 현묘했다. 김광국은 형태로가 아니라 정신으로 그림을 보았다. 천하의 좋아할 만한 물건을 통틀어 김광국이 아낄 것이 없었다. 그림을 아끼는 것을 돌아보고 더욱 깊어져서, 쌓인 것이 저와 같이 성하였다. 내가 그가 폭을 펼쳐 논평하는 것을 보면, 그 논의는 고아함과 속됨, 높고 낮음, 기이함과 바름, 삶과 죽음을 흑백과 같이 나누니 깊이 그림을 아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전부다 진실로 단지 소장하는 그림이 아니다.” <br/> <br/>그는 그림을 아끼고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었다. 집안 대대로 의관이었던 그는 연행사신을 따라 중국을 왕래하며 약재를 거래하여 큰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양반이나 왕족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할 대단한 ‘김광국 컬렉션’을 완성했다고 전해진다. <br/> <br/>그의 수집목록이 대단한 것은 당시 조선의 그림이나 중국 그림 일변도의 그림 수집 풍조와 달리, 아주 이색적으로 일본의 인물화, 네덜란드의 풍경화 등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기법의 그림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림을 소장하고 보관하는 사람은 많았으나, 그 소장품을 화첩으로 만든 사람은 별로 없다. 김광국 이전에 김광수라는 양반 수집가가 있었는데 전해지는 것은 없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석농화원이다. <br/> <br/>그 화첩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간송문화전에서 보았다. 우리나라의 미술품 수집가의 계보는 조선 전기의 안평대군을 들 수 있고, 그에 못지않은 이가 조선 후기의 김광국이다. 그러나 그들이 모았던 그림이나 도자기 등은 전설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반면 전형필의 수집목록은 한 집안의 보물이 아니라 전 국민의 보물이며, 우리가 그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다. <br/> <br/># 전 세계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이 ‘수집’된 비트라 캠퍼스 <br/> <br/>건축은 그림이나 도자기, 조각 같은 예술품들에 비해 ‘수집’이라는 말과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일단 땅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설계하고 짓기 위한 막대한 자본이 소요된다. 그런데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건축가들의 작업을 한자리에 모은, 말하자면 건축 수집가가 있다. 비트라(Vitra)라는 가구회사를 이끌고 있는 롤프 펠바움(Rolf Fehlbaum)이라는 사람이다. <br/> <br/>비트라는 주택과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는 스위스 회사로, 1934년 빌리 펠바움(Willi Fehlbaum)에 의해 설립되었다. 찰스와 레이 임스(Charles and Ray Eames), 알바르 알토(Alvar Aalto), 장 프루베(Jean Prouve) 등 최고의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디자인 가구를 생산했다. <br/> <br/>비트라 캠퍼스 전경. 니콜라스 그림쇼, 프랭크 게리, 안도 다다오, 자하 하디드, 알바로 시자 등에게 맡겨 디자이너의 창조성을 중시하는 기업의 이념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비트라 캠퍼스’가 있는 바일 암 라인(Weil am Rhein)은 독일령이지만 스위스 바젤에서 30분 거리에 있고, 프랑스에서도 가까운 절묘한 위치에 있다. 1981년 일어난 화재로 1950년대에 지어진 공장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되자, 펠바움은 회사 관련 건축물들을 니컬러스 그림쇼(Nicolas Grimshaw),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 안도 다다오(Ando Tadao), 자하 하디드(Zaha Hadid), 알바루 시자(Alvaro Siza) 등에게 맡겨 디자이너의 창조성을 중시하는 기업의 이념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br/> <br/>건축가이자 평론가인 필립 존슨은 비트라 캠퍼스를 “<span class='quot1'>1927년 르 코르뷔지에와 미스 반 데어 로에 등이 참여했던 슈투트가르트의 바이젠호프지들룽(Weissenhofsiedlung) 주거단지 이래로 가장 저명한 건축가 그룹이 한자리에 모인 곳</span>”이라고 일컬었다. 주변 주거지역과 세 나라와 삼각형을 이루는 국경지역의 자연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br/> <br/>비트라 소방서는 비틀린 벽과 날렵한 선으로 놀라운 비주얼을 선사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방서다.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은 아무래도 자하 하디드가 실현한 최초의 건축으로 유명한 소방서(1993) 건물일 것이다. 1981년의 화재 이후, 비트라는 캠퍼스 내부에 소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시 페이퍼 아키텍트(드로잉과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현한 건물이 없는 건축가)로 알려졌던 자하 하디드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비틀린 벽과 날렵한 선으로 놀라운 비주얼을 선사하며 비트라 소방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방서가 되었고, 자하 하디드는 세계에서 가장 일이 많은 건축가가 되었다. 몇 년 후 화재 대비는 공공서비스에 맡기고, 소방서는 디자인 박물관 관련 시설로 전환되었다. <br/> <br/>비트라 뮤지엄은 프랑크 게리가 미국 외의 장소에 최초로 설계한 건물이다.펠바움은 계속해서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스페인 빌바오 뮤지엄 등으로 유명한 미국 건축가 프랑크 게리의 비트라 뮤지엄(1989)은 게리가 미국 외의 장소에 최초로 설계한 건물이었고, 안도 다다오가 일본 밖에서 처음 지은 건물도 바로 이곳의 컨퍼런스 파빌리온(1993)이다. 그의 건물은 지하에 큰 공간을 숨기고 지상에는 일본식 정원의 명상을 위한 산책로와 같은 절제된 콘크리트 벽과 보도가 이어지며, 커다란 세 그루의 벚나무가 심겨졌다. <br/> <br/>일본 건축가 SANAA(세지마 가즈요+니시자와 류에)의 공장 건물의 커다란 원형의 평면은 지상에서는 순환하는 긴 벽으로 인식된다.일본 건축가 SANAA(세지마 가즈요+니시자와 류에)가 설계한 공장 건물(2012)의 커다란 원형의 평면은 지상에서는 순환하는 긴 벽으로 인식되며, 그들의 평소 작업과 마찬가지로 단순하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만드는 매력을 가진 건물이다. 포르투갈 건축가인 알바로 시자 역시 벽돌로 된 공장 건물(1994)을 설계했다. 기존에 있었다가 화재로 불탄 공장 건물을 참조한 것으로, 이웃한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의 곡선 지붕이 인상적이다. <br/> <br/>비트라 하우스. 전면 유리창을 가진 긴 건물 12개를 아무렇게나 쌓아올린 매스는 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건물은 플래그십 스토어인 비트라하우스(VitraHaus, 2010)로 스위스 건축가이자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한 헤르조그 드 뫼롱(Herzog and de Meuron)의 작업이다. 전면유리창을 가진 긴 건물 12개를 아무렇게나 쌓아올린 매스는 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1953년에 제작된 풀러의 돔(2000), 렌조 피아노의 소형 이동식 주택(Diogene, 2013) 등 건축사에서 의미 있는 작업들이 수집돼 있다. <br/> <br/>수집가는 자신을 위해서 수집을 하지만, 진정한 수집가는 역사를 모으고 여기저기 쪼개져서 널려 있는 역사의 퍼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완성된 퍼즐을 세상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br/> <br/>임형남·노은주 가온건축 공동대표· ‘그들은 그 집에서 무슨 꿈을 꾸었을까’ 공동저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03.txt

제목: “글 안쓰면 죽은 목숨… 암 살살 달래가며 집필”  
날짜: 20150701  
기자: 조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110017776299  
본문: “정치가 실종되고 언로가 막혔던 시절에는 문학이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지기도 했습니다. 정치까지 여흥으로 여기는 이 과도기에 제 소설이 독서의 즐거움과 사회적인 역할까지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br/> <br/> <br/> <br/>소설가 복거일(69·사진)씨가 장편소설 ‘역사 속의 나그네’(전6권·문학과지성사) 후반 3권을 집필해 25년 만에 완간하고 1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3년 전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 작품을 끝내기 위해 항암치료를 거부한 채 집필에 몰입해 거둔 결실이다. 암 판정을 받고 병원을 나설 때 가장 먼저 이 소설을 끝내야 한다는 강박이 앞섰다는 그는 즉각 집필에 착수해 1년여 만에 3권을 다 끝냈지만 편집이 늦어져 이제야 책으로 선보이게 됐다고 소개했다. <br/> <br/>2070년대 인물이 26세기에서 날아온 기구를 타고 백악기 탐험에 나섰다가 16세기 조선에 좌초하면서 펼치는 이야기를 담았다. 해박한 지식을 지닌 이언호라는 인물이 중세사회에서 현대 지식을 도구로 어떻게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하는지 전개하는 이 작품을 두고 복씨는 “낙후된 조선을 근대적 사회로 만드는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 일단 재미있으니 무협소설 못지않고 지적인 쾌락까지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복씨는 최근 신경숙 표절 논란에 대해 “공적인 지식재산을 나름대로 조합해 어떤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내느냐가 관건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남의 것을 빌려왔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엘리어트의 말처럼 위대한 작가는 훔치고 그보다 낮은 단계는 베끼는 것인데 훔친다는 의미는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면서 “작가의 게으름이 미숙한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br/>그는 “글을 쓰지 않으면 숨이 붙어 있어도 산 목숨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암을 건드리지 않고 살살 달래가면서 글을 써왔다”면서 “요즘 증상이 별로 좋진 않지만 나이도 있는데 더 좋아지길 바라겠는가”라고 말했다. <br/> <br/>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04.txt

제목: '한국사위' 美메릴랜드 주지사 "림프종암 강력 항암치료 긍정적으로 극복"  
날짜: 2015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1100000841  
본문:  림프종 암과 투병 중인 래리 호건(59) 메릴랜드 주지사는 30일(현지시간) “암이 상대를 잘못 골랐다”며 강한 투병의지를 보였다.한국계 부인을 둬 평소 ’한국 사위’를 자처하는 호건 주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span class='quot0'>24시간 화학요법 치료에 들어간 지 나흘째를 맞는데 나스스로 여전히 아주 강함을 느낀다</span>”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span class='quot0'>내일 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간다</span>”고 전했다.호건 주지사는 지난 27일부터 메릴랜드 대학 병원에서 항암치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호건 주지사는 “<span class='quot0'>(지지자들의) 사랑과 지지, 기도를 느낄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는 내게 세상의 전부이자 나를 지탱해 주는 힘</span>”이라며 지지자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호건 주지사의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는 전날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시 오리올즈구장에서 몇몇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span class='quot0'>매우 강한 화학요법을 받고 있음에도 너무나 ’포지티브’(긍정적)하게 대처하고 있다</span>”며 남편의 투병 소식을 전했다.호건 주지사는 지난 22일 메릴랜드 주 주도인 아나폴리스 주지사 관저에서 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암 투병 사실을 공개하면서 “<span class='quot1'>상당히 진행되고 매우 공격적인 비 호지킨림프종 암 진단을 받았다</span>”고 밝혔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사진= 워싱턴타임스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05.txt

제목: 냉장고를 부탁해 김풍, 토달토달 레시피 화제…간단한 조리법 ‘토마토+달걀’  
날짜: 20150701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110017764850  
본문: 냉장고를 부탁해 김풍, 토달토달 레시피 화제…간단한 조리법 ‘토마토+달걀’냉장고를 부탁해 김풍, 토달토달 레시피 화제…간단한 조리법 ‘토마토+달걀’ <br/> <br/>김풍 토달토달 레시피가 화제다. 지난 29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성규의 냉장고 속 재료로 '시원한 해장요리'를 주제로 이원일과 김풍이 대결을 벌였다. <br/> <br/>김풍은 토마토와 달걀, 토스트를 이용해 토달토달을 만들었다. 프라이팬에 재료를 넣고 끓인 뒤 간장으로 간을 맞춰 중국의 서민 음식을 탕으로 재탄생 시킨 것이다. <br/> <br/>김풍은 토마토와 계란, 곰탕 라면 스프, 식빵을 이용한 ‘토달토달’ 요리를 선보였다. <br/> <br/>토달토달은 으깬 마늘을 식용유와 참기름을 두른 팬에 볶고, 방울 토마토를 으깨 넣는다. 이후 간장, 식초, 맛술을 넣고 끓인 뒤 곰탕라면 스프와 전분, 계란을 넣으면 완성된다. <br/> <br/>김풍이 토달토달의 재료로 쓴 토마토에는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이 풍부하다. 이는 노화방지에 탁월하고 흡연과 자외선으로 인한 암, 전립선암, 심장질환 등을 예방한다. <br/> <br/>김풍은 토달토달에 방울토마토를 사용했는데, 방울토마토의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다. 크기가 작은 방울 토마토는 껍질의 비율이 일반 토마토보다 높으므로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할 수 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균·항암·항바이러스·항알레르기의 효능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br/> <br/>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과 열을 가해 요리해서 먹는 것이 좋다. 토마토 속 베타카로틴, 리코펜 등 항산화 성분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먹어야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br/> <br/>한편, 맛있는 토마토는 색깔이 고르고 모양이 반듯해야 한다. 꼭지 부분이 싱싱하고 노란색 별 모양이 크면 당도가 높다. 갈라짐이 있는 과일은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광택이 나고 단단하고 무거운 것일수록 맛있다. 덜 익은 푸른 토마토는 따뜻한 곳에 보관하면 빨리 숙성시킬 수 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06.txt

제목: 알코올 의존증 치료제, 악성 뇌종양 치료에 효과  
날짜: 20150701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1100000674  
본문: (사진 - 좌측부터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 최승아, 김승기교수)알코올 의존증 치료제인 다이설피람(disulfiram)이 소아 뇌종양 중 가장 악성인 '비정형 유기형/간상 종양(ATRT, Atypical teratoid/rhabdoid tumor)'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 김승기, 최승아 교수팀이 이 같은 결과를 국제 저명학술지인 미국신경종양학회지 'Neuro-Oncology' 2015년 6월호에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비정형 유기형/간상 종양은 소아 뇌종양 중 예후가 가장 나쁜 암으로, 수술 후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해도 평균 생존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이 종양은 3세 이하의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방사선 치료나 고용량 항암치료에도 치료 효과가 좋지 못하다.연구팀은 실험용 생쥐를 대상으로 비교군에는 다이설피람을, 대조군에는 위약을 투약한 후, 비정형 유기형/간상 종양의 크기를 관찰했다.그 결과 비교군의 종양이 대조군에 비해 1/4로 감소했고, 비교군의 생존기간(105일)도 대조군(91일)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다.연구팀은 다이설피람이 알데히드탈수소효소 (ALDH, aldehyde dehydrogenase)를 선택적으로 억제하고, ALDH 억제가 뇌종양줄기세포의 활동과 대사를 억제하여 항암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ALDH는 뇌종양줄기세포 (brain tumor initiating cell)의 표지자다.뇌종양줄기세포란 뇌종양 내에 소수로 존재하는 미분화 세포로, 뇌종양의 발생, 재발, 전이에 관여한다. 암줄기세포표지자를 이용하면 암세포 내의 줄기세포를 분리해 낼 수 있다.특히 비정형 유기형/간상 종양은 다른 뇌종양에 비해 치료에 저항성이 있는 뇌종양줄기세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 다이설피람의 치료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승기 교수는 "비정형 기형종/간상 종양은 어린 나이에 발생해서 항암 방사선 치료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 이번 연구로 이 약제를 실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환자의 생존율 향상 뿐 아니라, 항암 방사선 치료의 강도와 기간을 조절하여 환자의 삶의 질 증가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한편 다이설피람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제로 ALDH를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약제는 경구복용이 가능하며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승인된 약물로 부작용을 잘 모니터링하면 임상 적용이 가능하다.  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07.txt

제목: ==========속/칼/“부부건축가 임형남·노은주의 키워드로 읽는 건축과 사회” <120> 수집가  
날짜: 2015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1100000137  
본문: # 일제강점기에 우리 미술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예전에 서울 동대문(흥인지문) 밖 서울운동장이 있었던 곳, 더 예전에는 이간수문이 있었던 곳에 유적들을 밀쳐내고 거창하게 들어앉아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 갔다. 그곳에 일부러 찾아간 이유는 전시회를 보기 위해서였다.그 전시는 번쩍거리는 알루미늄 외피로 둘러싸인 초현대적 혹은 미래적인 모양새와는 사뭇 이질적인 내용이었다. 사실 애초에 그 건물은 의류도매상들과 그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작은 규모의 패션 관련 회사들이 모여 있는 동대문 인근을 패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어 지어진 것이라 들었는데, 막상 엄청난 규모로 지어놓고 나니 그 안에 내용을 채워나가는 게 그리 쉽지 않았다고 한다. 무조건 짓고 보는 우리 식의 개발은 꼭 그렇게 된다.아무튼 그런 와중에 DDP의 이미지와는 약간 괴리감이 있는 간송미술관이 비어 있는 한 부분을 채워주게 된다. 마침 소장하고 있는 많은 문화재급 그림과 도자기 등의 미술품을 정기적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전시하는 간송 측도 역시 현재 성북동에 있는 미술관이 좁았던지라 DDP 측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래서 DDP는 훌륭한 내용이 생겨서 좋고, 간송미술관은 넓은 장소에서 쉽게 전시를 할 수 있어서 좋고, 일반 시민들은 귀한 예술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좋은 ‘일거다득’의 상황이 됐다. 내가 본 전시는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군자 그림을 모아서 일반에게 내보이는 것이었다. 이름만으로도 귀가 즐겁고 상상만으로도 황홀한 작가들, 김홍도, 김정희, 심사정, 이하응, 민영익 등의 시대를 망라한 최고의 그림들이었다. 간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의 부호이며 고미술품 수집가 간송 전형필(澗松 全鎣弼, 1906~1962)의 호를 따서 지은 미술관이다. 간송이 세운 사설 박물관인 보화각을 사후에 그를 기리며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확장해 지은 대단히 소중한 장소이다.전형필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미술을 지켜낸 사람이다. 그는 종로 일대의 상권을 장악했던 집안의 자손으로,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재산을 ‘요즘 부자들’처럼 끊임없는 부의 확장에 쓰지 않고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데 썼다. 또한 그것이 요즘 부자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그림 투기의 목적도 아니었다. 오로지 외국으로 새나가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키겠다는 일념이었다.내남이 다 알다시피, 그때는 나라를 잃고 정신을 빼앗기고 수천년 이어져 내려오던 우리 민족의 문화마저 좀이 슬어서 형체가 점점 사라지는 습기 찬 장롱처럼 되어가는 시대였다. 전형필은 휘문고보에 입학하여 한국 근대미술의 선구자 고희동을 알게 되고, 고희동과의 인연으로 금석학의 대가이며 독립선언 33인 중에 하나였던 선각자 오세창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는 우리 문화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우리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그는 마치 무너지는 댐을 혼자 힘으로 막았다는 이야기 속의 어떤 소년처럼 고군분투하며 문화재를 모으고 또 모은다. 그런데 그 수고로움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한다. 거액을 들여 사기도 하고 문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감동시켜 받아내기도 하며 모은 문화재가 이루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그때는 엿가락과 청자를 맞바꾸던 시절이었다고 사람들은 회고한다. 그 가치를 일본인들이 알아서 엄청난 양의 미술품과 역사적인 유물들과 석탑 부도 석등 심지어 아름다운 건축물마저 징발되어 일본으로 건너가던 시절이었다. 그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귀한 미술품들이 이 땅에 이만큼 남아 있을 수 없다고 모두 이야기한다. 그가 물려받은 재산을 우리 미술을 온전히 지키는 데 썼고, 그가 남긴 유산으로 전 국민이 모두 우리 미술을 누리게 된 것이다. #“알게 되면 아끼게 되고, 아끼면 참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김광국의 ‘석농화원’전시장 안에는 다양한 그림들이 전시돼 있었다. 민영익이 그린 개성 있고 멋있는 난초도 보았고 추사의 자신감 넘치는 난도 보았으며, 명불허전 단원 김홍도의 백매(白梅)도 눈물 흘리며 보았다. 그 외에도 조희룡, 신위, 최북, 김수철 등등 도저히 한자리에서 다 만나기 힘든 명작들을 시간을 아쉬워하며 눈에 아로새겼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심사정과 강세황이 합작으로 만든 사군자 화첩이었다. 펼쳐놓은 화첩의 양쪽에 같은 화제로 두 대가의 그림이 모아져 있었는데 그 연유가 궁금했다.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김광국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 바로 검색을 해봤더니 화첩의 의뢰인 석농 김광국(石農 金光國, 1727~1797)은 숙종 때 사람으로, 그의 신분은 중인이고 직업은 의관이었다. 그리고 그는 조선시대의 아주 대단한 수집가였다고 한다.“알게 되면 참으로 아끼게 되고, 아끼면 참으로 볼 수 있게 되며, 보이게 되면 이를 소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저 쌓아두는 것과는 다르다(知則爲眞愛 愛則爲眞看 看則畜之 而非徒畜也).”이 말은 1795년 김광국이 가지고 있는 글과 그림을 모아 만든 화첩인 ‘석농화원’(石農畵苑)을 만들 때 유한준이라는 사람이 붙인 발문의 한 구절이다. 이 글이 바로 유홍준 교수의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의 원전이라고 한다.들은 바로는 그가 그 글을 잘못 기억하고 인용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잘못된 기억이 원문보다 더 좋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걸 청출어람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유한준의 평을 더 들어보자.“김광국의 자는 원빈(元賓)이며, 그림을 알아보는 데 현묘했다. 김광국은 형태로가 아니라 정신으로 그림을 보았다. 천하의 좋아할 만한 물건을 통틀어 김광국이 아낄 것이 없었다. 그림을 아끼는 것을 돌아보고 더욱 깊어져서, 쌓인 것이 저와 같이 성하였다. 내가 그가 폭을 펼쳐 논평하는 것을 보면, 그 논의는 고아함과 속됨, 높고 낮음, 기이함과 바름, 삶과 죽음을 흑백과 같이 나누니 깊이 그림을 아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전부다 진실로 단지 소장하는 그림이 아니다.”그는 그림을 아끼고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었다. 집안 대대로 의관이었던 그는 연행사신을 따라 중국을 왕래하며 약재를 거래하여 큰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양반이나 왕족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할 대단한 ‘김광국 컬렉션’을 완성했다고 전해진다.그의 수집목록이 대단한 것은 당시 조선의 그림이나 중국 그림 일변도의 그림 수집 풍조와 달리, 아주 이색적으로 일본의 인물화, 네덜란드의 풍경화 등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기법의 그림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림을 소장하고 보관하는 사람은 많았으나, 그 소장품을 화첩으로 만든 사람은 별로 없다. 김광국 이전에 김광수라는 양반 수집가가 있었는데 전해지는 것은 없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석농화원이다.그 화첩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간송문화전에서 보았다. 우리나라의 미술품 수집가의 계보는 조선 전기의 안평대군을 들 수 있고, 그에 못지않은 이가 조선 후기의 김광국이다. 그러나 그들이 모았던 그림이나 도자기 등은 전설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반면 전형필의 수집목록은 한 집안의 보물이 아니라 전 국민의 보물이며, 우리가 그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다. # 전 세계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이 ‘수집’된 비트라 캠퍼스건축은 그림이나 도자기, 조각 같은 예술품들에 비해 ‘수집’이라는 말과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일단 땅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설계하고 짓기 위한 막대한 자본이 소요된다. 그런데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건축가들의 작업을 한자리에 모은, 말하자면 건축 수집가가 있다. 비트라(Vitra)라는 가구회사를 이끌고 있는 롤프 펠바움(Rolf Fehlbaum)이라는 사람이다. 비트라는 주택과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는 스위스 회사로, 1934년 윌리 펠바움(Willi Fehlbaum)에 의해 설립되었다. 찰스와 레이 임스(Charles and Ray Eames), 알바 알토(Alvar Aalto), 장 프루베(Jean Prouve) 등 최고의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디자인 가구를 생산했다. ‘비트라 캠퍼스’가 있는 바일 암 라인(Weil am Rhein)은 독일령이지만 스위스 바젤에서 30분 거리에 있고, 프랑스에서도 가까운 절묘한 위치에 있다. 1981년 일어난 화재로 1950년대에 지어진 공장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되자, 펠바움은 회사 관련 건축물들을 니콜라스 그림쇼(Nicolas Grimshaw),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 안도 다다오(Ando Tadao), 자하 하디드(Zaha Hadid), 알바로 시자(Alvaro Siza) 등에게 맡겨 디자이너의 창조성을 중시하는 기업의 이념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건축가이자 평론가인 필립 존슨은 비트라 캠퍼스를 “<span class='quot0'>1927년 르 코르뷔지에와 미스 반 데어 로에 등이 참여했던 슈투트가르트의 바이젠호프지들롱(Weissenhofsiedlung) 주거단지 이래로 가장 저명한 건축가 그룹이 한자리에 모인 곳</span>”이라고 일컬었다. 주변 주거지역과 세 나라와 삼각형을 이루는 국경지역의 자연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은 아무래도 자하 하디드가 실현한 최초의 건축으로 유명한 소방서(1993) 건물일 것이다. 1981년의 화재 이후, 비트라는 캠퍼스 내부에 소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시 페이퍼 아키텍트(드로잉과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현한 건물이 없는 건축가)로 알려졌던 자하 하디드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비틀린 벽과 날렵한 선으로 놀라운 비주얼을 선사하며 비트라 소방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방서가 되었고, 자하 하디드는 세계에서 가장 일이 많은 건축가가 되었다. 몇 년 후 화재 대비는 공공서비스에 맡기고, 소방서는 디자인 박물관 관련 시설로 전환되었다.펠바움은 계속해서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스페인 빌바오 뮤지엄 등으로 유명한 미국 건축가 프랑크 게리의 비트라 뮤지엄(1989)은 게리가 미국 외의 장소에 최초로 설계한 건물이었고, 안도 다다오가 일본 밖에서 처음 지은 건물도 바로 이곳의 컨퍼런스 파빌리온(1993)이다. 그의 건물은 지하에 큰 공간을 숨기고 지상에는 일본식 정원의 명상을 위한 산책로와 같은 절제된 콘크리트 벽과 보도가 이어지며, 커다란 세 그루의 벚나무가 심겨졌다. 일본 건축가 SANAA(세지마 가즈요+니시자와 류에)가 설계한 공장 건물(2012)의 커다란 원형의 평면은 지상에서는 순환하는 긴 벽으로 인식되며, 그들의 평소 작업과 마찬가지로 단순하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만드는 매력을 가진 건물이다. 포르투갈 건축가인 알바로 시자 역시 벽돌로 된 공장 건물(1994)을 설계했다. 기존에 있었다가 화재로 불탄 공장 건물을 참조한 것으로, 이웃한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의 곡선 지붕이 인상적이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건물은 플래그십 스토어인 비트라하우스(VitraHaus, 2010)로 스위스 건축가이자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한 헤르조그 드 뮤롱(Herzog and de Meuron)의 작업이다. 전면유리창을 가진 긴 건물 12개를 아무렇게나 쌓아올린 매스는 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1953년에 제작된 풀러의 돔(2000), 렌조 피아노의 소형 이동식 주택(Diogene, 2013) 등 건축사에서 의미 있는 작업들이 수집돼 있다.수집가는 자신을 위해서 수집을 하지만, 진정한 수집가는 역사를 모으고 여기저기 쪼개져서 널려 있는 역사의 퍼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완성된 퍼즐을 세상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가온건축 공동대표·‘그들은 그 집에서 무슨 꿈을 꾸었을까’ 공동저자사진설명/비트라 캠퍼스 전경. 니콜라스 그림쇼, 프랭크 게리, 안도 다다오, 자하 하디드, 알바로 시자 등에게 맡겨 디자이너의 창조성을 중시하는 기업의 이념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사진설명/비트라 하우스. 전면 유리창을 가진 긴 건물 12개를 아무렇게나 쌓아올린 매스는 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사진설명/비트라 소방서는 비틀린 벽과 날렵한 선으로 놀라운 비주얼을 선사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방서다.사진설명/비트라 뮤지엄은 게리가 미국 외의 장소에 최초로 설계한 건물이었다.사진설명/비트라 캠퍼스 전경. 니콜라스 그림쇼, 프랭크 게리, 안도 다다오, 자하 하디드, 알바로 시자 등에게 맡겨 디자이너의 창조성을 중시하는 기업의 이념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사진설명/일본 건축가 SANAA(세지마 가즈요+니시자와 류에)의 공장 건물의 커다란 원형의 평면은 지상에서는 순환하는 긴 벽으로 인식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08.txt

제목: [부부 건축가 임형남·노은주의 키워드로 읽는 건축과 사회] 수집가  
날짜: 2015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1100000403  
본문: # 일제강점기에 우리 미술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예전에 서울 동대문(흥인지문) 밖 서울운동장이 있었던 곳, 더 예전에는 이간수문이 있었던 곳에 유적들을 밀쳐내고 거창하게 들어앉아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 갔다. 그곳에 일부러 찾아간 이유는 전시회를 보기 위해서였다.그 전시는 번쩍거리는 알루미늄 외피로 둘러싸인 초현대적 혹은 미래적인 모양새와는 사뭇 이질적인 내용이었다. 사실 애초에 그 건물은 의류도매상들과 그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작은 규모의 패션 관련 회사들이 모여 있는 동대문 인근을 패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어 지어진 것이라 들었는데, 막상 엄청난 규모로 지어놓고 나니 그 안에 내용을 채워나가는 게 그리 쉽지 않았다고 한다. 무조건 짓고 보는 우리 식의 개발은 꼭 그렇게 된다.아무튼 그런 와중에 DDP의 이미지와는 약간 괴리감이 있는 간송미술관이 비어 있는 한 부분을 채워주게 된다. 마침 소장하고 있는 많은 문화재급 그림과 도자기 등의 미술품을 정기적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전시하는 간송 측도 역시 현재 성북동에 있는 미술관이 좁았던지라 DDP 측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래서 DDP는 훌륭한 내용이 생겨서 좋고, 간송미술관은 넓은 장소에서 쉽게 전시를 할 수 있어서 좋고, 일반 시민들은 귀한 예술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좋은 ‘일거다득’의 상황이 됐다. 대(大)수장가 간송 전형필이 남긴 우리 문화유산이 전시되고 있는 간송미술관. 세계일보 자료사진내가 본 전시는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군자 그림을 모아서 일반에게 내보이는 것이었다. 이름만으로도 귀가 즐겁고 상상만으로도 황홀한 작가들, 김홍도, 김정희, 심사정, 이하응, 민영익 등의 시대를 망라한 최고의 그림들이었다. 간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의 부호이며 고미술품 수집가 간송 전형필(澗松 全鎣弼, 1906∼1962)의 호를 따서 지은 미술관이다. 간송이 세운 사설 박물관인 보화각을 사후에 그를 기리며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확장해 지은 대단히 소중한 장소이다. 전형필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미술을 지켜낸 사람이다. 그는 종로 일대의 상권을 장악했던 집안의 자손으로,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재산을 ‘요즘 부자들’처럼 끊임없는 부의 확장에 쓰지 않고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데 썼다. 또한 그것이 요즘 부자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그림 투기의 목적도 아니었다. 오로지 외국으로 새나가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키겠다는 일념이었다.전형필은 휘문고보에 입학하여 한국 근대미술의 선구자 고희동을 알게 되고, 고희동과의 인연으로 금석학의 대가이며 독립선언 33인 중에 하나였던 선각자 오세창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는 우리 문화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우리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그는 마치 무너지는 댐을 혼자 힘으로 막았다는 이야기 속의 어떤 소년처럼 고군분투하며 문화재를 모으고 또 모은다. 그런데 그 수고로움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한다. 거액을 들여 사기도 하고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감동시켜 받아내기도 하며 모은 문화재가 이루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귀한 미술품들이 이 땅에 이만큼 남아 있을 수 없다고 모두 이야기한다. 그가 물려받은 재산을 우리 미술을 온전히 지키는 데 썼고, 그가 남긴 유산으로 전 국민이 모두 우리 미술을 누리게 된 것이다. #“알게 되면 아끼게 되고, 아끼면 참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김광국의 ‘석농화원’전시장 안에는 다양한 그림들이 전시돼 있었다. 민영익이 그린 개성 있고 멋있는 난초도 보았고 추사의 자신감 넘치는 난도 보았으며, 명불허전 단원 김홍도의 백매(白梅)도 눈물 흘리며 보았다. 그 외에도 조희룡, 신위, 최북, 김수철 등등 도저히 한자리에서 다 만나기 힘든 명작들을 시간을 아쉬워하며 눈에 아로새겼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심사정과 강세황이 합작으로 만든 사군자 화첩이었다. 펼쳐놓은 화첩의 양쪽에 같은 화제로 두 대가의 그림이 모아져 있었는데 그 연유가 궁금했다.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김광국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 바로 검색을 해봤더니 화첩의 의뢰인 석농 김광국(石農 金光國, 1727∼1797)은 숙종 때 사람으로, 그의 신분은 중인이고 직업은 의관이었다. 그리고 그는 조선시대의 아주 대단한 수집가였다고 한다.“알게 되면 참으로 아끼게 되고, 아끼면 참으로 볼 수 있게 되며, 보이게 되면 이를 소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저 쌓아두는 것과는 다르다(知則爲眞愛 愛則爲眞看 看則畜之 而非徒畜也).”이 말은 1795년 김광국이 가지고 있는 글과 그림을 모아 만든 화첩인 ‘석농화원’(石農畵苑)을 만들 때 유한준이라는 사람이 붙인 발문의 한 구절이다. 이 글이 바로 유홍준 교수의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의 원전이라고 한다.들은 바로는 그가 그 글을 잘못 기억하고 인용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잘못된 기억이 원문보다 더 좋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걸 청출어람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유한준의 평을 더 들어보자.“김광국의 자는 원빈(元賓)이며, 그림을 알아보는 데 현묘했다. 김광국은 형태로가 아니라 정신으로 그림을 보았다. 천하의 좋아할 만한 물건을 통틀어 김광국이 아낄 것이 없었다. 그림을 아끼는 것을 돌아보고 더욱 깊어져서, 쌓인 것이 저와 같이 성하였다. 내가 그가 폭을 펼쳐 논평하는 것을 보면, 그 논의는 고아함과 속됨, 높고 낮음, 기이함과 바름, 삶과 죽음을 흑백과 같이 나누니 깊이 그림을 아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전부다 진실로 단지 소장하는 그림이 아니다.”그는 그림을 아끼고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었다. 집안 대대로 의관이었던 그는 연행사신을 따라 중국을 왕래하며 약재를 거래하여 큰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양반이나 왕족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할 대단한 ‘김광국 컬렉션’을 완성했다고 전해진다.그의 수집목록이 대단한 것은 당시 조선의 그림이나 중국 그림 일변도의 그림 수집 풍조와 달리, 아주 이색적으로 일본의 인물화, 네덜란드의 풍경화 등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기법의 그림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림을 소장하고 보관하는 사람은 많았으나, 그 소장품을 화첩으로 만든 사람은 별로 없다. 김광국 이전에 김광수라는 양반 수집가가 있었는데 전해지는 것은 없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석농화원이다.그 화첩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간송문화전에서 보았다. 우리나라의 미술품 수집가의 계보는 조선 전기의 안평대군을 들 수 있고, 그에 못지않은 이가 조선 후기의 김광국이다. 그러나 그들이 모았던 그림이나 도자기 등은 전설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반면 전형필의 수집목록은 한 집안의 보물이 아니라 전 국민의 보물이며, 우리가 그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다. # 전 세계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이 ‘수집’된 비트라 캠퍼스건축은 그림이나 도자기, 조각 같은 예술품들에 비해 ‘수집’이라는 말과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일단 땅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설계하고 짓기 위한 막대한 자본이 소요된다. 그런데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건축가들의 작업을 한자리에 모은, 말하자면 건축 수집가가 있다. 비트라(Vitra)라는 가구회사를 이끌고 있는 롤프 펠바움(Rolf Fehlbaum)이라는 사람이다. 비트라는 주택과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는 스위스 회사로, 1934년 빌리 펠바움(Willi Fehlbaum)에 의해 설립되었다. 찰스와 레이 임스(Charles and Ray Eames), 알바르 알토(Alvar Aalto), 장 프루베(Jean Prouve) 등 최고의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디자인 가구를 생산했다. 비트라 캠퍼스 전경. 니콜라스 그림쇼, 프랭크 게리, 안도 다다오, 자하 하디드, 알바로 시자 등에게 맡겨 디자이너의 창조성을 중시하는 기업의 이념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비트라 캠퍼스’가 있는 바일 암 라인(Weil am Rhein)은 독일령이지만 스위스 바젤에서 30분 거리에 있고, 프랑스에서도 가까운 절묘한 위치에 있다. 1981년 일어난 화재로 1950년대에 지어진 공장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되자, 펠바움은 회사 관련 건축물들을 니컬러스 그림쇼(Nicolas Grimshaw),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 안도 다다오(Ando Tadao), 자하 하디드(Zaha Hadid), 알바루 시자(Alvaro Siza) 등에게 맡겨 디자이너의 창조성을 중시하는 기업의 이념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건축가이자 평론가인 필립 존슨은 비트라 캠퍼스를 “<span class='quot0'>1927년 르 코르뷔지에와 미스 반 데어 로에 등이 참여했던 슈투트가르트의 바이젠호프지들룽(Weissenhofsiedlung) 주거단지 이래로 가장 저명한 건축가 그룹이 한자리에 모인 곳</span>”이라고 일컬었다. 주변 주거지역과 세 나라와 삼각형을 이루는 국경지역의 자연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비트라 소방서는 비틀린 벽과 날렵한 선으로 놀라운 비주얼을 선사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방서다.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은 아무래도 자하 하디드가 실현한 최초의 건축으로 유명한 소방서(1993) 건물일 것이다. 1981년의 화재 이후, 비트라는 캠퍼스 내부에 소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시 페이퍼 아키텍트(드로잉과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현한 건물이 없는 건축가)로 알려졌던 자하 하디드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비틀린 벽과 날렵한 선으로 놀라운 비주얼을 선사하며 비트라 소방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방서가 되었고, 자하 하디드는 세계에서 가장 일이 많은 건축가가 되었다. 몇 년 후 화재 대비는 공공서비스에 맡기고, 소방서는 디자인 박물관 관련 시설로 전환되었다.비트라 뮤지엄은 프랑크 게리가 미국 외의 장소에 최초로 설계한 건물이다.펠바움은 계속해서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스페인 빌바오 뮤지엄 등으로 유명한 미국 건축가 프랑크 게리의 비트라 뮤지엄(1989)은 게리가 미국 외의 장소에 최초로 설계한 건물이었고, 안도 다다오가 일본 밖에서 처음 지은 건물도 바로 이곳의 컨퍼런스 파빌리온(1993)이다. 그의 건물은 지하에 큰 공간을 숨기고 지상에는 일본식 정원의 명상을 위한 산책로와 같은 절제된 콘크리트 벽과 보도가 이어지며, 커다란 세 그루의 벚나무가 심겨졌다. 일본 건축가 SANAA(세지마 가즈요+니시자와 류에)의 공장 건물의 커다란 원형의 평면은 지상에서는 순환하는 긴 벽으로 인식된다.일본 건축가 SANAA(세지마 가즈요+니시자와 류에)가 설계한 공장 건물(2012)의 커다란 원형의 평면은 지상에서는 순환하는 긴 벽으로 인식되며, 그들의 평소 작업과 마찬가지로 단순하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만드는 매력을 가진 건물이다. 포르투갈 건축가인 알바로 시자 역시 벽돌로 된 공장 건물(1994)을 설계했다. 기존에 있었다가 화재로 불탄 공장 건물을 참조한 것으로, 이웃한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의 곡선 지붕이 인상적이다. 비트라 하우스. 전면 유리창을 가진 긴 건물 12개를 아무렇게나 쌓아올린 매스는 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건물은 플래그십 스토어인 비트라하우스(VitraHaus, 2010)로 스위스 건축가이자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한 헤르조그 드 뫼롱(Herzog and de Meuron)의 작업이다. 전면유리창을 가진 긴 건물 12개를 아무렇게나 쌓아올린 매스는 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1953년에 제작된 풀러의 돔(2000), 렌조 피아노의 소형 이동식 주택(Diogene, 2013) 등 건축사에서 의미 있는 작업들이 수집돼 있다.수집가는 자신을 위해서 수집을 하지만, 진정한 수집가는 역사를 모으고 여기저기 쪼개져서 널려 있는 역사의 퍼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완성된 퍼즐을 세상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임형남·노은주 가온건축 공동대표· ‘그들은 그 집에서 무슨 꿈을 꾸었을까’ 공동저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09.txt

제목: 갑상선약 먹으면 살찌나? 갑상선 오해와 진실  
날짜: 20150701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1100000331  
본문: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체중 감소가 있고 기운이 없어 암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종합검진을 받는다.또는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려 심장내과에서 검사를 받기도 하고 설사 증세가 있어 소화기내과에서 검사도 받는다.  이처럼 갑상선기능항진증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받기 전까지 여러 진료과를 방문하게 된다.1일 다른 질환으로 오진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갑상선질환의 오해와 진실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인석 교수로부터 알아본다.◆ 심장이 두근거리면 전부 부정맥일까?갑상선호르몬은 체내 대사 및 체온을 조절하고 많은 기관의 기능을 적절히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갑상선호르몬이 정상보다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태를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고 하며, 그 중 그레이브스병이 가장 흔한 질환이다.그레이브스병은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잘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질환이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증상은 식욕이 증가하지만 체중이 빠지고, 손발이 떨리면서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이 많이 난다.또한 탈모, 월경량 감소 및 손톱이 잘 벌어지고, 대변을 묽게 자주 본다. 신경질이 나고 쉽게 피곤하며, 가슴 두근거림과 안구돌출도 있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증상이 있을 때 갑상선기능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갑상선약 때문에 살이 찐다?그레이브스병의 치료 방법은 약물치료, 방사성요오드치료, 수술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갑상선제 치료가 가장 많이 선호되며, 약물 치료 후 갑상선 기능은 8~12주 후 정상화되면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증상은 호전된다.그러나 증상이 호전돼도 항갑상선제는 12~1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으면 밥맛이 좋아져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무게는 오히려 빠진다.체중 감소는 과도한 갑상선호르몬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신체 대사율이 증가돼 에너지가 평소보다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단 당시 몸무게는 병 때문에 빠진 것이지 자신의 원래 몸무게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갑상선약을 복용하면서 갑상선기능이 정상화되면 병에 의해서 빠진 몸무게는 점차 회복된다. 젊은 여자분들은 갑상선약 때문에 살이 찐다고 착각해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갑상선약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이 아니고 병이 치료되면서 점차 본연의 몸무게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절대 갑상선약을 중단하면 안 되고, 적절한 식사량 조절과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갑상선 환자는 해조류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다시마환을 매일 복용하는 경우와 같이 극단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오드가 풍부한 김이나 미역을 통상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요오드 과다 섭취로 인한 갑상선항진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조절기전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상선질환이 있다고 요오드 섭취를 줄이거나 과도하게 복용할 필요는 없다.안구돌출증이 있는 경우 흡연은 안구돌출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금연이 필요하다. 또한 갑상선기능항진 상태에서 과음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리는 증상 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 과도한 음주나 커피는 피해야 한다. 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10.txt

제목: 알리안츠 생명, 핀테크 연계된 인터넷 보험 영업 확대  
날짜: 20150701  
기자: frei5922@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1100000745  
본문: 알리안츠생명이 핀테크(기술+금융­)와 연계된 인터넷 보험 영업을 확대한다.이명재 알리안츠생명 사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span class='quot0'>고객에게 가장 편리한 디지털 시스템을 제공해 국내 외국계 생명보험사 중 고객 중심, 질적인 면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span>”며 이같이 밝혔다.알리안츠생명은 지난달 태블릿 PC로 보험 가입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서명 청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보험 조회, 지급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모바일센터를 구축하는 등 핀테크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또 알리안츠생명은 인터넷 보험 브랜드인 ‘올라잇’(AllRight)도 공개했다. 올라잇은 저렴한 암보험, 정기보험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건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브랜드다. 이를 위해 알리안츠생명은 글로벌 모바일 건강관리 기술회사인 ‘눔’(Noom)과 제휴를 맺고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인 ‘올라잇 코치’를 출시했다. 이 사장은 “<span class='quot0'>앞으로 건강에 관한 지표를 모니터링해 고객이 운동을 자주 하고 금주를 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신뢰받는 기업 시민의 역할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11.txt

제목: 국립암센터, 재능기부 통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영상 제작 참여  
날짜: 20150630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0104098  
본문:   <br/> <br/> <br/>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재능기부를 통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br/>  <br/>대부분의 말기암 환자들은 호스피스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br/>  <br/>이번 영상 제작은 '하얀거탑'과 '제중원'을 집필한 메디컬 전문작가인 이기원과, KBS드라마 '락 ROCK 樂' 등 다수의 작품을 연출한 前 KBS 이원익 연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배우 안석환과 서이숙 외 다수의 배우 및 촬영 스탭의 재능기부로 완성됐다. <br/> <br/>총 제작 책임은 안석환 배우와 이기원 작가가 맡았고,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 장윤정 과장의 자문을 받아 완성했다. 연출, 촬영, 배우출연 등 전 제작과정이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됐다.  <br/>  <br/>이번 영상의 극본을 집필한 이기원 작가는 "올해 이모님을 호스피스병동에서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다. 호스피스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준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스피스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r/> <br/>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이 같은 재능기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호스피스 환자 및 가족에게 삶의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12.txt

제목: 천안 고교평준화 학교배정 ‘지망순위 무제한 배정’  
날짜: 20150630  
기자: 김정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0049203  
본문: 이인수 충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30일 도교육청에서 2016학년도 천안지역 고표평준화 학교배정방법을 확정 발표했다. 2016학년도부터 실시되는 충남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학교배정방법은 ‘지망순위무제한 배정’으로 이뤄진다. <br/> <br/> 충남도교육청은 30일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학교배정은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학교를 배정하는 ‘지망순위 무제한 배정방법’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br/> <br/> 지망순위 무제한 배정방법은 남학생은 1지망부터 9지망까지, 여학생은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희망하는 학교를 지정해 제출하면 천안지역 고입전형에서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배정 정원의 100%를 학생의 지망 순위에 따라 1지망 지원자부터 컴퓨터 추첨에 의해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br/> <br/> 예를 들면 A고의 모집정원이 400명이고 A고에 1지망으로 300명의 학생이 지원했다면 300명 전원을 A고에 배정하고 나머지 100명은 1지망 지원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2지망 지원학생을 배정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3지망 지원학생, 4지망 지원학생을 순차적으로 배정해 마지막 지원학생까지 배정하게 된다. <br/> <br/> 역으로 A고의 모집정원이 400명이고 A고에 1지망으로 지원한 학생이 500명이라면 컴퓨터 추첨에 의해 A고에 400명을 배정하고 나머지 100명은 2지망 지원 학교에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게 된다. 2지망 지원학교에도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3지망, 4지망 지원 학교에 순차적으로 배정해 마지막 지원학교까지 배정하게 된다. <br/> <br/> 지망순위 무제한 배정에서는 씨드키를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뽑은 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컴퓨터로 배정하게 된다. 이때 주거지나 성적은 선발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즉 아무리 경쟁률이 높은 학교라 하더라도 성적 우수자나 가까운 거리에 집이 있는 지원자가 우선 선발되지 않는 것이다. <br/> <br/>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배정에서 우선 고려된다. 특수한 경우는 천안시 읍·면지역의 중학교 졸업생에 대해 출신 중학교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한 1개의 학교를 제외하고 배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와 체육특기자는 해당 위원회에서 배치한 학교에 배정한다. <br/> <br/> 지체부자유자, 암·희귀·난치병 환자, 국가유공자 자녀, 소년?소녀 가장, 2급 이상 중증 장애부모의 자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거리 고등학교에 배정한다. <br/> <br/> 충남교육청은 천안지역에 맞는 최적의 학교배정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용역을 맡은 공주대학교 연구팀에서는 전국의 사례를 조사 분석해 천안지역에 적용 가능한 4개의 대안적 학교배정방안을 설정하고, 학생·학부모·교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각각의 안에 대해 적합성 검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br/> <br/> 이인수 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비선호학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장거리 통학생에 대한 교통대책 마련,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고등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의 요청이 있었다”며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 <br/>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13.txt

제목: 국립암센터, 재능기부 통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영상 제작 참여  
날짜: 20150630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30100000266  
본문: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재능기부를 통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부분의 말기암 환자들은 호스피스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영상 제작은 '하얀거탑'과 '제중원'을 집필한 메디컬 전문작가인 이기원과, KBS드라마 '락 ROCK 樂' 등 다수의 작품을 연출한 前 KBS 이원익 연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배우 안석환과 서이숙 외 다수의 배우 및 촬영 스탭의 재능기부로 완성됐다.총 제작 책임은 안석환 배우와 이기원 작가가 맡았고,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 장윤정 과장의 자문을 받아 완성했다. 연출, 촬영, 배우출연 등 전 제작과정이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영상의 극본을 집필한 이기원 작가는 "올해 이모님을 호스피스병동에서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다. 호스피스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준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스피스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이 같은 재능기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호스피스 환자 및 가족에게 삶의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14.txt

제목: 천안 고교평준화 학교배정 ‘지망순위 무제한 배정’  
날짜: 20150630  
기자: 김정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30100000843  
본문: 이인수 충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30일 도교육청에서 2016학년도 천안지역 고표평준화 학교배정방법을 확정 발표했다. 2016학년도부터 실시되는 충남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학교배정방법은 ‘지망순위무제한 배정’으로 이뤄진다. 충남도교육청은 30일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학교배정은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학교를 배정하는 ‘지망순위 무제한 배정방법’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망순위 무제한 배정방법은 남학생은 1지망부터 9지망까지, 여학생은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희망하는 학교를 지정해 제출하면 천안지역 고입전형에서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배정 정원의 100%를 학생의 지망 순위에 따라 1지망 지원자부터 컴퓨터 추첨에 의해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A고의 모집정원이 400명이고 A고에 1지망으로 300명의 학생이 지원했다면 300명 전원을 A고에 배정하고 나머지 100명은 1지망 지원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2지망 지원학생을 배정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3지망 지원학생, 4지망 지원학생을 순차적으로 배정해 마지막 지원학생까지 배정하게 된다. 역으로 A고의 모집정원이 400명이고 A고에 1지망으로 지원한 학생이 500명이라면 컴퓨터 추첨에 의해 A고에 400명을 배정하고 나머지 100명은 2지망 지원 학교에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게 된다. 2지망 지원학교에도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3지망, 4지망 지원 학교에 순차적으로 배정해 마지막 지원학교까지 배정하게 된다. 지망순위 무제한 배정에서는 씨드키를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뽑은 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컴퓨터로 배정하게 된다. 이때 주거지나 성적은 선발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즉 아무리 경쟁률이 높은 학교라 하더라도 성적 우수자나 가까운 거리에 집이 있는 지원자가 우선 선발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배정에서 우선 고려된다. 특수한 경우는 천안시 읍·면지역의 중학교 졸업생에 대해 출신 중학교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한 1개의 학교를 제외하고 배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와 체육특기자는 해당 위원회에서 배치한 학교에 배정한다. 지체부자유자, 암·희귀·난치병 환자, 국가유공자 자녀, 소년?소녀 가장, 2급 이상 중증 장애부모의 자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거리 고등학교에 배정한다. 충남교육청은 천안지역에 맞는 최적의 학교배정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용역을 맡은 공주대학교 연구팀에서는 전국의 사례를 조사 분석해 천안지역에 적용 가능한 4개의 대안적 학교배정방안을 설정하고, 학생·학부모·교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각각의 안에 대해 적합성 검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수 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비선호학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장거리 통학생에 대한 교통대책 마련,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고등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의 요청이 있었다”며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15.txt

제목: DGIST, 빅데이터 분석 기반 초고성능 유전자 진단 기술 개발  
날짜: 20150629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5355247  
본문: DGIST(총장 신성철)는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김민수 교수와 뇌·인지과학전공의 구재형 교수 공동연구팀이 유전자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초고성능 유전자 진단 기술(MRPrimer) 개발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br/> <br/>연구팀이 개발한 유전자 진단용 프라이머(Primer) 디자인 기술은 사람이나 동식물의 전체 유전자 데이터에 대해 맵리듀스(MapReduce) 기반의 복잡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프라이머를 자동으로 완벽하게 모두 찾아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초고성능 기술이다. <br/> <br/>기존의 유전자 진단을 위한 대표적 프라이머 디자인 기술인 Primer3은 개별 목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후보 프라이머들을 찾은 후, 사람이 각 프라이머를 검색 알고리즘에 하나씩 입력하며 비목표 유전자들을 검출하는 프라이머들을 제거하는 두 단계를 거쳤다. <br/> <br/>하지만, 이 방법은 검출이 까다로운 목표 유전자에 대해 프라이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사람이 직접 일일이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br/> <br/>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병원 및 실험실에서 Primer3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이 어려워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지 못했다. <br/> <br/>DGIST 연구팀은 개별 목표 유전자가 아닌 종(種) 전체의 수 만 개 유전자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그들 사이의 모든 유전자 조합에 대해 목표 유전자 및 비목표 유전자들을 검출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 이를 맵리듀스 기반의 복잡 알고리즘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했다. <br/> <br/>4년여의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MRPrimer 기술은 유전자가 알려진 생물 종에 대해 프라이머들을 빠짐없이 모두 찾아줌과 동시에 진단율이 우수한 순서대로 결과를 보여주는 뛰어난 성능을 갖춰 유전자 기반의 신종 바이러스 진단, 암 진단,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탐지 등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특히,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을 사람의 유전자 데이터와 함께 MRPrimer에 입력하면 현재 보건업계에서 사용하는 프라이머보다 잠재적으로 진단율이 더 우수한 프라이머들을 수 만 개 이상 찾을 수 있다. <br/> <br/>김민수 교수는 “<span class='quot0'>오늘날 유전체 해독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유전자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종류의 빅데이터가 되고 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빅데이터 기반의 유전자 진단용 MRPrimer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생명정보 SW 기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번 연구 성과는 생물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 ‘뉴클레익 액시드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 온라인판 24일자에 게재됐으며, 연구팀은 생명공학 및 보건위생 분야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MRPrimer 기술을 전 세계에 무료(http://MRPrimer.com에서 다운로드 가능)로 공개했다. <br/> <br/>대구= 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16.txt

제목: DGIST, 빅데이터 분석 기반 초고성능 유전자 진단 기술 개발  
날짜: 20150629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9100000902  
본문: DGIST(총장 신성철)는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김민수 교수와 뇌·인지과학전공의 구재형 교수 공동연구팀이 유전자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초고성능 유전자 진단 기술(MRPrimer) 개발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연구팀이 개발한 유전자 진단용 프라이머(Primer) 디자인 기술은 사람이나 동식물의 전체 유전자 데이터에 대해 맵리듀스(MapReduce) 기반의 복잡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프라이머를 자동으로 완벽하게 모두 찾아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초고성능 기술이다.기존의 유전자 진단을 위한 대표적 프라이머 디자인 기술인 Primer3은 개별 목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후보 프라이머들을 찾은 후, 사람이 각 프라이머를 검색 알고리즘에 하나씩 입력하며 비목표 유전자들을 검출하는 프라이머들을 제거하는 두 단계를 거쳤다.하지만, 이 방법은 검출이 까다로운 목표 유전자에 대해 프라이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사람이 직접 일일이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병원 및 실험실에서 Primer3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이 어려워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지 못했다.DGIST 연구팀은 개별 목표 유전자가 아닌 종(種) 전체의 수 만 개 유전자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그들 사이의 모든 유전자 조합에 대해 목표 유전자 및 비목표 유전자들을 검출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 이를 맵리듀스 기반의 복잡 알고리즘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했다.4년여의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MRPrimer 기술은 유전자가 알려진 생물 종에 대해 프라이머들을 빠짐없이 모두 찾아줌과 동시에 진단율이 우수한 순서대로 결과를 보여주는 뛰어난 성능을 갖춰 유전자 기반의 신종 바이러스 진단, 암 진단,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탐지 등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을 사람의 유전자 데이터와 함께 MRPrimer에 입력하면 현재 보건업계에서 사용하는 프라이머보다 잠재적으로 진단율이 더 우수한 프라이머들을 수 만 개 이상 찾을 수 있다.김민수 교수는 “<span class='quot0'>오늘날 유전체 해독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유전자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종류의 빅데이터가 되고 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빅데이터 기반의 유전자 진단용 MRPrimer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생명정보 SW 기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span>”고 말했다.이번 연구 성과는 생물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 ‘뉴클레익 액시드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 온라인판 24일자에 게재됐으며, 연구팀은 생명공학 및 보건위생 분야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MRPrimer 기술을 전 세계에 무료(http://MRPrimer.com에서 다운로드 가능)로 공개했다.대구= 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17.txt

제목: "건보 4대 중증질환 치중… 다른 질환자에 역차별"  
날짜: 201506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9100000160  
본문: 국민건강보험이 4대 중증질환 보장에만 치중해 그 외의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8일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보험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보험금융연구’에 게재한 ‘건강보험의 질병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4대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해 2016년까지 환자 부담을 50∼8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는 평균 131.3% 증가했다. 뇌혈관질환이 214.5%, 심장질환이 129.8%, 암이 116.7%, 희귀난치성 질환이 72.4% 증가했다. 이에 비해 소아마비, 뇌성마비, 알츠하이머 등 다른 중증질환의 의료비는 평균 151.2% 늘었다. 일부 4대 중증질환보다 의료비 부담이 더 큰 것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4대 중증질환에서 제외된 병을 앓는 사람들이 산정특례제도 보장성 강화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소득이 높은 암환자는 산정 특례제도 혜택을 받지만 소득이 턱없이 낮아도 다른 중증질환에 걸리면 산정특례제도 혜택에서 소외된다</span>”고 지적했다. 그는 “<span class='quot0'>특정 질병을 위주로 보장해주는 산정특례제도 대신 소득수준별로 보장률을 차등화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span>”고 제언했다.이진경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18.txt

제목: 전남 학교 10곳 중 8곳 석면위험 노출  
날짜: 20150629  
기자: 한승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9100000004  
본문: 전남도 내 학교 10곳 중 8곳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전남도교육청과 교육부의 ‘학교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 및 위해성 평가 등급’(최초조사 기준)에 따르면 도내 1459개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1164곳이 여전히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로는 전체 79.8%에 이른다.특히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92.96%, 9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수학교는 8곳 중 6곳에서 석면을 사용해 75%, 유치원도 553곳 중 60.4%에 달하는 334곳이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석면의 위해성 등급은 정도에 따라 ‘매우 높음’, ‘중간’, ‘낮음’ 등 3등급으로 나뉘는데 전남지역은 다행히 모든 학교가 ‘낮음’ 판정을 받았다. ‘낮음’은 잠재적 석면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span class='quot0'>교육부는 석면 제거 예산을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국고를 편성해 직접 해결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1'>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 매년 30억∼40억원을 투입해 학교 건물 수선 및 개·보수 시에 석면 제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취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가루를 호흡 등을 통해 흡입할 경우 폐 속에서 종양을 만들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19.txt

제목: "이건 꼭 알아 두세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날짜: 201506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9100000570  
본문: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반기부터 여성 정책의 근간이 됐던 ‘여성발전기본법’이 남녀 모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된다. 또 모든 어린이집은 12월18일까지 보육실과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마다 CC(폐쇄회로) TV를 한 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7월부터 전력소비가 많은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인하되며, 10월부터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의 모든 자동이체가 새 계좌로 옮겨진다.◆금융·세제·관세▲계좌이동제 시행=7월부터 금융결제원의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각종 공과금, 통신료, 보험료 등 출금이체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진다.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 선택=7월1일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80%, 100%, 120%)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의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소액면세·목록통관한도 150달러로 상향=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면세 한도를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올린다. 그동안은 물품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원 이하에 소액면세를 적용했다. 목록통관대상 물품가격도 현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린다. ◆노동▲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강화=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많아진다. 1인당 월 지원금이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 강화=지금까지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 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승소 확정판결 일자는 2015년 7월1일 이후여야 한다. ◆산업·에너지·무역▲전기요금 한시적 인하=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돼 4인 도시가구(월 366㎾h 사용 전제) 기준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중소기업 8만1000여곳에는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경감해 준다.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며, 가구별 지급 규모는 총 1058억원 규모로 3개월간 평균 10만6000원이다. ▲농식품·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중점 판매하는 공영 TV 홈쇼핑이 7월 7번째 홈쇼핑으로 출범한다. ◆보건·복지▲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로=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 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만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을 이용할 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진료비는 하루마다 정해지는 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한다. ▲모든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모든 어린이집은 12월18일까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마다 CCTV를 한 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자는 아동이 학대나 안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교육·행정▲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시범도입=대학의 명강의를 누구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가 9월쯤 시범도입된다. 서울대와 고려대, 포항공과대 등 10개 대학에서 27개 강좌가 우선 선보인다.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되고 영어 자막이 제공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민세 면제=의료급여 수급권자(13만명)는 올해 8월분부터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음식점·PC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전국의 15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등 5개 다중이용업종 2만7797곳은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업소에는 기간에 따라 30만∼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농림·축산▲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농어촌 민박은 이용객 대상 음식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7월7일부터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여객선 안전을 점검하는 운항관리자의 소속이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바뀐다.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 선령 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하고,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을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사법·경찰▲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 CCTV 설치=가정폭력 피해자가 추가로 해를 입지 않도록 7월1일부터 피해자의 집 주변에 CCTV가 설치되고 경찰은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도입=11월19일부터 미혼부가 아기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무연고 사망자 통보제 시행=7월1일부터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친권 정지·제한 재판제도 시행=10월16일부터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나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일반인 경찰제복류 착용하면 처벌=일반인이 경찰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휴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제조·판매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제도 시행은 12월31일부터다. ◆여성·환경▲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된다. 남녀 모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모성권 외에 부성권이 보장된다.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같은 주기로 양성평등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결과 의무공개=8월4일 시행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결과가 의무 공개돼 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 ◆국방·보훈▲군인 전투복 태극기 부착=8월부터 모든 장병의 전투복에 태극기 마크가 부착된다. 태극기 크기는 가로 8㎝, 세로 5.3㎝로 일반색과 위장색 두 종류다. 전투복 우측 어깨 재봉선 하단이나 팔주머니 덮개 부분에 떼고 붙일 수 있다. ▲예비군 사격훈련체계 개선=지난 5월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의 안전한 훈련을 위해 사격훈련체계가 개선된다. 총기를 고정하는 틀과 안전고리를 표준화하고 안전고리는 통제관이 스마트키로 관리해 예비군이 개폐할 수 없도록 한다.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 보급=군 복무 중인 병사의 부모가 자식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영 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 4만4686대(생활관당 1대꼴)가 보급된다.편집국 종합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20.txt

제목: 고령 아니고 지병도 없는데 메르스 감염 사망…왜?  
날짜: 20150628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4921022  
본문: 고령이 아니고 기저질환도 없어 이른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사망자가 1명 더 발생해 총 3명으로 늘었다. <br/> <br/>28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사망한 104번째 메르스 환자는 55세 남성으로 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지 않았다. <br/> <br/>104번 환자는 지난달 27일께 14번 환자가 입원했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8일 만에 사망했다. <br/> <br/>이 환자 외에도 65세 미만으로 기저질환 없이 사망한 메르스 환자가 2명 더 있다. <br/> <br/>81번 환자는 62세 남성으로 고위험군이 아니었으나 메르스 치료 중 호흡 곤란과 폐렴이 악화해 숨졌다. 또 58세 남성인 98번 환자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신장 기능이 나빠져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대책본부는 메르스 방역 초기 사망자가 나올 때마다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격리 관찰 대상자 가운데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에게만 시설 격리를 유도하기도 했다. <br/> <br/>72세 여성인 51번 환자와 65세 남성인 123번 환자가 사망했을 때도 이들이 기저질환이 없었지만 고령이거나 혈압이 높아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다. <br/> <br/>사망자 총 32명 중 고위험군은 29명으로 90.6％를 차지한 반면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은 환자는 3명으로 9.4％ 그친다. 그러나 방역 당국이 전체 환자를 고위험군 또는 비고위험군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각각의 치명률은 산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br/> <br/>그러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환자가 잇달아 사망하면서 대책본부의 대응이 충분치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위험군 분류 기준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br/> <br/>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32명으로 남성이 22명(68.8％), 여성이 10명(31.3％)이다. 사망자 연령은 60대와 70대가 각각 10명(31.3％)로 가장 많았다. 80대가 6명(18.8％), 50대가 5명(15.6％), 40대가 1명(3.1％)으로 뒤를 이었다. <br/> <br/>김현주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21.txt

제목: 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사망자 1명 추가 50대 '기저질환 없었다' 고령 주의보  
날짜: 2015062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4934774  
본문: 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 메르스 확진자 수 <br/>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사망자 1명 추가 50대 '기저질환 없었다' 고령 주의보  <br/> <br/>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 메르스 확진자는 182명을 유지,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32명이 됐다. <br/> <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8일 오전 9시 메르스 확진자 수는 추가 확진자 없어 전날과 동일한 182명이며 사망자와 퇴원자는 각각 1명씩 늘어 32명, 91명으로 집계됐다고 메르스 현황을 발표했다. <br/> <br/>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것은 지난 20일 이후 처음이다. <br/> <br/>전체 사망자 32명 가운데 만성질환이 있거나 고연령층인 고위험군은 29명(90.6%)이다. <br/> <br/>한편, 추가된 사망자 1명 104번(55) 환자는 특별한 기저질환을 겪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전체 사망자 중 남성이 22명(68.8%)으로 여성(10명·31.3%)의 2배가 넘는다. 연령별로는 60대·70대가 각 10명씩(31.3%)으로 가장 많았다. 80대 6명(18.8%), 50대 5명(15.6%), 40대 1명(3.1%) 순이었다. <br/> <br/>전체 사망자 중 각종 만성질환자(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나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은 29명(90.6%)이다. <br/> <br/>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 메르스 확진자 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 메르스 확진자 수, 더 안나왔으면 좋겠다" "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 메르스 확진자 수, 사망자도 없어야 할텐데" "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 메르스 확진자 수,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22.txt

제목: "건강보험 4대 중증질환 보장에만 치중…역차별 소지"  
날짜: 201506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8100000236  
본문: 국민건강보험이 4대 중증질환 보장에만 치중해 이외의 중증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을 지는 환자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최근 보험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인 '보험금융연구'에 실린 '건강보험의 질병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소득이 낮은 계층이 다른 중증질환에 걸리면 4대 중증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사망률이 높은데다 발병하면 장기간 치료와 고액의 의료비가 요구되는 질병이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산정 특례제도를 운영, 2016년까지 환자 부담을 50∼8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문제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된 정부의 보장률 확대 정책이 고액의 의료비가 드는 다른 중증질환자에 대해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해외 주요국 중에선 우리나라처럼 특정 질병에 한정해 보험의 혜택을 집중하는 나라가 없다"며 "산정 특례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활용하는 보건의료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민의 보건의료 이용실태 등을 위한 기초자료인 한국 의료패널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4대 중증질환에 걸리면 의료비는 평균 13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혈관질환자 의료비가 214.5% 증가했고 심장질환(129.8%), 암(116.7%), 희귀난치성 질환(72.4%)의 증가율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소아마비, 뇌성마비, 알츠하이머병 등 4대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중증질환에 걸리면 의료비는 평균 151.2% 증가, 일부 4대 중증질환보다 더 큰 의료비 부담을 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일부 질환자는 4대 중증질환보다 의료비가 더 많이 증가한다"며 "이들은 산정 특례제도 보장성 강화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산정 특례제도는 질환자의 소득수준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소득이 높은 암환자는 산정 특례제도 혜택을 받지만 소득이 턱없이 낮아도 다른 중증질환에 걸리면 산정 특례제도 혜택에서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정 질병을 위주로 보장해주는 산정 특례제도 대신 소득수준별로 보장률을 차등화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김 교수는 "산정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수준별로 보장률을 차등화하는 본인부담상한제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 간 형평성 문제,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의료에만 해당하는 만큼 고액의 비급여 의료 부담을 줄이려면 중증질환 치료에 수반되는 비급여 의료 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23.txt

제목: "건보 4대 중증질환 치중… 다른 질환자에 역차별"  
날짜: 20150628  
기자: 이진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810017733240  
본문: 국민건강보험이 4대 중증질환 보장에만 치중해 그 외의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br/> <br/>28일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보험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보험금융연구’에 게재한 ‘건강보험의 질병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4대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해 2016년까지 환자 부담을 50∼8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br/> <br/>김 교수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는 평균 131.3% 증가했다. 뇌혈관질환이 214.5%, 심장질환이 129.8%, 암이 116.7%, 희귀난치성 질환이 72.4% 증가했다. 이에 비해 소아마비, 뇌성마비, 알츠하이머 등 다른 중증질환의 의료비는 평균 151.2% 늘었다. 일부 4대 중증질환보다 의료비 부담이 더 큰 것이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4대 중증질환에서 제외된 병을 앓는 사람들이 산정특례제도 보장성 강화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소득이 높은 암환자는 산정 특례제도 혜택을 받지만 소득이 턱없이 낮아도 다른 중증질환에 걸리면 산정특례제도 혜택에서 소외된다</span>”고 지적했다. 그는 “<span class='quot0'>특정 질병을 위주로 보장해주는 산정특례제도 대신 소득수준별로 보장률을 차등화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span>”고 제언했다. <br/> <br/>이진경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24.txt

제목: 전남 학교 10곳 중 8곳 석면위험 노출  
날짜: 20150628  
기자: 한승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810017733144  
본문: 전남도 내 학교 10곳 중 8곳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28일 전남도교육청과 교육부의 ‘학교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 및 위해성 평가 등급’(최초조사 기준)에 따르면 도내 1459개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1164곳이 여전히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로는 전체 79.8%에 이른다. <br/> <br/>특히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92.96%, 9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수학교는 8곳 중 6곳에서 석면을 사용해 75%, 유치원도 553곳 중 60.4%에 달하는 334곳이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석면의 위해성 등급은 정도에 따라 ‘매우 높음’, ‘중간’, ‘낮음’ 등 3등급으로 나뉘는데 전남지역은 다행히 모든 학교가 ‘낮음’ 판정을 받았다. ‘낮음’은 잠재적 석면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다. <br/> <br/>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span class='quot0'>교육부는 석면 제거 예산을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국고를 편성해 직접 해결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1'>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 매년 30억∼40억원을 투입해 학교 건물 수선 및 개·보수 시에 석면 제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취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br/> <br/>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가루를 호흡 등을 통해 흡입할 경우 폐 속에서 종양을 만들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br/> <br/>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25.txt

제목: 메르스 환자 절반 완치…2명 중 1명은 40∼50대  
날짜: 201506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8100000100  
본문: 부산의 두 번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이자 143번 환자인 이모(31·가운데)씨 지난 25일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하며 김상범 병원장(왼쪽)과 주치의 이혁 교수의 격려를 받고 있다.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절반이 완치됐다. 완치자 수가 환자 수의 절반에 이른 것은 감염 확산 후 처음이다. 완치자 중 절반은 비교적 젊은 40∼50대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96번 환자(42·여) 환자가 새로 완치됐다. 91번째 완치자다. 추가 확진자가 없어 확진자 수는 전날과 같은 182명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완치된 96번 환자는 지난달 27∼30일 14번 환자가 입원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됐다. 이달 8일 1차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원지역 첫 확진자인 96번 환자는 최근 두 차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그는 암 투병 중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여서 당분간 병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첫 완치자는 이달 6일 퇴원한 2번 환자(63·여)였다. 2번 환자는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번 환자의 부인으로,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2번 환자가 퇴원한 뒤 완치자가 거의 매일 나왔지만 이달 8일 하루 만에 확진자가 23명이나 증가하는 등 한동안 감염이 빠르게 확산해 확진자 대비 완치자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했다. 이후 추가 확진자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24일 13명이 한꺼번에 퇴원하는 등 완치자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완치된 91명은 남성이 48명(52.7％), 여성이 43명(47.3％)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3명(25.3％), 50대가 22명(24.2％)이었다. 40∼50대가 전체 완치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이밖에 30대가 15명(16.5％), 60대가 14명(15.4％), 70대가 10명(11.0％)으로 뒤를 이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26.txt

제목: 고위험군 아닌 메르스 환자 또 사망…이번이 3번째  
날짜: 201506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8100000362  
본문: 고령이 아니고 기저질환도 없어 이른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사망자가 1명 더 발생해 총 3명으로 늘었다. 28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사망한 104번째 메르스 환자는 55세 남성으로 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지 않았다. 104번 환자는 지난달 27일께 14번 환자가 입원했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8일 만에 사망했다. 이 환자 외에도 65세 미만으로 기저질환 없이 사망한 메르스 환자가 2명 더 있다. 81번 환자는 62세 남성으로 고위험군이 아니었으나 메르스 치료 중 호흡 곤란과 폐렴이 악화해 숨졌다. 또 58세 남성인 98번 환자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신장 기능이 나빠져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책본부는 메르스 방역 초기 사망자가 나올 때마다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격리 관찰 대상자 가운데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에게만 시설 격리를 유도하기도 했다. 72세 여성인 51번 환자와 65세 남성인 123번 환자가 사망했을 때도 이들이 기저질환이 없었지만 고령이거나 혈압이 높아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다. 사망자 총 32명 중 고위험군은 29명으로 90.6％를 차지한 반면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은 환자는 3명으로 9.4％ 그친다. 그러나 방역 당국이 전체 환자를 고위험군 또는 비고위험군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각각의 치명률은 산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환자가 잇달아 사망하면서 대책본부의 대응이 충분치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위험군 분류 기준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32명으로 남성이 22명(68.8％), 여성이 10명(31.3％)이다.사망자 연령은 60대와 70대가 각각 10명(31.3％)로 가장 많았다. 80대가 6명(18.8％), 50대가 5명(15.6％), 40대가 1명(3.1％)으로 뒤를 이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27.txt

제목: 고령 아니고 지병도 없는데 메르스 감염 사망…왜?  
날짜: 201506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8100000060  
본문: 고령이 아니고 기저질환도 없어 이른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사망자가 1명 더 발생해 총 3명으로 늘었다.28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사망한 104번째 메르스 환자는 55세 남성으로 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지 않았다.104번 환자는 지난달 27일께 14번 환자가 입원했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8일 만에 사망했다.이 환자 외에도 65세 미만으로 기저질환 없이 사망한 메르스 환자가 2명 더 있다.81번 환자는 62세 남성으로 고위험군이 아니었으나 메르스 치료 중 호흡 곤란과 폐렴이 악화해 숨졌다. 또 58세 남성인 98번 환자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신장 기능이 나빠져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책본부는 메르스 방역 초기 사망자가 나올 때마다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격리 관찰 대상자 가운데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에게만 시설 격리를 유도하기도 했다.72세 여성인 51번 환자와 65세 남성인 123번 환자가 사망했을 때도 이들이 기저질환이 없었지만 고령이거나 혈압이 높아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다.사망자 총 32명 중 고위험군은 29명으로 90.6％를 차지한 반면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은 환자는 3명으로 9.4％ 그친다. 그러나 방역 당국이 전체 환자를 고위험군 또는 비고위험군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각각의 치명률은 산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환자가 잇달아 사망하면서 대책본부의 대응이 충분치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위험군 분류 기준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32명으로 남성이 22명(68.8％), 여성이 10명(31.3％)이다. 사망자 연령은 60대와 70대가 각각 10명(31.3％)로 가장 많았다. 80대가 6명(18.8％), 50대가 5명(15.6％), 40대가 1명(3.1％)으로 뒤를 이었다.김현주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28.txt

제목: 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사망자 1명 추가 50대 '기저질환 없었다' 고령 주의보  
날짜: 20150628  
기자: 박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8100000397  
본문: 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 메르스 확진자 수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사망자 1명 추가 50대 '기저질환 없었다' 고령 주의보 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 메르스 확진자는 182명을 유지,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32명이 됐다.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8일 오전 9시 메르스 확진자 수는 추가 확진자 없어 전날과 동일한 182명이며 사망자와 퇴원자는 각각 1명씩 늘어 32명, 91명으로 집계됐다고 메르스 현황을 발표했다.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것은 지난 20일 이후 처음이다.전체 사망자 32명 가운데 만성질환이 있거나 고연령층인 고위험군은 29명(90.6%)이다.한편, 추가된 사망자 1명 104번(55) 환자는 특별한 기저질환을 겪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전체 사망자 중 남성이 22명(68.8%)으로 여성(10명·31.3%)의 2배가 넘는다. 연령별로는 60대·70대가 각 10명씩(31.3%)으로 가장 많았다. 80대 6명(18.8%), 50대 5명(15.6%), 40대 1명(3.1%) 순이었다.전체 사망자 중 각종 만성질환자(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나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은 29명(90.6%)이다.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 메르스 확진자 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 메르스 확진자 수, 더 안나왔으면 좋겠다" "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 메르스 확진자 수, 사망자도 없어야 할텐데" "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 메르스 확진자 수,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29.txt

제목: 원주 여성 확진자 '완치'…강릉 의심환자 '음성'  
날짜: 201506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7100000500  
본문: 강원도 메르스비상방역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도내 첫 번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96번 확진 환자인 A씨(42·여)가 최근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7·8차 검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검사에서는 양성과 음성 경계를 넘나드는 미결정이었다.의료진은 A씨가 완치됐지만, 암 투병 중 치료를 받으며 면역력이 떨어지고 다른 질환이 있어 당분간 입원치료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로써 도내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 5명 중 3명이 완치됐다.A씨는 지난달 27∼30일 14번 확진자가 입원 중이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거쳐 입원, 치료받고서 지난 8일 원주의 한 병원 1차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A씨를 병문안하고서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은 97번 확진자 B씨(46)도 기저질환으로 천식을 앓았으나 메르스를 이겨내고 지난 24일 퇴원했다.이와 함께 강릉의료원에서 입원 투석치료를 받다가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여 음압병실로 옮긴 3명도 이날 음성판정을 받았다.의료진은 투석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발열 현상 등으로 보고 있으나 만일에 대비 집중하여 치료하고 있다.도내 5번째 확진 환자인 강릉의료원 간호사 C씨(54·여)는 투석환자들이 의심증상을 보여 음압병실로 옮김에 따라 전날 A씨와 함께 강원대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틀 만에 정상체온을 회복하는 등 안정적이다.C씨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지난 12일 도내 4번째 확진 환자인 D씨(55)를 서울로 이송하고서 보호복을 벗을 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한때 위중했으나 현재는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대책본부는 이날 현재 입원 또는 자가 격리자와 격리 해제자는 각각 1명씩 증가한 183명과 237명으로 집계했다.한편 의료진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강릉의료원은 지난 22일 외래진료를 폐쇄한 데 이어 전날부터 '코호트 격리'(환자 발생 병동을 의료진과 함께 폐쇄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30.txt

제목: 메르스 현황, 메르스 확진1명 추가돼 182명...'협동은 기적을 낳는다!' '메르스 OUT' 눈길  
날짜: 20150627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710017730170  
본문: 메르스 현황, 메르스 확진1명 추가돼 182명...`협동은 기적을 낳는다!` `메르스 OUT` 눈길메르스 현황, 메르스 확진1명 추가돼 182명...'협동은 기적을 낳는다!' '메르스 OUT' 눈길 <br/> <br/>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1명 추가돼 총 182명으로 늘어났다. <br/> <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7일 메르스 감염자가 1명 추가돼 총 182명으로 늘었고, 8명이 완치돼 퇴원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없었다. <br/> <br/>신규 확진자인 182번 환자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여, 27)다. 76번 환자(여, 75)가 강동경희대병원을 들렀던 6월 5일 이후 확진까지 22일이 걸렸다. <br/> <br/>이 병원 내 메르스 감염자는 총 5명으로 증가했다. 그중 의료진은 160번 환자까지 포함해 총 2명이다. <br/> <br/>현재까지 추가 사망자는 없었다. 총 사망자 31명의 성별은 남성 21명(67.7%), 여성 10명(32.3%)이며, 나이는 60대·70대가 각각 10명(32.3%)으로 가장 많고, 80대 6명(19.4%), 50대 4명(12.9%), 40대 1명(3.2%) 순이다. <br/> <br/>사망자 중 각종 만성질환자(암, 심장·폐·신장 질환, 당뇨, 면역저하 질환 등 기저 질환 보유자)나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은 29명(93.5%)이다. <br/> <br/>한편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동경희대병원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br/> <br/>병원은 카톡(카카오톡) 캠페인을 통해 병원에서 메르스를 쫓아내기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 바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변경해 모든 직원이 메르스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br/> <br/>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에는 '협동은 기적을 낳는다!'라는 문구와 함께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행정, 콜센터, 미화, 보안팀 등 병원의 모든 구성원이 손을 맞잡고 '메르스 OUT'을 외치고 있다. 해당 이미지는 강동경희대병원 페이스북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31.txt

제목: 한미약품,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자체 개발 중인 당뇨 신약 가치 입증  
날짜: 20150626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4141353  
본문:   <br/> <br/> <br/>한미약품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제75회 미국 당뇨병 학회(이하 ADA)에서 현재 개발 중인 4개의 당뇨 신약 가치를 보다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br/> <br/>ADA는 약 130여 개국에서 1만8000여 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최대의 당뇨병 학회로, 세계적 명성에 힘입어 이번 75회 ADA 역시 화이자, 사노피,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적 제약기업들이 현재 진행 중인 당뇨 관련 최신 임상 결과들을 쏟아냈다. <br/> <br/>한미약품도 이번 학회에서 총 4개의 당뇨신약과 11건의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당뇨 치료의 새로운 비전 제시에 동참했다. <br/> <br/>한미약품이 발표한 11건 과제 중 4건은 구연발표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는 국내 제약기업 중 유일한 사례이자 한미약품 R&D 성과에 대한 글로벌 연구자와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 <br/> <br/>특히, 이번에 발표된 신약 중 GLP-1 계열의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최대 월 1회 투여 가능한 약물, 비만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 등을 입증한 후기 2상 과제 3건으로 주목받았다. <br/> <br/>3건의 연구과제 중 구연 발표된 HM-EXC-203은주 1회 용법으로서의 혈당조절 능력은 물론, 체중감소 효과를 입증했으며, 경쟁 약물인 Liraglutide(제품명 빅토자)와의 비교에서 우위에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br/> <br/>에페글레나타이드와 주 1회 제형 인슐린을 결합한 LAPSInsulin Combo의 연구결과 역시, 당뇨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받았다. <br/> <br/>인슐린 단일요법 시 수반되는 저혈당 쇼크 및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을 두 약제의 결합에 따른 치료적 장점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확인한 것이다. <br/> <br/>실제로 당뇨 동물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된 LAPSInsulin Combo 관련 연구는 단일용법과 비교해 혈당감소 및 체중감소 효과 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br/> <br/>특히, 주 1회 제형으로서의 인슐린과 GLP-1 계열의 콤보제형은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개발이란 점에서 LAPSInsulin Combo가 상용화될 경우, 향후 세계 당뇨 치료제 시장 트렌드를 바꿀 수 있다는 평가다. <br/> <br/>이 외에도 한미약품은 GLP-1 계열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Glucagon 결합체인LAPSGLP/GCG의 연구결과도 발표했는데, 이는 당뇨와 비만에 각각 적용한 신개념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br/> <br/>한편 한미약품은 과감한 R&D 투자에 따른 결실을 올해 초부터 하나씩 선보이고 있다. <br/> <br/>지난 3월 한미약품이 미국 일라이릴리에 면역질환치료제(HM71224)를 6억8000만 달러(계약금 및 마일스톤 포함, 로열티 별도) 규모로 기술수출한 사례는 국내 최대의 R&D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br/> <br/>또한 다중표적 항암신약 포지오티닙(Poziotonib)을 미국 스펙트럼사와 중국 루예제약그룹에 기술수출함으로써 당뇨와 항암제 분야에서의 글로벌신약 개발 가능성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br/> <br/>이번 ADA 직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최대 암 학회인 ASCO에서 발표한 HM61713의 임상 1/2상 중간결과는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폐암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항암신약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br/> <br/>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는 "국내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들이 글로벌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글로벌신약 창출을 통해 회사의 비약적인 성장은 물론, 한국이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목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32.txt

제목: 시한부 소년 위해 아름다운 연기 펼친 여배우···"감동"  
날짜: 20150626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4008181  
본문: 올리버와 여배우 헬렌의 `감동적인 만남`여왕을 만나는 것이 꿈인 시한부 소년을 위해 아름다운 연기를 펼친 여배우는 소년의 마지막 꿈을 이뤄줘 가슴 따뜻한 감동을 모두에게 전했다. <br/> <br/>25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는 시한부 소년 올리버 버튼(10)과 아름다운 여배우 헬렌 미렌(67)의 '감동적인 만남'을 소개했다. <br/> <br/>짧은 인생 대부분을 백혈병과 싸워왔던 올리버. 올리버는 3살 때 다운증후군 진단 후 3차례의 큰 수술을 받았다. <br/> <br/>어린 나이에 견디기 힘든 일들을 겪어서일까. 올리버는 암 진단으로 "더는 치료가 어려워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사의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다. <br/> <br/>언제나 병과 힘든 싸움을 해야 했던 올리버. 가족은 그런 아들을 위해 눈물을 감추고 마지막 소원인 여왕과의 만남을 이뤄주기 위해 노력했다. <br/> <br/>'간절히 원하면 이뤄진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친구와 가족을 시작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올리버의 소원목록'과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올리버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응원과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다. <br/> <br/>"올리버가 즐거운 여행을 하길 바란다"고 말한 익명 기부자의 1만 파운드(약 1757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올리버가 치료받았던 영국 국립 어린이 백혈병 센터는 올리버의 소원을 영화관계자와 공유해 '영화 더 퀸'의 무대와 여왕으로 열연을 한 헬렌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br/>`여왕의 다과회`. 올리버는 소원했던 여왕과 만날 수 있었다.그렇게 '여왕의 다과회'에 초청받은 올리버는 준비된 리무진을 타고 소원했던 여왕과 만날 수 있었다. <br/> <br/>그날 올리버를 위해 연기한 헬렌은 그 어느 때 보다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며 모두를 감동시켰다. <br/> <br/>올리버의 아버지 제임스 브라운(32)은 "아들은 그녀가 진짜 여왕이라 믿었다"며 "많은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br/>영화 `더 퀸`에서 여왕 역할을 한 영국 여배우 헬렌 미렌.그날 올리버는 여왕 헬렌으로부터 기사 호칭을 받았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허핑턴포스트, 페이스 북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33.txt

제목: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졌다”  
날짜: 20150626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3834388  
본문:   <br/> <br/>웹툰 '외모지상주의'가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작가 박태준과 아버지와의 불화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br/> <br/>박태준은 지난 3월 방송된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 출연해 "어린 시절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br/> <br/>박태준은 이어 "어릴 때부터 집이 화목과는 거리가 멀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난 아버지와 주먹 싸움까지 했다"라고 고백해 깜짝 놀라게 했다. <br/> <br/>박태준은 "과거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가장으로서의 노력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했다. 고3 때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서 나왔다"며 "그런데도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버지가 밤늦게 귀가해 할머니에게 밥을 차리라며 화를 내시더라. 그때 10년 동안 쌓인 게 폭발했다. 아버지께 대들며 패륜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br/> <br/>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작가, 어린 시절 그런 일이 있었구나</span>” “<span class='quot1'>‘외모지상주의’ 박태준, 힘들었겠다</span>” “<span class='quot1'>‘외모지상주의’ 박태준,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겠다</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김선희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34.txt

제목: 비타민 C 결핍증, 여름철 질환별 주의해야할 과일은?  
날짜: 20150626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610017713545  
본문: 비타민 C 결핍증 (사진= 네이버)비타민 C 결핍증, 여름철 질환별 주의해야할 과일은? <br/> <br/>비타민 C 결핍증에 이어 질환별 주의할 과일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br/> <br/>여름철 제철과일인 참외와 수박은 신장질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br/> <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장질환자의 칼륨 배설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참외와 수박 등 칼륨이 많이 든 과일이나 과일주스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br/> <br/>칼륨이 많이 든 과일을 섭취할 경우 혈장 속 칼륨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고칼륨혈증에 걸리면 근육의 힘이 약해져 손발이 저리고 다리가 무거워질 뿐 아니라 심장에 부정맥이 발생할 수도 있다. <br/> <br/>특히 만성신장질환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칼륨이 많이 포함된 과일만 섭취해도 심장장애뿐만 아니라 감각 이상과 반사저하, 호흡부전 증세를 호소할 수 있다. <br/> <br/>제산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오렌지를, 고지혈증 환자는 자몽을 피하는 것이 좋다. <br/> <br/>또한 당뇨병 환자가 과일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갑자기 오를 수 있으며, 암 환자 역시 항암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일을 익혀먹는것이 좋다. <br/> <br/>한편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잇몸이 물러지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출혈이 생길 수 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35.txt

제목: 시한부 소년 위해 아름다운 연기 펼친 여배우···"감동"  
날짜: 201506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6100000896  
본문: 올리버와 여배우 헬렌의 `감동적인 만남`여왕을 만나는 것이 꿈인 시한부 소년을 위해 아름다운 연기를 펼친 여배우는 소년의 마지막 꿈을 이뤄줘 가슴 따뜻한 감동을 모두에게 전했다.25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는 시한부 소년 올리버 버튼(10)과 아름다운 여배우 헬렌 미렌(67)의 '감동적인 만남'을 소개했다.짧은 인생 대부분을 백혈병과 싸워왔던 올리버. 올리버는 3살 때 다운증후군 진단 후 3차례의 큰 수술을 받았다.어린 나이에 견디기 힘든 일들을 겪어서일까. 올리버는 암 진단으로 "더는 치료가 어려워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사의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다.언제나 병과 힘든 싸움을 해야 했던 올리버. 가족은 그런 아들을 위해 눈물을 감추고 마지막 소원인 여왕과의 만남을 이뤄주기 위해 노력했다.'간절히 원하면 이뤄진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친구와 가족을 시작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올리버의 소원목록'과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올리버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응원과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다."올리버가 즐거운 여행을 하길 바란다"고 말한 익명 기부자의 1만 파운드(약 1757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올리버가 치료받았던 영국 국립 어린이 백혈병 센터는 올리버의 소원을 영화관계자와 공유해 '영화 더 퀸'의 무대와 여왕으로 열연을 한 헬렌과의 만남을 주선했다.`여왕의 다과회`. 올리버는 소원했던 여왕과 만날 수 있었다.그렇게 '여왕의 다과회'에 초청받은 올리버는 준비된 리무진을 타고 소원했던 여왕과 만날 수 있었다.그날 올리버를 위해 연기한 헬렌은 그 어느 때 보다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며 모두를 감동시켰다.올리버의 아버지 제임스 브라운(32)은 "아들은 그녀가 진짜 여왕이라 믿었다"며 "많은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영화 `더 퀸`에서 여왕 역할을 한 영국 여배우 헬렌 미렌.그날 올리버는 여왕 헬렌으로부터 기사 호칭을 받았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사진= 허핑턴포스트, 페이스 북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36.txt

제목: =====완료=====속온/‘빨간약’ 굴사남 출연, 우즈베키스탄 요리 선보인다  
날짜: 20150626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6100000731  
본문: [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우즈베키스탄 출신 며느리 굴사남이 ‘빨간약’에 출연한다. 최근 ‘엄마의 탄생’을 통해 둘째 득남 소식을 알린 우즈베키스탄 며느리 굴사남이 오는 27일 방송예정인 건강의학 정보채널 헬스메디tv ‘빨간약’에 출연, 산모와 임산부에 좋은 우즈베키스탄의 힐링푸드를 소개한다. 이날 굴사남은 우즈베키스탄을 “실크로드의 중심지이자 동서양의 문화를 모두 가진 나라”로 소개하며, “음식 또한 동서양의 맛을 모두 음미할 수 있다”고 자국의 전통 요리에 대한 자긍심을 보였다. 특히 “산후 조리에 좋은 음식이 많다“면서 음식 소개에 앞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이어 이태원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 식당에 방문, 우즈베키스탄의 양갈비 요리와 전통 음식 ‘쏨사’, ‘라그만 등을 소개한다. 굴사남은 “양갈비 요리는 철분, 칼슘이 풍부해 산후조리에 탁월하며, 채소와 고기가 듬뿍 들어가는 ‘쏨사’는 임산부의 필수 영양소인 엽산이 풍부하다. 또한 ‘라그만’은 입덧에 좋은 토마토가 듬뿍 들어가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빨간약’ 11회에서는 여에스더 박사가 들려주는 자궁암에 대한 이야기도 전파를 탄다. 여에스더는 “자궁경부암은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자궁경부암 백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아림은 아이들의 아토피피부염에 대해 상세히 알려준다. 민아림 전문의는 “지난 5년간 아토피피부염으로 병원에 방문한 환자의 수가 연 평균 100만명이 넘는데 그 중 대부분이 영유아와 청소년”이라고 소개하며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증상 별 치료법에 대해 알려준다.이 밖에도 최은영 요가강사의 바디밸런스 코너에서는 여름을 대비해 복부 군살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균형잡기 동작을 소개한다. 우즈베키스탄의 힐링푸드부터 암 예방, 피부질환, 다이어트 등 다양한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빨간약’ 11회는 오는 27일 낮 1시30분에 건강의학 정보채널 헬스메디tv에서 방송된다.‘빨간약’은 건강을 주제로 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한곳에 담은 신개념 의학 컨버전스 형식의 프로그램. 육아부터 미용, 운동법 등 매주 다른 분야의 최신 의학이슈 및 건강정보를 소개한다. 매주 토요일 낮 1시 30분 본 방송.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37.txt

제목: '빨간약' 굴사남 출연, 우즈베키스탄 요리 선보인다  
날짜: 20150626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6100000150  
본문: [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우즈베키스탄 출신 며느리 굴사남이 ‘빨간약’에 출연한다. 최근 ‘엄마의 탄생’을 통해 둘째 득남 소식을 알린 우즈베키스탄 며느리 굴사남이 오는 27일 방송예정인 건강의학 정보채널 헬스메디tv ‘빨간약’에 출연, 산모와 임산부에 좋은 우즈베키스탄의 힐링푸드를 소개한다. 이날 굴사남은 우즈베키스탄을 “실크로드의 중심지이자 동서양의 문화를 모두 가진 나라”로 소개하며, “음식 또한 동서양의 맛을 모두 음미할 수 있다”고 자국의 전통 요리에 대한 자긍심을 보였다. 특히 “산후 조리에 좋은 음식이 많다“면서 음식 소개에 앞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이어 이태원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 식당에 방문, 우즈베키스탄의 양갈비 요리와 전통 음식 ‘쏨사’, ‘라그만 등을 소개한다. 굴사남은 “양갈비 요리는 철분, 칼슘이 풍부해 산후조리에 탁월하며, 채소와 고기가 듬뿍 들어가는 ‘쏨사’는 임산부의 필수 영양소인 엽산이 풍부하다. 또한 ‘라그만’은 입덧에 좋은 토마토가 듬뿍 들어가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빨간약’ 11회에서는 여에스더 박사가 들려주는 자궁암에 대한 이야기도 전파를 탄다. 여에스더는 “자궁경부암은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자궁경부암 백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아림은 아이들의 아토피피부염에 대해 상세히 알려준다. 민아림 전문의는 “지난 5년간 아토피피부염으로 병원에 방문한 환자의 수가 연 평균 100만명이 넘는데 그 중 대부분이 영유아와 청소년”이라고 소개하며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증상 별 치료법에 대해 알려준다.이 밖에도 최은영 요가강사의 바디밸런스 코너에서는 여름을 대비해 복부 군살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균형잡기 동작을 소개한다. 우즈베키스탄의 힐링푸드부터 암 예방, 피부질환, 다이어트 등 다양한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빨간약’ 11회는 오는 27일 낮 1시30분에 건강의학 정보채널 헬스메디tv에서 방송된다.‘빨간약’은 건강을 주제로 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한곳에 담은 신개념 의학 컨버전스 형식의 프로그램. 육아부터 미용, 운동법 등 매주 다른 분야의 최신 의학이슈 및 건강정보를 소개한다. 매주 토요일 낮 1시 30분 본 방송.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38.txt

제목: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졌다”  
날짜: 201506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6100000253  
본문:  웹툰 '외모지상주의'가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작가 박태준과 아버지와의 불화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박태준은 지난 3월 방송된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 출연해 "어린 시절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박태준은 이어 "어릴 때부터 집이 화목과는 거리가 멀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난 아버지와 주먹 싸움까지 했다"라고 고백해 깜짝 놀라게 했다.박태준은 "과거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가장으로서의 노력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했다. 고3 때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서 나왔다"며 "그런데도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버지가 밤늦게 귀가해 할머니에게 밥을 차리라며 화를 내시더라. 그때 10년 동안 쌓인 게 폭발했다. 아버지께 대들며 패륜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작가, 어린 시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힘들었겠다”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선희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39.txt

제목: 한미약품,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자체 개발 중인 당뇨 신약 가치 입증  
날짜: 20150626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6100001139  
본문:  한미약품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제75회 미국 당뇨병 학회(이하 ADA)에서 현재 개발 중인 4개의 당뇨 신약 가치를 보다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ADA는 약 130여 개국에서 1만8000여 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최대의 당뇨병 학회로, 세계적 명성에 힘입어 이번 75회 ADA 역시 화이자, 사노피,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적 제약기업들이 현재 진행 중인 당뇨 관련 최신 임상 결과들을 쏟아냈다.한미약품도 이번 학회에서 총 4개의 당뇨신약과 11건의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당뇨 치료의 새로운 비전 제시에 동참했다.한미약품이 발표한 11건 과제 중 4건은 구연발표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는 국내 제약기업 중 유일한 사례이자 한미약품 R&D 성과에 대한 글로벌 연구자와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특히, 이번에 발표된 신약 중 GLP-1 계열의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최대 월 1회 투여 가능한 약물, 비만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 등을 입증한 후기 2상 과제 3건으로 주목받았다.3건의 연구과제 중 구연 발표된 HM-EXC-203은주 1회 용법으로서의 혈당조절 능력은 물론, 체중감소 효과를 입증했으며, 경쟁 약물인 Liraglutide(제품명 빅토자)와의 비교에서 우위에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에페글레나타이드와 주 1회 제형 인슐린을 결합한 LAPSInsulin Combo의 연구결과 역시, 당뇨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받았다.인슐린 단일요법 시 수반되는 저혈당 쇼크 및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을 두 약제의 결합에 따른 치료적 장점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확인한 것이다.실제로 당뇨 동물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된 LAPSInsulin Combo 관련 연구는 단일용법과 비교해 혈당감소 및 체중감소 효과 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주 1회 제형으로서의 인슐린과 GLP-1 계열의 콤보제형은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개발이란 점에서 LAPSInsulin Combo가 상용화될 경우, 향후 세계 당뇨 치료제 시장 트렌드를 바꿀 수 있다는 평가다.이 외에도 한미약품은 GLP-1 계열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Glucagon 결합체인LAPSGLP/GCG의 연구결과도 발표했는데, 이는 당뇨와 비만에 각각 적용한 신개념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한편 한미약품은 과감한 R&D 투자에 따른 결실을 올해 초부터 하나씩 선보이고 있다.지난 3월 한미약품이 미국 일라이릴리에 면역질환치료제(HM71224)를 6억8000만 달러(계약금 및 마일스톤 포함, 로열티 별도) 규모로 기술수출한 사례는 국내 최대의 R&D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다중표적 항암신약 포지오티닙(Poziotonib)을 미국 스펙트럼사와 중국 루예제약그룹에 기술수출함으로써 당뇨와 항암제 분야에서의 글로벌신약 개발 가능성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이번 ADA 직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최대 암 학회인 ASCO에서 발표한 HM61713의 임상 1/2상 중간결과는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폐암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항암신약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는 "국내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들이 글로벌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글로벌신약 창출을 통해 회사의 비약적인 성장은 물론, 한국이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목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40.txt

제목: 배우 윤종화, 척수암 진단…한지민과 유지태는 메니에르 병 앓고 있어  
날짜: 20150625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3655146  
본문: 배우 윤종화가 척수암 진단을 받은 소식을 전한 가운데, 연예인들의 희귀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윤종화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윤종화는 지난달 병원 검사를 통해 척수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지난 5월29일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촬영과 치료를 병행해왔다"고 밝혔다. <br/> <br/>또한 배우 한지민과 유지태는 메니에르 병을 앓고 있다. 이 병은 현기증과 어지러움, 이명 현상을 동반하며 균형 감각의 이상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땅한 치료법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종화, 빨리 낫기를” “<span class='quot0'>윤종화에 이어 한지민과 유지태까지</span>” “<span class='quot0'>윤종화, 누나 윤현진이 마음 아프겠다</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김선희 기자 <br/> <b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41.txt

제목: 18세 미만과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절반만 내면 돼  
날짜: 20150625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3328028  
본문: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br/> <br/>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br/> <br/>25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br/> <br/>개정안에 따르면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 <br/> <br/>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br/> <br/>하지만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br/> <br/>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돼 개별 가입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br/> <br/>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br/> <br/>18세 미만 근로자는 앞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하게 된다. <br/> <br/>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제외될 수 있다. <br/> <br/>이 규정은 7월 29일부터 적용된다. <br/> <br/>'실업 크레딧' 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 제도는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br/> <br/>실업크레딧 제도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어 본격적 시행시기는 유동적이다. <br/> <br/>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br/> <br/>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br/> <br/>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 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 <br/> <br/>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br/> <br/>7월 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br/> <br/>이 경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의 병동에 23일 입원하고서 임종하면, 총 진료비 681만8000여원중 43만7000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42.txt

제목: "오드리 헵번 미모의 비결은 영양실조"  
날짜: 20150625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3306682  
본문: 전설적 배우 고(故) 오드리 헵번의 아들은 어머니의 미모를 어떻게 바라볼까. <br/> <br/>헵번의 둘째 아들 루카 도티(Luca Dotti)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피플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2차 세계 대전 당시인 9살부터 16살까지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었다"며 "가장 영양분이 필요할 때 어머니는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다.  <br/> <br/>그는 이어 "1944년 나치가 네덜란드를 공격했을 당시 '기아의 겨울'로 불렸다.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아 어머니 몸은 크게 망가졌다"고 덧붙였다.  <br/> <br/>그는 "어머니는 당시 들에서 상추나 튤립 뿌리를 캐먹었다"면서 "전쟁이 끝날 즈음 16세였던 어머니는 키 168cm에 몸무게 39kg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헵번은 천식, 황달, 영양실조, 급성빈혈 등에 시달려야 했다. <br/> <br/>도티는 "전쟁이 끝난 후 연합군이 초콜릿 등을 가져왔지만 어머니는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위가 너무 작아서 먹을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녀의 위는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br/> <br/>또한 헵번은 당시 연합군이 들고 온 담배를 처음 접했고, 1993년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담배를 끊지 못했다. 도티는 헵번이 생전 스파게티를 특히 좋아했다고 덧붙였다.  <br/> <br/>헵번은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 '사브리나' 등 주옥같은 명화들에 출연했으며, 완벽한 이목구비의 미모뿐 아니라 '깡마른' 몸매로 세계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로 아직까지 군림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아름다움이 다름 아닌 '배고픔'에서 비롯됐다는 아들의 증언에 세계 팬들은 놀라워 하고 있다. <br/> <br/>루카 도티는 헵번과 그의 두 번째 남편인 정신과 의사 안드레아 도티(Andrea Dotti)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의 부엌에 대해 추억한 서적 'Audrey at Home: Memories of My Mother‘s Kitchen'의 발매를 앞두고 있다. <br/> <br/>세계적인 여배우 오드리 헵번은 1993년 1월 63세의 나이에 대장암으로 사망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br/>사진=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43.txt

제목: 메르스 환자 1명 늘어 180명, 2명 사망해 모두 29명 사망 치사율 16.1%  
날짜: 20150625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3315571  
본문: 메르스 환자가 1명 늘어나 총 180명이 됐다. <br/> <br/>사망자는 2명 불어 29명이 됐으며 치사율도 16.1%로 높아졌다. <br/> <br/>메르스 격리자는 하루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3000명선 밑으로 떨어졌다.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도 1만2000명에 육박했다. <br/> <br/>◇ 확진 1명 추가, 2명 사망, 7명 퇴원 <br/> <br/>2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확진자도 1명이 증가해 메르스로 인한 확진자는 모두 180명으로 집계됐다. <br/> <br/>퇴원자는 7명이 늘어 총 74명이다. <br/> <br/>메르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모두 29명이 됐다. <br/> <br/>메르스로 격리 중인 사람은 2642명으로 전날보다 461명 줄었다. <br/> <br/>격리 해제된 사람은 1만1936명으로 하루 동안 726명이 새롭게 격리에서 해제됐다. <br/> <br/>◇ 격리자 5일 연속 감소→증가→다시 감소 <br/> <br/>전체 격리자 2642명 중 자가는 1878명으로 329명 줄었고, 병원 격리자는 132명 감소한 764명이다.  <br/> <br/>메르스 격리자는 5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4일 다시 증가했으나, 이날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널뛰기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br/> <br/>◇ 180번째 환자, 143번째 환자로부터 감염…143번 환자 접촉자 1000명 넘어 <br/> <br/>신규 확진자 180번째 환자는 143번째 환자와 지난 8일부터 12일 부산 좋은강안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 <br/> <br/>14일부터 좋은강안병원 코호트(1인실) 격리를 하면서 모니터링 중에 확진됐다. <br/> <br/>143번 환자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대청병원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16번 환자로부터 노출됐다. <br/> <br/>이후 부산으로 내려와 3개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13일 좋은강안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br/> <br/>143번 환자가 접촉한 사람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사망자 2명 기저질환 없어, 면역력 약화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 <br/> <br/>추가 사망자는  45번 환자(남, 65)와 173번 환자(여, 70)이다. 지난 24일 사망했다. <br/> <br/>보건당국은 기저질환은 없으나 고령에다 면역력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의 일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br/> <br/>◇ 슈퍼전파자 포함 7명 새로 퇴원 <br/> <br/>신규 퇴원자는 총 7명은 슈퍼전파자 15번 환자(남, 35)를 포함해 72번 환자(남, 56세)와 78번 환자(여, 41세), 97번 환자(남, 46세), 114번 환자(남, 46세), 126번 환자(여, 70세), 153번 환자(여, 61세)이다. <br/> <br/>지금까지 퇴원한 74명 중 남성이 40명(54.1%), 여성이 34명(45.9%)이다. <br/> <br/>연령별로는 40대 20명(27%), 50대 17명(23%), 30대·60대 각각 11명(14.9%), 70대 9명(12.2%), 20대 5명(6.8%), 10대 1명(1.4%)이다. <br/> <br/>사망자 29명의 성별은 남성이 21명(72.4%), 여성이 8명(27.6%)이며, 연령별로는 60대가 10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70대 9명(31%), 80대 5명(17.2%), 50대 4명(13.8%), 40대 1명(3.4%) 순이다. <br/> <br/>사망자 총 29명 중 각종 만성질환자(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나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은 27명(93.1%)이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44.txt

제목: 배우 윤종화, 척수암 진단…한지민과 유지태는 메니에르 병 앓고 있어  
날짜: 2015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5100000837  
본문: 배우 윤종화가 척수암 진단을 받은 소식을 전한 가운데, 연예인들의 희귀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윤종화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윤종화는 지난달 병원 검사를 통해 척수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지난 5월29일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촬영과 치료를 병행해왔다"고 밝혔다.또한 배우 한지민과 유지태는 메니에르 병을 앓고 있다. 이 병은 현기증과 어지러움, 이명 현상을 동반하며 균형 감각의 이상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땅한 치료법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종화, 빨리 낫기를” “<span class='quot0'>윤종화에 이어 한지민과 유지태까지</span>” “<span class='quot0'>윤종화, 누나 윤현진이 마음 아프겠다</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선희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45.txt

제목: 18세 미만과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절반만 내면 돼  
날짜: 20150625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5100000884  
본문: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25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돼 개별 가입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18세 미만 근로자는 앞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하게 된다.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제외될 수 있다. 이 규정은 7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실업 크레딧' 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 제도는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실업크레딧 제도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어 본격적 시행시기는 유동적이다.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 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7월 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 경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의 병동에 23일 입원하고서 임종하면, 총 진료비 681만8000여원중 43만7000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46.txt

제목: 내달부터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70세이상 반값 틀니  
날짜: 2015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5100001086  
본문: 다음달부터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만 70세 이상 노인은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실업 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이를테면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천원 중에서 4만7천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실직자 자신은 한달에 1만6천원만 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돼 개별 가입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다.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이 다음달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7월 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렇게 되면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의 병동에 23일 입원하고서 임종하면, 총 진료비 681만8천여원중에서 43만7천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보건·복지·고용·주거·문화 등 특정 사회보장 분야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재정적, 행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되면 사회보장 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되며 인력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 서비스 제공 기관 구축에 대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47.txt

제목: 실직자도 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70세 이상 반값 틀니·임플란트 시술  
날짜: 2015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5100000754  
본문:  다음 달부터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만70세 이상 노인은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실업 크레딧’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이를테면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000원 중에서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실직자 자신은 한달에 1만6000원만 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있었다.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돼 개별 가입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시행된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다.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이 다음달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7월 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렇게 되면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의 병동에 23일 입원하고서  임종하면, 총 진료비 681만8000여원중에서 43만7000여원만부담하면 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거주지, 보건·복지·고용·주거·문화 등 특정 사회보장 분야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재정적, 행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되면 사회보장 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되며 인력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 서비스 제공 기관 구축에 대해 지원도 받을 수 있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48.txt

제목: "오드리 헵번 미모의 비결은 영양실조"  
날짜: 2015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5100000499  
본문: 전설적 배우 고(故) 오드리 헵번의 아들은 어머니의 미모를 어떻게 바라볼까.헵번의 둘째 아들 루카 도티(Luca Dotti)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피플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2차 세계 대전 당시인 9살부터 16살까지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었다"며 "가장 영양분이 필요할 때 어머니는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44년 나치가 네덜란드를 공격했을 당시 '기아의 겨울'로 불렸다.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아 어머니 몸은 크게 망가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머니는 당시 들에서 상추나 튤립 뿌리를 캐먹었다"면서 "전쟁이 끝날 즈음 16세였던 어머니는 키 168cm에 몸무게 39kg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헵번은 천식, 황달, 영양실조, 급성빈혈 등에 시달려야 했다.도티는 "전쟁이 끝난 후 연합군이 초콜릿 등을 가져왔지만 어머니는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위가 너무 작아서 먹을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녀의 위는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헵번은 당시 연합군이 들고 온 담배를 처음 접했고, 1993년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담배를 끊지 못했다. 도티는 헵번이 생전 스파게티를 특히 좋아했다고 덧붙였다.  헵번은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 '사브리나' 등 주옥같은 명화들에 출연했으며, 완벽한 이목구비의 미모뿐 아니라 '깡마른' 몸매로 세계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로 아직까지 군림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아름다움이 다름 아닌 '배고픔'에서 비롯됐다는 아들의 증언에 세계 팬들은 놀라워 하고 있다.루카 도티는 헵번과 그의 두 번째 남편인 정신과 의사 안드레아 도티(Andrea Dotti)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의 부엌에 대해 추억한 서적 'Audrey at Home: Memories of My Mother‘s Kitchen'의 발매를 앞두고 있다.세계적인 여배우 오드리 헵번은 1993년 1월 63세의 나이에 대장암으로 사망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사진=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49.txt

제목: 메르스 환자 1명 늘어 180명, 2명 사망해 모두 29명 사망 치사율 16.1%  
날짜: 20150625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5100001054  
본문: 메르스 환자가 1명 늘어나 총 180명이 됐다. 사망자는 2명 불어 29명이 됐으며 치사율도 16.1%로 높아졌다. 메르스 격리자는 하루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3000명선 밑으로 떨어졌다.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도 1만2000명에 육박했다.◇ 확진 1명 추가, 2명 사망, 7명 퇴원2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확진자도 1명이 증가해 메르스로 인한 확진자는 모두 180명으로 집계됐다. 퇴원자는 7명이 늘어 총 74명이다.메르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모두 29명이 됐다.메르스로 격리 중인 사람은 2642명으로 전날보다 461명 줄었다.격리 해제된 사람은 1만1936명으로 하루 동안 726명이 새롭게 격리에서 해제됐다.◇ 격리자 5일 연속 감소→증가→다시 감소전체 격리자 2642명 중 자가는 1878명으로 329명 줄었고, 병원 격리자는 132명 감소한 764명이다.  메르스 격리자는 5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4일 다시 증가했으나, 이날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널뛰기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180번째 환자, 143번째 환자로부터 감염…143번 환자 접촉자 1000명 넘어신규 확진자 180번째 환자는 143번째 환자와 지난 8일부터 12일 부산 좋은강안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 14일부터 좋은강안병원 코호트(1인실) 격리를 하면서 모니터링 중에 확진됐다. 143번 환자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대청병원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16번 환자로부터 노출됐다. 이후 부산으로 내려와 3개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13일 좋은강안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143번 환자가 접촉한 사람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2명 기저질환 없어, 면역력 약화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추가 사망자는  45번 환자(남, 65)와 173번 환자(여, 70)이다. 지난 24일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기저질환은 없으나 고령에다 면역력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의 일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슈퍼전파자 포함 7명 새로 퇴원신규 퇴원자는 총 7명은 슈퍼전파자 15번 환자(남, 35)를 포함해 72번 환자(남, 56세)와 78번 환자(여, 41세), 97번 환자(남, 46세), 114번 환자(남, 46세), 126번 환자(여, 70세), 153번 환자(여, 61세)이다.지금까지 퇴원한 74명 중 남성이 40명(54.1%), 여성이 34명(45.9%)이다.연령별로는 40대 20명(27%), 50대 17명(23%), 30대·60대 각각 11명(14.9%), 70대 9명(12.2%), 20대 5명(6.8%), 10대 1명(1.4%)이다.사망자 29명의 성별은 남성이 21명(72.4%), 여성이 8명(27.6%)이며, 연령별로는 60대가 10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70대 9명(31%), 80대 5명(17.2%), 50대 4명(13.8%), 40대 1명(3.4%) 순이다.사망자 총 29명 중 각종 만성질환자(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나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은 27명(93.1%)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50.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깨끗한 물 그리고 과학기술자들  
날짜: 2015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5100000008  
본문: 지구온난화로 가뭄 현상이 심화되면서 물 부족 문제가 전 지구적인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시아, 아프리카 등 오지의 아이들은 먹을 물을 구하러 하루에 몇 시간을 걸어다니고 있다. 아이들은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그나마 흙탕물이라도 담아 간다. 또 가축의 분뇨와 농약 등에 의해 오염된 물이지만 몸을 씻어야 하니 온몸에 피부병도 생긴다. 이처럼 물이 부족하고 특히, 깨끗한 물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는 오지 아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남의 이야기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도 오지의 아이들과 함께 성장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우리 몸 구성 물질의 약 80%는 물이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한다. 그것도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물에 유해물질이 많으면 암 등 질병으로 연결되고, 물이 세균에 오염돼 있으면 수인성 질병에 걸린다. 깨끗한 상수도의 보급이 중요한 이유이다. 인류의 수명이 증가한 데에는 상수도, 냉장고, 의료기술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 그만큼 깨끗한 물, 위생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면 수돗물이 보급되지 않는 가난한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물이 더러우면 물을 깨끗이 여과해 사용해야 한다. 그런 목적으로 많은 정수 기술과 제품이 소개돼 있다. 통에 자갈과 모래를 넣고 얼마 동안 놓아두면 미생물 층이 생긴다. 그렇게 하면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 오지 마을에 보급했다. 그러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필터가 있는 정수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았지만 이것 역시 가끔 필터를 교체해 줘야 하는 문제로 번거롭고 돈이 든다고 해 기피했다. 그러다가 누가 아이디어를 내 가난한 나라의 마을을 네트워킹하고 담당자를 정해 주민들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됐다.아무리 가난해도 깨끗한 물을 위해서는 약간의 비용은 지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마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정수기를 설치하고, 정수된 물에 약간의 돈을 내고 가져가게 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필터를 교체해주니 비로소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다.마을 주민은 물론 여행하는 사람이 가장 겁내는 것은 물이 세균에 의해 오염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물 소독 장치가 필요한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 세균 여과 기능이 있는 특수한 빨대가 개발됐지만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공대 교수가 아이디어를 내 전기포트 같은 데에 소금물 전기분해 기능을 추가했다. 소금을 조금 넣어주고 전기를 통하면 소금물이 분해돼 염소가 나오고 그것을 마시고자 하는 물에 부으면 된다.  유영제 서울대교수·화학생물공학우리가 마시는 수돗물도 대부분 염소로 소독한다. 염소소독은 같은 방식이니까 안심도 되고 또 간단한 방법이다. 염소소독 장치를 작게 만들면 휴대할 수도 있다. 염소소독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과학 상식이다. 그런데 수돗물을 실제 쓸 수 있게 한 아이디어는 귀중하다.‘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한다. 누군가가 필요성을 느끼고 간절히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나온다. 전기가 없으면 자전거 바퀴 같은 것을 돌려 전기를 만들 수도 있다. 또 여러 명의 아이가 놀이를 하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장치도 있다. 최근에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하고 목적에 맞는 기술과 운영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적정 기술 즉, 첨단기술이 아닌 해당 지역의 환경이나 경제, 사회 여건에 맞도록 만들어낸 기술은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이렇게 저개발국가에서 적정기술 보급에 앞장서는 이들이 있다.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 ‘나눔과 기술’ 같은 단체가 대표적이다. 과학기술로 좋은 일을 한다. 더 많은 이들이 따뜻한 일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남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도와주는 일은 선진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다.유영제 서울대교수·화학생물공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51.txt

제목: 오드리 헵번 회고록 "2차대전 때 나치에 맞서 레지스탕스로 활동"  
날짜: 2015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5100001188  
본문: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동갑내기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와 달리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24일(현지시간) 미국 주간 피플 등에 따르면 헵번의 막내아들 루카 도티는 최근 발간한 회고록 ’집에서의 오드리’(Audry at Home)에서 이같이 증언했다.안네와 마찬가지로 1929년생인 헵번은 영국 태생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나자 네덜란드인인 어머니를 따라 네덜란드로 이주했다.이후 헵번이 15세 때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자 2년여간 쐐기풀과 삶은 풀, 튤립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겨우 살아남았다.전쟁이 끝났을 때 헵번은 170cm의 키에 몸무게가 40kg에 불과했다.나치 점령기에 헵번은 나치에 맞섰던 네덜란드 레지스탕스를 위해 편지나 신문 등의 운반책으로 활동했으며 발레공연을 해 나온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했다.전쟁이 끝나고 2년 뒤 헵번은 ’안네 프랑크의 일기’라는 대본을 받고 정신적 괴로움에 시달렸다.헵번과 동갑내기인 안네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아파트 책장뒤에 숨어 겪고 느낀 이야기가 그의 경험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기 때문이다.도티는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엄마와 안네 프랑크의 관계를 설명할 가장 좋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쌍둥이</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엄마는 안네의 일기에서 1942년 8월 15일 엄마의 삼촌 오토가 민간인 중 거의 처음으로 나치에 사살됐을 당시 정황도 찾아냈다</span>”고 말했다.그는 이어 “<span class='quot0'>엄마는 한 번도 자신이 안네보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엄마는 운명의 장난에 자신을 증오했을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헵번은 1993년 1월 20일 암과 싸우다 세상을 떠났다. 레지스탕스에 참여했던 헵번과 달리 친나치 행각을 벌인 아버지에 대해 속죄하는 의미에서 숨지기 직전까지 빈곤아동 구호를 위한 국제단체인 유니세프의 친선대사로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구호활동에 앞장섰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사진= 미국 CNN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52.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메르스 잠재노출자 응급 간이식 수술 성공  
날짜: 20150624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2958704  
본문:   <br/> <br/> <br/>대한민국 전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해 병원 방문을 기피하고 또 메르스에 노출된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물론 그 병원의 직원과 가족들과의 접촉도 꺼리는 현실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이 메르스 잠재노출 환자의 응급 간이식 수술을 성공했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위해 입원하고 있던 메르스 잠재노출 환자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돼 20일에 응급 간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br/>      <br/>대구시에 거주하는 전씨(72)는 포항 소재 모 병원에서 간경화를 진단받고 치료받던 환자였다.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와 원발성 담도 경화증(담도에 지속적인 염증 반응으로 담도가 망가지는 병)을 앓고 있었다. <br/> <br/>2015년 초에는 간질환이 악화돼 복수가 조절 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기도 했었다. 결국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법임을 알게 된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고 외래 진료 후 입원이 결정돼 간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br/> <br/>그러나 지난 1일 삼성서울병원 외래 방문으로 인해 메르스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됐고 경과를 관찰하던 중 11일경 갑자기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이식이 급하게 필요해 삼성서울병원에 재입원했다. <br/> <br/>이후 급속한 간기능 악화 및 콩팥기능 저하로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 됐다. 기다림 끝에 뇌사자 간 기증자가 나타났지만, 뇌사자가 발생한 병원에서 메르스의 감염 우려로 장기구득을 위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br/> <br/>삼성서울병원에서도 메르스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 주요 병원으로 환자 전원 및 간이식 수술을 문의했으나 번번이 어렵다는 거절의 대답을 들었고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문의를 했다. <br/> <br/>이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긴급 관계자 논의 후 전원을 받은 후 이식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br/> <br/>환자는 잠재 접촉 가능성이 있으나 메르스 증상은 없었다. 그러나 분당서울대병원은 수술 준비와 과정에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메르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완벽히 대비했다. <br/> <br/>감염 관리실, 감염내과, 마취과, 중환자실 및 수술실 간호부와 외과 의료진 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 환자가 병원으로 진입하는 단계부터 중환자실 입실, 수술실로의 이동, 수술 중 수술실 관리, 수술 후 중환자실 이동 등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br/> <br/>환자는 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 간이식팀(한호성 교수, 조재영 교수, 최영록 교수)의 집도로 '뇌사 공여자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비교적 짧은 7시간의 간이식 수술이었지만 보호 장비로 인해 평소의 간이식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수술이 진행됐다. <br/> <br/>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의료진은 수술복을 입은 후 방호복 위에 또다시 수술복을 껴입었고, 수술용 확대경에 보호안경을 추가로 착용했다. 방호복을 포함해 세 겹이나 되는 옷을 입고 장시간의 수술을 진행하느라 속옷까지 땀으로 흠뻑 젖었다. <br/> <br/>특히 보호안경 내부에 습기가 차서 시야 확보도 쉽지 않았다. 장갑을 세 겹으로 끼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도 이번 수술의 어려움 중 하나였다. 인공호흡기를 통해 배출되는 환자의 날숨에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차단 하고자 쓴 N95 마스크로 인해 수술실 간호사는 탈진하기도 했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 한호성 교수(암·뇌신경진료부원장)는 "환자는 현재 음압 격리된 중환자실에서 방호복을 입고 N95 마스크를 착용한 간호사들이 헌신적으로 간호하면서 의식도 완전히 깨어났고 자발 호흡이 돌아와 인공호흡기도 분리해 잘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이어 "수술 전 악화된 콩팥 기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24시간 투석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식된 간으로의 혈류도 좋고 혈액 검사 지표도 호전을 보이고 있어 콩팥 기능도 곧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003년 개원한 신생 병원으로서 간이식 프로그램에서는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의료진과 잘 정비된 이식 프로토콜, 최첨단 시설과 장비로 간이식 수준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br/> <br/>한호성 교수는 "최근의 메르스 사태에도 분당서울대병원은 메르스에 대한 표준 지침을 세우고 메르스의 확산방지에 그치지 않고, 타 병원과는 다르게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메르스 의심 질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치료 하고 있다"며 "이번 간이식 수술도 어느 병원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던 사안을 표준지침과 지금까지의 노하우, 그리고 헌신적인 의료진의 노력으로 두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하여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53.txt

제목: 녹십자엠에스,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키트 식약처 허가  
날짜: 20150624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2832097  
본문: 녹십자엠에스는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제품인 '제네디아 BRAF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br/>  <br/>'제네디아 BRAF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키트'는 갑상선암에서 주로 발견되는 BRAF 돌연변이 유전자만을 증폭시켜 종양조직 내 유전자의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갑상선암을 조기진단 할 수 있는 제품이다. <br/> <br/>기존 염기서열분석법에 비해 검사방법이 간단하고 110분 내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디. <br/>  <br/>녹십자엠에스는 이 제품에 적용된 'MEMO-PCR 기술' (돌연변이 유전자만 특이적으로 증폭시키는 기술)을 이용해 KRAS(대장암), EGFR(폐암) 돌연변이 검출 키트도 조만간 선보일 계획이다. <br/>  <br/>'MEMO-PCR 기술'은 지난 2011년 삼성서울병원 연구진이 개발해 녹십자엠에스가 지난해 기술 이전 받았다. <br/>  <br/>길원섭 녹십자엠에스 대표는 "이 제품은 기존 검사법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기술이 적용돼 맞춤형 암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국내 병원과 검사기관에 공급하고 해외 인증 절차를 거쳐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시장 확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54.txt

제목: [사회공헌 특집] 아모레퍼시픽  
날짜: 20150624  
기자: 김기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2527097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나눔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r/> <br/>공익재단으로는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만든 한국유방건강재단이 대표적이다. <br/> <br/>2001년부터 재단이 유방건강 의식 향상을 위해 시작한 핑크리본 캠페인은 지난 14년간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참가자 25만4000명, 건강강좌 수강 18만명, 유방암 무료 예방검진 2만7000명 등의 성과를 낳았다. <br/> <br/>지난 5월 대전에서 열린 ‘핑크리본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br/>아모레퍼시픽 제공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희망가게’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돕는다. 2003년 기금 조성 후 2004년 1호점을 시작으로 2013년 200호점을 돌파했다. <br/> <br/>아모레의 카운슬러 봉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탈모 등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고통받는 여성 암환자들에게 화장법 등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이다. <br/> <br/>지난해까지 모두 9221명의 여성 암환자와 2904명의 아모레퍼시픽 임직원이 참여했다. 환경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그린사이클(GREENCYCLE)’ 캠페인은 공병 수거에서 한 단계 나아가 화장품 공병을 통한 다양한 업사이클링(upcycling)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사용 제품의 공병(스킨케어 제품의 유리·플라스틱 용기)을 각 매장으로 가져오면 아모레퍼시픽의 멤버십 포인트인 뷰티포인트를 공병 1개당 500점씩(에뛰드는 1개 300점씩)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2009년 이후 누적 수거량은 총 431t으로 이를 통해 저감한 이산화탄소 양은 어린 소나무 4107그루를 심어서 내는 효과와 같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55.txt

제목: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만병통치약 ‘웃음’  
날짜: 20150624  
기자: river910@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4100000048  
본문: 웃음은 힘이 세다. 암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이고, 다이어트의 한 방법이다. 웃음을 통해 운명을 바꿔나간다는 이들도 있다. KBS1 TV ‘생로병사의 비밀’은 24일 오후 10시 ‘내 몸을 행복하게 힘, 웃음’편을 방송한다. 웃음은 암 치료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성인병 예방과 극복에 도움을 준다.KBS 제공예기치 않게 찾아온 암, 받아들이는 것부터 쉽지 않다. 암 환자들에게 웃음교실은 모임 그 이상의 의미다. 환자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삶의 의지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소리를 크게 내고 온몸을 움직이며 웃는 동안 항암치료 부작용의 고통도 잊는다. 건강박수에 침샘을 자극하는 웃음, 하이파이브 웃음까지 오감을 자극하는 웃음은 암과 맞서는 면역계에 영향을 준다. 웃음은 유익한 호르몬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웃을 때 나오는 ‘행복 호르몬’ 엔도르핀은 뇌에서 분비된다. 엔도르핀은 혈류량을 증가시켜 성인병 예방과 극복에 도움을 준다. 또 염증을 유발하는 혈소판 응집이 억제되어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다. 방송은 웃음이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수치와 혈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안면화상환자들의 재활치료는 얼굴 근육을 자주 풀어주는 것이 관건이다. 웃음은 얼굴 근육을 최대한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좋다. 근육은 혼자 움직이는 경우가 없어 입꼬리만 올려도 최소 15개의 근육이 사용돼 자연스럽게 얼굴 근육 운동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미세혈류량, 피부탄력에도 큰 효과를 보여 안면화상환자들에게 재활치료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웃음 다이어트로 8주 동안 평균 7kg을 감량하고 5∼6년째 유지하고 있다는 주부들도 있다. 제작진은 에너지 소비량과 심박수, 운동 강도를 알아보는 젖산 수치를 측정해 웃음의 운동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실험한다.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56.txt

제목: 생로병사의 비밀 '내 몸을 행복하게 힘, 웃음'  
날짜: 20150624  
기자: river910@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4100000134  
본문: 웃음은 암 치료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성인병 예방과 극복에 도움을 준다. KBS 제공웃음은 힘이 세다. 암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이고, 다이어트의 한 방법이다. 웃음을 통해 운명을 바꿔나간다는 이들도 있다. KBS1 TV ‘생로병사의 비밀’은 24일 오후 10시 ‘내 몸을 행복하게 힘, 웃음’편을 방송한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암, 받아들이는 것부터 쉽지 않다. 암 환자들에게 웃음교실은 모임 그 이상의 의미다. 환자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삶의 의지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소리를 크게 내고 온몸을 움직이며 웃는 동안 항암치료 부작용의 고통도 잊는다. 건강박수에 침샘을 자극하는 웃음, 하이파이브 웃음까지 오감을 자극하는 웃음은 암과 맞서는 면역계에 영향을 준다. 웃음은 유익한 호르몬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웃을 때 나오는 ‘행복 호르몬’ 엔도르핀은 뇌에서 분비된다. 엔도르핀은 혈류량을 증가시켜 성인병 예방과 극복에 도움을 준다. 또 염증을 유발하는 혈소판 응집이 억제되어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다. 방송은 웃음이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수치와 혈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안면화상환자들의 재활치료는 얼굴 근육을 자주 풀어주는 것이 관건이다. 웃음은 얼굴 근육을 최대한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좋다. 근육은 혼자 움직이는 경우가 없어 입꼬리만 올려도 최소 15개의 근육이 사용돼 자연스럽게 얼굴 근육 운동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미세혈류량, 피부탄력에도 큰 효과를 보여 안면화상환자들에게 재활치료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웃음 다이어트로 8주 동안 평균 7kg을 감량하고 5∼6년째 유지하고 있다는 주부들도 있다. 제작진은 에너지 소비량과 심박수, 운동 강도를 알아보는 젖산 수치를 측정해 웃음의 운동 효과가 어느 정도인를 실험한다.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57.txt

제목: [사회공헌 특집] 아모레퍼시픽  
날짜: 2015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4100000139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나눔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공익재단으로는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만든 한국유방건강재단이 대표적이다.2001년부터 재단이 유방건강 의식 향상을 위해 시작한 핑크리본 캠페인은 지난 14년간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참가자 25만4000명, 건강강좌 수강 18만명, 유방암 무료 예방검진 2만7000명 등의 성과를 낳았다.지난 5월 대전에서 열린 ‘핑크리본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제공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희망가게’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돕는다. 2003년 기금 조성 후 2004년 1호점을 시작으로 2013년 200호점을 돌파했다.아모레의 카운슬러 봉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탈모 등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고통받는 여성 암환자들에게 화장법 등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모두 9221명의 여성 암환자와 2904명의 아모레퍼시픽 임직원이 참여했다. 환경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그린사이클(GREENCYCLE)’ 캠페인은 공병 수거에서 한 단계 나아가 화장품 공병을 통한 다양한 업사이클링(upcycling)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사용 제품의 공병(스킨케어 제품의 유리·플라스틱 용기)을 각 매장으로 가져오면 아모레퍼시픽의 멤버십 포인트인 뷰티포인트를 공병 1개당 500점씩(에뛰드는 1개 300점씩)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2009년 이후 누적 수거량은 총 431t으로 이를 통해 저감한 이산화탄소 양은 어린 소나무 4107그루를 심어서 내는 효과와 같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58.txt

제목: 녹십자엠에스,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키트 식약처 허가  
날짜: 20150624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4100000310  
본문: 녹십자엠에스는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제품인 '제네디아 BRAF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제네디아 BRAF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키트'는 갑상선암에서 주로 발견되는 BRAF 돌연변이 유전자만을 증폭시켜 종양조직 내 유전자의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갑상선암을 조기진단 할 수 있는 제품이다.기존 염기서열분석법에 비해 검사방법이 간단하고 110분 내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디.  녹십자엠에스는 이 제품에 적용된 'MEMO-PCR 기술' (돌연변이 유전자만 특이적으로 증폭시키는 기술)을 이용해 KRAS(대장암), EGFR(폐암) 돌연변이 검출 키트도 조만간 선보일 계획이다.  'MEMO-PCR 기술'은 지난 2011년 삼성서울병원 연구진이 개발해 녹십자엠에스가 지난해 기술 이전 받았다.  길원섭 녹십자엠에스 대표는 "이 제품은 기존 검사법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기술이 적용돼 맞춤형 암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국내 병원과 검사기관에 공급하고 해외 인증 절차를 거쳐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시장 확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59.txt

제목: “매일 자몽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날짜: 20150624  
기자: hj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4100001169  
본문: ‘웰빙(Well-being)’ 트렌드가 계속되면서 건강 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슈퍼푸드로 선정된 과일, 채소, 견과류 등을 일부러 찾아 먹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건강 관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주변에서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지만, 의외로 애써 구매한 건강 식품의 섭취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낭패를 볼 수 있다.특히 간편하게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과일의 경우 효능과 제대로 먹는 방법을 몰라 몇 배로 늘릴 수 있는 영양 성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감귤류 과일은 속껍질에도 영양 성분이 풍부해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블루베리는 익히는 것보다 생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과일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과일의 영양 성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감귤이나 자몽, 오렌지 등 감귤류 과일에는 과육뿐만 아니라 속껍질에도 좋은 영양 성분이 들어 있다. 바로 비타민P인 ‘헤스페리딘(Hesperidin)’이란 성분으로 이는 모세혈관을 강화해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는 것은 물론,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게 과일 속껍질에도 영양 성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식이섬유인 펙틴 성분도 다량 함유돼 있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감귤류 과일은 속껍질을 같이 먹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다. 최근 시중에는 과즙과 과일 속껍질을 함께 담은 주스도 출시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코카-콜라사 미닛메이드의 신제품 ‘미닛메이드 홈스타일’은 진한 과즙과 과일 속살을 잘 짜낸 후 남은 부드러운 섬유질인 과일 속껍질(펄프)이 들어 있어 과즙과 과일 속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주스이다. 자몽의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미닛메이드 홈스타일 자몽’과 오렌지 과즙을 담은 상콤달콤한 맛의 ‘미닛메이드 홈스타일 오렌지100’ 두 가지 맛으로 구성되며, 입안 가득히 자몽 및 오렌지 속껍질의 부드러운 식감과 진하고 풍부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꼽힌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anthocyanin)이 풍부해 암 예방과 노화 방지, 기억력 증진은 물론 시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매우 적어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영양을 그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조리 없이 생으로 먹거나 냉동으로 보관해 먹는 것이 좋지만 본래의 영양과 질감을 잘살려 블루베리와 함께 몸에 좋은 다른 식품들과 곁들이면 각각의 식재료들이 가지고 있던 효능이 배가 되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 특히 요거트와 곁들이거나 샐러드, 빙수로 먹어도 좋다.커피전문점 탐앤탐스는 여름을 맞아 '솜사탕' 눈꽃빙수를 출시했다. 눈꽃빙삭기로 부드럽게 갈아낸 우유 얼음을 사용해 솜사탕처럼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식감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솜사탕블루베리요거, 솜사탕애플망고유자, 솜사탕쿠키앤크림, 솜사탕흑모찌팥 총 4종으로 선보인다. 특히 '솜사탕블루베리요거' 빙수는 블루베리와 요거트아이스크림, 치즈케이크 등의 토핑을 고루 올려 상큼한 맛이 일품이다.'매일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처럼 비타민C등을 함유해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식품으로 알려진 ‘사과’. 심지어 피부 건강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표 건강 식품으로 꼽힌다. 이같이 몸에 좋은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소화와 배변을 촉진해주지만 밤에 먹으면 사과산으로 충치, 위액 분비로 자칫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사과는 그대로 섭취하거나 주스로 갈아 마실 때 껍질째 먹으면 더욱 좋다. 껍질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항산화 물질 등이 풍부하다.생활가전 전문업체 리큅의 고성능 블렌더 'RPM 프로페셔널 블렌더'는 기존에 즙에서 짜내는 원액기나 주서기의 장점을 모두 갖춘 제품이다. 최대 3.2마력의 강력한 모터의 힘으로 채소류나 과일 껍질의 섬유질을 균일하게 분쇄해준다. 간편하게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껍질과 함께 부드럽게 갈아 마실 수 있어 더욱 좋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60.txt

제목: 상락수차가버섯, 좋은 차가버섯의 올바른 섭취 방법은?  
날짜: 20150624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4100000872  
본문:  최근 러시아산 차가버섯이 국산 상황버섯이나 영지 버섯 등과 비교해서도 그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100세 시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으로 차가버섯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차가버섯의 효능에 대해서는 러시아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폴리페놀과 SOD 항산화 효소가 풍부해 대장암, 폐암, 위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암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그런데 차가버섯의 효능을 보기 위해 제품을 구입하려는 이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차가버섯 선별방법, 차가버섯 끓이는 방법 등이다. 본디 좋은 차가버섯은 북위 45도 이상의 극냉지역에서 채취된 것, 수령이 15년 이상인 것, 크로모겐 콤플렉스가 10% 이상, 속살의 두께가 10cm 이상, 수분이 14%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하지만 개인 소비자가 차가버섯 덩어리를 보고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확인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차가버섯 덩어리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이를 끓여 먹게 되면 그 효능은 결코 경험할 수가 없다. 차가버섯은 끓여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끓였다 식힌 물에 48시간을 우려 내어 먹어야 하는 식품이기 때문이다.실제 차가버섯 전문가들은 차가버섯 덩어리는 고온에 약하고 수분에 쉽게 산화되는 까다로운 특성으로 인해 음용법이나 보관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48시간을 올바르게 우려냈다고 해도 유효성분의 추출률이 낮다고 지적한다.이에 좋은 차가버섯의 효과적인 성분을 가격 걱정 없이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차가버섯 추출 분말이다. 차가버섯 추출분말은 차가버섯 덩어리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여 베타글루칸, 폴리페놀 및 크로모겐콤플렉스를 비롯한 다양한 생리활성물질들을 추출, 농축, 필터링, 건조과정을 거쳐 고농축으로 생산한 제품이다.특히 국내에서는 상락수 차가버섯의 추출 분말이 국내 우수 연구진과의 다년간 연구를 통해 습득한 다양한 추출노하우 공정을 거쳐 유효성분 함유량을 높인 제품으로 항암효과가 뛰어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상락수차가버섯 추출분말은 러시아산 1등급 차가버섯의 추출액을 전문추출회사인러시아 알타이 비스테라에서, 국내에서 개발되어 특허를 받은 ‘베타글루칸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차가버섯 추출물의 제조방법’으로 추출하고, 추출액을 영하 5도 상태로 한국에 가져와 한국 기술로 분말화 시켜 보다 안전하면서도 유효함량을 높인 제품이다.이렇게 만들어진 상락수차가버섯 추출분말은 유효성분 섭취 면에서 차가버섯 추출분말 100g 섭취 시 차가버섯 덩어리는 약 3kg를 섭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락수차가버섯 추출 분말은 진공건조, 분무건조 및 동결건조공법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동결건조공법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유효성분 함량이 높다.한편, 상락수차가버섯 추출 분말 섭취 방법은 60도 이하의 따뜻한 물 약 150cc에 1g씩 타서 하루 세 번 식전 30분에 먹으면 된다. 이때 루치 로얄(FD)와 진공건조스타(VD) 차가버섯 추출분말 제품의 경우 물에 잘 용해될 수 있도록 잘 저어 먹으면 되고, 상락수 루치 스페셜(SD) 차가버섯 추출분말은 물에 넣은 뒤 젓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용해된다.헬스팀 김봉수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61.txt

제목: [이모저모] 노경은, 모친상으로 1군 제외  
날짜: 2015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4100000399  
본문: 〔스포츠월드=잠실 박인철 기자〕노경은(31)이 모친상으로 지난 22일 1군에서 제외됐다.김태형 두산 감독은 23일 잠실 SK전에 앞서 “노경은의 어머니가 암으로 오늘 새벽 돌아가셨다”고 비보를 전하며 “그동안 몸이 편찮으셨는데 노경은의 마음이 많이 안 좋을 것이다. 정말 효자였다. 충분히 마음 추스를 시간을 준 다음에 1군으로 부를 예정”이라 전했다.한편 두산베어스에 따르면 노경은의 어머니 전기순 씨는 유방암 투병 도중 최근 전이돼 건강이 악화됐다고 했다. 전 씨는 22일 증세가 심각해졌고 23일 별세했다. 노경은은 자신의 SNS 메시지명을 ‘엄마 이제 아프지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라고 글귀를 남기며 슬픔을 드러냈다. 전 씨의 빈소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25일 오전 예정이다. club1007@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62.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깨끗한 물 그리고 과학기술자들  
날짜: 20150624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410017703207  
본문: 지구온난화로 가뭄 현상이 심화되면서 물 부족 문제가 전 지구적인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시아, 아프리카 등 오지의 아이들은 먹을 물을 구하러 하루에 몇 시간을 걸어다니고 있다. 아이들은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그나마 흙탕물이라도 담아 간다. <br/> <br/>또 가축의 분뇨와 농약 등에 의해 오염된 물이지만 몸을 씻어야 하니 온몸에 피부병도 생긴다. 이처럼 물이 부족하고 특히, 깨끗한 물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는 오지 아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남의 이야기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도 오지의 아이들과 함께 성장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br/> <br/>우리 몸 구성 물질의 약 80%는 물이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한다. 그것도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물에 유해물질이 많으면 암 등 질병으로 연결되고, 물이 세균에 오염돼 있으면 수인성 질병에 걸린다. 깨끗한 상수도의 보급이 중요한 이유이다. 인류의 수명이 증가한 데에는 상수도, 냉장고, 의료기술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 그만큼 깨끗한 물, 위생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면 수돗물이 보급되지 않는 가난한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br/> <br/>물이 더러우면 물을 깨끗이 여과해 사용해야 한다. 그런 목적으로 많은 정수 기술과 제품이 소개돼 있다. 통에 자갈과 모래를 넣고 얼마 동안 놓아두면 미생물 층이 생긴다. 그렇게 하면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 오지 마을에 보급했다. 그러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필터가 있는 정수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았지만 이것 역시 가끔 필터를 교체해 줘야 하는 문제로 번거롭고 돈이 든다고 해 기피했다. 그러다가 누가 아이디어를 내 가난한 나라의 마을을 네트워킹하고 담당자를 정해 주민들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됐다. <br/> <br/>아무리 가난해도 깨끗한 물을 위해서는 약간의 비용은 지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마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정수기를 설치하고, 정수된 물에 약간의 돈을 내고 가져가게 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필터를 교체해주니 비로소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다. <br/> <br/>마을 주민은 물론 여행하는 사람이 가장 겁내는 것은 물이 세균에 의해 오염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물 소독 장치가 필요한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 세균 여과 기능이 있는 특수한 빨대가 개발됐지만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공대 교수가 아이디어를 내 전기포트 같은 데에 소금물 전기분해 기능을 추가했다. 소금을 조금 넣어주고 전기를 통하면 소금물이 분해돼 염소가 나오고 그것을 마시고자 하는 물에 부으면 된다.  <br/> <br/> 유영제 서울대교수·화학생물공학우리가 마시는 수돗물도 대부분 염소로 소독한다. 염소소독은 같은 방식이니까 안심도 되고 또 간단한 방법이다. 염소소독 장치를 작게 만들면 휴대할 수도 있다. 염소소독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과학 상식이다. 그런데 수돗물을 실제 쓸 수 있게 한 아이디어는 귀중하다. <br/> <br/>‘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한다. 누군가가 필요성을 느끼고 간절히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나온다. 전기가 없으면 자전거 바퀴 같은 것을 돌려 전기를 만들 수도 있다. 또 여러 명의 아이가 놀이를 하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장치도 있다. 최근에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기도 한다. <br/> <br/>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하고 목적에 맞는 기술과 운영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적정 기술 즉, 첨단기술이 아닌 해당 지역의 환경이나 경제, 사회 여건에 맞도록 만들어낸 기술은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br/> <br/>이렇게 저개발국가에서 적정기술 보급에 앞장서는 이들이 있다.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 ‘나눔과 기술’ 같은 단체가 대표적이다. 과학기술로 좋은 일을 한다. 더 많은 이들이 따뜻한 일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남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도와주는 일은 선진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다. <br/> <br/>유영제 서울대교수·화학생물공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63.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메르스 잠재노출자 응급 간이식 수술 성공  
날짜: 2015062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4100001144  
본문:  대한민국 전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해 병원 방문을 기피하고 또 메르스에 노출된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물론 그 병원의 직원과 가족들과의 접촉도 꺼리는 현실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이 메르스 잠재노출 환자의 응급 간이식 수술을 성공했다.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위해 입원하고 있던 메르스 잠재노출 환자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돼 20일에 응급 간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전씨(72)는 포항 소재 모 병원에서 간경화를 진단받고 치료받던 환자였다.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와 원발성 담도 경화증(담도에 지속적인 염증 반응으로 담도가 망가지는 병)을 앓고 있었다.2015년 초에는 간질환이 악화돼 복수가 조절 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기도 했었다. 결국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법임을 알게 된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고 외래 진료 후 입원이 결정돼 간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다.그러나 지난 1일 삼성서울병원 외래 방문으로 인해 메르스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됐고 경과를 관찰하던 중 11일경 갑자기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이식이 급하게 필요해 삼성서울병원에 재입원했다.이후 급속한 간기능 악화 및 콩팥기능 저하로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 됐다. 기다림 끝에 뇌사자 간 기증자가 나타났지만, 뇌사자가 발생한 병원에서 메르스의 감염 우려로 장기구득을 위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삼성서울병원에서도 메르스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 주요 병원으로 환자 전원 및 간이식 수술을 문의했으나 번번이 어렵다는 거절의 대답을 들었고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문의를 했다.이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긴급 관계자 논의 후 전원을 받은 후 이식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환자는 잠재 접촉 가능성이 있으나 메르스 증상은 없었다. 그러나 분당서울대병원은 수술 준비와 과정에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메르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완벽히 대비했다.감염 관리실, 감염내과, 마취과, 중환자실 및 수술실 간호부와 외과 의료진 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 환자가 병원으로 진입하는 단계부터 중환자실 입실, 수술실로의 이동, 수술 중 수술실 관리, 수술 후 중환자실 이동 등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했다.환자는 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 간이식팀(한호성 교수, 조재영 교수, 최영록 교수)의 집도로 '뇌사 공여자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비교적 짧은 7시간의 간이식 수술이었지만 보호 장비로 인해 평소의 간이식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수술이 진행됐다.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의료진은 수술복을 입은 후 방호복 위에 또다시 수술복을 껴입었고, 수술용 확대경에 보호안경을 추가로 착용했다. 방호복을 포함해 세 겹이나 되는 옷을 입고 장시간의 수술을 진행하느라 속옷까지 땀으로 흠뻑 젖었다.특히 보호안경 내부에 습기가 차서 시야 확보도 쉽지 않았다. 장갑을 세 겹으로 끼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도 이번 수술의 어려움 중 하나였다. 인공호흡기를 통해 배출되는 환자의 날숨에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차단 하고자 쓴 N95 마스크로 인해 수술실 간호사는 탈진하기도 했다.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 한호성 교수(암·뇌신경진료부원장)는 "환자는 현재 음압 격리된 중환자실에서 방호복을 입고 N95 마스크를 착용한 간호사들이 헌신적으로 간호하면서 의식도 완전히 깨어났고 자발 호흡이 돌아와 인공호흡기도 분리해 잘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술 전 악화된 콩팥 기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24시간 투석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식된 간으로의 혈류도 좋고 혈액 검사 지표도 호전을 보이고 있어 콩팥 기능도 곧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003년 개원한 신생 병원으로서 간이식 프로그램에서는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의료진과 잘 정비된 이식 프로토콜, 최첨단 시설과 장비로 간이식 수준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한호성 교수는 "최근의 메르스 사태에도 분당서울대병원은 메르스에 대한 표준 지침을 세우고 메르스의 확산방지에 그치지 않고, 타 병원과는 다르게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메르스 의심 질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치료 하고 있다"며 "이번 간이식 수술도 어느 병원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던 사안을 표준지침과 지금까지의 노하우, 그리고 헌신적인 의료진의 노력으로 두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하여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64.txt

제목: 두뇌 활동에 예방 및 치료 '한국뇌간힐링협회(KBHA)' 공식 출범  
날짜: 20150623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2319249  
본문:   <br/> <br/> <br/>스마트폰 이용과 그릇된 자세들로 인하여 목과 척추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은 요즘, 우리들에게 뇌와 신체를 잇는 통로에 위치한 상경추 관리와 뇌간의 중요성에 대해 올바르게 알리고자 한국뇌간힐링협회 (Korea Brainstem Healing Association)가 창립총회와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협회 활동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br/> <br/>뇌간힐링협회는 건강한 뇌의 관리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모든 신경이 지나는 통로인 경추 부분. 즉 뇌간을 둘러싸고 있는 상경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곧 상경추 균형이 틀어짐으로써 척추신경질환 및 근 골격계 질환을 비롯 두뇌 활동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br/> <br/>이번 출범식에서는 협회의 설립 목적과 향후 추진 사업 계획, 캠페인 컨셉 등에 대한 설명회가 이뤄졌으며 건강 관련 각 분야 전문가 및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협회의 희망찬 포부와 미래에 대해 함께 축하해주었다.  <br/>  <br/>남궁진 협회장을 비롯해 한국보건복지학회장 김종인 박사, 목원대학교 운동처방학과 주임교수 김일곤박사, 서울성모내과전문의 오도영 박사, 이슈캐스터 조명환 대표이사, 스카이 특허법률사무소 오위환 변리사, 위즈인터랙티브 이석원 대표이사, 중원 건축사사무소 조영준, 홍기선 이사 등이 협력사 및 고문위촉을 받아 참여했다. <br/> <br/>이 날 남궁진 협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span class='quot0'>암이나 성인병 같은 건강을 해치는 원인들에 대해 조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뇌가 제 기능을 하고 신체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 또한 미래와 건강을 위해 신경을 써야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위해 뇌간을 보호하고 있는 상경추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아울러 “아직 국내에서는 뇌간의 역할과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국내의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과거 체계적인 뇌간 힐링을 통하여 효과를 보았음에도 국내에서는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뇌간의 중요성과 체계적으로 힐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전했다. <br/> <br/>협회의 홍기선 대외협력처장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뇌간과 상경추의 역학적 관계 그리고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협회가 이를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의 지표를 제시함은 물론 뇌간 힐링의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 형성에 앞장 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 <br/> <br/>한편 뇌간힐링협회는 인체의 생명 중추 역할을 하는 뇌간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상경추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두뇌와 신체가 완벽한 균형을 이뤄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에게 캠페인으로 알려나가고자 설립된 협회이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65.txt

제목: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만병통치약 ‘웃음’  
날짜: 20150623  
기자: 강구열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310017689089  
본문: 웃음은 힘이 세다. 암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이고, 다이어트의 한 방법이다. 웃음을 통해 운명을 바꿔나간다는 이들도 있다. <br/> <br/>KBS1 TV ‘생로병사의 비밀’은 24일 오후 10시 ‘내 몸을 행복하게 힘, 웃음’편을 방송한다.  <br/> <br/>웃음은 암 치료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성인병 예방과 극복에 도움을 준다. <br/>KBS 제공예기치 않게 찾아온 암, 받아들이는 것부터 쉽지 않다. 암 환자들에게 웃음교실은 모임 그 이상의 의미다. 환자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삶의 의지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소리를 크게 내고 온몸을 움직이며 웃는 동안 항암치료 부작용의 고통도 잊는다. 건강박수에 침샘을 자극하는 웃음, 하이파이브 웃음까지 오감을 자극하는 웃음은 암과 맞서는 면역계에 영향을 준다. <br/> <br/>웃음은 유익한 호르몬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웃을 때 나오는 ‘행복 호르몬’ 엔도르핀은 뇌에서 분비된다. 엔도르핀은 혈류량을 증가시켜 성인병 예방과 극복에 도움을 준다. 또 염증을 유발하는 혈소판 응집이 억제되어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다. 방송은 웃음이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수치와 혈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br/> <br/>안면화상환자들의 재활치료는 얼굴 근육을 자주 풀어주는 것이 관건이다. 웃음은 얼굴 근육을 최대한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좋다. 근육은 혼자 움직이는 경우가 없어 입꼬리만 올려도 최소 15개의 근육이 사용돼 자연스럽게 얼굴 근육 운동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미세혈류량, 피부탄력에도 큰 효과를 보여 안면화상환자들에게 재활치료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웃음 다이어트로 8주 동안 평균 7kg을 감량하고 5∼6년째 유지하고 있다는 주부들도 있다. 제작진은 에너지 소비량과 심박수, 운동 강도를 알아보는 젖산 수치를 측정해 웃음의 운동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실험한다. <br/> <br/>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66.txt

제목: 생로병사의 비밀 '내 몸을 행복하게 힘, 웃음'  
날짜: 20150623  
기자: 강구열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310017682056  
본문: 웃음은 암 치료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성인병 예방과 극복에 도움을 준다. KBS 제공웃음은 힘이 세다. 암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이고, 다이어트의 한 방법이다. 웃음을 통해 운명을 바꿔나간다는 이들도 있다. <br/> <br/>KBS1 TV ‘생로병사의 비밀’은 24일 오후 10시 ‘내 몸을 행복하게 힘, 웃음’편을 방송한다. <br/> <br/>예기치 않게 찾아온 암, 받아들이는 것부터 쉽지 않다. 암 환자들에게 웃음교실은 모임 그 이상의 의미다. 환자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삶의 의지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소리를 크게 내고 온몸을 움직이며 웃는 동안 항암치료 부작용의 고통도 잊는다. 건강박수에 침샘을 자극하는 웃음, 하이파이브 웃음까지 오감을 자극하는 웃음은 암과 맞서는 면역계에 영향을 준다. <br/> <br/>웃음은 유익한 호르몬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웃을 때 나오는 ‘행복 호르몬’ 엔도르핀은 뇌에서 분비된다. 엔도르핀은 혈류량을 증가시켜 성인병 예방과 극복에 도움을 준다. 또 염증을 유발하는 혈소판 응집이 억제되어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다. 방송은 웃음이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수치와 혈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br/> <br/>안면화상환자들의 재활치료는 얼굴 근육을 자주 풀어주는 것이 관건이다. 웃음은 얼굴 근육을 최대한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좋다. 근육은 혼자 움직이는 경우가 없어 입꼬리만 올려도 최소 15개의 근육이 사용돼 자연스럽게 얼굴 근육 운동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미세혈류량, 피부탄력에도 큰 효과를 보여 안면화상환자들에게 재활치료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웃음 다이어트로 8주 동안 평균 7kg을 감량하고 5∼6년째 유지하고 있다는 주부들도 있다. 제작진은 에너지 소비량과 심박수, 운동 강도를 알아보는 젖산 수치를 측정해 웃음의 운동 효과가 어느 정도인를 실험한다. <br/> <br/>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67.txt

제목: 메르스 치료 중인 환자 2주 만에 두자릿수로  
날짜: 2015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3100000426  
본문: 22일 현재 메르스 확진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는 모두 95명으로 2주 만에 두자릿수로 감소했다. 유일한 10대 환자였던 67번째(16) 환자를 비롯한 확진자 7명이 20∼21일 퇴원해 전체 퇴원자는 50명으로 늘었다. 격리 대상자도 3833명으로 전날보다 202명이 줄어 나흘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이날 메르스 확진자는 3명이 늘어 172명을 기록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101번째(84)와 128번째(97) 환자는 지난 21일과 22일 새벽에 잇따라 사망했다. 이들은 암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방역당국은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경기도 구리시 카이저병원 방문자 전체를 격리하기로 했다. 또 추가 환자가 발생한 건국대병원에서는 해당 병동의 신규 입원을 중단하고 병원 의료진과 보호자 등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지난 19∼20일 카이저병원과 속편한내과(구리시) 방문자에 대해서는 구리시청 콜센터(031-550-8971∼4)를 통한 신고를 당부했다.조병욱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68.txt

제목: 암살 하정우, 캐스팅 비화 “장어덮밥 시켜 먹으며 감독과 이야기해” 폭소  
날짜: 20150622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1850417  
본문: 암살 하정우 <br/>암살 하정우, 캐스팅 비화 “장어덮밥 시켜 먹으며 감독과 이야기해” 폭소 암살 하정우가 누리꾼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22일 서울 압구정CGV에서는 영화 '암살' 제작보고회가 열려 배우들과 감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하정우는 '암살'에 캐스팅 비화를 언급하며 "재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장어덮밥을 시켜 먹으며 이야기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정우는 "감독의 전작들을 설레며 봤다"며 "인물들도 영화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언제 불러주시나. 함께 하면 재밌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했다"며 "'그래서 제안을 받고 주저 없이 같이 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재밌는 것을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를들은 최동훈 감독은 "하정우를 재작년 부산영화제 어느 횟집에서 은밀히 만났는데 다음주에 바로 기사가 나더라"면서 "하정우에게 '당신이 출연하면 목숨 걸고 쓰겠다'고 했다. 출연해줘서 너무 기뻤다"고 밝혀 시선을 모았다. 한편 하정우가 출연한 영화 '암살'은 오는 7월 22일 개봉할 예정이다. 암살 하정우 암살 하정우 암살 하정우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69.txt

제목: 감시망에 빠진 170번째 환자 4군데 병원 전전, 건국대-카이저-속편한내과 즉각대응팀 파견  
날짜: 2015062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1650984  
본문: 22일 보건복지부 중앙메스르관리대책본부가 발표한 170번째 환자가 그동안 감시망에서 빠져 있었던 관계로 4군데 병원을 전전한 것으로 드러나 비상이 걸렸다. <br/> <br/>170번째 환자가 다녀간 건국대병원과 구리시 카이저병원, 구리시 속편한내과에 즉각대응팀과 이행팀이 파견돼 접촉자 격리조치가 실시됐다. <br/> <br/>국민안심병원인 한양대구리병원은 170번째 환자에 대해 선별진료 후 곧바로 격리조치를 실시,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r/> <br/>지난달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건국대병원에 입원했던 170번째 환자는 지난 6월 6일 76번째 확인자와 같은 병동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br/> <br/>170번째 환자는 퇴원후  20일까지 구리시에 위치한 카이저병원에 입원 후 같은지역 속편한내과도 들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br/> <br/>20일 한양대구리병원을 내원해 격리시설로 분리된 뒤 검사 결과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았다. <br/> <br/>애초 170번 환자는 76번 환자와 같은 병동이었지만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밀접 접촉자범위에서 제외돼 격리 혹은 능동감시대상에 들어있지 보건 당국의 개입없이 자유롭게 다른 병원을 오고 갔다. <br/> <br/>170번 환자의 메르스 증상 발현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한양대구리병원 내원시 발열과 폐렴 의심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관련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br/> <br/>보건당국은 건대병원에 대해 170번째 환자가 입원했던 6층 병동을 대상으로 입원상태인 환자 퇴원 중지 및 신규 입원을 중지시키고 기존 환자들은 1인 1실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br/> <br/>카이저병원은 건물 출입 통제와 엘리베이터 가동 중지 및 전체 소독이 진행됐다. <br/> <br/>170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6인 그리고 입원 전체 환자에 대해 1인 1실 격리조치할 예정이다. <br/> <br/>그 외 병원 방문자 전체는 능동감시, 6~7층 의료진과 간호사, 보호자 등은 자택격리한다. 아울러 카이저병원을 포함한 속편한내과 방문자에 대해 신고접수를 시행 중이다. <br/> <br/>한편 이날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3명 늘어 총 172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br/> <br/>사망자도 2명 증가해 모두 27명으로 집계됐다. <br/> <br/>유일한 10대 청소년 확진자였던 67번 환자를 포함해 퇴원자 7명이 늘어, 퇴원자는 총 50명으로 확대됐다. <br/> <br/>신규 확진자 중 171번째 환자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14번 환자로부터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r/> <br/>172번째 환자는 대청병원에서 근무한 간병인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 내 추가 감염자는 총 14명으로 늘었다. <br/> <br/>사망자는 101번째 환자(남 84세· 암)와 128번 환자(남 87세· 심방세동/심부전/암/뇌졸중)로 6월 21일과 22일 사이 사망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70.txt

제목: 메르스 3명 추가 172명, 사망 2명 는 27명 치사율 15.7%, 격리 3833명  
날짜: 2015062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1513738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3명 증가해 172명으로 늘었다. <br/> <br/>또 환자 2명이 숨져 전체 사망자는 27명으로 치사율이 15.7%로 높아졌다. <br/> <br/>새로 추가된 환자 중에는 최대 잠복기(14일)보다 10일 지나 확진판정을 받아 잠복기 개념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을 남겼다. <br/> <br/>격리자는 3833명으로 4일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br/> <br/>22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br/> <br/>170번 환자(77)는 지난 6일 76번 환자와 건국대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했다가 감염됐다. <br/> <br/>171번 환자(60·여)는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던 환자로, 최대 잠복기(14일)를 10일 가량 넘겨 확진 판정을 받았다. <br/> <br/>172번 환자(61·여)는 대청병원에 근무한 간병인이다. <br/> <br/>전체 환자가 17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병원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가 80명(46.5%)으로 가장 많고, 환자 가족이나 방문객이 59명(34.3%), 의료진 등 병원 관련 종사자가 33명(19.2%)이다. <br/> <br/>기존 확진자 가운데 101번(84), 128번(97) 환자가 지난 21일과 22일 새벽에 잇따라 사망했다. <br/> <br/>101번은 삼성서울병원에서, 128번은 대청병원에서 각각 감염된 환자로, 암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br/> <br/>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9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29.6%), 80대 5명(18.5%), 50대 4명(14.8%), 40대 1명(3.7%) 순이다. <br/> <br/>주말 사이 새로 완치된 사람은 모두 7명으로 퇴원자가 50명으로 증가했다. <br/> <br/>유일한 10대 환자였던 67번 환자(16)가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 메르스 검사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판정을 받았다. <br/> <br/>22번(39·여), 49번(75), 55번(36), 68번(55·여), 130번(65·여), 144번(71) 환자가 완치해 퇴원했다. <br/> <br/>67번 환자는 다른 질환 치료를 위해 20일부터 일반 병상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br/> <br/>이날 오전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3833명으로 전날보다 202명 줄어 4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br/> <br/>하루 사이 격리가 해제된 사람이 519명 늘어 전체 격리 해제자는 9331명이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71.txt

제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사망자 25명 치사율 14.8%… 감염자 중 의사는 2명  
날짜: 20150622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1454430  
본문: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br/>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사망자 25명 치사율 14.8%… 감염자 중 의사는 2명 <br/> <br/> <br/>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으로 증가했다. <br/> <br/>3명이 추가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국내 감염자 수가 169명으로 늘었다. 또 1명이 추가로 숨져 국내 사망자 수가 25명으로 늘어 치사율은 약 14.8%다. <br/> <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67번(53)·168번(36)·169번(34)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의료진이다. <br/> <br/>167번 환자는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있을 때 76번 환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168번 환자는 방사선사로, 지난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 환자를 X선 촬영할 때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이 2명은 7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에 격리돼 있었다. <br/> <br/>169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의사로, 이 병원 보안요원인 135번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br/> <br/>기존 확진자 가운데 112번(63) 환자는 20일 오후 6시쯤 숨졌다.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4번 환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오한, 발열 등 증상을 보였고,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심근허혈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호흡 기능을 상실해 사망했다. <br/> <br/>한편 기존 확진자 가운데 11번(여·79)·29번(여·77)·43번(여·24)·107번(여·64)·134번(여·67)·139번(여·64)·142번(31) 환자 등 7명이 지난 19~20일 퇴원했다. 이로써 완치자는 43명으로 늘었다. <br/> <br/>국내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9명 가운데 43명이 퇴원하고 25명이 사망했으며, 나머지 101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4명은 상태가 불안정하다. <br/> <br/>21일 오전 6시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4035명으로, 전날보다 1162명(22.4%) 순감했다. 자택에 격리된 사람이 1149명, 병원에 격리된 사람이 13명으로 집계됐다. <br/> <br/>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소식에 네티즌은 “<span class='quot0'>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줄어드는 줄 알았더니</span>”, “<span class='quot0'>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이러다 200명 가겠네</span>”, “<span class='quot0'>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br/> <br/>인터넷팀 김현주 기자 k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72.txt

제목: 메르스 음성 판정 뒤 잇단 이상증세…충북도 '화들짝'  
날짜: 2015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2100000224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충북에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도내 방역 관계자들은 하루하루가 바늘 방석이다.메르스 잠복기인 2주일을 넘겨 이상 증세를 갑작스럽게 호소하는 의심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리는 것이다.추가 검사에서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나면서 방역 관계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지만 다른 시·도에서 양성·음성이 뒤집히는 사례가 있었고, 잠복기를 넘겨 양성 확진된 경우도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22일 충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뒤늦은 의심 증세는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지난 1∼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았던 30대 여성은 지난 16일과 18일 유전자 검사에서 모두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이 여성은 지난 20일 돌연 37.5도의 발열 및 기침 증상을 보여 보건 당국이 바짝 긴장했으나 이튿날 이뤄진 3차 검사에서 재차 음성 판정을 받았다.지난달 28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거쳐 입원했다가 지난 2일 퇴원한 50대 남성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 2차례 받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지난 19일 39도의 고열 증상을 보여 국가 지정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았으나 또다시 음성으로 확인됐다. 뒤늦은 이상 증세는 폐렴 증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격리 대상이 아니거나 격리 조치 해제 후 이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도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잇따라 확인되면서 방역 관계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심근경색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던 70대 여성은 지난 21일 기침과 고열 증상을 보였다.격리 대상도 아니었던 이 여성은 즉시 국가 지정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다행히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이 병원 응급실이 폐쇄 조처됐으나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서 이 조치는 즉시 풀렸다.지난 2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어깨 통증을 치료한 50대 여성은 일상생활을 하되 시·군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는 능동 감시자로 분류됐다.지난 17일 그 대상에서 해제됐으나 돌연 지난 19일 가래와 콧물 증상이 있다고 신고하면서 도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당일 이뤄진 1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고, 48시간 뒤인 21일 실시된 2차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진됐다.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의 질환 때문에 고열이 나더라도 메르스 감염을 일단 의심할 수밖에 없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73.txt

제목: 메르스 확진 환자 3명 추가… 사망자는 2명 늘어, 치사율 15.7%  
날짜: 2015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2100000942  
본문: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 일일 브리핑에서 80대 2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감염된 84살 남성으로 암을 앓고 있던 확진자와 대청병원에서 16번 환자에 옮은 87살 남성으로 암과 뇌졸중을 앓고 있던 확진자로, 모두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다.이로써 전체 메르스 사망자는 27명으로 집계됐고 치사율도 15.7%로 올라갔다. 사망자 성별을 비율로 따지면 남성이 20명, 여성이 7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배 가까이 많다. 메르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밤 사이 3명 늘어나 172명이 됐다.특히 건국대병원에서 추가로 감염자가 나왔는데 숨진 76번 환자와 지난 6일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77살 남성이다. 또 지난달 27~29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60살 여성도 추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고, 대청병원에 근무한 간병인 61살 여성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70 환자가 격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전해져 화제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는 멀리 떨어져있는 병실에 있었다는 이유로 접촉자 관리 대상에 넣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170번 확진자가 건대병원에서 수술하고 퇴원한 뒤 지난 19일 20일 구리시 카이저재활병원과 속편한내과, 21일 구리 한양대병원 등을 돌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뒤늦게 이 부분을 확인하고 170번 환자가 구리 카이저병원을 방문자 전체를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메르스 환자 3명 추가, 심각하다" "메르스 환자 3명 추가, 감염경로 파악 늦어?" 메르스 환자 3명 추가, 그만 확산돼라" "메르스 환자 3명 추가, 큰일났네"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사진=YTN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74.txt

제목: 메르스 치료 중인 환자 2주 만에 두자릿수로  
날짜: 20150622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210017673209  
본문: 22일 현재 메르스 확진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는 모두 95명으로 2주 만에 두자릿수로 감소했다. 유일한 10대 환자였던 67번째(16) 환자를 비롯한 확진자 7명이 20∼21일 퇴원해 전체 퇴원자는 50명으로 늘었다. 격리 대상자도 3833명으로 전날보다 202명이 줄어 나흘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br/> <br/>이날 메르스 확진자는 3명이 늘어 172명을 기록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101번째(84)와 128번째(97) 환자는 지난 21일과 22일 새벽에 잇따라 사망했다. 이들은 암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방역당국은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경기도 구리시 카이저병원 방문자 전체를 격리하기로 했다. 또 추가 환자가 발생한 건국대병원에서는 해당 병동의 신규 입원을 중단하고 병원 의료진과 보호자 등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지난 19∼20일 카이저병원과 속편한내과(구리시) 방문자에 대해서는 구리시청 콜센터(031-550-8971∼4)를 통한 신고를 당부했다. <br/> <br/>조병욱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75.txt

제목: 메르스 환자 3명 추가 172명…사망자 2명 늘어 27명  
날짜: 2015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2100000232  
본문: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명 추가 확인돼 172명으로 늘었다. 기존 확진자 중에서 2명이 숨져 전체 사망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2일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70번 환자(77)는 지난 6일 76번 환자와 건국대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했다가 감염됐다.171번 환자(60·여)는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던 환자로, 최대 잠복기(14일)를 10일 가량 넘겨 확진 판정을 받았다.172번 환자(61·여)는 대청병원에 근무한 간병인이다.이로써 전체 환자는 172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에는 병원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가 80명(46.5%)으로 가장 많고, 환자 가족이나 방문객이 59명(34.3%), 의료진 등 병원 관련 종사자가 33명(19.2%)이다.사망자도 2명 늘었다.기존 확진자 가운데 101번(84), 128번(97) 환자가 지난 21일과 22일 새벽에 잇따라 사망했다.101번은 삼성서울병원에서, 128번은 대청병원에서 각각 감염된 환자로, 암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사망자는 총 27명으로 늘어 전체 확진자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전날보다 소폭 오른 15.7% 수준이다.사망자 연령별로는 60대가 9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29.6%), 80대 5명(18.5%), 50대 4명(14.8%), 40대 1명(3.7%) 순이다.주말 사이 새로 완치된 사람은 모두 7명이었다.유일한 10대 환자였던 67번 환자(16)가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 메르스 검사를 모두 음성으로 통과하고 완치판정을 받은 것을 비롯해 22번(39·여), 49번(75), 55번(36), 68번(55·여), 130번(65·여), 144번(71) 환자가 완치해 퇴원했다.다만 67번 환자는 다른 질환 치료를 위해 20일부터 일반 병상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현재까지 퇴원자는 모두 50명이다.한편 이날 오전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3천833명으로 전날보다 202명 줄었다. 4일 연속 감소세다.하루 사이 격리가 해제된 사람이 519명 늘어 전체 격리 해제자는 9천331명에 달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76.txt

제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총 172명…사망자 2명 추가 27명 ‘치사율 15.7%’  
날짜: 2015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2100001235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명이 추가되면서 172명으로 늘었다. 기존 확진자 중에서 2명이 숨져 전체 사망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2일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70번 환자(77)는 지난 6일 76번 환자와 건국대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했다가 감염됐다.171번 환자(60·여)는 지난 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던 환자로, 최대 잠복기(14일)를 10일 가량 넘겨 확진 판정을 받았다. 172번 환자(61·여)는 대청병원에 근무한 간병인이다. 이로써 전체 환자는 172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에는 병원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가 80명(46.5%)으로 가장 많고, 환자 가족이나 방문객이 59명(34.3%), 의료진  등 병원 관련 종사자가 33명(19.2%)이다.사망자도 2명 늘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101번(84), 128번(97) 환자가 지난 21일과 22일 새벽 잇따라 사망했다. 101번은 삼성서울병원에서, 128번은 대청병원에서 각각 감염된 환자로, 암 등의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사망자는 총 27명으로 늘어 전체 확진자를 기준으로 한 치사율은 전날보다 소폭오른 15.7% 수준이다.사망자 연령별로는 60대가 9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29.6%), 80대5명(18.5%), 50대 4명(14.8%), 40대 1명(3.7%) 순이다.주말 사이 새로 완치된 사람은 모두 7명이었다. 유일한 10대 환자였던 67번 환자(16)가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 메르스 검사를  모두 음성으로 통과하고 완치판정을 받은 것을 비롯해 22번(39·여), 49번(75),  55번(36), 68번(55·여), 130번(65·여), 144번(71) 환자가 완치해 퇴원했다.다만 67번 환자는 다른 질환 치료를 위해 20일부터 일반 병상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퇴원자는 모두 50명이다. 한편 이날 오전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3833명으로 전날보다 202명 줄었다. 4일 연속 감소세다.하루 사이 격리가 해제된 사람이 519명 늘어 전체 격리 해제자는 9331명에 달했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77.txt

제목: 메르스 3명 추가 172명, 사망 2명 는 27명 치사율 15.7%, 격리 3833명  
날짜: 20150622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2100000473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3명 증가해 172명으로 늘었다. 또 환자 2명이 숨져 전체 사망자는 27명으로 치사율이 15.7%로 높아졌다. 새로 추가된 환자 중에는 최대 잠복기(14일)보다 10일 지나 확진판정을 받아 잠복기 개념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을 남겼다.격리자는 3833명으로 4일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22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70번 환자(77)는 지난 6일 76번 환자와 건국대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했다가 감염됐다.171번 환자(60·여)는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던 환자로, 최대 잠복기(14일)를 10일 가량 넘겨 확진 판정을 받았다.172번 환자(61·여)는 대청병원에 근무한 간병인이다.전체 환자가 17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병원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가 80명(46.5%)으로 가장 많고, 환자 가족이나 방문객이 59명(34.3%), 의료진 등 병원 관련 종사자가 33명(19.2%)이다.기존 확진자 가운데 101번(84), 128번(97) 환자가 지난 21일과 22일 새벽에 잇따라 사망했다.101번은 삼성서울병원에서, 128번은 대청병원에서 각각 감염된 환자로, 암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9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29.6%), 80대 5명(18.5%), 50대 4명(14.8%), 40대 1명(3.7%) 순이다.주말 사이 새로 완치된 사람은 모두 7명으로 퇴원자가 50명으로 증가했다.유일한 10대 환자였던 67번 환자(16)가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 메르스 검사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판정을 받았다.22번(39·여), 49번(75), 55번(36), 68번(55·여), 130번(65·여), 144번(71) 환자가 완치해 퇴원했다.67번 환자는 다른 질환 치료를 위해 20일부터 일반 병상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이날 오전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3833명으로 전날보다 202명 줄어 4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루 사이 격리가 해제된 사람이 519명 늘어 전체 격리 해제자는 9331명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78.txt

제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사망자 25명 치사율 14.8%… 감염자 중 의사는 2명  
날짜: 20150622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2100000985  
본문: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사망자 25명 치사율 14.8%… 감염자 중 의사는 2명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으로 증가했다.3명이 추가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국내 감염자 수가 169명으로 늘었다. 또 1명이 추가로 숨져 국내 사망자 수가 25명으로 늘어 치사율은 약 14.8%다.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67번(53)·168번(36)·169번(34)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의료진이다.167번 환자는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있을 때 76번 환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168번 환자는 방사선사로, 지난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 환자를 X선 촬영할 때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이 2명은 7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에 격리돼 있었다.169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의사로, 이 병원 보안요원인 135번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기존 확진자 가운데 112번(63) 환자는 20일 오후 6시쯤 숨졌다.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4번 환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오한, 발열 등 증상을 보였고,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심근허혈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호흡 기능을 상실해 사망했다.한편 기존 확진자 가운데 11번(여·79)·29번(여·77)·43번(여·24)·107번(여·64)·134번(여·67)·139번(여·64)·142번(31) 환자 등 7명이 지난 19~20일 퇴원했다. 이로써 완치자는 43명으로 늘었다.국내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9명 가운데 43명이 퇴원하고 25명이 사망했으며, 나머지 101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4명은 상태가 불안정하다.21일 오전 6시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4035명으로, 전날보다 1162명(22.4%) 순감했다. 자택에 격리된 사람이 1149명, 병원에 격리된 사람이 13명으로 집계됐다.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소식에 네티즌은 “<span class='quot0'>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줄어드는 줄 알았더니</span>”, “<span class='quot0'>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이러다 200명 가겠네</span>”, “<span class='quot0'>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인터넷팀 김현주 기자 k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79.txt

제목: 감시망에 빠진 170번째 환자 4군데 병원 전전, 건국대-카이저-속편한내과 즉각대응팀 파견  
날짜: 20150622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2100001206  
본문: 22일 보건복지부 중앙메스르관리대책본부가 발표한 170번째 환자가 그동안 감시망에서 빠져 있었던 관계로 4군데 병원을 전전한 것으로 드러나 비상이 걸렸다. 170번째 환자가 다녀간 건국대병원과 구리시 카이저병원, 구리시 속편한내과에 즉각대응팀과 이행팀이 파견돼 접촉자 격리조치가 실시됐다. 국민안심병원인 한양대구리병원은 170번째 환자에 대해 선별진료 후 곧바로 격리조치를 실시,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지난달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건국대병원에 입원했던 170번째 환자는 지난 6월 6일 76번째 확인자와 같은 병동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0번째 환자는 퇴원후  20일까지 구리시에 위치한 카이저병원에 입원 후 같은지역 속편한내과도 들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양대구리병원을 내원해 격리시설로 분리된 뒤 검사 결과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았다.애초 170번 환자는 76번 환자와 같은 병동이었지만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밀접 접촉자범위에서 제외돼 격리 혹은 능동감시대상에 들어있지 보건 당국의 개입없이 자유롭게 다른 병원을 오고 갔다. 170번 환자의 메르스 증상 발현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한양대구리병원 내원시 발열과 폐렴 의심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관련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건대병원에 대해 170번째 환자가 입원했던 6층 병동을 대상으로 입원상태인 환자 퇴원 중지 및 신규 입원을 중지시키고 기존 환자들은 1인 1실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카이저병원은 건물 출입 통제와 엘리베이터 가동 중지 및 전체 소독이 진행됐다. 170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6인 그리고 입원 전체 환자에 대해 1인 1실 격리조치할 예정이다.그 외 병원 방문자 전체는 능동감시, 6~7층 의료진과 간호사, 보호자 등은 자택격리한다. 아울러 카이저병원을 포함한 속편한내과 방문자에 대해 신고접수를 시행 중이다.한편 이날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3명 늘어 총 172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도 2명 증가해 모두 27명으로 집계됐다. 유일한 10대 청소년 확진자였던 67번 환자를 포함해 퇴원자 7명이 늘어, 퇴원자는 총 50명으로 확대됐다. 신규 확진자 중 171번째 환자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14번 환자로부터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72번째 환자는 대청병원에서 근무한 간병인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 내 추가 감염자는 총 14명으로 늘었다.사망자는 101번째 환자(남 84세· 암)와 128번 환자(남 87세· 심방세동/심부전/암/뇌졸중)로 6월 21일과 22일 사이 사망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80.txt

제목: 확산세 '주춤'… 메르스 사태 한 고비 넘겼나  
날짜: 20150622  
기자: 한현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2100000328  
본문: 메르스 사태가 한 고비를 넘긴 것일까.21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 169명 가운데 약 4분의 1인 43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지난주부터 퇴원 환자 수가 치료 중 숨진 환자의 수를 넘어섰다. 메르스 완치자의 평균 치료 일수는 11.9일 정도였다. 메르스 감염이 의심됐던 격리 대상자들도 속속 격리에서 풀려나고 있다. 메르스 격리 대상자는 전날보다 1162명 급감한 4035명으로 집계됐다.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도 8812명으로 전날 7451명보다 증가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보건당국은 확진자 대부분이 병원 내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만큼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강동경희대병원과 아산 충무병원 등 주요 병원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 메르스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0일 격리치료를 받던 112번째 환자 김모(63)씨가 숨졌다고 이날 밝혔다. 전주에 사는 김씨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당뇨를 앓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30일부터 오한과 발열 증상을 보여 전주 예수병원을 찾았다. 이튿날 김씨는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메르스 14번째 환자와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고 곧바로 자가격리됐다. 이후 실시한 1,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서 능동감시 대상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인 9일 김씨는 다시 근육통과 기침, 설사 증세를 보여 전주보건소에 재신고했다. 김씨는 3차 검사 결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지역거점 지정병원에 격리조치됐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김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호흡기능 상실이며 간접 원인은 메르스 감염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파악됐다</span>”고 말했다.김민순 기자, 전주=한현묵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81.txt

제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성서울병원 의사 1명 포함  
날짜: 20150621  
기자: 박수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1036938  
본문:   <br/> <br/>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건국대병원 방사선사 등 3명이 추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환자 수는 169명으로 늘어났다. <br/> <br/>2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br/> <br/>2명은 먼저 확진을 받은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 <br/> <br/>167번 환자(53)는 76번 환자와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함께 머물렀고, 168번 환자(36)는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 환자의 X레이 촬영을 한 방사선사다. <br/> <br/>두 환자는 지난 7일 7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에 격리 중이던 상황에서 증상이 확인됐다. <br/> <br/>169번 환자(34)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의사로,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135번 환자를 담당하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br/> <br/>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메르스 확진자 진료 도중에 의료진이 감염된 것은 이 병원 방사선사와 간호사에 이어 세 번째다. <br/> <br/>사망자도 1명 추가됐다. <br/> <br/>대책본부는 기존 확진자 가운데 112번 환자(63)가 전날 오후 6시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br/> <br/>전주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0일부터 오한,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r/> <br/>평소 심근허혈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기능상실, 간접 사인은 메르스 감염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파악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br/> <br/>이로써 전체 메르스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다.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14.8%를 기록했다. <br/> <br/>현재까지 사망자의 연령별로는 60대가 9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32.0%), 50대 4명(16.0%), 80대 3명(12.0%), 40대 1명(4.0%) 순이며, 25명 가운데 23명(92.0%)이 만성질환자와 고연령층 등 메르스 고위험군이다. <br/> <br/>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7명 추가돼 모두 43명으로 늘어났다. <br/> <br/>기존 확진자 가운데 11번(79·여), 29번(77·여), 43번(24·여), 107번(64·여), 134번(68·여), 139번(64·여), 142번(31) 환자가 지난 19∼20일 사이 퇴원했다. <br/> <br/>이들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다. <br/> <br/>현재까지 퇴원자 가운데에는 40대가 14명(32.6%), 50대·60대가 각각 8명(18.6%), 70대 5명(11.6%), 20대·30대가 각각 4명(9.3%)이다. <br/> <br/>국내 메르스 확진자 169명 가운데 퇴원자 43명과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101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4명은 상태가 불안정하다. <br/> <br/>메르스 격리 해제자가 늘어나면서 격리 중인 사람의 수도 전날보다 크게 줄었다. <br/> <br/>이날 6시 현재 격리자는 모두 4035명으로, 전날보다 1162명(22.4%) 줄었다. 자가격리자가 1149명, 병원격리자는 13명 각각 감소했다. <br/> <br/>어제 하루 1361명이 새로 격리에서 해제돼 지금까지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8812명으로 늘어났다. <br/> <br/>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82.txt

제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삼성서울 의사 1명 포함  
날짜: 2015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1100000268  
본문: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건국대병원 방사선사 등 3명이 추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 수는 총 169명으로 늘어났다.2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들 가운데 2명은 먼저 확진을 받은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167번 환자(53)는 76번 환자와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함께 머물렀고, 168번 환자(36)는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 환자의 X레이 촬영을 한 방사선사다.두 환자는 지난 7일 7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에 격리 중이던 상황에서 증상이 확인됐다.169번 환자(34)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의사로,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135번 환자를 담당하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메르스 확진자 진료 도중에 의료진이 감염된 것은 이 병원 방사선사와 간호사에 이어 세 번째다.사망자도 1명 추가로 발생했다.대책본부는 기존 확진자 가운데 112번 환자(63)가 전날 오후 6시께 사망했다고 밝혔다.전주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0일부터 오한,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평소 심근허혈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기능상실, 간접 사인은 메르스 감염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파악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이로써 전체 메르스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다.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14.8%를 기록했다.현재까지 사망자의 연령별로는 60대가 9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32.0%), 50대 4명(16.0%), 80대 3명(12.0%), 40대 1명(4.0%) 순이며, 25명 가운데 23명(92.0%)이 만성질환자와 고연령층 등 메르스 고위험군이다.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7명 추가돼 모두 43명으로 늘어났다.기존 확진자 가운데 11번(79·여), 29번(77·여), 43번(24·여), 107번(64·여), 134번(68·여), 139번(64·여), 142번(31) 환자가 지난 19∼20일 사이 퇴원했다.이들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퇴원자 가운데에는 40대가 14명(32.6%), 50대·60대가 각각 8명(18.6%), 70대 5명(11.6%), 20대·30대가 각각 4명(9.3%)이다.국내 메르스 확진자 169명 가운데 퇴원자 43명과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101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상태가 불안정하다.한편 메르스 격리 해제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의 수도 전날보다 크게 줄었다.이날 6시 현재 격리자는 모두 4천35명으로, 전날보다 1천162명(22.4%) 줄었다. 자가격리자가 1천149명, 병원격리자는 13명 각각 감소했다.어제 하루 1천361명이 새로 격리에서 해제돼 지금까지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총 8천812명으로 늘어났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83.txt

제목: 메르스 삼성서울병원 의사 1명 포함,환자 3명 늘어 총 169명…사망자 25명‘치사율 14.8%’  
날짜: 2015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1100000135  
본문: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건국대병원 방사선사 등 3명이 추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수는 총  169명으로 늘어났다.2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먼저 확진을 받은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167번 환자(53)는 76번 환자와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함께  머물렀고, 168번 환자(36)는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 환자의 X레이 촬영을 한  방사선사다.두 환자는 지난 7일 7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에 격리 중이던 상황에서 증상이 확인됐다.169번 환자(34)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의사로,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135번 환자를 담당하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메르스 확진자 진료 도중에 의료진이 감염된 것은 이 병원 방사선사와 간호사에 이어 세번째다.사망자도 1명 추가로 발생했다.대책본부는 기존 확진자 가운데 112번 환자(63)가 전날 오후 6시께 사망했다고 밝혔다.전주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0일부터 오한,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평소 심근허혈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기능상실,  간접 사인은 메르스 감염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파악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이로써 전체 메르스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다.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14.8%를 기록했다.현재까지 사망자의 연령별로는 60대가 9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32.0%), 50대 4명(16.0%), 80대 3명(12.0%), 40대 1명(4.0%) 순이며, 25명 가운데 23명(92.0%)이 만성질환자와 고연령층 등 메르스 고위험군이다.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7명 추가돼 모두 43명으로 늘어났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11번(79·여), 29번(77·여), 43번(24·여), 107번(64·여), 134번(68·여), 139번(64·여), 142번(31) 환자가 지난 19∼20일 사이 퇴원했다.   이들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다.현재까지 퇴원자 가운데에는 40대가 14명(32.6%), 50대·60대가 각각 8명(18.6%), 70대 5명(11.6%), 20대·30대가 각각 4명(9.3%)이다.국내 메르스 확진자 169명 가운데 퇴원자 43명과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101명이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상태가 불안정하다.한편 메르스 격리 해제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의 수도 전날보다  크게 줄었다.이날 6시 현재 격리자는 모두 435명으로, 전날보다 1162명(22.4%) 줄었다. 자가격리자가 1149명, 병원격리자는 13명 각각 감소했다. 어제 하루 1361명이 새로 격리에서 해제돼 지금까지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총 8812명으로 늘어났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84.txt

제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성서울병원 의사 1명 포함  
날짜: 20150621  
기자: psc@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1100000250  
본문: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건국대병원 방사선사 등 3명이 추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환자 수는 169명으로 늘어났다.2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명은 먼저 확진을 받은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167번 환자(53)는 76번 환자와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함께 머물렀고, 168번 환자(36)는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 환자의 X레이 촬영을 한 방사선사다.두 환자는 지난 7일 7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에 격리 중이던 상황에서 증상이 확인됐다.169번 환자(34)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의사로,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135번 환자를 담당하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메르스 확진자 진료 도중에 의료진이 감염된 것은 이 병원 방사선사와 간호사에 이어 세 번째다.사망자도 1명 추가됐다.대책본부는 기존 확진자 가운데 112번 환자(63)가 전날 오후 6시쯤 사망했다고 밝혔다.전주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0일부터 오한,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평소 심근허혈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기능상실, 간접 사인은 메르스 감염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파악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이로써 전체 메르스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다.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14.8%를 기록했다.현재까지 사망자의 연령별로는 60대가 9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32.0%), 50대 4명(16.0%), 80대 3명(12.0%), 40대 1명(4.0%) 순이며, 25명 가운데 23명(92.0%)이 만성질환자와 고연령층 등 메르스 고위험군이다.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7명 추가돼 모두 43명으로 늘어났다.기존 확진자 가운데 11번(79·여), 29번(77·여), 43번(24·여), 107번(64·여), 134번(68·여), 139번(64·여), 142번(31) 환자가 지난 19∼20일 사이 퇴원했다.이들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다.현재까지 퇴원자 가운데에는 40대가 14명(32.6%), 50대·60대가 각각 8명(18.6%), 70대 5명(11.6%), 20대·30대가 각각 4명(9.3%)이다.국내 메르스 확진자 169명 가운데 퇴원자 43명과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101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4명은 상태가 불안정하다.메르스 격리 해제자가 늘어나면서 격리 중인 사람의 수도 전날보다 크게 줄었다.이날 6시 현재 격리자는 모두 4035명으로, 전날보다 1162명(22.4%) 줄었다. 자가격리자가 1149명, 병원격리자는 13명 각각 감소했다.어제 하루 1361명이 새로 격리에서 해제돼 지금까지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8812명으로 늘어났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85.txt

제목: 확산세 '주춤'… 메르스 사태 한 고비 넘겼나  
날짜: 20150621  
기자: 김민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110017660177  
본문: 메르스 사태가 한 고비를 넘긴 것일까. <br/> <br/>21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 169명 가운데 약 4분의 1인 43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지난주부터 퇴원 환자 수가 치료 중 숨진 환자의 수를 넘어섰다. 메르스 완치자의 평균 치료 일수는 11.9일 정도였다. 메르스 감염이 의심됐던 격리 대상자들도 속속 격리에서 풀려나고 있다. 메르스 격리 대상자는 전날보다 1162명 급감한 4035명으로 집계됐다.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도 8812명으로 전날 7451명보다 증가했다. <br/> <br/>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br/>보건당국은 확진자 대부분이 병원 내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만큼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강동경희대병원과 아산 충무병원 등 주요 병원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br/> <br/>한편 전북도 메르스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0일 격리치료를 받던 112번째 환자 김모(63)씨가 숨졌다고 이날 밝혔다. <br/> <br/>전주에 사는 김씨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당뇨를 앓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30일부터 오한과 발열 증상을 보여 전주 예수병원을 찾았다. 이튿날 김씨는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메르스 14번째 환자와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고 곧바로 자가격리됐다. 이후 실시한 1,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서 능동감시 대상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인 9일 김씨는 다시 근육통과 기침, 설사 증세를 보여 전주보건소에 재신고했다. 김씨는 3차 검사 결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지역거점 지정병원에 격리조치됐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김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호흡기능 상실이며 간접 원인은 메르스 감염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파악됐다</span>”고 말했다. <br/> <br/>김민순 기자, 전주=한현묵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86.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 24일 종료…문제는 없나  
날짜: 2015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1100000432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2차 유행지인 삼성서울병원이 24일 부분 폐쇄 조처가 끝나고 조만간 정상 진료를 재개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메르스 위협을 두고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방역 당국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애초 걱정한 제2의 '슈퍼 전파자'가 나오지 않아 24일이 기한인 부분 폐쇄의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잇단 의료진 감염과 일부 불분명한 전파 경로 등 논란거리가 남아 있다. 21일에도 의사 1명이 추가 확진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대 문제는 의료진 감염이다. 전문 의학 지식을 갖췄고 감염 방지 장비를 착용하는 의사·간호사가 메르스에 걸리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메르스 발병으로 병원이 발칵 뒤집어지고도 확진자 치료를 맡던 방사선사(162번 환자), 간호사(164번 환자), 의사(169번 환자)가 줄줄이 메르스에 걸리면서 감염 관리 부실 논란을 빚고 있다. 162·164번 환자는 미흡한 개인 보호구 탓에 감염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메르스에 감염된 국내 의사 6명 중 4명은 삼성서울병원 소속이다. 확진된 간호사 11명 중에서도 삼성서울병원이 4명으로 가장 많다. 간호사 감염이 다음으로 많았던 곳은 1차 유행지 평택성모병원으로 3명이다.건양대병원이나 대청병원 등 다른 메르스 발병 병원은 의사·간호사 확진자가 없거나 1명씩에 그쳤다.일부 환자의 감염 경로가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다. 삼성서울병원 암 병동에서 아내를 간호하다 감염된 166번 환자는 어디에서 누구와 접촉해 감염됐는지 모호해 방역 당국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았던 환자(115번 환자)와 비뇨기과 외래 환자의 보호자(141번 환자)도 메르스 확진 뒤 일주일 이상이 지났지만 감염 경로가 완벽히 밝혀지지 못한 상태다. 방역 당국은 애초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를 불러온 응급 이송요원 출신 확진자(137번 환자)가 전파를 일으킨 사례가 없어 24일로 예정된 부분 폐쇄 기한의 연장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21일 밝혔다.24일은 '제2의 슈퍼 전파자'가 될 우려가 컸던 이 환자에게 병원 구성원들이 노출된 마지막 시기인 10일에 메르스 잠복기(14일)를 더한 날짜다.그러나 감염 관리나 역학 조사의 문제를 의심할 정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국의 이런 판단은 '안이하다'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방역 당국이 감염 위험 기간 내 삼성서울병원을 거쳐 간 사람 14만여명을 전수 조사하고 병원 측이 직원·방문객에 대해 매일 발열 여부를 확인하지만 모두 사후 대처에 그칠 뿐 근원적 처방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방역 당국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진 감염이 계속된 문제와 관련해 21일 브리핑에서 '보호복을 통상 수준으로만 착용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하면서 잠복기 내 병원 구성원에 대한 관리·통제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단 의료진 중 추가 환자가 나오는지를 살펴보고 철저히 격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그 문제(부분 폐쇄 해제)는 방역 당국이 결정할 일"이라면서 "진료 재개 시기는 속단하기 이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메르스 감염 종식을 위해 당국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환자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 격려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달 27∼29일 응급실에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35)가 머무르면서 바이러스 전파가 시작돼 지금까지 모두 83명의 환자를 냈다. 전체 국내 확진자(169명) 중 49%에 달하는 규모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87.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고구마, 감동이구마~!"  
날짜: 20150620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010017654074  
본문: 간식거리가 없던 시절 군고구마는 우리의 굶주린 배를 든든하게 해줬다. 추운 겨울은 군고구마 계절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행인들의 걸음을 돌려세우곤 했는데, 고구마는 탄수화물 작물 가운데 껍질째 생으로 먹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고구마를 통째로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뿐 아니라 대표적인 성인병인 암이나 당뇨·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버릴 것이 없이 모두 먹을 수 있는 고구마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 봤다.대표적인 구황작물이었던 고구마가 건강식품으로 변신에 성공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br/> <br/>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서울 가락시장에 고구마 반입량은 ▲2000년 2930t ▲2007년 1만4600t ▲2013년 2만6190t으로 13년간 약 8배로 뛰었다. <br/> <br/>과거에 가공용 고구마 거래는 계약재배나 농협을 통한 수매가 주를 이뤘지만, 요즘에는 가정 소비용 거래가 늘어 고구마의 도매시장 반입량이 크게 늘었다. <br/> <br/>고구마 품종별 반입 비중은 밤고구마가 2008년 53.3%에서 2013년 31.4%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에 호박고구마가 44.5%에서 60.3%로 증가했다. 이 기간 가락시장에서 호박고구마 반입량은 연평균 10.8% 늘었다. 1㎏당 가격은 1645원(2008년산)에서 1741원(2013년산)으로 올랐다. 반면 밤고구마는 수요가 줄어 1㎏당 가격이 1498원에서 1322원으로 하락했다. <br/> <br/>물고구마와 호박을 교접해 만든 개량종인 호박고구마는 당도가 높고 수분이 적당해 먹는 느낌이 부드러워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농업관측센터는 분석했다. <br/> <br/>고구마가 전분 등 가공용으로 쓰인 비중은 1995년 44.6%에서 2013년 10.3%로 내렸고 가공용 고구마 소비량도 13만6000t에서 3만4000t으로 줄었다. <br/> <br/>고구마는 구황작물이나 전분·주정 가공 원료로 이용이 줄면서 고구마 생산·유통 산업이 2000년대 초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웰빙' 바람을 타고 고구마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수요가 크게 늘면서 다시 부흥기를 맞았다. <br/> <br/>최근에는 고구마가 건강식품이나 간편한 대용식으로의 소비가 늘고, 샐러드·케이크·피자·스낵·차 등에 이르기까지 소비 용도가 다양해졌다. <br/> <br/>업계에 따르면 고구마 100g당 열량은 ▲생고구마 111㎉ ▲삶은 고구마 114㎉ ▲군고구마 141㎉로 군고구마는 열량도 높을 뿐 아니라 껍질의 좋은 성분을 버리는 셈이다. 고구마는 익힌 후에도 비타민C는 70∼80%가 존재하지만, 가능한 한 굽거나 튀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br/> <br/>고구마에는 아마이드 성분이 있어 장의 발효를 촉진하는데 이 때문에 배가 더부룩하고 방귀가 나올 수 있다. 고구마를 먹을 때 소화효소가 풍부한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이나 소화를 돕는 펙틴이 많은 사과와 함께 먹으면 전분분해를 촉진하고 소화를 돕기 때문에 더부룩한 증세가 없고 방귀를 줄일 수 있다. <br/> <br/>고구마는 3대 영양소 가운데 탄수화물은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므로 우유나 콩 식품 등을 같이 먹으면 고구마의 부족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생고구마나 삶은 고구마를 우유와 함께 갈면 어린이와 노인도 쉽게 먹을 수 있다. 고구마를 다른 잡곡과 함께 고구마 밥을 해 먹어도 영양에 좋다. <br/> <br/>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몸에 좋다고 고구마를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고구마를 먹으면서 밥이나 빵을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돼 건강에 좋지 않다</span>”고 조언한다. <br/> <br/>그렇다면 이 고구마를 제대로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구마는 가능한 한 껍질째 생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는 것이 좋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고구마라도 굽거나 튀기면 영양소가 소실되고 칼로리가 높아 자칫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br/> <br/>건강을 위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가운데 ▲탄수화물 60% ▲단백질 25% ▲지방 15% 비율로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어느 영양소 가운데 지나치거나 적게 먹어도 몸에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탄수화물의 과다섭취는 당뇨 등 성인병이나 비만을 유발한다. <br/> <br/>또 고구마는 자색고구마·호박고구마·밤고구마 등 종류별 그 효과도 각각 다르다. 자색고구마는 자색을 띄게 하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 있다. 이 안토시아닌은 항산화작용이 강하고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방지라며 노화 방지기능과 시력보호 및 콜레스테롤 감소효과가 있다. <br/> <br/>호박처럼 노란색을 띄고 있는 호박고구마. 날 것일 때는 주황색이지만 익히면 짙은 노란색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날 것으로 먹을 수 있도록 육성된 것으로 과일처럼 깎아 먹거나 샐러드 등으로도 먹을 수 있다. 호박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변비가 있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효과를 볼 수 있다. <br/> <br/>밤고구마는 밤맛이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찌거나 구웠을 때 육질이 단단하고 물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껍질은 연붉은색, 속은 연노란색을 띄며 껍질에는 비타민A·E가 풍부해 항암 및 성인병 예방에 좋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88.txt

제목: 네일숍 감염 사망 논란 속 '발암·불임' 물질 노출 주의  
날짜: 20150618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0105538  
본문:   <br/> <br/> <br/>미국 네입숍에서 발관리(페티큐어)를 받던 도중 세균에 감염돼 다리를 절단하고 결국 목숨까지 잃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스탠포드 대학 튜 쿼츠 박사가 네일숍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유독 물질에 자주 노출되면서 신경계와 호르몬 교란을 유발해 불임 및 암 발생률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r/> <br/>지난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내인 라타니아 피터슨-카는 시카고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남편 대럴 카가 지난해 11월 이 네일숍에서 발 관리를 받던 도중 약물에 의한 화상을 입고 세균에 감염돼 다리를 절단했으며, 합병증으로 인해 4일 결국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br/> <br/>이에 카는 지난 12일 네일숍 'A-Z 해피 네일스'(AZ Happy Nails) 네일숍과 중국계 업주 등을 상대로 안전하지 않은 화학약품과 제모제를 부주의하게 사용해 결국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이 와 끝내 목숨을 잃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r/> <br/>이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 및 캘리포니아 암예방협회 튜 쿼츠 박사는 "손톱 미용을 위해 오랜 시간 네일숍에 머무르게 되면 손톱소제용 주요 화장품 중 유독 물질인 톨루엔(벤젠), 포름알데히드(메탄올), 프탈산디뷰틸(가소제)에 노출되면서 신경계, 호르몬 교란을 유발해 불임 및 암 발생률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br/> <br/>실제적으로 양의 차이는 있지만 네일숍에서 사용하는 여러 화학제품에는 암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메탄올)부터 호르몬 분비교란을 일으키는 여러 위험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br/> <br/>일명 벤젠으로 불리는 톨루엔은 매니큐어 및 페니큐어를 마무리 할 때 모양을 내기 위해 용해제로 흔히 사용되는데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불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손톱 위나 끝 부분을 단단하게 해주는 포름알데히드는 그 자체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발암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해 사람이 노출되면 바로 질병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br/> <br/>포름알데히드의 농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0.1ppm 이하의 경우에는 눈, 코, 목에 자극이 오고, 0.25~0.5ppm의 경우에는 호흡기 장애와 천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심한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br/> <br/>2~5ppm의 경우에는 눈물이 나며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10~20ppm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호흡이 곤란해지며, 기침, 두통,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br/> <br/>지난 1981년에 만들어진 쉥케(Schenke)보고서에 따르면 공기 중 30ppm 농도에서 1분간 노출되면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포름알데히드 측청기의 상한치인 50ppm이상의 경우에는 폐의 염증과 더불어 현기증, 구토, 설사, 경련과 같은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독성 폐기종으로 사망할 수 있다. <br/> <br/>네일숍의 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3대 위험과 더불어 적절한 환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손님은 물론 하루 종일 네일숍에 머물러 일하는 종업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br/> <br/>튜 쿼츠 박사는 "네일숍에서 사용되는 화학 약품에 대한 노출로 피부나 눈이 가려운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인체가 계속 노출되게 되면 두뇌와 신경 및 호흡기 계통의 문제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암 발생 및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캘리포니아 암 예방학회에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br/> <br/>특히 튜 쿼츠 박사는 임신을 원하거나 임신을 한 여성의 경우 네일숍에서 사용되는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화학제품 노출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89.txt

제목: 네일숍 감염 사망 논란 속 '발암·불임' 물질 노출 주의  
날짜: 20150618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8100001197  
본문:  미국 네입숍에서 발관리(페티큐어)를 받던 도중 세균에 감염돼 다리를 절단하고 결국 목숨까지 잃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스탠포드 대학 튜 쿼츠 박사가 네일숍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유독 물질에 자주 노출되면서 신경계와 호르몬 교란을 유발해 불임 및 암 발생률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지난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내인 라타니아 피터슨-카는 시카고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남편 대럴 카가 지난해 11월 이 네일숍에서 발 관리를 받던 도중 약물에 의한 화상을 입고 세균에 감염돼 다리를 절단했으며, 합병증으로 인해 4일 결국 사망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카는 지난 12일 네일숍 'A-Z 해피 네일스'(AZ Happy Nails) 네일숍과 중국계 업주 등을 상대로 안전하지 않은 화학약품과 제모제를 부주의하게 사용해 결국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이 와 끝내 목숨을 잃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 및 캘리포니아 암예방협회 튜 쿼츠 박사는 "손톱 미용을 위해 오랜 시간 네일숍에 머무르게 되면 손톱소제용 주요 화장품 중 유독 물질인 톨루엔(벤젠), 포름알데히드(메탄올), 프탈산디뷰틸(가소제)에 노출되면서 신경계, 호르몬 교란을 유발해 불임 및 암 발생률 증가한다"고 경고했다.실제적으로 양의 차이는 있지만 네일숍에서 사용하는 여러 화학제품에는 암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메탄올)부터 호르몬 분비교란을 일으키는 여러 위험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일명 벤젠으로 불리는 톨루엔은 매니큐어 및 페니큐어를 마무리 할 때 모양을 내기 위해 용해제로 흔히 사용되는데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불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손톱 위나 끝 부분을 단단하게 해주는 포름알데히드는 그 자체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발암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해 사람이 노출되면 바로 질병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포름알데히드의 농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0.1ppm 이하의 경우에는 눈, 코, 목에 자극이 오고, 0.25~0.5ppm의 경우에는 호흡기 장애와 천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심한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2~5ppm의 경우에는 눈물이 나며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10~20ppm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호흡이 곤란해지며, 기침, 두통,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증상이 나타난다.지난 1981년에 만들어진 쉥케(Schenke)보고서에 따르면 공기 중 30ppm 농도에서 1분간 노출되면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포름알데히드 측청기의 상한치인 50ppm이상의 경우에는 폐의 염증과 더불어 현기증, 구토, 설사, 경련과 같은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독성 폐기종으로 사망할 수 있다.네일숍의 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3대 위험과 더불어 적절한 환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손님은 물론 하루 종일 네일숍에 머물러 일하는 종업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튜 쿼츠 박사는 "네일숍에서 사용되는 화학 약품에 대한 노출로 피부나 눈이 가려운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인체가 계속 노출되게 되면 두뇌와 신경 및 호흡기 계통의 문제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암 발생 및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캘리포니아 암 예방학회에 연구결과를 보고했다.특히 튜 쿼츠 박사는 임신을 원하거나 임신을 한 여성의 경우 네일숍에서 사용되는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화학제품 노출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90.txt

제목: 태닝하다 생긴 습진? 광선각화증, 음식만으로 피부암 '고민 탈출'  
날짜: 20150618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8100000218  
본문: 그을린 구릿빛 피부는 ‘건강미’의 대표적 상징이다. 이 때문에 여름이면 많은 이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야외 혹은 실내에서 태닝을 즐기는 모습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구릿빛 피부의 욕망에 태닝을 하는 것은 암을 기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햇빛에 피부가 그을리면 붉게 변하면서 각질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증상이 계속 심해진다면 단순 그을림이 아닌 광선각화증을 의심해봐야 한다.광선각화증 원인으로는 태양광선, 장기이식 및 면역결핍, 주위 환경의 발암물질 접촉 등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 원인은 자외선(UV)의 노출이다. 얼굴과 두피, 손, 팔, 종아리 등 만성적으로 자외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부위에 광선각화증 증상이 나타난다. 하얀 각질 때문에 만졌을 때 까칠까칠하며, 각질을 제거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광선각화증 증상으로는 가벼운 자극감, 가려움증, 소량의 출혈 등이 있지만 대부분 초기증상이 거의 없고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습진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습진 연고만 바르거나 내버려두기 쉽다. 하지만 피부암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광선각화증은 쉽게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미국 베텐코트 스킨센터 원장이자 네바다주립대 임상 조교수인 미리암 베텐코트 박사는 “<span class='quot0'>광선각화증은 피부암과 연관성이 높은 질환으로, 육안으로 안 보이는 잠재적 병변과 함께 다발성 병변의 존재 가능성이 있어 치료법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span>”고 했다.광선각화증 증상은 주로 중년이나 노년층에서 자주 발병해 노인각화증이라고도 불리지만, 최근 야외 레저 활동을 하는 인구가 늘면서 젊은 연령에서도 퍼지고 있다.최근 자외선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실내에서 인위적인 태닝이나 선탠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었다. 하지만 UVA를 발산하는 광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UVA는 피부의 면역반응을 억제해 피부의 1차 방어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광선각화증이 발병했다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광선각화증 치료를 위해선 냉동요법, 레이저, 소파술, 외과적 절제 및 생검과 같은 병변 직접적 치료방법이나 국소치료, 광역동 요법과 같은 필드치료법이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요법들은 일정 수준의 불편함이나 통증, 고통 등으로 삶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광선각화증 예방을 위해선 평소에 자외선차단제, 양산, 모자, 의복 등을 이용해 자외선 차단을 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출 부위에는 2시간 이내 간격으로 방수가 되는 자외선차단제를 반복해서 바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부에 좋은 음식, 암에 좋은 음식,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음식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의료계에서 광선각화증의 예방 및 치료에 좋은 음식으로 홍삼을 꼽는다. 국내외에서 각종 임상시험과 연구논문을 통해 각종 효능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받은 홍삼은, 최근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임상시험을 통해 뛰어난 항산화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다.시험은 성인 69명에게 3g의 홍삼을 8주간 꾸준하게 복용하게 한 후 체내 항산화 효소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실험참가자들의 DNA 손상이 17%나 감소했으며, 체내 항산화 효소는 무려 56%나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즉, 홍삼이 활성산소를 생성해 피부 DNA 손상에 따른 피부암 발병률을 저하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윤택구 前 원자력병원장의 실험을 통해서는 홍삼이 ‘천연 항암제’임을 알 수 있다. 실험은 500마리의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발암물질만 투여하고, 다른 그룹에는 발암물질과 홍삼 추출물을 함께 투여한 후 9주 동안 지켜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홍삼 성분이 함께 투여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폐암 전 단계인 폐선종 발생률이 25%나 낮았으며, 간암 발생률은 무려 75%나 낮아지는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처럼 각종 피부암 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홍삼은 관련 제품들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는다. 그중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이 즐겨 먹으면서 유명해진 흑홍삼은 그 수요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몇몇 업체들의 독주체제 속에서 새로운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우리는 보통 ‘홍삼=붉은색’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인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 속에서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등이 포함돼있는 홍삼진액이 외부로 유실되며 색이 변한 결과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홍삼농축액 제작 방식은 거의 모든 홍삼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삼 고유의 검은색을 띠고 있는 흑홍삼은 다중제어기술로 홍삼진액 유출을 막아 다양한 약리성분이 함유된 홍삼 엑기스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다.김재춘 통합의학대학원 교수는 “홍삼 영양분 중 물에 녹는 성분은 47.8%,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은 52.2%다”라며 “기존 방식으로 제작된 홍삼제품은 물에 녹지 않는 52.2%의 성분을 섭취할 수 없다. 하지만 홍삼을 갈아 넣을 경우, 90% 이상의 영양분 섭취가 가능해진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윤택준 유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역시 “면역력을 올려주는 다당체까지 흡수하기 위해선 (홍삼을) 갈아먹는 것이 좋다”며 “채소나 과일을 우려낸 물을 아무리 마셔도 통째로 갈아 먹는 것과 그 효과가 같은 순 없다”고 추천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91.txt

제목: 메르스 사망자 4명 늘어 총 23명… 치사율 13.9%, 계속 늘어  
날짜: 201506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8100000736  
본문: 메르스 환자 가운데 4명이 사망하고,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메르스 감염자는 총 165명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어났다.18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전 6시 기준 메르스 확진자는 전일보다 3명 늘어난 165명이라고 전했다.특히 이날 추가된 환자 가운데 의료진이 2명이 발생했다.163번 환자(53.여)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119번 환자가 입원했던 아산충무병원 의료진이었으며, 164번 환자(35.여)는 75번째, 80번째 환자가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 병동 의료진이다.이날 사망한 환자는 총 4명으로 31번 확진자(69), 42번 확진자(54.여), 77번 확진자(64), 82번 확진자(82.여) 등 4명이 17일에서 18일 새벽사이 사망했다고 전했다.이로써 국내 메르스 환자 가운데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어났고, 치사율은 13.9%로 올랐다.대책본부는 이날 사망한 환자들은 전부 각종 만성질환자(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 및 고연령층이라고 밝혔다.31번 확진자의 경우 결핵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42번 확진자 기관지확장증.고혈압, 77번 확진자 고혈압.천식.괴사성췌장염.보강내감염, 82번 확진자 백내장 양안수술 등을 갖고 있었다.18일 오전 6시 기준 격리자는 6729명이며, 이중 자가 격리자 5857명, 병원 격리자 274명으로 집계됐다.이에 누리꾼들은 "메르스 사망자 23명, 큰일이다" "메르스 사망자 23명 , 휴 언제 끝나나" "메르스 사망자 23명, 명복을 빕니다" "메르스 사망자 23명, 안타깝다"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사진=YTN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92.txt

제목: “메르스를 이기자” 면역력 키우는 건강식품 견과류 관심  
날짜: 201506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8100000480  
본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메르스에 대한 뚜렷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보니 평소 면역력을 키워 질병을 예방하자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영양사협회와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은 최근 ‘면역력 증강 식품 10가지 플러스 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메르스를 포함한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 식품 10가지는 현미, 마늘, 파프리카, 고구마, 고등어, 돼지고기, 홍삼, 표고버섯, 견과류, 요구르트다. 여기에 ‘플러스 원’으로 햇볕이 뽑혔다. 햇볕은 면역력을 높이는 천혜의 성분인 비타민 D를 생성해주기 때문에 메르스를 이기는 플러스 원으로 선정됐다.면역력 증강 10대 식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견과류다. 다른 9가지 모두 단일 품목인데 비해, 견과류는 여러 종류의 견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견과류로는 우리에게 친숙한 호두와 땅콩, 밤, 잣이 있다. 아몬드, 캐슈, 마카다미아, 피스타치오, 피칸, 브라질넛 등도 빼놓을 수 없다. 견과류는 종류가 많다보니 따로 먹기도 하지만, 여러 종류를 혼합(MIX)해 섭취하는 경우가 흔하다. ◇견과류의 효능과 보관법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포함돼 있는 슈퍼푸드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 암과 심장병, 치매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불포화지방산은 지방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억제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견과류에 풍부한 비타민 E는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해 노화를 방지한다. 다양한 비타민 성분과 함께 탄수화물, 미네랄, 식이섬유소 역시 풍부해 변비 증상을 완화시키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며, 철분이 다량 함유돼 빈혈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모든 식품이 그렇듯이, 견과류도 몸에 좋다고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견과류는 지방성분이 많아서 공기나 습기에 노출되면 지방이 산패된다. 그러면 맛과 향이 변하고 곰팡이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보관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견과류의 유통기간은 보통 개봉 전 2개월~4개월이다. 일단 개봉한 견과류는 산소, 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 지퍼백 등 밀폐용기에 조금씩 나눠 담아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 ◇소비 늘어나는 ‘혼합 견과류’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견과류가 건강과 질병 예방에 좋다고 다시 한 번 알려지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다. 견과류는 특히 종류가 많아 여러 품종을 혼합해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몇 가지 재료가 섞이다 보니 품질이 떨어지거나 방부제 등이 첨가된 견과가 포함될 수 있어 구입할 때 신경을 써야 한다.이와 관련, 인기 혼합 견과류 ‘솔티드 넛(Salted Nuts)’을 생산하는 미국 씨즈캔디(See’s CANDIES) 한국 총판 한스텝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견과류, 특히 혼합 견과류를 고를 때에는 사용된 견과의 신선도, 방부제 사용 여부,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span>”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솔티드 넛의 경우 캐슈, 아몬드, 피칸, 호두, 마카다미아, 브라질넛 등 6개의 최상품 견과를 엄선해 사용하고 방부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고 고소한 맛을 그대로 유지한다. 견과를 볶는 기술도 고도화돼 잡맛이 섞이지 않고 견과 고유의 신선한 향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솔티드 넛은 이름(솔티드) 그대로 미량의 소금을 가미해 환상적인 맛의 조화를 이뤄낸 것도 특징이다. 192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제 초콜릿으로 탄생한 씨즈캔디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1972년 인수해 운영해 오고 있다.㈜한스텝에서는 솔티드 넛의 국내 신규 출시를 기념하고 전국민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단품은 1만8000원(정상가 3만5000원), 2개는 ‘1+1’ 개념을 도입해 정상가로 구매 가능하다.행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 진행 중이다. 서울 센트럴시티 내 씨즈캔디 파미에스테이션 매장(02-6282-5335),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매장(02-726-4231), 온라인 쇼핑몰(www.ksees.co.kr)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93.txt

제목: 음주 관련 암, 적당히 마시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날짜: 2015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7100000416  
본문: 적당한 양의 술을 마시는 사람이 폭음하는 사람보다 술로 인한 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17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오타고 의과대학 제니 코너 교수는 이날 웰링턴에서 열린 알코올과 암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뉴질랜드의 음주 관련 암 사망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공개했다.이런 사실은 지난 2007년 뉴질랜드에서 암으로 숨진 사망자 가운데 음주와 상관관계가 있는 243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이는 술이 음주량에 관계없이 사망률을 높일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여성들이 음주로 인한 암으로 숨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코너 교수는 술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결과 중 가장 흔한 게 암이라며 여성들이 음주 때문에 생긴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음주운전 사고로 죽을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전체 유방암 사망자 7명 중 1명이 음주와 관련이 있을 만큼 술이 유방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코너 교수는 그러면서 남성이 술을 더 많이, 자주 마시지만, 알코올 관련 암으로 사망할 위험은 남자나 여자나 거의 비슷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료 분석 결과 하루 1∼4 스탠더드 드링크를 마신 사람이 알코올 관련 암 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며 이는 하루에 4 스탠더드 드링크 이상 마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공개했다.1 스탠더드 드링크는 순수 알코올 10ｇ이 함유된 음료를 말한다. 예컨대 알코올 도수 4%짜리 맥주는 320㎖, 12%짜리 포도주는 110㎖가 1 스탠더드 드링크에 해당한다.코너 교수는 여성들만 놓고보면 알코올 관련 암 사망자의 3분의 1 정도가 하루에 2 스탠더드 드링크 이하를 마신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폭음이 암 발병 위험을 크게 높여주지만 뉴질랜드만 놓고 보면 적당히 마신 사람이 암에 걸릴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알코올액션 뉴질랜드'의 제프 로빈슨 박사는 알코올 중독자나 폭음하는 사람만 위험한 게 아니라 적당히 마시는 보통 사람들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94.txt

제목: "적당량의 음주가 폭음보다 암으로 사망할 가능성 크다"  
날짜: 20150617  
기자: yjchoo@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7100000551  
본문: 적당한 양의 술을 마시는 사람이 폭음하는 사람보다 술로 인한 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17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오타고 의과대학 제니 코너 교수는 이날 웰링턴에서 열린 알코올과 암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뉴질랜드의 음주 관련 암 사망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공개했다.이런 사실은 2007년 뉴질랜드에서 암으로 숨진 사망자 가운데 음주와 상관이 있는 243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이는 술이 음주량에 관계없이 사망률을 높일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여성들이 음주로 인한 암으로 숨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확인됐다.코너 교수는 술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결과 중 가장 흔한 게 암이라며 여성들이 음주 때문에 생긴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음주운전 사고로 죽을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전체 유방암 사망자 7명 중 1명이 음주와 관련이 있을 만큼 술이 유방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코너 교수는 그러면서 남성이 술을 더 많이, 자주 마시지만 알코올 관련 암으로 사망할 위험은 남자나 여자나 거의 비슷하다고 밝혔다.그는 자료 분석 결과 하루 1∼4 스탠더드 드링크를 마신 사람이 알코올 관련 암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며 이는 하루에 4 스탠더드 드링크 이상 마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공개했다.1 스탠더드 드링크는 순수 알코올 10ｇ이 함유된 음료를 말한다. 예컨대 알코올도수 4%짜리 맥주는 320㎖, 12%짜리 포도주는 110㎖가 1 스탠더드 드링크에 해당한다.코너 교수는 여성들만 놓고보면 알코올 관련 암 사망자의 3분의 1 정도가 하루에 2 스탠더드 드링크 이하를 마신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폭음이 암 발병 위험을 크게 높여주지만 뉴질랜드만 놓고 보면 적당히 마신 사람이 암에 걸릴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95.txt

제목: 죽음 앞에 완성한 마지막 자화상, 어둠을 밝힐 빛이 되길 소망했다  
날짜: 20150617  
기자: 미술전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7100000050  
본문: 지난 4월 중견작가 한 사람이 스러져갔다. 1980년대 신표현주의 기법으로 주목을 끌었던 강성원(사진) 화백이다. 입체감과 무게감을 표현하기 위해 실리콘에 아크릴과 유화를 섞어 화폭을 꾸몄던 그였다. 3000개 넘는 실리콘을 사용하며 개인전을 준비해 오던 그는 지난해 11월 암 진단을 받은 뒤 5개월 만에 마지막 자화상을 남긴 채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열악한 작업실 환경이 그에게서 화필을 영원히 앗아가 버린 셈이다. 그를 기리는 유작전이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22일까지 열린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강숙 전 총장은 강 작가를 추모하는 글에서 “<span class='quot0'>그가 남긴 작품들은 하나같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먼 훗날 사람들이 눈을 가질 때 그 찬란함에 놀랄 것</span>”이라고 했다.이 세상이 평강하고 성스러운 정원으로 거듭나기를 열망했던 강 작가였지만 자신의 어둡고 무거운 그림 속 이미지가 주는 압박감에 오랜 시간 시달려야 했다. 생전에 그는 “아무리 자제력을 발휘하여 그림을 단순하고 밝게 표현하려 해도 마무리 과정에 들어서면 다시 침침한 분위기로 일관된다. 왜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지 그 까닭을 정말 나도 모르겠다”고 실토를 했을 정도다.강성원 작 삶-나들이(2014)1990년대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그는 신표현주의의 기수로 평론가들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지만 점차 화단에서 잊혀져 갔다. 작품이 풍기는 어둡고 거칠고 강한 분위기 때문에 상업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깨진 옹기 무덤, 잘린 동물의 머리나 내장 찌꺼기, 흐물거리는 인간의 뇌, 파괴된 피아노 건반 등 부정적이고 기이한 형상들이 화폭에 난무했다. 몸과 영혼의 온갖 배설물을 쏟아내는 듯한 그의 작업은 종교적 ‘방언’ 같은 것이었다.그는 평소 “미술의 최종적인 목표는 선을 이루는 것이다. 내 그림은 영혼 구원에 봉사되어지는 도구”라고 지론처럼 얘기했다. 그는 한동안 자신은 썩은 세상을 파헤쳐 놓기만 한다고, 그의 대안 없는 작업들을 자책하며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절망을 토로하기도 했다. 온 몸에 퍼져버린 암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후에야 비로소 끝낼 수 있었던 마지막 자화상 속에는 이런 메모를 남겼다. “<span class='quot1'>처음엔 조금 놀라고 했어도, 그것이 축복인 줄 후에 알았지.</span>” (032)612-0097편완식 미술전문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96.txt

제목: "내 사랑 마리아 김"…아내 못 잊는 벽안의 순정남  
날짜: 2015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7100000408  
본문: 'Maria (Kim) Stewart(마리아 김 스튜어트). 마리아! 우리가 사랑한 30년 동안 당신은 내가 되었고, 나는 당신이 되었소. 부디 영면하기를.'지난 4월 중순 캐나다 한국일보에 실렸던 한 뼘 크기의 신문광고가 아직도 현지 한인 사이에 회자하고 있다.이 광고를 낸 주인공은 고희를 앞둔 벽안의 순정남 빌 스튜어트(68) 씨. 레이크이리에 거주하는 그는 2013년 4월 22일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 사진과 함께 이 같은 추모의 글을 새겨 광고를 게재한 것이다.이 광고에는 어떤 애틋한 사연이 숨어 있을까.신문에 따르면, 서울 출신인 김 씨는 부모를 일찍 여의어 서울 명동성당에서 자랐다. 1981년 한 의류업체의 후원으로 70여 명의 여성과 함께 캐나다에 이민했다. 처음에는 의류 분야에서 일하다가 '밴틀리스 도넛' 가게로 자리를 옮겨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김 씨가 일하는 가게는 당시 스튜어트 씨가 일하던 보안업체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는 샌드위치를 주문만 하면 입맛에 맞게 척척 만들어주던 김 씨에게 푹 빠졌다. "한 2주 동안 마리아가 일하던 도넛 가게 근처에서 경보기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게를 자주 찾았죠. 나흘째 되는 날 갑자기 마리아가 제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의 아파트로 가 영어를 가르쳤죠."그렇게 영어 선생과 제자로 만난 이들은 사랑도 함께 싹 틔웠다. 이민 3년차이던 1984년 2월 마침내 결혼에 골인했고, 맞벌이를 하던 부부는 1988년 레이크이리에 위치한 농장으로 이사했다. 이듬해 둘이 모은 돈으로 '레이크사이드 컨비니언스'라는 이름의 편의점을 사들여 사장이 됐다.매출 신출 신장과 비례해 결혼 생활도 마냥 행복했다. 그러나 2004년 7월 청천벽력처럼 김 씨에게 암 진단이 내려졌다. 심각했다. 대동맥 주변에 퍼진 종양을 제거하는 대수술 끝에 김 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는 수술 몇 주 만에 편의점에 나와 일했다.하지만 김 씨는 2012년 말 의사로부터 골수암 진단을 받는 동시에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도 받았다. 농장 일이 바빠 관절염이라고 무시했던 것이 병을 키운 결과가 됐다. 후회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던 것이다.김 씨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고국을 찾아 친구들을 만나 석별의 정도 나눴다. 그리고 2013년 4월 22일 온타리오주 던빌의 헐드먼병원에서 '캐나디안 드림'을 마감했다.스튜어트 씨는 아내를 떠나 보낸 뒤 중국계 여성을 만나 재혼했다. 그러나 지난해 아내의 기일이 다가오자 그가 생전에 읽던 한국일보에 추모 광고를 내 기억했고, 올해에도 광고를 게재한 것이다.그는 "매년 한 번씩 커다란 항아리 12개를 부엌 바닥에 가득 늘어놓고 김치를 담그던 아내 마리아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술회했다.현재 이 부부의 사연을 소개한 기사는 이 신문 인터넷판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에 올라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97.txt

제목: '보양식' 장어·매실에 부작용이? 부작용 없는 완전체 건강식품은  
날짜: 20150617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7100000721  
본문: 어느덧 여름이 왔다. 가만히 있어도 얼굴에 땀이 맺히고, 약간의 야외활동에도 기진맥진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띈다. 그래서 여름이면 기운을 차리기 위한 보양식의 소비가 많다. 대표적으로 장어, 매실 등이 있다.필수아미노산을 고루 갖춘 고단백 식품인 장어의 효능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생선보다 150배 함량의 비타민A가 함유돼있어 활성산소 제거, 시각 보호 작용, 암 예방 및 성장을 돕는 기능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특히 장어에는 오메가3 계열 지방산 함량이 높아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 철분, 칼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고 각종 비타민 B군이 많아 피로 회복에 좋은 음식이라는 점도 또 다른 장어의 효능으로 꼽는다.그러나 장어도 부작용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뜨거운 성질이기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과는 궁합이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지질함량이 높아 고지혈증, 통풍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자주 섭취할 경우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매실은 매실 안의 ‘피크르산’ 성분이 간과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해 해독과 배설을 돕는 것으로 유명하다. 식이섬유가 많고 저열량·저지방이라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알려진 매실은 항균 성분이 있어 식중독이나 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능력이 뛰어나 숙취 해소에도 좋다는 것이다.그러나 매실도 부작용이 있는데,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어 날로 먹거나 덜 익은 것을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고 뼈와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에게는 절대적으로 금기하는 식품 중 하나다.그렇다면 장어와 매실의 효능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건강식품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홍삼이다. 홍삼은 국내 및 해외 의학계에서 다수의 임상시험과 연구논문 등을 통해 면역력 높이는 음식,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염증에 좋은 음식, 숙취 해소에 좋은 음식, 혈관에 좋은 음식, 콜레스테롤 낮추는 음식 등으로 입증된 ‘천연 영양제’다.이미 국내에서는 식약처로부터 면역력 강화 효능을 인증받은 홍삼은 뛰어난 항산화 효과로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것으로도 유명하다.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성인 69명을 대상으로 3g의 홍삼을 8주간 꾸준하게 복용하게 한 뒤, 체내 항산화 효소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DNA 손상은 17%나 감소했으며, 체내의 항산화효소는 무려 56%나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 홍삼은 혈류개선에도 특효를 보인다. 정익모 이화여대 교수는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홍삼을 하루 3g씩 10주간 투여한 후 그 경과를 지켜본 결과, 중심동맥의 혈압은 무려 29%나 감소했고, 말초혈관의 혈압 역시 25%나 감소하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홍삼이 혈관의 수축이완 작용에 도움을 줘 혈류량과 혈류 속도까지 정상화 시켰기 때문이다.김성수 고려대학교 박사는 연구 결과를 통해 홍삼이 숙취 해소에 좋은 음식의 기능을 해 간에도 좋은 음식이라고 발표했다. 김 박사는 실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일반 소주 한 병을 마시게 했고, 다른 그룹은 10ml의 홍삼 엑기스를 섞은 소주 한 병을 마시게 한 후 혈액을 채취해 분석했다.알콜 분해효소인 ADH의 활성 정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 30분 후 홍삼 미복용 그룹의 ADH는 1.18mg/dl에 불과했지만 홍삼 복용 그룹은 1.63mg/dl로 나타나 알콜분해효소가 무려 38%나 더 많았다. 혈중알콜농도 역시 소주만 마신 그룹은 123.57mg/dl로 나타났지만, 홍삼을 함께 먹은 그룹은 109.54mg/dl로 12%(14.03mg/dl)나 낮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나타냈다.이처럼 다양한 효능을 자랑하는 홍삼은 다양한 관련상품들이 출시되며 시장 규모만 1조원에 육박할 정도다. 그중에서도 흑홍삼은 엄청난 매출 상승폭을 보이며 정관장을 비롯한 몇몇 업체들의 독주 속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연예인, 운동선수들의 건강식품으로 화제가 되며 출시부터 인기를 얻었던 흑홍삼은 이름 그대로 검은색을 띠고 있다. 인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 속에서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등이 포함돼있는 홍삼 진액이 외부로 빠져나가 색이 붉은색으로 변한 일반홍삼과 달리 다중제어기술로 진액유출을 막아 홍삼 엑기스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최근엔 물에 우려내는 일반적인 홍삼 제작방식이 아닌, 흑홍삼을 통째로 갈아 넣은 제품이 출시되면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재춘 통합의학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홍삼의 영양분은 47.8%의 물에 녹는 수용성 성분과 52.2%의 물에 녹지 않은 불용성 성분으로 구성돼있다. 따라서 물에 달여 내는 기존 홍삼농축액 제작 방식의 경우, 물에 녹지 않는 52.2%의 성분은 버려지게 된다.김 교수는 “(홍삼을) 통째로 갈아 넣을 경우, 90%이상의 영양분 섭취가 가능해진다. 채소나 과일을 우려낸 물과 통째로 갈은 것의 차이를 생각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윤택준 유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span class='quot0'>면역력을 올려주는 다당체까지 흡수하기 위해선 (홍삼을) 갈아먹는 것이 좋다</span>”고 추천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98.txt

제목: ‘제2의 고향’ 히말라야로 달려간 엄홍길  
날짜: 20150617  
기자: river910@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7100000615  
본문: 지난 4월 네팔에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여진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으로 공포는 더욱 커진 상황이었다. 엄홍길은 그때 네팔로 향했다. ‘제2의 고향이자 삶의 일부’였던 네팔의 재난을 외면할 수 없었다. 5월 12일 엄홍길은 네팔의 한 산간마을에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었다. 그때 2차 지진이 덮쳤다. 규모 7.3, 눈앞에서 천지가 흔들리는 첫 지진에 버금가는 위력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뛰어가길래 저도 얼떨결에 덩달아 뛰어나갔죠. 3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던 산 한 면이 그냥 통째로 떨어졌어요. 보고 있는데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그가 기억하는 당시의 상황이다.  엄홍길의 산악 인생에는 영광과 함께 큰 아픔이 공존한다. 사진은 엄홍길(왼쪽)과 등반사고로 세상을 떠난 박무택 대원의 생전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17일 오후 7시30분 방송되는 KBS1 TV ‘그대가 꽃’에서 ‘히말라야의 사나이’ 엄홍길이 전하는 이야기 중 하나다. 그는 방송에서 30년간 산에 미쳐 살았던 시간을 되새긴다.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16개를 오른 위업은 가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엄홍길은 생전의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은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히말라야를 오르는 아들의 무사귀환을 언제나 기도했다. 암으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에게서 들은 사실이었다. 그는 “아버지는 제가 완등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다. 언제나 아버지께 죄송스럽다”고 말한다.아내와 아이들은 인생의 버팀목이었지만 그는 자상한 남편, 아버지는 아니었다. 신혼시절에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네팔에 있는 시간이 길었고, 아들이 태어나고 이틀 뒤에 원정을 떠났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못했다는 엄홍길, 방송에서 아내에게 영상편지를 남겼다. 등반 도중 세상을 떠난 셰르파 다와타망, 후배 산악인 박무택 등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699.txt

제목: 버섯의 효능, 면역력 강화에 고단백 저칼로리로 과식 억제해 ‘다이어트에 적합’  
날짜: 2015061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710017629752  
본문: 버섯의 효능 <br/>버섯의 효능, 면역력 강화에 고단백 저칼로리로 과식 억제해 ‘다이어트에 적합’ 버섯의 효능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먼저 버서의 효능을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활성산소를 제거해 항산화작용을 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조직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을 막는다고 전해진다. 또한 버섯은 고단백에 저칼로리 식품이면서 식이섬유, 비타민, 철, 아연 등 무기질이 풍부하며 포만감은 높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과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뛰어난 다이어트 식품으로 적합하다. 특히 버섯에는 식이섬유가 40%나 들어 있어 장내의 유해물, 노폐물, 발암 물질을 배설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며 햇빛의 자외선에 의해 비타민 D로 바뀌어 장내의 칼슘 흡수를 돕는다고 전해진다. 한편 버섯의 효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버섯의 효능, 암에 좋다고는 예전부터 들었는데 자주 먹어야겠다” “버섯의 효능, 면역력에 좋구나 메르스 예방에도 좋겠네” “버섯의 효능, 버섯 맛 없는데 다이어트에 좋다니 억지로라도 먹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버섯의 효능 버섯의 효능 버섯의 효능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00.txt

제목: 메르스 치사율 11.7% ‘사망자 10.6%는 감염 전 건강했던 환자’  
날짜: 2015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7100001079  
본문: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의 치사율이 17일 기준으로 11.7%다.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메르스 발생초기 치사율이 10% 이하를 밑돌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위원회가 내놓은 메르스 현황 자료를 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메르스 사망자는 전날과 같은 19명이었다. 이날까지 발생한 메르스 환자 162명을 모수로 놓고 보면 치사율은 11.7%다. 이런 치시율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1154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431명이 사망한 37%의 사망률보다는 낮은 것이다.그러나 방역 당국이나 대한감염학회 등이 국내 메르스 환자의 치사율 10% 이하로 봤던 전망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대한감염학회는 지난 4일 분석자료에서 “<span class='quot0'>메르스 환자의 대부분이 감기 몸살 정도로 앓고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있어 국내 환자의 치사율은 외국의 자료와 달리 10%가량으로 낮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는 메르스가 아닌 일반 지역사회 폐렴의 사망률과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치가 아니다</span>”라고 밝혔다.다만, 국내 메르스 사망자가 주로 고위험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은 외국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중동에서는 사망자의 대부분이 고령, 당뇨병, 만성신부전증, 만성폐질환,  면역억제 환자 등으로 기저 질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사망한 메르스 환자 19명 가운데 17명은 만성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알코올성 간경화,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자나 고령 등의 고위험군이었다. 반면 나머지 2명은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율로 보면 사망자의 89.4%가 고위험군이며, 나머지 10.6%가 건강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방역당국은 뚜렷한 기저질환이 없는 메르스 환자일지라도 65세 이상의 고령이라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만큼 아직은 메르스의 치사률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7일 기준으로 상태가 불안정한 18명이 향후 치사률에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점이다.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폐렴구군에 의한 폐렴 사망률이 5~7%인 점을  고려할 때 10% 안팎으로 치사률이 높아지더라도 크게 우려할 만은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01.txt

제목: 고령·기저질환자 아니라고…안심할 수는 없다  
날짜: 20150617  
기자: soon@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7100000029  
본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구민회관에 ‘서초경로바둑교실’ 일시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김범준기자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중 첫 번째 40대 사망자가 나오면서 ‘지병이 있는 고령 환자’ 위주의 메르스 사망 공식이 깨지고 있다.16일 발표된 메르스 사망자 3명 중 2명은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였다. 이제까지 발생한 사망자 19명 중 4명이 기존에 앓던 질병 없이 메르스 감염 후 건강상태가 악화해 사망했다. 사망자 19명 중 만성 호흡기질환이나 암, 뇌혈관 질환 등 기저 질환이 있던 환자는 15명(79%)이다. 하지만 이날 사망자 명단에 포함된 98번 환자(58)와 123번 환자(65)는 70∼80대가 대부분이었던 기존 사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기저질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4일 사망한 81번 환자(61)는 삼성서울병원에 친척 병 문안을 갔다가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호흡 곤란 증세와 폐렴이 악화돼 숨졌다. 지난 12일 사망한 51번 환자(72)는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지만 역시 고령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앓고 있던 병이 없었다.보건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등에서 메르스 사망 위험이 크며, 젊고 건강한 환자는 메르스에 노출돼도 사망률이 낮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의 사망 사례에서는 젊고 건강한 사람도 메르스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30대로 건강했던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 환자·38)와 평택경찰서 경찰관(119번 환자·35)도 아직까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최근 완치자의 혈장을 투여받는 치료까지 시도됐다. 현재 두 사람은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 산소를 공급해주는 에크모(ECMO·체외막산소화장치)와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구민회관에 ‘서초경로바둑교실’ 일시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김범준기자전문가들은 이들이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돼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으로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엄중식 한림대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지병이 있을 경우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크지만, 건강한 사람이라고 100%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span>”고 말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02.txt

제목: 첫 40대 희생자 나와…메르스 위기감 고조  
날짜: 20150617  
기자: futurnalist@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7100000118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40대 희생자가 나왔다. 기저질환 없이 메르스 감염만으로 숨진 환자가 5명 가운데 1명꼴로 생겨나고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공연장 방역 세종문화회관 메르스 대책본부 방역요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김범준 기자◆첫 40대 사망자 발생, 기저질환 없는 사망자도16일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국내 감염자 수가 154명으로 늘었다. 38번 환자(49)에 이어 98번 환자(58), 123번 환자(65)가 사망해 전체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어 치명률이 12.3%에 달했다. 여전히 퇴원자(17명)보다 사망자가 많은 상황이다. 격리자(병원·자가)는 총 5586명으로 하루 전보다 370명이 늘었다. 현재까지 격리 해제자는 383명이 늘어난 3505명이다.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병을 앓고 있던 38번 환자가 숨짐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40대 사망으로 기록됐다.사망자 19명 가운데 만성호흡기질환과 암,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는 15명(79%)이었다. 나머지 4명은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였다. 사망자 성별로는 남성이 14명(74%), 여성이 5명(26%)이며, 연령대별로는 70대 7명, 60대 6명, 50대 3명, 80대 2명이었다. ‘지병이 있는 고령 환자’ 위주의 메르스 사망 공식은 깨지고 있다. 이날 사망자 명단에 포함된 98번 환자(58)와 123번 환자(65)는 70∼80대가 대부분이었던 기존 사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기저질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19명 중 4명이 기존에 앓던 질병 없이 메르스 감염 후 건강상태가 악화해 사망했다. 30대로 건강했던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 환자·38)와 평택경찰서 경찰관(119번 환자·35)도 아직까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최근 완치자의 혈장을 투여받는 치료까지 시도됐으나 차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돼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으로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보건당국, 수십명 감염시킨 슈퍼 전파자 분석대책본부는 슈퍼 전파자의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중동에서 알려진 정보와 달리 환자 1명이 수십명에게 병을 전파할 정도로 감염력이 강해 바이러스 변이 여부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 유전자의 변이 여부는 기존의 메르스 잠복기, 감염경로, 치명률 등을 조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권준욱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슈퍼 전파자의 바이러스가 뭔가 다른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14번, 16번 환자의 경우 (검사)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6일 보건당국은 2번 환자(63·여)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 염기서열 전체를 분석한 결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유전자정보은행에 보관된 메르스 바이러스 표준주와 99.55%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환자가 80명에 육박하고 유행도 지속하자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에 대한 일반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이재호·김민순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03.txt

제목: ‘메르스 공포’ 면역 관리 어떻게?  
날짜: 20150616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5002406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공포가 늘어나며 비타민C,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건강기능 식품이 주목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br/> <br/>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인 감기는 일상에서 우리를 귀찮게 하지만 별 것 아닌 흔한 질병 정도로 생각했지만,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치명성을 갖는 질환이 됐다. 특히 4~5년 전 발생한 신종플루부터 조류독감, 메르스까지 각종 질병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br/> <br/>16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면역 기능에는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 있다. 선천면역은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같이 작동되는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의미한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우리 몸 자체가 선천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이 피부에 상처가 나도 고름이 생겨 빠르게 아물고 회복하는 것은 선천면역의 기능의 특징 중 하나다. <br/> <br/>후천면역은 우리가 예방접종을 통해 특정 바이러스라는 항원에 대한 면역 기억 능력을 사람의 림프구에 심어주고, 기억 현상에 의해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무력화 시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간염, 결핵 등 수많은 질병이 이와 같은 예방주사로써 보호되는 것이다. <br/> <br/>실제로 일상에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미생물과 대치하고 있다. 따라서 평소 면역관리를 통해 어떤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한 건강상태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면역력 저하의 주범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태도가 현대인에게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말한다. <br/> <br/>또한 균형 잡힌 식단을 토대로 한 영양 공급도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빼놓을 수 없다. 양질의 단백질 공급은 면역 기능 증진의 필수 요소인데, 면역 기능에 사용되는 항체, 인터루킨, 사이토카인 등이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선과 살코기, 콩과 달걀을 비롯해 한국의 고유음식인 김치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br/> <br/>마지막으로 주목 해야 할 것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고 흔히 ‘알로에’로 알려진 ‘알로에베라’의 효능이다. 1994년 미국 텍사스 의과대학 앤더슨 암 연구소에서는 자외선 때문에 면역성이 떨어진 피부에 알로에를 바르면 피부암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자외선에 심각하게 노출되면 면역 세포가 파괴되는데, 이때 알로에를 바르면 수일 내로 면역 세포가 80%이상 복구된다는 내용이다. <br/> <br/>흔히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알로에 겔은 알로에베라의 잎 중 먹을 수 없는 부분과 외피를 제거한 후 겔 부분을 분리하여 건조하거나 분쇄, 농축하여 식용에 적합한 원료를 의미한다. 알로에 겔은 면역력 증진, 장 건강과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고 있다. <br/> <br/>A사의 대표제품인 ‘어드밴스드 앰브로토스’는 주원료인 알로에베라겔분말과 함께 부원료인 아라비노갈락탄, 가티검, 트라가칸스검, 글로코사민염 등 다양한 식물유래 당류 성분의 복합물로 인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특히 A사만의 독자적 배합으로 탄생된 어드밴스드 앰브로토스 제품은 ‘매나폴’을 추가로 함유 한 것이 특징이다. <br/> <br/>돌(Dole) 코리아는 알로에 슬라이스(알로에 100%)를 출시했다. 가정에서 손질하기 불편한 알로에를 얇게 잘라 간편하게 포장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돌(Dole) 코리아의 알로에 슬라이스는 냉동실에 살짝 얼린 후 껍질을 잘라내면 더욱 쉽게 먹을 수 있다. 식초에 절여 각종 재료와 함께 밥을 싸서 먹거나, 다른 과일과 함께 갈아 주스를 만들어 맛있고 간편한 영양 간식으로도 즐길 수 있다. <br/> <br/>알로에의 효능이 알려지며 바르는 알로에도 인기다. ‘홀리카 홀리카’의 알로에 99% 수딩젤은 청정 제주산 알로에의 싱그러운 수분감으로 피부를 하루 종일 촉촉하고 산뜻하게 가꿔주며 알로에베라잎즙 성분이 99% 함유되어 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04.txt

제목: 메르스 추가 4명중 3명 최장잠복기 14일보다 길어, 환자 14%인 16명 상태불안  
날짜: 20150616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4744452  
본문: 16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확진자가 전날보다 4명 추가돼 총 154명으로 늘었으며 사망자도 3명 증가해 총 19명으로 집계됐으며 첫 40대 사망자가 나왔다. <br/> <br/>추가된 4명 중 3명(151, 152, 154번 환자)은 지난달 27일~28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가족 간병을 위해 머물다 감염돼 최장잠복기 14일을 훨씬 넘긴 18~19일이 지나 확진됐다. <br/> <br/>또다른 1명(153번 환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옮겨진 4차 감염자이다. <br/> <br/>사망자 3명 중 1명(38번환자, 48세)만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나머지 3명은 기저질환(평소 앓고 있던 병)이 없었다. <br/> <br/>지금까지 사망한 19명 중 기저질환이 없던 이는 4명으로 늘었다.  <br/> <br/>또 환자 중 14%인 16명이 상태가 불안해 호흡기 등을 착용하고 있다. <br/> <br/>16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격리자는 5586명으로 전날보다 370명 늘었다. <br/> <br/>이중 자가격리자는 5238명이며 시설격리자는 348명이다. <br/> <br/>격리해제자는 전일대비 383명 증가한 3505명으로 집계됐다. <br/> <br/>153번 환자의 경우 지난 6월 5일 118번 환자와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한 사례로 4차 감염자다. <br/> <br/>사망자는 38번 환자(남, 49세, 알코올성 간경화/당뇨), 98번 환자(남, 58세), 123번 환자(남, 65세)으로 15~16일 사이 사망했다. <br/> <br/>사망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14명(74%), 여성이 5명(26%)으로 집계됐다. <br/> <br/>연령별로는 70대가 7명(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6명(32%), 50대 3명(16%), 80대 2명(11%) 등이 뒤를 이었다. <br/> <br/>사망자 19명 중 만성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자는 15명(79%)으로 나타났다. <br/> <br/>이날 퇴원자가 3명 추가돼 총 17명으로 늘었다. <br/> <br/>9번 환자(남, 56세), 56번 환자(남, 45세), 88번 환자(남, 47세) 3명이 지난 15일 퇴원했다. <br/> <br/>퇴원자들은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2차례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 <br/> <br/>17명의 퇴원자들 중 남성은 11명(65%), 여성은 6명(35%)이다. <br/> <br/>연령별로는 40대 8명(47%), 50대 3명(18%), 20대, 60대, 70대가 각각 2명(12%)이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05.txt

제목: 원자력 병원 응급실 운영 재개, 의심환자 음성판정에 따라  
날짜: 20150616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4727156  
본문: 서울 노원구의 원자력병원이 16일 오전8시부터 응급실 운영을 재개했다. <br/> <br/>앞서 원자력병원은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삼성서울병원에서 1일간 입원했던 환자가 응급실을 찾은 사실에 따라 응급실을 임시 폐쇄하는 등 감염예방 조치를 했다. <br/> <br/>응급실 운영을 재개한 것은 해당 환자가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1,2차 검사 결과 모두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br/> <br/>원자력병원 관계자는 "암 전문병원으로 입원환자 상당수가 암환자인 점을 감안해 면역력이 떨어진 암환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선제 예방차원에서 격리와 방역 등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06.txt

제목: 죽음 앞에 완성한 마지막 자화상, 어둠을 밝힐 빛이 되길 소망했다  
날짜: 20150616  
기자: 편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610017614186  
본문: 지난 4월 중견작가 한 사람이 스러져갔다. 1980년대 신표현주의 기법으로 주목을 끌었던 강성원(사진) 화백이다. 입체감과 무게감을 표현하기 위해 실리콘에 아크릴과 유화를 섞어 화폭을 꾸몄던 그였다. 3000개 넘는 실리콘을 사용하며 개인전을 준비해 오던 그는 지난해 11월 암 진단을 받은 뒤 5개월 만에 마지막 자화상을 남긴 채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열악한 작업실 환경이 그에게서 화필을 영원히 앗아가 버린 셈이다. 그를 기리는 유작전이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22일까지 열린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강숙 전 총장은 강 작가를 추모하는 글에서 “<span class='quot0'>그가 남긴 작품들은 하나같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먼 훗날 사람들이 눈을 가질 때 그 찬란함에 놀랄 것</span>”이라고 했다. <br/> <br/>이 세상이 평강하고 성스러운 정원으로 거듭나기를 열망했던 강 작가였지만 자신의 어둡고 무거운 그림 속 이미지가 주는 압박감에 오랜 시간 시달려야 했다. 생전에 그는 “아무리 자제력을 발휘하여 그림을 단순하고 밝게 표현하려 해도 마무리 과정에 들어서면 다시 침침한 분위기로 일관된다. 왜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지 그 까닭을 정말 나도 모르겠다”고 실토를 했을 정도다. <br/> <br/>강성원 작 삶-나들이(2014)1990년대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그는 신표현주의의 기수로 평론가들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지만 점차 화단에서 잊혀져 갔다. 작품이 풍기는 어둡고 거칠고 강한 분위기 때문에 상업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깨진 옹기 무덤, 잘린 동물의 머리나 내장 찌꺼기, 흐물거리는 인간의 뇌, 파괴된 피아노 건반 등 부정적이고 기이한 형상들이 화폭에 난무했다. 몸과 영혼의 온갖 배설물을 쏟아내는 듯한 그의 작업은 종교적 ‘방언’ 같은 것이었다. <br/> <br/>그는 평소 “미술의 최종적인 목표는 선을 이루는 것이다. 내 그림은 영혼 구원에 봉사되어지는 도구”라고 지론처럼 얘기했다. 그는 한동안 자신은 썩은 세상을 파헤쳐 놓기만 한다고, 그의 대안 없는 작업들을 자책하며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절망을 토로하기도 했다. 온 몸에 퍼져버린 암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후에야 비로소 끝낼 수 있었던 마지막 자화상 속에는 이런 메모를 남겼다. “<span class='quot1'>처음엔 조금 놀라고 했어도, 그것이 축복인 줄 후에 알았지.</span>” (032)612-0097 <br/> <br/>편완식 미술전문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07.txt

제목: 원자력 병원 응급실 운영 재개, 의심환자 음성판정에 따라  
날짜: 2015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6100000920  
본문: 서울 노원구의 원자력병원이 16일 오전8시부터 응급실 운영을 재개했다. 앞서 원자력병원은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삼성서울병원에서 1일간 입원했던 환자가 응급실을 찾은 사실에 따라 응급실을 임시 폐쇄하는 등 감염예방 조치를 했다. 응급실 운영을 재개한 것은 해당 환자가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1,2차 검사 결과 모두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원자력병원 관계자는 "암 전문병원으로 입원환자 상당수가 암환자인 점을 감안해 면역력이 떨어진 암환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선제 예방차원에서 격리와 방역 등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08.txt

제목: ‘메르스 공포’ 면역 관리 어떻게?  
날짜: 20150616  
기자: hj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6100000687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공포가 늘어나며 비타민C,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건강기능 식품이 주목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인 감기는 일상에서 우리를 귀찮게 하지만 별 것 아닌 흔한 질병 정도로 생각했지만,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치명성을 갖는 질환이 됐다. 특히 4~5년 전 발생한 신종플루부터 조류독감, 메르스까지 각종 질병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면역 기능에는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 있다. 선천면역은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같이 작동되는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의미한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우리 몸 자체가 선천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이 피부에 상처가 나도 고름이 생겨 빠르게 아물고 회복하는 것은 선천면역의 기능의 특징 중 하나다.후천면역은 우리가 예방접종을 통해 특정 바이러스라는 항원에 대한 면역 기억 능력을 사람의 림프구에 심어주고, 기억 현상에 의해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무력화 시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간염, 결핵 등 수많은 질병이 이와 같은 예방주사로써 보호되는 것이다.실제로 일상에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미생물과 대치하고 있다. 따라서 평소 면역관리를 통해 어떤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한 건강상태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면역력 저하의 주범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태도가 현대인에게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말한다.또한 균형 잡힌 식단을 토대로 한 영양 공급도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빼놓을 수 없다. 양질의 단백질 공급은 면역 기능 증진의 필수 요소인데, 면역 기능에 사용되는 항체, 인터루킨, 사이토카인 등이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선과 살코기, 콩과 달걀을 비롯해 한국의 고유음식인 김치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식품이다.마지막으로 주목 해야 할 것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고 흔히 ‘알로에’로 알려진 ‘알로에베라’의 효능이다. 1994년 미국 텍사스 의과대학 앤더슨 암 연구소에서는 자외선 때문에 면역성이 떨어진 피부에 알로에를 바르면 피부암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자외선에 심각하게 노출되면 면역 세포가 파괴되는데, 이때 알로에를 바르면 수일 내로 면역 세포가 80%이상 복구된다는 내용이다.매나테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알로에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생초를 직접 섭취하는 것보다 가공된 제품을 먹는 것이 면역력 증진과 위생면에서 안전하다</span>”고 전했다.흔히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알로에 겔은 알로에베라의 잎 중 먹을 수 없는 부분과 외피를 제거한 후 겔 부분을 분리하여 건조하거나 분쇄, 농축하여 식용에 적합한 원료를 의미한다. 알로에 겔은 면역력 증진, 장 건강과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고 있다.매나테크의 대표제품인 ‘어드밴스드 앰브로토스’는 주원료인 알로에베라겔분말과 함께 부원료인 아라비노갈락탄, 가티검, 트라가칸스검, 글로코사민염 등 다양한 식물유래 당류 성분의 복합물로 인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특히 매나테크만의 독자적 배합으로 탄생된 어드밴스드 앰브로토스 제품은 ‘매나폴’을 추가로 함유 한 것이 특징이다.돌(Dole) 코리아는 알로에 슬라이스(알로에 100%)를 출시했다. 가정에서 손질하기 불편한 알로에를 얇게 잘라 간편하게 포장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돌(Dole) 코리아의 알로에 슬라이스는 냉동실에 살짝 얼린 후 껍질을 잘라내면 더욱 쉽게 먹을 수 있다. 식초에 절여 각종 재료와 함께 밥을 싸서 먹거나, 다른 과일과 함께 갈아 주스를 만들어 맛있고 간편한 영양 간식으로도 즐길 수 있다.알로에의 효능이 알려지며 바르는 알로에도 인기다. ‘홀리카 홀리카’의 알로에 99% 수딩젤은 청정 제주산 알로에의 싱그러운 수분감으로 피부를 하루 종일 촉촉하고 산뜻하게 가꿔주며 알로에베라잎즙 성분이 99% 함유되어 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09.txt

제목: ‘화정’ 김여진·신은정 ‘신들린 연기’  
날짜: 2015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6100001154  
본문: [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MBC 창사 54주년 특별기획 ‘화정’의 김여진과 신은정의 신들린 듯한 연기력이 최강 몰입도를 선사했다.MBC 창사 54주년 특별기획 '화정'이 지난 15일 방송한 19회는 광해와 정명이 인목에게 역모 누명을 씌운 허균과 그 배후인 강주선을 척결하기 위해 치열한 전략을 짜며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개시(김여진)가 인목을 찾아가 정명공주의 정체를 떠보며 인목의 숨통을 조여,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김개시는 인목이 과거 정명에게 주었던 ‘관음의 눈’을 보며 “관음의 눈, 알고 보니 남사고의 것이었다지요? 서궁께선 왜 이걸 공주에게 주셨을까요?”라고 물으며 치열한 심리게임에 시동을 걸었다.이에 불안감을 느낀 인목이 발끈하자, 김개시는 “마마 너무 떨고 계십니다. 이러다 들키시는 수가 있어요”라며 인목의 불안감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그의 반응을 살피는 치밀함을 보여 시청자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나아가 김개시는 인목을 향해 유황장인 신분으로 조선에 들어온 화이가 정명공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다.이날 김여진과 신은정은 그야말로 불꽃 같은 연기 대결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얼음장같이 싸늘한 눈빛과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신은정을 몰아세우는 김여진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암 호랑이를 연상시키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신은정 역시 어렵게 재회한 딸을 또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분노로 핏발 선 눈, 온 몸의 떨림 등을 디테일하게 표현하며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을 끌어냈다.한편 사극 ‘화정’은 오늘(16일) 밤 10시, MBC를 통해 20회가 방송된다.김재원 기자 jkim@sportsworldi.com사진=김종학 프로덕션 제공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10.txt

제목: 메르스, 첫 40대 숨져…사망자 총 19명으로 늘어  
날짜: 2015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6100001124  
본문: 메르스 환자 중 처음으로 40대가 숨졌다.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위원회는 15일 밤~16일 새벽 사이 38번 환자(49), 98번 환자(58), 123번 환자(65) 등 3명이 숨져 사망한 메르스 환자가 19명으로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19명 중 만성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는 79%인 15명이었다. 4명은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인 것이다. 앞서 사망한 81번 환자(61)와 51번 환자(72·여)도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으나 치료 중 증상이 악화해 사망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첫 40대 숨져, 메르스 무섭다''첫 40대 숨져, 점점 연령이 내려가네''첫 40대 숨져, 걱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온라인 뉴스팀사진=MBN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11.txt

제목: "장례절차 중단" 메르스 보건당국 통보…유족 '분통'  
날짜: 2015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6100000083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리대상으로 자택 격리 중 숨진 40대 남성의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이 지연돼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이 남성은 메르스 관련 1·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보건당국은 혹시 모를 감염 우려로 부검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16일 원주경찰서와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원주시 단계동 자신의 가게에서 A(4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암환자였던 A씨는 지난달 28일 지병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뒤 발열 증세를 보여 원주시보건소에 자진신고 후 자가 격리됐다.A씨는 사망 전에 시행한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이 나왔고, 사망 후 통보된 2차 검사 결과도 '음성' 판명됐다.경찰은 A씨가 지병을 앓았던 점과 메르스 음성 판명된 점으로 볼 때 일반변사로 처리하기로 했다.그러나 발견 당시 A씨의 가게 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점에 비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문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A씨의 부검 과정에서 혹시 메르스 감염 우려가 제기되자 부검 여부를 보건복지부와 논의하면서 지난 15일 오전에 하기로 한 부검이 돌연 연기됐다.이 때문에 유족들은 장례 일정까지 전면 중단돼 분통을 터트렸다.A씨의 유족 측은 "어제(15일) 오전에 부검을 끝내고 발인을 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장례 일정을 전면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아 황당했다""며 "고인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부검 중 감염이 확인되면 부검의 등의 자가 격리 조치가 불가피하고, 업무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감염병 관련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부검할 계획이고, 결과 통지가 늦어지더라도 이날 오후에는 부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12.txt

제목: 중장년층 비만, 다이어트 운동법과 식단은?  
날짜: 20150616  
기자: 헬스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6100000772  
본문:  팔 다리는 가늘어지고 복부 등 몸통만 비대해지는 이른바 중장년층 비만은 관절 및 허리에도 부담을 줘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은 물론 척추 및 관절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고혈압과 고지혈증, 복부비만이 동시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 역시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요주의 대상이다. 방치하면 암이나 뇌졸중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사증후군 환자 중 50대 이상 연령층의 분포가 83%를 차지해, 중장년층이 대사증후군 고위험군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최근 스웨덴 우미아 대학교 연구팀이 평균 연령 61세인 비만환자들에게 6개월간 다이어트를 지속하게 했더니 체중감량과 더불어 뇌 영역 활동 증가로 기억력 향상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기억력이 흐려지기 쉬운 중장년층의 경우 적절한 체중조절만으로도 뇌의 활동이 활발해져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위의 내용들만 살펴보더라도 중장년층이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적절한 다이어트를 생활화하는 것이 필수임을 알 수 있다.하지만 나잇살로 무장한 중장년층의 살은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30대 이후부터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이 줄어 살이 찌기는 쉬워도 빠지기는 힘든 몸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여기에 오랜 시간 유지해 온 식생활 패턴이나 생활습관을 바꾸기가 힘들고 장기간 사용해 온 관절이나 근육에도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무작정 젊은 사람들처럼 굶고 과도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적극적인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기초 체력 저하나 관절 손상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기 쉬울 뿐이다.16일 시니어타운 더 클래식 500과 함께 중장년층 시니어들을 위한 건강 다이어트 운동법과 식단에 대해 알아봤다.◆ 식이요법다이어트에서 유의할 것은 단기간 내 과도한 체중감량을 기대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체중 1kg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 6000~7000kcal의 열량 제한이 필요한데, 1일 최소 1000~1500kcal의 식사를 균형 있게 챙기면서 1개월에 1~2kg 감량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식단을 조절해서 비만을 관리해야 하는 중장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은 바로 단백질이다. 어류나 콩류에 풍부하게 포함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공복감을 막고 근육에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해야 한다.당질보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체내 영양소 분해나 체열 소비가 커 기초대사량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단백질은 체중 kg 당 1~1.5g, 총 열량의 20%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신선한 채소 등의 섭취로 무기질과 비타민 섭취을 보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신선한 채소의 경우 열량이 적고 무기질과 비타민의 공급원이 되고 섬유질이 풍부해, 이상적인 저열량식품으로 꼽힌다. 해조류는 열량에 비해 부피가 많아 만복감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탄수화물과 지방은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중장년층에게 지방은 공복감을 적게 하고 음식의 맛에 영향을 줘 입맛을 살리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탄수화물 섭취를 지나치게 줄일 경우 당뇨나 케톤증이 발생할 수 있다.중장년층의 다이어트 식단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식욕을 촉진시키고,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지는 짠맛과 매운맛 등의 음식을 피하는 것이다.더 클래식 500 메디컬 라이프케어 센터 고상미 영양사는 "중장년이 되면 근육량과 기초대사량 감소로 비만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많다"며 "중장년층의 다이어트는 대사증후군 예방 및 관절 건강 유지를 위해 젊은층과는 다른 방식의 운동법과 식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운동법근육량이 크게 감소하고 관절이 퇴행하는 시기인 중장년층에게 무리한 근력운동은 오히려 관절 손상을 유발하고, 근육통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가벼운 도구를 활용한 탄력운동으로 근력의 힘을 키우는 것이 좋다.더 클래식 500 메디컬 라이프케어 센터 김세훈 메디컬 트레이너는 중장년층에 적합한 운동으로 새라밴드 운동법을 추천했다.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운동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탄력저항 밴드를 활용한 이 운동은 '새라밴드 운동'으로도 불린다. 국내에서는 차승원이 한 TV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며 유명해 졌다. 새라밴드 운동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라밴드를 활용한 것으로, 모든 방향에서 운동이 가능하고 관절에 부담 없이 근력을 키울 수 있어 중장년층에 적합하다.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체 힘이 약해지는 중장년층의 경우 이 새라밴드 '한 발 밀어주기' 운동이 효과적이다. 발바닥에 밴드를 대고 양손으로 잡은 뒤 뒤꿈치를 끝까지 밀어주는 동작이다.상체 부분은 '팔 옆으로 들어올리기' 운동이 도움이 된다. 양 발을 어깨 넓이로 선 뒤 밴드를 잡고 양팔을 몸 옆 방향으로 들어올리는 동작이다.내장비만으로 고민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복부 운동법도 있다. '양 발 들어올리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양 무릎 뒤에 새라 밴드를 걸고, 상체와 팔이 움직이지 않도록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이다.여기에 누운 상태로 무릎 안쪽에 밴드를 끼워 이를 잡아당기면서 상체를 들어올리면 손쉽게 복부 운동을 할 수 있다. 처진 엉덩이가 고민이라면 엎드린 상태에서 양 발목에 새라밴드를 묶어 각 한 다리씩 교차로 들어올리면 된다. 한 쪽 다리를 들어올릴 때는 최소 엉덩이보다 높게 일직선으로 하는 것이 좋다.툭 튀어나온 뱃살과 더불어 옆구리에 쌓이는 지방이 걱정이라면 새라밴드를 어깨 위로 높이 펴 잡고, 한 쪽씩 기울이는 것이 좋다. 이때 무릎을 굽히지 않고 오직 팔의 힘으로 옆구리 부분이 팽팽하게 늘어질 때까지 해야 한다. 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13.txt

제목: 메르스 사망 3명 늘어 19명…'비 기저질환자'도 포함  
날짜: 2015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6100000937  
본문: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3명 늘어 총 19명이 됐다.16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기존 확진자 가운데 38번 환자(49), 98번 환자(58), 123번 환자(65)가 15일과 16일 중 사망해 전체 사망자가 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19명 중 만성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는 79%인 15명이었다.4명은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인 것이다. 앞서 사망한 81번 환자(61)와 51번 환자(72·여)도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으나 치료 중 증상이 악화해 사망했다. 메르스 사망 3명 늘어 19명 소식에 누리꾼들은 '사망 3명 늘어 19명, 또 늘었네''사망 3명 늘어 19명, 걱정이다''사망 3명 늘어 19명, 큰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온라인 뉴스팀사진=MBN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14.txt

제목: 메르스 사망자 19명 중 4명 지병 없어···첫 40대 사망  
날짜: 2015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6100000448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19명 가운데 4명은 만성호흡기질환 등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40대 사망자도 처음 나왔다.16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기존 확진자 가운데 38번 환자(49), 98번 환자(58), 123번 환자(65)가 15일과 16일 중 사망해 전체 사망자가 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19명 중 만성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는 79%인 15명이었다.4명은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인 것이다.이날 사망자 중 98번, 123번도 특별한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았다. 두 환자 모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물다 감염됐다.첫 40대 사망자인 38번 환자는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앞서 사망한 81번 환자(61)와 51번 환자(72·여)도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으나 치료 중 증상이 악화해 사망했다. 이날까지 사망자 가운데 남성이 14명(74%), 여성이 5명(26%)이며, 연령대별로는 70대 7명, 60대 6명, 50대 3명, 80대 2명 등이었다. 한편 지금까지 총 확진자 154명 가운데에는 병원을 내원했다 감염된 환자가 76명(46%)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 가족이나 방문객이 57명(37%), 의료진 등 병원 관련 종사자가 26명(17%)이었다.성별은 남성이 93명(60%), 여성이 61명(40%)이다.연령대별로는 50대가 33명(21%)으로 가장 많고, 60대가 30명(19%), 40대 28명(18%), 70대 25명(16%), 30대 21명(14%) 등의 순이었다.또 지금까지 퇴원자 17명 중에는 40대가 8명(47%), 50대가 3명(18%), 20대, 60대, 70대가 각각 2명(12%)으로 사망자에 비해 연령대가 확연히 낮았다.성비는 남성이 11명(65%), 여성이 6명(35%)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15.txt

제목: 메르스 추가 4명중 3명 최장잠복기 14일보다 길어, 환자 14%인 16명 상태불안  
날짜: 20150616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6100000917  
본문: 16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확진자가 전날보다 4명 추가돼 총 154명으로 늘었으며 사망자도 3명 증가해 총 19명으로 집계됐으며 첫 40대 사망자가 나왔다. 추가된 4명 중 3명(151, 152, 154번 환자)은 지난달 27일~28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가족 간병을 위해 머물다 감염돼 최장잠복기 14일을 훨씬 넘긴 18~19일이 지나 확진됐다.또다른 1명(153번 환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옮겨진 4차 감염자이다.사망자 3명 중 1명(38번환자, 48세)만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나머지 3명은 기저질환(평소 앓고 있던 병)이 없었다.지금까지 사망한 19명 중 기저질환이 없던 이는 4명으로 늘었다. 또 환자 중 14%인 16명이 상태가 불안해 호흡기 등을 착용하고 있다. 16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격리자는 5586명으로 전날보다 370명 늘었다. 이중 자가격리자는 5238명이며 시설격리자는 348명이다. 격리해제자는 전일대비 383명 증가한 3505명으로 집계됐다.153번 환자의 경우 지난 6월 5일 118번 환자와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한 사례로 4차 감염자다.사망자는 38번 환자(남, 49세, 알코올성 간경화/당뇨), 98번 환자(남, 58세), 123번 환자(남, 65세)으로 15~16일 사이 사망했다.사망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14명(74%), 여성이 5명(26%)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가 7명(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6명(32%), 50대 3명(16%), 80대 2명(11%) 등이 뒤를 이었다.사망자 19명 중 만성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자는 15명(79%)으로 나타났다.이날 퇴원자가 3명 추가돼 총 17명으로 늘었다.9번 환자(남, 56세), 56번 환자(남, 45세), 88번 환자(남, 47세) 3명이 지난 15일 퇴원했다.퇴원자들은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2차례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17명의 퇴원자들 중 남성은 11명(65%), 여성은 6명(35%)이다.연령별로는 40대 8명(47%), 50대 3명(18%), 20대, 60대, 70대가 각각 2명(12%)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16.txt

제목: 메르스 사망자 19명 중 4명 지병없어 ‘첫 40대 사망’…남자가 74%  
날짜: 2015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6100001216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19명 가운데 4명은 만성호흡기질환 등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40대 사망자도 처음 나왔다.16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기존 확진자 가운데 38번 환자(49),98번 환자(58), 123번 환자(65)가 15일과 16일 중 사망해 전체 사망자가 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19명 중 만성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는 79%인 15명이었다.4명은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인 것이다.이날 사망자 중 98번, 123번도 특별한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았다. 두 환자 모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물다 감염됐다.첫 40대 사망자인 38번 환자는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앞서 사망한 81번 환자(61)와 51번 환자(72·여)도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으나 치료 중 증상이 악화해 사망했다.     이날까지 사망자 가운데 남성이 14명(74%), 여성이 5명(26%)이며, 연령대별로는 70대 7명, 60대 6명, 50대 3명, 80대 2명 등이었다.     한편 지금까지 총 확진자 154명 가운데에는 병원을 내원했다 감염된 환자가  76명(46%)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 가족이나 방문객이 57명(37%), 의료진 등 병원 관련종사자가 26명(17%)이었다.성별은 남성이 93명(60%), 여성이 61명(40%)이다.연령대별로는 50대가 33명(21%)으로 가장 많고, 60대가 30명(19%), 40대 28명(18%), 70대 25명(16%), 30대 21명(14%) 등의 순이었다.또 지금까지 퇴원자 17명 중에는 40대가 8명(47%), 50대가 3명(18%), 20대,  60대, 70대가 각각 2명(12%)으로 사망자에 비해 연령대가 확연히 낮았다. 성비는 남성이 11명(65%), 여성이 6명(35%)이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17.txt

제목: ‘제2의 고향’ 히말라야로 달려간 엄홍길  
날짜: 20150616  
기자: 강구열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610017614364  
본문: 지난 4월 네팔에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여진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으로 공포는 더욱 커진 상황이었다. 엄홍길은 그때 네팔로 향했다. ‘제2의 고향이자 삶의 일부’였던 네팔의 재난을 외면할 수 없었다. 5월 12일 엄홍길은 네팔의 한 산간마을에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었다. 그때 2차 지진이 덮쳤다. 규모 7.3, 눈앞에서 천지가 흔들리는 첫 지진에 버금가는 위력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뛰어가길래 저도 얼떨결에 덩달아 뛰어나갔죠. 3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던 산 한 면이 그냥 통째로 떨어졌어요. 보고 있는데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그가 기억하는 당시의 상황이다.  <br/> <br/> 엄홍길의 산악 인생에는 영광과 함께 큰 아픔이 공존한다. 사진은 엄홍길(왼쪽)과 등반사고로 세상을 떠난 박무택 대원의 생전 모습. <br/>세계일보 자료사진17일 오후 7시30분 방송되는 KBS1 TV ‘그대가 꽃’에서 ‘히말라야의 사나이’ 엄홍길이 전하는 이야기 중 하나다. 그는 방송에서 30년간 산에 미쳐 살았던 시간을 되새긴다. <br/> <br/>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16개를 오른 위업은 가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엄홍길은 생전의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은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히말라야를 오르는 아들의 무사귀환을 언제나 기도했다. 암으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에게서 들은 사실이었다. 그는 “아버지는 제가 완등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다. 언제나 아버지께 죄송스럽다”고 말한다. <br/> <br/>아내와 아이들은 인생의 버팀목이었지만 그는 자상한 남편, 아버지는 아니었다. 신혼시절에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네팔에 있는 시간이 길었고, 아들이 태어나고 이틀 뒤에 원정을 떠났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못했다는 엄홍길, 방송에서 아내에게 영상편지를 남겼다. 등반 도중 세상을 떠난 셰르파 다와타망, 후배 산악인 박무택 등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br/> <br/>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18.txt

제목: 고령층 → 젊은층…'메르스 통설' 하나하나 깨져  
날짜: 20150616  
기자: brightw@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6100000162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 양상이 변하고 있다.처음에는 고령자와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가 주로 숨졌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젊은 환자도 생명이 위독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메르스 상식이 한국에서 깨지고 있는 것이다. 퇴원자는 점차 늘고 있지만 여전히 120명의 환자가 격리치료 중이어서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이른 상황이다.대한병원협회가 서울삼성병원을 부분폐쇄 결정을 내린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위 병동에서 한 병원 관계자가 커튼을 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긴급 수술을 제외하고 신규 외래 환자를 받지 않고 기존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도 중단 된다. 남정탁 기자1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사망자 16명 가운데 14명(87.5%)은 만성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나머지 2명은 별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돼 사망했다. 전날 사망한 81번(61)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친척 병문안을 갔다가 감염돼 지난 9일 확정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격리 치료를 받다가 호흡곤란과 폐렴이 악화돼 숨졌다. 이 환자는 평소 간이 안 좋았던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숨진 51번(72·여) 환자도 고령이라는 점 외에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다. 이 환자는 지난달 14일 평택성모병원에서 요로계통의 급성기 감염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1번 환자로부터 감염돼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치료 중 증상이 나빠져 5일간 혼수상태로 있다 결국 숨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이 두 사망자와 관련해 “<span class='quot0'>임상 경과나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span>”고 밝혔다. 이날 120명의 환자 가운데 17명은 건강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다.메르스 완치자 14명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도 2명이나 포함돼 있다. 기저질환이 반드시 증상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젊은 환자 가운데 기저질환이 없음에도 상태가 악화한 경우도 있다. 삼성서울병원 의사 박모(38·35번 환자)씨는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8일부터 상태가 나빠져 인공호흡기를 달았고, 11일부터는 에크모(ECMO·피를 몸 밖으로 빼내 산소를 공급한 후 다시 몸속으로 넣어 주는 인공 폐)까지 달았다. 평택경찰서 경찰관(35·119번 환자)도 10일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 만인 12일부터 에크모를 단 채 메르스와 싸우고 있다. 두 환자는 완치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혈장을 주입한 치료를 받았으나 큰 차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건강했던 두 환자의 상태가 이렇게 악화한 이유로는 면역력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폭풍’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하면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는데 이때 너무 과도하게 발생해 생기는 부작용이다. 역설적으로 면역력이 강한 젊은 사람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 최강원 국군수도통합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해외 사례나 지금까지 국내 환자 현황을 봐도 메르스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 더 위험하고 젊고 건강한 사람은 잘 감염되지 않거나 감염돼도 상대적으로 증상이 더 가볍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span>”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2'>그러나 개개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19.txt

제목: 고령·기저질환자 아니라고…안심할 수는 없다  
날짜: 20150616  
기자: 김민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610017613027  
본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구민회관에 ‘서초경로바둑교실’ 일시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br/>김범준기자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중 첫 번째 40대 사망자가 나오면서 ‘지병이 있는 고령 환자’ 위주의 메르스 사망 공식이 깨지고 있다. <br/> <br/>16일 발표된 메르스 사망자 3명 중 2명은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였다. 이제까지 발생한 사망자 19명 중 4명이 기존에 앓던 질병 없이 메르스 감염 후 건강상태가 악화해 사망했다. 사망자 19명 중 만성 호흡기질환이나 암, 뇌혈관 질환 등 기저 질환이 있던 환자는 15명(79%)이다.  <br/> <br/>하지만 이날 사망자 명단에 포함된 98번 환자(58)와 123번 환자(65)는 70∼80대가 대부분이었던 기존 사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기저질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지난 14일 사망한 81번 환자(61)는 삼성서울병원에 친척 병 문안을 갔다가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호흡 곤란 증세와 폐렴이 악화돼 숨졌다. 지난 12일 사망한 51번 환자(72)는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지만 역시 고령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앓고 있던 병이 없었다. <br/> <br/>보건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등에서 메르스 사망 위험이 크며, 젊고 건강한 환자는 메르스에 노출돼도 사망률이 낮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의 사망 사례에서는 젊고 건강한 사람도 메르스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br/> <br/>30대로 건강했던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 환자·38)와 평택경찰서 경찰관(119번 환자·35)도 아직까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최근 완치자의 혈장을 투여받는 치료까지 시도됐다. 현재 두 사람은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 산소를 공급해주는 에크모(ECMO·체외막산소화장치)와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r/> <br/>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구민회관에 ‘서초경로바둑교실’ 일시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br/>김범준기자전문가들은 이들이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돼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으로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br/> <br/>엄중식 한림대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지병이 있을 경우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크지만, 건강한 사람이라고 100%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span>”고 말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20.txt

제목: [설왕설래] 메르스 인사법  
날짜: 20150616  
기자: 배연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6100000008  
본문: 악수의 기원설은 꽤나 다양하다. 고대 로마나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학설이 분분하다. 심지어 600만년 이전 침팬지 족보를 들먹이는 과학자마저 있다. 하지만 이 점은 분명한 것 같다. 악수를 세계에 전파시킨 일등공신은 영국의 앵글로 색슨족이라는 사실 말이다. 무기를 든 오른손을 상대에게 내밀어 해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악수가 등장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이제는 가장 보편적인 악수 인사법에까지 메르스 공포가 덮치고 있다고 한다. 손바닥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악수를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선 ‘신도 간의 인사는 악수가 아닌 가벼운 목례로 대신하자’는 공지를 띄웠다.청소년 사이에선 요즘 ‘주먹 인사’가 인기를 끄는 모양이다. 이들은 친구를 만나면 서로 주먹을 부딪쳐 반가움을 대신한다. 학생들은 “<span class='quot0'>주먹 인사를 하는 게 재미있고 더 위생적이라 좋은 것 같다</span>”는 반응이다. 주먹 인사는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가 번질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유행시킨 인사법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연초에 에볼라가 창궐하는 서아프리카를 찾아 현지 직원과 팔꿈치를 살짝 부딪치는 ‘팔꿈치 인사’를 선보이기도 했다.안전하기로 치자면 반 총장의 인사법이 오바마보다 한 수 위일 듯싶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미소’라는 인체의 비밀 병기다. 메르스 바이러스 퇴치에는 이만 한 무기가 없다. 미소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다. 숱한 연구결과가 뒷받침한다.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채취했더니 킬러 세포가 많이 생성됐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킬러 세포는 암을 일으키는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인체 내부의 최고 공격수다. 굳이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웃음을 통해 악성 질병을 물리쳤다는 혁혁한 전과는 지천으로 널려 있다.흔히 악수는 나눈다는 표현을 쓴다. 악수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적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손을 맞잡고 체온을 교환하는 소통 의식이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로 비록 악수의 ‘외형’이 바뀌었지만 ‘내면의 소통’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주먹은 쥐었더라도 마음은 더 활짝 펴야 한다. 배연국 논설위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21.txt

제목: 첫 40대 희생자 나와…메르스 위기감 고조  
날짜: 20150616  
기자: 신진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610017612941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40대 희생자가 나왔다. 기저질환 없이 메르스 감염만으로 숨진 환자가 5명 가운데 1명꼴로 생겨나고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br/> <br/>공연장 방역 세종문화회관 메르스 대책본부 방역요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br/>김범준 기자◆첫 40대 사망자 발생, 기저질환 없는 사망자도 <br/> <br/>16일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국내 감염자 수가 154명으로 늘었다. 38번 환자(49)에 이어 98번 환자(58), 123번 환자(65)가 사망해 전체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어 치명률이 12.3%에 달했다. 여전히 퇴원자(17명)보다 사망자가 많은 상황이다. 격리자(병원·자가)는 총 5586명으로 하루 전보다 370명이 늘었다. 현재까지 격리 해제자는 383명이 늘어난 3505명이다.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병을 앓고 있던 38번 환자가 숨짐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40대 사망으로 기록됐다. <br/> <br/>사망자 19명 가운데 만성호흡기질환과 암,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는 15명(79%)이었다. 나머지 4명은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였다. <br/> <br/>사망자 성별로는 남성이 14명(74%), 여성이 5명(26%)이며, 연령대별로는 70대 7명, 60대 6명, 50대 3명, 80대 2명이었다. <br/> <br/>‘지병이 있는 고령 환자’ 위주의 메르스 사망 공식은 깨지고 있다. 이날 사망자 명단에 포함된 98번 환자(58)와 123번 환자(65)는 70∼80대가 대부분이었던 기존 사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기저질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19명 중 4명이 기존에 앓던 질병 없이 메르스 감염 후 건강상태가 악화해 사망했다. 30대로 건강했던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 환자·38)와 평택경찰서 경찰관(119번 환자·35)도 아직까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최근 완치자의 혈장을 투여받는 치료까지 시도됐으나 차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돼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으로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br/> <br/>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br/> <br/>◆보건당국, 수십명 감염시킨 슈퍼 전파자 분석 <br/> <br/>대책본부는 슈퍼 전파자의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중동에서 알려진 정보와 달리 환자 1명이 수십명에게 병을 전파할 정도로 감염력이 강해 바이러스 변이 여부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br/> <br/>바이러스 유전자의 변이 여부는 기존의 메르스 잠복기, 감염경로, 치명률 등을 조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권준욱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슈퍼 전파자의 바이러스가 뭔가 다른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14번, 16번 환자의 경우 (검사)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br/> <br/>앞서 6일 보건당국은 2번 환자(63·여)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 염기서열 전체를 분석한 결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유전자정보은행에 보관된 메르스 바이러스 표준주와 99.55%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환자가 80명에 육박하고 유행도 지속하자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에 대한 일반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br/> <br/>이재호·김민순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22.txt

제목: 보령제약, 한국릴리와 '젬자' 코프로모션 진행  
날짜: 2015061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4315315  
본문: 15일 보령제약 본사에서 진행된 젬자 코프로모션 파트너 조인식을 마치고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오른쪽)과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br/>보령제약과 한국릴리가 췌장암, 폐암 치료제 '젬자' 코프로모션에 나선다. <br/>  <br/>보령제약(대표 최태홍)과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15일 보령제약 본사에서 '젬자 (성분명 젬시타빈염산염)' 코프로모션 계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br/>  <br/>'젬자'는 췌장암, 폐암, 방광암, 유방암, 난소암, 담도암 등에서 적응증을 가지고 있으며, 1차 또는 2차 치료에서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br/> <br/>보령제약은 젬자의 적응증 중, 폐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 질환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영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젬자의 국내 매출은 123억원(IMS기준)이었다. <br/>  <br/>보령제약은 엘록사틴(옥살리플라틴) 제네릭인 옥살리틴, 탁솔, 젤로다 등을 통해 국내 항암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차지하고 있으며, 항암제에 대한 전문적인 마케팅 및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다. <br/>  <br/>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은 "기존 제품과의 시너지 효과, 넓은 시장 커버리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더욱 가치 있는 치료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r/>  <br/>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대표는 "항암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온 보령제약과 새로운 파트너쉽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파트너쉽을 통해 보령제약과 한국릴리의 강점을 서로 보완해 암 환자들의 치료결과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23.txt

제목: 원자력병원·보라매병원도 응급실 폐쇄 '메르스 여파 어디까지?'  
날짜: 20150615  
기자: 이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4132595  
본문:   <br/> <br/>원자력병원, 원자력병원 메르스, 원자력병원 메르스 폐쇄 <br/> <br/>원자력병원과 보라매병원이 응급실을 폐쇄했다. <br/> <br/>15일 YTN은 14일 오후 2시쯤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원자력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br/> <br/>메르스 환자는 병원 측은 환자를 문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삼성서울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격리했다고 전했다. <br/> <br/>병원측은 이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입원 당시 본관 7층에 머물러 추적 관리 대상이 아니었고 의심 증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br/>  <br/>뿐만 아니라 하지만 암 전문 병원의 특성상 감염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을 폐쇄하기로 했으며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은 1인실로 옮기거나 퇴원하도록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한편, 메르스 집중 치료기관인 서울보라매병원도 응급실을 임시 폐쇄했다. <br/> <br/>임수연 기자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24.txt

제목: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 폐쇄, 보라매 병원 응급실 16일 다시 문열어  
날짜: 20150615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4222245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을 위해 각 병원들이 선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br/> <br/>15일 서울시 노원구 원자력 병원은 메르스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환자가 응급을 찾았다면 지난 14일 응급실을 임시 폐쇄했다. <br/> <br/>원자력병원 측은 "해당 환자가 메르스 확진자는 아니지만 면역력 약한 암환자가 많은 병원 특성상 예방 차원에서 잠정 폐쇄를 결정했다"며 "현재 소독을 하고 있으며 응급 진료의 재개 시기는 확정되진 않았다"고 했다. <br/> <br/>서울시보라매병원도 메르스 확진자인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137번 환자)이 열흘 전 이 병원 응급실에 들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응급실을 14일 자로 임시 폐쇄했다. <br/> <br/>이날 보라매병원은 "137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전인 이달 5일 오후 아들의 안면 외상 치료 때문에 보호자로서 응급실을 찾아 1시간30분가량 머무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br/> <br/>지난 14일 보건소로부터 해당 환자의 응급실 방문 소식을 통보받은 보라매병원은 CCTV 등으로 동선을 파악, 이날 저녁부터 응급실 진료를 중단하고 시설 소독을 하고 있다. <br/> <br/>병원 측은 "환자가 밀접 접촉한 의사 4명 등 총 12명을 자가 격리 조처했고 당시 응급실에 있었던 환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보건소 상담 절차를 안내했다"며 "당시 137번 환자가 기침을 하지 않아 바이러스 전파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br/> <br/>보라매병원은 응급실을 16일 오전 9시부터 다시 개방키로 했다. <br/> <br/>삼성서울병원 환자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는 2일부터 발열 등 메르스 증상을 보였지만 삼성서울병원의 감시 대상에서 빠진 채 10일까지 병원 곳곳에서 환자 이송업무를 계속해 대규모 전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br/> <br/>삼성서울병원은 12일 이송요원의 메르스 확진 결과가 나오자 이튿날 밤 외래진료 중단 등 병원을 부분 폐쇄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25.txt

제목: 메르스 환자 절반이 환자로 병원에 있다가 감염, 17%인 26명이 의료인  
날짜: 20150615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4150727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절반가량이 메르스 노출 의료기관에 환자로 머물다 감염됐다. <br/> <br/>또 메르스 환자 중 17%인 26명인 의료인으로 타나났다 . <br/> <br/>1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메르스 확진자 150명 가운데 70명(47%)은 메르스에 노출된 병원을 찾은 환자였으며, 54명(36%)은 환자 가족 보호자로 병원에 왔다가 감염됐다. <br/> <br/>병원 종사자인 감염자는 모두 26명(17%)으로 이중 의사 3명, 간호사 9명, 간병인 7명이었다. <br/> <br/>의사 중에는 삼성서울병원 의사 2명과 완치된 365열린의원 의사 등이 포함됐다. <br/> <br/>최근 확진받은 삼성서울병원 환자 이송요원과 보안요원과 같은 기타 병원 종사자도 6명 있었다. <br/> <br/>확진자 150명 가운데 남성이 91명(61%)으로 여성(59명·39%)보다 많았다. <br/> <br/>연령은 50대 31명(21%), 60대 29명(19%), 40대 28명(19%) 순이었다. <br/> <br/>사망자 16명 중에는 70대가 7명(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5명(31%), 80대 2명(13%), 50대 2명(13%)으로 고연령대에 집중됐다. <br/> <br/>사망자도 남성이 11명(69%)으로 여성(5명·31%)보다 많았다. <br/> <br/>사망자 16명 가운데 14명(87.5%)이 만성 호흡기질환과 암 심뇌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26.txt

제목: 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폐쇄...메르스 확진-의심 환자 방문  
날짜: 201506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4200054  
본문: 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폐쇄 <br/>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폐쇄...메르스 확진-의심 환자 방문 <br/> <br/>원자력병원, 보라매병원이 14일 오후부터 응급실을 임시 폐쇄했다. <br/> <br/>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137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환자의 방문 사실을 확인해 14일 응급실 잠정폐쇄 등의 감염 차단 대책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br/> <br/>병원에 따르면 137번 환자는 아들의 안면부 외상 치료를 위해 보호자 자격으로 5일 오후 4시50분부터 6시23분까지 보라매병원 응급실에 있었다. <br/> <br/>병원은 14일 오후 4시께 동작구 보건소로부터 137번 환자가 확진 전 보호자 자격으로 응급실을 방문했음을 통보 받고 즉시 응급실 전체를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br/> <br/>또한, 원자력병원은 과거 서울삼성병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14일 응급실을 찾아온 것을 확인하고 해당 환자를 바로 격리조치했으며 응급실을 폐쇄했다. <br/> <br/>원자력병원은 해당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 주변 환자 등 역시 1인실로 옮기거나 응급실 안에 격리했다. <br/> <br/>이 환자는 메르스 의심 증상 등은 없으나 병원 측은 혹시 모를 사태를 위해 이 환자에 대한 메르스 검사를 의뢰했다. <br/> <br/>원자력병원은 암 전문 병원 특성상 감염 가능성을 완벽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폐쇄 조치를 취했다. <br/> <br/>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폐쇄 소식에 네티즌들은 "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폐쇄, 미리미리 폐쇄해야지" "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폐쇄, 삼성병원도 그랬어야해" "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폐쇄, 잘 조취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폐쇄 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폐쇄 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폐쇄 <br/>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27.txt

제목: 보령제약, 한국릴리와 '젬자' 코프로모션 진행  
날짜: 20150615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5100000440  
본문: 15일 보령제약 본사에서 진행된 젬자 코프로모션 파트너 조인식을 마치고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오른쪽)과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보령제약과 한국릴리가 췌장암, 폐암 치료제 '젬자' 코프로모션에 나선다. 보령제약(대표 최태홍)과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15일 보령제약 본사에서 '젬자 (성분명 젬시타빈염산염)' 코프로모션 계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젬자'는 췌장암, 폐암, 방광암, 유방암, 난소암, 담도암 등에서 적응증을 가지고 있으며, 1차 또는 2차 치료에서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보령제약은 젬자의 적응증 중, 폐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 질환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영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젬자의 국내 매출은 123억원(IMS기준)이었다.  보령제약은 엘록사틴(옥살리플라틴) 제네릭인 옥살리틴, 탁솔, 젤로다 등을 통해 국내 항암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차지하고 있으며, 항암제에 대한 전문적인 마케팅 및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은 "기존 제품과의 시너지 효과, 넓은 시장 커버리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더욱 가치 있는 치료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대표는 "항암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온 보령제약과 새로운 파트너쉽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파트너쉽을 통해 보령제약과 한국릴리의 강점을 서로 보완해 암 환자들의 치료결과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28.txt

제목: 메르스 확진자 중 47%가 내원 환자…병원 종사자 17%  
날짜: 2015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5100000368  
본문: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의 절반가량은 메르스 노출 의료기관에 환자로 머물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종사자인 감염자도 26명으로 17%에 달했다.1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메르스 확진자 150명 가운데 70명(47%)은 메르스에 노출된 병원을 찾은 환자였으며, 54명(36%)은 환자 가족 보호자로 병원에 왔다가 감염됐다.병원 종사자인 감염자는 모두 26명(17%)으로 이중 의사 3명, 간호사 9명, 간병인 7명이었다. 의사 중에는 삼성서울병원 의사 2명과 완치된 365열린의원 의사 등이 포함됐다. 최근 확진받은 삼성서울병원 환자 이송요원과 보안요원과 같은 기타 병원 종사자도 6명 있었다.확진자 150명 가운데 남성이 91명(61%)으로 여성(59명·39%)보다 많았다.연령은 50대 31명(21%), 60대 29명(19%), 40대 28명(19%) 순이었다.사망자 16명 중에는 70대가 7명(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5명(31%), 80대 2명(13%), 50대 2명(13%)으로 고연령대에 집중됐다. 사망자도 남성이 11명(69%)으로 여성(5명·31%)보다 많았다.사망자 16명 가운데 14명(87.5%)이 만성 호흡기질환과 암 심뇌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29.txt

제목: 메르스 환자 절반이 환자로 병원에 있다가 감염, 17%인 26명이 의료인  
날짜: 20150615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5100001239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절반가량이 메르스 노출 의료기관에 환자로 머물다 감염됐다.또 메르스 환자 중 17%인 26명인 의료인으로 타나났다 .1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메르스 확진자 150명 가운데 70명(47%)은 메르스에 노출된 병원을 찾은 환자였으며, 54명(36%)은 환자 가족 보호자로 병원에 왔다가 감염됐다.병원 종사자인 감염자는 모두 26명(17%)으로 이중 의사 3명, 간호사 9명, 간병인 7명이었다. 의사 중에는 삼성서울병원 의사 2명과 완치된 365열린의원 의사 등이 포함됐다. 최근 확진받은 삼성서울병원 환자 이송요원과 보안요원과 같은 기타 병원 종사자도 6명 있었다.확진자 150명 가운데 남성이 91명(61%)으로 여성(59명·39%)보다 많았다.연령은 50대 31명(21%), 60대 29명(19%), 40대 28명(19%) 순이었다.사망자 16명 중에는 70대가 7명(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5명(31%), 80대 2명(13%), 50대 2명(13%)으로 고연령대에 집중됐다. 사망자도 남성이 11명(69%)으로 여성(5명·31%)보다 많았다.사망자 16명 가운데 14명(87.5%)이 만성 호흡기질환과 암 심뇌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30.txt

제목: 원자력병원·보라매병원도 응급실 폐쇄 '메르스 여파 어디까지?'  
날짜: 20150615  
기자: ent2@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5100000956  
본문:  원자력병원, 원자력병원 메르스, 원자력병원 메르스 폐쇄원자력병원과 보라매병원이 응급실을 폐쇄했다.15일 YTN은 14일 오후 2시쯤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원자력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고 보도했다.메르스 환자는 병원 측은 환자를 문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삼성서울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격리했다고 전했다.병원측은 이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입원 당시 본관 7층에 머물러 추적 관리 대상이 아니었고 의심 증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하지만 암 전문 병원의 특성상 감염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을 폐쇄하기로 했으며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은 1인실로 옮기거나 퇴원하도록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메르스 집중 치료기관인 서울보라매병원도 응급실을 임시 폐쇄했다.임수연 기자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31.txt

제목: 보라매·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 폐쇄  
날짜: 2015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5100000444  
본문: 서울시보라매병원이 메르스 확진자인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137번 환자)이 열흘 전 이 병원 응급실에 들른 사실이 있다면서 해당 시설을 14일 자로 임시 폐쇄했다.보라매병원은 15일 "137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전인 이달 5일 오후 아들의 안면 외상 치료 때문에 보호자로서 응급실을 찾아 1시간30분가량 머무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보라매병원은 14일 보건소로부터 해당 환자의 응급실 방문 소식을 통보받고 CCTV 등으로 동선을 파악했고, 이날 저녁부터 응급실 진료를 중단하고 시설 소독을 하고 있다. 응급실은 16일 오전 9시에 다시 문을 연다.병원 측은 "환자가 밀접 접촉한 의사 4명 등 총 12명을 자가 격리 조처했고 당시 응급실에 있었던 환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보건소 상담 절차를 안내했다"며 "당시 137번 환자가 기침을 하지 않아 바이러스 전파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환자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는 2일부터 발열 등 메르스 증상을 보였지만 삼성서울병원의 감시 대상에서 빠진 채 10일까지 병원 곳곳에서 환자 이송업무를 계속해 대규모 전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12일 이 환자의 메르스 확진 결과가 나오자 이튿날 밤 외래진료 중단 등 병원 부분 폐쇄를 결정했다.애초 보라매병원은 메르스 확진자를 맡는 '메르스 집중치료기관'으로서 음압 격리 병상 5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응급실 및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는 정상 환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왔다.한편 서울 노원구의 암 전문 병원인 원자력병원도 삼성서울병원의 환자가 응급실을 찾자 14일 응급실을 임시 폐쇄했다.병원 관계자는 "해당 환자가 메르스 확진자는 아니지만 면역력 약한 암환자가 많은 병원 특성상 예방 차원에서 잠정 폐쇄를 결정했다"며 "현재 시설 소독을 하고 있고 응급 진료의 재개 시기는 확정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32.txt

제목: 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폐쇄...메르스 확진-의심 환자 방문  
날짜: 20150615  
기자: 원자력병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5100000632  
본문: 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폐쇄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폐쇄...메르스 확진-의심 환자 방문원자력병원, 보라매병원이 14일 오후부터 응급실을 임시 폐쇄했다.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137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환자의 방문 사실을 확인해 14일 응급실 잠정폐쇄 등의 감염 차단 대책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병원에 따르면 137번 환자는 아들의 안면부 외상 치료를 위해 보호자 자격으로 5일 오후 4시50분부터 6시23분까지 보라매병원 응급실에 있었다.병원은 14일 오후 4시께 동작구 보건소로부터 137번 환자가 확진 전 보호자 자격으로 응급실을 방문했음을 통보 받고 즉시 응급실 전체를 폐쇄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원자력병원은 과거 서울삼성병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14일 응급실을 찾아온 것을 확인하고 해당 환자를 바로 격리조치했으며 응급실을 폐쇄했다.원자력병원은 해당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 주변 환자 등 역시 1인실로 옮기거나 응급실 안에 격리했다.이 환자는 메르스 의심 증상 등은 없으나 병원 측은 혹시 모를 사태를 위해 이 환자에 대한 메르스 검사를 의뢰했다.원자력병원은 암 전문 병원 특성상 감염 가능성을 완벽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폐쇄 조치를 취했다.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폐쇄 소식에 네티즌들은 "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폐쇄, 미리미리 폐쇄해야지" "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폐쇄, 삼성병원도 그랬어야해" "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폐쇄, 잘 조취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폐쇄 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폐쇄 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폐쇄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33.txt

제목: "여성은 울기만 한다"고 했다 엉엉 운 노벨상수상자  
날짜: 2015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5100000032  
본문: '여성과학자들은 울기만 해서 골칫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인 영국의 노벨상 수상자가 절망감으로 소파에 앉아 엉엉 울어버렸다고 토로했다.팀 헌트 전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명예교수는 1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일요판인 옵서버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불안하고 조금 혼란스러워 미쳐버렸던 것 같다"면서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반어적인 얘기였다"고 설명했다.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헌트 전 명예교수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과학기자대회에 참석, 여성과학자들과의 오찬에서 "여성과학자들은 실험실에 있으면 남성과학자와 사랑에 빠지고, 비판하면 울기만 해서 골칫덩이"라면서 "나는 동성 과학자들만 있는 실험실을 선호한다"고 말해 논란을 야기했다.헌트 전 명예교수는 "나는 끝장났다"면서 "20년 넘게 재직해온 대학 등 학문기관에서 나를 난감한 상황에 홀로 내버려두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것은 물론, 내 입장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실제로 그가 서울에서 한 발언이 트위터를 통해 퍼져나가자 영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UCL은 명예교수직 사표를 종용했고, 유럽연구이사회(ERC)는 이사직에서 물러나라고 했으며, 영국왕립협회는 더 정중히 사과하라고 압박했다.불과 이틀 만에 헌트 전 명예교수는 절망에 이르렀고, 소파에 앉아 엉엉 울었다. 영국의 원로 면역학자 중 한명인 아내 메리 콜린스 UCL 면역학과 교수도 함께 울었다.아내 콜린스 교수는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쇼핑과 요리를 도맡아 한다"면서 "특히 요리를 아주 잘해서 딸들이 내가 한 것보다 좋아한다"고 말했다.그는 "남편은 그 발언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하고 어리석은 말을 종종 하지만, 성차별주의자는 아니다"라면서 "나는 여성주의자인데 만약 그가 성차별주의자였다면 그와 함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트 전 명예교수는 이 악몽과 같은 상황에서 유일한 위안으로 정원을 가꿀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장미 나무를 잘 가꾸는 게 그의 목표다.헌트 전 명예교수는 '세포 주기'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고 이를 토대로 암 발생 원인을 규명한 공로로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34.txt

제목: 지병없는 메르스 사망자 2명 발생…"젊고 건강해도 안심 못해"  
날짜: 2015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5100000077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나 젊은 중증 환자도 발생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1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망자 16명 가운데 14명(87.5%)은 만성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지만 나머지 2명은 별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돼 사망했다.이 가운데 전날 사망한 81번 환자(61)는 삼성서울병원에 친척 병문안을 갔다 감염돼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격리 치료를 받다가 호흡 곤란과 폐렴이 악화해 숨졌다.이 환자는 평소 간 기능이 안 좋았던 것 외에는 특별한 지병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2일 사망한 51번 환자(72·여)도 고령이라는 점 외에는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다.이 환자는 지난달 14일 평택성모병원에 요로계통의 급성기 감염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에 최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돼 지난 6일 확진판정을 받았고, 치료 중 증상이 나빠져 5일간 혼수상태로 있다 사망했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이 두 사망자와 관련해 "임상 경과나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리뷰를 거쳐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완치돼 퇴원한 환자 14명 가운데에는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도 2명 포함돼 있어 기저질환이 반드시 증상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그런가하면 비교적 젊고 건강한 상태에서 감염됐으나 상태가 심해진 경우도 있다.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38), 평택 경찰인 119번 환자(35)는 모두 30대로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으나 현재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환자는 심폐보조기인 에크모(ECMO)를 착용했으며, 지난 12일에는 완치자 혈장을 주입하는 치료도 받았다.이 두 환자의 상태가 악화한 데에는 면역력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폭풍'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사이토카인 폭풍은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나와 생기는 부작용으로, 역설적으로 면역력이 강한 젊은 사람들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최강원 국군수도통합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 사례나 지금까지 국내 환자 현황을 봐도 메르스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 더 위험하고, 젊고 건강한 사람은 잘 감염되지 않거나 감염돼도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최 교수는 이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개개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35.txt

제목: 메르스 ‘젊고 건강해도 안심 못해’…지병없이 사망자 2명 발생  
날짜: 2015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5100000598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나 젊은 중증 환자도 발생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1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망자 16명  가운데 14명(87.5%)은 만성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지만 나머지 2명은 별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돼 사망했다.이 가운데 전날 사망한 81번 환자(61)는 삼성서울병원에 친척 병문안을 갔다 감염돼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격리 치료를 받다가 호흡 곤란과 폐렴이 악화해숨졌다.이 환자는 평소 간 기능이 안 좋았던 것 외에는 특별한 지병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2일 사망한 51번 환자(72·여)도 고령이라는 점 외에는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다.이 환자는 지난달 14일 평택성모병원에 요로계통의 급성기 감염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에 최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돼 지난 6일 확진판정을 받았고,  치료 중 증상이 나빠져 5일간 혼수상태로 있다 사망했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이 두 사망자와 관련해 “<span class='quot0'>임상 경과나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리뷰를 거쳐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span>”고 밝혔다.반면 완치돼 퇴원한 환자 14명 가운데에는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도 2명 포함돼 있어 기저질환이 반드시 증상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비교적 젊고 건강한 상태에서 감염됐으나 상태가 심해진 경우도  있다.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38), 평택 경찰인 119번 환자(35)는 모두  30대로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으나 현재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환자는 심폐보조기인 에크모(ECMO)를 착용했으며, 지난 12일에는 완치자  혈장을 주입하는 치료도 받았다.이 두 환자의 상태가 악화한 데에는 면역력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폭풍’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사이토카인 폭풍은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나와 생기는 부작용으로, 역설적으로 면역력이 강한 젊은 사람들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36.txt

제목: 원자력병원 응급실 임시 폐쇄, 보라매 병원 응급실 16일 다시 문열어  
날짜: 20150615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5100000828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을 위해 각 병원들이 선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15일 서울시 노원구 원자력 병원은 메르스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환자가 응급을 찾았다면 지난 14일 응급실을 임시 폐쇄했다.원자력병원 측은 "해당 환자가 메르스 확진자는 아니지만 면역력 약한 암환자가 많은 병원 특성상 예방 차원에서 잠정 폐쇄를 결정했다"며 "현재 소독을 하고 있으며 응급 진료의 재개 시기는 확정되진 않았다"고 했다.서울시보라매병원도 메르스 확진자인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137번 환자)이 열흘 전 이 병원 응급실에 들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응급실을 14일 자로 임시 폐쇄했다.이날 보라매병원은 "137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전인 이달 5일 오후 아들의 안면 외상 치료 때문에 보호자로서 응급실을 찾아 1시간30분가량 머무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지난 14일 보건소로부터 해당 환자의 응급실 방문 소식을 통보받은 보라매병원은 CCTV 등으로 동선을 파악, 이날 저녁부터 응급실 진료를 중단하고 시설 소독을 하고 있다. 병원 측은 "환자가 밀접 접촉한 의사 4명 등 총 12명을 자가 격리 조처했고 당시 응급실에 있었던 환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보건소 상담 절차를 안내했다"며 "당시 137번 환자가 기침을 하지 않아 바이러스 전파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보라매병원은 응급실을 16일 오전 9시부터 다시 개방키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환자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는 2일부터 발열 등 메르스 증상을 보였지만 삼성서울병원의 감시 대상에서 빠진 채 10일까지 병원 곳곳에서 환자 이송업무를 계속해 대규모 전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12일 이송요원의 메르스 확진 결과가 나오자 이튿날 밤 외래진료 중단 등 병원을 부분 폐쇄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37.txt

제목: [설왕설래] 메르스 인사법  
날짜: 20150615  
기자: 배연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510017600513  
본문: 악수의 기원설은 꽤나 다양하다. 고대 로마나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학설이 분분하다. 심지어 600만년 이전 침팬지 족보를 들먹이는 과학자마저 있다. 하지만 이 점은 분명한 것 같다. 악수를 세계에 전파시킨 일등공신은 영국의 앵글로 색슨족이라는 사실 말이다. 무기를 든 오른손을 상대에게 내밀어 해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악수가 등장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br/> <br/>이제는 가장 보편적인 악수 인사법에까지 메르스 공포가 덮치고 있다고 한다. 손바닥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악수를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선 ‘신도 간의 인사는 악수가 아닌 가벼운 목례로 대신하자’는 공지를 띄웠다. <br/> <br/>청소년 사이에선 요즘 ‘주먹 인사’가 인기를 끄는 모양이다. 이들은 친구를 만나면 서로 주먹을 부딪쳐 반가움을 대신한다. 학생들은 “<span class='quot0'>주먹 인사를 하는 게 재미있고 더 위생적이라 좋은 것 같다</span>”는 반응이다. 주먹 인사는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가 번질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유행시킨 인사법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연초에 에볼라가 창궐하는 서아프리카를 찾아 현지 직원과 팔꿈치를 살짝 부딪치는 ‘팔꿈치 인사’를 선보이기도 했다. <br/> <br/>안전하기로 치자면 반 총장의 인사법이 오바마보다 한 수 위일 듯싶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미소’라는 인체의 비밀 병기다. 메르스 바이러스 퇴치에는 이만 한 무기가 없다. 미소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다. 숱한 연구결과가 뒷받침한다.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채취했더니 킬러 세포가 많이 생성됐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킬러 세포는 암을 일으키는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인체 내부의 최고 공격수다. 굳이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웃음을 통해 악성 질병을 물리쳤다는 혁혁한 전과는 지천으로 널려 있다. <br/> <br/>흔히 악수는 나눈다는 표현을 쓴다. 악수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적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손을 맞잡고 체온을 교환하는 소통 의식이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로 비록 악수의 ‘외형’이 바뀌었지만 ‘내면의 소통’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주먹은 쥐었더라도 마음은 더 활짝 펴야 한다. <br/> <br/>배연국 논설위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38.txt

제목: '메르스' 보건당국 늦장 대응에 분노하는 유가족  
날짜: 2015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5100000383  
본문: 강원 원주시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중후군)와 무관하게 사망한 A(48)씨 유가족이 보건당국의 늦장 대응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15일 A씨 유가족 등은 "사망원인 파악을 위해 발인 이전에 부검을 한다던 질병관리본부가 발인 날이 되자 부검을 무기한 보류했다"며 "사망 당시 원인이 메르스라고 해 주변 지인들 조차도 장례식장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더니 이제는 발인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어 "지난 3일간 동생의 갑작스런 죽음에 온 가족이 슬픔으로 보냈다"며 "보건당국의 뒷짐 행정으로 발인 조차 할 수 없는 가족들은 슬픔을 넘어 증오에 가득차 있다"고 토로했다.국립과학연구원 관계자는 "고인은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검시 양성 보균자가 나올 경우 빠르게 확산될 것을 우려해 부검 여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국과수 의견을 반영해 부검을 연기하게 됐다"며 "부검 일정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이에 유가족은 "지난 토요일 오전 사망 당시부터 지금까지 무얼 했냐"며 "국가재난상태에서도 주말엔 쉬고 월요일이 되서야 일 하는 척 하냐"고 분개했다.A씨는 지난 13일 원주시 단계동 사무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원주시는 12일 오후 8시 모니터링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A씨의 사망원인은 메르스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A씨는 3년전 기저질환(암) 수술을 받고 지난 9일 삼성서울병원에 진료차 방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만큼 자택격리를 명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0일과 12일 모두 음성 판정을 결정했다.강원도 역학조사관은 A씨를 격리대상자에서 해제하고 메르스가 아닌 일반 사체로 처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39.txt

제목: 고령층 → 젊은층…'메르스 통설' 하나하나 깨져  
날짜: 20150615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510017599752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 양상이 변하고 있다. <br/> <br/>처음에는 고령자와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가 주로 숨졌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젊은 환자도 생명이 위독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메르스 상식이 한국에서 깨지고 있는 것이다. 퇴원자는 점차 늘고 있지만 여전히 120명의 환자가 격리치료 중이어서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br/> <br/>대한병원협회가 서울삼성병원을 부분폐쇄 결정을 내린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위 병동에서 한 병원 관계자가 커튼을 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긴급 수술을 제외하고 신규 외래 환자를 받지 않고 기존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도 중단 된다. <br/>남정탁 기자1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사망자 16명 가운데 14명(87.5%)은 만성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나머지 2명은 별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돼 사망했다. 전날 사망한 81번(61)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친척 병문안을 갔다가 감염돼 지난 9일 확정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격리 치료를 받다가 호흡곤란과 폐렴이 악화돼 숨졌다. <br/> <br/>이 환자는 평소 간이 안 좋았던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숨진 51번(72·여) 환자도 고령이라는 점 외에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다. 이 환자는 지난달 14일 평택성모병원에서 요로계통의 급성기 감염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1번 환자로부터 감염돼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r/> <br/>치료 중 증상이 나빠져 5일간 혼수상태로 있다 결국 숨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이 두 사망자와 관련해 “<span class='quot0'>임상 경과나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span>”고 밝혔다. 이날 120명의 환자 가운데 17명은 건강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다. <br/> <br/>메르스 완치자 14명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도 2명이나 포함돼 있다. 기저질환이 반드시 증상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젊은 환자 가운데 기저질환이 없음에도 상태가 악화한 경우도 있다. 삼성서울병원 의사 박모(38·35번 환자)씨는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8일부터 상태가 나빠져 인공호흡기를 달았고, 11일부터는 에크모(ECMO·피를 몸 밖으로 빼내 산소를 공급한 후 다시 몸속으로 넣어 주는 인공 폐)까지 달았다. 평택경찰서 경찰관(35·119번 환자)도 10일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 만인 12일부터 에크모를 단 채 메르스와 싸우고 있다. <br/> <br/>두 환자는 완치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혈장을 주입한 치료를 받았으나 큰 차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건강했던 두 환자의 상태가 이렇게 악화한 이유로는 면역력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폭풍’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하면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는데 이때 너무 과도하게 발생해 생기는 부작용이다. <br/> <br/>역설적으로 면역력이 강한 젊은 사람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 최강원 국군수도통합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해외 사례나 지금까지 국내 환자 현황을 봐도 메르스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 더 위험하고 젊고 건강한 사람은 잘 감염되지 않거나 감염돼도 상대적으로 증상이 더 가볍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span>”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2'>그러나 개개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40.txt

제목: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날짜: 20150613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3440095  
본문: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이어령 지음/열림원/1만5000원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이어령 지음/열림원/1만5000원 <br/> <br/>“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주신다면, 그래 민아야,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 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민아야, 잘 자라 민아야.” <br/> <br/>딸을 잃은 슬픔을 처음에는 독백처럼 글로 썼다. 시간이 지나면서 독백은 딸에게 하는 이야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다시 하나의 산문이 되고 시가 됐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딸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과 똑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누군가에게 주는 글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글이 책이 되어 나왔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는 이 시대의 대표 지성 이어령 선생이 3년 전 세상을 떠난 딸 이민아 목사에게 보내는 우편번호 없는 편지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위안이다. <br/> <br/>영문학도에서 변호사, 검사, 목사로 살다가 마침내 암으로 숨을 거둘 때까지 소외된 젊은이들과 함께하기를 추구했던 딸의 기적 같은 힘은 아버지 이어령에게도 오랫동안 의문이었다. 고통스러운 투병에도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는 이미 세상에 없는 딸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딸의 생애를 재구성하면서 그 답을 추구해나간다. 딸을 잃고 난 뒤에야 고통 없이는 사랑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드디어 진정한 아버지 자격을 얻게 됐다고 고백한다. <br/> <br/>책에는 또 다른 울림을 주는 이어령의 시와, 이민아와 부인 강인숙이 서로에게 써보낸 편지 모음이 실려 절절한 가족애를 보여준다. <br/> <br/>이어령은 문학평론가, 소설가, 시인이자 대학교수, 언론인, 초대 문화부 장관 등의 직함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석학이다. 그가 글을 써온 60년 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이면, 아버지 이어령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비로소 만나게 된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41.txt

제목: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날짜: 20150613  
기자: azahoit@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3100000056  
본문: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이어령 지음/열림원/1만5000원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이어령 지음/열림원/1만5000원“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주신다면, 그래 민아야,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 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민아야, 잘 자라 민아야.”딸을 잃은 슬픔을 처음에는 독백처럼 글로 썼다. 시간이 지나면서 독백은 딸에게 하는 이야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다시 하나의 산문이 되고 시가 됐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딸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과 똑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누군가에게 주는 글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글이 책이 되어 나왔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는 이 시대의 대표 지성 이어령 선생이 3년 전 세상을 떠난 딸 이민아 목사에게 보내는 우편번호 없는 편지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위안이다.영문학도에서 변호사, 검사, 목사로 살다가 마침내 암으로 숨을 거둘 때까지 소외된 젊은이들과 함께하기를 추구했던 딸의 기적 같은 힘은 아버지 이어령에게도 오랫동안 의문이었다. 고통스러운 투병에도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는 이미 세상에 없는 딸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딸의 생애를 재구성하면서 그 답을 추구해나간다. 딸을 잃고 난 뒤에야 고통 없이는 사랑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드디어 진정한 아버지 자격을 얻게 됐다고 고백한다.책에는 또 다른 울림을 주는 이어령의 시와, 이민아와 부인 강인숙이 서로에게 써보낸 편지 모음이 실려 절절한 가족애를 보여준다.이어령은 문학평론가, 소설가, 시인이자 대학교수, 언론인, 초대 문화부 장관 등의 직함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석학이다. 그가 글을 써온 60년 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이면, 아버지 이어령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비로소 만나게 된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42.txt

제목: 춘천서 메르스 확진자 1명 발생,강원도는 총 4명 확진자 나와  
날짜: 20150612  
기자: 박연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3247628  
본문: 강원도 춘천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 1명이 발생했다. 강원도 내 메르스 확진 환자는 4명으로 늘었다. <br/> <br/>12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틀동안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뒤 춘천 집에서 생활하던 A(55)씨가 11일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여 이날 가검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br/> <br/>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동안 부인이 암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을때 동행했으며 이 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11일 오후 6시30분쯤 고열과 오한,기침,통증 등의 증상으로 강원대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다. <br/> <br/>강원도보건당국은 A씨를 강릉의료원으로 이송해 격리조치한 뒤 가족,의료진 등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다. <br/> <br/>A씨는 보호자로 동행해 삼성서울병원이 관리대상으로 발표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br/> <br/>춘천=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43.txt

제목: 문신 때문에 암수술 받은 30대 미국 여성  
날짜: 20150612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3211381  
본문: 미국 의료진이 환자 몸에 있던 문신을 암세포로 착각해 수술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br/> <br/>11일(현지시간) 뉴욕데일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여성 환자(32)는 2012년 11월 자궁암 제거수술을 받았다. 전신을 양전자단층촬영(PET)한 결과 자궁과 난소관 등 4곳에서 종양처럼 보이는 밝은 점이 발견돼 암세포 제거 수술을 받은 것이다. <br/> <br/>하지만 이는 의료진의 실수였다. PET 스캔에서 밝게 빛난 것은 암세포가 번진 게 아니라 문신할 때 쓰이는 안료 찌꺼기였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라메즈 에스칸더는 “<span class='quot0'>수술 과정에서 예상했던 지점에서 종양은 발견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밝게 빛났던 것은 림프관에 스며든 타투 안료였다</span>”고 털어놨다. <br/> <br/>여성은 다리 등에 14개 이상의 문신을 새겼는데 이때 사용된 잉크가 림프관에 스며들었고, 이것이 PET 스캔에서는 종양처럼 보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 부위 외에 있었던 실제 종양을 무사히 제거했다. 미국 과학잡지 ‘산부인과저널’ 최신호(8일자)에 이같은 사실을 알린 에스칸더 박사는 “<span class='quot1'>전이성 질병에 대한 PET 스캔시 우리와 같은 착각이 있을 수 있다</span>”고 주의를 당부했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44.txt

제목: 박찬숙 파산 신청… 과거 남편과의 사별 고백 눈길  
날짜: 20150612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3008412  
본문: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박찬숙(56)에게 네티즌의 관심이 쏠려 있다. <br/> <br/>박찬숙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그는 같은 해 2월 JTBC '님과 함께'에 출연하며 남편과 사별로 힘들었던 과거를 털어놨다. <br/> <br/>당시 그는 가상남편이었던 배우 이영하와 함께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고, 이영하는 "난 혈압이 높다. 나이가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br/> <br/>이에 박찬숙은 "전 남편을 암으로 잃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이영하씨 건강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r/> <br/>한편 채권자들은 박찬숙이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파산·면책을 신청했다며 최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br/>사진=JTBC 방송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45.txt

제목: 장폐쇄의 원인부터 치료·예방까지  
날짜: 20150612  
기자: azahoit@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2100000229  
본문: 권만택(52)씨는 1년이 넘도록 잦은 설사와 변비 증세를 보였다. 처음에는 뒤가 묵직하고 항문 쪽에 뭐가 들어 있는 느낌이 들어, 단순 치질로만 생각하고 병원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검사에서 내시경에 찍힌 권씨의 직장은 이미 암으로 가득 차 장폐쇄가 진행된 상태였다. 좁아진 장으로 변이 나오다 보니 묽은 변만 나왔던 것이고 묵직한 느낌은 장을 가득채운 암 덩어리였다. 연세암병원 대장항문외과 이강영 교수는 암 덩어리의 크기를 줄이는 방사선치료를 선행하고, 작아진 암을 직장과 함께 절제하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생명을 위협하는 대장·직장암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종양으로 막혀 있는 장을 먼저 뚫어야 한다. EBS 제공한 달 전부터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자주 화장실에 가야 했던 박정숙(57)씨. 인근 병원을 찾아 과민성 대장염이란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는데, 갑작스럽게 배에 복수가 차기 시작해 급히 연세암병원 소화기내과 천재희 교수를 찾았다. 검사 결과 그녀는 직장 바로 위 구불결장에 악성 종양이 생겨 장이 거의 막힌 장폐쇄였다. 암이 주변 장기와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라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장이 막혀 변도, 가스도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 천 교수는 막힌 장이 팽창해 천공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막고, 무엇보다 항암치료를 위해 장을 뚫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EBS1 ‘명의’는 12일 오후 9시50분 ‘장폐쇄, 막힌 장을 뚫어라’ 편에서 두 명의와 함께 장폐쇄의 원인부터 치료, 예방까지 모든 것을 파헤쳐본다.장폐쇄는 종양이나 암에 의한 물리적 폐쇄와 염증성 질병으로 인한 기계적 폐쇄, 복부 수술 후 여러 이유로 장기능이 저하되는 마비성 장폐쇄로 나눌 수 있다.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을 10년째 앓고 있는 한동순(49)씨는 천 교수가 처방한 새로운 주사치료와 규칙적인 운동, 식이조절 등 철저한 관리로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 천 교수는 의학적 치료 외에 스스로의 건강관리 또한 이 질병을 다스리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한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46.txt

제목: 안치환, 15일 11집…"암 투병 딛고 50세의 삶 노래"  
날짜: 201506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2100000105  
본문: 싱어송라이터 안치환(50)이 11번째 앨범 '50'을 오는 15일 발매한다고 소속사 에이앤엘이엔티가 12일 밝혔다.'50'은 지난 2010년 내놓은 10집 '오늘이 좋다' 이후 5년 만의 새 앨범이다. 이번 앨범은 올해 50세가 된 안치환이 겪는 좌절과 고통 그리고 희망을 담았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또 그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며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쓴 곡들도 실렸다. 안치환은 지난해 직장암 수술을 받았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희망을 만드는 사람'을 비롯해 총 11곡이 실렸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보며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라는 가사가 인상적인 라틴풍의 록음악이다. 두 번째 타이틀곡 '바람의 영혼'은 긴 투병기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과 믿음을 긍정적으로 노래했다. 또 암 투병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표상한 '나는 암환자', 투병생활을 함께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말하는 '병상에 누워' 등이 수록됐다. 이 밖에도 이지상의 '무지개'와 김현식의 '회상' 등 리메이크곡 2곡도 담겼다.소속사는 "'50'은 그의 음악인생 제2막을 알리는 앨범으로 안치환이 자신의 음악 여정을 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진 후 출시됐다"고 밝혔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47.txt

제목: 가평산속요양병원, 전이 재발암 환자에 휴면암으로 '희망' 주고 있어  
날짜: 201506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2100000481  
본문: 암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한다. 현재 암 질환을 앓고 있는 암 환자는 약 100만 명, 매년 암 진단을 받는 사람이 22만여 명이다.국가암정보센터의 암 발생률 추세 분석에 따르면, 모든 암의 연령 표준화 발생률은 99년 10만 명당 219.9명에서 12년 10만 명당 319.5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3.5%의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가평산속요양병원 권순관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암 환자의 정신건강은 치료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 개인에 맞는 효율적인 치료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실제로 췌장암 진단을 받은 50대 김 모 씨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가족들과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8%에 불과할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다. 또한, 다른 암보다 조기 발견이 어려워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김 씨는 가평산속요양병원의 치료로 휴면암 상태가 됐으며, 현재는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 통원하며 2년 넘게 췌장암이 휴면상태로 장기생존 중이라고 병원 측은 전했다.또한, 박 모 씨는 인천에서 가평산속요양병원으로 주 1회 이상 고주파온열암치료와 면역치료를 병행해 치료한 결과 유방암 폐전이 상태에서 4년 넘게 휴면상태로, 생업에 종사하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권순관 병원장은 “<span class='quot0'>대부분 암은 진행이 되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지만, 휴면암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 될수록 여명이 증가하고, 완전관해(검사상 암이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본원이 운용하고 있는 고주파 온열암치료기 온코써미아는 암 치료에 적용되는 장비로서, 암 발생 부위 또는 전이 부위에 고주파를 통과시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자연사 또는 괴사시키는 최신치료법이다. 이 치료법과 함께 한방면역치료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환자의 몸 전체를 회복시키도록 돕고 있다.우수한 지리적 요건과 청정 자연이 주는 맑은 공기는 몸과 마음에 힐링이 되고 있다. 병원 주변에는 잣나무가 밀집해 있어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병원 옆으로 길게 뻗은 5km 녹수 계곡은 트래킹코스로도 제격이다. 이외에도 식사와 운동, 반식욕 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면역력을 높이는 요가수업은 환자들 사이에서도 인기 프로그램이다.권 병원장은 “<span class='quot0'>통원치료 환자들을 위해 서울 대형병원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그리고, 청평에서 15분 이내에 내원할 수 있도록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타 요양병원과는 차별화된 ‘암요양병원’으로 암 환자를 위한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사진=권순관 병원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48.txt

제목: 간절곶자연요양병원 오픈, 암 환자 삶의 질 향상 기대  
날짜: 20150612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2100000611  
본문: 국민 3명 중 1명이 암을 앓고 있지만, 정작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받는 3대요법(화학, 방사선, 수술)을 시행한 이후, 암 환자는 갈 곳을 잃고 만다. 부작용 관리와 재발방지, 그리고 완치를 위해 싸워야 하는 암 환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의료기관이 필요하지만, 현재 암을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은 극히 드물다. 특히,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권은 우리나라에서 암 발병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환자들의 치료 이후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이와 관련해 최근 차별화된 ‘암 면역 힐링 병원’을 지향하고 있는 ‘간절곶 자연요양병원’이 울산에 오픈해 부산, 울산 등 경남지역 암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통합의학 지향, 통증 잡을 준비도 완료현대의학적 치료프로그램과 한의학적치료프로그램, 그리고 특수치료그램을 결합한 통합의학적 암 치료로 암 환자들을 케어하겠다고 선언한 ‘간절곶자연요양병원’은 ▲고가의 고주파온열암치료기 도입 ▲셀레늄, 미슬토, 비타민C, D 등 면역증진주사요법 ▲도수치료와 수지상세포치료 등 현대의학적 치료와 좌훈, 쑥뜸, 항암단 등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해 치료에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여기에 자연의학적 이론에 입각한 웰빙식이치료와 원적외선 디톡스룸, 웃음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전인치유센터까지 명실상부한 전인치료를 지향한다. 여기에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통증치료기 운용을 통해 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인 ‘통증’도 잡을 준비를 마쳤다.◆울산, 부산 등 경남권 1시간 이내위치도 환자와 환자가족 모두에게 매력적이다. 울산과 부산에서는 30분, 경남 어느 지역에서도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거리로써 가족간 왕래가 편하고, 인근 간절곶과 진하 해수욕장, 병원 앞 넓은 과수원 등의 자연풍광이 가까이 있어 입원 환자의 심신 안정을 도모한다.입원 대상자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수술 후 항암치료중인 환자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 ▲통증과 식욕부진 등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재발이나 전이 또는 말기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다. 상담은 24시간 가능하며, 전화(052-246-0002)나 홈페이지( www.gig0002.com )로 하면 된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49.txt

제목: 女과학자 비하 발언 논란…英 노벨상 수상 교수 사임  
날짜: 20150612  
기자: 2sun@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2100000235  
본문: ‘여성은 실험실의 골칫거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영국의 노벨상 수상자가 재직하던 대학의 명예교수직을 사임했다.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타임스에 따르면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은 10일 성명을 내고, 팀 헌트(사진) 생명과학과 명예교수가 사임했다고 발표했다.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헌트 명예교수는 9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과학기자대회에 참석해 여성과학자들과의 오찬에서 자신이 남성 우월주의자라며 “여성 과학자들은 실험실에 있으면 남성과학자와 사랑에 빠지고, 비판하면 울기만 한다”면서 “동성 과학자들만 있는 실험실을 선호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헌트 교수는 이에 대해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가벼운 마음으로 반어적인 농담을 한 것인데 관중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헌트 교수는 ‘세포 주기’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고 이를 토대로 암 발생 원인을 규명한 공로로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50.txt

제목: 박찬숙 파산 신청… 과거 남편과의 사별 고백 눈길  
날짜: 201506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2100000769  
본문: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박찬숙(56)에게 네티즌의 관심이 쏠려 있다.박찬숙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해 2월 JTBC '님과 함께'에 출연하며 남편과 사별로 힘들었던 과거를 털어놨다.당시 그는 가상남편이었던 배우 이영하와 함께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고, 이영하는 "난 혈압이 높다. 나이가 있으니까"라고 말했다.이에 박찬숙은 "전 남편을 암으로 잃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이영하씨 건강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채권자들은 박찬숙이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파산·면책을 신청했다며 최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현화영 기자 hhy@segye.com사진=JTBC 방송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51.txt

제목: 춘천서 메르스 확진자 1명 발생,강원도는 총 4명 확진자 나와  
날짜: 20150612  
기자: 박연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2100001028  
본문: 강원도 춘천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 1명이 발생했다. 강원도 내 메르스 확진 환자는 4명으로 늘었다.12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틀동안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뒤 춘천 집에서 생활하던 A(55)씨가 11일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여 이날 가검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동안 부인이 암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을때 동행했으며 이 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11일 오후 6시30분쯤 고열과 오한,기침,통증 등의 증상으로 강원대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다.강원도보건당국은 A씨를 강릉의료원으로 이송해 격리조치한 뒤 가족,의료진 등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다.A씨는 보호자로 동행해 삼성서울병원이 관리대상으로 발표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춘천=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52.txt

제목: 문신 때문에 암수술 받은 30대 미국 여성  
날짜: 20150612  
기자: stsong@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2100000260  
본문: 미국 의료진이 환자 몸에 있던 문신을 암세포로 착각해 수술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1일(현지시간) 뉴욕데일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여성 환자(32)는 2012년 11월 자궁암 제거수술을 받았다. 전신을 양전자단층촬영(PET)한 결과 자궁과 난소관 등 4곳에서 종양처럼 보이는 밝은 점이 발견돼 암세포 제거 수술을 받은 것이다.하지만 이는 의료진의 실수였다. PET 스캔에서 밝게 빛난 것은 암세포가 번진 게 아니라 문신할 때 쓰이는 안료 찌꺼기였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라메즈 에스칸더는 “<span class='quot0'>수술 과정에서 예상했던 지점에서 종양은 발견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밝게 빛났던 것은 림프관에 스며든 타투 안료였다</span>”고 털어놨다.여성은 다리 등에 14개 이상의 문신을 새겼는데 이때 사용된 잉크가 림프관에 스며들었고, 이것이 PET 스캔에서는 종양처럼 보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 부위 외에 있었던 실제 종양을 무사히 제거했다. 미국 과학잡지 ‘산부인과저널’ 최신호(8일자)에 이같은 사실을 알린 에스칸더 박사는 “<span class='quot1'>전이성 질병에 대한 PET 스캔시 우리와 같은 착각이 있을 수 있다</span>”고 주의를 당부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53.txt

제목: [세계식문화 연구가 양향자의 간편 레시피] 맛있고 건강한 토마토 치즈 샐러드  
날짜: 20150611  
기자: 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2750469  
본문: 레드 푸드의 선두주자 토마토. 토마토 같이 붉은색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리코펜 성분은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각종 암 예방에 탁월한 항암 기능이 있다. 또 시력보호, 야맹증 치료, 혈관 개선, 피로회복, 칼슘 흡수율 증가를 통한 골다공증 개선, 불면증 개선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맛도 좋고 건강한 토마토와 고소한 치즈를 이용해 맛있는 토마토 치즈 샐러드를 만들어보자. <br/> <br/>사진=세계음식문화연구원 제공 <br/>재료 ▲모짜렐라 치즈 200g ▲토마토 2개 ▲올리브오일 4큰술 ▲체리토마토 5개 ▲소금 1/2작은술 ▲후추 약간 ▲바질 1/2큰술 <br/> <br/>만드는 법 <br/> <br/>1. 모짜렐라 치즈는 0.5cm 크기로 주사위 모양으로 썬다. <br/>2. 체리토마토는 끓는 물에 데쳐서 껍질을 벗긴 다음 주사위 모양으로 썬다. <br/>3. 토마토는 윗부분을 0.5cm 크기로 썰어서 속을 파낸다. <br/>4. 3의 토마토속에 모짜렐라 치즈와 체리토마토를 담는다. <br/>5. 올리브유, 소금, 후추, 바질을 넣어서 드레싱을 만들어 준다. <br/>6. 4에 5의 소스를 뿌려준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54.txt

제목: 암 환자 삶의 질 향상 기대, 간절곶자연요양병원 오픈  
날짜: 20150611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2725901  
본문:   <br/> <br/> <br/> <br/>국민 3명 중 1명이 암을 앓고 있지만, 정작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받는 3대요법(화학, 방사선, 수술)을 시행한 이후, 암 환자는 갈 곳을 잃고 만다. 부작용 관리와 재발방지, 그리고 완치를 위해 싸워야 하는 암 환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의료기관이 필요하지만, 현재 암을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은 극히 드물다. <br/> <br/>특히,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권은 우리나라에서 암 발병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환자들의 치료 이후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br/> <br/>이와 관련해 최근 차별화된 ‘암 면역 힐링 병원’을 지향하고 있는 ‘간절곶 자연요양병원’이 울산에 오픈해 부산, 울산 등 경남지역 암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 통합의학 지향, 통증 잡을 준비도 완료 <br/> <br/>현대의학적 치료프로그램과 한의학적치료프로그램, 그리고 특수치료그램을 결합한 통합의학적 암 치료로 암 환자들을 케어하겠다고 선언한 ‘간절곶자연요양병원’은 △고가의 고주파온열암치료기 도입 △셀레늄, 미슬토, 비타민C, D 등 면역증진주사요법 △도수치료와 수지상세포치료 등 현대의학적 치료와 좌훈, 쑥뜸, 항암단 등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해 치료에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br/> <br/>여기에 자연의학적 이론에 입각한 웰빙식이치료와 원적외선 디톡스룸, 웃음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전인치유센터까지 명실상부한 전인치료를 지향한다. <br/> <br/>여기에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통증치료기 운용을 통해 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인 ‘통증’도 잡을 준비를 마쳤다. <br/> <br/>◆ 울산, 부산 등 경남권 1시간 이내 <br/> <br/>위치도 환자와 환자가족 모두에게 매력적이다. 울산과 부산에서는 30분, 경남 어느 지역에서도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거리로써 가족간 왕래가 편하고, 인근 간절곶과 진하 해수욕장, 병원 앞 넓은 과수원 등의 자연풍광이 가까이 있어 입원 환자의 심신 안정을 도모한다. <br/> <br/>입원 대상자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수술 후 항암치료중인 환자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 △통증과 식욕부진 등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재발이나 전이 또는 말기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br/> <b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55.txt

제목: 피톤치드 효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 주는 7가지는? '시선 집중'  
날짜: 2015061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2509672  
본문: 피톤치드 효과 / 사진=tvN 화면 캡쳐피톤치드 효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 주는 7가지는? '시선 집중' <br/> <br/>피톤치드(Phytoncide) 효과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r/> <br/>피톤치드란, 숲 속 식물들이 만들어 내는 살균성을 가진 모든 물질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식물을 의미하는 피톤(Phyton)과 살균력을 의미하는 치드(Cide)가 합성된 단어이다. <br/> <br/>피톤치드의 주성분은 테르펜이라는 물질로, 이는 숲 속의 향긋한 냄새를 만들어 낸다. <br/> <br/>피톤치드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말초 혈관을 단련시키고 심폐 기능을 강화한다. 기관지 천식과 폐결핵 치료, 심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 가운데, 면역력 강화에 좋은 7가지 음식 재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br/> <br/>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으로는 사과 식초, 마늘, 생강, 고추냉이 뿌리, 양파, 하바네로 고추, 강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먼저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과 사과산뿐만 아니라 비타민을 비롯해 미네랄 소금과 아미노산 등이 함유돼 있어 건강에 무척 좋다. 또한,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항바이러스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생강은 진저롤을 통해 위장관의 운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진통제, 진정제, 항 염증 및 항 박테리아 기능도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이어 고추냉이 뿌리는 다양한 박테리아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항생제 효능도 있다. <br/> <br/>양파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을 지니고 있어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바네로 고추는 캡사이신이 풍부하다. 이는 몸 안의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 감기와 부비동 감염에 효과적이다. <br/> <br/>마지막으로 강황에 있는 커큐민은 항산화제로서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br/> <br/>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피톤치드 효과, 면역력 키우자" "피톤치드 효과, 면역력 높여서 메르스 예방" "피톤치드 효과, 메르스 막기 위한 내 몸 지키기" "피톤치드 효과, 면역력이 중요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피톤치드 효과 피톤치드 효과 피톤치드 효과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56.txt

제목: 장폐쇄의 원인부터 치료·예방까지  
날짜: 20150611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110017567858  
본문: 권만택(52)씨는 1년이 넘도록 잦은 설사와 변비 증세를 보였다. 처음에는 뒤가 묵직하고 항문 쪽에 뭐가 들어 있는 느낌이 들어, 단순 치질로만 생각하고 병원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검사에서 내시경에 찍힌 권씨의 직장은 이미 암으로 가득 차 장폐쇄가 진행된 상태였다. 좁아진 장으로 변이 나오다 보니 묽은 변만 나왔던 것이고 묵직한 느낌은 장을 가득채운 암 덩어리였다. 연세암병원 대장항문외과 이강영 교수는 암 덩어리의 크기를 줄이는 방사선치료를 선행하고, 작아진 암을 직장과 함께 절제하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br/> 생명을 위협하는 대장·직장암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종양으로 막혀 있는 장을 먼저 뚫어야 한다. <br/>EBS 제공 <br/>한 달 전부터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자주 화장실에 가야 했던 박정숙(57)씨. 인근 병원을 찾아 과민성 대장염이란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는데, 갑작스럽게 배에 복수가 차기 시작해 급히 연세암병원 소화기내과 천재희 교수를 찾았다. 검사 결과 그녀는 직장 바로 위 구불결장에 악성 종양이 생겨 장이 거의 막힌 장폐쇄였다. 암이 주변 장기와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라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장이 막혀 변도, 가스도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 천 교수는 막힌 장이 팽창해 천공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막고, 무엇보다 항암치료를 위해 장을 뚫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br/> <br/>EBS1 ‘명의’는 12일 오후 9시50분 ‘장폐쇄, 막힌 장을 뚫어라’ 편에서 두 명의와 함께 장폐쇄의 원인부터 치료, 예방까지 모든 것을 파헤쳐본다. <br/> <br/>장폐쇄는 종양이나 암에 의한 물리적 폐쇄와 염증성 질병으로 인한 기계적 폐쇄, 복부 수술 후 여러 이유로 장기능이 저하되는 마비성 장폐쇄로 나눌 수 있다.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을 10년째 앓고 있는 한동순(49)씨는 천 교수가 처방한 새로운 주사치료와 규칙적인 운동, 식이조절 등 철저한 관리로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 천 교수는 의학적 치료 외에 스스로의 건강관리 또한 이 질병을 다스리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57.txt

제목: 암 환자 삶의 질 향상 기대, 간절곶자연요양병원 오픈  
날짜: 2015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1100000474  
본문:  국민 3명 중 1명이 암을 앓고 있지만, 정작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받는 3대요법(화학, 방사선, 수술)을 시행한 이후, 암 환자는 갈 곳을 잃고 만다. 부작용 관리와 재발방지, 그리고 완치를 위해 싸워야 하는 암 환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의료기관이 필요하지만, 현재 암을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은 극히 드물다.특히,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권은 우리나라에서 암 발병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환자들의 치료 이후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이와 관련해 최근 차별화된 ‘암 면역 힐링 병원’을 지향하고 있는 ‘간절곶 자연요양병원’이 울산에 오픈해 부산, 울산 등 경남지역 암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의학 지향, 통증 잡을 준비도 완료현대의학적 치료프로그램과 한의학적치료프로그램, 그리고 특수치료그램을 결합한 통합의학적 암 치료로 암 환자들을 케어하겠다고 선언한 ‘간절곶자연요양병원’은 △고가의 고주파온열암치료기 도입 △셀레늄, 미슬토, 비타민C, D 등 면역증진주사요법 △도수치료와 수지상세포치료 등 현대의학적 치료와 좌훈, 쑥뜸, 항암단 등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해 치료에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여기에 자연의학적 이론에 입각한 웰빙식이치료와 원적외선 디톡스룸, 웃음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전인치유센터까지 명실상부한 전인치료를 지향한다.여기에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통증치료기 운용을 통해 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인 ‘통증’도 잡을 준비를 마쳤다.◆ 울산, 부산 등 경남권 1시간 이내위치도 환자와 환자가족 모두에게 매력적이다. 울산과 부산에서는 30분, 경남 어느 지역에서도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거리로써 가족간 왕래가 편하고, 인근 간절곶과 진하 해수욕장, 병원 앞 넓은 과수원 등의 자연풍광이 가까이 있어 입원 환자의 심신 안정을 도모한다.입원 대상자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수술 후 항암치료중인 환자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 △통증과 식욕부진 등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재발이나 전이 또는 말기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다.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58.txt

제목: [세계식문화 연구가 양향자의 간편 레시피] 맛있고 건강한 토마토 치즈 샐러드  
날짜: 2015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1100001177  
본문: 레드 푸드의 선두주자 토마토. 토마토 같이 붉은색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리코펜 성분은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각종 암 예방에 탁월한 항암 기능이 있다. 또 시력보호, 야맹증 치료, 혈관 개선, 피로회복, 칼슘 흡수율 증가를 통한 골다공증 개선, 불면증 개선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맛도 좋고 건강한 토마토와 고소한 치즈를 이용해 맛있는 토마토 치즈 샐러드를 만들어보자.사진=세계음식문화연구원 제공재료 ▲모짜렐라 치즈 200g ▲토마토 2개 ▲올리브오일 4큰술 ▲체리토마토 5개 ▲소금 1/2작은술 ▲후추 약간 ▲바질 1/2큰술만드는 법1. 모짜렐라 치즈는 0.5cm 크기로 주사위 모양으로 썬다.2. 체리토마토는 끓는 물에 데쳐서 껍질을 벗긴 다음 주사위 모양으로 썬다.3. 토마토는 윗부분을 0.5cm 크기로 썰어서 속을 파낸다.4. 3의 토마토속에 모짜렐라 치즈와 체리토마토를 담는다.5. 올리브유, 소금, 후추, 바질을 넣어서 드레싱을 만들어 준다.6. 4에 5의 소스를 뿌려준다.<(사)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59.txt

제목: 자기 냉동 난소조직 이식 출산 첫 성공  
날짜: 2015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1100000277  
본문: 어릴 적 추출해 냉동 보관해 둔 난소 조직의 이식을 통한 출산이 벨기에에서 세계 처음으로 성공했다. 암 등에 걸려 화학요법을 받은 여성들이 불임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에라스메병원 산부인과 연구진은 전날 세계적인 생식의학 전문지 ‘휴먼 리프로덕션’에 실은 논문에서 28세 벨기에 여성이 냉동 난소 조직 이식으로 지난해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발표했다.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인 이 여성은 5세 때 흑인 유전병인 겸상적혈구빈혈 판정을 받았다. 6년 뒤 벨기에로 이민 간 그는 골수이식을 위한 화학요법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화학요법은 난소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화학요법에 들어가기 전, 이 여성이 13세 때 그의 오른쪽 난소를 떼어내 냉동시켰다. 화학요법으로 이 여성의 왼쪽 난소는 결국 못 쓰게 됐다.성인이 된 이 여성이 임신을 하고 싶다고 하자 의료진은 얼려두었던 그의 오른쪽 난소 조직 15개를 10년 만에 해동해 왼쪽 난소와 자궁 등에 이식했다. 이 여성은 이식수술을 받고 자연 임신에 성공해 지난해 11월 출산했다.담당 의사인 이자벨 데메스테레(사진)는 “<span class='quot0'>어린 시절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여성들에게 냉동 난소 조직 이식은 출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span>”이라고 말했다.박진영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60.txt

제목: 女과학자 비하 발언 논란…英 노벨상 수상 교수 사임  
날짜: 20150611  
기자: 권이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110017568116  
본문: ‘여성은 실험실의 골칫거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영국의 노벨상 수상자가 재직하던 대학의 명예교수직을 사임했다. <br/> <br/>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타임스에 따르면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은 10일 성명을 내고, 팀 헌트(사진) 생명과학과 명예교수가 사임했다고 발표했다. <br/> <br/>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헌트 명예교수는 9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과학기자대회에 참석해 여성과학자들과의 오찬에서 자신이 남성 우월주의자라며 “<span class='quot0'>여성 과학자들은 실험실에 있으면 남성과학자와 사랑에 빠지고, 비판하면 울기만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동성 과학자들만 있는 실험실을 선호한다</span>”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br/> <br/>헌트 교수는 이에 대해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가벼운 마음으로 반어적인 농담을 한 것인데 관중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헌트 교수는 ‘세포 주기’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고 이를 토대로 암 발생 원인을 규명한 공로로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br/> <br/>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61.txt

제목: '여성비하' 발언 노벨상 수상자 명예교수직 사임  
날짜: 2015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1100000403  
본문: 여성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영국의 노벨상 수상자가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의 명예교수직을 사임했다.11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은 10일(현지시간) 밤 성명을 내고, 팀 헌트 생명과학과 명예교수가 사임했다고 발표했다.UCL은 성명에서 "UCL은 영국에서 최초로 여학생에게 남학생과 평등한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한 대학"이라며 "이런 결말은 양성평등에 대한 UCL의 공헌과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헌트 명예교수는 9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과학기자대회에 참석, 여성과학자들과의 오찬에서 자신이 남성우월주의자라며 "여성과학자들은 실험실에 있으면 남성과학자와 사랑에 빠지고, 비판하면 울기만 한다"면서 "동성 과학자들만 있는 실험실을 선호한다"고 말해 논란을 야기했다.UCL의 원로 과학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트 교수의 발언이 알려지자, 그가 이 학교 생명과학과와 계속 연계되는 것에 대해 불쾌해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동료 과학자들도 헌트 교수의 발언에 충격을 호소했다.데이비드 콜크헌 UCL 약리학과 교수는 "여성 혐오적이고, 끔찍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헌트 교수는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반어적인 농담을 한 것인데 관중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그는 "사람 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비판할 수 있는 풍토는 매우 중요한데, 만약 울음을 터뜨린다면 절대적 진실에 다가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라며 "과학이란 진실에 다가가는 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과학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헌트 교수는 '세포 주기'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고 이를 토대로 암 발생 원인을 규명한 공로로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62.txt

제목: [단독] 메르스 음성 판정에도…장례식장마다 '문전박대'  
날짜: 20150611  
기자: 전주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1100000203  
본문: “운구차에 죽은 아내를 싣고 반나절 동안 장례식장을 찾아 헤맸습니다. 걸리지도 않은 메르스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까지 힘들게 한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집니다.”서모(58)씨는 10일 오전 5시 삼성서울병원에서 암 투병 중이던 부인 송모(55)씨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임종이 임박했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전날부터 자택이 있던 경기 오산시의 모든 장례식장에 전화로 예약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다. “<span class='quot0'>메르스 환자가 있던 병원의 시신은 받을 수가 없다</span>”는 이유를 댔다.부인의 임종 이후 2시간 넘게 장례식장을 섭외한 끝에 서씨는 겨우 인근 화성시 A장례식장으로 운구차를 출발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운구차가 장례식장에 거의 도착할 때쯤 장례식장 측이 돌연 태도를 바꿨다. 송씨가 사망 직전까지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격리병동에 입원했던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지난달 28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송씨는 14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의심환자로 분류돼 격리치료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음성판정을 받았다.A장례식장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메르스 사망자 대응지침에 준해 염습을 하지 않고 바로 화장을 하도록 안내를 했고, 응하기 어려우면 다른 장례식장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드린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장례식장 전체의 방역과 다른 유족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span>”고 말했다.서씨는 운구차를 입구에 주차한 상태로 A장례식장 측과 1시간이나 실랑이를 벌였다. 서씨는 결국 이곳에서의 장례를 포기하고 시민단체인 한국노년복지연합의 도움을 받아 이날 오후 화성시 B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릴 수 있었다. 부인 송씨가 임종한 지 7시간 만이다.경북에서는 50대 여성이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돼 격리조치되면서 질병으로 숨진 남편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경북 영양에 사는 권모(59)씨는 지난달 27일 간암을 앓던 남편(70)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다녀왔고, 이후 발열 증상이 있어 9일부터 안동의료원에 격리됐다. 권씨 남편은 9일 오후 숨졌고, 이후 권씨는 음성판정을 받았다.보건당국은 권씨에게 남편이 숨진 사실을 알린 뒤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쓰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했지만 권씨는 2차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상태에 계속 있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한국노년복지연합은 메르스 확산 여파로 장례식장, 화장시설 관리자들이 시신처리를 꺼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4일부터 장례지도사 협회원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구성해 장례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병원에 머물렀거나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사망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박세준 기자, 대구=전주식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63.txt

제목: 개·폐원 반복… 떠돌이 의사… 고령의사 명의대여  
날짜: 2015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1100000272  
본문: ‘사무장 병원’의 보험사기 행각이 가관이다. 불법으로 병원을 차린 뒤 ‘나이롱환자’(가짜환자)를 입원시켜 보험금을 챙기는 식인데 수법이 가지가지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보험사기로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보고 혐의가 있는 사무장 병원 105곳을 추려냈다고 10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차린 병원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이중 개설이 31건, ‘떠돌이 의사’를 고용해 개·폐원을 반복한 사례가 35건, 고령의사 등의 명의대여가 28건, 요양병원 운영형태를 악용한 사례가 21건이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57곳을 대상으로 먼저 기획조사를 벌이고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겼다.금감원이 밝힌 사례를 보면 비의료인(사무장) A씨는 의사 B씨등 5명의 의사명의로 같은 건물에 ○○의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양쪽에 번갈아 가며 가짜로 환자들을 입원시킨 것으로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받아챙겼다. 병원 소유주(사무장) C씨는 법인 이사장 D씨와 공모해 법인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한 뒤 이 병원 저 병원 월급쟁이로 옮겨다니는 ‘떠돌이 의사’ 5명을 고용해 4년 동안 4회 개·폐원하며 가짜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챙겼다. 일반병원과 달리 정액수가제로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도 최근 보험사기범들의 선호 대상이 됐다. 비의료인 E씨는 고령 의사 5명을 고용해 요양병원을 열고 인근 종합병원에서 암치료를 받는 환자를 유치, 입원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64.txt

제목: 피톤치드 효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 주는 7가지는? '시선 집중'  
날짜: 2015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1100000627  
본문: 피톤치드 효과 / 사진=tvN 화면 캡쳐피톤치드 효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 주는 7가지는? '시선 집중'피톤치드(Phytoncide) 효과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피톤치드란, 숲 속 식물들이 만들어 내는 살균성을 가진 모든 물질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식물을 의미하는 피톤(Phyton)과 살균력을 의미하는 치드(Cide)가 합성된 단어이다.피톤치드의 주성분은 테르펜이라는 물질로, 이는 숲 속의 향긋한 냄새를 만들어 낸다.피톤치드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말초 혈관을 단련시키고 심폐 기능을 강화한다. 기관지 천식과 폐결핵 치료, 심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면역력 강화에 좋은 7가지 음식 재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으로는 사과 식초, 마늘, 생강, 고추냉이 뿌리, 양파, 하바네로 고추, 강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먼저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과 사과산뿐만 아니라 비타민을 비롯해 미네랄 소금과 아미노산 등이 함유돼 있어 건강에 무척 좋다. 또한,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항바이러스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생강은 진저롤을 통해 위장관의 운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진통제, 진정제, 항 염증 및 항 박테리아 기능도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이어 고추냉이 뿌리는 다양한 박테리아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항생제 효능도 있다.양파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을 지니고 있어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바네로 고추는 캡사이신이 풍부하다. 이는 몸 안의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 감기와 부비동 감염에 효과적이다.마지막으로 강황에 있는 커큐민은 항산화제로서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피톤치드 효과, 면역력 키우자" "피톤치드 효과, 면역력 높여서 메르스 예방" "피톤치드 효과, 메르스 막기 위한 내 몸 지키기" "피톤치드 효과, 면역력이 중요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피톤치드 효과 피톤치드 효과 피톤치드 효과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65.txt

제목: 만성질환과 면역력 관리를 위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건강관리  
날짜: 20150610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2158791  
본문:   <br/> <br/> <br/> <br/>메르스는 기저질환 즉 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등이 있는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는 MERS-CoV의 감염 가능성이 높고 예후도 불량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당뇨, 신부전증, 만성폐질환, 면역저하 환자를 메르스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만성질환과 면역력 관리 등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br/>  <br/>◆건강관리의 시작은 건강검진 <br/> <br/>유럽질병통제청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메르스 환자의 평균 나이는 47.5세이다. 국내 메르스 환자의 평균 연령은 54.9세이며, 연령대로는 50대에 이어 40대가 많았다.(6월 8일 기준) <br/> <br/>40~50대는 여러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거나 급증하는 시기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특히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생활습관병이다. 대부분 생활습관병은 과식, 과음, 운동부족 등 안 좋은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며, 방치할 경우 암 등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br/> <br/>40~50대 이외에 모든 연령층에서도 평소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임대종 원장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소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의 건강 정도를 알아 둔다면 평소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br/> <br/>◆메르스 감염의 고위험군으로부터 벗어나기! 만성질환 관리 <br/> <br/>당뇨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어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당장 불편하게 느 <br/>끼지 못해 치료를 소홀히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는 게 최선이다.  <br/> <br/>비만을 예방하고 고지방 식습관을 개선하고 지나친 음주를 삼가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45세 이상의 모든 성인, 45세 미만이라도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면서 부모, 형제, 자녀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사람, 혈압이 140/90mmHg 이상으로 높거나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사람 등은 해마다 혈당검사를 실시해 당뇨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r/> <br/>신장병은 초기에 아무 증상이 없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데, 자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을 때는 병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만성화가 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좋다.  <br/> <br/>신장병을 예방하려면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무리한 운동은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걷기, 수영, 자전거타기 등의 운동을 한다. 음식은 싱겁게 먹고,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호박, 상추 등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 평소 자신의 소변 상태를 잘 점검하여 소변 색에 변화를 살펴야 한다. <br/> <br/>일반적으로 폐 기능은 75% 이하로 떨어져도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을 못 느낀다. 걷거나 움직일 때 숨이 차기 시작하면 이미 50%까지 손상됐다는 의미다. 폐는 한번 손상되면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고 치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오기 전에 조기 발견하고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와 관련한 질환은 크게 폐렴, 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폐질환의 원인으로는 매연, 미세먼지, 자극적인 기체나 입자, 세균과 바이러스 등이 꼽힌다. 그리고 가장 명백한 원인은 흡연이기 때문에 금연이 필요하다. <br/> <br/>◆내 몸 보호막 예방접종으로 면역력 키우기 <br/> <br/>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은 요즘같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관리법이다. 예방접종은 소아청소년만 맞는다는 소수의 편견과 달리, 성인기에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예방접종이 필수이다. 면역력이 낮고, 감염병에 취약한 사람은 예방접종을 통해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다. <br/> <br/>50대 이상은 심각한 통증으로 유명한 대상포진의 통증을 줄일 수 있도록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대한 감염학회는 60세 이상에게 대상포진 예방백신 접종을 권장 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연령에 따라 효과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 50%의 예방 효과가 있다. <br/> <br/>폐렴구균 감염의 고위험군은 초기 접종 후 5년이 경과되면 추가접종이 권장되지만, 특정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추가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다. 폐렴구균 특정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노인,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겸상적혈구증, 간경변, 신증후군, 만성 신장기능이상, HIV감염자, 질환 및 치료로 인해 면역기능이 억제된 환자가 포함된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66.txt

제목: 두산연강재단, 서울대학교병원 암 연구비 1억 지원  
날짜: 20150610  
기자: 송광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2150357  
본문: 두산연강재단(이사장 박용현)은 암 연구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에 연구비 1억 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br/> <br/>이 연구비는 서울대병원 외과 김선회 교수, 내분비내과 박도준 교수, 신경외과 정천기 교수 등 세 교수의 암 치료 연구과제에 활용될 예정이다. <br/> <br/>두산연강재단은 2006년부터 암 연구비 지원사업으로 서울대학교병원과 협약을 맺고 올해까지 매년 1억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했다. <br/> <br/>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67.txt

제목: 두산연강재단, 서울대학교병원 암 연구비 1억 지원  
날짜: 20150610  
기자: vrdw88@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0100000513  
본문: 두산연강재단(이사장 박용현)은 암 연구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에 연구비 1억 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연구비는 서울대병원 외과 김선회 교수, 내분비내과 박도준 교수, 신경외과 정천기 교수 등 세 교수의 암 치료 연구과제에 활용될 예정이다.두산연강재단은 2006년부터 암 연구비 지원사업으로 서울대학교병원과 협약을 맺고 올해까지 매년 1억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했다.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68.txt

제목: 자기 냉동 난소조직 이식 출산 첫 성공  
날짜: 20150610  
기자: 박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010017550791  
본문: 어릴 적 추출해 냉동 보관해 둔 난소 조직의 이식을 통한 출산이 벨기에에서 세계 처음으로 성공했다. 암 등에 걸려 화학요법을 받은 여성들이 불임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에라스메병원 산부인과 연구진은 전날 세계적인 생식의학 전문지 ‘휴먼 리프로덕션’에 실은 논문에서 28세 벨기에 여성이 냉동 난소 조직 이식으로 지난해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발표했다. <br/> <br/>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인 이 여성은 5세 때 흑인 유전병인 겸상적혈구빈혈 판정을 받았다. 6년 뒤 벨기에로 이민 간 그는 골수이식을 위한 화학요법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화학요법은 난소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화학요법에 들어가기 전, 이 여성이 13세 때 그의 오른쪽 난소를 떼어내 냉동시켰다. 화학요법으로 이 여성의 왼쪽 난소는 결국 못 쓰게 됐다. <br/> <br/>성인이 된 이 여성이 임신을 하고 싶다고 하자 의료진은 얼려두었던 그의 오른쪽 난소 조직 15개를 10년 만에 해동해 왼쪽 난소와 자궁 등에 이식했다. 이 여성은 이식수술을 받고 자연 임신에 성공해 지난해 11월 출산했다. <br/> <br/>담당 의사인 이자벨 데메스테레(사진)는 “<span class='quot0'>어린 시절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여성들에게 냉동 난소 조직 이식은 출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박진영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69.txt

제목: 전북 메르스,60대 남성 확진 판정...'서울삼성병원 방문했다가'  
날짜: 20150610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010017551840  
본문: 전북 전주에서 60대 남성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br/> <br/>보건당국은 10일 전주에 거주하는 A씨가 메르스 검사 결과 최종 확진환자로 판정났다고 밝혔다. <br/> <br/>A씨는 지난 달 27일 서울삼성병원 응급실에서 배우자의 암 치료를 위해 동반내원 했다가 국내 메르스 6번째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br/>서울삼성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뒤 지난 달 30일 오한과 발열 등 메르스 증세를 보여 이튿날(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주 B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br/> <br/>A씨가 두 차례의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3차 검사에서 최종 확진판정이 나타나면서 기존 의심환자에 대한 재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br/> <br/>박주은 기자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70.txt

제목: 만성질환과 면역력 관리를 위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건강관리  
날짜: 20150610  
기자: 헬스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0100000859  
본문:  메르스는 기저질환 즉 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등이 있는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는 MERS-CoV의 감염 가능성이 높고 예후도 불량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당뇨, 신부전증, 만성폐질환, 면역저하 환자를 메르스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만성질환과 면역력 관리 등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건강관리의 시작은 건강검진유럽질병통제청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메르스 환자의 평균 나이는 47.5세이다. 국내 메르스 환자의 평균 연령은 54.9세이며, 연령대로는 50대에 이어 40대가 많았다.(6월 8일 기준)40~50대는 여러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거나 급증하는 시기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특히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생활습관병이다. 대부분 생활습관병은 과식, 과음, 운동부족 등 안 좋은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며, 방치할 경우 암 등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40~50대 이외에 모든 연령층에서도 평소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임대종 원장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소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의 건강 정도를 알아 둔다면 평소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메르스 감염의 고위험군으로부터 벗어나기! 만성질환 관리당뇨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어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당장 불편하게 느끼지 못해 치료를 소홀히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는 게 최선이다. 비만을 예방하고 고지방 식습관을 개선하고 지나친 음주를 삼가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45세 이상의 모든 성인, 45세 미만이라도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면서 부모, 형제, 자녀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사람, 혈압이 140/90mmHg 이상으로 높거나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사람 등은 해마다 혈당검사를 실시해 당뇨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장병은 초기에 아무 증상이 없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데, 자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을 때는 병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만성화가 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좋다. 신장병을 예방하려면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무리한 운동은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걷기, 수영, 자전거타기 등의 운동을 한다. 음식은 싱겁게 먹고,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호박, 상추 등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 평소 자신의 소변 상태를 잘 점검하여 소변 색에 변화를 살펴야 한다.일반적으로 폐 기능은 75% 이하로 떨어져도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을 못 느낀다. 걷거나 움직일 때 숨이 차기 시작하면 이미 50%까지 손상됐다는 의미다. 폐는 한번 손상되면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고 치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오기 전에 조기 발견하고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와 관련한 질환은 크게 폐렴, 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폐질환의 원인으로는 매연, 미세먼지, 자극적인 기체나 입자, 세균과 바이러스 등이 꼽힌다. 그리고 가장 명백한 원인은 흡연이기 때문에 금연이 필요하다.◆내 몸 보호막 예방접종으로 면역력 키우기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은 요즘같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관리법이다. 예방접종은 소아청소년만 맞는다는 소수의 편견과 달리, 성인기에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예방접종이 필수이다. 면역력이 낮고, 감염병에 취약한 사람은 예방접종을 통해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다.50대 이상은 심각한 통증으로 유명한 대상포진의 통증을 줄일 수 있도록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대한 감염학회는 60세 이상에게 대상포진 예방백신 접종을 권장 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연령에 따라 효과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 50%의 예방 효과가 있다.폐렴구균 감염의 고위험군은 초기 접종 후 5년이 경과되면 추가접종이 권장되지만, 특정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추가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다. 폐렴구균 특정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노인,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겸상적혈구증, 간경변, 신증후군, 만성 신장기능이상, HIV감염자, 질환 및 치료로 인해 면역기능이 억제된 환자가 포함된다. 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71.txt

제목: 노벨상 수상 헌트 교수 '여성은 골칫거리' 발언 논란  
날짜: 201506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0100001325  
본문: 노벨상을 받은 남성과학자가 여성과학자는 실험실에서 골칫거리에 불과하다는 식의 발언을 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10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 더 타임스 등에 따르면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팀 헌트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72)는 전날 서울에서 열린 세계과학기자대회에 참석, 여성과학자들과의 오찬에서 "나는 남성우월주의자"라면서 "나와 여성들 간 문제에 대해 얘기해주겠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여성이 실험실에 있으면 세 가지가 일어난다"면서 "먼저 내가 그들과 사랑에 빠지고, 그들이 나와 사랑에 빠지고서 그들에 대해 비판하면 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동성 과학자들만 있는 실험실을 선호한다"면서 "여성들에게 방해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헌트 교수의 발언은 같은 행사에 참석한 런던시립대 과학저널리즘 담당 강사 코니 세인트루이스씨가 트위터를 통해 전파하면서 알려졌다.회원인 헌트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하자 영국 왕립협회는 "우리의 시각을 반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데이비드 콜크헌 런던대 교수는 헌트 교수의 발언에 대해 "여성의 발전에 재앙"이라고 평가했다.헌트 교수의 발언은 트위터상 여성과학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비판받았다. 최초 전파자인 코니 세인트루이스씨는 "우리가 아직 빅토리아 시대에 사는 줄 아는가"라면서 "그가 영국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다"고 한탄했다.여성신경과학자인 우타 프리스씨는 트위터에서 "DNA구조를 발견해 노벨상을 받고 나서 흑인이 지적으로 열등하다고 한 제임스 왓슨의 발언과 같은 발언"이라며 "그의 남성우월주의적 발언이 매우 속상하다"고 밝혔다.헌트 교수는 '세포 주기'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고 이를 토대로 암 발생 원인을 규명한 공로로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그의 아내 메리 콜린스는 런던대 면역학과 교수이자 여성과학자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72.txt

제목: 메르스 ‘청정지역’ 강원·충북도 뚫렸다  
날짜: 20150610  
기자: repo21@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0100000206  
본문: 그동안 메르스 청정지역이던 강원도와 충북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확산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정부의 판단을 무색하게 했다. 이들 환자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병문안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충북에서 발생한 환자는 열흘간 메르스에 무방비로 노출돼 격리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메르스 확진 환자가 추가 발생한 9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에 통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이제원기자강원도는 9일 자체 검사 결과 메르스 양성반응을 보인 원주에 사는 A(46)씨와 B(42·여)씨가 확진자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강원도 내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현재 강원도 내 국가지정격리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달 27∼30일 14번 환자가 입원 중이던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서울병원 감염 노출자 명단에 포함된 A씨는 자택격리 중 지난 8일 고열과 가래 증상으로 원주의 한 병원을 찾았으며 1차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A씨의 병문안을 다녀온 B씨도 메르스에 감염됐다. B씨는 A씨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았다가 지난 5일 발열 증세를 보였다. 다음날 원주의 한 병원을 찾은 B씨는 당시 자가격리 권고를 받고 자택에 머물렀다. 그는 8일 고열 등의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A씨와 같이 양성반응을 보인 데 이어 이날 확진자로 분류됐다.문제는 B씨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암 투병 중으로 밀접접촉자가 가족 3명이다. 하지만 B씨는 발열시점인 5일 이후 가족 3명 등 11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당국은 A씨의 고교생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 이날 휴업조치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충북에서도 첫 메르스 환자가 나오면서 청정지역에서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고열·호흡곤란 증상으로 대전 을지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옥천 거주 C(61)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간암을 앓고 있는 C씨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 가까이 메르스 14번 확진 환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병세가 위중한 C씨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이후 지난 10일간 자택에 머물긴 했지만 택시를 타고 동네의원을 다녀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편 C씨는 지난 1일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질병관리본부는 엿새 뒤에야 충북도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격리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충북도 역시 7일 오후 이메일로 C씨가 격리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그가 여전히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판단,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춘천·청주=박연직·김을지 기자 repo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73.txt

제목: 확진 판정 89%가 발열 증상 34% 기침… 가래·근육통 22%  
날짜: 20150610  
기자: 김민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0100000198  
본문: 국내 메르스 환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은 발열과 기침, 가래, 근육통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9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국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58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행하는 메르스의 임상 양상을 분석해 발표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환자 중 89.6%인 52명이 발열 증세를, 34.4%인 20명이 기침 증세를 보였다. 객담(가래)과 근육통 증상을 나타낸 환자는 각각 13명(22.4%)이었으며, 호흡곤란(18.9%), 두통(13.9%), 설사(10.3%) 등의 증상도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은 환자도 1명 있었다.김 이사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span class='quot0'>사우디에서도 초기에는 중증이 다수를 차지하다가 환자가 늘면서 경증이나 일부 무증상 사례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앞으로 발병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메르스 환자는 대부분 폐렴 증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환자 56명에 대한 흉부 엑스선 촬영 결과 29명만이 폐렴 증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정상으로 나온 27명 중에서 아직 폐렴이 시작되기 전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환자들이 감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으로는 고혈압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8명)과 암(7명), 만성폐질환(6명), 만성간질환(5명), 심장질환(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21명이었다.환자들에 대한 검사실 소견에서도 환자 40%에서 백혈구 감소증이, 26.5%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났지만 신장기능 이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환자들 가운데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는 16.6%였으며, 12%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했다.환자들 상당수에게 인터페론(44.2%), 리바비린(48.0%), 로피나비르(25.0%)와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투약됐으며, 절반 이상(55.7%)이 항균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사우디의 경우는 환자 가운데 만성신부전 환자가 많았고 이들 환자의 증세가 악화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만성신장질환 환자가 현재까지는 없어 치명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세종=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74.txt

제목: [단독] 메르스 음성 판정에도…장례식장마다 '문전박대'  
날짜: 20150610  
기자: 박세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010017550641  
본문: “운구차에 죽은 아내를 싣고 반나절 동안 장례식장을 찾아 헤맸습니다. 걸리지도 않은 메르스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까지 힘들게 한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집니다.” <br/> <br/>서모(58)씨는 10일 오전 5시 삼성서울병원에서 암 투병 중이던 부인 송모(55)씨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임종이 임박했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전날부터 자택이 있던 경기 오산시의 모든 장례식장에 전화로 예약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다. “<span class='quot0'>메르스 환자가 있던 병원의 시신은 받을 수가 없다</span>”는 이유를 댔다. <br/> <br/>부인의 임종 이후 2시간 넘게 장례식장을 섭외한 끝에 서씨는 겨우 인근 화성시 A장례식장으로 운구차를 출발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운구차가 장례식장에 거의 도착할 때쯤 장례식장 측이 돌연 태도를 바꿨다. 송씨가 사망 직전까지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격리병동에 입원했던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지난달 28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송씨는 14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의심환자로 분류돼 격리치료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br/> <br/>A장례식장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메르스 사망자 대응지침에 준해 염습을 하지 않고 바로 화장을 하도록 안내를 했고, 응하기 어려우면 다른 장례식장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드린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장례식장 전체의 방역과 다른 유족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span>”고 말했다. <br/> <br/>서씨는 운구차를 입구에 주차한 상태로 A장례식장 측과 1시간이나 실랑이를 벌였다. 서씨는 결국 이곳에서의 장례를 포기하고 시민단체인 한국노년복지연합의 도움을 받아 이날 오후 화성시 B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릴 수 있었다. 부인 송씨가 임종한 지 7시간 만이다. <br/> <br/>경북에서는 50대 여성이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돼 격리조치되면서 질병으로 숨진 남편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경북 영양에 사는 권모(59)씨는 지난달 27일 간암을 앓던 남편(70)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다녀왔고, 이후 발열 증상이 있어 9일부터 안동의료원에 격리됐다. 권씨 남편은 9일 오후 숨졌고, 이후 권씨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br/> <br/>보건당국은 권씨에게 남편이 숨진 사실을 알린 뒤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쓰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했지만 권씨는 2차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상태에 계속 있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r/> <br/>한국노년복지연합은 메르스 확산 여파로 장례식장, 화장시설 관리자들이 시신처리를 꺼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4일부터 장례지도사 협회원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구성해 장례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병원에 머물렀거나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사망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br/> <br/>박세준 기자, 대구=전주식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75.txt

제목: 개·폐원 반복… 떠돌이 의사… 고령의사 명의대여  
날짜: 20150610  
기자: 류순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010017550865  
본문: ‘사무장 병원’의 보험사기 행각이 가관이다. 불법으로 병원을 차린 뒤 ‘나이롱환자’(가짜환자)를 입원시켜 보험금을 챙기는 식인데 수법이 가지가지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보험사기로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보고 혐의가 있는 사무장 병원 105곳을 추려냈다고 10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차린 병원을 말한다. <br/> <br/>유형별로는 의료기관 이중 개설이 31건, ‘떠돌이 의사’를 고용해 개·폐원을 반복한 사례가 35건, 고령의사 등의 명의대여가 28건, 요양병원 운영형태를 악용한 사례가 21건이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57곳을 대상으로 먼저 기획조사를 벌이고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br/> <br/>금감원이 밝힌 사례를 보면 비의료인(사무장) A씨는 의사 B씨등 5명의 의사명의로 같은 건물에 ○○의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양쪽에 번갈아 가며 가짜로 환자들을 입원시킨 것으로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받아챙겼다. 병원 소유주(사무장) C씨는 법인 이사장 D씨와 공모해 법인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한 뒤 이 병원 저 병원 월급쟁이로 옮겨다니는 ‘떠돌이 의사’ 5명을 고용해 4년 동안 4회 개·폐원하며 가짜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챙겼다. <br/> <br/>일반병원과 달리 정액수가제로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도 최근 보험사기범들의 선호 대상이 됐다. 비의료인 E씨는 고령 의사 5명을 고용해 요양병원을 열고 인근 종합병원에서 암치료를 받는 환자를 유치, 입원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br/> <br/>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76.txt

제목: "메르스 사우디 전문가, 이르면 내일 한국 방문"  
날짜: 201506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0100000637  
본문: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내 확산 양상을 분석할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문가가 이르면 내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은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잠복기가 2∼3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때까지 환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메르스 일일상황보고 브리핑에 참석한 권덕철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장과의 일문일답-- 불안정 환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정은경) 76번 환자와 90번 환자는 어제와 그제 확진이 돼 입원한 환자다. 90번 환자는 을지대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 기관지 삽관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황이었다. 의학적 내용은 매일 담당자가 전화를 드려 환자 상태, 퇴원 가능성을 점검한다. 불안정 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이다. -- 환자 발생 추세를 감소 추세로 보고 있는 건지 증가 추세로 보고 있는 건지. 98번 환자와 105번 환자 이대목동병원하고 서울성모병원 가기 전에 환자들이 들린 병원이 메디힐병원 말고도 의원급 병원들이 몇 곳 있다고 들었다. ▲ (정은경) 98번 환자는 의료기관 2곳을 거쳐 진료를 받고 메디힐병원에 입원해 5일 정도 폐렴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대목동병원의 응급실을 통해 격리시설로 입원했다. 메디힐병원에 대해서는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의료기관 내에 격리치료, 격리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아직은 잠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2~3일 정도는 관련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권덕철) 건국대나 아니면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노출됐던 환자들이 잠복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전망한다. -- 메르스 격리자 긴급 생계비 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현재 격리자가 3천493명인데 시점이 언제 기준인가▲ (권덕철) 긴급복지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이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자료로 다시 설명하겠다. -- 임신부 메르스 확진 환자 자세한 정보 공개해달라▲ (정은경) 임신부의 부모님이 확진 판정받았고 세분은 모두 같이 14번 환자하고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신부 검사결과가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선별검사의 성격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나만 했는데 신속하긴 했지만 정확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양성 검체를 다시 질병관리본부로 보냈던 것이다. 질본에서는 2가지 유전자 검사를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2가지 유전자 검사를 도입해서 똑같이 검사를 시작한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확진 검사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검체의 양이 적거나 검체가 불안하면 다시 재검을 한다. 이 임신부는 양성, 음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 -- 수원시청에서 엊그제 발표한 환자가 암 병동 방문자였다고 하는데 이분이 확진자 중에 포함되어 있나. ▲ (정은경) 59번 환자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암 병동을 다녀오진 않은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 DUR 시스템은 외래에서 약 처방이 나가야 환자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권덕철) 그렇다. 통상 이를테면 열이 있다든지 기침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의원 외 감염, 병원 내 감염 거의 다 약이 처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어떤 약이 처방되는지 DUR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 외국 국적자가 몇 명인가. ▲ (정은경) 1명이다.-- 퇴원자는 몇 번인가▲ (정은경) 34번 환자다. -- 35번 환자 상태는 ▲ (정은경) 35번 환자는 담당 의사 말을 종합해보면 현재 산소 마스크를 일부 쓰고 있어서 주치의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 -- 90번 환자 사인은.▲ (정은경) 담당 의사는 급성호흡부전으로 사인을 명시했다.-- 메르스 치료병원과 안전병원은 어떻게 다른가▲ (권덕철) 치료 병원은 음압시설이 있어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병원이다. 서울대보라매병원 등 16개를 지정했다. 메르스 안전병원은 국민중에 호흡기 질환이 있고 계신 분, 혹은 발열이 되는 데도 이 병원 저 병원을 가기 어려운 여건인 만큼 이 분들을 위한 별도의 진료 공간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다른 입원실로 필요한 경우에 입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병원계의 협조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메르스 안전병원을 만들 계획이다. -- 삼성서울병원 자체 조사 결과와 복지부가 공개한 확진자 명단이 다르다.▲ (정은경) 우리가 예측을 하기에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의 감염에 노출됐기 때문에 잠복 기간에 환자가 분산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언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유행곡선이나 이런 것들은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것을 단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접촉자에 대한 분류를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당시에 어떤 폭로의 위험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의 판단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밀접접촉자 기준은 ▲ (정은경) WHO 지침이나 외국 사례를 활용해 2미터 이내 1시간 이상 접촉이라고 했는데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정할 가능성 있다.-- 이대목동병원 현재 역학조사관 파견했나. 오늘 검사 진행 중인 검체 229건 가운데 삼성서울병원과 관련된 검체는 몇건인가. ▲ (정은경) 삼성서울병원 검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에는 우리 역학조사관이 나가서 조사를 했고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노출력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도 조사하고 있다. -- 93번 환자 정보 공개해달라▲ (정은경) 93번 환자는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1일부터 자택 귀가해 자택격리를 요청했는데 외래를 좀 다른 병원으로 다녔다. 이 부분 관련해 해당 병원에 역학 조사를 수행 중이다. -- 폐렴 환자 전수 조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 (권덕철) 아직 대상자는 확정 안됐고 14세 청소년을 제외했는데 소아청소년과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가 들어와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다.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 격리 환자 조사 현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다. -- 이동형 음압병상 몇 개 정도 설치하나 예산은. 사우디 전문가는 언제 방문하나▲ (권덕철) 이동식 장치는 일본에서 구입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이미 배치했다. 사우디 보건부에서 전문가를 보내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WHO의 합동평가단도 와 있고 해서 조금 더 미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빠른 시간 내 오고자 해서 굳이 우리들이 막을 필요도 없고 해서 우리가 알기로 목요일, 내일 입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89번 환자 목사라서 신도들을 접촉했다고 하는데▲ (정은경) 역학 조사했는데 접촉자 파악해서 의료기관에 의사나 같이 진료받았던 환자 그리고 같이 지냈던 분들이 한 300명 정도가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관리가 되는 상황이다. 역학조사관이 동선을 파악해 접촉된 분들은 다 리스트업을 하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77.txt

제목: '메르스 의심환자 분류'…남편 임종도 지키지 못해  
날짜: 201506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0100000440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 50대 여성이 암환자였던 남편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사연이 알려졌다.경북에 사는 권모(59)씨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간암을 앓던 남편과 함께 다녀왔다.그뒤 권씨는 같은달 29일 능동감시자로 통보를 받았고 자택에 격리됐다.그러나 지난 7일 남편 상태가 나빠져 안동의 한 병원을 남편과 함께 다시 찾았고 이후 발열 증상이 있어 9일부터 안동의료원에 격리됐다.권씨 남편은 9일 오후 숨졌고, 이후 권씨는 메르스 음성판정을 받았다.보건당국은 권씨에게 남편이 숨진 사실을 알린 뒤 마스크, 고글 등을 쓰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보호장구를 한 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권씨는 2차 정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상태에 계속 있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한편 권씨 장남도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돼 장례준비는 차남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78.txt

제목: 배우 오윤아, 성격차이로 이혼…과거 갑상선암 투병  
날짜: 20150609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1604167  
본문:   <br/> <br/>배우 오윤아가 이혼 소식을 전해 화제인 가운데 과거 밝힌 갑상선암 투병 사연이 재조명 되고 있다. <br/> <br/>지난 2012년 방송된 스토리온 '이미숙의 배드신'에 출연한 오윤아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밝혔다. <br/> <br/>당시 오윤아는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끝날 즈음 목이 계속 부었다"라며 "혹이 만져질 정도로 목이 부어서 이상한 마음에 병원에 갔다"고 회상했다. <br/> <br/>이어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하길래 '암은 아니죠?'라고 물었다. 그런데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 수술하지 않으면 전이가 돼 위험하다고 했다. 그래서 작품이 끝나고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br/> <br/>이에 이미숙이 "설마 수술하고 작품을 했느냐"고 물었고 오윤아는 "바로 작품에 들어갔다. 연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작품을 고를 여유가 없었다"고 덧붙여 연기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br/> <br/>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오윤아, 갑상선 수술을 했었구나</span>” “<span class='quot1'>오윤아, 지금은 건강해보여 다행이다</span>” “오윤아, 행복하세요”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 <br/>김선희 기자 <br/> <b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79.txt

제목: 성장기 어린이가 피해야 할 음식 6가지.  
날짜: 20150609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1557876  
본문: 일본 의사들이 조언한 어린이에게 나쁜 음식이 일본 엄마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br/> <br/>9일 일본 의료전문 포털 ‘닥터스 미’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나쁜 음식을 아래와 같이 나열하며 이유를 설명했다. <br/> <br/>1. 마가린 <br/>마가린은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되는 트랜스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br/>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건강 위험을 생각하여 트랜스 지방산을 음식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  <br/>마가린 대신 버터 사용이 좋다. <br/> <br/>2. 인공 감미료 <br/>"0kcal"이라고 표시된 음료에 많이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는 화학 물질인 것이 많다.  <br/>영향 성분을 알 수 없어 성장기 어린이에게 적합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br/> <br/>3. 가공 육류 <br/>소시지와 햄 등의 가공육과 스테이크 인위적으로 모양을 만든 고기에는 다량의 염분과 지방이 포함되어 있다.  <br/>그러므로 많이 먹을수록 비만, 당뇨병, 심장 질환, 암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 <br/>어떤 첨가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br/> <br/>4. 저지방 식품 <br/>보통 저지방 식품은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지방 식품에는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br/>비만을 걱정해 저지방 식품을 주기보다 운동 등으로 비만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br/> <br/>5. 마요네즈 <br/>티스푼에 뜬 마요네즈는 약 90kcal이다. <br/>동일본 대지진시 마요네즈를 먹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로 높은 칼로리를 자랑한다. <br/>마요네즈의 원료는 계란과 기름 등 지방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가능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br/> <br/>6. 냉동식품 <br/>일상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냉동식품은 칼로리와 염분이 높다. <br/>바쁠 때 아이에게 줄 수 있지만 가능한 양을 줄이는 것이 좋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80.txt

제목: 국내 메르스 환자 대표증상, 발열-기침-가래-근육통 순…무증상도  
날짜: 20150609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1634968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이 발열과 기침, 가래, 근육통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9일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 중 자료 수집이 가능한 환자 58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행하는 메르스의 임상 양상을 분석해 발표했다. <br/> <br/>이에 따르면 환자 10명 중 9명 꼴로 발열(52명·89.6%) 증세를, 3명 중 1명 꼴로 기침(20명·34.4%) 증세를 보였다. <br/> <br/>객담(가래)과 근육통 증상을 나타낸 환자도 각각 13명(22.4%)이었으며 호흡곤란(18.9%), 두통(13.9%), 설사(10.3%) 등의 증상도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br/> <br/>아무 증상을 보이지 않은 환자도 1명 있었다. <br/> <br/>이에 대해 김우주 교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초기에는 중증이 다수를 차지하다 환자가 늘면서 경증 내지 일부 무증상 사례도 나타났다"며 "앞으로 추이를 좀 더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br/>또 환자 56명에 대한 흉부 X선 촬영 결과 절반 이상인 29명이 폐렴 증상을 보였다. 김 교수는 정상으로 나온 27명 중에서도 아직 폐렴이 시작되기 전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br/>환자들이 감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 가운데에는 고혈압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8명)과 암(7명), 만성폐질환(6명), 만성간질환(5명), 심장질환(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br/> <br/>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21명이었다. <br/> <br/>김 교수는 "사우디는 환자 가운데 만성신부전 환자가 상당수 있었고 이들 환자가 더 중증으로 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만성신장질환 환자가 현재까지 없다"며 "이것이 사우디보다 치명률이 낮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br/> <br/>환자들에 대한 검사실 소견에서도 환자 40%에서 백혈구 감소증이, 26.5%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났으나 신장 기능 이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br/> <br/>환자들 가운데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는 16.6%였으며, 12%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했다. <br/> <br/>환자 상당수에게 인터페론(44.2%), 리바비린(48.0%), 로피나비르(25.0%)와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투약됐으며, 절반 이상(55.7%)이 항균제 치료를 받았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81.txt

제목: 미국 북서부체리 백화점, 대형마트 판매 시작  
날짜: 20150609  
기자: 김기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1534467  
본문: 대표적인 여름과일인 미국 북서부체리가 6월 초 본격적으로 각 백화점과 할인마트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br/> <br/>미국 북서부체리는 미국 북서부의 5개 주(워싱턴, 오리곤, 아이다호, 유타, 몬태나 등)에서 생산되는 체리를 말한다.  <br/> <br/>전 세계 체리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북서부 지역의 적절한 일조량, 시원한 밤 기온, 기름진 토양 등 체리 재배의 최적 조건으로 인해, 타 지역의 체리보다 월등한 당도와 맛을 자랑한다. <br/> <br/>진한 붉은 색상의 미국 북서부 체리에는 과산화 억제 역할을 하는 케르세틴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anthocyanin)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각종 바이러스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  <br/> <br/>씨를 뺀 체리 100g에는 최고 300mg의 안토시아닌이 들어 있어 시력 저하를 방지하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감소시켜 피로 회복과 혈액순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br/> <br/>또한 체리에 함유된 멜라토닌(Melatinin) 성분은 수면 각성 사이클과 생체 리듬을 조절하여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 치료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편두통(만성 편두통, 월경성 편두통)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br/> <br/>미국북서부체리협회(www.nwcherries.co.k)는 본격적인 체리시즌을 맞이해 이달말에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서 팝업스토어 행사를 개최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북서부 체리를 맛 볼 수 있는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br/> <br/>미국 북서부 체리는 6월 초순부터 8월 중순까지 국내 유명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 할 수 있다. <br/>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82.txt

제목: 미국임상종양학회, 암종별 펨브롤리주맙 임상 데이터 발표  
날짜: 2015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9100000157  
본문: 〔윤정한 기자〕 흑색종 등 새로운 5개 종류의 암에 대한 펨브롤리주맙의 임상 연구 데이터가 발표됐다.최근 제 51회 미국임상종양학회 (ASCO)에서는 13개 종류의 다양한 암 종에 대한 펨브롤리주맙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최신 연구 데이터가 발표됐다. 암 치료 반응률을 높일 수 있는 생물학적 지표인 바이오마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흑색종 두경부암, 위암에서는 ‘RNA 시그니처’가, 대장암과 기타 암에서 DNA 복제 시 생기는 오류의 복구를 저해하는 ‘DNA 오류 복원력 부족’이 펨브롤리주맙 임상 결과 발표에서 최초로 새로운 바이오마커로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평이다. 한편, 암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와 신약 임상 데이터를 논의하는 ASCO는 매년 시카고에서 개최되고 있다. 올해 ASCO 에서는 다양한 암 종에 대한 펨브롤리주맙의 효과를 보여주는 41개의 초록과 11개의 구두 발표가 진행됐다.yun0086@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83.txt

제목: 암 환자 200만시대, 통합의학 암 치료 전문가 아카데미  
날짜: 2015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9100000136  
본문: 〔윤정한 기자〕 200만 암 환자 통합의학 전문의를 위한 전문가 과정이 개설된다. 자연통합의학암학회와 자연통합의학암아카데미는 오는 14일부터 6개월간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제 3기 자연통합의학 암 치료 아카데미 전문가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통합의학암치료 총론에서부터 항암 식이요법, 등 맞춤형 식단 및 파이토케미칼, 암 환자 맞춤형 프로그램과 심리, 통증관리, 현재 암환자에 적용되는 치료방법과 암환자 관리, 검사의 해석과 적용, 실습 및 체험이다. 아카데미를 수료한 전문가에게는 학회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암 전문병원 개설시 시설, 시스템, 운영방법 등에 대한 지원과 학회 세미나, 공동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070)7533-0686.yun0086@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84.txt

제목: 레저 활동 후 생긴 ‘검은 점’, 효과적인 피부암 예방·치료법이 ‘필수’  
날짜: 2015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9100000517  
본문:  〔스포츠월드=이광준 기자〕질병에 국가와 인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암의 경우엔 멜라닌 색소가 적은 백인들이 주로 앓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더 이상 ‘피부암 안전지대’가 아니다. 따라서 피부에 생긴 점 등 피부암 전조증상을 방치하면 편평상피세포암, 기저세포암, 악성흑색종 등 치명적인 피부암으로 발전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전체 피부암 환자의 약 65%를 차지하는 기저세포암 증상은 머리와 얼굴에서 대부분 발생하며, 특히 눈꺼풀, 코 둘레에 잘 생긴다. 보통 표면이 매끈하고 반투명한 결절로 시작해 병변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궤양이 생성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림프절·폐·간·뼈 등으로 전이돼 10개월 내외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표피의 각질형성세포에서 유래한 악성종양인 편평세포암 증상은 치료 후에도 재발이나 전이될 위험이 큰 질병이다. 얼굴 상부, 손등, 팔등, 아랫입술, 귓바퀴 등에서 결절판모양, 사마귀모양, 궤양 등 다양한 형태의 병변이 진행되며, 만지면 딱딱한 것이 특징이다. 멜라닌 세포의 악성화로 생긴 종양인 흑색종은 멜라닌세포가 존재하는 부위에서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피부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흑색종 중에서도 피부암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악성흑색종 증상은 가려움이나 통증 같은 자각 증상이 없고 평범한 검은 반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암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악성흑색종은 20대부터 조금씩 증가해 40대 이상에서는 급격히 증가한다. 검은 점이 새로 나타나거나, 이미 있었던 검은 점의 모양이나 크기, 색깔이 변하면 악성흑색종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일반 점과 달리 �팁쩔� 비대칭 �튼÷揚美�가 울퉁불퉁 �틉� 가지 이상의 색조 �팁耽堧� 6mm 이상일 경우 악성흑색종으로 진단한다.편평상피세포암, 기저세포암, 악성흑색종 등 피부암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피부의 자외선 과다노출이다. 최근 등산, 낚시, 골프, 스키 등 여가활동을 비롯해 일광욕을 즐기는 등 잦은 야외 활동으로 피부암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는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을 증가시켜 피부암 발병률을 더 높이고 있다.피부암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치료, 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부암 치료법들은 수술 후 후유증이나 각종 항암제로 인한 후유증, 흉터 등의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 피부암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피부암 예방법으로는 외출 30분 전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외출 시 양산·모자·선글라스 등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부에 좋은 음식 등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자외선에 노출됐다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다.피부에 좋은 음식으로는 홍삼이 있다. 이미 식약처로부터 항산화 작용은 물론 �틘涌し� 높이는 음식 �판퓐洸맏뮈� 좋은 음식 �판態硫廢�에 좋은 음식 �튿蓚切쩔� 좋은 음식 �튼뺙瘦藪� 좋은 음식으로 인증 받은 홍삼은 각종 임상실험과 연구논문을 통해 피부에 좋음은 물론, 탁월한 항암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홍삼이 뛰어난 항산화 효과로 세포손상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성인 69명에게 3g의 홍삼을 8주간 꾸준하게 복용하게 한 후 체내 항산화 효소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실험 결과, 실험참가자들의 DNA 손상이 17%나 감소했으며, 체내 항산화효소는 무려 56%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활성산소를 생성해 간접적으로 DNA 손상에 따른 발암 위험을 높이는 자외선A에 대해 홍삼이 탁월한 효과를 나타냄을 의미한다.홍삼이 ‘천연 항암제’임을 보여주는 실험도 있다. 윤연숙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암연구부 박사는 인위적으로 흑생종을 발생시킨 실험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만 홍삼 다당체를 투여한 후 경과를 지켜본 결과, 홍삼 다당체를 투여한 쥐들이 그렇지 않은 쥐들에 비해 암 전이 정도가 무려 60%이상 줄어들며 홍삼이 암에 좋은 음식임을 입증했다.이처럼 각종 피부암 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홍삼은 관련 제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중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이 즐겨먹으면서 유명해진 흑홍삼은 그 수요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몇 몇 업체들의 독주체제 속에서 새로운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붉은빛의 홍삼은 인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 속에서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등이 포함돼있는 홍삼진액이 외부로 유실되며 색이 변한 결과물이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홍삼농축액 제작 방식은 거의 모든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삼 고유의 검은색을 띠고 있는 흑홍삼은 다중제어기술로 홍삼진액 유출을 막아 다양한 약리성분이 함유된 홍삼 엑기스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다.김재춘 통합의학대학원 교수는 한 건강 관련 TV프로그램에서 “홍삼을 통째로 갈아 넣을 경우, 전체식(매크로바이오틱)처럼 영양분 흡수율을 90~95%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또한 홍삼 속의 다양한 성분까지 추출된다”며 “채소나 과일을 우려낸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신다 해도 통째로 갈아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윤택준 유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역시 “면역력을 올려주는 다당체까지 흡수하기 위해선 (홍삼을) 갈아먹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다.kjcoo5004@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85.txt

제목: 배우 오윤아, 성격차이로 이혼…과거 갑상선암 투병  
날짜: 2015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9100001105  
본문:  배우 오윤아가 이혼 소식을 전해 화제인 가운데 과거 밝힌 갑상선암 투병 사연이 재조명 되고 있다.지난 2012년 방송된 스토리온 '이미숙의 배드신'에 출연한 오윤아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밝혔다.당시 오윤아는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끝날 즈음 목이 계속 부었다"라며 "혹이 만져질 정도로 목이 부어서 이상한 마음에 병원에 갔다"고 회상했다.이어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하길래 '암은 아니죠?'라고 물었다. 그런데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 수술하지 않으면 전이가 돼 위험하다고 했다. 그래서 작품이 끝나고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이에 이미숙이 "설마 수술하고 작품을 했느냐"고 물었고 오윤아는 "바로 작품에 들어갔다. 연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작품을 고를 여유가 없었다"고 덧붙여 연기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윤아, 갑상선 수술을 했었구나” “오윤아, 지금은 건강해보여 다행이다” “오윤아, 행복하세요”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김선희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86.txt

제목: 성장기 어린이가 피해야 할 음식 6가지.  
날짜: 20150609  
기자: blondie@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9100000882  
본문: 일본 의사들이 조언한 어린이에게 나쁜 음식이 일본 엄마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9일 일본 의료전문 포털 ‘닥터스 미’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나쁜 음식을 아래와 같이 나열하며 이유를 설명했다.1. 마가린 마가린은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되는 트랜스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건강 위험을 생각하여 트랜스 지방산을 음식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  마가린 대신 버터 사용이 좋다.2. 인공 감미료 "0kcal"이라고 표시된 음료에 많이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는 화학 물질인 것이 많다.  영향 성분을 알 수 없어 성장기 어린이에게 적합하다고 말하기 어렵다.3. 가공 육류 소시지와 햄 등의 가공육과 스테이크 인위적으로 모양을 만든 고기에는 다량의 염분과 지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많이 먹을수록 비만, 당뇨병, 심장 질환, 암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어떤 첨가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4. 저지방 식품 보통 저지방 식품은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지방 식품에는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비만을 걱정해 저지방 식품을 주기보다 운동 등으로 비만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5. 마요네즈 티스푼에 뜬 마요네즈는 약 90kcal이다.동일본 대지진시 마요네즈를 먹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로 높은 칼로리를 자랑한다. 마요네즈의 원료는 계란과 기름 등 지방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가능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6. 냉동식품 일상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냉동식품은 칼로리와 염분이 높다.바쁠 때 아이에게 줄 수 있지만 가능한 양을 줄이는 것이 좋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87.txt

제목: 메르스 ‘청정지역’ 강원·충북도 뚫렸다  
날짜: 20150609  
기자: 한현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910017511137  
본문: 그동안 메르스 청정지역이던 강원도와 충북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확산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정부의 판단을 무색하게 했다. 이들 환자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병문안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충북에서 발생한 환자는 열흘간 메르스에 무방비로 노출돼 격리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br/> <br/>메르스 확진 환자가 추가 발생한 9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에 통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br/>이제원기자강원도는 9일 자체 검사 결과 메르스 양성반응을 보인 원주에 사는 A(46)씨와 B(42·여)씨가 확진자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강원도 내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현재 강원도 내 국가지정격리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br/> <br/>A씨는 지난달 27∼30일 14번 환자가 입원 중이던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서울병원 감염 노출자 명단에 포함된 A씨는 자택격리 중 지난 8일 고열과 가래 증상으로 원주의 한 병원을 찾았으며 1차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br/> <br/>A씨의 병문안을 다녀온 B씨도 메르스에 감염됐다. B씨는 A씨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았다가 지난 5일 발열 증세를 보였다. 다음날 원주의 한 병원을 찾은 B씨는 당시 자가격리 권고를 받고 자택에 머물렀다. 그는 8일 고열 등의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A씨와 같이 양성반응을 보인 데 이어 이날 확진자로 분류됐다. <br/> <br/>문제는 B씨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암 투병 중으로 밀접접촉자가 가족 3명이다. 하지만 B씨는 발열시점인 5일 이후 가족 3명 등 11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당국은 A씨의 고교생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 이날 휴업조치했다. <br/> <br/>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br/> <br/> <br/>충북에서도 첫 메르스 환자가 나오면서 청정지역에서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고열·호흡곤란 증상으로 대전 을지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옥천 거주 C(61)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br/> <br/>간암을 앓고 있는 C씨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 가까이 메르스 14번 확진 환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병세가 위중한 C씨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이후 지난 10일간 자택에 머물긴 했지만 택시를 타고 동네의원을 다녀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br/> <br/>한편 C씨는 지난 1일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질병관리본부는 엿새 뒤에야 충북도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격리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충북도 역시 7일 오후 이메일로 C씨가 격리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그가 여전히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판단,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br/> <br/>춘천·청주=박연직·김을지 기자 repo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88.txt

제목: 원주 40대 남녀 메르스 확진…청정 강원 뚫렸다(종합)  
날짜: 2015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9100000164  
본문: 원주 40대 남녀 메르스 확진…청정 강원 뚫렸다(종합)강원 첫 확진 판정…보건당국 비상, 역학조사 돌입확진자 자녀 재학 학교 휴업…도민체전은 예정대로 개최 강원도 보건당국 자체 검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양성반응을 보인 A(42·여)씨와 B(46)씨가 확진자로 판명 났다. 특히 이들은 서울발 2차 유행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을 다녀갔던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도 보건당국은 9일 A씨와 B씨의 검체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검출돼 확진자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A씨와 B씨는 음압 병상이 설치된 강릉의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옮겨져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30일 14번 확진자가 입원 중이던 삼성서울병원에 응급실을 거쳐 입원, 치료받았으며 지난 8일 고열과 가래 증상으로 원주의 한 병원 선별진료실을 찾았을 때 1차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중앙메르스대책본부가 지난 7일 삼성서울병원 감염노출자로 통보한 명단에 포함돼 자택 격리 중이었다. B씨는 지난달 27일 A씨가 입원한 삼성서울병원을 찾아 병문안했으며, 지난 8일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 보건당국의 1차 검사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가 감염노출자 명단에 포함돼 자가 격리 중이었던 것과 달리 B씨는 제외돼 있었다. 이들 모두 삼성서울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보건당국은 비상대책본부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키고 이들의 감염경로를 비롯해 역학 조사에 들어가 이들과의 접촉자를 분류, 자택 격리 및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이날 현재 A씨는 암 투병 중으로 밀접 접촉자는 가족 3명이 전부이며, B씨는 발열시점인 5일 이후 가족 3명 등 11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다. 도 보건당국은 이후 확진자가 증가해 격리병상이 부족하면 이들을 격리한 강릉의료원을 격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국가지정 격리 병상은 강릉의료원의 음압병상 5개, 일반 격리병상 20개 등 25개, 원주의료원의 음압격리병상 3개 등 28개 병상이 전부이다. 앞서 교육 당국은 A씨의 고교생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 이날 휴업 조치하는 한편 방역을 시행했다. 이날부터 13일까지 원주종합운동장 등에서 열리는 강원도민체전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대한체육회 내부 방침이고 자칫 대회 취소가 시민 불안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서울발 2차 유행이 도내에서 현실화되자 원주시민을 비롯한 도민 불안과 걱정은 커지고 있다. 이지연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확진자의 발열시점 전후로 역학조사를 벌여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하는 등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며 "만일 환자가 더 늘어나면 강릉의료원 자체를 격리병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서는 입원 2명, 자택격리 19명 등 21명이 격리 중이나 A씨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89.txt

제목: 확진 판정 89%가 발열 증상 34% 기침… 가래·근육통 22%  
날짜: 20150609  
기자: 이재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910017511269  
본문: 국내 메르스 환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은 발열과 기침, 가래, 근육통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9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국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58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행하는 메르스의 임상 양상을 분석해 발표했다. <br/> <br/>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환자 중 89.6%인 52명이 발열 증세를, 34.4%인 20명이 기침 증세를 보였다. 객담(가래)과 근육통 증상을 나타낸 환자는 각각 13명(22.4%)이었으며, 호흡곤란(18.9%), 두통(13.9%), 설사(10.3%) 등의 증상도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은 환자도 1명 있었다. <br/> <br/>김 이사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span class='quot0'>사우디에서도 초기에는 중증이 다수를 차지하다가 환자가 늘면서 경증이나 일부 무증상 사례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앞으로 발병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메르스 환자는 대부분 폐렴 증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환자 56명에 대한 흉부 엑스선 촬영 결과 29명만이 폐렴 증상을 보였다. <br/> <br/>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정상으로 나온 27명 중에서 아직 폐렴이 시작되기 전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환자들이 감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으로는 고혈압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8명)과 암(7명), 만성폐질환(6명), 만성간질환(5명), 심장질환(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21명이었다. <br/> <br/>환자들에 대한 검사실 소견에서도 환자 40%에서 백혈구 감소증이, 26.5%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났지만 신장기능 이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환자들 가운데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는 16.6%였으며, 12%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했다. <br/> <br/>환자들 상당수에게 인터페론(44.2%), 리바비린(48.0%), 로피나비르(25.0%)와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투약됐으며, 절반 이상(55.7%)이 항균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사우디의 경우는 환자 가운데 만성신부전 환자가 많았고 이들 환자의 증세가 악화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만성신장질환 환자가 현재까지는 없어 치명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세종=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90.txt

제목: 국내 메르스 환자 대표증상, 발열-기침-가래-근육통 순…무증상도  
날짜: 20150609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9100000466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이 발열과 기침, 가래, 근육통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 중 자료 수집이 가능한 환자 58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행하는 메르스의 임상 양상을 분석해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환자 10명 중 9명 꼴로 발열(52명·89.6%) 증세를, 3명 중 1명 꼴로 기침(20명·34.4%) 증세를 보였다.객담(가래)과 근육통 증상을 나타낸 환자도 각각 13명(22.4%)이었으며 호흡곤란(18.9%), 두통(13.9%), 설사(10.3%) 등의 증상도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아무 증상을 보이지 않은 환자도 1명 있었다.이에 대해 김우주 교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초기에는 중증이 다수를 차지하다 환자가 늘면서 경증 내지 일부 무증상 사례도 나타났다"며 "앞으로 추이를 좀 더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환자 56명에 대한 흉부 X선 촬영 결과 절반 이상인 29명이 폐렴 증상을 보였다. 김 교수는 정상으로 나온 27명 중에서도 아직 폐렴이 시작되기 전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환자들이 감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 가운데에는 고혈압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8명)과 암(7명), 만성폐질환(6명), 만성간질환(5명), 심장질환(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21명이었다.김 교수는 "사우디는 환자 가운데 만성신부전 환자가 상당수 있었고 이들 환자가 더 중증으로 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만성신장질환 환자가 현재까지 없다"며 "이것이 사우디보다 치명률이 낮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환자들에 대한 검사실 소견에서도 환자 40%에서 백혈구 감소증이, 26.5%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났으나 신장 기능 이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환자들 가운데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는 16.6%였으며, 12%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했다.환자 상당수에게 인터페론(44.2%), 리바비린(48.0%), 로피나비르(25.0%)와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투약됐으며, 절반 이상(55.7%)이 항균제 치료를 받았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91.txt

제목: 메르스 주요 증상…열·기침·가래 ‘무증상도 있다’  
날짜: 2015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9100000377  
본문: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들이 가장 많이 보인 증상은 발열과 기침, 가래, 근육통 순이었다.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9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 중 자료 수집이 가능한 환자 58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행하는 메르스의 임상 양상을 분석해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이들 환자 10명 중 9명 꼴로 발열(52명·89.6%) 증세를, 3명 중  1명 꼴로 기침(20명·34.4%) 증세를 보였다.객담(가래)과 근육통 증상을 나타낸 환자도 각각 13명(22.4%)이었으며 호흡곤란(18.9%), 두통(13.9%), 설사(10.3%) 등의 증상도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특이한 것은 아무 증상을 보이지 않은 환자도 1명 있었다는 것이다.김우주 교수는 “<span class='quot0'>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초기에는 중증이 다수를 차지하다 환자가늘면서 경증 내지 일부 무증상 사례도 나타났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추이를 좀 더 봐야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또 환자 56명에 대한 흉부 X선 촬영 결과 절반 이상인 29명이 폐렴 증상을 보였다. 정상으로 나온 27명 중에서도 아직 폐렴이 시작되기 전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환자들이 감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 가운데에는 고혈압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8명)과 암(7명), 만성폐질환(6명), 만성간질환(5명),  심장질환(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21명이었다.김 교수는 “사우디는 환자 가운데 만성신부전 환자가 상당수 있었고 이들  환자가 더 중증으로 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만성신장질환 환자가 현재까지 없다”며 “<span class='quot0'>이것이 사우디보다 치명률이 낮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추측했다.환자들에 대한 검사실 소견에서도 환자 40%에서 백혈구 감소증이, 26.5%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났으나 신장 기능 이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이와 함께 환자들 가운데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는  16.6%였으며, 12%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했다.환자들 상당수에게 인터페론(44.2%), 리바비린(48.0%), 로피나비르(25.0%)와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투약됐으며, 절반 이상(55.7%)이 항균제 치료를 받았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92.txt

제목: 메르스 주 증상은 열·기침·가래…무증상 환자도 있어  
날짜: 2015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9100000256  
본문: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들이 가장 많이 보인 증상은 발열과 기침, 가래, 근육통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9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 중 자료 수집이 가능한 환자 58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행하는 메르스의 임상 양상을 분석해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이들 환자 10명 중 9명 꼴로 발열(52명·89.6%) 증세를, 3명 중 1명 꼴로 기침(20명·34.4%) 증세를 보였다.객담(가래)과 근육통 증상을 나타낸 환자도 각각 13명(22.4%)이었으며 호흡곤란(18.9%), 두통(13.9%), 설사(10.3%) 등의 증상도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특이한 것은 아무 증상을 보이지 않은 환자도 1명 있었다는 것이다.김우주 교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초기에는 중증이 다수를 차지하다 환자가 늘면서 경증 내지 일부 무증상 사례도 나타났다"며 "앞으로 추이를 좀 더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환자 56명에 대한 흉부 X선 촬영 결과 절반 이상인 29명이 폐렴 증상을 보였다. 정상으로 나온 27명 중에서도 아직 폐렴이 시작되기 전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환자들이 감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 가운데에는 고혈압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8명)과 암(7명), 만성폐질환(6명), 만성간질환(5명), 심장질환(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21명이었다.김 교수는 "사우디는 환자 가운데 만성신부전 환자가 상당수 있었고 이들 환자가 더 중증으로 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만성신장질환 환자가 현재까지 없다"며 "이것이 사우디보다 치명률이 낮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환자들에 대한 검사실 소견에서도 환자 40%에서 백혈구 감소증이, 26.5%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났으나 신장 기능 이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이와 함께 환자들 가운데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는 16.6%였으며, 12%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했다.환자들 상당수에게 인터페론(44.2%), 리바비린(48.0%), 로피나비르(25.0%)와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투약됐으며, 절반 이상(55.7%)이 항균제 치료를 받았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93.txt

제목: 메르스 확진자 요양병원도 갔다…감염 확산 우려(종합)  
날짜: 2015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9100000082  
본문: 메르스 확진자 요양병원도 갔다…감염 확산 우려(종합)방역망 가동 전 동탄성심서 퇴원…"요양병원서 격리, 증상 없어" 경기도 화성시의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나타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가 당국의 감시망이 가동되기 전 한 요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은 면역력이 약하고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라 메르스가 퍼지면 큰 피해와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 9일 동탄성심병원에 따르면 이날 감염이 확인된 94번 환자(71)는 지난달 15일 폐렴으로 이 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달 28일 '요양병원으로 가겠다'며 퇴원했다. 94번 환자는 지난달 27~28일 동탄성심병원의 메르스 전파자로 지목되는 15번 환자(35)와 같은 병실을 쓰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94번 환자가 동탄성심병원에 머물 당시는 15번 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심 환자 통지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94번 환자는 이때 감염 위험 관리나 메르스 검사 제의를 받지 못했다. 15번 환자에 대한 의심 환자 통보는 94번 환자가 동탄성심병원을 퇴원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나왔다. 즉 94번 환자는 당국의 감시망이 작동하기 직전 요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긴다면서 동탄성심병원을 나왔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탄성심병원 관계자는 "해당 환자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우리 쪽으로 입원한 사례"라면서 "퇴원 후 자신이 왔던 요양병원으로 돌아갔는지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지,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파악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질병예방센터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4번 환자가 요양병원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보건소에서 계속 추적 관리해 요양병원에서 1인실 격리를 했고 격리 전 (메르스) 증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메르스는 고열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염력이 없는 것이 정설인 만큼 당장 큰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메르스는 건강한 사람이 걸리면 자연 치유될 수 있지만, 당뇨병이나 암 등 만성 질환자나 고령자가 감염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실제 국내 메르스 사망자 7명은 모두 이처럼 고령이나 만성질환 영향으로 감염 전에도 건강이 크게 나빠진 상태였다. 노약자가 모이는 요양병원은 이 때문에 메르스 감염에서 가장 취약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동탄성심병원에서 9일 확인된 또 다른 확진자(93번 환자)는 15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서 지냈던 64세 여성 간병인이었다. 이 여성은 15번 환자가 의심 환자로 분류된 이후 방역당국의 '자가(자기 집) 격리' 조처를 받았으나 경조사를 이유로 외출하는 등 일부 개별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94.txt

제목: 메르스 확진자 요양병원도 갔다…감염 확산 우려  
날짜: 2015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9100000305  
본문: 경기도 화성시의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나타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가 당국의 감시망이 가동되기 전 한 요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요양병원은 면역력이 약하고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라 메르스가 퍼지면 큰 피해와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9일 동탄성심병원에 따르면 이날 감염이 확인된 94번 환자(71)는 지난달 15일 폐렴으로 이 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달 28일 '요양병원으로 가겠다'며 퇴원했다. 94번 환자는 지난달 27~28일 동탄성심병원의 메르스 전파자로 지목되는 15번 환자(35)와 같은 병실을 쓰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94번 환자가 동탄성심병원에 머물 당시는 15번 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심 환자 통지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94번 환자는 이때 감염 위험 관리나 메르스 검사 제의를 받지 못했다. 15번 환자에 대한 의심 환자 통보는 94번 환자가 동탄성심병원을 퇴원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나왔다.즉 94번 환자는 당국의 감시망이 작동하기 직전 요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긴다면서 동탄성심병원을 나왔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탄성심병원 관계자는 "해당 환자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우리 쪽으로 입원한 사례"라면서 "퇴원 후 자신이 왔던 요양병원으로 돌아갔는지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지,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파악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질병예방센터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4번 환자가 요양병원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보건소에서 계속 추적 관리해 요양병원에서 1인실 격리를 했고 격리 전 (메르스) 증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메르스는 고열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염력이 없는 것이 정설인 만큼 당장 큰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메르스는 건강한 사람이 걸리면 자연 치유될 수 있지만, 당뇨병이나 암 등 만성 질환자나 고령자가 감염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실제 국내 메르스 사망자 7명은 모두 이처럼 고령이나 만성질환 영향으로 감염 전에도 건강이 크게 나빠진 상태였다. 노약자가 모이는 요양병원은 이 때문에 메르스 감염에서 가장 취약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동탄성심병원에서 9일 확인된 또 다른 확진자(93번 환자)는 15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서 지냈던 64세 여성 간병인이었다.이 여성은 15번 환자가 의심 환자로 분류된 이후 방역당국의 '자가(자기 집) 격리' 조처를 받았으나 경조사를 이유로 외출하는 등 일부 개별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95.txt

제목: 원주 40대 남녀 메르스 확진…청정 강원 뚫렸다  
날짜: 2015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9100000125  
본문: 강원도 보건당국 자체 검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양성반응을 보인 A(42·여)씨와 B(46)씨가 확진자로 판명 났다.특히 이들은 서울발 2차 유행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을 다녀갔던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도 보건당국은 9일 A씨와 B씨의 검체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검출돼 확진자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A씨와 B씨는 음압 병상이 설치된 강릉의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옮겨져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달 27∼30일 14번 확진자가 입원 중이던 삼성서울병원에 응급실을 거쳐 입원, 치료받았으며 지난 8일 고열과 가래 증상으로 원주의 한 병원 선별진료실을 찾았을 때 1차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A씨는 중앙메르스대책본부가 지난 7일 삼성서울병원 감염노출자로 통보한 명단에 포함돼 자택 격리 중이었다.B씨는 지난달 27일 A씨가 입원한 삼성서울병원을 찾아 병문안했으며, 지난 8일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 보건당국의 1차 검사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A씨가 감염노출자 명단에 포함돼 자가 격리 중이었던 것과 달리 B씨는 제외돼 있었다.이들 모두 삼성서울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보건당국은 비상대책본부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키고 이들의 감염경로를 비롯해 역학 조사에 들어가 이들과의 접촉자를 분류, 자택 격리 및 모니터링에 들어갔다.이날 현재 A씨는 암 투병 중으로 밀접 접촉자는 가족 3명이 전부이며, B씨는 발열시점인 5일 이후 가족 3명 등 11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다. 도 보건당국은 이후 확진자가 증가해 격리병상이 부족하면 이들을 격리한 강릉의료원을 격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도내 국가지정 격리 병상은 강릉의료원의 음압병상 5개, 일반 격리병상 20개 등 25개, 원주의료원의 음압격리병상 3개 등 28개 병상이 전부이다.앞서 교육 당국은 A씨의 고교생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 이날 휴업 조치하는 한편 방역을 시행했다.이날부터 13일까지 원주종합운동장 등에서 열리는 강원도민체전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대한체육회 내부 방침이고 자칫 대회 취소가 시민 불안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서울발 2차 유행이 도내에서 현실화되자 원주시민을 비롯한 도민 불안과 걱정은 커지고 있다. 이지연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확진자의 발열시점 전후로 역학조사를 벌여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하는 등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며 "만일 환자가 더 늘어나면 강릉의료원 자체를 격리병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서는 입원 2명, 자택격리 19명 등 21명이 격리 중이나 A씨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96.txt

제목: 정신과 진료기록으로 낙인 찍는 사회  
날짜: 2015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9100000499  
본문: 지난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고를 일으킨 최모(23)씨는 과거 입대 전 우울증 등의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수사단이 이런 사실을 발표했고, 언론은 일제히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24일 독일의 저비용 항공사 저먼윙스 여객기가 알프스 산악 지역에 추락해 탑승자 150여 명 전원이 사망한 가운데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부기장 안드레아스 루비츠의 정신병력 또한 언론을 통해 앞다퉈 다뤄졌다.루비츠가 심각한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는 사실이 회자됐고, 심지어 해외언론에서도 ‘우울증 환자에게 비행기를 몰게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왕립정신과협회장 시몬 웨슬리는 이런 여론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조종사 몇 명을 치료해왔고, 회복한 뒤 여전히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데 몇 명은 성공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우울증을 앓았다고 뭐든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팔이 부러졌던 사람이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우울증 병력이 낙인처럼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고, 치료하면 되는 것이지 단지 질환이 과거에 발생했다고 해서 배척하고 업무 복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그러면서도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조종은 허용돼선 안 된다”면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 항공기 조종을 허락하는 일은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될 규정상 허점이다”고 선을 그었다.가디언은 영국 민간항공국 조사를 인용해 현재 민간 조종사 100명이 우울증 병력이 있으며, 이 중 42명은 현재도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과 진료기록만으로 정신질환자 낙인이 찍히는 상황은 국내에서 더욱 심각하다. 국내에서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보험 가입이 거절되기도 한다. 가벼운 정신질환인 불면증의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치료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일시적이고, 치료가 종료한 지 1년이 넘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다. 이와 달리 외국은 불면증 여부가 보험가입 인수 기준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지난 2011년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에서 “<span class='quot0'>국내의 경우 정신질환 위험성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최대한 보험 가입에 부정적이고 엄격하다</span>”고 지적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는 “<span class='quot1'>‘정신과 진료는 실비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더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일반 환자는 정신과 진료가 진짜 안 좋은 것이라고 느끼게 되고, 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span>”고 염려했다.그는 “<span class='quot1'>실제 젊은 환자 중 취직이나 진로에 대해 걱정될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가 건강보험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비보험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span>”고 귀띔했다.한국은 10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자살률 1위 국가다. 유엔이 지난 4월23일 발표한 ‘2015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58개국 중 47번째로 행복한 나라다. 자살률이 높고, 행복지수가 높지 않은데 정신과 체감 문턱은 높은 것이다.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는다는 공포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13년 4월부터 불안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 진료는 기존 정신과 질환 코드인 ‘F’대신 보건일반상담 코드인 ‘Z’로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무용지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제를 처방받으려고 해도 F 코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정신과 진료 병력이 있다는 사실로 보험가입과 관련 차별이 없도록 하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게다가 특정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수사기관과 언론이 피의자의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앞다퉈 다루는 것은 자칫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1'>충동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span>”며 “<span class='quot1'>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위험한 발상</span>”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진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2030년부터 우울증이 고소득 국가 질병 부담 1위 질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정신과 내원 일수는 1080만 건으로 2013년에는 1100만 건, 지난해에는 1115만 건으로 증가해왔다. 총진료비 또한 2012년 4969억여원에서 2013년에는 5139억여원, 지난해에는 5327억여원으로 늘어났다.조 교수는 “<span class='quot1'>정신질환자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문제를 만든다</span>”며 “<span class='quot1'>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정신과 진료 여부를 문제 삼고, 정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암 같은 병이니 차별을 없애자면서도 민간보험 가입 거부의 이유가 되는 현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span>”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돕는 센터에서 일했던 의사가 학생들에게 ‘진료받아 기록 남는 것이 불이익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이력서에 쓴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정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잘 극복하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다. 어떻게 극복을 했으며, 어떤 도움을 주면 숨겨진 능력을 더 많이 끌어낼 수도 있다는 것 등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97.txt

제목: 의료 선진국 자처하다 ‘국제 망신’  
날짜: 20150609  
기자: 이재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9100000205  
본문: “<span class='quot0'>‘메르스’가 아니라 ‘코르스’로 불러야 할 판이다.</span>”한국이 중동 지역 밖에서 메르스가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 급속하게 퍼진 나라로 기록되면서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단어에서 ‘중동’을 의미하는 ‘ME’를 빼고 한국의 약어(KO)를 붙여 코르스(KORS)로 이름을 바꿔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의료선진국을 자처했던 한국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날 합동조사단을 파견, 메르스 전파 원인과 양상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제적인 질병 확산이나 잠재적으로 국제협력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당사국과 협력해 현장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는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한국의 후진적 감염병 관리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8일 현재 87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한국은 76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아랍에미리트(UAE)를 제치고 세계 2위의 메르스 감염국이 됐다.메르스 사망자는 이날까지 총 6명으로 파악돼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UAE보다 적지만 말기암 환자를 비롯해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10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메르스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범정부메르스대책 지원본부를 방문해 상황실에서 메르스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span class='quot1'>방역대책본부 전문가들에게 전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span>”고 밝혔다.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도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중동 바깥의 국가에서 메르스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퍼진 이유에 대해 정부 당국의 초기 환자 파악과 대응 실패, 국내 병원의 열악한 입원 환경, 격리 대상자들의 무분별한 행동 등을 꼽았다.일각에서는 정부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꼽지 않은 환자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여전히 환자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오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84번 환자는 지난달 25∼28일 16번 환자와 평택성모병원의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확진자 판정이 7일에야 이뤄졌다. 6명의 사망자 중 3명은 환자가 사망한 뒤에야 뒤늦게 메르스 감염이 확인됐다. 다행히 아직은 지역사회로 전파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고 메르스 감염이 병원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돼 메르스가 1000명 넘게 확산된 사우디아라비아 상황으로까지는 치닫지 않을 전망이다.세종=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98.txt

제목: 히로시마 ‘검은 비’ 체험 여성 몸속 우라늄에 53년간 내부 피폭  
날짜: 20150608  
기자: 우상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1055056  
본문: 검은 비를 체험한 여성의 폐암 조직 영상. 우라늄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흔적을 검은 선으로 촬영했다. 히로시마대·나가사키대 연구팀 제공, 마이니치신문히로시마 원폭에 의한 ‘검은 비’를 체험한 여성의 폐 조직에 우라늄이 잔존해 현재도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 <br/> <br/>신문에 따르면 히로시마대와 나가사키대 연구팀은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때 29세였던 여성의 폐 조직을 최근 분석했다. 1998년 절제해 보존한 폐 조직에서 연구팀은 핵물질이 방출하는 알파선의 흔적을 확인했다. 흔적의 길이와 반감기 등을 고려할 때 이 핵물질은 히로시마 원폭에서 유래한 ‘우라늄235’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방사성 물질의 양은 암 조직에서 1㎤당 0.0049㏃(베크렐)로 암이 아닌 조직(0.0004㏃)보다 10배 정도 많았다. 조직을 잘라낼 때까지 53년간 피폭량은 암 조직이 1.2Sv(시버트), 암이 아닌 조직이 0.1Sv로 추정됐다. 국제방사선방호협회(ICRP)가 규정한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한도는 1mSv(밀리시버트, 1Sv=1000mSv)다. <br/> <br/>이 폐 조직의 주인인 여성은 82세에 폐암과 위암, 84세에 대장암이 발병했고 94세에 숨을 거뒀다. 이 여성은 원폭 투하 때 폭심지로부터 4.1㎞ 떨어진 곳에 살아 직접 피폭은 면했지만 ‘검은 비’를 겪었다. 출산 직후라 먼 곳으로 가지 못하고 주변 밭에서 뜯은 야채를 먹고 우물물을 마시며 지내다 몸에 방사성물질이 쌓였고 내부 피폭으로 이어졌다. <br/> <br/>연구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과학적·생리적 증명이 어려운 내부 피폭의 실태를 한 사람의 병례를 통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밝힐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 <br/> <br/>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799.txt

제목: 국립암센터, WHO WPRO와 공동 워크숍 진행  
날짜: 2015060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1012222  
본문: 국립암센터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 WPRO)와 공동으로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국립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에서 '암 관리 리더십과 역량강화(Leadership and Capacity Building for Cancer Control)'란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br/>  <br/>이번 워크숍은 캄보디아, 피지, 라오스, 필리핀, 몽골리아, 베트남 등 9개 국가의 암 관리사업 관련 담당자 30여명이 참여하며, 국내외 암 관리 및 암 등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암 관리사업 기획 및 모니터링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br/> <br/>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 암 관리 사업 모델을 소개하고, 서태평양지역 각국의 암관리사업 현황과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br/>  <br/>국립암센터는 지난 2005년 9월 '세계보건기구 암등록·예방 및 조기검진 협력센터'로 지정된 이후 2006년 '분자종양역학 국제교육훈련과정', 2008년 '암등록과 암역학의 적용', 2010년 '비전염성 질병 관리', 2012, 2014년 '만성질환의 감시체계와 모니터링', 2013년 '암 관리 리더십과 역량강화'라는 주제들로 국제교육훈련과정들을 성공리에 마쳤다.  <br/>  <br/>현재 WHO 산하에는 서태평양을 비롯해 아메리카,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6개 지역본부가 있으며, 한국은 중국·일본 등 37개국과 함께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 속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암 분야의 협력센터는 영국, 한국, 인도, 이란, 요르단, 중국 총 6개 국가에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00.txt

제목: 백청강, “직장암 판정보다 더 힘들었던 건 노래를 못한 것”  
날짜: 20150608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1000610  
본문:   <br/> <br/> <br/> <br/>‘복면가왕’의 백청강이 화제인 가운데 과거 백청강의 발언이 새삼 회자 되고 있다. <br/> <br/>백청강은 과거 MBC ‘세바퀴’에 출연해 “<span class='quot0'>부모님께서 암 진단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다</span>”라며 “<span class='quot0'>나이도 어린데 왜 이런 병에 걸렸냐</span>”라고 한탄하셨다고 밝혔다. <br/> <br/>이날 방송에서 백청강은 “<span class='quot0'>제일 힘들었던 게 병이 아니라 ‘위대한 탄생’ 우승하고 앨범 내고 한창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암 판정을 받아 노래를 못한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백청강은 이어 “초반에는 변이 자주 마려웠다”며 “나이 많은 분들은 하루에 많이 보면 30~40번 변을 본다. 나는 나이가 어리니 하루에 5번 정도 본다. 지금은 거의 일반인이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br/> <br/>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백청강, 암을 이겨냈구나” “<span class='quot1'>백청강, 지금은 건강하다니 다행이다</span>” “백청강, 파이팅”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 <br/>김선희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01.txt

제목: 시흥 메르스 발생, 메르스 자가격리자 '항상 N95' 마스크 착용해야...  
날짜: 2015060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1010629  
본문: 시흥 메르스 <br/>시흥 메르스 발생, 메르스 자가격리자 '항상 N95' 마스크 착용해야... <br/> <br/>시흥 메르스 발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메르스 관련 권고안을 마련했다. <br/> <br/>8일 김윤식 시흥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내용과 이동경로를 올렸다. <br/> <br/>김윤식 시장은 "7일 밤 10시 경,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br/> <br/>이어 김 시장은 "의심환자 접촉자 조사가 본인의 불확실한 기억에만 의존해 다소 미흡함이 있을 수 있어, 감염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알려 드린다. 감염자와 접촉했거나 해당 경로를 방문한 후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로 연락바란다"고 설명했다. <br/> <br/>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br/> <br/>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은 자가격리 대상자와 부양자, 가족과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조치다. <br/> <br/>자가격리의 경우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가족원은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 하고, 불필요한 방문은 제한해야 한다. <br/> <br/>면역력이 낮은 노인 또는 특정질환(만성 심장, 폐, 신장질환, 당뇨병, 암)이 있는 사람들은 자가격리 대상자와 완전 격리돼야 한다. <br/> <br/>자택에 머무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다른 사람과 같은 방에 있을 때와 의료인을 방문할 때 항상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br/> <br/>생활용품 공동사용을 피하며 호흡기 증상 및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관할보건소 및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으로 연락해 지시를 받아야 한다. <br/> <br/>부양자와 가족 및 밀접 접촉자는 ▲치료 등에 대한 설명과 지시를 잘 이해하고 환자·감시대상자를 돕는다 ▲공용으로 사용되는 장소는 에어컨, 열린 창문 등과 같이 환기가 잘되는지 확인한다▲ 환자·감시대상자의 혈액, 체액 또는 땀, 침, 가래, 콧물, 토사물, 소변, 용변 등과 같은 분비물을 만지거나 접촉해야 할 때 일회용 마스크, 가운과 장갑을 착용한다▲ 세탁을 철저히 한다▲사용한 모든 장갑, 가운, 마스크, 오염된 물건은 비닐봉지가 씌워진 통에 넣고 버린다 등의 행동요령을 지켜야 한다. <br/> <br/>시흥 메르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시흥 메르스, 무서운 메르스", "시흥 메르스, 없는 지역이 없네", "시흥 메르스, 어떻게 되는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시흥 메르스 시흥 메르스 시흥 메르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02.txt

제목: 국립암센터, WHO WPRO와 공동 워크숍 진행  
날짜: 20150608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8100001002  
본문: 국립암센터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 WPRO)와 공동으로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국립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에서 '암 관리 리더십과 역량강화(Leadership and Capacity Building for Cancer Control)'란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캄보디아, 피지, 라오스, 필리핀, 몽골리아, 베트남 등 9개 국가의 암 관리사업 관련 담당자 30여명이 참여하며, 국내외 암 관리 및 암 등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암 관리사업 기획 및 모니터링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 암 관리 사업 모델을 소개하고, 서태평양지역 각국의 암관리사업 현황과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005년 9월 '세계보건기구 암등록·예방 및 조기검진 협력센터'로 지정된 이후 2006년 '분자종양역학 국제교육훈련과정', 2008년 '암등록과 암역학의 적용', 2010년 '비전염성 질병 관리', 2012, 2014년 '만성질환의 감시체계와 모니터링', 2013년 '암 관리 리더십과 역량강화'라는 주제들로 국제교육훈련과정들을 성공리에 마쳤다.  현재 WHO 산하에는 서태평양을 비롯해 아메리카,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6개 지역본부가 있으며, 한국은 중국·일본 등 37개국과 함께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 속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암 분야의 협력센터는 영국, 한국, 인도, 이란, 요르단, 중국 총 6개 국가에 있다.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03.txt

제목: 히로시마 ‘검은 비’ 체험 여성 몸속 우라늄에 53년간 내부 피폭  
날짜: 20150608  
기자: 우상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8100000647  
본문: 검은 비를 체험한 여성의 폐암 조직 영상. 우라늄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흔적을 검은 선으로 촬영했다. 히로시마대·나가사키대 연구팀 제공, 마이니치신문히로시마 원폭에 의한 ‘검은 비’를 체험한 여성의 폐 조직에 우라늄이 잔존해 현재도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히로시마대와 나가사키대 연구팀은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때 29세였던 여성의 폐 조직을 최근 분석했다. 1998년 절제해 보존한 폐 조직에서 연구팀은 핵물질이 방출하는 알파선의 흔적을 확인했다. 흔적의 길이와 반감기 등을 고려할 때 이 핵물질은 히로시마 원폭에서 유래한 ‘우라늄235’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방사성 물질의 양은 암 조직에서 1㎤당 0.0049㏃(베크렐)로 암이 아닌 조직(0.0004㏃)보다 10배 정도 많았다. 조직을 잘라낼 때까지 53년간 피폭량은 암 조직이 1.2Sv(시버트), 암이 아닌 조직이 0.1Sv로 추정됐다. 국제방사선방호협회(ICRP)가 규정한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한도는 1mSv(밀리시버트, 1Sv=1000mSv)다.이 폐 조직의 주인인 여성은 82세에 폐암과 위암, 84세에 대장암이 발병했고 94세에 숨을 거뒀다. 이 여성은 원폭 투하 때 폭심지로부터 4.1㎞ 떨어진 곳에 살아 직접 피폭은 면했지만 ‘검은 비’를 겪었다. 출산 직후라 먼 곳으로 가지 못하고 주변 밭에서 뜯은 야채를 먹고 우물물을 마시며 지내다 몸에 방사성물질이 쌓였고 내부 피폭으로 이어졌다.연구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과학적·생리적 증명이 어려운 내부 피폭의 실태를 한 사람의 병례를 통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밝힐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04.txt

제목: 백청강, “직장암 판정보다 더 힘들었던 건 노래를 못한 것”  
날짜: 201506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8100001006  
본문:  ‘복면가왕’의 백청강이 화제인 가운데 과거 백청강의 발언이 새삼 회자 되고 있다.백청강은 과거 MBC ‘세바퀴’에 출연해 “부모님께서 암 진단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다”라며 “나이도 어린데 왜 이런 병에 걸렸냐”라고 한탄하셨다고 밝혔다.이날 방송에서 백청강은 “제일 힘들었던 게 병이 아니라 ‘위대한 탄생’ 우승하고 앨범 내고 한창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암 판정을 받아 노래를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백청강은 이어 “초반에는 변이 자주 마려웠다”며 “나이 많은 분들은 하루에 많이 보면 30~40번 변을 본다. 나는 나이가 어리니 하루에 5번 정도 본다. 지금은 거의 일반인이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백청강, 암을 이겨냈구나” “백청강, 지금은 건강하다니 다행이다” “백청강, 파이팅”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김선희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05.txt

제목: 메르스 사망자 6명 중 5명, 70대 이상 고령·기저질환 환자  
날짜: 201506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8100000890  
본문: 국내에서 8일 현재 확인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는 6명으로 지금까지 치명률이 7% 수준이다. 이날까지 차례로 25번(57·여), 6번(71), 3번(76), 36번(82), 64번(75), 84번(80)이 메르스에 감염된 후 숨졌다. 국내 사망자는 50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70대 이상 고령이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 중 2명은 80대의 고령이다.사망자 중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한 50대도 천식이 있었고, 관절염 치료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면역기능이 떨어져 메르스를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암, 만성콩팥병, 만성폐쇄성폐질환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던 사망자도 3명이다. 정부와 의료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3번과 64번 환자는 각각 담관암과 위암을 앓았으며, 6번 환자는 2011년에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을 적출한 상태였다. 36번과 84번 환자는 고령에 각각 세균성 폐렴과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메르스 바이러스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숨졌다. 36번은 평소 천식을 앓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당뇨, 신부전, 만성폐질환, 면역저하 환자를 메르스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특히 메르스 바이러스는 폐와 콩팥을 공격하기 때문에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만성 신장병 환자는 더욱 취약할 수 있다.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메르스위원장이 해외의 메르스 환자 1천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암과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메르스 환자의 사망률은 44.3%로, 건강한 환자의 10.7%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메르스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와 마찬가지로 폐에 침범하며, 사스와는 다르게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두 번째 사망환자는 71세의 고령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진 데다 2011년에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을 적출한 상태였다. 고위험 요인을 복합적으로 갖춘 셈이다. 암환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져 메르스 감염에 취약하고 사망위험이 높아진다. 김 이사장은 "암이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등도 면역이 떨어질 수 있고, 항암제나 장기이식 후 거부반응을 막기 위한 면역억제제, 그리고 종종 쓰는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도 면역저하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사우디아라비아의 메르스 권위자인 타리크 아흐메드 마다니 킹압둘아지즈대 교수는 8일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당뇨, 신부전, 만성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치사율이 40~50%로 높지만 건강한 환자는 치사율이 8%에 그친다"고 말했다.실제로 국내 사망자들도 모두 고령에 만성질환자란 특징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면 건강한 일반인들이 지나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06.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병원의 양심선언, 친절한(?) 의사들  
날짜: 20150608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810017490986  
본문: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헬스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궁적출술 건수는 10만명당 329.6건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2.6건)보다 3배 높고, 의료선진국인 영국보다 무려 12배나 높은 수치다. 갑상선암은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 과잉진단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질환이다. 이처럼 갑상선암 환자가 급증한 것이 조기검진으로 인한 발견율의 증가라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환자들은 혼란에 빠졌는데, 전문가들은 환자가 받은 검사나 치료가 득보다 위험성이 더 큰 경우 과잉진료, 과잉치료라고 말한다. 환자 상태가 호전되기보다 잠재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과잉 진료가 일어나는지 등 ‘국내 의료 현실의 민낯’을 들여다 봤다.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은 총 2회에 걸쳐 초할인 저수가에 양심을 파는 의사들이 범람하는 의료 현실의 민낯을 파헤쳐 눈길을 끌고 있다. 얼굴에 하얀 마스크를 쓴 젊은 의사들이 토론을 통해 현재 의사들이 처한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줬으며, 이를 통해 왜 하지 않아도 될 수술과 치료가 횡행하게 되는지를 짚어봤기 때문. <br/> <br/>우선 여성의 상징과도 같은 자궁을 떼어 낸 이들. 병원에서는 과도한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아이를 낳고 난 후 쓸모없는 기관이니 떼어버리자 권유했다. 하지만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이후 우울증과 후유증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2012년 조사를 보면 국내 여성의 자궁적출 수술은 10만명당 326.9건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br/> <br/>뿐만 아니라 최근 과잉 진료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갑상선암도 마찬가지다. 병원에서는 암이라면 최소한의 부위라도 수술을 하는 게 맞는다고 하지만 일부 의사들의 의견은 좀 다르다. 암 중에서도 진행 속도가 느리고, 예후도 나쁘지 않은 갑상선암을 굳이 초기에 발견해 후유증이 큰 수술을 감행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br/> <br/>심지어 떼어내고 나서 조사해보니 암이 아닌 경우도 빈번하다. 떼어낸다 하더라도 평생 요오드제를 먹고 식이요법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한 고려는 없다. <br/> <br/>이런 의료계의 과잉 진료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렇게 과잉 진료를 하는 의사들 틈에서 '양심적 진료'를 고집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고독하고 현실은 고달프다. <br/> <br/>또 다른 양심적인 진료를 하는 산부인과. 하지만 나날이 줄어가는 출산율과 저수가의 현실에서 그가 하는 진료는 산부인과가 아니라 피부과다. 심지어 양심적 진료의 시간과 빚은 비례한다. 그러다 보니 의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 망하지 않기 위해 시술 대신 수술을 유도한다. 마구잡이 검사를 하고 심지어 이른바 '먹튀'도 서슴지 않는다. <br/> <br/>환자도 다르지 않다. 여전히 병원에만 들어서면 '을(乙)'이 되는 환자들은 의사들의 처분만 바란다. 심지어 실비 보험에 가입했다면서 역으로 과잉 진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br/> <br/>이처럼 아프면 누구나 찾게 되는 병원의 속사정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동안 병원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일까. <br/> <br/>의료사고 피해자 부모 A씨는 “마취는 과장님이 한다고 해서 그런 줄로 알았다”면서 “그 사람들이 일요일이라서 안 오고 할 줄은 진짜 몰랐다”고 전했다. 응급실 의료사고 피해자 부모 B씨는 “주말에 아프면 난처해진다”면서 “결국 답은 주말에 아프면 안된다는 것이었다”고 하소연했다. <br/> <br/>실례로 토요일 저녁,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상을 입은 한 고등학생이 서울의 모 대형병원에 실려 왔다. 다음날 부분마취 후 간단한 수술이 시작됐다. 하지만 마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의식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반식물인간’ 상태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br/> <br/>일요일 저녁, 지방의 한 아버지도 장중첩 증세를 보이던 딸아이를 데리고 대형병원을 전전했다. 지역 인근의 대형병원에선 모두 아이를 진료할 수 없다고 했던 것. 결국 병원을 찾지 못한 4세의 환아는 응급 처지를 받지 못해 장파열로 사망했다. <br/> <br/>도대체 병원에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 같은 일의 ‘유일한 공통점’은 주말에 벌어진 사건이란 것이다. 어이없는 죽음과 사고 이면에는 주말 병원의 어떠한 구조적 한계가 숨어있는 것일까. <br/> <br/>1년차 내과 전공의는 “국내 의료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좀 더 잠을 줄여야 하고 밥은 좀 건너 띄는 등 늘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고백했다. <br/> <br/>2년차 내과 전공의 역시 “아직은 수련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게 정말 맞는 치료인지, 정말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치료인지, 애매한 기분에 빠져들 때가 있다”고 밝혔다. <br/> <br/>의사들은 주 80시간은 기본, 100시간 120시간을 훌쩍 넘기는 건 부지기수다. 이는 법정 근무시간인 40시간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과중한 근로시간의 핵심에는 ‘당직’이 있다. 일과 시간을 마치고 혼자 병동을 지키며 100명이 넘는 환자를 봐야 한다. 환자 호출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나면 다시 정상적인 일과가 시작된다. 과연 피로감에 짓눌린 전공의들은 올바른 진료를 할 수 있을까. <br/> <br/>매 순간 무수한 의학적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중환자실은 ‘생명의 최전선’이다. 다시 말해 잠깐의 실수와 착오가 생명과 직결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주말 이곳을 지키는 의사도 2년차 전공의다.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환자를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전공의 혼자 무사히 돌볼 수 있을까. 상급 의료진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음에도, 전공의들에게는 매일 매일이 부담의 연속이다. <br/> <br/>그렇다면 해외 선진국의 시스템은 어떨까.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공의 근무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한 미국은, 전공의 근무 시간 감축으로 발생한 진료 공백은 당직전문의라 불리는 ‘호스피탈리스트(Hospitalist)’가 메우고 있다. 호스피탈리스트는 입원환자관리와 당직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다. <br/> <br/>국내에서도 지난해 4월 전공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당혹스럽다. 병원은 물론 전공의들도 제도의 비현실성에 난감해하는 상황이기 때문. 전공의의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도 미국처럼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br/> <br/>그러나 필수 의료 행위의 수가는 대부분 원가 이하로 책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병원이 더 많은 의사를 투입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br/> <br/>결국 땜질 처방이 아닌 왜곡된 한국 의료 제도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현장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07.txt

제목: 메르스 환자 발생 6월1일 절정…평택성모 '이틀째 잠잠'  
날짜: 201506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8100000414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환자들의 발병(증상이 나타난 시기)이 유난히 많이 몰렸던 '봉우리'는 지난 1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메르스 확진자들의 발병일 분포를 보면 이번 달 1일이 14명으로 발병 횟수 2위인 '같은 달 4일'(8명)보다 갑절이었다. 감염 병원별로 보면 1일 발병한 환자 중 가장 많은 사람(7명)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례였다. 건양대병원(4명), 평택성모병원(2명), 대청병원(1명)이 그 뒤를 이었다.애초 감염 진앙으로 지목됐던 평택성모병원은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발병이 가장 잦았고 이후에는 빈도가 크게 떨어져 이번 달 5∼6일 사이에는 발병 건수가 전혀 없었다.이와 관련해 보건 당국은 8일 브리핑에서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이곳의 유행이 종식됐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감염지로 부각된 삼성서울병원은 지난달 30일 발병자가 5명 나오기 시작,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하루 2∼7명의 발병자가 나타나고 있다.8일 기준 메르스 환자가 가장 많이 나타난 병원은 여전히 평택성모병원(36명)였다. 2위인 삼성서울병원은 34명으로 평택성모에 근접했다. 평택성모병원이 환자가 더 나오지 않는 만큼 곧 삼성서울병원이 최대 감염지로 올라설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그 밖의 주요 감염지는 건양대병원과 대청병원(각 7명)이다. 87명 환자 중 성별로는 남자(50명)가 여자(37명)보다 더 많았다.평균나이는 54.9세였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0명으로 제일 많고 40대가 18명, 60·70대가 각 15명 순이다.전체 환자 중 완치 퇴원자는 2명이고 지금껏 6명이 숨졌다. 지금껏 사망자는 암이나 천식 등 이미 중증 질환을 앓는 고령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08.txt

제목: 메르스 사망자 5명의 공통점은  
날짜: 20150608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8100000642  
본문: 메르스와 관련해 사망한 5명은 주로 고령에 폐·신장 관련 기존 질환이 있다는 공통점을 보였다.7일 보건복지부 메르스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숨진 64번 환자(75)는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환자는 위암 말기로 암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메르스에 감염된 점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숨진 6번 환자(71)는 메르스에 걸리기 전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을 알았다가 2011년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을 적출한 상태였다. 또 다른 사망자인 25번 환자(57)는 천식과 고혈압이 있었고 관절염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오래 복용해 그 부작용도 겹쳤다. 첫 3차 감염 사망자로 기록된 36번 환자(82)도 천식과 세균성 폐렴을 앓고 있었다.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는 37.5도 이상의 고열, 기침, 호흡곤란, 메스꺼움, 근육통 등을 동반하는데 이는 독감 증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독감과 달리 폐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에도 치명적이다. 신장은 몸 안의 수분량과 전해질 농도를 유지해주는 장기로 이 기능이 망가지면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메르스 환자 가운데 11번(79·여), 24번(78), 28번(58), 29번(77·여), 33번(47), 42번(54·여), 47번(68·여) 등 7명의 환자는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감염학회가 메르스 확진 환자 30여명을 분석한 결과 80%는 감기처럼 앓았고 나머지 20%는 폐렴으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대부분 폐렴으로 발전한 환자군에서 발생했다. 폐렴으로 발전하지 않은 환자들은 대부분 고열과 기침, 근육통 증상을 호소하다가 나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메르스와 관련해 나이가 많거나 폐 등 호흡기가 약하고 원래 다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위험하다고 분석했다.지난 5일 메르스 최초 감염자를 간병하다 감염된 부인(2번 환자)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체온 등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 강동구 365의원 의료진(5번 환자)과 평택성모병원 의료진(7번 환자)도 완치 판정을 받아 8일쯤 퇴원할 예정이다.그동안 메르스 감염자와 접촉해 자택이나 시설에 격리됐던 시민 560명이 잠복기가 지나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초기 평택성모병원과 관련한 격리대상 가운데 상당수가 2주간의 격리 기간이 지나면서 격리 해제가 늘고 있다.세종=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09.txt

제목: 시흥 메르스 발생, 메르스 자가격리자 '항상 N95' 마스크 착용해야...  
날짜: 20150608  
기자: 메르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8100001138  
본문: 시흥 메르스시흥 메르스 발생, 메르스 자가격리자 '항상 N95' 마스크 착용해야...시흥 메르스 발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메르스 관련 권고안을 마련했다.8일 김윤식 시흥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내용과 이동경로를 올렸다.김윤식 시장은 "7일 밤 10시 경,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이어 김 시장은 "의심환자 접촉자 조사가 본인의 불확실한 기억에만 의존해 다소 미흡함이 있을 수 있어, 감염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알려 드린다. 감염자와 접촉했거나 해당 경로를 방문한 후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로 연락바란다"고 설명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은 자가격리 대상자와 부양자, 가족과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조치다.자가격리의 경우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가족원은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 하고, 불필요한 방문은 제한해야 한다.면역력이 낮은 노인 또는 특정질환(만성 심장, 폐, 신장질환, 당뇨병, 암)이 있는 사람들은 자가격리 대상자와 완전 격리돼야 한다.자택에 머무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다른 사람과 같은 방에 있을 때와 의료인을 방문할 때 항상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생활용품 공동사용을 피하며 호흡기 증상 및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관할보건소 및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으로 연락해 지시를 받아야 한다.부양자와 가족 및 밀접 접촉자는 ▲치료 등에 대한 설명과 지시를 잘 이해하고 환자·감시대상자를 돕는다 ▲공용으로 사용되는 장소는 에어컨, 열린 창문 등과 같이 환기가 잘되는지 확인한다▲ 환자·감시대상자의 혈액, 체액 또는 땀, 침, 가래, 콧물, 토사물, 소변, 용변 등과 같은 분비물을 만지거나 접촉해야 할 때 일회용 마스크, 가운과 장갑을 착용한다▲ 세탁을 철저히 한다▲사용한 모든 장갑, 가운, 마스크, 오염된 물건은 비닐봉지가 씌워진 통에 넣고 버린다 등의 행동요령을 지켜야 한다.시흥 메르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시흥 메르스, 무서운 메르스", "시흥 메르스, 없는 지역이 없네", "시흥 메르스, 어떻게 되는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시흥 메르스 시흥 메르스 시흥 메르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10.txt

제목: 의료 선진국 자처하다 ‘국제 망신’  
날짜: 20150608  
기자: 이재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810017497226  
본문: “<span class='quot0'>‘메르스’가 아니라 ‘코르스’로 불러야 할 판이다.</span>” <br/> <br/>한국이 중동 지역 밖에서 메르스가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 급속하게 퍼진 나라로 기록되면서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단어에서 ‘중동’을 의미하는 ‘ME’를 빼고 한국의 약어(KO)를 붙여 코르스(KORS)로 이름을 바꿔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의료선진국을 자처했던 한국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 <br/> <br/>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날 합동조사단을 파견, 메르스 전파 원인과 양상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제적인 질병 확산이나 잠재적으로 국제협력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당사국과 협력해 현장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는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한국의 후진적 감염병 관리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br/> <br/>8일 현재 87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한국은 76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아랍에미리트(UAE)를 제치고 세계 2위의 메르스 감염국이 됐다. <br/> <br/>메르스 사망자는 이날까지 총 6명으로 파악돼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UAE보다 적지만 말기암 환자를 비롯해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10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메르스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br/> <br/>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범정부메르스대책 지원본부를 방문해 상황실에서 메르스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span class='quot1'>방역대책본부 전문가들에게 전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span>”고 밝혔다.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도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중동 바깥의 국가에서 메르스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퍼진 이유에 대해 정부 당국의 초기 환자 파악과 대응 실패, 국내 병원의 열악한 입원 환경, 격리 대상자들의 무분별한 행동 등을 꼽았다. <br/> <br/>일각에서는 정부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꼽지 않은 환자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여전히 환자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오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84번 환자는 지난달 25∼28일 16번 환자와 평택성모병원의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확진자 판정이 7일에야 이뤄졌다. 6명의 사망자 중 3명은 환자가 사망한 뒤에야 뒤늦게 메르스 감염이 확인됐다. 다행히 아직은 지역사회로 전파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고 메르스 감염이 병원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돼 메르스가 1000명 넘게 확산된 사우디아라비아 상황으로까지는 치닫지 않을 전망이다. <br/> <br/>세종=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11.txt

제목: '복면가왕' 도장신부 백청강, 직장암 수술 고백 "항문에서 피가 나와 치질인 줄 알았다" 직장암 수술 고백  
날짜: 2015060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0753411  
본문: 복면가왕 도장신부 백청강 / 사진=MBC '세상을 바꾸는 퀴즈-세바퀴' 화면 캡쳐'복면가왕' 도장신부 백청강, 직장암 수술 고백 "항문에서 피가 나와 치질인 줄 알았다" 직장암 수술 고백 <br/> <br/>'복면가왕' 미스터리 도장신부가 가수 백청강으로 알려져 청중 평가단과 관객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br/> <br/>7일 방송된 MBC '일밤-복면가왕'(이하 '복면가왕')에는 4대 가왕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을 꺾기 위한 4인의 후보의 무대를 펼쳐졌다. <br/> <br/>이날 2라운드 무대는 '미스터리 도장신부'와 '마른하늘에 날벼락'의 대결로 꾸며졌다. 미스터리 도장신부는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를 압도적인 가청력으로 소화해내며 절절한 감성으로 청중 평가단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br/> <br/>그러나 패배하게 된 미스터리 도장신부는 복면을 벗었고 MBC '위대한 탄생' 출신 백청강으로 밝혀졌다. <br/> <br/>여자인 줄 알았던 미스터리 도장신부가 백청강이었다는 것에 모두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br/> <br/>한편, 이 가운데 과거 한 방송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았던 것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이 다시금 눈길을 끈다. <br/> <br/>백청강은 지난 2014년 MBC '세상을 바꾸는 퀴즈-세바퀴'에서는 '암을 극복한 남자들' 특집으로 백청강, 김민교, 남포동, 배영만 등과 함께 출연했다. <br/> <br/>이날 방송에서 백청강은 24살에 직장암 판정을 받았다며 그 증상으로 땀을 많이 흘리고, 음의 피치가 계속 나가고 항문 부분의 이상이 발견됐었다고 털어놨다. <br/> <br/>치질이라고만 생각했던 백청강은 혈변을 보자 병원에 찾아갔지만 병원에서는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br/> <br/>그러나 지금은 일반인 수준으로 돌아오며 건강해 졌다고 해 출연진의 박수를 받았다. <br/> <br/>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복면가왕 도장신부 백청강, 힘들었겠다" "복면가왕 도장신부 백청강, 회복되서 다행입니다" "복면가왕 도장신부 백청강, 건강 관리는 필수다" "복면가왕 도장신부 백청강, 엄청 놀랐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복면가왕 도장신부 백청강 복면가왕 도장신부 백청강 복면가왕 도장신부 백청강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12.txt

제목: '복면가왕' 도장신부 백청강, 직장암 수술 고백 "항문에서 피가 나와 치질인 줄 알았다" 직장암 수술 고백  
날짜: 20150607  
기자: 조정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7100000185  
본문: 복면가왕 도장신부 백청강 / 사진=MBC '세상을 바꾸는 퀴즈-세바퀴' 화면 캡쳐'복면가왕' 도장신부 백청강, 직장암 수술 고백 "항문에서 피가 나와 치질인 줄 알았다" 직장암 수술 고백'복면가왕' 미스터리 도장신부가 가수 백청강으로 알려져 청중 평가단과 관객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7일 방송된 MBC '일밤-복면가왕'(이하 '복면가왕')에는 4대 가왕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을 꺾기 위한 4인의 후보의 무대를 펼쳐졌다.이날 2라운드 무대는 '미스터리 도장신부'와 '마른하늘에 날벼락'의 대결로 꾸며졌다. 미스터리 도장신부는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를 압도적인 가청력으로 소화해내며 절절한 감성으로 청중 평가단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그러나 패배하게 된 미스터리 도장신부는 복면을 벗었고 MBC '위대한 탄생' 출신 백청강으로 밝혀졌다.여자인 줄 알았던 미스터리 도장신부가 백청강이었다는 것에 모두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한편, 이 가운데 과거 한 방송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았던 것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이 다시금 눈길을 끈다.백청강은 지난 2014년 MBC '세상을 바꾸는 퀴즈-세바퀴'에서는 '암을 극복한 남자들' 특집으로 백청강, 김민교, 남포동, 배영만 등과 함께 출연했다.이날 방송에서 백청강은 24살에 직장암 판정을 받았다며 그 증상으로 땀을 많이 흘리고, 음의 피치가 계속 나가고 항문 부분의 이상이 발견됐었다고 털어놨다.치질이라고만 생각했던 백청강은 혈변을 보자 병원에 찾아갔지만 병원에서는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그러나 지금은 일반인 수준으로 돌아오며 건강해 졌다고 해 출연진의 박수를 받았다.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복면가왕 도장신부 백청강, 힘들었겠다" "복면가왕 도장신부 백청강, 회복되서 다행입니다" "복면가왕 도장신부 백청강, 건강 관리는 필수다" "복면가왕 도장신부 백청강, 엄청 놀랐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복면가왕 도장신부 백청강 복면가왕 도장신부 백청강 복면가왕 도장신부 백청강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13.txt

제목: 면역력 높이는 음식은 참치·고등어 '등 푸른 생선  
날짜: 201506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7100000180  
본문: 〔스포츠월드=윤정한 기자〕 겨울철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에 이어 메르스까지, 이상기온과 질병에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아졌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ronavirus)에 의해 발생한다. 의학 전문가들은 메르스는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층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위험하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면역력을 높이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메르스의 예방을 위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당뇨, 신부전, 만성폐질환, 면역저하 환자를 메르스 감염의 고위험 군으로 분류했다. 이에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특히 푸른 생선, 마늘, 버섯, 고구마 등이 면역력이 높이는 음식을 알려져 있는데, 특히 참치, 고등어, 꽁치에 풍부한 셀레늄과 엽산, 오메가-3 지방산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 미네랄의 일종인 셀레늄은 면역력을 높이고 바이러스 감염에 반응하는 중요한 영양소로 꼽히는데, 2003년 중국에서 발생하여 세계를 긴장시켰던 사스(SARS)의 원인이 셀레늄 결핍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미 농무부 농업연구소와 네슬연구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셀레늄이 결핍된 쥐를 사람의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시키면 적당량 먹은 쥐에 비해 더 심하게 감기에 걸린다또, 노화방지나 발암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해독을 촉진하여 암이나 간 질환 예방하고 체내의 중금속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셀레늄은 등 푸른 생선 등의 음식물이나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가 가능하다. 참치 통조림 150g 한 캔으로 약 120㎍의 셀레늄을 섭취 할 수 있는데, 이는 세계보건 기구가 발표한 셀레늄의 일일 권장량은 성인 기준인 50~200㎍에 적합한 수치다. yun0086@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14.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병원의 양심선언, 친절한(?) 의사들  
날짜: 20150607  
기자: hj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7100000416  
본문: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헬스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궁적출술 건수는 10만명당 329.6건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2.6건)보다 3배 높고, 의료선진국인 영국보다 무려 12배나 높은 수치다. 갑상선암은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 과잉진단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질환이다. 이처럼 갑상선암 환자가 급증한 것이 조기검진으로 인한 발견율의 증가라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환자들은 혼란에 빠졌는데, 전문가들은 환자가 받은 검사나 치료가 득보다 위험성이 더 큰 경우 과잉진료, 과잉치료라고 말한다. 환자 상태가 호전되기보다 잠재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과잉 진료가 일어나는지 등 ‘국내 의료 현실의 민낯’을 들여다 봤다.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은 총 2회에 걸쳐 초할인 저수가에 양심을 파는 의사들이 범람하는 의료 현실의 민낯을 파헤쳐 눈길을 끌고 있다. 얼굴에 하얀 마스크를 쓴 젊은 의사들이 토론을 통해 현재 의사들이 처한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줬으며, 이를 통해 왜 하지 않아도 될 수술과 치료가 횡행하게 되는지를 짚어봤기 때문.우선 여성의 상징과도 같은 자궁을 떼어 낸 이들. 병원에서는 과도한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아이를 낳고 난 후 쓸모없는 기관이니 떼어버리자 권유했다. 하지만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이후 우울증과 후유증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2012년 조사를 보면 국내 여성의 자궁적출 수술은 10만명당 326.9건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뿐만 아니라 최근 과잉 진료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갑상선암도 마찬가지다. 병원에서는 암이라면 최소한의 부위라도 수술을 하는 게 맞는다고 하지만 일부 의사들의 의견은 좀 다르다. 암 중에서도 진행 속도가 느리고, 예후도 나쁘지 않은 갑상선암을 굳이 초기에 발견해 후유증이 큰 수술을 감행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한다.심지어 떼어내고 나서 조사해보니 암이 아닌 경우도 빈번하다. 떼어낸다 하더라도 평생 요오드제를 먹고 식이요법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한 고려는 없다.이런 의료계의 과잉 진료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렇게 과잉 진료를 하는 의사들 틈에서 '양심적 진료'를 고집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고독하고 현실은 고달프다.또 다른 양심적인 진료를 하는 산부인과. 하지만 나날이 줄어가는 출산율과 저수가의 현실에서 그가 하는 진료는 산부인과가 아니라 피부과다. 심지어 양심적 진료의 시간과 빚은 비례한다. 그러다 보니 의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 망하지 않기 위해 시술 대신 수술을 유도한다. 마구잡이 검사를 하고 심지어 이른바 '먹튀'도 서슴지 않는다.환자도 다르지 않다. 여전히 병원에만 들어서면 '을(乙)'이 되는 환자들은 의사들의 처분만 바란다. 심지어 실비 보험에 가입했다면서 역으로 과잉 진료를 요구하기도 한다.이처럼 아프면 누구나 찾게 되는 병원의 속사정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동안 병원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일까.의료사고 피해자 부모 A씨는 “마취는 과장님이 한다고 해서 그런 줄로 알았다”면서 “그 사람들이 일요일이라서 안 오고 할 줄은 진짜 몰랐다”고 전했다. 응급실 의료사고 피해자 부모 B씨는 “주말에 아프면 난처해진다”면서 “결국 답은 주말에 아프면 안된다는 것이었다”고 하소연했다.실례로 토요일 저녁,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상을 입은 한 고등학생이 서울의 모 대형병원에 실려 왔다. 다음날 부분마취 후 간단한 수술이 시작됐다. 하지만 마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의식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반식물인간’ 상태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일요일 저녁, 지방의 한 아버지도 장중첩 증세를 보이던 딸아이를 데리고 대형병원을 전전했다. 지역 인근의 대형병원에선 모두 아이를 진료할 수 없다고 했던 것. 결국 병원을 찾지 못한 4세의 환아는 응급 처지를 받지 못해 장파열로 사망했다.도대체 병원에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 같은 일의 ‘유일한 공통점’은 주말에 벌어진 사건이란 것이다. 어이없는 죽음과 사고 이면에는 주말 병원의 어떠한 구조적 한계가 숨어있는 것일까.1년차 내과 전공의는 “국내 의료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좀 더 잠을 줄여야 하고 밥은 좀 건너 띄는 등 늘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고백했다.2년차 내과 전공의 역시 “아직은 수련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게 정말 맞는 치료인지, 정말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치료인지, 애매한 기분에 빠져들 때가 있다”고 밝혔다.의사들은 주 80시간은 기본, 100시간 120시간을 훌쩍 넘기는 건 부지기수다. 이는 법정 근무시간인 40시간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과중한 근로시간의 핵심에는 ‘당직’이 있다. 일과 시간을 마치고 혼자 병동을 지키며 100명이 넘는 환자를 봐야 한다. 환자 호출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나면 다시 정상적인 일과가 시작된다. 과연 피로감에 짓눌린 전공의들은 올바른 진료를 할 수 있을까.매 순간 무수한 의학적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중환자실은 ‘생명의 최전선’이다. 다시 말해 잠깐의 실수와 착오가 생명과 직결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주말 이곳을 지키는 의사도 2년차 전공의다.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환자를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전공의 혼자 무사히 돌볼 수 있을까. 상급 의료진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음에도, 전공의들에게는 매일 매일이 부담의 연속이다.그렇다면 해외 선진국의 시스템은 어떨까.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공의 근무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한 미국은, 전공의 근무 시간 감축으로 발생한 진료 공백은 당직전문의라 불리는 ‘호스피탈리스트(Hospitalist)’가 메우고 있다. 호스피탈리스트는 입원환자관리와 당직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다.국내에서도 지난해 4월 전공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당혹스럽다. 병원은 물론 전공의들도 제도의 비현실성에 난감해하는 상황이기 때문. 전공의의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도 미국처럼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필수 의료 행위의 수가는 대부분 원가 이하로 책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병원이 더 많은 의사를 투입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결국 땜질 처방이 아닌 왜곡된 한국 의료 제도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현장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15.txt

제목: 메르스 사망자 5명의 공통점은  
날짜: 20150607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710017491246  
본문: 메르스와 관련해 사망한 5명은 주로 고령에 폐·신장 관련 기존 질환이 있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br/> <br/>7일 보건복지부 메르스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숨진 64번 환자(75)는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이 환자는 위암 말기로 암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메르스에 감염된 점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br/> <br/>앞서 숨진 6번 환자(71)는 메르스에 걸리기 전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을 알았다가 2011년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을 적출한 상태였다. 또 다른 사망자인 25번 환자(57)는 천식과 고혈압이 있었고 관절염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오래 복용해 그 부작용도 겹쳤다. 첫 3차 감염 사망자로 기록된 36번 환자(82)도 천식과 세균성 폐렴을 앓고 있었다. <br/> <br/>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는 37.5도 이상의 고열, 기침, 호흡곤란, 메스꺼움, 근육통 등을 동반하는데 이는 독감 증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독감과 달리 폐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에도 치명적이다. 신장은 몸 안의 수분량과 전해질 농도를 유지해주는 장기로 이 기능이 망가지면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br/> <br/>현재 메르스 환자 가운데 11번(79·여), 24번(78), 28번(58), 29번(77·여), 33번(47), 42번(54·여), 47번(68·여) 등 7명의 환자는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대한감염학회가 메르스 확진 환자 30여명을 분석한 결과 80%는 감기처럼 앓았고 나머지 20%는 폐렴으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대부분 폐렴으로 발전한 환자군에서 발생했다. <br/> <br/>폐렴으로 발전하지 않은 환자들은 대부분 고열과 기침, 근육통 증상을 호소하다가 나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메르스와 관련해 나이가 많거나 폐 등 호흡기가 약하고 원래 다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br/> <br/>지난 5일 메르스 최초 감염자를 간병하다 감염된 부인(2번 환자)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체온 등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 강동구 365의원 의료진(5번 환자)과 평택성모병원 의료진(7번 환자)도 완치 판정을 받아 8일쯤 퇴원할 예정이다. <br/> <br/>그동안 메르스 감염자와 접촉해 자택이나 시설에 격리됐던 시민 560명이 잠복기가 지나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초기 평택성모병원과 관련한 격리대상 가운데 상당수가 2주간의 격리 기간이 지나면서 격리 해제가 늘고 있다. <br/> <br/>세종=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16.txt

제목: 美 세계 첫 두개골·두피 이식 성공  
날짜: 20150606  
기자: 국기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6100000492  
본문: 미국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두개골·두피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암 전문병원인 MD 앤더슨 암센터와 휴스턴 감리교병원 의료진은 암 치료 중 머리를 크게 다친 환자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두개골 일부와 두피를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의료진은 지난달 22일 휴스턴 감리교병원에서 기증받은 두피 조직과 모발을 남성 짐 보이슨(55)에게 이식했다. AP통신은 사람에게서 두개골과 두피 등을 기증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5살 때부터 당뇨와 싸워온 보이슨은 1992년 신장·췌장 이식 수술을 하고 거부 반응을 없애고자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그런 가운데 면역 억제제는 발암 가능성을 높였고, 그는 평활근 육종이라는 희소병에 걸렸다. 내장의 벽을 구성하는 평활근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두피 아래 조직이 약화한 탓에 보이슨의 모발은 곧게 서지 못했다. 게다가 계속된 방사선 치료로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함에 따라 신체 회복 기능도 약해졌다.최악의 상황에서 MD 앤더슨 암센터의 성형 복원 전문의인 제시 셀버 박사가 아이디어를 냈다. 두개골·두피 이식 수술과 동시에 신체 기능을 정상적으로 돕도록 신장·췌장도 한꺼번에 교체하자는 것이었다. 12명의 의사와 40명의 수술 지원 인력은 15시간 동안 진행된 수술에서 가로와 세로 각각 25㎝ 규격의 이식 두개골과 38㎝ 너비의 이식 두피를 보이슨의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옮겨 심었다. 뇌 수술이 끝난 뒤 신장과 췌장 이식 수술이 이어졌다.수술 후 뜨거운 환경에서 시행한 실험에서 보이슨의 새로 이식받은 두피는 일반인의 그것처럼 똑같이 땀에 젖어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했다. 보이슨은 “의료진이 두피 조직과 모발 색깔 등이 내게 잘 어울리도록 수술을 잘해 깜짝 놀랐다”면서 “아마 21살 시절보다 더 많은 머리털을 기르게 될 것 같다”고 농담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17.txt

제목: 美 고3학생들 졸업여행 거부, 이유는 '교장 선생님 수술비 마련' 때문  
날짜: 20150606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610017485618  
본문: 학생들의 깜짝 발표에 결국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교장 코티.미국 고3학생들이 일생일대의 추억인 졸업여행을 포기하고, 여행비용을 암에 걸린 교장 선생님 수술비로 기부한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 <br/> <br/>최근 미국 WMUR TV는 고3학생들이 교장 선생님 수술비 마련을 위해 졸업여행 포기했다며,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에 교장 선생님은 감동에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했다. <br/> <br/>미국 베들레헴 뉴햄프셔에 위치한 프로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여행에 들떠 있었다. <br/> <br/>하지만 기쁨도 잠시. 교장 코티 바르쇼의 암 진단 소식이 전해졌다. <br/> <br/>학생들은 고민에 빠졌다. 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졸업여행을 앞둔 시점에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이 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br/> <br/>하지만 학생들은 현명했다. '여행을 가더라도 즐겁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찬반투표를 시행했다. <br/> <br/>'혹시나'는 걱정은 '역시나'였다. 투표결과 '수학여행 포기'에 만장일치가 됐다. <br/> <br/>학생들은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여행비용을 모아 교장 선생님 암 수술비로 기부했다. <br/> <br/>"내가 이런 도움을 받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교장 코티는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br/> <br/>학생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뿐"이라고 말하며 더 많은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졸업여행을 대신해 모금행사를 열었다. <br/> 이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생님이었다.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WMUR TV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18.txt

제목: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 국민안전처 긴급재난문자 발송..내용은?  
날짜: 20150606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610017489713  
본문: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 (사진= MBN)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 국민안전처 긴급재난문자 발송..내용은? <br/> <br/>메르스에 대한 우려가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발송한 메르스 관련 긴급재난문자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br/> <br/>국민안전처는 6일 오전 ‘메르스 예방수칙’이라는 제목으로 휴대전화 긴급재난문자 메시지를 전했다. <br/> <br/>국민안전처가 보낸 긴급재난문자에는 ‘자주 손 씻기’, ‘기침 재채기시 코 가리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 접촉 피하기’ 등의 메르스 예방수칙이 담겨 있다. <br/> <br/>한편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이 나와 관심이 뜨겁다. <br/> <br/>3일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br/> <br/>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확산 방지 권고안 전문이다. <br/> <br/>▲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예방조치 <br/>1. 자택에 계세요 <br/>-의료처치 목적 이외의 외부 출입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직장, 학교, 공공장소 등에 가지 마시고 대중교통 및 택시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br/>2. 자택 내의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세요 <br/>-가능한한 집 안의 사람들과 다른 방에 있도록 노력하세요. 또한, 가능하다면 단독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세요. <br/>3.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br/>-다른 사람과 같은 방에 있을 때와 의료인을 방문할 때 항상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다면 같은 방에 함께 있는 사람이 착용해야 합니다. <br/>4. 기침과 재채기 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br/>-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시고 휴지가 없다면 옷소매에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세요. 사용한 휴지는 봉지를 씌운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즉시 비누와 물로 손을 씻어주세요. <br/>5. 손을 철저하게 씻어주세요 <br/>-비누와 물로 자주 철저하게 손을 씻어주세요. 비누와 물이 없거나 손이 눈에 보이게 더럽지 않다면 알코올성 손세정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자제해 주세요. <br/>6. 생활용품 공동사용을 피해주세요 <br/>-식기, 컵, 수저, 수건, 침구 등을 자택 내 다른 사람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사용했다면 사용 후 세척제와 물로 철저하게 씻어주세요. <br/>7. 증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세요 <br/>-만일 의심증상(호흡기 증상, 발열 등)이 발생한다면 바로 치료를 받으셔야합니다. 관할보건소 또는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로 연락하셔서 지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br/> <br/>▲자가격리 대상자 부양자와 가족을 위한 예방 조치 <br/>1. 치료 등에 대한 설명과 지시를 잘 이해하고 환자/감시대상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br/>2.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세요. <br/>-다른 가족원은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합니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환자/감시대상자와 다른 방에서 생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세요. 불필요한 방문을 제한하세요. 면역력이 낮은 노인 또는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격리 시키세요. 이 특정 질환에는 만성 심장, 폐, 또는신 장질환과 당뇨병, 암이 포함됩니다. <br/>3.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 창밖의 공기와 자주 환기시켜주세요. <br/>4. 비누와 물로 자주 철저하게 손을 씻어주세요. 알코올성 손세정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자제해 주세요. <br/>5. 환자/감시대상자의 혈액, 체액 또는 땀, 침, 가래, 콧물, 토사물, 소변, 용변 등과 같은 분비물을 만지거나 접촉해야 할 때 일회용 마스크, 가운과 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br/>-한 번 사용 후 마스크, 가운, 장갑을 버려주세요. 다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 가운, 장갑 폐기 후 바로 손을 씻어주세요. <br/>6. 생활용품 공용을 피해주세요. <br/>-식기, 컵, 수저, 수건, 침구 등을 메르스 감염 확진 환자 또는 감시 대상자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함께 사용했다면 사용 후 세척제와 물로 철저하게 씻어주세요. <br/>7. 카운터, 식탁, 손잡이, 욕실기구, 변기, 전화기, 키보드, 태블릿 PC 등 접촉이 많은 표면을 매일 닦아주세요. 또한 피,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묻은 표면을 닦아주세요. <br/>-청소용품에 나와 있는 사용설명서를 읽고 그대로 사용해주세요. 청소용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위 해 장갑을 끼거나 앞치마를 입는 등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품을 사용할 때 통풍이 잘되지는 확인해 주세요. <br/>-희석한 표백제(락스) 또는 가정용 소독기를 사용하세요. <br/>8. 세탁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br/>- 혈액, 체액, 분비물 또는 배설물이 묻은 옷 또는 침구를 바로 벗기고 세탁해주세요. <br/>- 더러워진 물건을 만질 때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세요. 장갑을 벗은 후 바로 손을 씻어주세요. <br/>- 세탁물, 옷가지, 세제 등의 사용설명서를 읽고 그대로 따라주세요. <br/>옷 레이블에 권고하는 가장 따뜻한 온도로 세탁하고 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br/>9. 사용한 모든 장갑, 가운, 마스크, 오염된 물건은 비닐봉지가 씌워진 통에 넣고 <br/>버리세요. 이 물건을 만진 후 바로 손을 닦아주세요. <br/>10. 환자/대상자의 증상을 감시하세요. 만일 증상이 악화된다면 관할보건소 또는 메르스 핫라인 (043-719-7777)로 연락하셔서 지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br/>11. 메르스 감염 확진 환자 또는 감시 대상자와 위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밀접 접촉자”로 간주되니 본인의 건강상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주세요. <br/> <br/>▲밀접 접촉자 예방 조치 <br/>1. 치료 등에 대한 설명과 지시를 잘 이해하고 환자/감시대상자를 <br/>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br/>2.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세요. <br/>-다른 가족원은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합니다. <br/>만일 불가능하다면 환자/감시대상자와 다른 방에서 생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세요. <br/>-불필요한 방문을 제한하세요. <br/>-면역력이 낮은 노인 또는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격리 시키세요. 이 특정 질환에는 만성 심장, 폐, 또는 신장질환과 당뇨병이 포함됩니다. <br/>3.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 창밖의 공기와 자주 환기시켜주세요. <br/>4. 비누와 물로 자주 철저하게 손을 씻어주세요. 알코올성 손세정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자제해 주세요. <br/>5. 환자/감시대상자의 혈액, 체액 또는 땀, 침, 가래, 콧물, 토사물, 소변, 용변 등과 <br/>같은 분비물을 만지거나 접촉해야 할 때 일회용 마스크, 가운과 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br/>-한 번 사용 후 마스크, 가운, 장갑을 버려주세요. 다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br/>-마스크, 가운, 장갑 폐기 후 바로 손을 씻어주세요. <br/>6. 생활용품 공용을 피해주세요. <br/>-식기, 컵, 수저, 수건, 침구 등을 메르스 감염 확진 환자 또는 감시 대상자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함께 사용했다면 사용 후 세척제와 물로 철저하게 씻어주세요. <br/> <br/>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span class='quot1'>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 국민안전처 긴급재난문자 발송, 예방이 중요해</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19.txt

제목: 긴급재난문자 발송, 내용은? '메르스 예방수칙'...대한의사협회 "국민 불안 해소 위해 메르스 권고안 마련"  
날짜: 20150606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610017489832  
본문: 긴급재난문자 발송긴급재난문자 발송, 내용은? '메르스 예방수칙'...대한의사협회 "국민 불안 해소 위해 메르스 권고안 마련" <br/> <br/>6일 국민안전처에서 발송한 긴급재난문자 '메르스 예방수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br/> <br/>국민안전처가 발송한 재난 문자에 따르면 메르스 예방수칙은 자주 손 씻기, 기침·재채기시 입과 코 가리기, 발열·호흡기 증상자 접촉 피하기 등이다. <br/> <br/>메르스를 예방하려면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나 입을 만지지 않고 손과 팔을 비누로 자주 씻는 게 좋다.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땐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다른 사람한테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br/> <br/>메르스 환자와 가깝게 접촉한 의심이 들면 아무 증상이 없어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br/> <br/>한편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이 나와 관심이 뜨겁다. <br/> <br/>3일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br/> <br/>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확산 방지 권고안 전문이다. <br/> <br/>▲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예방조치 <br/>1. 자택에 계세요 <br/>-의료처치 목적 이외의 외부 출입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직장, 학교, 공공장소 등에 가지 마시고 대중교통 및 택시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br/>2. 자택 내의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세요 <br/>-가능한한 집 안의 사람들과 다른 방에 있도록 노력하세요. 또한, 가능하다면 단독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세요. <br/>3.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br/>-다른 사람과 같은 방에 있을 때와 의료인을 방문할 때 항상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다면 같은 방에 함께 있는 사람이 착용해야 합니다. <br/>4. 기침과 재채기 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br/>-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시고 휴지가 없다면 옷소매에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세요. 사용한 휴지는 봉지를 씌운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즉시 비누와 물로 손을 씻어주세요. <br/>5. 손을 철저하게 씻어주세요 <br/>-비누와 물로 자주 철저하게 손을 씻어주세요. 비누와 물이 없거나 손이 눈에 보이게 더럽지 않다면 알코올성 손세정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자제해 주세요. <br/>6. 생활용품 공동사용을 피해주세요 <br/>-식기, 컵, 수저, 수건, 침구 등을 자택 내 다른 사람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사용했다면 사용 후 세척제와 물로 철저하게 씻어주세요. <br/>7. 증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세요 <br/>-만일 의심증상(호흡기 증상, 발열 등)이 발생한다면 바로 치료를 받으셔야합니다. 관할보건소 또는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로 연락하셔서 지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br/> <br/>▲자가격리 대상자 부양자와 가족을 위한 예방 조치 <br/>1. 치료 등에 대한 설명과 지시를 잘 이해하고 환자/감시대상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br/>2.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세요. <br/>-다른 가족원은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합니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환자/감시대상자와 다른 방에서 생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세요. 불필요한 방문을 제한하세요. 면역력이 낮은 노인 또는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격리 시키세요. 이 특정 질환에는 만성 심장, 폐, 또는신 장질환과 당뇨병, 암이 포함됩니다. <br/>3.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 창밖의 공기와 자주 환기시켜주세요. <br/>4. 비누와 물로 자주 철저하게 손을 씻어주세요. 알코올성 손세정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자제해 주세요. <br/>5. 환자/감시대상자의 혈액, 체액 또는 땀, 침, 가래, 콧물, 토사물, 소변, 용변 등과 같은 분비물을 만지거나 접촉해야 할 때 일회용 마스크, 가운과 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br/>-한 번 사용 후 마스크, 가운, 장갑을 버려주세요. 다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 가운, 장갑 폐기 후 바로 손을 씻어주세요. <br/>6. 생활용품 공용을 피해주세요. <br/>-식기, 컵, 수저, 수건, 침구 등을 메르스 감염 확진 환자 또는 감시 대상자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함께 사용했다면 사용 후 세척제와 물로 철저하게 씻어주세요. <br/>7. 카운터, 식탁, 손잡이, 욕실기구, 변기, 전화기, 키보드, 태블릿 PC 등 접촉이 많은 표면을 매일 닦아주세요. 또한 피,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묻은 표면을 닦아주세요. <br/>-청소용품에 나와 있는 사용설명서를 읽고 그대로 사용해주세요. 청소용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위 해 장갑을 끼거나 앞치마를 입는 등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품을 사용할 때 통풍이 잘되지는 확인해 주세요. <br/>-희석한 표백제(락스) 또는 가정용 소독기를 사용하세요. <br/>8. 세탁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br/>- 혈액, 체액, 분비물 또는 배설물이 묻은 옷 또는 침구를 바로 벗기고 세탁해주세요. <br/>- 더러워진 물건을 만질 때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세요. 장갑을 벗은 후 바로 손을 씻어주세요. <br/>- 세탁물, 옷가지, 세제 등의 사용설명서를 읽고 그대로 따라주세요. <br/>옷 레이블에 권고하는 가장 따뜻한 온도로 세탁하고 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br/>9. 사용한 모든 장갑, 가운, 마스크, 오염된 물건은 비닐봉지가 씌워진 통에 넣고 <br/>버리세요. 이 물건을 만진 후 바로 손을 닦아주세요. <br/>10. 환자/대상자의 증상을 감시하세요. 만일 증상이 악화된다면 관할보건소 또는 메르스 핫라인 (043-719-7777)로 연락하셔서 지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br/>11. 메르스 감염 확진 환자 또는 감시 대상자와 위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밀접 접촉자”로 간주되니 본인의 건강상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주세요. <br/> <br/>▲밀접 접촉자 예방 조치 <br/>1. 치료 등에 대한 설명과 지시를 잘 이해하고 환자/감시대상자를 <br/>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br/>2.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세요. <br/>-다른 가족원은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합니다. <br/>만일 불가능하다면 환자/감시대상자와 다른 방에서 생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세요. <br/>-불필요한 방문을 제한하세요. <br/>-면역력이 낮은 노인 또는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격리 시키세요. 이 특정 질환에는 만성 심장, 폐, 또는 신장질환과 당뇨병이 포함됩니다. <br/>3.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 창밖의 공기와 자주 환기시켜주세요. <br/>4. 비누와 물로 자주 철저하게 손을 씻어주세요. 알코올성 손세정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자제해 주세요. <br/>5. 환자/감시대상자의 혈액, 체액 또는 땀, 침, 가래, 콧물, 토사물, 소변, 용변 등과 <br/>같은 분비물을 만지거나 접촉해야 할 때 일회용 마스크, 가운과 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br/>-한 번 사용 후 마스크, 가운, 장갑을 버려주세요. 다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br/>-마스크, 가운, 장갑 폐기 후 바로 손을 씻어주세요. <br/>6. 생활용품 공용을 피해주세요. <br/>-식기, 컵, 수저, 수건, 침구 등을 메르스 감염 확진 환자 또는 감시 대상자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함께 사용했다면 사용 후 세척제와 물로 철저하게 씻어주세요. <br/> <br/>긴급재난문자 발송에 네티즌은 “긴급재난문자 발송, 예방이 최선”, “긴급재난문자 발송, 자주 손 씻기” , "“긴급재난문자 발송, 좋은 정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20.txt

제목: 미국서 세계 최초 두개골·두피 이식 수술 성공  
날짜: 20150605  
기자: 국기연 특파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25938670  
본문: 미국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두개골·두피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있는 최고 권위의 암 전문병원인 MD 앤더슨 암 센터와휴스턴 감리교 병원 의료진은 암 치료 중 머리를 크게 다친 환자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두개골 일부와 두피를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br/> <br/>의료진은 지난달 22일 휴스턴 감리교 병원에서 기증받은 두피 조직과 모발을 남성 짐 보이슨(55)에게 이식했다. <br/> <br/>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날 퇴원한 보이슨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의료진이 두피 조직과 모발 색깔 등이 내게 잘 어울리도록 수술을 잘해 깜짝 놀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아마 21살 시절보다 더 많은 머리털을 기르게 될 것 같다</span>”고 농담했다. <br/> <br/>AP 통신은 지난해 네덜란드 의료진이 3차원 프린트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플라스틱 두개골을 여성에게 이식한 적이 있으나, 사람에게서 두개골과 두피 등을 기증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br/> <br/>5살 때부터 당뇨와 싸워온 보이슨은 1992년 신장·췌장 이식 수술을 하고 거부 반응을 없애고자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br/> <br/>그러나 면역 억제제는 발암 가능성을 높였고, 그는 평활근 육종이라는 희소병에걸렸다. <br/> <br/>평활근 육종은 내장의 벽을 구성하는 평활근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이 병에 걸려 두피 아래 조직이 약화한 탓에 보이슨의 모발은 곧게 서지 못했다. <br/> <br/>게다가 계속된 방사선 치료로 보이슨은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함에 따라 신체 회복 기능도 약해졌다. <br/> <br/>최악의 상황에서 MD 앤더슨 센터의 성형 복원 전문의인 제시 셀버 박사가 아이디어를 냈다. <br/> <br/>두개골·두피 이식 수술과 동시에 신체 기능을 정상적으로 돕도록 신장·췌장도한꺼번에 교체하자는 것이었다. <br/> <br/>12명의 의사와 40명의 수술 지원 인력은 15시간 동안 이뤄진 수술에서 가로와 세로 각각 25㎝ 규격의 이식 두개골과 38㎝ 너비의 이식 두피를 보이슨의 이마부터 정수리에 옮겨 심었다. <br/> <br/>뇌 수술이 끝난 뒤 신장과 췌장 이식 수술이 이어졌다. <br/> <br/>수술 후 뜨거운 환경에서 시행한 실험에서 보이슨의 새로 이식받은 두피는 일반인의 그것처럼 똑같이 땀에 젖어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했다. <br/> <br/>AP 통신은 불가능으로 여겨진 여러 이식수술이 지난 10년간 현실로 이뤄졌다면서 2005년 프랑스에서 안면이식 수술 후 24건, 손 이식 수술 70건 이상이 세계에서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br/> <br/>작년 10월에는 자궁을 이식한 여성이 세계 최초로 출산에 성공하기도 했다. <br/> <br/>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21.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저도 도울래요!" 암환자 위해 머리카락 기른 소년  
날짜: 20150605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25807670  
본문: “엄마! 이게 뭐예요?” <br/> <br/>지난 2013년 어느날, 미국 플로리다 주 멜버른에 사는 크리스티안 맥 필라미(당시 6세)는 인터넷 서핑 중, 광고 하나를 발견했다. 크리스티안이 본 광고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가발을 만드는 데 동참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br/> <br/>“응, 그건 아픈 아이들을 위해 가짜 머리카락을 만들어주는 거란다. 가발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만들려면 사람의 머리카락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함께할 사람을 모집하는 거야” <br/> <br/>크리스티안의 엄마 디에나(28)는 광고에 대해 아들에게 설명해줬다. 이날 크리스티안은 TV에서 소아암 환자 돕기 프로그램을 본 뒤, ‘그게 뭘까’ 하고 인터넷을 살펴보던 중이었다. <br/> <br/>모니터를 가만히 보던 크리스티안. 갑자기 그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br/> <br/>“엄마! 나도 머리카락 기를래요!” <br/> <br/>디에나는 놀랐지만, 아들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크리스타인의 말에 비록 어리지만, 마음만은 다 컸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br/> <br/>그러나 크리스티안의 말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었다. 정말로 크리스티안은 다음날부터 머리카락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놀림에도 굴하지 않고, 지난 2년 동안 무려 30cm가량 머리카락을 길렀다. <br/> <br/> <br/>주변 사람들은 크리스티안의 깊은 생각도 모른 채 그를 놀려댔다. 이들은 “여자냐”라고 비아냥댔으며, 심지어 어른들까지 크리스티안의 머리가 길다며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나이에 주변 사람들의 놀림을 참기는 쉽지 않았지만, 크리스티안은 소아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이쯤은 괜찮다며 꿋꿋이 이겨냈다. <br/> <br/>“솔직히 말하면 주위 사람들의 놀림을 참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보고 여자라고 하는데, 좋은 느낌이 들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아픈 아이들에게 가발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꾹 참았어요!” <br/> <br/> <br/>지난달 20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안은 드디어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날 그의 부모는 아들 양옆에서 머리카락을 총 네 갈래로 나눠 묶었으며, 각 갈래 길이는 11인치(약 28cm)~12인치(약 30cm)에 달했다. <br/> <br/>크리스티안의 아빠 스콧(30)은 “머리카락을 자르던 그 날, 아들을 보니 온갖 생각이 스쳤다”며 “그때의 우리는 기쁨과 자랑스러움 등으로 가슴이 쿵쾅댔다”고 말했다. 그는 “기특한 아들…”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br/> <br/>크리스티안의 머리카락은 지퍼백에 담겨 소아암 환자 돕기 자선단체로 보내졌다. 그의 머리카락은 무사히 배달됐으며, 단체 관계자는 크리스티안의 생각이 기특하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br/> <br/> <br/>사실 크리스티안의 머리카락 기부는 예정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평소에도 크리스티안의 부모는 그와 막내딸 아발린(3)에게 기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크리스티안과 아발린은 옷가지나 장난감 등을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간간이 기증했으며, 이따금 용돈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뜻 내놓았다. 크리스티안의 머리카락 기부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활동 중 하나였다. <br/> <br/>크리스티안의 머리카락 기부 소식은 곧 그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도 퍼졌다. 사람들은 크리스티안을 칭찬했으며, 특히 그의 담임교사는 자신의 제자가 기특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무척 기뻐했다. <br/> <br/>크리스티안의 담임교사 리사는 “<span class='quot0'>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크리스티안은 다른 사람들의 놀림까지 견뎠다</span>”며 “마음이 정말 예쁘다”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우리 크리스티안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심장을 가졌다</span>”고 덧붙였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디에나 페이스북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22.txt

제목: 미국서 세계 최초 두개골·두피 이식 수술 성공  
날짜: 20150605  
기자: 국기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5100000073  
본문: 미국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두개골·두피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있는 최고 권위의 암 전문병원인 MD 앤더슨 암 센터와휴스턴 감리교 병원 의료진은 암 치료 중 머리를 크게 다친 환자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두개골 일부와 두피를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의료진은 지난달 22일 휴스턴 감리교 병원에서 기증받은 두피 조직과 모발을 남성 짐 보이슨(55)에게 이식했다.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날 퇴원한 보이슨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의료진이 두피 조직과 모발 색깔 등이 내게 잘 어울리도록 수술을 잘해 깜짝 놀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아마 21살 시절보다 더 많은 머리털을 기르게 될 것 같다</span>”고 농담했다.AP 통신은 지난해 네덜란드 의료진이 3차원 프린트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플라스틱 두개골을 여성에게 이식한 적이 있으나, 사람에게서 두개골과 두피 등을 기증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5살 때부터 당뇨와 싸워온 보이슨은 1992년 신장·췌장 이식 수술을 하고 거부 반응을 없애고자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다.그러나 면역 억제제는 발암 가능성을 높였고, 그는 평활근 육종이라는 희소병에걸렸다.평활근 육종은 내장의 벽을 구성하는 평활근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이 병에 걸려 두피 아래 조직이 약화한 탓에 보이슨의 모발은 곧게 서지 못했다.게다가 계속된 방사선 치료로 보이슨은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함에 따라 신체 회복 기능도 약해졌다.최악의 상황에서 MD 앤더슨 센터의 성형 복원 전문의인 제시 셀버 박사가 아이디어를 냈다.두개골·두피 이식 수술과 동시에 신체 기능을 정상적으로 돕도록 신장·췌장도한꺼번에 교체하자는 것이었다.12명의 의사와 40명의 수술 지원 인력은 15시간 동안 이뤄진 수술에서 가로와 세로 각각 25㎝ 규격의 이식 두개골과 38㎝ 너비의 이식 두피를 보이슨의 이마부터 정수리에 옮겨 심었다.뇌 수술이 끝난 뒤 신장과 췌장 이식 수술이 이어졌다.수술 후 뜨거운 환경에서 시행한 실험에서 보이슨의 새로 이식받은 두피는 일반인의 그것처럼 똑같이 땀에 젖어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했다.AP 통신은 불가능으로 여겨진 여러 이식수술이 지난 10년간 현실로 이뤄졌다면서 2005년 프랑스에서 안면이식 수술 후 24건, 손 이식 수술 70건 이상이 세계에서 성공했다고 소개했다.작년 10월에는 자궁을 이식한 여성이 세계 최초로 출산에 성공하기도 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23.txt

제목: 美 세계 첫 두개골·두피 이식 성공  
날짜: 20150605  
기자: 국기연 특파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510017485655  
본문: 미국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두개골·두피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br/> <br/>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암 전문병원인 MD 앤더슨 암센터와 휴스턴 감리교병원 의료진은 암 치료 중 머리를 크게 다친 환자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두개골 일부와 두피를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br/> <br/>의료진은 지난달 22일 휴스턴 감리교병원에서 기증받은 두피 조직과 모발을 남성 짐 보이슨(55)에게 이식했다. AP통신은 사람에게서 두개골과 두피 등을 기증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br/> <br/>5살 때부터 당뇨와 싸워온 보이슨은 1992년 신장·췌장 이식 수술을 하고 거부 반응을 없애고자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그런 가운데 면역 억제제는 발암 가능성을 높였고, 그는 평활근 육종이라는 희소병에 걸렸다. 내장의 벽을 구성하는 평활근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두피 아래 조직이 약화한 탓에 보이슨의 모발은 곧게 서지 못했다. 게다가 계속된 방사선 치료로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함에 따라 신체 회복 기능도 약해졌다. <br/> <br/>최악의 상황에서 MD 앤더슨 암센터의 성형 복원 전문의인 제시 셀버 박사가 아이디어를 냈다. 두개골·두피 이식 수술과 동시에 신체 기능을 정상적으로 돕도록 신장·췌장도 한꺼번에 교체하자는 것이었다. <br/> <br/>12명의 의사와 40명의 수술 지원 인력은 15시간 동안 진행된 수술에서 가로와 세로 각각 25㎝ 규격의 이식 두개골과 38㎝ 너비의 이식 두피를 보이슨의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옮겨 심었다. 뇌 수술이 끝난 뒤 신장과 췌장 이식 수술이 이어졌다. <br/> <br/>수술 후 뜨거운 환경에서 시행한 실험에서 보이슨의 새로 이식받은 두피는 일반인의 그것처럼 똑같이 땀에 젖어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했다. 보이슨은 “의료진이 두피 조직과 모발 색깔 등이 내게 잘 어울리도록 수술을 잘해 깜짝 놀랐다”면서 “아마 21살 시절보다 더 많은 머리털을 기르게 될 것 같다”고 농담했다. <br/> <br/>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24.txt

제목: 지중해식 식사란, '젊고 탱탱하게' 피부 노화 예방 음식...먹는 방법은?  
날짜: 20150605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510017479506  
본문: 지중해식 식사란 지중해식 식사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지중해식 식사란, '젊고 탱탱하게' 피부 노화 예방 음식...먹는 방법은? <br/> <br/>'지중해식 식사란' <br/> <br/>지중해식 식사에 관심이 뜨겁다. 지중해식 식사를 통해 식습관을 지키는 것이 사람들을 유전적으로 더 젊게 유지해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지중해식 식사는 채소와 과일, 견과류, 콩류, 곡물류, 감자류, 생선류, 올리브유(단일불포화지방)의 섭취는 높이고 육류와 우유, 유제품은 낮추고 술을 적당하게 마시는 식습관으로, 예로부터 균형 잡힌 건강 식사로 주목받아왔다. <br/> <br/>보스톤 연구팀이 '영국의학저널'에 밝힌 총 5000명 가량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10년 이상에 걸쳐 진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채소와 올리브기름, 신선한 채소 그리고 과일을 많이 먹는 지중해식식습관이 나이가 들며 DNA 코드가 뒤섞이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이 같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세포내 노화 증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지중해식식사는 심장질환 위험을 줄이는 등 각종 건강 이로움과 연관이 있는 바 이번 연구결과 다시 한번 균형있고 건강한 식사가 심장병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고 노화 역시 늦추고 오래 사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br/> <br/>한편 지중해식 식사란? 지중해식 식사가 여성의 자궁암 발병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탈리아 약리학 연구소(IRCCS)의 크리스티나 보세티 박사팀이 자국 여성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지중해식 식사와 자궁암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우선 지중해식 식사를 위주로 한 식단을 서로 다른 9가지 식품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얼마나 유지하는지 조사했다. <br/> <br/>지중해식 식사에 들어가는 식품군 가운데 7~9개를 꾸준하게 섭취하고 있는 여성 그룹은 자궁암에 걸릴 위험이 절반 이상(5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식품군 가운데 6개를 유지한 그룹은 자궁암 위험이 46% 낮았고 5개만이라도 실천한 그룹은 3분의 1(34%) 정도 낮았다. <br/> <br/>반면 지중해식 식사를 5개도 유지하지 못한 그룹은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는 여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해 보세티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건강에 좋은 균형 잡힌 식사가 여성의 자궁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는 매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활동을 할지 선택하는 것에 따라 암 위험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지중해식 식사란 지중해식 식사란 지중해식 식사란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25.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저도 도울래요!" 암환자 위해 머리카락 기른 소년  
날짜: 201506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5100000447  
본문: “엄마! 이게 뭐예요?”지난 2013년 어느날, 미국 플로리다 주 멜버른에 사는 크리스티안 맥 필라미(당시 6세)는 인터넷 서핑 중, 광고 하나를 발견했다. 크리스티안이 본 광고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가발을 만드는 데 동참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응, 그건 아픈 아이들을 위해 가짜 머리카락을 만들어주는 거란다. 가발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만들려면 사람의 머리카락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함께할 사람을 모집하는 거야”크리스티안의 엄마 디에나(28)는 광고에 대해 아들에게 설명해줬다. 이날 크리스티안은 TV에서 소아암 환자 돕기 프로그램을 본 뒤, ‘그게 뭘까’ 하고 인터넷을 살펴보던 중이었다.모니터를 가만히 보던 크리스티안. 갑자기 그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엄마! 나도 머리카락 기를래요!”디에나는 놀랐지만, 아들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크리스타인의 말에 비록 어리지만, 마음만은 다 컸다는 생각이 들어서다.그러나 크리스티안의 말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었다. 정말로 크리스티안은 다음날부터 머리카락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놀림에도 굴하지 않고, 지난 2년 동안 무려 30cm가량 머리카락을 길렀다.주변 사람들은 크리스티안의 깊은 생각도 모른 채 그를 놀려댔다. 이들은 “여자냐”라고 비아냥댔으며, 심지어 어른들까지 크리스티안의 머리가 길다며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나이에 주변 사람들의 놀림을 참기는 쉽지 않았지만, 크리스티안은 소아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이쯤은 괜찮다며 꿋꿋이 이겨냈다.“솔직히 말하면 주위 사람들의 놀림을 참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보고 여자라고 하는데, 좋은 느낌이 들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아픈 아이들에게 가발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꾹 참았어요!”지난달 20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안은 드디어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날 그의 부모는 아들 양옆에서 머리카락을 총 네 갈래로 나눠 묶었으며, 각 갈래 길이는 11인치(약 28cm)~12인치(약 30cm)에 달했다.크리스티안의 아빠 스콧(30)은 “머리카락을 자르던 그 날, 아들을 보니 온갖 생각이 스쳤다”며 “그때의 우리는 기쁨과 자랑스러움 등으로 가슴이 쿵쾅댔다”고 말했다. 그는 “기특한 아들…”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크리스티안의 머리카락은 지퍼백에 담겨 소아암 환자 돕기 자선단체로 보내졌다. 그의 머리카락은 무사히 배달됐으며, 단체 관계자는 크리스티안의 생각이 기특하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사실 크리스티안의 머리카락 기부는 예정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평소에도 크리스티안의 부모는 그와 막내딸 아발린(3)에게 기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것으로 전해졌다.크리스티안과 아발린은 옷가지나 장난감 등을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간간이 기증했으며, 이따금 용돈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뜻 내놓았다. 크리스티안의 머리카락 기부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활동 중 하나였다.크리스티안의 머리카락 기부 소식은 곧 그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도 퍼졌다. 사람들은 크리스티안을 칭찬했으며, 특히 그의 담임교사는 자신의 제자가 기특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무척 기뻐했다.크리스티안의 담임교사 리사는 “<span class='quot0'>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크리스티안은 다른 사람들의 놀림까지 견뎠다</span>”며 “마음이 정말 예쁘다”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우리 크리스티안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심장을 가졌다</span>”고 덧붙였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사진=디에나 페이스북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26.txt

제목: 잿빛 꽃잎으로 흩날리는 사랑과 죽음의 ‘변주곡’  
날짜: 20150605  
기자: 문학전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5100001128  
본문: 소설과 그림이 만났다. 주객관계는 아니다. 소설과 그림 둘 다 각기 존재감을 잃지 않는다. 서로 스며든다. 스며들기는 하되 피차 곁을 많이 주지는 않는다. 따로 존재하면서도 조금씩 엉기어 소설과 그림을 넘어선 새로운 경지를 향해 간다. 소설가 이평재(56)가 소설과 그림을 겸업하는 스승 윤후명(69)의 그림 스무 장을 붙들고 써서 펴낸 장편소설 ‘엉겅퀴 칸타타’(폭스코너)가 그 경우다. 소설을 돕는 삽화 형식으로 그림이 수용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시도는 드물다.‘천Lee’라는 이름으로 활약해온 세계적인 여성화가 ‘천이’가 소설의 화자다. 이제 겨우 49세, 자연주의자요 채식주의자인 이 여인이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무의식과 의식 사이를 부유하며 떠올리는 사랑과 죽음에 관한 몽환적인 이야기다. 그네가 누워 있는 병실로 누군가 엉겅퀴꽃 그림을 보낸다. 엉겅퀴는 천이를 아득한 기억으로 끌어내린다.스승의 그림과 자신의 이야기를 결합시킨 소설가 이평재. 그는 “그림 속 꽃의 말을, 새의 말을 따라 이 책이 후회 없는 삶을 원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썼다. 폭스코너 제공그네는 임금에게 올리는 장을 담그는 집안의 후손이다. 아버지는 화가를 꿈꾸었지만 가업을 잇기 바라는 할머니 뜻을 어기지 못하고 포기했다. 할머니가 반대하던 결혼 승낙이 그 조건이었다. 고부 간의 갈등이 심할 수밖에. 어머니는 어느 날 작심하고 뒷감당은 자신이 할 테니 꿈을 이루라고 아버지를 떠나보낸다. ‘(아버지는) 촉촉하게 젖어드는 눈가를 계속 손으로 쓸어내리며 엉겅퀴꽃이 피어 있는 들판을 걸어갔다. 아버지는 붉은 엉겅퀴가 피어 있는 들판에 서서 한동안 발길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 길이 마지막이었다. 아버지는 기차 폭발사고로 사라졌다. ‘여름이 되어 붉은 엉겅퀴가 피어나면 어머니는 실성한 사람 같았다. 낮에는 멀쩡하게 지내다가 밤이 되면 맨발로 뛰쳐나갔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들판을 밤새 헤매고 다녔다. 새벽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엉겅퀴 그림을 쓰다듬는 천이의 손끝은 가시에 찔려 툭툭 터지는 느낌이다. 손끝에서 흘러나온 피가 하얀 엉겅퀴꽃을 붉게 물들이는 환각에 빠진다. 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엉겅퀴를 장 속에 박기 시작했다. 천이는 생각했다. ‘엉겅퀴의 질긴 생명력처럼 어머니도 바닥을 치고 이제 새롭게 살아남기를 시작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엉겅퀴에 아버지를 담아 장 속에 박아 삭힌 뒤 꼭꼭 씹어 삼켜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거라고. 머지않아 할머니까지 담아 먹고, 나에게도 먹일 거라고.’소설과 그림을 겸업하는 윤후명의 ‘엉겅퀴 꽃’ 시리즈.천이는 사랑했던 남자들도 장 속에 박아 넣는다. ‘케이와의 복잡했던 사랑, 알과의 처절했던 사랑, 피제이와의 단순했던 사랑’들을. 천이는 명백한 죽음을 앞두고 사랑에 대해 생각한다. ‘세상엔 무모한 사랑도, 무모하지 않은 사랑도 없다고. 그저 사랑일 뿐이라고. 반드시 함께 있지 않아도 사랑이 될 수 있고, 함께 붙어 있어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윤후명어머니로 상징되는 하얀 엉겅퀴와 아버지 같은 붉은 엉겅퀴가 소설 사이사이에 윤후명의 그림으로 등장한다. 햐얀 설산 위로 새가 나는 그림 ‘설산의 새’가 차지한 페이지 옆에 흘러가는 글에서는 천이가 새 속에서 세 개의 사랑을 보는 묘사가 펼쳐진다. 죽음이 임박해오면서 벽에 걸려 있던 하얀 엉겅퀴꽃은 잿빛으로 변한다. 꽃잎은 떨어져 천이 주변에 눈보라처럼 흩날리다가 어머니를 따라 사라진다.대학에서 그림을 전공하고 소설가로 데뷔한 이평재는 이 작업을 ‘아트픽티오’(Art fictio)라고 스스로 명명했다. 픽티오란 라틴어로 꾸며낸 이야기라는 뜻이다. ‘엉겅퀴 칸타타’는 이런 개념으로 월간 ‘문학사상’에 2012년 1년간 연재한 내용을 다듬고 보탠 결실이다. 이씨는 “<span class='quot0'>부모가 잇달아 타계하고 가까운 이마저 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근년에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그동안 들려 있던 죽음이라는 화두를 정리하는 소설이지만 올해 고희를 맞은 스승에게 바치는 헌정작이기도 하다</span>”고 말했다. 잿빛 꽃잎으로 흩날리는 엉겅퀴 그림 속으로 스며들어 글로 만든 사랑과 죽음의 칸타타를 듣는 일, 썩 괜찮다.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27.txt

제목: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 단백질과 된장- 김치 등 발효식품 꾸준히 드시고 건강 지키세요!  
날짜: 20150605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510017479513  
본문: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 (사진= tvN)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 단백질과 된장-김치 등 발효식품 꾸준히 드시고 건강 지키세요! <br/> <br/>'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 <br/> <br/>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에 관심이 뜨겁다.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은 건강기능식품을 따로 먹지 않더라도, 평소 골고루 잘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도움이 된다.  <br/> <br/>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 질 좋은 단백질 충분히 드세요 <br/> <br/>면역의 기본은 단백질이다. 면역에 관여하는 림프조직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단백질이 결핍되면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또한 병원성미생물(항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 낼 때에도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하다. <br/> <br/>따라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하루에 계란 한개, 생선 한 토막, 우유 한잔, 두부 몇 조각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으로부터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다. <br/> <br/>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 면역력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비타민 <br/> <br/>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이다. 그중에서도 비타민 A(=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토코페롤) 등이 면역력 증강에 효과적이다. 이들 비타민의 공통점은 ‘항산화작용’을 한다는 것인데, T림프구 및 B림프구 등 세포성 면역반응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br/> <br/>비타민 A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당근, 붉은 피망 등의 채소와 감귤류의 과일이다. 비타민 C는 모든 종류의 신선한 채소, 과일에 풍부하다. 특히 겨울철에 맛있는 시금치, 귤 등은 비타민 C 함량이 매우 높다. 비타민 E는 견과류와 식물설 기름에 많이 들어있다. 하루에 호두 3~5개 정도면 충분하다. <br/> <br/>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 아연, 철분 풍부한 해산물로 무기질 보충 <br/> <br/>무기질도 면역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기질 중 철분, 구리, 아연, 셀레늄 등은 특히 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철분이 결핍되면 빈혈만 생기는게 아니라 면역세포인 대식세포 및 호중구 살균능력이 감소된다. 구리와 셀레늄이 결합되었을 때에도 체액성 면역이 현저히 저하된다. <br/> <br/>아연은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질, T림프구, 자연살해세포, 대식세포 등 각종 면역기능에 모두 관여한다. 이들 무기질은 식물성식품 보다는 동물성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특히 어패류 등의 해산물에는 철분과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여주므로 굴, 조개류 등을 자주 먹는 것이 좋다. <br/> <br/>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 된장, 김치 등 발효식품 꾸준히 먹어요 <br/> <br/>발효식품이 면역 증강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다양하다. <br/> <br/>우유를 발효시킨 요구르트나 콩을 발효시킨 된장과 청국장, 그리고 복합채소발효식품인 김치도 면역을 한층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늘이나 버섯류도 면역력 증진 식품으로 꼽힌다. 우리나라가 사스 안전지대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김치와 된장, 그리고 마늘 덕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평소 식생활에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면역뿐 아니라 성인병, 암의 예방을 위해서도 권장할만 하다. <br/>  <br/>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28.txt

제목: [SW이슈] '렛미인' 성형조장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날짜: 20150605  
기자: giba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5100000459  
본문: [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국내 최대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렛미인’이 시즌5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체에서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렛미인5’는 외모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여성들이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메이크 오버쇼. 기준마저 모호한 ‘평범함’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지원자들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며, ‘렛미인 닥터스’의 도움을 받아 내·외적으로 단단해진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반전의 감동을 선사한다. 박현우 PD는 지난 4일 서울 청담씨네씨티 3층 M큐브에서 열린 ‘렛미인5’ 제작발표회에서 “<span class='quot0'>렛미인은 성형 프로그램은 아니다</span>”이라고 선을 그으며 “<span class='quot0'>성형을 자존감을 높여줄 수단으로 사용할 뿐, 무조건 외모를 바꾸는 건 아니다</span>”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작기능 등 기능을 못한다거나, 암수술을 해서 가슴이 한쪽이 없는 등 성형수술이 절실한 분들에게 도구로 제공해드리는 것이다. 무조건 성형을 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보통 2∼6개월 합숙 과정에서 운동, 치과치료, 취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유독 성형이란 부분만 강조된 것 같다. 성형은 하나의 도구일뿐, 성형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러한 제작진의 설명에도 한국여성민우회 등 일부 단체에선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렛미인’ 폐지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민우회는 SNS를 통해 “‘1시간짜리 의료 광고’라고 할 수 있는 ‘렛미인’은 의료법에 위배되는 사실상 불법 방송”이라고 언급했다. 또 “‘렛미인’이 출연자의 행복 실현을 위한 방송처럼 연출되지만, 그 뒷면엔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협찬 받는 방송사,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를 노리는 성형외과의 이익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시청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폐지를 옹호하는 이들은 성형풍토를 조성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또 ‘렛미인’을 베낀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늘어남에 따라 수술 병원에 대한 정보가 간접적으로 노출돼 성형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반대로 ‘렛미인’을 지지하는 시청자들도 많다. 한 누리꾼은 기사 댓글을 통해 “‘렛미인3‘ 2회를 보면 남자의 삶을 사는 여자들을 뽑아 인생을 반전시켜주는 에피소드가 소개됐다. 의사들이 누구를 선정할지 논의하는 모습에서 렛미인의 취지에 굉장히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방송을 깊이있게 본다면 성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프로그램 자체가 광고니 뭐니 불법일지 몰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들을 도와줄게 아니라면 폐지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의견을 보태기도 했다.이날 제작발표회에서 양재진 원장은 “렛미인은 예뻐지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외모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성소수자나 트렌스젠더, 선천성 기형, 기능적 외적 손상 등 삶이 힘든 분들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겉으로는 성형조장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런 역기능들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박현우 PD는 “간접광고의 경우 기준을 마련해서 각 병원에 공지를 했다. 충분히 지켜달라고 말했고, 프로그램과 병원간 협의를 통해 간접광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그럼에도 한국여성민우회 등 일부 단체의 반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직적으로 여러 단체와 연합해 ‘렛미인’ 폐지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동안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이 보여준 역기능들이 충분히 문제점으로 지적될만 했고, 또 성형을 부추긴다는 것도 어느 정도 근거있는 주장이기 때문. 하지만 다섯 번째 시즌을 이어온 ‘렛미인’을 한 회라도 자세히 들여다 봤다면, ‘렛미인’을 단순한 성형 프로그램으로 단정짓기는 성급한 일반화로 보인다. 지원자들은 ‘예뻐지기’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 자발적으로 메이크오버를 택했고, 그 과정에서 ‘렛미인’ 제작진은 성형수술을 비롯해 정신과 치료, 취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자를 돕고 있다. 게다가 지원자 대부분이 수술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한다면, ‘렛미인’은 그들에겐 한줄기 희망과 같은 존재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지원자들의 삶의 의지를 ‘1시간짜리 의료 광고’라고 깍아 내리는건, 어쩌면 그들의 작은 희망조차 무참히 밟아버리는 건 아닐까.또한 ‘렛미인’ 제작진도 시즌5까지 이어오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 등을 위반한다면, ‘렛미인’은 자연스럽게 법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렛미인’이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각종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충분히 폐지가 거론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폐지운동까지 벌일 필요가 있을까.판단은 시청자의 몫이다. 일부 단체들이 결정할 몫이 아니다. 또한 ‘렛미인’의 폐지로 과연 성형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이 모두 해결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드는 순간이다.윤기백 기자 giba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29.txt

제목: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날짜: 20150605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510017485820  
본문: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 (사진= 대한의사협회제공)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br/> <br/>‘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 <br/> <br/>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이 나와 관심이 뜨겁다. <br/> <br/>3일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br/> <br/>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은 자가격리 대상자, 부양자·가족과 밀접 접촉자을 대상으로 한 예방조치다. <br/> <br/>메르스 확산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 및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적극 수행하고자 마련했다. <br/> <br/>아래는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확산 방지 권고안 전문이다. <br/> <br/>▲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예방조치 <br/>1. 자택에 계세요 <br/>-의료처치 목적 이외의 외부 출입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직장, 학교, 공공장소 등에 가지 마시고 대중교통 및 택시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br/>2. 자택 내의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세요 <br/>-가능한한 집 안의 사람들과 다른 방에 있도록 노력하세요. 또한, 가능하다면 단독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세요. <br/>3.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br/>-다른 사람과 같은 방에 있을 때와 의료인을 방문할 때 항상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다면 같은 방에 함께 있는 사람이 착용해야 합니다. <br/>4. 기침과 재채기 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br/>-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시고 휴지가 없다면 옷소매에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세요. 사용한 휴지는 봉지를 씌운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즉시 비누와 물로 손을 씻어주세요. <br/>5. 손을 철저하게 씻어주세요 <br/>-비누와 물로 자주 철저하게 손을 씻어주세요. 비누와 물이 없거나 손이 눈에 보이게 더럽지 않다면 알코올성 손세정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자제해 주세요. <br/>6. 생활용품 공동사용을 피해주세요 <br/>-식기, 컵, 수저, 수건, 침구 등을 자택 내 다른 사람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사용했다면 사용 후 세척제와 물로 철저하게 씻어주세요. <br/>7. 증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세요 <br/>-만일 의심증상(호흡기 증상, 발열 등)이 발생한다면 바로 치료를 받으셔야합니다. 관할보건소 또는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로 연락하셔서 지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br/> <br/>▲자가격리 대상자 부양자와 가족을 위한 예방 조치 <br/>1. 치료 등에 대한 설명과 지시를 잘 이해하고 환자/감시대상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br/>2.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세요. <br/>-다른 가족원은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합니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환자/감시대상자와 다른 방에서 생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세요. 불필요한 방문을 제한하세요. 면역력이 낮은 노인 또는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격리 시키세요. 이 특정 질환에는 만성 심장, 폐, 또는신 장질환과 당뇨병, 암이 포함됩니다. <br/>3.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 창밖의 공기와 자주 환기시켜주세요. <br/>4. 비누와 물로 자주 철저하게 손을 씻어주세요. 알코올성 손세정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자제해 주세요. <br/>5. 환자/감시대상자의 혈액, 체액 또는 땀, 침, 가래, 콧물, 토사물, 소변, 용변 등과 같은 분비물을 만지거나 접촉해야 할 때 일회용 마스크, 가운과 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br/>-한 번 사용 후 마스크, 가운, 장갑을 버려주세요. 다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 가운, 장갑 폐기 후 바로 손을 씻어주세요. <br/>6. 생활용품 공용을 피해주세요. <br/>-식기, 컵, 수저, 수건, 침구 등을 메르스 감염 확진 환자 또는 감시 대상자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함께 사용했다면 사용 후 세척제와 물로 철저하게 씻어주세요. <br/>7. 카운터, 식탁, 손잡이, 욕실기구, 변기, 전화기, 키보드, 태블릿 PC 등 접촉이 많은 표면을 매일 닦아주세요. 또한 피,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묻은 표면을 닦아주세요. <br/>-청소용품에 나와 있는 사용설명서를 읽고 그대로 사용해주세요. 청소용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위 해 장갑을 끼거나 앞치마를 입는 등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품을 사용할 때 통풍이 잘되지는 확인해 주세요. <br/>-희석한 표백제(락스) 또는 가정용 소독기를 사용하세요. <br/>8. 세탁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br/>- 혈액, 체액, 분비물 또는 배설물이 묻은 옷 또는 침구를 바로 벗기고 세탁해주세요. <br/>- 더러워진 물건을 만질 때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세요. 장갑을 벗은 후 바로 손을 씻어주세요. <br/>- 세탁물, 옷가지, 세제 등의 사용설명서를 읽고 그대로 따라주세요. <br/>옷 레이블에 권고하는 가장 따뜻한 온도로 세탁하고 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br/>9. 사용한 모든 장갑, 가운, 마스크, 오염된 물건은 비닐봉지가 씌워진 통에 넣고 <br/>버리세요. 이 물건을 만진 후 바로 손을 닦아주세요. <br/>10. 환자/대상자의 증상을 감시하세요. 만일 증상이 악화된다면 관할보건소 또는 메르스 핫라인 (043-719-7777)로 연락하셔서 지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br/>11. 메르스 감염 확진 환자 또는 감시 대상자와 위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밀접 접촉자”로 간주되니 본인의 건강상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주세요. <br/> <br/>▲밀접 접촉자 예방 조치 <br/>1. 치료 등에 대한 설명과 지시를 잘 이해하고 환자/감시대상자를 <br/>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br/>2.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세요. <br/>-다른 가족원은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합니다. <br/>만일 불가능하다면 환자/감시대상자와 다른 방에서 생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세요. <br/>-불필요한 방문을 제한하세요. <br/>-면역력이 낮은 노인 또는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격리 시키세요. 이 특정 질환에는 만성 심장, 폐, 또는 신장질환과 당뇨병이 포함됩니다. <br/>3.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 창밖의 공기와 자주 환기시켜주세요. <br/>4. 비누와 물로 자주 철저하게 손을 씻어주세요. 알코올성 손세정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자제해 주세요. <br/>5. 환자/감시대상자의 혈액, 체액 또는 땀, 침, 가래, 콧물, 토사물, 소변, 용변 등과 <br/>같은 분비물을 만지거나 접촉해야 할 때 일회용 마스크, 가운과 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br/>-한 번 사용 후 마스크, 가운, 장갑을 버려주세요. 다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br/>-마스크, 가운, 장갑 폐기 후 바로 손을 씻어주세요. <br/>6. 생활용품 공용을 피해주세요. <br/>-식기, 컵, 수저, 수건, 침구 등을 메르스 감염 확진 환자 또는 감시 대상자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함께 사용했다면 사용 후 세척제와 물로 철저하게 씻어주세요. <br/> <br/>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span class='quot1'>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 예방이 중요해</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30.txt

제목: 암 환자 200만시대, 통합의학 암 치료 전문가 과정이 열려  
날짜: 20150604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25700220  
본문:   <br/> <br/>  <br/> <br/>자연통합의학암학회와 자연통합의학암아카데미(회장 문창식)는 오는 14일부터 6개월간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제 3기 자연통합의학 암 치료 아카데미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br/> <br/>문창식 회장은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에서 3대 요법을 마친 암 환자들이 방황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성기에 표준화된 암 치료방법을 안내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 아카데미 과정은 이러한 환자들을 위한 자연통함 암 치료 의사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현재 1, 2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 3기 과정은 좀 더 강화된 컨텐츠가 펼쳐진다"고 설명했다. <br/> <br/>강의내용은 통합의학암치료 총론에서부터 항암 식이요법, 맞춤형 식단 및 파이토케미칼, 암 환자 맞춤형 프로그램과 심리, 통증관리, 현재 암환자에 적요아는 치료방법과 암환자 관리, 검사의 해석과 적용에 이어 실습 및 체험으로 마무리 되며 강사진은 전 현직 대학교수와 암 환자를 임상에서 치료하는 25명 이상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br/> <br/>아카데미를 수료한 전문가에게는 학회 정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암 전문병원 개설시 시설, 시스템, 운영방법 등에 대한 지원과 학회 세미나와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31.txt

제목: 이화여대, 美 잭슨랩과 유전체 의학 국제 심포지움 개최  
날짜: 20150604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25354880  
본문:   <br/> <br/> <br/>이화여자대학교는 세계적 유전체 연구기관인 미국 잭슨랩과 공동으로 유전체 의학 연구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을 오는 8일 오전 10시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br/> <br/>잭슨랩은 지난 1929년 미국에 설립된 세계 최대 동물 질병모델 연구소로, 2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 방대한 의료분야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br/> <br/>약 1700명의 생명과학 연구자들이 매년 300만 마리 이상의 동물 질병모델 생산과 개인별 맞춤 치료 연구를 통해 암, 노화, 당뇨, 심장병 치료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br/> <br/>지난 2012년 미국 코네티컷 주정부는 잭슨랩 산하에 '잭슨랩 유전체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는 데 총 1조원(한화)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초대 소장으로 찰스 리 박사를 임명한 바 있다. <br/> <br/>이화여대와 잭슨랩이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움은 전세계적으로 유전체 기반의 개인 맞춤 의료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유전체 의학 현황과 발전방향을 조망, 국제적 협력을 통한 미래 맞춤 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특히 이화여대가 찰스 리(Charles Lee) 박사를 대학원 생명과학과 초빙석좌교수로 지난 3월 임용하고 잭슨랩과 공동 연구를 시작하는 등 교류관계를 맺은 뒤 처음 열리는 국제 학술행사로서 의미를 갖는다. <br/> <br/>심포지움을 위해 한국인 최초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선정된 찰스 리 교수와 암 유전체학 연구의 세계적 리더인 에디슨 리우(Edison Liu) 박사를 비롯, 잭슨랩 핵심 과학자 6명이 내한하고 국내 최고의 유전체 연구진이 함께 할 예정이다. <br/> <br/>우선 잭슨랩의 회장 겸 CEO인 에디슨 리우 박사는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싱가포르 게놈연구소(GIS)의 소장으로 GIS를 세계적인 연구소로 키워냈으며, 2007년부터 5년간 인간게놈위원회(HUGO) 회장으로서 세계 게놈 연구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 <br/> <br/>2009년에는 한국ㆍ싱가포르ㆍ중국 등 11개국 40개 연구기관 93명의 과학자와 함께 '아시아 민족 이동 연구'를 진행해 세계 최고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br/> <br/>찰스 리 교수는 2013년 설립된 잭슨랩 유전체 연구소의 소장으로, 2004년 사람과 사람 사이 유전체에 '단위반복변이'라는 구조적 유전체변이가 존재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의과학자다. <br/> <br/>140여 편의 논문을 네이처, 셀, 사이언스 등 세계 유명 과학 학술지에 발표하고, 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진단법과 유전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정보 제공 및 개인별 맞춤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해 유전체학의 흐름을 바꿨다는 평을 얻고 있다. <br/> <br/>미국 한림원 정회원으로 2008년 호암상을 수상했고, 2014년 톰슨로이터가 선정한 노벨 생리의학상 유력 후보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br/> <br/>이 밖에 미생물 유전체 연구(Microbiome)의 선구자로 2015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별 맞춤치료(precision medicine)에 관한 기자회견 시 대표 과학자로 참여하기도 했던 조지 와인스탁(George Weinstock) 박사, 면역학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쟈크 반슈로우(Jacques Banchereau) 박사, 유전체 3차원 구조 분석의 대가 이준 루안(Yijun Ruan) 박사, 줄기세포 및 생식유전학 분야 대가인 로버트 브라운(Robert Braun) 박사도 참여한다. <br/> <br/>이들 잭슨랩의 과학자들 외에도 국내 유전체학 연구를 선도하는 이화여대 오구택·이상혁·강덕희 교수, 서울대 김종일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황대희 교수의 강의도 있을 예정이다. <br/> <br/>이화여대는 심포지움 외에도 잭슨랩과의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오는 7월에는 미래 유전체 의학자를 꿈꾸는 본교 대학원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미국 잭슨랩으로 파견, '의학 및 실험 포유류 유전학'을 주제로 세계 최고 석학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2주 단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br/> <br/>한편 잭슨랩 관계자들은 오는 9일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해 이화여대 의료원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이화여대 의료원이 그동안 구축한 다양한 질병 진단 및 치료 노하우와 잭슨랩의 유전체 관련 탁월한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br/> <br/>양 기관은 고령화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난치암, 대사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새로운 진단 및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폭 넓은 미래 발전 방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32.txt

제목: 아베 박사, 암백신 치료도 유전자 분석이 중요  
날짜: 20150604  
기자: 최종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25141046  
본문:   <br/> <br/>일본 학회에서 암백신 치료도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별화치료가 필요하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지난 5월 24일 일본 도쿄 이이노 컨퍼런스홀에서는 제20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학술발표에 나선 아베종양내과의 아베 히로유키 박사는 지속적으로 임상연구 중인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결과를 발표했다.   <br/> <br/>아베 박사에 따르면 89세의 고령 여성 폐암환자에게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한 결과, 종양과 종양수치가 현저히 축소, 감소됐음이 발견됐다. 2주에 1번씩 총 6회를 1싸이클로 치료한 결과다. 고령으로 체력이 저하돼 수술과 항암제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들은 물론 전이-재발 암 환자도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통해 70%, 하이브리드 치료(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와 New NK세포치료 병행)로 74.4%의 유효 치료효과가 나타났다.   <br/> <br/>아베 박사는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암 환자 별로 다양한 항원 개발에 힘썼으며, 암 환자 개인에 특성화된 개별화치료를 시행해 왔다. 인체는 2만 개가 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근거한다.  <br/> <br/>약 10여 종의 암항원을 보유한 아베종양내과가 사용하고 있는 암항원 중 GV1001은 한국 식품의 <br/>약품안전처로부터 2014년9월에 췌장암치료제로 정식 허가 받은 항원이기도 하다. 이 암항원은 췌장암 외에 전립선암-폐암-위암-유방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베종양내과는 추가 연구 중이다. 국내 기업으로는 선진바이오텍(대표 양동근)이 공동 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br/> <br/>아베 박사의 유전자 분석법에 근거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는 수지상세포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지상세포란 면역세포의 사령관과 같은데, 암의 표식이라 할 수 있는 항원을 기억해 암세포를 죽이는 '킬러T세포'에 항원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킬러T세포가 암세포만을 죽일 수 있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br/> <br/>즉,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별화치료와 수지상세포가 아베 박사의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의 핵심 키워드며, 암 환자의 수지상세포, 킬러T세포, 헬퍼T세포, 메모리T세포, 암항원(단백질)을 모두 사용된다.  <br/> <br/>암 환자로부터 약 25ml 정도의 소량의 채혈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이 방법은, 백혈구의 한 종류인 수지상세포와 개인별 유전자검사-항원검사 후 허가된 개인별 암항원을 4~5종 정도 추가해 치료한다. 이 암 항원이 킬러T세로를 도와 암 세포를 사멸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치료는 2주간 배양 과정을 거쳐 수지상세포와 킬러T세포가 암 정보를 교환하는 림프절에 피하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치료법으로 아베종양내과는 2014년 7월 일본에서 특허(제5577472호)를 획득했다.  <br/> <br/>아베 박사의 발표에 이어, 스즈키 요시유키 교수(후쿠시마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가 방사선 치료와 면역세포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스즈키 교수는 "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조사(照射)는 'HLA클래스-1'의 발현을 증가시켜 숨어 있던 암세포를 드러나게 한다. 드러난 암세포를 수지상세포가 정확히 인식해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도록 킬러T세포에 명령을 내리며, 또한 세포상해성T림프구(CTL)가 증가해 T림프구가 암세포 속으로 정확히 들어감으로써 항암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br/> <br/>한편, 아베종양내과는 최근 일본의 재생의료법에 근거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의료진, 제약시설, 치료과정, 치료결과관리, 검진시스템, 수지상세포배양 및 치료법, 연구실적 등을 기준으로 검토 받은 결과 수지상세포치료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33.txt

제목: 폐질환, 신장질환, 스테로이드 복용자는 메르스는 치명적  
날짜: 2015060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25023537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중동의 경우 치사율 40%에 이르는 치명적 감염병이지만 의료수준과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효과와 증상 발현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 <br/> <br/>또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감염돼 사망에까지 이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증상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br/> <br/>4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의 감염과 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은 연령과 기존 질환(기저질환)이다. <br/> <br/>지난 3일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은 43세의 남성 환자는 최초 감염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자녀 간호를 위해 해당 병동에 머물다 감염됐다. <br/> <br/>또 다른 보호자였던 이 환자의 아내(39)도 지난 1일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br/> <br/>하지만 이들 부부보다 더 오랜 시간을 첫 환자와 같은 병동에서 보낸 자녀는 정작 최대 잠복 기간(14일)을 넘긴 지금까지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br/> <br/>이 자녀가 무슨 질환으로 입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같은 수준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다는 점이 감염을 피해갈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보인다. <br/> <br/>기저질환과 관련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당뇨, 신부전, 만성폐질환, 면역저하 환자를 메르스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br/> <br/>메르스 바이러스는 폐와 신장을 공격하기 때문에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같은 만성질환과 신장질환 환자는 더욱 취약할 수 있다. <br/> <br/>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메르스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와 마찬가지로 폐에 침범하며, 사스와는 다르게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특성이 있다"고 알렸다. <br/> <br/>두 번째 사망환자는 71세의 고령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진 데다 2011년에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을 적출한 상태였다. 고위험 요소를 복합적으로 갖춘 것이다. <br/> <br/>면역력도 저하도 메르스 환자에겐 치명적 요소이다 . <br/> <br/>김 이사장은 "암이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등도 면역이 떨어질 수 있고, 항암제나 장기이식 후 거부반응을 막기 위한 면역억제제, 그리고 종종 쓰는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도 면역저하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br/> <br/>첫 번째로 사망한 57세 여성 환자도 관절염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인위적인 면역저하 상태가 됐다. <br/> <br/>대한예방의학회 기모란 메르스위원장이 해의 메르스 환자 1018명을 분석한 결과, 암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메르스 환자의 사망률은 44.3%로, 건강한 환자의 10.7%보다 4배 이상 높았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34.txt

제목: 암 환자 200만시대, 통합의학 암 치료 전문가 과정이 열려  
날짜: 20150604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4100000350  
본문:   자연통합의학암학회와 자연통합의학암아카데미(회장 문창식)는 오는 14일부터 6개월간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제 3기 자연통합의학 암 치료 아카데미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문창식 회장은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에서 3대 요법을 마친 암 환자들이 방황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성기에 표준화된 암 치료방법을 안내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 아카데미 과정은 이러한 환자들을 위한 자연통함 암 치료 의사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현재 1, 2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 3기 과정은 좀 더 강화된 컨텐츠가 펼쳐진다"고 설명했다.강의내용은 통합의학암치료 총론에서부터 항암 식이요법, 맞춤형 식단 및 파이토케미칼, 암 환자 맞춤형 프로그램과 심리, 통증관리, 현재 암환자에 적요아는 치료방법과 암환자 관리, 검사의 해석과 적용에 이어 실습 및 체험으로 마무리 되며 강사진은 전 현직 대학교수와 암 환자를 임상에서 치료하는 25명 이상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아카데미를 수료한 전문가에게는 학회 정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암 전문병원 개설시 시설, 시스템, 운영방법 등에 대한 지원과 학회 세미나와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35.txt

제목: 아베 박사, 암백신 치료도 유전자 분석이 중요  
날짜: 201506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4100000661  
본문:  일본 학회에서 암백신 치료도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별화치료가 필요하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5월 24일 일본 도쿄 이이노 컨퍼런스홀에서는 제20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학술발표에 나선 아베종양내과의 아베 히로유키 박사는 지속적으로 임상연구 중인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결과를 발표했다.  아베 박사에 따르면 89세의 고령 여성 폐암환자에게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한 결과, 종양과 종양수치가 현저히 축소, 감소됐음이 발견됐다. 2주에 1번씩 총 6회를 1싸이클로 치료한 결과다. 고령으로 체력이 저하돼 수술과 항암제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들은 물론 전이-재발 암 환자도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통해 70%, 하이브리드 치료(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와 New NK세포치료 병행)로 74.4%의 유효 치료효과가 나타났다.  아베 박사는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암 환자 별로 다양한 항원 개발에 힘썼으며, 암 환자 개인에 특성화된 개별화치료를 시행해 왔다. 인체는 2만 개가 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근거한다. 약 10여 종의 암항원을 보유한 아베종양내과가 사용하고 있는 암항원 중 GV1001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4년9월에 췌장암치료제로 정식 허가 받은 항원이기도 하다. 이 암항원은 췌장암 외에 전립선암-폐암-위암-유방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베종양내과는 추가 연구 중이다. 국내 기업으로는 선진바이오텍(대표 양동근)이 공동 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있다.아베 박사의 유전자 분석법에 근거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는 수지상세포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지상세포란 면역세포의 사령관과 같은데, 암의 표식이라 할 수 있는 항원을 기억해 암세포를 죽이는 '킬러T세포'에 항원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킬러T세포가 암세포만을 죽일 수 있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별화치료와 수지상세포가 아베 박사의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의 핵심 키워드며, 암 환자의 수지상세포, 킬러T세포, 헬퍼T세포, 메모리T세포, 암항원(단백질)을 모두 사용된다. 암 환자로부터 약 25ml 정도의 소량의 채혈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이 방법은, 백혈구의 한 종류인 수지상세포와 개인별 유전자검사-항원검사 후 허가된 개인별 암항원을 4~5종 정도 추가해 치료한다. 이 암 항원이 킬러T세로를 도와 암 세포를 사멸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치료는 2주간 배양 과정을 거쳐 수지상세포와 킬러T세포가 암 정보를 교환하는 림프절에 피하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치료법으로 아베종양내과는 2014년 7월 일본에서 특허(제5577472호)를 획득했다. 아베 박사의 발표에 이어, 스즈키 요시유키 교수(후쿠시마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가 방사선 치료와 면역세포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스즈키 교수는 "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조사(照射)는 'HLA클래스-1'의 발현을 증가시켜 숨어 있던 암세포를 드러나게 한다. 드러난 암세포를 수지상세포가 정확히 인식해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도록 킬러T세포에 명령을 내리며, 또한 세포상해성T림프구(CTL)가 증가해 T림프구가 암세포 속으로 정확히 들어감으로써 항암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아베종양내과는 최근 일본의 재생의료법에 근거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의료진, 제약시설, 치료과정, 치료결과관리, 검진시스템, 수지상세포배양 및 치료법, 연구실적 등을 기준으로 검토 받은 결과 수지상세포치료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36.txt

제목: 메르스 격리자 1667명, 치사율 40%는 정말 과장? "병이 없는 건강한 환자의 사망률은 10%"  
날짜: 20150604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410017478823  
본문: 메르스 격리자 1667명 (사진= MBN 보도화면)메르스 격리자 1667명, 치사율 40%는 정말 과장? "병이 없는 건강한 환자의 사망률은 10%" <br/> <br/>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격리자가 총 1667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메르스 치사율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br/>  <br/>병원계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메르스 치사율 40%'에 대해 과장된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br/> <br/>병원계 관계자는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병했는데, 그 국가에서만 사망자가 400명이 넘게 나왔다. 해당 국가에서는 감기와 비슷한 증세로 여겨 초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병을 키워 많은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안다. 반면 초기 격리 등을 잘 조치만 UAE의 경우 치사율으 40%까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br/> <br/>또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건강한 사람은 암, 당뇨병, 만성 콩팥병 등 기존에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에 비해 메르스 사망률이 25% 수준이다. <br/> <br/>또한 한림 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역시 "현재까지 메르스 환자를 분석한 결과 평소 암, 당뇨 등 지병을 가진 메르스 환자는 515명 중 228명 44.3%의 사망률을 보였지만 이런 병이 없는 건강한 메르스 환자의 사망률은 10.7% 수준으로, 지병 소유 여부가 불분명한 메르스 환자의 사망률은 그 중간인 17%였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br/> <br/>메르스 격리자 1667명 메르스 치사율을 접한 네티즌들은 "메르스 격리자 1667명 메르스 치사율, 무서워" "메르스 격리자 1667명 메르스 치사율, 안타까워" "메르스 격리자 1667명 메르스 치사율, 예방이 진짜 중요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한편 3일 천안에서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2명 발생했으며, 대전에서는 메르스 의심 환자 1명이 사망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37.txt

제목: 폐질환, 신장질환, 스테로이드 복용자는 메르스는 치명적  
날짜: 2015060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4100001161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중동의 경우 치사율 40%에 이르는 치명적 감염병이지만 의료수준과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효과와 증상 발현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 또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감염돼 사망에까지 이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증상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4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의 감염과 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은 연령과 기존 질환(기저질환)이다. 지난 3일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은 43세의 남성 환자는 최초 감염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자녀 간호를 위해 해당 병동에 머물다 감염됐다.또 다른 보호자였던 이 환자의 아내(39)도 지난 1일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부부보다 더 오랜 시간을 첫 환자와 같은 병동에서 보낸 자녀는 정작 최대 잠복 기간(14일)을 넘긴 지금까지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 자녀가 무슨 질환으로 입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같은 수준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다는 점이 감염을 피해갈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보인다.기저질환과 관련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당뇨, 신부전, 만성폐질환, 면역저하 환자를 메르스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메르스 바이러스는 폐와 신장을 공격하기 때문에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같은 만성질환과 신장질환 환자는 더욱 취약할 수 있다.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메르스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와 마찬가지로 폐에 침범하며, 사스와는 다르게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특성이 있다"고 알렸다. 두 번째 사망환자는 71세의 고령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진 데다 2011년에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을 적출한 상태였다. 고위험 요소를 복합적으로 갖춘 것이다.면역력도 저하도 메르스 환자에겐 치명적 요소이다 .김 이사장은 "암이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등도 면역이 떨어질 수 있고, 항암제나 장기이식 후 거부반응을 막기 위한 면역억제제, 그리고 종종 쓰는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도 면역저하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첫 번째로 사망한 57세 여성 환자도 관절염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인위적인 면역저하 상태가 됐다.대한예방의학회 기모란 메르스위원장이 해의 메르스 환자 1018명을 분석한 결과, 암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메르스 환자의 사망률은 44.3%로, 건강한 환자의 10.7%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38.txt

제목: 폐질환·신부전·스테로이드 복용…메르스에 취약  
날짜: 201506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4100001220  
본문: 3일 오전 경기도 한 중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세종대로를 지나고 있다.빠르게 퍼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도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감염 여부와 증상 발현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 같은 조건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감염돼 사망에까지 이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증상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4일 정부와 의료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메르스의 감염과 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은 연령과 기존 앓던 병(기저질환)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새로 메르스 진단을 받은 43세의 남성 환자는 처음으로 확진을 받은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자녀를 간호하고자 해당 병동에 머물다 감염됐다.또 다른 보호자였던 이 환자의 아내(39)도 지난 1일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첫 환자와 같은 병동에서 보냈을 이들 부부의 자녀는 정작 최대 잠복 기간(14일)을 넘긴 지금까지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3일 브리핑에서 "정작 입원했던 환자(부부의 자녀)의 경우에는 증상도 없어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가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자녀가 무슨 질환으로 입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같은 수준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다는 점이 감염을 피해갈 수 있었던 요인일 수도 있다.기저질환과 관련해서는 일단 세계보건기구(WHO)는 당뇨, 신부전, 만성폐질환, 면역저하 환자를 메르스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특히 메르스 바이러스는 폐와 신장을 공격하기 때문에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같은 만성질환과 신장질환 환자는 더욱 취약할 수 있다.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메르스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와 마찬가지로 폐에 침범하며, 사스와는 다르게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두 번째 사망환자는 71세의 고령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진 데다 2011년에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을 적출한 상태였다. 고위험 요소를 복합적으로 갖춘 것이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검사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의 사람도 메르스 감염과 사망에 취약할 수 있다.김 이사장은 "암이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등도 면역이 떨어질 수 있고, 항암제나 장기이식 후 거부반응을 막기 위한 면역억제제, 그리고 종종 쓰는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도 면역저하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첫 번째로 사망한 57세 여성 환자도 관절염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인위적인 면역저하 상태가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메르스위원장이 해외의 메르스 환자 1천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암,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메르스 환자의 사망률은 44.3%로, 건강한 환자의 10.7%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관리해 빨리 진단해야 한다"며 "국민 각자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39.txt

제목: 잿빛 꽃잎으로 흩날리는 사랑과 죽음의 ‘변주곡’  
날짜: 20150604  
기자: 조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410017476116  
본문: 소설과 그림이 만났다. 주객관계는 아니다. 소설과 그림 둘 다 각기 존재감을 잃지 않는다. 서로 스며든다. 스며들기는 하되 피차 곁을 많이 주지는 않는다. 따로 존재하면서도 조금씩 엉기어 소설과 그림을 넘어선 새로운 경지를 향해 간다. 소설가 이평재(56)가 소설과 그림을 겸업하는 스승 윤후명(69)의 그림 스무 장을 붙들고 써서 펴낸 장편소설 ‘엉겅퀴 칸타타’(폭스코너)가 그 경우다. 소설을 돕는 삽화 형식으로 그림이 수용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시도는 드물다. <br/> <br/>‘천Lee’라는 이름으로 활약해온 세계적인 여성화가 ‘천이’가 소설의 화자다. 이제 겨우 49세, 자연주의자요 채식주의자인 이 여인이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무의식과 의식 사이를 부유하며 떠올리는 사랑과 죽음에 관한 몽환적인 이야기다. 그네가 누워 있는 병실로 누군가 엉겅퀴꽃 그림을 보낸다. 엉겅퀴는 천이를 아득한 기억으로 끌어내린다. <br/> <br/>스승의 그림과 자신의 이야기를 결합시킨 소설가 이평재. 그는 “그림 속 꽃의 말을, 새의 말을 따라 이 책이 후회 없는 삶을 원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썼다. <br/>폭스코너 제공그네는 임금에게 올리는 장을 담그는 집안의 후손이다. 아버지는 화가를 꿈꾸었지만 가업을 잇기 바라는 할머니 뜻을 어기지 못하고 포기했다. 할머니가 반대하던 결혼 승낙이 그 조건이었다. 고부 간의 갈등이 심할 수밖에. 어머니는 어느 날 작심하고 뒷감당은 자신이 할 테니 꿈을 이루라고 아버지를 떠나보낸다. ‘(아버지는) 촉촉하게 젖어드는 눈가를 계속 손으로 쓸어내리며 엉겅퀴꽃이 피어 있는 들판을 걸어갔다. 아버지는 붉은 엉겅퀴가 피어 있는 들판에 서서 한동안 발길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 길이 마지막이었다. 아버지는 기차 폭발사고로 사라졌다. ‘여름이 되어 붉은 엉겅퀴가 피어나면 어머니는 실성한 사람 같았다. 낮에는 멀쩡하게 지내다가 밤이 되면 맨발로 뛰쳐나갔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들판을 밤새 헤매고 다녔다. 새벽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br/> <br/>엉겅퀴 그림을 쓰다듬는 천이의 손끝은 가시에 찔려 툭툭 터지는 느낌이다. 손끝에서 흘러나온 피가 하얀 엉겅퀴꽃을 붉게 물들이는 환각에 빠진다. 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엉겅퀴를 장 속에 박기 시작했다. 천이는 생각했다. ‘엉겅퀴의 질긴 생명력처럼 어머니도 바닥을 치고 이제 새롭게 살아남기를 시작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엉겅퀴에 아버지를 담아 장 속에 박아 삭힌 뒤 꼭꼭 씹어 삼켜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거라고. 머지않아 할머니까지 담아 먹고, 나에게도 먹일 거라고.’ <br/> <br/>소설과 그림을 겸업하는 윤후명의 ‘엉겅퀴 꽃’ 시리즈.천이는 사랑했던 남자들도 장 속에 박아 넣는다. ‘케이와의 복잡했던 사랑, 알과의 처절했던 사랑, 피제이와의 단순했던 사랑’들을. 천이는 명백한 죽음을 앞두고 사랑에 대해 생각한다. ‘세상엔 무모한 사랑도, 무모하지 않은 사랑도 없다고. 그저 사랑일 뿐이라고. 반드시 함께 있지 않아도 사랑이 될 수 있고, 함께 붙어 있어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br/> <br/>윤후명어머니로 상징되는 하얀 엉겅퀴와 아버지 같은 붉은 엉겅퀴가 소설 사이사이에 윤후명의 그림으로 등장한다. 햐얀 설산 위로 새가 나는 그림 ‘설산의 새’가 차지한 페이지 옆에 흘러가는 글에서는 천이가 새 속에서 세 개의 사랑을 보는 묘사가 펼쳐진다. 죽음이 임박해오면서 벽에 걸려 있던 하얀 엉겅퀴꽃은 잿빛으로 변한다. 꽃잎은 떨어져 천이 주변에 눈보라처럼 흩날리다가 어머니를 따라 사라진다. <br/> <br/>대학에서 그림을 전공하고 소설가로 데뷔한 이평재는 이 작업을 ‘아트픽티오’(Art fictio)라고 스스로 명명했다. 픽티오란 라틴어로 꾸며낸 이야기라는 뜻이다. ‘엉겅퀴 칸타타’는 이런 개념으로 월간 ‘문학사상’에 2012년 1년간 연재한 내용을 다듬고 보탠 결실이다. 이씨는 “<span class='quot0'>부모가 잇달아 타계하고 가까운 이마저 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근년에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그동안 들려 있던 죽음이라는 화두를 정리하는 소설이지만 올해 고희를 맞은 스승에게 바치는 헌정작이기도 하다</span>”고 말했다. 잿빛 꽃잎으로 흩날리는 엉겅퀴 그림 속으로 스며들어 글로 만든 사랑과 죽음의 칸타타를 듣는 일, 썩 괜찮다. <br/> <br/>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40.txt

제목: 이화여대, 美 잭슨랩과 유전체 의학 국제 심포지움 개최  
날짜: 2015060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4100001236  
본문:  이화여자대학교는 세계적 유전체 연구기관인 미국 잭슨랩과 공동으로 유전체 의학 연구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을 오는 8일 오전 10시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잭슨랩은 지난 1929년 미국에 설립된 세계 최대 동물 질병모델 연구소로, 2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 방대한 의료분야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약 1700명의 생명과학 연구자들이 매년 300만 마리 이상의 동물 질병모델 생산과 개인별 맞춤 치료 연구를 통해 암, 노화, 당뇨, 심장병 치료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지난 2012년 미국 코네티컷 주정부는 잭슨랩 산하에 '잭슨랩 유전체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는 데 총 1조원(한화)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초대 소장으로 찰스 리 박사를 임명한 바 있다.이화여대와 잭슨랩이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움은 전세계적으로 유전체 기반의 개인 맞춤 의료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유전체 의학 현황과 발전방향을 조망, 국제적 협력을 통한 미래 맞춤 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화여대가 찰스 리(Charles Lee) 박사를 대학원 생명과학과 초빙석좌교수로 지난 3월 임용하고 잭슨랩과 공동 연구를 시작하는 등 교류관계를 맺은 뒤 처음 열리는 국제 학술행사로서 의미를 갖는다.심포지움을 위해 한국인 최초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선정된 찰스 리 교수와 암 유전체학 연구의 세계적 리더인 에디슨 리우(Edison Liu) 박사를 비롯, 잭슨랩 핵심 과학자 6명이 내한하고 국내 최고의 유전체 연구진이 함께 할 예정이다.우선 잭슨랩의 회장 겸 CEO인 에디슨 리우 박사는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싱가포르 게놈연구소(GIS)의 소장으로 GIS를 세계적인 연구소로 키워냈으며, 2007년부터 5년간 인간게놈위원회(HUGO) 회장으로서 세계 게놈 연구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2009년에는 한국ㆍ싱가포르ㆍ중국 등 11개국 40개 연구기관 93명의 과학자와 함께 '아시아 민족 이동 연구'를 진행해 세계 최고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찰스 리 교수는 2013년 설립된 잭슨랩 유전체 연구소의 소장으로, 2004년 사람과 사람 사이 유전체에 '단위반복변이'라는 구조적 유전체변이가 존재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의과학자다.140여 편의 논문을 네이처, 셀, 사이언스 등 세계 유명 과학 학술지에 발표하고, 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진단법과 유전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정보 제공 및 개인별 맞춤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해 유전체학의 흐름을 바꿨다는 평을 얻고 있다.미국 한림원 정회원으로 2008년 호암상을 수상했고, 2014년 톰슨로이터가 선정한 노벨 생리의학상 유력 후보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이 밖에 미생물 유전체 연구(Microbiome)의 선구자로 2015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별 맞춤치료(precision medicine)에 관한 기자회견 시 대표 과학자로 참여하기도 했던 조지 와인스탁(George Weinstock) 박사, 면역학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쟈크 반슈로우(Jacques Banchereau) 박사, 유전체 3차원 구조 분석의 대가 이준 루안(Yijun Ruan) 박사, 줄기세포 및 생식유전학 분야 대가인 로버트 브라운(Robert Braun) 박사도 참여한다.이들 잭슨랩의 과학자들 외에도 국내 유전체학 연구를 선도하는 이화여대 오구택·이상혁·강덕희 교수, 서울대 김종일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황대희 교수의 강의도 있을 예정이다.이화여대는 심포지움 외에도 잭슨랩과의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오는 7월에는 미래 유전체 의학자를 꿈꾸는 본교 대학원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미국 잭슨랩으로 파견, '의학 및 실험 포유류 유전학'을 주제로 세계 최고 석학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2주 단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예정이다.한편 잭슨랩 관계자들은 오는 9일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해 이화여대 의료원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이화여대 의료원이 그동안 구축한 다양한 질병 진단 및 치료 노하우와 잭슨랩의 유전체 관련 탁월한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고령화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난치암, 대사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새로운 진단 및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폭 넓은 미래 발전 방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41.txt

제목: 폐질환·신부전·당뇨,스테로이드 복용‘메르스에 취약’…사망률 건강한 환자의 4배 높아  
날짜: 201506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4100001091  
본문:  2주간의 잠복기간이 지나도 빠르게 퍼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도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감염 여부와 증상 발현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 같은 조건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감염돼 사망에까지 이른 사람이 있는가하면 증상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4일 정부와 의료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메르스의 감염과 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은 연령과 기존 앓던 병(기저질환)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새로 메르스 진단을 받은 43세의 남성 환자는 처음으로 확진을 받은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자녀를 간호하고자 해당 병동에 머물다  감염됐다.또 다른 보호자였던 이 환자의 아내(39)도 지난 1일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첫 환자와 같은 병동에서 보냈을 이들 부부의자녀는 정작 최대 잠복 기간(14일)을 넘긴 지금까지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3일 브리핑에서  “정작 입원했던 환자(부부의 자녀)의 경우에는 증상도 없어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가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자녀가 무슨 질환으로 입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같은 수준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다는 점이 감염을 피해갈 수 있었던 요인일  수도 있다.기저질환과 관련해서는 일단 세계보건기구(WHO)는 당뇨, 신부전, 만성폐질환,  면역저하 환자를 메르스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특히 메르스 바이러스는 폐와 신장을 공격하기 때문에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같은 만성질환과 신장질환 환자는 더욱 취약할 수 있다.이번 두 번째 사망환자는 71세의 고령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진 데다  2011년에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을 적출한 상태였다. 고위험 요소를 복합적으로 갖춘  것이다.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의 사람도 메르스 감염과 사망에 취약할 수 있다.첫 번째로 사망한 57세 여성 환자도 관절염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인위적인 면역저하 상태가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메르스위원장이 해외의 메르스 환자 10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암,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메르스 환자의 사망률은 44.3%로, 건강한 환자의 10.7%보다 4배 이상 높았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42.txt

제목: 꼭 알아야 할 10가지, 뱃살 빼는 습관..."생활속 간단한 실천"  
날짜: 20150604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410017476085  
본문: 꼭 알아야 할 10가지 꼭 알아야 할 10가지꼭 알아야 할 10가지, 뱃살 빼는 습관..."생활속 간단한 실천" <br/> <br/>비만에서 탈출하는 뱃살 빼는 습관 10가지가 새삼 주목을 받았다. <br/> <br/>미국 건강포털 웹 MD는 뱃살을 줄여주는 습관 10가지를 소개했다. <br/>  <br/>1. 남긴 밥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야식이나 아이들이 남긴 밥이 아깝다고 이를 먹었다가는 뱃살이 늘어나기 십상이다. 이런 식습관은 뱃살을 빼는 데 좋지 않다. 남긴 밥을 억지로 먹는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br/>  <br/>2. 배고픔은 참지 말고, 간식을 챙겨 먹는게 낫다. 배고픔을 참다가 식사를 하면 평소 먹던 양보다 많이 먹게 된다. 배고픔을 참지 말고 열량이 높은 간식 대신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등 저칼로리 간식을 먹으면 건강에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br/> <br/>3. 공복에 마트에 가지 말아야 한다. 공복에 마트에 가게 되면 필요 이상의 먹을거리를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냉장고 속 먹을거리는 언제든지 뱃살로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 두자. <br/> <br/>4. 식사는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규칙적인 식사는 다이어트에 좋다. 규칙적인 식사는 과식을 예방하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이 쉽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되, 하루 한 끼를 가벼운 쉐이크 등으로 대체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량된다. <br/> <br/>5. 음식은 식탁에서 먹어야 한다. 음식을 서서 먹으면 과식을 피하기 어렵다. 식탁에 제대로 앉아 그릇에 덜어먹어야 양을 조절하면서 먹기 편해진다. <br/> <br/>6. 식사는 20분 동안 해야 한다.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분. 개인 접시를 이용해 식사 할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허겁지겁 먹으면 뱃살 역시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다. <br/> <br/>7. 식사를 하며 물도 함께 마셔야 한다. 식사하면서 적당량의 물을 함께 마셔야 한다. 적당량의 물은 과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너무 다량의 물을 마실 경우 위산이 희석돼 소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br/> <br/>8. 저녁 식사 후 양치질은 바로 해야 한다. 밥을 먹고 양치질을 바로 하는 것이다. 식사 후 양치를 늦게 할수록 남아있는 식욕에 주전부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녁 식사를 하자마자 양치질을 하면 식욕이 사라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뿐더러 치아 건강에도 효과적이다. <br/> <br/>9. 아무 간식이나 먹지 말아야 한다. 간식은 골라 먹어야 한다. 간식 중 가장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지방과 단백질이 적고 복합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이다. <br/> <br/>10. 아침식사는 거르지 말아야 한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는 아침식사다. 아침을 먹어야 뇌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돼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또 든든한 아침 식사를 먹으면 점심과 저녁의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 <br/> <br/>한편, 뱃살 빨리 빼는 비결 3가지는 다음과 같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첫번째,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한다.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20분 정도 매주 3일씩 하면 뱃살이 눈에 띄게 사라진다. 달리기나 자전거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운동을 일관된 속도로만 하고 있다면 중간에 10~60초간 전력 질주를 하는 등의 인터벌 트레이닝을 병행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두번째, 지방을 더 섭취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코코넛이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생선, 견과류, 씨앗류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체질량지수가 낮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다고 알려졌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세번째, 녹차를 마신다. 녹차는 면역계를 강화시키고 암 유발 세포를 퇴치하는 효능과 함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열을 내는 효능이 있어 지방 연소 과정을 촉진시킨다. 하루에 녹차 7잔 이상을 마셔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후나 밤늦게 보다는 아침이나 오전 시간대에 마시는 게 좋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43.txt

제목: 美8세 기부천사, 여자라고 조롱해도 "난 머리를 기를 거예요!"  
날짜: 20150604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410017472724  
본문: 천진난만한 표정의 디안.기독교 단체에서 제작한 공익광고를 본 6살(당시) 남자아이는 항암치료로 머리가 빠진 또래 친구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주기로 결심했다. <br/> <br/>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기부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며 디안 토마스(8)의 마음 따뜻해지는 선행을 소개했다. <br/> <br/>지난 2013년 미국 플로리다주 멜버른에 있는 기독교단체 'McPhilamy'는 암으로 고통받는 소아암 환자를 소개하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공익광고를 TV에 방영했다. <br/> <br/>집에서 부모님과 TV를 보던 디안은 또래 친구들이 항암치료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함께 탈모 된 머리를 봤다. <br/> <br/>어린 디안에겐 큰 충격이었을까? 한동안 말없이 TV만 바라보던 디안은 '머리를 길러 친구들에게 주겠다'고 선언했다. <br/> <br/>부모는 아이가 한없이 대견스러웠다. 아이의 생각을 존중했고, 곁에서 디안을 응원하기로 했다. <br/> <br/>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못했다. 칭찬 대신 혹독한 시련이 기부천사에게 다가왔다. <br/> <br/>친구들은 '머리가 길어 창피하다'며 디안을 집단따돌림 했고, 알만한 성인들도 '사내아이가 여자애처럼 머리를 기른다'며 숙덕이기 시작했다. <br/> <br/>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디안은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결정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서다. <br/> <br/>디안의 부모는 아들 옆에서 ‘색안경을 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바빴다' <br/> <br/>그렇게 2년이 지난 후(지난 5월 20일). 디안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정성껏 기른 머리 네 가닥을 탈모로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기부했다. 디안은 기부를 위해 머리를 자르고 있다.디안이 2년간 정성 들여 기른 머리카락. 길이는 약 30cm다.디안의 부모는 인터뷰에서 "아들의 행동에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우린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라고 말했다. <br/> <br/>한편 주인공 디안은 "난 단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라고 밝게 웃으며 인터뷰했다. <br/>"단지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밝게 웃으며 인터뷰한 디안.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영국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페이스 북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44.txt

제목: '렛미인5', 논란을 넘어 감동으로… 어떤 기적 선사할까  
날짜: 20150604  
기자: giba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4100001045  
본문: [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국내 최대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렛미인’이 시즌5를 맞았다.다섯 해 째 시즌을 이어오고 있는 ‘렛미인5’는 외모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여성들이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메이크 오버쇼. 기준마저 모호한 ‘평범함’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지원자들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며, ‘렛미인 닥터스’의 도움을 받아 내·외적으로 단단해진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은 반전의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시즌5에는 안방마님 황신혜와 함께 새롭게 ‘렛미인’를 이끌 세 명의 MC가 추가됐다. 배우 이윤지, 가수 손호영, 방송인 최희가 그 주인공으로, 남다른 감수성과 특유의 긍정 에너지로 새로운 ‘렛미인5’를 완성했다. 특히 ‘렛미인5’에는 한의원, 치과, 내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바디 클리닉, 성형외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연, 지원자들의 변신을 돕는다. 뿐만 아니라 메이크오버의 정점을 찍는 막강 스타일러 군단도 자리하고 있어 역대급 메이크오버를 예고하고 있다.박현우 PD는 4일 서울 청담씨네씨티 3층 M큐브에서 열린 ‘렛미인5’ 제작발표회에서 “<span class='quot0'>렛미인은 성형 프로그램은 아니다</span>”이라고 선을 그으며 “<span class='quot0'>성형을 자존감을 높여줄 수단으로 사용할 뿐, 무조건 외모를 바꾸는 건 아니다</span>”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작기능 등 기능을 못한다거나, 암수술을 해서 가슴이 한쪽이 없는 등 성형수술이 절실한 분들에게 도구로 제공해드리는 것이다. 무조건 성형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하며 “보통 2∼6개월 합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친다. 운동, 치과치료, 취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유독 성형이란 부분만 강조된 것 같다. 성형은 하나의 도구일뿐, 성형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양재진 원장도 “렛미인은 예뻐지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외모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성소수자나 트렌스젠더, 선천성 기형, 기능적 외적 손상 등 삶이 힘든 분들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겉으로는 성형조장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런 역기능들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전했다.‘렛미인’ 안방마님 황신혜는 “사례자들에게 언니같은 느낌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들과 아픔을 공감하고, 편안하게 렛미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늘 해왔던 것처럼, 렛미인들을 따뜻하게 보듬아주는 게 내 역할인 것 같다. 친언니처럼 나가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새롭게 합류한 MC 3인방도 ‘렛미인5’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손호영은 “마음을 다해, 진정성을 갖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고, 최희는 “렛미인은 성형조장 프로그램이 아닌, 고통받는 분들을 돕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 이윤지는 “스스로든 남이든, 고통으로 인해 잠긴 문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끝으로 박현우 PD는 “간접광고의 경우 기준을 마련해서 각 병원에 공지를 했다. 충분히 지켜달라고 말했고, 프로그램과 병원간 협의를 통해 간접광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한편,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에 힘입어 시즌5를 맞은 렛미인은 오는 5일 밤 11시 30분 첫 방송된다. tvN, 스토리온 동시 방송.윤기백 기자 giba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45.txt

제목: 전문의들이 본 ‘메르스 확산 3대 변수’  
날짜: 201506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4100000603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일부는 “이러다가 메르스 통제불능 사태에 빠지는 것 아닌가”하고 우려하며 외출을 삼가고 자녀의 등교를 막는 등 자위책을 마련하고 있다.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0'>메르스 확산 여부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신속한 검사와 완벽한 격리시스템을 갖춰 선제적으로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span>”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메르스 확산과 추가 인명 피해 여부를 좌우할 3대 변수로 ‘공기감염’과 바이러스 변종 출현 여부, 3차 감염자 증가 속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 면역력이 떨어진 만성질환자와 고령자 관리를 꼽는다. 이들 변수에 따라 ‘발원지’ 중동보다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는 메르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공기감염과 바이러스 변종 출현 여부 주목공기감염은 감염을 유발하는 지름 5마이크로미터(㎛) 미만 입자가 공기 중의 먼지와 함께 떠다니다가 사람 폐로 흡입돼 들어오면서 감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기감염은 입자 크기가 작아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도 감염시킬 수 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의 공기감염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비말(飛沫·작은 침 방울)을 손으로 닦는 과정에서 묻은 바이러스를 통해 전파된다고 보고 있다. 메르스 확진 환자들도 첫 환자가 병원에 퍼뜨린 비말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일 메르스의 공기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한 이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WHO는 이날 세계 감염병 발생과 대응 상황을 발표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span class='quot1'>에어로졸(미세입자)이 발생하는 메르스 치료과정에서 반드시 공기매개에 대한 주의(airborne precautions)가 필요하다</span>”고 밝혔다. 그러나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공기감염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span class='quot1'>공기 전파라고 하면 숨을 쉬면서 감염이 되고 감염자가 있는 동네에 가면 걸리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하지만 공기 전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span>”고 말했다. 바이러스의 변이나 변종 출현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2'>현재로서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2'>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 공기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하루에 한 명 꼴로 환자가 생기고 있는 걸 보면 공기감염이라고 보기 어렵다</span>”고 말했다. 최 교수도 “<span class='quot3'>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환자가 급격히 늘었을 때 바이러스 변이 의심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span>”고 밝혔다. 반면 메르스 전문가인 송대섭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전임상학 전공)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span class='quot3'>국내에서 일어난 3차 감염 사례는 매우 흔치 않은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3'>현재로선 변종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span>”고 언급했다. 지금까지는 공기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 앞으로 공기감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는 것이다.해외에서는 실험을 위해 메르스에 감염된 개체(사람)들이 있는 공간의 공기를 포집했는데, 그 속에 메르스의 유전자 절편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유전자들이 전염성이 있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감염자 증가 속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에 촉각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3일에도 감염자가 추가됐다. 이날 확인된 3차 감염자는 전날의 3차 감염자와는 다른 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은 감염자와의 접촉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감염을 말한다. 보건당국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들은 폐쇄된 공간, 즉 감염확산이 잘되는 의료기관에서만 발생한 감염자들이라는 것이다. 당국은 2012년 메르스가 발생한 사우디에서도 지역감염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3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호언이 물거품이 됐고,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면서 불신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4'>3차 감염은 모두 의료기관 내에서 연관돼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감염자에게 가까이 간 적이 없고 관련도 없는 사람이 감염돼야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다</span>”고 말했다. 한국선 경고 표지만 달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30명으로 늘어난 3일 마스크를 쓴 병원 방문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의 메르스 환자 격리치료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재문 기자◆추가 사망 막으려면 만성질환자·고령자 잘 관리해야 보건당국은 50세 이상 고령자와 천식, 만성폐질환 및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당뇨병, 면역저하질환(암, HIV 감염자)을 가진 사람들을 메르스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다. 항암치료, 장기이식을 받았거나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도 이에 포함된다. 사우디에서도 메르스 환자 연령 분포의 중앙값은 50세였다. 국내외의 다수 메르스 사망자가 만성질환과 고령이라는 공통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면역력이 떨어진 만성질환자나 고위험자의 경우 병원 내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가족의 보살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게 감염내과 전문의들의 설명이다.국내 메르스 사망자 2명은 세균성 감염병에 취약한 만성질환 보유자들이었다. 사망자 2명은 모두 호흡기질환을 갖고 있다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돼 상태가 악화해 숨진 것으로 당국은 판단한다. 이들의 지병(기저질환)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추가 사망자도 이들 가운데서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현재 확진 환자 30명 중 적지 않은 수가 만성질환자이자 고령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추가 사망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46.txt

제목: 메르스 사망률, 암ㆍ당뇨병 등 지병 유무에 따라 4배 차이  
날짜: 20150603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24740227  
본문:   <br/> <br/> <br/>평소 건강한 사람은 암ㆍ당뇨병ㆍ만성 콩팥병 등 기존에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에 비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사망률이 1/4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br/> <br/>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주최로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메르스, 그 끝은 어디인가? 가상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에서 주제 발표를 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이재갑 교수는 “<span class='quot0'>현재까지 메르스 환자를 분석한 결과 평소 암ㆍ당뇨병 등 지병을 가진 메르스 환자는 44.3%(515명 중 228명 사망)의 사망률을 보였지만 이런 병이 없는 건강한 메르스 환자의 사망률은 10.7% 수준</span>”이었다고 밝혔다. <br/> <br/>지병 소유 여부가 불분명한 메르스 환자의 사망률은 그 중간인 17%였다. 이 결과는 모두 1018명(외국 발생)의 메르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전체 사망률은 30.4%였다. <br/> <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낙타 등에서 직접 메르스에 감염됐거나 감염 이유가 불분명한 환자의 사망률은 35.8%(667명 중 246명) 2차 감염을 통해 메르스에 걸린 환자의 사망률은 17.9%(351명 중 63명)로 1차 감염자의 절반 수준</span>”이었다고 덧붙였다. <br/> <br/>특히 일반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의 메르스 사망률은 5.7%(159명 중 9명)로 가장 낮았다. <br/> <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국내 메르스 환자 2명도 지병을 갖고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건강한 사람의 메르스 사망률이 평소 중한 지병을 가진 환자들보다 훨씬 낮으므로 요즘처럼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는 각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충분한 휴식ㆍ수면을 취하는 등 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날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성한 교수는 “<span class='quot1'>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난해 4월11일∼6월9일 새 발생한 메르스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의료인의 사망률은 4%였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span>”고 소개했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1'>1차 메르스 감염자에 비해 2차 감염자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1차에서 2차, 3차 환자로 옮겨지면서 독성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2차 감염자가 1차 감염자에 비해 증상을 일찍 발견하고 치료시기가 빨라지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메르스는 2012년 첫 발생 이후 환자 분포도 약간 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암센터 기모란 박사는 “<span class='quot2'>메르스 발생 초기엔 환자의 평균 나이가 56세, 남성이 여성보다 2.8배 많았으나 요즘은 평균 나이가 41세로 줄었고 남녀 비율도 1.3대 1로 완화됐다</span>”고 소개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47.txt

제목: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 개인 재산 10억 쾌척  
날짜: 2015060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24504550  
본문: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차병원그룹은 차광렬 회장이 의사와 환자 치료제 개발 회사가 난치병 극복을 위한 공동 모색의 장인 '난치병 극복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행사에서 난치병 극복 지원금 10억원을 쾌척했다고 3일 밝혔다. <br/> <br/>이번 기부는 지난 1998년 IMF시절 320억원 개인 재산의 사회 환원과 2011년 줄기세포 연구 기금으로 100억원을 쾌척한 것에 이은 것으로 평소 난치병 극복을 위한 치료제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얘기한 차회장의 소신과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r/>  <br/>의사와 환자, 치료제 개발 회사 등 3자간 난치병 극복을 위한 공동 모색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아름다운 동행' 행사에서 차광렬 회장은 현재 차병원그룹의 77개의 난치병 치료제 개발 현황을 직접 소개하고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다. <br/> <br/>또 이 자리에는 현재 임상 중인 난치병 치료제로 상당히 호전된 뇌성마비, 파킨병 의 환자들이 참석해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대한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 <br/> <br/>또한 아름다운 동행에 참석자들 중 일부는 현장에서 즉석 기부를 결정해 25억원 가량의 연구 지원금이 걷히는 등 난치병 극복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br/>  <br/>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은 "병원과 학교 바이오벤처와 제약사 등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발전하는 것이야 말로 새로운 난치병 극복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난치병 치료제 개발과 후학 양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재산을 비롯해 모든 것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차광렬 회장은 IMF 시절 개인 재산 320억원을 기부한 것에 이어 2011년에는 줄기세포 연구 기금으로 100억원을 쾌척했으며 모교인 연세대학교 20억원 규모의 암 연구상을 제정하기도 했다. <br/> <br/>지난 1997년 개교한 차의과학대학교의 전학생, 전액, 전원 장학금 지급으로 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난치병 극복과 후학 양성에 큰 힘을 쏟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48.txt

제목: "고지혈증약 스타틴, 암 사망위험 최고 50% 낮춰"  
날짜: 201506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3100000573  
본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statin)이 암 환자의 사망위험을 최고 50%까지 떨어뜨린다는 놀라운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스탠퍼드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은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Oncology) 연례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영국의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여성건강프로그램관찰연구(WHIOS: Women's Health Initiative Observational Study)에 참가하고 있는 50~79세 여성 14만 6천326명의 평균 14.6년간 조사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연구를 주도한 앤지 웡 연구원이 밝혔다. 조사기간 중 2만 3천67명이 각종 암 진단을 받았고 이 중 3천152명이 사망했다. 전체적으로는 스타틴을 매일 복용하는 여성은 모든 암에 의한 사망위험이 20% 낮았다.그러나 스타틴 복용 여성의 암 종류별 사망률을 보면 대장암은 43%, 유방암은 40%까지 사망위험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흔치는 않지만, 악성 골종양인 뼈암(bone cancer)은 사망위험 감소 효과가 55%로 가장 컸다. 스타틴은 그러나 암을 예방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값싼 약인 스타틴이 암과의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웡 연구원은 지적했다.이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할만한 이유는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항암화학요법보다 더 큰 효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스타틴의 '항암' 메커니즘은 확립된 게 없지만, 콜레스테롤은 암의 전이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는 단순한 관찰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스타틴과 암 사망위험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관성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난 만큼 앞으로 더욱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49.txt

제목: EU연구팀 "여성에게만 생기는 4대 암 단일검사로 확인하는 시대 곧 도래"  
날짜: 20150603  
기자: 불과하다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3100000648  
본문:  여성에게만 생기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 4대 암을 한꺼번에 진단할 수 있는 단일 검사법이 유럽연합(EU) 연구팀에 의해 개발 중이다.EU 1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주도 아래 4년전부터 개발되고 있는 이 획기적인 진단법은 곧 완성돼 임상시험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과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단일 검사법은 자궁경부암 진단에 사용되는 세포진 검사를 통해 자궁경부에서 세포를 추출해 DNA변이, 후성유전학적 변화, 특정 박테리아 존재를 일시에 검사하는 것이라고 연구를 총지휘하고 있는 UCL의 마틴 위드슈벤터 박사는 밝혔다.이를 통해 여성에게는 4대 암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 평가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4대 여성암은 비정상적인 여성호르몬 분비, 자궁경부의 비정상 상피세포 등 동일한 조건에 의해 촉발된다고 그는 밝혔다.특히 자궁경부 내막 세포의 분석은 신체 다른 부위에 있는 유사한 세포들이 정상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그는 지적했다.이 4대 암은 전체 여성 암의 47%를 차지하며 5년 생존율은 40%에 불과하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50.txt

제목: 이훈, 간 질환에 대한 속 시원한 처방전과 운동법 공개  
날짜: 20150603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3100000034  
본문: [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오는 4일 방송예정인 건강의학 정보채널 헬스메디tv의 ‘기찬 처방전 100세 푸드’ 에서는 침묵의 장기인 간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를 탄다. 이날 방송에서는 MC 이훈과 제시카가 각 분야 전문의, 패널들과 함께 간 건강을 주제로 간 질환 별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가정의학과 김세완 원장은 “<span class='quot0'>일반적으로 암은 5년 생존율을 따지는데 간암의 생존율은 다른 암에 비해 50%나 떨어진다</span>” 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에 이훈이 이유를 묻자 내과 김성훈 원장은 “<span class='quot1'>간에서 암이 발생했을 경우 전신으로 전이될 우려가 크며 간암의 존재를 깨달았을 시점엔 이미 전이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span>”이라 답했다.두 원장의 설명을 들은 이훈은 “오늘은 정말 무섭다”며 녹화 시작부터 두려움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병리과 양석우 원장은 간 건강 지키기 처방으로 와인 석 잔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span class='quot1'>와인은 항산화 물질이 많아 이왕 술을 마신다면 와인을 선택하라는 의미</span>”라고 설명하며 “일주일에 석 잔이 적당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간 건강을 주제로 술과 함께 해장법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된다. 이훈은 “시원한 물냉면”을 자신만의 해장법으로 꼽았고 제시카는 “따뜻한 쌀국수로 해장한다”고 밝혔다고. 이에 유영기 원장은 “<span class='quot2'>어떤 것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2'>너무 자극적으로 먹는 것은 위장을 상하게 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span>”고 조언했다. 간 질환에 대한 처방전부터 레시피, 운동법까지 소개하는 ‘기찬 처방전 100세 푸드’ 5회는 오는 4일 밤 11시 건강의학 정보채널 헬스메디tv에서 만나볼 수 있다. ‘기찬 처방전! 100세푸드'는 최신 업데이트 된 건강 및 의학정보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맞춤 식단까지 제안하는 프로그램. 건강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몸짱 배우 이훈과 미녀 요가 강사 제시카가 MC로 호흡을 맞춘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본 방송.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51.txt

제목: 메르스 사망률, 암ㆍ당뇨병 등 지병 유무에 따라 4배 차이  
날짜: 20150603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3100001217  
본문:  평소 건강한 사람은 암ㆍ당뇨병ㆍ만성 콩팥병 등 기존에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에 비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사망률이 1/4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주최로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메르스, 그 끝은 어디인가? 가상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에서 주제 발표를 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이재갑 교수는 “<span class='quot0'>현재까지 메르스 환자를 분석한 결과 평소 암ㆍ당뇨병 등 지병을 가진 메르스 환자는 44.3%(515명 중 228명 사망)의 사망률을 보였지만 이런 병이 없는 건강한 메르스 환자의 사망률은 10.7% 수준</span>”이었다고 밝혔다.지병 소유 여부가 불분명한 메르스 환자의 사망률은 그 중간인 17%였다. 이 결과는 모두 1018명(외국 발생)의 메르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전체 사망률은 30.4%였다.이 교수는 “낙타 등에서 직접 메르스에 감염됐거나 감염 이유가 불분명한 환자의 사망률은 35.8%(667명 중 246명) 2차 감염을 통해 메르스에 걸린 환자의 사망률은 17.9%(351명 중 63명)로 1차 감염자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특히 일반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의 메르스 사망률은 5.7%(159명 중 9명)로 가장 낮았다.이 교수는 “국내 메르스 환자 2명도 지병을 갖고 있었다”며 “건강한 사람의 메르스 사망률이 평소 중한 지병을 가진 환자들보다 훨씬 낮으므로 요즘처럼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는 각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충분한 휴식ㆍ수면을 취하는 등 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성한 교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난해 4월11일∼6월9일 새 발생한 메르스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의료인의 사망률은 4%였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고 소개했다.김 교수는 “1차 메르스 감염자에 비해 2차 감염자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1차에서 2차, 3차 환자로 옮겨지면서 독성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2차 감염자가 1차 감염자에 비해 증상을 일찍 발견하고 치료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메르스는 2012년 첫 발생 이후 환자 분포도 약간 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암센터 기모란 박사는 “메르스 발생 초기엔 환자의 평균 나이가 56세, 남성이 여성보다 2.8배 많았으나 요즘은 평균 나이가 41세로 줄었고 남녀 비율도 1.3대 1로 완화됐다”고 소개했다.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52.txt

제목: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 개인 재산 10억 쾌척  
날짜: 20150603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3100001291  
본문: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차병원그룹은 차광렬 회장이 의사와 환자 치료제 개발 회사가 난치병 극복을 위한 공동 모색의 장인 '난치병 극복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행사에서 난치병 극복 지원금 10억원을 쾌척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1998년 IMF시절 320억원 개인 재산의 사회 환원과 2011년 줄기세포 연구 기금으로 100억원을 쾌척한 것에 이은 것으로 평소 난치병 극복을 위한 치료제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얘기한 차회장의 소신과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사와 환자, 치료제 개발 회사 등 3자간 난치병 극복을 위한 공동 모색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아름다운 동행' 행사에서 차광렬 회장은 현재 차병원그룹의 77개의 난치병 치료제 개발 현황을 직접 소개하고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다.또 이 자리에는 현재 임상 중인 난치병 치료제로 상당히 호전된 뇌성마비, 파킨병 의 환자들이 참석해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대한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또한 아름다운 동행에 참석자들 중 일부는 현장에서 즉석 기부를 결정해 25억원 가량의 연구 지원금이 걷히는 등 난치병 극복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은 "병원과 학교 바이오벤처와 제약사 등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발전하는 것이야 말로 새로운 난치병 극복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난치병 치료제 개발과 후학 양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재산을 비롯해 모든 것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광렬 회장은 IMF 시절 개인 재산 320억원을 기부한 것에 이어 2011년에는 줄기세포 연구 기금으로 100억원을 쾌척했으며 모교인 연세대학교 20억원 규모의 암 연구상을 제정하기도 했다.지난 1997년 개교한 차의과학대학교의 전학생, 전액, 전원 장학금 지급으로 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난치병 극복과 후학 양성에 큰 힘을 쏟고 있다. 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53.txt

제목: '휴먼다큐 카운트다운' 트로트신동 기흠이 근황공개  
날짜: 20150603  
기자: 최정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3100000044  
본문: [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6년 전, SBS '스타킹'에서 트로트 신동으로 화제를 모은 기흠이의 근황이 공개된다.티캐스트 계열의 논픽션 전문 채널 채널 뷰(CH view) 개국 6주년 특집 프로그램 ‘휴먼다큐 카운트다운’에는 어머니를 위한 트로트 신동 기흠이의 애끊는 사모곡이 방송된다. 방송은 3일 오후 11시.지난 2009년 ‘효자 트로트 신동’으로 유명세를 얻었던 조기흠 군은 당시 어머니의 유방암 수술 치료비를 위해 출연한 예능프로그램에서 10살 아이답지 않은 절절한 ‘사모곡’으로 원곡 가수 태진아까지 감동시켰던 주인공이다. ‘휴먼다큐 카운트다운’에는 최근 변성기가 오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1년 동안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현재 국악고등학교에서 판소리에 매진하며 재기를 준비하며 혹독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기흠이의 근황이 공개된다. 특히, 암이 재발해 또 한 차례 수술을 받게 된 어머니의 모습에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는 늦둥이 아들 기흠이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낼 예정. 어머니를 위해 다시 한번 무대에 올라 사모곡을 부르고 싶어하는 기흠 군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휴먼다큐 카운트다운’은 특별한 어느 하루를 기점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휴먼 다큐멘터리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타임슬립기법을 특징으로, 결전의 날을 맞은 주인공의 사연을 밀착 취재해 생동감 있게 보여줄 예정이다.한편, 10일 오후 11시에는 황혼의 나이에도 청춘과 다를 바 없는 사랑, 그리고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그리는 ‘황혼의 로맨스’가 2주간 방송된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54.txt

제목: 늑장·부실 대응… 우려했던 '3차 감염' 현실화  
날짜: 20150603  
기자: 김선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3100000333  
본문: 우려했던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보건당국의 감시 대상에서 누락됐다가 새롭게 발견될 감염자를 우려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자가·시설 격리 대상자도 조만간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격리할 시설도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메르스 사태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3차 감염 발생… 추가 환자 가능성 커2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확인된 3차 감염자는 16번째 감염자 A(40)씨와 함께 병실을 썼던 환자 5명 중 두 명이다. A씨는 지난달 15∼17일 경기도 한 병원에서 최초 감염자 B(68)씨와 같은 층의 다른 병실에 입원했다. A씨는 외래 진료 등을 받다가 최초 감염자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가 메르스 사태 초기에 A씨를 의심환자로 지정하지 않는 바람에 A씨는 격리되기 전에 일반병원 두 곳의 입원실을 거쳤다.A씨는 지난달 28∼30일 경기도의 또 다른 병원 6인실에 입원했는데 여기서 24번째 환자 C(73)씨와 25번째 환자 D(78)씨에게 메르스를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 두 환자는 고령에 호흡기질환과 만성질환, 과거 암치료 이력이 있지만 당장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6인실은 환자가 모두 입원했기 때문에 다른 입원자 3명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확진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27일에도 또 다른 병원의 다인실에 입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의 의료진과 같은 병실의 환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3차 감염자가 위험한 이유는 이처럼 보건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메르스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 이에 맞춰 적절할 조치와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를 경우에는 자칫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앞으로 A씨 같은 3차 감염자 혹은 4차, 5차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보건당국도 추적조사에 힘을 쏟고 있다. B씨는 충남 아산과 경기 평택, 서울 등 여러 지역의 병원에 들렀다. 1일 숨진 환자 한 명도 평택에서 화성의 병원으로 옮겨갔다. 이들처럼 지역을 넘나든 확진 환자들이 많아 추적 대상 범위는 수도권과 대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이날 인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를 타고 중국으로 출국한 중국인 승객 1명도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돼 격리됐다. 제주항공은 같은 여객기가 인천으로 돌아올 때 의심환자가 앉았던 좌석 열을 포함해 앞·뒤로 총 7개 열을 비우고 탑승한 승객 전원에게 마스크를, 승무원들에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시켰다.관계장관회의 첫 소집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총리 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김범준 기자◆메르스 의심환자 폭증… 격리시설 부족이미 공식적인 자가·시설격리 대상만 750명에 이르고 있다.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이날 “현재 격리대상자 수치보다 상당 배수 높은 수치를 분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심환자가 급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격리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이나 신종인플루엔자 등으로 여러 차례 홍역을 치렀지만 그때마다 미봉책으로 일관한 탓이다.전국의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상은 17개 병원에 음압병상 105개, 일반병상 474개에 불과하다. 음압병실은 병실 안팎의 공기가 차단돼 외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 격리병실이다. 음압병상 중에는 다인실이 포함돼 있어 혼자 병실을 써야 하는 메르스 환자를 수용하기엔 적절치 않다. 초기 확진 환자들은 주로 수도권의 격리병상으로 이송했으나 현재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다른 지역의 격리 시설로 이송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의 모 병원 인근 학교들이 일제히 휴교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2일 오후 학생들이 귀가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정부는 궁여지책으로 기존에 음압병실을 사용하는 결핵환자 등 다른 감염병 환자 가운데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 퇴원이나 다른 일반 격리병실로 이송을 추진하고 있다. 부족한 병실을 확보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의 음압병상도 활용할 계획이다.세종=조병욱 기자, 김선영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55.txt

제목: 전문의들이 본 ‘메르스 확산 3대 변수’  
날짜: 20150603  
기자: 박태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310017472653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일부는 “이러다가 메르스 통제불능 사태에 빠지는 것 아닌가”하고 우려하며 외출을 삼가고 자녀의 등교를 막는 등 자위책을 마련하고 있다.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0'>메르스 확산 여부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신속한 검사와 완벽한 격리시스템을 갖춰 선제적으로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span>”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메르스 확산과 추가 인명 피해 여부를 좌우할 3대 변수로 ‘공기감염’과 바이러스 변종 출현 여부, 3차 감염자 증가 속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 면역력이 떨어진 만성질환자와 고령자 관리를 꼽는다. 이들 변수에 따라 ‘발원지’ 중동보다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는 메르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br/>◆공기감염과 바이러스 변종 출현 여부 주목 <br/> <br/>공기감염은 감염을 유발하는 지름 5마이크로미터(㎛) 미만 입자가 공기 중의 먼지와 함께 떠다니다가 사람 폐로 흡입돼 들어오면서 감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기감염은 입자 크기가 작아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도 감염시킬 수 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의 공기감염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비말(飛沫·작은 침 방울)을 손으로 닦는 과정에서 묻은 바이러스를 통해 전파된다고 보고 있다. 메르스 확진 환자들도 첫 환자가 병원에 퍼뜨린 비말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r/> <br/>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일 메르스의 공기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한 이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WHO는 이날 세계 감염병 발생과 대응 상황을 발표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span class='quot1'>에어로졸(미세입자)이 발생하는 메르스 치료과정에서 반드시 공기매개에 대한 주의(airborne precautions)가 필요하다</span>”고 밝혔다. <br/> <br/>그러나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공기감염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span class='quot1'>공기 전파라고 하면 숨을 쉬면서 감염이 되고 감염자가 있는 동네에 가면 걸리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하지만 공기 전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span>”고 말했다. <br/> <br/>바이러스의 변이나 변종 출현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2'>현재로서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2'>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 공기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하루에 한 명 꼴로 환자가 생기고 있는 걸 보면 공기감염이라고 보기 어렵다</span>”고 말했다. 최 교수도 “<span class='quot3'>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환자가 급격히 늘었을 때 바이러스 변이 의심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span>”고 밝혔다. <br/> <br/>반면 메르스 전문가인 송대섭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전임상학 전공)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span class='quot3'>국내에서 일어난 3차 감염 사례는 매우 흔치 않은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3'>현재로선 변종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span>”고 언급했다. 지금까지는 공기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 앞으로 공기감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는 것이다. <br/> <br/>해외에서는 실험을 위해 메르스에 감염된 개체(사람)들이 있는 공간의 공기를 포집했는데, 그 속에 메르스의 유전자 절편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유전자들이 전염성이 있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3차 감염자 증가 속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에 촉각 <br/> <br/>메르스가 확산되면서 3일에도 감염자가 추가됐다. 이날 확인된 3차 감염자는 전날의 3차 감염자와는 다른 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은 감염자와의 접촉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감염을 말한다. <br/> <br/>보건당국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들은 폐쇄된 공간, 즉 감염확산이 잘되는 의료기관에서만 발생한 감염자들이라는 것이다. 당국은 2012년 메르스가 발생한 사우디에서도 지역감염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3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호언이 물거품이 됐고,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면서 불신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4'>3차 감염은 모두 의료기관 내에서 연관돼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감염자에게 가까이 간 적이 없고 관련도 없는 사람이 감염돼야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다</span>”고 말했다. <br/> <br/>한국선 경고 표지만 달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30명으로 늘어난 3일 마스크를 쓴 병원 방문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의 메르스 환자 격리치료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br/>이재문 기자◆추가 사망 막으려면 만성질환자·고령자 잘 관리해야 <br/> <br/>보건당국은 50세 이상 고령자와 천식, 만성폐질환 및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당뇨병, 면역저하질환(암, HIV 감염자)을 가진 사람들을 메르스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다. 항암치료, 장기이식을 받았거나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도 이에 포함된다. 사우디에서도 메르스 환자 연령 분포의 중앙값은 50세였다. 국내외의 다수 메르스 사망자가 만성질환과 고령이라는 공통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면역력이 떨어진 만성질환자나 고위험자의 경우 병원 내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가족의 보살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게 감염내과 전문의들의 설명이다. <br/> <br/>국내 메르스 사망자 2명은 세균성 감염병에 취약한 만성질환 보유자들이었다. 사망자 2명은 모두 호흡기질환을 갖고 있다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돼 상태가 악화해 숨진 것으로 당국은 판단한다. 이들의 지병(기저질환)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추가 사망자도 이들 가운데서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현재 확진 환자 30명 중 적지 않은 수가 만성질환자이자 고령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추가 사망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br/> <br/>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56.txt

제목: 경기북부 메르스 유언비어 확산… 시민 불안·공포 커져  
날짜: 20150602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24005031  
본문: 경기북부 지역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루머)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br/> <br/>2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지인에게 들었는데 고양지역 한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는데 사망했다더라"라는 글이 퍼졌다. 그러나 해당 병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br/> <br/>의정부 지역의 한 종합병원 역시 같은 유언비어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br/> <br/>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경기도 양주지역에 메르스 의심 환자 2명이 확인됐다"며 "1명은 육군 모 부대 군인으로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됐으며, 다른 1명은 말기암 환자로 서울 모병원에서 정밀 검사 중"이라는 내용이 올라와 순식간에 확산됐다. <br/> <br/>이에 해당 보건소는 "글에 언급된 군인은 급성편도선염이었고, 말기 암환자는 모니터링 대상으로 아무 증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br/> <br/>한 인터넷 매체는 "남양주 지역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남양주시 보건소 측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이 1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받아 2차 검사 중"이라며 "남양주가 아닌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관내 접촉자는 없다"는 해명글을 올렸다. <br/> <br/>메르스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각종 근거 없는 유언비어까지 나돌면서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근거 없는 소문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57.txt

제목: 美 고3학생들 졸업여행 거부, 이유는 '교장 선생님 수술비 마련' 때문  
날짜: 2015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2100000755  
본문: 학생들의 깜짝 발표에 결국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교장 코티.미국 고3학생들이 일생일대의 추억인 졸업여행을 포기하고, 여행비용을 암에 걸린 교장 선생님 수술비로 기부한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최근 미국 WMUR TV는 고3학생들이 교장 선생님 수술비 마련을 위해 졸업여행 포기했다며,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에 교장 선생님은 감동에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했다.미국 베들레헴 뉴햄프셔에 위치한 프로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여행에 들떠 있었다.하지만 기쁨도 잠시. 교장 코티 바르쇼의 암 진단 소식이 전해졌다.학생들은 고민에 빠졌다. 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졸업여행을 앞둔 시점에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이 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현명했다. '여행을 가더라도 즐겁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찬반투표를 시행했다.'혹시나'는 걱정은 '역시나'였다. 투표결과 '수학여행 포기'에 만장일치가 됐다.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여행비용을 모아 교장 선생님 암 수술비로 기부했다."내가 이런 도움을 받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교장 코티는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학생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뿐"이라고 말하며 더 많은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졸업여행을 대신해 모금행사를 열었다. 이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생님이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사진= WMUR TV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58.txt

제목: 암 극복 92세 철녀의 ‘마라톤 투혼’  
날짜: 20150602  
기자: anarchyn@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2100000361  
본문: 두 차례 암과 투병했던 92세 여성이 불굴의 투혼을 발휘하며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인 해리엇 톰프슨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로큰롤 마라톤 풀코스(42.195㎞)를 7시간24분36초 만에 주파해 여성 최고령 풀코스 완주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의 이날 나이는 92세 65일로, 2010년 글래디스 버릴이 호놀룰루 마라톤에서 세운 기록(92세19일)을 한 달가량 늘렸다.지난해 7시간7분42초로 풀코스를 완주해 90대 이상 여자부 세계기록을 1시간30분 정도 앞당긴 바 있는 톰프슨은 “<span class='quot0'>두 차례나 암을 이겨낸 철녀</span>”라고 AP통신은 소개했다. 그는 올해 1월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고 다리 한쪽이 포도상구균에 감염돼 힘겨운 시기를 겪었다. 톰프슨은 “위독한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리 치료를 받느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완주를 했다는 사실이 그저 기쁠 뿐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사실 그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세 차례나 공연한 클래식 피아니스트 출신.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에게서 백혈병, 림프종 환자 돕기 모금을 위한 마라톤 참여를 권유받은 것을 계기로 76세 때 마라톤에 입문한 그는 이날까지 모두 16차례 로큰롤 마라톤을 완주했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59.txt

제목: 전동 칫솔 과신해 양치질 소홀히 하면 치매·심장질환 유발한다.  
날짜: 20150602  
기자: admin369@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2100001018  
본문:  2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전동 칫솔 등을 과신해 양치질 할 때 칫솔질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치아와 구강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2주 동안 값비싼 최신의 전동칫솔과 치약 및 구 강청결제만 사용하고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치아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밝혀졌다.2주간 지난 잇몸에선 풍치, 즉 치주염이 발생했으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치아를 손실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또한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한 영국 버밍햄 치과대학의 채플 교수는 "2주동안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의 백혈구 세포에 세균을 주입했을 때 인체 내 면역시스템이 손상된 된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채플 교수는 "외부 세균이 침입했을 때 격렬하게 맞서 싸웠던 백혈구 세포가 힘없이 천천히 움직이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잇몸 염증이 신체 전체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인체가 세균에 감염되면 피부가 빨개지고 부풀려 오르지만,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치주염과 같은 만성염증에 시달리면 면역시스템이 손상되어 건강이 위험해 질 수 있다.세균 감염 후 백혈구 세포의 활동이 변했듯이 만성 염증이 인체 내 다른 장기와 혈액순환을 통해서 다른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 채플 교수는 "인체 내 만성 염증이 심장 질환, 제 2 형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중풍 및 각종 암 발생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최근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음으로 만성치주염 치료도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채플 교수는 "치주염과 인체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어릴 적 양치질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며 "양치질 하는 횟수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법이다"고 말했다.이에 치주염 발생이 칫솔의 종류나 가격에는 크게 상관없고 전동칫솔이 일반 칫솔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단정지어 확언할 수 없기에 양치질 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시간에 따라 일반 칫솔이 치아 및 구강 건강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네 종류의 치아미백용 키트를 10일간 사용한 후 확인한 결과 미백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적인 치아 치료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방법이다.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60.txt

제목: 불안감 확산시키는 메르스 유언비어 내용보니‘피해 병원 고소 등 적극 대응’  
날짜: 2015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2100000121  
본문:  경기 북부지역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한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에 피해 병원은 관련 글 게시자를 고소하거나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2일 오전 유명 인터넷 카페에 “지인에게 들었는 데 고양지역 한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는데 사망했다더라”라는 글이 올랐다. 해당 병원 측은 즉각 글을 삭제한 뒤 사실이 아니라며 게시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의정부지역의 한 종합병원도 같은 피해를 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날 지역 인터넷 카페에도 “경기도 양주지역에 메르스 의심 환자 2명이 확인됐다”는 글이 게시됐다.이 글엔 “1명은 육군 모 부대 군인으로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됐으며, 다른 1명은 말기암 환자로 서울 모병원에서 정밀 검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이 글은 빠르게 확산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높였다.해당 보건소는 “글에 언급된 군인은 급성편도선염이었고, 말기 암환자는 모니터링 대상으로 아무 증상이 없었다”고 밝혔다.또 한 인터넷 매체가 “남양주지역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해 해당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이에 보건소 측은 홈페이지에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이 1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어 2차 검사 중이며 남양주가 아닌 외부 병원에서 입원 중이어서 관내 접촉자가 없다”는 글을 올려 안심시키기도 했다.보건당국 관계자는 “루머가 인터넷 등을 통해 무차별 확산하고 고열만 나도 감염 환자로 몰고 있다”며 “근거없는 소문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61.txt

제목: 경기북부 '메르스' 유언비어에 불안감 확산  
날짜: 2015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2100000339  
본문: 경기북부지역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피해 병원은 관련 글 게시자를 고소하거나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2일 오전 유명 인터넷 카페에 "지인에게 들었는데 고양지역 한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는데 사망했다더라"라는 글이 올랐다.해당 병원 측은 즉각 글을 삭제한 뒤 사실이 아니라며 게시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의정부지역의 한 종합병원도 같은 피해를 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날 지역 인터넷 카페에도 "경기도 양주지역에 메르스 의심 환자 2명이 확인됐다"는 글이 게시됐다.이 글엔 "1명은 육군 모 부대 군인으로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됐으며, 다른 1명은 말기암 환자로 서울 모병원에서 정밀 검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이 글은 빠르게 확산, 시민들의 불안감을 높였다.해당 보건소는 "글에 언급된 군인은 급성편도선염이었고, 말기 암환자는 모니터링 대상으로 아무 증상이 없었다"고 밝혔다.또 한 인터넷 매체가 "남양주지역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해 해당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이에 보건소 측은 홈페이지에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이 1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어 2차 검사 중이며 남양주가 아닌 외부 병원에서 입원 중이어서 관내 접촉자가 없다"는 글을 올려 안심시키기도 했다.보건당국 관계자는 "루머가 인터넷 등을 통해 무차별 확산하고 고열만 나도 감염 환자로 몰고 있다"며 "근거 없는 소문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62.txt

제목: 경기북부 메르스 유언비어 확산… 시민 불안·공포 커져  
날짜: 20150602  
기자: hhy@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2100000727  
본문: 경기북부 지역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루머)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2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지인에게 들었는데 고양지역 한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는데 사망했다더라"라는 글이 퍼졌다. 그러나 해당 병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경찰에 신고했다.의정부 지역의 한 종합병원 역시 같은 유언비어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경기도 양주지역에 메르스 의심 환자 2명이 확인됐다"며 "1명은 육군 모 부대 군인으로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됐으며, 다른 1명은 말기암 환자로 서울 모병원에서 정밀 검사 중"이라는 내용이 올라와 순식간에 확산됐다.이에 해당 보건소는 "글에 언급된 군인은 급성편도선염이었고, 말기 암환자는 모니터링 대상으로 아무 증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 인터넷 매체는 "남양주 지역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남양주시 보건소 측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이 1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받아 2차 검사 중"이라며 "남양주가 아닌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관내 접촉자는 없다"는 해명글을 올렸다.메르스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각종 근거 없는 유언비어까지 나돌면서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근거 없는 소문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63.txt

제목: 늑장·부실 대응… 우려했던 '3차 감염' 현실화  
날짜: 20150602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210017467340  
본문: 우려했던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보건당국의 감시 대상에서 누락됐다가 새롭게 발견될 감염자를 우려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자가·시설 격리 대상자도 조만간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격리할 시설도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메르스 사태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br/> <br/>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br/>◆3차 감염 발생… 추가 환자 가능성 커 <br/> <br/>2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확인된 3차 감염자는 16번째 감염자 A(40)씨와 함께 병실을 썼던 환자 5명 중 두 명이다. A씨는 지난달 15∼17일 경기도 한 병원에서 최초 감염자 B(68)씨와 같은 층의 다른 병실에 입원했다. A씨는 외래 진료 등을 받다가 최초 감염자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가 메르스 사태 초기에 A씨를 의심환자로 지정하지 않는 바람에 A씨는 격리되기 전에 일반병원 두 곳의 입원실을 거쳤다. <br/> <br/>A씨는 지난달 28∼30일 경기도의 또 다른 병원 6인실에 입원했는데 여기서 24번째 환자 C(73)씨와 25번째 환자 D(78)씨에게 메르스를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 두 환자는 고령에 호흡기질환과 만성질환, 과거 암치료 이력이 있지만 당장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6인실은 환자가 모두 입원했기 때문에 다른 입원자 3명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확진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27일에도 또 다른 병원의 다인실에 입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의 의료진과 같은 병실의 환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br/> <br/>3차 감염자가 위험한 이유는 이처럼 보건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메르스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 이에 맞춰 적절할 조치와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를 경우에는 자칫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앞으로 A씨 같은 3차 감염자 혹은 4차, 5차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보건당국도 추적조사에 힘을 쏟고 있다. B씨는 충남 아산과 경기 평택, 서울 등 여러 지역의 병원에 들렀다. 1일 숨진 환자 한 명도 평택에서 화성의 병원으로 옮겨갔다. 이들처럼 지역을 넘나든 확진 환자들이 많아 추적 대상 범위는 수도권과 대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br/> <br/>이날 인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를 타고 중국으로 출국한 중국인 승객 1명도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돼 격리됐다. 제주항공은 같은 여객기가 인천으로 돌아올 때 의심환자가 앉았던 좌석 열을 포함해 앞·뒤로 총 7개 열을 비우고 탑승한 승객 전원에게 마스크를, 승무원들에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시켰다. <br/> <br/>관계장관회의 첫 소집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총리 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br/>김범준 기자◆메르스 의심환자 폭증… 격리시설 부족 <br/> <br/>이미 공식적인 자가·시설격리 대상만 750명에 이르고 있다.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이날 “현재 격리대상자 수치보다 상당 배수 높은 수치를 분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심환자가 급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격리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이나 신종인플루엔자 등으로 여러 차례 홍역을 치렀지만 그때마다 미봉책으로 일관한 탓이다. <br/> <br/>전국의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상은 17개 병원에 음압병상 105개, 일반병상 474개에 불과하다. 음압병실은 병실 안팎의 공기가 차단돼 외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 격리병실이다. 음압병상 중에는 다인실이 포함돼 있어 혼자 병실을 써야 하는 메르스 환자를 수용하기엔 적절치 않다. 초기 확진 환자들은 주로 수도권의 격리병상으로 이송했으나 현재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다른 지역의 격리 시설로 이송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br/> <br/>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의 모 병원 인근 학교들이 일제히 휴교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2일 오후 학생들이 귀가 하고 있다. <br/>이재문기자정부는 궁여지책으로 기존에 음압병실을 사용하는 결핵환자 등 다른 감염병 환자 가운데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 퇴원이나 다른 일반 격리병실로 이송을 추진하고 있다. 부족한 병실을 확보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의 음압병상도 활용할 계획이다. <br/> <br/>세종=조병욱 기자, 김선영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64.txt

제목: 암 극복 92세 철녀의 ‘마라톤 투혼’  
날짜: 20150601  
기자: 유태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110017456391  
본문: 두 차례 암과 투병했던 92세 여성이 불굴의 투혼을 발휘하며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 <br/> <br/>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인 해리엇 톰프슨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로큰롤 마라톤 풀코스(42.195㎞)를 7시간24분36초 만에 주파해 여성 최고령 풀코스 완주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의 이날 나이는 92세 65일로, 2010년 글래디스 버릴이 호놀룰루 마라톤에서 세운 기록(92세19일)을 한 달가량 늘렸다. <br/> <br/>지난해 7시간7분42초로 풀코스를 완주해 90대 이상 여자부 세계기록을 1시간30분 정도 앞당긴 바 있는 톰프슨은 “<span class='quot0'>두 차례나 암을 이겨낸 철녀</span>”라고 AP통신은 소개했다. 그는 올해 1월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고 다리 한쪽이 포도상구균에 감염돼 힘겨운 시기를 겪었다. 톰프슨은 “위독한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리 치료를 받느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완주를 했다는 사실이 그저 기쁠 뿐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br/> <br/>사실 그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세 차례나 공연한 클래식 피아니스트 출신.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에게서 백혈병, 림프종 환자 돕기 모금을 위한 마라톤 참여를 권유받은 것을 계기로 76세 때 마라톤에 입문한 그는 이날까지 모두 16차례 로큰롤 마라톤을 완주했다. <br/> <br/>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65.txt

제목: 英암연구소 "새 항암제 '이브랜스' 진행성 유방암 억제에 탁월한 효과 있다" 입증  
날짜: 20150601  
기자: yjchoo@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1100000916  
본문: 진행성 유방암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새로운 항암제가 주목받고 있다.화이자 제약회사가 개발한 새 항암제 이브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는 진행성 유방암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영국 암연구소의 니컬러스 터너 박사는 암세포가 전이된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 항에스트로겐제제 풀베스트란트와 함께 이브랜스를 병행 투여하면 풀베스트란트 단독 투여보다 유방암의 진행을 2배 이상 지연시킬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AFP통신과 헬스데이 뉴스가 30일 보도했다.가장 흔한 형태의 진행성 유방암인 호르몬수용체 양성 유방암과 인간표피성장인자2(HER2)음성 유방암 환자로 풀베스트란트가 투여되고 있는 521명(평균연령 57세)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만 이브랜스를 추가 투여한 결과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터너 박사는 밝혔다.병행 투여 그룹은 유방암의 진행이 9.2개월이나 억제됐다. 이는 풀베스트란트 단독 투여 그룹의 3.8개월에 비해 2배가 넘는 기간이다.그러나 이브랜스가 실제로 진행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티 오브 호프 암센터(City of Hope Cancer Center) 여성암  프로그램실장 조앤 모티머 박사는 암의 진행이 5개월 더 억제됐다는 것은 대단한 결과라고논평했다.지난 2월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로 승인받은 이브랜스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유방암을 촉진하는 두 가지 단백질을 억제한다.이 임상시험 결과는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되는 동시에 의학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온라인판에 게재됐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66.txt

제목: 암 극복한 92세 철녀, 여성 최고령 마라톤 완주 기록  
날짜: 2015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1100000063  
본문: 여성 마라톤에서 불굴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신기록이 수립됐다. 주인공은 암을 극복하고 92세 고령에 42.195㎞ 풀코스를 완주한 미국 출신 해리에트 톰프슨(92)이다. 톰프슨은 5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로큰롤 마라톤에서 7시간 24분 36초 만에 결승선을 주파했다. 그는 92세 65일의 나이로 완주에 성공해 이 부문 최고령자로 기록됐다. 종전 기록은 92세 19일의 나이로 2010년 호놀룰루 마라톤을 완주한 글래디스 버릴이 보유하고 있었다. 톰프슨은 작년에 7시간 7분 42초로 풀코스를 완주해 90대 이상 여자부 세계기록을 1시간 30분 정도 앞당기기도 했다. AP통신은 톰프슨을 두 차례나 암을 이겨낸 철녀로 소개했다. 이날 결승선 근처에는 톰프슨의 사연을 전해 들은 참가자와 시민 등이 몰려들어 최고령 기록의 수립을 축하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거주하는 톰프슨은 무려 16차례나 로큰롤 마라톤을 완주했다. 톰프슨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도전이 어느 때보다 힘겨웠다고 털어놓았다.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고 다리 한쪽이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온전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모친을 응원하고자 56세 아들 브레니도 완주에 함께 했다. 톰프슨은 "위독한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리 치료를 받으면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완주를 했다는 사실에 그냥 기쁠 뿐"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는 음악가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세 차례나 공연한 클래식 피아니스트로서 육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무려 76세가 돼서야 마라톤에 입문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이 백혈병, 림프종 환자를 위한 모금을 도와달라며 마라톤 동참을 권유한 게 계기였다. 톰프슨은 "그때 가족 여러 명을 암으로 잃었기 때문에 막연히 뛰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며 "그냥 걸을까 했는데 옆에서 다들 뛰니까 나도 엉겁결에 뛰기 시작했다"고 마라톤에 입문한 시절을 돌아봤다. 그렇게 시작한 마라톤을 통해 지금까지 모은 백혈병, 림프종 환자 돕기 기금도 1억여 원에 달한다. 그는 내년에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했으나 상황은 작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67.txt

제목: [강상헌의 만史설문] ‘어리석은 미치광이’ 속뜻의 치매… 모욕적인 그 병명 내쳐라  
날짜: 2015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1100000403  
본문: 우리 분단의 역사가 당시 강대국 지도자들의 지적(知的) 장애에 의한 판단착오였을 수 있다는 게 의학계에서 회자되는 쑥덕공론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마무리를 위한 1945년 얄타회담의 멤버들인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이 다 뇌혈관장애를 겪고 있었다는 것. 회담 결과는 남북 분단, 6·25전쟁으로도 이어졌다. 그 ‘장애’가 그들의 판단력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지 확인할 도리는 없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는 개연성(蓋然性)까지 지워버릴 수는 없다. 역사의 한 대목이다. 생각보다 이 질환은 우리와 가깝다.치매(癡?)라는 이름의 속뜻이 모욕적이고, 결과적으로 해당자를 차별 또는 멸시하는 이름이어서 문제라는 생각을 짤막한 칼럼으로 펴보인 적이 있다. 댓글이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고마운 지혜를 보내주신 분들이 적지 않았다. 멀리 아르헨티나에서는 교민 권명숙씨가 “한자로 된 점잖은 말인 줄만 알았다. 속뜻 알고는 슬펐다. 고쳐 부를 어진 말 만들어주기를 당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물론 ‘이미 굳어진 병명, 속뜻까지 들춰 뭐 하자는 거냐’는 투의 힐난도 없지 않았다. 영화 ‘닥터 지바고’의 오마 샤리프. 그 아름다운 사람도 이 질병을 피해가지는 못했다.‘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성’이라고들 했던 영화 ‘닥터 지바고’의 배우 오마 샤리프가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의 고국 이집트와, 활동 무대인 파리에서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던 15년 전의 대화, 그 깊고 맑은 눈이 떠올랐다. ‘어리석은 미치광이’란 속뜻의 꾸밈말 ‘치매’가 그리운 그의 이름 앞에도 붙어 있으니 문득 서글프다. 배우 출신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퇴임 후인 1994년 자신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고 이로 인해 인지기능장애를 겪고 있다고 종이에 직접 쓴 ‘내 친구 미국인들에게’로 시작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신의 상황을 알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에 관해 알고 예방하는 일에 나서게 될 것을 기뻐한다는 내용, 인간의 품격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다.이 얘기에서 알츠하이머병이나 인지기능장애를 ‘치매’로 번역하지 않은 그 신문 담당자의 사려 깊음을 필자는 주목한다. 레이건이 말한 알츠하이머병, 인지기능장애는 우리 사회의 치매다. 권명숙씨는 “<span class='quot0'>여기서는 그 병을 데멘지아(demencia)라고 부른다</span>”고 알려왔다. 스페인 말이다. 영어로는 철자 비슷한 dementia[디멘시아]다. 분리나 제거 등을 뜻하는 ‘de-’나 정신이나 마음 mental[멘탈]이 합쳐졌으니 ‘정신이 없어진 상태’로 읽을 수 있는 말이다. 인지기능의 부재(不在)나 장애인 것이다. ‘다시 아기가 되는 병’이라고 어떤 자료는 설명한다. 인간의 존엄을, 약자의 자존을 해치지 않는 착한 말일 터.포털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치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로 시작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는 문제가 있다.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은 dementia다. 치매의 어원이 라틴어라는 ‘주장’은 이래서 사뭇 어리석다. 우리가 치매라는 말로 쓰는 질병 디멘시아의 어원이 라틴어라고 풀어야 옳다. dementia의 뜻을 우리 사전은 ‘치매’라고 푼다. 이 단어가 우리 사회는 물론 의학이나 병원에서 부르는 ‘공식 이름’이다. 곧 주류(主流)이고 메이저인 것이다. 대세이고 기왕의 질서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병을 스스로 고백하여 세계에 감동을 줬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그런데 이는 흔들면 안 되는 진리일까? 치매, 디멘시아, 알츠하이머 등이 우리 모두의 걱정거리가 되기 전, 이 말 치매는 노망(老妄)과 함께 ‘늙어서 하릴없이 망령에 들게 된 노인’이나 그들의 행위를 (비하하여) 이르는 말이었다. 우리 사회는, 특히 노년층은 이 말을 ‘대뇌 신경 세포의 손상 따위로 말미암아 지능 의지 기억 따위가 지속적 본질적으로 상실되는 병. 주로 노인에게 나타난다’는 의학용어 이전에 ‘어리석은 미치광이’란 말로 인식한다. 대부분 어른들이 ‘치매검사 받아보시라’ 하면 서운해하고 심지어 크게 화를 내는 이유다. 욕이나 비난으로까지 들리는 것이다.젊은 세대들은 왜 ‘어른들’이 치매란 말에 그리도 민감할까 푸념한다. 그러면서도 이유를 궁리하거나 대안을 찾으려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나 어른 등 가족이 ‘치매’와 관련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의당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지랄(병)은 간질(癎疾)이란 말로 바꿔 쓴다. 문둥병은 나병(癩病) 또는 한센(Hansen)병이다. 염병이란 말 대신에 장티푸스라는 이름을 단다. 전통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그 이름이 차별과 멸시의 수단 또는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대응하는 세상의 지혜다. 역지사지의 배려이고. 암(癌)처럼 이 질병은 우리의 큰 걱정거리다. 더 심해질 것이다. ‘생각조차 끔찍하다’는 이름의 거부감이 또한 조기진단과 쉬운 치료를 방해한다. 사회적 비용의 증가도 부르는 것이다. 고약한 속뜻과 모욕적인 과거를 가진 이 이름 치매를 대신할 새 이름이 필요한 이유다. ‘인지(기능)장애’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장에서 이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다.강상헌 언론인·우리글진흥원 원장 인지기능장애(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문둥병자’란 말 대신 ‘한센병자’, ‘나병환자’라는 배려 섞인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배려가 이 질병에도 필요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사족(蛇足)치(癡)나 매(?) 글자가 원래 그러한 인지장애에 쓰이는 말이었을까? 그 글자의 다른 쓰임새를 살피면 답이 나온다. ‘아니요’다. 癡나 痴[癡의 속자(俗字)]를 포함한 말은 ‘글에 미쳤다’는 서치(書癡)란 옛말 하나 빼고는 거의 뜻이 곱지 않다. 치한(癡漢), 치골(癡骨), 치둔(癡鈍), 치롱(癡聾), 치언(癡言), 치인(癡人), 치자(癡者), 치태(癡態), 치행(癡行), 치화(癡話) 등 가치 부정적인, 지적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말들이다.?는 한자가 그림임을 새삼스럽게 보여준다. 포대기에 싼 아기 모습이다. 아들 자(子)와 비슷하지만, 어리석다는 뜻으로 쓰인다.한의학의 매병(?病·정신병의 하나) 말고는 그 쓰임새가 많지 않다. 중국에서는 ‘체매’라 하여 ‘생기 없다’, ‘눈빛이 갔다’는 숙어로 쓰인다.다시 의문을 제기한다. 어떻게 ‘치매’가 ‘의학용어’로 자리 잡았는지, 적절한 절차를 밟은 결과인지를 묻는 것이다. 병 이름이기 전에도 치매란 단어는 있었다. ‘언어 동작이 느리고 정신작용이 완전하지 못함. 어리석음’(사전)이라는 뜻이었다. 표현은 점잖지만, 사실은 욕이다. 노망이라는 것이다. 이 전 칼럼에서 필자는 ‘배려 없는, 무정한 말’이라고 그 말을 평가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68.txt

제목: [강상헌의 만史설문] ‘어리석은 미치광이’ 속뜻의 치매… 모욕적인 그 병명 내쳐라  
날짜: 20150531  
기자: 서필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3110017443443  
본문: 우리 분단의 역사가 당시 강대국 지도자들의 지적(知的) 장애에 의한 판단착오였을 수 있다는 게 의학계에서 회자되는 쑥덕공론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마무리를 위한 1945년 얄타회담의 멤버들인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이 다 뇌혈관장애를 겪고 있었다는 것. 회담 결과는 남북 분단, 6·25전쟁으로도 이어졌다. 그 ‘장애’가 그들의 판단력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지 확인할 도리는 없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는 개연성(蓋然性)까지 지워버릴 수는 없다. 역사의 한 대목이다. 생각보다 이 질환은 우리와 가깝다. <br/> <br/>치매(癡?)라는 이름의 속뜻이 모욕적이고, 결과적으로 해당자를 차별 또는 멸시하는 이름이어서 문제라는 생각을 짤막한 칼럼으로 펴보인 적이 있다. 댓글이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고마운 지혜를 보내주신 분들이 적지 않았다. 멀리 아르헨티나에서는 교민 권명숙씨가 “한자로 된 점잖은 말인 줄만 알았다. 속뜻 알고는 슬펐다. 고쳐 부를 어진 말 만들어주기를 당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물론 ‘이미 굳어진 병명, 속뜻까지 들춰 뭐 하자는 거냐’는 투의 힐난도 없지 않았다. <br/> 영화 ‘닥터 지바고’의 오마 샤리프. 그 아름다운 사람도 이 질병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br/>‘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성’이라고들 했던 영화 ‘닥터 지바고’의 배우 오마 샤리프가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의 고국 이집트와, 활동 무대인 파리에서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던 15년 전의 대화, 그 깊고 맑은 눈이 떠올랐다. ‘어리석은 미치광이’란 속뜻의 꾸밈말 ‘치매’가 그리운 그의 이름 앞에도 붙어 있으니 문득 서글프다. 배우 출신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퇴임 후인 1994년 자신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고 이로 인해 인지기능장애를 겪고 있다고 종이에 직접 쓴 ‘내 친구 미국인들에게’로 시작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신의 상황을 알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에 관해 알고 예방하는 일에 나서게 될 것을 기뻐한다는 내용, 인간의 품격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br/> <br/>이 얘기에서 알츠하이머병이나 인지기능장애를 ‘치매’로 번역하지 않은 그 신문 담당자의 사려 깊음을 필자는 주목한다. 레이건이 말한 알츠하이머병, 인지기능장애는 우리 사회의 치매다. 권명숙씨는 “<span class='quot0'>여기서는 그 병을 데멘지아(demencia)라고 부른다</span>”고 알려왔다. 스페인 말이다. 영어로는 철자 비슷한 dementia[디멘시아]다. 분리나 제거 등을 뜻하는 ‘de-’나 정신이나 마음 mental[멘탈]이 합쳐졌으니 ‘정신이 없어진 상태’로 읽을 수 있는 말이다. 인지기능의 부재(不在)나 장애인 것이다. ‘다시 아기가 되는 병’이라고 어떤 자료는 설명한다. 인간의 존엄을, 약자의 자존을 해치지 않는 착한 말일 터. <br/> <br/>포털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치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로 시작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는 문제가 있다.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은 dementia다. 치매의 어원이 라틴어라는 ‘주장’은 이래서 사뭇 어리석다. 우리가 치매라는 말로 쓰는 질병 디멘시아의 어원이 라틴어라고 풀어야 옳다. dementia의 뜻을 우리 사전은 ‘치매’라고 푼다. 이 단어가 우리 사회는 물론 의학이나 병원에서 부르는 ‘공식 이름’이다. 곧 주류(主流)이고 메이저인 것이다. 대세이고 기왕의 질서다.  <br/>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병을 스스로 고백하여 세계에 감동을 줬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 <br/>그런데 이는 흔들면 안 되는 진리일까? 치매, 디멘시아, 알츠하이머 등이 우리 모두의 걱정거리가 되기 전, 이 말 치매는 노망(老妄)과 함께 ‘늙어서 하릴없이 망령에 들게 된 노인’이나 그들의 행위를 (비하하여) 이르는 말이었다. 우리 사회는, 특히 노년층은 이 말을 ‘대뇌 신경 세포의 손상 따위로 말미암아 지능 의지 기억 따위가 지속적 본질적으로 상실되는 병. 주로 노인에게 나타난다’는 의학용어 이전에 ‘어리석은 미치광이’란 말로 인식한다. 대부분 어른들이 ‘치매검사 받아보시라’ 하면 서운해하고 심지어 크게 화를 내는 이유다. 욕이나 비난으로까지 들리는 것이다. <br/> <br/>젊은 세대들은 왜 ‘어른들’이 치매란 말에 그리도 민감할까 푸념한다. 그러면서도 이유를 궁리하거나 대안을 찾으려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나 어른 등 가족이 ‘치매’와 관련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의당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br/> <br/>지랄(병)은 간질(癎疾)이란 말로 바꿔 쓴다. 문둥병은 나병(癩病) 또는 한센(Hansen)병이다. 염병이란 말 대신에 장티푸스라는 이름을 단다. 전통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그 이름이 차별과 멸시의 수단 또는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대응하는 세상의 지혜다. 역지사지의 배려이고. <br/> <br/>암(癌)처럼 이 질병은 우리의 큰 걱정거리다. 더 심해질 것이다. ‘생각조차 끔찍하다’는 이름의 거부감이 또한 조기진단과 쉬운 치료를 방해한다. 사회적 비용의 증가도 부르는 것이다. 고약한 속뜻과 모욕적인 과거를 가진 이 이름 치매를 대신할 새 이름이 필요한 이유다. ‘인지(기능)장애’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장에서 이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다. <br/> <br/>강상헌 언론인·우리글진흥원 원장 <br/> <br/> 인지기능장애(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문둥병자’란 말 대신 ‘한센병자’, ‘나병환자’라는 배려 섞인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배려가 이 질병에도 필요하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사족(蛇足) <br/> <br/>치(癡)나 매(?) 글자가 원래 그러한 인지장애에 쓰이는 말이었을까? 그 글자의 다른 쓰임새를 살피면 답이 나온다. ‘아니요’다.  <br/> <br/>癡나 痴[癡의 속자(俗字)]를 포함한 말은 ‘글에 미쳤다’는 서치(書癡)란 옛말 하나 빼고는 거의 뜻이 곱지 않다. 치한(癡漢), 치골(癡骨), 치둔(癡鈍), 치롱(癡聾), 치언(癡言), 치인(癡人), 치자(癡者), 치태(癡態), 치행(癡行), 치화(癡話) 등 가치 부정적인, 지적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말들이다. <br/> <br/>?는 한자가 그림임을 새삼스럽게 보여준다. 포대기에 싼 아기 모습이다. 아들 자(子)와 비슷하지만, 어리석다는 뜻으로 쓰인다. <br/> <br/>한의학의 매병(?病·정신병의 하나) 말고는 그 쓰임새가 많지 않다. 중국에서는 ‘체매’라 하여 ‘생기 없다’, ‘눈빛이 갔다’는 숙어로 쓰인다. <br/> <br/>다시 의문을 제기한다. 어떻게 ‘치매’가 ‘의학용어’로 자리 잡았는지, 적절한 절차를 밟은 결과인지를 묻는 것이다.  <br/> <br/>병 이름이기 전에도 치매란 단어는 있었다. ‘언어 동작이 느리고 정신작용이 완전하지 못함. 어리석음’(사전)이라는 뜻이었다. 표현은 점잖지만, 사실은 욕이다. 노망이라는 것이다. 이 전 칼럼에서 필자는 ‘배려 없는, 무정한 말’이라고 그 말을 평가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69.txt

제목: 암 치료환자 15~30% 여전히 '술·담배'  
날짜: 20150530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22317180  
본문: 암 진단을 받고 치료한 적 있는 '암 경험자' 중 15~30%가 여전히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연세암병원(병원장 노성훈) 암예방센터는 위암, 대장암 진단을 받고 5년 이상 생존한 '암 경험자' 628명 중 암 진단 전에 담배를 피웠던 2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br/> <br/>조사결과를 보면 298명 중 44명(14.8%)이 암 진단과 치료 후 담배를 끊지 못했거나, 한동안 끊었다가 다시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담배를 피우는 암 경험자의 직업은 노동(18.6%)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직(16.3%), 사무직(11.6%) 등 순이었다. 직장생활을 하는 암 경험자 그룹의 흡연율(16.7%)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암 경험자의 흡연율(11.1%)보다 높았다. <br/> <br/>연령별로는 20~50대 암 경험자의 금연 비율이 82.3%로, 60대 이상 암 생존자의 90.2%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 흡연 중인 암 경험자는 59.1%만 주기적인 운동을 한다고 답해 금연한 암 생존자의 운동 비율(74.8%)에 못 미쳤다. <br/> <br/>또한 암 경험자 중 상당수는 술을 마시는 것(음주)으로 조사됐다. 음주율은 위암 경험자가 32.6%(폭음 11.5%, 가벼운 음주 21.1%), 대장암 생존자가 28.2%(폭음 8.5%, 가벼운 음주 19.7%)로 각각 집계됐다. <br/> <br/>특히 담배를 피우는 암 경험자의 음주율은 73.9%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암 경험자의 음주율(46.6%)을 훨씬 웃돌았다. <br/> <br/>의료진은 "술, 담배는 일반인은 물론 암 생존자들의 재발이나 2차 암(다른 암) 발생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특히 암 경험자가 담배를 피우면 암 재발률이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3.5배나 높다는 보고도 있다. <br/> <br/>노성훈 연세암병원 원장은 "최근 조기 암 환자들이 늘면서 항암, 방사선 치료없이 수술로 완치한 환자들 중 암을 가볍게 생각하고 술, 담배를 지속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암이 경험자는 유전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암의 재발이나 2차 암 발병에 취약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금연, 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70.txt

제목: 암 치료환자 15~30% 여전히 '술·담배'  
날짜: 20150530  
기자: hhy@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30100000179  
본문: 암 진단을 받고 치료한 적 있는 '암 경험자' 중 15~30%가 여전히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연세암병원(병원장 노성훈) 암예방센터는 위암, 대장암 진단을 받고 5년 이상 생존한 '암 경험자' 628명 중 암 진단 전에 담배를 피웠던 2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조사결과를 보면 298명 중 44명(14.8%)이 암 진단과 치료 후 담배를 끊지 못했거나, 한동안 끊었다가 다시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를 피우는 암 경험자의 직업은 노동(18.6%)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직(16.3%), 사무직(11.6%) 등 순이었다. 직장생활을 하는 암 경험자 그룹의 흡연율(16.7%)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암 경험자의 흡연율(11.1%)보다 높았다.연령별로는 20~50대 암 경험자의 금연 비율이 82.3%로, 60대 이상 암 생존자의 90.2%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 흡연 중인 암 경험자는 59.1%만 주기적인 운동을 한다고 답해 금연한 암 생존자의 운동 비율(74.8%)에 못 미쳤다.또한 암 경험자 중 상당수는 술을 마시는 것(음주)으로 조사됐다. 음주율은 위암 경험자가 32.6%(폭음 11.5%, 가벼운 음주 21.1%), 대장암 생존자가 28.2%(폭음 8.5%, 가벼운 음주 19.7%)로 각각 집계됐다.특히 담배를 피우는 암 경험자의 음주율은 73.9%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암 경험자의 음주율(46.6%)을 훨씬 웃돌았다.의료진은 "술, 담배는 일반인은 물론 암 생존자들의 재발이나 2차 암(다른 암) 발생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특히 암 경험자가 담배를 피우면 암 재발률이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3.5배나 높다는 보고도 있다.노성훈 연세암병원 원장은 "최근 조기 암 환자들이 늘면서 항암, 방사선 치료없이 수술로 완치한 환자들 중 암을 가볍게 생각하고 술, 담배를 지속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암이 경험자는 유전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암의 재발이나 2차 암 발병에 취약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금연, 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71.txt

제목: "전립섬암 환자, 과체중·비만으로 사망위험 15% 상승"  
날짜: 201505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30100000162  
본문: 과체중이나 비만이 전립선암의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필라델피아 폭스 체이스 암센터 영상종양실장 에릭 호위츠 박사는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전립선암 환자는 체중이 정상인 환자에 비해 방사선치료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29일 보도했다.이 때문에 체중이 지나친 전립선암 환자는 암세포가 전이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호위츠 박사는 밝혔다.2001~2010년 사이에 국소 전립선암 진단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1천442명(평균연령 68세)을 평균 4년 동안 지켜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과체중이거나 비만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암세포 전이 가능성이 5%, 사망 위험이 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환자들은 전립선암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5% 높았다.이들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 방사선 치료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과체중이나 비만 자체보다는 과체중이나 비만과 관련된 그 무엇이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떨어뜨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호위츠 박사는 설명했다.따라서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환자는 방사선 치료와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거나 보다 공격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등 치료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이 연구결과에 대해 호프스트라 대학 의과대학 비뇨기종양프로그램실장 매니시 바이러 박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전립선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전후에 체중감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것이 치료 확률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이 연구결과는 '암'(Cancer) 최신호(5월29일자)에 발표됐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72.txt

제목: 암 경험자 7명 중 1명 여전히 흡연, 음주도 상당수  
날짜: 20150529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21757520  
본문: 흡연자 7명 중 1명은 암 진단과 치료 후에도 담배를 끊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암 경험자 상당수가 계속 술은 마시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29일 연세암병원(병원장 노성훈) 암예방센터는 위암, 대장암 진단을 받고 5년 이상 생존한 '암 경험자' 628명 중 암 진단 전에 담배를 피웠던 2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br/> <br/>이에 따르면 298명 중 44명(14.8%)이 암 진단과 치료 후 담배를 끊지 못했거나, 한동안 끊었다가 다시 피웠다. <br/> <br/>담배를 피우는 암 경험자의 직업은 노동(18.6%)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직(16.3%), 사무직(11.6%) 등이 뒤를 이었다. <br/> <br/>직업 유무만 놓고 보면 직장생활을 하는 암 경험자 그룹의 흡연율(16.7%)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암 경험자의 흡연율(11.1%)보다 높았다. <br/> <br/>연령별로는 20~50대 암 경험자의 금연 비율이 82.3%로, 60대 이상 암 생존자의 90.2%보다 낮았다. <br/> <br/>흡연 중인 암 경험자는 59.1%만 주기적인 운동을 한다고 답해 금연한 암 생존자의 운동 비율(74.8%)에 못 미쳤다. <br/> <br/>암 경험자의 음주율은 위암 경험자가 32.6%(폭음 11.5%, 가벼운 음주 21.1%), 대장암 생존자가 28.2%(폭음 8.5%, 가벼운 음주 19.7%)로 각각 집계됐다. <br/> <br/>특히 담배를 피우는 암 경험자의 음주율이 73.9%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암 경험자의 음주율(46.6%)보다 훨씬 높았다. <br/> <br/>술, 담배는 재발이나 2차 암(다른 암) 발생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의사들이 반드시 피할 것을 권하고 있다. <br/> <br/>특히 담배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은 물론 위암, 식도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신장암, 대장암, 백혈병 등 여러 암 원인의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br/> <br/>암 경험자가 담배를 피우면 암 재발률이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3.5배나 높다는 보고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73.txt

제목: ‘세포 내 경찰’ miRNA 탄생의 비밀 풀었다  
날짜: 20150529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21635713  
본문: 김빛내리 교수·우재성 연구위원마이크로(mi)RNA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세포의 분화와 성장, 사멸 활동에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포 내 경찰’이라 불린다. 인체에는 2000여개 miRNA가 있는데, 종류마다 역할이 다르다. 이들 miRNA의 생성과 작동에 이상이 생기면 암이나 유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br/> <br/>국내 연구진이 miRNA를 만드는 물질인 ‘드로셔-DGCR8 단백질 복합체’의 구성과 기능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br/> <br/>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김빛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단장으로 이끄는 기초과학연구원(IBS) RNA연구단은 이 같은 성과를 담은 논문을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셀’의 이날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논문에는 김 단장과 우재성 RNA연구단 연구위원(서울대 연구교수)이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miRNA의 존재는 1993년 미국의 빅터 앰브로스 박사에 의해 발견됐지만, 김 단장이 2002년 miRNA 생성과정에 이어 2003년 드로셔 단백질 복합체까지 처음 발견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br/> <br/>IBS 연구진은 후속 연구에 착수해 이번에 처음으로 드로셔 단백질 복합체의 대량 정제에 성공하고, 이를 통해 각 부위의 기능을 명확히 밝혀냈다. 이 복합체가 1개의 드로셔와 2개의 DGCR8 분자로 구성돼 있음을 최초로 규명하고, 그 기능까지 파악하는 데 이르렀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74.txt

제목: 암 경험자 7명 중 1명 여전히 흡연, 음주도 상당수  
날짜: 20150529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9100000873  
본문: 흡연자 7명 중 1명은 암 진단과 치료 후에도 담배를 끊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암 경험자 상당수가 계속 술은 마시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연세암병원(병원장 노성훈) 암예방센터는 위암, 대장암 진단을 받고 5년 이상 생존한 '암 경험자' 628명 중 암 진단 전에 담배를 피웠던 2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298명 중 44명(14.8%)이 암 진단과 치료 후 담배를 끊지 못했거나, 한동안 끊었다가 다시 피웠다. 담배를 피우는 암 경험자의 직업은 노동(18.6%)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직(16.3%), 사무직(11.6%) 등이 뒤를 이었다.직업 유무만 놓고 보면 직장생활을 하는 암 경험자 그룹의 흡연율(16.7%)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암 경험자의 흡연율(11.1%)보다 높았다.연령별로는 20~50대 암 경험자의 금연 비율이 82.3%로, 60대 이상 암 생존자의 90.2%보다 낮았다. 흡연 중인 암 경험자는 59.1%만 주기적인 운동을 한다고 답해 금연한 암 생존자의 운동 비율(74.8%)에 못 미쳤다.암 경험자의 음주율은 위암 경험자가 32.6%(폭음 11.5%, 가벼운 음주 21.1%), 대장암 생존자가 28.2%(폭음 8.5%, 가벼운 음주 19.7%)로 각각 집계됐다.특히 담배를 피우는 암 경험자의 음주율이 73.9%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암 경험자의 음주율(46.6%)보다 훨씬 높았다.술, 담배는 재발이나 2차 암(다른 암) 발생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의사들이 반드시 피할 것을 권하고 있다.특히 담배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은 물론 위암, 식도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신장암, 대장암, 백혈병 등 여러 암 원인의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암 경험자가 담배를 피우면 암 재발률이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3.5배나 높다는 보고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75.txt

제목: 해투3 변정수, "김수미 선생님이 리마인드 웨딩 주례 봐줬다" 감동 눈물  
날짜: 20150529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910017425304  
본문: 해투3 변정수 김수미해투3 변정수, "김수미 선생님이 리마인드 웨딩 주례 봐줬다" 감동 눈물 <br/> <br/>나이를 초월한 절친한 선후배 김수미와 변정수가 서로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br/> <br/>변정수는 28일 방송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3’에서 “<span class='quot0'>내가 모델을 하다가 연기를 한 거라 김수미 선생님이 처음부터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옷을 예쁘게 입는다면서 예뻐해주셨다</span>”고 친해진 계기를 전했다. <br/> <br/>이에 김수미는 “<span class='quot1'>나는 네가 매주 핸드백도 주고 주얼리도 줘서 좋아하게 됐다</span>”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br/> <br/>변정수는 “<span class='quot0'>선생님이 음식으로 답례를 해준다</span>”며 각종 음식을 챙겨줬다고 밝혔다. <br/> <br/>또한 변정수는 드라마를 찍다가 갑상선암이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암이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무언가 남기고 싶었다. 리마인드 웨딩을 했다. 주례를 김수미 선생님이 봐줬다. 눈물이 많이 났다”고 말했다. <br/> <br/>이날 방송은 '김수미와 아이들 특집'으로 꾸며져 김수미, 배종옥, 윤현숙, 변정수 등이 출연했다. <br/> <br/>이에 네티즌들은 "해투3 김수미 변정수, 두분 행복해 보이네요" "해투3 김수미 변정수, 선후배 돈독하시네요" "해투3 김수미 변정수, 너무 재미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76.txt

제목: '해피투게더' 변정수 "몸이 건조해 검사 받으니 갑상선 암이더라"  
날짜: 201505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9100000564  
본문: '해피투게더' 변정수가 갑상선암을 앓았던 사실을 고백했다.28일 방송된 KBS 2TV '해피투게더3'는 '김수미와 아이들 특집'으로 꾸며져 배우 김수미, 배종옥, 윤현숙, 변정수 등이 출연했다. 이날 김수미는 “변정수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남편보다 먼저 내게 알렸다. 리마인드 웨딩을 할 거니 주례를 서달라는 거다. 주례 하면서 많이 울었다”라고 고백했다. 이에 변정수는 “자꾸만 등이 가렵고 각질이 생기고 몸이 건조해지는 거다. 왜 그럴까 싶어서 검사하니 갑상선암이었다”라고 털어놨다. 변정수는 “수술하기 전에 가족을 위해 뭔가를 남기고 싶었다. 지인들을 모아놓고 우리 집마당에서 식을 올렸다. 축의금은 기부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해피투게더 변정수''해피투게더 변정수''해피투게더 변정수''해피투게더 변정수'온라인 뉴스팀사진=KBS 2TV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77.txt

제목: ‘세포 내 경찰’ miRNA 탄생의 비밀 풀었다  
날짜: 20150529  
기자: cult@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9100000431  
본문: 김빛내리 교수·우재성 연구위원마이크로(mi)RNA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세포의 분화와 성장, 사멸 활동에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포 내 경찰’이라 불린다. 인체에는 2000여개 miRNA가 있는데, 종류마다 역할이 다르다. 이들 miRNA의 생성과 작동에 이상이 생기면 암이나 유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국내 연구진이 miRNA를 만드는 물질인 ‘드로셔-DGCR8 단백질 복합체’의 구성과 기능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김빛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단장으로 이끄는 기초과학연구원(IBS) RNA연구단은 이 같은 성과를 담은 논문을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셀’의 이날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논문에는 김 단장과 우재성 RNA연구단 연구위원(서울대 연구교수)이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miRNA의 존재는 1993년 미국의 빅터 앰브로스 박사에 의해 발견됐지만, 김 단장이 2002년 miRNA 생성과정에 이어 2003년 드로셔 단백질 복합체까지 처음 발견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IBS 연구진은 후속 연구에 착수해 이번에 처음으로 드로셔 단백질 복합체의 대량 정제에 성공하고, 이를 통해 각 부위의 기능을 명확히 밝혀냈다. 이 복합체가 1개의 드로셔와 2개의 DGCR8 분자로 구성돼 있음을 최초로 규명하고, 그 기능까지 파악하는 데 이르렀다.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78.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딸과 함께한 1년, 난 행복한 엄마였다'  
날짜: 20150528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21241973  
본문:   <br/> <br/>“지난 투병 기간 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알았다. 매일 저녁 값진 인생을 살았음에 감사했고, 다른 이들이 보내온 격려에 하루하루 힘을 얻을 수 있었다” <br/> <br/>미국의 한 30대 여성이 임신 중 발병한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가진 삶에 대한 의연한 자세가 많은 이들을 고개 숙이게 하고 있다. 특히 이 여성은 딸의 첫 번째 생일 파티를 마친지 단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어서 네티즌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들었다. <br/> <br/>미국 미네소타 주 애너카카운티의 오크 그로브에 사는 아테나 크루거(33)는 지난 2011년 남편 벤과 결혼해 3년 뒤인 2014년 5월, 첫 딸 아마리를 낳았다. 크루거에게 아마리는 ‘하늘이 준 선물’이었다. <br/> <br/> <br/>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 크루거가 임신 소식을 접하고 몇 주 후, 그가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병원에서 받은 것이다. 임신의 기쁨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그는 태어날 아기가 행여나 자기 몸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다. <br/> <br/>임신 15주가 되었을 무렵 크루거의 암은 2기로 발전했다. 조금씩 암세포가 몸 전체로 전이되기 시작했다. <br/> <br/>이런 가운데 크루거는 예정보다 8주나 빨리 아마리를 낳았다. 다행히 아마리의 몸에서는 어떠한 이상 증세도 발견되지 않았다. 온전한 머리카락과 초롱초롱 빛나는 눈동자. 크루거는 비록 조산이었지만, 하늘의 보살핌 덕분에 딸이 무사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마리를 ‘하늘이 준 선물’로 여겼다. <br/> <br/>크루거는 어떠한 화학치료도 아마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이런 가운데 크루거의 몸 상태도 조금씩 호전됐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7월, 크루거는 유방암에서 완치되었다는 의료진의 검사결과를 받았다. <br/> <br/>크루거는 딸과 여생을 행복하게 살 것 같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크루거는 불과 두 달 후인 9월3일, 유방암이 재발했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해야 했다. 상황은 더 심각했다. 이전에 그의 가슴에만 종양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크루거의 가슴뿐만 아니라 폐와 뇌 등으로 암세포가 퍼진 상태였다. <br/> <br/>집을 떠난 크루거는 네바다 주의 암센터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몇 주간 크루거는 병문안 온 친구와 친지들의 응원을 받았지만, 조금씩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곧 이별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br/> <br/> <br/>이달초, 크루거는 죽음을 직감한 상황에서 아마리의 첫 번째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 이날 모인 손님만 300여명. 이들은 아마리의 생일을 축하하는 동시에 하루만이라도 크루거가 딸과 활짝 웃기를 바랐다. 공개된 사진 속 크루거의 얼굴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크루거는 적어도 사진에서만큼은 딸과 함께 행복한 엄마로 남아있었다. <br/> <br/>크루거는 아마리의 생일파티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 7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날 크루거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란 것을 알기라도 한듯 조용히 일어나 몸을 씻고, 남편 벤을 불렀다. 그리고 크루거는 벤의 품 안에서 평안히 눈 감았다. <br/> <br/>당시 생일파티를 두고 크루거의 동생은 “그때의 세상은 누나가 없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그는 “누나가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다”며 “암에 맞서 싸운 누나는 매우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나는 우리에게 작은 천사를 선물로 남겨놓고 떠나 버렸다”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데일리메일·크루거 페이스북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79.txt

제목: 2015세계과학기자대회 다음달 8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려  
날짜: 20150528  
기자: 박태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21511935  
본문: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심재억)는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5 세계과학기자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br/> <br/>학술 프로그램은 17명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위원회를 통해 1년여 전부터 논의를 거듭해 최종 확정된 내용이다. 대회기간 중 동시 세션으로 운영되는 총 40개 학술 프로그램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과학 언론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br/> <br/>학술 프로그램의 큰 주제로는 ▲이머징 아시아: 가능성과 갈등 ▲과학 스토리 전하기 △기술, 사회, 그리고 언론 ▲과학언론의 다양성과 협력 ▲과학·과학언론의 윤리와 진실성 등을 선정했다. <br/> <br/>기조 강연자로는 2012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야마나카 신야(교토대 교수)와 BBC 라디오 건강 프로그램 진행자 코니 세인트루이스(런던 시티대 교수), 그리고 2014 퓰리처상 수상자 댄 페이긴(뉴욕대 교수)이 참여한다. <br/> <br/>대회 첫날인 6월 8일에는 2001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팀 헌트경(캠브리지대 명예교수)과 1992년 퓰리처상 집중보도 부문을 수상한 데보라 블럼(위스콘신대 교수)이 참여해 대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세계 보건 이슈와 트렌드를 담은 의학 분야에서는 크리스퍼 혁명으로 불리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해 서울대 김진수 교수(기초3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가 발표한다. 국내 첫 감염 환자가 발생한 메르스를 비롯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사례 통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아시아의 바이러스 사낭꾼’이란 주제로 데니스 노마일(사이언스지 특파원)이, 국립암센터 김열 교수(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과장)는 암환자에 대한 통합 치료 개념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신개념의 암 환자 지지 의료’에 대해서, ‘암과 심혈관계 및 간질환 등의 비전염성 질환과 싸우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윌스트리트저널 과학담당 론 윈슬로 부국장이 각각 발표한다. <br/> <br/>대회 셋째 날인 6월10일(수)에는 ‘이슈 속으로: 에볼라 보도의 교훈’ 세션을 통해 위기 보도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례 및 통찰 공유의 시간을 갖는다. 이 세션은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지 에디터인 마틴 엔서링크(Martin Enserink)의 기획 아래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를 취재한 3명의 기자와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사무소 윤주웅 홍보이사가 발표를 진행한다. 주요 주제로는 에볼라 취재시 현지에서 감염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지침을 비롯해 리스크 보도시에 의과학 전문기자들이 갖춰야 할 전문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br/> <br/>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과학 언론에 입문하기 희망하는 예비 언론인과 프리랜서 언론인들에게 세계적인 언론사 편집인들과의 대면 기회를 제공하는 ‘편집자와의 만남’ 세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자신의 기사 기획 방향을 이메일(editors@wcsj2015.or.kr)을 통해 6월 5일까지 영문 1문단 분량으로 접수하면 된다. <br/> <br/>2015 세계과학기자대회 조직위원장인 심재억 한국과학기자협회장은 “<span class='quot0'>세계적인 의과학 연구자 및 언론인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 보건 의료 커뮤니케이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과학 언론 행사의 전통과 명성에 걸맞게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대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www.wcsj2015.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r/> <br/>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80.txt

제목: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암 세포만 골라 사멸  
날짜: 201505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8100000337  
본문: 일본 아베종양내과의 아베 히로유키 박사가 20회를 맞이하는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환자 개인에 특성화된 치료법으로 주목 받고 있는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의 결과를 발표해 또 한번 이목을 끌었다. 그는 16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개별화치료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span class='quot0'>현재 활용되고 있는 암치료법 중 천차만별인 암의 성질을 고려한 치료법은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임상실험에 근거한 대규모 집단조사의 평균 결과에 기반한 치료법만을 사용하며 개인마다 다른 증상과 원인은 무시돼온 현실을 개선하려면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법을 개발해야 한다</span>”고 전했다.인체는 2만 개가 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60조의 세포 구성되어 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데, 이 유전자의 개수와 유전자를 구성하는 세포는 너무나 다양하며 암에 관한 유전자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를 파악해 개인에 특성화된 개별화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베 히로유키 박사의 주장이다. 일본 도쿄에서 지난 24일 개최된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아베 히로유키 박사는 국제개별화의료학회가 이룬 성과를 치하하는 인사말을 남긴 후,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암백신 치료 결과를 발표했다. 수지상세포란 면역세포의 사령관과 같은데, 암의 표식이라 할 수 있는 항원을 기억해 암세포를 죽이는 ‘킬러T세포’에 항원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킬러T세포가 암세포만을 죽일 수 있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베종양내과의 아베 박사가 발표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란 환자의 수지상세포, 킬러T세포, 헬퍼T세포, 메모리T세포, 암항원(단백질)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다. 암 환자로부터 약 25ml 정도의 소량의 채혈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이 방법은, 백혈구의 한 종류인 수지상세포와 개인별 유전자검사·항원검사 후 개인별 맞춤형 암항원을 4~5종 정도 추가해 치료한다. 이 암 항원이 킬러T세로를 도와 암 세포를 사멸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치료는 2주간 배양 과정을 거쳐 수지상세포와 킬러T세포가 암 정보를 교환하는 림프절에 피하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치료법은 2014년 7월 일본에서 특허(제5577472호)를 획득했다. 아베 박사는 제20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고령의 폐암환자의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의 치료결과를 발표했다. 89세 여성 환자에게 이 치료법을 2주에 1번씩 총 6회를 1싸이클로 치료한 결과, 종양과 종양수치가 현저히 축소·감소했음을 발견했다는 내용이다. 아베 박사는 고령으로 체력이 저하돼 수술과 항암제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들은 물론 전이·재발 암 환자도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통해 70%, 하이브리드 치료(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와 New NK세포치료 병행)로 74.4%의 유효 치료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는 스즈키 요시유키 교수(후쿠시마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가 방사선 치료와 면역세포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조사(照射)는 ‘HLA클래스-1’의 발현을 증가시켜 숨어 있던 암세포를 드러나게 한다</span>”고 설명하면서 “<span class='quot0'>드러난 암세포를 수지상세포가 정확히 인식해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도록 킬러T세포에 명령을 내린다</span>”고 발표했다. 더불어 세포상해성T림프구(CTL)가 증가해 T림프구가 암세포 속으로 정확히 들어감으로써 항암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인류의 오랜 숙원 암 정복도 머지않았다는 것이다. 아베종양내과는 약 10여 종의 암항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 암항원 중 GV1001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췌장암치료제로 정식 허가받은 항원이다. 이 암항원은 췌장암 외에 전립선암·폐암·위암·유방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연구 중이다. 국내 기업으로는 선진바이오텍(대표 양동근)이 공동 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있다.아베종양내과는 일본의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재생의료법에 근거해 치료의사, 제약시설, 치료과정, 치료결과관리, 검진시스템, 수지상세포배양 및 치료법, 연구실적 등을 기준으로 검토 받은 결과 수지상세포치료 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재생의료법은 PS(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황반변성, 파킨슨병) 개발과 표준화된 면역세포치료를 위한 규정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81.txt

제목: [김승동의 보험 X-ray]소액암도 고액보장하는 암보험은?  
날짜: 20150528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810017416153  
본문: 암에 대한 통계가 축적되고 암보험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암 종류별로 보험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br/> <br/>이러한 가운데 일부 보험사들은 남녀생식기암 등 소액암 일부를 일반암과 동일 보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26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치솟는 손해율로 자취를 감췄던 암보험이 관련 통계가 쌓이면서 2010년 전후로 속속 재등장하고 있다. 다만 현재 가입 가능한 암보험은 암의 종류를 고액암·일반암·소액암 등으로 세분화해 보험금 보장 금액을 차등화했다. <br/> <br/>보험사 한 관계자는 "과거 암보험은 암 확진 판정을 받으면 무조건 고액을 보장하는 식이었다"며 "암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보험사들은 치솟는 손해율로 인해 암보험을 판매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보험사들이 암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이후 2010년 전후로 보험금 보장금액을 차등화 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보험료에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br/> <br/>현재 가입 가능한 암보험을 보면 일반암을 기준으로 고액암은 200%, 소액암은 10%에서 40%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br/> <br/>예를 들어 일반암 가입금액 5000만원의 암보험에 가입하면 고액암은 1억원이 보장되며 소액암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 보장 되는 식이다. <br/> <br/>참고로 고액암은 뼈암, 뇌암, 골수암, 혈액암 등 한 번 발생하면 고액의 치료비가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암이다. 일반암은 간암, 위암, 폐암 등 주로 노출되는 암이다. 소액암은 유방암·전립선암 등 남녀생식기암과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이다. <br/> <br/>각 보험사들마다 고액암·일반암·소액암으로 구분하는 암종은 상이하다. A보험사는 고액암으로 보장하는 암이 B보험사는 일반암이 될 수도 있다. 또 B보험사에서 일반암으로 구분되는 암 종이 C보험사는 소액암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br/> <br/>세계파이낸스는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일반암 대비 소액암을 어느 정도 구분하는지 살펴봤다. <br/> <br/>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등 일반 소액암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일반암 대비 10%를 보장했다. <br/> <br/>유방암과 전립선암은 20%에서 50%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서 교보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신한생명, 하나생명, AIA생명, KDB생명 등이 40% 이상 보장했다. <br/> <br/>특히 라이나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등의 일부 암보험은 유방암을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했다. <br/> <br/>보험사 한 관계자는 "똑같은 암보험이라고 해도 모두 같은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부적으로 비교하면 납입하는 보험료도 30% 이상 차이나며, 암 종류별로 보장하는 항목도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유방암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료가 비슷하다면 소액암의 일종인 유방암까지 일반암처럼 보장하는 상품 가입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br/> <br/>또 다른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암 종류별로 고액암·일반암·소액암 등으로 구분한 이유는 보험료를 낮춰 소비자 유입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보험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며 "소액암은 발병 확률이 다른 암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반암 보장 금액도 중요하지만 노출 확률이 높은 소액암 보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소액암 보장금액만 보고 암보험을 선택하기보다 전체적인 보장과 보험료 등을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82.txt

제목: 대한부인종양학회, 인유두종바이러스 캠페인 성황  
날짜: 201505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8100000399  
본문: 〔스포츠월드=윤정한 기자〕 대한부인종양학회가 진행한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관한 캠페인을 통해 질병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학회의 ‘STOP HPV’ 캠페인은 지난 2012년부터 HPV 인식 향상 및 유발 질환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학생 및 산모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다. 3월~5월까지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전국 10개 대학교의 총 1000여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암과 생식기질환을 유발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예방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캠페인은 ‘사랑도 공부가 필요해’ 라는 주제로 ▲ 건강한 남녀 관계와 HPV예방법에 대해 배우는 ´러브 라이센스 강좌´ ▲ 간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무료 상담부스 운영으로 구성됐다. 러브 라이센스 강좌를 들은 6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강좌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남녀대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강좌 내용 중 가장 유익한 내용으로 ‘남녀의 피임법과 그 종류(52%)와 ‘HPV 예방백신 정보’(40%)를 각각 1위, 2위로 꼽았다. 이어 ‘HPV가 유발하는 질환 정보‘가 3위를, ‘HPV관련 질환 예방법’과 ‘올바른 대학생 성관계에 대한 전문의의 조언’이 뒤를 이었다.캠퍼스 내 설치된 상담 부스를 방문한 대학생 김지현(26)은 “어릴 때부터 자궁경부암 등 부인과 질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산부인과 방문이 꺼려져 불확실한 인터넷 정보에 의존했어야 했다”며, “캠퍼스 내에서 진행된 상담부스를 통해 평소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문의하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올바른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밝혔다.배덕수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장은 “성 관계를 시작하는 젊은 여성에서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HPV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심각한 보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라며“이에 젊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HPV인식 및 사전 예방 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STOP HPV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yun0086@sp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83.txt

제목: 2015세계과학기자대회 다음달 8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려  
날짜: 201505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8100000101  
본문: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심재억)는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5 세계과학기자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술 프로그램은 17명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위원회를 통해 1년여 전부터 논의를 거듭해 최종 확정된 내용이다. 대회기간 중 동시 세션으로 운영되는 총 40개 학술 프로그램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과학 언론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술 프로그램의 큰 주제로는 ▲이머징 아시아: 가능성과 갈등 ▲과학 스토리 전하기 △기술, 사회, 그리고 언론 ▲과학언론의 다양성과 협력 ▲과학·과학언론의 윤리와 진실성 등을 선정했다. 기조 강연자로는 2012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야마나카 신야(교토대 교수)와 BBC 라디오 건강 프로그램 진행자 코니 세인트루이스(런던 시티대 교수), 그리고 2014 퓰리처상 수상자 댄 페이긴(뉴욕대 교수)이 참여한다. 대회 첫날인 6월 8일에는 2001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팀 헌트경(캠브리지대 명예교수)과 1992년 퓰리처상 집중보도 부문을 수상한 데보라 블럼(위스콘신대 교수)이 참여해 대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세계 보건 이슈와 트렌드를 담은 의학 분야에서는 크리스퍼 혁명으로 불리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해 서울대 김진수 교수(기초3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가 발표한다. 국내 첫 감염 환자가 발생한 메르스를 비롯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사례 통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아시아의 바이러스 사낭꾼’이란 주제로 데니스 노마일(사이언스지 특파원)이, 국립암센터 김열 교수(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과장)는 암환자에 대한 통합 치료 개념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신개념의 암 환자 지지 의료’에 대해서, ‘암과 심혈관계 및 간질환 등의 비전염성 질환과 싸우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윌스트리트저널 과학담당 론 윈슬로 부국장이 각각 발표한다. 대회 셋째 날인 6월10일(수)에는 ‘이슈 속으로: 에볼라 보도의 교훈’ 세션을 통해 위기 보도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례 및 통찰 공유의 시간을 갖는다. 이 세션은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지 에디터인 마틴 엔서링크(Martin Enserink)의 기획 아래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를 취재한 3명의 기자와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사무소 윤주웅 홍보이사가 발표를 진행한다. 주요 주제로는 에볼라 취재시 현지에서 감염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지침을 비롯해 리스크 보도시에 의과학 전문기자들이 갖춰야 할 전문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과학 언론에 입문하기 희망하는 예비 언론인과 프리랜서 언론인들에게 세계적인 언론사 편집인들과의 대면 기회를 제공하는 ‘편집자와의 만남’ 세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자신의 기사 기획 방향을 이메일(editors@wcsj2015.or.kr)을 통해 6월 5일까지 영문 1문단 분량으로 접수하면 된다. 2015 세계과학기자대회 조직위원장인 심재억 한국과학기자협회장은 “<span class='quot0'>세계적인 의과학 연구자 및 언론인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 보건 의료 커뮤니케이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과학 언론 행사의 전통과 명성에 걸맞게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대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www.wcsj2015.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84.txt

제목: 비만도 계산하기, 헬스보이 김수영도 70kg 감량…"이것만 기억하세요"  
날짜: 2015052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810017394314  
본문: 헬스보이 김수영도 70kg 감량비만도 계산하기, 헬스보이 김수영도 70kg 감량…"이것만 기억하세요" <br/> <br/>비만도 계산기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뱃살 빨리 빼는 비결 3가지를 소개한 미국의 건강 포털 '라이브스트롱닷컴' 기사가 화제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3가지는 다음과 같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첫번째,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한다.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20분 정도 매주 3일씩 하면 뱃살이 눈에 띄게 사라진다. 달리기나 자전거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운동을 일관된 속도로만 하고 있다면 중간에 10~60초간 전력 질주를 하는 등의 인터벌 트레이닝을 병행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두번째, 지방을 더 섭취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코코넛이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생선, 견과류, 씨앗류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체질량지수가 낮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다고 알려졌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세번째, 녹차를 마신다. 녹차는 면역계를 강화시키고 암 유발 세포를 퇴치하는 효능과 함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열을 내는 효능이 있어 지방 연소 과정을 촉진시킨다. 하루에 녹차 7잔 이상을 마셔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후나 밤늦게 보다는 아침이나 오전 시간대에 마시는 게 좋다. <br/> <br/>한편, 비만도 계산기의 BMI 계산법은 BMI지수= 몸무게(kg) ÷ (신장(m) × 신장(m))이다. 비만도 계산기에서 산출된 값이 18.5이하면 저체중, 18.5~23은 정상, 23~25는 과체중, 25~30은 비만, 30이상은 고도비만으로 분류된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85.txt

제목: 비만도 계산하기, 헬스보이 김수영도 70kg 감량…"이것만 기억하세요"  
날짜: 2015052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810017394334  
본문: 비만도 계산하기비만도 계산하기, 헬스보이 김수영도 70kg 감량…"이것만 기억하세요" <br/> <br/>비만도 계산기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뱃살 빨리 빼는 비결 3가지를 소개한 미국의 건강 포털 '라이브스트롱닷컴' 기사가 화제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3가지는 다음과 같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첫번째,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한다.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20분 정도 매주 3일씩 하면 뱃살이 눈에 띄게 사라진다. 달리기나 자전거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운동을 일관된 속도로만 하고 있다면 중간에 10~60초간 전력 질주를 하는 등의 인터벌 트레이닝을 병행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두번째, 지방을 더 섭취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코코넛이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생선, 견과류, 씨앗류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체질량지수가 낮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다고 알려졌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세번째, 녹차를 마신다. 녹차는 면역계를 강화시키고 암 유발 세포를 퇴치하는 효능과 함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열을 내는 효능이 있어 지방 연소 과정을 촉진시킨다. 하루에 녹차 7잔 이상을 마셔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후나 밤늦게 보다는 아침이나 오전 시간대에 마시는 게 좋다. <br/> <br/>한편, 비만도 계산기의 BMI 계산법은 BMI지수= 몸무게(kg) ÷ (신장(m) × 신장(m))이다. 비만도 계산기에서 산출된 값이 18.5이하면 저체중, 18.5~23은 정상, 23~25는 과체중, 25~30은 비만, 30이상은 고도비만으로 분류된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86.txt

제목: 유산소 운동 종류는 자전거 따르릉~‘뱃살 비켜나세요’…올여름 뱃살탈출 위한 비결 10가지 보니  
날짜: 2015052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810017419784  
본문: 김수현 (사진= 빈폴 아웃도어 제공)유산소 운동 종류는 자전거 타기, 걷기, 수영, 등산, 달리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비만에서 탈출하는 뱃살 빼는 습관 10가지가 주목받고 있다. <br/> <br/>미국 건강포털 웹 MD는 뱃살을 줄여주는 습관 10가지를 소개했다. <br/>  <br/>1. 남긴 밥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야식이나 아이들이 남긴 밥이 아깝다고 이를 먹었다가는 뱃살이 늘어나기 십상이다. 이런 식습관은 뱃살을 빼는 데 좋지 않다. 남긴 밥을 억지로 먹는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br/>  <br/>2. 배고픔은 참지 말고, 간식을 챙겨 먹는게 낫다. 배고픔을 참다가 식사를 하면 평소 먹던 양보다 많이 먹게 된다. 배고픔을 참지 말고 열량이 높은 간식 대신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등 저칼로리 간식을 먹으면 건강에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br/> <br/>3. 공복에 마트에 가지 말아야 한다. 공복에 마트에 가게 되면 필요 이상의 먹을거리를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냉장고 속 먹을거리는 언제든지 뱃살로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 두자. <br/> <br/>4. 식사는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규칙적인 식사는 다이어트에 좋다. 규칙적인 식사는 과식을 예방하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이 쉽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되, 하루 한 끼를 가벼운 쉐이크 등으로 대체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량된다. <br/> <br/>5. 음식은 식탁에서 먹어야 한다. 음식을 서서 먹으면 과식을 피하기 어렵다. 식탁에 제대로 앉아 그릇에 덜어먹어야 양을 조절하면서 먹기 편해진다. <br/> <br/>6. 식사는 20분 동안 해야 한다.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분. 개인 접시를 이용해 식사 할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허겁지겁 먹으면 뱃살 역시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다. <br/> <br/>7. 식사를 하며 물도 함께 마셔야 한다. 식사하면서 적당량의 물을 함께 마셔야 한다. 적당량의 물은 과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너무 다량의 물을 마실 경우 위산이 희석돼 소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br/> <br/>8. 저녁 식사 후 양치질은 바로 해야 한다. 밥을 먹고 양치질을 바로 하는 것이다. 식사 후 양치를 늦게 할수록 남아있는 식욕에 주전부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녁 식사를 하자마자 양치질을 하면 식욕이 사라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뿐더러 치아 건강에도 효과적이다. <br/> <br/>9. 아무 간식이나 먹지 말아야 한다. 간식은 골라 먹어야 한다. 간식 중 가장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지방과 단백질이 적고 복합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이다. <br/> <br/>10. 아침식사는 거르지 말아야 한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는 아침식사다. 아침을 먹어야 뇌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돼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또 든든한 아침 식사를 먹으면 점심과 저녁의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 <br/> <br/>한편, 뱃살 빨리 빼는 비결 3가지는 다음과 같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첫번째,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한다.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20분 정도 매주 3일씩 하면 뱃살이 눈에 띄게 사라진다. 달리기나 자전거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운동을 일관된 속도로만 하고 있다면 중간에 10~60초간 전력 질주를 하는 등의 인터벌 트레이닝을 병행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두번째, 지방을 더 섭취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코코넛이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생선, 견과류, 씨앗류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체질량지수가 낮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다고 알려졌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세번째, 녹차를 마신다. 녹차는 면역계를 강화시키고 암 유발 세포를 퇴치하는 효능과 함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열을 내는 효능이 있어 지방 연소 과정을 촉진시킨다. 하루에 녹차 7잔 이상을 마셔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후나 밤늦게 보다는 아침이나 오전 시간대에 마시는 게 좋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87.txt

제목: 비만도 계산기, '헬스보이' 김수영도 70kg 감량…"이것만 기억하세요"  
날짜: 2015052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810017415654  
본문: 비만도 계산기, `헬스보이` 김수영도 70kg 감량…"이것만 기억하세요"비만도 계산기, '헬스보이' 김수영도 70kg 감량…"이것만 기억하세요" <br/> <br/>비만도 계산기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뱃살 빨리 빼는 비결 3가지를 소개한 미국의 건강 포털 '라이브스트롱닷컴' 기사가 화제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3가지는 다음과 같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첫번째,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한다.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20분 정도 매주 3일씩 하면 뱃살이 눈에 띄게 사라진다. 달리기나 자전거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운동을 일관된 속도로만 하고 있다면 중간에 10~60초간 전력 질주를 하는 등의 인터벌 트레이닝을 병행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두번째, 지방을 더 섭취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코코넛이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생선, 견과류, 씨앗류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체질량지수가 낮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다고 알려졌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세번째, 녹차를 마신다. 녹차는 면역계를 강화시키고 암 유발 세포를 퇴치하는 효능과 함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열을 내는 효능이 있어 지방 연소 과정을 촉진시킨다. 하루에 녹차 7잔 이상을 마셔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후나 밤늦게 보다는 아침이나 오전 시간대에 마시는 게 좋다. <br/> <br/>한편, 비만도 계산기의 BMI 계산법은 BMI지수= 몸무게(kg) ÷ (신장(m) × 신장(m))이다. 비만도 계산기에서 산출된 값이 18.5이하면 저체중, 18.5~23은 정상, 23~25는 과체중, 25~30은 비만, 30이상은 고도비만으로 분류된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88.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딸과 함께한 1년, 난 행복한 엄마였다'  
날짜: 201505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8100000460  
본문:  “지난 투병 기간 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알았다. 매일 저녁 값진 인생을 살았음에 감사했고, 다른 이들이 보내온 격려에 하루하루 힘을 얻을 수 있었다”미국의 한 30대 여성이 임신 중 발병한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가진 삶에 대한 의연한 자세가 많은 이들을 고개 숙이게 하고 있다. 특히 이 여성은 딸의 첫 번째 생일 파티를 마친지 단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어서 네티즌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들었다.미국 미네소타 주 애너카카운티의 오크 그로브에 사는 아테나 크루거(33)는 지난 2011년 남편 벤과 결혼해 2년 뒤인 2013년 5월, 첫 딸 아마리를 낳았다. 크루거에게 아마리는 ‘하늘이 준 선물’이었다.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 크루거가 임신 소식을 접하고 몇 주 후, 그가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병원에서 받은 것이다. 임신의 기쁨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그는 태어날 아기가 행여나 자기 몸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다.임신 15주가 되었을 무렵 크루거의 암은 2기로 발전했다. 조금씩 암세포가 몸 전체로 전이되기 시작했다.이런 가운데 크루거는 예정보다 8주나 빨리 마리나를 낳았다. 다행히 마리나의 몸에서는 어떠한 이상 증세도 발견되지 않았다. 온전한 머리카락과 초롱초롱 빛나는 눈동자. 크루거는 비록 조산이었지만, 하늘의 보살핌 덕분에 딸이 무사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마리나를 ‘하늘이 준 선물’로 여겼다.크루거는 어떠한 화학치료도 마리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이런 가운데 크루거의 몸 상태도 조금씩 호전됐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7월, 크루거는 유방암에서 완치되었다는 의료진의 검사결과를 받았다.크루거는 딸과 여생을 행복하게 살 것 같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크루거는 불과 두 달 후인 9월3일, 유방암이 재발했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해야 했다. 상황은 더 심각했다. 이전에 그의 가슴에만 종양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크루거의 가슴뿐만 아니라 폐와 뇌 등으로 암세포가 퍼진 상태였다.집을 떠난 크루거는 네바다 주의 암센터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몇 주간 크루거는 병문안 온 친구와 친지들의 응원을 받았지만, 조금씩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곧 이별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이달초, 크루거는 죽음을 직감한 상황에서 마리나의 첫 번째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 이날 모인 손님만 300여명. 이들은 마리나의 생일을 축하하는 동시에 하루만이라도 크루거가 딸과 활짝 웃기를 바랐다. 공개된 사진 속 크루거의 얼굴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크루거는 적어도 사진에서만큼은 딸과 함께 행복한 엄마로 남아있었다.크루거는 마리나의 생일파티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 7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날 크루거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란 것을 알기라도 한듯 조용히 일어나 몸을 씻고, 남편 벤을 불렀다. 그리고 크루거는 벤의 품 안에서 평안히 눈 감았다.당시 생일파티를 두고 크루거의 동생은 “그때의 세상은 누나가 없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그는 “누나가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다”며 “암에 맞서 싸운 누나는 매우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나는 우리에게 작은 천사를 선물로 남겨놓고 떠나 버렸다”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사진=영국 데일리메일·크루거 페이스북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89.txt

제목: 분당차병원, 중복암 로봇수술로 동시 제거  
날짜: 2015052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20151281  
본문: 분당차병원 비뇨기과 박동수 교수.차병원그룹은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지훈상) 비뇨기과 박동수 교수팀이 2명의 환자에서 전립선암과 정 반대 위치에 있는 중복암을 로봇수술로 동시에 제거했다고 27일 밝혔다. <br/>  <br/>분당차병원은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로봇수술을 이용해 같은 구멍으로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전립선암과 담낭암을 동시에 절제하는데 성공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br/> <br/>지난 1년간 박동수 교수로부터 비뇨기암으로 진단받고 로봇수술을 받은 100명 중 3명에서 두 가지 중복암이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전립선암으로 먼저 진단되고 나서 수술 전 검사 중 우연히 신장암과 담낭암이 발견된 경우다. <br/> <br/>신장과 담낭은 전립선과는 정 반대 위치에 있다. 박동수 교수는 이들 반대 위치의 중복암 환자에 대해 로봇수술을 이용해 하복부 골반에 위치한 전립선암에 대한 근치적 전립선절제수술을 시행했다. <br/> <br/>그리고 전립선수술을 위해 만들어 놓은 구멍을 그대로 사용해 정반대 위치인 신장암과 담낭암에 대해 각각 절제수술을 시행했다. <br/>  <br/>보통 중복암의 경우 두 부위를 각각 수술하거나, 복부전체를 절개해 수술한다. 복강경수술을 이용할 경우에도 포트를 여러 개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br/> <br/>하지만 로봇수술로 하나의 구멍을 통해 두 종류 암을 동시 절제하는 경우 회복 속도가 빠르고 출혈 및 수술 후 통증, 감염의 위험이 적으며, 신경손상이나 주변 조직의 손상도 적어 수술 후 회복과 기능보존 면에서 우수하다. 또한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점도 장점이다. <br/> <br/>분당차병원 비뇨기과 박동수 교수는 "전립선암 진단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전립선암 수술 전에 다른 종류의 암에 대한 검사는 필수적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로봇수술 이외의 방법으로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도 대장암과 위암이 동시에 발견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90.txt

제목: "복어가 암 치료에 좋다?"…장기복용 암환자 의식불명  
날짜: 201505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7100001264  
본문: 치료 목적으로 복어를 먹어온 암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에서 골수암 환자인 김모(46)씨가 지난 22일 오후 10시 50분께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 씨는 27일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김 씨는 복어가 암 치료에 좋다는 말을 믿고 직접 잡아 말린 복어를 갈아 1년 이상 복용해 왔다고 가족들이 전했다. 호흡곤란을 일으키기 3∼4시간 전에도 복어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측은 "복어 독 때문인지, 다른 요인으로 호흡이 곤란한지 불분명하지만 복어 독이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91.txt

제목: 부산한방병원, 암치료 핵심은 '면역력' 강화  
날짜: 20150527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7100000463  
본문: 우리나라 암 환자의 10년 생존율이 35%를 넘었지만, 암은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으로 인식되어 있다. 지금까지 의학계에 보고된 암 치료법은 수백 가지가 넘지만, 아직까지 표준화된 암치료법은 발견되지 않는 실정이다.80년대 이후 암 치료는 외과적 수술로 암세포를 도려내는 방법과 방사선 치료가 주된 방법이었다. 그러나 암 덩어리를 제거해도 암은 재발했고, 재발한 환자일수록 완치가 어려울뿐아니라 근본적으로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치료법이 암치료의 근본적인 해결책 아닐 수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이러한 기존 치료의 한계 때문에 최근 힘을 얻고 있는 것이 바로 통합암치료법이다. 즉,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 자연치유법 등 동서양을 아우르는 통합암치료는 이미 엠디앤더슨 암센터나 존스홉킨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암환자의 수명 연장과 고통 감소 효과를 임상적으로 인정받고있다, 이러한 통합암치료가 인정 받고 있는 이유는 환자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치료를 병행하기 때문이다.최근 들어 조기검진 및 의료기술이 발달해 암에 걸리더라도 완치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암에 걸린 환자나 완치된 환자가 면역력관리를 잘 하지 못해 면역력이 약해져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암 재발을 겪는 사례도 종종 생긴다.65kg의 성인의 경우 60조~70조개의 세포로 이뤄져 있는데 하루에 1000~1만개의 암세포가 매일 몸 안에 생성되고 있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 종양이 된다. 따라서 종양이 형성될 수 없도록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암이 발견되면 수술과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의 공격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 암 치료 중에는 우울, 분노, 좌절 등의 마음가짐과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현대의학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면역요법’은 매우 중요하다.통합면역암치료를 하고있는 부산한방병원에서는 고주파 온열암치료 등 양방적인 치료와 함께 면역 암 치료의 핵심인 약침치료, 침 치료, 항종양 면역약제, 맞춤처방, 온열치료, 심리치료(웃음치료, 음악치료)를 통해 저하되어 있는 면역감시체계를 회복시키고 암 억제 기전을 정상 가동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연사멸을 유도한다.부산한방병원 방선휘 병원장은 ‘암환자들의 수술로 인한 체력소실과 면역력 저하 등 공격적인 치료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면역감시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주는 면역치료를 받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체계적인 생활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92.txt

제목: 분당차병원, 중복암 로봇수술로 동시 제거  
날짜: 20150527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7100000506  
본문: 분당차병원 비뇨기과 박동수 교수.차병원그룹은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지훈상) 비뇨기과 박동수 교수팀이 2명의 환자에서 전립선암과 정 반대 위치에 있는 중복암을 로봇수술로 동시에 제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분당차병원은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로봇수술을 이용해 같은 구멍으로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전립선암과 담낭암을 동시에 절제하는데 성공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지난 1년간 박동수 교수로부터 비뇨기암으로 진단받고 로봇수술을 받은 100명 중 3명에서 두 가지 중복암이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전립선암으로 먼저 진단되고 나서 수술 전 검사 중 우연히 신장암과 담낭암이 발견된 경우다.신장과 담낭은 전립선과는 정 반대 위치에 있다. 박동수 교수는 이들 반대 위치의 중복암 환자에 대해 로봇수술을 이용해 하복부 골반에 위치한 전립선암에 대한 근치적 전립선절제수술을 시행했다.그리고 전립선수술을 위해 만들어 놓은 구멍을 그대로 사용해 정반대 위치인 신장암과 담낭암에 대해 각각 절제수술을 시행했다. 보통 중복암의 경우 두 부위를 각각 수술하거나, 복부전체를 절개해 수술한다. 복강경수술을 이용할 경우에도 포트를 여러 개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하지만 로봇수술로 하나의 구멍을 통해 두 종류 암을 동시 절제하는 경우 회복 속도가 빠르고 출혈 및 수술 후 통증, 감염의 위험이 적으며, 신경손상이나 주변 조직의 손상도 적어 수술 후 회복과 기능보존 면에서 우수하다. 또한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점도 장점이다.분당차병원 비뇨기과 박동수 교수는 "전립선암 진단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전립선암 수술 전에 다른 종류의 암에 대한 검사는 필수적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로봇수술 이외의 방법으로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도 대장암과 위암이 동시에 발견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93.txt

제목: 유산소 운동 종류, 수영-등산-달리기 등...뱃살 빨리 빼는 비결 10가지 습관 보니...'오호!'  
날짜: 20150527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710017390550  
본문: 유산소 운동 종류, 뱃살 빨리 빼는 비결유산소 운동 종류, 수영-등산-달리기 등...뱃살 빨리 빼는 비결 10가지 습관 보니...'오호!' <br/> <br/>유산소 운동 종류는 자전거 타기, 걷기, 수영, 등산, 달리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비만에서 탈출하는 뱃살 빼는 습관 10가지가 주목받고 있다. <br/> <br/>미국 건강포털 웹 MD는 뱃살을 줄여주는 습관 10가지를 소개했다. <br/>  <br/>1. 남긴 밥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야식이나 아이들이 남긴 밥이 아깝다고 이를 먹었다가는 뱃살이 늘어나기 십상이다. 이런 식습관은 뱃살을 빼는 데 좋지 않다. 남긴 밥을 억지로 먹는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br/>  <br/>2. 배고픔은 참지 말고, 간식을 챙겨 먹는게 낫다. 배고픔을 참다가 식사를 하면 평소 먹던 양보다 많이 먹게 된다. 배고픔을 참지 말고 열량이 높은 간식 대신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등 저칼로리 간식을 먹으면 건강에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br/> <br/>3. 공복에 마트에 가지 말아야 한다. 공복에 마트에 가게 되면 필요 이상의 먹을거리를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냉장고 속 먹을거리는 언제든지 뱃살로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 두자. <br/> <br/>4. 식사는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규칙적인 식사는 다이어트에 좋다. 규칙적인 식사는 과식을 예방하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이 쉽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되, 하루 한 끼를 가벼운 쉐이크 등으로 대체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량된다. <br/> <br/>5. 음식은 식탁에서 먹어야 한다. 음식을 서서 먹으면 과식을 피하기 어렵다. 식탁에 제대로 앉아 그릇에 덜어먹어야 양을 조절하면서 먹기 편해진다. <br/> <br/>6. 식사는 20분 동안 해야 한다.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분. 개인 접시를 이용해 식사 할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허겁지겁 먹으면 뱃살 역시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다. <br/> <br/>7. 식사를 하며 물도 함께 마셔야 한다. 식사하면서 적당량의 물을 함께 마셔야 한다. 적당량의 물은 과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너무 다량의 물을 마실 경우 위산이 희석돼 소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br/> <br/>8. 저녁 식사 후 양치질은 바로 해야 한다. 밥을 먹고 양치질을 바로 하는 것이다. 식사 후 양치를 늦게 할수록 남아있는 식욕에 주전부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녁 식사를 하자마자 양치질을 하면 식욕이 사라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뿐더러 치아 건강에도 효과적이다. <br/> <br/>9. 아무 간식이나 먹지 말아야 한다. 간식은 골라 먹어야 한다. 간식 중 가장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지방과 단백질이 적고 복합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이다. <br/> <br/>10. 아침식사는 거르지 말아야 한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는 아침식사다. 아침을 먹어야 뇌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돼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또 든든한 아침 식사를 먹으면 점심과 저녁의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 <br/> <br/>한편, 뱃살 빨리 빼는 비결 3가지는 다음과 같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첫번째,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한다.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20분 정도 매주 3일씩 하면 뱃살이 눈에 띄게 사라진다. 달리기나 자전거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운동을 일관된 속도로만 하고 있다면 중간에 10~60초간 전력 질주를 하는 등의 인터벌 트레이닝을 병행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두번째, 지방을 더 섭취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코코넛이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생선, 견과류, 씨앗류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체질량지수가 낮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다고 알려졌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세번째, 녹차를 마신다. 녹차는 면역계를 강화시키고 암 유발 세포를 퇴치하는 효능과 함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열을 내는 효능이 있어 지방 연소 과정을 촉진시킨다. 하루에 녹차 7잔 이상을 마셔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후나 밤늦게 보다는 아침이나 오전 시간대에 마시는 게 좋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94.txt

제목: 평소 '아내덕분' 외쳐온 70대 남편, 아내 말기암 판정에 스스로 세상등져  
날짜: 20150526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5159839  
본문: 50여년을 함께한 아내가 말기 암 판정을 받자 이를 비관한 70대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r/> <br/>2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0시 1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주택 창고에서 A(77)씨가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r/> <br/>A씨는 최근 갑상선암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아내가 말기 판정을 받자 크게 낙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경찰은 말기 암 판정 당시 A씨가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병원을 뛰쳐나갔다는 주변 목격자들이 말에 따라 A씨가 이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A씨 유족들에 따르면 평소 A씨는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사는 것은 다 아내 덕이다.아내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 따라 죽을 준비를 다 해놨다' 는 등의 말을 입버릇처럼 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95.txt

제목: 아내 암판정 소식에 남편 잇따라 목숨 끊어  
날짜: 20150526  
기자: 한현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5254911  
본문: 최근 한달새 아내의 암 판정을 비관해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br/> <br/>2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0시 1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주택 창고에서 A(77)씨가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r/> <br/>조사결과 A씨는 최근 갑상선암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아내가 암의 상태가 말기라는 판정을 받자 크게 낙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경찰은 말기 암 판정 당시 A씨가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병원을 뛰쳐나갔다는 주변 목격자들이 말에 따라 A씨가 이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경찰은 A씨의 유족들로부터 A씨가 평소에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사는 것은 다 아내 덕이다.아내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 따라 죽을 준비를 다 해놨다' 는 등의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br/> <br/>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20대 남편이 아내의 암 판정 소식을 듣고 목숨을 끊었다. <br/> <br/>남편 B씨는 이날 아내가 입원한 병원 의사로부터 급성 패혈증으로 "오늘을 넘기기 힘들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날 0시 32분 광주 모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A(29)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주민이 발견했다. <br/> <br/>경찰 조사결과 사위와 함께 병원을 지키던 장인은 사위가 의사의 설명을 들은 후 연락이 끊기자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 <br/> <br/>A씨는 2년 전 아내와 결혼했으며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아내도 남편 사망 몇시간 뒤 숨졌다. <br/> <br/>경찰은 20대 남편이 아내가 곧 숨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96.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母와 함께한 자화상…생전 엄마옷 입은 女  
날짜: 20150526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5355927  
본문:   <br/> <br/>세상을 떠난 엄마를 추억하려 생전에 모친이 입었던 옷을 따라 입은 여성의 사진이 잔잔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폴란드의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여성은 엄마의 옷 총 10벌을 입은 뒤 진정한 “안녕”이라는 인사를 건넸다. <br/> <br/>폴란드 남부지방의 작은 도시 리두위토비(Rydułtowy)에서 태어난 캐롤라이나 욘데르코(30)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엄마와 함께한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br/> <br/>욘데르코의 엄마는 2008년에 골(骨)암으로 사망했다. 이에 욘데르코는 엄마의 옷을 입음으로써 과거 엄마의 모습을 재현함과 동시에 자신을 이입, 모녀(母女)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려 했다. <br/> <br/> <br/>욘데르코는 “내가 입은 엄마의 옷은 모두 중고품”이라며 “엄마는 결코 새 옷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엄마는 좀 더 중요한 지출을 위해 돈을 아껴 쓰셨다”며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우리 엄마는 당신의 옷을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br/> <br/>욘데르코가 사진을 찍은 장소는 그의 할머니가 살았던 집이다. 욘데르코와 그의 자매 그리고 엄마가 살았던 집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그가 사진을 찍은 장소는 3대에 걸친 추억을 돌이킬 수 있는 장소인 셈이다. <br/> <br/>욘데르코는 “엄마가 내게 피아노를 항상 가르쳐주셨던 걸 기억한다”며 “음을 하나하나 짚어주던 엄마의 온화한 목소리가 생각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철없던 나와 언니는 엄마의 수업을 견디지 못하고 늘 바깥으로 나가 놀곤 했다”고 덧붙였다. <br/> <br/> <br/>욘데르코는 ‘결혼’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가리켜 “내가 7살 때 사촌 결혼식에서 엄마가 입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혼식에서 엄마는 아빠와 춤을 추셨다”며 “엄마는 춤추기를 좋아하셨다”고 말했다. <br/> <br/>욘데르코는 이 외에 ‘일’ ‘여행’ ‘크리스마스’ ‘주말’ ‘유치원’ ‘일요일’ ‘겨울’ 그리고 ‘휴일’이라는 제목의 사진도 게재했다. 그는 각 제목에 맞는 사연이 담긴 옷을 입고 엄마의 모습을 재현했다. <br/> <br/>욘데르코는 “옷을 입는 동안 엄마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느꼈다”며 “모든 사진을 찍고, 마지막 옷을 벗고 나서야 나는 엄마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야 엄마를 하늘로 떠나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br/> <br/> <br/>욘데르코가 사진을 공개한 뒤, 그는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게 쏟아진 이메일은 욘데르코의 사진에 감동했다는 내용부터 그의 사진이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는 글과 이유 모를 마음의 평화를 안겨줬다는 반응 등이 섞인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욘데르코는 “사람들은 내 사진을 보고 그들의 사연과 동일시한 것 같았다”며 “내 사진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 고맙다”고 말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욘데르코 블로그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97.txt

제목: 국립암센터, 암환자 지지의료 국제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50526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5442443  
본문: 국립암센터는 다음달 10일 원내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에서 '신개념의 암 환자 지지의료 (A New Paradigm for Supportive Oncology)'라는 주제로 제9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br/> <br/>이번 심포지엄은 '완화의료'와 '생존자 관리'를 주제로 진행되며 심포지엄을 계기로 암 환자 지지의료의 국내외 동향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br/>  <br/>임종기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에 국한됐던 완화의료를 암 진단 시기부터 조기에 제공하는 한편, 암 치료가 끝난 생존자들도 원활하게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암 환자 지지의료'의 세계적인 흐름이다. <br/> <br/>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콩대학교 보건대학 교수인 리처드 필딩 교수가 말기 암 환자의 지지의료 요구도에 대해서 발표한다. <br/> <br/>또 일본 국립암센터에서 지지요법 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우치토미 요스케 박사가 임상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br/> <br/>또한 국립암센터 지원진료센터에서 통증 다학제클리닉의 대표의사로 있는 김대현 박사의 진료 경험도 발표할 예정이다. <br/>  <br/>두 번째 세션에서는 암 치료 후의 생존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진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의 생존자지원연구부장인 다카하시 미야코 박사가 암 생존자 관리에서 국가와 국립암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한다. <br/> <br/>국립암센터에서 유방암 생존자 다학제클리닉을 책임지고 있는 정소연 박사와 분당서울대병원 암통합지지센터장인 임재영 교수가 종합병원을 기반으로 한 생존자 진료와 재활에 대해 발표한다. <br/>  <br/>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완화의료와 생존자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런 노력이 국립암센터의 미션 중의 하나인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의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r/>  <br/>한편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과학기자협회 학술대회에서 앤서니 박 교수와 다카하시 미야코 박사의 강의에 이어, 국립암센터 김열 박사가 '암 생존자 케어를 위한 한국적 공동진료모델'에 대해 전 세계 유수의 다국적 언론인들과 토론 및 발표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98.txt

제목: 국립암센터, 암환자 지지의료 국제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50526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6100000471  
본문: 국립암센터는 다음달 10일 원내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에서 '신개념의 암 환자 지지의료 (A New Paradigm for Supportive Oncology)'라는 주제로 제9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완화의료'와 '생존자 관리'를 주제로 진행되며 심포지엄을 계기로 암 환자 지지의료의 국내외 동향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기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에 국한됐던 완화의료를 암 진단 시기부터 조기에 제공하는 한편, 암 치료가 끝난 생존자들도 원활하게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암 환자 지지의료'의 세계적인 흐름이다.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콩대학교 보건대학 교수인 리처드 필딩 교수가 말기 암 환자의 지지의료 요구도에 대해서 발표한다.또 일본 국립암센터에서 지지요법 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우치토미 요스케 박사가 임상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국립암센터 지원진료센터에서 통증 다학제클리닉의 대표의사로 있는 김대현 박사의 진료 경험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암 치료 후의 생존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진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의 생존자지원연구부장인 다카하시 미야코 박사가 암 생존자 관리에서 국가와 국립암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한다.국립암센터에서 유방암 생존자 다학제클리닉을 책임지고 있는 정소연 박사와 분당서울대병원 암통합지지센터장인 임재영 교수가 종합병원을 기반으로 한 생존자 진료와 재활에 대해 발표한다.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완화의료와 생존자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런 노력이 국립암센터의 미션 중의 하나인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의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과학기자협회 학술대회에서 앤서니 박 교수와 다카하시 미야코 박사의 강의에 이어, 국립암센터 김열 박사가 '암 생존자 케어를 위한 한국적 공동진료모델'에 대해 전 세계 유수의 다국적 언론인들과 토론 및 발표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899.txt

제목: '아내덕에 이만큼 살았는데' 아내 암 판정에 남편 음독자살  
날짜: 201505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6100000314  
본문: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아내가 말기 암 판정을 받은 것을 비관한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0시 10분께 광주 동구의 한 주택 창고에서 A(77)씨가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최근 갑상선암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아내가 암의 상태가 말기라는 판정을 받자 크게 낙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말기 암 판정 당시 A씨가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병원을 뛰쳐나갔다는 주변 목격자들이 말에 따라 A씨가 이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유족들로부터 A씨가 평소에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사는 것은 다 아내 덕이다. 아내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 따라 죽을 준비를 다 해놨다' 는 등의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00.txt

제목: 평소 '아내덕분' 외쳐온 70대 남편, 아내 말기암 판정에 스스로 세상등져  
날짜: 20150526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6100001044  
본문: 50여년을 함께한 아내가 말기 암 판정을 받자 이를 비관한 70대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0시 1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주택 창고에서 A(77)씨가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최근 갑상선암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아내가 말기 판정을 받자 크게 낙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말기 암 판정 당시 A씨가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병원을 뛰쳐나갔다는 주변 목격자들이 말에 따라 A씨가 이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유족들에 따르면 평소 A씨는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사는 것은 다 아내 덕이다.아내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 따라 죽을 준비를 다 해놨다' 는 등의 말을 입버릇처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01.txt

제목: 아내 암판정 소식에 남편 잇따라 목숨 끊어  
날짜: 20150526  
기자: 한현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6100000130  
본문: 최근 한달새 아내의 암 판정을 비관해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2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0시 1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주택 창고에서 A(77)씨가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최근 갑상선암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아내가 암의 상태가 말기라는 판정을 받자 크게 낙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말기 암 판정 당시 A씨가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병원을 뛰쳐나갔다는 주변 목격자들이 말에 따라 A씨가 이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유족들로부터 A씨가 평소에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사는 것은 다 아내 덕이다.아내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 따라 죽을 준비를 다 해놨다' 는 등의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20대 남편이 아내의 암 판정 소식을 듣고 목숨을 끊었다.남편 B씨는 이날 아내가 입원한 병원 의사로부터 급성 패혈증으로 "오늘을 넘기기 힘들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날 0시 32분 광주 모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A(29)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주민이 발견했다.경찰 조사결과 사위와 함께 병원을 지키던 장인은 사위가 의사의 설명을 들은 후 연락이 끊기자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년 전 아내와 결혼했으며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아내도 남편 사망 몇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20대 남편이 아내가 곧 숨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 것으로 보고 있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02.txt

제목: 한림대학교의료원, 한림중개의학연구소 개소 'Mighty Global Player' 발돋움  
날짜: 20150526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6100000937  
본문:   한림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이혜란)은 4월 18일과 5월 16일에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 각각 ‘한림중개의학연구소’를 개소했다.한림대학교의료원은 2010년 3월 ‘차별적 수월성으로 전문화를 제고하여 Mighty Global Player로 나아간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제3기 Mighty Hallym Initiative 2012 ? 2015’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비전 선포식에서 2012년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개원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개의학연구소 설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최우수 진료?연구기관’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한림중개의학연구소는 최첨단 시설과 우수한 인력을 토대로 연구 인프라를 집약적?효율적으로 배치해 운영한다. 또 진료과 간 연구네트워트를 구축하고, 질병 중심의 임상중개 연구를 활성화해 ‘최우수 진료?연구기관’이라는 한림대학교의료원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한림중개의학연구소(한림대학교성심병원)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Water Purification System 외 20여종의 첨단연구장비와 Specific Pathogene Free(SPF)급의 동물연구실을 포함하여 중동물 및 대동물을 이용한 수술 술기실 등 다양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본관 5층에 한림중개의학연구소(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를 개설하였으며 교수들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을 포함하여 공동기기실, 세포배양실, 멸균실 및 인체유래물은행등을 갖추고 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중개의학연구소는 이런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동물실험뿐만 아니라 세포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이혜란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2003년부터 시작된 'Mighty Hallym' 비전 구현을 위해 의료질과 고객만족도를 향상해왔고, 글로벌 인재양성과 교육강화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한림대학교의료원은 이번 한림중개의학연구소 개소를 통해 질병의 치료와 예방의학의 확대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연구중심의 세계 100대 의료기관으로 진입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또,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영등포구 대림동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인근에 지상 5층, 지하 6층 규모로 연구동을 신축 중이며 2017년 7월 완공예정이다. 연구동이 완공되면 중개의학연구소를 개소해, 암, 노화, 퇴행성 신경계질환 및 국가재난형 신종 전염병을 연구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03.txt

제목: 질 높은 줄 알았더니…종합병원보다못한 상급종합병원  
날짜: 201505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6100000305  
본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일부 대형병원이 중증 질환자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서 종합병원보다 뒤처진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면 의료기관 종류별로 수가를 가산해주는 이른바 '종별 가산제'에 따라 기본진찰료 등 행위별 수가를 의원이나 병원, 종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보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더 많이 받는다.26일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상 의료기관 종류별로 역할을 분담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중에서 암 등 난도가 높거나 희귀하고 복합적인 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곳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문제는 복지부가 평가과정에서 수술환자 사망률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임상의 질 지표를 측정해보지 않고 단순히 환자진료체계 등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갖췄는지만 살펴본다는 것이다.실제로 복지부는 합리적 이유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기준에 의료서비스 제공시스템을 평가하는 인증결과만 넣고 있을 뿐이다. 급성심근경색증과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 뇌졸중, 대장암, 췌장암, 위암, 간암 등 9개 평가항목의 적정성 평가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종합병원보다 못했다. 감사원은 2011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된 44개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고자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종합병원 34곳(500병상 이상)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대장암 9개 평가항목의 종합지표 점수를 산출했다.그 결과, 모 대학병원 등 6개 상급종합병원은 종합지표를 구성하는 9개 평가항목 중에서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 항목에서 종합병원 평균점수보다 낮았다. 감사원은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낮은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종합병원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챙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임상 질 평가지표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04.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母와 함께한 자화상…생전 엄마옷 입은 女  
날짜: 201505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6100000770  
본문:  세상을 떠난 엄마를 추억하려 생전에 모친이 입었던 옷을 따라 입은 여성의 사진이 잔잔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폴란드의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여성은 엄마의 옷 총 10벌을 입은 뒤 진정한 “<span class='quot0'>안녕</span>”이라는 인사를 건넸다.폴란드 남부지방의 작은 도시 리두위토비(Rydułtowy)에서 태어난 캐롤라이나 욘데르코(30)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엄마와 함께한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욘데르코의 엄마는 2008년에 골(骨)암으로 사망했다. 이에 욘데르코는 엄마의 옷을 입음으로써 과거 엄마의 모습을 재현함과 동시에 자신을 이입, 모녀(母女)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려 했다.욘데르코는 “내가 입은 엄마의 옷은 모두 중고품”이라며 “엄마는 결코 새 옷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엄마는 좀 더 중요한 지출을 위해 돈을 아껴 쓰셨다”며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우리 엄마는 당신의 옷을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욘데르코가 사진을 찍은 장소는 그의 할머니가 살았던 집이다. 욘데르코와 그의 자매 그리고 엄마가 살았던 집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그가 사진을 찍은 장소는 3대에 걸친 추억을 돌이킬 수 있는 장소인 셈이다.욘데르코는 “<span class='quot0'>엄마가 내게 피아노를 항상 가르쳐주셨던 걸 기억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음을 하나하나 짚어주던 엄마의 온화한 목소리가 생각났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그러나 철없던 나와 언니는 엄마의 수업을 견디지 못하고 늘 바깥으로 나가 놀곤 했다</span>”고 덧붙였다.욘데르코는 ‘결혼’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가리켜 “<span class='quot0'>내가 7살 때 사촌 결혼식에서 엄마가 입었던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pan class='quot0'>결혼식에서 엄마는 아빠와 춤을 추셨다</span>”며 “엄마는 춤추기를 좋아하셨다”고 말했다.욘데르코는 이 외에 ‘일’ ‘여행’ ‘크리스마스’ ‘주말’ ‘유치원’ ‘일요일’ ‘겨울’ 그리고 ‘휴일’이라는 제목의 사진도 게재했다. 그는 각 제목에 맞는 사연이 담긴 옷을 입고 엄마의 모습을 재현했다.욘데르코는 “<span class='quot0'>옷을 입는 동안 엄마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느꼈다</span>”며 “모든 사진을 찍고, 마지막 옷을 벗고 나서야 나는 엄마에게 ‘<span class='quot0'>안녕</span>’이라고 인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그때야 엄마를 하늘로 떠나보낼 수 있었다</span>”고 덧붙였다.욘데르코가 사진을 공개한 뒤, 그는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게 쏟아진 이메일은 욘데르코의 사진에 감동했다는 내용부터 그의 사진이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는 글과 이유 모를 마음의 평화를 안겨줬다는 반응 등이 섞인 것으로 전해졌다.욘데르코는 “<span class='quot1'>사람들은 내 사진을 보고 그들의 사연과 동일시한 것 같았다</span>”며 “<span class='quot1'>내 사진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 고맙다</span>”고 말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사진=욘데르코 블로그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05.txt

제목: 이왕표 은퇴, 단도암 투병 '수술 후유증으로 대장 간 동맥 터지기까지' 안타까워  
날짜: 20150525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510017370992  
본문: 이왕표 은퇴이왕표 은퇴, 단도암 투병 '수술 후유증으로 대장 간 동맥 터지기 까지' 안타까워 <br/> <br/>프로레슬러 이왕표의 은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담도암 투병 사실이 주목되고 있다. <br/> <br/>이왕표는 지난 2013년 11월 방송된 KBS 2TV '여유만만' 게스트로 출연했다. <br/> <br/>당시 이왕표는 담도암 판정을 받고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며 "초기에 발견된 편인데도 수술을 두 번이나 했다. 8월 14일에는 담도 종양 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8월 27일에는 담도에서 전이된 암 때문에 췌장 수술을 받았다. 8시간이나 걸렸다"며 "수술 후유증으로 대장과 간 동맥이 터지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br/> <br/>이어 "원래 내 키가 190cm, 몸무게가 120kg이었는데 두달 만에 36kg가 급격하게 빠져서 지금은 84kg다. 허리 사이즈도 3인치가 줄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r/> <br/>한편 이왕표는 2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은퇴식을 열고 40년의 선수생활을 마감했다. <br/> <br/>은퇴 이왕표 담도암 투병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왕표 은퇴, 담도암 투병 빨리 나아지길?" "이왕표 은퇴, 투병 사실 정말 몰랐네" "이왕표 은퇴, 몸 관리 잘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06.txt

제목: 15년간 장병들 머리 다듬은 ‘사랑의 가위손’  
날짜: 20150525  
기자: 김선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510017369636  
본문: 15년째 장병들을 찾아가 무료로 이발을 해주고 있는 ‘사랑의 가위손’이 있다. 주인공은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에서 이발관을 운영하고 있는 홍문표(61)씨다. <br/> <br/>홍씨의 무료 이발봉사에는 사연이 있다. 2000년 배에 복수가 차올라 병원을 찾았던 홍씨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8일 동안 응급실에 누워 각종 검사를 받으면서 홍씨는 ‘암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죽는 순간까지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다행히 암 판정은 ‘오진’으로 밝혀졌고, 그때부터 홍씨의 ‘봉사하는 삶’이 시작됐다. <br/> <br/>전남 화순군 능주면에서 이발관을 운영하는 홍문표(오른쪽)씨가 육군 제31보병사단 예하 화순대대를 찾아 병사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있다. <br/>육군 제공마침 홍씨는 평소 이발관 단골이던 육군 제31보병사단 예하 화순대대 간부로부터 ‘부대 이발병의 기술이 부족하니 이발병에게 기술을 전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를 흔쾌히 받아들인 홍씨는 이후 15년 동안 31사단 화순대대와 인연을 이어왔다. <br/> <br/>매주 부대를 방문해 이발병에게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은 물론 장병의 이발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또한 부대의 가장 큰 훈련인 유격훈련과 혹한기 훈련의 마지막 날 행군 때는 장병들에게 떡과 어묵, 사탕 등 간식도 챙겨주고 있다. <br/> <br/>홍씨는 전역한 장병이 자녀를 데리고 이발관에 들러 ‘이 아저씨가 아빠 군대 있을 때 이발을 해주신 분’이라고 인사를 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그는 “부대 장병들을 재능 기부나 봉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우리 장병들도 모두 한창때에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힘든 일을 겪어 보니 세상을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발을 배웠으니 나누며 사는 것”이라며 “이나마 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br/> <br/>올해로 환갑을 맞은 홍씨는 “<span class='quot0'>손에서 가위를 놓는 날까지 장병의 이발을 책임지겠다</span>”며 ‘사랑의 가위손’ 역할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r/> <br/>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07.txt

제목: 15년간 장병들 머리 다듬은 '사랑의 가위손'  
날짜: 20150525  
기자: 김선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510017369555  
본문: 15년째 장병들을 찾아가 무료로 이발을 해주고 있는 ‘사랑의 가위손’이 있다. 주인공은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에서 이발관을 운영하고 있는 홍문표(61)씨다. <br/> <br/>홍씨의 무료 이발봉사에는 사연이 있다. 2000년 배에 복수가 차올라 병원을 찾았던 홍씨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8일 동안 응급실에 누워 각종 검사를 받으면서 홍씨는 ‘암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죽는 순간까지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다행히 암 판정은 ‘오진’으로 밝혀졌고, 그때부터 홍씨의 ‘봉사하는 삶’이 시작됐다. <br/> <br/>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서 이발관을 운영하는 홍문표(사진 우측 끝)씨가 육군 제31보병사단 예하 화순대대를 찾아 병사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있다. 육군 제공마침 홍씨는 평소 이발관 단골이던 육군 제31보병사단 예하 화순대대 간부로부터 ‘부대 이발병의 기술이 부족하니 이발병에게 기술을 전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를 흔쾌히 받아들인 홍씨는 이후 15년 동안 31사단 화순대대와 인연을 이어왔다. 매주 부대를 방문해 이발병에게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은 물론 장병의 이발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또한 부대의 가장 큰 훈련인 유격훈련과 혹한기 훈련의 마지막 날 행군 때는 장병들에게 떡과 어묵, 사탕 등 간식도 챙겨주고 있다. <br/> <br/>홍씨는 전역한 장병이 자녀를 데리고 이발관에 들러 ‘이 아저씨가 아빠 군대 있을 때 이발을 해주신 분’이라고 인사를 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그는 “부대 장병들을 재능 기부나 봉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우리 장병들도 모두 한창때에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힘든 일을 겪어 보니 세상을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발을 배웠으니 나누며 사는 것”이라며 “이나마 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환갑을 맞은 홍씨는 “<span class='quot0'>손에서 가위를 놓는 날까지 장병의 이발을 책임지겠다</span>”며 ‘사랑의 가위손’ 역할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r/> <br/>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08.txt

제목: 아내 암 판정 후 처남댁 상습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날짜: 20150524  
기자: 박종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4453865  
본문: 아내의 암 판정 이후 지적 장애가 있는 처남댁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br/> <br/>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r/> <br/>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처남댁 B(42)씨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br/> <br/>A씨는 또 지난 2013년 9월 장애인이자 B씨의 남편인 처남 C(52)씨를 때려 다치게 한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br/> <br/>지적장애 2급인 B씨는 한 장애인 시설에서 같은 장애를 앓는 C씨를 만난 뒤 지난 2004년 남편의 누나 부부가 사는 강화도에서 함께 살았다. <br/> <br/>A씨는 지난 2009년 5월께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자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다. <br/> <br/>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br/> <br/>이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10년 넘게 부양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r/> <br/>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09.txt

제목: 아내 암 판정 후 처남댁 상습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날짜: 20150524  
기자: truth@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4100000250  
본문: 아내의 암 판정 이후 지적 장애가 있는 처남댁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처남댁 B(42)씨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또 지난 2013년 9월 장애인이자 B씨의 남편인 처남 C(52)씨를 때려 다치게 한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지적장애 2급인 B씨는 한 장애인 시설에서 같은 장애를 앓는 C씨를 만난 뒤 지난 2004년 남편의 누나 부부가 사는 강화도에서 함께 살았다.A씨는 지난 2009년 5월께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자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10년 넘게 부양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10.txt

제목: 성우 오세홍 별세, 항암 치료 중 병세 악화 '성우계 대부 지다' 추모물결  
날짜: 20150523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310017361435  
본문: 성우 오세홍 별세(사진= 구자형 트위터)성우 오세홍 별세, 항암 치료 중 병세 악화 '성우계 대부 지다' 추모물결 <br/> <br/>'짱구 아빠' 목소리 연기로 유명한 성우 오세홍이 향년 63세로 22일 별세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br/> <br/>지난 22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오세홍은 이날 새벽 5시 20분 항암 치료 중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br/> <br/>병원 관계자 측은 "지난해 5월 초 암 진단을 받고 1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결국 오늘 세상을 떠나셨다"고 전했다. <br/> <br/>이에 구자형, 정재헌, 이경태, 서유리 등 많은 후배 성우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br/> <br/>오세홍은 '짱구아빠 성우'로 유명한 성우계의 대부다. 1976년 KBS 14기 공채 성우로 데뷔했고, 만화 '아기공룡 둘리'에서 마이콜을 연기했다. <br/> <br/>오세홍은 영화에서 톰 크루즈 등의 성우를 맡았고, 최근까지 '짱구는 못말려'에서 '짱구아빠' 목소리를 연기했다. 오세홍은 '짱구아빠 성우'로 이름을 날렸다. <br/> <br/>한편 고인의 빈소는 고양 일산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4일 1시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11.txt

제목: '짱구 아빠 목소리' 성우 오세홍씨 별세  
날짜: 20150522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4058789  
본문: 성우 오세홍씨가 암 투병 중 22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br/> <br/>오씨는 이날 새벽 5시20분 항암 치료를 받던 중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br/> <br/>고인이 된 오씨는 일본 만화영화 '짱구는 못말려' 시리즈에서 짱구 아빠 목소리 더빙을 담당했다.  <br/> <br/>1976년 KBS 14기 공채 성우로 데뷔 후 '아기공룡 둘리'에서 마이콜 목소리를 연기해 인기를 끌었다. 2005년에는 KBS 성우연기대상 TV외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br/> <br/>빈소는 고양 일산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4일 1시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12.txt

제목: ‘메르스’ 일반 국민 전파 가능성 없어  
날짜: 20150522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3936850  
본문:   <br/> <br/> <br/>메르스 확진 환자가 3명으로 늘면서 메르스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br/> <br/>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메르스는 2012년 6월 첫 인체 감염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확인됐다. 2003년 중국에서 시작된 사스처럼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전파가 의심되고 있고, 유사한 코로나바이러스에서 시작되었다.  <br/> <br/>잠복기는 2~14일로 알려져 있고, 초기 증상은 발열, 기침, 오한, 인두통, 근육통, 관절통과 같은 독감 증상과 유사하다. 일부환자는 중증으로 진행하면서 호흡부전, 신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당뇨나 암,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신질환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거나 면역저하자에서 주로 발생하며 사망률도 높다. <br/> <br/>메르스의 전파경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오만과 이집트에서는 낙타에서 메르스바이러스의 항체가 발견되었고, 카타르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접촉했던 낙타에 대한 추적 연구에서 메르스바이러스의 RNA가 발견되어 낙타가 인체에 감염을 전파하는 주요 숙주로 생각되고 있다. 그리고 발병자의 30%가 낙타와 접촉이 있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다. <br/> <br/>아직까지 메르스 예방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증적 치료와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늦추는 치료가 주된 치료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며, 2차 세균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하고, 신부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석을 시행할 수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스가 발생했을 때 썼던 항바이러스 약들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시험 적용 중이지만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br/> <br/>메르스는 사스와 유사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임상양상도 폐렴과 호흡부전증후군으로 사망하여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사스는 침방울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국가로 확산하였던 것과는 달리 메르스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어 확산 속도는 빠르지 않다.  <br/> <br/>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span class='quot0'>1차 발병자에 의해 전파된 2차 발병자는 대게 가족과 같이 매우 긴밀한 접축을 했을 경우에만 발병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므로 일반 국민들이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러나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동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낙타와의 접촉을 조심해야 한다. 또 위험지역 여행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고령이거나 당뇨나 암,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신질환과 같은 기저 질환 사람은 메르스바이러스에 노출돼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중동 지역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13.txt

제목: '짱구는 못말려' 성우 오세홍 별세  
날짜: 201505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2100000375  
본문: 성우 오세홍 별세 성우 오세홍 별세성우 오세홍 별세성우 오세홍 별세성우 오세홍씨가 암 투병 중 22일 별세했다. 향년 63세.오씨는 이날 새벽 5시20분 항암 치료를 받던 중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고인이 된 오씨는 일본 만화영화 '짱구는 못말려' 시리즈에서 짱구 아빠 목소리 더빙을 담당했다. 1976년 KBS 14기 공채 성우로 데뷔 후 '아기공룡 둘리'에서 마이콜 목소리를 연기해 인기를 끌었다. 2005년에는 KBS 성우연기대상 TV외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빈소는 고양 일산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4일 1시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14.txt

제목: '짱구 아빠 목소리' 성우 오세홍씨 별세  
날짜: 20150522  
기자: hhy@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2100000379  
본문: 성우 오세홍씨가 암 투병 중 22일 별세했다. 향년 63세.오씨는 이날 새벽 5시20분 항암 치료를 받던 중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고인이 된 오씨는 일본 만화영화 '짱구는 못말려' 시리즈에서 짱구 아빠 목소리 더빙을 담당했다. 1976년 KBS 14기 공채 성우로 데뷔 후 '아기공룡 둘리'에서 마이콜 목소리를 연기해 인기를 끌었다. 2005년에는 KBS 성우연기대상 TV외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빈소는 고양 일산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4일 1시다.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15.txt

제목: 성우 오세홍, 1년 동안 투병 생활 하다 결국 사망  
날짜: 20150522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210017359141  
본문:   <br/> <br/>성우 오세홍이 항암 치료중 병세 악화로 22일 오전 사망했다. <br/> <br/>오세홍은 22일 오전 5시 20분께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 공단 일산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br/> <br/>병원 관계자 측은 "지난해 5월 초 암 진단을 받고 1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결국 오늘 세상을 떠나셨다"고 전했다. <br/> <br/>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오세홍, 하늘 나라에서 행복하세요</span>” “<span class='quot1'>오세홍,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span>” “오세홍이 짱구 아빠였구나”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16.txt

제목: 쉬쉬하며 방치… 자칫 큰병 키울 수도  
날짜: 20150522  
기자: azahoit@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2100000224  
본문: 우리나라 사람 4명 중 3명이 한 번쯤 치질로 고생한다고 한다. 하지만 치질은 주변 사람들은 물론 가족에게도 쉬쉬하는 ‘부끄러운 병’이기도 하다. 환자들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치질을 수년 동안 방치해 만성으로 키우는 일이 많다.항문질환은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을 유발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완치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EBS1 ‘명의’는 22일 오후 9시50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변비와 치질’ 편에서 황도연 항문질환 전문의(서울송도병원), 이길연 대장항문외과 교수(경희대병원)와 함께 항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항문질환이 생길 경우 홀로 병을 키우지 말고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 EBS 제공치질에는 항문에서 피가 나고 덩어리가 빠져나오는 치핵, 항문 점막이 찢어지는 치열, 염증으로 누공이 생기는 치루가 포함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치핵이다. 대변을 볼 때 직장과 점막이 밀려나오고 항문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황 전문의는 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새로운 수술법을 통해 환자들의 치핵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있다.지속적으로 항문이 찢어져 피가 나고 쓰리는 치열은 방치할 경우 찢어진 부위의 섬유화가 진행되어 탄력성을 잃고 더 깊이 찢어지기를 반복한다. 항문이 영구적으로 기능을 잃어 변실금까지 올 수 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대변이 나오는 현상을 변실금이라 한다. 이 교수는 변실금으로 사람들을 기피하며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된 환자들을 치료한다.단순변비가 때로는 큰 병의 신호일 수 있다. 박소연(27·여)씨는 언제부턴가 배변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변비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대장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관장약을 먹었는데도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지 않았다. 직장암 3기. 직장이 암 덩어리로 가득 차 장 운동이 멈춘 상태였다. 두 명의는 배변 습관에 작은 변화라도 생길 경우 대장내시경을 통해 대장항문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한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17.txt

제목: ‘메르스’ 일반 국민 전파 가능성 없어  
날짜: 20150522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2100000974  
본문:  메르스 확진 환자가 3명으로 늘면서 메르스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메르스는 2012년 6월 첫 인체 감염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확인됐다. 2003년 중국에서 시작된 사스처럼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전파가 의심되고 있고, 유사한 코로나바이러스에서 시작되었다. 잠복기는 2~14일로 알려져 있고, 초기 증상은 발열, 기침, 오한, 인두통, 근육통, 관절통과 같은 독감 증상과 유사하다. 일부환자는 중증으로 진행하면서 호흡부전, 신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당뇨나 암,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신질환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거나 면역저하자에서 주로 발생하며 사망률도 높다.메르스의 전파경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오만과 이집트에서는 낙타에서 메르스바이러스의 항체가 발견되었고, 카타르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접촉했던 낙타에 대한 추적 연구에서 메르스바이러스의 RNA가 발견되어 낙타가 인체에 감염을 전파하는 주요 숙주로 생각되고 있다. 그리고 발병자의 30%가 낙타와 접촉이 있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다.아직까지 메르스 예방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증적 치료와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늦추는 치료가 주된 치료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며, 2차 세균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하고, 신부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석을 시행할 수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스가 발생했을 때 썼던 항바이러스 약들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시험 적용 중이지만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메르스는 사스와 유사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임상양상도 폐렴과 호흡부전증후군으로 사망하여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사스는 침방울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국가로 확산하였던 것과는 달리 메르스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어 확산 속도는 빠르지 않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span class='quot0'>1차 발병자에 의해 전파된 2차 발병자는 대게 가족과 같이 매우 긴밀한 접축을 했을 경우에만 발병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므로 일반 국민들이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span>”고 말했다.그러나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동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낙타와의 접촉을 조심해야 한다. 또 위험지역 여행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고령이거나 당뇨나 암,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신질환과 같은 기저 질환 사람은 메르스바이러스에 노출돼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중동 지역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18.txt

제목: 초음파 검사와 노인 틀니 등 건강보험 혜택 확대 결정  
날짜: 20150521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3727774  
본문: 7월부터 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노인은 시중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된다. <br/> <br/>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을 7월1일부터 현행 만 7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도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br/> <br/>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틀니는 기존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 적은 약 61만원 정도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임플란트도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올해 기준 약 10만4000∼11만9000명이 치과 관련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br/> <br/>초음파 검사의 급여혜택 확대로 그동안 잦은 검사로 필수의료에 해당했지만 일부만 보험적용이 됐던 환자들도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은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상복부 통증 환자가 간암이나 췌장암 등 4대 중즐질환의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면 급여혜택을 볼 수 있다. <br/> <br/>건정심은 자궁경부암 검진연령도 현행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도 1년에서 6개월로 각각 조정했다. 최근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이 늘고 종양의 크기가 두 배로 증가하는 시간이 빠른 감암의 특성을 고려했다. 또 7월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상급병시료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보조 간호에도 보험적용을 해 완화의료 환자와 가족의 진료비 부담없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19.txt

제목: 성전환 부부의 기쁨 "우리가 원했던 지금이에요"  
날짜: 20150521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3230131  
본문:   <br/> <br/>지난 3월28일(현지시각) 결혼한 신 호튼(26)과 토니 하퍼(22·여)는 잉글랜드 브리스톨 출신으로 10대였을 때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됐으며, 나이 차는 있었지만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 <br/> <br/>여기까지만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만나 친구가 되고, 결혼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호튼은 원래 ‘여자’였다. 같은 여학생으로서 하퍼를 알게 된 후, 호튼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이다. <br/> <br/>호튼은 어린 시절 자신의 성과 관련한 고민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여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남자에 가깝다는 생각을 늘 했다. 그에게 하퍼는 같은 또래 여학생 중 처음으로 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이었다. 심지어 엄마에게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싶다는 말을 하기 전이었다. <br/> <br/>‘딸’의 고민을 처음 접한 호튼의 엄마는 놀랐지만 그의 생각을 응원했다. 호튼의 엄마는 “딸이 내게 ‘엄마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난 남자예요’라는 말을 했다”며 “다소 놀랐지만 호튼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네 곁에 있겠다’고 격려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br/> <br/> <br/>스무 살이 되던 해, 호튼은 수차례에 걸친 상담을 받고 나서 본격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성전환 수술도 받았으며, 호르몬 주사 덕분에 얼굴에는 거뭇한 수염이 자랐고, 목소리도 점점 굵어졌다. <br/> <br/>몇 년 뒤, 호튼과 하퍼는 다시 만났고, 두 사람은 자기들의 우정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br/> <br/>결혼부터 올려야 했지만, 두 사람은 임신부터 도전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확인했던 그 시점에 호튼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결혼보다 손주를 먼저 안겨드리는 게 좋겠다고 두 사람은 생각했다. <br/> <br/>그러나 쉽지 않았다. 인공수정에 수차례 도전했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그렇다고 포기할 두 사람이 아니었다. 이들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공수정에 도전했으며, 마침내 병원으로부터 임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날 호튼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br/> <br/>하퍼는 “<span class='quot0'>몇 차례 임신에 실패한 상황이라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어느날 병원에서 임신에 성공했다는 결과를 접하고 우리는 믿을 수 없었다</span>”고 말했다. <br/> <br/>두 사람은 지난 3일, 몸무게 약 3.9kg의 로매니 마틴을 낳았다. <br/> <br/>하퍼는 “<span class='quot0'>이제야 우리가 원했던 모든 걸 갖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내가 엄마라는 게 자랑스럽다</span>”고 말했다. 호튼도 “우리가 항상 원했던 상황이지만, 쉽게 마주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고 거들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미러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20.txt

제목: 이화의료원, '여성이 뽑은 최고 명품 대상' 수상  
날짜: 2015052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3331602  
본문:   <br/> <br/>여성 질환 치료 분야를 집중 육성해 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이 '2015년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개 부문 수상했다. <br/> <br/>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20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에서 개최된 '제17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시상식에서 이대여성암병원과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가 암센터, 건강증진센터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br/> <br/>지난 1999년 시작된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은 여성신문사가 기업 및 기관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br/> <br/>기업 및 기관의 브랜드 평가로 제품의 품질 우수성,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온라인 조사와 자문위원단 및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한다. <br/> <br/>이대여성암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여성암 전문의 보유 및 여성암 환자를 위한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시설 운영 ▲여성암 환자만을 위한 차별화된 여성친화적 진료 서비스 ▲여성암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첨단 장비의 지속적 도입 등을 높게 평가 받아 암센터 부문 대상을 7년 연속 수상했다. <br/> <br/>또한 대학병원 최초로 여성과 남성의 건강검진을 분리, 독립시켜 운영하고 있는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신속하고 편리한 건강검진 시스템과 여성친화적인 편안한 진료 환경을 구축,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건강증진센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br/> <br/>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이대여성암병원과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는 여성 고객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신속하고 편안한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세심한 진료 서비스로 고객의 사랑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br/> <br/>이어 "앞으로도 여성 질환 치료 분야 국내 대표 병원으로서 여성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한 삶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21.txt

제목: 부부의 날, 부모님께 ‘건강식품’ 대신 ‘건강’을 선물하세요  
날짜: 20150521  
기자: 최종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3259659  
본문:   <br/> <br/>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가짜 백수오 사태로 인해 부모님을 위한 선물로 가장 인기가 높았던 건강식품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br/> <br/>특히 갱년기를 경험하는 부모님에게는 건강식품 보다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부의 날을 맞아 부모님에게 진짜 건강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모든 50-60대 중장년층이 경험하는 갱년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백수오’와 같은 건강식품 일시적 효과만 보일 뿐 장기적 치료 효과 없어 <br/> <br/>가짜 백수오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중년의 여성들은 갱년기를 치료의 대상이기보다는 건강식품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리해야 하는 증상 정도로만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다.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열성홍조, 가슴 두근거림, 발한과 수면장애를 겪게 된다. 이러한 증상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치매 등의 위험을 예고하는 전조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br/> <br/>에스트로겐은 머리카락에서부터 발톱에까지 여성의 모든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 초기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할지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br/> <br/>갱년기는 폐경이라는 큰 신체의 변화를 경험하는 중년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50대를 지나는 남성들 역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갱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여성처럼 즉각적인 신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증상이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 갱년기는 노화를 촉진하고 신체의 저항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중년 남성 건강의 큰 적이 될 수 있다. <br/> <br/>남성 갱년기는 피로감, 우울증, 기억력 저하 등을 비롯해 체지방 증가, 성기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불러 일으킨다. 하지만 갱년기 증상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건강식품들은 실제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바가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br/> <br/>중앙대학교병원 산부인과 박형무 교수는 “그 동안 갱년기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왔던 건강식품들은 안면홍조와 같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다”며 “건강식품들의 효과는 대부분 위약효과와 같거나 효과가 있더라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다만 자연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란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러한 건강식품들은 장기간 깊이 있게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갱년기 장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승마추출물은 간 독성을 일으킨다고 보고된 바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r/> <br/>갱년기 치료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호르몬 요법’ <br/> <br/>남성, 여성 모두 갱년기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호르몬 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호르몬 요법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호르몬 요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br/> <br/>박형무 교수는 “<span class='quot0'>폐경 후 여성 호르몬 요법은 오랜 기간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특히 호르몬 요법이 유방암을 발생시킨다고 우려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실제로 에스트로겐 제제를 사용했을 경우 유방암의 발병률이 최대 13년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방에 자극이 덜 한 경구용 호르몬제 역시 이미 시장에서 20년 넘게 처방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아도 좋다</span>”고 설명했다. <br/> <br/>남성 갱년기 치료도 부족한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 방법이 있다. 근력이 증가하고 체지방감소와 골다공증 예방 등 신체 전반과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남성호르몬은 갱년기 환자에게는 큰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22.txt

제목: 쉬쉬하며 방치… 자칫 큰병 키울 수도  
날짜: 20150521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110017355338  
본문: 우리나라 사람 4명 중 3명이 한 번쯤 치질로 고생한다고 한다. 하지만 치질은 주변 사람들은 물론 가족에게도 쉬쉬하는 ‘부끄러운 병’이기도 하다. 환자들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치질을 수년 동안 방치해 만성으로 키우는 일이 많다. <br/> <br/>항문질환은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을 유발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완치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EBS1 ‘명의’는 22일 오후 9시50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변비와 치질’ 편에서 황도연 항문질환 전문의(서울송도병원), 이길연 대장항문외과 교수(경희대병원)와 함께 항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br/> <br/> 항문질환이 생길 경우 홀로 병을 키우지 말고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 <br/>EBS 제공치질에는 항문에서 피가 나고 덩어리가 빠져나오는 치핵, 항문 점막이 찢어지는 치열, 염증으로 누공이 생기는 치루가 포함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치핵이다. 대변을 볼 때 직장과 점막이 밀려나오고 항문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황 전문의는 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새로운 수술법을 통해 환자들의 치핵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br/> <br/>지속적으로 항문이 찢어져 피가 나고 쓰리는 치열은 방치할 경우 찢어진 부위의 섬유화가 진행되어 탄력성을 잃고 더 깊이 찢어지기를 반복한다. 항문이 영구적으로 기능을 잃어 변실금까지 올 수 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대변이 나오는 현상을 변실금이라 한다. 이 교수는 변실금으로 사람들을 기피하며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된 환자들을 치료한다. <br/> <br/>단순변비가 때로는 큰 병의 신호일 수 있다. 박소연(27·여)씨는 언제부턴가 배변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변비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대장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관장약을 먹었는데도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지 않았다. 직장암 3기. 직장이 암 덩어리로 가득 차 장 운동이 멈춘 상태였다. 두 명의는 배변 습관에 작은 변화라도 생길 경우 대장내시경을 통해 대장항문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한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23.txt

제목: 성전환 부부의 기쁨 "우리가 원했던 지금이에요"  
날짜: 201505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1100001080  
본문:  지난 3월28일(현지시각) 결혼한 신 호튼(26)과 토니 하퍼(22·여)는 잉글랜드 브리스톨 출신으로 10대였을 때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됐으며, 나이 차는 있었지만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여기까지만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만나 친구가 되고, 결혼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호튼은 원래 ‘여자’였다. 같은 여학생으로서 하퍼를 알게 된 후, 호튼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이다.호튼은 어린 시절 자신의 성과 관련한 고민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여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남자에 가깝다는 생각을 늘 했다. 그에게 하퍼는 같은 또래 여학생 중 처음으로 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이었다. 심지어 엄마에게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싶다는 말을 하기 전이었다.‘딸’의 고민을 처음 접한 호튼의 엄마는 놀랐지만 그의 생각을 응원했다. 호튼의 엄마는 “딸이 내게 ‘엄마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난 남자예요’라는 말을 했다”며 “다소 놀랐지만 호튼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네 곁에 있겠다’고 격려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스무 살이 되던 해, 호튼은 수차례에 걸친 상담을 받고 나서 본격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성전환 수술도 받았으며, 호르몬 주사 덕분에 얼굴에는 거뭇한 수염이 자랐고, 목소리도 점점 굵어졌다.몇 년 뒤, 호튼과 하퍼는 다시 만났고, 두 사람은 자기들의 우정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결혼부터 올려야 했지만, 두 사람은 임신부터 도전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확인했던 그 시점에 호튼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결혼보다 손주를 먼저 안겨드리는 게 좋겠다고 두 사람은 생각했다.그러나 쉽지 않았다. 인공수정에 수차례 도전했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그렇다고 포기할 두 사람이 아니었다. 이들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공수정에 도전했으며, 마침내 병원으로부터 임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날 호튼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이다.하퍼는 “<span class='quot0'>몇 차례 임신에 실패한 상황이라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어느날 병원에서 임신에 성공했다는 결과를 접하고 우리는 믿을 수 없었다</span>”고 말했다.두 사람은 지난 3일, 몸무게 약 3.9kg의 로매니 마틴을 낳았다.하퍼는 “<span class='quot0'>이제야 우리가 원했던 모든 걸 갖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내가 엄마라는 게 자랑스럽다</span>”고 말했다. 호튼도 “우리가 항상 원했던 상황이지만, 쉽게 마주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고 거들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사진=영국 미러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24.txt

제목: 소람한방병원 의학연구소, 유타주립대와 국제 공동연구협약  
날짜: 201505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1100000032  
본문: 〔스포츠월드=윤정한 기자〕 소람한방병원 의학연구소가 미국 유타 주립대학교 생명공학부 바이오혁신센터와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유타 주립대에서 열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오는 2016년 12월말까지 ▲산양산삼에서의 항암물질 추출기술 개발 ▲한약재에서 항암지표물질 분리, 정제 및 새로운 제형개발 ▲한방과 양방의 병행치료에서 항암의 시너지 효과를 규명하고 한방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조원준 소람한방병원 의학연구소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 협약은 미국 유타주립대와 항암물질을 추출하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중국 허난농업대학교와 공동으로 한·미·중 3개 기관이 협업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한국의 한방 면역암치료에 대한 특성분석을 동시에 하는 다국적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우리 한방과 한약재(천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 통합면역 암치료 특화 소람한방병원(병원장 성 신)은 지난 3월 대전대학교 LINC 사업단의 협력기관과 국내 한방바이오사업의 산업화를 위한 표준화 개발과 한약재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는 연구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양한방의 "연구와 근거중심의 병원"과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소람한방병원은 양방과 한방의 전문 의료진 협진시스템을 구축 환자 맞춤 통합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람한방병원 의학연구소를 설립해 면역증진을 통한 환자 만족도 향상과 통합암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yun0086@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25.txt

제목: 이화의료원, '여성이 뽑은 최고 명품 대상' 수상  
날짜: 2015052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1100000671  
본문:  여성 질환 치료 분야를 집중 육성해 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이 '2015년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개 부문 수상했다.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20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에서 개최된 '제17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시상식에서 이대여성암병원과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가 암센터, 건강증진센터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1999년 시작된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은 여성신문사가 기업 및 기관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상이다.기업 및 기관의 브랜드 평가로 제품의 품질 우수성,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온라인 조사와 자문위원단 및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한다.이대여성암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여성암 전문의 보유 및 여성암 환자를 위한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시설 운영 ▲여성암 환자만을 위한 차별화된 여성친화적 진료 서비스 ▲여성암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첨단 장비의 지속적 도입 등을 높게 평가 받아 암센터 부문 대상을 7년 연속 수상했다.또한 대학병원 최초로 여성과 남성의 건강검진을 분리, 독립시켜 운영하고 있는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신속하고 편리한 건강검진 시스템과 여성친화적인 편안한 진료 환경을 구축,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건강증진센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이대여성암병원과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는 여성 고객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신속하고 편안한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세심한 진료 서비스로 고객의 사랑을 받아왔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여성 질환 치료 분야 국내 대표 병원으로서 여성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한 삶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26.txt

제목: 초음파 검사와 노인 틀니 등 건강보험 혜택 확대 결정  
날짜: 20150521  
기자: brightw@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1100000835  
본문: 7월부터 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노인은 시중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을 7월1일부터 현행 만 7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도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틀니는 기존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 적은 약 61만원 정도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임플란트도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올해 기준 약 10만4000∼11만9000명이 치과 관련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초음파 검사의 급여혜택 확대로 그동안 잦은 검사로 필수의료에 해당했지만 일부만 보험적용이 됐던 환자들도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은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상복부 통증 환자가 간암이나 췌장암 등 4대 중즐질환의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면 급여혜택을 볼 수 있다.건정심은 자궁경부암 검진연령도 현행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도 1년에서 6개월로 각각 조정했다. 최근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이 늘고 종양의 크기가 두 배로 증가하는 시간이 빠른 감암의 특성을 고려했다. 또 7월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상급병시료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보조 간호에도 보험적용을 해 완화의료 환자와 가족의 진료비 부담없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27.txt

제목: 봉준호 "불안과 공포는 나의 힘…영화 제작 원동력"  
날짜: 20150521  
기자: sskim65@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1100000091  
본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궁극의 공포’란 ‘과연 내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드는 때’일 겁니다.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잔혹한 순간과 맞닥뜨리는 것이죠. 하지만 궁극의 공포란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냥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극복되지 않는 불안과 공포-영화 창작과정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란 부제를 단 ‘봉준호 감독 마스터클래스’에서 봉 감독이 직접 털어놓은 속내다. 천재적인 감각과 구성력, 기교와 뚝심을 두루 갖추고 ‘한국 영화의 오늘’을 끌어가는 그도 창작의 고통에선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가 보다. 18일 오후 7시 서울 압구정CGV 아트하우스에서 열린 클래스는 3시간 10분 동안 한 차례도 쉬는 시간 없이 ‘롱테이크’로 진행됐다. 봉 감독은 ‘괴물’ ‘마더’ ‘설국열차’ 세 작품에 얽힌 연출의도를 구체적 사례에 녹여냈다.“이처럼 공포가 밀려드는 것은 ‘집착’ 탓입니다. 집착하는 그 무엇이 해결되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까봐 미리 겁부터 내는 거죠. 2005년 설국열차 원본 만화를 봤을 때 영화로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게 집착이 되어 10년 가까이 제 가슴과 머릿속에서 마치 암덩어리처럼 존재한 거예요. 영화를 완성하고 상영한 뒤, DVD나 블루레이를 장식장에 꽂을 때에야 비로소 암덩어리(집착)를 끄집어 낼 수 있었어요.”‘잘나간다’는 봉준호 감독도 영화를 찍을 때면 불안과 공포를 크게 느낀단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압구정 CGV 아트하우스에서 열린 ‘봉준호 감독 마스터클래스’ 모습.CGV 아트하우스 제공그는 담아내고 싶은 이미지가 머릿속에 형상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카메라에 그대로 옮겨낼 수 있을지, 콘티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배우들이 풀어줄 거야, 아니면 편집에서 묘수가 나올 테지, 행여 편집이 깔끔하지 않더라도 음악과 사운드가 메워 주겠지,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영화를 잘 찍어야지 등 끊임없는 걱정과 겁에 내쫓기는 게 영화작업이라고 말한다. 초반 아이디어가 정교하고 세밀할수록 더 불안하단다. 촬영현장에 나가서는 태양은 어디에 떴으며 필요할 때 비는 적당히 내리는지, 수많은 변수와 복병들을 상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영화 '괴물'“괴물을 촬영할 땐 관객과 괴물의 첫 만남을 가장 많이 걱정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깐요. 대부분의 괴물 영화가 그렇듯, 중반에야 괴물의 발톱이나 꼬리가 살짝 나오고 후반에 이르러 적당히 분위기 잡는 사운드와 조명이 깔리면 정체를 서서히 드러내는데, 저는 이같이 정형화한 출현이 싫었어요. 그래서 객기를 부리듯 정면으로 ‘공식’을 위반했죠. 시작한 지 15분 안에 대낮 장면에서 괴물의 전체 모습을 충분한 시간 동안 다 드러내 보인 겁니다. 괴물이 심해나 우주공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나타난다는… 부조화적 설정인 셈인데, 재난은 원래 그렇게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니깐, 더 충격적이겠죠. 그런데 생과 사가 엇갈리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엉뚱한 데 집중하고 있어요. 소소한 것에 몰두하다 보니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에 그대로 노출되고 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영화는 그 순간을 잘 담아내고 있어요.”그랬다.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들으며 손톱밑 때를 파던 아가씨는 괴물에 깔린 채 한참을 끌려다니게 되고, 괴물의 등장을 목격한 순간에도 강두(송강호)는 오징어 다리가 열 개라고 손님에게 항변하고 있으며, 발로 찬 맥주 캔이 저만큼 나가떨어진 채 액체를 내뿜는 모습을 지켜보던 현서(고아성)는 괴물의 꼬리에 감겨 끌려가고 만다. 난동 부리는 괴물을 차창 밖으로 지켜보고 있는 버스 안 승객들은 흘러나오는 ‘57분 교통정보’를 평소처럼 듣고 있다. 아비규환의 무질서 속에서도 봉 감독이 치밀하게 계산한 장면들은 이처럼 자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촬영할 때는 현장에 괴물이 없었기 때문에 동선을 세밀하게 짰어요. 괴물 대역의 달리는 오토바이에 맞춰 배우와 엑스트라들이 자신의 동선을 지키면서 각각 주어진 연기를 펼쳤습니다. 한강에 놀러왔던 시민들이 이를 지켜볼 때 얼마나 이상했을지, 특히 주연배우 송강호가 혼자 미친 듯 이리저리 뛰거나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상대로 싸우는 모습은 퍽이나 우스웠을 테죠.”괴물은 물론 괴물에 차여 강으로 날아간 사람, 몸에서 나는 먼지 등은 모두 CG(컴퓨터그래픽)로 처리한 것들이다.영화 '마더'‘마더’는 살인자로 몰린 아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도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엄마의 이야기다. “제가 어릴 때 관광버스 안에서 춤추고 놀던 아주머니들을 본 기억을 떠올려 영화의 끝부분에 사용했습니다. 태양빛이 옆에서 수평으로 버스 안을 비치도록 1월 7일을 잡아 찍었어요. 버스 안 뒤쪽에 앉아 있던 엄마(김혜자)가 일어나 아주머니들이 춤추고 있는 무리 사이로 들어가는 모습을 버스 바깥에서 또 다른 버스를 타고 따라가며 망원렌즈로 촬영해 실루엣을 담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역광 속에서 엄마의 춤추는 동작이 마치 태양을 향해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지은 일들을 모두 햇님에 맡기겠다는 엄마의 심정이 담긴 것 같아 이 장면을 지금도 좋아합니다.”봉 감독은 촬영하던 인천공항 주변 매립지에 마음속 종양덩어리를 빼내 툭 던지고 오는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영화 '설국열차'‘설국열차’는 좁은 기차 안에서 앞 칸을 향해 나아가려는 집단과 이를 막으려는 집단이 벌이는 강렬한 전투신이 일품이다.“좁고 긴 공간 안에서 손도끼나 창에 의해 유혈이 낭자한 전투신을 그린 영화가 거의 없어 꼭 찍어야겠다고 벼르던 작품입니다. 수많은 등장인물과 사건들을 마치 복도 같은 곳에서 2시간 내내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시작했어요. 결국 빛과 어둠을 활용키로 했죠. 긴 터널을 통과할 때 생기는 어둠과 횃불의 밝음을 전투에 적용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성냥을 그은 소년에 이어 웃통을 벗은 성인이 횃불을 이어받아 차량 속 길게 난 공간을 달리는 장면에서 원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를 전투까지 연결 지은 것입니다. 갖은 역경을 거쳐 마지막 엔진 칸에 도달하는 전개라서, 원작의 26개 기차 칸을 고수했어요. 한 칸이 설령 휙휙 지나간다 하더라도 아예 빼버리는 것보다는 영화를 풍족하게 만들어 줄 역할을 해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봉 감독은 즐겨 찾는 카페 몇 군데를 돌며 적당한 소음 속에서 시나리오를 쓴다. 늘 대여섯 작품을 구상 중인데, 패륜아들이 떼지어 나온다거나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많을수록 더 무서워지는 독특한 공포영화를 생각하고 있다. 잘못된 신앙을 다루는 작품의 경우 이미 큰 건물이 불타는 장면까지 구체적으로 떠올린 상태다. 하지만 지금은 차기작 ‘옥자’에 몰입 중이다.“구로자와 아키라나 스탠리 큐브릭 등 거장 감독들도 자신을 학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화는 혼자 보기 위해서 찍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것이므로 그저 묵묵히 견디며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야만 합니다.”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28.txt

제목: ----------봉준호 감독 마스터클래스  
날짜: 20150521  
기자: sskim65@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1100000311  
본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궁극의 공포’란 ‘과연 내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드는 때’일 겁니다.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잔혹한 순간과 맞닥뜨리는 것이죠. 하지만 궁극의 공포란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냥 짊어지고 갈 수 밖에 없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극복되지 않는 불안과 공포-영화 창작과정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란 부제를 단 ‘봉준호 감독 마스터클래스’에서 봉 감독이 직접 털어놓은 속내다. 천재적인 감각과 구성력, 기교와 뚝심을 두루 갖추고 ‘한국 영화의 오늘’을 끌어가는 그도 창작의 고통에선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가 보다. 18일 오후 7시 서울 압구정CGV 아트하우스에서 열린 클래스는 3시간 10분 동안 한 차례도 쉬는 시간 없이 ‘롱샷’으로 진행됐다. 봉 감독은 ‘괴물’ ‘마더’ ‘설국열차’ 세 작품에 얽힌 연출의도를 구체적 사례에 녹여냈다.“이처럼 공포가 밀려드는 것은 ‘집착’ 탓입니다. 집착하는 그 무엇이 해결되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까봐 미리 겁부터 내는거죠. 2005년 설국열차 원본 만화를 봤을 때 영화로 만들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게 집착이 되어 10년 가까이 제 가슴과 머리 속에서 마치 암덩어리처럼 존재해온 거예요. 영화를 완성하고 상영한 뒤, DVD나 블루레이를 장식장에 꽂을 때에야 비로소 암덩어리(집착)를 끄집어 낼 수 있었어요.”그는 담아내고 싶은 이미지가 머릿 속에 형상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카메라에 그대로 옮겨낼 수 있을지, 콘티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배우들이 풀어줄거야, 아니면 편집에서 묘수가 나올테지, 행여 편집이 깔끔하지 않더라도 음악과 사운드가 메꾸어 주겠지, 그래도 안되면… 다음 영화를 잘 찍어야지 등 끊임없는 걱정과 겁에 내?기는 게 영화작업이라고 말한다. 초반 아이디어가 정교하고 세밀할 수록 더 불안하단다. 촬영현장에 나가서는 태양은 어디에 떴으며 필요할 때 비는 적당히 내리는지, 수많은 변수와 복병들을 상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괴물을 촬영할 땐 관객과 괴물의 첫 만남을 가장 많이 걱정했습니다. 첫 인상이 중요하니깐요. 대부분의 괴물 영화가 그렇듯, 중반에야 괴물의 발톱이나 꼬리가 살짝 나오고 후반에 이르러 적당히 분위기 잡는 사운드와 조명이 깔리면 정체를 서서히 드러내는데, 저는 이 같이 정형화한 출현이 싫었어요. 그래서 객기를 부리듯 정면으로 ‘공식’을 위반했죠. 시작한 지 15분 안에 대낮 장면에서 괴물의 전체 모습을 충분한 시간 동안 다 드러내 보인 겁니다. 괴물이 심해나 우주공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있는 주변에서 나타난다는…부조화적 설정인 셈인데, 재난은 원래 그렇게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니깐, 더 충격적이겠죠. 그런데 생과 사가 엇갈리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엉뚱한 데 집중하고 있어요. 소소한 것에 몰두하다 보니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에 그대로 노출되고 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영화는 그 순간을 잘 담아내고 있어요.”그랬다.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들으며 손톱밑 때를 파던 아가씨는 괴물에 깔린 채 한참을 끌려다니게 되고, 괴물의 등장을 목격한 순간에도 강두(송강호)는 오징어 다리가 열 개라고 손님에게 항변하고 있으며, 발로 찬 맥주 캔이 저만큼 나가떨어진 채 액체를 내뿜는 모습을 지켜보던 현서(고아성)는 괴물의 꼬리에 감겨 끌려가고 만다. 난동 부리는 괴물을 차창 밖으로 지켜보고 있는 버스 안 승객들은 흘러나오는 ‘57분 교통정보’를 평소처럼 듣고 있다. 아비규환의 무질서 속에서도 봉 감독이 치밀하게 계산한 장면들은 이처럼 자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촬영할 때는 현장에 괴물이 없었기 때문에 동선을 세밀하게 짰어요. 괴물 대역의 달리는 오토바이에 맞춰 배우와 엑스트라들이 자신의 동선을 지키면서 각각 주어진 연기를 펼쳤습니다. 한강에 놀러왔던 시민들이 이를 지켜볼 때 얼마나 이상했을지, 특히 주연배우 송강호가 혼자 미친듯 이리저리 뛰거나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상대로 싸우는 모습은 퍽이나 우스웠을테죠.”괴물은 물론 괴물에 차여 강으로 날아간 사람, 몸에서 나는 먼지 등은 모두 CG(컴퓨터그래픽)로 처리한 것들이다.‘마더’는 살인자로 몰린 아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도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엄마의 이야기다. “제가 어릴 때 관광버스 안에서 춤추고 놀던 아주머니들을 본 기억을 떠올려 영화의 끝부분에 사용했습니다. 태양빛이 옆에서 수평으로 버스 안을 비치도록 1월 7일을 잡아 찍었어요. 버스 안 뒤쪽에 앉아 있던 엄마(김혜자)가 일어나 아주머니들이 춤추고 있는 무리 사이로 들어가는 모습을 버스 바깥에서 또 다른 버스를 타고 따라가며 망원렌즈로 촬영해 실루엣을 담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역광 속에서 엄마의 춤추는 동작이 마치 태양을 향해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더라구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지은 일들을 모두 햇님에 맡기겠다는 엄마의 심정이 담긴 것 같아 이 장면을 지금도 좋아합니다.”봉 감독은 촬영하던 인천공항 주변 매립지에 마음 속 종양덩어리를 빼내 툭 던지고 오는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설국열차는 좁은 기차 안에서 앞 칸을 향해 나아가려는 집단과 이를 막으려는 집단이 벌이는 강렬한 전투신이 일품이다.“좁고 긴 공간 안에서 손도끼나 창에 의해 유혈이 낭자한 전투신을 그린 영화가 거의 없어 꼭 찍어야겠다고 벼르던 작품입니다. 수많은 등장인물과 사건들을 마치 복도 같은 곳에서 2시간 내내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시작했어요. 결국 빛과 어둠을 활용키로 했죠. 긴 터널을 통과할 때 생기는 어둠과 횃불의 밝음을 전투에 적용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성냥을 그은 소년에 이어 웃통을 벗은 성인이 횃불을 이어받아 차량 속 길게 난 공간을 달리는 장면에서 원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를 전투까지 연결 지은 것입니다. 갖은 역경을 거쳐 마지막 엔진 칸에 도달하는 전개라서, 원작의 26개 기차 칸을 고수했어요. 한 칸이 설령 휙휙 지나간다 하더라도 아예 빼버리는 것보다는 영화를 풍족하게 만들어 줄 역할을 해낼 것이라 판단 했습니다.”봉 감독은 즐겨 찾는 카페 몇 군데를 돌며 적당한 소음 속에서 시나리오를 쓴다. 늘 대여섯 작품을 구상 중인데, 패륜아들이 떼지어 나온다거나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많을수록 더 무서워지는 독특한 공포영화를 생각하고 있다. 잘못된 신앙을 다루는 작품의 경우 이미 큰 건물이 불타는 장면까지 구체적으로 떠올린 상태다. 하지만 지금은 차기작 ‘옥자’에 몰입 중이다.“구로자와 아키라나 스탠리 큐브릭 등 거장 감독들도 자신을 학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화는 혼자 보기 위해서 찍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것이므로 그저 묵묵히 견디며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야만 합니다.”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29.txt

제목: 부부의 날, 부모님께 ‘건강식품’ 대신 ‘건강’을 선물하세요  
날짜: 201505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1100000882  
본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가짜 백수오 사태로 인해 부모님을 위한 선물로 가장 인기가 높았던 건강식품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특히 갱년기를 경험하는 부모님에게는 건강식품 보다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부의 날을 맞아 부모님에게 진짜 건강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모든 50-60대 중장년층이 경험하는 갱년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백수오’와 같은 건강식품 일시적 효과만 보일 뿐 장기적 치료 효과 없어가짜 백수오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중년의 여성들은 갱년기를 치료의 대상이기보다는 건강식품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리해야 하는 증상 정도로만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다.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열성홍조, 가슴 두근거림, 발한과 수면장애를 겪게 된다. 이러한 증상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치매 등의 위험을 예고하는 전조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에스트로겐은 머리카락에서부터 발톱에까지 여성의 모든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 초기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할지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갱년기는 폐경이라는 큰 신체의 변화를 경험하는 중년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50대를 지나는 남성들 역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갱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여성처럼 즉각적인 신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증상이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 갱년기는 노화를 촉진하고 신체의 저항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중년 남성 건강의 큰 적이 될 수 있다.남성 갱년기는 피로감, 우울증, 기억력 저하 등을 비롯해 체지방 증가, 성기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불러 일으킨다. 하지만 갱년기 증상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건강식품들은 실제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바가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중앙대학교병원 산부인과 박형무 교수는 “그 동안 갱년기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왔던 건강식품들은 안면홍조와 같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다”며 “건강식품들의 효과는 대부분 위약효과와 같거나 효과가 있더라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다만 자연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란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러한 건강식품들은 장기간 깊이 있게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갱년기 장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승마추출물은 간 독성을 일으킨다고 보고된 바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갱년기 치료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호르몬 요법’남성, 여성 모두 갱년기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호르몬 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호르몬 요법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호르몬 요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박형무 교수는 “<span class='quot0'>폐경 후 여성 호르몬 요법은 오랜 기간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특히 호르몬 요법이 유방암을 발생시킨다고 우려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실제로 에스트로겐 제제를 사용했을 경우 유방암의 발병률이 최대 13년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방에 자극이 덜 한 경구용 호르몬제 역시 이미 시장에서 20년 넘게 처방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아도 좋다</span>”고 설명했다.남성 갱년기 치료도 부족한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 방법이 있다. 근력이 증가하고 체지방감소와 골다공증 예방 등 신체 전반과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남성호르몬은 갱년기 환자에게는 큰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30.txt

제목: 포스텍 차형준교수팀, 홍합 접착 메커니즘 이용 '접착성 단백질 나노입자' 개발  
날짜: 20150520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2911287  
본문:   <br/> <br/>파도가 치는 바위에서도 붙어 있을 수 있는 강한 접착력을 가진 홍합 접착단백질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특정 pH에서 물질을 방출하는 단백질 나노입자가 개발됐다. <br/> <br/>지금까지 홍합접착 단백질 자체에만 주목한 것과 달리 홍합접착의 중요한 메커니즘을 새로운 기술로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첫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br/> <br/>20일 포스텍에 따르면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팀이 홍합의 접착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인 금속-카테콜(알코올, 에테르에 녹는 무색 결정) 결합을 활용해 약물전달체로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접착성 단백질 나노입자를 개발했다. <br/> <br/>연구성과는 화학 분야 권위지인 ‘안게반테 케미’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br/> <br/>금속-카테콜 결합은 홍합이 바위에 붙어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학적 결합이다. 특히 결합력과 자가복원성이 강해 생체접착제나 의료용 소재개발에 활용하고 있다.연구팀은 이번에 금속-카테콜 결합이 금속 분자 주변의 pH 변화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특성을 이용해 특정 pH 이하에서만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나노입자를 만들어 냈다. <br/> <br/>이 입자는 자체로도 접착력이 있어 생체조직 표면에서 효과적으로 접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br/> <br/>생체조직 표면에 접착한 뒤 세포 안에 들어가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pH 반응성 약물전달 제재로 의료분야나 화장품 산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차 교수는 “<span class='quot0'>홍합접착 메커니즘에 의한 화학결합을 약물전달체 등 새로운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기반기술</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를 이용한 국소적 약물전달 접착성 물질로 암치료에 응용하는 동물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31.txt

제목: 모유수유가 유방암 위험 낮춰, 재발확률 30%까지 떨어뜨려  
날짜: 2015052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2707312  
본문: 모유 수유가 유방암 위험을 10%이상 낮추며 재발위험의 경우 30%까지 떨어지게 한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br/> <br/>19일(현지시간)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의학저널에는 유방암 환자 1천636명을 상대로 모유 수유와 유방암 발병(재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이 실렸다. <br/> <br/>이들 환자가 유방암 치료를 마친 이후 9년간 유방암이 재발한 사람은 383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290명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이들을 대상으로 연령, 흡연 여부, 교육수준, 인종, 암치료법의 종류 등 다른 요소를 제외하고 모유 수유 여부와 유방암 재발·사망 간의 관계를 분석했더니 모유 수유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쪽에 비해 유방암 재발 위험이 30% 정도 낮았다. <br/> <br/>6개월 이상 모유 수유를 한 사람의 유방암 재발률은 무려 37%나 줄어들었다. <br/> <br/>또 모유 수유를 해본 적이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유방암 재발로 인한 사망률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났다. <br/> <br/>연구논문은 "모유 수유는 아기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엄마에게도 큰 혜택이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br/> <br/>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과 마운트 시나이병원 연구팀은 총 75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30년에 걸쳐 진행된 연구 논문 27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모유 수유가 유방암 위험을 최고 20%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br/> <br/>당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유를 먹인 여성은 얼마 동안 먹였느냐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유방암 위험이 10% 낮았으며, 3개월 동안 모유를 먹인 여성은 유방암 발생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와 모유 수유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위험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32.txt

제목: 전효성, 다이어트 비법 화제…"지금은 잘 먹어요"  
날짜: 20150520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010017345030  
본문:   <br/> <br/>‘4가지쇼’에 출연한 그룹 시크릿의 전효성이 솔직한 매력을 드러냈다. <br/> <br/>지난 19일 Mnet ‘4가지쇼’에 출연한 전효성은 인간 전효성으로서의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악플에 대한 생각과 다이어트 비결을 밝혔다. <br/>  <br/>전효성은 “가슴으로 노래하는 사람, 전효성 직업은 가슴인가”라는 악플에 “내 직업은 가슴이 아닌 가수”라며 당차게 응수하고 “찾아보면서 욕하는 건 애증 같다. 다 관심이지 뭐”라며 긍정적인 면모를 보였다. <br/> <br/>또 글래머러스한 몸매 관리법으로 “바나나 한 개, 계란 두 개, 두유 하나를 한끼로 세 번 먹고 운동을 엄청 한다”며 직접 다이어트 비결을 밝히기도 했다. <br/>  <br/>밝은 외면 속에 숨겨진 진솔한 눈물 역시 시청자들의 마음을 자극하며 연습생 신분이었던 9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전효성은 연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설상가상 녹화 당일은 ‘어버이날’로 그 안타까움이 더해졌지만, 곧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며 미소 지어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br/> <br/>한편 전효성은 오늘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저의 식단이 잘못 돌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마다 바나나1 달걀2 두유1 이렇게×3인거죠. 아침 바나나 점심 계란 저녁 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먹어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br/> <br/>이윤미 기자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33.txt

제목: 전효성 "내 직업은 가슴이 아닌 가수"  
날짜: 20150520  
기자: 윤기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0100000364  
본문: [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무대 위 전효성은 화려하다. 하지만 지난 19일 M.net ‘4가지쇼’, 전효성은 밝고 쾌활하기만 한 ‘가수 전효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 전효성으로서의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전효성은 “가슴으로 노래하는 사람, 전효성 직업은 가슴인가”라는 악플에 “내 직업은 가슴이 아닌 가수”라며 당차게 응수하고 “찾아보면서 욕하는 건 애증 같다. 다 관심이지 뭐”라며 긍정적인 면모를 보였다. 또한, 글래머러스한 몸매 관리법으로 “바나나 한 개, 계란 두 개, 두유 하나를 한끼로 세 번 먹고 운동을 엄청 한다”며 직접 다이어트 비결을 밝히기도 했다.밝은 외면 속에 숨겨진 진솔한 눈물 역시 시청자들의 마음을 노크했다. 연습생 신분이었던 9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전효성은 연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설상가상 녹화 당일은 ‘어버이날’로 그 안타까움이 더해졌지만, 곧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며 미소 짓는 전효성에게서 진실함이 묻어 나왔다. 김수로는 전효성을 “모두의 사랑둥이”라고 표현했다. 마냥 행복해 보이지만 내면에 숨겨진 상처를 딛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악바리’ 정신의 사랑둥이 전효성이 앞으로 대중을 어떻게 ‘반해’ 버리게 할 지 그 행보가 기대된다. 윤기백 기자 giba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34.txt

제목: 이훈, "근육 만들기 점점 더 힘들다"  
날짜: 20150520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0100000358  
본문: [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오는 21일에 방송되는 건강의학 전문채널 헬스메디tv의 ‘기찬 처방전 100세 푸드’ 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중년비만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친다. 이날 방송에서는 MC 이훈과 제시카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중년비만의 원인과 위험성 그리고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본다. 안철우 내분비내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0'>비만일 경우 무려 기대 수명보다 14년이나 단축 된다</span>”고 연구결과를 언급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에 개그우먼 문영미는 “<span class='quot1'>뚱뚱한 것도 억울한데, 14년이나 먼저 죽는 건 너무 억울하다</span>”고 호소했다고.가정의학과 황희진 박사는 “<span class='quot1'>중년비만과 성인병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붙어 다닌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고도비만이 있을 경우 심장질환이 생길 확률은 정상 체중의 사람에 비해 3.2배가량 늘어나며 암이 생길 확률은 1.6배 당뇨는 2.2배 올라간다</span>”고 합병증에 대해 경고했다.또한 안철우 교수는 “<span class='quot1'>50대에 갱년기가 오는 여성과 달리, 남성은 40대에 찾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근육을 만들고 지방을 없애는 남성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배가 나오는 중년비만이 찾아온다</span>”고 설명했다. 이에 MC 이훈은 당혹감을 금치 못했고, “<span class='quot2'>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근육 만들기는 더 힘들어지고, 예전에 비해 너무 살이 쉽게 찐다</span>”며 고민을 토로했다는 후문. 이날 방송에서 이훈은 제시카와 함께 복부의 뱃살을 날려줄 맞춤 운동법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중년비만 퇴치법으로 ‘잠’이 꼽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박수경 산부인과 원장은 “<span class='quot3'>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식욕조절 호르몬인 랩틴이 줄며, 공복 호르몬인 글레닌은 높아져 폭식의 우려가 있다</span>”고 조언했다. 중년 비만에 대한 전문의들의 처방전과 특효 레시피 그리고 운동법까지 담은 ‘기찬 처방전 100세 푸드’는 오는 21일(목) 밤 11시 건강의학 정보채널 헬스메디tv에서 만나볼 수 있다. ‘기찬 처방전! 100세푸드'는 최신 업데이트 된 건강 및 의학정보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맞춤 식단까지 제안하는 프로그램. 건강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몸짱 배우 이훈과 미녀 요가 강사 제시카가 MC로 호흡을 맞춘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본 방송.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35.txt

제목: 모유 수유, 유방암 위험 20% 낮춰…재발률은 30% 줄어  
날짜: 2015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0100000706  
본문: 모유 수유가 유방암 위험을 크게 낮춰준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왔다.19일(현지시간)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의학저널에는 유방암 환자 1천636명을 상대로 모유 수유와 유방암 발병(재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이 실렸다.이들 환자가 유방암 치료를 마친 이후 9년간 유방암이 재발한 사람은 383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290명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을 대상으로 연령, 흡연 여부, 교육수준, 인종, 암치료법의 종류 등 다른 요소를 제외하고 모유 수유 여부와 유방암 재발·사망 간의 관계를 분석했더니 모유 수유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쪽에 비해 유방암 재발 위험이 30% 정도 낮았다.특히 6개월 이상 모유 수유를 한 사람의 유방암 재발률은 무려 37%나 줄어들었다.아울러 모유 수유를 해본 적이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유방암 재발로 인한 사망률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났다. 논문은 "모유 수유는 아기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엄마에게도 큰 혜택이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과 마운트 시나이병원 연구팀은 총 75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30년에 걸쳐 진행된 연구 논문 27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모유 수유가 유방암 위험을 최고 20%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당시 연구결과를 보면 모유를 먹인 여성은 얼마 동안 먹였느냐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유방암 위험이 10% 낮았으며, 3개월 동안 모유를 먹인 여성은 유방암 발생률이 더 낮아졌다. 모유 수유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위험은 더욱 낮아졌다는 것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36.txt

제목: 봉준호 "불안과 공포는 나의 힘…영화 제작 원동력"  
날짜: 20150520  
기자: 김신성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010017347801  
본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궁극의 공포’란 ‘과연 내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드는 때’일 겁니다.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잔혹한 순간과 맞닥뜨리는 것이죠. 하지만 궁극의 공포란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냥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br/> <br/>‘극복되지 않는 불안과 공포-영화 창작과정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란 부제를 단 ‘봉준호 감독 마스터클래스’에서 봉 감독이 직접 털어놓은 속내다. 천재적인 감각과 구성력, 기교와 뚝심을 두루 갖추고 ‘한국 영화의 오늘’을 끌어가는 그도 창작의 고통에선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가 보다. 18일 오후 7시 서울 압구정CGV 아트하우스에서 열린 클래스는 3시간 10분 동안 한 차례도 쉬는 시간 없이 ‘롱테이크’로 진행됐다. 봉 감독은 ‘괴물’ ‘마더’ ‘설국열차’ 세 작품에 얽힌 연출의도를 구체적 사례에 녹여냈다. <br/> <br/>“이처럼 공포가 밀려드는 것은 ‘집착’ 탓입니다. 집착하는 그 무엇이 해결되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까봐 미리 겁부터 내는 거죠. 2005년 설국열차 원본 만화를 봤을 때 영화로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게 집착이 되어 10년 가까이 제 가슴과 머릿속에서 마치 암덩어리처럼 존재한 거예요. 영화를 완성하고 상영한 뒤, DVD나 블루레이를 장식장에 꽂을 때에야 비로소 암덩어리(집착)를 끄집어 낼 수 있었어요.” <br/> <br/>‘잘나간다’는 봉준호 감독도 영화를 찍을 때면 불안과 공포를 크게 느낀단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압구정 CGV 아트하우스에서 열린 ‘봉준호 감독 마스터클래스’ 모습. <br/>CGV 아트하우스 제공그는 담아내고 싶은 이미지가 머릿속에 형상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카메라에 그대로 옮겨낼 수 있을지, 콘티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배우들이 풀어줄 거야, 아니면 편집에서 묘수가 나올 테지, 행여 편집이 깔끔하지 않더라도 음악과 사운드가 메워 주겠지,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영화를 잘 찍어야지 등 끊임없는 걱정과 겁에 내쫓기는 게 영화작업이라고 말한다. 초반 아이디어가 정교하고 세밀할수록 더 불안하단다. 촬영현장에 나가서는 태양은 어디에 떴으며 필요할 때 비는 적당히 내리는지, 수많은 변수와 복병들을 상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br/> <br/>영화 '괴물'“괴물을 촬영할 땐 관객과 괴물의 첫 만남을 가장 많이 걱정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깐요. 대부분의 괴물 영화가 그렇듯, 중반에야 괴물의 발톱이나 꼬리가 살짝 나오고 후반에 이르러 적당히 분위기 잡는 사운드와 조명이 깔리면 정체를 서서히 드러내는데, 저는 이같이 정형화한 출현이 싫었어요. 그래서 객기를 부리듯 정면으로 ‘공식’을 위반했죠. 시작한 지 15분 안에 대낮 장면에서 괴물의 전체 모습을 충분한 시간 동안 다 드러내 보인 겁니다. 괴물이 심해나 우주공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나타난다는… 부조화적 설정인 셈인데, 재난은 원래 그렇게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니깐, 더 충격적이겠죠. 그런데 생과 사가 엇갈리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엉뚱한 데 집중하고 있어요. 소소한 것에 몰두하다 보니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에 그대로 노출되고 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영화는 그 순간을 잘 담아내고 있어요.” <br/> <br/>그랬다.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들으며 손톱밑 때를 파던 아가씨는 괴물에 깔린 채 한참을 끌려다니게 되고, 괴물의 등장을 목격한 순간에도 강두(송강호)는 오징어 다리가 열 개라고 손님에게 항변하고 있으며, 발로 찬 맥주 캔이 저만큼 나가떨어진 채 액체를 내뿜는 모습을 지켜보던 현서(고아성)는 괴물의 꼬리에 감겨 끌려가고 만다. 난동 부리는 괴물을 차창 밖으로 지켜보고 있는 버스 안 승객들은 흘러나오는 ‘57분 교통정보’를 평소처럼 듣고 있다. 아비규환의 무질서 속에서도 봉 감독이 치밀하게 계산한 장면들은 이처럼 자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br/> <br/>“촬영할 때는 현장에 괴물이 없었기 때문에 동선을 세밀하게 짰어요. 괴물 대역의 달리는 오토바이에 맞춰 배우와 엑스트라들이 자신의 동선을 지키면서 각각 주어진 연기를 펼쳤습니다. 한강에 놀러왔던 시민들이 이를 지켜볼 때 얼마나 이상했을지, 특히 주연배우 송강호가 혼자 미친 듯 이리저리 뛰거나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상대로 싸우는 모습은 퍽이나 우스웠을 테죠.” <br/> <br/>괴물은 물론 괴물에 차여 강으로 날아간 사람, 몸에서 나는 먼지 등은 모두 CG(컴퓨터그래픽)로 처리한 것들이다. <br/> <br/>영화 '마더'‘마더’는 살인자로 몰린 아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도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엄마의 이야기다. <br/> <br/>“제가 어릴 때 관광버스 안에서 춤추고 놀던 아주머니들을 본 기억을 떠올려 영화의 끝부분에 사용했습니다. 태양빛이 옆에서 수평으로 버스 안을 비치도록 1월 7일을 잡아 찍었어요. 버스 안 뒤쪽에 앉아 있던 엄마(김혜자)가 일어나 아주머니들이 춤추고 있는 무리 사이로 들어가는 모습을 버스 바깥에서 또 다른 버스를 타고 따라가며 망원렌즈로 촬영해 실루엣을 담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역광 속에서 엄마의 춤추는 동작이 마치 태양을 향해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지은 일들을 모두 햇님에 맡기겠다는 엄마의 심정이 담긴 것 같아 이 장면을 지금도 좋아합니다.” <br/> <br/>봉 감독은 촬영하던 인천공항 주변 매립지에 마음속 종양덩어리를 빼내 툭 던지고 오는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br/> <br/>영화 '설국열차'‘설국열차’는 좁은 기차 안에서 앞 칸을 향해 나아가려는 집단과 이를 막으려는 집단이 벌이는 강렬한 전투신이 일품이다. <br/> <br/>“좁고 긴 공간 안에서 손도끼나 창에 의해 유혈이 낭자한 전투신을 그린 영화가 거의 없어 꼭 찍어야겠다고 벼르던 작품입니다. 수많은 등장인물과 사건들을 마치 복도 같은 곳에서 2시간 내내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시작했어요. 결국 빛과 어둠을 활용키로 했죠. 긴 터널을 통과할 때 생기는 어둠과 횃불의 밝음을 전투에 적용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성냥을 그은 소년에 이어 웃통을 벗은 성인이 횃불을 이어받아 차량 속 길게 난 공간을 달리는 장면에서 원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를 전투까지 연결 지은 것입니다. 갖은 역경을 거쳐 마지막 엔진 칸에 도달하는 전개라서, 원작의 26개 기차 칸을 고수했어요. 한 칸이 설령 휙휙 지나간다 하더라도 아예 빼버리는 것보다는 영화를 풍족하게 만들어 줄 역할을 해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br/> <br/>봉 감독은 즐겨 찾는 카페 몇 군데를 돌며 적당한 소음 속에서 시나리오를 쓴다. 늘 대여섯 작품을 구상 중인데, 패륜아들이 떼지어 나온다거나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많을수록 더 무서워지는 독특한 공포영화를 생각하고 있다. 잘못된 신앙을 다루는 작품의 경우 이미 큰 건물이 불타는 장면까지 구체적으로 떠올린 상태다. 하지만 지금은 차기작 ‘옥자’에 몰입 중이다. <br/> <br/>“구로자와 아키라나 스탠리 큐브릭 등 거장 감독들도 자신을 학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화는 혼자 보기 위해서 찍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것이므로 그저 묵묵히 견디며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야만 합니다.” <br/> <br/>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37.txt

제목: 포스텍 차형준교수팀, 홍합 접착 메커니즘 이용 '접착성 단백질 나노입자' 개발  
날짜: 20150520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0100000597  
본문:  파도가 치는 바위에서도 붙어 있을 수 있는 강한 접착력을 가진 홍합 접착단백질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특정 pH에서 물질을 방출하는 단백질 나노입자가 개발됐다.지금까지 홍합접착 단백질 자체에만 주목한 것과 달리 홍합접착의 중요한 메커니즘을 새로운 기술로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첫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20일 포스텍에 따르면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팀이 홍합의 접착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인 금속-카테콜(알코올, 에테르에 녹는 무색 결정) 결합을 활용해 약물전달체로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접착성 단백질 나노입자를 개발했다.연구성과는 화학 분야 권위지인 ‘안게반테 케미’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금속-카테콜 결합은 홍합이 바위에 붙어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학적 결합이다. 특히 결합력과 자가복원성이 강해 생체접착제나 의료용 소재개발에 활용하고 있다.연구팀은 이번에 금속-카테콜 결합이 금속 분자 주변의 pH 변화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특성을 이용해 특정 pH 이하에서만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나노입자를 만들어 냈다.이 입자는 자체로도 접착력이 있어 생체조직 표면에서 효과적으로 접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생체조직 표면에 접착한 뒤 세포 안에 들어가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pH 반응성 약물전달 제재로 의료분야나 화장품 산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차 교수는 “<span class='quot0'>홍합접착 메커니즘에 의한 화학결합을 약물전달체 등 새로운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기반기술</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를 이용한 국소적 약물전달 접착성 물질로 암치료에 응용하는 동물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38.txt

제목: 모유수유가 유방암 위험 낮춰, 재발확률 30%까지 떨어뜨려  
날짜: 20150520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0100000763  
본문: 모유 수유가 유방암 위험을 10%이상 낮추며 재발위험의 경우 30%까지 떨어지게 한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왔다.19일(현지시간)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의학저널에는 유방암 환자 1천636명을 상대로 모유 수유와 유방암 발병(재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이 실렸다.이들 환자가 유방암 치료를 마친 이후 9년간 유방암이 재발한 사람은 383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290명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을 대상으로 연령, 흡연 여부, 교육수준, 인종, 암치료법의 종류 등 다른 요소를 제외하고 모유 수유 여부와 유방암 재발·사망 간의 관계를 분석했더니 모유 수유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쪽에 비해 유방암 재발 위험이 30% 정도 낮았다.6개월 이상 모유 수유를 한 사람의 유방암 재발률은 무려 37%나 줄어들었다.또 모유 수유를 해본 적이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유방암 재발로 인한 사망률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났다. 연구논문은 "모유 수유는 아기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엄마에게도 큰 혜택이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과 마운트 시나이병원 연구팀은 총 75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30년에 걸쳐 진행된 연구 논문 27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모유 수유가 유방암 위험을 최고 20%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당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유를 먹인 여성은 얼마 동안 먹였느냐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유방암 위험이 10% 낮았으며, 3개월 동안 모유를 먹인 여성은 유방암 발생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와 모유 수유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위험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39.txt

제목: 경주대, 보건의료관광학과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승인받아  
날짜: 20150519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2319454  
본문: 경주대 보건의료관광학과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무기록사 면허에 상응하는 교과과정을 전공하는 학과로 인정돼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승인받았다. <br/> <br/>19일 경주대에 따르면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병원이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법적 문서인 의무기록과 관련한 업무, 질병 분류 및 수술 분류, 진료 기록의 분석, 자료 통게, 암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종이다. <br/> <br/>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한 후 진로는 의무기록사, 보험 청구 및 심사 전문가,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의료기관 보험과, 보건직 공무원, 보건의료분야 전문 기자 등이다. <br/> <br/>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의료정보회사, 민간보험회사, 병원경영전문회사, 병의원 컨설팅 등의 분야로 취업할 수 있고 의무기록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연구원 활동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직업이며 10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의무기록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의무기록 관리자가 될 수 있다. <br/> <br/>경주대 보건의료관광학과는 2012년 의료과학과로 신설되었고, 올해 보건의료관광학과로 학과명이 변경됐다. 의무기록사 면허 외에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에 필요한 국가공인자격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관광통역안내사 등을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취득할 수 있어 학과의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보건의료의 전문성과 의료관광에 관련한 글로벌 교육을 실현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및 산업 현장과의 맞춤형 교육 실현이라는 목표로 학습 과정을 체계화하고 교류를 활발히 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관공학과는 학생 중심의 자체적인 자격증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외국어 회화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학습반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의료관광학과 서성화 학과장은 “앞으로 산학이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의 자질을 높이는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어 과거보다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br/> <br/>경주=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40.txt

제목: 홍삼, 항암제 부작용 줄여준다  
날짜: 20150519  
기자: 선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9100000090  
본문: 홍삼이 항암제의 부작용인 급성신부전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충남대 정주영(사진) 교수팀은 ‘시스플라틴으로 유발된 급성신부전에 대한 홍삼의 치유 및 보호 효능 평가’란 논문에서 홍삼이 시스플라틴 투여로 발생한 급성신부전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논문은 국제의학학술지인 ‘플란타 메디카(Planta Medica)’에 게재됐다.시스플라틴은 암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항암제다. 구토와 오심, 무기력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신장 독성을 지녀 급성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연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시스플라틴으로 유발된 급성신부전에 대한 홍삼의 신장기능 보호효과를 관찰한 결과, 홍삼 투여군에서 시스플라틴만 투여한 집단보다 체중감소 정도가 경감됐고, 신장 내 조직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세포산화물 형성, 세포단백질(p53) 유도 정도, 세뇨관 괴사 정도도 홍삼 투여군에서 감소했다. 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로 암 치료에 쓰이는 시스플라틴으로 인한 신장기능 감퇴가 홍삼 투여로 개선되는 효과가 입증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다른 종류의 신장병 치료에도 홍삼의 효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span>”고 밝혔다.박태해 선임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41.txt

제목: 경주대, 보건의료관광학과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승인받아  
날짜: 20150519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9100000930  
본문: 경주대 보건의료관광학과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무기록사 면허에 상응하는 교과과정을 전공하는 학과로 인정돼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승인받았다.19일 경주대에 따르면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병원이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법적 문서인 의무기록과 관련한 업무, 질병 분류 및 수술 분류, 진료 기록의 분석, 자료 통게, 암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종이다.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한 후 진로는 의무기록사, 보험 청구 및 심사 전문가,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의료기관 보험과, 보건직 공무원, 보건의료분야 전문 기자 등이다.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의료정보회사, 민간보험회사, 병원경영전문회사, 병의원 컨설팅 등의 분야로 취업할 수 있고 의무기록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연구원 활동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직업이며 10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의무기록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의무기록 관리자가 될 수 있다.경주대 보건의료관광학과는 2012년 의료과학과로 신설되었고, 올해 보건의료관광학과로 학과명이 변경됐다. 의무기록사 면허 외에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에 필요한 국가공인자격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관광통역안내사 등을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취득할 수 있어 학과의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보건의료의 전문성과 의료관광에 관련한 글로벌 교육을 실현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및 산업 현장과의 맞춤형 교육 실현이라는 목표로 학습 과정을 체계화하고 교류를 활발히 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관공학과는 학생 중심의 자체적인 자격증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외국어 회화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학습반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의료관광학과 서성화 학과장은 “앞으로 산학이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의 자질을 높이는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어 과거보다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경주=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42.txt

제목: [단독]MG손보 수술비보험, 3개월만에 2만건 돌파  
날짜: 20150518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1825698  
본문: MG손해보험이 지난 2월 출시한 '수술비보험'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br/> <br/>이 상품은 실손의료비보험의 허점인 10% 또는 20%의 자기부담금까지 대비할 수 있다. 수술이나 입원비 등을 정액보장하기 때문에 큰 병에 노출되면 의료비 상당수를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부담하고, 자기부담금 이상을 '수술비보험'으로 정액 보장 받아 가입자 의료비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다. <br/> <br/>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이 지난 2월 9일 출시한 '건강명의 수술비보험'이 판매 3개월만에 판매 건수 2만건, 초회보험료 10억원을 돌파했다. <br/> <br/>2월 신게약 3400건, 초회보험료 1억8400만원을 기록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절판마케팅 시기였던 3월에는 신계약이 무려 8500건과 초회보험료 4억3000만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4월 실적은 3월 대비 소폭 하락한 6406건 계약과 3억1500만원의 초회보험료 실적을 올렸다. 5월에도 인기가 이어져 5월 11일 현재 신계약 2만건과 초회보험료 10억원을 모두 돌파했다. <br/> <br/>MG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상품은 의료실손보험의 틈새라고 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질병·상해 관련 수술비와 진단비 등을 중복 보장하기 때문에 의료실손보험 기가입자가 내야하는 10%·20%의 자기부담금도 이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른 보험상품은 이미 가입한 의료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하거나 중복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상품은 의료실손보험 가입자가 또 가입해도 진단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회비용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br/> <br/>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암·뇌·심장 등 3대 성인병의 경우 다양한 수술비 외에도 진단금과 입원비를 함께 정액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br/> <br/>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수술 사유 발생 시 50%만 보장하던 기존 상품들과는 달리, 이 상품은 별도 조건없이 주요 수술비를 100% 지급한다. 또 보험료 인상없이 처음 가입한 보험료 그대로 최대 110세까지 보장해 경제적 비활동기의 수술비 부담을 줄여준다. 상해 혹은 질병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 <br/> <br/>여성을 위한 여성만성질병수술비, 남성을 위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비 등 성별에 따른 특별보장도 마련했다. 노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녹내장, 관절수술 등도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법률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43.txt

제목: [세계식문화 연구가 양향자의 간편 레시피] 여름 보양식의 대표 닭가슴살 냉국  
날짜: 20150518  
기자: 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1733439  
본문: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닭은 예로부터 귀한 식재료로 여겨졌다. 여름철의 대표 보양식이기도 한 닭을 이용하면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몸에 좋은 간편 보양식을 만들 수 있다. 닭은 다른 육류에 비해 섬유질이 가늘고 연해 소화흡수가 잘 된다. 위가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회복기 환자가 먹기에도 좋은 음식이다. 또 불포화 지방산중 리놀렌산이 함유돼 암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동맥경화, 심장병 등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br/> <br/>사진=세계음식문화연구원 제공 <br/>재료 ▲닭가슴살 200g ▲달걀 1개 ▲오이, 배 각 1/2개 ▲당근 1/4개 ▲다진 마늘 1/2큰술 ▲대파 1/2뿌리 ▲국간장 1큰술 ▲설탕 1.5큰술 ▲식초 2큰술 ▲레몬즙 1큰술 ▲들깨가루 ·통후추 ·소금 적당량 <br/> <br/>만드는 법 <br/>1. 닭가슴살을 끓는 물에 마늘, 파, 통후추와 함께 삶아낸다. <br/>2. 오이, 당근, 배는 채썰어 준비한다. <br/>3. 달걀은 황백지단을 부친다. <br/>4. 1의 육수 2컵에 국간장, 설탕, 식초, 레몬, 마늘을 넣고 국물을 만든다. <br/>5. 가슴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 채 썬 채소들과 함께 올려준다. <br/>6. 얼음과 들깨가루를 첨가하면 시원하고 구수한 냉국이 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44.txt

제목: 홍삼, 항암제 부작용 줄여준다  
날짜: 20150518  
기자: 박태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810017320463  
본문: 홍삼이 항암제의 부작용인 급성신부전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충남대 정주영(사진) 교수팀은 ‘시스플라틴으로 유발된 급성신부전에 대한 홍삼의 치유 및 보호 효능 평가’란 논문에서 홍삼이 시스플라틴 투여로 발생한 급성신부전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논문은 국제의학학술지인 ‘플란타 메디카(Planta Medica)’에 게재됐다. <br/> <br/>시스플라틴은 암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항암제다. 구토와 오심, 무기력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신장 독성을 지녀 급성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br/> <br/>연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시스플라틴으로 유발된 급성신부전에 대한 홍삼의 신장기능 보호효과를 관찰한 결과, 홍삼 투여군에서 시스플라틴만 투여한 집단보다 체중감소 정도가 경감됐고, 신장 내 조직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세포산화물 형성, 세포단백질(p53) 유도 정도, 세뇨관 괴사 정도도 홍삼 투여군에서 감소했다. <br/> <br/>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로 암 치료에 쓰이는 시스플라틴으로 인한 신장기능 감퇴가 홍삼 투여로 개선되는 효과가 입증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다른 종류의 신장병 치료에도 홍삼의 효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박태해 선임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45.txt

제목: 한가족요양병원,부산한방병원간 협력의료기관 조인식 개최  
날짜: 201505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8100000360  
본문: 한가족요양병원과 부산한방병원 관계자들이 업무 협력 조인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스포츠월드=이광준 기자〕부산한방병원(병원장 방선휘)과 한가족요양병원(병원장 전세일, 전 차병원 의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원장)이 지역주민 보건향상과 암 치료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14일 체결했다.한가족요양병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 협약 조인식에는 김근하 전일의료재단 명예이사장, 한선심 전일의료재단 이사장, 전세일 한가족요양병원장, 방선휘 부산한방병원장 등을 비롯해 내빈들이 참석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간은 암 환자 및 재활 환자등 상호 환자의뢰 및 회송, 최신의학 정보 교류를 통한 긴밀한 협진 체계 구축으로 의료계 공동 발전과 상생협력 방안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한가족요양병원 전세일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협약식은 동서의학이 협력해서 암을 치료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 70년간 인류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 달려왔으나 암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암 치료를 위한 걸음을 시작했다</span>”고 전했다.그는 이어 “<span class='quot0'>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양의학과과 한의학, 대체의학을 포괄하는 환자중심의 진료를 하고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치료를 통해 암을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부산한방병원 방선휘 원장은 “<span class='quot1'>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한의학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구하고 발전시켜 환자중심의 전일적인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화답했다. 전일의료재단 한선심 이사장은 “<span class='quot2'>전일의료재단에서는 현재 전일의학연구소 통해 암 분야에 경쟁력을 높이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하여 양 기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국내 의학과 암 치료 발전을 위해 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아끼지 않겠다</span>”고 전했다. 한편, 전세일 병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미국 델라웨어 재활원 원장, 펜실베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 미국 썬트아그네스 의료원 재활의학과 과장 등을 거쳐 연세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국제 재활의학회 부회장과 CHA 의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원장을 지냈다. 특히, 전세일 병원장은 한국 대체의학의 선구자로 유명하다.kjcoo5004@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46.txt

제목: [세계식문화 연구가 양향자의 간편 레시피] 여름 보양식의 대표 닭가슴살 냉국  
날짜: 201505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8100000608  
본문: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닭은 예로부터 귀한 식재료로 여겨졌다. 여름철의 대표 보양식이기도 한 닭을 이용하면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몸에 좋은 간편 보양식을 만들 수 있다. 닭은 다른 육류에 비해 섬유질이 가늘고 연해 소화흡수가 잘 된다. 위가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회복기 환자가 먹기에도 좋은 음식이다. 또 불포화 지방산중 리놀렌산이 함유돼 암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동맥경화, 심장병 등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사진=세계음식문화연구원 제공재료 ▲닭가슴살 200g ▲달걀 1개 ▲오이, 배 각 1/2개 ▲당근 1/4개 ▲다진 마늘 1/2큰술 ▲대파 1/2뿌리 ▲국간장 1큰술 ▲설탕 1.5큰술 ▲식초 2큰술 ▲레몬즙 1큰술 ▲들깨가루 ·통후추 ·소금 적당량만드는 법1. 닭가슴살을 끓는 물에 마늘, 파, 통후추와 함께 삶아낸다.2. 오이, 당근, 배는 채썰어 준비한다. 3. 달걀은 황백지단을 부친다. 4. 1의 육수 2컵에 국간장, 설탕, 식초, 레몬, 마늘을 넣고 국물을 만든다.5. 가슴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 채 썬 채소들과 함께 올려준다.6. 얼음과 들깨가루를 첨가하면 시원하고 구수한 냉국이 된다. <(사)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47.txt

제목: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한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한다"  
날짜: 201505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8100000528  
본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주인공 강기훈(51)씨가 검찰과 법원의 사과를 공식 요구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주인공 강기훈(51)씨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검찰과 법원의 사과를 공식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강씨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입장을 내고 "당시 수사 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 진실을 왜곡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법원은 1991년, 1992년은 물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법원도 한 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강씨는 "'유서는 김기설 본인이 쓴 것이고 강기훈이 쓴 것이 아니다'(라는) 이 단순한 것을 확인받는데 무려 24년이 걸렸다"며 "당연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강씨의 입장 발표는 이달 대법원이 14일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뒤 처음 나온 것이다. 현재 암 투병 중인 강씨는 이번 선고 당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건강이 악화해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방에서 요양하고 있다"며 "사건을 되새기며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몸이 감당하기 어려워 앞으로도 직접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전했다.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재심 끝에 2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48.txt

제목: [단독]MG손보 수술비보험, 3개월만에 2만건 돌파  
날짜: 20150518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8100000914  
본문: MG손해보험이 지난 2월 출시한 '수술비보험'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이 상품은 실손의료비보험의 허점인 10% 또는 20%의 자기부담금까지 대비할 수 있다. 수술이나 입원비 등을 정액보장하기 때문에 큰 병에 노출되면 의료비 상당수를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부담하고, 자기부담금 이상을 '수술비보험'으로 정액 보장 받아 가입자 의료비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다.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이 지난 2월 9일 출시한 '건강명의 수술비보험'이 판매 3개월만에 판매 건수 2만건, 초회보험료 10억원을 돌파했다.2월 신게약 3400건, 초회보험료 1억8400만원을 기록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절판마케팅 시기였던 3월에는 신계약이 무려 8500건과 초회보험료 4억3000만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4월 실적은 3월 대비 소폭 하락한 6406건 계약과 3억1500만원의 초회보험료 실적을 올렸다. 5월에도 인기가 이어져 5월 11일 현재 신계약 2만건과 초회보험료 10억원을 모두 돌파했다.MG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상품은 의료실손보험의 틈새라고 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질병·상해 관련 수술비와 진단비 등을 중복 보장하기 때문에 의료실손보험 기가입자가 내야하는 10%·20%의 자기부담금도 이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른 보험상품은 이미 가입한 의료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하거나 중복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상품은 의료실손보험 가입자가 또 가입해도 진단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회비용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암·뇌·심장 등 3대 성인병의 경우 다양한 수술비 외에도 진단금과 입원비를 함께 정액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수술 사유 발생 시 50%만 보장하던 기존 상품들과는 달리, 이 상품은 별도 조건없이 주요 수술비를 100% 지급한다. 또 보험료 인상없이 처음 가입한 보험료 그대로 최대 110세까지 보장해 경제적 비활동기의 수술비 부담을 줄여준다. 상해 혹은 질병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여성을 위한 여성만성질병수술비, 남성을 위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비 등 성별에 따른 특별보장도 마련했다. 노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녹내장, 관절수술 등도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법률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다.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49.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고기 많이 먹으면 암 걸린다고?  
날짜: 20150517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710017304882  
본문: 최근 2~3년 새 대장암에 걸린 중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음식문화와 생활습관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대표적인 암인데요. 한국 남성의 ▲높은 음주·흡연율 ▲잦은 회식으로 고기섭취 증가 ▲운동 부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복합 작용해 대장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같은 대장암 예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대장암 발생위험이 높은 환경 요인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또 50세 이상에서는 대장암 가족력이 없더라도 병원을 찾아 대장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대장암의 현황·예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봤습니다. <br/> <br/>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45명으로 조사 대상 18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br/> <br/>이는 국가별로 다른 인구 구성·통계의 정확도 등을 고려, IARC가 각국의 통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결과다. <br/> <br/>이 자료에 따르면 슬로바키아가 42.7명으로 한국의 뒤를 이었고, 헝가리(42.3명)·덴마크(40.5명) 등이 대장암 유병율이 높은 나라로 손꼽혔다. ▲네덜란드(40.2명) ▲노르웨이(38.9명) ▲벨기에(36.7명) 등 선진국이 대장암 발병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 평균(17.2명)과 아시아 평균(13.7명)을 크게 웃돌았다. <br/> <br/>남성의 통계만 놓고 보면 한국의 남성 10만명당 대장암 발병률은 58.7명으로 남녀를 합쳤을 때보다 더욱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슬로바키아(61.6명)로, 한국은 헝가리(58.9명)에 이어 3위였다. 여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한국(33.5명)이 세계에서 5번째로 높았다. 여성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35.8명)로 조사됐다. <br/> <br/>대장암은 고열량 육식 위주 식생활과 운동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혀 '선진국형 암'으로도 불린다.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일단 암이 진행되면 다른 암보다 암세포의 증식이 빠르고, 말기 생존율이 낮아 조기 진단이 치료의 핵심이다. <br/> <br/>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100% 가까이 완치되므로 무증상인 시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대장암 예방을 위해 당류나 지방질이 많은 육류는 줄여야 하며,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운동하면 효과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대장암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선종성 용종 환자의 절반은 40~60대 중장년층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선종성 용종' 자료(3월22일 기준)를 보면, 진료환자는 2008년 6만7742명에서 2013년 12만9995명으로 5년간 약 1.9배 늘었다. <br/> <br/>진료인원이 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도 2008년 약 186억원에서 2013년 약 360억원으로 늘었고,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는 2008년 약 120억원에서 2013년 약 228억원으로 증가했다. <br/> <br/>2013년 기준 성별·연령별 선종성 용종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50대(2만8814명) ▲60대(2만2923명) ▲40대(1만4088명) 순으로 많았고, 여성도 ▲50대(1만7279명) ▲60대(1만3588명) ▲40대(6712명) 순이었다. 특히 40~60대 남성 진료인원은 모두 6만5825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50.6%에 이르는 수치다. <br/> <br/>업계에 따르면 선종성 용종은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신생물성 용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용종이다. 대장암의 95%가 선종에서 발생한다. 선종성 용종의 약 10%는 서서히 대장암으로 진행, 선종 발생 후 암 증상을 보일 때까지 약 5~1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선종성 용종은 내시경 검사 중 도구를 이용해 제거할 수 있고,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종성 용종 환자가 증가한 데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일이 많아진데다 식생활의 서구화, 고령층 인구 증가 등이 영향을 줬다. <br/> <br/>이와 함께 우리나라 남성은 70세 이후 폐암에, 여성은 대장암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br/> <br/>국립암센터의 2012년 우리나라 암 발생 현황 보고서를 보면 남성은 44세까지 갑상선암, 50∼69세는 위암, 70세 이후에는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여성은 69세까지 갑상선암, 70세 이후에는 대장암이 많이 발생해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모든 암의 연령별 발생률은 50대 초반까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가 50대 후반부터는 역전됐다. <br/> <br/>남녀 전체 주요 암의 연평균 증가율은 ▲갑상선암(22.6%) ▲전립선암(12.7%) ▲유방암(5.8%) ▲대장암(5.2%) 등의 순으로 높았다. 간암(-1.9%)은 1999년 이후 꾸준히 낮아졌다. <br/> <br/>성별로는 남성의 주요 암 증가율은 갑상선암·전립선암·대장암 등의 순이었고, 간암·폐암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여성의 경우는 갑상선암·유방암·대장암 등의 순이었고, 자궁경부암·간암은 증가율이 떨어졌다. <br/> <br/>모든 암의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999년 219.9명에서 2012년 319.5명으로 늘어 연평균 3.5%의 증가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1999년 291.9명에서 2012년 337.2명으로 1.6%의 연평균 증가율을, 여성은 1999년 173.3명에서 2012년 321.3명으로 5.6%의 증가율을 보였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50.txt

제목: 슬림한 허벅지 만들기, 뱃살 빨리 빼는 비법 3가지는?  
날짜: 20150517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710017305223  
본문: 슬림한 허벅지 만들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슬림한 허벅지 만들기, 뱃살 빨리 빼는 비법 3가지는?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3가지는 다음과 같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첫번째,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한다.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20분 정도 매주 3일씩 하면 뱃살이 눈에 띄게 사라진다. 달리기나 자전거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운동을 일관된 속도로만 하고 있다면 중간에 10~60초간 전력 질주를 하는 등의 인터벌 트레이닝을 병행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두번째, 지방을 더 섭취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코코넛이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생선, 견과류, 씨앗류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체질량지수가 낮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다고 알려졌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세번째, 녹차를 마신다. 녹차는 면역계를 강화시키고 암 유발 세포를 퇴치하는 효능과 함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열을 내는 효능이 있어 지방 연소 과정을 촉진시킨다. 하루에 녹차 7잔 이상을 마셔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후나 밤늦게 보다는 아침이나 오전 시간대에 마시는 게 좋다. <br/> <br/>한편, 요즘 온라인 동영상 공유사이트 에서는 마일리사이러스 다리운동이라는 슬림한 허벅지 만드는 방법의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마일리 사이러스 다리운동’은 런지와 스쿼트, 한 쪽 다리 들어올리기, 엎드려서 뒷발차기 등 하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동으로 구성됐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51.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고기 많이 먹으면 암 걸린다고?  
날짜: 20150516  
기자: hj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6100000355  
본문: <편집자주> 최근 2~3년 새 대장암에 걸린 중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음식문화와 생활습관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대표적인 암인데요. 한국 남성의 ▲높은 음주·흡연율 ▲잦은 회식으로 고기섭취 증가 ▲운동 부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복합 작용해 대장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같은 대장암 예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대장암 발생위험이 높은 환경 요인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또 50세 이상에서는 대장암 가족력이 없더라도 병원을 찾아 대장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대장암의 현황·예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봤습니다.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45명으로 조사 대상 18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이는 국가별로 다른 인구 구성·통계의 정확도 등을 고려, IARC가 각국의 통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결과다.이 자료에 따르면 슬로바키아가 42.7명으로 한국의 뒤를 이었고, 헝가리(42.3명)·덴마크(40.5명) 등이 대장암 유병율이 높은 나라로 손꼽혔다. ▲네덜란드(40.2명) ▲노르웨이(38.9명) ▲벨기에(36.7명) 등 선진국이 대장암 발병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 평균(17.2명)과 아시아 평균(13.7명)을 크게 웃돌았다.남성의 통계만 놓고 보면 한국의 남성 10만명당 대장암 발병률은 58.7명으로 남녀를 합쳤을 때보다 더욱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슬로바키아(61.6명)로, 한국은 헝가리(58.9명)에 이어 3위였다. 여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한국(33.5명)이 세계에서 5번째로 높았다. 여성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35.8명)로 조사됐다.대장암은 고열량 육식 위주 식생활과 운동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혀 '선진국형 암'으로도 불린다.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일단 암이 진행되면 다른 암보다 암세포의 증식이 빠르고, 말기 생존율이 낮아 조기 진단이 치료의 핵심이다.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100% 가까이 완치되므로 무증상인 시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대장암 예방을 위해 당류나 지방질이 많은 육류는 줄여야 하며,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운동하면 효과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대장암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선종성 용종 환자의 절반은 40~60대 중장년층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선종성 용종' 자료(3월22일 기준)를 보면, 진료환자는 2008년 6만7742명에서 2013년 12만9995명으로 5년간 약 1.9배 늘었다.진료인원이 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도 2008년 약 186억원에서 2013년 약 360억원으로 늘었고,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는 2008년 약 120억원에서 2013년 약 228억원으로 증가했다.2013년 기준 성별·연령별 선종성 용종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50대(2만8814명) ▲60대(2만2923명) ▲40대(1만4088명) 순으로 많았고, 여성도 ▲50대(1만7279명) ▲60대(1만3588명) ▲40대(6712명) 순이었다. 특히 40~60대 남성 진료인원은 모두 6만5825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50.6%에 이르는 수치다.업계에 따르면 선종성 용종은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신생물성 용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용종이다. 대장암의 95%가 선종에서 발생한다. 선종성 용종의 약 10%는 서서히 대장암으로 진행, 선종 발생 후 암 증상을 보일 때까지 약 5~1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선종성 용종은 내시경 검사 중 도구를 이용해 제거할 수 있고,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종성 용종 환자가 증가한 데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일이 많아진데다 식생활의 서구화, 고령층 인구 증가 등이 영향을 줬다.이와 함께 우리나라 남성은 70세 이후 폐암에, 여성은 대장암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국립암센터의 2012년 우리나라 암 발생 현황 보고서를 보면 남성은 44세까지 갑상선암, 50∼69세는 위암, 70세 이후에는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여성은 69세까지 갑상선암, 70세 이후에는 대장암이 많이 발생해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모든 암의 연령별 발생률은 50대 초반까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가 50대 후반부터는 역전됐다.남녀 전체 주요 암의 연평균 증가율은 ▲갑상선암(22.6%) ▲전립선암(12.7%) ▲유방암(5.8%) ▲대장암(5.2%) 등의 순으로 높았다. 간암(-1.9%)은 1999년 이후 꾸준히 낮아졌다.성별로는 남성의 주요 암 증가율은 갑상선암·전립선암·대장암 등의 순이었고, 간암·폐암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여성의 경우는 갑상선암·유방암·대장암 등의 순이었고, 자궁경부암·간암은 증가율이 떨어졌다.모든 암의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999년 219.9명에서 2012년 319.5명으로 늘어 연평균 3.5%의 증가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1999년 291.9명에서 2012년 337.2명으로 1.6%의 연평균 증가율을, 여성은 1999년 173.3명에서 2012년 321.3명으로 5.6%의 증가율을 보였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52.txt

제목: 잠잘때 휴대폰은 멀리… 아이들 좋은 습관 들이기  
날짜: 20150516  
기자: azahoit@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6100000374  
본문: 전상일 지음/둘다북스/1만5000원이렇게 해(解)!/전상일 지음/둘다북스/1만5000원다음 중 어린이가 반드시 피해야 할 생활습관은 무엇일까.첫째, 아침에 일어나 수도꼭지를 틀어 처음 받은 물로 양치질을 한다. 둘째, 알람소리를 잘 듣기 위해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잔다. 셋째, 잠자기 전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첫째와 둘째는 나쁜 습관이고 셋째는 좋은 습관이다. 아침에 수도꼭지에서 처음 받은 물은 그냥 버리는 게 좋다. 아침 첫 물은 밤새 물탱크와 수도관에 고여 있던 물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다량 포함돼 있다. 수도관과 장시간 접촉해 납 등 중금속이 녹아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아이들은 양치하면서 물을 조금씩 삼키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것도 고쳐야 할 습관이다. 인체가 일반 전자제품에서 방출되는 극저주파(주로 60㎐)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다. 철분 대사 작용이 활발한 뇌세포는 전자파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전자제품은 되도록 머리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게 바람직하다.잠이 오지 않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음악을 듣는 것은 도움이 된다. 각성과 수면 상태가 반복되는 수면잠복기가 짧아져 보다 빨리 잠들 수 있다. 다만 빨리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이나, 가사가 많고 특정한 일을 떠오르게 하는 음악은 뇌를 오히려 각성시키기 때문에 피해는 것이 좋다.‘이렇게 해(解)!’는 어린이들이 일상 생활에서 수많은 유해환경과 위험한 습관에 노출되는 데 대해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방법을 제시한다. 어린이는 어른과 똑같은 양의 환경오염 물질과 접촉하더라도 몸집이 작아 더 많은 비율이 체내에 흡수된다. 발육이 계속되는 신체기관이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되면 세포 유전자가 손상돼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이유로 환경보건학자인 저자 전상일 박사는 어린이 환경보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아이를 지키는 것은 결국 부모의 몫이다. 이 책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나 예비 부모들에게 생활 속에서 환경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침서다.‘공부하라는 잔소리보다 더 효과적인 공부방 색상’, ‘조명으로 성적 올리는 방법’, ‘실내 공기가 좋아야 공부도 잘된다’ 등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환경개선법도 눈길을 끈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53.txt

제목: 담배소송에서 필립모리스 "한라산 피운 이 피해를 왜 우리가"  
날짜: 20150515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0907813  
본문: 담배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이 치열한 공방을 ?쳤다. <br/> <br/>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br/> <br/>이날 공판은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보공단측이 지난 3월 소송대상자 3000여 명의 상세한 의료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뒤 열린 첫 재판이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br/> <br/>공단 측 변호인은 "국제기구에 의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객관적 진실로서 확정된 상태"라며 "흡연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암이 발병했다는 사실을 담배회사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br/>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소송대상자 3000여 명의 이름이 올해 4월에야 공개됐고 우리는 아직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며 "담배회사의 불법성을 따지려면 원고(공단)이 먼저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br/> <br/>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3월15일 제출한 폐암·후두암 환자 3484명의 성별, 사망 여부, 흡연경력, 건강보험 급여비 내역 중 일부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인과관계가 떨어진다고 물로 늘어졌다. <br/> <br/>한국 필립모리스 측은 "(공단 자료의) 개개인 흡연량 자료도 왜곡됐고 어떤 소송대상자는 주로 '한라산' 담배를 피웠다고 기록됐다"며 "대체 (한라산을 피운 사람이) 필립모리스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따졌다. <br/> <br/>그러자 공단 측은 "민법조항에도 보면 가해자는 분명하지 않지만, 공동으로 위협을 제기한 경우 공동책임 질 수 있다"며 "자료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br/> <br/>공단은 개별 폐암환자가 아닌 전체 폐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4월 KT&G, 필립모리스, BAT 등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br/> <br/>다음 재판은 7월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54.txt

제목: 전일의료재단 한가족요양병원, 부산한방병원간 협력의료기관 조인식 개최  
날짜: 20150515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0850138  
본문:   <br/> <br/> <br/>부산한방병원(병원장 방선휘)과 한가족요양병원(병원장 전세일, 前차병원 의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원장)이 지역주민 보건향상과 암 치료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전했다.  <br/> <br/>한가족요양병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근하 전일의료재단 명예이사장, 한선심 전일의료재단 이사장, 전세일 한가족요양병원장, 방선휘 부산한방병원장 등을 비롯해 내빈들이 자리를 빛냈다. <br/> <br/>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간은 암 환자 및 재활 환자등 상호 환자의뢰 및 회송, 최신의학 정보 교류를 통한 긴밀한 협진 체계 구축으로 의료계 공동 발전과 상생협력 방안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br/>  <br/>한가족요양병원 전세일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오늘 협약식은 동서의학이 협력해서 암을 치료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 70년간 인류가 암을 치료하기위해 달려왔으나 암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암 치료를 위한 걸음을 시작했다</span>”고 전했다. <br/> <br/>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양의학과과 한의학, 대체의학을 포괄하는 환자중심의 진료를 하고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치료를 통해 암을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부산한방병원 방선휘 원장은 “<span class='quot1'>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한의학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구하고 발전시켜 환자중심의 전일적인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화답했다. <br/> <br/>전일의료재단 한선심 이사장은 “<span class='quot2'>전일의료재단에서는 현재 전일의학연구소 통해 암 분야에 경쟁력을 높이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하여 양 기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국내 의학과 암 치료 발전을 위해 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아끼지 않겠다</span>”고 전했다. <br/> <br/>한편, 전세일 병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미국 델라웨어 재활원 원장,  펜실베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 미국 썬트아그네스 의료원 재활의학과 과장 등을 거쳐 연세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국제 재활의학회 부회장과 CHA 의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원장을 지냈다. 특히, 전세일 병원장은 한국 대체의학의 선구자로 유명하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55.txt

제목: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가톨릭 암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5051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0621907  
본문:   <br/> <br/>서울성모병원 암병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가톨릭 암 심포지엄 2015(Catholic Cancer Symposium 2015)'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br/>  <br/>이번 심포지엄은 새로운 암 표적 치료법 개발(Development of New Cancer Targets)을 주제로 암 줄기세포와 항암 면역요법 등 공동연구개발의 접점을 찾기 위해 열린다. <br/> <br/>국내외 제약사와 임상연구기관(CRO) 등 17개 기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부속병원의 암 임상연구자 외 3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br/> <br/>특히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암 연구개발 및 진료 현황과 인프라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최근 항암치료분야의 주요 이슈인 'CAR Modified T-세포 면역요법'은 세계적인 개발사인 스위스 노바티스의 연구책임자 마이클 골드브루너(Michael Goldbrunner)가, 'Checkpoint Inhibitors를 이용한 면역요법'은 미국 BMS 연구책임자 청신타(Shinta Cheng) 박사가 각각 소개해 기존 암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면역요법과 접근법을 공유한다. <br/> <br/>또한 암 줄기세포 분야의 대가인 일본 카나자와대학교 치아키 다카하시(Chiaki Takahashi) 교수가 암 줄기세포의 대사과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br/> <br/>전후근 암병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 연구진이 암 줄기세포와 면역요법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암 표적 치료법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56.txt

제목: '맨도롱 또?' 강소라, 암 환자로 오해받았다? '유연석 호의에 설레'  
날짜: 201505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0418628  
본문: 맨도롱 또? / 사진=MBC ‘맨도롱 또?’화면 캡쳐'맨도롱 또?' 강소라, 암 환자로 오해받았다? '유연석 호의에 설레' <br/> <br/>'맨도롱 또?' 강소라가 말기 암 환자로 오해를 받아 유연석이 측은한 눈빛을 보냈다. <br/> <br/>14일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맨도롱 또?’(극본 홍정은 홍미란, 연출 박홍균 김희원)에서는 백건우(유연석)가 이정주(강소라)를 암 환자로 오해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br/> <br/>이날 백건우는 이정주가 자신의 차에 두고 간 약통을 보고 정풍산(진영)에게 물었다. 이에 정풍산은 “많이 아픈 사람이 먹는 진통제다. 말기 암에 걸린 사람들이 주로 복용한다”고 말해 백건우를 깜짝 놀라게 했다. <br/> <br/>그러나 그 안에는 이정주가 좋아하는 박하 맛 사탕이 들어있었다. 이를 모르는 백건우는 이정주에게 호의를 베풀며 다정하게 대했고, 이정주는 백건우에게 설렘을 느꼈다. <br/> <br/>한편 MBC 드라마 ‘맨도롱 또?’은 매주 수, 목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br/> <br/>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57.txt

제목: '맨도롱 또?' 강소라, 암 환자로 오해받았다? '유연석 호의에 설레'  
날짜: 20150515  
기자: 김은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5100000329  
본문: 맨도롱 또? / 사진=MBC ‘맨도롱 또?’화면 캡쳐'맨도롱 또?' 강소라, 암 환자로 오해받았다? '유연석 호의에 설레''맨도롱 또?' 강소라가 말기 암 환자로 오해를 받아 유연석이 측은한 눈빛을 보냈다.14일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맨도롱 또?’(극본 홍정은 홍미란, 연출 박홍균 김희원)에서는 백건우(유연석)가 이정주(강소라)를 암 환자로 오해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이날 백건우는 이정주가 자신의 차에 두고 간 약통을 보고 정풍산(진영)에게 물었다. 이에 정풍산은 “많이 아픈 사람이 먹는 진통제다. 말기 암에 걸린 사람들이 주로 복용한다”고 말해 백건우를 깜짝 놀라게 했다.그러나 그 안에는 이정주가 좋아하는 박하 맛 사탕이 들어있었다. 이를 모르는 백건우는 이정주에게 호의를 베풀며 다정하게 대했고, 이정주는 백건우에게 설렘을 느꼈다.한편 MBC 드라마 ‘맨도롱 또?’은 매주 수, 목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58.txt

제목: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가톨릭 암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50515  
기자: 헬스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5100000669  
본문:  서울성모병원 암병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가톨릭 암 심포지엄 2015(Catholic Cancer Symposium 2015)'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새로운 암 표적 치료법 개발(Development of New Cancer Targets)을 주제로 암 줄기세포와 항암 면역요법 등 공동연구개발의 접점을 찾기 위해 열린다.국내외 제약사와 임상연구기관(CRO) 등 17개 기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부속병원의 암 임상연구자 외 3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암 연구개발 및 진료 현황과 인프라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최근 항암치료분야의 주요 이슈인 'CAR Modified T-세포 면역요법'은 세계적인 개발사인 스위스 노바티스의 연구책임자 마이클 골드브루너(Michael Goldbrunner)가, 'Checkpoint Inhibitors를 이용한 면역요법'은 미국 BMS 연구책임자 청신타(Shinta Cheng) 박사가 각각 소개해 기존 암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면역요법과 접근법을 공유한다.또한 암 줄기세포 분야의 대가인 일본 카나자와대학교 치아키 다카하시(Chiaki Takahashi) 교수가 암 줄기세포의 대사과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전후근 암병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 연구진이 암 줄기세포와 면역요법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암 표적 치료법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59.txt

제목: 전일의료재단 한가족요양병원, 부산한방병원간 협력의료기관 조인식 개최  
날짜: 20150515  
기자: cshoon@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5100000989  
본문:  부산한방병원(병원장 방선휘)과 한가족요양병원(병원장 전세일, 前차병원 의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원장)이 지역주민 보건향상과 암 치료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전했다. 한가족요양병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근하 전일의료재단 명예이사장, 한선심 전일의료재단 이사장, 전세일 한가족요양병원장, 방선휘 부산한방병원장 등을 비롯해 내빈들이 자리를 빛냈다.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간은 암 환자 및 재활 환자등 상호 환자의뢰 및 회송, 최신의학 정보 교류를 통한 긴밀한 협진 체계 구축으로 의료계 공동 발전과 상생협력 방안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한가족요양병원 전세일 병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동서의학이 협력해서 암을 치료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지난 70년간 인류가 암을 치료하기위해 달려왔으나 암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암 치료를 위한 걸음을 시작했다”고 전했다.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양의학과과 한의학, 대체의학을 포괄하는 환자중심의 진료를 하고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치료를 통해 암을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부산한방병원 방선휘 원장은 “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한의학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구하고 발전시켜 환자중심의 전일적인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전일의료재단 한선심 이사장은 “전일의료재단에서는 현재 전일의학연구소 통해 암 분야에 경쟁력을 높이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하여 양 기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의학과 암 치료 발전을 위해 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한편, 전세일 병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미국 델라웨어 재활원 원장,  펜실베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 미국 썬트아그네스 의료원 재활의학과 과장 등을 거쳐 연세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국제 재활의학회 부회장과 CHA 의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원장을 지냈다. 특히, 전세일 병원장은 한국 대체의학의 선구자로 유명하다.  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60.txt

제목: 잠잘때 휴대폰은 멀리… 아이들 좋은 습관 들이기  
날짜: 20150515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510017300965  
본문: 전상일 지음/둘다북스/1만5000원이렇게 해(解)!/전상일 지음/둘다북스/1만5000원 <br/> <br/>다음 중 어린이가 반드시 피해야 할 생활습관은 무엇일까. <br/> <br/>첫째, 아침에 일어나 수도꼭지를 틀어 처음 받은 물로 양치질을 한다. 둘째, 알람소리를 잘 듣기 위해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잔다. 셋째, 잠자기 전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br/> <br/>첫째와 둘째는 나쁜 습관이고 셋째는 좋은 습관이다. 아침에 수도꼭지에서 처음 받은 물은 그냥 버리는 게 좋다. 아침 첫 물은 밤새 물탱크와 수도관에 고여 있던 물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다량 포함돼 있다. 수도관과 장시간 접촉해 납 등 중금속이 녹아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아이들은 양치하면서 물을 조금씩 삼키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br/> <br/>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것도 고쳐야 할 습관이다. 인체가 일반 전자제품에서 방출되는 극저주파(주로 60㎐)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다. 철분 대사 작용이 활발한 뇌세포는 전자파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전자제품은 되도록 머리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게 바람직하다. <br/> <br/>잠이 오지 않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음악을 듣는 것은 도움이 된다. 각성과 수면 상태가 반복되는 수면잠복기가 짧아져 보다 빨리 잠들 수 있다. 다만 빨리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이나, 가사가 많고 특정한 일을 떠오르게 하는 음악은 뇌를 오히려 각성시키기 때문에 피해는 것이 좋다. <br/> <br/>‘이렇게 해(解)!’는 어린이들이 일상 생활에서 수많은 유해환경과 위험한 습관에 노출되는 데 대해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방법을 제시한다. 어린이는 어른과 똑같은 양의 환경오염 물질과 접촉하더라도 몸집이 작아 더 많은 비율이 체내에 흡수된다. 발육이 계속되는 신체기관이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되면 세포 유전자가 손상돼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이유로 환경보건학자인 저자 전상일 박사는 어린이 환경보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br/> <br/>아이를 지키는 것은 결국 부모의 몫이다. 이 책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나 예비 부모들에게 생활 속에서 환경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침서다.‘공부하라는 잔소리보다 더 효과적인 공부방 색상’, ‘조명으로 성적 올리는 방법’, ‘실내 공기가 좋아야 공부도 잘된다’ 등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환경개선법도 눈길을 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61.txt

제목: 담배소송에서 필립모리스 "한라산 피운 이 피해를 왜 우리가"  
날짜: 20150515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5100000596  
본문: 담배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이 치열한 공방을 ?쳤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이날 공판은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보공단측이 지난 3월 소송대상자 3000여 명의 상세한 의료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뒤 열린 첫 재판이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공단 측 변호인은 "국제기구에 의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객관적 진실로서 확정된 상태"라며 "흡연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암이 발병했다는 사실을 담배회사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소송대상자 3000여 명의 이름이 올해 4월에야 공개됐고 우리는 아직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며 "담배회사의 불법성을 따지려면 원고(공단)이 먼저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3월15일 제출한 폐암·후두암 환자 3484명의 성별, 사망 여부, 흡연경력, 건강보험 급여비 내역 중 일부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인과관계가 떨어진다고 물로 늘어졌다. 한국 필립모리스 측은 "(공단 자료의) 개개인 흡연량 자료도 왜곡됐고 어떤 소송대상자는 주로 '한라산' 담배를 피웠다고 기록됐다"며 "대체 (한라산을 피운 사람이) 필립모리스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따졌다.그러자 공단 측은 "민법조항에도 보면 가해자는 분명하지 않지만, 공동으로 위협을 제기한 경우 공동책임 질 수 있다"며 "자료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할 것"이라고 대응했다.공단은 개별 폐암환자가 아닌 전체 폐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4월 KT&G, 필립모리스, BAT 등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다음 재판은 7월3일 오후 2시에 열린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62.txt

제목: 비만도 계산기, 개콘 김수영도 65kg 감량…"이것만 기억하세요"  
날짜: 20150515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510017291944  
본문: 비만도 계산기 (사진= 방송화면)비만도 계산기, 개콘 김수영도 65kg 감량…"이것만 기억하세요" <br/> <br/>비만도 계산기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뱃살 빨리 빼는 비결 3가지를 소개한 미국의 건강 포털 '라이브스트롱닷컴' 기사가 화제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3가지는 다음과 같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첫번째,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한다.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20분 정도 매주 3일씩 하면 뱃살이 눈에 띄게 사라진다. 달리기나 자전거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운동을 일관된 속도로만 하고 있다면 중간에 10~60초간 전력 질주를 하는 등의 인터벌 트레이닝을 병행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두번째, 지방을 더 섭취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코코넛이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생선, 견과류, 씨앗류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체질량지수가 낮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다고 알려졌다. <br/> <br/>뱃살 빨리 빼는 비결 세번째, 녹차를 마신다. 녹차는 면역계를 강화시키고 암 유발 세포를 퇴치하는 효능과 함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열을 내는 효능이 있어 지방 연소 과정을 촉진시킨다. 하루에 녹차 7잔 이상을 마셔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후나 밤늦게 보다는 아침이나 오전 시간대에 마시는 게 좋다. <br/> <br/>한편, 비만도 계산기의 BMI 계산법은 BMI지수= 몸무게(kg) ÷ (신장(m) × 신장(m))이다. 비만도 계산기에서 산출된 값이 18.5이하면 저체중, 18.5~23은 정상, 23~25는 과체중, 25~30은 비만, 30이상은 고도비만으로 분류된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63.txt

제목: 항암치료 대신 딸 출산한 엄마, 하늘나라로 가기 전 마지막 메시지 남겨  
날짜: 20150514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0210938  
본문: 임신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조이스."엄마는 영상 속에 영원히 남아 릴리와 함께할 거야“ <br/> <br/>故엘리자베스 조이스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다. <br/> <br/>곧 태어날 딸을 위해 항암치료를 포기하고 세상을 떠난 엄마의 사랑이 영상으로 담겨 엄마를 기억 못 하는 딸에게 전달됐다. <br/> <br/> <br/>13일(현지시간) 뉴욕 데일리뉴스는 폐암으로 고인이 된 故엘리자베스 조이스(36)가 딸 릴리(1)에게 남긴 영상을 소개하며, 그녀의 위대한 모성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알렸다. <br/> <br/>지난 2013년 7월. <br/> <br/>미국 뉴욕에 사는 조이스는 폐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와 출산 중 하나를 선택 해야하는 기로에 놓였다. <br/> <br/>임신소식에 느꼈던 기쁨도 잠시. 가족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에 괴로워했지만 조이스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딸을 출산하기로 맘을 굳혔다. <br/> <br/>종양으로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딸을 위해 모든 고통을 이겨낸 그녀는 지난 2014년 1월 인공 분만으로 딸 릴리를 낳았다. <br/>딸 릴리를 출산한 조이스. 치료시기를 놓쳐 암이 온몸에 전이됐다.딸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안도한 조이스는 치료 시기를 놓쳐 암이 온몸으로 전이됐고, 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br/>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 조이스. 그녀는 딸에게 "엄마는 영상 속에 영원히 남아 릴리와 함께할 거야“ 라고 말했다.조이스의 위대한 모성애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고, 이 사연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미국전역에 방송됐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뉴욕 데일리뉴스 홈페이지, 유튜브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64.txt

제목: 항암치료 대신 딸 출산한 엄마, 하늘나라로 가기 전 마지막 메시지 남겨  
날짜: 201505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4100000727  
본문: 임신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조이스."엄마는 영상 속에 영원히 남아 릴리와 함께할 거야“ 故엘리자베스 조이스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다.곧 태어날 딸을 위해 항암치료를 포기하고 세상을 떠난 엄마의 사랑이 영상으로 담겨 엄마를 기억 못 하는 딸에게 전달됐다.13일(현지시간) 뉴욕 데일리뉴스는 폐암으로 고인이 된 故엘리자베스 조이스(36)가 딸 릴리(1)에게 남긴 영상을 소개하며, 그녀의 위대한 모성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알렸다.지난 2013년 7월.미국 뉴욕에 사는 조이스는 폐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와 출산 중 하나를 선택 해야하는 기로에 놓였다.임신소식에 느꼈던 기쁨도 잠시. 가족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에 괴로워했지만 조이스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딸을 출산하기로 맘을 굳혔다.종양으로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딸을 위해 모든 고통을 이겨낸 그녀는 지난 2014년 1월 인공 분만으로 딸 릴리를 낳았다.딸 릴리를 출산한 조이스. 치료시기를 놓쳐 암이 온몸에 전이됐다.딸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안도한 조이스는 치료 시기를 놓쳐 암이 온몸으로 전이됐고, 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 조이스. 그녀는 딸에게 "엄마는 영상 속에 영원히 남아 릴리와 함께할 거야“ 라고 말했다.조이스의 위대한 모성애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고, 이 사연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미국전역에 방송됐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사진= 뉴욕 데일리뉴스 홈페이지, 유튜브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65.txt

제목: 한인 3세 '빅토르 최'를 기억하나요?…구 소련 시절 최고의 로커로 인기 여전  
날짜: 20150514  
기자: yjchoo@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4100000708  
본문:  故(고) 빅토르 최를 아시나요. 1980년대 구 소련에서 최고의 로커로 이름을 날린 뮤지션이다. 러시아인들에게 지금고 기억되고 있는 빅토르 최는 아쉽게도 1990년 교통사고를 당해 28세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아내와 한 달간 휴가를 떠나면서 아들에게 밥값으로 100루블을 건넸다. 우리가 휴가를 떠나자마자 빅토르는 곧바로 상점으로  달려가 기타를 샀다. 그러고는 한 달 내내 굶었다.”한인 3세 빅토르 최가 처음으로 기타를 산 경위에 대한 아버지 로베르트(한국명 최동렬)의 유명한 회고다. 말 그대로 한 달을 내리 굶지는 않았겠지만 그만큼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빅토르 최(사진)는 고려인 아버지와 우크라이나인 어머니 사이에서 1962년 6월 21일 카자흐공화국의 크질오르다에서 태어났다. 학창 시절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즐겨 당국의 제지를 받으면서도 아마추어 록그룹을 조직했고 20세 때인 1982년 ’키노(영화)’라는 록그룹을 결성, 본격적으로 활동했다.1982년 첫 앨범인 ’45’, 1987년 ’그룹파 크로비(혈액형)’ 등을 발표했고 1987년에는 영화 ’이글라(바늘)’에도 출연해 인기를 넓혀갔다. 1988년 덴마크와 프랑스, 미국을 이어 1990년에는 일본도 방문했다. 앨범 ’포슬레드느이 게로이(마지막 영웅)’는 프랑스에서 녹음했다. 잦은 해외 공연을 통해 서방 문물을 접하면서 소련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열정을 끊임없이 나타냈다고 한다.빅토르 최는 1990년 모스크바 공연을 시작으로 여름 내내 전국을 돌며 공연한 뒤 소련을 구성했던 발트해 연안국 라트비아의 리가로 옮겨 새로운 곡을 만들다가 교통사고로 2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서울에서 공연 초청을 받은 상태로 8월 15일 대형버스와 충돌한 것이다.그의 사후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물론 카잔,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에 그를 기리는 추모 벽이 생겼고 지금도 매년 8월 15일이면 그를 추모하는 모임이 열린다고 한다. 1993년에는 모스크바 콘서트홀 앞 ’스타 광장’에 소련의 영원한 인민가수  블라디미르 비소츠키 다음으로 그의 이름이 헌액됐다.생전 빅토르 최는 꽤 과묵했던 것 같다. 러시아의 한 언론인은 그의 탄생 50주년인 2012년 6월 21일 한 기사에서 “빅토르 최를 인터뷰하고 싶은가 하고 종종 자신에게 반문했지만 대답은 항상 ’아니다’였다. 빅토르는 드문 인터뷰에서도 항상 말수가 적었다. 그는 대답을 숙고했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아마 대화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듯 보였다”면서 “아마 ’왜 그룹 이름을 키노로 지었느냐’는 식의 뻔한 질문만 하는 인터뷰이들이 부적절했을 수도 있었다”라고 회상했다.이어 “러시아에서 언론의 자유는 록과는 달리 1980년대 후반에야 꽃피기 시작했을 뿐 당시는 형성기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빅토르에게는 언론인들의 모든 질문이 우둔하고 부적절하며 재미없는 것이었을 수 있다”라면서 “그러나 사실 내가  보기에 인터뷰는 아예 그의 장르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빅토르는 살아생전 삶의 당면 문제와 그 당시의 시대상을 노래했다. 이제 그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의 노래는 지금도 실재하고 있다”면서 “아르바트 거리에 있는 빅토르의 추모 벽에는 현재도 적지않은 순례객들이 찾고 있다. 그의 작품은 자체의 다층(多層) 성으로 인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히 살아있다”고 평가했다.이런 빅토르 최의 인기가 지금도 여전한 것 같다. 러시아 TV 방송사인 ’렌  TV’가 암으로 투병하는 빅토르 최의 아버지 로베르트를 위해 유명 연주인들이 참가하는 자선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고 시사주간 ’아르구멘트이 이 팍트이’(논거들과 사실들) 13일자 인터넷판이 전했다.현재 77살인 로베르트는 지난 4월 암 선고를 받고 현재 텔아비브의 한 병원에서수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200만 루블(약 4420만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연금수령자인 로베르트의 가족으로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자선 공연 참가자와 시간,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지만 아버지를 위한 자선공연 자체로 빅토르 최의 인기를 가늠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66.txt

제목: 원두커피 찌꺼기 쓰임새, 하지만 알고 써야 약이다.  
날짜: 2015051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5746108  
본문: 원두커피 찌꺼기. 원두커피 찌꺼기. 원두커피 찌꺼기원두커피 찌꺼기 쓰임새, 하지만 알고 써야 약이다. <br/> <br/>원두커피의 수요가 증가하며 원두커피 찌꺼기 활용법이 화제이다. <br/> <br/>커피의 카페인은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숙면 방해, 신경과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2~3잔 정도만 마시는 것이 좋다. <br/> <br/>커피의 클로로겐 산이라는 성분은 심장 질환, 암 예방에 효능이 있는데 열에 쉽게 손상되기에 원두를 진하게 볶기보다는 가볍게 로스팅하는 것이 낫다. 클로로겐 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면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br/> <br/>또 커피는 산소 수분 온도의 변화에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로스팅한 원두는 최대 2주 이내 소비한다.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다. <br/> <br/>원두커피 찌꺼기는 냉장고 탈취제나 화분용 거름 대용이 된다. 또한 커피 찌꺼기는 머릿결을 윤기나게 하고 손에 남아있는 마늘향을 없애는 데도 효과적이다. <br/> <br/>인터넷팀 박효진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67.txt

제목: 노인상대로 엉터리 건강가능식품 팔아 7억챙긴 한의사 등 붙잡혀  
날짜: 2015051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5539439  
본문: 노인들을 상대로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말로 현혹해 7억원을 챙긴 한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br/> <br/>13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노인들에게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이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며 7억원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의사 박모(7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r/> <br/>박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지난 연말까지 대구시 북구 한 홍보관에서 글루코사민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온수기 등을 암 치료에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며 9억원치를 판매하고 이 가운데 7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br/> <br/>이들은 노인들의 신뢰를 얻으려 서울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박씨를 강사로 내세워 제품 기능과 효과를 선전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68.txt

제목: 암치료에 효과 있다 한의사 낀 건강식품 사기 9명 덜미  
날짜: 20150513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5532112  
본문: 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노인들에게 의료기기와건강기능식품이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며 7억원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의사 박모(7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r/> <br/>박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지난 연말까지 대구시 북구 한 홍보관에서 글루코사민성분의 건강기능식품, 온수기 등을 암 치료에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며 9억원치를 판매하고 이 가운데 7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br/> <br/>이들은 노인들을 속이기 위해 서울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박씨를  강사로 내세워 제품 기능과 효과를 알렸다. <br/> <br/>김기정 대구 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노인을 상대로 한 물품 사기판매가 점점  심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br/>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69.txt

제목: 원두커피 찌꺼기 쓰임새,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원두는 가볍게 로스팅해 마셔야 좋아  
날짜: 20150513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5558767  
본문: 원두커피 찌꺼기 쓰임새,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원두커피 찌꺼기 쓰임새,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원두는 가볍게 로스팅해 마셔야 좋아 <br/> <br/>한국 사람들이 김치보다 커피를 더 많이 먹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커피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br/> <br/>한편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도 있다. <br/> <br/>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 ‘필립스 세코’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숙면 방해, 신경과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2, 3잔 정도만 마시는 것이 좋다. <br/> <br/>커피의 클로로겐 산이라는 성분은 심장 질환, 암 예방에 효능이 있는데 열에 쉽게 손상되기에 원두를 진하게 볶기보다는 가볍게 로스팅하는 것이 낫다. 클로로겐 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면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br/> <br/>또 커피는 산소 수분 온도의 변화에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로스팅한 원두는 최대 2주 이내 소비한다.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다. <br/> <br/>커피 원두의 쓴맛은 시럽의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해 설탕 등 첨가물 과잉 섭취를 유도하기에 조심해야 한다. 또한 커피를 종이 필터에 내리면 원두의 지방 성분 중 95%를 걸러낼 수 있다. <br/> <br/>한편, 원두커피 찌꺼기는 냉장고 탈취제나 화분용 거름 대용이 된다. 또한 커피 찌꺼기는 머릿결을 윤기나게 하고 손에 남아있는 마늘향을 없애는 데도 효과적이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70.txt

제목: 노인상대로 엉터리 건강가능식품 팔아 7억챙긴 한의사 등 붙잡혀  
날짜: 2015051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3100000587  
본문: 노인들을 상대로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말로 현혹해 7억원을 챙긴 한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13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노인들에게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이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며 7억원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의사 박모(7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박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지난 연말까지 대구시 북구 한 홍보관에서 글루코사민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온수기 등을 암 치료에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며 9억원치를 판매하고 이 가운데 7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이들은 노인들의 신뢰를 얻으려 서울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박씨를 강사로 내세워 제품 기능과 효과를 선전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71.txt

제목: "흡연자, 비흡연자보다 폐암 22배 높아…인과관계 명확"  
날짜: 201505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3100001087  
본문: 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담배회사 간의 '담배소송' 4차 심리를 앞두고 흡연과 폐암에 분명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공식 발표했다. 두 학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의견서'를 통해 "국내 연구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소세포 폐암은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게서 21.7배 이상 발생 많이 발생했다"며 "마찬가지로 편평상피세포 폐암과 후두암 역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발생 위험이 11.7배, 5.4배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회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후두암의 '기여위험분율'이 각각 95.4%, 91.5%, 81.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암의 기여위험분율이란 특정 요인에 노출된 인구 집단에서 발생·사망한 암 환자 중 그 요인이 직접 작용했다고 간주되는 비율이다.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성은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건보공단은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공단이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약 5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15일 4차 심리를 앞두고 있다.두 학회는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수렴과 토론, 학회 이사진의 동의 절차 등을 거친 후 이날 의견서를 발표했다.이들 학회의 의견 표명은 담배 소송 과정에서 담배회사들이 '역학(疫學) 조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왔다. 두 학회 모두 역학 연구를 각자 분야의 핵심 기반으로 두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얻어진 것이어서 개인의 인과성에 대한 정보로는 활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들 학회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인구집단 대상의 연구 뿐 아니라 동물실험, 개인 환자에게서의 관찰 결과, 실험실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확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72.txt

제목: 암치료에 효과 있다 한의사 낀 건강식품 사기 9명 덜미  
날짜: 20150513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3100000384  
본문: 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노인들에게 의료기기와건강기능식품이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며 7억원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의사 박모(7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박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지난 연말까지 대구시 북구 한 홍보관에서 글루코사민성분의 건강기능식품, 온수기 등을 암 치료에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며 9억원치를 판매하고 이 가운데 7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이들은 노인들을 속이기 위해 서울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박씨를  강사로 내세워 제품 기능과 효과를 알렸다.김기정 대구 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노인을 상대로 한 물품 사기판매가 점점  심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73.txt

제목: 원두커피 찌꺼기 쓰임새, 하지만 알고 써야 약이다  
날짜: 20150513  
기자: 박효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3100001094  
본문: 원두커피 찌꺼기. 원두커피 찌꺼기. 원두커피 찌꺼기원두커피 찌꺼기 쓰임새, 하지만 알고 써야 약이다원두커피의 수요가 증가하며 원두커피 찌꺼기 활용법이 화제이다.커피의 카페인은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숙면 방해, 신경과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2~3잔 정도만 마시는 것이 좋다.커피의 클로로겐 산이라는 성분은 심장 질환, 암 예방에 효능이 있는데 열에 쉽게 손상되기에 원두를 진하게 볶기보다는 가볍게 로스팅하는 것이 낫다. 클로로겐 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면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또 커피는 산소 수분 온도의 변화에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로스팅한 원두는 최대 2주 이내 소비한다.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다.원두커피 찌꺼기는 냉장고 탈취제나 화분용 거름 대용이 된다. 또한 커피 찌꺼기는 머릿결을 윤기나게 하고 손에 남아있는 마늘향을 없애는 데도 효과적이다.인터넷팀 박효진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74.txt

제목: 원두커피 찌꺼기 쓰임새,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원두는 가볍게 로스팅해 마셔야 좋아  
날짜: 20150513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3100000432  
본문: 원두커피 찌꺼기 쓰임새,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원두커피 찌꺼기 쓰임새,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원두는 가볍게 로스팅해 마셔야 좋아한국 사람들이 김치보다 커피를 더 많이 먹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커피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한편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도 있다.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 ‘필립스 세코’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숙면 방해, 신경과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2, 3잔 정도만 마시는 것이 좋다.커피의 클로로겐 산이라는 성분은 심장 질환, 암 예방에 효능이 있는데 열에 쉽게 손상되기에 원두를 진하게 볶기보다는 가볍게 로스팅하는 것이 낫다. 클로로겐 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면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또 커피는 산소 수분 온도의 변화에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로스팅한 원두는 최대 2주 이내 소비한다.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다.커피 원두의 쓴맛은 시럽의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해 설탕 등 첨가물 과잉 섭취를 유도하기에 조심해야 한다. 또한 커피를 종이 필터에 내리면 원두의 지방 성분 중 95%를 걸러낼 수 있다.한편, 원두커피 찌꺼기는 냉장고 탈취제나 화분용 거름 대용이 된다. 또한 커피 찌꺼기는 머릿결을 윤기나게 하고 손에 남아있는 마늘향을 없애는 데도 효과적이다.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75.txt

제목: "한국 피부암 안전지대 아니다"…환자 매년 10% 증가  
날짜: 201505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3100000361  
본문: 우리나라의 피부암 환자가 한해 평균 10%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암은 서구의 암'이라는 인식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대한피부과학회(이사장 이준영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악성 흑색종을 포함한 피부암 환자가 2009년 1만980명에서 2013년 1만5천826명으로 44.1%나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해 평균 증가율은 9.6%에 달했다.이 중에서도 악성도가 가장 높은 악성흑색종 환자는 2009년 2천819명에서 2013년 3천761명으로 33.4%가 증가했다.악성흑색종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 내는 멜라닌 세포의 악성화 때문에 생기는 피부암으로, 주로 뇌와 척수로 암세포가 전이돼 사망에 이른다. 이 질환은 가려움이나 통증 같은 자각 증상이 없고, 증상 부위가 평범한 검은 반점처럼 보여 방치하기 쉽다. 하지만, 검은 점이 새로 생긴다든지, 이미 있었던 검은 점의 모양, 크기, 색조가 변할 때에는 악성흑색종을 의심해볼 수 있다. 또 기존의 점과 인접해 새로이 작은 점들이 생기거나 손발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악성흑색종 환자의 경우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2013년 기준으로 40대 5.1%, 50대 13.9%, 60대 24.8%, 70대 37.4% 등이었다.광선각화증 환자도 2009년 6천547명에서 2013년 1만1천522명으로 76%나 급증했다. 광선각화증은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된 피부 표면에 생긴 단단한 각질 증상이다. 손으로 없애기 어려울 정도로 단단하며, 주로 얼굴이나 아랫입술, 귀, 목 뒷부분, 팔, 손등, 두피 등에 생긴다.성별로는 악성흑색종이나 기타 피부암, 광선각화증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50~60%로 더 높았다.이준영 대한피부과학회 이준영 이사장은 "피부암은 인구 고령화와 자외선 노출 빈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국내에도 유병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라며 "조기 치료가 필요한 만큼 얼굴, 목, 팔 등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 갑자기 점이 생기거나 있던 점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졌다면 피부암을 의심해보고 진단을 받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76.txt

제목: 나쁜 피 해독, 어혈 제거에 셀라케어 ‘M3시리즈’… 가정의 달 영양제 추천  
날짜: 20150513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3100000449  
본문: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3년 국내 사망원인 중 2~3위가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으로 나타났다. 혈액은 산소의 운반, 영양분의 공급, 대사과정에서 생긴 노폐물 제거, 체온 유지, 호르몬 운반 등을 역할을 통해 우리 몸을 지킨다. 혈액이 혈관을 통해 원활하게 순환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뇌를 비롯한 체내 장기는 혈액공급이 몇 분만 중단되어도 기능을 잃는다.현대인은 잘못된 먹거리 선택, 스트레스, 화학물질 남용, 환경오염 등으로 체내 나쁜 피와 혈액내 노폐물로 취급되는 어혈이 쌓이게 된다. 6년 경작 후 1년 휴지기를 지킨 흙에서 재배한 농작물에서 추출한 유기농 원료로 만들어진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 ‘셀라케어 M3시리즈’(문의 1661-9575)는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없애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셀라케어(http://www.sellacare.net)가 내놓은 M3시리즈는 ‘M3’, ‘VC2000‘, ’골든워터(Golden Water)’, ‘메가(Mega) CMZ’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제품을 이용한 4중요법은 혈액을 최적의 상태인 약알칼리 상태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혈액 및 체액이 과도하게 산성화될 경우 세포 재생이 더뎌지고 영양분 섭취 및 노폐물 배설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자연치유력이 떨어진다. 암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M3는 아미노산 무기질 결합 복합체로 일반 쌀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약 7배 높은 통쌀 농축물을 사용했다. 복합체는 멀티미네랄, 셀레늄 등을 둘러싸고 있으며 영양소를 세포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동시에 세포 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킬레이트 방식으로 기능한다. 이 방식은 체내 흡수 이용률을 크게 높여 즉각적인 효능을 볼 수 있다.VC2000은 지구상 존재하는 식물 중 두 번째로 비타민C 함유량이 높은 아세롤라와 로즈힙에서 추출물을 함유했다. 이들은 모세혈관을 강화시키고 동맥 및 정맥혈관을 청소하는 기능을 한다. 골든워터는 비타민E, 레스틴, 셀레늄 등을 함유한 영양제로 세포내 불포화지방산의 과산화를 억제해 세포막 및 조직의 손상을 막는다.메가 CMZ는 인체 구조를 지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뼈와 치아에 부족하기 쉬운 칼슘을 보충해주는 제품이다. 칼슘은 혈액 응고, 근육의 수축 및 이완, 심장 박동, 신경전달물질의 분비 등에도 관여해 적절한 섭취가 필요하다.이들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생산됐다. 제품 내 원료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청결한 환경에서 재배하고 높은 수준의 위생 상태를 준수해 ‘코셔’인증을 획득했다. 코셔는 식품 위생을 까다롭게 여기는 유태인들의 정신이 녹아 있는 것으로 순수하고 청결하며 0.1%의 독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비유전자조작(Non-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Non-GMO)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제품은 세밀한 시험 과정을 통해 중요 미네랄, 비타민, 미생물학적 특성(Microbiological specifications)을 정확히 담고 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77.txt

제목: 뉴욕 네일살롱 노동착취 조사… 한인사회 '술렁'  
날짜: 20150513  
기자: 국기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3100000021  
본문: 미국 뉴욕주가 네일살롱을 대상으로 노동착취·차별 여부 실태조사를 비롯한 긴급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인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대책이 한국계 주민들이 운영하는 대표적 업종인 네일살롱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어 한인사회 전체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주내 네일살롱에서 일하는 수천명의 직원들이 처한 임금 착취 및 건강 위협 등에 대한 긴급대책을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발표한 긴급성명을 통해서도 “<span class='quot0'>우리는 노동자의 임금을 도둑질하고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span>”고 강조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네일살롱에서 직원들이 고객 손톱을 다듬고 있다.이에 따라 뉴욕주는 주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만간 네일살롱 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네일아트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이 종업원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협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법규도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네일살롱 종업원의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인 점을 고려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로 된 고지문을 만들어 업소에 의무 게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 고지문에는 업주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리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이 같은 조치는 NYT가 지난 7일 1년여 심층취재를 토대로 한인 등이 주로 운영하는 네일살롱의 노동 착취와 차별 실태를 폭로한 데 따른 것이다. 뉴욕주 일원의 6000∼7000개 업소 중 3000개가량을 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NYT는 이날 ‘완벽한 손톱 뒤에서 신음하는 네일살롱 노동자’라는 제목의 두 번째 탐사보도 기사를 통해 네일살롱 종업원의 다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추가 폭로했다. 또 네일살롱에서 사용되는 화장품 등 화학약품이 암과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NYT는 이날자 사설에서 뉴욕주뿐 아니라 연방정부가 전국 단위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인 네일살롱 업계는 주정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일부 네일살롱의 문제를 마치 한인 업소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확대재생산해 불필요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이상호 뉴욕주 네일협회장은 “한인이 운영하는 네일살롱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span class='quot1'>NYT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업소는 27개가량으로 한인 이외에 다른 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곳도 많다</span>”고 주장했다.뉴욕 총영사관도 “<span class='quot1'>실태조사 결과가 과장된 측면이 있어 총영사관 차원에서 정확한 사정을 알아보고 있다</span>”고 밝혔다. 뉴욕한인학부모협의회 등 여러 한인단체들도 NYT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78.txt

제목: '너를 보며 견뎌'…꼬마 암환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  
날짜: 20150512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4954840  
본문: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는 페니 스미스(왼쪽)와 아바 가르시아(오른쪽)미국의 한 아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두 아이가 영혼의 짝으로 거듭나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겨운 치료를 견디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둘 중 한 명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br/> <br/>텍사스 아동병원에 입원한 아바 가르시아(4)와 페니 스미스(3)는 지난해 각각 신장암, 근육 관련 암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다. 한창 뛰놀며 세상을 알아가야 할 나이에 병원에 갇힌 두 아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나날을 견디고 있다. <br/> <br/>페니의 엄마 신디 사간은 “병원에 있는 것만 뺀다면 으레 아이들이 바깥에서 만나 노는 것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페니는 힘든 화학치료를 받고 있어 스트레스가 가득할 것 같지만, 아바 덕분에 이마저도 즐거운 놀이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br/> <br/> <br/>페니와 아바의 만남은 암이라는 비극이 빚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점에서 매우 역설적이다. 만약 암이 아니었다면 아동병원에 올 일도 없었을 것이고, 둘이 만날 일은 더욱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페니와 아비의 병실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br/> <br/>아바의 엄마 크리스티나 가르시아는 “<span class='quot0'>아이들은 서로를 매우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아바는 페니를 보며 힘든 치료를 견디고 있다</span>”고 말했다. 그는 “페니도 아바와 놀 때 정말로 행복해한다”며 “<span class='quot0'>우리는 영원히 페니를 잊지 못할 것이다</span>”라고 덧붙였다. <br/> <br/>가르시아가 ‘페니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안타깝게도 페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차도를 보이는 아바와 달리 페니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못다 핀 인생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79.txt

제목: 행복감 주는 식품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눈길'...몸 속 노폐물 몸 밖으로 배출  
날짜: 201505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5017207  
본문: 행복감 주는 식품 행복감 주는 식품 행복감 주는 식품 행복감 주는 식품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행복감 주는 식품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눈길'...몸 속 노폐물 몸 밖으로 배출 <br/> <br/>행복감 주는 식품 모닝커피가 에너지 생성과 친절함, 즐거움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br/> <br/>이에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가 누리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br/> <br/>최근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 ‘필립스 세코’가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에 대해 알렸다. <br/> <br/>필립스 세코에 따르면 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심장 질환, 암 예방에 효능이 있다. <br/> <br/>또한 커피를 하루 2~3잔 마시면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집중력과 민첩성, 수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공격 성향을 약화시킨다. <br/> <br/>이외에도 이뇨작용을 도와주고 몸 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등 심장 박동 횟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br/> <br/>하 지만, 클로로겐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면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숙면 방해와 신경과민, 두통,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인 400mg 하루 2~3잔 정도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한다. <br/> <br/>한편 커피는 산소 수분 온도의 변화에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로스팅한 원두는 최대 2주 이내 소비해야하며,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80.txt

제목: 내년 5월부터 건강식품 당뇨· 암 '예방 치료' 표기 못한다  
날짜: 2015051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5158922  
본문: 내년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당뇨병, 암 등의 치료·예방 기능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br/> <br/>또 건강기능식 원료로 인정받았더라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br/> <br/>2017년 5월부터 식품 제조·수입업자는 판매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유사 식품과 비교해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위생 강화를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한다. <br/> <br/>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의약품 분야 4개 개정 법률안과 1개 제정 법률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br/> <br/>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질병 치료·예방,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성이 있는 원료와 성분을 인정할 수 없도록 했다. <br/> <br/>이는 인삼류, 비타민류 등의 건기식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다. <br/> <br/>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 제조·수입업자가 2017년 5월부터 가공식품 등을 유사 식품과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br/> <br/>같은 시기에 시행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를 평가받으면 이를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br/> <br/>위생등급을 받으면 일정 기간 출입검사 등을 면제해주고 위생설비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일부 지원해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81.txt

제목: PTSD 노화 촉진, 노화방지에 건강까지 좋은 식품은? "젊어지는 보약 여기 있었네"  
날짜: 201505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4922500  
본문: 사진= 박주미/ 미샤 광고 캡처 <br/> <br/>충격적인 일을 당한 후 나타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생물학적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br/> <br/>9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 의과대학 정신과전문의 제임스 로어 박사가 PTSD의 영향을 다룬 64편의 연구논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론났다고 전했다. <br/>  <br/>로어 박사는 "PTSD는 염색체의 말단부인 텔로미어가 세포가 노화되면서 점점 짧아지는 속도를 가속화시킨다"고 덧붙였다. <br/> <br/>이러한 가운데 노화방지에 좋은 식품이 화제다. <br/> <br/>최근 미국의 한 여성 잡지에서는 외모를 어려보이게 만드는 식품 4가지를 공개했다. <br/> <br/>첫 번째 식품은 메이플시럽으로 캐나다 퀘벡주에 주로 분포하는 단풍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농축한 것으로 항산화물질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진하는 아연이 들어 있고 소염 기능도 있어 노화를 효과적으로 늦춰준다. <br/> <br/>하지만 설탕 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하루 한 숟가락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 <br/> <br/>두 번째 식품은 오이로 딱딱한 껍질에 주로 함유된 실리카 성분은 신체를 연결하는 조직 형성에 기여하고 근육과 관절은 물론 연골 등에도 좋으며 비타민C와 카페인산이 풍부해 피부를 재생하고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br/> <br/>또한 오이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인 피세틴은 기억손실과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된 기억 장애의 촉진을 방지하는 것을 발견했다. <br/> <br/>세 번째 음식은 코코넛 오일로 SCI저널인 국제피부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유(코코넛오일)을 7주간 매일 사용하면 피부 보습 효과가 3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네 번째 음식은 식용 꽃잎 또는 잎채소로 식용 꽃은 페놀산은 물론 갈릭산, 클로로겐산, 루틴과 같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하며 또한 장미 꽃잎과 같은 식용 꽃은 항염 작용과 관련이 있고 심혈관계 질환과 특정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82.txt

제목: 내년 5월부터 건강식품 당뇨· 암 '예방 치료' 표기 못한다  
날짜: 20150512  
기자: buckba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2100000521  
본문: 내년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당뇨병, 암 등의 치료·예방 기능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또 건강기능식 원료로 인정받았더라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2017년 5월부터 식품 제조·수입업자는 판매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유사 식품과 비교해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위생 강화를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한다.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의약품 분야 4개 개정 법률안과 1개 제정 법률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질병 치료·예방,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성이 있는 원료와 성분을 인정할 수 없도록 했다.이는 인삼류, 비타민류 등의 건기식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다.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 제조·수입업자가 2017년 5월부터 가공식품 등을 유사 식품과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같은 시기에 시행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를 평가받으면 이를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위생등급을 받으면 일정 기간 출입검사 등을 면제해주고 위생설비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일부 지원해주는 내용도 포함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83.txt

제목: '너를 보며 견뎌'…꼬마 암환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  
날짜: 2015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2100000873  
본문: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는 페니 스미스(왼쪽)와 아바 가르시아(오른쪽)미국의 한 아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두 아이가 영혼의 짝으로 거듭나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겨운 치료를 견디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둘 중 한 명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텍사스 아동병원에 입원한 아바 가르시아(4)와 페니 스미스(3)는 지난해 각각 신장암, 근육 관련 암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다. 한창 뛰놀며 세상을 알아가야 할 나이에 병원에 갇힌 두 아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나날을 견디고 있다.페니의 엄마 신디 사간은 “<span class='quot0'>병원에 있는 것만 뺀다면 으레 아이들이 바깥에서 만나 노는 것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페니는 힘든 화학치료를 받고 있어 스트레스가 가득할 것 같지만, 아바 덕분에 이마저도 즐거운 놀이로 여기고 있다</span>”고 말했다.페니와 아바의 만남은 암이라는 비극이 빚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점에서 매우 역설적이다. 만약 암이 아니었다면 아동병원에 올 일도 없었을 것이고, 둘이 만날 일은 더욱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페니와 아비의 병실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아바의 엄마 크리스티나 가르시아는 “<span class='quot1'>아이들은 서로를 매우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아바는 페니를 보며 힘든 치료를 견디고 있다</span>”고 말했다. 그는 “페니도 아바와 놀 때 정말로 행복해한다”며 “<span class='quot1'>우리는 영원히 페니를 잊지 못할 것이다</span>”라고 덧붙였다.가르시아가 ‘페니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안타깝게도 페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차도를 보이는 아바와 달리 페니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못다 핀 인생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84.txt

제목: 래퍼 영푸 신곡 '워럽' 컴백 예고, 시련을 이겨낸 성숙한 음악 기대  
날짜: 20150512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210017255856  
본문: 래퍼 영푸(0poo)가 다시 힙합계로의 컴백을 예고하고 있다. <br/> <br/>당시 그는 오디션 이후 여러 매체의 관심을 받았으나, 갑작스런 어머니의 암 발병과 가정사의 문제로 오디션을 포기하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음악계를 떠나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야했다.  <br/> <br/>음악에 대한 열정과 미련을 버리지 못한 영푸는 마음을 다잡고 직접 만든 비트와 가사로 '오아시스'라는 싱글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지만, 힙합 음악계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재기의 고비를 마셔야만했다. <br/> <br/>그러던 중 예전부터 영푸의 잠재력을 눈여겨봐 오던 원샷 미디어 프로듀서 JPD (전경훈)의 러브콜을 받고 전격적으로 새로운 싱글앨범 제작에 들어갔다. 기존 영푸 의 음악스타일을 모두 벗고, 지금까지 앨범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의 신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br/> <br/>영푸의 신곡 '워럽'은 리드미컬한 트랩(trap)비트에 강렬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가 어우러진 트렌디한 힙합 곡으로 프로듀서 JPD 야심작이다. 트렌디한 비트와 날카로운 듯 깔끔한 영푸의 랩이 환상의 조화를 이루었다는 평이다. <br/> <br/>영푸는 이번 싱글 발매를 기점으로 프로듀서 JPD 의 진두지휘 아래 안 밖으로 왕성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85.txt

제목: '너를 보며 견뎌'…꼬마 암환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  
날짜: 2015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2100000670  
본문: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는 페니 스미스(왼쪽)와 아바 가르시아(오른쪽)미국의 한 아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두 아이가 영혼의 짝으로 거듭나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겨운 치료를 견디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둘 중 한 명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텍사스 아동병원에 입원한 아바 가르시아(4)와 페니 스미스(3)는 지난해 각각 신장암, 근육 관련 암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다. 한창 뛰놀며 세상을 알아가야 할 나이에 병원에 갇힌 두 아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나날을 견디고 있다.페니의 엄마 신디 사간은 “<span class='quot0'>병원에 있는 것만 뺀다면 으레 아이들이 바깥에서 만나 노는 것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페니는 힘든 화학치료를 받고 있어 스트레스가 가득할 것 같지만, 아바 덕분에 이마저도 즐거운 놀이로 여기고 있다</span>”고 말했다.페니와 아바의 만남은 암이라는 비극이 빚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점에서 매우 역설적이다. 만약 암이 아니었다면 아동병원에 올 일도 없었을 것이고, 둘이 만날 일은 더욱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페니와 아비의 병실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아바의 엄마 크리스티나 가르시아는 “<span class='quot1'>아이들은 서로를 매우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아바는 페니를 보며 힘든 치료를 견디고 있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페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난 게 아닐까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1'>페니는 아마 아바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span>”라고 덧붙였다.크리스티나가 ‘아바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안타깝게도 페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차도를 보이는 아바와 달리 페니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못다 핀 인생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86.txt

제목: 행복감 주는 식품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눈길'...몸 속 노폐물 몸 밖으로 배출  
날짜: 201505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2100000863  
본문: 행복감 주는 식품 행복감 주는 식품 행복감 주는 식품 행복감 주는 식품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행복감 주는 식품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눈길'...몸 속 노폐물 몸 밖으로 배출행복감 주는 식품 모닝커피가 에너지 생성과 친절함, 즐거움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에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가 누리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최근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 ‘필립스 세코’가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에 대해 알렸다.필립스 세코에 따르면 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심장 질환, 암 예방에 효능이 있다.또한 커피를 하루 2~3잔 마시면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집중력과 민첩성, 수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공격 성향을 약화시킨다.이외에도 이뇨작용을 도와주고 몸 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등 심장 박동 횟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하 지만, 클로로겐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면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숙면 방해와 신경과민, 두통,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인 400mg 하루 2~3잔 정도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한다.한편 커피는 산소 수분 온도의 변화에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로스팅한 원두는 최대 2주 이내 소비해야하며,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다.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87.txt

제목: 행복감 주는 식품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눈길'...몸 속 노폐물 몸 밖으로 배출  
날짜: 201505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2100000558  
본문: 행복감 주는 식품 행복감 주는 식품 행복감 주는 식품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행복감 주는 식품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눈길'...몸 속 노폐물 몸 밖으로 배출행복감 주는 식품 모닝커피가 에너지 생성과 친절함, 즐거움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에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가 누리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최근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 ‘필립스 세코’가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에 대해 알렸다.필립스 세코에 따르면 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심장 질환, 암 예방에 효능이 있다.또한 커피를 하루 2~3잔 마시면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집중력과 민첩성, 수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공격 성향을 약화시킨다.이외에도 이뇨작용을 도와주고 몸 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등 심장 박동 횟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하 지만, 클로로겐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면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숙면 방해와 신경과민, 두통,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인 400mg 하루 2~3잔 정도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한다.한편 커피는 산소 수분 온도의 변화에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로스팅한 원두는 최대 2주 이내 소비해야하며,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다.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88.txt

제목: '후아유-학교2015' 조수향, 떠오르는 악녀 '암유발자' 등극  
날짜: 2015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2100000551  
본문: ‘후아유-학교2015’ 속 김소현을 괴롭히는 조수향이 새로운 안방극장 속 암유발자로 등극했다.지난 11일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에서는 다시 같은 반이 된 이은비(고은별. 김소현)와 강소영(조수향)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전학 첫날 소영은 은별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는 은비를 보고 경악했다. 앞서 기억을 잃은 은비는 통영 병원에서 소영에게 머리채를 잡혔던 바. 소영은 그녀에게 한 실수가 새로운 친구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한편 은별로 사는 은비의 정체를 밝히려 했다. 은비를 따로 불러낸 소영은 “전에 통영에서는 미안했다. 잘 지내자”며 손을 내밀었고 은비는 소영을 향한 과거 앙금을 완벽히 숨기지 못했다. 결국 소영은 통영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비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났다며 신기해했고 은비가 죽었다고 알려진 무렵 은별은 실종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영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고, 소영은 친구들에게 은비에 관해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고 은비라는 의심은 확신됐다.결국 이날 ‘후아유-학교2015’ 방송 말미 소영은 은비를 따로 불러내 자극하며 시청자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했다.현재 은비는 쌍둥이 언니인 은별을 둘러싼 의문의 사건을 파헤쳐야함과 동시에 소영이라는 복병의 공격까지 받게 됐다. 게다가 소영은 이중적인 태도로 또다시 은비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조수향은 드라마속 악녀의 계보를 잇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또 조수향은 ‘후아유-학교2015’를 통해 안방극장에 나타난 배우지만 특유의 존재감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연기력으로 시청자에 각인됐다.온라인 뉴스팀사진=KBS2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89.txt

제목: PTSD 노화 촉진, 노화방지에 건강까지 좋은 식품은? "젊어지는 보약 여기 있었네"  
날짜: 201505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2100000204  
본문: 사진= 박주미/ 미샤 광고 캡처충격적인 일을 당한 후 나타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생물학적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9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 의과대학 정신과전문의 제임스 로어 박사가 PTSD의 영향을 다룬 64편의 연구논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론났다고 전했다. 로어 박사는 "PTSD는 염색체의 말단부인 텔로미어가 세포가 노화되면서 점점 짧아지는 속도를 가속화시킨다"고 덧붙였다.이러한 가운데 노화방지에 좋은 식품이 화제다.최근 미국의 한 여성 잡지에서는 외모를 어려보이게 만드는 식품 4가지를 공개했다.첫 번째 식품은 메이플시럽으로 캐나다 퀘벡주에 주로 분포하는 단풍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농축한 것으로 항산화물질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진하는 아연이 들어 있고 소염 기능도 있어 노화를 효과적으로 늦춰준다.하지만 설탕 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하루 한 숟가락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두 번째 식품은 오이로 딱딱한 껍질에 주로 함유된 실리카 성분은 신체를 연결하는 조직 형성에 기여하고 근육과 관절은 물론 연골 등에도 좋으며 비타민C와 카페인산이 풍부해 피부를 재생하고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또한 오이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인 피세틴은 기억손실과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된 기억 장애의 촉진을 방지하는 것을 발견했다.세 번째 음식은 코코넛 오일로 SCI저널인 국제피부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유(코코넛오일)을 7주간 매일 사용하면 피부 보습 효과가 3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네 번째 음식은 식용 꽃잎 또는 잎채소로 식용 꽃은 페놀산은 물론 갈릭산, 클로로겐산, 루틴과 같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하며 또한 장미 꽃잎과 같은 식용 꽃은 항염 작용과 관련이 있고 심혈관계 질환과 특정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90.txt

제목: 전립선암 수술뒤 생기는 요실금기간 30일→18일로 단축  
날짜: 20150512  
기자: 선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2100000004  
본문: 전립선암 수술 후 겪게 되는 요실금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일로 대폭 줄일 수 있는 수술법이 개발됐다.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정창욱(사진) 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이상은 교수와 함께 방광과 요도의 연결 상태를 최대한 수술 전처럼 견고하게 복원시켜 요실금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비뇨기과 분야 국제학술지 미국비뇨기과학회지 ‘저널 오브 유롤로지’(Journal of Urology) 최신호에 실렸다.전립선은 정액을 분비하는 밤톨만 한 크기의 남성 생식기관으로 방광 밑에 붙어 있으며, 방광과 연결된 요도(소변 배출)를 감싸고 있다. 이곳에 암이 생기면 전립선 전체를 제거한 후(근치적 전립선적출술) 요도와 방광을 다시 이어줘야 한다. 하지만 수술 후 합병증으로 요실금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전립선은 요도와 붙어 있는데 전립선이 제거되면서 요도의 괄약근과 주변 조직에 손상이 생겨 소변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 교수팀이 개발한 새 수술법은 방광과 요도의 연결 상태를 최대한 수술 전처럼 견고하게 복원시켜 요실금 발생 위험을 최대한 줄여준다. 정 교수팀은 이를 위해 요도와 방광을 이어줄 때 연결부위를 단단히 지지하는 일종의 ‘구조물’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고안했다. 전립선 제거 후, 수술 전 요도 뒤쪽 및 전립선을 싸고 있던 조직과 방광 아래쪽 및 전립선을 싸고 있던 조직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후 요도와 방광을 이어준다.이 수술은 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요도와 방광의 연결을 한층 견고하게 만들어 소변 조절에 관여하는 요도 주변의 혈관, 신경, 근육 등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정 교수팀은 로봇 복강경 수술로 전립선을 완전히 절제한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50명(비교군)에게는 이 수술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50명(대조군)에게는 수술법을 적용하지 않은 후 두 군의 요실금 회복을 비교했다. 그 결과 비교군은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요실금이 회복되는 데 평균 18일이 걸린 반면 대조군은 2배 가까운 30일이 소요됐다. 합병증과 후유증도 발견되지 않았다.박태해 선임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91.txt

제목: 뉴욕 네일살롱 노동착취 조사… 한인사회 '술렁'  
날짜: 20150512  
기자: 국기연 특파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210017260920  
본문: 미국 뉴욕주가 네일살롱을 대상으로 노동착취·차별 여부 실태조사를 비롯한 긴급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인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대책이 한국계 주민들이 운영하는 대표적 업종인 네일살롱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어 한인사회 전체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br/> <br/>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주내 네일살롱에서 일하는 수천명의 직원들이 처한 임금 착취 및 건강 위협 등에 대한 긴급대책을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발표한 긴급성명을 통해서도 “<span class='quot0'>우리는 노동자의 임금을 도둑질하고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span>”고 강조했다.  <br/> <br/>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네일살롱에서 직원들이 고객 손톱을 다듬고 있다.이에 따라 뉴욕주는 주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만간 네일살롱 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네일아트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이 종업원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협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법규도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네일살롱 종업원의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인 점을 고려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로 된 고지문을 만들어 업소에 의무 게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 고지문에는 업주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리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br/> <br/>이 같은 조치는 NYT가 지난 7일 1년여 심층취재를 토대로 한인 등이 주로 운영하는 네일살롱의 노동 착취와 차별 실태를 폭로한 데 따른 것이다. 뉴욕주 일원의 6000∼7000개 업소 중 3000개가량을 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br/> <br/>NYT는 이날 ‘완벽한 손톱 뒤에서 신음하는 네일살롱 노동자’라는 제목의 두 번째 탐사보도 기사를 통해 네일살롱 종업원의 다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추가 폭로했다. 또 네일살롱에서 사용되는 화장품 등 화학약품이 암과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NYT는 이날자 사설에서 뉴욕주뿐 아니라 연방정부가 전국 단위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r/> <br/>한인 네일살롱 업계는 주정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일부 네일살롱의 문제를 마치 한인 업소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확대재생산해 불필요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이상호 뉴욕주 네일협회장은 “한인이 운영하는 네일살롱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span class='quot1'>NYT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업소는 27개가량으로 한인 이외에 다른 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곳도 많다</span>”고 주장했다. <br/> <br/>뉴욕 총영사관도 “<span class='quot2'>실태조사 결과가 과장된 측면이 있어 총영사관 차원에서 정확한 사정을 알아보고 있다</span>”고 밝혔다. 뉴욕한인학부모협의회 등 여러 한인단체들도 NYT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92.txt

제목: [김승동의 보험 X-ray]실버암보험 보험료 40% 차이  
날짜: 20150511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110017244310  
본문: 어버이날을 맞이해 실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버암보험은 실버보험의 대표상품이다. 만 61세 이상 노인의 암에 대한 누적 통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버암보험은 보장 내용이 흡사하다. 일부 보험사가 암으로 인한 사망까지 보장하거나 고액암은 일반암보다 두 배 보장하는 정도가 차별점이다. <br/> <br/>전 생명보험사가 지난 4월 1일을 기준으로 상품을 개정했다. 일부 보험사는 실버암보험 보험료가 소폭 하락한 반면 대부분의 보험사는 동일 담보 대비 10~20% 보험료가 인상되었다. <br/> <br/>실버암보험 보험료가 가장 높은 보험사와 가장 낮은 보험사의 보험료 차이는 40% 이상이었다. 다만 보험료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상품은 아니다. 보장금액과 보장범위부터 살펴본 후 보장이 같다면 보험료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br/> <br/>8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실버암보험은 현재 삼성생명·ING생명·메트라이프생명·DGB생명·한화생명·라이나생명·동양생명·알리안츠생명·AIA생명·신한생명·NH농협생명·미래에셋생명·KDB생명·동부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다. <br/> <br/>대부분의 보험사가 고액암(뼈암, 뇌암, 혈액암 등), 일반암(간암, 위암, 대장암 등), 유방암, 남녀생식기암(전립선암, 자궁암 등), 소액암(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등)으로 암을 구분한다. 다만 각 보험사마다 암 종류별로 구분하는 것은 상이하다. <br/> <br/>실버암보험에 가입 가능한 나이는 만 61세부터 최소 75세까지다. 일부 보험사는 8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br/> <br/>자신의 몸은 본인이 가장 잘 안다. 암은 중대한 질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몸이 좋지 않다는 신호가 온다. 따라서 암보험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다. 암에 걸린 것을 예측하도 암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br/> <br/>암보험 면책기간은 90일다. 이 기간 이내에 암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보장을 하지 않는다. 또한 50% 감액기간도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가입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암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보장금액 절반만 보장한다. 일부 보험사는 2년이 지나야 보장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br/> <br/>모든 보험사가 10년 만기 100세 갱신형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NH농협생명만 5년 만기 100세 갱신형 상품이다. 암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보장기간이 길수록 암보험의 보험료도 높아진다. 평준보험료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NH농협생명도 10년 만기 상품으로 구성한다면, 현재 가입금액보다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소폭 증가할 수 있다. <br/> <br/>실버암보험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없으면 보험료가 5% 할인 된다. 이외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해주거나 자동이체 신청, 단체로 계약할 경우 할인 되는 보험사도 있다. <br/> <br/>일부 보험사는 암에 걸리지 않고 만기를 맞이하면 건강관리자금 목적의 소액 환급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또한 암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도 있다. <br/> <br/>지난 4월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상품개정을 하면서 일반암과 고액암에 속해 있는 일부 암을 '특정암'으로 재구분해 보장금액을 높일 수 있는 특약을 신설했다. 다만 이 특정암에 속해 있는 암종은 각 사별로 상이했고, 보장금액도 달랐다. <br/> <br/>세계파이낸스는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61세가 일반암 기준 2000만원을 보장받기 위해 실버암보험에 가입한다는 조건으로 가급적 동일하게 비교했다. <br/> <br/> <br/>61세 남성의 경우 실버암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삼성생명, ING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순이었다. 반면 동부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순으로 보험료가 낮았다. <br/> <br/>61세 여성의 경우 실버암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동양생명 순이었다. 반면 동부생명, KDB생명, ING생명 순으로 보험료가 낮았다. <br/> <br/>보험료가 가장 높은 보험사 대비 가장 낮은 보험사의 보험료는 약 40% 이상 저렴했다. <br/> <br/>보험사 한 관계자는 "실버암보험은 누적된 통계가 많지 않아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기본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보험사가 많다"며 "암 보장금액과 감액기간, 암사망특약 등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따라서 보험료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보장금액이 같다면 보험료가 낮은 곳부터 고액암과 일반암 보장에 속해있는 암종이 무엇인지 순으로 확인하는 게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93.txt

제목: 휴 잭맨 피부암 투병 고백 "선크림 진작 바를 걸"  
날짜: 20150511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110017240111  
본문: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친한(親韓) 배우 휴 잭맨이 피부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털어놔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미국 연예 매체 피플은 10일(현지시간) 잭맨이 지난 18개월 동안 4개의 피부암 세포를 발견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br/> <br/>그는 2013년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촬영 당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부터 코에 난 반점에 대해 피부암 검사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병원에 갔다. 이에 의료진으로부터 네 곳에서 피부암이 진행 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br/> <br/>호주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평소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채 햇볕 아래 야외활동을 즐겨온 탓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암은 나와는 상관 없는 줄 알았다. 나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말했다. <br/> <br/>휴 잭맨은 '엑스맨' 시리즈에서 울버린을 연기하며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했으며, '레미제라블' '프리즈너스' '채피'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94.txt

제목: 젊은 층 대상포진 빈발, 물집이 생긴 부위는 타는 듯한 심한 통증 동반…자가 진단법은?  
날짜: 20150511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110017245169  
본문: 젊은 층 대상포진 빈발, 자가 진단법젊은 층 대상포진 빈발, 물집이 생긴 부위는 타는 듯한 심한 통증 동반…자가 진단법은? <br/> <br/>대상포진 진단법이 화제다. 대상포진은 붉은 물집이 옹기종기 군집을 이뤄 전체적으로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물집이 생긴 부위는 타는 듯한 심한 통증이 동반된다. <br/> <br/>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 41만6216명이었던 대상포진 환자는 2012년 57만7157명으로 4년새 40% 가량 늘었다. 이는 연평균 9%에 달하는 증가율로, 통증 수준도 심각했다. <br/> <br/>대한피부과학회가 전국 20개 대학병원에 내원한 대상포진 환자 1만9884명(2012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7%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7% 가량은 통증과 합병증으로 입원했다고 답했다. <br/> <br/>치료 후에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비율도 35.4%나 됐다. <br/> <br/>후유증 종류로는 '통증'(90.9%), '각결막염 등 안구손상'(5.6%), '청각이상 및 어지러움증'(1.7%), '대소변 이상'(1.2%), '안면마비'(0.6%) 등이 있다. <br/> <br/>계영철 대한피부과학회 이사장은 "대상포진은 피부과 입원 환자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발병 빈도가 상당히 높은 질환"이라며 "치명적 통증과 신경통 등 후유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초기에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환자 대부분이 초기 증상 발생 시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br/> <br/>대상포진은 면역력에 떨어질 때 나타나는 질병이다. <br/> <br/>소아기에 수두에 걸려 잠복해있던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난 다음 노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인체 면역이 떨어지면서 다시 활성화돼 발생하는 것이다. <br/> <br/>대상포진을 예방하려면 평소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br/> <br/>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br/> <br/>만약 피부에 붉은 물집이 생겼다면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br/> <br/>다음은 대한피부과학회가 권고하는 대상포진 자가진단법이다. <br/> <br/>▲물집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br/>▲작은 물집들이 몸의 한 쪽에 모여 전체적으로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br/>▲물집을 중심으로 타는 듯 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 <br/>▲어렸을 때 수두를 경험하거나 과거 대상포진을 앓았던 경험이 있다. <br/>▲평소 허약하거나 노인, 또는 암 등의 질병으로 면역력이 약하다. <br/> <br/>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대상포진을 의심하고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올바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95.txt

제목: 전립선암 수술뒤 생기는 요실금기간 30일→18일로 단축  
날짜: 20150511  
기자: 박태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110017246902  
본문: 전립선암 수술 후 겪게 되는 요실금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일로 대폭 줄일 수 있는 수술법이 개발됐다. <br/> <br/>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정창욱(사진) 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이상은 교수와 함께 방광과 요도의 연결 상태를 최대한 수술 전처럼 견고하게 복원시켜 요실금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비뇨기과 분야 국제학술지 미국비뇨기과학회지 ‘저널 오브 유롤로지’(Journal of Urology) 최신호에 실렸다. <br/> <br/>전립선은 정액을 분비하는 밤톨만 한 크기의 남성 생식기관으로 방광 밑에 붙어 있으며, 방광과 연결된 요도(소변 배출)를 감싸고 있다. 이곳에 암이 생기면 전립선 전체를 제거한 후(근치적 전립선적출술) 요도와 방광을 다시 이어줘야 한다. <br/> <br/>하지만 수술 후 합병증으로 요실금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전립선은 요도와 붙어 있는데 전립선이 제거되면서 요도의 괄약근과 주변 조직에 손상이 생겨 소변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 교수팀이 개발한 새 수술법은 방광과 요도의 연결 상태를 최대한 수술 전처럼 견고하게 복원시켜 요실금 발생 위험을 최대한 줄여준다. <br/> <br/>정 교수팀은 이를 위해 요도와 방광을 이어줄 때 연결부위를 단단히 지지하는 일종의 ‘구조물’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고안했다. 전립선 제거 후, 수술 전 요도 뒤쪽 및 전립선을 싸고 있던 조직과 방광 아래쪽 및 전립선을 싸고 있던 조직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후 요도와 방광을 이어준다. <br/> <br/>이 수술은 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요도와 방광의 연결을 한층 견고하게 만들어 소변 조절에 관여하는 요도 주변의 혈관, 신경, 근육 등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정 교수팀은 로봇 복강경 수술로 전립선을 완전히 절제한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50명(비교군)에게는 이 수술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50명(대조군)에게는 수술법을 적용하지 않은 후 두 군의 요실금 회복을 비교했다. 그 결과 비교군은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요실금이 회복되는 데 평균 18일이 걸린 반면 대조군은 2배 가까운 30일이 소요됐다. 합병증과 후유증도 발견되지 않았다. <br/> <br/>박태해 선임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96.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우유, 발암 vs 항암…진실은?  
날짜: 20150510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010017229933  
본문: 지난해 10월 말 스웨덴발 연구가 언론을 휩쓸었습니다. 우유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된 것인데요. 그동안 이와 유사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 우유가 ▲심장병 ▲유방암 ▲골절의 위험을 낮춘다고 말하면, 다른 한쪽에선 오히려 우유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식의 반박이 이어지곤 했는데요. 우유 등 ‘유제품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br/> <br/>영국인 과학자 제인 플랜트 박사가 최근 국내에 출간된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통해 우유가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br/> <br/>해당 도서는 동물성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해 유방암을 앓게 된 제인 플랜트 박사가 유방암 연구에 몰입하면서 유방암 발병원인을 추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br/> <br/>제인 플랜트 박사는 이 책을 통해 우유가 유방암의 발병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유 대신 ‘두유’를 마시고 치즈 대신 ‘두부’를 섭취할 것을 권고한다. <br/> <br/>정말 우유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것일까. 국내 전문가들은 외국인과 한국인의 동물성 지방 섭취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크고, 이 책은 일부 외국 사례만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국내 여건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입을 모은다. <br/> <br/>'우유 내 존재하는 CLA와 tans vaccenic acid(TVA)의 유방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는 이홍구 건국대학교 교수는 "우유가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의 핵심은 우유 속에 들어 있는 IGF-1이나 성장 인자 등이 암을 유발한다는 것인데, 논문에도 나와 있듯 우유 속에 들어 있는 IGF-1의 농도 자체는 유방암을 일으킬 만한 농도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br/> <br/>이어 “IGF-1는 혈액 내에도 약 100㎍이상이 존재하는 물질로, 우유 속에 들어있는 IGF-1의 농도는 무척 낮기 때문에 우유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하루에 30㎍정도 밖에 안 된다”면서 “우유에 들어 있는 성분은 극히 미량으로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양이 아니며, 오히려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지방산이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br/> <br/>이영은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span class='quot1'>우유 속에 들어 있는 IGF-1이나 성장호르몬은 종양의 세포증식을 촉진하기는 하지만 그 성분이 단백질</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단백질은 인간의 소화기관에서 가수분해되어 아미노산으로 흡수되므로, 우리 몸 속의 IGF-1을 증가시켜 암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처럼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유 논쟁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과거에는 우유가 주 성분인 분유가, 엄마 젖보다 좋다는 광고도 있었다. 분유로 키운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우량아 선발대회를 하던 시절도 있었다. <br/> <br/>하지만 현재 의학계의 대체적인 결론은 엄마 젖보다 좋은 우유나 분유는 없다는 것이다. 엄마와 아이의 친밀감은 물론이고, 엄마 젖을 먹이면 당장 엄마의 비만이나 ‘산후 우울증’도 줄여주고 유방암 발생 위험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 <br/> <br/>아울러 엄마 젖을 먹고 자라면 아토피·천식 등 각종 알레르기 질환은 물론, 장 질환·감염 등 여러 질환 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어도 신생아나 영아 때는 우유보다 엄마 젖이 좋다는 것은 이제 거의 ‘확인된 사실’이다. <br/> <br/>결론적으로 우유를 먹어야 할까, 아니면 마시지 말아야 할까.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모두가 인정하는 ‘정답’은 없다. 다만 우유의 효과를 과신해서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거나 아이들한테 꼭 먹여야 한다거나 반대로 우유를 아예 피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br/> <br/>업계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요거트 등 발효 유제품을 먹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에는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일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 내용이 우유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올바른 인지가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97.txt

제목: 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 운동만큼 중요한 ‘건강한 음식’ 어떤 효과?  
날짜: 2015051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010017230003  
본문: 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 <br/>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 운동만큼 중요한 ‘건강한 음식’ 어떤 효과? 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이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미국 남성지 디테일스의 리사 시바 기자가 전하는 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 5가지를 소개했다. 첫 번째 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으로 아보카도가 있다.  아보카도는 운동으로 인해 손상된 근육을 재생하는 불포화지방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특히 남성의 전립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므로 운동을 하는 남성이라면 필히 섭취해야할 음식이다.  두 번째 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으로 달걀이 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달걀은 대표적인 단백질 보충원으로 달걀은 원기 회복과 근육 발달에 좋은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 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은 고구마고 다이어트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좋은 간식이다.  고구마에는 특히 탄수화물이 다량 포함돼 있으며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건강한 식이섬유질을 보충하기 좋은 간식이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은 녹차로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동시에 지방 분해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또한 녹차에 포함된 항산화제는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근육통을 줄여주는 데 특히 좋다. 한편 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 다이어트해야되는데” “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 먹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98.txt

제목: [세계는 지금] 美, 대학 평가 순위 발표 명과 암  
날짜: 20150510  
기자: 국기연 특파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010017234232  
본문: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대학 평가 순위가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시사주간지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이하 유에스 뉴스)가 매년 발표하는 대학 순위가 교육계에서 결코 무시 못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상위급 대학에는 우수 학생이 몰려들고,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간다. 그러나 하위권 대학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 평가 기준에 맞춰 각 대학이 순위를 올리려고 치열하게 막후에서 경쟁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한 편법을 동원하다가 들통 나 수모를 겪기도 한다. <br/> <br/>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br/>◆난무하는 대학 평가 기관 <br/> <br/>미국에서는 유에스(US)뉴스가 발표하는 ‘베스트 칼리지’ 순위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미국의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분의 1가량이 이 주간지의 대학 평가 순위가 자신이 진학하는 대학을 결정하는 데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CQ 리서처 최신호가 보도했다. 이 주간지의 대학 순위 평가에서 톱 25에 드는 대학은 신입생 지원 비율이 평균 6∼10%가량 증가한다고 CQ 리서처가 지적했다. <br/> <br/>미국에는 이 밖에도 프린스턴 리뷰, 포브스, 머니, 뉴욕타임스, 월간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 키프링거스,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링키드인 등이 대학 평가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각 평가 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대학 순위도 천차만별이다. 다만, 응시자의 합격률, 졸업률, 등록금, 교직원 봉급 등은 공통으로 평가 항목에 들어 있다. <br/> <br/>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반 국민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미국 주요 대학의 등급을 매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대학의 등수를 매겨 서열화하지는 않고, 대학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한 뒤 이를 등급으로 나눠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br/> <br/>미국 대학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항목이 신입생의 SAT(한국의 수능) 성적이다. 미국의 일부 대학은 SAT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응시자는 일단 입학 허가를 보류하고, 나머지 학생들의 SAT 성적을 평가기관에 제출한 뒤 뒤늦게 SAT 성적이 낮은 학생을 추가로 입학시키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부풀린 점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기도 한다. <br/> <br/>대학 평가 순위 발표에 대한 찬반 논쟁도 뜨겁다. 인위적으로 순위를 매김으로써 대학 지원자 숫자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대학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멋대로 순위를 정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대학이 속출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선택의 폭이 넓고, 자신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근거로 한 객관적인 평가와 순위를 보여주는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에 도움이 된다는 게 찬성론자의 반론이다. <br/> <br/>◆평가 기관마다 다른 대학 순위 <br/> <br/>대학 평가기관은 단정적으로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유에스뉴스는 ‘베스트 칼리지’, 포브스는 ‘미국의 톱 칼리지’, 프린스턴 리뷰는 ‘최고 379개 대학’이라는 제목으로 대학 순위를 발표한다. 유에스뉴스는 전국 종합대학, 리버럴 아츠 칼리지, 지역 종합대학, 지역 칼리지 등 4분야로 나눠 각각 순위를 매긴다. 유에스뉴스는 지난해에 전국 종합대학 순위 1위로 프린스턴대, 리버럴 아츠 칼리지 1위로 윌리엄스 칼리지를 꼽았다. 그러나 포브스는 종합대학과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구분하지 않고 순위를 정한다. 포브스는 윌리엄스 칼리지를 1위라고 평가했다. <br/> <br/>유에스뉴스의 평가 항목은 16가지에 달하며 각 항목별로 가중치가 다르다. 유에스뉴스는 대학 평판 22.5%, 입학 후 6년 이내 졸업 비율 22.5%, 학교 시설 및 교직원 역량 20%, 입학 경쟁률 12.5%, 장학금 지원 등 학생 졸업 지원 7.5%, 교우 기부금 납부 비율 5%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포브스는 12개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유에스뉴스와 달리 대학 평판을 평가 대상에서 뺐다. 그 대신 대학 졸업생이 사회에 진출해 어느 정도 성공하는지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br/> <br/>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유명 저술가인 말콤 글래드웰은 “<span class='quot0'>유에스뉴스가 입학 경쟁률 등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 경쟁률이 낮은 대학이 경쟁률이 높은 대학보다 더 좋은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span>”고 지적했다. 글래드웰은 “<span class='quot1'>대학의 질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span>”고 주장했다. 유에스 뉴스 측도 대학 강의의 질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어서 대학 순위 평가 작업이 완벽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br/> <br/>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배출한 리버럴 아츠 칼리지인 리드대학은 유에스뉴스 측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유에스뉴스가 리드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게 결코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게 이유이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상당수의 대학이 유에스 뉴스나 포브스의 평가 기준에 맞춰 대학 순위를 올리려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텍사스주에 있는 베일러대학은 순위 상승을 위해 2억달러(약 2148억6000만원)를 투자했다. <br/> <br/>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1999.txt

제목: 獨 양심의 고해성사 “나는 나치 친위대였다”  
날짜: 20150509  
기자: 정승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0910017227063  
본문: 귄터 그라스 지음/장희창, 안장혁 옮김/민음사/2만5000원 <br/>귄터 그라스 지음/장희창 옮김/민음사/1만3000원양파 껍질을 벗기며- 귄터 그라스 자서전/귄터 그라스 지음/장희창, 안장혁 옮김/민음사/2만5000원 <br/> <br/>암실이야기- 귄터 그라스 자전소설/귄터 그라스 지음/장희창 옮김/민음사/1만3000원 <br/> <br/>‘양철북’(1959)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독일 작가 귄터 그라스의 책 두 권이 출간됐다. 지난 4월 13일 87세로 생을 마감한 그라스는 ‘행동하는 독일의 양심’으로 인정받는 작가이다. 독일의 만행에 대한 반성을 문학적으로 세련되게 표현했고 최근에는 네오나치에 적극 반대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br/> <br/>그라스는 자서전 ‘양파 껍질을 벗기며’에서 젊은 시절 나치에 충성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절절히 뉘우친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나치의 만행을 못 본 체한 자신의 어린 모습을 가감없이 들춰낸다. <br/> <br/>그라스는 17세에 징집돼 나치 친위대에 복무했던 사실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스스로에게 가차없이 칼날을 들이댄다. 그는 이런 사실을 느닷없이 밝힌 것이 아니라면서, 어두운 과거를 항상 인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뒤늦은 반성을 변명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살 수 있다. 자신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능한 한 숨기고 싶어했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포장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br/> <br/>그라스는 2006년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br/> <br/>“내가 진짜로 미안해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소? 그건 내가 이미 털어놓았던, 40년 동안 숨기고 싶어했던 그런 게 아니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던 것들이오. 전쟁 초기 그들은 내 사촌을 총살했고, 학교에 있는 내 급우와 교사를 데려갔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어떤 병사는 총살 집행인으로 뽑히는 것을 거부하다가 어디론가 사라졌소. 나는 그들을 향해 왜 그러느냐고도 묻지 않았고, 그들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소.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수용소로 데려갔지만, 그때마다 나는 다른 쪽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게 바로 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자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고통이었소.” <br/> <br/>그는 담담하게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자책한다. 마치 매운 양파 껍질을 벗기듯 눈을 비벼 가며 아픈 기억을 끄집어낸다. 그리고 나흘 뒤, 이 자서전을 세상에 냈다. <br/> <br/>자서전이 출간된 직후 독일 작가단체들은 그라스 제명을 거론했다. 독일인의 긍지로 여겨졌던 위대한 작가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라스는 전쟁 직후 침울한 독일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던 인물이었다. 위선자, 엉터리 노벨상 작가라고 공격하는 평론들이 나왔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br/> <br/>사실 그의 나치 복무 행적이나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 그냥 묻어놓고 위대한 인물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두운 기억을 끄집어내 양심을 속였다며 자신의 ‘과거’를 기록으로 남겼다. <br/> <br/>“나는 범죄에 가담했다. 세월이 흘러도 작아지지 않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범죄이다. 지금까지도 그 때문에 나는 병을 앓고 있다.” <br/> <br/>그라스는 자서전에서 1944∼1945년 2차 세계대전 말기 악행을 일삼았던 나치 친위대 행적들도 들춰내 후세의 사가들에게 전하고자 했다. <br/> <br/>자신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양철북 집필 과정도 담담하게 풀어낸다. 양철북에서는 1920∼1950년대 독일의 일그러진 현대사를 난쟁이 오스카 마체라트의 눈으로 묘사했다. <br/> <br/>‘암실이야기’는 그라스가 가족에게 못다한 자신을 반성하면서 쓴 자전소설이다. 전쟁으로 점철된 독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한 가정의 아버지와 남편의 모습을 그렸다. 유명한 사진사 마리(그라스)는 성인이 된 자신의 여덟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도록 한다. 자녀들의 다양한 시선을 빌려 그라스 자신의 삶과 경험을 서술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소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 전쟁 전후의 독일 사회를 비판하면서 기성 세대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br/> <br/>도서출판 민음사는 1945년 구스틀로프호 침몰 사건을 다룬 그라스의 논쟁적인 소설 ‘게걸음으로’도 조만간 출간한다. ‘독일판 타이타닉’이라 불리는 구스틀로프호는 독일 피난민 9000여명을 태우고 항해하던 중 러시아 어뢰 세 발을 맞고 침몰했다. 생존자는 1000명에 불과했고, 희생자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br/> <br/>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